파우사니아스

# 그리스 여행기

Ἑλλάδος Περιήγησις

파우사니아스 지음 · 전 10권 한국어 번역

대괄호 안의 숫자는 권 · 장 · 절을 나타낸다. 〔…〕는 전승 본문이 끊겼거나 독법을 확정하기 어려운 곳을 표시한다. 본문 안의 다른 대괄호는 문맥에 따른 보충이다.

# 목차


제1권 아티카 3

제2권 코린티아 93

제3권 라코니아 160

제4권 메세니아 204

제5권 엘리스 I 254

제6권 엘리스 II 295

제7권 아카이아 334

제8권 아르카디아 377

제9권 보이오티아 443

제10권 포키스 492

판본과 번역 주 548

# 제1권 아티카

## 제1장

**[1.1.1]** 키클라데스 제도와 에게해를 마주 보는 그리스 본토에는 아티카 땅에서 바다로 돌출한 수니온 곶이 있다. 이 곶을 돌아가면 항구가 보이고, 곶의 꼭대기에는 수니온의 아테나 신전이 있다. 더 나아가면 한때 아테네인들이 은광을 운영했던 라우리온과, 파트로클로스의 섬이라고 불리는 작은 무인도가 나온다.

이 섬에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은 파트로클로스가 그곳에 요새를 세우고 목책을 둘렀기 때문이다. 그는 라고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의 아들인 프톨레마이오스가 아테네인들을 돕기 위해 파견한 이집트 군함들을 지휘하는 제독이었다. 당시 데메트리오스의 아들 안티고노스는 육군으로 아테네인들의 영토를 침략하여 황폐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함대로 바다를 봉쇄하고 있었다.

**[1.1.2]** 페이라이에우스는 오래전부터 아테네의 한 구역이었지만, 테미스토클레스가 아테네의 아르콘이 되기 전까지는 항구로 쓰이지 않았다. 그때까지 아테네의 항구는 팔레론이었다. 그곳에서 바다가 아테네 시내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메네스테우스가 함대를 이끌고 트로이아로 출항한 곳도 여기였다고 한다. 그보다 앞서 테세우스가 안드로게오스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러 미노스에게 갔을 때 출항한 곳도 여기였다고 한다.

그러나 테미스토클레스는 아르콘이 되자, 페이라이에우스가 뱃사람들에게 위치상 더 편리하고 팔레론에는 항구가 하나뿐인 데 비해 그곳에는 셋이나 있다고 판단하여, 그곳을 아테네의 항구로 삼았다. 내가 살던 시대에도 그곳에는 선박 시설들이 남아 있었으며, 가장 큰 항구 부근에는 테미스토클레스의 무덤이 있다.

아테네인들이 테미스토클레스에게 한 일을 뉘우쳤고, 그의 친족들이 마그네시아에서 유골을 거두어 가져왔다고 한다. 적어도 테미스토클레스의 자녀들이 돌아와 파르테논에 그의 초상이 들어 있는 그림을 봉헌한 것은 확실하다.

**[1.1.3]** 페이라이에우스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아테나와 제우스의 성역이다. 두 신의 상은 모두 청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제우스는 홀과 니케상을 들고 있고 아테나는 창을 들고 있다. 이곳에는 아르케실라오스가 그린 레오스테네스와 그의 아들들의 초상화도 있다.

이 레오스테네스는 아테네군과 그리스 연합군을 지휘하여 보이오티아에서 마케도니아군을 격파했으며, 다시 테르모필라이 바깥에서 그들을 몰아붙여 오이테산 맞은편의 라미아로 쫓아 넣고 그곳에 가두었다.

그 초상화는 긴 주랑 안에 있다. 그곳에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시장이 있는데, 항구에서 더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시장이 있다. 주랑 뒤편 바다 가까운 곳에는 레오카레스가 만든 제우스상과 데모스상, 곧 시민 공동체를 의인화한 상이 서 있다.

또 바닷가에는 코논이 세운 아프로디테의 성소가 있다. 그는 카리아 반도의 크니도스 앞바다에서 라케다이몬의 군함들을 격파한 뒤 이것을 세웠다. 크니도스인들은 아프로디테를 대단히 공경하며, 여신을 위한 여러 성소를 가지고 있다. 가장 오래된 것은 도리티스, 곧 '풍요를 베푸는 여신'에게 바친 것이고, 그다음으로 오래된 것은 아크라이아, 곧 '높은 곳의 여신'에게 바친 것이다. 가장 새로운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라고 부르지만 크니도스인들 자신은 에우플로이아, 곧 '순조로운 항해의 여신'이라고 부르는 아프로디테에게 바친 것이다.

**[1.1.4]** 아테네인들에게는 무니키아에도 또 다른 항구가 있으며, 그곳에는 무니키아의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다. 앞서 말했듯 팔레론에도 항구가 있고, 그 가까이에는 데메테르의 성소가 있다.

이곳에는 아테나 스키라스의 신전도 있으며, 조금 떨어진 곳에는 제우스의 신전이 있다. 또한 '알려지지 않은 신들'이라고 불리는 신들의 제단, 영웅들의 제단, 테세우스의 자녀들과 팔레로스의 제단이 있다. 아테네인들은 이 팔레로스가 이아손과 함께 콜키스로 항해했다고 한다.

미노스의 아들 안드로게오스의 제단도 있다. 다만 이것은 '영웅의 제단'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자기 고장의 옛일을 특별히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안드로게오스의 제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1.1.5]** 그곳에서 20스타디온 떨어진 곳에는 콜리아스 곶이 있다. 페르시아 함대가 파괴되었을 때 그 잔해가 파도에 밀려온 곳이다. 이곳에는 콜리아스의 아프로디테상과, 게네틸리데스라고 불리는 출산의 여신들의 상이 있다.

내 생각에 이오니아의 포카이아인들이 겐나이데스라고 부르는 여신들은 이곳 콜리아스의 여신들과 같은 신들이다.

팔레론에서 아테네로 가는 길에는 문도 지붕도 없는 헤라 신전이 있다. 고브리아스의 아들 마르도니오스가 불태웠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그곳에 있는 신상은 알카메네스의 작품이라고 전해진다. 따라서 적어도 이 신상만큼은 페르시아인들에게 훼손된 것일 수 없다.

## 제2장

**[1.2.1]** 도시로 들어가면 아마존 안티오페의 기념물이 있다. 핀다로스에 따르면 이 안티오페는 페이리토오스와 테세우스에게 납치되었다. 그러나 트로이젠의 헤기아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헤라클레스는 테르모돈강에 있는 테미스키라를 포위했으나 함락하지 못했다. 그런데 안티오페가 헤라클레스의 원정을 돕고 있던 테세우스와 사랑에 빠져 그 요새를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헤기아스의 이야기다.

그러나 아테네인들은 아마존들이 쳐들어왔을 때 안티오페가 몰파디아의 화살에 맞았고, 몰파디아는 테세우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아테네에는 몰파디아의 기념물도 있다.

**[1.2.2]** 페이라이에우스에서 올라가다 보면 코논이 크니도스 해전 뒤에 복구한 성벽의 잔해가 보인다. 페르시아군이 물러난 뒤 테미스토클레스가 쌓았던 성벽은 이른바 30인 정권의 통치기에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길가에는 매우 유명한 무덤들이 있다. 디오페이테스의 아들 메난드로스의 무덤과 에우리피데스의 빈 무덤이 그것이다.

에우리피데스 자신은 아르켈라오스 왕에게 갔으며 마케도니아에 묻혀 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으니, 그들이 말하는 대로라고 해두자.

**[1.2.3]** 이처럼 에우리피데스의 시대에도 시인들은 왕들의 궁정에서 살았다. 그보다 앞서 아나크레온은 사모스의 참주 폴리크라테스와 교유했고, 아이스킬로스와 시모니데스는 시라쿠사의 히에론을 찾아갔다. 그 뒤 시칠리아의 참주가 된 디오니시오스의 궁정에는 필록세노스가 있었고, 마케도니아의 통치자 안티고노스에게는 로도스의 안타고라스와 솔로이의 아라토스가 있었다.

그러나 헤시오도스와 호메로스는 왕들과 교유할 기회를 얻지 못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교유를 하찮게 여겼다. 헤시오도스의 경우에는 시골 사람다운 성향과 여행을 꺼리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반면 호메로스는 먼 나라들을 두루 다녔으면서도, 참주들의 도움으로 재산을 얻는 것보다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누리는 명성을 더 중하게 여겼다.

그렇지만 호메로스 역시 자신의 시에서 데모도코스가 알키노오스의 궁정에 살게 하고, 아가멤논이 아내 곁에 시인 한 사람을 남겨두게 한다.

성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무덤 하나가 있는데, 그 위에는 말 옆에 서 있는 병사의 조각이 놓여 있다. 누구의 무덤인지는 모르지만, 말과 병사 모두 프락시텔레스가 조각한 것이다.

**[1.2.4]** 도시로 들어가면 행렬을 준비하는 건물이 있다. 이런 행렬 가운데에는 해마다 열리는 것도 있고, 그보다 긴 간격으로 열리는 것도 있다.

바로 가까이에는 데메테르 신전이 있으며, 그 안에는 여신 자신과 그 딸의 상, 그리고 횃불을 든 이아코스상이 있다. 벽에는 아티카 문자로 이것들이 프락시텔레스의 작품이라고 적혀 있다.

신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말을 탄 포세이돈이 거인 폴리보테스를 향해 창을 던지는 조각상이 있다. 이 거인과 관련해서는 코스인들 사이에 켈로네 곶에 관한 이야기가 널리 전해진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명문은 이 상이 포세이돈이 아니라 다른 인물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성문에서 케라메이코스까지는 주랑들이 이어져 있다. 그 앞에는 명성을 얻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의 청동상이 서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모두 있다.

**[1.2.5]** 주랑 가운데 하나에는 신들의 사당들과 헤르메스의 것이라고 불리는 체육장이 있다. 그 안에는 풀리티온의 집이 있다. 아테네의 유력 인사들이 이 집에서 엘레우시스의 비의를 흉내 낸 비밀 의식을 거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살던 시대에는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었다.

이 디오니소스는 멜포메노스, 곧 ‘노래하는 자’라고 불린다. 아폴론을 무사게테스, 곧 ‘무사이의 인도자’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곳에는 치유의 여신 아테나 파이오니아, 제우스, 기억의 여신 므네모시네, 무사이의 상들이 있다. 에우불리데스가 직접 만들고 봉헌한 아폴론상도 있으며, 디오니소스를 수행하는 정령 아크라토스도 있다. 다만 아크라토스는 얼굴만 벽에 만들어져 있다.

디오니소스의 성역을 지나면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는 아테네 왕 암픽티온이 디오니소스와 다른 신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나타낸 진흙 조각상들이 있다. 아테네인들에게 그 신을 모셔온 엘레우테라이의 페가소스도 표현되어 있다.

페가소스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델포이의 신탁도 도움이 되었다. 그 신탁은 이카리오스의 시대에 그 신이 이미 아테네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1.2.6]** 암픽티온은 다음과 같이 왕권을 얻었다.

지금 아티카라고 불리는 땅의 첫 왕은 악타이오스였다고 한다. 그가 죽자 사위 케크롭스가 왕위를 물려받았다. 케크롭스에게는 헤르세, 아글라우로스, 판드로소스라는 딸들과 에리식톤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먼저 죽었으므로 아테네의 왕이 되지 못했다. 케크롭스의 왕권은 아테네인들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크라나오스에게 넘어갔다.

크라나오스에게는 딸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앗티스였다고 한다. 그전까지 악타이아라고 불리던 나라가 이 딸의 이름을 따서 아티카라고 불리게 되었다.

암픽티온은 크라나오스의 딸을 아내로 맞았으면서도 그에게 반란을 일으켜 권좌에서 몰아냈다. 그러나 뒤에는 자신도 에리크토니오스와 그를 따르는 반란자들에게 쫓겨났다.

사람들은 에리크토니오스에게 인간 아버지가 없었으며, 그의 부모는 헤파이스토스와 대지였다고 한다.

## 제3장

**[1.3.1]** 케라메이코스라는 구역의 이름은 영웅 케라모스에서 비롯되었다. 이 영웅 역시 디오니소스와 아리아드네의 아들이라고 전해진다.

먼저 오른쪽에는 이른바 왕의 주랑이 있다. 해마다 임명되는 ‘왕’이라는 관직을 맡은 사람이 이곳에 자리한다.

이 주랑의 지붕에는 구운 진흙으로 만든 조각상들이 있다. 테세우스가 스키론을 바다에 던지는 모습과, 낮의 여신 헤메라가 케팔로스를 데려가는 모습이다.

케팔로스는 매우 아름다웠으며, 헤메라가 그를 사랑하여 납치했다고 한다. 그의 아들은 파에톤이었는데, 훗날 아프로디테에게 납치되어 〔본문 일부 결락〕 여신의 신전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도 전하지만, 헤시오도스 역시 여인들에 관한 시에서 이야기한다.

**[1.3.2]** 주랑 가까이에는 코논, 그의 아들 티모테오스, 그리고 키프로스의 왕 에우아고라스의 상이 서 있다.

에우아고라스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이 페니키아 군함들을 코논에게 제공하도록 주선한 인물이다. 그는 살라미스와 혈통으로 이어진 아테네인이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다. 자신의 계보가 테우크로스와 키니라스의 딸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자유의 제우스'라고 불리는 제우스상과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상도 서 있다. 하드리아누스는 모든 신민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며, 특히 아테네시에 많은 은혜를 베푼 인물이다.

**[1.3.3]** 그 뒤에는 주랑이 세워져 있으며, 그 안에는 열두 신이라고 불리는 신들의 그림이 있다. 맞은편 벽에는 테세우스와, 민주정 및 시민 공동체를 의인화한 형상들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테세우스가 아테네인들에게 정치적 평등을 부여한 인물임을 나타낸다.

테세우스가 민중에게 주권을 넘겨주었고, 그때부터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일어나 참주가 될 때까지 아테네에 민주정이 계속되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다.

그러나 대중 사이에는 잘못된 믿음이 많다. 사람들은 역사를 연구할 줄 모르고, 어려서부터 합창과 비극에서 들어온 것은 무엇이든 믿을 만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테세우스에 관한 이 이야기도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 왕이 되었으며, 나중에 메네스테우스가 죽은 뒤에는 테세우스의 후손들이 4대에 걸쳐 계속 통치했다.

내가 계보를 추적할 생각이었다면, 이들뿐 아니라 멜란토스에서 아이시미데스의 아들 클레이디코스에 이르는 왕들까지도 그 목록에 넣었을 것이다.

**[1.3.4]** 이곳에는 라케다이몬인들을 돕기 위해 파견된 아테네인들이 만티네이아 부근에서 세운 전공을 묘사한 그림도 있다.

크세노폰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그 전쟁 전체를 기록했다. 카드메이아의 점령, 레욱트라에서 라케다이몬인들이 당한 패배, 보이오티아인들이 펠로폰네소스로 침입한 경위, 그리고 아테네인들이 라케다이몬인들에게 보낸 지원군에 관한 기록이다.

그림에 묘사된 것은 기병전이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아테네인들 쪽에서는 크세노폰의 아들 그릴로스이고, 보이오티아 기병 쪽에서는 테바이의 에파미논다스다.

이 그림들은 에우프라노르가 아테네인들을 위해 그렸다. 가까운 신전에 있는 파트로오스, 곧 '조상의 신'이라는 별칭의 아폴론상도 그의 작품이다.

신전 앞에는 레오카레스가 만든 아폴론상이 있고, 또 하나의 아폴론상은 칼라미스가 만들었는데 '재앙을 물리치는 자'라고 불린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아테네인들을 괴롭힌 역병을 델포이의 신탁을 통해 그 신이 멈추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1.3.5]** 이곳에는 신들의 어머니를 위한 성소도 세워져 있다. 신상은 페이디아스의 작품이다.

가까이에는 이른바 500인 평의회의 회의장이 있다. 이들은 임기가 1년인 아테네의 평의원들이다.

그 안에는 나무로 만든 '평의회의 제우스' 상, 페이시아스가 만든 아폴론상, 그리고 뤼손이 그린 데모스가 있다.

법을 관장하는 관리들인 테스모테타이의 모습은 카우노스의 프로토게네스가 그렸으며, 올비아데스는 칼립포스의 초상을 그렸다. 칼립포스는 갈리아인들의 그리스 침입을 막기 위해 아테네군을 이끌고 테르모필라이로 간 인물이다.

## 제4장

**[1.4.1]** 이 갈리아인들은 유럽의 가장 먼 지역에 산다. 그들이 사는 곳 가까이에는 끝까지 항해할 수 없는 거대한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으며, 다른 바다의 생물들과는 전혀 다른 생물들이 산다.

그들의 나라를 가로질러 에리다노스강이 흐른다. 태양신 헬리오스의 딸들이 그 강가에서 형제 파에톤에게 닥친 운명을 슬퍼한다고 전해진다.

'갈리아인'이라는 이름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은 비교적 뒤의 일이다. 옛날에는 그들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켈트인이라고 불렀다.

그들 가운데 한 군대가 모여 이오니아해 쪽으로 진군했다. 그들은 일리리아인들과, 마케도니아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살던 모든 민족을 몰아냈으며, 마케도니아인들까지 물리치고 테살리아를 휩쓸었다.

그들이 테르모필라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도 그리스인들은 대체로 이 이민족의 침입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전부터 알렉산드로스와 필리포스에게 참혹한 패배를 당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중에는 안티파트로스와 카산드로스까지 그리스인들을 짓눌렀다. 그리하여 각 도시는 쇠약해진 나머지 나라를 지키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1.4.2]** 그러나 아테네인들은 오랜 마케도니아 전쟁 때문에 다른 어느 그리스인들보다 더 지쳐 있었고, 전투에서도 대체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면서도, 자신들과 함께하려는 그리스인들과 더불어 테르모필라이로 출정했다. 그들은 앞서 말한 칼립포스를 장군으로 삼았다.

그들은 통로가 가장 좁은 곳을 차지하고 이방인들이 그리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켈트인들은 옛날 트라키스의 에피알테스가 페르시아군을 인도했던 길을 찾아냈다. 그곳에 배치된 포키스군을 압도한 뒤, 그리스인들 몰래 오이테산을 넘어왔다.

**[1.4.3]** 바로 이때 아테네인들은 그리스인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었다. 측면을 우회당했으면서도 양쪽에서 이방인들에게 맞서 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을 겪은 것은 함대에 있던 아테네인들이었다. 라미아만은 테르모필라이 가까운 곳에서 진흙탕을 이루는데, 내 생각에는 이곳의 뜨거운 물이 바다로 흘러들기 때문인 듯하다.

이들은 그리스군을 배에 태운 뒤 무기와 사람의 무게까지 실은 채 그 진흙탕을 통과하여 항해해야 했으므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었다.

**[1.4.4]** 이처럼 그들은 그리스를 구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미 관문 남쪽으로 넘어온 갈리아인들은 다른 도시들을 점령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델포이와 그 신의 보물들을 약탈하는 데 열중했다.

그들에게 맞선 것은 델포이인들 자신과 파르나소스산 주변 도시들의 포키스인들이었다. 아이톨리아군도 방어군에 합류했다. 당시 아이톨리아인들은 왕성한 활동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전투가 벌어지자 갈리아인들에게 벼락이 떨어지고 파르나소스산에서 떨어져 나온 바위들이 날아들었을 뿐 아니라, 무장한 전사들의 모습을 한 무시무시한 형상들이 이방인들 앞에 나타났다.

그 가운데 히페로코스와 아마도코스라는 두 사람은 히페르보레오이에게서 왔고, 세 번째는 아킬레우스의 아들 피로스였다고 한다.

이렇게 전투를 도와준 까닭에 델포이인들은 피로스에게 영웅으로서 제사를 지낸다. 이전에는 그를 적으로 여겨 그의 무덤조차 업신여겼는데도 말이다.

**[1.4.5]** 갈리아인들의 대부분은 배를 타고 아시아로 건너가 그 해안 지방을 약탈했다.

얼마 뒤, 옛날 테우트라니아라고 불렸던 페르가몬의 주민들이 갈리아인들을 바닷가에서 내륙으로 몰아냈다. 이 민족은 상가리오스강 건너편의 땅을 차지했고, 옛날 고르디오스의 아들 미다스가 세웠던 프리기아의 도시 앙키라를 점령했다.

미다스가 발견했다는 닻은 내가 살던 시대까지도 제우스의 성소에 있었다. 미다스의 샘이라고 불리는 샘도 있었는데, 미다스는 그 샘물을 포도주와 섞어 실레노스를 붙잡았다고 한다.

아무튼 페르가몬인들은 앙키라와, 아그디스티스산 아래에 있는 페시누스를 점령했다. 아티스가 묻혀 있다고 전해지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1.4.6]** 그들에게는 갈리아인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들과, 그들과 싸워 세운 전공을 묘사한 그림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땅이 옛날에는 카베이로이 신들에게 바쳐진 땅이었다고 하며, 자신들은 텔레포스와 함께 아시아로 건너온 아르카디아인들의 후손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치른 전쟁들에 관해서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기록이 없다. 다만 그들이 세 가지 매우 주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하나는 아시아의 해안 지방을 복속시킨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곳에서 갈리아인들을 몰아낸 일이다. 또 하나는 그리스인들이 트로이아를 찾지 못하고 메이온 평야를 트로이아의 영

토로 잘못 알아 약탈하던 때, 텔레포스가 아가멤논의 군대에 맞서 세운 전공이다.

이제 곁길로 벗어난 이야기를 마치고 본래 이야기로 돌아가겠다.

## 제5장

**[1.5.1]** 500인 평의회의 회의장 가까이에는 톨로스, 곧 '둥근 집'이라고 불리는 건물이 있다. 이곳에서는 의장단이 제사를 지내며, 은으로 만든 작은 상들이 몇 개 있다.

그보다 위쪽에는 영웅들의 상이 서 있다. 뒤에 아테네의 부족들은 이 영웅들의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얻었다.

기존의 네 부족 대신 열 부족을 만들고, 옛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꾼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헤로도토스가 모두 이야기해두었다.

**[1.5.2]** 이 영웅들은 '에포니모이', 곧 이름을 물려준 이들이라고 불린다.

그들은 포세이돈과 케르키온의 딸 알로페 사이에서 태어난 히포토온, 헤라클레스와 필라스의 딸 메다 사이에서 태어난 안티오코스, 그리고 세 번째로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다.

또 아테네인인 레오스도 있다. 그는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 신탁의 명령에 따라 자기 딸들을 내주었다고 한다.

에포니모이 가운데에는 에레크테우스도 있다. 그는 전투에서 엘레우시스인들을 이기고 그들의 장군인 에우몰포스의 아들 임마라도스를 죽였다.

아이게우스와 판디온의 서자 오이네우스, 그리고 테세우스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아카마스도 있다.

**[1.5.3]** 나는 에포니모이 가운데 케크롭스와 판디온의 상도 보았다. 그러나 같은 이름을 가진 인물들 가운데 누구를 기려 세운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케크롭스라는 이름의 통치자로는 악타이오스의 딸과 결혼한 이른 시대의 인물이 있고, 뒤 시대의 인물도 있기 때문이다. 뒤의 케크롭스는 에리크토니오스의 아들 판디온의 아들 에레크테우스의 아들로서, 에우보이아로 이주한 사람이다.

판디온이라는 왕도 에리크토니오스의 아들과, 두 번째 케크롭스의 아들이 각각 있었다.

뒤의 판디온은 메티온의 후손들에게 왕위를 빼앗겼다. 그는 메가라 왕 필라스의 딸과 결혼한 사이였으므로 메가라로 달아났고, 그의 자녀들도 함께 추방되었다.

판디온은 그곳에서 병들어 죽었다고 한다. 그의 무덤은 메가라 지방의 해안에 있는, '바다새 아테나의 바위'라고 불리는 바위 위에 있다.

**[1.5.4]**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메티온의 후손들을 몰아내고 메가라에서의 망명 생활을 끝낸 뒤 돌아왔다. 그 가운데 맏이였던 아이게우스가 아테네의 왕이 되었다.

하지만 딸들에게 관한 한 판디온의 운은 좋지 않았다. 그 딸들은 그를 위해 복수할 아들들도 남기지 못했다. 그런데도 그가 트라키아 왕과 혼인 관계를 맺은 것은 권세를 얻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신이 내리기로 한 일을 인간이 피할 길은 없다.

테레우스는 프로크네와 결혼했으면서도 필로멜라를 욕보여 그리스의 관습을 어겼고, 더 나아가 그 처녀의 몸을 훼손함으로써 여자들이 복수에 나서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아크로폴리스에는 볼 만한 판디온상이 또 하나 있다.

**[1.5.5]** 지금까지 말한 이들이 옛 시대에 속하는 아테네의 에포니모이다.

이들보다 뒤 시대에는 미시아의 아탈로스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름을 딴 부족들이 생겼고, 내가 살던 시대에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이름을 딴 부족도 생겼다.

하드리아누스는 신을 공경하는 일에 대단히 경건했으며, 자신이 다스리는 여러 민족의 행복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

그는 자진해서 전쟁을 시작한 적은 없었지만, 시리아 너머에서 반란을 일으킨 히브리인들은 진압했다.

그가 어떤 신들의 성소는 처음부터 새로 세우고, 다른 성소는 봉헌물과 기물로 장식한 일, 그리스의 도시들에 베푼 은혜, 때로는 청원을 해온 이방인들에게까지 베푼 은혜는 모두 아테네에 있는 만신의 성소에 그의 명예를 기리는 글로 새겨져 있다.

## 제6장

**[1.6.1]** 아탈로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역사는 더 오래전의 일이어서, 이제는 그들에 관한 전승이 남아 있지 않다. 그 왕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업적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저술도, 전승이 사라지기 전부터 이미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나도 그들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이집트인들과 미시아인들, 그리고 그 이웃 민족들에 대한 왕권이 어떻게 그들의 아버지들 손에 들어갔는지를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6.2]** 마케도니아인들은 프톨레마이오스가 명목상으로는 라고스의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아민타스의 아들 필리포스의 아들이라고 여긴다. 필리포스가 그의 어머니를 라고스와 결혼시켰을 때, 그 여자는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것이다.

또 그들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아시아에서 세운 뛰어난 공적 가운데 하나로, 알렉산드로스가 옥시드라카이인들 사이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그의 동료들 가운데 맨 앞장서서 구하러 간 사람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였다는 점을 든다.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뒤에는, 그의 제국 전체를 필리포스의 아들 아리다이오스에게 넘겨주려던 사람들에게 반대함으로써 여러 민족의 땅이 각각의 왕국으로 나뉘게 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1.6.3]** 그는 직접 이집트로 건너가, 알렉산드로스가 그 나라의 총독으로 임명했던 클레오메네스를 죽였다. 클레오메네스가 페르디카스의 친구이므로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알렉산드로스의 시신을 아이가이로 옮기는 임무를 맡은 마케도니아인들을 설득하여 그 시신을 자신에게 넘기게 했다.

그는 멤피스에서 마케도니아의 의례에 따라 시신을 매장했다. 그러나 페르디카스가 전쟁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알고 이집트에 수비군을 배치해두었다.

페르디카스는 필리포스의 아들 아리다이오스와, 옥시아르테스의 딸 록사네가 알렉산드로스에게 낳아준 어린 알렉산드로스를 데리고 왔다. 겉으로는 이들을 원정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프톨레마이오스에게서 이집트의 왕국을 빼앗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집트에서 쫓겨났고, 군인으로서의 명성을 잃었으며, 그 밖의 일들로도 마케도니아인들의 인심을 잃은 끝에 자신의 호위병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1.6.4]** 페르디카스가 죽자 프톨레마이오스의 세력은 곧바로 강해졌다.

그는 시리아인들과 페니키아를 복속시켰고, 안티고노스에게 쫓겨나 망명 중이던 안티오코스의 아들 셀레우코스를 받아들였다. 또한 자신도 안티고노스를 공격할 준비를 했다.

그는 안티파트로스의 아들 카산드로스와 트라키아의 왕 리시마코스를 설득하여 전쟁에 참여시켰다. 셀레우코스가 망명자가 된 일과, 안티고노스의 세력 확장이 그들 모두에게 위험하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1.6.5]** 안티고노스는 한동안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그 결과를 전혀 낙관하지 못했다.

그러나 키레네의 반란 때문에 프톨레마이오스가 리비아로 갔다는 소식을 듣자, 곧바로 기습하여 시리아인들과 페니키아인들을 복속시켰다. 그런 다음 그들을 자기 아들 데메트리오스에게 맡기고 헬레스폰토스로 내려갔다. 데메트리오스는 젊었지만 이미 사려 깊다는 평판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안티고노스는 데메트리오스가 전투에서 프톨레마이오스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해협을 건너지 않은 채 군대를 돌렸다.

데메트리오스는 프톨레마이오스 앞에서 그 지방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이집트군의 한 부대를 기습하여 그 가운데 얼마를 죽이기도 했다.

그 뒤 안티고노스가 도착하자 프톨레마이오스는 그를 기다리지 않고 이집트로 돌아갔다.

**[1.6.6]** 겨울이 지나자 데메트리오스는 키프로스로 항해했다. 그는 해전에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총독 메넬라오스를 물리쳤고, 뒤이어 그를 돕기 위해 건너온 프톨레마이오스 자신도 격파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로 달아났다. 그곳에서 그는 육지에서는 안티고노스에게, 바다에서는 함대를 이끈 데메트리오스에게 포위되었다.

그러나 극심한 위험 속에서도 펠루시온에 육군을 배치하여 버티고, 강에서는 군함으로 맞서 싸워 자신의 지배권을 지켜냈다.

안티고노스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집트를 정복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함대와 대군을 주어 데메트리오스를 로도스인들에게 보냈다. 그 섬을 차지하면 이집트인들을 공격하는 기지로 삼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로도스인들은 포위군에 맞서 용기와 기지를 발휘했고, 프톨레마이오스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력으로 그들을 도왔다.

[1.6.7] 이처럼 안티고노스는 이집트도, 그 뒤에는 로도스도 정복하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리시마코스, 카산드로스, 셀레우코스의 군대와 싸웠다가 병력 대부분을 잃고 자신도 죽었다. 그가 큰 타격을 입은 데에는 에우메네스와 오랫동안 전쟁을 치른 것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했다.

안티고노스를 쓰러뜨린 왕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자는 카산드로스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는 안티고노스의 도움으로 마케도니아의 왕권을 되찾았으면서도, 은혜를 베푼 그를 상대로 싸우러 왔기 때문이다.

[1.6.8] 안티고노스가 죽은 뒤 프톨레마이오스는 시리아인들과 키프로스를 다시 복속시켰고, 본토의 테스프로티아에서는 피로스를 복위시켰다.

키레네에서는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당시 프톨레마이오스와 결혼해 있던 베레니케의 아들 마가스가 반란 5년째에 키레네를 함락했다.

만일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정말로 아민타스의 아들 필리포스의 아들이었다면, 여자에 대한 정열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음이 틀림없다.

그는 안티파트로스의 딸 에우리디케와 결혼하여 자녀들까지 두었으면서도, 안티파트로스가 에우리디케와 함께 이집트로 보낸 베레니케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그는 이 여자를 사랑하여 자녀들을 얻었으며,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안티파트로스의 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베레니케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이집트 왕국을 남겼다.

아테네인들이 자기 부족의 이름을 딴 인물은 바로 이 프톨레마이오스다.

## 제7장

[1.7.1]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친누이 아르시노에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이 일에서 그는 마케도니아의 관습을 어겼지만, 자신의 신민인 이집트인들의 관습은 따른 셈이었다.

다음으로 그는 형제 아르가이오스를 죽였다. 아르가이오스가 자신에게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한다.

알렉산드로스의 시신을 멤피스에서 옮겨온 사람도 이 프톨레마이오스다.

그는 에우리디케의 아들인 또 다른 형제도 죽였다. 그가 키프로스인들 사이에서 반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한편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부형제인 마가스는 어머니 베레니케에게서 키레네의 통치를 맡고 있었다. 베레니케는 미천한 집안 출신으로 별다른 명성이 없던 마케도니아인 필리포스에게서 마가스를 낳았다.

이 마가스가 키레네인들을 선동하여 프톨레마이오스에게 반기를 들게 하고, 이집트를 향해 진군했다.

**[1.7.2]**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로 들어오는 입구를 요새화하고 키레네군의 공격을 기다렸다.

그러나 마가스는 행군 도중 리비아의 유목민인 마르마리다이족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키레네로 되돌아갔다.

프톨레마이오스는 그를 추격하려고 했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는 마가스의 공격에 대비하면서 용병들을 고용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약 4천 명의 갈리아인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를 차지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자, 강을 따라 그들을 사람이 살지 않는 섬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서로 죽이거나 굶주려 죽었다.

**[1.7.3]** 마가스는 셀레우코스의 아들 안티오코스의 딸 아파메와 결혼한 사이였다. 그는 안티오코스를 설득하여, 그 아버지 셀레우코스가 프톨레마이오스와 맺은 조약을 깨고 이집트를 공격하게 했다.

안티오코스가 공격하기로 결정하자, 프톨레마이오스는 안티오코스의 지배를 받는 모든 민족을 상대로 병력을 보냈다. 약한 민족들의 땅에는 약탈 부대를 보내 휩쓸게 했고, 강한 민족들은 군대로 견제했다. 그 때문에 안티오코스는 이집트를 공격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안티고노스와 마케도니아인들에 맞서 아테네인들을 돕기 위해 함대를 보냈다는 사실은 이미 말했다. 그러나 그 함대는 아테네를 구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의 자녀들은 누이 아르시노에가 아니라, 리시마코스의 딸인 또 다른 아르시노에에게서 태어났다.

그와 결혼했던 누이는 그보다 먼저 자녀를 남기지 못한 채 죽었다. 이집트에는 그녀의 이름을 따서 아르시노이테스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다.

## 제8장

**[1.8.1]** 여기에서 아탈로스에 관한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 역시 아테네의 에포니모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안티고노스의 장군이었던 도키모스라는 마케도니아인이 있었다. 그는 뒤에 자신과 재산을 모두 리시마코스에게 넘겼는데, 그에게는 필레타이로스라는 파플라고니아 출신 환관이 있었다.

필레타이로스가 리시마코스에게 반기를 들면서 한 일들과, 셀레우코스의 호의를 얻은 경위는 리시마코스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설명하겠다.

아탈로스의 아들이며 필레타이로스의 조카인 아탈로스는 사촌 에우메네스에게서 왕국을 넘겨받았다.

그가 이룬 가장 큰 업적은 갈리아인들을 바닷가에서 몰아내어, 그들이 지금도 차지하고 있는 내륙 지방으로 물러나게 한 것이다.

**[1.8.2]** 에포니모이의 상들을 지나면 신들의 상들이 나온다. 암피아라오스상과, 부의 신인 어린 플루토스를 안고 있는 평화의 여신 에이레네상이 있다.

이곳에는 리코프론의 아들 리쿠르고스의 청동상과 칼리아스의 청동상도 서 있다. 대다수 아테네인의 말에 따르면, 칼리아스는 그리스인들과 크세르크세스의 아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사이의 평화를 성사시킨 인물이다.

데모스테네스의 상도 이곳에 있다.

아테네인들은 그를 트로이젠 앞바다의 섬 칼라우레이아로 물러나게 했고, 그 뒤 다시 받아들였다가 라미아에서 참패한 뒤에 또다시 추방했다.

**[1.8.3]** 두 번째로 추방된 데모스테네스는 다시 칼라우레이아로 건너가 그곳에서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그리스의 망명자들 가운데 아르키아스가 안티파트로스와 마케도니아인들에게 끌고 가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 아르키아스는 투리오이 출신이었다. 그는 그리스인들이 테살리아에서 패배하기 전에 마케도니아인들에게 맞섰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벌받도록 안티파트로스에게 넘기는 혐오스러운 일을 맡았다.

아테네를 향한 그토록 큰 헌신에 대해 데모스테네스가 받은 보답은 이러했다.

민주정 아래 민중의 신의를 믿고 아낌없이 정치에 투신한 사람 가운데 행복한 죽음을 맞은 사람은 없다는 말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1.8.4]** 데모스테네스의 상 가까이에는 아레스의 성소가 있다. 그 안에는 아프로디테상 두 개, 알카메네스가 만든 아레스상 하나, 그리고 로크로스라는 파로스인이 만든 아테나상 하나가 놓여 있다.

프락시텔레스의 아들들이 만든 에니오상도 있다.

신전 둘레에는 헤라클레스상, 테세우스상, 머리에 띠를 두르는 아폴론상이 서 있다. 아테네인들을 위해 법률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칼라데스의 상과 핀다로스의 상도 있다.

핀다로스의 상은 그가 노래로 아테네인들을 찬양한 데 대해 아테네인들이 준 보답 가운데 하나다.

**[1.8.5]** 바로 가까이에는 히파르코스를 죽인 하르모디오스와 아리스토게이톤의 상이 서 있다.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와 실행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이야기했다.

이 상들 가운데 일부는 크리티오스가 만들었고, 오래된 상들은 안테노르의 작품이다.

아테네인들이 도시를 비운 뒤 크세르크세스가 아테네를 점령했을 때, 그는 전리품과 함께 이 상들도 가져갔다. 그러나 나중에 안티오코스가 아테네인들에게 돌려주었다.

**[1.8.6]** 오데이온, 곧 음악당이라고 부르는 극장의 입구 앞에는 이집트 왕들의 상이 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각자 별칭이 있다.

한 사람은 필로메토르, 곧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라고 불리고, 다른 사람은 필라델포스, 곧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불린다. 라고스의 아들은 소테르, 곧 '구원자'라고 불리는데, 로도스인들이 붙여준 이름이다.

이 가운데 필라델포스는 앞서 에포니모이 가운데 하나로 언급한 인물이다. 그의 상 가까이에는 누이 아르시노에의 상이 있다.

## 제9장

**[1.9.1]** 필로메토르라고 불리는 사람은 라고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로부터 여덟 번째에 해당하는 후손이다.

그의 별칭은 비꼬아 조롱하려고 붙인 것이다. 우리가 아는 왕들 가운데 그토록 어머니에게 미움을 받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녀들 가운데 맏이였지만, 어머니는 그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았다. 왕위 계승의 때가 오기 전에 아버지를 설득하여 그를 키프로스로 보내게 했다.

클레오파트라가 아들을 미워한 이유로 거론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작은아들 알렉산드로스가 자신에게 더 고분고분하리라고 기대했다는 것이다.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녀는 이집트인들에게 알렉산드로스를 왕으로 뽑으라고 권했다.

**[1.9.2]** 민중이 반대하자, 그녀는 알렉산드로스를 다시 키프로스로 보냈다.

겉으로는 장군으로 보낸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를 이용하여 프톨레마이오스가 자신을 더욱 두려워하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자기에게 가장 충성한다고 생각한 환관들에게 온통 상처를 입힌 뒤 민중 앞에 내보였다. 그리고 자신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음모에 희생되고 있으며, 환관들에게 이런 짓을 한 것도 그라고 주장했다.

알렉산드리아의 민중은 프톨레마이오스를 죽이려고 몰려들었다. 그가 배를 타고 달아나자, 키프로스에서 돌아온 알렉산드로스를 왕으로 삼았다.

**[1.9.3]** 프톨레마이오스를 추방한 데 대한 응징은 클레오파트라 자신에게 닥쳤다. 그녀 자신이 이집트의 왕으로 만든 알렉산드로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 일이 드러나자 알렉산드로스는 시민들이 두려워 달아났고, 프톨레마이오스는 돌아와 두 번째로 이집트의 지배권을 차지했다.

그는 반란을 일으킨 테바이인들과 전쟁을 벌였다. 반란이 일어난 지 2년 뒤 그들을 정복한 다음, 너무도 가혹하게 다루어 이전 번영의 흔적조차 남지 않게 했다.

그들의 번영은 한때 대단하여, 가장 부유한 그리스인들인 델포이의 성소와 오르코메노스인들보다도 재산이 많을 정도였다.

얼마 뒤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정해진 운명을 맞았다. 아테네인들은 그에게서 여러 방면으로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일들을 여기서 일일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다. 그들은 그와 그의 유일한 적출 자녀인 베레니케의 청동상을 세웠다.

**[1.9.4]** 이집트인들의 상 다음에는 필리포스와 그 아들 알렉산드로스의 상이 있다.

이 두 사람의 생애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다른 이야기의 곁가지로 다루기에는 너무나 중대하다.

이집트 왕들에게 주어진 영예는 그들을 참으로 존경했기 때문이며, 그들이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필리포스와 알렉산드로스에게 주어진 영예는 오히려 민중의 아첨에서 비롯되었다.

리시마코스의 상을 세운 것 역시 호의에서라기보다는 당장의 이익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5]** 이 리시마코스는 태생이 마케도니아인이었으며, 알렉산드로스의 호위병 가운데 하나였다.

알렉산드로스는 언젠가 화가 나서 그를 사자와 함께 방 안에 가두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리시마코스가 그 짐승을 제압한 뒤였다.

그 뒤 알렉산드로스는 언제나 그를 존중했고, 가장 고귀한 마케도니아인들 못지않게 대우했다.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뒤 리시마코스는 마케도니아와 이웃한 트라키아인들 가운데, 알렉산드로스와 그보다 앞서 필리포스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을 다스렸다.

그러나 이들은 트라키아 전체로 보면 작은 일부에 불과했다.

민족 전체의 인구를 서로 비교한다면 켈트인을 제외하고는 트라키아인 전체보다 수가 많은 민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 이전에는 누구도 트라키아인 전체를 복속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트라키아 전역을 정복했다. 그들은 켈트인들의 땅도 차지할 가치가 있는 곳은 지배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춥거나 메말라 쓸모없다고 여기는 지역은 일부러 내버려두었다.

**[1.9.6]** 그 뒤 리시마코스는 이웃 민족들과 전쟁을 벌였다. 먼저 오드리사이인들과, 다음에는 게타이인들 및 드로미카이테스와 싸웠다.

그는 전쟁에 익숙하고 수적으로도 자기 군대보다 훨씬 우세한 적과 맞붙었다. 자신은 극도로 위험한 처지에서 벗어났지만,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종군했던 아들 아가토클레스는 게타이인들에게 사로잡혔다.

리시마코스는 그 뒤에도 다른 패배들을 겪었다. 그는 아들이 사로잡힌 일을 매우 중대하게 여겨 드로미카이테스와 평화를 맺었다.

그는 이스트로스강 너머에 있던 자신의 영토를 게타이 왕에게 넘겼고, 주로 강요에 못 이겨 자신의 딸까지 아내로 주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사로잡힌 것이 아가토클레스가 아니라 리시마코스 자신이었다고 한다. 아가토클레스가 그를 대신하여 게타이 왕과 협상한 덕분에 자유를 되찾았다는 것이다.

돌아온 뒤 그는 라고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와 에우리디케 사이에서 태어난 리산드라를 아가토클레스와 결혼시켰다.

**[1.9.7]** 그는 또한 함대를 이끌고 아시아로 건너가 안티고노스의 지배권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보탰다.

그는 지금의 에페소스를 해안까지 이어지는 도시로 건설했다. 레베도스와 콜로폰을 파괴하고 그 주민들을 이곳으로 옮겨 정착시켰다. 그래서 이암보스 시인 포이닉스는 콜로폰의 함락을 슬퍼하는 시를 지었다.

내 생각에 애가 시인 헤르메시아낙스는 그때 이미 살아 있지 않았던 것 같다. 살아 있었다면 그 역시 콜로폰의 함락에 마음이 움직여 반드시 애가를 지었을 것이다.

리시마코스는 아이아키데스의 아들 피로스와도 전쟁을 벌였다.

그는 피로스가 에페이로스를 떠나기를 기다렸다. 피로스는 이곳저곳으로 나다니기를 몹시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에페이로스를 황폐하게 만들며 왕들의 무덤이 있는 곳까지 진격했다.

**[1.9.8]** 그다음 이야기는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카르디아의 히에로니모스는 리시마코스가 그 무덤들을 파괴하고 죽은 이들의 뼈를 내던졌다고 기록한다.

그러나 이 히에로니모스는 일반적으로 안티고노스를 제외한 모든 왕에게 편견을 품고, 안티고노스에게는 부당할 만큼 편파적이었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다.

에페이로스의 무덤들이 당했다는 일에 관해서도, 마케도니아인이 죽은 이들의 무덤을 모독했다고 그가 기록한 것은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리시마코스는 그들이 피로스뿐 아니라 알렉산드로스의 조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알렉산드로스는 어머니 쪽으로 에페이로스인이며 아이아코스의 후손이었다.

또한 나중에 피로스와 리시마코스가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은, 두 사람이 적이었을 때에도 서로 화해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히에로니모스는 리시마코스에게 원한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특히 리시마코스가 카르디아인들의 도시를 파괴하고, 그 대신 트라키아의 케르소네소스 지협에 리시마케이아를 세운 일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 제10장

**[1.10.1]** 아리다이오스가 다스리던 동안과, 그 뒤 카산드로스 및 그의 아들들이 다스리던 동안에는 리시마코스와 마케도니아 사이에 우호 관계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안티고노스의 아들 데메트리오스에게 왕권이 넘어가자, 리시마코스는 이제 데메트리오스가 자신에게 전쟁을 걸어오리라고 예상하고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데메트리오스가 아버지에게서 영토를 넓히려는 성향을 물려받았음을 알고 있었다. 또한 데메트리오스가 카산드로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의 요청을 받고 마케도니아로 왔다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알렉산드로스를 죽이고 대신 마케도니아인들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1.10.2]** 그리하여 그는 암피폴리스에서 데메트리오스와 맞붙었다가 트라키아에서 쫓겨날 뻔했다.

그러나 피로스가 그를 도우러 오자 트라키아를 장악했고, 그 뒤에는 네스토스강 일대의 주민들과 마케도니아인들의 땅까지 차지하여 지배 영역을 넓혔다.

마케도니아의 대부분은 피로스 자신이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에페이로스에서 군대를 이끌고 왔으며, 그때에는 리시마코스와 우호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데메트리오스가 아시아로 건너가 셀레우코스와 전쟁을 벌인 뒤, 피로스와 리시마코스의 동맹은 데메트리오스가 싸움을 계속하는 동안에만 유지되었다.

데메트리오스가 셀레우코스에게 항복하자 리시마코스와 피로스의 우정도 깨졌다.

전쟁이 일어나자 리시마코스는 데메트리오스의 아들 안티고노스 및 피로스 자신과 싸웠다. 그는 싸움에서 크게 우세를 차지하여 마케도니아를 정복하고 피로스를 에페이로스로 물러나게 했다.

**[1.10.3]** 사랑은 흔히 사람들에게 많은 재앙을 가져다준다.

리시마코스는 이때 이미 나이가 많았고 자녀들 덕분에 행복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아가토클레스도 리산드라에게서 자녀들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도 리시마코스는 리산드라의 자매 아르시노에와 결혼했다.

이 아르시노에는 자기 자녀들을 걱정했다. 리시마코스가 죽으면 그들이 아가토클레스의 손에 들어갈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아가토클레스를 해칠 음모를 꾸민 것은 이 때문이었다고 한다.

역사가들은 이미 아르시노에가 아가토클레스를 사랑하게 되었으며,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의 목숨을 노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들은 리시마코스가 뒤늦게 아내의 음모를 알아차렸지만, 그때에는 이미 친구들을 모두 잃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도 한다.

**[1.10.4]** 리시마코스가 아르시노에의 아가토클레스 살해를 묵인하자, 리산드라는 자녀들과 형제들을 데리고 셀레우코스에게 달아났다.

그 형제들은 프톨레마이오스 곁으로 피신하려 하다가 결국 이런 길을 택했다.

리시마코스와 오드리사이족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알렉산드로스도 그들과 함께 셀레우코스에게 달아났다.

그들은 바빌론으로 올라가 셀레우코스에게 리시마코스와 전쟁을 벌여달라고 간청했다.

동시에 리시마코스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던 필레타이로스는 아가토클레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아르시노에가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의심하여 카이코스강에 있는 페르가몬을 차지했

다.

그는 전령을 보내 자신과 그 재산을 모두 셀레우코스에게 넘기겠다고 제안했다.

**[1.10.5]** 리시마코스는 이 모든 일을 듣자 지체하지 않고 아시아로 건너갔다.

그는 선수를 쳐 셀레우코스와 맞붙었지만 크게 패하고 죽었다.

오드리사이족 여인에게서 태어난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는 리산드라에게 오랫동안 간청한 끝에 아버지의 시신을 넘겨받았다.

그 뒤 시신을 케르소네소스로 옮겨 매장했다. 그 무덤은 지금도 카르디아 마을과 파크티에 사이에서 볼 수 있다. Description of Greece: Book 1, Attica

## 제11장

**[1.11.1]** 리시마코스의 역사는 이와 같다. 아테네인들에게는 피로스의 상도 있다. 이 피로스와 알렉산드로스는 먼 조상을 공유할 뿐, 가까운 친족 관계는 아니었다.

피로스는 아리바스의 아들 아이아키데스의 아들이었고, 알렉산드로스는 네옵톨레모스의 딸 올림피아스의 아들이었다. 네옵톨레모스와 아리바스의 아버지는 타리포스의 아들 알케타스였다. 타리포스에서 아킬레우스의 아들 피로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5대가 된다.

아킬레우스의 아들 피로스는 트로이아가 함락된 뒤 테살리아로 돌아가는 것을 마다하고, 헬레노스의 신탁에 따라 에페이로스로 항해하여 그곳에 정착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피로스는 헤르미오네에게서는 자녀를 얻지 못했지만, 안드로마케에게서는 몰로소스, 피엘로스, 그리고 막내 페르가모스를 얻었다. 피로스가 델포이에서 살해된 뒤 안드로마케와 결혼한 헬레노스에게도 케스트리노스라는 아들이 있었다.

**[1.11.2]** 헬레노스는 죽으면서 피로스의 아들 몰로소스에게 왕국을 넘겼다. 그러자 케스트리노스는 자원해서 따르는 에페이로스인들을 데리고 티아미스강 너머의 지방을 차지했다.

페르가모스는 아시아로 건너가 테우트라니아의 참주 아레이오스를 죽였다. 아레이오스는 왕국을 걸고 그와 일대일로 싸웠다. 페르가모스는 그 도시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으며, 그곳은 지금도 그 이름으로 불린다. 그와 함께 갔던 안드로마케의 사당도 아직 그 도시에 있다.

피엘로스는 에페이로스에 남았다. 아이아키데스의 아들 피로스와 그의 선조들은 몰로소스가 아니라 이 피엘로스를 자신들의 조상으로 삼았다.

**[1.11.3]** 타리포스의 아들 알케타스 때까지는 에페이로스 역시 한 왕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알케타스의 아들들은 다툼 끝에 동등한 권한으로 통치하기로 합의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그 뒤 네옵톨레모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루카니아인들 사이에서 죽고, 올림피아스가 안티파트로스를 두려워하여 에페이로스로 돌아왔을 때, 아리바스의 아들 아이아키데스는 올

림피아스에게 계속 충성을 바쳤다. 에페이로스인들이 따라나서기를 거부했는데도, 그는 아리다이오스와 마케도니아인들을 상대로 한 그녀의 원정에 참여했다.

**[1.11.4]** 올림피아스는 승리를 거둔 뒤 아리다이오스를 죽이는 일에서 사악하게 행동했으며, 일부 마케도니아인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사악하게 행동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나중에 그녀가 카산드로스에게 당한 일이 마땅한 응보였다고 여겼다.

에페이로스인들은 올림피아스를 미워했으므로 처음에는 아이아키데스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중에 그들이 그를 용서했을 때에는, 이번에는 카산드로스가 그의 에페이로스 귀환을 가로막았다.

카산드로스의 형제 필리포스와 아이아키데스 사이에 오이니아다이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아이아키데스는 부상을 입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

**[1.11.5]** 에페이로스인들은 아리바스의 아들이자 아이아키데스의 형인 알케타스를 왕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성질을 억제하지 못하여 아버지에게 추방당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에페이로스인들에게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들은 들고일어나 어느 날 밤 그와 그의 자녀들을 죽였다.

그를 죽인 뒤 그들은 아이아키데스의 아들 피로스를 불러들였다. 피로스가 돌아오자마자 카산드로스가 전쟁을 걸어왔다. 피로스는 아직 나이가 어렸고 자신의 지배권도 굳히지 못한 상태였다.

마케도니아군이 공격해오자 피로스는 이집트에 있는 라고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에게 갔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자기 자녀들의 이부자매를 그와 결혼시키고, 이집트군을 보내 그를 복위시켰다.

**[1.11.6]** 피로스가 왕이 된 뒤 처음 공격한 그리스인들은 케르키라인들이었다. 그 섬이 자기 영토 앞바다에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곳을 자신에 대한 공격 기지로 삼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케르키라를 차지한 뒤 리시마코스와의 전쟁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데메트리오스를 몰아내고 마케도니아를 통치하다가 다시 리시마코스에게 쫓겨난 경위는 리시마코스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미 설명했다.

이것들이 로마인들과 전쟁을 벌이기 전까지 그가 이룬 가장 중요한 업적이었다.

**[1.11.7]** 우리가 아는 한, 로마인들과 싸운 최초의 그리스인은 피로스였다.

아이네이아스와 디오메데스 및 그가 이끈 아르고스인들 사이에는 더 이상의 전투가 없었다고 한다.

아테네인들이 품었던 여러 야망 가운데에는 이탈리아 전체를 정복하려는 것도 있었다. 그러나 시라쿠사에서의 참패 때문에 로마인들과 힘을 겨루어볼 수 없었다.

네옵톨레모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는 피로스와 같은 가문에 속했지만 더 나이가 많았으며, 로마인들과 전투를 벌이기 전에 루카니아인들 사이에서 죽었다. sourcebooks.fordham.edu

## 제12장

**[1.12.1]** 따라서 그리스에서 이오니아해를 건너 로마인들을 공격한 최초의 인물은 피로스였다. 그조차도 타라스인들의 초청을 받고 건너갔다.

타라스인들은 이미 로마인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상대할 수 없었다.

피로스는 이전에 케르키라와 전쟁을 벌일 때 그들이 함대를 보내 도와주었으므로 이미 그들에게 신세를 진 처지였다.

그러나 타라스 사절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었던 것은 이탈리아의 번영이 그리스 전체에 견줄 만하다는 설명과, 위급한 때에 친구이자 탄원자로 찾아온 자신들을 물리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호소였다.

사절들이 이런 점들을 역설하자 피로스는 트로이아의 함락을 떠올렸다. 자신이 아킬레우스의 후손으로서 트로이아인들의 식민 도시와 싸우러 가는 것이었으므로, 그것을 이번 전쟁에서 성공하리라는 징조로 여겼다.

**[1.12.2]** 그는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한번 마음을 정하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므로, 곧바로 군함에 승조원을 배치하고 말과 중무장병을 실을 수송선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역사가로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쓴 『회고록』이라는 책들이 있다. 나는 이것들을 읽고, 피로스가 전투에서 몸소 보여준 용기와 싸움이 임박할 때마다 발휘한 주도면밀함에 크게 감탄했다.

이때에도 그는 함대를 이끌고 이탈리아로 건너가면서 로마인들의 눈을 피했다. 그가 도착한 뒤에도 한동안 로마인들은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로마인들이 타라스인들을 공격하고 나서야 그는 군대를 이끌고 나타났다. 그의 뜻밖의 공격에 적들이 혼란에 빠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12.3]** 그는 자신이 로마인들을 상대하기에 역부족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코끼리들을 풀어놓을 준비를 했다.

유럽인 가운데 처음 코끼리를 얻은 사람은 포로스와 인도인들의 세력을 정복한 알렉산드로스였다. 그가 죽은 뒤에는 다른 왕들도 코끼리를 얻었지만, 안티고노스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다. 피로스는 데메트리오스와의 전투에서 자기 코끼리들을 노획했다.

이때 코끼리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로마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고, 그것들이 짐승이라고 믿지 않았다.

**[1.12.4]** 상아를 공예에 사용하는 일은 분명히 옛날부터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마케도니아인들이 아시아로 건너가기 전까지 그 짐승 자체를 본 사람은 인도인들과 리비아인들, 그리고 그 이웃 민족들뿐이었다.

호메로스가 그 증거다. 그는 부유한 왕들의 침상과 집이 상아로 장식되어 있다고 묘사하면서도, 그 짐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가 코끼리를 보거나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내 생각에 난쟁이들과 두루미들의 싸움보다 오히려 코끼리에 관해 말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1.12.5]** 피로스를 시칠리아로 불러들인 것은 시라쿠사인들의 사절단이었다.

카르타고인들이 건너와 그리스 도시들을 파괴하고 있었으며, 이제 유일하게 남은 시라쿠사까지 포위하고 있었다.

피로스는 사절들에게 이 말을 듣자 타라스와 해안 지방의 이탈리아 그리스인들을 버려두고 시칠리아로 건너가, 카르타고인들이 시라쿠사의 포위를 풀게 만들었다.

카르타고인들은 먼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티로스의 페니키아인들이었으므로, 당시의 어떤 비그리스 민족보다도 항해에 능숙했다.

그런데도 피로스는 자만심 때문에 에페이로스인들을 데리고 그들과 해전을 벌일 엄두를 냈다. 에페이로스인들 대부분은 트로이아가 함락된 뒤에도 바다를 몰랐으며, 소금을 쓰는 법조차 아직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호메로스의 말이 그 증거다.

> 그들은 바다를 알지 못하고,
> 음식에 소금도 섞지 않는다.

## 제13장

**[1.13.1]** 이 싸움에서 패한 피로스는 남은 배들을 이끌고 타라스로 돌아갔다.

그곳에서도 심각한 패배를 겪은 뒤, 로마인들이 공격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을 떠나게 내버려두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철수를 꾀했다.

시칠리아에서 돌아와 패배를 겪은 뒤, 그는 먼저 아시아와 안티고노스에게 여러 서신을 보냈다. 어떤 왕들에게는 군대를, 어떤 왕들에게는 돈을 청했으며, 안티고노스에게는 둘 다 청했다.

사절들이 돌아와 회신을 전달하자, 그는 에페이로스인이든 타라스인이든 지휘권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회신은 하나도 읽지 않은 채 지원군이 올 것이라고 선언했다.

마케도니아인들과 아시아의 여러 민족이 피로스를 도우러 건너오고 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로마인들에게까지 퍼졌다.

로마인들은 그 말을 듣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로스는 바로 그날 밤이 되자 케라우니아라고 불리는 산맥의 곳들로 건너갔다.

**[1.13.2]** 이탈리아에서 패한 뒤 피로스는 군대를 쉬게 하고 나서 안티고노스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가장 큰 불만은 그가 이탈리아로 지원군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안티고노스의 본국 군대와 갈리아 용병들을 격파한 뒤 해안 도시들까지 추격했으며, 자신은 마케도니아 고지대와 테살리아인들을 복속시켰다.

전투의 규모와 피로스의 승리가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페라이와 라리사 사이에 있는 이토니아의 아테나 성소에 봉헌된 켈트인들의 무구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1.13.3]**

> 몰로소스의 피로스가 용맹한 갈리아인들에게서 빼앗은
> 이 방패들을 이토니아의 아테나께 예물로 걸었다.
> 안티고노스의 온 군세를 무너뜨린 뒤에.
>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 아이아코스의 후손들은 옛날처럼 지금도 전사이니.

이 방패들은 이곳에 있지만, 마케도니아인들 자신의 방패는 도도나의 제우스에게 봉헌했다. 거기에도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 한때 황금 많은 아시아를 짓밟고
> 그리스인들에게 예속을 안겨주었던 이것들이
> 이제는 주인 없이 제우스 신전의 기둥 곁에 놓여 있다.
> 오만한 마케도니아에서 빼앗은 전리품으로.

피로스는 마케도니아 전체를 거의 복속시킬 뻔했다.

**[1.13.4]** 그러나 그는 대체로 눈앞에 생긴 일부터 하려는 성향이 강했으므로, 클레오니모스 때문에 그 일을 끝내지 못했다.

피로스를 설득하여 마케도니아에서 벌이던 일을 그만두고 펠로폰네소스로 가게 한 이 클레오니모스는 라케다이몬인이었다. 그가 적군을 이끌고 라케다이몬 땅으로 들어간 이유는 먼저 그의 가계를 설명한 뒤에 이야기하겠다.

플라타이아이에서 그리스군을 지휘했던 파우사니아스는 플레이스토아낙스의 아버지였고, 플레이스토아낙스는 다시 파우사니아스의 아버지였다. 이 파우사니아스의 아들은 레욱트라에서 에파미논다스와 테바이인들에 맞서 싸우다가 죽은 클레옴브로토스였다.

클레옴브로토스에게는 아게시폴리스와 클레오메네스가 있었는데, 아게시폴리스가 자녀 없이 죽었으므로 클레오메네스가 왕위에 올랐다.

**[1.13.5]** 클레오메네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맏이는 아크로타토스였고, 둘째는 클레오니모스였다.

아크로타토스가 먼저 죽었으며, 뒤에 클레오메네스도 죽자 아크로타토스의 아들 아레우스가 왕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그러자 클레오니모스는 피로스를 자기 나라로 끌어들이려 했다.

레욱트라 전투 이전까지 라케다이몬인들은 큰 재난을 겪지 않았으므로, 자신들이 육상 전투에서 패한 적이 있다는 것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레오니다스는 승리한 것이지만 그를 따른 병사들의 수가 페르시아인들을 모두 죽이기에 부족했을 뿐이었다. 또한 스팍테리아섬에서 데모스테네스와 아테네인들이 거둔 성과도 승리가 아니라 전쟁에서 쓴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다.

**[1.13.6]** 그들의 첫 패배는 보이오티아에서 일어났다. 그 뒤 안티파트로스와 마케도니아인들에게도 크게 패했다.

세 번째로는 데메트리오스와의 전쟁이 그들의 땅에 뜻밖의 불행으로 닥쳤다.

피로스가 침입하여 네 번째로 적군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동맹군으로 온 아르고스인들과 메세니아인들과 함께 전열을 갖추었다.

피로스가 그날 전투에서 승리했고, 더 싸울 것도 없이 스파르타를 함락할 뻔했다. 그러나 그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전리품을 챙긴 뒤 잠시 공격을 멈추었다.

시민들은 포위에 대비했다. 스파르타에는 그전 데메트리오스와의 전쟁 때 이미 깊은 참호와 튼튼한 말뚝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가장 취약한 곳들은 건물들로도 방어되어 있었다.

**[1.13.7]** 바로 이 무렵 라코니아 전쟁이 길어지는 동안, 안티고노스는 마케도니아의 도시들을 되찾고 펠로폰네소스로 서둘러 내려왔다.

그는 피로스가 라케다이몬과 펠로폰네소스의 대부분을 정복한다면 에페이로스로 돌아가지 않고 마케도니아로 가서 다시 전쟁을 벌이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안티고노스가 군대를 이끌고 아르고스에서 라코니아로 향하려 할 때, 피로스 자신이 아르고스에 도착했다.

그는 다시 승리한 뒤 달아나는 적들과 함께 도시 안으로 돌진했다. 그러자 그의 대형이 무너진 것은 당연했다.

**[1.13.8]** 이제 신전과 집들 곁에서, 좁은 골목들에서, 도시 곳곳으로 흩어진 부대들이 제각기 싸움을 벌였다. 피로스는 혼자 떨어져 있다가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그의 죽음은 한 여자가 던진 기와에 맞은 탓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르고스인들은 그를 죽인 것이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모습을 한 데메테르였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그의 최후에 관해 아르고스인들 자신이 전하는 이야기이며, 그 지방의 안내자 리케아스도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시를 썼다.

피로스가 죽은 장소에는 신탁의 명령에 따라 세운 데메테르의 성소가 있고, 피로스는 그 안에 묻혀 있다.

**[1.13.9]** 이른바 아이아코스의 후손들 가운데 세 사람이 이처럼 비슷하게 신의 손에 죽음을 맞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호메로스의 말처럼 아킬레우스가 프리아모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와 아폴론에게 죽었고, 델포이인들이 피티아의 명령에 따라 아킬레우스의 아들 피로스를 죽였으며, 아이아키데스의 아들이 아르고스인들의 이야기와 리케아스의 시에 나오는 방식으로 최후를 맞았다면 말이다.

그러나 카르디아의 히에로니모스는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왕들과 교유하는 사람은 편파적인 역사가가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필리스토스가 시라쿠사로 돌아가기를 기대하여 디오니시오스의 가장 사악한 행적들을 감춘 일이 정당했다면, 안티고노스의 마음에 들도록 글을 쓴 히에로니모스 역시 충분히 용서받을 만할 것이다. sourcebooks.fordham.edu

## 제14장

**[1.14.1]** 에페이로스가 우세를 누리던 시기는 이렇게 끝났다.

아테네의 오데이온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볼거리 가운데 볼 만한 디오니소스상이 있다.

가까이에는 엔네아크루노스, 곧 '아홉 물줄기'라고 불리는 샘이 있다.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꾸민 사람은 페이시스트라토스다. 도시 곳곳에 우물은 있지만 샘은 이것 하나뿐이다.

샘 위쪽에는 신전 두 채가 있다. 하나는 데메테르와 코레의 신전이고, 다른 하나는 트리프톨레모스의 신전이며 그 안에 그의 상이 있다.

나는 트리프톨레모스에 관한 이야기들 가운데 데이오페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기록하겠다.

**[1.14.2]** 그리스인들 가운데 아테네인들이 내세우는 오랜 역사와 신들에게 받았다는 선물을 가장 강하게 다투는 이들은 아르고스인들이다. 비그리스인들 가운데 이집트인들이 프리기아인들과 겨루는 것과 같다.

데메테르가 아르고스에 왔을 때 펠라스고스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고, 코레가 납치된 일을 알고 있던 크리산티스가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다고 한다.

그 뒤 비의의 사제 트로킬로스가 아게노르의 적대 때문에 아르고스에서 달아나 아티카로 왔다고 한다. 그는 엘레우시스 여자와 결혼하여 에우불레우스와 트리프톨레모스라는 두 자녀를 얻었다.

이것이 아르고스인들의 이야기다.

그러나 아테네인들과 그들과 함께 〔본문 결락〕 사람들은 켈레오스의 아들 트리프톨레모스가 처음으로 곡식의 씨앗을 뿌려 재배했다고 알고 있다.

**[1.14.3]** 무사이오스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현존 시구들 가운데 일부는, 과연 그것들을 그의 작품에 포함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트리프톨레모스가 오케아노스와 대지의 아들이라고 한다.

반면 오르페우스의 작품이라고 하는 시구들은, 이 경우에도 내가 보기에는 통설의 저자 귀속이 옳지 않지만, 에우불레우스와 트리프톨레모스가 디사울레스의 아들들이었다고 한다. 그들이 데메테르에게 딸의 소식을 알려주었으므로, 여신은 그 보답으로 씨를 뿌려 농사짓는 법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로페』라는 극을 쓴 아테네인 코이릴로스는 케르키온과 트리프톨레모스가 형제였다고 한다. 그들의 어머니는 암픽티온의 딸이었지만, 트리프톨레모스의 아버지는 라로

스이고 케르키온의 아버지는 포세이돈이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다루고 아테네에서 엘레우시니온이라고 불리는 성소 안에 있는 것들도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꿈에 나타난 환영이 나를 막았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기록하여 알려도 되는 일들로 이야기를 돌리겠다.

**[1.14.4]** 트리프톨레모스의 상이 있는 이 신전 앞에는 제물로 끌려가는 모습을 한 청동 황소가 있다. 크노소스의 에피메니데스가 앉아 있는 상도 있다.

사람들은 에피메니데스가 시골의 동굴에 들어갔다가 잠들었으며, 40년이 되기 전에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뒤 그는 시를 쓰고 아테네를 비롯한 다른 도시들을 정화했다.

그러나 라케다이몬인들의 역병을 멈추게 한 탈레스는 에피메니데스와 아무런 친족 관계도 없었으며, 출신 도시도 달랐다.

에피메니데스는 크노소스 출신이었지만 탈레스는 고르틴 출신이었다. 라케다이몬인들을 위해 그에 관한 시를 지은 콜로폰의 폴림나스토스가 그렇게 전한다.

**[1.14.5]** 조금 더 떨어진 곳에는 에우클레이아, 곧 명예의 여신을 위한 신전이 있다. 이것 역시 마라톤에 상륙한 페르시아인들에게 거둔 승리에 감사하여 바친 것이다.

내 생각에 아테네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한 승리는 이 승리였다.

아이스킬로스는 시로도 큰 명성을 얻었으며 아르테미시온 앞바다와 살라미스의 해전에도 참여했지만, 죽음을 앞두고 그런 일들은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출신 도시의 이름만 적고, 마라톤의 숲과 그곳에 상륙했던 페르시아인들이 자신의 용기를 증언해줄 것이라고 덧붙였을 뿐이다.

**[1.14.6]** 케라메이코스와 왕의 주랑이라고 불리는 주랑 위쪽에는 헤파이스토스의 신전이 있다.

그 곁에 아테나상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놀라지 않았다. 에리크토니오스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테나상의 눈이 푸른 것을 보고, 그 눈에 관한 전승이 리비아에서 왔음을 알게 되었다.

리비아인들은 여신이 포세이돈과 트리토니스 호수의 딸이며, 그 때문에 포세이돈처럼 푸른 눈을 가졌다고 말한다.

**[1.14.7]** 가까이에는 우라니아, 곧 하늘의 아프로디테를 위한 성소가 있다.

그녀를 처음 숭배한 사람들은 아시리아인들이었다. 아시리아인들 다음에는 키프로스의 파포스인들과 팔레스타인의 아스칼론에 사는 페니키아인들이 그녀를 숭배했다. 페니키아인들은 키테라인들에게 그 숭배를 가르쳤다.

아테네인들 사이에 이 숭배를 세운 사람은 아이게우스였다. 그는 자신에게 자녀가 없는 것과, 실제로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다, 자신의 누이들에게 불행이 닥친 것이 하늘의 아프로

디테의 분노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남아 있는 신상은 파로스 대리석으로 만들었으며 페이디아스의 작품이다.

아테네의 구역 가운데 아트모네이스라는 곳이 있다. 그곳 사람들은 악타이오스보다 앞선 왕 포르피리온이 자신들의 하늘 여신 성소를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각 구역에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종종 도시의 전승과 전혀 다르다.

## 제15장

**[1.15.1]** 그림들 때문에 '채색 주랑'이라고 불리는 주랑으로 가다 보면 시장의 헤르메스 청동상이 있고, 그 가까이에는 문이 있다.

문 위에는 아테네인들이 세운 승전 기념물이 있다. 그들은 기병전에서 플레이스타르코스를 이겼는데, 그의 형제 카산드로스가 그에게 기병대와 용병들의 지휘를 맡긴 상태였다.

이 주랑 안에서 맨 먼저 보이는 그림은 아르고스 영토의 오이노에에서 라케다이몬인들과 대치한 아테네인들이다.

그림에 묘사된 것은 전투의 결정적인 순간도, 싸움이 진행되어 용맹한 행위들이 펼쳐지는 순간도 아니다. 양쪽 전사들이 막 맞붙으려 하는 전투의 시작이다.

**[1.15.2]** 가운데 벽에는 아마존들과 싸우는 아테네인들과 테세우스가 그려져 있다.

아마존들은 패배를 겪으면서도 위험 앞에서 무모할 정도의 용기를 잃지 않은 유일한 여자들이었던 듯하다.

테미스키라는 헤라클레스에게 함락되었고, 뒤에는 아테네로 보낸 군대도 전멸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트로이아로 와서 아테네인들뿐 아니라 그리스인들 전체와 싸웠다.

아마존들 다음에는 트로이아를 함락한 그리스인들과, 아이아스가 카산드라에게 저지른 폭행 때문에 모인 왕들이 그려져 있다.

그림에는 아이아스 자신과 카산드라, 그리고 다른 포로 여자들도 나온다.

**[1.15.3]** 그림의 끝에는 마라톤에서 싸운 사람들이 있다.

플라타이아이의 보이오티아인들과 아티카의 군대가 이방인들과 맞붙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어느 쪽도 우세하지 않다.

그러나 전투 장면의 가운데에서는 이방인들이 달아나면서 서로를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 그림의 끝에는 페니키아의 배들과, 그 배에 기어오르려는 이방인들을 죽이는 그리스인들이 있다.

이곳에는 평야의 이름이 유래한 영웅 마라톤의 모습도 있다. 지하 세계에서 올라오는 모습의 테세우스와 아테나, 헤라클레스도 그려져 있다.

마라톤인들은 자신들이 처음으로 헤라클레스를 신으로 여겼다고 말한다.

그림 속에서 싸우는 이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들은 아테네인들이 최고 지휘관으로 선출한 칼리마코스와 장군들 가운데 하나인 밀티아데스, 그리고 나중에 언급할 에케틀로스라는 영웅이다.

**[1.15.4]** 이곳에는 청동 방패들도 봉헌되어 있다.

어떤 방패들에는 스키오네인들과 그 동맹군에게서 빼앗았다는 글이 새겨져 있다.

또 다른 방패들은 세월과 녹에 닳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두었는데, 스팍테리아섬에서 포로가 된 라케다이몬인들의 것이었다고 한다. sourcebooks.fordham.edu

## 제16장

**[1.16.1]** 이곳에는 청동상들이 놓여 있다. 주랑 앞에는 아테네인들을 위해 법을 마련한 솔론의 상이 있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는 셀레우코스의 상이 있다.

셀레우코스가 훗날 번영하리라는 것은 틀림없는 징조들로 예고되었다.

그가 알렉산드로스와 함께 마케도니아를 떠나려 하면서 펠라에서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제단 위에 놓인 나무들이 저절로 신상 쪽으로 움직이더니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도 타올랐다.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뒤 셀레우코스는 바빌론에 온 안티고노스가 두려워 라고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에게 달아났다가, 다시 바빌론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뒤에는 안티고노스의 군대를 격파하고 안티고노스 자신도 죽였다. 나중에는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안티고노스의 아들 데메트리오스도 사로잡았다.

**[1.16.2]** 이런 성공을 거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리시마코스까지 쓰러뜨린 그는, 아시아에 있는 자신의 제국 전체를 아들 안티오코스에게 맡겼다. 자신은 그리스인들과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거느리고 서둘러 마케도니아로 향했다.

그러나 리산드라의 형제 프톨레마이오스가 리시마코스를 피해 그에게 의탁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모험적인 성격 때문에 '벼락'이라는 별칭을 얻었는데, 셀레우코스의 군대가 리시마케이아까지 진군했을 때 셀레우코스를 암살했다.

그는 다른 왕들이 셀레우코스의 재산을 차지하도록 내버려두고 자신은 마케도니아를 다스렸다.

그러다가 내가 아는 한 왕들 가운데 처음으로 감히 갈리아인들과 맞붙어 싸웠으며, 그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왕국은 데메트리오스의 아들 안티고노스가 되찾았다.

**[1.16.3]** 나는 셀레우코스가 왕들 가운데 가장 정의로웠으며, 특히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확신한다.

첫째, 크세르크세스가 페르시아의 엑바타나로 가져갔던 청동 아폴론상을 밀레토스인들을 위해 브란키다이로 돌려보낸 사람이 셀레우코스였다.

둘째, 그는 티그리스강에 셀레우케이아를 세우고 바빌론인들을 이주시켜 정착시키면서도 바빌론의 성벽과 벨의 성소를 보존했다. 또한 칼데아인들이 그 성소 가까이에서 계속 살도록 허락했다.

## 제17장

**[1.17.1]** 아테네의 시장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들 가운데에는 자비의 제단이 있다.

자비는 인간의 삶과 운명의 변화 속에서 모든 신적 존재 가운데 가장 유용한 존재이지만, 그리스인들 가운데에서는 아테네인들만이 그녀를 공경한다.

그들은 인간애뿐 아니라 신앙심에서도 두드러진다. 그들에게는 수치심의 제단, 소문의 제단, 노력의 제단도 있다.

경건함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그에 걸맞게 좋은 운으로 보답받는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

**[1.17.2]**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설립자의 이름을 따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체육장이라고 불리는 체육장이 있다.

그 안에는 볼 만한 돌로 된 헤르메스 기둥상들과 프톨레마이오스의 청동상이 있다. 리비아의 유바와 솔로이의 크리시포스도 이곳에 있다.

체육장 가까이에는 테세우스의 성소가 있으며, 그 안에는 아마존들과 싸우는 아테네인들을 그린 그림들이 있다.

아테네인들은 아테나상의 방패와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받침대에도 이 전쟁을 표현했다.

테세우스의 성소에는 켄타우로스들과 라피타이인들의 전투를 그린 그림도 있다. 테세우스는 이미 켄타우로스 하나를 죽였지만, 다른 곳에서는 아직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다.

**[1.17.3]** 세 번째 벽에 있는 그림은 전승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는 오래되어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이고, 일부는 미콘이 이야기 전체를 그림에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노스는 테세우스와 다른 젊은이들을 크레타로 데려갈 때 페리보이아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테세우스가 완강하게 반대하자 그는 테세우스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바다에 던져도 그것을 되찾아주지 못할 테니, 테세우스가 포세이돈의 아들일 리 없다고 말했다.

미노스는 그렇게 말하며 반지를 던졌다고 한다. 그러나 테세우스는 그 반지뿐 아니라 암피트리테가 준 황금 관까지 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한다.

**[1.17.4]** 테세우스의 말년에 관한 이야기들은 많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가 포로로 갇혀 있다가 헤라클레스에 의해 다시 햇빛 아래로 돌아왔다고들 한다. 그러나 내가 들은 것 가운데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테세우스는 테스프로티아 왕의 아내를 납치하려고 그 나라를 침입했다. 그 과정에서 군대 대부분을 잃었으며, 자신과 페이리토오스도 사로잡혔다. 페이리토오스 역시 그 여자와의 결혼을 원하여 원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테스프로티아 왕은 그들을 키키로스에 가두어두었다.

**[1.17.5]** 테스프로티아의 볼거리 가운데에는 도도나에 있는 제우스의 성소와 그 신에게 바쳐진 참나무가 있다.

키키로스 가까이에는 아케루시아라는 호수와 아케론이라는 강이 있다. 몹시 음산한 물줄기인 코키토스도 있다.

내 생각에 호메로스는 이곳들을 보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데스의 영역을 대담하게 묘사하고, 그곳의 강들에 테스프로티아의 강들과 같은 이름을 붙였던 것이다.

테세우스가 이렇게 갇혀 있는 동안 틴다레오스의 아들들은 아피드나로 진군하여 그곳을 함락하고 메네스테우스를 왕위에 복귀시켰다.

**[1.17.6]** 메네스테우스는 에우보이아의 엘레페노르에게 몰래 피신해 있던 테세우스의 자녀들은 염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테세우스가 테스프로티아에서 돌아오기라도 한다면 만만치 않은 적수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백성들의 환심을 샀으며, 그 결과 테세우스는 나중에 자유를 되찾고도 추방되었다.

테세우스는 크레타의 데우칼리온을 찾아 떠났다. 그러나 바람 때문에 항로를 벗어나 스키로스섬에 이르렀다.

그곳 주민들은 그의 가문이 누리던 명성과 그 자신의 업적에 대한 평판 때문에 그를 각별히 존중했다. 그 때문에 리코메데스는 그를 죽일 계략을 꾸몄다.

아테네에 있는 그의 성역은 페르시아인들이 마라톤에 상륙한 뒤에 세워졌다. 밀티아데스의 아들 키몬이 스키로스를 공격하여 테세우스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고, 그의 유골을 아테네로 가져왔을 때였다. sourcebooks.fordham.edu

## 제18장

**[1.18.1]** 디오스쿠로이의 성소는 오래된 것이다.

그들 자신은 서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들의 아들들은 말을 타고 있다.

이곳에서 폴뤼그노토스는 그 신들의 행적 가운데 하나인 레우키포스의 딸들의 혼인을 그렸다. 미콘은 이아손과 함께 콜키스인들에게 항해했던 사람들을 그렸는데, 특히 아카스토스와 그의 말들에 힘을 기울였다.

**[1.18.2]** 디오스쿠로이의 성소 위쪽에는 아글라우로스의 성역이 있다.

아테나는 아글라우로스와 그 자매들인 헤르세, 판드로소스에게 상자에 감춘 에리크토니오스를 맡기면서, 맡겨진 것을 호기심으로 들여다보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판드로소스는 명령을 지켰지만 다른 두 자매는 상자를 열었다. 그들은 에리크토니오스를 보자 미쳐버려 아크로폴리스에서 가장 가파른 곳으로 몸을 던졌다고 한다.

페르시아인들이 기어 올라와 아테네인들을 죽인 곳도 바로 여기였다. 그 아테네인들은 자신들이 테미스토클레스보다 신탁을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여, 통나무와 말뚝으로 아크로폴리스를 요새화했던 사람들이었다.

**[1.18.3]** 가까이에는 프리타네이온이 있다. 그 안에는 솔론의 법들이 새겨져 있고 평화의 여신과 화로의 여신 헤스티아의 상들이 놓여 있다.

인물상들 가운데에는 판크라티온 선수 아우톨리코스가 있다.

밀티아데스와 테미스토클레스의 상들은 명문이 바뀌어, 각각 어떤 로마인과 트라키아인의 상이 되어버렸다.

**[1.18.4]** 여기에서 도시의 낮은 쪽으로 내려가면 세라피스의 성소가 있다. 아테네인들은 프톨레마이오스에게서 이 신의 숭배를 받아들였다.

이집트에 있는 세라피스의 성소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알렉산드리아에 있고, 가장 오래된 것은 멤피스에 있다.

멤피스의 성소에는 아피스를 매장하기 전까지 외지인이든 사제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세라피스의 성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페이리토오스와 테세우스가 라케다이몬으로, 그리고 뒤에는 테스프로티아로 떠나기 전에 서로 맹약을 맺었다는 장소가 있다.

**[1.18.5]** 가까이에는 에일레이티이아의 신전이 세워져 있다.

그녀는 히페르보레오이에게서 델로스로 와 레토의 출산을 도왔다고 한다. 그리고 델로스에서 다른 민족들에게로 그 이름이 퍼졌다.

델로스인들은 에일레이티이아에게 제사를 지내고 올렌의 찬가를 부른다.

그러나 크레타인들은 에일레이티이아가 크노소스 영토의 암니소스에서 태어났으며, 헤라가 그녀의 어머니였다고 생각한다.

아테네인들만이 에일레이티이아의 목상에 발끝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힌다.

여자들은 내게, 그 목상들 가운데 두 개는 크레타에서 온 것으로 파이드라가 봉헌했으며, 가장 오래된 세 번째 것은 에리식톤이 델로스에서 가져왔다고 말했다.

**[1.18.6]** 올림피오스 제우스의 성소 입구 앞에는 하드리아누스의 상들이 서 있다. 두 개는 타소스의 돌로, 두 개는 이집트의 돌로 만들었다.

이 신전과 신상을 봉헌한 사람은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다. 신상은 볼 만한 것으로, 로도스와 로마의 거상들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신상보다 크다. 상아와 금으로 만들었으며, 그 크기를 생각하면 제작 솜씨도 놀랍다.

기둥들 앞에는 아테네인들이 ‘식민 도시들’이라고 부르는 청동상들이 서 있다.

성역 전체의 둘레는 약 4스타디온이며, 그 안에는 상들이 가득하다. 각 도시가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상을 하나씩 봉헌했기 때문이다.

아테네인들은 신전 뒤에 놀라운 거상을 봉헌하여 다른 도시들을 능가했다.

[1.18.7] 성역 안에는 오래된 유물들이 있다. 청동 제우스상, 크로노스와 레아의 신전, 올림피아라는 별칭의 대지를 위한 성역이 그것이다.

이곳 땅에는 너비가 한 큐빗쯤 되는 틈이 벌어져 있다. 데우칼리온 시대의 대홍수 뒤에 물이 이 통로로 빠져나갔다고 한다.

사람들은 해마다 꿀과 섞은 밀가루를 그 안에 던져 넣는다.

[1.18.8] 기둥 위에는 이소크라테스의 상이 있다. 그가 기억될 만한 점은 세 가지다.

98세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은 성실함, 정치와 공적인 일에 끼어들지 않은 절제, 그리고 카이로네이아 전투의 소식을 듣고 비통해하다가 스스로 죽음을 택한 자유에 대한 사랑이다.

프리기아 대리석으로 만든 페르시아인들의 상들도 있는데, 청동 세발솥을 떠받치고 있다. 인물상들과 세발솥 모두 볼 만하다.

아테네인들은 올림피오스 제우스의 옛 성소를 데우칼리온이 세웠다고 한다. 데우칼리온이 아테네에 살았다는 증거로, 지금의 신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의 무덤을 든다.

[1.18.9] 하드리아누스는 아테네인들을 위해 다른 건물들도 지었다.

헤라와 판헬레니오스, 곧 '모든 그리스인의 제우스'를 위한 신전, 모든 신에게 바친 공동 성소, 그리고 무엇보다 유명한 프리기아 대리석 기둥 100개가 그것이다.

벽들도 주랑과 같은 재료로 만들었다. 그 안에는 금박을 입힌 천장과 설화석고, 조각상과 그림들로 장식한 방들이 있으며, 그 방들에 책들을 보관한다.

하드리아누스의 이름을 딴 체육장도 있다. 이곳의 기둥 역시 100개이며, 리비아의 채석장에서 가져온 돌로 만들었다. sourcebooks.fordham.edu

## 제19장

[1.19.1] 올림피오스 제우스의 신전 가까이에는 피티오스 아폴론의 상이 있다.

그 밖에 델피니오스라는 별칭의 아폴론을 위한 성소도 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신전이 지붕만 빼고 완성되었을 때 테세우스가 도시에 도착했다. 그때에는 아직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는 발끝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머리를 곱게 땋은 채 델피니오스의 신전에 왔다. 그러자 지붕을 올리던 사람들이 혼인할 나이가 된 처녀가 어째서 혼자 돌아다니느냐고 조롱했다.

테세우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곁에 있던 수레에서 소들을 풀어 그들이 짓고 있던 신전의 지붕보다 더 높이 던져 올렸다고 한다.

[1.19.2] '정원들'이라고 불리는 구역과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없다. 신전 가까이에 서 있는 아프로디테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상은 헤르메스 기둥상들처럼 네모난 형태이며, 명문에는 하늘의 아프로디테가 이른바 모이라이, 곧 운명의 여신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정원들에 있는 아프로디테상은 알카메네스의 작품으로, 아테네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들 가운데 하나다.

**[1.19.3]** 헤라클레스에게 바쳐진 키노사르게스라는 장소도 있다. 흰 개에 관한 이야기는 신탁을 읽으면 알 수 있다.

그곳에는 헤라클레스와 헤베의 제단들이 있다. 사람들은 헤베를 제우스의 딸이자 헤라클레스의 아내라고 여긴다.

알크메네를 위한 제단과, 헤라클레스가 치른 과업 대부분을 함께했던 이올라오스를 위한 제단도 세워져 있다.

리케이온은 판디온의 아들 리코스에게서 이름을 얻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내가 살던 시대까지 아폴론에게 바쳐진 곳으로 여겨졌으며, 그 신이 처음 리케이오스라고 불린 곳도 여기였다.

리코스가 아이게우스에게서 달아나 찾아갔던 테르밀라이인들 역시 그의 이름을 따서 리키아인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전승이 있다.

**[1.19.4]** 리케이온 뒤에는 니소스의 기념물이 있다. 니소스는 메가라의 왕으로 있다가 미노스에게 죽었으며, 아테네인들이 그를 이곳으로 옮겨 묻었다.

이 니소스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그의 머리카락은 붉었고, 그것이 잘리면 죽게 될 운명이었다고 한다.

크레타인들이 그 나라를 공격했을 때, 그들은 메가라 지방의 다른 도시들을 공격하여 함락했다. 그러나 니소스가 피신해 있던 니사이아는 포위했다.

이곳에서 니소스의 딸이 미노스와 사랑에 빠져 아버지의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것이 그 이야기다.

**[1.19.5]** 전설은 이와 같다.

아테네의 영토를 흐르는 강들은 일리소스와 그 지류 에리다노스다. 에리다노스라는 이름은 켈트인들의 강과 같다.

이 일리소스는 오레이티이아가 그 곁에서 놀다가 북풍의 신에게 납치되었다는 강이다.

북풍의 신은 오레이티이아와 혼인하여 살았고, 아테네인들과 맺어진 이 인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군함 대부분을 파괴하여 아테네인들을 도왔다.

아테네인들은 일리소스가 다른 신들에게도 바쳐진 강이라고 여긴다. 그 강가에는 일리소스의 무사이 여신들을 위한 제단이 있다.

펠로폰네소스인들이 아테네 왕이자 멜란토스의 아들인 코드로스를 죽였다는 장소도 가리켜 보여준다.

**[1.19.6]** 일리소스 건너편에는 아그라이라는 구역과 아르테미스 아그로테라, 곧 사냥하는 여신의 신전이 있다.

아르테미스가 델로스에서 왔을 때 이곳에서 처음 사냥했다고 한다. 그래서 신상이 활을 들고 있다.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는 그만큼 인상적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면 놀라운 것은 흰 대리석으로 만든 경기장이다.

그 크기는 다음 사실로 가장 잘 짐작할 수 있다. 일리소스 위쪽 높은 곳에서 초승달 모양으로 시작하여, 두 줄의 직선으로 강둑까지 내려온다.

이것을 지은 사람은 아테네인 헤로데스다. 건설하는 데 펜텔리콘 채석장의 상당 부분을 써버렸다.

## 제20장

**[1.20.1]** 프리타네이온에서 나오는 길 가운데에는 '세발솥들'이라고 불리는 길이 있다.

그곳의 이름은 작은 신당들에서 유래했다. 그 신당들은 위에 놓인 청동 세발솥들을 받치기에 충분한 크기이며, 그 안에는 매우 뛰어난 예술품들이 있다.

그 가운데에는 프락시텔레스가 몹시 자랑스러워했다는 사티로스상도 있다.

한번은 프리네가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을 달라고 청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연인답게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느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는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프리네의 노예가 달려 들어와 프락시텔레스의 작업장에 불이 났으며, 전부는 아니지만 작품 대부분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1.20.2]** 프락시텔레스는 당장 문밖으로 뛰어나가려 하면서, 사티로스상과 에로스상까지 불에 탔다면 자신의 수고는 모두 헛것이 되었다고 외쳤다.

그러나 프리네는 그를 붙잡아 안심하라고 말했다. 그에게 큰 손해가 난 것이 아니라, 어느 작품이 가장 아름다운지 스스로 말하도록 꾀에 걸렸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프리네는 에로스상을 골랐다.

한편 가까운 디오니소스 신전에는 사티로스상이 있는데, 잔을 내미는 소년의 모습이다. 그 곁에 서 있는 에로스와 디오니소스는 티밀로스가 만들었다.

**[1.20.3]** 가장 오래된 디오니소스의 성소는 극장 가까이에 있다.

성역 안에는 신전 두 채와 디오니소스상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엘레우테레우스상이고, 다른 하나는 알카메네스가 상아와 금으로 만든 상이다.

이곳에는 디오니소스가 헤파이스토스를 하늘로 데려가는 그림이 있다.

그리스의 전설 가운데 하나에 따르면 헤파이스토스는 태어났을 때 헤라에게 내던져졌다.

그는 복수하려고 보이지 않는 족쇄가 달린 황금 의자를 선물로 보냈다. 헤라가 그 의자에 앉자 꼼짝없이 붙잡혔다.

헤파이스토스는 다른 어떤 신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디오니소스만은 깊이 신뢰했다. 디오니소스는 그를 술에 취하게 한 뒤 하늘로 데려갔다.

이 그림 외에도 디오니소스에게 오만하게 굴었다가 벌을 받는 펜테우스와 리쿠르고스, 잠든 아리아드네, 배를 타고 떠나는 테세우스, 그리고 아리아드네를 데려가려고 도착한 디오니소스가 그려져 있다.

**[1.20.4]** 디오니소스의 성소와 극장 가까이에는 크세르크세스의 천막을 본떠 만들었다는 건물이 있다.

옛 건물은 로마의 장군 술라가 아테네를 점령했을 때 불태웠으므로, 지금의 것은 다시 지은 것이다.

그 전쟁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미트리다테스는 흑해 주변의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그가 어떤 이유로 로마인들과 전쟁을 벌였는지, 어떻게 아시아로 건너왔는지, 어떤 도시들을 무력으로 차지하거나 자기편으로 만들었는지는 미트리다테스의 역사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직접 알아보도록 남겨두어야겠다.

나는 아테네의 함락만을 이야기하겠다.

**[1.20.5]** 아리스티온이라는 아테네인이 있었다. 미트리다테스는 그를 그리스의 도시들에 보내는 사절로 썼다.

그는 아테네인들을 설득하여 로마인들보다 미트리다테스 편에 서게 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설득한 것은 아니었다. 하층민들 가운데에서도 소란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자들만 설득했다.

유력한 아테네인들은 스스로 로마인들에게 피신했다.

뒤이어 벌어진 전투에서 로마인들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들은 아리스티온과 아테네인들을 시내로, 아르켈라오스와 이방인들을 페이라이에우스로 몰아넣었다.

이 아르켈라오스는 미트리다테스의 또 다른 장군이었다. 그보다 앞서 그가 시필로스에 사는 마그네시아인들의 영토를 습격했을 때, 마그네시아인들은 그에게 부상을 입히고 이방인들 대부분도 죽였다.

이리하여 아테네는 포위되었다.

**[1.20.6]** 미트리다테스의 장군 탁실로스는 그때 포키스의 엘라테이아를 포위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식을 듣자 군대를 아티카 쪽으로 돌렸다.

로마의 장군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군대의 일부에 아테네 포위를 맡기고, 자신은 주력을 거느리고 탁실로스와 맞서려고 보이오티아로 진군했다.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양쪽 로마군에 소식이 전해졌다.

술라는 아테네의 방어 시설이 공격을 받아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포위군은 탁실로스가 카이로네이아 부근의 전투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술라는 아티카로 돌아오자 자신에게 맞섰던 아테네인들을 케라메이코스에 가두었다. 그리고 열 명 가운데 한 명씩 제비로 뽑아 끌어내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1.20.7]** 술라는 아테네인들에 대한 분노를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그래서 몇몇 사람이 델포이로 빠져나가, 이제 아테네도 황폐해질 운명의 때가 온 것인지 물었다. 그들은 피티아에게서 가죽 부대에 관한 신탁을 받았다.

뒤에 술라는 시로스의 페레키데스가 앓았다고 내가 전해 들은 병에 걸렸다.

술라가 아테네 민중을 대한 방식은 로마인답지 못할 만큼 잔혹했지만, 나는 그것이 그에게 재앙이 닥친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탄원자들을 보호하는 신의 응징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아테나의 성소로 피신한 아리스티온을 끌어내 죽였기 때문이다.

아테네는 이렇게 로마와의 전쟁으로 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하드리아누스가 황제였을 때 다시 번영했다. sourcebooks.fordham.edu

## 제21장

**[1.21.1]** 극장에는 아테네인들이 세운 시인들의 초상 조각들이 있다. 비극 시인들과 희극 시인들이 모두 있지만, 대부분 두드러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곳에 상이 있는 희극 시인들 가운데 메난드로스를 제외하면 명성을 얻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비극에는 에우리피데스와 소포클레스라는 두 걸출한 대표자가 있다.

소포클레스가 죽은 뒤 라케다이몬인들이 아티카를 침입했는데, 그들의 지휘관이 꿈에 디오니소스를 보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신은 그에게 새로 생긴 세이렌에게 죽은 자에게 행하는 모든 관례적인 예우를 갖추라고 명령했다.

그는 그 꿈이 소포클레스와 그의 시를 가리킨다고 해석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시든 산문이든 매혹적인 것은 무엇이나 세이렌에 비유하곤 한다.

**[1.21.2]** 아이스킬로스의 초상 조각은, 내 생각에 그가 죽고 한참 뒤에 만들어졌으며 마라톤의 전투를 그린 그림보다도 뒤의 것이다.

아이스킬로스 자신은 젊었을 때 들판에서 포도를 지키다가 잠들었는데, 디오니소스가 나타나 비극을 쓰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

날이 밝자 그는 꿈에 복종하여 한번 시도해보았고, 그 뒤에는 작품을 쓰는 일이 아주 수월했다고 한다.

**[1.21.3]** 이것이 그가 한 말이다.

극장을 향한 아크로폴리스의 이른바 남쪽 성벽에는 금박을 입힌 고르곤 메두사의 머리가 봉헌되어 있으며, 그 둘레에는 아이기스가 만들어져 있다.

극장 맨 위쪽에는 아크로폴리스 아래의 바위에 동굴이 있다. 그 위에도 세발솥이 있으며, 거기에는 니오베의 자녀들을 죽이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표현되어 있다.

이 니오베는 나도 시필로스산에 올라갔을 때 직접 보았다.

가까이에서는 돌출한 바위여서, 슬퍼하는 여자든 다른 모습의 여자든 여자와는 조금도 닮지 않았다.

그러나 더 멀리 떨어져 보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는 여자를 보는 듯하다.

**[1.21.4]** 극장에서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가는 길에는 칼로스의 무덤이 있다.

다이달로스는 누이의 아들이며 자신의 기술을 배우던 이 칼로스를 죽였다. 그래서 크레타로 달아났으며, 나중에는 시칠리아의 코칼로스에게로 피신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소는 그림들과 그 신 및 자녀들의 상들 때문에 볼 만하다.

그 안에는 샘이 있는데, 그 곁에서 포세이돈의 아들 할리로티오스가 아레스의 딸 알키페를 욕보였다고 한다.

아레스는 그를 죽였으며, 피를 흘리게 한 일로 재판을 받은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

**[1.21.5]** 봉헌물들 가운데에는 사우로마타이족의 흉갑이 있다. 이것을 보면 이방인들 역시 그리스인들 못지않게 기술에 능숙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사우로마타이족에게는 철이 없다. 직접 캐는 철도 없고 수입해오는 철도 없다. 실제로 그들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전혀 교역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부족함을 메우려고 여러 방법을 고안했다.

철 대신 뼈로 창날을 만들고, 산수유나무로 활과 화살을 만들며, 화살촉도 뼈로 만든다.

적을 만나면 올가미를 던져 몸에 감은 뒤 말을 돌려, 올가미에 걸린 적을 넘어뜨린다.

**[1.21.6]** 그들은 흉갑을 다음과 같이 만든다.

땅을 개인 소유의 구획으로 나누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하며, 그 땅에는 야생 나무들 외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으므로, 사람마다 많은 암말을 기른다.

이 암말들은 전쟁에 쓸 뿐 아니라 그 지방의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고 식량으로도 먹는다.

그들은 말굽을 모아 깨끗이 씻고 쪼개어, 마치 큰 뱀의 비늘 같은 조각들을 만든다.

큰 뱀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아직 푸른 솔방울은 보았을 것이다. 말굽으로 만든 조각들을 솔방울에 보이는 비늘 조각들에 비유하면 틀리지 않는다.

그들은 이 조각들에 구멍을 뚫고 말과 소의 힘줄로 꿰매어 흉갑으로 쓴다. 그 아름다움과 튼튼함은 그리스인들의 흉갑에 못지않다.

날아오는 무기의 충격과 근접전에서 가해지는 타격을 모두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1.21.7]** 아마포로 만든 흉갑은 전사들에게는 그만큼 유용하지 않다. 강한 타격을 받으면 쇠붙이가 뚫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냥꾼들에게는 도움이 된다. 사자나 표범의 이빨이 그것에 걸려 부러지기 때문이다.

다른 성소들에서도 봉헌된 아마포 흉갑을 볼 수 있는데, 특히 그리네이온의 성소에서 볼 수 있다.

그곳에는 아폴론의 매우 아름다운 숲이 있다. 재배하는 나무들뿐 아니라 열매를 맺지는 않아도 향기나 생김새가 좋은 온갖 나무들이 있다.

## 제22장

**[1.22.1]**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소를 지나 이 길을 따라 아크로폴리스 쪽으로 가면 테미스의 신전이 있다.

그 앞에는 히폴리토스의 봉분이 있다. 그의 생애는 저주 때문에 끝났다고 한다.

파이드라의 사랑과 그녀를 돕기 위해 유모가 감히 저지른 악행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리스어를 배운 이방인들까지도 알고 있다.

트로이젠인들에게도 히폴리토스의 무덤이 있으며, 그에 관한 전승은 다음과 같다.

**[1.22.2]** 테세우스는 파이드라와 결혼하려 할 때, 앞으로 자녀가 생기면 히폴리토스가 그들에게 종속되거나 그들을 제치고 왕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래서 그를 피테우스에게 보내 양육하게 하고, 장차 트로이젠의 왕이 되게 했다.

나중에 팔라스와 그의 아들들이 테세우스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테세우스는 그들을 죽인 뒤 정화를 받으러 트로이젠으로 갔다. 파이드라는 그곳에서 히폴리토스를 처음 보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할 계략을 꾸몄다.

트로이젠인들에게는 잎마다 구멍이 뚫린 도금양나무가 있다.

사람들은 본래 그렇게 자란 것이 아니라, 파이드라가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며 머리에 꽂고 있던 핀으로 찔러 구멍을 낸 것이라고 한다.

**[1.22.3]**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여러 구역을 하나의 국가로 합친 뒤 아프로디테 판데모스, 곧 온 민중의 아프로디테와 설득의 여신 페이토의 숭배를 세웠다.

옛 신상들은 내가 살던 시대에는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본 신상들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예술가들의 작품이었다.

청년들을 기르는 대지와 데메테르 클로에, 곧 푸르게 자라게 하는 여신의 성소도 있다.

그 이름들에 관한 자세한 것은 사제들과 이야기하면 모두 알 수 있다.

**[1.22.4]** 아크로폴리스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뿐이다. 사방이 가파르고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다른 입구가 없다.

관문에는 흰 대리석 지붕이 덮여 있다. 돌들의 아름다움과 크기에서 오늘날까지도 견줄 것이 없다.

말을 탄 사람들의 상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크세노폰의 아들들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곳을 장식하기 위해 만든 것인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

관문 오른쪽에는 날개 없는 니케의 신전이 있다.

여기에서는 바다가 보인다. 전설에 따르면 아이게우스가 몸을 던져 죽은 곳이 바로 이곳이다.

**[1.22.5]** 젊은이들을 크레타로 데려간 배는 검은 돛을 달고 항해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른바 미노스의 황소를 상대하러 떠난 테세우스는, 황소를 이기고 돌아오게 되면 흰 돛을 달겠다고 아버지에게 미리 말해두었다.

하지만 아리아드네를 잃은 탓에 그 신호를 잊어버렸다.

아이게우스는 이 높은 곳에서 검은 돛을 달고 오는 배를 보고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여 몸을 던졌다.

아테네에는 그에게 바친 성소가 있으며, 아이게우스의 영웅 사당이라고 불린다.

**[1.22.6]** 관문 왼쪽에는 그림들이 있는 건물이 있다.

세월에 지워지지 않은 그림들 가운데 나는 디오메데스가 트로이아에서 아테나상을 가져오는 장면과, 오디세우스가 렘노스에서 필록테테스의 활을 가져가는 장면을 보았다.

오레스테스가 아이기스토스를 죽이고, 필라데스가 아이기스토스를 도우러 온 나우플리오스의 아들들을 죽이는 장면도 있다.

아킬레우스의 무덤 가까이에서 제물로 바쳐지려는 폴뤽세네도 있다.

호메로스가 이 잔혹한 행위를 다루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또 그는 아킬레우스가 스키로스를 함락했다고 노래함으로써 시인다운 통찰을 보여주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킬레우스가 스키로스에서 처녀들과 함께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폴뤼그노토스는 그 처녀들 사이의 아킬레우스를 그림에 표현했다.

그는 오디세우스가 강에서 나우시카아와 함께 빨래하는 여자들을 만나는 장면도 그렸는데, 호메로스의 묘사와 같다.

그 밖의 그림들도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알키비아데스의 초상화도 있다.

**[1.22.7]** 그 그림에는 그의 말들이 네메아에서 거둔 승리를 나타내는 표지들이 있다.

폴뤼덱테스에게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다주려고 세리포스로 가는 페르세우스도 있다. 메두사에 관한 전설은 아티카를 설명하는 이곳에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림들 가운데에는 무사이오스도 있다. 물항아리를 든 소년과 티마이네토스가 그린 레슬링 선수는 지나가겠다.

나는 무사이오스가 북풍의 신에게서 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받는 시구들을 읽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오노마크리토스가 그것들을 썼다. 리코미다이 가문을 위해 쓴 데메테르 찬가 외에는 무사이오스의 진작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작품이 없다.

**[1.22.8]** 아크로폴리스의 바로 입구에는 '관문의 헤르메스'라고 불리는 헤르메스상과 카리테스 여신들의 상이 있다.

전승에 따르면 카리테스상들은 소프로니스코스의 아들 소크라테스가 조각했다.

피티아는 그가 인간 가운데 가장 현명하다고 증언했다. 아나카르시스도 그 칭호를 원하여 그것을 얻으려고 델포이까지 왔지만, 피티아는 그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

sourcebooks.fordham.edu

## 제23장

**[1.23.1]** 그리스인들의 말 가운데에는 일곱 현자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은 레스보스의 참주와 킵셀로스의 아들 페리안드로스였다.

그러나 페이시스트라토스와 그의 아들 히피아스는 페리안드로스보다 더 인간적이었으며, 전쟁과 통치에서도 더 현명했다.

다만 히파르코스가 살해된 뒤에는 히피아스가 닥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냈다. 그 가운데에는 레아이나, 곧 '암사자'라는 이름의 여자도 있었다.

**[1.23.2]** 지금부터 말하려는 이야기는 이전에 글로 기록된 적은 없지만, 아테네인들 사이에서는 널리 믿어지는 것이다.

히파르코스가 죽자 히피아스는 레아이나를 고문하여 죽였다.

그녀가 아리스토게이톤의 연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음모를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보상으로 아테네인들은 페이시스트라토스 가문의 참주정이 끝난 뒤 이 여자를 기념하여 청동 암사자를 세웠다.

칼리아스가 봉헌하고 칼라미스가 만들었다고 한다.

**[1.23.3]** 가까이에는 화살에 꿰뚫린 디이트레페스의 청동상이 있다.

아테네인들이 전하는 이 디이트레페스의 행적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다.

그는 데모스테네스의 시라쿠사 원정에 참여하기에는 너무 늦게 도착한 트라키아 용병들을 고국으로 데려갔다.

도중에 그는 칼키스의 에우리포스에도 들렀다. 그곳의 내륙에는 보이오티아인들의 도시 미칼레소스가 있었다.

그는 해안에서 이 도시로 올라가 그곳을 함락했다.

트라키아인들은 주민들 가운데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만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칼로 죽였다.

나는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테바이인들이 약탈했던 보이오티아의 모든 도시는 내가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함락 직전에 주민들이 달아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이방인들이 미칼레소스인들을 모조리 죽이지 않았다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뒤에 돌아와 도시를 다시 차지했을 것이다.

**[1.23.4]** 나는 디이트레페스상이 화살에 꿰뚫린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리스인들 가운데 그 무기를 관례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크레타인들뿐이기 때문이다.

호메로스는 오푸스의 로크리스인들이 활과 돌팔매를 가지고 트로이아에 왔다고 묘사한다. 그러나 페르시아 전쟁 무렵에는 그들도 중무장 보병으로 무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말리스인들 역시 활을 쓰는 관습을 계속 유지하지 않았다. 사실 내 생각에 그들은 필록테테스 이전에는 활을 알지 못했으며, 그 뒤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용을 그만두었다.

디이트레페스상 가까이에는 신들의 상들이 있다. 덜 유명한 인물상들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싶지 않다.

전설에서 아스클레피오스의 딸이라고 하는 건강의 여신 히기에이아와, 역시 히기에이아라는 별칭을 가진 아테나의 상들이다.

**[1.23.5]** 몸집이 작은 사람이 앉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돌도 있다.

전설에 따르면 디오니소스가 이 땅에 왔을 때 실레노스가 그 위에서 쉬었다.

사람들은 사티로스들 가운데 나이 많은 자들을 실레노스들이라고 부른다.

나는 사티로스들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바로 이 문제에 관하여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카리아인 에우페모스는 이탈리아로 항해하다가 바람 때문에 항로를 벗어나, 뱃사람들이 다니는 길 너머의 바깥 바다로 떠밀려 갔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섬들이 많이 있었고, 다른 섬들에는 야만적인 사람들이 살았다고 단언했다.

선원들은 후자의 섬들에 상륙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1.23.6]** 이전에도 상륙하여 주민들이 어떤 자들인지 겪어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리 선택할 수가 없었다.

선원들은 그 섬들을 사티리데스라고 불렀다.

주민들은 붉은 털을 가지고 있었으며, 엉덩이에는 말의 꼬리보다 그리 작지 않은 꼬리들이 달려 있었다.

그들은 찾아온 사람들을 보자마자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배로 달려 내려와, 배 안의 여자들에게 달려들었다.

마침내 선원들은 겁에 질려 이방인 여자 하나를 섬에 내려놓았다.

사티로스들은 그 여자를 통상적인 방식으로뿐 아니라,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도 유린했다.

**[1.23.7]** 나는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서 다른 것들도 보았던 것이 기억난다.

미론의 아들 리키오스가 만든, 물 뿌리는 도구를 든 청동 소년상과 미론이 만든, 메두사의 머리를 벤 뒤의 페르세우스상이 있다.

브라우론의 아르테미스 성소도 있다.

신상은 프락시텔레스의 작품이지만, 여신의 이름은 브라우론이라는 구역에서 유래한다.

옛 목상은 브라우론에 있으며, 이른바 타우리케의 아르테미스다.

**[1.23.8]** ‘목마’라고 불리는 말을 청동으로 만들어 세워놓은 것도 있다.

프리기아인들을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에페이오스의 작품이 트로이아 성벽을 뚫기 위한 장치였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전설에서는 그 말 안에 그리스인들 가운데 가장 용맹한 자들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이 청동상의 구성도 그 이야기에 잘 들어맞는다.

메네스테우스와 테우크로스가 그 안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으며, 테세우스의 아들들도 그러하다.

**[1.23.9]** 말 다음에 서 있는 상들 가운데, 무장 달리기를 했던 에피카리노스의 상은 크리티오스가 만들었다.

한편 오이노비오스는 올로로스의 아들 투키디데스에게 친절한 일을 해주었다.

그는 투키디데스가 아테네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투키디데스는 귀환 도중 기습을 받아 살해되었다.

그의 기념물은 멜리테의 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1.23.10]** 판크라티온 선수 헤르몰리코스와 아소피코스의 아들 포르미온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전했으므로 생략하겠다.

그러나 포르미온에 관해서는 한 가지 덧붙일 이야기가 있다.

그는 아테네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조상들의 명성으로도 두드러졌지만, 큰 빚을 지게 되었다.

그래서 파이아니아 구역으로 물러나 살다가 아테네인들에게 해군 원정의 지휘관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그는 빚을 갚기 전에는 병사들을 마주할 기개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직책을 거절했다.

아테네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포르미온을 지휘관으로 삼겠다고 마음먹었으므로, 그의 채권자들에게 모든 빚을 갚아주었다. sourcebooks.fordham.edu

## 제24장

**[1.24.1]** 이곳에는 아테나가 실레노스 마르시아스를 때리는 상이 있다. 여신이 영원히 버리기를 바랐던 피리들을 그가 주웠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상들의 맞은편에는 전설에서 테세우스가 이른바 미노스의 황소와 벌였다고 하는 싸움이 표현되어 있다.

그것이 인간이었는지, 아니면 널리 알려진 이야기에서 말하는 성질의 짐승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우리 시대에도 여자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기이한 괴물들을 낳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1.24.2]** 아타마스의 아들 프릭소스가 숫양에게 실려 콜키스인들의 땅으로 건너온 상도 있다.

그는 그 짐승을 어떤 신에게 제물로 바친 뒤, 아마도 오르코메노스인들이 라피스티오스라고 부르는 신일 것이다, 그리스의 관습에 따라 넓적다리를 잘라내고 그것이 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그다음에는 전설에 나오는 대로 뱀들을 목 졸라 죽이는 헤라클레스상을 비롯한 다른 상들이 있다.

제우스의 머리에서 나오는 아테나도 있다.

또한 아레이오스 파고스 평의회가 어떤 계기로 봉헌한 황소가 있다. 관심을 가진다면 그 계기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1.24.3]** 아테네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종교에 헌신적이라는 것은 이미 말했다.

그들은 아테나에게 에르가네, 곧 '일하는 여신'이라는 별칭을 처음 붙였다. 팔다리 없는 헤르메스 기둥상을 처음 세운 사람들도 그들이며, 그들의 여신은 훌륭한 사람들의 정령과 신전을 함께 쓴다.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점보다 예술적인 솜씨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음 작품들을 보면 된다.

클레오이타스가 만든 투구를 쓴 남자가 있다. 예술가는 그의 손톱을 은으로 만들었다.

제우스에게 자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간청하는 대지의 상도 있다.

아마도 아테네인들 자신에게 비가 필요했거나, 그리스인들 전체가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다.

코논의 아들 티모테오스와 코논 자신의 상도 세워져 있다.

또한 이미 그 소년에 대한 마음을 굳힌 프로크네와 이티스도 있다. 이것은 알카메네스가 봉헌한 군상이다.

아테나는 올리브나무를, 포세이돈은 물결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1.24.4]** 제우스상들도 있다. 하나는 레오카레스가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폴리에우스, 곧 '도시의 신'이라고 불린다.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관습적인 방법은 설명하되, 그 유래에 관한 전승은 덧붙이지 않겠다.

폴리에우스 제우스의 제단 위에 보리와 밀을 섞어 놓고 지키지 않은 채 내버려둔다.

제물로 바치려고 미리 준비해둔 소가 제단으로 가서 곡식을 먹는다.

사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소를 죽이는 자'라고 부르는데, 그가 소를 죽인 뒤 의식에 따라 도끼를 그곳에 던져두고 달아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처럼 도끼를 재판에 넘긴다.

**[1.24.5]** 그들의 의식은 이와 같다.

파르테논이라고 부르는 신전으로 들어갈 때 이른바 박공에서 보이는 조각들은 모두 아테나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다. 뒤쪽 박공의 조각들은 아테나와 포세이돈이 그 땅을 두고 벌인 경쟁을 나타낸다.

신상 자체는 상아와 금으로 만들었다.

투구 한가운데에는 스핑크스의 형상이 놓여 있다. 스핑크스의 이야기는 보이오티아를 설명할 때 하겠다.

투구 양쪽에는 그리핀들이 돋을새김되어 있다.

**[1.24.6]** 프로콘네소스의 아리스테아스는 자신의 시에서, 이 그리핀들이 이세도네스 너머에 사는 아리마스포이와 황금을 두고 싸운다고 말한다.

그리핀들이 지키는 황금은 땅에서 나온다고 한다.

아리마스포이는 모두 눈이 하나인 채 태어나는 사람들이며, 그리핀은 사자와 비슷하지만 독수리의 부리와 날개를 가진 짐승이다.

그리핀에 대해서는 이 이상 말하지 않겠다.

**[1.24.7]** 아테나상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똑바로 서 있다.

가슴에는 상아로 만든 메두사의 머리가 있다.

그녀는 높이가 약 4큐빗인 니케상을 들고 있으며, 다른 손에는 창을 들고 있다. 발치에는 방패가 놓여 있고, 창 가까이에는 뱀이 있다.

이 뱀은 에리크토니오스일 것이다.

받침대에는 판도라의 탄생이 돋을새김되어 있다.

헤시오도스와 다른 시인들은 이 판도라가 최초의 여자였다고 노래했다. 판도라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직 여자라는 존재가 없었다는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보았다고 기억하는 유일한 인물상은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상이다. 입구에는 뛰어난 업적을 많이 이룬 이피크라테스의 상이 있다.

**[1.24.8]** 신전 맞은편에는 페이디아스의 작품이라고 하는 청동 아폴론상이 있다.

사람들은 이것을 메뚜기의 신이라고 부른다.

한번은 메뚜기들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었는데, 신이 그것들을 아티카에서 몰아내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이 메뚜기들을 몰아냈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나 자신은 시필로스산에서 과거 세 차례 메뚜기들이 죽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방식은 각각 달랐다.

한번은 강풍이 일어나 그것들을 쓸어갔다. 다른 한번은 비가 온 뒤 몹시 심한 더위가 닥쳐 그것들을 죽였다. 세 번째에는 갑작스러운 추위가 닥쳐 메뚜기들이 죽었다.

sourcebooks.fordham.edu

## 제25장

**[1.25.1]** 내가 메뚜기들에게 닥치는 것을 본 운명은 이와 같았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는 크산티포스의 아들 페리클레스의 상과, 미칼레 해전에서 페르시아인들과 싸운 크산티포스 자신의 상이 있다.

페리클레스의 상은 따로 떨어져 서 있다.

크산티포스 가까이에는 테오스의 아나크레온이 서 있다. 그는 레스보스의 사포 다음으로 사랑의 노래에 전념한 최초의 시인이었으며, 술에 취해 노래하는 사람 같은 자세를 하고 있다.

가까이 서 있는 두 여자상은 데이노메네스가 만들었다. 이나코스의 딸 이오와 리카오스의 딸 칼리스토다.

이 두 여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제우스의 사랑, 헤라의 분노, 그리고 변신이다. 이오는 소가 되었고 칼리스토는 곰이 되었다.

**[1.25.2]** 남쪽 성벽 곁에는 전설에 나오는 거인들과의 전쟁이 표현되어 있다. 그 거인들은 한때 트라키아 주변과 팔레네 지협에 살았다.

아테네인들과 아마존들의 전투, 마라톤에서 페르시아인들과 벌인 싸움, 미시아에서 갈리아인들을 무찌른 일도 표현되어 있다.

각 상의 크기는 약 2큐빗이며, 모두 아탈로스가 봉헌했다.

올림피오도로스도 그곳에 서 있다.

그는 위대한 업적들로 명성을 얻었다. 특히 잇따른 패배를 겪어 앞으로는 단 한 번의 성공도 거두지 못하리라고 절망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위기의 순간에 용기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1.25.3]** 카이로네이아의 참패는 모든 그리스인에게 불행의 시작이었다.

특히 위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마케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들을 예속시켰다.

필리포스는 그들의 도시 대부분을 점령했다.

아테네와는 명목상 협정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가장 가혹한 처벌을 가했다. 섬들을 빼앗고 아테네의 해상 지배를 끝내버린 것이다.

아테네인들은 필리포스가 다스리는 동안, 그리고 그 뒤 알렉산드로스가 다스리는 동안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마케도니아인들이 아리다이오스를 왕으로 뽑았을 때, 제국 전체는 안티파트로스에게 맡겨졌지만, 아테네인들은 이제 그리스가 영원히 마케도니아인들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면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스스로 전쟁에 나섰으며 다른 사람들도 가담하도록 부추겼다.

**[1.25.4]** 참여한 도시들은 펠로폰네소스에서는 아르고스, 에피다우로스, 시키온, 트로이젠과 엘리스인들, 플리우스인들, 메세네였다.

코린토스 지협 너머에서는 로크리스인들, 포키스인들, 테살리아인들, 카리스토스, 그리고 아이톨리아 연맹에 속한 아카르나니아인들이 참여했다.

보이오티아인들은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들은 테바이인들이 더는 살지 않게 된 테바이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테네인들이 테바이의 옛터에 정착지를 세워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마케도니아 측을 도왔다.

**[1.25.5]** 동맹에 참여한 각 도시는 자기 장군을 두었다. 그러나 총사령관으로는 아테네인 레오스테네스를 뽑았다.

그의 도시가 누리는 명성 때문이기도 했고, 그 자신이 경험 많은 군인이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이미 그리스 전체에 은혜를 베푼 바 있었다.

알렉산드로스는 다레이오스와 그 총독들의 군대에서 용병으로 복무하던 그리스인들을 모두 페르시아로 이송하려 했다.

그러나 레오스테네스가 먼저 나서 그들을 배로 유럽에 데려왔다.

이번에도 그의 빛나는 활약은 기대를 뛰어넘었다.

그가 죽자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졌으며, 이것이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아테네인들을 감시하는 마케도니아 주둔군이 배치되었다. 처음에는 무니키아를, 나중에는 페이라이에우스와 장성까지도 점거했다.

**[1.25.6]** 안티파트로스가 죽자 올림피아스는 에페이로스에서 건너와 아리다이오스를 죽이고 잠시 왕권을 차지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카산드로스에게 포위되어 사로잡혔고 민중에게 넘겨졌다.

카산드로스가 왕위에 오른 뒤 한 일들 가운데에서 나는 아테네인들과 관련된 것들만 다루겠다.

그는 아티카의 파나크톤 요새와 살라미스를 차지했으며, 지혜롭다는 명성을 얻은 파노스트라토스의 아들 데메트리오스를 아테네의 참주로 세웠다.

이 참주를 몰아낸 사람은 안티고노스의 아들 데메트리오스였다. 그는 그리스에 대한 호의가 강한 젊은이였다.

**[1.25.7]** 그러나 아테네인들에게 깊은 증오를 품고 있던 카산드로스는 그때까지 민중의 지도자였던 라카레스와 친교를 맺었다. 그리고 그 역시 참주정을 세우도록 부추겼다.

우리가 아는 참주들 가운데 그처럼 인간에게 잔혹하고 신들에게 불경한 자는 없다.

안티고노스의 아들 데메트리오스는 그때 이미 아테네 민중과 사이가 나빠진 상태였지만, 그래도 라카레스의 참주정 역시 무너뜨렸다.

방어 시설이 함락되자 라카레스는 보이오티아로 달아났다.

라카레스는 아크로폴리스에서 황금 방패들을 가져갔으며, 아테나상에서도 떼어낼 수 있는 장식물을 벗겨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1.25.8]** 그는 그 재산 때문에 코로네이아 사람들에게 살해되었다.

아테네인들을 참주들에게서 해방한 안티고노스의 아들 데메트리오스는 라카레스가 달아난 직후에도 페이라이에우스를 그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오히려 나중에는 그들을 제압하고 높은 시가지 안에까지 주둔군을 들여놓았으며, 무세이온이라고 불리는 곳을 요새화했다.

이곳은 옛 도시 경계 안에 있으며 아크로폴리스와 바로 마주 보는 언덕이다.

전설에 따르면 무사이오스가 이곳에서 노래하곤 했으며, 늙어 죽은 뒤 여기에 묻혔다.

뒤에는 어떤 시리아인의 기념물도 이곳에 세워졌다.

내가 지금 말하는 때에는 데메트리오스가 이곳을 요새화하여 점거하고 있었다.

## 제26장

**[1.26.1]** 그러나 나중에 몇몇 사람들은 선조들과, 지금 자신들의 처지가 아테네의 옛 영광과 얼마나 다른지를 떠올렸다.

그들은 더 미루지 않고 곧바로 올림피오도로스를 장군으로 선출했다.

그는 노인과 젊은이들을 모두 이끌고 마케도니아인들을 공격했다. 군사적인 성공을 거두는 데에는 힘보다 열의에 더 큰 기대를 걸었다.

마케도니아인들이 맞서 나왔지만, 그는 그들을 격파하고 무세이온까지 추격하여 그 거점을 점령했다.

**[1.26.2]** 이렇게 아테네는 마케도니아인들에게서 해방되었다.

모든 아테네인이 기억할 만하게 싸웠지만, 프로타르코스의 아들 레오크리토스가 전투에서 가장 큰 용기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는 맨 먼저 방어벽을 넘어 올라갔고, 맨 먼저 무세이온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가 싸우다 죽자 아테네인들은 그를 크게 기렸다. 그의 방패를 자유의 제우스에게 봉헌하고, 거기에 레오크리토스의 이름과 그가 한 일을 새겼다.

**[1.26.3]** 이것이 올림피오도로스의 가장 큰 업적이다.

페이라이에우스와 무니키아를 되찾은 성과는 말할 것도 없다.

또 마케도니아인들이 엘레우시스를 습격했을 때 그는 엘레우시스인들로 군대를 모아 침입자들을 물리쳤다.

그보다 더 앞서 카산드로스가 아티카를 침략했을 때에는 아이톨리아로 항해하여 아이톨리아인들을 설득해 도움을 얻었다.

이 동맹군이야말로 아테네인들이 카산드로스와의 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

올림피오도로스는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와 프리타네이온에서 영예를 받을 뿐 아니라 엘레우시스에도 초상 조각이 있다.

포키스의 엘라테이아인들도 카산드로스에게 반기를 들 때 도움받은 데 감사하여 델포이에 올림피오도로스의 청동상을 봉헌했다.

**[1.26.4]** 올림피오도로스상 가까이에는 레우코프리네라는 별칭의 아르테미스 청동상이 서 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아들들이 봉헌한 것이다.

왕이 테미스토클레스에게 다스리도록 내준 도시의 마그네시아인들이 아르테미스 레우코프리네를 공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이야기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나의 과제는 그리스 전체를 두루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엔도이오스는 태생이 아테네인이며 다이달로스의 제자였다. 다이달로스가 칼로스를 죽인 일 때문에 망명했을 때 그도 크레타로 따라갔다.

앉아 있는 아테나상이 그의 작품이다.

명문에는 칼리아스가 신상을 봉헌했고 엔도이오스가 만들었다고 적혀 있다.

**[1.26.5]** 에레크테이온이라고 불리는 건물도 있다.

입구 앞에는 지극히 높은 제우스의 제단이 있다. 그 위에서는 산 짐승을 전혀 제물로 바치지 않고 과자만 올리며, 포도주도 쓰지 않는 것이 관례다.

안으로 들어가면 제단들이 있다.

하나는 포세이돈의 것으로, 신탁에 따라 이 제단에서는 에레크테우스에게도 제사를 지낸다.

두 번째는 영웅 부테스의 것이고, 세 번째는 헤파이스토스의 것이다.

벽에는 부타다이 가문의 사람들을 나타낸 그림들이 있다.

건물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는 바닷물이 담긴 우물도 있다.

이것 자체는 대단한 경이가 아니다. 다른 내륙 지방들에도, 특히 카리아의 아프로디시아스에도 비슷한 우물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우물은 남풍이 불 때 파도 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바위에는 삼지창의 자국이 있다.

전설에 따르면 이것들은 포세이돈이 그 땅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드러낸 것이다.

**[1.26.6]** 도시와 그 나라 전체는 모두 아테나에게 바쳐져 있다.

각자의 구역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전통을 세운 사람들조차 아테나는 공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구역이 하나로 통합되기 훨씬 전부터 모든 사람이 가장 신성하다고 여겼던 것은, 지금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폴리스, 곧 도시라고 불렀던 곳에 있는 아테나상이다.

그것에 관한 전설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논하지 않겠다.

칼리마코스는 여신을 위해 황금 등잔을 만들었다.

**[1.26.7]** 사람들은 등잔에 기름을 채운 뒤 이듬해 같은 날까지 기다린다.

그동안 밤낮으로 불을 켜두는데도 기름이 충분하다.

심지는 카르파시아의 아마로 만든다. 이것은 불에 타지 않는 유일한 종류의 아마다.

등잔 위에는 청동 야자나무가 지붕까지 뻗어 있어 연기를 빼낸다.

등잔을 만든 칼리마코스는 예술가들 가운데 최상급은 아니었지만, 재주는 비길 데가 없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에 구멍을 뚫는 기술을 썼으며, 스스로 '예술을 정교하게 만드는 자'라는 별칭을 붙였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붙였고 그가 자기 이름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sourcebooks.fordham.edu

## 제27장

**[1.27.1]** 도시의 수호 여신 아테나 폴리아스의 신전에는 나무로 만든 헤르메스상이 있다.

케크롭스가 봉헌했다고 하지만 도금양 가지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주목할 만한 봉헌물들로는 오래된 것들 가운데 다이달로스가 만든 접이식 의자가 있다.

페르시아 전리품들, 곧 플라타이아이에서 기병을 지휘했던 마시스티오스의 흉갑과 마르도니오스의 것이었다는 굽은 칼도 있다.

마시스티오스가 아테네 기병에게 죽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마르도니오스는 라케다이몬인들과 맞서 싸웠으며 스파르타인에게 죽었다.

그러므로 애초에 아테네인들이 그 칼을 빼앗았을 수는 없다.

더구나 라케다이몬인들이 그 칼을 가져가도록 내버려두었을 리도 거의 없다.

**[1.27.2]** 올리브나무에 관해서는, 여신이 그 땅을 두고 경쟁할 때 증거로 내놓은 것이라는 말 외에는 아무 이야기도 전하지 않는다.

전설에 따르면 페르시아인들이 아테네에 불을 질렀을 때 올리브나무도 타버렸다.

그러나 불탄 바로 그날 다시 자라 높이가 2큐빗에 이르렀다고 한다.

아테나 신전 옆에는 판드로소스의 신전이 있다. 그녀는 자매들 가운데 유일하게 맡겨진 것을 충실히 지켰다.

**[1.27.3]** 나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일을 보고 매우 놀랐으므로, 그 사정을 설명하겠다.

아테나 폴리아스의 신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두 처녀가 산다.

아테네인들은 그들을 ‘성스러운 것을 나르는 이들’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한동안 여신과 함께 지내다가 축제가 돌아오면 밤에 다음과 같은 의식을 행한다.

아테나의 여사제가 주는 것을 머리에 얹어 나른다. 주는 여사제도, 나르는 처녀들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처녀들은 도시 안의 가까운 곳에 있는, 정원들의 아프로디테 성역을 가로질러 이어지는 자연적인 지하 통로로 내려간다.

그들은 가져간 것을 아래에 내려놓고 다른 것을 받아, 덮어 가린 채 돌아온다.

그 뒤 이 처녀들은 돌려보내고, 대신 다른 처녀들을 아크로폴리스로 데려온다.

**[1.27.4]** 아테나 신전 곁에는 〔본문 결락〕 높이가 약 한 큐빗인 늙은 여자의 상이 있다.

명문에는 리시마케의 시녀라고 적혀 있다.

또한 서로 마주 보고 싸우려는 커다란 청동 남자상들이 있다.

사람들은 하나를 에레크테우스, 다른 하나를 에우몰포스라고 부른다.

그러나 옛일에 밝은 아테네인들이라면, 에레크테우스에게 죽은 사람이 에우몰포스가 아니라 그의 아들 임마라도스였음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1.27.5]** 받침대 위에는 톨미데스의 예언자였던 테아이네토스와 톨미데스 자신의 상도 있다.

톨미데스는 아테네 함대를 지휘할 때 적들에게, 특히 해안에 사는 펠로폰네소스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그는 기테이온의 선박 시설을 불태웠고, 주변민들의 도시인 보이아이와 키테라섬을 점령했다.

그는 시키온 지방에 상륙했다.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동안 시민들이 공격해오자 그들을 패주시켜 도시까지 추격했다.

그 뒤 아테네로 돌아와 아테네의 정착민들을 에우보이아와 낙소스로 데려갔으며, 군대를 이끌고 보이오티아를 침입했다.

그는 그 땅의 대부분을 황폐하게 만들고 카이로네이아를 포위하여 함락한 뒤, 할리아르토스의 영토로 진군했다.

그곳에서 그는 전사했고 그의 군대 전체가 패했다.

내가 알아본 톨미데스의 역사는 이와 같다.

**[1.27.6]** 오래된 아테나상들도 있다.

팔다리 가운데 없어진 것은 없지만, 다소 검게 그을렸고 충격을 견디지 못할 만큼 약해져 있다.

아테네인들이 배에 올라타고 왕이 전투 가능한 주민들이 비워버린 도시를 점령했을 때, 이 상들 역시 불길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멧돼지 사냥도 있다. 그것이 칼리돈의 멧돼지인지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

헤라클레스와 싸우는 키크노스도 있다.

이 키크노스는 결투의 승자에게 상을 주기로 한 싸움에서, 트라키아인 리코스를 비롯한 여러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

그러나 페네이오스강 가까이에서 자신도 헤라클레스에게 죽었다.

**[1.27.7]** 테세우스에 관한 트로이젠의 전설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헤라클레스가 트로이젠의 피테우스를 방문했을 때, 저녁을 먹으려고 사자 가죽을 벗어놓았다.

그때 트로이젠의 아이들 몇이 당시 일곱 살쯤 된 테세우스와 함께 그를 보러 들어왔다.

이야기에 따르면 가죽을 본 다른 아이들은 달아났다.

그러나 테세우스는 별로 겁내지 않은 채 슬쩍 밖으로 나가 하인들에게서 도끼를 빼앗아들고, 그것이 사자인 줄 알고 곧바로 가죽을 진지하게 공격했다.

**[1.27.8]** 이것이 테세우스에 관한 첫 번째 트로이젠 전설이다.

다음 이야기는 아이게우스가 아이를 위한 징표로 바위 아래에 신발과 칼을 놓아두고 아테네로 항해해 갔다는 것이다.

테세우스는 열여섯 살이 되었을 때 바위를 밀어내고, 아이게우스가 두고 간 것들을 가지고 떠났다.

아크로폴리스에는 이 전설을 나타낸 작품이 있다.

바위를 제외하면 모두 청동이다.

**[1.27.9]** 테세우스의 또 다른 행적도 봉헌물로 표현되어 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크레타의 땅, 특히 테트리스강 주변이 한 황소 때문에 황폐해지고 있었다.

옛날에는 짐승들이 인간에게 훨씬 더 무서운 존재였던 듯하다.

네메아의 사자, 파르나소스의 사자, 그리스 여러 지방의 뱀들, 칼리돈과 에리만토스 및 코린토스 땅 크로미온의 멧돼지들이 그 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대지가 내보냈고, 어떤 것들은 신들에게 바쳐진 짐승들이며, 다른 것들은 인간을 벌하려고 풀어놓은 것들이라고 했다.

이 황소에 관해서도 크레타인들은 포세이돈이 자기들 땅에 보냈다고 말한다.

미노스가 그리스의 바다를 지배하면서도 포세이돈을 다른 신들보다 더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27.10]** 사람들은 이 황소가 크레타에서 펠로폰네소스로 건너왔으며, 이른바 헤라클레스의 열두 과업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

아르고스 평야에 풀려난 뒤에는 코린토스 지협을 지나 아티카로 달아나, 아티카의 마라톤 구역까지 왔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죽였는데, 미노스의 아들 안드로게오스도 그 가운데 있었다.

미노스는 아테네인들이 안드로게오스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믿지 않았다.

그는 함대를 이끌고 아테네를 공격하여 아테네인들을 심하게 괴롭혔다.

마침내 크노소스의 미궁에 산다는 미노타우로스에게 줄 처녀 일곱 명과 소년 일곱 명을 그가 데려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마라톤에 있던 황소는 나중에 테세우스가 아크로폴리스로 몰고 가 여신에게 제물로 바쳤다고 한다.

이 행적을 기념하는 봉헌물은 마라톤 구역이 바친 것이다. sourcebooks.fordham.edu

## 제28장

**[1.28.1]** 킬론이 참주정을 세우려 했는데도 사람들이 왜 그의 청동상을 세웠는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 추측으로는, 그가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고 명성도 보잘것없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올림피아 경기의 왕복 달리기에서 승리했으며, 메가라의 참주 테아게네스의 딸과 결혼한 사이였다.

**[1.28.2]** 내가 말한 작품들 외에도 아테네인들이 전쟁 뒤에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바쳐 세운 봉헌물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마라톤에 상륙한 페르시아인들에게서 얻은 전리품의 십분의 일로 만든 청동 아테나상이다.

페이디아스의 작품이지만, 켄타우로스들과 라피타이인들의 전투를 비롯한 방패의 돋을새김은 미스가 새긴 것이라고 한다.

에우에노르의 아들 파라시오스가 그를 위해 이 작품뿐 아니라 그의 다른 작품들도 도안했다고 한다.

이 아테나상의 창끝과 투구의 볏은 아테네로 항해하는 사람들이 수니온을 지나자마자 볼 수 있다.

다음은 보이오티아인들과 에우보이아의 칼키스인들에게서 얻은 전리품의 십분의 일로 만든 청동 전차다.

다른 봉헌물 두 가지도 있다.

크산티포스의 아들 페리클레스의 상과, 페이디아스의 작품들 가운데 가장 볼 만한 아테나상이다. 후자는 봉헌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렘노스의 아테나라고 불린다.

**[1.28.3]** 아크로폴리스 전체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 일부는 밀티아데스의 아들 키몬이 쌓았다.

그러나 나머지 전체를 둘러쌓은 것은 한때 아크로폴리스 아래에 살았던 펠라스고이였다고 한다.

사람들은 건설자들이 아그롤라스와 히페르비오스였다고 한다.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물어보았지만, 본래 시칠리아인들이었다가 아카르나니아로 이주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1.28.4]** 낮은 시가지로 내려가지 않고 관문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샘이 보이고, 그 가까운 동굴 안에 아폴론의 성소가 있다.

아폴론이 에레크테우스의 딸 크레우사와 만났다고 여겨지는 곳이 바로 여기다.

〔본문 결락〕

페르시아인들이 아티카에 상륙했을 때 필리피데스는 그 소식을 전하러 라케다이몬으로 파견되었다.

그는 돌아와서 라케다이몬인들이 출발을 미루었다고 말했다. 보름달이 뜨기 전에는 싸우러 나가지 않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필리피데스는 또 파르테니온산 가까이에서 판을 만났다고 말했다.

판은 자신이 아테네인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 싸우러 마라톤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 예고 때문에 그 신은 공경을 받게 되었다.

**[1.28.5]** 아레스의 언덕도 있다.

아레스가 처음으로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

그가 할리로티오스를 죽인 일과 그렇게 한 이유는 내 이야기에서 이미 설명했다.

그 뒤에는 오레스테스가 어머니를 죽인 일로 재판을 받았다고 한다.

그가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봉헌한 아테나 아레이아의 제단이 있다.

피고와 고발자가 올라서는 다듬지 않은 바위들을 사람들은 각각 ‘오만의 돌’과 ‘무정함의 돌’이라고 부른다.

**[1.28.6]** 가까이에는 아테네인들이 ‘존엄한 여신들’이라고 부르는 여신들의 성소가 있다.

헤시오도스는 『신통기』에서 그들을 에리니에스라고 부른다.

그들의 머리카락에 뱀이 있는 모습으로 처음 표현한 사람은 아이스킬로스였다.

그러나 이곳의 신상들에는, 이 여신들의 것이든 다른 지하 세계 신들의 것이든, 무시무시한 점이 전혀 없다.

플루톤과 헤르메스, 대지의 상들이 있다.

아레스의 언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상들 곁에서 제사를 지낸다.

시민들과 외지인들 모두 다른 경우에도 제사를 바친다.

**[1.28.7]** 성역 안에는 오이디푸스의 기념물이 있다.

나는 부지런히 알아본 끝에 그의 유골이 테바이에서 옮겨온 것임을 알았다.

소포클레스의 극에 나오는 오이디푸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호메로스 때문에 믿을 수 없다.

호메로스는 오이디푸스가 죽은 뒤 메키스테우스가 테바이에 와서 장례 경기에 참가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1.28.8]** 아테네인들에게는 그만큼 유명하지 않은 다른 법정들도 있다.

파라비스톤, 곧 ‘구석으로 밀려난 곳’과 삼각형 법정이 있다.

앞의 법정은 도시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으며, 가장 사소한 사건들을 재판한다.

뒤의 법정은 그 모양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

색깔에서 유래한 녹색 법정과 붉은 법정이라는 이름들도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가장 큰 법정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헬리아이아라고 불린다.

피 흘린 사건을 다루는 다른 법정들 가운데 하나는 ‘팔라디온 곁’이라고 불리며, 과실치사 사건들이 그곳으로 간다.

데모폰이 처음 그곳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어떤 혐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1.28.9]** 트로이아가 함락된 뒤 디오메데스가 함대를 이끌고 귀향하다가, 팔레론 앞바다를 항해하던 중 밤을 맞았다고 한다.

아르고스인들은 적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상륙했다. 어두워서 그곳이 아티카인 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데모폰 역시 사정을 모르고, 상륙한 사람들이 아르고스인들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을 공격했다고 한다.

그는 그들 가운데 여러 명을 죽이고 팔라디온을 가지고 떠났다.

그런데 한 아테네인이 어둠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다가 데모폰의 말에 부딪혀 넘어졌고, 말에 짓밟혀 죽었다.

그래서 데모폰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짓밟혀 죽은 사람의 친족들이 고발했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르고스 공동체가 고발했다고 한다.

**[1.28.10]** 델피니온에서는 자신이 정당하게 사람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재판한다.

테세우스가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킨 팔라스와 그의 아들들을 죽인 뒤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내세운 주장도 이것이었다.

테세우스가 무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망명하거나, 남아 있다면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모든 사람 사이에 확립된 관습이었다.

쇠붙이를 비롯한 온갖 무생물을 재판하는 이른바 프리타네이온의 법정은, 내 생각에 다음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에레크테우스가 아테네의 왕이었을 때 ‘소를 죽이는 자’가 처음으로 제우스 폴리에우스의 제단에서 소를 죽였다.

그는 도끼를 그 자리에 두고 나라 밖으로 망명했다.

그러자 곧바로 도끼가 재판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 재판은 오늘날까지 해마다 반복된다.

**[1.28.11]** 더 나아가 무생물이 때로는 스스로 인간에게 정당한 응징을 가한 적도 있다고 한다.

캄비세스의 굽은 칼이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사례다.

페이라이에우스의 바다 가까이에는 프레아티스가 있다.

망명 중인 사람이 자신이 없는 사이에 새로운 혐의로 고발되면, 이곳에서 배 위에 선 채 변론하고 재판관들은 육지에서 듣는다.

전설에 따르면 처음 이런 방식으로 텔라몬 앞에서 변론한 사람은 테우크로스였다.

그는 아이아스의 죽음에 관해서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정들에 관해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할 것이다.

sourcebooks.fordham.edu

## 제29장

**[1.29.1]** 아레스의 언덕 가까이에는 파나테나이아 축제의 행렬을 위해 만든 배가 전시되어 있다.

이 배보다 더 큰 배들은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갑판 아래에 아홉 줄의 노가 있는 델로스의 배를 능가하는 것을 만든 조선공은 내가 알지 못한다.

**[1.29.2]** 도시 밖의 여러 구역과 길가에도 아테네인들의 신성한 장소들이 있다. 신들의 성소들과 영웅 및 사람들의 무덤들이다.

가장 가까운 곳은 아카데메이아다. 예전에는 개인의 소유지였지만, 내가 살던 시대에는 체육장이었다.

그곳으로 내려가다 보면 아르테미스의 성역과 아리스테, 곧 '가장 훌륭한 여신', 칼리스테, 곧 '가장 아름다운 여신'의 목상들이 나온다.

내 생각에 이것들은 아르테미스의 별칭들이다. 팜포스의 시도 내 견해를 뒷받침한다.

이 신들에 관한 다른 이야기도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지나가겠다.

그다음에는 작은 신전이 있다. 사람들은 해마다 정해진 날에 디오니소스 엘레우테레우스의 신상을 그 안으로 옮긴다.

**[1.29.3]** 이곳의 성소들은 이와 같다.

무덤들 가운데 맨 처음 것은 리코스의 아들 트라시불로스의 것이다. 그는 자신보다 앞서 살았든 뒤에 살았든, 이름난 모든 아테네인 가운데 모든 면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의 업적 대부분은 지나가겠지만, 다음 사실들만으로도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60명에 불과한 병력을 이끌고 테바이에서 출발하여 이른바 30인의 참주정을 무너뜨렸다.

또한 당파로 갈라진 아테네인들을 설득하여 화해하게 하고, 맺은 협약을 지키게 했다.

그의 무덤이 맨 먼저 있고, 그 뒤에는 페리클레스와 카브리아스, 포르미온의 무덤들이 있다.

**[1.29.4]** 바다에서든 육지에서든 전투 중에 죽을 운명을 맞은 모든 아테네인을 위한 기념물도 있다. 다만 마라톤에서 싸운 사람들은 예외다.

그들은 용맹을 인정받아 전장에 무덤을 두고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카데메이아로 가는 길을 따라 묻혀 있으며, 무덤들 위에는 각자의 이름과 소속 구역을 적은 비석들이 서 있다.

맨 먼저 묻힌 사람들은 트라키아에서 승승장구하며 드라베스코스까지 진군했다가 에도네스족의 기습을 받아 학살당한 이들이다.

그들이 벼락을 맞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1.29.5]** 그들의 장군들 가운데에는 군대의 최고 지휘권을 맡았던 레아그로스와 데켈레이아의 소파네스가 있었다.

소파네스는 아이기나인들을 도우러 온 아르고스인 에우리바테스를 죽인 사람이다. 에우리바테스는 네메아 경기의 오종경기에서 우승한 바 있었다.

이것은 아테네인들이 그리스 밖으로 보낸 세 번째 원정이었다.

프리아모스와 트로이아인들에게는 그리스인 전체가 함께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아테네인들이 독자적으로 군대를 보낸 것은, 첫 번째가 이올라오스와 함께 사르데냐로 간 원정이었고, 두 번째가 지금 이오니아라고 부르는 지방으로 간 원정이었으며, 세 번째가 바로 이때 트라키아로 간 원정이었다.

**[1.29.6]** 기념물 앞에는 기병들이 싸우는 모습을 새긴 비석이 있다.

그들의 이름은 멜라노포스와 마카르타토스다. 엘레온과 타나그라의 경계에서 라케다이몬인들과 보이오티아인들에 맞서 싸우다가 죽었다.

테살리아 기병들의 무덤도 있다.

아르키다모스가 펠로폰네소스군을 이끌고 처음 아티카를 침략했을 때, 오래된 동맹 관계에 따라 도우러 왔던 사람들이다.

가까이에는 크레타 궁수들의 무덤도 있다.

다시 아테네인들의 기념물들도 있다. 지금의 부족 제도를 마련한 클레이스테네스의 기념물과, 테살리아인들이 아테네인들과 전쟁의 운명을 함께했을 때 전사한 기병들의 기념물이다.

**[1.29.7]** 아르고스인들과 함께 아티카로 왔던 클레오나이인들도 이곳에 묻혀 있다.

그들이 온 사정은 이야기가 아르고스인들에게 이르렀을 때 설명하겠다.

페르시아의 침입 전에 아이기나인들과 싸웠던 아테네인들의 무덤도 있다.

아테네인들이 노예들에게도 국장을 허락하고 비석에 이름을 새기게 한 것은, 민주정이라 해도 참으로 공정한 결정이었다.

그 비석에는 그들이 전쟁에서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주인들에게 충실했음을 보여주었다고 적혀 있다.

그 밖에 여러 지방의 전장에서 싸운 다른 사람들의 기념물들도 있다.

올린토스를 공격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이름난 이들과, 함대를 이끌고 마이안드로스강을 따라 카리아 내륙으로 올라갔던 멜레산드로스도 이곳에 묻혀 있다.

**[1.29.8]** 카산드로스와의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과, 한때 아테네의 동맹군으로 싸웠던 아르고스인들도 있다.

두 민족 사이의 동맹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한번은 스파르타에 지진이 일어났고, 헤일로타이들이 이토메로 들어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뒤 라케다이몬인들은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가운데 아테네도 있었다.

아테네는 밀티아데스의 아들 키몬을 지휘관으로 삼아 정예군을 파견했다.

그러나 라케다이몬인들은 그들을 의심하여 돌려보냈다.

**[1.29.9]** 아테네인들은 이 모욕을 참을 수 없다고 여겼다.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라케다이몬인들의 오랜 적인 아르고스인들과 동맹을 맺었다.

나중에 타나그라에서 아테네인들과 보이오티아 · 라케다이몬 연합군 사이의 전투가 임박하자, 아르고스인들이 아테네인들을 지원하러 왔다.

한동안 아르고스인들이 우세했지만, 밤이 찾아와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다음 날에는 테살리아인들이 아테네인들을 배반했으므로 라케다이몬인들이 우세해졌다.

**[1.29.10]** 나는 다음 사람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먼저 용병 지휘관 아폴로도로스가 있다.

그는 아테네인으로서 헬레스폰토스 부근 프리기아의 총독 아르시테스가 파견한 사람이었다. 필리포스가 군대를 이끌고 페린토스의 영토를 침략했을 때 그 도시를 구했다.

그도 이곳에 묻혀 있으며, 스핀타로스의 아들 에우불로스도 있다.

용맹했지만 행운이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도 함께 묻혀 있다.

어떤 이들은 라카레스가 참주로 있을 때 그를 공격했다.

다른 이들은 마케도니아 주둔군이 차지하고 있던 페이라이에우스를 빼앗으려 했다. 그러나 일을 실행하기 전에 공모자들에게 배신당하여 죽임을 당했다.

**[1.29.11]** 코린토스 부근에서 전사한 사람들도 이곳에 묻혀 있다.

이 전투와 뒤의 레욱트라 전투에서 신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리스인들이 용감하다고 부르는 사람들도 행운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때 코린토스인들과 아테네인들, 게다가 아르고스인들과 보이오티아인들까지 이겼던 라케다이몬인들이, 나중에는 레욱트라에서 보이오티아인들만을 상대로 싸우고도 철저히 무

너졌기 때문이다.

코린토스에서 죽은 사람들의 무덤을 지나면 애가의 시구들이 나온다.

그 시구들은 에우보이아와 키오스에서 죽은 사람들, 아시아 대륙의 먼 내륙이나 시칠리아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의 비석을 세웠다고 말한다.

**[1.29.12]** 장군들의 이름은 니키아스를 제외하고 모두 새겨져 있다.

일반 병사들 가운데에는 아테네인들과 함께 플라타이아이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니키아스가 빠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내 이야기는 필리스토스의 기록과 같다.

필리스토스에 따르면 데모스테네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휴전을 맺으면서 자신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고, 포로가 되었을 때에는 자살을 시도했다.

반면 니키아스는 자진해서 항복했다.

이 때문에 니키아스는 자진하여 포로가 된 자이자 군인답지 못한 자로 비난받았으며, 비석에 이름이 새겨지지 않았다.

**[1.29.13]** 다른 비석에는 트라키아 지방과 메가라에서 싸운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

알키비아데스가 만티네이아의 아르카디아인들과 엘리스인들을 설득하여 라케다이몬인들에게 반기를 들게 했을 때 싸운 사람들, 데모스테네스가 시칠리아에 도착하기 전에 시라쿠사인들에게 승리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있다.

헬레스폰토스 부근 해전에서 싸운 사람들, 카이로네이아에서 마케도니아군에 맞선 사람들, 클레온과 함께 암피폴리스로 진군한 사람들, 타나그라 영토의 델리온에서 죽은 사람들도 이곳에 묻혔다.

레오스테네스가 테살리아로 이끌고 간 사람들, 키몬과 함께 키프로스로 항해한 사람들도 있다.

올림피오도로스와 함께 주둔군을 몰아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열세 명을 넘지 않는 이들이 이곳에 묻혔다.

**[1.29.14]** 아테네인들은 로마인들이 국경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작은 병력을 보내 도왔으며, 나중에는 아티카 군함 다섯 척이 카르타고인들과의 해전에서 로마인들을 도왔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무덤도 이곳에 있다.

톨미데스와 부하들의 업적,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이미 설명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들도 이 길가에 묻혀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된다.

키몬과 함께 같은 날 육전과 해전에서 모두 승리하는 위업을 이룬 사람들도 이곳에 묻혀 있다.

**[1.29.15]** 코논과 티모테오스 부자도 이곳에 묻혀 있다.

이들은 부자가 함께 빛나는 업적을 이룬 두 번째 사례이며, 첫 번째는 밀티아데스와 키몬이었다.

므나세아스의 아들 제논과 솔로이의 크리시포스도 있다.

동시대 화가들 가운데 살아 있는 대상을 가장 잘 그렸던 니코메데스의 아들 니키아스도 있으며,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아들 히파르코스를 죽인 하르모디오스와 아리스토게이톤도 있다.

두 웅변가도 있다. 아레이오스 파고스의 특권을 폐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에피알테스와, 리코프론의 아들 리쿠르고스다.

**[1.29.16]** 리쿠르고스는 크산티포스의 아들 페리클레스가 모은 것보다 6,500탈란톤이나 더 많은 돈을 국고에 마련했다.

여신의 행렬을 위해 황금 니케상들과 처녀 100명의 장신구를 준비했다.

전쟁을 위해 무기와 투사 무기들을 마련했으며, 함대도 군함 400척으로 늘렸다.

건축물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시작한 극장을 완성했고, 정치 활동을 하는 동안 페이라이에우스에 선박 시설을, 이른바 리케이온 가까이에는 체육장을 지었다.

금과 은으로 만든 것들은 모두 라카레스가 참주가 되었을 때 가져간 약탈물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건물들은 내가 살던 시대까지 남아 있었다. sourcebooks.fordham.edu

## 제30장

**[1.30.1]** 아카데메이아 입구 앞에는 에로스의 제단이 있다.

명문에는 카르모스가 아테네인 가운데 처음으로 이 신에게 제단을 봉헌했다고 적혀 있다.

도시 안에 있는 안테로스, 곧 '사랑의 복수자'의 제단은 거류 외국인들이 봉헌했다고 한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아테네인 멜레스는 거류 외국인 티마고라스의 사랑을 업신여겨, 그에게 바위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몸을 던지라고 명령했다.

티마고라스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그 젊은이가 청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기쁘게 해주려 했다. 그래서 올라가 몸을 던졌다.

멜레스는 티마고라스가 죽은 것을 보고 너무나 심한 후회에 사로잡혀, 자신도 같은 바위에서 몸을 던져 죽었다.

그때부터 거류 외국인들은 티마고라스의 복수하는 영을 안테로스로 숭배했다.

**[1.30.2]** 아카데메이아에는 프로메테우스의 제단이 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불붙은 횃불을 들고 도시까지 달린다.

경기의 목적은 달리는 동안 횃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맨 앞 주자의 횃불이 꺼지면 그는 더 이상 승리할 자격이 없고, 두 번째 주자에게 자격이 돌아간다.

그의 횃불도 꺼지면 세 번째 사람이 승자가 된다.

횃불이 모두 꺼지면 승자는 아무도 없다.

무사이 여신들의 제단과 헤르메스의 제단이 있고, 안쪽에는 아테나의 제단도 있다. 헤라클레스의 제단도 세웠다.

세상에 두 번째로 나타난 것으로 여겨지는 올리브나무도 있다.

**[1.30.3]** 아카데메이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플라톤의 기념물이 있다.

신은 그가 철학자들의 으뜸이 되리라고 예고했다.

그 예고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플라톤이 제자가 되기 전날 밤, 소크라테스는 백조 한 마리가 자신의 품속으로 날아드는 꿈을 꾸었다.

백조는 음악으로 이름난 새다.

이야기에 따르면 에리다노스강 건너 켈트인들의 영토 너머에 사는 리귀에스족 가운데 키크노스, 곧 '백조'라는 이름의 음악가가 왕이 되었으며, 그가 죽은 뒤 아폴론의 뜻에 따라 그 새로 변했기 때문이다.

나는 음악가가 리귀에스족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새가 되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1.30.4]** 이 지방에서는 티몬의 탑을 볼 수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피하는 것 외에는 행복해질 길이 없음을 깨달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말들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곳도 가리켜 보여준다.

오이디푸스가 아티카에서 처음 도착한 곳이 여기라고 한다. 이 이야기 역시 호메로스의 기록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널리 전해지는 전승이다.

말의 신 포세이돈과 말의 여신 아테나의 제단이 있으며, 영웅 페이리토오스와 테세우스, 오이디푸스와 아드라스토스의 사당도 있다.

포세이돈의 숲과 신전은 안티고노스가 아티카를 침략했을 때 불태웠다.

그는 다른 때에도 아테네인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 제31장

**[1.31.1]** 아티카의 작은 구역들은 저마다 사정에 따라 따로 형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리무스에는 법을 주는 데메테르와 코레의 성소가 있다.

해안의 조스테르, 곧 '허리띠'에는 아테나와 아폴론, 아르테미스와 레토의 제단이 있다.

레토가 이곳에서 자녀들을 낳은 것은 아니지만, 출산하려고 허리띠를 풀었으며 그 일에서 지명이 유래했다는 이야기다.

프로스팔타에도 코레와 데메테르의 성소가 있고, 아나귀루스에는 신들의 어머니의 성소가 있다.

케팔레에서는 디오스쿠로이 숭배가 가장 중요하다. 주민들은 그들을 위대한 신들이라고 부른다.

**[1.31.2]** 프라시아이에는 아폴론 신전이 있다.

히페르보레오이의 첫 수확물이 이곳으로 보내진다고 한다.

히페르보레오이가 아리마스포이에게 넘기고, 아리마스포이는 이세도네스에게 넘긴다. 이세도네스에게서 받은 것을 스키타이인들이 시노페로 가져온다.

거기서부터 그리스인들이 프라시아이로 운반하며, 아테네인들이 델로스로 가져간다.

첫 수확물은 밀짚 속에 감추어져 있으며,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프라시아이에는 에리식톤의 기념물이 있다.

그는 신성한 사절로 델로스에 갔다가 돌아오는 항해 도중 죽었다.

**[1.31.3]** 암픽티온이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이자 아테네 왕인 크라나오스를 몰아낸 일은 이미 이야기했다.

크라나오스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람프트라이 구역으로 달아났으며, 그곳에서 죽어 묻혔다고 한다.

지금도 람프트라이에는 크라나오스의 기념물이 있다.

아티카의 포타모이에는 크수토스의 아들 이온의 무덤도 있다.

그 역시 아테네인들 사이에 살았고, 엘레우시스와의 전쟁에서 그들의 최고 지휘관이었다.

**[1.31.4]** 이것이 그 전승이다.

플뤼아와 미리누스에는 디오니소도토스 아폴론, 횃불을 든 아르테미스, 꽃의 신 디오니소스, 이스메노스의 님프들, 그리고 위대한 여신이라고 부르는 대지의 제단들이 있다.

두 번째 신전에는 아네시도라, 곧 ‘선물을 땅 위로 보내는 여신’ 데메테르, 재산의 신 제우스 크테시오스, 티트로네 아테나, 먼저 태어난 코레, 그리고 ‘존엄한 여신들’이라고 부르는 여신들의 제단들이 있다.

미리누스의 목상은 콜라이니스의 것이다.

**[1.31.5]** 아트모니아에서는 아마리시아 아르테미스를 숭배한다.

나는 물어본 끝에 안내자들이 이 신들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므로 내 추측을 제시하겠다.

아마린토스는 에우보이아의 도시이며, 주민들은 아마리시아를 숭배한다.

아테네인들이 거행하는 아마리시아의 축제도 에우보이아의 축제 못지않게 성대하다.

여신의 이름이 아트모니아에 들어온 것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였다고 생각한다.

미리누스의 콜라이니스는 콜라이노스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여러 구역의 주민 가운데 많은 이들이 케크롭스의 통치 이전에도 왕들의 지배를 받았다고 말한다는 것은 이미 기록했다.

미리누스인들에 따르면 콜라이노스는 케크롭스가 왕이 되기 전에 그들을 다스렸던 사람의 이름이다.

**[1.31.6]** 아카르나이라는 구역에서는 거리의 신 아폴론 아귀이에우스와 헤라클레스를 숭배하며, 건강의 여신 아테나의 제단도 있다.

또한 말의 여신 아테나, 노래하는 디오니소스, 담쟁이덩굴의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을 부르며 기원한다.

그들은 담쟁이덩굴이 처음 이곳에 나타났다고 말한다. sourcebooks.fordham.edu

## 제32장

**[1.32.1]** 아티카의 산들에는 채석장들이 있는 펜텔리콘, 멧돼지와 곰을 사냥할 수 있는 파르네스, 그리고 히메토스가 있다.

히메토스에는 알라조네스족의 땅을 제외하면 벌들에게 가장 알맞은 먹이가 자란다.

알라조네스족의 벌들은 실제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다른 가축들이 풀을 뜯으러 갈 때 얌전히 따라간다.

이 벌들은 벌통 안에 가두어두지 않는다. 벌들이 찾아가는 땅 어디에서나 일을 한다.

벌들은 밀랍과 꿀을 분리할 수 없는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어낸다.

그 성질은 이와 같다.

**[1.32.2]** 아테네인들은 산들에도 신상들을 가지고 있다.

펜텔리콘에는 아테나상이 있고, 히메토스에는 제우스 히메티오스상이 있다.

비를 내리는 제우스와 앞일을 내다보는 아폴론의 제단들도 있다.

파르네스에는 청동 제우스 파르네티오스상과, 징조를 주는 제우스 세말레오스의 제단이 있다.

파르네스에는 또 다른 제단도 있다. 사람들은 그 위에서 제사를 지내며 제우스를 때로는 비를 내리는 신, 때로는 재앙을 물리치는 신이라고 부른다.

안케스모스는 그리 크지 않은 산으로, 제우스 안케스미오스상이 있다.

**[1.32.3]** 섬들을 설명하기 전에 다시 여러 구역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야겠다.

마라톤이라는 구역이 있다. 아테네와 에우보이아의 카리스토스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

이방인들이 상륙했다가 전투에서 패하고, 육지를 떠나려다가 배 몇 척도 잃은 아티카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평야에는 아테네인들의 무덤이 있으며, 그 위에는 전사자들의 이름을 부족별로 적은 비석들이 있다.

보이오티아의 플라타이아이인들과 노예들을 위한 별도의 무덤도 있다.

그때 처음으로 노예들이 주인들과 나란히 싸웠기 때문이다.

**[1.32.4]** 키몬의 아들 밀티아데스 한 사람만을 위한 별도의 기념물도 있다.

다만 그의 죽음은 그 뒤에 찾아왔다. 파로스를 함락하지 못한 탓에 아테네인들에게 재판을 받은 뒤였다.

마라톤에서는 밤마다 말들이 우는 소리와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광경을 일부러 보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누구도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없다.

그러나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보게 된 사람들에게는 영들이 화를 내지 않는다.

마라톤인들은 전투에서 죽은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부르며 숭배한다.

그다음으로는 구역의 이름이 유래한 마라톤을, 그리고 헤라클레스를 숭배한다.

그들은 그리스인들 가운데 자신들이 처음으로 헤라클레스를 신으로 인정했다고 말한다.

**[1.32.5]** 또한 전투 때 시골 사람 같은 모습과 옷차림을 한 남자가 나타났다고 한다.

그는 쟁기로 이방인들을 많이 죽인 뒤, 전투가 끝나자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아테네인들이 신탁에 물었을 때, 신은 에케틀라이오스, 곧 ‘쟁기 손잡이의 사람’을 영웅으로 공경하라고만 명령했다.

흰 대리석으로 만든 승전 기념물도 세워져 있다.

아테네인들은 시신을 땅에 묻어야 한다는 신의 법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므로 페르시아인들을 매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무덤을 찾을 수 없었다.

봉분도 다른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죽은 이들을 구덩이로 옮겨 아무렇게나 던져 넣었기 때문이다.

**[1.32.6]** 마라톤에는 마카리아라는 샘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진다.

헤라클레스는 에우리스테우스를 피해 티린스를 떠났을 때 친구인 트라키스 왕 케익스에게 가서 살았다.

그러나 헤라클레스가 죽자 에우리스테우스가 그의 자녀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트라키스 왕은 자신은 약하지만 테세우스는 그들을 도울 충분한 힘이 있다면서 그들을 아테네로 보냈다.

그 자녀들이 탄원자로 찾아온 일이 펠로폰네소스인들과 아테네인들 사이에 처음 전쟁을 일으켰다.

테세우스가 에우리스테우스의 요구에도 피신한 이들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야기에 따르면 아테네인들에게 신탁이 내려, 헤라클레스의 자녀 가운데 하나가 자진해서 죽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데이아네이라와 헤라클레스의 딸 마카리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하여 아테네인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었고, 샘에는 자신의 이름을 남겼다.

**[1.32.7]** 마라톤에는 대부분이 늪지로 된 호수가 있다.

이방인들은 길을 몰랐으므로 달아나다가 그 안으로 빠졌다. 이 일이 그들의 큰 인명 손실을 초래했다고 한다.

호수 위쪽에는 아르타페르네스의 말들을 두었던 돌로 된 마구간과, 바위에 남은 그의 천막 자국들이 있다.

호수에서는 강이 흘러나온다.

호수 가까이의 물은 가축에게 먹이기에 알맞지만, 하구 가까이에서는 짜지고 바닷물고기들로 가득하다.

평야에서 조금 더 가면 판의 언덕과 주목할 만한 판의 동굴이 있다.

입구는 좁지만 안으로 더 들어가면 방들과 목욕할 곳들이 있다.

이른바 '판의 염소 떼'도 있는데, 대부분의 모습이 염소를 닮은 바위들이다.

## 제33장

**[1.33.1]** 마라톤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브라우론이 있다.

전설에 따르면 아가멤논의 딸 이피게네이아가 타우리족에게서 달아나 아르테미스상을 가지고 상륙한 곳이다.

그녀는 신상을 그곳에 남겨두고 아테네로 왔으며, 나중에는 아르고스로 갔다.

이곳에는 실제로 오래된 아르테미스 목상이 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서 가져온 신상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내가 생각하는지는 다른 곳에서 설명하겠다.

**[1.33.2]** 마라톤에서 바닷가 길을 따라 오로포스로 가다 약 60스타디온 되는 곳에 람누스가 있다.

주택들은 해안에 있지만 조금 내륙으로 들어가면 네메시스의 성소가 있다.

그녀는 폭력을 행하는 자들에게 가장 가차 없는 신이다.

마라톤에 상륙한 이방인들에게도 이 여신의 분노가 닥쳤다고 여겨진다.

그들은 오만하여 아테네를 점령하는 데 아무런 장애도 없다고 생각했다.

일이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확신하면서, 승전 기념물을 만들 파로스 대리석 한 덩어리를 가져오고 있었다.

**[1.33.3]** 페이디아스는 이 대리석으로 네메시스상을 만들었다.

여신의 머리에는 사슴들과 작은 니케상들이 있는 관이 씌워져 있다.

왼손에는 사과나무 가지를, 오른손에는 에티오피아인들이 새겨진 잔을 들고 있다.

에티오피아인들에 관해서는 나 자신도 어떤 추측을 내놓을 수 없었다.

오케아노스강 때문에 잔에 에티오피아인들을 새겼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설명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인들은 그 강 가까이 살며, 오케아노스는 네메시스의 아버지라는 것이다.

**[1.33.4]** 그러나 오케아노스는 강이 아니라 사람들이 항해하는 바다의 가장 먼 부분이다.

그 가까이에는 이베리아인들과 켈트인들이 살며, 오케아노스는 브리타니아섬을 둘러싸고 있다.

반면 시에네 너머의 에티오피아인들 가운데 홍해 쪽 가장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크티오파고이, 곧 물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둘러싸고 사는 만도 그들의 이름을 따서 불린다.

그들 가운데 가장 정의로운 이들은 메로에와 이른바 에티오피아 평야에 산다.

'태양의 식탁'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그들에게는 바다도 없고, 나일강을 제외하면 강도 없다.

**[1.33.5]** 마우리족과 이웃하며 나사모네스족에 이르기까지 퍼져 사는 다른 에티오피아인들도 있다.

헤로도토스가 아틀란테스라고 부르고, 대지의 크기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릭시타이라고 부르는 나사모네스족은 아틀라스산 가까이의 가장 먼 지역에 사는 리비아인들이다.

그들은 땅을 전혀 경작하지 않고 야생 포도나무의 열매로 살아간다.

그러나 이 에티오피아인들에게도 나사모네스족에게도 강은 없다.

아틀라스 부근의 물이 세 물줄기의 시작이 되기는 하지만, 어느 물줄기도 강을 이루지 못한다.

모래가 그 물을 곧바로 모두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티오피아인들은 오케아노스라는 강 가까이에 살지 않는다.

**[1.33.6]** 아틀라스에서 나오는 물은 흙탕물이다.

수원 가까이에는 길이가 적어도 2큐빗이나 되는 악어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가가면 샘 안으로 재빨리 들어갔다.

많은 사람은 이 물이 모래 속에서 다시 나타나 이집트의 나일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아틀라스산은 너무나 높아서 봉우리들이 하늘에 닿는다고 한다.

그러나 물과 사방의 나무들 때문에 접근할 수 없다.

나사모네스족 가까운 쪽은 알려져 있지만, 바다를 향한 부분을 따라 항해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알려져 있지 않다.

이제 본래 이야기로 돌아가야겠다.

**[1.33.7]** 이 네메시스상에도, 다른 어떤 오래된 네메시스상에도 날개는 없다.

스미르나인들의 가장 신성한 목상들조차 날개가 없다.

그러나 후대의 예술가들은 여신이 사랑의 결과로 특히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고 믿고, 에로스에게 하듯 네메시스에게도 날개를 달아준다.

이제 신상의 받침대에 표현된 것들을 설명하겠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다음 이야기를 해두겠다.

그리스인들은 네메시스가 헬레네의 어머니였고, 레다가 젖을 먹여 길렀다고 한다.

헬레네의 아버지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리스인들도 틴다레오스가 아니라 제우스라고 여긴다.

**[1.33.8]** 이 전설을 듣고 페이디아스는 레다가 헬레네를 네메시스에게 데려가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틴다레오스와 그의 자녀들도 표현했으며, 히페우스라는 사람이 말을 데리고 곁에 서 있다.

아가멤논과 메넬라오스, 아킬레우스의 아들 피로스도 있다.

피로스는 헬레네의 딸 헤르미오네의 첫 남편이었다.

오레스테스는 어머니에게 저지른 죄 때문에 제외되었다.

그러나 헤르미오네는 모든 일에서 그의 곁을 지켰으며 그에게 아이도 낳아주었다.

받침대의 다음 부분에는 에포코스라는 사람과 또 다른 젊은이가 있다.

그들에 관해 내가 들은 것은, 구역의 이름이 유래한 오이노에의 형제들이었다는 것뿐이다.

sourcebooks.fordham.edu

## 제34장

**[1.34.1]** 아티카와 타나그라의 영토 사이에 있는 오로포스 지방은 원래 보이오티아에 속했으나, 우리 시대에는 아테네인들의 땅이다.

아테네인들은 이곳을 두고 늘 싸웠지만, 필리포스가 테바이를 차지한 뒤 자신들에게 넘겨주기 전까지는 안정적으로 소유하지 못했다.

도시는 해안에 있으며 기록할 만한 특별한 것은 없다.

도시에서 약 12스타디온 떨어진 곳에는 암피아라오스의 성소가 있다.

**[1.34.2]** 전설에 따르면 암피아라오스가 테바이에서 달아날 때 땅이 갈라져 그와 전차를 함께 삼켰다.

다만 그 일이 이곳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전차’라고 불리는 장소는 테바이에서 칼키스로 가는 길에 있다.

암피아라오스의 신성은 처음 오로포스인들 사이에서 인정되었으며, 그 뒤 모든 그리스인이 그들에게서 숭배를 받아들였다.

나는 같은 시대에 태어나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신으로 숭배되는 다른 사람들도 열거할 수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도시 자체가 바쳐져 있다.

케르소네소스의 엘레우스는 프로테실라오스에게, 보이오티아의 레바데이아는 트로포니오스에게 바쳐진 경우다.

오로포스인들에게는 암피아라오스의 신전과 흰 대리석 신상이 있다.

**[1.34.3]** 제단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한 부분은 헤라클레스와 제우스, 치유하는 아폴론에게 바친 것이다.

다른 부분은 영웅들과 영웅들의 아내들에게 바쳐져 있다.

세 번째는 헤스티아와 헤르메스, 암피아라오스와 암필로코스의 자녀들에게 바친 것이다.

그러나 알크마이온은 에리필레에게 한 일 때문에 암피아라오스의 신전에서도, 암필로코스와 함께도 공경받지 못한다.

제단의 네 번째 부분은 아프로디테와 파나케이아, 이아소와 건강의 여신, 치유하는 아테나에게 바친 것이다.

다섯 번째는 님프들과 판, 그리고 아켈로오스강과 케피소스강에 바쳐져 있다.

아테네인들도 시내에 암필로코스의 제단을 가지고 있다.

킬리키아의 말로스에는 그의 신탁소가 있는데, 내가 살던 시대에 가장 믿을 만한 신탁소다.

**[1.34.4]** 오로포스인들은 신전 가까이에 있는 샘을 암피아라오스의 샘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그 안에 제물을 바치지 않으며, 정화나 정화용 물을 얻는 데에도 쓰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신탁을 통해 병을 고쳤을 때에는 은과 금화를 샘에 던져 넣는 것이 관례다.

암피아라오스가 신이 된 뒤 이 길을 통해 솟아올랐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크노소스의 안내자 이오폰은 육각운으로 된 신탁들을 내놓고, 암피아라오스가 테바이를 공격하러 보내진 아르고스인들에게 준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 시구들은 거리낌 없이 대중의 취향에 영합했다.

옛날 아폴론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예언자들 가운데 누구도 신탁을 발하지 않았다.

그들은 꿈을 풀이하고 새들의 비행과 제물의 내장을 해석하는 데 능숙했을 뿐이다.

**[1.34.5]** 내 생각에 암피아라오스는 무엇보다 꿈을 해석하는 일에 몰두했다.

그가 신으로 인정된 뒤 세운 것이 꿈을 통한 신탁소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암피아라오스에게 신탁을 구하러 온 사람은 먼저 자신을 정화하는 것이 관례다.

정화하는 방법은 신에게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그에게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이름이 있는 모든 존재에게 바친다.

이 모든 일을 먼저 행한 다음 숫양을 제물로 바친다.

그리고 그 가죽을 밑에 깔고 잠들어, 꿈속에서 계시를 받기를 기다린다.

## 제35장

**[1.35.1]** 아티카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섬들이 있다.

파트로클로스의 섬이라고 부르는 섬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했다.

수니온을 지나 아티카를 왼편에 두고 항해하면 또 다른 섬이 있다.

트로이아가 함락된 뒤 헬레네가 그곳에 상륙했다고 한다.

**[1.35.2]** 그래서 그 섬의 이름은 헬레네다.

살라미스는 엘레우시스 맞은편에 있으며 메가라의 영토까지 뻗어 있다.

이 섬에 처음 이 이름을 붙인 사람은 키크레우스라고 한다.

그는 아소포스의 딸인 자기 어머니 살라미스의 이름을 따서 섬을 불렀다.

그 뒤 텔라몬과 함께 온 아이기나인들이 정착했다.

아이아스의 아들 에우리사케스의 아들인 필라이오스는 아테네인들에게서 시민권을 받은 뒤 섬을 그들에게 넘겨주었다고 한다.

여러 해 뒤 아테네인들은 살라미스인들을 모두 몰아냈다.

카산드로스와의 전쟁에서 그들이 배신했으며, 무엇보다 의도적으로 마케도니아인들에게 항복했다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때 살라미스의 장군으로 선출되어 있던 아이스케타데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살라미스인들의 배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1.35.3]** 시장의 유적과 아이아스의 신전, 흑단으로 만든 그의 신상이 아직 남아 있다.

지금도 아테네인들은 아이아스 자신과 에우리사케스를 공경한다.

아테네에도 에우리사케스의 제단이 있기 때문이다.

살라미스에서는 항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돌 하나를 보여준다.

텔라몬은 자녀들이 그리스의 연합 원정에 참가하려고 아울리스로 떠날 때, 그 돌에 앉아 자녀들이 탄 배를 바라보았다고 한다.

**[1.35.4]** 살라미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아스가 죽었을 때 그 꽃이 자기들 땅에 처음 나타났다고 말한다.

그 꽃은 흰색에 붉은빛이 감돌며, 꽃과 잎이 모두 백합보다 작다.

꽃 위에는 붓꽃에 있는 것과 비슷한 글자들이 있다.

무구에 대한 판정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일리온에 정착한 아이올리스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오디세우스가 난파했을 때 무구가 아이아스의 무덤 가까운 해안으로 떠밀려 왔다는 것이다.

영웅의 몸집에 관해서는 미시아인 한 사람이 내게 알려주었다.

**[1.35.5]** 그는 무덤의 바다 쪽 면이 물에 씻겨 내려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기 쉬워졌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사실로 시신의 크기를 짐작해보라고 말했다.

의사들이 슬개골이라고 부르는 아이아스의 무릎뼈가 소년들이 오종경기에서 쓰는 원반만 했다는 것이다.

추위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의 경계, 가장 먼 곳에 사는 켈트인들의 키에서는 놀라운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카바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의 시신보다 크지 않다.

그러나 내가 볼 만하다고 생각한 것들은 모두 이야기하겠다.

**[1.35.6]** 레타이오스강에 사는 마그네시아인들 가운데 프로토파네스라는 시민이 있었다.

그는 올림피아에서 같은 날 판크라티온과 레슬링에서 모두 우승했다.

이 사람의 무덤에 도굴꾼들이 이익을 얻으리라 생각하고 들어갔다.

도굴꾼들이 들어간 뒤 다른 사람들도 시신을 보러 들어갔는데, 갈비뼈들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다.

어깨부터 의사들이 가성 늑골이라고 부르는 가장 작은 갈비뼈에 이르기까지 서로 붙어 있었다.

밀레토스 사람들의 도시 앞에는 라데라는 섬이 있고, 그 주변에 작은 섬들이 떨어져 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아스테리오스의 작은 섬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아스테리오스가 그곳에 묻혔다고 하며, 그가 아낙스의 아들이고 아낙스는 대지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그 시신의 길이는 적어도 10큐빗이나 된다.

**[1.35.7]** 그러나 나를 정말로 놀라게 한 것은 다음 일이다.

리디아 내륙에는 ‘테메노스의 문들’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다.

그곳에서 폭풍에 산의 한 돌출부가 무너졌고, 뼈들이 드러났다.

그 형태를 보면 인간의 뼈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크기를 보면 도저히 그렇게 여길 수 없었다.

곧바로 대중 사이에 그것이 크리사오르의 아들 게리온의 시신이며, 의자도 그의 것이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산에서 돌출한 바위에 사람이 앉는 자리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떤 급류를 오케아노스강이라고 불렀으며, 밭을 갈던 사람들이 소뿔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게리온이 훌륭한 소들을 길렀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1.35.8]** 나는 그 설명을 비판하면서 게리온은 가데이라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곳에 있는 것은 그의 무덤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를 드러내는 나무다.

그러자 리디아의 안내자들은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시신은 대지의 아들 힐로스의 것이며, 강의 이름도 그에게서 유래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 헤라클레스가 옴팔레와 함께 머문 인연으로, 그 강의 이름을 따서 자기 아들을 힐로스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sourcebooks.fordham.edu

## 제36장

**[1.36.1]** 이제 본래 주제로 돌아가겠다.

살라미스에는 아르테미스의 성소와, 네오클레스의 아들 테미스토클레스가 그리스인들을 위해 거둔 승리를 기념하여 세운 승전 기념물이 있다.

키크레우스의 성소도 있다.

아테네인들이 페르시아군과 바다에서 싸우고 있을 때 함대 안에 뱀 한 마리가 나타났다고 한다.

신은 신탁을 통해 그것이 영웅 키크레우스였다고 아테네인들에게 알려주었다.

**[1.36.2]** 살라미스 앞에는 프시탈레이아라는 섬이 있다.

페르시아인 약 400명이 이곳에 상륙했다고 한다.

크세르크세스의 함대가 패하자 그리스인들이 프시탈레이아로 건너가 이들도 죽였다.

섬에는 정교하게 만든 조각상은 없고, 판의 모습을 거칠게 깎아 만든 목상들만 있다.

**[1.36.3]** 아테네인들이 성스러운 길이라고 부르는 길을 따라 아테네에서 엘레우시스로 가다 보면 안테모크리토스의 무덤이 보인다.

메가라인들은 그에게 지극히 사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가 전령으로 와서 앞으로는 그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금지했는데, 그를 죽여버린 것이다.

그 행위 때문에 두 여신의 분노가 오늘날까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

그리스인들 가운데 하드리아누스 황제조차 더 번영하게 만들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뿐이기 때문이다.

**[1.36.4]** 안테모크리토스의 묘비 다음에는 몰로토스의 무덤이 있다.

그는 아테네인들이 플루타르코스를 지원하려고 에우보이아로 건너갔을 때 지휘를 맡을 만한 인물로 인정받았다.

스키론이라고 불리는 장소도 있는데, 그 이름은 다음 이유로 붙었다.

엘레우시스인들이 에레크테우스와 전쟁을 벌일 때 도도나에서 스키로스라는 예언자가 왔다.

그는 팔레론에 아테나 스키라스의 오래된 성소를 세운 사람이기도 하다.

그가 전투에서 죽자 엘레우시스인들은 급류 가까이에 묻었다.

그 영웅의 이름에서 장소와 물줄기의 이름이 모두 유래했다.

**[1.36.5]** 가까이에는 케피소도로스의 무덤이 있다.

그는 민중의 지도자였으며 마케도니아 왕 데메트리오스의 아들 필리포스에게 온 힘을 다해 맞섰다.

케피소도로스는 두 왕, 미시아의 아탈로스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를 설득하여 아테네의 동맹으로 삼았다.

자치권을 가진 민족들 가운데에서는 아이톨리아인들을, 섬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로도스인들과 크레타인들을 동맹으로 삼았다.

**[1.36.6]** 그러나 이집트와 미시아, 크레타에서 오는 지원군은 대부분 너무 늦었다.

로도스인들은 힘이 오직 함대에 있었으므로 마케도니아 중무장병들을 상대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케피소도로스는 다른 아테네인들과 함께 이탈리아로 항해하여 로마인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로마인들은 군대와 장군을 보냈다.

그들은 필리포스와 마케도니아인들을 크게 약화시켰으며, 뒤에는 필리포스의 아들 페르세우스가 왕위를 잃고 자신도 포로가 되어 이탈리아로 끌려갔다.

이 필리포스는 데메트리오스의 아들이었다.

데메트리오스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카산드로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를 죽이고, 이 가문 가운데 처음으로 마케도니아의 왕위를 차지했다.

## 제37장

**[1.37.1]** 케피소도로스의 기념물 다음에는 헬리오도로스 할리스가 묻혀 있다.

이 사람의 초상도 아테나의 큰 신전에서 볼 수 있다.

폴리아르코스의 아들 테미스토클레스의 무덤도 이곳에 있다.

그는 크세르크세스와 페르시아인들을 상대로 해전을 치렀던 테미스토클레스의 손자다.

그 뒤의 후손들 가운데에서는 아케스티온 외에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겠다.

그녀의 아버지 크세노클레스와 그의 아버지 소포클레스, 다시 그의 아버지 레온에 이르기까지, 증조부 레온까지의 선조들은 모두 횃불잡이의 영예를 얻었다.

또한 그녀는 살아 있는 동안 먼저 형제 소포클레스가, 그다음에는 남편 테미스토클레스가, 그가 죽은 뒤에는 아들 테오프라스토스가 횃불잡이가 되는 것을 보았다.

그녀에게 그런 행운이 따랐다고 한다.

**[1.37.2]** 테미스토클레스의 무덤을 조금 지나면 영웅 라키오스의 성역이 있다.

그의 이름을 딴 라키아다이라는 구역과, 현악기 연주자로서 독보적인 명성을 얻은 타라스의 니코클레스의 무덤도 있다.

서풍의 신 제피로스의 제단과 데메테르 및 딸의 성소도 있다.

그들과 함께 아테나와 포세이돈도 숭배된다.

이곳에서 피탈로스가 데메테르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고, 여신은 그 보답으로 무화과나무를 주었다는 전설이 있다.

이 이야기는 피탈로스의 무덤에 있는 명문으로도 뒷받침된다.

> 영웅이자 왕인 피탈로스는 이곳에서
> 존엄한 여신 데메테르를 맞아들였다.
> 그때 여신은 처음으로 수확의 열매를 만들어냈으니,
> 죽을 운명의 인간들이 ‘성스러운 무화과’라 부르는 것이다.
> 그로부터 피탈로스와 그 후손들은 불멸의 영예를 얻었다.

**[1.37.3]** 케피소스강을 건너기 전에는 당대 최고의 비극 배우 테오도로스의 무덤이 나온다.

강가에는 므네시마케의 상과, 아들이 케피소스에게 바치려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모습을 나타낸 봉헌상이 있다.

이 관습이 옛날부터 모든 그리스인 사이에 있었다는 것은 호메로스의 시로 미루어 알 수 있다.

호메로스는 펠레우스가 아킬레우스가 트로이아에서 무사히 돌아오면 젊은이의 머리카락을 잘라 스페르케이오스강에 바치겠다고 서원하게 한다.

**[1.37.4]** 케피소스강 건너편에는 자비로운 제우스 메일리키오스의 오래된 제단이 있다.

테세우스는 도적들을 죽인 뒤 이 제단에서 피탈로스의 후손들에게 정화를 받았다.

죽인 자들 가운데에는 피테우스를 통해 자신과 친족 관계였던 시니스도 있었다.

이곳에는 파셀리스의 테오덱테스와 므네시테오스의 무덤이 있다.

므네시테오스는 유능한 의사였으며, 이아코스를 나타낸 상을 비롯한 조각상들을 봉헌했다고 한다.

길에는 키아미테스의 것이라고 불리는 작은 신전이 있다.

그가 처음으로 콩을 심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콩의 발견을 데메테르에게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영웅에게 그런 이름을 붙인 것인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

엘레우시스에서 비의에 입문했거나 이른바 오르페우스의 저술들을 읽은 사람은 내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알 것이다.

**[1.37.5]** 무덤들 가운데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들은 아테네에 정착한 어느 로도스인의 무덤과 마케도니아인 하르팔로스가 만든 무덤이다.

하르팔로스는 알렉산드로스에게서 달아나 함대를 이끌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왔다.

아테네에 도착하자 시민들에게 체포되었지만, 알렉산드로스의 친구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달아났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그는 피토니케와 결혼했다.

나는 그녀가 어느 집안 출신인지 모른다. 다만 아테네와 코린토스의 고급 유녀였다.

그는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여, 그녀가 죽자 옛 그리스의 모든 무덤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무덤을 만들어주었다.

**[1.37.6]** 데메테르와 딸, 아테나와 아폴론의 상들이 놓인 성소가 있다.

처음에는 아폴론만을 공경하기 위해 지은 것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데이온의 아들 케팔로스는 암피트리온을 도와 텔레보아이족을 멸망시킨 뒤, 지금은 그의 이름을 따서 케팔레니아라고 불리는 섬에 처음 정착했다.

그전까지 그는 테바이에 살았다. 아내 프로크리스를 죽였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추방된 상태였다.

그로부터 10대 뒤에 케팔로스의 후손 칼키노스와 다이토스가 델포스로 항해하여, 아테네로 돌아가도 되는지 신에게 물었다.

**[1.37.7]** 신은 그들에게, 아티카에서 군함이 육지를 달리는 것을 보게 되는 장소에서 먼저 아폴론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했다.

그들이 '여러 빛깔의 산'이라고 불리는 산에 도착했을 때, 뱀 한 마리가 제 굴로 급히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폴론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 뒤 아테네로 왔으며, 아테네인들은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었다.

그다음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다.

그 앞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주목할 만한 벽이 있다. sourcebooks.fordham.edu

## 제38장

**[1.38.1]** 레이토이라고 불리는 물줄기들은 흐른다는 점에서만 강이다.

그 물은 바닷물이기 때문이다.

칼키스인들의 에우리포스에서 땅 밑으로 흘러와 더 낮은 바다로 들어간다고 믿는 것은 타당하다.

이 물줄기들은 코레와 데메테르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하며, 이 여신들의 사제들만이 그 안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내가 알아본 바로는 옛날 이 물줄기들이 엘레우시스인들의 땅과 다른 아테네인들의 땅 사이의 경계였다.

**[1.38.2]** 레이토이 건너편에 처음 산 사람은 크로콘이었다.

지금도 그곳에는 이른바 크로콘의 궁전이 있다.

아테네인들은 이 크로콘이 켈레오스의 딸 사에사라와 결혼했다고 말한다.

다만 모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스캄보니다이 구역에 속한 사람들만 그렇게 말한다.

나는 크로콘의 무덤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에우몰포스의 무덤이 어디인지는 엘레우시스인들과 아테네인들이 일치하여 가리켰다.

이 에우몰포스는 포세이돈과 키오네의 아들로서 트라키아에서 왔다고 한다.

키오네는 북풍 보레아스와 오레이티이아의 딸이었다고 한다.

호메로스는 에우몰포스의 가문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시에서 그를 '용맹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1.38.3]** 엘레우시스인들이 아테네인들과 싸웠을 때 아테네 왕 에레크테우스가 죽었으며, 에우몰포스의 아들 임마라도스도 죽었다.

그들이 전쟁을 끝낸 조건은 이러했다.

엘레우시스인들은 비의를 독자적으로 관장하되, 그 밖의 모든 일에서는 아테네인들에게 복종하기로 했다.

두 여신을 섬긴 사람들은 에우몰포스와 켈레오스의 딸들이었다.

팜포스와 호메로스는 그 딸들의 이름이 디오게네이아, 팜메로페, 그리고 세 번째가 사에사라였다는 데 일치한다.

에우몰포스가 죽은 뒤에는 아들들 가운데 어린 케릭스가 살아남았다.

그러나 케리케스 가문의 사람들은 그가 에우몰포스의 아들이 아니라 케크롭스의 딸 아글라우로스와 헤르메스의 아들이었다고 말한다.

**[1.38.4]** 부족의 이름이 유래한 영웅 히포토온의 사당이 있다.

가까이에는 자렉스의 사당도 있다.

자렉스는 아폴론에게 음악을 배웠다고 한다.

그러나 내 생각에 그는 이 땅으로 이주해온 라케다이몬인이었으며, 라코니아 해안에 있는 도시 자락스의 이름이 그에게서 유래했다.

자렉스라는 아테네 토착 영웅이 따로 있다면, 나는 그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다.

**[1.38.5]** 엘레우시스에는 케피소스강이 흐르는데, 앞서 말한 케피소스강보다 더 거세다.

그 곁에는 에리네오스라고 부르는 장소가 있다.

플루톤이 코레를 납치한 뒤 그곳에서 지하 세계로 내려갔다고 한다.

테세우스는 이 케피소스강 가까이에서 폴리페몬이라는 도적을 죽였다.

그의 별칭은 프로크루스테스였다.

**[1.38.6]** 엘레우시스인들에게는 트리프톨레모스의 신전과 관문의 아르테미스, 아버지 포세이돈의 신전이 있다.

칼리코론, 곧 '아름다운 춤'이라고 부르는 우물도 있다.

엘레우시스의 여자들이 처음으로 춤추며 여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곳이다.

라리온이라고 부르는 평야는 처음 씨가 뿌려지고 처음 곡식이 자란 곳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곳에서 난 곡식으로 제사용 보리를 마련하고 제사에 쓸 과자를 만드는 것이 관례다.

이곳에서는 트리프톨레모스의 것이라고 부르는 타작마당과 제단을 보여준다.

**[1.38.7]** 나는 꿈에서 성소의 담장 안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지 말라는 금지를 받았다.

또한 입문하지 않은 사람들은 볼 수 없도록 금지된 것들을 알아서도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

도시의 이름이 유래한 영웅 엘레우시스는 헤르메스와 오케아노스의 딸 다에이라의 아들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어떤 시인들은 오귀고스를 엘레우시스의 아버지로 삼았다.

오래된 전설들은 시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많은 허구를 낳았다.

특히 영웅들의 계보가 그러하다.

**[1.38.8]** 엘레우시스에서 보이오티아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아티카와 접한 플라타이아이의 땅에 이른다.

옛날에는 엘레우테라이가 아티카 쪽 경계를 이루었다.

그러나 엘레우테라이가 아테네인들에게 귀속된 뒤부터는 키타이론이 보이오티아의 경계가 되었다.

엘레우테라이 사람들이 귀속된 까닭은 전쟁에서 정복당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아테네 시민권을 함께 누리고 싶었고, 테바이인들을 미워했기 때문이다.

이 평야에는 디오니소스의 신전이 있다.

그곳의 오래된 목상은 아테네로 옮겨갔다.

지금 엘레우테라이에 있는 신상은 옛것을 본떠 만든 것이다.

**[1.38.9]** 조금 더 가면 작은 동굴이 있고, 그 곁에 찬물이 나오는 샘이 있다.

동굴에 관한 전설은 안티오페가 아이들을 낳은 뒤 그 안에 놓아두었다는 것이다.

샘에 관해서는 아이들을 발견한 목자가 포대기를 벗기고 그곳에서 처음 씻겼다고 한다.

엘레우테라이에는 성벽과 주택들의 유적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 유적들을 보면 도시가 평야보다 조금 높은 곳, 키타이론 가까이에 세워졌음이 분명하다.

## 제39장

**[1.39.1]** 엘레우시스에서 나가는 또 다른 길이 있는데, 메가라로 이어진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안티온, 곧 '꽃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우물이 나온다.

팜포스는 시에서 데메테르가 딸을 빼앗긴 뒤 늙은 여자의 모습으로 이 우물에 앉아 있었다고 묘사한다.

켈레오스의 딸들이 그곳에서 그녀를 아르고스 여자로 알고 어머니에게 데려갔으며, 메타네이라는 자기 아들을 기르는 일을 그녀에게 맡겼다고 한다.

**[1.39.2]** 우물에서 조금 더 가면 메타네이라의 성소가 있다.

그다음에는 테바이를 공격하러 갔던 사람들의 무덤들이 있다.

당시 에테오클레스의 아들 라오다마스의 후견인으로서 테바이를 다스리던 크레온은 친족들이 죽은 이들을 거두어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드라스토스가 테세우스에게 탄원하자 아테네인들은 보이오티아인들과 싸웠다.

테세우스는 전투에서 승리한 뒤 죽은 이들을 엘레우시스의 영토로 옮겨 이곳에 묻었다.

그러나 테바이인들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시신을 내주어 묻게 했다고 말하며, 전투를 벌였다는 것은 부인한다.

**[1.39.3]** 아르고스인들의 무덤들 다음에는 알로페의 무덤이 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포세이돈에게서 히포토온을 낳았다는 이유로, 바로 이곳에서 아버지 케르키온에게 죽임을 당했다.

케르키온은 나그네들을 사악하게 대했다고 한다.

특히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레슬링을 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알로페의 무덤에서 조금 떨어진 이곳을 케르키온의 씨름터라고 부른다.

케르키온은 자신과 겨루려 한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고 한다. 다만 테세우스는 예외였다.

테세우스는 무엇보다 기술로 그를 능가했다.

레슬링의 기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테세우스였고, 그를 통해 뒤에는 그 기술을 가르치는 일이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레슬링에서 오직 몸집과 체력만을 썼다.

내 생각에 이것들이 아테네인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전설들과 볼거리들이다.

처음부터 내 이야기는 많은 자료 가운데 기록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골라왔다.

**[1.39.4]** 엘레우시스 다음에는 메가리스라고 불리는 지방이 있다.

이곳 역시 옛날에는 아테네에 속했다. 필라스 왕이 판디온에게 남겨주었기 때문이다.

내 증거는 다음과 같다.

그 땅에는 판디온의 무덤이 있다.

또한 니소스는 집안에서 맏이인 아이게우스에게 아테네인들에 대한 통치권을 넘기면서 자신은 메가라와 코린토스에 이르는 영토의 왕이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메가라인들의 항구는 그의 이름을 따서 니사이아라고 불린다.

그 뒤 코드로스가 다스릴 때 펠로폰네소스인들이 아테네를 공격했다.

그들은 눈부신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돌아가는 길에 아테네인들에게서 메가라를 빼앗았다.

그리고 코린토스인들과 다른 동맹군 가운데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거주지로 주었다.

**[1.39.5]** 이렇게 메가라인들은 관습과 말씨가 바뀌어 도리스인이 되었다.

그들은 포로네우스의 아들 카르가 이 땅의 왕이었을 때 도시의 이름이 생겼다고 말한다.

그때 자신들이 처음 데메테르의 성소들을 만들었으며, 그때 사람들이 메가라, 곧 '방들'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메가라인들 자신이 전하는 역사다.

그러나 보이오티아인들은 다르게 말한다.

온케스토스에 살던 포세이돈의 아들 메가레우스가 보이오티아군을 이끌고 와서, 미노스와 전쟁하는 니소스를 도왔다고 한다.

그는 전투에서 죽어 그곳에 묻혔으며, 이전에는 니사라고 불렸던 도시가 그의 이름을 따서 메가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1.39.6]** 메가라인들은 포로네우스의 아들 카르로부터 12대 뒤에 렐렉스가 이집트에서 와서 왕이 되었으며, 그의 통치기에 렐레게스족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말한다.

렐렉스는 클레손을, 클레손은 필라스를, 필라스는 스키론을 낳았다고 한다.

스키론은 판디온의 딸과 결혼했으며, 뒤에 판디온의 아들 니소스와 왕위를 두고 다투었다.

아이아코스가 그 분쟁을 판정하여 니소스와 그 후손들에게 왕권을 주고, 스키론에게는 전쟁의 지휘권을 주었다.

그들은 또 포세이돈의 아들 메가레우스가 니소스의 딸 이피노에와 결혼하여 니소스의 뒤를 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크레타와의 전쟁과 니소스의 통치기에 도시가 함락된 일은 전적으로 무시한다.

sourcebooks.fordham.edu

## 제40장

**[1.40.1]** 도시에는 테아게네스가 시민들을 위해 만든 샘이 있다.

그가 아테네인 킬론에게 딸을 시집보냈다는 사실은 앞에서 언급했다.

이 테아게네스는 참주가 된 뒤 그 샘을 만들었다.

크기와 아름다움, 기둥의 수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 안으로 흘러드는 물은 시트니데스 님프들의 물이라고 불린다.

메가라인들은 시트니데스 님프들이 이 땅에서 태어났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제우스와 결합했다고 말한다.

제우스와 이 님프의 아들 메가로스는 데우칼리온 시대의 홍수를 피해 게라니아의 높은 곳으로 달아났다고 한다.

그전까지 산에는 이 이름이 없었다.

그러나 학들이 날고 있었고 메가로스가 그 새들의 울음소리를 향해 헤엄쳤기 때문에, 그때 게라니아, 곧 ‘학의 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1.40.2]** 이 샘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오래된 성소가 있다.

우리 시대에는 그 안에 로마 황제들의 상들이 서 있으며, ‘구원자’라는 별칭의 아르테미스 청동상도 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마르도니오스 군대의 한 부대가 메가리스를 휩쓴 뒤 테바이에 있는 마르도니오스에게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아르테미스의 뜻으로 그들이 행군하는 동안 밤이 내려앉았다.

그들은 길을 잃고 산지로 들어갔다.

가까이에 적군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화살 몇 발을 쏘았다.

가까운 바위가 화살에 맞자 신음 같은 소리를 냈으며, 그들은 더욱 열심히 활을 쏘았다.

**[1.40.3]** 마침내 자신들이 적을 쏘고 있다고 생각한 채 화살을 모두 써버렸다.

날이 밝자 메가라인들이 공격했다.

그들은 무장한 병사들인 데 비해, 상대는 무장도 하지 않은 데다 이제 투사 무기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그래서 메가라인들은 적의 대부분을 죽였다.

이 때문에 그들은 구원자 아르테미스상을 만들었다.

이곳에는 이른바 열두 신의 상들도 있다.

프락시텔레스의 작품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르테미스상 자체는 스트롱길리온이 만들었다.

**[1.40.4]** 그다음에는 올림피에이온이라고 불리는 제우스의 성역으로 들어가게 되며, 주목할 만한 신전이 보인다.

그러나 제우스상은 완성되지 못했다.

펠로폰네소스인들과 아테네인들 사이의 전쟁 때문에 작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그 전쟁에서 아테네인들은 해마다 함대와 육군으로 메가라인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공공 수입을 해치고 개인 가정들을 극심한 곤경에 빠뜨렸다.

제우스상의 얼굴은 상아와 금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 진흙과 석고로 되어 있다.

만든 사람은 이 고장 출신 테오코스모스이며, 페이디아스가 도왔다고 한다.

제우스의 머리 위에는 계절의 여신들과 운명의 여신들이 있다.

누구나 이를 보고 운명마저 복종하는 신은 제우스뿐이며, 그가 계절들을 마땅한 질서대로 나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전 뒤에는 반쯤 가공한 나무 조각들이 놓여 있다.

테오코스모스는 거기에 상아와 금을 입혀 제우스상을 완성하려 했다.

**[1.40.5]** 신전 안에는 군함의 청동 충각이 봉헌되어 있다.

아테네인들과 살라미스 앞바다에서 해전을 벌일 때 그 배를 나포했다고 한다.

아테네인들 역시 한동안 메가라인들에게 밀려 섬에서 철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뒤에 솔론이 애가를 써서 자신들을 격려했으며, 그 뒤 아테네인들이 적에게 도전하여 전쟁에 이기고 살라미스를 되찾았다고 말한다.

반면 메가라인들은 자기들 가운데 망명한 자들이 살라미스의 정착민들에게 가서 섬을 아테네인들에게 넘겨주었다고 한다.

그들은 그 망명자들을 도리클레이오이라고 부른다.

**[1.40.6]** 제우스의 성역을 지나 성채로 올라가면, 그곳은 지금도 포로네우스의 아들 카르의 이름을 따서 카리아라고 불리는데, 밤의 신 디오니소스 닉텔리오스의 신전이 보인다.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리는 아프로디테 에피스트로피아의 성소와 ‘밤의 신탁소’라고 불리는 신탁소도 있다.

지붕이 없는 제우스 코니오스 신전도 있다.

아스클레피오스와 건강의 여신의 상은 브리아크시스가 만들었다.

이곳에는 이른바 데메테르의 방도 있다.

카르가 왕이었을 때 지었다고 한다.

## 제41장

**[1.41.1]** 성채에서 내려와 땅이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곳, 올림피에이온 가까이에는 알크메네의 무덤이 있다.

그녀가 아르고스에서 테바이로 걸어가다가 도중에 메가라에서 죽었다고 한다.

헤라클레스의 후손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일어났다.

어떤 이들은 알크메네의 시신을 아르고스로 돌려보내고 싶어 했고, 다른 이들은 테바이로 가져가고 싶어 했다.

테바이에는 암피트리온과, 헤라클레스가 메가라에게서 얻은 자녀들이 묻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델포이의 신은 알크메네를 메가라에 묻는 것이 더 좋다는 신탁을 내렸다.

**[1.41.2]** 이곳에서 그 지방의 안내자는 우리를 루스, 곧 ‘물줄기’라고 불린다는 장소로 데려갔다.

예전에는 도시 위쪽의 산들에서 물이 이곳으로 흘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참주였던 테아게네스가 물길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이곳에 아켈로오스의 제단을 만들었다.

가까이에는 헤라클레스의 아들 힐로스의 무덤이 있다.

그는 아르카디아인인 아에로포스의 아들 에케모스와 일대일로 싸웠다.

힐로스를 죽인 에케모스가 누구인지는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하겠다.

힐로스 역시 메가라에 묻혀 있다.

이 사건들은 오레스테스의 통치기에 헤라클레스의 후손들이 펠로폰네소스로 원정한 일이라고 불러도 정확할 것이다.

**[1.41.3]** 힐로스의 무덤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이시스 신전이 있다.

그 곁에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있다.

알카토오스가 이른바 키타이론의 사자를 죽인 뒤 지었다고 한다.

그 사자에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왕 메가레우스의 아들 에우이포스도 있었다고 한다.

메가레우스의 큰아들 티말코스는 그보다 앞서 디오스쿠로이와 함께 아피드나를 공격하러 갔다가 테세우스에게 죽었다.

메가레우스는 키타이론의 사자를 죽이는 사람을 자기 딸과 결혼시키고 왕국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래서 펠롭스의 아들 알카토오스가 그 짐승을 공격하여 이겼다.

왕위에 오른 뒤 그는 이 성소를 세우고 아르테미스를 아그로테라, 아폴론을 아그라이오스, 곧 사냥하는 신들이라고 불렀다.

**[1.41.4]** 이것이 메가라인들의 이야기다.

그러나 내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와 일치하기를 바라기는 해도,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알카토오스가 키타이론에서 사자를 죽였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

그러나 메가레우스의 아들 티말코스가 디오스쿠로이와 함께 아피드나로 갔다고 기록한 역사가는 누구인가?

설령 그가 그곳에 갔다 하더라도, 그가 테세우스에게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알크만은 디오스쿠로이에 관한 시를 써서 그들이 아테네를 점령하고 테세우스의 어머니를 포로로 끌고 갔지만 테세우스 자신은 없었다고 말했는데 말이다.

**[1.41.5]** 핀다로스의 시도 이 이야기와 일치한다.

그에 따르면 테세우스는 디오스쿠로이와 인척이 되고 싶어서 헬레네를 납치하여 데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혼인을 이루려고 페이리토오스와 함께 떠났다고 한다.

계보를 연구한 사람이라면 메가라인들의 이야기가 몹시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된다.

테세우스는 펠롭스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메가라인들은 진짜 이야기를 알면서도 감추고 있다.

니소스의 통치기에 자기 도시가 함락되었다고 여겨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니소스의 사위 메가레우스와 메가레우스의 사위 알카토오스가 각각 장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

**[1.41.6]** 알카토오스가 엘리스에서 도착한 것은 바로 니소스가 죽고 메가라인들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였음이 분명하다.

그가 성벽을 처음부터 새로 쌓았다는 사실이 내 말의 진실을 증언한다.

도시를 둘렀던 옛 성벽은 크레타인들에게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알카토오스와 사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가 아르테미스 아그로테라와 아폴론 아그라이오스의 신전을 짓게 된 사자 사냥이 키타이론에서 일어났든 다른 곳에서 일어났든 말이다.

이 성소에서 내려가면 영웅 판디온의 사당이 보인다.

판디온이 이른바 아테나 아이티이아의 바위에 묻힌 경위는 이미 이야기했다.

그는 메가라 시내에서도 주민들에게 공경받는다.

**[1.41.7]** 영웅 판디온의 사당 가까이에는 히폴리테의 무덤이 있다.

그녀에 관해 메가라인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겠다.

아마존들은 안티오페 때문에 아테네인들을 공격하러 왔다가 테세우스에게 패했다.

대부분은 전투에서 죽었지만, 안티오페의 자매이며 그때 여자들의 지휘관이었던 히폴리테는 몇몇 사람과 함께 메가라로 달아났다.

그녀는 그런 군사적 참패를 겪고, 지금의 처지에도 절망했으며 고향 테미스키라로 돌아갈 희망은 더더욱 없다고 여겨 슬픔에 겨워 죽었다.

메가라인들이 그녀를 묻었다.

그 무덤의 모양은 아마존의 방패와 비슷하다.

**[1.41.8]**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는 판디온의 딸 프로크네와 결혼한 테레우스의 무덤이 있다.

메가라인들은 테레우스가 메가리스의 이른바 파가이 주변 지방의 왕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가 카이로네이아 너머의 다울리스를 다스렸다.

현존하는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한다.

옛날에는 지금 그리스라고 부르는 땅의 대부분에 이방인들이 살았기 때문이다.

테레우스는 필로멜라에게 그런 짓을 하고, 이티스가 여자들에게 그런 일을 당한 뒤에도 그 여자들을 붙잡을 수 없었다.

**[1.41.9]** 그는 메가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메가라인들은 곧바로 그에게 봉분을 쌓아주었으며, 해마다 제사를 지낸다.

제사에서는 보릿가루 대신 자갈을 쓴다.

후투티라고 불리는 새가 처음 나타난 곳이 여기라고 한다.

여자들은 아테네로 왔다.

자신들이 겪은 고통과 복수를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다가 죽었다.

그들이 나이팅게일과 제비로 변했다고 전해지는 것은, 내 생각에 이 새들의 울음소리가 애처롭고 탄식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sourcebooks.fordham.edu

## 제42장

**[1.42.1]** 메가라인들에게는 알카토오스의 이름을 딴 또 다른 성채가 있다.

이 성채로 올라가면 오른쪽에 메가레우스의 무덤이 보인다.

그는 크레타인들이 침입했을 때 온케스토스에서 동맹군으로 온 인물이다.

프로도메이스, 곧 '먼저 건축하는 신들'이라고 부르는 신들의 화덕도 보여준다.

알카토오스가 성벽을 쌓기 시작하려 할 때 처음 그들에게 제사를 바쳤다고 한다.

**[1.42.2]** 이 화덕 가까이에는 돌이 있다.

아폴론이 알카토오스의 건축을 돕다가 그 위에 리라를 놓았다고 한다.

알카토오스가 딸 페리보이아를 테세우스와 함께 크레타로 보낸 것이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은, 메가라인들이 한때 아테네인들에게 공물을 바쳤다는 내 견해를 뒷받침한다.

메가라인들은 알카토오스가 성벽을 쌓을 때 아폴론이 그를 도우며 리라를 그 돌 위에 놓았다고 한다.

그 돌을 작은 돌멩이로 치면 리라의 줄을 뜯을 때와 같은 소리가 난다.

**[1.42.3]** 이것도 나를 놀라게 했지만, 이집트의 거상은 무엇보다 훨씬 더 나를 놀라게 했다.

이집트의 테바이에서 나일강을 건너 이른바 '피리들'이라는 곳으로 갔을 때, 나는 여전히 앉은 모습으로 소리를 내는 상을 보았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멤논이라고 부른다.

멤논은 에티오피아에서 출발하여 이집트를 휩쓸고 수사까지 갔다고 한다.

그러나 테바이인들은 멤논의 상이 아니라 파메노프라는 그 지방 사람의 상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세소스트리스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다.

이 상은 캄비세스가 둘로 부수었다.

지금도 머리에서 몸통 중간까지는 떨어져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앉아 있다.

날마다 해가 떠오를 때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는 하프나 리라의 줄이 끊어질 때 나는 소리에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다.

**[1.42.4]** 메가라인들에게는 평의회 회의장이 있다.

그들은 그곳이 한때 티말코스의 무덤이었다고 한다.

내가 조금 전에 테세우스에게 죽지 않았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그다.

성채 꼭대기에는 아테나 신전이 세워져 있다.

신상에는 금박을 입혔으나 손발과 얼굴은 상아로 만들었다.

이곳에는 승리의 아테나를 위한 또 다른 성소와, 세 번째로 아이안티스, 곧 아이아스의 아테나를 위한 성소도 있다.

마지막 성소에 대해서는 메가라의 안내자들이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적겠다.

아이아코스의 아들 텔라몬은 알카토오스의 딸 페리보이아와 결혼했다.

그러므로 알카토오스의 왕위를 이은 아이아스가 아테나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1.42.5]** 아폴론의 옛 신전은 벽돌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뒤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흰 대리석으로 지었다.

피티오스라고 부르는 아폴론상과 데카테포로스, 곧 '십일조를 가져오는 자'라고 부르는 상은 이집트의 목상들과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아르케게테스, 곧 '창건자'라는 별칭의 상은 아이기나의 작품들과 닮았다.

모두 흑단으로 만들었다.

나는 약용 풀을 가려내는 데 능숙한 키프로스인에게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흑단은 잎을 내거나 열매를 맺지 않으며, 햇빛 아래로 모습을 드러내는 일조차 없다고 한다.

땅속의 뿌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에티오피아인들이 그것을 파낸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흑단을 찾는 데 능숙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1.42.6]** 법을 주는 데메테르 테스모포로스의 성소도 있다.

그곳에서 내려가면 알카토오스의 아들 칼리폴리스의 무덤이 보인다.

알카토오스에게는 이스케폴리스라는 큰아들도 있었다.

아버지는 그를 아이톨리아의 맹수를 죽이려는 멜레아그로스를 돕도록 보냈다.

그는 그곳에서 죽었으며, 칼리폴리스가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들었다.

칼리폴리스는 성채로 달려 올라갔다.

그때 아버지는 아폴론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불을 준비하고 있었다.

칼리폴리스는 제단에서 장작들을 내던졌다.

알카토오스는 아직 이스케폴리스에게 닥친 일을 듣지 못했으므로, 칼리폴리스가 불경한 짓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분노한 채 제단에서 내던져진 장작 하나로 아들의 머리를 쳐서 곧바로 죽였다.

**[1.42.7]** 프리타네이온으로 가는 길에는 여영웅 이노의 사당이 있다.

둘레에는 돌 울타리가 있고 곁에는 올리브나무들이 자란다.

그리스인들 가운데 메가라인들만이 이노의 시신이 자기들 해안으로 떠밀려 왔다고 말한다.

렐렉스의 아들 클레손의 딸들인 클레소와 타우로폴리스가 그것을 발견하여 묻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 사이에서 처음 그녀를 레우코테아라고 불렀으며, 해마다 제사를 바친다고 말한다.

## 제43장

**[1.43.1]** 여영웅 이피게네이아의 사당도 있다고 한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 역시 메가라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아르카디아인들이 전하는 이피게네이아의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헤시오도스가 『여인들의 목록』에서 이피게네이아는 죽지 않았으며 아르테미스의 뜻에 따라 헤카테가 되었다고 말한 것도 알고 있다.

이것은 헤로도토스의 이야기와 일치한다.

스키타이 부근의 타우리족은 난파한 사람들을 한 처녀에게 제물로 바치는데, 그녀가 아가멤논의 딸 이피게네이아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아드라스토스 역시 메가라인들 사이에서 공경받는다.

그들은 아드라스토스도 테바이를 함락한 뒤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다가 자기들 땅에서 죽었다고 말한다.

그가 죽은 원인은 노령과 아이기알레우스에게 닥친 운명이었다고 한다.

아르테미스의 성소는 아가멤논이 만들었다.

그는 메가라에 살던 칼카스를 설득하여 트로이아에 동행하게 하려고 이곳에 왔다.

**[1.43.2]** 프리타네이온에는 메가레우스의 아들 에우이포스와 알카토오스의 아들 이스케폴리스가 묻혀 있다고 한다.

프리타네이온 가까이에는 바위가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아나클레트리스, 곧 ‘되불러 세우는 바위’라고 부른다.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다면, 데메테르가 딸을 찾아 헤맬 때 이곳에서도 딸을 불렀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에도 메가라의 여자들은 그 전설을 흉내 내어 재현하는 의식을 행한다.

**[1.43.3]** 도시 안에는 메가라인들의 무덤들이 있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침입 때 죽은 사람들을 위한 무덤을 만들었다.

이른바 아이심니온 역시 영웅들의 무덤이었다.

메가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가멤논의 아들 히페리온은 탐욕과 폭력 때문에 산디온에게 죽었다.

그 뒤 사람들은 더 이상 한 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관리들을 선출하여 서로 번갈아 복종하기로 결정했다.

그때 메가라인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명성을 지닌 아이심노스가 델포이의 신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번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탁은 더 많은 자들과 의논하면 잘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들은 이 말을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영웅들의 무덤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이곳에 평의회 회의장을 지었다.

**[1.43.4]** 이곳과 영웅 알카토오스의 사당 사이에는 피르고의 무덤이 있었다고 한다.

알카토오스의 사당은 내가 살던 시대에 메가라인들이 문서 보관소로 쓰고 있었다.

피르고는 알카토오스가 메가레우스의 딸 에우아이크메와 결혼하기 전에 두었던 아내였다.

알카토오스의 딸 이피노에의 무덤도 있었다.

그녀는 처녀로 죽었다고 한다.

처녀들은 혼인 전에 이피노에의 무덤으로 술을 부어 바치고 머리카락 한 타래를 봉헌하는 것이 관례다.

옛날 델로스인들의 딸들이 헤카에르게와 오피스를 위해 머리카락을 잘랐던 것과 같다.

**[1.43.5]** 디오니소스의 성소 입구 곁에는 아스티크라테이아와 만토의 무덤이 있다.

그들은 멜람푸스의 아들 아바스의 아들 코이라노스의 아들인 폴리이도스의 딸들이었다.

폴리이도스는 아들 칼리폴리스를 죽인 알카토오스를 정화하려고 메가라에 왔다.

그는 디오니소스의 성소도 세웠으며 목상을 봉헌했다.

우리 시대에는 얼굴만 드러내고 나머지는 가려두고 있다.

그 곁에는 프락시텔레스가 파로스 대리석으로 만든 사티로스상이 있다.

이 디오니소스는 파트로오스, 곧 ‘조상의 신’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다실리오스라는 별칭의 또 다른 디오니소스상은 폴리이도스의 아들 코이라노스의 아들 에우케노르가 봉헌했다고 한다.

**[1.43.6]** 디오니소스의 성소 다음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다.

그 안에는 프락시스, 곧 ‘행위’라는 별칭의 상아 아프로디테상이 있다.

이것이 신전에서 가장 오래된 물건이다.

설득의 여신 페이토와, 위로하는 여신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여신도 있다. 프락시텔레스의 작품들이다.

스코파스의 작품으로는 사랑의 에로스, 욕망의 히메로스, 그리움의 포토스가 있다.

과연 그들의 작용이 이름만큼 서로 다르다면 말이다.

아프로디테 신전 가까이에는 운명의 여신 티케의 성소가 있다.

신상은 프락시텔레스의 작품 가운데 하나다.

가까운 신전에는 무사이 여신들과 리시포스가 만든 청동 제우스가 있다.

**[1.43.7]** 메가라인들에게는 코로이보스의 무덤도 있다.

그에 관한 시적 이야기는 아르고스와도 똑같이 관련되지만 이곳에서 이야기하겠다.

크로토포스가 아르고스를 다스리던 때, 그의 딸 프사마테가 아폴론의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그녀는 아버지가 너무나 두려워 아이를 버렸다.

크로토포스의 양치기 개들이 아이를 발견하여 죽였다.

그러자 아폴론은 아르고스인들을 벌하려고 복수의 여신 포이네를 도시로 보냈다.

포이네는 어머니들에게서 아이들을 빼앗아갔다고 한다.

마침내 코로이보스가 아르고스인들을 위해 포이네를 죽였다.

그러자 두 번째 벌로 역병이 닥쳐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코로이보스는 포이네를 죽인 데 대한 신의 벌을 받으려고 자진해서 델포스로 갔다.

**[1.43.8]** 피티아는 코로이보스가 아르고스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세발솥을 들어 성소 밖으로 가지고 가라고 명령했다.

그 세발솥이 손에서 떨어지는 곳에 아폴론의 신전을 세우고 자신도 그곳에 살라는 것이었다.

게라니아산에서 세발솥이 갑자기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는 그곳의 '작은 세발솥들'이라고 불리는 마을에 살았다.

코로이보스의 무덤은 메가라인들의 시장에 있다.

거기에는 프사마테와 코로이보스 자신의 이야기가 애가의 시구로 새겨져 있다.

또 무덤 위에는 포이네를 죽이는 코로이보스가 표현되어 있다.

이것들은 내가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보았다고 아는 가장 오래된 석상들이다.

sourcebooks.fordham.edu

## 제44장

**[1.44.1]** 코로이보스 가까이에는 오르시포스가 묻혀 있다.

그는 올림피아 달리기에서 알몸으로 뛰어 우승했다.

다른 경쟁자들은 모두 옛 관습에 따라 허리 가리개를 두르고 있었다.

또한 오르시포스는 뒤에 장군이 되어 이웃 영토의 일부를 병합했다고 한다.

내 생각에 그는 알몸인 사람이 허리 가리개를 두른 사람보다 더 수월하게 달릴 수 있음을 깨닫고, 올림피아에서 일부러 그것이 벗겨지게 했다.

**[1.44.2]** 시장에서 내려가면 ‘곧은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의 오른쪽에 수호하는 아폴론 프로스타테리오스의 성소가 보인다.

그곳을 찾으려면 길에서 조금 비켜가야 한다.

안에는 주목할 만한 아폴론상과 아르테미스, 레토, 그 밖의 상들이 있다.

프락시텔레스의 작품들이다.

‘님프들의 문’이라고 부르는 성문 가까이의 옛 체육장에는 작은 피라미드 모양의 돌이 있다.

그들은 이것을 아폴론 카리노스라고 부른다.

이곳에는 에일레이티이아이 여신들의 성소도 있다.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와 같다.

**[1.44.3]** 지금도 니사이아라고 부르는 항구로 내려가면 데메테르 말로포로스의 성소가 보인다.

이 별칭은 ‘양을 낳게 하는 여신’ 또는 ‘사과를 맺게 하는 여신’이라는 뜻이다.

별칭에 관한 설명 가운데 하나는, 이 땅에서 처음 양을 기른 사람들이 데메테르를 말로포로스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신전의 지붕은 오래되어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는 역시 니사이아라고 부르는 성채가 있다.

성채 아래 바다 가까이에는 렐렉스의 무덤이 있다.

그는 이집트에서 와서 왕이 되었으며, 포세이돈과 에파포스의 딸 리비아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니사이아 옆으로 미노아라는 작은 섬이 놓여 있다.

니소스와의 전쟁 때 크레타의 함대가 정박했던 곳이다.

**[1.44.4]** 메가리스의 산지는 보이오티아와 접해 있다.

메가라인들은 그곳에 파가이와 아이고스테나라는 두 도시를 세웠다.

파가이로 가다가 큰길에서 조금 비켜서면, 화살들이 온통 박힌 바위를 보여준다.

옛날 페르시아인들이 밤중에 활을 쏘았던 바위다.

파가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구원자라는 별칭의 아르테미스 청동상이다.

크기는 메가라의 신상과 같으며 형태도 꼭 같다.

아드라스토스의 아들 아이기알레우스의 영웅 사당도 있다.

아르고스인들이 두 번째로 테바이를 공격했을 때 그는 글리사스에서 첫 전투 초반에 죽었다.

친족들은 그를 메가리스의 파가이로 옮겨 묻었다.

그 사당은 지금도 아이기알레이온이라고 불린다.

**[1.44.5]** 아이고스테나에는 아미타온의 아들 멜람푸스의 성소와, 비석에 새긴 작은 남자 형상이 있다.

사람들은 멜람푸스에게 제사를 바치며 해마다 축제를 연다.

그는 꿈을 통해서도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신탁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메가라인들의 마을 에레네이아에서 들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카드모스의 딸 아우토노에는 전설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죽은 악타이온 때문에, 그리고 친정에 닥친 전반적인 불행 때문에 깊이 슬퍼했다.

그래서 테바이를 떠나 이곳에 와서 살았다.

아우토노에의 무덤은 이 마을에 있다.

**[1.44.6]** 메가라에서 코린토스로 가는 길에는 무덤들이 있다.

그 가운데에는 사모스의 피리 연주자 텔레파네스의 무덤도 있다.

아민타스의 아들 필리포스의 딸 클레오파트라가 만들었다고 한다.

포로네우스의 아들 카르의 무덤도 있다.

원래는 흙으로 쌓은 봉분이었지만, 뒤에 신탁의 명령에 따라 조개껍데기가 들어 있는 돌로 장식했다.

그리스인들 가운데 이 돌을 가진 사람들은 메가라인들뿐이다.

도시 안에서도 이 돌로 많은 것을 만들었다.

그 돌은 매우 희고 다른 돌보다 부드러우며, 전체에 걸쳐 바다의 조개들이 들어 있다.

그 성질은 이와 같다.

지금도 스키론의 길이라고 부르는 도로는 스키론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그가 메가라인들의 군사 지휘관이었을 때 만들었다.

처음에는 몸이 날랜 사람들이 다니도록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길을 넓혀 서로 반대 방향에서 오는 수레들도 지나갈 수 있게 했다.

**[1.44.7]** 특히 길이 좁은 곳에 솟은 바위들에 관해서는 여러 전설이 있다.

몰루리아 바위에서는 이노가 자녀들 가운데 어린 멜리케르테스를 안고 바다로 몸을 던졌다고 한다.

큰아이 레아르코스는 아버지에게 죽었다.

한 이야기에서는 아타마스가 미쳐서 그 일을 저질렀다고 한다.

다른 이야기에서는 오르코메노스인들에게 닥친 기근과 프릭소스가 죽었다고 여겨진 일이 하늘에서 내린 우연한 재앙이 아니었음을 그가 알게 되었다고 한다.

계모 이노가 그 모든 일을 꾸몄다는 것을 알고, 그녀와 자녀들에게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쏟아냈다는 것이다.

**[1.44.8]** 그때 이노는 바다로 달아나 몰루리아 바위에서 아들과 함께 몸을 던졌다.

아들은 돌고래가 코린토스 지협으로 옮겨주었다고 한다.

멜리케르테스는 그때 팔라이몬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으며, 이스트미아 경기를 비롯한 영예를 받았다.

사람들은 몰루리아 바위를 레우코테아와 팔라이몬에게 바쳐진 신성한 곳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 뒤의 바위들은 저주받은 것으로 여긴다.

그곳에 살던 스키론이 만나는 나그네들을 모두 바다로 던졌기 때문이다.

바위 아래에서는 거북이 헤엄치며 떨어지는 사람들을 잡아먹곤 했다.

바다거북은 크기와 발을 제외하면 육지거북과 비슷하다.

발은 바다표범의 발과 비슷하다.

스키론에게도 그 행위에 대한 응징이 닥쳤다.

그 자신이 테세우스에게 똑같은 바다로 던져졌기 때문이다.

**[1.44.9]** 산꼭대기에는 아페시오스, 곧 '풀어주는 신'이라는 별칭의 제우스 신전이 있다.

옛날 그리스인들에게 가뭄이 닥쳤을 때, 아이아코스가 신탁에 따라 아이기나에서 모든 그리스인의 신 제우스에게 제사를 바쳤다고 한다.

그러자 제우스가 비를 내려 가뭄을 끝냈으며, 그리하여 아페시오스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곳에는 아프로디테와 아폴론, 판의 상들도 있다.

**[1.44.10]** 더 가면 에우리스테우스의 무덤이 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헤라클레스의 후손들과 싸운 뒤 아티카에서 달아나다가 이곳에서 이올라오스에게 죽었다.

이 길에서 내려가면 아폴론 라토오스의 성소가 보인다.

그다음은 메가라와 코린토스의 경계다.

전설에 따르면 헤라클레스의 아들 힐로스가 아르카디아인 에케모스와 일대일로 싸운 곳이 여기다. sourcebooks.fordham.edu

# 제2권 코린티아

## 제1장

**[2.1.1]** 코린토스의 땅은 아르고스 영토의 일부이며, 코린토스라는 인물에게서 이름을 얻었다. 코린토스가 제우스의 아들이었다는 말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은, 대다수 코린토스인을 제외하면 나는 알지 못한다.

서사시를 지었다고 전해지는 에우멜로스는 암필리토스의 아들이며 이른바 바키아다이 가문에 속한다. 그는 『코린토스사』에서, 과연 그 역사가 그의 작품이라면 말이지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처음 이 땅에 산 사람은 오케아노스의 딸 에피라였다. 그 뒤 헬리오스의 아들 알로에우스의 아들 에포페우스의 아들인 마라톤은 아버지의 무법한 폭력을 피해 아티카 해안으로 이주했다. 에포페우스가 죽자 그는 펠로폰네소스로 와서 왕국을 아들들에게 나누어주고 아티카로 돌아갔다. 아소피아는 시키온의 이름을 따서, 에피라이아는 코린토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바뀌었다.

**[2.1.2]** 지금 코린토스에는 옛 코린토스인들이 전혀 살지 않고, 로마인들이 보낸 정착민들이 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아카이아 연맹 때문에 일어났다. 코린토스인들은 연맹의 일원이었으므로 로마인들과의 전쟁에 참여했다. 그 전쟁은 아카이아인들의 장군으로 임명된 크리톨라오스가 아카이아인들과 펠로폰네소스 밖의 그리스인들 대부분을 설득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벌어졌다.

로마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뒤 그리스인들을 전면적으로 무장 해제하고, 요새화된 도시들의 성벽을 허물었다.

당시 로마군을 지휘하던 뭄미우스는 코린토스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 뒤 지금 로마의 정치 체제를 세운 카이사르가 도시를 재건했다고 한다. 카르타고 역시 그의 통치기에 재건되었다고 한다.

**[2.1.3]** 코린토스의 영토에는 포세이돈의 아들 크로모스에게서 이름을 얻은 크로미온이라는 장소도 있다.

파이아가 이곳에서 자랐다고 한다. 이 암퇘지를 물리친 것은 전승에 나오는 테세우스의 업적 가운데 하나다.

더 가면 내가 방문했을 때에도 해안에 소나무가 자라고 있었으며, 멜리케르테스의 제단이 있었다.

사람들은 돌고래가 그 소년을 육지로 데려온 곳이 여기라고 한다. 시시포스는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협에 묻어주었으며, 그를 기리기 위해 이스트미아 경기를 창설했다.

**[2.1.4]** 지협의 시작 부분에는 도적 시니스가 소나무들을 붙잡아 휘어 내리곤 했던 장소가 있다.

그는 싸워 이긴 사람들을 나무에 묶은 뒤, 나무들이 다시 튀어 올라가게 놓아주었다. 그러면 각각의 소나무가 묶인 사람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결박이 어느 쪽에서도 풀리지 않고 양쪽으로 똑같이 팽팽해지면서 사람의 몸이 둘로 찢어졌다.

시니스 자신도 테세우스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죽었다.

테세우스는 내가 열거한 자들을 죽여 트로이젠에서 아테네까지 가는 길의 악인들을 없앴다. 성스러운 에피다우로스에서는 청동 곤봉으로 싸우던 페리페테스도 죽였다. 그는 헤파이스토스의 아들로 여겨졌다.

**[2.1.5]** 코린토스 지협은 한쪽으로는 켕크레아이의 바다에, 다른 쪽으로는 레카이온의 바다에 이른다. 이 지협 때문에 남쪽 지방이 본토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

펠로폰네소스를 섬으로 만들려던 사람은 지협을 끝까지 파기 전에 포기했다. 파기 시작한 곳은 지금도 볼 수 있지만, 바위 속으로는 전혀 나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곳은 본래의 성질대로 여전히 본토다.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도 미마스를 파서 통로를 내고 싶어 했다. 이 시도는 그의 계획 가운데 유일하게 성공하지 못한 것이었다.

크니도스인들도 자신들의 지협을 파기 시작했지만, 피티아가 그들을 멈추게 했다.

신이 만든 것을 인간이 억지로 바꾸기는 이처럼 어렵다.

**[2.1.6]** 자기 땅에 관한 코린토스인들의 전설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에는 아테네인들이 아티카를 찬양하려고 먼저 비슷한 이야기를 한 듯하다.

코린토스인들은 포세이돈과 헬리오스가 그 땅을 두고 다투었으며 브리아레오스가 중재했다고 말한다. 그는 포세이돈에게 지협과 인접 지역을, 헬리오스에게 도시 위쪽의 높은 곳을 주었다.

그때부터 지협은 포세이돈의 것이 되었다고 한다.

**[2.1.7]** 이곳에서 볼 만한 것은 극장과 흰 대리석 경기장이다.

신의 성역 안 한쪽에는 이스트미아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들의 초상 조각들이 서 있고, 다른 쪽에는 소나무들이 줄지어 자란다. 대부분 곧게 솟아 있다.

그리 크지 않은 신전 위에는 청동 트리톤들이 서 있다.

전실에는 포세이돈상 두 개와 암피트리테상 하나, 그리고 역시 청동으로 만든 바다의 여신상이 있다.

안쪽의 봉헌물들은 우리 시대에 아테네인 헤로데스가 바친 것이다. 말 네 마리가 있는데, 상아로 만든 발굽을 제외하고는 금박을 입혔다.

**[2.1.8]** 말들 곁에는 황금 트리톤 두 개가 있으며, 허리 아래는 상아로 되어 있다.

전차 위에는 암피트리테와 포세이돈이 서 있고, 소년 팔라이몬은 돌고래 위에 똑바로 서 있다. 이것들도 상아와 금으로 만들었다.

전차를 받치는 받침대 한가운데에는 어린 아프로디테를 들어 올리는 바다의 여신이 표현되어 있으며, 양쪽에는 네레이데스라고 부르는 님프들이 있다.

그리스의 다른 지역에도 이들을 위한 제단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어떤 그리스인들은 해안에 이들을 위한 성역까지 봉헌했으며, 그곳에서는 아킬레우스도 공경한다.

가발라에는 도토의 성스러운 성소가 있다. 그곳에는 에리필레가 아들 알크마이온에게 해를 끼치도록 매수하는 데 쓰였다고 그리스인들이 말하는 옷이 아직 남아 있었다.

**[2.1.9]** 포세이돈상 받침대의 돋을새김들 가운데에는 틴다레오스의 아들들도 있다. 이들 역시 배들과 항해하는 사람들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다른 봉헌물들로는 고요한 바다를 나타내는 갈레네와 바다의 여신상, 가슴부터 고래를 닮은 말, 이노와 벨레로폰테스, 그리고 말 페가소스가 있다. Description of Greece: Book 2, Corinth

## 제2장

**[2.2.1]** 성역 안 왼쪽에는 팔라이몬의 신전이 있다. 안에는 포세이돈과 레우코테아, 팔라이몬 자신의 상들이 있다.

이른바 그의 지성소도 있다.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이어지며, 그곳에 팔라이몬이 감추어져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은 코린토스인이든 외지인이든 결코 그 맹세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

키클롭스의 제단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성소도 있으며, 그 위에서 키클롭스들에게 제사를 지낸다.

**[2.2.2]** 시시포스와 넬레우스의 무덤은 에우멜로스를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찾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람들은 넬레우스가 코린토스에 와서 병으로 죽었으며 지협 가까이에 묻혔다고 한다.

그러나 에우멜로스에 따르면 시시포스는 네스토르에게조차 넬레우스의 무덤을 보여주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시시포스는 실제로 지협에 묻혀 있지만, 에우멜로스 자신의 시대에도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코린토스인은 드물었다고 한다.

이스트미아 경기는 뭄미우스가 코린토스를 황폐하게 만들었을 때에도 중단되지 않았다.

도시가 버려져 있는 동안에는 경기의 개최를 시키온인들에게 맡겼으며, 도시가 재건되자 지금의 주민들에게 그 영예를 돌려주었다.

**[2.2.3]** 코린토스의 항구들은 레케스와 켕크리아스에게서 이름을 얻었다.

그들은 포세이돈과 아켈로오스의 딸 페이레네의 자녀들이었다고 한다. 다만 『위대한 에오이아이』라는 시에서는 페이레네를 오이발로스의 딸이라고 한다.

레카이온에는 포세이돈의 성소와 청동상이 있다. 지협에서 켕크레아이로 가는 길에는 아르테미스의 신전과 오래된 목상이 있다.

켕크레아이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과 석상이 있다. 그다음 바다로 뻗은 방파제 위에는 포세이돈의 청동상이 있고, 항구 반대쪽 끝에는 아스클레피오스와 이시스의 성소들이 있다.

켕크레아이 바로 맞은편에는 헬레네의 목욕장이 있다. 바위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크고 미지근한 소금물 줄기다.

**[2.2.4]** 코린토스로 올라가다 보면 무덤들이 있다.

성문 곁에는 그리스인들이 '개'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시노페의 디오게네스가 묻혀 있다.

도시 앞에는 크라네이온이라고 불리는 사이프러스 숲이 있다.

그곳에는 벨레로폰테스의 성역, 아프로디테 멜라이니스의 신전, 라이스의 무덤이 있다.

무덤 위에는 앞발로 숫양을 붙들고 있는 암사자가 세워져 있다.

**[2.2.5]** 테살리아에도 라이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무덤이 하나 더 있다. 그녀가 히포스트라토스와 사랑에 빠졌을 때 그 나라에도 갔기 때문이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원래 시칠리아의 히카라 출신이었다.

아직 소녀였을 때 니키아스와 아테네인들에게 사로잡혀 팔렸으며 코린토스로 왔다.

그곳에서 그녀는 당대의 고급 유녀들을 능가하는 아름다움으로 코린토스인들의 경탄을 얻었다.

그 결과 지금도 그들은 라이스를 자기 고장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2.2.6]** 도시 안에서 언급할 만한 것들 가운데에는 남아 있는 옛 유적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도시가 두 번째 번영을 누리던 시기의 것들이다.

성소들 대부분이 모여 있는 시장에는 에페소스라는 별칭의 아르테미스와 디오니소스의 목상들이 서 있다.

디오니소스상들은 얼굴을 제외하고 금으로 덮여 있다. 얼굴에는 붉은 칠을 했다.

그 이름은 리시오스와 바케우스다.

**[2.2.7]** 나도 이 상들에 관해 전해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겠다.

펜테우스는 디오니소스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했다고 한다.

그 가운데 가장 심한 것은 여자들을 엿보려고 키타이론으로 가서 나무에 올라 그들이 하는 일을 지켜본 것이었다.

여자들은 펜테우스를 발견하자 곧바로 끌어내려, 살아 있는 그를 함께 붙잡고 사지를 찢었다.

코린토스인들에 따르면 그 뒤 피티아가 신탁을 내려 그 나무를 찾아내고 신과 동등하게 숭배하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나무로 이 상들을 만들었다.

**[2.2.8]** 행운의 여신의 신전도 있으며, 파로스 대리석으로 만든 서 있는 신상이 있다.

그 곁에는 모든 신을 위한 성소가 있다.

가까이에는 샘이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 청동 포세이돈상이 있다. 포세이돈의 발아래에는 물을 뿜는 돌고래가 있다.

클라리오스라는 별칭의 청동 아폴론상과 키테라의 헤르모게네스가 만든 아프로디테상도 있다.

서 있는 청동 헤르메스상 두 개도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위해서는 신전이 세워져 있다.

제우스상들 역시 야외에 있다. 하나에는 별칭이 없고, 다른 하나는 지하의 신 크토니오스,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신이라고 부른다.

## 제3장

**[2.3.1]** 시장 한가운데에는 청동 아테나상이 있다. 받침대에는 무사이 여신들이 돋을새김되어 있다.

시장 위쪽에는 옥타비아의 신전이 있다.

그녀는 아우구스투스의 누이였다. 아우구스투스는 지금의 코린토스를 세운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 로마인들의 황제가 되었다.

**[2.3.2]** 시장에서 레카이온으로 가는 길로 나가면 관문이 나온다.

그 위에는 금박을 입힌 전차 두 대가 있다. 하나에는 헬리오스의 아들 파에톤이, 다른 하나에는 헬리오스 자신이 타고 있다.

관문에서 조금 더 가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오른쪽에는 청동 헤라클레스상이 있다.

그다음에는 페이레네의 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

페이레네에 관한 전설은, 그녀가 아르테미스에게 뜻하지 않게 죽임을 당한 아들 켄크리아스를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다가 샘이 되었다는 것이다.

**[2.3.3]** 샘은 흰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다.

동굴 같은 방들이 만들어져 있으며, 그 안에서 물이 흘러나와 야외의 물받이로 들어간다.

마시기 좋은 물이다.

또한 그들은 코린토스 청동을 달군 뒤 이 물로 담금질한다고 한다. 코린토스인들에게는 청동이 〔본문 결락〕 없기 때문이다.

페이레네 가까이에는 아폴론의 신상과 성역이 있다.

그 성역 안에는 구혼자들을 상대로 세운 오디세우스의 공적을 그린 그림이 있다.

**[2.3.4]** 레카이온으로 곧장 가는 길을 따라가면 앉아 있는 청동 헤르메스상이 보인다.

그 곁에는 숫양이 서 있다.

헤르메스는 가축 떼를 가장 잘 돌보고 불어나게 해주는 신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에서 이렇게 말한다.

> 그는 트로이아인 가운데 헤르메스가 가장 사랑한
> 포르바스의 아들이었다.
> 신이 풍요로운 재산을 베풀었으므로 가축 떼가 많았다.

신들의 어머니의 비의에서 전하는 헤르메스와 숫양의 이야기도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다.

헤르메스상 다음에는 포세이돈과 레우코테아, 돌고래 위의 팔라이몬이 있다.

**[2.3.5]** 코린토스인들은 도시 여러 곳에 목욕장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것들은 공공 비용으로 세웠고, 하나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세웠다.

가장 유명한 것은 포세이돈상 가까이에 있다.

스파르타인 에우리클레스가 만들었으며 여러 종류의 돌로 장식했다. 특히 라코니아의 크로케아이에서 캐낸 돌을 썼다.

입구 왼쪽에는 포세이돈이 서 있고, 그다음에는 사냥하는 아르테미스가 있다.

도시 전역에는 샘이 많다.

코린토스인들은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스팀팔로스 호수에서 끌어온 물 외에도 흐르는 물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샘은 아르테미스상 곁에 있는 것이다.

그 위에는 벨레로폰테스가 있으며, 물은 말 페가소스의 발굽을 통해 흘러나온다.

**[2.3.6]** 시장에서 시키온으로 이어지는 다른 길을 따라가면, 길 오른쪽에 아폴론의 신전과 청동상이 보인다.

조금 더 가면 글라우케의 샘이라고 부르는 샘이 있다.

그녀는 물이 메데이아의 약물을 치료해줄 것이라고 믿고 그 안으로 몸을 던졌다고 한다.

이 샘 위쪽에는 이른바 오데이온, 곧 음악당이 세워져 있다.

그 곁에는 메데이아의 자녀들의 무덤이 있다.

그들의 이름은 메르메로스와 페레스였다.

전설에 따르면 그들이 글라우케에게 가져다준 선물 때문에 코린토스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

**[2.3.7]**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폭력적이고 부당한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코린토스인들의 어린 아기들을 죽게 했다.

그러다가 신탁의 명령에 따라 해마다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공포의 형상을 세웠다.

그 형상은 지금도 있으며, 무서운 모습의 여자다.

그러나 로마인들이 코린토스를 황폐하게 만들고 옛 코린토스인들이 사라진 뒤, 새 정착민들은 메데이아의 아들들에게 그 제사를 바치는 관습을 중단했다.

그들의 아이들도 그들을 위해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검은 옷을 입지 않는다.

**[2.3.8]** 앞서 말한 일이 있었을 때 메데이아는 아테네로 가서 아이게우스와 결혼했다.

그러나 뒤에 테세우스를 해치려는 음모가 드러나 아테네에서도 달아났다.

그녀는 당시 아리아라고 불리던 땅으로 갔으며, 그곳 주민들은 그녀의 이름을 따서 메디아인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녀가 아리아인들에게 달아나면서 데리고 간 아들은 아이게우스에게서 얻었으며 이름이 메도스였다고 한다.

그러나 헬라니코스는 그를 폴릭세노스라고 부르며 아버지가 이아손이었다고 말한다.

**[2.3.9]** 그리스인들에게는 『나우팍티아』라는 서사시가 있다.

이 시에서 이아손은 펠리아스가 죽은 뒤 거처를 이올코스에서 케르키라로 옮긴 것으로 묘사된다.

그의 자녀들 가운데 맏이인 메르메로스는 맞은편 본토에서 사냥하다가 암사자에게 죽었다고 한다.

페레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계보를 시로 쓴 또 다른 사람인 라케다이몬의 키나이톤은 이아손과 메데이아의 자녀들이 메데이오스라는 아들과 에리오피스라는 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역시 이 자녀들에 관한 다른 정보는 주지 않는다.

**[2.3.10]** 에우멜로스는 헬리오스가 아소피아 지방을 알로에우스에게, 에피라이아를 아이에테스에게 주었다고 말했다.

아이에테스는 콜키스로 떠날 때 자기 땅을 헤르메스와 알키다메이아의 아들 부노스에게 맡겼다.

부노스가 죽자 알로에우스의 아들 에포페우스는 에피라 사람들의 땅까지 포함하도록 왕국을 넓혔다.

그 뒤 마라톤의 아들 코린토스가 자녀 없이 죽자, 코린토스인들은 이올코스에서 메데이아를 불러 왕국을 맡겼다.

**[2.3.11]** 이아손은 그녀를 통해 코린토스의 왕이 되었다.

메데이아는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헤라의 성소로 데려가 감추었다. 그렇게 하면 불멸의 존재가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희망이 헛되다는 것을 알았고, 동시에 이아손에게도 발각되었다.

그녀가 용서를 청했지만 그는 거절하고 이올코스로 항해해 떠났다.

이런 이유로 메데이아도 떠나면서 시시포스에게 왕국을 넘겼다. Description of Greece: Book 2, Corinth

## 제4장

**[2.4.1]** 이것이 내가 읽은 이야기다.

무덤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아테나 칼리니티스, 곧 '굴레를 씌우는 여신'의 신전이 있다.

사람들은 아테나가 벨레로폰테스를 가장 많이 도와준 신이었으며, 직접 페가소스를 길들이고 굴레를 씌워 그에게 주었다고 말한다.

여신상은 나무로 만들었지만 얼굴과 손발은 흰 대리석이다.

**[2.4.2]** 벨레로폰테스가 독립적인 왕이 아니라 프로이토스와 아르고스인들에게 종속되어 있었다는 것은 나 자신뿐 아니라 호메로스의 시를 주의 깊게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는 바다.

벨레로폰테스가 리키아로 이주한 뒤에도 코린토스인들은 여전히 아르고스나 미케네의 군주들에게 종속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들은 트로이아 원정에 독자적인 지휘관을 내지 않았다.

아가멤논이 이끄는 미케네인들과 그 밖의 병력에 포함되어 원정에 참여했다.

**[2.4.3]** 시시포스에게는 벨레로폰테스의 아버지 글라우코스 외에도 아들들이 있었다.

둘째는 오르니티온이었고, 그 외에 테르산드로스와 할모스가 있었다.

오르니티온에게는 포코스라는 아들이 있었다. 포세이돈이 낳게 한 아들로 여겨졌다.

그는 지금 포키스라고 불리는 지방의 티토레아로 이주했다.

그러나 오르니티온의 작은아들 토아스는 코린토스에 남았다.

토아스는 다모폰을, 다모폰은 프로포다스를, 프로포다스는 도리다스와 히안티다스를 낳았다.

이들이 왕이었을 때 도리스인들이 코린토스를 공격했다.

그들의 지휘관은 헤라클레스의 아들 안티오코스의 아들 필라스의 아들 히포테스의 아들인 알레테스였다.

도리다스와 히안티다스는 왕권을 알레테스에게 넘기고 코린토스에 남았다.

그러나 코린토스의 민중은 전투에서 패하여 도리스인들에게 쫓겨났다.

**[2.4.4]** 알레테스 자신과 그 후손들은 프림니스의 아들 바키스에 이르기까지 5대 동안 통치했다.

그의 이름을 딴 바키아다이 가문은 아리스토데모스의 아들 텔레스테스에 이르기까지 다시 5대 동안 통치했다.

텔레스테스는 아리에우스와 페란타스의 미움을 받아 죽었다.

그 뒤로는 왕이 없었으며, 바키아다이 가문에서 뽑은 프리타네이스, 곧 수장들이 1년씩 통치했다.

그러다가 에에티온의 아들 킵셀로스가 참주가 되어 바키아다이를 추방했다.

킵셀로스는 안타소스의 아들 멜라스의 후손이었다.

멜라스는 시키온 위쪽의 고누사에서 와서 도리스인들의 코린토스 원정에 합류했다.

신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으므로 알레테스는 처음에는 멜라스에게 다른 그리스인들에게 가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뒤에 신탁을 잘못 해석하여 그를 정착민으로 받아들였다.

내가 알아본 코린토스 왕들의 역사는 이와 같다.

**[2.4.5]** 아테나 칼리니티스의 성소는 극장 곁에 있다.

가까이에는 다이달로스의 작품이라고 하는 벌거벗은 헤라클레스 목상이 있다.

이 예술가의 작품들은 보기에 다소 투박하지만, 모두 일종의 신적인 영감으로 두드러진다.

극장 위쪽에는 라틴어로 카피톨리누스라는 별칭을 가진 제우스의 성소가 있다.

그리스어로 옮기면 코리파이오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극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옛 체육장과 레르나라고 부르는 샘이 있다.

둘레에 기둥들이 서 있고, 여름철에 들어온 사람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좌석들을 마련했다.

이 체육장 곁에는 제우스와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들이 있다.

아스클레피오스와 건강의 여신상은 흰 대리석이고 제우스상은 청동이다.

**[2.4.6]** 아크로코린토스는 도시 위로 솟은 산봉우리다.

브리아레오스가 중재할 때 헬리오스에게 주었던 곳이며, 코린토스인들에 따르면 헬리오스가 아프로디테에게 넘겨주었다.

아크로코린토스로 올라가다 보면 이시스의 성역 두 곳이 보인다.

하나는 바다의 여신이라는 별칭의 이시스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집트의 이시스를 위한 것이다.

세라피스의 성역도 두 곳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카노포스의 세라피스'라고 불리는 신을 위한 것이다.

그다음에는 헬리오스의 제단들과 필연 및 힘의 성소가 있다.

그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관례다.

**[2.4.7]** 그 위쪽에는 신들의 어머니의 신전과 왕좌가 있다.

신상과 왕좌는 돌로 만들었다.

운명의 여신들의 신전과 데메테르 및 코레의 신전에는 공개하지 않는 신상들이 있다.

이곳에는 헤르메스의 아들 부노스가 세운 헤라 부나이아의 신전도 있다.

여신이 부나이아라고 불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 제5장

**[2.5.1]** 아크로코린토스 정상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다.

신상들로는 무장한 아프로디테와 헬리오스, 활을 든 에로스가 있다.

신전 뒤의 샘은 아소포스가 시시포스에게 준 것이라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시시포스는 제우스가 아소포스의 딸 아이기나를 납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딸을 찾는 아소포스가 아크로코린토스에 샘을 마련해주기 전까지는 알려주기를 거부했다.

아소포스가 요구를 들어주자 시시포스는 그 사실을 알렸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는다면, 그가 하데스의 세계에서 벌을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샘과 페이레네가 같으며, 시내의 물이 이곳에서 땅 밑을 흘러온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2.5.2]** 이 아소포스강은 플리우스의 영토에서 시작되어 시키온의 땅을 흐른 뒤 이곳에서 바다로 들어간다.

플리우스인들에 따르면 그의 딸들은 케르키라와 아이기나, 테베였다.

케르키라와 아이기나는 스케리아와 오이노네라고 불리던 섬들의 새 이름이 되었으며, 테베에게서는 카드메이아 아래쪽 도시의 이름이 유래했다.

그러나 테바이인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테베가 플리우스의 아소포스가 아니라 보이오티아의 아소포스의 딸이었다고 말한다.

**[2.5.3]** 강에 관한 다른 이야기들은 플리우스인들과 시키온인들 사이에 함께 전해진다.

가령 그 물이 이 고장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다는 이야기다.

켈라이나이에서 내려와 프리기아와 카리아를 지나 밀레토스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마이안드로스강이 펠로폰네소스까지 와서 아소포스강을 이룬다는 것이다.

나는 델로스인들에게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

그들은 이노포스라고 부르는 물줄기가 나일강에서 온다고 했다.

나아가 나일강 자체가 유프라테스강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유프라테스가 늪 속으로 사라졌다가 에티오피아 너머에서 다시 나타나 나일강이 된다는 것이다.

**[2.5.4]** 아소포스에 관해 내가 들은 이야기는 이와 같다.

아크로코린토스에서 산길로 방향을 돌리면 테네아의 문과 에일레이티이아의 성소가 보인다.

테네아라고 부르는 도시는 약 60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테네도스에서 그리스인들에게 포로가 된 트로이아인들의 후손이며, 아가멤논의 허락으로 지금의 고장에 살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신보다도 아폴론을 공경한다.

**[2.5.5]** 코린토스에서 내륙이 아니라 시키온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면, 도시에서 멀지 않은 왼쪽에 불탄 신전이 있다.

물론 코린토스의 영토에서는 많은 전쟁이 벌어졌으므로 성벽 밖의 집들과 성소들이 불탄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신전은 아폴론의 것이었으며 아킬레우스의 아들 피로스가 불태웠다고 한다.

나중에는 다른 이야기도 들었다.

코린토스인들이 올림피오스 제우스를 위해 세운 신전인데, 어디선가 갑자기 불이 내려와 파괴했다는 것이었다.

**[2.5.6]** 이쪽 경계에서 코린토스인들과 이웃한 시키온인들은 자기 땅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이기알레우스가 첫 주민이자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지금도 아이기알로스라고 부르는 펠로폰네소스의 지방은 그가 통치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얻었다.

그는 평야에 아이기알레이아라는 도시를 세웠다.

지금 아테나의 성소가 있는 곳이 그들의 성채였다고 한다.

아이기알레우스는 에우롭스를, 에우롭스는 텔키스를, 텔키스는 아피스를 낳았다.

**[2.5.7]** 이 아피스는 펠롭스가 올림피아에 오기 전에 그만큼 강력해져, 지협 남쪽의 모든 영토가 그의 이름을 따라 아피아라고 불렸다.

아피스는 텔크시온을, 텔크시온은 아이기로스를, 아이기로스는 투리마코스를, 투리마코스는 레우키포스를 낳았다.

레우키포스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칼키니아라는 딸만 있었다.

이 칼키니아가 포세이돈과 결합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레우키포스는 그녀의 아이를 길렀고, 죽을 때 왕국을 넘겨주었다.

그의 이름은 페라토스였다.

**[2.5.8]** 페라토스의 아들 플렘나이오스에 관해 전해지는 이야기는 내게 매우 놀랍게 여겨졌다.

그의 아내가 낳은 자녀들은 모두 처음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죽었다.

마침내 데메테르가 플렘나이오스를 가엾게 여겨 낯선 여자의 모습으로 아이기알레이아에 와서, 그를 위해 아들 오르토폴리스를 길러주었다.

오르토폴리스에게는 크리소르테라는 딸이 있었다.

그녀는 아폴론에게서 코로노스라는 아들을 얻었다고 여겨진다.

코로노스에게는 코락스와 그보다 어린 라메돈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Description of Greece: Book 2, Corinth

## 제6장

**[2.6.1]** 코락스는 자녀 없이 죽었다.

이 무렵 에포페우스가 테살리아에서 와서 왕국을 차지했다.

그의 통치기에 처음으로 적군이 이 땅을 침입했다고 한다.

그전까지는 평화가 끊이지 않았다.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닉테우스의 딸 안티오페는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아름답기로 이름나 있었다.

또한 그녀의 아버지가 닉테우스가 아니라 테바이와 플라타이아이의 영토를 가르는 강 아소포스라는 소문도 있었다.

**[2.6.2]** 에포페우스는 이 여자를 데려갔다.

그러나 혼인을 청했던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더 대담한 방법을 택했던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테바이인들이 군대를 이끌고 그를 공격했다.

전투에서 닉테우스가 부상을 입었다.

에포페우스도 부상을 입었지만 그날 싸움에서는 승리했다.

테바이인들은 위독한 닉테우스를 테바이로 데려갔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형제 리코스를 테바이의 섭정으로 임명했다.

카드모스의 아들 폴리도로스의 아들 라브다코스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닉테우스의 보호 아래 있었는데, 이제 그 보호자의 지위를 리코스에게 맡긴 것이다.

또한 더 큰 군대로 아이기알레이아를 공격하여 에포페우스에게 복수해달라고 청했다.

안티오페 역시 사로잡히면 처벌해야 했다.

**[2.6.3]** 한편 에포페우스는 곧바로 승리에 감사하는 제사를 바치고 아테나 신전을 짓기 시작했다.

완성되자 그는 신전이 마음에 들게 지어졌는지 알려달라고 여신에게 기도했다.

기도를 마친 뒤 신전 앞에서 올리브기름이 흘러나왔다고 한다.

그 뒤 에포페우스도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상처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리코스는 이제 전쟁을 벌일 필요가 없었다.

에포페우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코로노스의 아들 라메돈이 안티오페를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엘레우테라이를 거쳐 테바이로 끌려가다가 그 길에서 아이들을 낳았다.

**[2.6.4]** 이 일에 관해 암피프톨레모스의 아들 아시오스는 시에서 이렇게 말한다.

> 제토스와 암피온의 어머니는 안티오페였다.
> 빠르게 흐르고 깊은 소용돌이를 이루는 아소포스의 딸,
> 제우스와 백성의 목자 에포페우스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밴 여자였다.

호메로스는 그들의 계보를 더 존귀한 쪽으로 연결한다.

그리고 그들이 테바이를 처음 세운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내 생각에는 아래쪽 도시와 카드메이아를 구별해서 말한 것이다.

**[2.6.5]** 라메돈은 왕이 되자 클리티오스의 딸인 아테네 여자 페노와 결혼했다.

뒤에 아카이오스의 아들들인 아르칸드로스와 아르키텔레스와 전쟁이 일어나자, 아티카에서 시키온을 동맹군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딸 제욱시페를 아내로 주었다.

이 사람이 왕이 되었고, 그의 이름을 따라 그 땅은 시키오니아, 도시는 아이기알레 대신 시키온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키온이 에포페우스의 아들 마라톤의 아들이 아니라, 에레크테우스의 아들 메티온의 아들이었다고 말한다.

아시오스도 그들의 말을 뒷받침한다.

반면 헤시오도스는 시키온을 에레크테우스의 아들로 삼고, 이비코스는 아버지가 펠롭스였다고 말한다.

**[2.6.6]** 시키온에게는 크토노필레라는 딸이 있었다.

그녀와 헤르메스 사이에서 폴리보스가 태어났다고 한다.

그 뒤 그녀는 디오니소스의 아들 플리아스와 결혼하여 안드로다마스를 낳았다.

폴리보스는 딸 리시아나사를 아르고스의 왕인 비아스의 아들 탈라오스에게 주었다.

아드라스토스는 아르고스에서 달아났을 때 시키온의 폴리보스에게 왔고, 나중에 폴리보스가 죽자 시키온의 왕이 되었다.

아드라스토스가 아르고스로 돌아가자, 라메돈의 장인 클리티오스의 후손인 이아니스코스가 아티카에서 와서 왕이 되었다.

이아니스코스가 죽은 뒤에는 헤라클레스의 자녀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파이스토스가 왕위를 이었다.

**[2.6.7]** 파이스토스가 신탁에 따라 크레타로 이주한 뒤에는 아폴론과 님프 실리스의 아들 제욱시포스가 다음 왕이 되었다고 한다.

제욱시포스가 죽자 아가멤논은 군대를 이끌고 시키온과 그 왕 히폴리토스를 공격했다.

히폴리토스는 파이스토스의 아들 로팔로스의 아들이었다.

그는 공격해오는 군대가 두려워 아가멤논과 미케네인들에게 복종하기로 했다.

이 히폴리토스의 아들은 라케스타데스였다.

테메노스의 아들 팔케스가 도리스인들과 함께 밤중에 시키온을 기습했다.

그러나 라케스타데스 역시 헤라클레스의 후손이었으므로 해치지 않았고, 왕국을 함께 다스리게 했다.

## 제7장

**[2.7.1]** 그때부터 시키온인들은 도리스인이 되었고, 그들의 땅은 아르고스 영토의 일부가 되었다.

아이기알레우스가 평야에 세웠던 도시는 안티고노스의 아들 데메트리오스가 파괴했다.

그는 옛 성채가 있던 곳 가까이에 지금의 도시를 세웠다.

시키온인들이 쇠약해진 이유를 캐묻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제우스에 관해 호메로스가 한 말로 만족해야 한다.

> 참으로 많은 도시의 굳센 성채를 그가 무너뜨렸노라.

그들이 힘을 잃은 뒤에는 지진까지 닥쳐, 도시의 인구가 거의 사라지고 유명한 볼거리들도 많이 없어졌다.

그 지진은 카리아와 리키아의 도시들에도 피해를 주었다.

로도스섬은 매우 심하게 흔들렸으므로, 사람들은 로도스에 관한 시빌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2.7.2]** 코린토스의 영토에서 시키온의 영토로 들어오면 메세니아인 리코스의 무덤이 보인다.

이 리코스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다.

오종경기를 했거나 올림피아에서 우승한 메세니아인 리코스를 나는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무덤은 흙으로 쌓은 봉분이다.

그러나 시키온인들 자신은 보통 일정한 방식으로 죽은 이를 묻는다.

시신을 땅에 묻고 그 위에 돌로 기단을 쌓은 다음 기둥들을 세운다.

그 위에는 신전의 박공과 매우 비슷한 것을 올린다.

다른 명문은 덧붙이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 없이 죽은 사람의 이름만 적고 작별을 고한다.

**[2.7.3]** 리코스의 무덤을 지나 아소포스강 건너편 오른쪽에는 올림피에이온이 있다.

조금 더 가면 길 왼쪽에 아테네의 희극 시인 에우폴리스의 무덤이 있다.

더 가서 도시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아이를 낳다가 죽은 크세노디케의 무덤이 보인다.

그 지방의 방식대로 만들지 않고, 매우 볼 만한 그림과 가장 잘 어울리도록 만들었다.

**[2.7.4]** 이곳에서 더 가면 펠레네와 아카이아의 디메, 메갈로폴리스와 셀라시아에서 죽은 시키온인들의 무덤이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잠시 뒤에 더 자세히 하겠다.

성문 곁에는 동굴 속의 샘이 있다.

물은 땅에서 솟는 것이 아니라 동굴 천장에서 흘러내린다.

그래서 ‘방울져 떨어지는 샘’이라고 부른다.

**[2.7.5]** 지금의 성채에는 높은 곳의 행운의 여신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는 디오스쿠로이의 성소가 있다.

디오스쿠로이와 행운의 여신의 상들은 목상이다.

성채 아래에 세운 극장 무대에는 방패를 든 남자의 상이 있다.

그들은 클레이니아스의 아들 아라토스라고 말한다.

극장 다음에는 디오니소스의 신전이 있다.

신상은 금과 상아로 만들었고, 그 곁에는 흰 대리석으로 만든 바카이 여자들이 있다.

그 여자들은 디오니소스에게 바쳐져 있으며 그의 영감에 사로잡혀 광란한다고 한다.

시키온인들에게는 비공개로 보관하는 신상들도 있다.

그들은 해마다 어느 하룻밤에 이른바 코스메테리온, 곧 치장하는 방에서 디오니소스 신전으로 그것들을 옮긴다.

횃불을 밝히고 고유의 찬가를 부르며 행한다.

**[2.7.6]** 맨 먼저 오는 것은 바케우스라는 신상이다.

플리아스의 아들 안드로다마스가 세운 것이다.

그다음에는 해방자라는 뜻의 리시오스상이 온다.

테바이인 파네스가 피티아의 명령에 따라 테바이에서 가져온 것이다.

파네스가 시키온에 온 것은 클레오다이오스의 아들 아리스토마코스가 자신에게 내려진 신탁을 이해하지 못하여 펠로폰네소스로 돌아가지 못했을 때였다.

디오니소스 신전에서 시장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호수의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다.

지붕이 무너진 것은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신상을 옮겨갔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파괴되었는지 말해 주지 못한다.

**[2.7.7]** 시장 안에는 설득의 여신 페이토의 성소가 있다.

이곳에도 신상이 없다.

설득의 여신 숭배가 세워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피토를 죽인 뒤 정화를 받으려고 아이기알레이아에 왔다.

그러나 지금 '공포'라고 부르는 장소에서 두려움이 닥쳐, 크레타의 카르마노르에게로 발길을 돌렸다.

아이기알레이아 사람들에게는 역병이 닥쳤다.

예언자들은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달래라고 명령했다.

**[2.7.8]** 그래서 그들은 소년 일곱 명과 처녀 일곱 명을 탄원자로 시타스강에 보냈다.

신들은 이들의 설득을 받아 당시의 성채로 왔으며, 처음 도착한 장소가 설득의 여신 성소라고 한다.

지금 행하는 의식도 이 이야기와 일치한다.

아폴론의 축제 때 아이들이 시타스강으로 가서, 신들을 모셔오는 시늉을 하며 설득의 여신 성소로 데려온다.

그다음에는 다시 아폴론 신전으로 모셔간다고 말한다.

그 신전은 지금의 시장에 있다.

원래 프로이토스가 세웠다고 한다. 바로 이곳에서 그의 딸들이 광기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2.7.9]** 멜레아그로스가 멧돼지를 죽인 창을 이 신전에 봉헌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마르시아스의 피리들이 이곳에 봉헌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 실레노스가 재앙을 당했을 때 마르시아스강이 피리들을 마이안드로스강으로 운반했다.

그것들이 아소포스강에 다시 나타나 시키온의 땅에 떠밀려 왔으며, 발견한 목자가 아폴론에게 바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았을 때 이 봉헌물들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신전이 불탔을 때 함께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본 신전과 신상은 피토클레스가 봉헌한 것이었다. Description of Greece: Book 2, Corinth

## 제8장

**[2.8.1]** 설득의 여신 성소 가까이에서 로마 황제들에게 바쳐진 성역은 한때 참주 클레온의 집이었다.

그는 지금의 도시에서 참주가 되었다.

시키온인들이 아직 아래쪽 도시에 살 때에도 다른 참주정이 있었는데, 미론의 아들 아리스토니모스의 아들 클레이스테네스의 통치였다.

이 집 앞에는 아라토스의 영웅 사당이 있다.

그의 업적은 동시대 모든 그리스인의 업적을 능가했다.

그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2.8.2]** 클레온의 독재 뒤에는 권력을 가진 많은 사람이 참주가 되려는 억제할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혔다.

실제로 에우티데모스와 티모클레이다스 두 사람이 함께 참주가 되기까지 했다.

민중은 그들을 몰아내고 아라토스의 아버지 클레이니아스를 지도자로 삼았다.

몇 해 뒤 아반티다스가 참주가 되었다.

그전에 클레이니아스는 죽었고, 아라토스는 스스로 원해서였든 아반티다스에게 강요당해서였든 망명했다.

아반티다스는 그 지방 사람들에게 죽었으며, 곧바로 아버지 파세아스가 참주가 되었다.

**[2.8.3]** 파세아스는 니코클레스에게 죽었고, 니코클레스가 그의 뒤를 이었다.

아라토스는 시키온의 망명자들과 아르고스 용병들로 병력을 꾸려 이 니코클레스를 공격했다.

밤에 시도하여 수비병들 일부는 어둠 속에서 피했고, 나머지는 제압하여 성벽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날이 밝고 있었다.

그는 민중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참주의 집으로 서둘러 갔다.

그 집은 쉽게 차지했지만 니코클레스 자신은 달아나는 데 성공했다.

아라토스는 시키온인들에게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돌려주었다.

망명자들의 문제도 합의로 해결했다.

팔려버린 집과 다른 재산들을 모두 돌려주되,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돈으로 보상했다.

**[2.8.4]** 또한 모든 그리스인이 마케도니아인들과, 데메트리오스의 아들 필리포스의 후견인 안티고노스를 두려워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도리스인인 시키온인들을 설득하여 아카이아 연맹에 가입시켰다.

그는 곧바로 아카이아인들의 장군으로 선출되었다.

그들을 이끌고 암피사의 로크리스인들과 적대 관계에 있던 아이톨리아인들의 땅으로 가서 영토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코린토스는 안티고노스가 차지하고 있었고 도시에는 마케도니아 주둔군이 있었다.

그러나 아라토스는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그들을 공황에 빠뜨리고 전투에서 승리했다.

주둔군 지휘관 페르사이오스도 그때 죽였다.

그는 므나세아스의 아들 제논에게서 철학을 배운 사람이었다.

**[2.8.5]** 아라토스가 코린토스를 해방한 뒤 아르고스 해안에 사는 에피다우로스인들과 트로이젠인들이 연맹에 가입했다.

지협 너머에서는 메가라인들이 가입했다.

프톨레마이오스도 아카이아인들과 동맹을 맺었다.

라케다이몬인들과 에우다미다스의 아들 아기스 왕은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펠레네를 기습하여 점령했다.

그러나 아라토스와 그의 군대가 도착하자 전투에서 패했다.

그들은 펠레네를 비우고 휴전을 맺어 고국으로 돌아갔다.

**[2.8.6]** 펠로폰네소스에서 성공을 거둔 뒤 아라토스는 마케도니아인들이 페이라이에우스와 무니키아, 살라미스와 수니온을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고 차지하게 두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무력으로 빼앗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둔군 지휘관 디오게네스에게 150탈란톤을 주어 그 거점들을 내놓게 했다.

그 자신도 전체 금액의 6분의 1을 내어 아테네인들을 도왔다.

그는 아르고스의 참주 아리스토마코스도 설득하여 아르고스인들에게 민주정을 돌려주고 아카이아 연맹에 가입하게 했다.

또한 라케다이몬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만티네이아를 빼앗았다.

그러나 누구도 모든 계획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한다.

아라토스조차 다음과 같은 경위로 마케도니아인들과 안티고노스의 동맹이 될 수밖에 없었다.

## 제9장

**[2.9.1]** 클레오니모스의 아들 레오니다스의 아들 클레오메네스는 스파르타의 왕위를 이은 뒤, 확립된 정체에 불만을 품고 참주정을 꾀했다는 점에서 파우사니아스와 비슷했다.

그는 파우사니아스보다 더 격정적인 사람이었고 겁쟁이도 아니었다.

기개와 대담함으로 빠르게 자신의 야망을 모두 이루었다.

다른 왕가의 왕 에우리다미다스가 아직 소년이었는데 그를 독살했다.

에포로이들을 통해 자신의 형제 에피클레이다스를 왕위에 올렸으며, 원로회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대신 이름뿐인 '아버지들의 회의'를 설치했다.

더 큰 일과 그리스인들에 대한 패권을 열망한 그는 먼저 아카이아인들을 공격했다.

성공하면 그들을 동맹으로 삼을 생각이었고, 무엇보다 자기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2.9.2]** 아라토스가 여전히 아카이아인들의 지도자였을 때, 클레오메네스는 파트라이 너머 디메에서 그들과 맞붙어 승리했다.

아라토스는 이 패배 때문에 아카이아인들과 시키온 자체를 염려하여 어쩔 수 없이 안티고노스를 동맹으로 끌어들였다.

클레오메네스는 안티고노스와 맺었던 평화를 어기고, 여러 방면에서 공공연히 조약을 위반했다.

특히 메갈로폴리스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안티고노스는 펠로폰네소스로 건너왔고, 아카이아인들은 셀라시아에서 클레오메네스와 싸웠다.

아카이아인들이 승리했다.

셀라시아 주민들은 노예로 팔렸고 라케다이몬 자체도 점령되었다.

안티고노스와 아카이아인들은 라케다이몬인들에게 선조들의 정체를 돌려주었다.

**[2.9.3]** 레오니다스의 자녀들 가운데 에피클레이다스는 전투에서 죽었고, 클레오메네스는 이집트로 달아났다.

그는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최고의 대우를 받았지만, 이집트인들을 선동하여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한 혐의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알렉산드리아인들 사이에 소요를 일으켰다.

그러나 마침내 붙잡히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클레오메네스에게서 벗어난 것을 기뻐하며 더 이상 왕들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옛 정체의 나머지 부분은 오늘날까지 지켜왔다.

안티고노스는 아라토스를 자신이 빛나는 업적을 이루도록 도와준 은인으로 여겼고, 끝까지 그의 친구로 남았다.

**[2.9.4]** 그러나 필리포스가 왕위를 이은 뒤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아라토스는 필리포스가 신민들을 난폭하게 대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고, 때로는 그가 목적을 이루는 데 반대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필리포스는 몰래 독약을 먹여 아라토스를 죽였다.

이 운명은 아이기온에서 그에게 닥쳤다.

그곳에서 시키온으로 옮겨 묻었으며, 지금도 그 도시에 아라토스의 영웅 사당이 있다.

필리포스는 아테네인 에우리클레이데스와 미콘 두 사람도 비슷하게 대했다.

이들 역시 민중의 신임을 받던 웅변가들이었는데, 독약으로 죽였다.

**[2.9.5]** 결국 필리포스 자신도 차례가 되어 죽음의 잔 때문에 재앙을 겪을 운명이었다.

그의 아들 데메트리오스는 작은아들 페르세우스에게 독살되었다.

살해 사건에 대한 슬픔은 아버지 역시 무덤으로 이끌었다.

내가 이 일을 지나가는 길에 언급한 것은, 이웃을 해칠 음모를 꾸미는 자는 먼저 자신을 향해 그것을 돌린다는 시인 헤시오도스의 영감 어린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2.9.6]** 아라토스의 영웅 사당 다음에는 이스트미아의 포세이돈 제단이 있다.

또한 자비로운 제우스 메일리키오스와 조상의 여신이라는 뜻의 아르테미스 파트로아가 있다.

둘 다 매우 소박한 작품이다.

메일리키오스는 피라미드 같고 아르테미스는 기둥 같다.

이곳에는 평의회 의사당과 클레이스테네스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주랑도 있다.

그가 세웠기 때문이다.

클레이스테네스는 키라 전쟁에서 암픽티오니아를 도왔으며, 그 전리품으로 주랑을 지었다.

시장 야외에는 리시포스의 작품인 청동 제우스가 있으며, 그 곁에는 금박을 입힌 아르테미스가 있다.

**[2.9.7]** 가까이에는 늑대의 신 아폴론 리키오스의 성소가 있다.

지금은 폐허가 되어 별로 볼 만하지 않다.

한때 늑대들이 가축 떼를 너무 심하게 잡아먹어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신은 마른 통나무가 놓인 어떤 장소를 일러주면서, 그 나무껍질을 고기와 섞어 짐승들에게 먹이로 내놓으라는 신탁을 주었다.

늑대들은 그것을 맛보자마자 나무껍질 때문에 죽었다.

그 통나무는 내가 살던 시대에도 늑대의 신 성소에 있었다.

그러나 시키온의 안내자들조차 무슨 나무인지 알지 못했다.

**[2.9.8]** 그다음에는 프로이토스의 딸들이라고 하는 청동 초상 조각들이 있다.

그러나 내가 본 명문은 다른 여자들을 가리켰다.

이곳에는 시키온인 리시포스가 만든 청동 헤라클레스가 있다.

가까이에는 시장의 헤르메스가 서 있다. Description of Greece: Book 2, Corinth

## 제10장

**[2.10.1]** 시장에서 멀지 않은 체육장에는 스코파스가 만든 돌 헤라클레스상이 봉헌되어 있다.

다른 곳에도 헤라클레스의 성소가 있다.

그곳의 경내 전체를 파이디제라고 부른다.

경내 한가운데에 성소가 있으며, 그 안에는 플리우스인 라파에스가 조각한 오래된 목상이 있다.

이제 축제의 의식을 설명하겠다.

이야기에 따르면 파이스토스는 시키온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헤라클레스에게 영웅으로서 제물을 바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런 방식으로 행하기를 거부하고, 신으로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시키온인들은 어린 양을 죽이고 제단 위에서 넓적다리를 태운 뒤, 고기의 일부는 신에게 바친 제물의 몫으로 먹고 나머지는 영웅에게 바치듯 올린다.

헤라클레스 축제의 첫날은 〔본문 결락〕라고 부르며, 둘째 날은 헤라클레이아라고 부른다.

**[2.10.2]** 이곳에서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소로 가는 길이 있다.

경내에 들어서면 왼쪽에 방이 두 개인 건물이 보인다.

바깥방에는 잠의 신이 누워 있는데, 지금은 머리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안쪽 방은 카르네이오스 아폴론에게 바쳐져 있다.

사제들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주랑에는 거대한 바다 괴물의 뼈가 놓여 있다.

그다음에는 꿈의 신과, 에피도테스 곧 ‘풍요를 베푸는 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사자를 잠재우는 잠의 신이 있다.

성소 안 입구 양쪽에는 상들이 있다.

한쪽에는 앉아 있는 판, 다른 쪽에는 서 있는 아르테미스가 있다.

**[2.10.3]** 안으로 들어가면 신이 보인다.

칼라미스가 금과 상아로 만든 수염 없는 모습이다.

한 손에는 지팡이를, 다른 손에는 재배하는 소나무의 솔방울을 들고 있다.

시키온인들은 신이 두 노새가 끄는 수레를 타고 에피다우로스에서 자신들에게 왔다고 말한다.

그때 뱀의 모습이었으며, 시키온의 니카고라가 모셔왔다고 한다.

그녀는 아가시클레스의 어머니이자 에케티모스의 아내였다.

이곳에는 지붕에서 매달아놓은 작은 형상들이 있다.

뱀 위에 있는 여자는 아라토스의 어머니 아리스토다마라고 한다.

그들은 아라토스를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들로 여긴다.

**[2.10.4]** 이 경내에서 내가 본 주목할 만한 것들은 이와 같다.

맞은편에는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다른 경내가 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맨 먼저 안티오페의 상이 있다.

그들은 그녀의 아들들이 시키온인들이었다고 말한다.

그 아들들 때문에 시키온인들은 안티오페 자신도 자기들과 친족 관계였다고 주장한다.

그다음에는 아프로디테의 성소가 있다.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여성 관리와, '목욕물을 나르는 처녀'라고 불리며 1년 동안 신성한 직무를 맡는 처녀뿐이다.

여성 관리는 임명된 뒤 남자와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다른 모든 사람은 입구에서 여신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관례다.

**[2.10.5]** 앉아 있는 신상은 시키온인 카나코스가 만들었다.

그는 밀레토스인들의 디디마에 있는 아폴론과 테바이인들의 이스메니오스 아폴론도 만든 사람이다.

이 신상은 금과 상아로 만들었다.

머리에는 폴로스를 쓰고, 한 손에는 양귀비를 다른 손에는 사과를 들고 있다.

사람들은 돼지를 제외한 제물들의 넓적다리를 바친다.

다른 부분들은 노간주나무 장작으로 여신을 위해 태운다.

넓적다리가 타는 동안에는 파이데로스의 잎을 제물에 더한다.

**[2.10.6]** 이 식물은 경내의 탁 트인 곳에서 자란다.

시키온의 다른 곳에서도,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자라지 않는다.

잎은 열매를 먹는 참나무의 잎보다 작지만 상록 참나무의 잎보다는 크다.

모양은 참나무 잎과 비슷하다.

한쪽 면은 짙은 색이고 다른 면은 희다.

그 색깔은 백양나무 잎에 비유하는 것이 가장 알맞다.

**[2.10.7]** 이곳에서 체육장으로 올라가면 오른쪽에 아르테미스 페라이아의 성소가 보인다.

목상은 페라이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이 체육장은 클레이니아스가 시키온인들을 위해 지었으며, 지금도 이곳에서 젊은이들을 훈련한다.

이곳에는 흰 대리석 상들이 있다.

허리까지만 만든 아르테미스상과, 아래쪽이 네모난 헤르메스 기둥상과 비슷한 헤라클레스상이다.

## 제11장

[2.11.1] 이곳에서 성스러운 문이라고 부르는 성문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성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테나 신전이 보인다.

에포페우스가 오래전에 봉헌한 것으로, 크기와 화려함에서 동시대의 모든 신전을 능가했다.

그러나 이 신전의 기억조차 세월에 지워질 운명이었다.

벼락을 맞아 불탔기 때문이다.

다만 손상되지 않은 제단은 에포페우스가 만든 그대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제단 앞에는 에포페우스 자신을 위한 봉분이 있으며, 무덤 가까이에는 재앙을 물리치는 신들이 있다.

그리스인들은 그 신들 곁에서 불행을 피하려고 관례적으로 행하는 의식들을 치른다.

인접한 아르테미스와 아폴론의 성소 역시 에포페우스가 만들었으며, 그다음의 헤라 성소는 아드라스토스가 만들었다고 한다.

나는 어느 쪽에서도 남아 있는 신상을 찾지 못했다.

헤라의 성소 뒤에는 그가 판의 제단과 흰 대리석으로 만든 헬리오스의 제단을 세웠다.

[2.11.2] 평야로 내려가는 길에는 데메테르의 성소가 있다.

플렘나이오스가 아들을 길러준 데 감사하여 여신에게 바치려고 세웠다고 한다.

아드라스토스가 세운 헤라 성소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는 카르네이오스 아폴론의 신전이 있다.

기둥들만 서 있다.

벽이나 지붕은 더 이상 볼 수 없다.

길을 인도하는 헤라의 신전 역시 마찬가지다.

그 신전은 테메노스의 아들 팔케스가 세웠다.

그는 헤라가 시키온으로 오는 길을 인도했다고 주장했다.

[2.11.3] 시키온에서 플리우스로 곧장 가는 길의 왼쪽, 길에서 약 10스타디온 떨어진 곳에는 피라이아라고 부르는 숲이 있다.

그 안에는 보호하는 헤라와 코레의 성소가 있다.

이곳에서는 남자들끼리 축제를 치른다.

여자들에게는 님폰이라고 부르는 신전을 내주어 축제를 치르게 한다.

님폰에는 디오니소스와 데메테르, 코레의 상들이 있으며 얼굴만 드러내고 있다.

티타네로 가는 길은 60스타디온이며, 너무 좁아서 멍에를 메운 짐승들이 끄는 수레는 다닐 수 없다.

[2.11.4] 그 길을 따라 내가 생각하기에 약 20스타디온 가면, 아소포스강 건너편 왼쪽에 상록 참나무 숲과 여신들의 신전이 있다.

아테네인들은 그 여신들을 '존엄한 여신들'이라고 부르고, 시키온인들은 '자비로운 여신들'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해마다 하루를 정해 축제를 치르고, 새끼를 밴 암양들을 통째로 태워 바친다.

꿀과 물을 섞어 붓고, 화환 대신 꽃을 쓰는 것이 관례다.

운명의 여신들의 제단에서도 비슷한 의식을 행한다.

그 제단은 숲속의 빈터에 있다.

[2.11.5] 다시 길로 돌아와 아소포스강을 건너고 언덕 꼭대기에 이르면, 주민들이 티탄이 처음 살았다고 말하는 장소에 도착한다.

그들은 그가 헬리오스의 형제였으며, 그의 이름에서 티타네라는 지명이 유래했다고 덧붙인다.

내 생각에 그는 계절의 변화와, 태양이 씨앗과 열매를 자라게 하고 익히는 시기를 관찰하는 데 능숙했던 듯하다.

그 때문에 헬리오스의 형제로 여겨졌을 것이다.

뒤에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들 마카온의 아들인 알렉사노르가 시키온 땅에 와서 티타네에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소를 세웠다.

[2.11.6]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을 섬기는 이들이며, 경내에는 오래된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있다.

신상이 어떤 나무나 금속으로 되어 있는지는 알아낼 수 없다.

제작자의 이름도 알지 못한다.

다만 한두 사람은 알렉사노르 자신의 작품이라고 여긴다.

신상에서는 얼굴과 손발만 볼 수 있다.

흰 양모로 만든 옷과 망토를 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의 여신도 비슷한 신상이 있다.

이것 역시 쉽게 볼 수 없다.

여자들이 잘라 여신에게 바친 머리카락과 바빌로니아 옷감의 띠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봉헌하는 사람이 둘 가운데 어느 신을 통해 신의 호의를 얻고자 하든, 받는 지시는 같다.

사람들이 건강의 여신이라고 부르는 이 신상을 경배하라는 것이다.

**[2.11.7]** 알렉사노르와 에우아메리온의 상들도 있다.

알렉사노르에게는 해가 진 뒤 영웅에게 하듯 제물을 바친다.

에우아메리온에게는 신으로서 불에 태우는 제물을 바친다.

내 추측이 맞는다면, 페르가몬인들은 신탁에 따라 이 에우아메리온을 텔레스포로스, 곧 '완성하는 자'라고 부르고 에피다우로스인들은 아케시스, 곧 '치유'라고 부른다.

코로니스의 목상도 있다.

그러나 신전 안의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

신에게 황소와 어린 양,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동안에는 코로니스를 아테나의 성소로 옮겨 그곳에서 공경한다.

불에 태워 바치는 제물의 부분들은 땅 위에서 태운다.

그들은 넓적다리만 잘라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다만 새들은 제단 위에서 태운다.

**[2.11.8]** 박공의 양 끝에는 헤라클레스와 니케들의 형상이 있다.

주랑에는 디오니소스와 헤카테, 아프로디테와 신들의 어머니, 행운의 여신상들이 봉헌되어 있다.

이것들은 나무로 만들었다.

그러나 고르틴의 신이라는 별칭의 아스클레피오스는 돌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성스러운 뱀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대신 입구 앞에 먹이를 놓고 더는 신경 쓰지 않는다.

경내에는 그라니아노스라는 시키온인의 청동상이 있다.

그가 올림피아에서 거둔 승리는 다음과 같다.

오종경기에서 두 번, 단거리 달리기에서 한 번, 왕복 달리기에서 두 번 우승했다.

왕복 달리기는 한 번은 방패 없이, 한 번은 방패를 들고 뛰었다. Description of Greece: Book 2, Corinth

## 제12장

**[2.12.1]** 티타네에는 아테나의 성소도 있다.

사람들은 그곳으로 코로니스상을 올려 보낸다.

그 안에는 오래된 아테나 목상이 있는데, 나에게 말해준 바에 따르면 이 상도 벼락을 맞았다.

성소는 언덕 위에 세워져 있으며, 언덕 아래에는 바람들의 제단이 있다.

사제는 해마다 어느 하룻밤에 그 위에서 바람들에게 제사를 지낸다.

또한 네 구덩이에서 다른 비밀 의식을 행하여 거센 바람의 사나움을 누그러뜨린다.

메데이아의 주문도 읊는다고 한다.

**[2.12.2]** 티타네에서 시키온으로 돌아와 해안으로 내려가다 보면 길 왼쪽에 헤라의 신전이 보인다.

지금은 신상도 지붕도 없다.

아바스의 아들 프로이토스가 세웠다고 한다.

시키온인들의 항구라고 부르는 곳으로 내려간 다음, 펠레네의 항구 아리스토나우타이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길보다 조금 높은 왼편에 포세이돈의 성소가 보인다.

큰길을 더 가면 헬리손이라는 강이 있고, 그다음에는 시타스강이 있다.

둘 다 바다로 흘러든다.

**[2.12.3]** 플리아시아는 시키오니아와 접해 있다.

도시는 티타네에서 약 40스타디온 떨어져 있으며, 시키온에서 곧장 가는 길이 있다.

플리우스인들이 아르카디아인들과 전혀 친족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호메로스가 아르카디아인들의 목록을 다루는 대목에서 드러난다.

그 대목에는 시키온인들이 아르카디아 연합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야기가 진행되면 그들이 원래 아르고스인이었으며, 나중에 헤라클레스의 후손들이 펠로폰네소스로 돌아온 뒤 도리스인이 되었음이 분명해질 것이다.

나는 플리우스인들에 관한 전승 대부분이 서로 모순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것들을 쓰겠다.

**[2.12.4]** 그들은 이 땅의 첫 사람이 흙에서 태어난 아라스였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 시대까지도 아란티네 언덕이라고 불리는 작은 언덕 둘레에 도시를 세웠다.

그곳은 플리우스인들의 성채와 헤베의 성소가 있는 또 다른 언덕에서 멀지 않다.

그는 이곳에 도시를 세웠으며, 옛날에는 땅과 도시 모두 그의 이름을 따서 아란티아라고 불렸다.

그가 왕이었을 때, 켈루사와 포세이돈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소포스가 그를 위해 강물을 발견했다.

지금 주민들이 그의 이름을 따라 아소포스라고 부르는 강이다.

아라스의 무덤은 켈레아이라고 부르는 장소에 있다.

엘레우시스의 디사울레스도 그곳에 묻혀 있다고 한다.

**[2.12.5]** 아라스에게는 아오리스라는 아들과 아라이티레아라는 딸이 있었다.

플리우스인들에 따르면 둘 다 사냥에 능숙했고 용감한 전사들이었다.

아라이티레아가 먼저 죽자 아오리스는 누이를 기념하여 땅의 이름을 아라이티레아로 바꾸었다.

그래서 호메로스가 아가멤논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썼다.

> 오르네아이와 사랑스러운 아라이티레아에 사는 자들.

내 생각에 아라스의 자녀들의 무덤은 이 땅의 다른 곳이 아니라 아란티네 언덕에 있다.

그 위에는 멀리서도 보이는 묘비들이 있다.

데메테르의 비의를 거행하기 전에 사람들은 그 무덤들을 바라보며 아라스와 자녀들을 술을 붓는 의식에 초대한다.

**[2.12.6]** 아르고스인들은 이 땅에 세 번째 이름을 준 플리아스가 테메노스의 아들 케이소스의 아들이었다고 말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아는 바로는 그는 디오니소스의 아들이라고 불리며, 아르고호를 타고 항해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한다.

로도스 시인의 시구들은 내 견해를 뒷받침한다.

> 그들 뒤에는 아라이티레아에서 플리아스가 모임에 왔다.
> 그는 그곳에서 살며 번영했다.
> 아버지 디오니소스가 잘 돌보아주었기 때문이다.
> 그의 집은 아소포스의 샘들 가까이에 있었다.

그 이야기는 플리아스의 어머니가 크토노필레가 아니라 아라이티레아였다고 이어진다.

크토노필레는 그의 아내였고, 그에게 안드로다마스를 낳아주었다.

## 제13장

**[2.13.1]** 헤라클레스의 후손들이 돌아왔을 때 아르카디아를 제외한 펠로폰네소스 전역에 혼란이 일어났다.

많은 도시가 도리스계의 추가 정착민들을 받아들였으며, 주민들은 더욱 많은 변혁을 겪었다.

플리우스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테메노스의 아들 팔케스의 아들인 도리스인 레그니다스가 아르고스와 시키온 지방에서 이 도시를 공격했다.

플리우스인들 가운데 일부는 레그니다스의 제안을 받아들이려 했다.

그 제안은 그들이 자기 재산을 가진 채 그대로 살되, 레그니다스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온 도리스인들에게 땅의 몫을 나누어주라는 것이었다.

**[2.13.2]** 반면 히파소스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시민들에게 스스로 방어하자고 촉구했다.

싸움 한 번 해보지도 않고 도리스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중은 반대쪽 방침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히파소스와 원하는 사람들은 사모스로 달아났다.

이 히파소스의 증손자가 유명한 현자 피타고라스였다.

피타고라스는 므네사르코스의 아들이고, 므네사르코스는 에우프라노르의 아들이며, 에우프라노르는 히파소스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플리우스인들이 자신들에 관해 전하는 이야기이며, 시키온인들도 대체로 그들에게 동의한다.

**[2.13.3]** 이제 그들의 유명한 볼거리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들을 설명하겠다.

플리우스의 성채에는 사이프러스 숲과, 옛날부터 특별히 신성하다고 여겨진 성소가 있다.

아주 옛날 플리우스인들은 그 성소의 여신을 가니메다라고 불렀다.

그러나 뒤의 사람들은 헤베라고 부른다.

호메로스는 메넬라오스와 알렉산드로스의 결투 대목에서 그녀를 언급하며 신들에게 술을 따르는 여신이라고 말한다.

또한 오디세우스가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대목에서는 헤라클레스의 아내였다고 말한다.

올렌은 헤라의 찬가에서 헤라가 계절의 여신들에게 양육되었으며, 자녀들은 아레스와 헤베였다고 말한다.

플리우스인들이 이 여신에게 바치는 영예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탄원자들의 사면이다.

**[2.13.4]** 이곳으로 피신하는 사람들은 모두 완전한 용서를 받는다.

죄수들은 풀려나면 숲의 나무들에 자신의 족쇄를 봉헌한다.

플리우스인들은 해마다 ‘담쟁이덩굴을 자르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축제도 치른다.

비밀리에 보관하는 것이든 공개하는 것이든 신상은 없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성한 전설에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는 방향의 왼쪽에는 헤라의 신전이 있으며, 파로스 대리석 신상이 있다.

**[2.13.5]** 성채에는 데메테르에게 바쳐진 또 다른 경내가 있다.

그 안에는 데메테르와 딸의 신전 및 신상들이 있다.

이곳에는 청동 아르테미스상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오래된 것이었다.

성채에서 내려가면 오른쪽에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보인다.

신상은 수염 없는 청년의 모습이다.

이 신전 아래에는 극장이 세워져 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데메테르의 성소와 앉아 있는 오래된 신상들이 있다.

**[2.13.6]** 시장에는 봉헌물이 하나 있다.

대부분을 금으로 덮은 청동 암염소다.

플리우스인들이 이것을 공경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들이 염소라고 부르는 별자리는 떠오를 때마다 포도나무들에 피해를 준다.

그 때문에 나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플리우스인들은 시장의 청동 염소를 공경하고 그 상을 금으로 장식한다.

이곳에는 프라티나스의 아들 아리스티아스의 무덤도 있다.

아리스티아스와 그의 아버지 프라티나스는 아이스킬로스의 작품들을 제외하면 다른 어느 작품보다도 인기 있는 사티로스극들을 썼다.

**[2.13.7]** 시장 뒤에는 플리우스인들이 '예언의 집'이라고 부르는 건물이 있다.

암피아라오스가 그 안에 들어가 하룻밤 잠들었으며, 그때 처음 예언을 시작했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암피아라오스는 한동안 예언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때부터 그 건물은 닫혀 있다.

멀지 않은 곳에는 이른바 옴팔로스, 곧 '배꼽'이 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펠로폰네소스 전체의 중심이다.

옴팔로스에서 더 가면 오래된 디오니소스 성소와 아폴론의 성소, 이시스의 성소가 있다.

디오니소스상과 아폴론상은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시스상은 사제들만 볼 수 있다.

**[2.13.8]** 플리우스인들은 다음과 같은 전설도 이야기한다.

헤라클레스는 이른바 헤스페리데스의 사과들을 가지고 리비아에서 무사히 돌아온 뒤, 어떤 개인적인 일로 플리우스를 방문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오이네우스가 아이톨리아에서 그를 찾아왔다.

그는 이미 헤라클레스의 가문과 인척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때 도착해서 그가 헤라클레스를 대접했거나, 헤라클레스가 그를 대접했다.

어느 쪽이든 헤라클레스는 받은 술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오이네우스의 술 시중을 들던 소년 키아토스의 머리를 손가락 하나로 쳤다.

소년은 그 충격에 즉사했다.

플리우스인들 사이에서는 작은 사당이 이 행위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사당은 아폴론의 성소 곁에 세워져 있으며, 안에는 헤라클레스에게 잔을 내미는 키아토스를 표현한 석상들이 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4장

**[2.14.1]** 켈레아이는 도시에서 약 5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이곳에서는 데메테르를 위한 비의를 해마다가 아니라 4년마다 거행한다.

입문을 주관하는 사제는 종신직이 아니다.

축제를 열 때마다 새 사제를 선출하며, 그는 원한다면 아내를 맞을 수 있다.

이 점에서 그들의 관습은 엘레우시스와 다르다.

그러나 실제 의식은 엘레우시스의 의식을 본뜬 것이다.

플리우스인들 자신도 엘레우시스의 '의례'를 모방한다고 인정한다.

**[2.14.2]** 그들은 켈레오스의 형제 디사울레스가 자기들 땅에 와서 비의를 세웠다고 말한다.

아테네인들이 엘레우시스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크수토스의 아들 이온을 뽑았을 때, 디사울레스가 이온에게 쫓겨 엘레우시스를 떠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엘레우시스 사람이 전투에서 패하고 추방되었다는 플리우스인들의 설명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그 전쟁은 끝까지 싸우기 전에 조약으로 끝났으며, 에우몰포스 자신도 엘레우시스에 남았기 때문이다.

**[2.14.3]** 다만 디사울레스가 플리우스인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이유로 플리우스에 왔을 가능성은 있다.

나는 그가 켈레오스의 친족이었다거나, 엘레우시스에서 어떤 식으로든 두드러진 인물이었다고도 믿지 않는다.

그랬다면 호메로스가 시에서 그를 빼놓았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호메로스는 데메테르를 찬양하는 글을 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여신이 비의를 가르친 사람들을 열거할 때 디사울레스라는 엘레우시스인은 알지 못한다.

그 시구들은 다음과 같다.

> 여신은 트리프톨레모스와 말을 모는 디오클레스에게,
> 힘센 에우몰포스와 백성의 지도자 켈레오스에게,
> 성스러운 의식을 행하는 법을 가르치고
> 그들 모두에게 자신의 비의를 알려주었다.

[2.14.4] 어쨌든 플리우스인들에 따르면 이 디사울레스가 이곳에 비의를 세웠으며, 켈레아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도 그였다.

디사울레스의 무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이미 말했다.

그러므로 아라스의 무덤이 더 먼저 만들어졌다.

플리우스인들의 설명에 따르면 디사울레스는 아라스의 통치기가 아니라 그보다 나중에 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라스가 이아페토스의 아들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으며, 아르카스의 아들 펠라스고스와 아테네에서 토착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보다 세 세대 앞섰다고 말한다.

이른바 아낙토론의 지붕 위에는 펠롭스의 전차가 봉헌되어 있다고 한다.

## 제15장

[2.15.1] 이것들이 플리우스인들 사이에서 내가 가장 언급할 만하다고 생각한 것들이다.

코린토스에서 아르고스로 가는 길에는 클레오나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다.

클레오네스는 펠롭스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클레오네가 시키온 곁을 흐르는 아소포스의 딸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한다.

어느 쪽이든 이 둘 가운데 하나에서 도시의 이름이 유래한다.

이곳에는 아테나의 성소가 있으며, 신상은 스킬리스와 디포이노스의 작품이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다이달로스의 제자들이었다고 여긴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다이달로스가 고르틴 출신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며, 디포이노스와 스킬리스가 그 여자에게서 얻은 아들들이었다고 주장한다.

클레오나이에는 이 성소와 에우리폰 및 크테아토스의 무덤이 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들은 엘리스에서 이스트미아 경기에 사절로 가다가 이곳에서 헤라클레스의 화살에 맞았다.

헤라클레스는 그들이 아우게아스와의 전쟁에서 자신에게 맞섰다고 비난했다.

[2.15.2] 클레오나이에서 아르고스로 가는 길은 두 개다.

하나는 곧장 이어지지만 몸이 날랜 사람들만 다닐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트레토스, 곧 '뚫린 곳'이라고 부르는 고개를 따라간다.

이 길도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다른 길처럼 좁지만, 그래도 수레가 다니기에는 더 알맞다.

이 산들에서는 유명한 사자의 동굴을 지금도 보여준다.

네메아라는 장소는 약 15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네메아에는 네메아의 제우스를 위한 주목할 만한 신전이 있다.

그러나 내가 보았을 때 지붕은 무너졌고 신상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다.

신전 둘레에는 사이프러스 숲이 있다.

유모가 오펠테스를 풀밭에 내려놓았다가 뱀에게 죽게 한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한다.

**[2.15.3]** 아르고스인들은 네메아에서도 제우스에게 불에 태우는 제물을 바치고, 네메아의 제우스를 위한 사제를 선출한다.

또한 겨울에 열리는 네메아 경기에서는 무장 달리기의 우승 상품을 내놓는다.

이곳에는 오펠테스의 무덤이 있다.

둘레에는 돌 울타리가 있으며, 경내에는 제단들이 있다.

오펠테스의 아버지 리쿠르고스의 무덤인 흙 봉분도 있다.

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드라스테이아라고 부른다.

아마도 아드라스토스가 발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땅의 이름은 아소포스의 또 다른 딸 네메아에게서 유래했다고 한다.

네메아 위쪽에는 아페사스산이 있다.

페르세우스가 처음으로 아페사스의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낸 곳이라고 한다.

**[2.15.4]** 트레토스로 올라가 다시 아르고스로 가는 길을 따라가면 왼쪽에 미케네의 유적이 보인다.

그리스인들은 미케네의 창건자가 페르세우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도시가 세워진 이유와, 나중에 아르고스인들이 미케네를 황폐하게 만든 이유를 이야기하겠다.

지금 아르골리스라고 부르는 지방의 가장 오래된 전승은 이나코스가 왕이었을 때 강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헤라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다.

**[2.15.5]** 포로네우스가 이 땅의 첫 주민이었고, 그의 아버지 이나코스는 인간이 아니라 강이었다는 다른 전설도 있다.

이 강은 케피소스강과 아스테리온강과 함께 포세이돈과 헤라 사이에서 그 땅에 대한 판정을 내렸다.

그들은 그 땅이 헤라의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래서 포세이돈이 그들의 물을 사라지게 했다.

이 때문에 이나코스와 내가 언급한 다른 두 강은 비가 온 뒤가 아니면 물을 내지 않는다.

여름에는 레르나의 물줄기들을 제외하면 모두 말라 있다.

이나코스의 아들 포로네우스는 그때까지 흩어져 각각의 집안으로 살던 주민들을 처음 한데 모았다.

그들이 처음 모인 장소는 포로네우스의 도시라고 불렸다. Description of Greece: Book 2, Corinth

## 제16장

**[2.16.1]** 포로네우스의 손자 아르고스는 포로네우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그 땅에 자신의 이름을 주었다.

아르고스는 페이라소스와 포르바스를 낳았다.

포르바스는 트리오파스를, 트리오파스는 이아소스와 아게노르를 낳았다.

이아소스의 딸 이오는 이집트로 갔다.

그 경위가 헤로도토스의 기록과 같든 그리스인들의 이야기와 같든 말이다.

이아소스 다음에는 아게노르의 아들 크로토포스가 왕위에 올라 스테넬라스를 낳았다.

그러나 다나오스가 이집트에서 배를 타고 스테넬라스의 아들 겔라노르를 공격하러 와서 아게노르 후손들의 왕위 계승을 끝냈다.

그 뒤의 일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다나오스의 딸들이 사촌들에게 저지른 범죄와, 다나오스가 죽은 뒤 린케우스가 왕위를 이은 일이다.

**[2.16.2]** 그러나 린케우스의 아들 아바스의 아들들은 왕국을 나누어 가졌다.

아크리시오스는 원래 있던 아르고스에 남았고, 프로이토스는 헤라이온과 미데이아, 티린스, 아르고스 해안 지방을 차지했다.

프로이토스가 티린스에 살았던 흔적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뒤에 아크리시오스는 페르세우스가 살아 있을 뿐 아니라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페네이오스강의 라리사로 물러났다.

페르세우스는 어떻게 해서든 외조부를 만나 좋은 말과 행동으로 대하고 싶어서 라리사로 찾아갔다.

그는 한창 젊었으며 원반을 발명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 모든 사람 앞에서 시범을 보였다.

그런데 아크리시오스가 불행히도 눈에 띄지 않게 원반의 진로로 들어섰다.

**[2.16.3]** 이렇게 아크리시오스에게 내려진 신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딸과 외손자를 경계한 조치들도 그의 운명을 막지 못했다.

페르세우스는 살인에 관한 말들 때문에 부끄러워했다.

아르고스로 돌아온 뒤 프로이토스의 아들 메가펜테스를 설득하여 왕국을 서로 바꾸었다.

자신은 메가펜테스의 왕국을 넘겨받아 미케네를 세웠다.

그 장소에서 칼집의 끝장식, 곧 미케스가 떨어졌으므로 도시를 세우라는 징조로 여겼기 때문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들었다.

그가 목이 말랐는데 땅에서 버섯, 곧 미케스를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서 흘러나온 물을 기쁘게 마신 뒤, 그 장소에 미케네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다.

**[2.16.4]** 호메로스는 『오디세이아』의 다음 시구에서 미케네라는 여자를 언급한다.

> 티로와 알크메네, 아름다운 관을 쓴 여인 미케네.

그리스인들이 『위대한 에오이아이』라고 부르는 시에서는 그녀가 이나코스의 딸이며 아레스토르의 아내였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자가 도시에 이름을 주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케네우스가 스파르톤의 아들이고 스파르톤이 포로네우스의 아들이었다는 아쿠실라오스의 설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케다이몬인들 자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아미클라이에 스파르테라는 여자의 초상 조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포로네우스의 아들 스파르톤이라는 이름을 듣기만 해도 놀랄 것이다.

**[2.16.5]** 아르고스인들이 미케네를 파괴한 것은 질투 때문이었다.

페르시아가 침입했을 때 아르고스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미케네인들은 테르모필라이에 80명을 보내 라케다이몬인들의 공적에 함께했다.

이렇게 명예를 얻으려 한 열의가 아르고스인들을 격분시켜 그들에게 파멸을 가져왔다.

그러나 성벽의 일부는 아직 남아 있다.

사자들이 위에 서 있는 문도 포함된다.

이것들 역시 프로이토스를 위해 티린스의 성벽을 만든 키클롭스들의 작품이라고 한다.

**[2.16.6]** 미케네의 유적에는 페르세이아라고 부르는 샘이 있다.

아트레우스와 그의 자녀들이 보물을 보관했던 지하 방들도 있다.

아트레우스의 무덤이 있으며, 아가멤논과 함께 트로이아에서 돌아왔다가 아이기스토스가 차린 잔치 뒤에 살해된 사람들의 무덤들도 있다.

카산드라의 무덤은 아미클라이 주변에 사는 라케다이몬인들이 자기들 땅에 있다고 주장한다.

아가멤논에게도 무덤이 있고, 전차를 몰던 에우리메돈에게도 있다.

텔레다모스와 펠롭스는 하나의 무덤을 함께 쓴다.

그들은 카산드라의 쌍둥이 아들들이었다고 한다.

**[2.16.7]** 아이기스토스는 부모들을 죽인 뒤 아직 갓난아기였던 이들까지 죽였다.

엘렉트라의 무덤도 있다.

오레스테스가 그녀를 필라데스와 결혼시켰기 때문이다.

헬라니코스는 필라데스가 엘렉트라에게서 얻은 자녀들이 메돈과 스트로피오스였다고 덧붙인다.

클리타임네스트라와 아이기스토스는 성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묻혔다.

아가멤논 자신과 그와 함께 살해된 사람들이 누워 있는 성벽 안에는 묻힐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7장

**[2.17.1]** 미케네에서 15스타디온 떨어진 왼쪽에 헤라의 성소인 헤라이온이 있다. 길가에는 엘레우테리온, 곧 '자유의 물'이라고 부르는 시내가 흐른다. 여사제들은 정화 의식과 비밀 제사에 이 물을 쓴다. 성소는 에우보이아 언덕의 낮은 곳에 자리한다. 사람들은 이 언덕을 에우보이아라고 부르는데, 강의 신 아스테리온에게 에우보이아와 프로심나와 아크라이아라는 세 딸이 있었고, 이들이 헤라를 길렀다고 한다.

**[2.17.2]** 헤라이온 맞은편 언덕에는 아크라이아의 이름을, 성소 주변에는 에우보이아의 이름을, 헤라이온 아래쪽 땅에는 프로심나의 이름을 붙였다. 아스테리온강은 헤라이온 위쪽으로 흐르다가 바위틈에 떨어져 자취를 감춘다. 강가에는 역시 아스테리온이라고 부르는 풀이 자란다. 사람들은 그 풀을 헤라에게 바치고, 잎을 엮어 여신의 화환을 만든다.

**[2.17.3]** 신전을 지은 건축가는 아르고스인 에우폴레모스였다고 한다. 기둥 위에 새긴 조각들은 제우스의 탄생과 신들이 거인들과 싸운 일, 또는 트로이아 전쟁과 일리온의 함락을 나타낸다. 입구 앞에는 헤라의 여사제를 지낸 여자들의 상과 여러 영웅의 상이 서 있다. 그 중에는 오레스테스도 있다. 명문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적힌 상이 실은 오레스테스의 것이라고 한다. 신전 전실 한쪽에는 카리테스 여신들의 오래된 상이 있다. 오른쪽에는 헤라의 침상과 봉헌물 하나가 있는데, 옛날 메넬라오스가 트로이아에서 에우포르보스에게 빼앗은 방패다.

**[2.17.4]** 헤라상은 왕좌에 앉아 있다. 금과 상아로 만든 거대한 상으로, 폴리클레이토스의 작품이다. 머리에 쓴 관에는 카리테스와 계절의 여신들이 새겨져 있고, 한 손에는 석류를, 다른 손에는 홀을 들고 있다. 석류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는 신성한 비의에 속하기 때문이다. 홀 위에 뻐꾸기가 앉아 있는 까닭은 이렇게 설명한다. 헤라가 아직 처녀였을 때 그녀를 사랑한 제우스가 이 새로 변했고, 헤라는 그 새를 잡아 애완용으로 길렀다는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나 신들에 관한 이와 비슷한 전설들을 믿지는 않지만, 전해지는 대로 기록한다.

**[2.17.5]** 헤라 곁에는 나우키데스가 만들었다는 헤베상이 서 있다. 이것도 상아와 금으로 만들었다. 그 곁에는 기둥 위에 놓인 오래된 헤라상이 있다. 가장 오래된 신상은 돌배나무로 만든 것으로, 아르고스의 아들 페이라소스가 티린스에 봉헌했다. 아르고스인들은 티린스를 파괴한 뒤 그 상을 헤라이온으로 가져왔다. 나도 직접 보았는데, 앉아 있는 작은 상이었다.

**[2.17.6]** 봉헌물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볼 만하다. 헤베와 헤라클레스의 전설 속 혼인을 돋을새김한 제단이 있다. 이것은 은으로 만들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봉헌한 공작은 금과 반짝이는 보석으로 만들었다. 공작을 헤라에게 신성한 새로 여기기 때문에 바친 것이다. 네로가 봉헌한 금관과 자주색 옷도 이곳에 놓여 있다.

**[2.17.7]** 이 신전 위쪽에는 옛 신전의 기초와 불길을 면한 부분들이 남아 있다. 헤라의 여사제 크리세이스가 잠에 빠졌을 때, 화환 앞에 놓인 등잔에서 불이 옮아붙어 신전이 타버렸다. 크리세이스는 테게아로 가서 아테나 알레아에게 보호를 청했다. 아르고스인들은 그토록 큰 재앙을 겪었는데도 크리세이스의 상을 철거하지 않았다. 그 상은 지금도 불탄 신전 앞에 그대로 서 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8장

**[2.18.1]** 미케네에서 아르고스로 가는 길 왼쪽에 영웅 페르세우스의 사당이 있다. 이웃 주민들은 이곳에서 그를 공경한다. 그에게 가장 큰 영예를 바치는 사람들은 세리포스인들과 아테네인들이다. 아테네인들에게는 페르세우스에게 바친 성역과, 그의 구원자라고 불리는 딕티스와 클리메네의 제단이 있다.

이 사당에서 아르고스 영토 안으로 조금 더 가면 오른쪽에 티에스테스의 무덤이 보인다. 그 위에는 돌로 만든 숫양이 있다. 티에스테스가 형제의 아내를 유혹하여 황금 양을 손에 넣었기 때문이다. 아트레우스도 분별을 잃고 복수에 나섰다. 그는 티에스테스의 자녀들을 죽이고 시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잔치를 꾸몄다.

**[2.18.2]** 그 뒤의 일에서는 아이기스토스가 먼저 죄를 지었는지, 아가멤논이 티에스테스의 아들 탄탈로스를 살해하여 먼저 죄를 지었는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 탄탈로스는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아직 처녀였을 때 틴다레오스에게서 그녀를 아내로 받았다고 한다. 나는 그들을 천성이 사악했다고 단정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펠롭스의 죄로 인한 오염과 미르틸로스의 복수하는 혼령이 그렇게 오래 그 가문을 따라다녔다면, 피티아가 에피키데스의 아들인 스파르타인 글라우코스에게 한 말도 이치에 맞는다. 글라우코스가 맹세를 어겨도 되는지 물었을 때, 피티아는 그 죄의 벌이 죄인의 후손들에게도 미친다고 했다.

**[2.18.3]** 사람들이 ‘숫양들’이라고 부르는 티에스테스의 무덤을 조금 지나면 왼쪽에 미시아라는 곳과 미시아의 데메테르 성소가 있다. 아르고스인들에 따르면 데메테르를 맞아들인 사람 가운데 미시오스라는 이가 있어 그의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이 성소에는 지붕이 없으나, 안쪽에 구운 벽돌로 지은 또 하나의 신전이 있다. 그 안에는 코레와 플루톤과 데메테르의 목상이 있다. 더 가면 이나코스라는 강이 있고, 강 건너편에 태양신 헬리오스의 제단이 있다. 그다음에 나오는 성문은 그 곁의 성소에서 이름을 얻었다. 에일레이티이아의 성소다.

**[2.18.4]** 내가 아는 그리스인들 가운데 왕국이 셋으로 갈라진 경우는 아르고스인들뿐이다. 메가펜테스의 아들 아르게우스의 아들인 아낙사고라스가 다스릴 때, 여자들이 광기에 사로잡혀 집을 나와 온 나라를 떠돌았다. 아미타온의 아들 멜람푸스가 그 병을 고쳐주었는데, 자신과 형제 비아스가 각각 아낙사고라스와 동등한 몫의 왕국을 받는다는 조건이었다. 비

아스의 후손으로 어머니 쪽으로는 넬레우스의 혈통을 이은 다섯 사람이 4대에 걸쳐 왕위에 올랐고, 마지막은 아이기알레우스의 아들 키아니포스였다. 멜람푸스의 후손은 6대에 걸쳐 여섯 사람이 다스렸고, 마지막은 암피아라오스의 아들 암필로코스였다.

**[2.18.5]** 토착 왕가인 아낙사고라스 가문은 다른 두 가문보다 오래 다스렸다. 아낙사고라스의 아들 알렉토르의 아들인 이피스는 자기 형제 카파네우스의 아들 스테넬로스에게 왕위를 남겼다. 트로이아가 함락된 뒤 암필로코스는 지금 암필로키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땅으로 이주했다. 키아니포스도 자녀 없이 죽었으므로 스테넬로스의 아들 킬라라베스가 단독으로 왕이 되었다. 그러나 그 역시 후손을 남기지 못했다. 그러자 이웃에 있던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가 아르고스를 차지했다. 그는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영토에 더해 아르카디아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스파르타 왕위도 이은 상태였다. 언제든 그를 도울 채비가 된 포키스 동맹군도 있었다.

**[2.18.6]** 오레스테스가 라케다이몬인들의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은 스스로 그를 받아들였다. 틴다레오스의 딸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메넬라오스와 노예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니코스트라토스와 메가펜테스보다 왕위에 대한 권리가 앞선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오레스테스가 죽자 그와 메넬라오스의 딸 헤르미오네 사이에서 태어난 티사메노스가 왕위를 이었다. 시인 키나이톤에 따르면 오레스테스의 서자 펜틸로스의 어머니는 아이기스토스의 딸 에리고네였다.

**[2.18.7]** 이 티사메노스의 통치기에 헤라클레스의 후손들이 펠로폰네소스로 돌아왔다. 아리스토마코스의 아들 테메노스와 크레스폰테스, 그리고 이미 죽은 셋째 형제 아리스토데모스의 아들들이었다. 그들이 내세운 아르고스와 그 왕위에 대한 권리는 내가 보기에도 아주 정당했다. 티사메노스는 펠롭스의 후손이었지만 헤라클레스의 후손들은 페르세우스의 혈통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 틴다레오스가 히포코온에게 쫓겨났으며, 헤라클레스가 히포코온과 그의 아들들을 죽인 뒤 그 땅을 틴다레오스에게 맡겼다고 주장했다. 메세니아에 관해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 헤라클레스가 필로스를 점령한 뒤 그 땅을 네스토르에게 맡겼다는 것이다.

**[2.18.8]** 그리하여 그들은 티사메노스를 라케다이몬과 아르고스에서 몰아냈고, 메세니아에서는 네스토르의 후손들을 추방했다. 트라시메데스의 아들 실로스의 아들인 알크마이온,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 안틸로코스의 아들 파이온의 아들들이었다. 그들과 함께 멜란토스도 추방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안드로폼포스였고, 그 위로 보로스와 펜틸로스와 페리클리메노스가 차례로 이어진다. 티사메노스와 그의 아들들은 군대를 이끌고 지금의 아카이아로 갔다.

**[2.18.9]**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어느 민족에게 피신했는지는 모른다. 나머지 넬레우스의 후손들은 아테네로 갔으며, 파이오니다이와 알크마이오니다이 가문은 그들에게서 이름을 얻었다. 멜란토스는 옥신테스의 아들 티모이테스를 몰아내고 왕위에까지 올랐다. 티모이테스는 테세우스의 혈통을 이은 아테네의 마지막 왕이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9장

**[2.19.1]** 크레스폰테스와 아리스토데모스의 아들들의 역사는 여기서 다룰 일이 아니다. 테메노스는 자기 아들들을 제쳐두고 데이폰테스에게 공공연히 전쟁의 지휘를 맡겼으며, 어떤 일이든 그를 고문으로 삼았다. 데이폰테스는 헤라클레스의 아들 크테시포스의 아들 트라시아노르의 아들 안티마코스의 아들이었다. 테메노스는 이미 그를 사위로 삼은 데다 딸들 가운데 히르네토를 가장 아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왕위를 히르네토와 데이폰테스에게 넘기려 한다고 의심했다. 이 때문에 아들들이 그를 해칠 음모를 꾸몄고, 맏이 케이소스가 왕국을 차지했다.

**[2.19.2]** 아르고스인들은 아주 옛날부터 자유와 자치를 좋아하여 왕의 권한을 극도로 제한했다. 그래서 케이소스의 아들 메돈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이름뿐인 왕권이 남았다. 메돈의 10대 후손인 라케다스의 아들 멜타스에 이르러서는 민중이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왕위에서 완전히 몰아냈다.

**[2.19.3]** 아르고스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은 늑대의 신 아폴론 리키오스의 성소다. 지금의 신상은 아테네인 아탈로스가 만들었지만, 처음의 신전과 목상은 다나오스가 봉헌했다. 내 생각에 그 시대에는 신상들을 모두 나무로 만들었으며, 이집트의 신상들은 특히 그러했다. 다나오스가 아폴론 리키오스의 성소를 세운 사연은 이렇다. 그는 아르고스에 와서 스테넬라스의 아들 겔라노르에게 왕위를 요구했다. 양쪽 모두 그럴듯한 주장을 많이 내놓았고, 겔라노르 쪽의 주장도 상대의 주장만큼이나 정당해 보였다. 판정을 맡은 민중은 결정을 이튿날로 미루었다고 한다.

**[2.19.4]** 새벽에 늑대 한 마리가 성벽 앞에서 풀을 뜯던 소 떼에 덤벼들어, 무리를 이끄는 황소와 싸웠다. 아르고스인들은 겔라노르가 황소를 닮고 다나오스가 늑대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늑대가 사람과 함께 살지 않듯, 다나오스도 그때까지 그들과 함께 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늑대가 황소를 이겼으므로 다나오스가 왕국을 얻었다. 그는 아폴론이 늑대를 소 떼에 보냈다고 믿고 아폴론 리키오스의 성소를 세웠다.

**[2.19.5]** 이곳에는 다나오스의 왕좌가 봉헌되어 있다. 비톤이 어깨에 황소를 멘 모습의 상도 있다. 시인 리케아스에 따르면, 아르고스인들이 네메아에서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낼 때 비톤은 순전히 제 힘으로 황소를 들어 그곳까지 운반했다. 상 옆에는 사람들이 계속 피워두는 불이 있는데, ‘포로네우스의 불’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고, 포로네우스가 불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2.19.6]** 아프로디테와 헤르메스의 목상도 있다. 하나는 에페이오스가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히페르메스트라가 봉헌했다고 한다. 다나오스의 딸들 중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다나오스는 린케우스가 자유롭게 다니는 한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고 여겼고, 히페르메스트라가 자매들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아 그 일을 꾸민 자신의 치욕이 더 커졌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딸을 재판에 넘겼다. 아르고스인들은 그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녀는 무사히 풀려난 일을 기념하여 승리를 가져오는 아프로디테 니케포로스의 상을 봉헌했다.

**[2.19.7]** 신전 안에는 당대에서 가장 빠른 주자였던 라다스의 상과, 리라를 만들려고 잡은 거북을 든 헤르메스상이 있다. 신전 앞에는 구덩이가 있고, 그곳에는 황소와 늑대가 싸우는 모습과 황소에게 돌을 던지는 처녀가 돋을새김되어 있다. 그 처녀는 아르테미스라고 여겨진다. 다나오스는 이것들과 가까이 있는 기둥 몇 개, 제우스와 아르테미스의 목상들을 봉헌했다.

**[2.19.8]** 이곳에는 무덤들이 있다. 하나는 아폴론과 크로토포스의 딸 프사마테 사이에서 태어난 리노스의 무덤이고, 다른 하나는 시인 리노스의 무덤이라고 한다. 시인 리노스의 이야기는 내 기록의 다른 부분이 더 어울리므로 여기서는 지나가겠다. 프사마테의 아들 이야기는 메가라를 다룰 때 이미 했다.

그다음에는 거리의 신 아폴론 아귀이에우스의 상과 비를 내리는 제우스 히에티오스의 제단이 있다. 폴리네이케스의 테바이 귀환을 돕던 이들이 테바이를 점령하거나 싸우다 죽겠다고 함께 맹세한 곳이다. 프로메테우스의 무덤에 관해서는 이들의 이야기보다 오푸스인들의 이야기가 더 그럴듯해 보인다. 그래도 아르고스인들은 자기들의 전승을 고수한다. Pausanias ' Description of Greece

## 제20장

**[2.20.1]** 권투 선수 크레우가스의 상과 코린토스인들에게 거둔 승리를 기념한 전승비를 지나면, 자비로운 제우스 메일리키오스가 앉아 있는 상이 나온다. 폴리클레이토스가 흰 대리석으로 만든 것이다. 내가 알아본 바로는 다음과 같은 사연으로 만들었다. 라케다이몬인들이 아르고스인들에게 전쟁을 걸기 시작한 이래, 아민타스의 아들 필리포스가 그들을 본래 영토의 경계 안에 머물도록 강제할 때까지 적대 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그전에는 라케다이몬인들이 펠로폰네소스 밖의 일에 매여 있지 않으면 늘 아르고스 땅 일부를 빼앗으려 했다. 그들이 외지의 전쟁에 매여 있으면 이번에는 아르고스인들이 보복했다.

**[2.20.2]** 양쪽의 증오가 절정에 달했을 때 아르고스인들은 정예병 천 명을 유지하기로 하고, 아르고스인 브리아스를 지휘관으로 임명했다. 그는 평소에도 민중에게 난폭했다. 한번은 신랑에게 가던 처녀를 호위하는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욕보였다. 밤이 되자 처녀는 그가 잠들기를 기다려 두 눈을 멀게 했다. 아침에 일이 드러나자 그녀는 탄원자로서 민중에게 피신했다. 민중이 그녀를 처벌하라며 천인대에 넘겨주기를 거부하자 양쪽이 무기를 들었다. 민중이 승리했고, 분노에 못 이겨 상대편을 한 명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 뒤 같은 혈족의 피를 흘린 죄를 씻기 위해 정화 의식을 치렀으며, 여러 조치 가운데 하나로 제우스 메일리키오스의 상을 봉헌했다.

**[2.20.3]** 가까이에는 클레오비스와 비톤이 직접 수레를 끌어 어머니를 헤라의 성소에 모셔가는 모습을 돌에 새긴 부조가 있다. 그 맞은편에는 네메아의 제우스 성소와 리시포스가 만든, 똑바로 선 청동 신상이 있다. 여기서 더 가면 오른쪽에 포로네우스의 무덤이 보인다. 사람들은 우리 시대에도 그에게 영웅으로서 제물을 바친다. 네메아의 제우스 맞은편에는 티케의 신전이 있다. 팔라메데스가 자신이 발명한 주사위를 봉헌한 신전이 바로 이것이라면, 아주 오래되었을 것이다.

**[2.20.4]** 이 근처의 무덤을 사람들은 마이나스인 코레이아의 것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디오니소스가 아르고스를 공격할 때 함께 온 여자들 가운데 하나였다. 페르세우스는 전투에서 이겨 그 여자들 대부분을 칼로 죽였다. 나머지 여자들은 한 무덤에 묻었으나, 코레이아는 지위가 높아서 따로 묻었다고 한다.

**[2.20.5]** 조금 더 가면 계절의 여신들의 성소가 있다. 이곳에서 돌아오면 오이디푸스의 아들 폴리네이케스와, 그와 함께 테바이 성벽에서 싸우다 죽은 지휘관들의 상이 보인다. 원정에는 아르고스와 메세네에서, 심지어 아르카디아에서도 지휘관들이 와서 일곱 명보다 많았지만, 아이스킬로스는 그 수를 일곱으로 줄였다. 아르고스인들은 아이스킬로스의 극에서 이 숫자를 받아들였다. 그 상들 가까이에는 테바이를 점령한 사람들의 상이 있다. 아드라스토스의 아들 아이기알레우스, 탈라오스의 아들 파르테노파이오스의 아들인 프로마코스, 히포메돈의 아들 폴리도로스, 테르산드로스, 암피아라오스의 두 아들 알크마이온과 암필로코스, 디오메데스와 스테넬로스다. 메키스테우스의 아들 에우리알로스와 폴리네이케스의 두 아들 아드라스토스와 티메아스도 그들과 함께했다.

**[2.20.6]** 그 상들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다나오스의 무덤과, 트로이아에서 또는 돌아오는 길에 죽은 아르고스인들의 빈 무덤이 있다. 이곳에는 구원자 제우스의 성소도 있다. 그 너머에는 아르고스의 여자들이 아도니스를 애도하는 건물이 있다. 입구 오른쪽에는 케피소스의 성소가 있다. 포세이돈이 이 강의 물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으며, 성소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땅 밑으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

**[2.20.7]** 케피소스의 성소 곁에는 돌로 만든 메두사의 머리가 있다. 이것 역시 키클롭스의 작품이라고 한다. 뒤쪽 땅은 오늘날에도 크리테리온, 곧 ‘재판하는 곳’이라고 불린다. 다나오스가 히페르메스트라를 재판에 넘긴 곳이 여기라고 하기 때문이다. 멀지 않은 곳에 극장이 있다. 그 안에는 볼 만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그중 하나는 아르고스인 알케노르의 아들 페릴라오스가 스파르타인 오트리아다스를 죽이는 모습이다. 페릴라오스는 그보다 앞서 네메아 경기에서 레슬링 우승을 거둔 사람이었다.

**[2.20.8]** 극장 너머에는 아프로디테의 성소가 있다. 신상 앞의 비석에는 서정시인 텔레실라가 돋을새김되어 있다. 발치에는 책들이 흩어져 있고, 그녀는 손에 든 투구를 바라보며 막 머리에 쓰려 한다. 텔레실라는 뛰어난 여자로, 특히 시로 이름이 높았다.

아르고스인들이 아낙산드리데스의 아들 클레오메네스와 라케다이몬군에게 참패한 일이 있었다. 일부는 전투에서 죽었고, 아르고스의 숲으로 피한 이들도 죽었다. 처음에 그들은 약속을 믿고 성역을 나섰다가 배신당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숲에 남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불에 타 죽었다. 그래서 클레오메네스가 군대를 이끌고 아르고스로 왔을 때에는 도시를 지킬 남자들이 없었다.

**[2.20.9]** 텔레실라는 노예들과, 너무 어리거나 늙어 무기를 들 수 없는 사람들을 모두 성벽 위에 배치했다. 자신은 성소에 있는 무기와 집에 남은 무기를 모아 한창때의 여자들을 무장시키고, 적이 공격해오리라고 본 곳에 세웠다. 라케다이몬인들이 다가오자 여자들은 그들의 함성에 겁먹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용감하게 싸웠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여자들을 죽여 이긴들 비난을 받을 것이고, 진다면 수치스러운 패배가 되리라고 판단하여 물러갔다.

**[2.20.10]** 이 싸움은 헤로도토스가 인용한 피티아의 신탁에서 예고되었다. 헤로도토스가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았는지는 모르겠다.

> 여자가 싸움에서 이겨 남자를 몰아내고
> 아르고스에서 큰 영광을 얻는 때가 오면,
> 아르고스의 많은 여인이 슬퍼하며 두 뺨을 찢으리라.

여자들이 세운 공적을 가리킨 신탁의 말은 이와 같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1장

**[2.21.1]** 거기서 내려와 다시 아고라 쪽으로 향하면 포로네우스의 아내 케르도의 무덤과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나온다. '설득'이라는 별칭의 아르테미스 성소 역시 히페르메스트라의 봉헌물이다. 린케우스 때문에 아버지에게 고발당한 재판에서 이긴 뒤 바친 것이다. 이곳에는 아이네이아스의 청동상과 델타라고 불리는 장소도 있다. 그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는 일부러 다루지 않겠다. 전해지는 설명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2.21.2]** 그 앞에는 피신을 돕는 제우스 픽시오스의 제단이 서 있다. 가까이에는 암피아라오스의 어머니 히페르메스트라의 무덤이 있다. 다른 무덤은 다나오스의 딸 히페르메스트라의 것으로, 린케우스도 함께 묻혀 있다. 맞은편에는 비아스의 아들 탈라오스의 무덤이 있다. 비아스와 그의 후손들의 역사는 이미 이야기했다.

**[2.21.3]** 나팔의 아테나 살핑크스의 성소는 헤겔레오스가 세웠다고 한다. 전승에 따르면 헤겔레오스는 티르세노스의 아들이고, 티르세노스는 헤라클레스와 리디아 여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티르세노스가 나팔을 발명했고, 그의 아들 헤겔레오스가 테메노스를 따르는 도리스인들에게 나팔 부는 법을 가르쳤다. 그래서 아테나에게 살핑크스라는 별칭을 붙였다. 아테나 신전 앞에는 에피메니데스의 무덤이 있다고 한다. 아르고스인들의 말로는 라케다이몬인들이 크노소스인들과 전쟁을 벌여 에피메니데스를 생포했다. 그가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예언해주지 않자 죽였고, 아르고스인들이 시신을 거두어 이곳에 묻었다고 한다.

**[2.21.4]** 아고라의 거의 한가운데에 흰 대리석 건물이 있다. 아르고스인들은 에페이로스의 피로스에게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비라고 하지만, 피로스의 시신을 이곳에서 화장했다는 증거가 있다. 이것은 그의 기념물이며, 그가 쓴 코끼리와 그 밖의 전쟁 장비가 돋을새김되어 있다. 건물은 화장용 장작더미가 있던 자리에 세웠다. 그러나 피로스의 유골은 데메테르의 성소에 있다. 아티카를 다룰 때 밝혔듯, 그가 죽은 곳은 그 성소 곁이다. 데메테르 성소에 들어갈 때 문 위를 보면 피로스가 쓰던 청동 방패가 봉헌되어 걸려 있다.

**[2.21.5]** 아르고스의 아고라에 있는 이 건물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흙으로 쌓은 봉분이 있다. 그 안에 고르곤 메두사의 머리가 묻혀 있다고 한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서 기적 같은 부분을 걷어내고 이치에 맞는 대목을 전하겠다. 아버지 포르코스가 죽은 뒤 그녀는 트리토니스 호수 주변 주민들을 다스리며 사냥을 나가기도 하고 리비아인들을 이끌고 싸우기도 했다. 한번은 펠로폰네소스 정예병들을 거느린 페르세우스와 맞서 진을 쳤다가 밤중에 살

해되었다. 페르세우스는 죽은 뒤에도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감탄하여, 머리를 잘라 그리스인들에게 보여주려고 가져갔다.

**[2.21.6]** 그러나 카르타고인 에우크라테스의 아들 프로클레스는 다른 이야기가 앞의 것보다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다. 리비아의 사막에 사는 믿기 어려운 괴물들 가운데에는 야생의 남자와 여자도 있다. 프로클레스는 그들 가운데 로마로 끌려온 남자를 직접 보았다고 단언했다. 그래서 그는 그 무리에서 여자 하나가 떨어져 나와 트리토니스 호수까지 와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페르세우스에게 죽었으리라고 추측했다. 아테나가 이 일을 도왔다고 여긴 까닭은 트리토니스 호수 주변의 주민들이 그녀에게 바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21.7]** 아르고스에서 고르곤의 이 기념물 곁에는 페르세우스의 딸 고르고포네의 무덤이 있다. '고르곤을 죽인 자'라는 이름을 들으면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알 수 있다. 그녀는 처녀였을 때 아이올로스의 아들 페리에레스에게 시집갔다. 그가 죽은 뒤 오이발로스와 결혼하여 두 번 결혼한 첫 여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전에는 남편이 죽으면 과부로 지내는 것이 아내들의 관습이었다.

**[2.21.8]** 무덤 앞에는 아르고스인 라파에스에게 거둔 승리를 기념하여 돌로 만든 전승비가 있다. 이제부터는 아르고스인들이 자신들에 관해 하는 말이다. 라파에스가 참주였을 때 민중이 들고일어나 그를 추방했다. 그는 스파르타로 달아났고, 라케다이몬인들은 그를 다시 권좌에 앉히려 했다. 그러나 아르고스인들에게 패하여 대부분이 죽었으며, 라파에스도 함께 죽었다. 전승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레토의 성소가 있다. 신상은 프락시텔레스의 작품이다.

**[2.21.9]** 여신 곁의 처녀상은 클로리스, 곧 '창백한 여자'라고 부른다. 니오베의 딸이며 처음에는 멜리보이아라고 불렸다고 한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암피온의 자녀들을 죽였을 때, 자매들 중에서는 그녀만이 살아남았고 아미클라스도 살아남았다. 두 사람이 레토에게 기도했기 때문이다. 멜리보이아는 너무 놀라 그때뿐 아니라 평생 얼굴이 창백했다. 그래서 이름마저 멜리보이아에서 클로리스로 바뀌었다.

**[2.21.10]** 아르고스인들은 이 두 사람이 레토의 신전을 처음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니오베의 자녀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메로스의 시를 더 믿는데, 그중 한 구절이 내 견해를 뒷받침한다.

> 그들은 둘뿐이었으나 모두를 죽음에 넘겼다.

호메로스는 암피온의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2장

**[2.22.1]** 레토의 성소 오른쪽에는 꽃의 헤라 안테아의 신전이 있고, 그 앞에는 여자들의 무덤이 있다. 이들은 디오니소스의 전쟁을 도우려고 에게해의 섬들에서 왔다가 페르세우스가 이끄는 아르고스군과 싸워 죽었다. 그래서 '바다의 여자들'이라는 뜻의 할리아이라는 별

칭을 얻었다. 여자들의 무덤 맞은편에는 데메테르의 성소가 있다. 세운 사람이 트리오파스의 아들 펠라스고스였으므로 펠라스고스의 데메테르라고 부른다. 성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펠라스고스의 무덤이 있다.

**[2.22.2]** 무덤 맞은편에는 아르테미스와 제우스와 아테나의 오래된 상들을 받치는 작은 청동 그릇이 있다. 리케아스는 자신의 시에서 그 제우스상이 '방책을 마련하는 자'라는 뜻의 제우스 메카네우스라고 했다. 또 트로이아 원정에 나선 아르고스인들이 그곳에서 트로이아를 점령하거나 싸우다 죽을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맹세했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청동 그릇 안에 탄탈로스의 뼈가 들어 있다고 한다.

**[2.22.3]** 티에스테스 또는 브로테아스의 아들로 전해지며 아가멤논보다 먼저 클리타임네스트라와 결혼한 탄탈로스가 이곳에 묻혀 있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전설에서 제우스와 플루토의 아들이라고 하는 탄탈로스의 무덤은 시필로스산에 있으며 볼 만하다. 내가 직접 보았으므로 안다. 훗날 프리기아인 일로스가 펠롭스에게 군대를 몰고 오자 펠롭스는 달아나야 했으나, 탄탈로스에게는 시필로스에서 달아날 만한 일이 없었다. 이 문제는 더 캐지 않겠다. 가까운 구덩이에서 행하는 의식은 이 고장 사람 니코스트라토스가 처음 마련했다고 한다. 지금도 사람들은 데메테르의 딸 코레를 기리며 구덩이 안에 불붙은 횃불들을 던진다.

**[2.22.4]** 이곳에는 '물에 잠기게 하는 자'라는 별칭의 포세이돈 프로스클리스티오스의 성소가 있다. 이나코스와 함께 판정에 나선 이들이 이 땅을 헤라의 몫으로 결정하자, 포세이돈이 나라 대부분을 물에 잠기게 했다고 한다. 헤라가 포세이돈을 설득하여 바닷물을 물러나게 했으며, 아르고스인들은 바닷물이 빠진 곳에 포세이돈 프로스클리스티오스의 성소를 만들었다.

**[2.22.5]** 조금 더 가면 아르고스의 무덤이 보인다. 그는 제우스와 포로네우스의 딸 니오베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그다음에는 디오스쿠로이의 신전이 있다. 신상들은 디오스쿠로이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 아낙시스와 므나시누스를 나타내며, 아들들의 어머니인 힐라에이라와 포이베도 함께 있다. 흑단으로 만든 상들로, 디포이노스와 스킬리스의 작품이다. 말들도 대부분 흑단으로 만들었으나 상아가 조금 들어 있다.

**[2.22.6]** 이 신들의 성소 가까이에는 에일레이티이아의 성소가 있다. 테세우스가 페이리토오스와 함께 테스프로티아로 떠난 사이 디오스쿠로이가 아피드나를 함락하고 헬레네를 라케다이몬으로 데려가던 때, 헬레네가 봉헌한 것이다. 당시 그녀는 임신 중이었으며, 아르고스에서 아이를 낳고 그곳에 에일레이티이아의 성소를 세웠다고 한다. 낳은 딸은 이미 아가멤논과 결혼한 클리타임네스트라에게 맡겼고, 자신은 뒤에 메넬라오스와 결혼했다.

**[2.22.7]** 이 일에 관해서는 칼키스의 시인 에우포리온과 플레우론의 알렉산드로스, 그리고 이들보다 앞선 히메라의 스테시코로스도 아르고스인들과 견해가 같다. 이피게네이아가 테세우스의 딸이었다는 것이다. 에일레이티이아의 성소 맞은편에는 헤카테의 신전이 있으며, 신상은 스코파스의 작품이다. 이 상은 돌로 만들었다. 맞은편의 청동상들도 헤카테의 상으로, 폴리클레이토스와 그의 형제인 모톤의 아들 나우키데스가 하나씩 만들었다.

**[2.22.8]** 스테넬로스의 아들의 이름을 딴 킬라라비스 체육장으로 곧장 가면 엘렉트리온의 아들 리킴니오스의 무덤이 나온다. 호메로스에 따르면 그는 헤라클레스의 아들 틀렙톨레모스에게 죽었으며, 틀렙톨레모스는 그 살인 때문에 아르고스에서 추방되었다. 킬라라비스와 그곳의 성문으로 가는 길에서 조금 벗어나면 사카다스의 무덤이 나온다. 그는 델포이에서 피티아의 피리 곡을 처음 연주한 사람이다.

**[2.22.9]** 아폴론이 피리 연주자들을 미워한 것은 실레노스 마르시아스와 겨루었을 때부터였는데, 이 사카다스 덕분에 그 적대감이 가라앉았다고 여겨진다. 킬라라베스의 체육장에는 파니아라고 부르는 아테나상이 있다. 스테넬로스와 킬라라베스 자신의 무덤도 보여준다. 체육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시라쿠사와 시칠리아를 예속시키려고 아테네인들과 함께 항해한 아르고스인들의 공동묘가 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3장

**[2.23.1]** 여기서 '우묵한 길'이라 부르는 길을 따라가면 오른쪽에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다. 신상은 에우보이아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그리스인들이 트로이아에서 돌아오다가 카페레우스에서 난파했을 때, 육지로 빠져나온 아르고스인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다. 그들은 신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 곤경에서 자신들을 구해주기를 기도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나아가다가 곧바로 디오니소스의 동굴을 발견했다. 안에는 신상이 있었고, 때마침 야생 암염소들이 폭풍을 피해 모여 있었다. 아르고스인들은 염소들을 잡아 고기는 먹고 가죽은 옷으로 삼았다. 폭풍이 그쳐 배를 수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동굴의 목상도 가져왔다. 지금도 그 상을 공경한다.

**[2.23.2]** 디오니소스 신전 아주 가까이에서 아드라스토스의 집이 보인다. 더 가면 암피아라오스의 성소가 있고, 그 맞은편에는 에리필레의 무덤이 있다. 그 곁에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역이 있고, 그다음에는 바톤의 성소가 있다. 바톤은 암피아라오스와 같은 멜람푸스 가문 출신으로, 그가 전쟁에 나갈 때 전차를 몰았다. 테바이 성벽에서 군대가 패주할 때 땅이 갈라져 암피아라오스와 그의 전차를 받아들였고, 바톤도 함께 삼켰다.

**[2.23.3]** 우묵한 길에서 돌아오면 사람들이 히르네토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 그녀를 기리는 빈 무덤이라는 뜻이라면 그 이야기는 충분히 그럴듯하다. 그러나 시신이 이곳에 있다고 믿는다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에피다우로스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믿어도 좋다.

**[2.23.4]** 아르고스에서 가장 유명한 아스클레피오스 성소에는 지금 흰 대리석으로 만든, 앉아 있는 신상이 있고 그 곁에는 건강의 여신 히기에이아가 서 있다. 그 상들을 만든 크세노필로스와 스트라톤의 앉은 상도 있다. 성소를 처음 세운 사람은 마카온의 아들 스피로스다. 시키온인들이 티타네에서 공경하는 알렉사노르의 형제다.

**[2.23.5]** 아르고스인들도 아테네인들과 시키온인들처럼 아르테미스 페라이아를 숭배한다. 그들 역시 여신상을 테살리아의 페라이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이네우스의 딸 데이아네이라와 프리아모스의 아들 헬레노스의 무덤이 아르고스에 있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트로이아에서 가져오는 바람에 그 도시가 함락되었다는 아테나상을 자신들이 가

지고 있다는 말에도 동의할 수 없다. 이른바 팔라디온은 아이네이아스가 이탈리아로 가져간 것이 분명하다. 데이아네이라는 트라키스 부근에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며, 무덤은 오이테산 기슭의 헤라클레이아 가까이에 있다.

**[2.23.6]** 프리아모스의 아들 헬레노스에 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다. 그는 아킬레우스의 아들 피로스와 함께 에페이로스로 갔고, 안드로마케와 결혼해 피로스의 자녀들을 돌보았다. 케스트리네 지방은 헬레노스의 아들 케스트리노스에게서 이름을 얻었다. 아르고스의 안내자들 자신도 자기들의 이야기가 전적으로 옳지는 않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도 그 견해를 붙든다. 대중이 생각을 바꾸게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르고스인들에게는 그 밖에도 볼 만한 것들이 있다.

**[2.23.7]** 예를 들어 지하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는 아크리시오스가 자기 딸을 가두려고 만든 청동 방이 있었다. 페릴라오스가 참주가 되었을 때 그것을 헐어버렸다. 이 건축물 외에도 크로토포스의 무덤과 크레타의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다. 전승에 따르면 디오니소스는 페르세우스와 싸웠으나 뒤에는 적의를 버렸고, 아르고스인들에게서 커다란 영예를 받았다. 이 성역도 그에게 특별히 떼어 바친 것이다.

**[2.23.8]** 나중에는 크레타 신의 성역이라고도 불렀다. 아리아드네가 죽었을 때 디오니소스가 그녀를 여기 묻었기 때문이다. 리케아스는 신전을 다시 짓던 중 토기 관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아리아드네의 것이라고 했다. 자신과 다른 아르고스인들이 그 관을 보았다고도 했다. 디오니소스 신전 가까이에는 하늘의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4장

**[2.24.1]** 사람들은 펠라스고스의 딸의 이름을 따서 성채를 라리사라고 부른다. 테살리아의 두 도시, 곧 바닷가에 있는 도시와 페네이오스강에 있는 도시 역시 그녀에게서 이름을 얻었다. 성채에 오르다 보면 높은 곳의 헤라 아크라이아의 성소와 아폴론 신전이 나온다. 아폴론 신전은 델포이에서 온 피타이오스가 처음 지었다고 한다. 지금의 신상은 서 있는 청동상으로, 아폴론 데이라디오테스라고 부른다. 이곳 역시 '산등성이'라는 뜻의 데이라이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곳에서 신탁을 받는다. 신탁을 전하는 여자는 남자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매달 밤에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면, 여자가 그 피를 맛본 뒤 신의 영감을 받는다.

**[2.24.2]** 아폴론 데이라디오테스의 신전 옆에는 '눈이 밝은 여신' 아테나 옥시데르케스의 성소가 있다. 디오메데스가 트로이아에서 싸울 때 여신이 그의 눈에서 안개를 걷어주었으므로 그가 봉헌했다. 그 옆에는 네메아의 제우스를 기리는 경기와 헤라의 축제를 열 때 쓰는 경기장이 있다. 성채로 가는 길 왼쪽에는 아이깁토스의 아들들의 또 다른 무덤이 있다. 시신은 레르나에 있고, 이곳에는 머리만 따로 묻혀 있다. 젊은이들이 살해된 곳은 레르나였다. 그들이 죽은 뒤 아내들은 아버지에게 끔찍한 일을 해냈다는 증거를 보이려고 머리를 잘랐다.

**[2.24.3]** 라리사 꼭대기에는 라리사의 제우스라고 불리는 신의 신전이 있다. 지붕은 없으며, 내가 갔을 때 목상도 더는 받침대 위에 서 있지 않았다. 볼 만한 아테나 신전도 있다. 그 안에 놓인 봉헌물 가운데는 눈이 셋인 제우스 목상이 있다. 두 눈은 보통 자리에 있고 셋째 눈은 이마에 있다. 이 제우스는 라오메돈의 아들 프리아모스의 조상신으로, 궁정의 지붕 없는 부분에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그리스인들이 일리온을 함락했을 때 프리아모스는 이 신의 제단에 피신했다. 전리품을 나눌 때 카파네우스의 아들 스테넬로스가 그 상을 얻었고, 그래서 이곳에 봉헌되었다.

**[2.24.4]** 그 상에 눈이 셋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짐작할 수 있다. 제우스가 하늘의 왕이라는 것은 누구나 하는 말이다. 지하를 다스린다는 신도 호메로스의 한 구절에서는 제우스라고 불린다.

> 지하의 제우스와 존엄한 페르세포네.

에우포리온의 아들 아이스킬로스는 바다의 신 또한 제우스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상을 만든 사람은 같은 신이 우주의 이른바 세 몫을 모두 다스린다는 뜻으로 눈을 셋으로 만든 것이다.

**[2.24.5]** 아르고스에서는 펠로폰네소스 여러 곳으로 길이 뻗어 있다. 아르카디아 쪽의 테게아로 가는 길도 있다. 오른쪽에는 리코네산이 있고, 그 산에는 나무들, 특히 사이프러스가 자란다. 산꼭대기에는 아르테미스 오르티아의 성소가 세워져 있다. 그곳에 만든 아폴론과 레토와 아르테미스의 흰 대리석상들은 폴리클레이토스의 작품이라고 한다. 산에서 다시 내려오면 큰길 왼쪽에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보인다.

**[2.24.6]** 조금 더 가면 길 오른쪽에 카온이라는 산이 있다. 산기슭에는 사람들이 심어 기른 나무들이 자라며, 에라시노스강의 물이 이곳에서 지표로 솟아난다. 그 물은 아르카디아의 스팀팔로스에서 여기까지 흘러온다. 엘레우시스의 바닷가에 있는 레이토이의 물줄기가 에우리포스에서 흘러오는 것과 같다. 에라시노스강이 산에서 솟아나는 곳에서 사람들은 디오니소스와 판에게 제사를 바친다. 디오니소스를 위해서는 '군중'이라는 뜻의 티르베라는 축제도 거행한다.

**[2.24.7]** 테게아로 이어지는 길로 돌아오면, 이른바 '바퀴' 오른쪽에 켕크레아이가 보인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사람들은 말해주지 않는다. 어쩌면 이곳도 페이레네의 아들 켕크리아스에게서 이름을 얻었을 것이다. 히시아이 전투에서 라케다이몬인들을 이긴 아르고스인들의 공동묘가 이곳에 있다. 내가 알아보니 이 싸움은 아테네에서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아르콘이었을 때, 곧 아테네인 에우리보토스가 달리기에서 우승한 제27회 올림피아기의 넷째 해에 일어났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한때 아르골리스의 도시였던 히시아이의 유적이 나온다. 라케다이몬인들이 패배한 곳은 바로 여기라고 한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5장

**[2.25.1]** 아르고스에서 만티네이아로 가는 길은 테게아로 가는 길과 다르다. 데이라이, 곧 산등성이에 있는 성문에서 시작한다. 이 길에는 방이 두 개이고 서쪽과 동쪽에 각각 입구가 있는 성소가 있다. 동쪽 입구에는 아프로디테의 목상이, 서쪽 입구에는 아레스의 목상이 있다. 폴리네이케스와, 그가 당한 부당한 일을 바로잡으려고 원정에 가담한 아르고스인들이 봉헌한 상들이라고 한다.

**[2.25.2]** 여기서 더 가서 카라드로스라는 급류를 건너면 오이노에가 있다. 아르고스인들의 말로는 오이네우스에게서 이름을 얻었다. 아이톨리아의 왕이었던 오이네우스는 아그리오스의 아들들에게 왕위를 빼앗기자 아르고스의 디오메데스에게 피신했다고 한다. 디오메데스는 칼리돈 지방을 공격하여 그를 도왔으나 그곳에 함께 남을 수는 없다면서, 원한다면 자신과 함께 아르고스로 가자고 권했다. 오이네우스가 오자 디오메데스는 할아버지에게 마땅히 바쳐야 할 정성을 다했고, 그가 죽자 여기 묻었다. 아르고스인들은 그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오이노에라고 부른다.

**[2.25.3]** 오이노에 위쪽에는 아르테미시오스산이 있다. 꼭대기에는 아르테미스의 성소가 있고, 산에는 이나코스강의 발원지도 있다. 그 강에는 실제로 샘이 있다. 다만 그 물이 멀리까지 흐르지는 않는다.

**[2.25.4]** 이곳에서는 그 밖에 볼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 데이라이의 성문에서 리르케이아로 가는 다른 길도 있다. 쉰 형제 가운데 홀로 죽음을 면한 린케우스가 이곳에 와서, 무사히 달아났다는 뜻으로 봉화를 올렸다고 한다. 다나오스에게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 이르면 봉화를 올리기로 히페르메스트라와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녀도 이제 자신이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신호로 라리사에 봉화를 올렸다고 한다. 그래서 아르고스인들은 해마다 봉화 축제를 연다.

**[2.25.5]** 처음에 이곳은 린케이아라고 불렸다. 지금 이름은 나중에 이곳에 산 아바스의 서자 리르코스에게서 유래한다. 유적에는 굳이 언급할 만하지 않은 것들 몇 가지와, 비석에 새긴 리르코스의 모습이 남아 있다. 아르고스에서 리르케이아까지는 약 60스타디온이고, 리르케이아에서 오르네아이까지도 같은 거리다. 호메로스는 군선 목록에서 리르케이아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스인들이 트로이아로 원정할 때 이미 버려진 도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르네아이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호메로스는 이를 플리우스와 시키온보다 먼저 열거하는데, 그 순서가 아르고스 영토에 있는 도시들의 위치와 들어맞는다.

**[2.25.6]** 이름은 에레크테우스의 아들 오르네우스에게서 유래한다. 오르네우스는 페테오스를, 페테오스는 메네스테우스를 낳았다. 메네스테우스는 아테네군을 이끌고 아가멤논을 도와 프리아모스의 왕국을 무너뜨렸다. 오르네아이는 오르네우스에게서 이름을 얻었으며, 뒤에 아르고스인들이 주민 전부를 옮기는 바람에 그들은 아르고스에 살게 되었다. 오르네아이에는 아르테미스의 성소와 똑바로 서 있는 목상이 있다. 모든 신에게 공동으로 바친 신전도 있다. 오르네아이 너머에는 시키오니아와 플리아시아가 있다.

**[2.25.7]** 아르고스에서 에피다우로스 지방으로 가는 길 오른쪽에는 피라미드와 매우 비슷하게 지은 건물이 있다. 그 위에는 아르고스식 방패들이 돋을새김되어 있다. 프로이토스와 아크리시오스가 왕위를 두고 싸운 곳이 여기다. 어느 쪽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해 무승부로 끝났고, 그 뒤 화해했다고 한다. 이들이 거느린 군대와 두 사람 자신은 방패로 무장했는데, 이 싸움에서 처음으로 방패를 썼다는 이야기다. 양쪽 전사자들은 같은 나라 사람이자 혈족이었으므로 이곳에 공동묘를 마련했다.

**[2.25.8]** 이곳을 지나 오른쪽으로 돌면 티린스의 유적에 이른다. 아르고스인들은 인구를 늘려 아르고스를 더 강하게 하려고 티린스 주민들도 옮겼다. 도시에 이름을 준 영웅 티린스는 제우스의 아들 아르고스의 아들이라고 한다. 유적 중에 아직 남은 것은 성벽뿐이다.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키클롭스의 작품이다. 돌이 하나하나 어찌나 큰지, 가장 작은 것도 노새 두 마리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옛날에 그 사이에 작은 돌들을 끼워 넣어, 각각의 작은 돌이 큰 돌들을 단단히 맞물리게 해두었다.

**[2.25.9]** 바다 쪽으로 내려가면 프로이토스의 딸들이 지냈던 방들이 나온다. 큰길로 돌아오면 왼쪽의 미데이아에 이른다. 알크메네의 아버지 엘렉트리온이 미데이아의 왕이었다고 하나, 내가 살던 시대에는 기초만 남아 있었다.

**[2.25.10]** 에피다우로스로 곧장 가는 길에는 레사라는 마을이 있다. 그곳 아테나 신전의 목상은 라리사 성채의 것과 꼭 닮았다. 레사 위쪽에는 아라크나이온산이 있다. 아주 옛날 이나코스 시대에는 사피셀라톤이라 불렀다. 산에는 제우스와 헤라의 제단이 있어, 비가 필요할 때 그곳에서 두 신에게 제사를 바친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6장

**[2.26.1]** 레사에서 아르고스의 영토와 에피다우로스의 영토가 맞닿는다. 에피다우로스 시에 이르기 전에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소가 나온다. 에피다우로스라는 인물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누가 살았는지 나는 모른다. 그 고장 사람들에게서 그의 후손이 누구였는지도 알아낼 수 없었다. 다만 도리스인들이 펠로폰네소스에 오기 전 마지막 왕은 크수토스의 아들 이온의 후손 피티레우스였고, 그가 싸우지 않고 데이폰테스와 아르고스인들에게 땅을 넘겼다고 한다.

**[2.26.2]** 피티레우스는 자기 백성과 함께 아테네로 가서 살았고, 데이폰테스와 아르고스인들은 에피다우로스의 땅을 차지했다. 이들은 테메노스가 죽자 다른 아르고스인들에게서 떨어져 나왔다. 데이폰테스와 히르네토는 테메노스의 아들들을 미워했고, 그들을 따르는 군대는 케이소스와 그의 형제들보다 데이폰테스와 히르네토를 더 존중했기 때문이다. 이 지방에 이름을 준 에피다우로스는 엘리스인들의 말로는 펠롭스의 아들이다. 아르고스인들의 견해와 『위대한 에오이아이』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제우스의 아들 아르고스다. 에피다우로스인들은 그가 아폴론의 자녀였다고 주장한다.

**[2.26.3]** 이 땅이 특별히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신성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에피다우로스인들의 말로는 플레기아스가 겉으로는 땅을 구경하려고 펠로폰네소스에 왔지만, 실은 주민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대다수가 전투에 능한지를 엿보러 왔다. 플레기아스는 당대 최고의 전사였으며, 사방을 습격해 곡식을 빼앗고 가축을 몰고 갔기 때문이다.

**[2.26.4]** 그가 펠로폰네소스로 갈 때 딸이 동행했다. 딸은 아폴론의 아이를 배었다는 사실을 줄곧 아버지에게 숨겼다. 그녀는 에피다우로스인들의 땅에서 아들을 낳고, 지금은 '젖꼭지'라는 뜻의 티티온이라고 부르나 당시에는 미르티온이라 불렀던 산에 그를 버렸다. 버려진 아이에게 그 산에서 풀을 뜯던 염소 한 마리가 젖을 먹였고, 가축 떼를 지키는 개가 아이를 지켜주었다.

**[2.26.5]** 목자의 이름은 아레스타나스였다. 그는 염소 수가 맞지 않고 지키는 개도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자 샅샅이 찾아다녔다고 한다. 아이를 발견한 그는 들어 올리려 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에게서 번갯불이 번쩍였다. 그는 신성한 존재라고 생각하여 발길을 돌렸다. 실제로도 그 아이는 신성한 존재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스클레피오스가 병자를 고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알아내고 죽은 사람들까지 살려낸다는 소문이 온 육지와 바다에 퍼졌다.

**[2.26.6]** 그에 관해서는 다른 전승도 있다. 코로니스가 아스클레피오스를 임신한 채 엘라토스의 아들 이스키스와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아르테미스는 아폴론을 모욕한 벌로 그녀를 죽였다. 그러나 화장용 장작더미에 이미 불이 붙은 뒤 헤르메스가 불길 속에서 아이를 낚아챘다고 한다.

**[2.26.7]** 세 번째 이야기는 내가 보기에는 진실과 가장 거리가 멀다. 아스클레피오스를 레우키포스의 딸 아르시노에의 아들로 삼는 이야기다. 아르카디아인 아폴로파네스가 델포이에 와서 아스클레피오스가 아르시노에의 아들이며 따라서 메세니아인인지를 신에게 물었을 때, 피티아가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이다.

> 아스클레피오스여, 죽을 운명의 인간들에게 큰 기쁨을 주려고 태어난 이여,
> 플레기아스의 딸, 아름다운 코로니스와 내가 나눈 사랑의 징표여,
> 그녀는 험준한 에피다우로스 땅에서 너를 낳았다.

이 신탁을 보면 아스클레피오스가 아르시노에의 아들이 아니었음이 확실하다. 그 이야기는 헤시오도스나 그의 시에 구절을 끼워 넣은 누군가가 메세니아인들의 마음에 들려고 지어낸 것이다.

**[2.26.8]** 이 신이 에피다우로스에서 태어났다는 다른 증거도 있다. 내가 알아보니 아스클레피오스의 가장 유명한 성소들은 에피다우로스에서 비롯되었다. 우선 아테네인들은 그에게 자신들의 비의에 참여할 몫을 주었다고 하며, 그 축제의 해당 날짜를 에피다우리아라고 부른다. 그때부터 아스클레피오스를 숭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 아리스타이크모스의 아들 아르키아스는 핀다소스 일대에서 사냥하다 몸을 삐었는데, 에피다우로스의 땅에서 치료를 받은 뒤 페르가몬에 그 숭배를 들여왔다.

**[2.26.9]** 스미르나의 바닷가에 있는 아스클레피오스 성소는 우리 시대에 페르가몬의 성소를 따라 세웠다. 또 키레네인들의 발라그라이에는 '치유자'라는 뜻의 이아트로스라고 불리는 아스클레피오스가 있다. 그 역시 다른 곳의 신들과 마찬가지로 에피다우로스에서 왔다. 키레네의 성소에서 비롯된 것이 크레타 레베네의 아스클레피오스 성소다. 키레네인들과 에

피다우로스인들 사이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다. 앞의 사람들은 염소를 제물로 바치지만, 에피다우로스에서는 그것이 관습에 어긋난다.

**[2.26.10]** 아스클레피오스가 처음부터 신으로 여겨졌으며 시간이 지나서야 그런 칭호를 얻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나는 여러 징표에서 추론한다. 호메로스도 그 증거다. 그는 아가멤논이 마카온에 관해 이렇게 말하게 한다.

> 탈티비오스여, 어서 가서 아스클레피오스의 죽을 운명을 지닌 아들 마카온을 이리 불러오라.

곧 신에게서 태어난 인간의 아들이라는 말이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7장

**[2.27.1]**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성한 숲은 사방이 경계 표지로 둘러싸여 있다. 그 안에서는 사람이 죽거나 태어나는 일이 없다. 델로스섬에도 같은 관습이 있다. 에피다우로스인이 바치든 외지인이 바치든 모든 제물은 경계 안에서 전부 소비한다. 내가 알기로 티타네에도 같은 규칙이 있다.

**[2.27.2]** 아스클레피오스상은 아테네에 있는 올림피오스 제우스상의 절반 크기이며, 상아와 금으로 만들었다. 명문에는 파로스인 아리그노토스의 아들 트라시메데스가 만들었다고 적혀 있다. 신은 자리에 앉아 한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다른 손을 뱀의 머리 위에 얹으려는 듯 내밀고 있다. 곁에는 누운 개의 형상도 있다. 앉은 자리에는 아르고스 영웅들의 공적이 돋을새김되어 있다. 벨레로폰테스가 키마이라와 맞서는 모습,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벤 모습이다. 신전 맞은편에는 신에게 탄원하러 온 사람들이 잠드는 곳이 있다.

**[2.27.3]** 가까이에는 흰 대리석으로 지은 원형 건물이 있다. 톨로스라 부르며 볼 만하다. 안에는 파우시아스가 그린 그림이 있다. 에로스가 활과 화살을 내던지고 대신 리라를 집어든 모습이다. 파우시아스의 다른 작품도 있다. 술 취함을 의인화한 여자가 수정 잔으로 술을 마시는 그림이다. 그림인데도 수정 잔과 그 너머의 여자 얼굴이 보인다. 경내에는 비석들이 서 있었다. 내가 살던 시대에는 여섯 개가 남아 있었으나 옛날에는 더 많았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치료받은 남녀의 이름과 각자가 앓은 병, 그리고 치료 방법이 새겨져 있다. 글은 도리스 방언으로 쓰였다.

**[2.27.4]** 다른 것들과 떨어져 있는 오래된 비석에는 히폴리토스가 신에게 말 스무 필을 봉헌했다고 적혀 있다. 이탈리아의 아리키아인들은 이 비문과 일치하는 이야기를 전한다. 히폴리토스가 테세우스의 저주로 죽었을 때 아스클레피오스가 그를 되살렸다는 것이다. 그는 다시 살아난 뒤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간청을 물리치고 이탈리아의 아리키아인들에게 갔다. 그곳에서 왕이 되어 아르테미스에게 성역을 바쳤다. 내가 살던 시대까지도 그곳에서는 일대일로 싸워 이긴 사람이 여신의 사제직을 얻었다. 자유인은 누구도 이 싸움에 참가할 수 없었고, 주인에게서 달아난 노예들만 참가할 수 있었다.

**[2.27.5]** 에피다우로스인들은 성소 안에 극장을 두고 있는데, 내 생각에 대단히 볼 만하다. 화려함에서는 로마의 극장들이 다른 어느 곳의 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크기에서는 아르카

디아 메갈로폴리스의 극장을 따를 것이 없다. 그러나 비례의 조화와 아름다움에서 어느 건축가가 폴리클레이토스와 겨룰 수 있겠는가? 이 극장과 원형 건물을 모두 지은 사람이 폴리클레이토스다. 숲에는 아르테미스의 신전, 에피오네의 상, 아프로디테와 테미스의 성소가 있다. 그리스의 다른 경기장들 대부분처럼 흙을 쌓아 만든 경기장과, 지붕과 전체의 화려한 모습 때문에 볼 만한 샘도 있다.

**[2.27.6]** 우리 시대에 로마 원로원 의원 안토니누스가 아스클레피오스의 목욕장과, 사람들이 에피도타이, 곧 '은혜를 베푸는 신들'이라고 부르는 신들의 성소를 지었다. 히기에이아와 아스클레피오스와 아폴론의 신전도 만들었는데, 뒤의 두 신은 이집트의 신이라는 별칭을 지닌다. 그는 코티스의 주랑이라 부르는 건물도 복구했다. 굽지 않은 벽돌로 지었기에 지붕을 잃고 나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다. 성소 주변의 에피다우로스인들은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곳이 없고 병자들이 야외에서 숨을 거두는 탓에 큰 곤경을 겪었다. 안토니누스는 그들이 머물 건물을 마련하여 이 어려움도 해결했다. 마침내 사람이 죽거나 여자가 아이를 낳아도 신성한 규율을 어기지 않는 곳이 생긴 것이다.

**[2.27.7]** 숲 위쪽에는 티티온산과 키노르티온이라는 또 다른 산이 있다. 뒤의 산에는 말레아의 아폴론 성소가 있다. 성소 자체는 오래된 것이지만, 안토니누스가 에피다우로스인들을 위해 만든 것들 가운데에는 말레아의 아폴론 성소에 딸린 여러 시설도 있다. 그들이 쓸 빗물을 모으는 저수조도 그중 하나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8장

**[2.28.1]** 이곳의 뱀들은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며, 그중에는 누르스름한 빛을 띠는 독특한 종류도 있다. 사람을 잘 따르며 에피다우로스 지방에만 산다. 다른 나라에도 저마다 특유의 동물이 있음을 나는 보아왔다. 예를 들어 길이가 적어도 두 큐빗인 땅악어는 리비아에서만 볼 수 있고, 인도에서만 가져오는 동물들 가운데에는 앵무새가 있다. 인도와 리비아에 사는, 길이가 서른 큐빗 넘게 자라는 큰 뱀들을 두고 에피다우로스인들은 뱀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생물이라고 말한다.

**[2.28.2]** 코리폰산으로 올라가면 길가에 '뒤틀린 나무'라는 뜻의 스트렙테스라고 부르는 올리브나무가 보인다. 헤라클레스가 손으로 휘어서 그런 모양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가 아르골리스의 아시네인들과 경계를 표시하려고 그 나무를 세웠는지는 말할 수 없다. 주민이 사라진 땅에서는 어디든 옛 경계의 실상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산꼭대기에는 봉우리의 아르테미스 코리파이아의 성소가 있다. 텔레실라가 찬가에서 언급한 곳이다.

**[2.28.3]** 에피다우로스 시로 내려가면 야생 올리브나무들이 자라는 곳이 나오는데, 히르네티온이라고 부른다. 에피다우로스인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꽤 그럴듯하므로 여기 적겠다. 케이소스와 테메노스의 다른 아들들은 데이폰테스를 히르네토와 갈라놓을 수만 있다면 그에게 가장 큰 슬픔을 줄 수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케리네스와 팔케스가 에피다우로스에 왔다. 막내 아그라이오스는 그들의 계획에 반대했다. 두 사람은 성벽 아래에 전차를 멈추고, 이야기할 일이 있는 척하며 누이에게 전령을 보냈다.

**[2.28.4]** 히르네토가 부름에 응해 나오자 두 젊은이는 데이폰테스를 여러 가지로 비난하며 아르고스로 돌아오라고 거듭 간청했다. 그러면 모든 면에서 데이폰테스보다 나은 남편, 더 많은 백성과 더 번영하는 땅을 다스리는 남편에게 시집보내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히르네토는 그 말에 마음이 상해 똑같이 날카롭게 받아쳤다. 데이폰테스는 자신에게 소중한 남편이고 테메노스에게도 흠잡을 데 없는 사위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야말로 테메노스의 아들이라기보다 살해자라고 불려야 한다고 했다.

**[2.28.5]** 두 젊은이는 더 대꾸하지 않고 그녀를 붙잡아 전차에 태우고 달아났다. 에피다우로스인 하나가 케리네스와 팔케스가 히르네토를 억지로 데려갔다고 데이폰테스에게 알렸다. 데이폰테스는 서둘러 구하러 달려갔고, 소식을 들은 에피다우로스인들도 합류했다. 그는 달아나는 자들을 따라잡아 케리네스를 쏘아 죽였다. 그러나 히르네토를 붙들고 있는 팔케스에게 쏘았다가는 빗나가 자기 아내를 죽일까 두려웠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그녀를 빼내려 했다. 팔케스는 그녀를 놓지 않고 더 거칠게 잡아끌었다. 임신 중이던 히르네토는 그 때문에 죽었다.

**[2.28.6]** 팔케스는 자신이 누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자, 에피다우로스인들이 모두 모여들기 전에 앞서 달아나려고 더욱 정신없이 전차를 몰았다. 데이폰테스와 자녀들은 히르네토의 시신을 거두어 이곳으로 옮겼다. 그는 이미 안티메네스와 크산티포스와 아르게우스라는 아들들과, 오르소비아라는 딸을 두고 있었다. 오르소비아는 나중에 아이기미오스의 아들 팜필로스와 결혼했다고 한다. 이곳은 세월이 지나 히르네티온이라 불리게 되었다.

**[2.28.7]** 그들은 그녀에게 영웅의 사당을 세우고 여러 가지 영예를 바쳤다. 특히 이곳에서 자라는 올리브나무나 다른 나무들에서 떨어진 가지를 집으로 가져가거나 어디에도 쓰지 않는 관습을 세웠다. 히르네토에게 신성한 것으로 여겨 그 자리에 그대로 둔다.

**[2.28.8]**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킵셀로스의 아들 페리안드로스와 결혼한 멜리사의 무덤이 있다. 멜리사의 아버지 프로클레스의 무덤도 있다. 사위 페리안드로스가 코린토스의 참주였듯, 프로클레스도 에피다우로스의 참주였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9장

**[2.29.1]** 에피다우로스 시 자체에서 내가 본 것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역에는 신 자신과 에피오네의 상이 있다. 에피오네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내였다고 한다. 두 상은 파로스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야외에 세워져 있다. 시내에는 디오니소스의 신전과 아르테미스의 신전도 있다. 아르테미스상은 사냥하는 여신처럼 보인다. 아프로디테의 성소도 있다. 항구에 있는 성소는 바다로 돌출한 높은 곳에 자리하며 헤라의 것이라고 한다. 성채의 아테나는 볼 만한 목상으로, 사람들은 '담쟁이덩굴의 여신'이라는 뜻의 키사이아라는 별칭을 붙인다.

**[2.29.2]** 아이기나인들은 에피다우로스 지방 맞은편 섬에 산다. 처음에는 섬에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아무도 살지 않던 그곳으로 제우스가 아소포스의 딸 아이기나를 데려온 뒤 이름이 오이노네에서 아이기나로 바뀌었다. 아이아코스가 자라서 제우스에게 정착민을 달라고 하자, 신이 땅에서 주민들을 일으켜 세웠다고 한다. 아이아코스 외에는 이 섬의 왕으로

이름을 댈 만한 사람이 없다. 아이아코스의 아들들 가운데도 섬에 남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펠레우스와 텔라몬은 포코스를 죽인 죄로 추방되었고, 포코스의 아들들은 지금 포키스라고 부르는 땅의 파르나소스산 주변에 정착했다.

**[2.29.3]** 이 이름은 한 세대 앞서 오르니티온의 아들 포코스가 그 땅에 왔을 때 이미 붙은 것이다. 그 포코스 시대에는 티토레아와 파르나소스 주변만 포키스라고 불렀다. 그러나 아이아코스 시대에는 오르코메노스에 사는 미니아스족의 경계에서 로크리스의 스카르페이아까지 모두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2.29.4]** 펠레우스에게서 에페이로스의 왕들이 나왔다. 텔라몬의 아들들 가운데 아이아스의 가문은 그 자신이 사인으로 살았으므로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래도 아테네군을 이끌고 마라톤으로 간 밀티아데스와 그의 아들 키몬은 이름을 떨쳤다. 테우크로스의 가문은 에우아고라스 시대까지 키프로스의 왕가로 이어졌다.

서사시인 아시오스에 따르면 포코스에게서 파노페우스와 크리소스가 태어났다. 파노페우스는 호메로스가 목마를 만들었다고 한 에페이오스의 아버지였다. 크리소스의 손자는 필라데스였다. 필라데스의 아버지는 크리소스의 아들 스트로피오스였고, 어머니는 아가멤논의 누이 아낙시비아였다. 이른바 아이아코스 가문의 계보는 이러하다. 다만 그들은 일찍부터 다른 지방들로 떠났다.

**[2.29.5]** 뒤에 데이폰테스의 지휘 아래 에피다우로스를 차지한 아르고스인들의 일부가 아이기나로 건너갔다. 그들은 옛 아이기나인들 사이에 정착하여 섬에 도리스인의 관습과 방언을 자리 잡게 했다. 아이기나인들은 크게 강성해져 함대가 아테네보다 우세하기도 했고, 페르시아 전쟁에서는 아테네를 제외한 어느 나라보다 배를 많이 내놓았다. 그러나 번영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테네인들이 섬의 주민들을 몰아내자, 라케다이몬인들이 거주지로 내준 아르골리스의 티레아에 정착했다. 아테네 군함들이 헬레스폰토스에서 나포되었을 때 섬을 되찾았으나, 예전의 부나 세력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2.29.6]** 그리스의 섬들 가운데 아이기나가 접근하기 가장 어렵다. 물에 잠긴 암초와 물 위로 솟은 여울이 섬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에 따르면 아이아코스가 해적들의 습격을 두려워하여 적들이 접근하기 어렵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 배들이 주로 정박하는 항구 가까이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다. 도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에는 흰 대리석으로 네모나게 둘러싼 이른바 아이아코스의 사당이 있다.

**[2.29.7]** 입구에는 그리스인들이 옛날 아이아코스에게 보냈던 사절들이 돋을새김되어 있다. 사절을 보낸 이유는 아이기나인들과 다른 그리스인들이 똑같이 설명한다. 한동안 그리스에 가뭄이 들어 지협 너머에도 펠로폰네소스에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 마침내 사람들은 델포이에 사절을 보내 원인을 묻고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피티아는 제우스의 노여움을 풀어야 한다면서, 아이아코스가 간청하지 않으면 신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리라고 했다.

**[2.29.8]** 그래서 각 도시에서 사절들이 아이아코스에게 청하러 왔다. 그는 모든 그리스인의 제우스 판헬레니오스에게 제사와 기도를 바쳐 땅에 비가 내리게 했다. 아이기나인들은 그에게 왔던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새겼다. 경내에는 옛날부터 자라는 올리브나무들이 있으

며, 지면에서 조금 높게 올라온 제단이 있다. 이 제단이 아이아코스의 무덤이기도 하다는 말은 신성한 비밀로 전한다.

**[2.29.9]** 아이아코스의 사당 곁에 포코스의 무덤이 있다. 기단을 둘러 쌓은 봉분으로, 그 위에는 다듬지 않은 돌 하나가 놓여 있다. 텔라몬과 펠레우스가 포코스를 설득하여 오종경기를 하게 했다. 원반 대신 쓰던 돌을 펠레우스가 던질 차례가 되자 그는 일부러 포코스를 맞혔다. 두 사람이 어머니의 마음에 들려고 한 일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 스키론의 딸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리스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포코스는 테티스의 자매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필라데스가 네옵톨레모스를 죽일 음모를 꾸민 데에도 이 일이 작용했다. 오레스테스와의 우정만이 이유는 아니었던 것이다.

**[2.29.10]** 포코스가 원반에 맞아 죽자 엔데이스의 아들들은 배를 타고 달아났다. 그 뒤 텔라몬은 전령을 보내 자신이 포코스의 죽음을 꾸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이아코스는 그가 섬에 상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배 위에 서서, 또는 원한다면 바다에 쌓은 방파제 위에서 변론하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텔라몬은 '비밀 항구'라고 부르는 곳으로 배를 몰고 들어가 밤에 방파제를 쌓았다. 완성된 방파제는 지금도 남아 있다. 그러나 텔라몬은 포코스 살해에 가담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다시 항해해 떠나 살라미스로 갔다.

**[2.29.11]** 비밀 항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볼 만한 극장이 있다. 크기와 양식이 에피다우로스의 극장과 매우 비슷하다. 그 뒤에는 경기장의 한쪽 면이 세워져 있어 극장을 받쳐주고, 또 그 자신도 극장을 지지대로 삼는다. Pausanias ′ Description of Greece

## 제30장

**[2.30.1]**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와 디오니소스의 신전 세 채가 서로 가까이 있다. 아폴론의 목상은 이 고장에서 만든 벌거벗은 모습이다. 아르테미스는 옷을 입었으며, 디오니소스 역시 옷을 입고 수염이 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소는 다른 곳에 있다. 신상은 돌로 만든 앉은 상이다.

**[2.30.2]** 아이기나인들이 신들 가운데 가장 공경하는 것은 헤카테다. 해마다 그녀를 기리는 비의를 거행하는데, 트라키아인 오르페우스가 이들에게 처음 가르쳤다고 한다. 경내에는 신전이 있다. 목상은 미론의 작품이라고 전하며, 얼굴 하나에 몸 하나다. 내 생각에 헤카테의 세 형상을 서로 붙여 만든 첫 사람은 알카메네스다. 아테네인들이 '탑 위의 여신'이라는 뜻으로 에피피르기디아라고 부르는 상으로, 날개 없는 니케의 신전 곁에 서 있다.

**[2.30.3]** 아이기나에서 판헬레니오스 제우스의 산 쪽으로 가면 아파이아의 성소가 나온다. 핀다로스는 아이기나인들을 위해 이 여신을 기리는 찬가를 지었다. 아파이아의 이야기는 크레타에서 전해진다. 크레타인들에 따르면 아폴론이 피토를 죽인 뒤 그를 정화한 카르마노르가 에우불로스의 아버지였다. 제우스와 에우불로스의 딸 카르메 사이에서 브리토마르티스가 태어났다. 그녀는 달리기와 사냥을 즐겼고, 아르테미스에게 몹시 사랑받았다. 그녀에게 반한 미노스를 피하다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펼쳐 놓은 그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아르테미스는 그녀를 여신으로 만들었다. 크레타인들뿐 아니라 아이기나인들도 그녀를 숭배

한다. 아이기나인들은 브리토마르티스가 자기 섬에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하며, 그녀를 아파이아라고 부른다. 크레타에서는 ‘그물의 여신’ 딕틴나라고 부른다.

**[2.30.4]** 판헬레니온산에서 내가 기록할 만하다고 본 것은 제우스의 성소뿐이다. 이 성소는 아이아코스가 지었다고 한다. 아욱세시아와 다미아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헤로도토스가 정확하고 상세하게 전했다. 에피다우로스에 가뭄이 들고, 주민들이 신탁에 따라 아테네인들에게서 받은 올리브나무로 두 목상을 만든 일, 아이기나인들이 그 상들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에피다우로스인들이 아테네인들에게 약속한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된 일, 상들을 되찾으러 아이기나로 건너온 아테네인들이 죽은 일이 그것이다. 이미 잘 전해졌으므로 다시 이야기할 생각은 없다. 다만 나는 그 신상들을 보았으며, 엘레우시스의 관습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제사를 바쳤다고 덧붙이겠다.

**[2.30.5]** 아이아코스와 그의 업적을 위해 아이기나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해야겠다. 에피다우로스의 땅과 맞닿은 곳에는 트로이젠인들이 산다. 자기 고장을 자랑하는 데에는 이들을 따를 사람이 없다. 그들은 오로스가 자기들 땅에서 처음 태어났다고 말한다. 내 생각에 오로스는 전혀 그리스식이 아닌 이집트 이름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왕이 되어 나라가 그의 이름을 따라 오라이아라고 불렸다고 주장한다. 오로스의 딸 레이스와 포세이돈 사이에서 태어난 알테포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국을 물려받고, 땅의 이름을 알테피아로 바꾸었다고 한다.

**[2.30.6]** 그의 통치기에 아테나와 포세이돈이 그 땅을 두고 다투었는데, 다툼 끝에 제우스의 명령을 따라 땅을 공동으로 차지했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를 지키는 폴리아스이자 강한 여신 스테니아스라는 이름으로 아테나를, 왕이라는 뜻의 바실레우스라는 이름으로 포세이돈을 함께 숭배한다. 옛 주화에도 삼지창과 아테나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2.30.7]** 알테포스 다음에는 사론이 왕이 되었다. 그는 늪이 많고 얕은 바다 곁에 아르테미스 사로니스의 성소를 세웠다고 한다. 바다가 그러한 탓에 그곳을 포이바이아 석호라고 불렀다. 사론은 사냥을 무척 좋아했다. 암사슴을 쫓던 중 사슴이 바다로 뛰어들자 그도 뒤따라 뛰어들었다. 사슴은 해안에서 점점 멀리 헤엄쳐 갔고, 사론은 먹잇감을 바싹 뒤쫓다가 사냥에 열중한 나머지 먼바다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힘이 다해 파도에 빠져 죽었다. 그의 시신은 포이바이아 석호 옆 아르테미스의 숲으로 떠밀려 왔다. 사람들은 성스러운 경내에 그를 묻고, 이 지방의 바다를 포이바이아 석호 대신 그의 이름을 따서 사로니코스라고 불렀다.

**[2.30.8]** 그 뒤의 왕들에 대해서는 히페레스와 안타스에 이르기까지 아는 것이 없다. 사람들은 이 둘이 포세이돈과 아틀라스의 딸 알키오네의 아들이며, 이 땅에 히페레이아와 안테이아라는 도시를 세웠다고 주장한다. 안타스의 아들 아이티오스는 아버지와 숙부의 왕국을 물려받은 뒤, 두 도시 중 하나를 포세이도니아스라고 불렀다. 트로이젠과 피테우스가 아이티오스에게 왔을 때에는 한 명이던 왕이 세 명이 되었으나, 펠롭스의 아들들이 더 큰 권력을 누렸다.

**[2.30.9]** 그 증거는 이렇다. 트로이젠이 죽자 피테우스는 주민들을 한데 모았다. 히페레이아와 안테이아를 지금의 도시로 합치고 자기 형제의 이름을 따서 트로이젠이라고 불렀다. 여

러 해 뒤에 안타스의 아들 아이티오스의 후손들이 트로이젠에서 정착민으로 파견되어 카리아에 할리카르나소스와 민도스를 세웠다. 트로이젠의 아들들인 아나플리스토스와 스페토스는 아티카로 이주했으며, 그곳의 두 구역은 이들에게서 이름을 얻었다. 피테우스의 외손자 테세우스의 이야기는 독자들도 이미 알고 있으므로 되풀이하지 않겠다. 다만 한 가지 일은 덧붙여야 한다.

**[2.30.10]** 헤라클레스의 후손들이 돌아왔을 때 트로이젠인들도 아르고스에서 온 도리스인 정착민들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그보다 더 앞서 아르고스인들의 지배를 받았다. 호메로스도 군선 목록에서 디오메데스가 그들의 지휘관이었다고 한다. 아이기알레우스의 어린 아들 키아니포스의 후견인이었던 디오메데스와 메키스테우스의 아들 에우리알로스가 아르고스인들을 이끌고 트로이아로 갔다. 앞서 이야기했듯 스테넬로스는 아낙사고라스 가문이라는 더 이름난 집안 출신으로, 아르고스 왕국에 대한 권리가 가장 앞섰다. 트로이젠인들의 역사는 이와 같다. 자신들이 그들의 식민 도시라고 주장하는 곳들은 별개다. 이제 그들의 성소에 갖추어진 것들과 그 땅의 볼거리를 설명하겠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31장

**[2.31.1]** 트로이젠의 아고라에는 구원자 아르테미스의 신전과 여신의 상들이 있다. 테세우스가 크레타에서 미노스의 아들 아스테리온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신전을 세우고 '구원자'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그는 이 승리를 자신의 업적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 여겼다. 내 생각에 그 까닭은 아스테리온이 테세우스에게 죽은 이들 가운데 가장 용맹했기 때문이 아니다. 테세우스가 복잡한 미궁에서 길을 찾아내고, 일을 해낸 뒤 들키지 않고 빠져나온 것을 보면 그와 일행이 신의 보살핌으로 무사히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믿을 만하기 때문이다.

**[2.31.2]** 이 신전에는 지하를 다스린다고 하는 신들의 제단이 있다. 디오니소스가 세멜레를 하데스에서 데리고 나온 곳도, 헤라클레스가 하데스의 개를 끌어 올린 곳도 여기라고 한다. 그러나 세멜레는 제우스의 아내였으므로 나는 그녀가 죽었다는 것부터 믿기 어렵다. 이른바 하데스의 개에 관한 내 견해는 다른 곳에서 밝히겠다.

**[2.31.3]** 신전 뒤에는 피테우스의 무덤이 있고 그 위에 흰 대리석 좌석 세 개가 놓여 있다. 피테우스와 그와 함께한 두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재판했다고 한다. 멀지 않은 곳에 무사이 여신들의 성소가 있다. 헤파이스토스의 아들 아르달로스가 만들었다고 들었다. 이 아르달로스가 피리를 발명했다고 여기며, 그의 이름을 따서 무사이 여신들을 아르달리데스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피테우스가 여기서 수사학을 가르쳤다고 한다. 나도 에피다우로스 시민이 펴낸 책을 읽었는데, 피테우스가 쓴 수사학 논고라고 되어 있었다. 무사이 여신들의 전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오래된 제단이 있다. 이것 역시 아르달로스가 봉헌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위에서 무사이 여신들과 잠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잠은 무사이 여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신이라고 한다.

**[2.31.4]** 극장 가까이에는 히폴리토스가 지은 아르테미스 리케이아의 신전이 있다. '늑대의 여신'이라는 이 별칭에 관해 고장의 안내자들에게서 알아낸 것은 없다. 다만 히폴리토스

가 트로이젠의 땅을 황폐하게 하던 늑대들을 없앴거나, 어머니 쪽 조상인 아마존들이 아르테미스를 리케이아라고 불렀으리라고 생각한다. 내가 모르는 다른 설명이 있을지도 모른다. 신전 앞의 '성스러운 돌'은 트로이젠인 아홉 명이 어머니를 죽인 오레스테스의 죄를 씻어준 돌이라고 한다.

**[2.31.5]** 아르테미스 리케이아의 신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서로 가까이 놓인 제단들이 있다. 첫째는 디오니소스에게 바친 것으로, 신탁에 따라 '구원자'라는 뜻의 사오테스라는 별칭을 붙였다. 둘째는 테미스의 딸들인 테미데스의 제단으로, 피테우스가 봉헌했다고 한다. 태양신 헬리오스 엘레우테리오스에게도 제단을 세울 이유가 충분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크세르크세스와 페르시아인들의 노예가 되는 일을 면했기 때문이다.

**[2.31.6]** 테아리오스 아폴론의 성소는 피테우스가 세웠다고 들었다. 내가 아는 성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오니아의 포카이아인들에게도 오래된 아테나 신전이 있는데, 한때 페르시아인 하르파고스가 불태웠다. 사모스인들에게도 피티오스 아폴론의 오래된 신전이 있다. 하지만 그 두 신전은 트로이젠의 성소보다 훨씬 뒤에 세웠다. 지금의 신상은 아울리스코스가 봉헌했고 트로이젠인 헤르몬이 만들었다. 디오스쿠로이의 목상도 이 헤르몬이 만들었다.

**[2.31.7]** 아고라의 주랑 아래에는 여자들의 상이 세워져 있다. 여자들과 아이들 모두 돌로 만들었다. 아테네인들이 도시를 비우고 페르시아군의 육상 공격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을 때, 트로이젠인들에게 보호를 맡긴 여자들과 아이들이다. 모든 여자의 모습을 봉헌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실제로 상이 많지 않으며, 신분이 높은 여자들의 모습만 만들었다고 한다.

**[2.31.8]** 아폴론의 성소 앞에는 '오레스테스의 막사'라고 부르는 건물이 있다. 오레스테스가 어머니의 피를 흘린 죄를 씻기 전에는 트로이젠 시민 누구도 그를 자기 집에 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를 이곳에 머물게 하고 정화 의식이 끝날 때까지 대접했다. 지금도 오레스테스를 정화해준 사람들의 후손들은 정해진 날에 이곳에서 함께 식사한다. 정화에 쓴 물건들은 막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묻었고, 거기서 월계수가 자라났다고 한다. 막사 앞에 지금도 남아 있는 나무다.

**[2.31.9]** 오레스테스를 정화할 때 썼다고 하는 것들 가운데에는 히포크레네의 물도 있었다. 트로이젠인들에게도 '말의 샘'이 있으며, 거기에 관한 전설은 보이오티아에 전해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들 역시 페가소스가 발굽으로 땅을 치자 땅에서 물이 솟아났다고 한다. 벨레로폰테스는 피테우스에게 아이트라를 아내로 달라고 청하러 트로이젠에 왔으나, 결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코린토스에서 추방되었다고 한다.

**[2.31.10]** 이곳에는 폴리기오스라고 부르는 헤르메스상도 있다. 헤라클레스가 곤봉을 기대어 놓았다는 상이다. 그 이야기를 믿는다면, 야생 올리브나무로 만든 그 곤봉이 땅에 뿌리를 내려 다시 자랐으며 지금도 살아 있다. 헤라클레스가 사로니코스 바닷가에서 야생 올리브나무를 발견해 가지를 잘라 곤봉을 만들었다고 한다. 구원자 제우스의 성소도 있다. 안타스의 아들 아이티오스가 왕으로 있을 때 지었다고 한다. 또 어떤 물줄기에는 '황금의 강'이라는 뜻으로 크리소로아라는 이름을 붙였다. 나라에 아홉 해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었을 때 다른 물줄기는 모두 말랐지만, 황금의 강은 그때도 예전처럼 흘렀다고 한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32장

**[2.32.1]** 테세우스의 아들 히폴리토스에게는 매우 유명한 성역이 바쳐져 있다. 그 안에는 신전과 오래된 상이 있다. 디오메데스가 이것들을 만들고 히폴리토스에게 처음 제사도 지냈다고 한다. 트로이젠인들은 히폴리토스의 사제를 두는데 종신직이다. 해마다 제사를 지내기로 정해져 있다. 또 처녀는 누구나 결혼하기 전에 히폴리토스를 위해 머리카락 한 타래를 잘라 신전으로 가져가 봉헌하는 관습이 있다. 트로이젠인들은 그가 말에 끌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의 무덤을 알면서도 보여주지 않는다. 하늘의 이른바 '마부'가 전설 속의 히폴리토스라고 믿는데, 신들이 그에게 내려준 영예라고 한다.

**[2.32.2]** 이 성역 안에는 항해의 아폴론 에피바테리오스의 신전이 있다. 그리스인들이 트로이아에서 돌아올 때 만난 폭풍을 무사히 견뎌낸 데 감사하여 디오메데스가 바친 것이다. 아폴론을 기리는 피티아 경기를 처음 개최한 사람도 디오메데스였다고 한다. 다미아와 아욱세시아는 트로이젠인들도 숭배하지만, 에피다우로스인들이나 아이기나인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그들은 두 여인이 크레타에서 온 처녀들이었다고 한다. 도시 전체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반대편 사람들이 돌을 던져 두 처녀도 죽였다. 트로이젠인들은 그녀들을 기려 '돌 던지기'라는 뜻의 리토볼리아 축제를 연다.

**[2.32.3]** 성역의 다른 쪽에는 히폴리토스의 경기장이라고 부르는 경기장이 있고, 그 위쪽에는 '엿보는 여신' 아프로디테 카타스코피아의 신전이 있다. 히폴리토스가 훈련할 때마다 그에게 마음을 빼앗긴 파이드라가 여기서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앞서 설명한 대로 잎마다 구멍이 뚫린 도금양나무가 아직도 자라고 있었다. 파이드라는 절망하여 사랑의 고통을 가라앉힐 길이 없을 때 이 도금양나무의 잎에 화풀이를 하곤 했다.

**[2.32.4]** 파이드라의 무덤도 있다. 도금양나무 가까이에 있는 봉분은 히폴리토스의 무덤이며 파이드라의 무덤은 그리 멀지 않다. 아스클레피오스상은 티모테오스가 만들었다. 그러나 트로이젠인들은 그것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아니라 히폴리토스의 모습이라고 한다. 히폴리토스의 집을 본 기억도 난다. 그 앞에는 이른바 헤라클레스의 샘이 있다. 트로이젠인들은 헤라클레스가 그 물을 발견했다고 한다.

**[2.32.5]** 성채에는 스테니아스라고 부르는 아테나의 신전이 있다. 여신의 목상은 아이기나의 칼론이 만들었다. 칼론은 델로스인들의 아폴론상을 만든 텍타이오스와 앙겔리온의 제자였다. 앙겔리온과 텍타이오스는 디포이노스와 스킬리스에게 배웠다.

**[2.32.6]** 이곳에서 내려가면 '재앙을 풀어주는 자'라는 뜻의 판 리테리오스의 성소가 나온다. 이 신이 트로이젠의 관리들에게 꿈을 보여주어 역병을 치료하는 법을 알려주었기에 얻은 이름이다. 그 역병은 트로이젠 지방과,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아테네인들을 괴롭혔다. 성소를 가로질러 가면 이시스 신전이 보이고, 그 위쪽에는 곶의 아프로디테 아크라이아 신전이 있다. 할리카르나소스인들은 트로이젠이 자기들의 모도시이므로 이시스 신전을 지었고, 이시스상은 트로이젠 사람들이 봉헌했다.

**[2.32.7]** 산을 지나 헤르미오네로 이어지는 길에는 힐리코스강의 샘과 테세우스의 바위가 있다. 강은 처음에 '황소 같은 강'이라는 뜻의 타우리오스라고 불렀다. 바위도 테세우스가 그 밑에서 아이게우스의 신발과 칼을 꺼낸 뒤 이름이 바뀌었다. 그전에는 강한 제우스 스테니오스의 제단이라고 불렀다. 바위 가까이에는 혼인의 아프로디테 님피아의 성소가 있다. 테세우스가 헬레네를 아내로 삼았을 때 지었다.

**[2.32.8]** 성벽 밖에는 식물을 기르는 포세이돈 피탈미오스의 성소도 있다. 포세이돈이 주민들에게 화가 나 땅을 불모지로 만들었다고 한다. 소금물이 씨앗과 식물의 뿌리까지 닿았다. 사람들이 제사와 기도로 그를 달래고 나서야 신은 땅 위로 소금물을 솟게 하는 일을 그만두었다. 포세이돈 신전 위쪽에는 법을 주는 데메테르 테스모포로스의 성소가 있다. 알테포스가 세웠다고 한다.

**[2.32.9]** 켈렌데리스라고 부르는 곳의 항구로 내려가면 '태어난 곳'이라는 뜻의 게네틀리온에 이른다. 테세우스가 태어난 곳이라고 한다. 그 앞에는 아레스 신전이 있다. 테세우스가 여기서도 아마존들과 싸워 이겼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티카에서 테세우스와 아테네인들에 맞섰던 군대에 속한 여자들이었을 것이다.

**[2.32.10]** 프시파이아 바다로 가는 길에 자라고 있는 야생 올리브나무가 보인다. '휘어진 라코스'라고 부른다. 트로이젠인들은 열매를 맺지 않는 올리브나무를 코티노스나 필리아나 엘라이오스나 모두 라코스라고 부른다. 이 나무에는 '휘어진'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히폴리토스의 고삐가 걸려 전차가 뒤집힌 나무이기 때문이다. 가까이에는 사론의 아르테미스 성소가 있다. 이곳에 관해서는 이미 설명했다. 해마다 아르테미스를 기려 사로니아라는 축제를 연다는 사실을 덧붙이겠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33장

**[2.33.1]** 트로이젠인들의 섬들 가운데 하나는 본토에서 가까워, 해협을 걸어서 건널 수 있다. 옛 이름은 스파이리아였으나 다음과 같은 일로 '성스러운 섬'으로 바뀌었다. 섬에는 펠롭스의 전차를 몰았다는 스파이로스의 무덤이 있다. 아이트라는 아테나가 보낸 꿈에 따라 스파이로스에게 부어 바칠 제물을 가지고 섬으로 건너갔다. 건너간 뒤 이곳에서 포세이돈이 그녀와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트라는 여기에 아테나 아파투리아의 신전을 세우고, 스파이리아라는 이름을 '성스러운 섬'으로 바꾸었다. 또한 트로이젠의 처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허리띠를 아테나 아파투리아에게 봉헌하는 관습을 마련했다.

**[2.33.2]** 옛날에는 칼라우레이아가 아폴론에게 신성한 곳이었으며, 그때 델포이는 포세이돈에게 신성한 곳이었다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두 신이 두 장소를 서로 바꾸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말하며 다음 신탁을 인용한다.

> 델로스와 칼라우레이아를 너는 한결같이 거처로 사랑하고,
> 성스러운 피토와 거센 바람이 휩쓰는 타이나론도 사랑한다.

어쨌든 이곳에는 포세이돈의 신성한 성소가 있다. 처녀가 여사제로 신을 섬기다가 혼인할 나이가 되면 그 직을 마친다.

**[2.33.3]** 경내에는 데모스테네스의 무덤도 있다. 그의 운명과 그보다 앞선 호메로스의 운명은 신이 얼마나 심술궂은지 아주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호메로스는 시력을 잃은 큰 불행에 더하여 가난의 저주를 받아, 구걸하며 온 나라를 돌아다녀야 했다. 데모스테네스는 늙어서 망명을 겪고 그토록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데모스테네스 자신도 하르팔로스가 아시아에서 가져온 돈을 조금도 받지 않았다고 거듭 단언했다.

**[2.33.4]** 그래도 나중에 나온 증언의 경위는 이야기해야겠다. 하르팔로스가 아테네에서 달아나 배 몇 척을 거느리고 크레타로 건너간 직후 그를 섬기던 하인들이 그를 죽였다. 어떤 사람들은 마케도니아인 파우사니아스에게 암살당했다고 주장한다. 하르팔로스의 돈을 관리하던 사람은 로도스로 달아났다가 마케도니아인 필록세노스에게 붙잡혔다. 필록세노스는 아테네인들에게 하르팔로스를 넘기라고 요구했던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그 노예를 손에 넣어 심문한 끝에 하르팔로스에게 뇌물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아테네에 서신으로 보냈다.

**[2.33.5]** 서신에는 하르팔로스에게 뇌물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과 각자가 받은 금액을 적었다. 그런데 데모스테네스의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알렉산드로스가 그를 몹시 미워했고 필록세노스 자신도 그와 사적인 원한이 있었는데도 그랬다. 그래서 데모스테네스는 그리스 여러 곳, 특히 칼라우레이아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공경을 받는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34장

**[2.34.1]** 트로이젠 땅에서 바다 멀리 뻗어 나간 반도가 있다. 그 해안에는 메타나라는 작은 도시가 세워져 있다. 이시스의 성소가 있고, 아고라에는 헤르메스상과 헤라클레스상이 있다. 도시에서 약 30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온천이 있다. 데메트리오스의 아들 안티고노스가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을 때 그 물이 처음 나타났다고 한다. 맨 처음 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물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불이었다. 불길이 잦아들고 나서 물이 흘렀다. 지금도 물이 뜨겁고 몹시 짜다. 이곳에서 목욕하는 사람은 가까이에서 찬물을 구할 수 없고,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치기에는 위험이 크다. 사나운 짐승들이 살고 상어가 우글거리기 때문이다.

**[2.34.2]** 메타나에서 나를 가장 놀라게 한 일도 이야기하겠다. 립스라고 부르는 바람이 사로니코스만에서 새싹이 돋은 포도나무에 불어오면 싹이 시든다. 그래서 바람이 여전히 거세게 부는 동안 두 사람이 온몸의 깃털이 흰 수탉을 둘로 자른다. 각자 절반씩 들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포도밭 둘레를 달린다. 출발점에서 만나면 두 조각을 그곳에 묻는다.

**[2.34.3]** 이것이 립스에 맞서 그들이 고안한 방법이다. 앞바다에 놓인 아홉 개의 작은 섬은 펠롭스의 섬들이라 불린다. 비가 올 때도 그중 한 섬에는 빗방울이 닿지 않는다고 한다. 메타나 주변 사람들은 사실이라고 했으나, 나는 그것이 사실인지 모른다. 다만 제사와 주문으로 우박을 막으려는 사람들은 전에 본 적이 있다.

**[2.34.4]** 메타나는 이처럼 펠로폰네소스의 반도다. 그 안쪽에서 트로이젠의 땅과 접한 곳은 헤르미오네다. 헤르미오네인들에 따르면 옛 도시를 세운 사람은 에우롭스의 아들 헤르미온

이다. 에우롭스의 아버지는 분명 포로네우스였지만, 트로이젠의 헤로파네스는 그가 서자였다고 했다. 적자가 살아 있었다면 아르고스의 왕국이 포로네우스의 손자이며 니오베의 아들인 아르고스에게 넘어갔을 리 없다는 것이다.

**[2.34.5]** 그러나 에우롭스가 적자였고 포로네우스보다 먼저 죽었다고 해도, 그의 아들이 니오베의 자녀와 대등하게 경쟁했을 리는 없다. 니오베의 아들은 아버지가 제우스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뒤에 아르고스에서 온 도리스인들이 다른 여러 곳과 함께 헤르미온에도 정착했다. 두 민족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다면 아르고스인들이 그 일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2.34.6]** 트로이젠에서 헤르미온까지는, 옛날에 강한 제우스 스테니오스의 제단이라고 불렸던 바위를 지나는 길이 있다. 테세우스가 그 아래에서 징표들을 꺼낸 뒤, 지금은 사람들이 테세우스의 바위라고 부른다. 이 바위를 지나 산길을 따라가면 플라타니온 숲의 신이라는 뜻의 아폴론 플라타니스티오스의 신전과 에일레이라는 장소가 나온다. 그곳에는 데메테르와 그 딸 코레의 성소가 있다. 바다 쪽으로 헤르미오네 땅의 경계에는 온기의 데메테르 테르마시아의 성소가 있다.

**[2.34.7]** 약 80스타디온 떨어진 곳에는 니소스의 딸에게서 이름을 얻은 스킬라이온 곶이 있다. 미노스는 그녀의 배신 덕분에 니사이아와 메가라를 점령하자, 이제 그녀를 아내로 맞지 않겠다고 하며 크레타인들에게 배 밖으로 던지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물에 빠져 죽었고 파도가 시신을 이 곶으로 밀어 올렸다. 사람들은 그녀의 무덤을 보여주지 않는다. 바닷새들이 시신을 뜯어 먹도록 내버려두었다고 한다.

**[2.34.8]** 스킬라이온에서 도시를 향해 항해하면 '소의 머리'라는 뜻의 부케팔라라는 다른 곳에 이른다. 곶을 지나면 섬들이 나온다. 첫째는 '소금의 섬' 할리우사로, 배를 안전하게 정박시킬 수 있는 항구가 있다. 그다음은 '소나무의 섬' 피티우사이고, 셋째는 아리스테라이라고 부른다. 이 섬들을 지나 항해하면 본토에서 뻗어 나온 콜리에르기아 곶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세 머리'라는 뜻의 트리크라나섬과 펠로폰네소스에서 바다로 돌출한 부포르트모스산이 있다. 그 이름은 '소가 건너는 곳'이라는 뜻이다. 부포르트모스에는 데메테르와 그 딸의 성소, 그리고 정박지를 지키는 여신이라는 뜻의 아테나 프로마코르마의 성소가 세워져 있다.

**[2.34.9]** 부포르트모스 앞에는 아페로피아라는 섬이 있고, 멀지 않은 곳에 히드레아라는 다른 섬이 있다. 그 섬을 지나면 본토를 따라 초승달 모양의 해변이 이어진다. 해변 뒤편에는 포세이돈의 성소까지 뻗은 좁은 땅이 있는데, 동쪽 바다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이어진다. 항구들이 있고, 길이는 약 7스타디온이며 가장 넓은 곳도 너비가 3스타디온을 넘지 않는다.

**[2.34.10]** 헤르미오네인들의 옛 도시는 여기에 있었다. 지금도 이곳에 성소들이 있다. 좁은 땅의 동쪽 끝에 포세이돈의 성소가 있고, 내륙으로 더 가면 아테나 신전이 있다. 그 곁에는 전설에 따르면 틴다레오스의 아들들이 겨루었던 경기장의 기초가 있다. 또 하나의 아테나 성소는 그리 크지 않으며, 지붕이 무너져 있다. 태양신 헬리오스의 신전과 카리테스 여신

들의 신전, 세라피스와 이시스의 신전도 있다. 다듬지 않은 큰 돌들로 둘러싼 곳들에서는 데메테르를 위한 비의를 치른다.

**[2.34.11]** 이 일대에 헤르미오네인들이 가진 것들은 이러하다. 지금의 도시는 포세이돈 성소가 있는 곳에서 약 4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처음에는 평평한 터에서 시작하지만 완만한 비탈을 따라 올라가다가, 사람들이 프론이라고 부르는 산과 이어진다. 헤르미오네는 성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 기록할 것이 많은 도시인데, 그중 내가 꼭 언급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는 깊은 바다의 여신 폰티아이자 항구의 여신 리메니아라고도 부르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다. 그곳의 흰 대리석 신상은 거대하며 조각 솜씨가 뛰어나 볼 만하다.

**[2.34.12]**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또 있다. 헤르미오네인들이 그녀에게 바치는 영예에는 이런 관습이 포함된다. 혼인을 앞둔 처녀와 재혼하려는 과부는 누구나 결혼 전에 여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온기의 데메테르 테르마시아의 성소들도 지었다. 하나는 앞에서 말했듯 트로이젠 쪽 경계에 있고, 다른 하나는 헤르미오네 시내에 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35장

**[2.35.1]** 그 성소 가까이에는 검은 염소 가죽을 두른 디오니소스의 신전이 있다. 사람들은 해마다 그를 기리는 음악 경연을 열고, 수영과 뱃경주의 우승 상품을 내놓는다. 이피게네이아라는 별칭의 아르테미스 성소와, 돌고래 위에 한 발을 얹은 청동 포세이돈상도 있다. 이 상을 지나 헤스티아의 성소에 들어가면 신상은 없고 제단만 보인다. 사람들은 그 위에서 헤스티아에게 제사를 지낸다.

**[2.35.2]** 아폴론의 신전은 세 채이고 신상도 셋이다. 하나는 별칭이 없고 둘째는 피타이오스, 셋째는 ‘경계의 신’ 호리오스라고 부른다. 피타이오스라는 이름은 아르고스인들에게서 배웠다. 텔레실라가 전하듯, 아폴론의 아들 피타이오스가 찾아간 그리스의 첫 번째 땅은 아르고스인들의 땅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신상을 왜 호리오스라고 부르는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 내 추측으로는 영토의 경계를 두고 벌어진 분쟁에서 전쟁이나 중재로 이겼기 때문에 아폴론 호리오스에게 영예를 바친 듯하다.

**[2.35.3]** 헤르미오네인들은 티케의 성소가 자기 도시에서 가장 최근에 지은 것이라고 한다. 그 안에 파로스 대리석으로 만든 거상이 서 있다. 우물 가운데 하나는 아주 오래되었다. 물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아무도 볼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내려가 물을 길어도 마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다른 우물은 우리 시대에 만들었다. 그 우물로 물이 흘러드는 곳을 ‘풀밭’이라는 뜻의 레이몬이라고 부른다.

**[2.35.4]** 가장 언급할 만한 것은 프론산에 있는 데메테르의 성소다. 헤르미오네인들은 포로네우스의 아들 클리메노스와 그의 누이 크토니아가 이곳을 세웠다고 한다. 아르고스인들의 이야기는 이렇다. 데메테르가 아르골리스에 왔을 때 아테라스와 미시오스는 여신을 대접했으나, 콜론타스는 집에 들이지도 않고 다른 예우도 하지 않았다. 딸 크토니아는 아버지의 처사가 옳지 않다고 여겼다. 콜론타스는 벌을 받아 집과 함께 불에 타 죽었으나, 데메테르는 크토니아를 헤르미온으로 데려왔다고 한다. 크토니아는 헤르미오네인들을 위해 성소를 만들었다.

**[2.35.5]** 어쨌든 여신 자신을 크토니아라 부르고, 해마다 여름에 여는 축제도 크토니아라고 부른다. 의식은 이렇다. 신들의 사제들과 그해에 임기를 맡은 관리들이 행렬의 선두에 서고, 남녀가 뒤따른다. 이제는 아직 어린 아이들 가운데 일부도 행렬에 참여해 여신을 기리는 것이 관습이다. 아이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화환을 쓴다. 화환은 주민들이 코스모산달론이라고 부르는 꽃으로 엮는다. 크기와 빛깔로 보아 내게는 붓꽃처럼 보인다. 애도의 뜻을 나타내는 같은 글자까지 꽃에 새겨져 있다.

**[2.35.6]** 행렬 뒤에는 다 자란 암소 한 마리를 소 떼에서 끌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 암소는 아직 길들지 않아 날뛰며, 밧줄로 묶여 있다. 소를 신전까지 몰고 오면 일부는 밧줄을 풀어 암소가 성소 안으로 뛰어들게 한다. 그때까지 문을 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소가 신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문을 닫는다.

**[2.35.7]** 안에 남은 노파 네 사람이 암소를 잡는다. 그중 기회를 잡은 사람이 낫으로 암소의 목을 벤다. 그 뒤 문을 열고 담당자들이 두 번째 암소를 몰고 오며, 뒤이어 세 번째와 네 번째 암소도 데려온다. 모두 노파들이 같은 방법으로 잡는데, 이 제사에는 또 한 가지 기이한 점이 있다. 첫 암소가 어느 쪽으로 쓰러지든 나머지도 모두 그쪽으로 쓰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2.35.8]** 헤르미오네인들은 이와 같이 제사를 치른다. 신전 앞에는 데메테르의 여사제를 지낸 여자들의 상이 몇 개 서 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암소들이 한 마리씩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노파들의 자리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아테나와 데메테르의 상이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보다도 받들어 숭배하는 물건 자체는 내가 본 적이 없다. 외지인이든 헤르미오네인이든 다른 남자도 본 적이 없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노파들만 알고 있을 것이다.

**[2.35.9]** 사방에 상이 서 있는 또 하나의 신전이 있다. 크토니아 신전의 바로 맞은편에 있으며, 클리메노스의 신전이라고 불린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클리메노스에게 제사를 지낸다. 나는 클리메노스가 헤르미온으로 온 아르고스인이었다고 믿지 않는다. ‘클리메노스’는 전설에서 지하 세계의 왕이라 하는 신에게 붙인 별칭이다.

**[2.35.10]** 이 신전 옆에는 아레스 신전이 하나 더 있고, 안에는 신상이 있다. 크토니아의 성소 오른쪽에는 주민들이 ‘메아리의 주랑’이라고 부르는 주랑이 있다. 사람이 말을 하면 적어도 세 번은 울려 퍼지는 곳이다. 크토니아 신전 뒤에는 헤르미오네인들이 각각 클리메노스의 장소, 플루톤의 장소, 아케루시아 호수라고 부르는 세 장소가 있다. 모두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클리메노스의 장소에는 땅이 갈라진 틈도 있다. 헤르미오네인들의 전설에 따르면 헤라클레스가 그 틈을 통하여 하데스의 개를 끌어 올렸다.

**[2.35.11]** 마세스로 곧장 가는 길이 시작되는 성문에는 성벽 안쪽에 에일레이티이아의 성소가 있다. 사람들은 날마다 제물과 향을 바쳐 성대하게 여신을 달래며, 에일레이티이아에게 바친 봉헌물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아마 여사제들을 제외하면 누구도 신상을 볼 수 없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36장

**[2.36.1]** 마세스로 곧장 가는 길을 약 7스타디온 가다가 왼쪽으로 돌면 할리케로 가는 길이 나온다. 지금 할리케에는 사람이 살지 않으나 한때는 주민이 있었다. 아스클레피오스가 병을 고친 일들을 새긴 에피다우로스의 비석에도 할리케 시민들이 언급된다. 다만 할리케 시나 그 시민들을 언급하는 믿을 만한 다른 기록은 내가 아는 것이 없다. 그 도시로 가는 길은 프론산과, 옛날 토르낙스라고 부르던 다른 산 사이로 난다. 전설에 따르면 바로 그곳에서 제우스가 뻐꾸기로 변했기 때문에 산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2.36.2]** 두 산 꼭대기에는 지금도 성소가 있다. '뻐꾸기산'이라는 뜻의 코키기온산에는 제우스의 성소가, 프론산에는 헤라의 성소가 있다. 코키기온산 기슭에도 신전이 하나 있다. 문짝은 서 있지 않고 지붕도 없으며, 안에 신상도 없었다. 아폴론의 신전이었다고 한다. 곧장 가는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 곁의 길로 마세스에 갈 수 있다. 호메로스가 아르고스인들의 목록에서 그렸듯 마세스는 옛날에는 도시였다. 그러나 내가 살던 시대에는 헤르미오네인들이 항구로 쓰고 있었다.

**[2.36.3]** 마세스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길은 스트루토스, 곧 '참새 곶'이라고 부르는 곳에 이른다. 이 곶에서 산봉우리들을 따라가면 필라노리온이라는 장소와 볼레오이까지 250스타디온이다. 볼레오이는 다듬지 않은 돌을 쌓아 올린 무더기들이다. 이곳에서 20스타디온 떨어진 곳에는 디디모이, 곧 '쌍둥이'라는 다른 장소가 있다. 그곳에는 아폴론과 포세이돈의 성소에 더해 데메테르의 성소도 있다. 신상들은 흰 대리석으로 만들었으며 똑바로 서 있다.

**[2.36.4]** 그다음은 아르고스인들에게 속한 지방으로, 한때 아시나이아라고 불렸다. 바닷가에 아시네의 유적이 있다. 라케다이몬인들과 그 왕 니칸드로스가 군대를 이끌고 아르골리스를 침공했을 때 아시네인들도 가담하여 아르고스인들의 땅을 함께 황폐하게 만들었다. 니칸드로스는 카릴로스의 아들이며, 그 위로 폴리덱테스와 에우노모스와 프리타니스와 에우리폰이 차례로 이어진다. 라케다이몬의 원정군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왕 에라토스가 이끄는 아르고스인들이 아시네를 공격했다.

**[2.36.5]** 한동안 아시네인들은 성벽에서 맞서 싸우며, 아르고스에서 가장 이름난 인물 가운데 하나인 리시스트라토스를 비롯해 여러 사람을 죽였다. 그러나 성벽을 잃자 시민들은 아내와 아이들을 배에 태우고 자기 나라를 떠났다. 아르고스인들은 아시네를 평지로 만들고 영토를 병합했지만, 피타이오스 아폴론의 성소는 남겨두었다. 지금도 볼 수 있는 이 성소 곁에 리시스트라토스를 묻었다.

**[2.36.6]** 아르고스에서 레르나의 바닷가까지는 40스타디온을 넘지 않는다. 레르나로 내려가는 길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것은 에라시노스강이다. 이 강은 프릭소스강으로 흘러들며, 프릭소스강은 테메니온과 레르나 사이에서 바다에 들어간다. 에라시노스강에서 왼쪽으로 약 8스타디온을 가면 제우스의 아들들인 두 주군 디오스쿠로이의 성소가 있다. 그들의 목상은 시내의 것과 비슷하게 만들었다.

**[2.36.7]** 곧장 가는 길로 돌아와 에라시노스강을 건너면 '겨울 급류'라는 뜻의 케이마로스강에 이른다. 그 부근에는 돌을 둘러 쌓은 곳이 있다. 전설에 따르면 플루톤이 데메테르의 딸 코레를 납치한 뒤 바로 이곳에서 지하의 자기 왕국으로 내려갔다. 레르나는 이미 말했듯 바닷가에 있으며, 사람들은 이곳에서 레르나의 데메테르를 기리는 비의를 거행한다.

**[2.36.8]** 폰티노스라고 부르는 산에서 시작되는 신성한 숲이 있다. 폰티노스산은 빗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속으로 흡수한다. 이 산에서 흘러나오는 강 역시 폰티노스라고 부른다. 산꼭대기에는 아테나 사이티스의 성소가 있는데, 지금은 폐허만 남았다. 히포메돈의 집터도 있다. 그는 오이디푸스의 아들 폴리네이케스가 당한 부당한 일을 바로잡으려고 테바이로 갔던 사람이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37장

**[2.37.1]** 이 산에서 시작되는 숲은 주로 플라타너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닷가까지 이어진다. 한쪽 경계는 폰티노스강이고, 다른 쪽 경계는 다나오스의 딸 이름을 따서 아미모네라고 부르는 강이다. 숲 안에는 데메테르 프로심나와 디오니소스의 상이 있다. 데메테르는 앉은 상으로 크지 않다.

**[2.37.2]** 두 상은 모두 돌로 만들었다. 다른 곳의 신전에는 구원자 디오니소스 사오테스가 앉아 있는 목상과 바다의 아프로디테 석상이 있다. 아프로디테상은 다나오스의 딸들이 봉헌했고, 폰티노스산의 아테나 성소는 다나오스 자신이 지었다고 한다. 레르나의 비의는 필람몬이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의식과 함께 읊는 말들은 오래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2.37.3]** 오리칼쿰으로 만든 심장에 새겨져 있다고 들은 글도 필람몬의 작품이 아님을 아리폰이 밝혀냈다. 그는 혈통으로는 트리코니온 출신 아이톨리아인으로, 지금 리키아인들 사이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명성을 누리고 있다. 독자적인 탐구에 뛰어난 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 글의 운문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산문은 모두 도리스 방언으로 쓰였다. 그러나 헤라클레스의 후손들이 펠로폰네소스로 돌아오기 전까지 아르고스인들은 아테네인들과 같은 방언을 썼다. 필람몬 시대에는 '도리스인'이라는 이름조차 모든 그리스인에게 익숙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2.37.4]** 아리폰은 이렇게 논증했다. 아미모네강의 발원지에는 플라타너스 한 그루가 자란다. 그 아래에서 물뱀 히드라가 자랐다고 한다. 이 짐승이 다른 물뱀들보다 컸고, 그 독이 아주 치명적이어서 헤라클레스가 자기 화살촉에 그 쓸개즙을 발랐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머리가 하나였을 것이다. 카미로스의 페이산드로스가 그 짐승을 더 무섭게 보이게 하고 자기 시를 더 인상적으로 만들려고 히드라에게 여러 머리를 달아준 것이다.

**[2.37.5]** 나는 이른바 암피아라오스의 샘과 알키오니아 호수도 보았다. 아르고스인들의 말에 따르면 디오니소스는 세멜레를 데려오려고 이 호수를 통해 하데스로 내려갔다. 그에게 여기로 내려가는 길을 가르쳐준 사람은 폴림노스라고 한다. 알키오니아 호수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어떤 방법으로든 바닥에 닿은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 네로조차 수 스타디온

길이의 밧줄들을 만들어 서로 잇고 납을 매다는 등, 깊이를 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조치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으나 바닥을 찾아내지 못했다.

**[2.37.6]**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 호수의 물은 겉으로 보기에 고요하고 잔잔하다. 그러나 감히 헤엄쳐 건너려는 사람은 누구든 아래로 끌려가 깊은 곳으로 빨려든 뒤 휩쓸려 사라진다고 한다. 호수의 둘레는 크지 않아 약 3분의 1스타디온이다. 물가에는 풀과 골풀이 자란다. 해마다 밤에 디오니소스를 기려 행하는 의식은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38장

**[2.38.1]** 테메니온은 아르고스 영토에 있으며, 아리스토마코스의 아들 테메노스에게서 이름을 얻었다. 그는 이곳을 차지하고 요새화한 뒤 이곳을 근거로 도리스인들과 함께 티사메노스와 아카이아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 레르나에서 테메니온으로 가는 길에 프릭소스강이 바다로 들어간다. 테메니온에는 포세이돈의 성소와 아프로디테의 성소가 세워져 있다. 테메노스의 무덤도 있는데, 아르고스에 사는 도리스인들이 그곳에서 그를 공경한다.

**[2.38.2]** 테메니온에서 내 짐작으로 50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나우플리아가 있다.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 이곳을 세운 나우플리오스는 포세이돈과 아미모네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성벽 유적이 아직 남아 있고, 포세이돈의 성소와 항구들, 카나토스라고 부르는 샘도 있다. 아르고스인들은 헤라가 해마다 이곳에서 목욕하여 처녀의 몸을 되찾는다고 말한다.

**[2.38.3]** 이것은 헤라를 기리는 비의에서 신성한 비밀로 전하는 말 가운데 하나다. 나우플리아 사람들은 당나귀에 관한 이야기도 한다. 당나귀 한 마리가 포도나무의 새순을 뜯어 먹었더니 다음 수확 때 포도가 더 많이 달려, 사람들이 포도나무 가지 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위에 당나귀를 새겼다고 한다. 이런 일들은 사소하므로 여기까지만 적겠다.

**[2.38.4]** 레르나에서는 바닷가를 따라 게네시온이라 부르는 곳으로 가는 다른 길도 있다. 바닷가에 포세이돈 게네시오스의 작은 성소가 있다. 그 옆에는 아포바트모이, 곧 '내려서는 계단'이라 부르는 곳이 있다. 다나오스가 딸들과 함께 아르골리스에서 처음 상륙한 곳이라는 이야기다. 여기서부터 이른바 아니그라이아를 지나 좁고 험한 길을 따라가면, 왼쪽에 바다까지 뻗은 땅이 나온다.

**[2.38.5]** 이 땅에는 나무들, 특히 올리브나무가 잘 자란다. 여기서 내륙으로 올라가면 아르고스 정예병 300명이 이 땅을 두고 같은 수의 라케다이몬 정예병과 싸운 곳에 이른다. 스파르타인 한 명과 아르고스인 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 죽었고, 전사자들의 무덤을 이곳에 세웠다. 그러나 라케다이몬인들은 뒤이어 전 병력을 동원하여 아르고스인들과 싸운 끝에 결정적으로 이겼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그 땅의 소출을 누렸으나, 뒤에 아테네인들에게 섬에서 쫓겨난 아이기나인들에게 그 땅을 내주었다. 내가 살던 시대에 티레아티스에는 아르고스인들이 살았다. 그들은 중재 판정으로 그 땅을 되찾았다고 한다.

**[2.38.6]** 이 공동묘들을 지나면 옛날 아이기나인들이 정착했던 안테네가 나온다. 네리스라는 다른 마을과, 셋 중 가장 큰 에우아도 있다. 에우아에는 폴레모크라테스의 성소가 있다.

이 폴레모크라테스는 마카온의 아들이며 알렉사노르의 형제다. 그는 그 지방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며 이웃 주민들에게서 공경을 받는다.

**[2.38.7]** 마을들 위쪽으로 파르논산이 뻗어 있다. 이 산에서 라케다이몬의 경계가 아르고스인들과 테게아인들의 경계에 맞닿는다. 경계에는 헤르메스의 석상들이 서 있으며, 그 장소는 그 상들에서 이름을 얻었다. 파르논산에서 내려오는 유일한 강은 타나오스라고 한다. 아르고스인들의 땅을 지나 티레아만으로 흘러든다. Pausanias ′ Description of Greece

# 제3권 라코니아

## 제1장

**[3.1.1]** 헤르메스 표석들을 지나 서쪽으로 가면 라코니아에 이른다. 라케다이몬인들 자신의 전승에 따르면, 이 땅의 첫 왕은 토박이 렐렉스였다. 그의 이름을 따서 신민들을 렐레게스라 불렀다. 렐렉스에게는 뮐레스라는 아들과 그보다 어린 폴리카온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폴리카온은 나라를 떠나 망명했는데, 어디로 갔으며 무슨 까닭으로 떠났는지는 다른 곳에서 밝히겠다. 뮐레스가 죽자 그의 아들 에우로타스가 왕위를 이었다. 그는 평야에 고인 물을 도랑을 파서 바다로 흘려보냈다. 물이 빠지고 남은 물줄기가 강을 이루자, 그 강에 에우로타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3.1.2]** 에우로타스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라케다이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라케다이몬의 어머니는 타위게테로, 산의 이름이 그녀에게서 나왔다. 전해지는 말로는 그의 아버지가 바로 제우스였다고 한다. 라케다이몬은 에우로타스의 딸 스파르타와 혼인했다. 왕위에 오른 그는 먼저 자기 이름을 따서 이 땅과 주민들의 이름을 바꾸었다. 이어 도시를 세워 아내의 이름을 붙였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도시는 스파르타라고 불린다.

**[3.1.3]** 라케다이몬의 아들 아미클라스도 후세에 자기 기념물을 남기고 싶어 라코니아에 도시를 세웠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어리고 가장 아름다웠던 히아킨토스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의 무덤은 아미클라이의 아폴론 신상 아래에 있다. 아미클라스가 죽자 맏아들 아르갈로스가 왕권을 이어받았고, 아르갈로스가 죽은 뒤에는 키노르타스에게 왕권이 돌아갔다.

**[3.1.4]** 키노르타스에게는 오이발로스라는 아들이 있었다. 오이발로스는 아르고스에서 페르세우스의 딸 고르고포네를 아내로 맞아 틴다레오스를 낳았다. 히포코온은 자신이 맏이라는 이유로 왕위를 요구하며 틴다레오스와 다투었다. 이카리오스와 그 일파의 도움을 받아 세력에서 틴다레오스를 앞선 히포코온은 그를 겁에 질려 물러나게 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틴다레오스가 펠라나로 갔다고 한다. 메세니아의 전승에 따르면, 그는 메세니아에 있는 아파레우스에게 달아났다. 아파레우스는 페리에레스의 아들이자 틴다레오스와 어머니가 같은 형제였다. 그 전승은 틴다레오스가 메세니아의 탈라메에 자리 잡았고, 자녀들도 그곳에 사는 동안 태어났다고 전한다.

**[3.1.5]** 뒤에 헤라클레스가 틴다레오스를 데려와 왕위를 되찾아 주었다. 틴다레오스의 아들들도 왕이 되었고, 그의 사위인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와 메넬라오스의 딸 헤르미오네의 남편 오레스테스도 왕이 되었다. 오레스테스의 아들 티사메노스가 다스리던 때 헤라클레스의 후손들이 돌아오자, 메세네와 아르고스 두 지역에도 왕이 세워졌다. 아르고스에는 테메노스가, 메세네에는 크레스폰테스가 왕이 되었다. 라케다이몬에서는 아리스토데모스의 두 아들이 쌍둥이였으므로 두 왕가가 생겼다. 델포이의 피티아 여사제도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3.1.6]** 전승에 따르면 아리스토데모스 자신은 도리아인들이 펠로폰네소스로 돌아오기 전에 델포이에서 죽었다. 그의 죽음을 더 장엄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폴론이 그를 활로 쏘았다고 한다. 델포이에 닿기 전에 만난 헤라클레스에게서 도리아인들이 펠로폰네소스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가 신탁을 구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 정확한 이야기는 아리스토데모스가 필라데스와 엘렉트라의 아들들에게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오레스테스의 아들 티사메노스의 사촌이었다.

**[3.1.7]** 아리스토데모스의 아들들에게는 프로클레스와 에우리스트헤네스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쌍둥이였으나 두 사람은 서로 몹시 미워했다. 원한이 극에 달했을 때조차, 두 사람은 테라스가 식민시를 세우는 일을 함께 도왔다. 테라스는 아우테시온의 아들이자 두 사람의 어머니 아르게이아의 오라비였으며, 그들의 후견인이기도 했다. 테라스는 당시 칼리스테라고 불리던 섬으로 이주민들을 보내고 있었고, 멤블리아로스의 후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에게 왕권을 넘겨주리라 기대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했다.

**[3.1.8]** 테라스의 가계는 카드모스 자신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갔지만, 그들은 멤블리아로스의 후손이었다. 멤블리아로스는 평민 출신으로, 카드모스가 이주민들의 우두머리로 삼아 섬에 남겨 둔 사람이었다. 테라스는 자기 이름을 따서 섬의 이름을 바꾸었다. 오늘날까지도 테라 사람들은 해마다 창건자인 그에게 영웅에게 바치는 제사를 올린다. 프로클레스와 에우리스트헤네스는 테라스를 열심히 돕는 데에는 뜻을 같이했으나, 다른 모든 일에서는 언제나 의견이 크게 달랐다.

**[3.1.9]** 설령 두 사람이 서로 뜻을 같이했더라도, 나는 그 후손들을 한 계보에 함께 넣을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두 집안에서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나이가 서로 잘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촌과 사촌의 자녀들, 그 뒤 여러 세대가 태어난 시기가 달라 한쪽 계보의 세대를 다른 쪽과 나란히 놓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두 왕가의 역사를 한데 엮지 않고 각각 따로 이야기하겠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장

**[3.2.1]** 아리스토데모스의 두 아들 가운데 형인 에우리스트헤네스에게는 아기스라는 아들이 있었다고 한다. 에우리스트헤네스의 가문이 아기스 왕가라 불리는 것은 그의 이름을 따른 것이다. 그가 다스릴 때 프레우게네스의 아들 파트레우스가 아카이아에 도시를 세웠다. 그 도시가 오늘날까지 파트라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파트레우스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이 도시의 건설에 참여했으며, 바다 건너에 식민시를 세우는 원정에도 가담했다. 이 원정을 이끈 사람은 그라스였다. 그는 에켈라스의 아들, 펜틸로스의 손자, 오레스테스의 증손이었다. 그가 차지하게 될 땅은 이오니아와 미시아 사이에 있으며, 오늘날 아이올리스라 불린다. 그의 조상 펜틸로스는 그보다 앞서 이 본토 지역 맞은편에 있는 레스보스섬을 이미 차지했다.

**[3.2.2]** 아기스의 아들 에케스트라토스가 스파르타의 왕이었을 때, 라케다이몬인들은 키누리아에서 군에 복무할 나이의 남자들을 모두 몰아냈다. 키누리아 땅에서 나온 약탈자들이 라케다이몬인들의 친족인 아르고스인들의 영토를 괴롭혔고, 키누리아인들 자신도 아르고

스 땅을 공공연히 습격했다는 것이 그들이 내세운 까닭이었다. 키누리아인들은 혈통으로는 아르고스인이라고 하며, 전승에 따르면 그들의 시조는 페르세우스의 아들 키누로스였다.

**[3.2.3]** 그리 여러 해가 지나지 않아 에케스트라토스의 아들 라보타스가 스파르타의 왕이 되었다. 헤로도토스는 크로이소스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 라보타스가 어린 시절 입법자 리쿠르고스의 후견을 받았다고 전한다. 다만 그를 라보타스가 아니라 레오보테스라고 부른다. 이때 라케다이몬인들은 처음으로 아르고스인들과 전쟁하기로 결의했다. 그들이 점령한 키누리아 땅을 아르고스인들이 잠식하고, 라케다이몬에 종속된 페리오이코이, 곧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반란을 부추긴다는 것이 그들이 제기한 혐의였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전쟁에서 양쪽 모두 이야기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3.2.4]** 이 왕가에서 뒤이어 즉위한 라보타스의 아들 도리소스와 도리소스의 아들 아게실라오스는 모두 얼마 지나지 않아 살해되었다. 리쿠르고스가 라케다이몬인들에게 법을 정해 준 것도 아게실라오스가 다스릴 때였다. 혹자는 그가 피티아 여사제에게서 입법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고, 혹자는 크레타의 제도를 들여왔다고 한다. 크레타인들은 자신들의 법을 정한 이가 미노스이며, 미노스가 그 법을 숙고할 때 신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내 생각에 호메로스 또한 다음 구절에서 미노스의 입법을 넌지시 가리킨 듯하다.

> 그 가운데에는 큰 도시 크노소스도 있으니, 그곳에서 미노스는
> 아홉 해 동안 왕으로 다스리며 위대한 제우스와 친밀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3.2.5]** 리쿠르고스에 관해서는 뒤에서 더 이야기하겠다. 아게실라오스에게는 아르켈라오스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가 다스릴 때 라케다이몬인들은 페리오이코이의 도시 아이기스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주민들을 노예로 팔았다. 그들이 아르카디아 쪽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다른 왕가의 왕 카릴라오스는 아르켈라오스가 아이기스를 파괴하는 데 힘을 보탰다. 카릴라오스가 단독으로 라케다이몬인들을 이끌며 이룬 업적도 내 이야기가 이른바 에우리폰 왕가에 이르면 서술하겠다.

**[3.2.6]** 아르켈라오스에게는 텔레클로스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가 다스릴 때 라케다이몬인들은 전쟁을 벌여 아미클라이, 파리스, 게란트라이를 굴복시켰다. 이곳들은 페리오이코이의 도시로, 그때까지도 아카이아인들의 수중에 있었다. 파리스와 게란트라이 주민들은 도리아인들의 공격에 겁을 먹고, 휴전을 맺어 펠로폰네소스에서 물러나기로 합의했다. 아미클라이 주민들은 첫 공격에 쫓겨나지 않았다. 오랫동안 완강히 저항하면서 빛나는 무공을 세운 끝에야 그곳을 잃었다. 도리아인들은 아미클라이인들을 상대로 거둔 승리를 기념해 전승비를 세웠다. 이 승리가 그 시대에 가장 기억할 만한 전공이었다고 스스로 밝혀, 아미클라이인들의 용기를 증언한 셈이다.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텔레클로스는 아르테미스 성소에서 메세니아인들에게 살해되었다. 이 성소는 라코니아와 메세니아의 경계에서 림나이, 곧 '호수들'이라 불리는 곳에 세워져 있었다.

**[3.2.7]** 텔레클로스가 죽자 그의 아들 알카메네스가 왕위를 이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스파르타에서 이름난 사람인 에우티스의 아들 카르미다스를 크레타로 보냈다. 크레타인들 사이의 내분을 가라앉히고, 방비가 약한 내륙의 도시들을 버리도록 설득하며, 연안 항해에 편리한 곳에 자리한 도시들에 사람들이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라케다이몬인들은 또

해안에 있던 아카이아인들의 도시 헬로스를 황폐하게 만들고, 헬로스 주민들을 도우러 온 아르고스인들을 전투에서 이겼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3장

[3.3.1] 알카메네스가 죽자 그의 아들 폴리도로스가 왕위를 이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이탈리아의 크로톤과 제피로스 곶 부근의 로크리스인들에게 이주민들을 보냈다. 이른바 메세니아 전쟁이 가장 치열해진 것은 이 왕이 다스리던 때였다.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라케다이몬인들과 메세니아인들의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

[3.3.2] 양측이 전하는 이야기와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뒤에서 밝히겠다. 여기서는 한 가지만 말해 두어야겠다. 메세니아인들을 상대로 한 첫 전쟁에서 라케다이몬인들의 주된 지휘관은 니칸드로스의 아들 테오폼포스였다. 그는 다른 왕가의 왕이었다. 메세네와의 전쟁이 끝까지 치러져 메세니아가 라케다이몬인들에게 예속되었을 때, 폴리도로스는 이미 스파르타에서 큰 명성을 누렸으며 민중에게도 인기가 높았다. 그는 누구에게도 폭력을 쓰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없었고, 재판에서는 공정하고 인정이 있었다.

[3.3.3] 이렇게 그의 명성이 이미 그리스 전역에 퍼져 있을 때, 그는 폴레마르코스에게 살해되었다. 폴레마르코스는 라케다이몬의 명문 출신이었으나, 이 일로 거리낌 없는 성품을 드러냈다. 폴리도로스가 죽은 뒤 라케다이몬인들은 그에게 여러 가지 각별한 영예를 바쳤다. 그런데 폴레마르코스에게도 스파르타에 무덤이 있다. 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선한 사람으로 여겨졌거나, 친족들이 몰래 그를 묻었을 것이다.

[3.3.4] 폴리도로스의 아들 에우리크라테스가 다스리는 동안 메세니아인들은 라케다이몬인들에게 복속된 처지를 받아들였고, 아르고스인들로 인한 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에우리크라테스의 아들 아낙산드로스의 치세에 이르자, 운명이 메세니아인들을 펠로폰네소스 전역에서 몰아낼 때가 되었는지, 그들은 라케다이몬인들에게 반기를 들었다. 한동안 무력으로 버텼으나 마침내 패배하여 휴전 협정에 따라 펠로폰네소스를 떠났다.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해안 도시의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라케다이몬인들의 노예가 되었다.

[3.3.5] 메세니아인들이 라케다이몬에 반기를 든 뒤 벌인 전쟁의 경과는 내 이야기의 이 대목에서 서술할 일이 아니다. 아낙산드로스에게는 에우리크라테스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 두 번째 에우리크라테스에게는 레온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두 왕이 다스리는 동안 라케다이몬인들은 테게아와의 전쟁에서 대체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레온의 아들 아낙산드리데스가 다스리던 때에는 다음과 같이 테게아와의 전쟁에서 이겼다. 두 도시 사이에 마침 휴전이 이루어졌을 때, 리카스라는 라케다이몬인이 테게아에 왔다.

[3.3.6] 리카스가 도착할 무렵 스파르타인들은 신탁에 따라 오레스테스의 뼈를 찾고 있었다. 리카스는 그 뼈가 대장간에 묻혀 있으리라고 추론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이러하다. 그는 대장간에서 본 것을 하나하나 델포이의 신탁과 맞추어 보았다. 풀무에서도 세찬 바람이 나오므로 그것을 신탁에 나오는 '바람들'에 견주었다. 망치는 '내려치는 것', 모루는 그것을 '맞받아치는 것'에 견주었다. 철은 자연히 '인간의 재앙'에 해당했다.

사람들은 이미 전쟁에 철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영웅들의 시대였다면 신은 청동을 인간의 재앙이라고 했을 것이다.

**[3.3.7]** 오레스테스의 뼈에 관한 신탁과 비슷한 신탁을 뒤에 아테네인들도 받았다. 테세우스를 스키로스에서 아테네로 되찾아 오지 않으면 스키로스를 점령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밀티아데스의 아들 키몬은 리카스와 같은 기지를 발휘하여 테세우스의 뼈를 찾아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키로스를 점령했다.

**[3.3.8]** 영웅 시대에는 무기를 모두 청동으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호메로스의 시에도 있다. 페이산드로스의 도끼와 메리오네스의 화살에 관한 구절이 그것이다. 파셀리스의 아테나 성소에 봉헌된 아킬레우스의 창과 니코메데이아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있는 멤논의 칼도 내 말을 뒷받침한다. 창날과 창자루 밑의 뾰족한 물미, 그리고 칼 전체가 청동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은 내가 보증할 수 있다.

**[3.3.9]** 레온의 아들 아낙산드리데스는 라케다이몬인 가운데 유일하게 두 아내를 동시에 두고 두 살림을 꾸린 사람이었다. 첫 아내는 훌륭한 아내였으나 불행히도 아이를 낳지 못했다. 에포로이들이 그에게 아내를 내보내라고 명하자 그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는 양보하여 첫 아내를 둔 채 다른 아내도 맞이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아내에게서는 클레오메네스라는 아들이 태어났다. 그때까지 아이를 배지 못했던 첫 아내는 클레오메네스가 태어난 뒤 도리에우스를 낳았고, 이어 레오니다스와 막내 클레옴브로토스를 낳았다.

**[3.3.10]** 아낙산드리데스가 죽었을 때 라케다이몬인들은 도리에우스가 클레오메네스보다 판단력이 뛰어나고 군인으로서도 더 낫다고 여겼다. 그러나 마지못해 도리에우스를 왕으로 세우기를 포기하고, 법에 따라 나이가 더 많은 클레오메네스에게 왕위를 주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4장

**[3.4.1]** 도리에우스는 라케다이몬에 머물며 형의 신하로 지내는 것을 견딜 수 없어, 식민시를 세우러 떠났다. 클레오메네스는 왕이 되자마자 라케다이몬인들과 동맹군을 모아 아르골리스를 침공했다. 아르고스인들은 무장을 하고 맞서 나왔으나 클레오메네스가 승리를 거두었다. 전장 근처에는 니오베의 아들 아르고스에게 바쳐진 신성한 숲이 있었다. 패하여 흩어진 아르고스인 가운데 약 오천 명이 그곳으로 피신했다. 클레오메네스는 광기에 사로잡혀 격앙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는 헤일로타이에게 숲에 불을 지르라고 명했다. 불길이 숲 전체에 번져, 숲이 타면서 그 안에 몸을 의탁한 사람들도 함께 타 죽었다.

**[3.4.2]** 그는 아테네를 상대로도 원정을 벌였다. 첫 원정에서는 아테네인들을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아들들에게서 해방시켜 자신과 라케다이몬인들 모두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다. 두 번째 원정은 아테네인 이사고라스의 뜻을 들어주어, 그가 아테네에 참주정을 세우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테네인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힘껏 싸우자, 클레오메네스는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했다. 엘레우시스의 여신들에게 바쳐진 오르가스라는 지역도 그때 황폐해졌다고 한다. 그는 아이기나까지 나아가 페르시아에

동조한 유력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히스타스페스의 아들 다레이오스 왕에게 흙과 물을 바치도록 시민들을 설득한 자들이었다.

**[3.4.3]** 클레오메네스가 아이기나에 가 있는 동안 다른 왕가의 왕 데마라토스는 라케다이몬 민중에게 그를 헐뜯었다. 아이기나에서 돌아온 클레오메네스는 데마라토스를 왕위에서 몰아낼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피티아 여사제에게 뇌물을 주어 데마라토스에 관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탁을 내리게 했다. 그리고 데마라토스와 같은 왕가 출신인 레오티키데스를 부추겨 왕위를 요구하게 했다.

**[3.4.4]** 레오티키데스는 데마라토스가 태어났을 때 아리스톤이 사정을 모르고 불쑥 내뱉었던 말을 구실로 삼았다. 아리스톤이 그 아이는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했던 것이다. 라케다이몬인들은 관례에 따라 데마라토스에게 제기된 이의를 델포이 신탁에 물었다. 여사제는 클레오메네스의 계략에 들어맞는 답을 내렸다.

**[3.4.5]** 이렇게 데마라토스는 클레오메네스의 미움 때문에 부당하게 왕위에서 쫓겨났다. 뒤에 클레오메네스는 광기에 사로잡혀 죽음을 맞았다. 칼을 움켜쥐고 자기 몸을 베기 시작하여 온몸을 난도질한 것이다. 아르고스인들은 아르고스의 숲에 몸을 의탁한 이들에게 한 짓 때문에 그런 최후를 맞았다고 한다. 아테네인들은 오르가스를 황폐하게 했기 때문이라 하고, 델포이인들은 피티아 여사제에게 뇌물을 주어 데마라토스에 관한 거짓 신탁을 내리게 했기 때문이라 한다.

**[3.4.6]** 영웅들과 신들의 노여움이 합쳐져 클레오메네스를 벌했을 수도 있다. 아르고스보다 조금도 더 이름난 영웅이 아니었던 프로테실라오스도 자신이 당한 모욕에 대한 벌로 엘라이우스에서 페르시아인 아르타위크테스를 응징했다. 메가라인들도 신성한 땅을 침범한 뒤 엘레우시스 여신들의 노여움을 끝내 달래지 못했다. 신탁을 조작하는 일에 관해서라면, 클레오메네스 외에 감히 그런 일을 시도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한 아무도 없다.

**[3.4.7]** 클레오메네스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왕위는 아낙산드리데스의 아들이자 도리에우스와 어머니가 같은 형제인 레오니다스에게 돌아갔다. 이때 크세르크세스가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치러 오자, 레오니다스는 라케다이몬인 삼백 명과 함께 테르모필라이에서 그를 맞았다. 그리스인들이 치른 전쟁도 많고 이민족들이 서로 치른 전쟁도 많지만, 한 사람의 비범한 용맹 덕분에 더욱 빛난 전쟁은 드물다. 아킬레우스가 트로이아 전쟁을 빛냈고, 밀티아데스가 마라톤 전투를 빛낸 것이 그 예다. 그러나 내 생각에 레오니다스의 공적은 그 이전과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업적을 능가한다.

**[3.4.8]** 크세르크세스는 메디아인들을 다스린 왕들과 그 뒤를 이은 페르시아인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오만했고, 그토록 빛나는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진군하는 길을 레오니다스와 그가 테르모필라이에 데려간 소수의 병사들이 가로막았다. 트라키스 출신의 그 사람이 히다르네스가 이끄는 군대를 오이테산을 가로지르는 길로 안내하여 적이 그리스인들을 에워쌀 수 있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 땅을 보지도 못하게 했을 것이며 아테네도 불태우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레오니다스는 압도당했고 이민족 군대는 그리스 안으로 들어갔다.

[3.4.9] 클레옴브로토스의 아들 파우사니아스는 왕이 된 적이 없다. 레오니다스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 플레이스타르코스는 아직 어린아이였고, 파우사니아스는 그의 후견인으로서 라케다이몬인들을 이끌고 플라타이아이로 갔으며, 뒤에는 그들의 함대를 이끌고 헬레스폰토스로 갔다. 파우사니아스가 코스 출신의 한 여인을 대했던 일은 아무리 높이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여인은 코스에서 이름난 안타고라스의 아들 헤게토리데스의 딸이었는데, 테아스피스의 아들인 페르시아인 파란다테스의 첩이 되어 본의 아니게 살고 있었다.

[3.4.10] 플라타이아이 전투에서 마르도니오스가 쓰러지고 이민족 군대가 궤멸하자, 파우사니아스는 그 여인을 코스로 돌려보냈다. 여인은 그 페르시아인이 마련해 준 옷가지와 그 밖의 소지품을 모두 가지고 갔다. 파우사니아스는 또 아이기나인 람폰이 마르도니오스의 시신을 욕보이라고 권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5장

[3.5.1] 레오니다스의 아들 플레이스타르코스는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 왕위는 플라타이아이에서 지휘권을 맡았던 파우사니아스의 아들 플레이스토아낙스에게 돌아갔다. 플레이스토아낙스에게도 파우사니아스라는 아들이 있었다. 아티카를 침공한 파우사니아스가 바로 그다. 겉으로는 트라시불로스와 아테네인들에게 맞서기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리산드로스가 정권을 맡긴 자들의 참주정을 굳혀 주려는 것이었다. 그는 피레우스를 지키는 아테네인들을 전투에서 이겼으나 싸움이 끝나자 곧 군대를 이끌고 귀국하기로 했다. 사악한 자들의 참주 권력을 키워 주어 스파르타에 더없이 수치스러운 비난을 불러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3.5.2] 아테네에서 거둔 성과라고는 아무 결실도 없는 한 차례의 승리뿐이어서, 귀국하자 정적들이 그를 재판에 넘겼다. 라케다이몬 왕을 심리하는 법정은 이른바 '원로들' 스물여덟 명으로 이루어진 원로회, 에포로이 전원, 그리고 다른 왕가의 왕으로 구성되었다. 원로 열네 명과 다른 왕가의 왕 아기스는 파우사니아스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재판관들은 무죄에 표를 던졌다.

[3.5.3] 얼마 뒤 라케다이몬인들은 테바이를 치려고 군대를 모았다. 그 까닭은 아게실라오스에 관한 대목에서 밝히겠다. 이때 리산드로스는 포키스에 와서 포키스군 전체를 이끌고 지체 없이 보이오티아로 들어갔다. 할리아르토스 주민들이 테바이에서 이탈하기를 거부하자 그는 그 도시의 성벽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미 테바이인과 아테네인 한 부대가 몰래 성안에 들어와 있었다. 이들이 성 밖으로 나와 싸움을 걸었고, 그곳에서 리산드로스 자신을 비롯한 여러 라케다이몬인이 쓰러졌다.

[3.5.4] 파우사니아스는 테게아와 아르카디아 곳곳에서 군대를 모으느라 전투에 늦었다. 마침내 보이오티아에 이르렀을 때 리산드로스가 이끌던 군대가 패하고 그 자신도 죽었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래도 군대를 이끌고 테바이로 진격하여 먼저 공격할 작정이었다. 그러자 테바이인들이 싸움을 걸어 왔고, 트라시불로스가 아테네군을 이끌고 멀지 않은 곳까지 왔다는 보고도 들어왔다. 트라시불로스는 라케다이몬인들이 먼저 공격에 나서기를 기다렸다가 그들의 후방을 칠 생각이었다.

**[3.5.5]** 파우사니아스는 두 적군 사이에 끼일까 두려워 테바이인들과 휴전을 맺고, 할리아르토스 성벽 아래 쓰러진 전사자들의 시신을 거두어 묻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이 결정을 못마땅하게 여겼으나, 나는 다음과 같은 까닭으로 그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파우사니아스는 라케다이몬인들이 큰 참패를 당한 것이 언제나 두 적군 사이에 끼였을 때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테르모필라이와 스팍테리아섬에서의 패배를 생각하면, 자신이 그들에게 세 번째 불행을 가져다줄까 두려웠던 것이다.

**[3.5.6]** 그러나 동료 시민들이 보이오티아 원정에서 지체한 일을 들어 그를 고발하자, 그는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테게아로 갔다. 테게아인들은 아테나 알레아에게 보호를 청한 그를 받아 주었다. 이 성소는 예로부터 펠로폰네소스인 모두의 존중을 받았으며, 거기에 몸을 의탁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안전을 보장해 주었다. 라케다이몬인들이 파우사니아스와 그보다 앞선 레오티키데스를 대했을 때, 그리고 아르고스인들이 크리시스를 대했을 때 그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은 성소에 앉아 보호를 청하는 이 망명자들을 넘겨 달라는 요구조차 하려 하지 않았다.

**[3.5.7]** 파우사니아스가 달아났을 때 그의 아들 아게시폴리스와 클레옴브로토스는 아직 어린아이였다. 가장 가까운 친족인 아리스토데모스가 그들의 후견인이 되었다. 라케다이몬인들이 코린토스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들을 지휘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토데모스였다.

**[3.5.8]** 아게시폴리스가 자라 왕위에 오른 뒤 펠로폰네소스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벌인 상대는 아르고스인들이었다. 그가 테게아 땅에서 아르고스 땅으로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자, 아르고스인들은 사절을 보내 조상 때부터 전해 오는 휴전을 아게시폴리스와 맺게 하려 했다. 그것은 옛날부터 도리아인들 사이에서 확립되어 온 관례였다. 그러나 아게시폴리스는 사절과 휴전을 맺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났으나 그는 그 때문에 군대를 물릴 생각도 하지 않았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이 점에서 아테네인들과 같아서, 다른 어떤 그리스인들보다도 하늘이 내리는 징조를 두려워했는데도 그랬다.

**[3.5.9]** 그가 아르고스 성벽 아래에 진을 칠 때까지도 지진은 계속되었다. 병사들 가운데 몇몇은 벼락에 실제로 목숨을 잃었고, 천둥에 놀라 정신을 잃은 자들도 있었다. 상황이 이러하자 그는 마지못해 아르고스 땅에서 철수하고, 다른 원정을 시작하여 올린토스를 공격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칼키디케의 도시 대부분을 점령하여 올린토스 자체도 손에 넣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병을 얻어 그 병으로 죽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6장

**[3.6.1]** 아게시폴리스가 자식 없이 죽자 왕위는 클레옴브로토스에게 돌아갔다. 보이오티아인들과 싸운 레욱트라 전투에서 그는 지휘관이었다. 클레옴브로토스 자신은 용맹을 보였으나, 전투가 막 시작되었을 때 쓰러졌다. 큰 재난이 닥치면 신의 섭리는 유독 지휘관을 일찍

죽게 하는 일이 많다. 아테네인들도 델리온에서 군대를 지휘한 아리프론의 아들 히포크라테스를 잃었고, 뒤에는 테살리아에서 레오스테네스를 잃었다.

[3.6.2] 클레옴브로토스의 두 아들 가운데 형인 아게시폴리스는 역사에 두드러진 자취를 남기지 않았으며, 동생 클레오메네스가 그 뒤를 이었다. 클레오메네스의 맏아들은 아크로타토스였고 둘째는 클레오니모스였다. 아크로타토스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뒤에 클레오메네스가 죽자 그의 아들 클레오니모스와 아크로타토스의 아들 아레우스 사이에 왕위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다. 원로들이 중재하여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은 클레오니모스가 아니라 아크로타토스의 아들 아레우스라고 판정했다.

[3.6.3] 왕위를 빼앗긴 클레오니모스는 몹시 분개했다. 에포로이들은 그가 언젠가 스파르타의 적이 되는 일을 막으려고 여러 영예를 주어 마음을 달래려 했다. 특히 군대의 지휘권을 맡겼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조국에 적대하는 여러 일을 저질렀고, 아이아키데스의 아들 피로스를 부추겨 라코니아를 침공하게 했다.

[3.6.4] 아크로타토스의 아들 아레우스가 스파르타의 왕이었을 때, 데메트리오스의 아들 안티고노스가 군대와 함대를 이끌고 아테네를 공격했다. 아테네인들을 도우러 파트로클로스가 이집트 원정대를 이끌고 왔으며, 라케다이몬인들도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모두 모아 왕 아레우스를 선두로 하여 도착했다.

[3.6.5] 안티고노스는 아테네를 포위하여 아테네의 원군이 성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파트로클로스는 전령을 보내 아레우스와 라케다이몬인들에게 안티고노스를 먼저 공격하라고 권했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자신은 마케도니아군의 후방을 공격하겠다고 했다. 라케다이몬인들이 먼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이집트 수병들더러 육지에서 마케도니아군을 치라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말이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아테네와 우호 관계에 있었고, 후세에 이름난 공적을 남기고도 싶었으므로 기꺼이 이 모험에 나서려 했다.

[3.6.6] 그러나 군량이 바닥나자 아레우스는 군대를 이끌고 귀국했다. 절박한 모험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감행할 수 있어도, 남의 이익을 위해 경솔하게 무릅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테네인들이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자 안티고노스는 무세이온에 수비대를 들여보내 그들을 감시한다는 조건으로 아테네인들과 평화를 맺었다. 얼마 뒤 안티고노스는 스스로 아테네에서 수비대를 철수시켰다. 한편 아레우스는 아크로타토스를 낳았고, 아크로타토스는 다시 아레우스를 낳았다. 이 아레우스는 여덟 살쯤 되었을 때 병으로 죽었다.

[3.6.7] 이제 에우리스트헤네스 왕가에 남은 남자는 매우 늙은 클레오니모스의 아들 레오니다스뿐이었으므로, 라케다이몬인들은 그에게 왕위를 주었다. 레오니다스에게는 마침 리산드로스라는 몹시 적대적인 인물이 있었다. 그는 아리스토크리토스의 아들 리산드로스의 후손이었다. 이 리산드로스는 레오니다스의 사위 클레옴브로토스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였다. 그의 지지를 얻은 뒤 레오니다스에게 여러 혐의를 제기했다. 특히 레오니다스가 어린 시절 아버지 클레오니모스에게 스파르타를 망하게 하겠다고 맹세했다는 것이었다.

[3.6.8] 그리하여 레오니다스는 왕위를 잃고 클레옴브로토스가 대신 즉위했다. 레오니다스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아리스톤의 아들 데마라토스가 한 것처럼 망명하여 마케도니아

왕이나 이집트 왕에게 갔더라면, 스파르타인들이 생각을 바꾸었어도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시민들이 추방형을 선고했을 때 아르카디아로 갔다. 몇 해 지나지 않아 라케다이몬인들은 그를 그곳에서 불러들여 다시 왕으로 세웠다.

**[3.6.9]** 레오니다스의 아들 클레오메네스가 어떤 대담한 무공을 세웠는지, 또 그 뒤로 스파르타가 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 일을 나는 이미 시키온의 아라토스를 이야기하면서 밝혔다. 그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그 이야기에서 다루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7장

**[3.7.1]** 이렇게 에우리스트헤네스의 가문, 이른바 아기스 왕가에서 스파르타의 마지막 왕은 레오니다스의 아들 클레오메네스였다. 이제 다른 왕가에 관해 내가 들은 것을 이야기하겠다. 아리스토데모스의 아들 프로클레스는 자기 아들에게 수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수스의 아들 에우리폰은 대단한 명성을 얻어, 그때까지 프로클레스 왕가라고 불리던 이 집안이 그의 이름을 따서 에우리폰 왕가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3.7.2]** 에우리폰의 아들은 프리타니스였다. 라케다이몬인들이 아르고스인들과 적대하게 된 것은 그가 다스릴 때부터였다. 다만 이 분쟁 이전에도 그들은 키누리아인들과 전쟁을 벌였다. 바로 다음 두 세대에 프리타니스의 아들 에우노모스와 에우노모스의 아들 폴리덱테스가 잇달아 왕위에 있을 동안 스파르타는 평화를 누렸다.

**[3.7.3]** 그러나 폴리덱테스의 아들 카릴로스는 아르고스인들의 땅을 황폐하게 했다. 아르골리스에 쳐들어간 사람이 바로 그였다. 그로부터 몇 해 지나지 않아 스파르타인들은 카릴로스의 지휘 아래 테게아 원정을 벌였다. 라케다이몬인들은 그릇된 신탁에 이끌려 도시를 점령하고 테게아 평야를 아르카디아에서 떼어 차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3.7.4]** 카릴로스가 죽자 그의 아들 니칸드로스가 왕위를 이었다. 그의 치세에 메세니아인들은 림나스, 곧 '호수의 여신'의 성소에서 다른 왕가의 왕 텔레클로스를 살해했다. 니칸드로스도 군대를 이끌고 아르골리스에 쳐들어가 그 땅의 대부분을 황폐하게 했다. 아시네인들은 이 작전에 라케다이몬인들과 함께 참여했다가 얼마 뒤 아르고스인들에게 벌을 받았다. 아르고스인들은 그들의 고향을 크게 파괴하고 주민들을 몰아냈다.

**[3.7.5]** 니칸드로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테오폼포스에 관해서는 메세니아의 역사를 다룰 때 더 이야기하겠다. 테오폼포스가 아직 스파르타의 왕으로 있을 때, 라케다이몬인들과 아르고스인들 사이에 이른바 티레아티스 지역을 둘러싼 싸움도 벌어졌다. 테오폼포스 자신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주된 까닭은 늙은 데다 슬픔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아직 살아 있을 때 아르키다모스가 죽었던 것이다.

**[3.7.6]** 그러나 아르키다모스는 자식 없이 죽지는 않았다. 그에게는 제욱시다모스라는 아들이 있었고, 제욱시다모스의 아들 아낙시다모스가 왕위를 이었다. 그의 치세에 메세니아인들은 스파르타인들에게 두 번째로 패하여 펠로폰네소스에서 쫓겨났다. 아낙시다모스는 아르키다모스를 낳았고, 아르키다모스는 아게시클레스를 낳았다. 두 사람 모두 전쟁의 소란을 겪지 않고 평생을 평화롭게 보내는 운을 누렸다.

[3.7.7] 아게시클레스의 아들 아리스톤은 스파르타에서 가장 못생긴 처녀였다고 전해지는 여자와 혼인했다. 그녀는 헬레네가 모습을 바꾸어 주어 스파르타의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워졌다고 한다. 아리스톤은 그녀와 혼인한 지 겨우 일곱 달 만에 데마라토스라는 아들을 얻었다. 아리스톤이 에포로이들과 함께 회의에 앉아 있을 때 하인이 와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알렸다. 아리스톤은 에우리스테우스의 출생에 관한 『일리아스』의 구절을 잊었거나 애초에 이해하지 못했던지, 달수를 따져 보면 그 아이는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말했다.

[3.7.8] 그는 나중에 자기 말을 후회했다. 데마라토스는 스파르타에서 평판이 좋은 왕이었다. 특히 클레오메네스가 아테네를 페이시스트라토스의 후손들에게서 해방하는 데 힘을 보탰다. 그러나 아리스톤의 경솔함과 클레오메네스의 증오 때문에 왕위를 잃고 평민이 되었다. 그는 페르시아의 다레이오스 왕에게 갔다. 그의 후손들은 오랫동안 아시아에 머물렀다고 한다.

[3.7.9] 데마라토스 대신 왕위에 오른 레오티키데스는 아테네인들과 그들의 장군인 아리프론의 아들 크산티포스와 함께 미칼레 전투에 참여했다. 뒤에는 테살리아의 알레우아스 가문을 상대로 원정을 벌였다. 전투에서 연달아 승리하여 테살리아 전체를 굴복시킬 수 있었는데도, 그는 알레우아스 가문에게서 뇌물을 받았다.

[3.7.10] 라케다이몬에서 재판에 넘겨지자 그는 스스로 테게아로 망명하여 아테나 알레아의 성소에 몸을 의탁했다. 레오티키데스의 아들 제욱시다모스는 아버지가 살아 있고 아직 망명하기 전에 병으로 죽었다. 그래서 레오티키데스가 테게아로 떠난 뒤에는 제욱시다모스의 아들 아르키다모스가 왕위를 이었다. 이 아르키다모스는 아테네인들의 땅에 끔찍한 피해를 입혔다. 그는 해마다 군대를 이끌고 아티카에 쳐들어가 그때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파괴했다. 아테네와 우호 관계에 있던 플라타이아이도 포위하여 점령했다.

[3.7.11] 그러나 그는 펠로폰네소스인들과 아테네인들 사이에 전쟁이 선포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며, 양측의 휴전이 깨지지 않도록 힘을 다했다. 전쟁의 가장 큰 책임은 당시 에포로스였던 스파르타의 유력자 스테넬라이다스에게 있었다. 그때까지 굳게 서 있던 그리스는 이 전쟁으로 밑바탕부터 흔들렸다. 그렇게 구조가 무너져 이미 약해진 뒤에 아민타스의 아들 필리포스가 마침내 그리스를 쓰러뜨렸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8장

[3.8.1] 아르키다모스가 죽으면서 아들들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아기스가 형이었으므로 아게실라오스 대신 왕위를 물려받았다. 아르키다모스에게는 키니스카라는 딸도 있었다. 그녀는 올림피아 경기에서 성과를 거두려는 야심이 대단했다. 말들을 길러 경기에 내보낸 최초의 여성이었고 올림피아 경기에서 우승한 최초의 여성이기도 했다. 키니스카 이후로 다른 여성들, 특히 라케다이몬의 여성들이 올림피아 경기에서 우승했으나, 우승으로 그녀보다 더 이름을 떨친 여성은 없었다.

[3.8.2] 내 생각에 스파르타인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 시와 시인들의 찬사에 가장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지은이를 알 수 없는 키니스카의 명문과, 그보다 앞서 시모니데

스가 델포이에 봉헌된 세발솥에 새긴 파우사니아스의 명문을 제외하면, 라케다이몬 두 왕가의 행적을 기리는 시는 없다.

[3.8.3] 아르키다모스의 아들 아기스가 다스릴 때, 라케다이몬인들은 엘리스인들에게 여러 가지 불만을 품고 있었다. 특히 올림피아 경기와 올림피아 성소에서 배제된 데에 몹시 분개했다. 그들은 사절을 보내 레프레온과 그 밖에 엘리스인들에게 예속된 이웃 도시들에 자치권을 주라고 요구했다. 엘리스인들은 스파르타의 이웃 도시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면 자신들도 지체 없이 속국들을 해방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라케다이몬인들은 왕 아기스의 지휘 아래 엘리스 영토로 쳐들어갔다.

[3.8.4] 이때 지진이 일어났다. 군대는 올림피아와 알페이오스강까지 진격했다가 귀국했다. 이듬해 아기스는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전리품의 대부분을 가져갔다. 아기스와 개인적으로 친하고 라케다이몬의 공적인 우호 인사이기도 했던 엘리스인 크세니아스는 부유한 시민들과 함께 민중을 상대로 봉기했다. 그러나 아기스와 그 군대가 이들을 도우러 오기 전에, 당시 엘리스에서 민중파의 이익을 대변하던 트라시다이오스가 전투에서 크세니아스와 그 추종자들을 꺾어 도시 밖으로 내쫓았다.

[3.8.5] 아기스는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면서 스파르타 시민 리시스트라토스에게 병력 일부를 맡겨 엘리스 망명자들과 함께 남겨 두었다. 레프레온인들이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일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전쟁이 시작된 지 세 번째 해에 라케다이몬인들은 아기스의 지휘 아래 다시 엘리스 영토를 침공할 준비를 했다. 막다른 처지에 몰린 트라시다이오스와 엘리스인들은 이웃 도시들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고, 자기 도시의 방어 시설을 허물며, 라케다이몬인들이 올림피아에서 신에게 제사를 바치고 경기에 참가하도록 허용하는 데 동의했다.

[3.8.6] 아기스는 아티카에도 끊임없이 쳐들어갔으며, 아테네인들을 괴롭히려고 데켈레이아에 요새를 세웠다. 아이고스포타모이에서 아테네 함대가 궤멸하자, 아리스토크리토스의 아들 리산드로스와 아기스는 라케다이몬이 국가로서 신들에게 걸고 아테네에 한 맹세를 어겼다. 두 사람은 스파르타 국가의 승인 없이 독단으로 동맹국들에 아테네를 뿌리째 없애 버리자는 안을 내놓았다.

[3.8.7] 이것이 아기스의 전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일들이다. 아리스톤이 데마라토스에 관해 했던 경솔한 말을 아기스도 자기 아들 레오티키데스에 관해 했다. 어떤 악한 신령에 홀렸는지, 그는 에포로이들이 듣는 데서 레오티키데스가 자기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기스도 뒤에 뉘우쳤다. 그는 병을 앓아 아르카디아에서 들것에 실려 귀국하던 중이었다. 헤라이아에 이르자 그는 레오티키데스가 틀림없이 제 아들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는 사실을 그곳 사람들에게 증언해 달라고 했다. 또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여 이 소식을 라케다이몬인들에게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3.8.8] 아기스가 죽은 뒤 아게실라오스는 레오티키데스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는 아기스가 한때 레오티키데스에 관해 했던 말을 라케다이몬인들에게 상기시켰다. 그러나 헤라이아에서 온 아르카디아인들이 도착해 레오티키데스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그들은 죽음을 앞둔 아기스에게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밝혔다.

**[3.8.9]** 델포이에서 내려진 다음 신탁은 아게실라오스와 레오티키데스의 논쟁을 더욱 격렬하게 했다.

> 스파르타여, 조심하라. 아무리 자부심이 높아도 내가 주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라.
> 너의 성한 팔다리에서 다리 저는 왕권이 태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 그러면 너는 너무도 오랫동안 견디기 어려운 고난에 사로잡힐 것이며,
> 전쟁의 소용돌이가 일어나 그 물결로 사람들을 휩쓸 것이다.

**[3.8.10]** 레오티키데스는 이 말이 한쪽 발을 저는 아게실라오스를 가리킨다고 했다. 아게실라오스는 레오티키데스가 적법한 후계자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논란이 된 이 문제를 델포이에 다시 물을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 생각에 그 까닭은 아리스토크리토스의 아들 리산드로스가 아게실라오스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왕으로 세우려 했기 때문이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9장

**[3.9.1]** 이렇게 아르키다모스의 아들 아게실라오스가 왕이 되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함대를 이끌고 아시아로 건너가 다레이오스의 아들 아르타크세르크세스를 무너뜨리기로 했다. 여러 관리, 특히 리산드로스에게서 아테네와 전쟁할 때 함대의 급료를 댄 사람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아니라 키로스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아시아 원정을 이끌고 육군을 지휘하도록 임명된 아게실라오스는 아르고스를 제외한 펠로폰네소스 전역과 지협 북쪽의 그리스인들에게 두루 사절을 보내 동맹군을 요청했다.

**[3.9.2]** 코린토스인들은 아시아 원정에 몹시 참여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올림피아의 제우스라 불리는 신의 신전이 갑자기 불타 버린 것을 불길한 징조로 여겨, 마지못해 남았다. 아테네인들은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역병을 겪은 뒤 도시가 예전의 번영을 되찾아 가는 중이라는 이유를 댔다. 티모테오스의 아들 코논이 페르시아 왕에게 갔다는 소식이 전령을 통해 전해지자, 그들은 움직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더욱 굳혔다.

**[3.9.3]** 테바이에 파견된 사절은 아게실라오스의 외조부 아리스토멜레스였다. 그는 테바이인들과 가까운 사이였다. 플라타이아이의 성벽이 함락되었을 때, 남은 수비병들을 처형하는 데 찬성표를 던진 재판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였다. 그러나 테바이인들은 아테네인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도움도 주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아게실라오스는 라케다이몬군과 동맹군을 한데 모으고 함대도 준비되자, 아르테미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아울리스로 갔다. 아가멤논도 트로이아 원정을 이끌고 떠나기 전에 이곳에서 여신의 마음을 달랬기 때문이다.

**[3.9.4]** 아게실라오스는 자신이 아가멤논보다 더 번영하는 도시의 왕이며, 아가멤논처럼 그리스 전체의 맹주라고 주장했다. 또 아르타크세르크세스를 꺾고 페르시아의 부를 차지하는 것이 프리아모스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업적이 되리라고 했다. 그러나 그가 제사를 올리던 바로 그때 무장한 테바이인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제단에서 아직 불타고 있던 제물의 넓적다리뼈를 아래로 내던지고 그를 성소에서 쫓아냈다.

[3.9.5] 아게실라오스는 제사를 끝내지 못한 데 분개했지만, 그래도 아시아로 건너가 사르데이스를 공격했다. 당시 리디아는 아시아의 서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었다. 사르데이스는 부와 물자가 으뜸이었으므로, 수사가 왕의 거처로 지정된 것처럼 해안 지방을 다스리는 사트라페스의 거처로 지정되어 있었다.

[3.9.6] 헤르모스강 평야에서 이오니아 주변 지역을 다스리는 사트라페스 티사페르네스와 전투가 벌어졌다. 아게실라오스는 페르시아의 기병과 보병을 무찔렀다. 이때 소집된 보병의 규모를 능가한 것은 크세르크세스의 원정과, 그보다 앞서 다레이오스가 스키타이인들 및 아테네인들을 상대로 벌인 원정뿐이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아게실라오스의 활약에 감탄하여 함대의 지휘권도 그에게 맡겼다. 아게실라오스는 인척인 페이산드로스를 함대 지휘관으로 삼고, 자신은 육지에서 전쟁을 힘차게 밀고 나가는 데 전념했다.

[3.9.7] 그러나 어떤 신의 시기가 그로 하여금 계획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게 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아게실라오스가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으며 눈앞의 목표에 전념하여 군대를 이끌고 갈수록 더 깊이 들어온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티사페르네스가 예전에 세운 공로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고, 계략에 능하고 라케다이몬인들에게 원한이 있던 티트라우스테스를 해안 지방으로 보냈다.

[3.9.8] 티트라우스테스는 사르데이스에 도착하자마자 라케다이몬인들에게 아시아의 군대를 불러들이게 할 방책을 궁리했다. 로도스인 티모크라테스에게 돈을 주어 그리스로 보내면서, 그리스 안에서 라케다이몬인들에 맞서는 전쟁을 일으키라고 지시했다. 이 돈을 나누어 받은 사람은 아르고스인 킬론과 소다마스, 테바이인 안드로클레이데스와 이스메니아스와 암피테미스, 아테네인 케팔로스와 에피크라테스, 그리고 아르고스 쪽에 기운 코린토스인 폴리안테스와 티몰라오스였다고 한다.

[3.9.9] 그러나 실제로 처음 공공연히 전쟁을 시작한 이들은 암피사의 로크리스인들이었다. 마침 로크리스인들과 포키스인들 사이에는 소유권을 두고 다투던 땅이 있었다. 테바이의 이스메니아스 일파에게 부추김을 받은 로크리스인들은 그 땅에서 익은 곡식을 베고 노획물을 가져갔다. 포키스인들은 이에 맞서 모든 병력을 이끌고 로크리스로 쳐들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했다.

[3.9.10] 그러자 로크리스인들은 테바이인들을 동맹으로 끌어들여 포키스를 황폐하게 했다. 포키스인들은 라케다이몬에 가서 테바이인들을 성토하고 그들에게 당한 일을 알렸다. 라케다이몬인들은 테바이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로 했다. 그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것은 아울리스에서 제사를 드리던 아게실라오스에게 테바이인들이 보인 무례한 행동이었다.

[3.9.11] 아테네인들은 라케다이몬인들의 의도를 일찍 알아차리고 스파르타에 사절을 보냈다. 무력에 호소하기에 앞서 분쟁을 중재 재판에 맡겨 달라고 요청했으나, 라케다이몬인들은 화를 내며 사절들을 돌려보냈다. 그 뒤 라케다이몬인들이 어떻게 출정했고 리산드로스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파우사니아스를 다룬 대목에서 이미 서술했다.

[3.9.12] 이른바 코린토스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었는데, 그 시작은 라케다이몬인들의 보이오티아 원정이었다. 이 사태로 인해 아게실라오스는 아시아에서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야 했다. 그는 함대를 이끌고 아비도스에서 세스토스로 건너가 트라케를 통과한 뒤 테살리아에

이르렀다. 테살리아인들은 테바이인들의 뜻에 맞추어 그의 진군을 저지하려 했다. 그들 사이에는 아테네와 맺어 온 오랜 우호 관계도 있었다.

**[3.9.13]** 아게실라오스는 테살리아 기병을 패주시킨 뒤 테살리아를 지나 보이오티아로 진군했다. 코로네이아에서는 테바이군과 동맹군을 이겼다. 보이오티아인들이 달아나자 그 가운데 일부는 이토니아라 불리는 아테나의 성소에 몸을 숨겼다. 아게실라오스는 전투에서 입은 상처로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성소에 몸을 의탁한 자들을 해쳐 신성한 법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았다. Pausanias ′ Description of Greece

## 제10장

**[3.10.1]** 얼마 뒤 스파르타에 동조한 탓에 추방된 코린토스인들이 이스트모스 경기를 열었다. 도시에 남아 있던 코린토스인들은 아게실라오스가 두려워 그때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스파르타로 돌아가자 그들도 아르고스인들과 함께 이스트모스 경기를 거행했다. 아게실라오스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코린토스로 진군했다. 마침 히아킨티아 축제가 가까워졌으므로 아미클라이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아폴론과 히아킨토스를 위한 전통 의례를 거행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이 부대는 도중에 이피크라테스가 이끄는 아테네군의 습격을 받아 전멸했다.

**[3.10.2]** 아게실라오스는 아카르나니아인들과의 전쟁에서 곤경에 처한 아이톨리아인들을 돕기 위해 아이톨리아에도 갔다. 아카르나니아인들은 칼리돈과 그 밖의 아이톨리아 도시들을 거의 점령할 뻔했으나, 그는 그들에게 전쟁을 끝내도록 강제했다. 그 뒤에는 페르시아 왕에게 반기를 든 이집트인들을 돕기 위해 배를 타고 이집트로 갔다. 아게실라오스는 이집트에서 주목할 만한 일을 많이 해냈으나, 그때는 이미 노인이어서 행군 도중에 죽었다. 시신이 고향으로 돌아오자 라케다이몬인들은 다른 어느 왕에게도 베푼 적 없는 성대한 예를 갖추어 그를 장사 지냈다.

**[3.10.3]** 아게실라오스의 아들 아르키다모스가 다스릴 때 포키스인들은 델포이 성소를 점거했다. 그들은 테바이와의 전쟁을 위해 성소의 재물로 사설 용병들을 고용했다. 라케다이몬인들과 아테네인들도 공공연히 그들을 도왔다. 아테네인들은 포키스인들이 오래전에 베푼 은혜를 떠올렸다. 라케다이몬인들도 우호 관계를 내세웠으나, 내 생각에 실제로는 테바이인들이 미웠기 때문이다. 다마시스트라토스의 아들 테오폼포스는 아르키다모스 자신도 델포이의 재물을 나누어 받았다고 했다. 또한 아르키다모스의 아내 데이니카가 포키스의 유력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남편이 그들에게 원군을 보내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했다고 했다.

**[3.10.4]** 신에게 바친 재물을 받고 가장 이름난 신탁소를 약탈한 자들을 도운 일은 내가 칭찬할 만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다만 다음 일은 칭찬할 만하다. 포키스인들은 델포이의 장정들을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삼으며 도시 자체를 땅과 한 높이로 만들어 버린다는 잔인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었다. 델포이인들이 포키스인들의 손에서 이런 운명을 피한 것은 아르키다모스가 나서서 만류한 덕분이었다.

[3.10.5] 뒤에 아르키다모스는 타라스인들이 이웃 이민족들과 벌이는 전쟁을 돕기 위해 이탈리아로도 건너갔다. 그는 여기서 이민족들에게 죽었고, 아폴론의 노여움 때문에 시신도 묻히지 못했다. 이 아르키다모스의 맏아들 아기스는 안티파트로스와 마케도니아인들을 상대로 싸우다 죽었다. 그러나 작은아들 에우다미다스가 왕위에 있을 때에는 라케다이몬인들이 평화를 누렸다. 에우다미다스의 아들 아기스와 아기스의 아들 에우리다미다스의 이야기는 시키온을 다룬 대목에서 이미 서술했다.

[3.10.6] 헤르메스 표석들에서 오는 길에는 일대가 온통 참나무로 가득하다. 이 지역을 스코티타스, 곧 '어두운 곳'이라고 부르는 이름은 숲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스코티타스라는 별칭을 지닌 제우스에게서 나왔다. 길 왼쪽으로 약 십 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제우스 스코티타스의 성소가 있다. 성소에서 큰길로 돌아와 조금 나아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꺾으면 헤라클레스상과 전승비에 이른다. 그 전승비는 헤라클레스가 히포코온과 그의 아들들을 죽인 뒤 세웠다고 내가 들었다.

[3.10.7] 곧은 큰길에서 세 번째로 갈라지는 샛길은 오른쪽에 있으며, 카리아이와 아르테미스 성소로 이어진다. 카리아이는 '호두나무들'이라는 뜻이며, 아르테미스와 님프들에게 바쳐진 지역이다. 이곳에는 아르테미스 카리아티스의 신상이 한데에 서 있다. 라케다이몬의 처녀들은 해마다 여기서 무리를 이루어 춤을 추는데, 그 지방에 예부터 전해 오는 춤이 있다. 다시 큰길로 돌아와 걸으면 셀라시아의 폐허에 이른다. 앞서 말했듯이, 아카이아인들은 레오니다스의 아들 클레오메네스 왕이 이끄는 라케다이몬인들을 전투에서 이긴 뒤 이 도시의 주민들을 노예로 팔았다.

[3.10.8] 계속 가면 토르낙스에 닿는데, 이곳에는 아미클라이의 신상과 같은 양식으로 만든 아폴론 피타이오스의 신상이 있다. 그 모습은 아미클라이의 신상을 이야기할 때 서술하겠다. 라케다이몬인들이 보기에 아미클라이의 아폴론 숭배가 더 이름 높았다. 그래서 리디아인 크로이소스가 아폴론 피타이오스에게 보낸 금까지도 아미클라이의 신상을 꾸미는 데 썼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1장

[3.11.1] 토르낙스에서 더 나아가면 도시에 이른다. 처음에는 스파르타라고 불렸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까지 지방의 이름이었던 라케다이몬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게 되었다. 오해가 없도록 나는 아티카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차례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을 골랐다고 덧붙였다. 스파르타 시민들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말을 되풀이하겠다. 여러 공동체에 떠도는 수많은 사소한 이야기는 빼고 가장 언급할 만한 것들을 골라내는 것이 처음부터 이 저술의 방침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훌륭한 원칙을 끝내 어기지 않을 것이다.

[3.11.2] 스파르타에 사는 라케다이몬인들에게는 볼 만한 아고라가 있다. 원로회의 회의당과 에포로이, 법률 수호관들, 그리고 비디아이오이라 불리는 관리들의 관청이 모두 아고라에 있다. 원로회는 라케다이몬 정체의 최고 권한을 가진 회의체이고, 나머지 관리들은 행정을 맡는다. 에포로이와 비디아이오이는 각각 다섯 명이다. 후자가 소년들의 경연, 특히 플라

타니스타스, 곧 ‘플라타너스 숲’이라 불리는 곳의 경연을 주관하는 것이 관례다. 에포로이들은 국가의 가장 중대한 일을 처리하며, 그들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을 따서 그 해를 부른다. 아테네에서 이른바 아홉 아르콘 가운데 한 명이 누리는 특권과 같다.

**[3.11.3]** 아고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페르시아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지어 ‘페르시아 주랑’이라 불리는 건물이다.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건물을 고쳐 오늘날과 같이 크고 화려하게 만들었다. 기둥 위에는 흰 대리석으로 만든 페르시아인들의 형상이 있는데, 고브리아스의 아들 마르도니오스도 그 가운데 있다. 리그다미스의 딸이자 할리카르나소스의 여왕인 아르테미시아의 형상도 있다. 그녀는 자원하여 크세르크세스의 그리스 원정에 참여했으며, 살라미스 앞바다에서 벌어진 해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한다.

**[3.11.4]** 아고라에는 신전들도 있다. 하나는 로마인 가운데 처음으로 군주정을 탐내고 오늘날의 정체에서 첫 황제가 된 카이사르의 신전이고, 또 하나는 그의 아들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다. 아우구스투스는 제정을 더욱 굳건히 다졌으며, 아버지보다 더 이름 높고 강력한 인물이 되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그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존엄한 이’, 곧 세바스토스라는 뜻이다.

**[3.11.5]** 아우구스투스의 제단 곁에서는 아기아스의 청동상을 보여 준다. 이 아기아스는 리산드로스를 위해 점을 쳐서 아이고스포타모이에서 군함 열 척을 제외한 아테네 함대 전부를 사로잡게 했다고 한다. 그 열 척은 키프로스로 달아났으며, 나머지는 모두 라케다이몬인들이 선원들과 함께 사로잡았다. 아기아스는 아겔로코스의 아들이자 티사메노스의 손자였다.

**[3.11.6]** 티사메노스는 엘리스의 이아모스 가문에 속했다. 그에게는 크게 이름날 다섯 번의 겨룸에서 이기리라는 신탁이 내려졌다. 그래서 그는 올림피아 오종 경기를 위해 훈련했으나 패하여 돌아왔다. 그럼에도 두 종목에서는 일등을 했다. 달리기와 도약에서 안드로스의 히에로니모스를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상대에게 씨름에서 져 우승을 놓치자 신탁의 뜻을 깨달았다. 신이 그에게 허락한 것은 점술로 다섯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일이었다.

**[3.11.7]** 라케다이몬인들은 피티아 여사제가 티사메노스에게 내린 신탁을 듣고, 엘리스를 떠나 스파르타로 이주하여 국가의 점술가가 되어 달라고 설득했다. 티사메노스는 그들에게 다섯 차례의 전투에서 승리를 안겼다. 첫 번째는 페르시아인들을 상대로 한 플라타이아이 전투였다. 두 번째는 라케다이몬인들이 테게아인들과 아르고스인들을 상대로 싸운 테게아 전투였다. 세 번째는 마이날리아에 있는 아르카디아 도시 디파이아에서였다. 그때에는 만티네이아인들을 제외한 모든 아르카디아인이 그들을 상대로 진을 쳤다.

**[3.11.8]** 네 번째 싸움의 상대는 반란을 일으키고 지협을 떠나 이토메로 간 헤일로타이였다. 반란을 일으킨 것은 헤일로타이 전부가 아니라, 옛 헤일로타이에게서 떨어져 나온 메세니아계 사람들뿐이었다. 이 사건들은 곧 이야기하겠다. 내가 말하는 그때 라케다이몬인들은 티사메노스의 조언과 델포이의 신탁에 따라, 반란을 일으킨 이들이 협정을 맺고 떠나도록 허락했다. 티사메노스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 점을 친 것은 타나그라에서 아르고스인들과 아테네인들을 상대로 전투가 벌어졌을 때였다.

**[3.11.9]** 내가 들은 티사메노스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스파르타인들의 아고라에는 아폴론 피타이오스와 아르테미스와 레토의 신상이 있다. 이 일대는 모두 코로스, 곧 '춤추는 곳'이라 불린다. 라케다이몬인들이 어느 축제보다 중하게 여기는 김노파이디아이 때 소년들이 이곳에서 아폴론을 기리며 춤을 추기 때문이다. 그 신상들에서 멀지 않은 곳에 대지의 여신과 아고라의 제우스의 성소가 있고, 아고라의 아테나와 아스팔리오스, 곧 '안전을 지키는 이'라는 별칭의 포세이돈의 성소, 그리고 아폴론과 헤라의 성소도 있다.

**[3.11.10]** 스파르타의 데모스, 곧 민중을 형상화한 거대한 상도 봉헌되어 있다. 라케다이몬인들에게는 운명의 여신들인 모이라이의 성소도 있다. 그 곁에는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의 무덤이 있다. 신탁에 따라 테게아에서 오레스테스의 뼈를 가져왔을 때 이곳에 묻었기 때문이다. 오레스테스의 무덤 옆에는 알카메네스의 아들 폴리도로스의 상이 있다. 이 왕은 그토록 큰 존경을 받았으므로, 관리들은 인장을 찍어야 하는 모든 것에 그의 얼굴이 새겨진 인장을 찍는다.

**[3.11.11]** 어린 디오니소스를 안고 있는 아고라의 헤르메스상도 있다. 그 곁에는 이른바 옛 에포로이 관청이 있는데, 그 안에는 크레타인 에피메니데스와 페리에레스의 아들 아파레우스의 무덤이 있다. 에피메니데스에 관해서는 아르고스인들의 이야기보다 라케다이몬인들의 이야기가 더 그럴듯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모이라이의 성소가 있는 이곳에 라케다이몬인들은 헤스티아의 성소도 두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제우스 크세니오스와 환대의 아테나도 이곳에 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2장

**[3.12.1]** 아고라에서 그들이 아페타이스 길이라 부르는 길로 가면 이른바 보오네타에 이른다. 그러나 우선 이 길이 그런 이름을 얻은 까닭부터 밝히겠다. 이카리오스가 페넬로페의 구혼자들에게 달리기 경주를 제안했다고 한다. 오디세우스가 이긴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사람들은 경주자들이 아페타이스 길을 따라 달리도록 출발시켰다(아페테나이)고 한다.

**[3.12.2]** 내가 보기에는 이카리오스가 달리기 경주를 열면서 다나오스를 본뜬 듯하다. 다나오스는 자기 딸들을 둘러싼 곤란을 해결하려고 다음과 같은 방책을 생각해 냈다. 딸들이 죄로 몸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누구도 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다나오스는 신랑에게 혼인 예물을 받지 않고 딸들을 내주며, 구혼자 각자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딸을 골라도 된다고 두루 알렸다. 몇 사람이 찾아오자 그들을 달리기 경주에 붙였다. 맨 먼저 들어온 사람이 누구보다 먼저 고르고, 그다음은 둘째로 들어온 사람, 그렇게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골랐다. 남은 딸들은 다른 구혼자들이 찾아와 또 한 번 달리기 경주를 벌일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3.12.3]** 앞서 말한 대로 이 길에는 라케다이몬인들이 '보오네타', 곧 '소를 주고 산 집'이라 부르는 곳이 있다. 예전에는 왕 폴리도로스의 집이었다. 그가 죽자 라케다이몬인들은 그의 미망인에게 소를 값으로 주고 집을 샀다. 당시에는 아직 은화도 금화도 없었으므로, 옛 방식대로 소와 노예, 주화로 만들지 않은 은과 금으로 물건을 바꾸었다.

**[3.12.4]** 인도로 항해하는 이들은 그곳 주민들이 그리스에서 실어 간 물건에 다른 상품을 주고 교환한다고 말한다. 금과 청동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화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디아이오이의 관청 맞은편에는 아테나의 성소가 있다. 오디세우스가 페넬로페의 구혼자들을 달리기에서 이긴 뒤 그 신상을 세우고 켈레우테아, 곧 '길의 여신'이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그는 서로 얼마간 떨어진 곳에 켈레우테아의 성소 세 곳을 세웠다.

**[3.12.5]** 아페타이스 길을 따라 더 가면 이옵스와 오이클레스의 아들 암피아라오스의 영웅 사당이 있다. 이옵스는 렐렉스나 뮐레스 시대에 태어났다고 여겨진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암피아라오스가 틴다레오스의 아들들과 사촌이므로, 그들이 그의 사당을 세웠으리라고 생각한다. 렐렉스 자신의 영웅 사당도 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는 타이나론의 포세이돈에게 바쳐진 성역이 있다. 타이나론은 이곳에서 포세이돈에게 붙이는 별칭이다.

**[3.12.6]** 가까운 곳에는 아테나상이 있다. 이탈리아의 타라스로 떠난 이주민들이 봉헌했다고 한다. 헬레니온이라 불리는 곳에서는 크세르크세스가 유럽으로 건너올 때 이에 맞설 준비를 하던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를 의논했다고 전해진다. 다른 이야기에서는 메넬라오스의 뜻을 들어주려고 트로이아로 원정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배를 타고 트로이아로 가서 헬레네를 데려간 알렉산드로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지 이곳에서 의논했다고 한다.

**[3.12.7]** 헬레니온 가까이에서 사람들은 탈티비오스의 무덤을 가리켜 보여 준다. 아이기온의 아카이아인들도 자기들의 아고라에서 보여 주는 무덤 하나가 탈티비오스의 것이라고 말한다. 다레이오스 왕이 흙과 물을 요구하려고 그리스에 보낸 사절들이 살해되었을 때, 노여움을 드러낸 이가 바로 이 탈티비오스였다. 그 노여움의 자취는 라케다이몬인들의 국가 전체에 남았으나 아테네에서는 몇몇 개인들, 곧 키몬의 아들 밀티아데스 한 사람의 집안에 내렸다. 아티카에 온 사절들이 아테네인들의 손에 죽은 일의 책임은 밀티아데스에게 있었다.

**[3.12.8]** 라케다이몬인들에게는 아폴론 아크리타스의 제단과 가셉톤이라 불리는 대지 여신의 성소가 있다. 그 위쪽에는 말레아의 아폴론상이 세워져 있다. 아페타이스 길 끝, 성벽 바로 옆에는 딕틴나의 성소와 이른바 에우리폰 왕가의 왕릉들이 있다. 헬레니온 옆에는 아르시노에의 성소가 있다. 그녀는 레우키포스의 딸이며 폴리데우케스와 카스토르의 아내들과 자매였다. 프루리아, 곧 '요새들'이라 불리는 곳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고, 조금 더 가면 엘리스에서 온 이른바 이아모스 가문의 점술가들을 위해 지은 무덤이 있다.

**[3.12.9]** 마론과 알페이오스의 성소도 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테르모필라이 전투에 나선 자기 나라 사람들 가운데 레오니다스 다음으로 이 두 사람이 싸움에서 가장 뛰어난 공을 세웠다고 여긴다. 트로파이오스, 곧 '적을 패주시키는 이'라는 별칭을 지닌 제우스의 성소는 도리아인들이 아미클라이인들과 당시 라코니아에 살던 나머지 아카이아인들을 전쟁에서 꺾고 세웠다. 위대한 어머니 여신의 성소에는 특별히 큰 공경이 바쳐진다. 그곳을 지나면 테세우스의 아들 히폴리토스와 아르카디아인 틀레시메네스의 아들 아울론의 영웅 사당이 있다. 틀레시메네스를 멜라니온의 아들 파르테노파이오스의 형제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들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다.

**[3.12.10]** 아고라에서 나가는 또 다른 길에는 스키아스, 곧 '덮개'라 불리는 건물이 세워져 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여기서 민회를 연다. 이 건물은 철을 녹여 상을 주조하는 법을 발견한 사모스의 테오도로스가 만들었다고 한다. 라케다이몬인들은 밀레토스인 티모테오스의 키타라를 여기에 걸어 두었다. 그가 옛 일곱 줄에 네 줄을 더해 연주법을 바꾼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뜻이었다.

**[3.12.11]** 스키아스 곁에는 둥근 건물이 있다. 그 안에는 올림피오스라는 별칭의 제우스와 올림피아라는 별칭의 아프로디테의 신상이 있다. 사람들은 이것을 에피메니데스가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그에 관한 라케다이몬인들의 전승은 아르고스인들의 이야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자신들이 크노소스인들과 싸운 적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3장

**[3.13.1]** 바로 가까이에 아미클라스의 아들 키노르타스의 무덤과 카스토르의 무덤이 있다. 카스토르의 무덤 위에는 성소도 지어 놓았다. 틴다레오스의 아들들에게 신에게 바치는 예를 올리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이다스와 린케우스와 싸운 뒤 사십 년째가 되어서였다고 한다. 스키아스 곁에서는 이다스와 린케우스의 무덤도 보여 준다. 그런데 그들의 행적을 생각하면 두 사람이 이곳보다는 메세니아에 묻혔다고 보는 편이 가장 잘 들어맞는다.

**[3.13.2]** 그러나 메세니아인들은 재난을 겪고 오랫동안 펠로폰네소스 밖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 그 탓에 귀환한 뒤에도 그들의 옛 역사 가운데 많은 부분이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그들이 자기들의 옛일을 잘 모르는 까닭에, 누구든 그들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다. 올림피아의 아프로디테상 맞은편에는 라케다이몬인들의 구원자 코레 신전이 있다. 트라케인 오르페우스가 세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바리스가 히페르보레오이의 땅에서 온 뒤에 세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3.13.3]** 그들이 '오이케타스', 곧 '집안의 신'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카르네이오스는 헤라클레스의 후손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스파르타에서 공경을 받았다. 그가 모셔진 곳은 테오클레스의 아들인 점술가 크리오스의 집이었다. 크리오스라는 이름은 '숫양'이라는 뜻이다. 이 크리오스의 딸이 물동이에 물을 채우고 있을 때 도리아인들의 척후들이 그녀와 마주쳤다. 그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크리오스를 찾아가 어떻게 스파르타를 점령할 수 있는지 그에게서 알아냈다.

**[3.13.4]** 모든 도리아인이 아폴론 카르네이오스를 숭배하게 된 것은 아카르나니아 태생의 카르노스 이래로 이어져 온 일이다. 카르노스는 아폴론의 점술가였다. 필라스의 아들 히포테스가 그를 죽이자 아폴론의 노여움이 도리아인들의 진영에 내렸다. 히포테스는 살인의 죄로 추방되었다. 그때부터 이 아카르나니아 점술가의 노여움을 달래는 일이 도리아인들의 관습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 카르노스는 라케다이몬인들이 집안의 신이라 부르는 카르네이오스와는 다른 존재다. 라케다이몬의 카르네이오스는 아카이아인들이 아직 스파르타를 차지하고 있을 때 점술가 크리오스의 집에서 숭배되었다.

**[3.13.5]** 여류 시인 프락실라는 카르네이오스를 에우로페와 제우스의 아들이라 하고, 아폴론과 레토가 그를 길렀다고 했다. 이 이름의 유래에 관해서는 다른 이야기도 있다. 트로이아의 이다산에서 아폴론에게 바쳐진 숲에 층층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그리스인들은 목마를 만들려고 그 나무들을 베었다. 신이 자신들에게 노여워한다는 것을 알자 그들은 제사를 드려 그의 마음을 달랬으며, 층층나무를 뜻하는 크라네이아에서 아폴론 카르네이오스라는 이름을 지었다. 옛날에 흔했던 관습에 따라 '르'와 '아'의 자리를 서로 바꾼 것이다.

**[3.13.6]** 카르네이오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이른바 아페타이오스의 신상이 있다. 사람들은 이곳이 페넬로페의 구혼자들이 달리기 경주를 시작한 곳이라고 한다. 또 주랑들이 사각형을 이루는 곳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았다. 그 곁에는 '조언자'인 제우스 암불리오스와 아테나 암불리아의 제단이 있으며, 디오스쿠로이에게도 같은 '조언자'라는 별칭을 붙여 제단을 바쳤다.

**[3.13.7]** 맞은편은 이른바 콜로나로, 디오니소스 콜로나타스의 신전이 있다. 그 옆에는 디오니소스가 스파르타로 가는 길을 안내했다고 전해지는 영웅의 성역이 있다. '디오니소스의 딸들'과 '레우키포스의 딸들'은 신에게 제사를 올리기에 앞서 이 영웅에게 먼저 제사를 드린다. 디오니시아데스, 곧 '디오니소스의 딸들'이라 불리는 나머지 열한 여인을 위해서는 달리기 경주를 연다. 이 관습은 델포이에서 스파르타로 들어왔다.

**[3.13.8]** 디오니소스 신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제우스 에우아네모스, 곧 '순풍의 제우스'의 성소가 있다. 그 오른쪽에는 플레우론의 영웅 사당이 있다. 틴다레오스의 아들들은 어머니 쪽으로 플레우론의 후손이었다. 시인 아시오스가 레다의 아버지 테스티오스는 아게노르의 아들이고, 아게노르는 플레우론의 아들이라고 노래했기 때문이다. 영웅 사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언덕이 있고, 그 위에는 아르고스의 헤라 신전이 있다. 라케다이몬의 딸이자 아바스의 아들 아크리시오스의 아내인 에우리디케가 세웠다고 한다. 에우로타스강이 범람하여 이 땅의 넓은 부분을 덮쳤을 때에는, 신탁에 따라 헤라 히페르케이리아, 곧 '손을 위에 얹는 여신'의 성소를 지었다.

**[3.13.9]** 그들은 오래된 목조 신상 하나를 아프로디테 헤라라고 부른다. 어머니는 딸이 혼인할 때 이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관례다. 언덕 오른쪽으로 난 길에는 헤토이모클레스의 상이 있다. 헤토이모클레스와 그의 아버지 히포스테네스는 둘 다 올림피아 경기의 씨름에서 우승했다. 두 사람이 합쳐 열한 번 이겼는데, 히포스테네스가 아들보다 한 번 더 이겼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4장

**[3.14.1]** 아고라에서 서쪽으로 가면 텔리스의 아들 브라시다스의 빈 무덤이 있다. 멀지 않은 곳에는 흰 대리석으로 지은 극장이 있는데, 볼 만하다. 극장 맞은편에는 두 무덤이 있다. 하나는 플라타이아이에서 군대를 지휘한 파우사니아스의 무덤이고, 다른 하나는 레오니다스의 무덤이다. 사람들은 해마다 그들의 무덤 앞에서 추도 연설을 하고, 스파르타인만 참가할 수 있는 경기를 연다. 레오니다스의 뼈는 전투가 끝난 지 사십 년 뒤에 파우사니아스

가 테르모필라이에서 가져왔다. 이곳에는 테르모필라이에서 페르시아인들과 끝까지 싸운 사람들의 이름과 그 아버지들의 이름을 새긴 비석이 세워져 있다.

**[3.14.2]** 스파르타에는 테오멜리다라는 곳이 있다. 이 구역에 아기스 왕가의 왕릉들이 있으며, 가까이에는 크로타니인들의 회관이라 불리는 건물이 있다. 크로타니인들은 피타네 사람들의 한 분파다. 회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아기스 왕가의 터에 있는 성소'라고 불리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소가 있다. 더 가면 타이나로스의 무덤이 있다. 바다로 뻗은 곶의 이름이 그의 이름에서 나왔다고 한다. 여기에 말을 돌보는 포세이돈 히포쿠리오스와 아르테미스 아이기나이아의 성소가 있다. 회관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아르테미스 이소리아의 성소가 보인다. 사람들은 이 여신을 림나이아라고도 부르지만, 실은 아르테미스가 아니라 크레타의 브리토마르티스다. 그녀에 관해서는 아이기나를 다룬 대목에서 이야기했다.

**[3.14.3]** 아기스 왕가를 위해 지은 무덤들 바로 가까이에 비석 하나가 보인다. 라케다이몬인 키오니스가 올림피아와 그 밖의 곳에서 달리기 경주에 우승한 기록을 새긴 비석이다. 그는 올림피아에서 일곱 번 우승했다. 한 스타디온을 달리는 경주에서 네 번, 두 스타디온을 달리는 경주에서 세 번이었다. 경기 맨 끝에 열리는 방패를 들고 달리는 경주는 그때에는 아직 종목에 들어 있지 않았다. 키오니스는 테라 출신 바토스의 원정에도 참여하여, 그가 키레네를 세우고 이웃 리비아인들을 굴복시키는 데 힘을 보탰다고 한다.

**[3.14.4]** 테티스의 성소는 다음과 같은 까닭으로 세웠다고 한다. 라케다이몬인들은 반란을 일으킨 메세니아인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의 왕 아낙산드로스는 메세니아를 침공하여 여자 몇 명을 사로잡았는데, 그 가운데 테티스의 여사제 클레오가 있었다. 아낙산드로스의 아내는 남편에게 클레오를 자기에게 달라고 청했다. 클레오에게 테티스의 목조 신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녀와 함께 여신의 신전을 세웠다. 레안드리스가 이렇게 한 것은 꿈에서 본 환영 때문이었다.

**[3.14.5]** 테티스의 목조 신상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보관한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지하 세계의 데메테르 크토니아를 섬기는 법을 오르페우스에게서 전해 받았다고 한다. 내 생각에는 헤르미오네의 성소 때문에 라케다이몬인들도 데메테르 크토니아를 숭배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스파르타에는 세라피스의 성소도 있는데 도시에서 가장 최근에 지은 성소다. 올림피오스라는 별칭의 제우스 성소도 있다.

**[3.14.6]** 라케다이몬인들은 젊은이들이 오늘날까지도 달리기를 연습하는 곳을 드로모스, 곧 '달리기 터'라 부른다. 아기스 왕가의 무덤에서 드로모스로 가다 보면 왼쪽에 에우메데스의 무덤과 오래된 헤라클레스상이 보인다. 이 에우메데스는 히포코온의 아들 가운데 하나였다. 헤라클레스상에는 스파이레이스가 제사를 바친다. 이들은 소년기를 벗어나 막 성년이 되어 가는 이들이다. 드로모스에는 체육장이 두 곳 있는데, 그중 하나는 스파르타인 에우리클레스가 봉헌했다. 드로모스 바깥에서 헤라클레스상을 마주 보는 집은 지금은 어느 개인의 소유이지만 옛날에는 메넬라오스의 집이었다. 드로모스에서 더 떨어진 곳에는 디오스쿠로이, 카리테스, 에일레이티이아, 아폴론 카르네이오스, 그리고 길을 이끄는 아르테미스의 성소가 있다.

[3.14.7] 드로모스 오른편에는 아그니타스의 성소가 세워져 있다. 아그니타스는 아스클레피오스의 별칭이다. 이 신의 목조 신상이 아그노스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아그노스는 가시나무를 닮은 버드나무의 일종이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전승비가 서 있다. 폴리데우케스가 린케우스를 이기고 세웠다고 한다. 이 전승비는 아파레우스의 아들들이 스파르타에 묻히지 않았다는 내 말을 뒷받침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다. 드로모스가 시작되는 곳에는 출발을 맡는 디오스쿠로이 아페테리오이가 있고, 조금 더 가면 알콘의 영웅 사당이 있다. 알콘은 히포코온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그의 사당 옆에는 포세이돈의 성소가 있다. 사람들은 이 포세이돈을 도마티테스, 곧 '집의 신'이라고 부른다.

[3.14.8] 또 키 큰 플라타너스가 끊임없이 둘러서 있어 플라타니스타스라 불리는 곳이 있다. 젊은이들이 관례에 따라 싸움을 겨루는 곳으로, 바다에 뜬 섬처럼 도랑이 둘러싸고 있어 다리로 들어간다. 두 다리에는 각각 상이 서 있다. 한쪽에는 헤라클레스상이, 다른 쪽에는 리쿠르고스의 상이 있다. 리쿠르고스가 나라의 정체를 위해 정한 법 가운데에는 젊은이들의 싸움을 규정하는 법도 있다.

[3.14.9] 젊은이들이 행하는 다른 일들도 이제 이야기하겠다. 그들은 싸우기 전에 시외의 포이바이온에서 제사를 지낸다. 테라프네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여기서 젊은이들의 각 편은 에니알리오스에게 강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친다. 길들인 짐승 가운데 가장 용맹한 것을 신들 가운데 가장 용맹한 이에게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한, 그리스인 가운데 강아지를 제물로 바치는 관습을 가진 곳은 콜로폰뿐이다. 그곳 사람들도 길가의 여신 에노디아에게 검은 암강아지를 바친다. 콜로폰인들의 제사와 스파르타 젊은이들의 제사는 모두 밤에 지내도록 정해져 있다.

[3.14.10] 제사를 지내면서 젊은이들은 싸우도록 길들인 멧돼지들을 맞붙인다. 대개 멧돼지가 이긴 편이 플라타니스타스에서도 승리한다. 포이바이온에서 하는 일은 이러하다. 이튿날 정오가 조금 못 된 때에 그들은 다리를 건너 내가 말한 곳으로 들어간다. 밤사이에 제비를 뽑아 어느 편이 어느 입구로 들어갈지를 정한다. 싸울 때에는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서로 물어뜯고 상대의 눈을 후벼 판다. 일대일로 붙으면 내가 말한 대로 싸우고, 뒤엉켜 싸울 때에는 사납게 돌진하여 서로를 물속에 밀어 넣는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5장

[3.15.1] 플라타니스타스에는 스파르타 왕 아르키다모스의 딸 키니스카의 영웅 사당도 있다. 그녀는 말들을 길러 경기에 내보낸 최초의 여성이었고, 올림피아 전차 경주에서 우승한 최초의 여성이었다. 플라타니스타스 곁에 세운 주랑 뒤에는 알키모스와 에나라이포로스의 영웅 사당이 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도르케우스의 사당이 있고, 그 바로 옆에는 세브로스의 사당이 있다.

[3.15.2] 이들은 히포코온의 아들들이라고 한다. 도르케우스의 영웅 사당에 가까운 샘은 그의 이름을 따서 도르케이아라 하고, 세브리온이라는 곳은 세브로스의 이름을 따서 부른다. 세브리온 오른편에는 서정시인 알크만의 무덤이 있다. 그의 작품은 방언 가운데 가장 음악성이 떨어지는 라코니아 방언으로 쓰였지만, 그 탓에 매력이 조금도 줄지 않았다.

**[3.15.3]** 헬레네와 헤라클레스의 성소도 있다. 헬레네의 성소는 알크만의 무덤 가까이에 있다. 헤라클레스의 성소는 성벽 바로 옆에 있으며, 안에는 무장한 헤라클레스상이 있다. 신상의 자세는 히포코온과 그의 아들들을 상대로 벌인 싸움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헤라클레스가 히포코온 집안에 원한을 품게 된 것은 이피토스가 죽은 뒤 정결례를 받으러 스파르타에 왔을 때 그들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3.15.4]** 다음 사건도 불화가 시작되는 데 한몫했다. 헤라클레스의 어린 사촌 오이오노스가 헤라클레스와 함께 스파르타에 와서 도시를 둘러보았다. 그는 알크메네의 오라비 리킴니오스의 아들이었다. 그가 히포코온의 집에 이르렀을 때 집에서 기르던 개가 달려들었다. 오이오노스가 던진 돌에 개가 맞아 쓰러지자, 히포코온의 아들들이 뛰쳐나와 몽둥이로 오이오노스를 때려 죽였다.

**[3.15.5]** 이 일로 헤라클레스는 히포코온과 그의 아들들에게 몹시 분노했다. 그는 화가 난 채 곧장 그들과 싸우러 나갔다. 이때는 상처를 입고 몰래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뒤에 그는 스파르타를 치러 와서 히포코온에게 복수했고, 오이오노스를 죽인 히포코온의 아들들에게도 복수했다. 오이오노스의 무덤은 헤라클레스 성소 곁에 세워져 있다.

**[3.15.6]** 드로모스에서 동쪽으로 가면 오른편에 샛길이 있고, 그곳에 악시오포이노스, 곧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여신'이라 불리는 아테나의 성소가 있다. 헤라클레스는 히포코온과 그의 아들들에게 복수하여 그들이 자기 친족에게 한 짓의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한 뒤, 아테나 성소를 세우고 여신에게 악시오포이노스라는 별칭을 붙였다. 옛사람들은 복수를 포이나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드로모스에서 나가는 다른 길에도 아테나 성소가 하나 있다. 아우테시온의 아들이자 티사메노스의 손자이며 테르산드로스의 증손인 테라스가 이 주민을 이끌고 섬으로 갈 때 봉헌했다고 한다. 그 섬은 옛날에 칼리스테, 곧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 불렸으나 지금은 그의 이름을 따서 테라라고 부른다.

**[3.15.7]** 가까이에는 씨름에서 그토록 많은 승리를 거둔 히포스테네스의 신전이 있다. 사람들은 신탁에 따라 히포스테네스를 숭배하며 포세이돈에게 바치는 것과 같은 영예를 그에게 바친다. 이 신전 맞은편에는 족쇄가 채워진 에니알리오스의 오래된 신상이 있다. 라케다이몬인들이 이 신상에 담은 생각은 아테네인들이 날개 없는 승리의 여신상에 담은 생각과 같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에니알리오스가 족쇄에 묶여 있으므로 자신들에게서 결코 달아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아테네인들은 승리의 여신에게 날개가 없으므로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으리라 생각한다. 두 도시는 이런 믿음으로 그 목조 신상들을 세웠다.

**[3.15.8]** 스파르타에는 포이킬레, 곧 '그림이 있는 회관'이라는 곳이 있다. 그 곁에는 아게노르의 아들 카드모스와 그의 후손인 테라스의 아들 오이올리코스, 그리고 오이올리코스의 아들 아이게우스의 영웅 사당이 있다. 아이게우스의 아들 히라이오스에게서 태어난 마이시스와 라이아스와 에우로파스가 이 사당들을 지었다고 한다. 그들은 암필로코스의 영웅 사당도 지었다. 그들의 조상 티사메노스의 어머니 데모나사가 암필로코스의 누이였기 때문이다.

**[3.15.9]** 그리스인 가운데 헤라를 '염소를 먹는 여신'이라 부르고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은 라케다이몬인들뿐이다. 헤라클레스가 이 성소를 세우고 처음으로 염소를 바쳤다

고 한다. 그는 다른 모험에서는 헤라 여신이 자신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지만, 히포코온과 그의 자식들을 상대로 싸울 때에는 여신에게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종류의 제물을 구할 수 없어 염소를 바쳤다고 한다.

**[3.15.10]** 극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혈족을 지키는 포세이돈 게네틀리오스의 성소가 있다. 힐로스의 아들 클레오다이오스와 오이발로스의 영웅 사당도 있다. 아스클레피오스 성소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보오네타 가까이에 세웠으며, 그 왼편에는 텔레클로스의 영웅 사당이 있다. 텔레클로스는 뒤에 메세니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다시 언급하겠다. 조금 더 가면 작은 언덕이 있고, 그 위의 옛 신전에는 무장한 아프로디테의 목조 신상이 있다. 내가 아는 신전 가운데 위층이 세워진 곳은 이 신전 하나뿐이다. 그 위층은 모르포의 성소다.

**[3.15.11]** 모르포는 아프로디테의 별칭이다. 여신은 베일을 쓰고 발에 족쇄를 찬 채 앉아 있다. 틴다레오스가 여신에게 족쇄를 채워 아내가 남편에게 지키는 정절을 나타냈다고 한다. 또 틴다레오스가 자기 딸들이 당한 치욕이 아프로디테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여 여신에게 족쇄를 채워 벌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삼나무로 형상을 만들어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여신을 벌할 수 있으리라 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6장

**[3.16.1]** 가까이에 힐라에이라와 포이베의 성소가 있다. 서사시 『키프리아』를 지은 이는 두 여신을 아폴론의 딸이라 부른다. 그들의 여사제는 어린 처녀들인데, 여신들과 마찬가지로 레우키피데스, 곧 '레우키포스의 딸들'이라 불린다. 두 여신을 섬기던 한 여사제가 신상 하나를 꾸미면서 옛 얼굴을 떼고 당시의 양식으로 만든 새 얼굴을 붙였다. 다른 신상도 꾸미려 했으나 꿈에서 금지하는 계시를 받았다. 이곳에는 천장에 리본으로 묶어 매달아 놓은 알이 하나 있다. 전설에서 레다가 낳았다고 하는 바로 그 유명한 알이라고 한다.

**[3.16.2]** 여자들은 해마다 아미클라이의 아폴론에게 바칠 옷을 짠다. 그들은 베를 짜는 방을 키톤, 곧 '옷'이라 부른다. 그 가까이에 집 한 채가 있는데, 처음에는 틴다레오스의 아들들이 살았다고 하며 뒤에 스파르타인 포르미온의 소유가 되었다. 디오스쿠로이는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를 찾아왔다. 자신들이 키레네에서 왔다며 하룻밤 묵게 해 달라고 청했고, 사람들 사이에 살던 때에 가장 마음에 들어 했던 방을 달라고 했다.

**[3.16.3]** 포르미온은 그 방을 빼고 집 안 어디든 원하는 곳에서 묵어도 좋다고 대답했다. 마침 결혼하지 않은 그의 딸이 그 방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튿날 그 처녀와 그녀가 쓰던 물건들이 모두 사라졌다. 방 안에서는 디오스쿠로이의 신상과 탁자 하나가 발견되었고, 탁자 위에는 실피온이 놓여 있었다.

**[3.16.4]** 전해 오는 이야기는 이렇다. 키톤에서 성문 쪽으로 가면 일곱 현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킬론의 영웅 사당이 있고, 아낙산드리데스의 아들 도리에우스와 함께 시켈리아로 떠난 사람 가운데 하나인 아테노도로스의 영웅 사당도 있다. 이들이 떠난 것은 에릭스 지방이 당시 그곳을 차지한 이민족의 땅이 아니라 헤라클레스의 후손들에게 속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전하는 말로는 헤라클레스가 에릭스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씨름했다고 한다.

헤라클레스가 이기면 에릭스의 땅을 차지하고, 지면 에릭스가 게리오네스의 소들을 끌고 가기로 했다.

**[3.16.5]** 그때 헤라클레스는 이 소들을 몰고 가던 중이었다. 소들이 헤엄쳐 시켈리아로 건너가자, 그도 소들을 찾아 '굽은 올리브나무' 가까이에서 바다를 건넜다. 신들은 훗날의 도리에우스보다 헤라클레스에게 더 호의를 베풀었다. 헤라클레스는 에릭스를 죽였으나, 아낙산드리데스의 아들 도리에우스는 자신도 죽고 군대의 대부분도 에게스타인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3.16.6]** 라케다이몬인들은 법을 만든 리쿠르고스에게도 성소를 세워 주고 그를 신으로 여겼다. 신전 뒤에는 리쿠르고스의 아들 에우코스모스의 무덤이 있고, 제단 곁에는 라트리아와 아낙산드라의 무덤이 있다. 이 두 여인은 쌍둥이였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쌍둥이인 아리스토데모스의 아들들이 그들을 아내로 맞았다. 그들은 클레오나이인들의 왕 테르산드로스의 딸이었다. 테르산드로스는 아가메디다스의 아들이며, 헤라클레스의 아들 크테시포스의 증손이었다. 신전 맞은편에는 니칸드로스의 아들 테오폼포스의 무덤과 에우리비아데스의 무덤이 있다. 에우리비아데스는 아르테미시온과 살라미스에서 페르시아인들과 싸운 라케다이몬 군함들의 지휘관이었다. 가까이에는 아스트라바코스의 영웅 사당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3.16.7]** 림나이온, 곧 '늪지'라 불리는 곳은 아르테미스 오르테이아에게 바쳐져 있다. 그곳의 목조 신상은 옛날 오레스테스와 이피게네이아가 타우리스 땅에서 훔쳐 온 것이라고 한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오레스테스가 자기들의 땅에서도 왕이었으므로 그 신상을 이곳으로 가져왔다고 말한다. 내게는 이 이야기가 아테네인들의 이야기보다 그럴듯하게 들린다. 무엇 때문에 이피게네이아가 그 신상을 브라우론에 남겨 두었겠는가? 또 아테네인들이 자기 땅을 버리고 떠날 준비를 할 때 어째서 배에 싣는 물건들에 이 신상을 넣지 않았겠는가?

**[3.16.8]** 타우리스 여신의 명성은 오늘날까지도 매우 높다. 흑해 연안에 사는 카파도키아인들은 자기들에게 그 신상이 있다고 주장한다. 아르테미스 아나이티스의 성소를 가진 리디아인들도 같은 주장을 한다. 그런데 아테네인들의 말을 믿자면, 그들은 이 신상이 페르시아인들의 전리품이 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셈이다. 브라우론의 신상은 수사로 옮겨졌고, 뒤에 셀레우코스가 라오디케이아의 시리아인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

**[3.16.9]** 라케다이몬의 오르티아가 이민족의 땅에서 가져온 목조 신상이라는 증거를 더 들겠다. 먼저 아스트라바코스와 알로페코스가 그 신상을 발견하고 곧바로 미쳐 버렸다. 두 사람은 이르보스의 아들들이며, 이르보스는 암피스테네스의 아들, 암피스테네스는 암피클레스의 아들, 암피클레스는 아기스의 아들이었다. 둘째로 스파르타의 림나이 사람들, 키노수라 사람들, 메소아와 피타네 사람들이 아르테미스에게 제사를 지내다가 시비가 붙어 피를 흘렸다. 많은 사람이 제단에서 죽었고, 나머지는 병으로 죽었다.

**[3.16.10]** 이에 제단을 사람의 피로 물들이라는 신탁이 내렸다. 예전에는 제비에 뽑힌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 리쿠르고스가 이 관습을 소년들에게 채찍질하는 것으로 바꾸었으므로,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제단을 사람의 피로 물들인다. 여사제는 목조 신상을 들고 그들 곁에 서 있다. 신상은 작고 가볍다.

**[3.16.11]** 그러나 채찍을 드는 이들이 소년의 외모가 아름답거나 신분이 높다고 해서 매질을 가볍게 하면, 그 즉시 여사제가 든 신상이 너무 무거워져 거의 들 수 없게 된다. 여사제는 채찍질하는 이들을 탓하며 자기가 그 무게에 짓눌리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 신상은 타우리스 땅에서 제사를 받던 때부터 사람의 피를 좋아하는 성질을 간직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를 오르티아라고 부를 뿐 아니라 리고데스마, 곧 '버드나무에 묶인 이'라고도 부른다. 버드나무 덤불에서 발견되었고, 둘러 감은 버드나무 가지가 신상을 똑바로 서 있게 했기 때문이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7장

**[3.17.1]** 오르티아의 성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에일레이티이아의 성소가 있다. 델포이의 신탁에 따라 성소를 짓고 에일레이티이아를 여신으로 숭배하게 되었다고 한다. 라케다이몬인들에게는 테바이의 카드메이아나 아르고스의 라리사처럼 눈에 띄게 높이 솟은 아크로폴리스가 없다. 그래도 도시 안에 언덕들이 있어 그중 가장 높은 것을 아크로폴리스라고 한다.

**[3.17.2]** 이곳에는 아테나의 성소가 있다. 이 아테나는 폴리우코스, 곧 '도시의 수호자'라 불리며, '청동 집의 여주인'이라고도 불린다. 틴다레오스가 성소를 짓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가 죽은 뒤 자식들이 아피드나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그들 역시 완성하지 못했다. 여러 해가 흐른 뒤에야 라케다이몬인들은 신전과 아테나상을 모두 청동으로 만들었다. 이를 만든 사람은 스파르타 태생의 기티아다스였다. 그는 도리아 방언으로 서정시도 지었으며 그 가운데에는 이 여신을 찬미하는 노래도 있다.

**[3.17.3]** 청동에는 헤라클레스가 맡아 해낸 여러 과업과 스스로 나서서 이룬 여러 공적, 레우키포스의 딸들을 납치하는 장면과 틴다레오스의 아들들이 이룬 다른 일들이 돋을새김으로 새겨져 있다. 헤파이스토스가 어머니의 결박을 풀어 주는 모습도 있다. 그 전설은 아티카를 다루면서 이미 이야기했다. 리비아의 메두사를 치러 떠나는 페르세우스에게 님프들이 모자와 하늘을 날게 해 줄 신발을 건네는 장면도 있다. 아테나의 탄생, 암피트리테와 포세이돈도 새겨져 있는데, 이 형상들이 가장 크며 내 눈에 가장 볼 만했다.

**[3.17.4]** 여기에는 아테나의 또 다른 성소도 있다. 이 여신의 별칭은 에르가네, 곧 '일하는 여신'이다. 남쪽 주랑으로 가는 길에는 코스메타스, 곧 '질서를 세우는 이'라 불리는 제우스의 신전이 있고, 그 앞에 틴다레오스의 무덤이 있다. 서쪽 주랑에는 독수리 두 마리가 있으며 그 위에 승리의 여신상이 하나씩 있다. 리산드로스가 두 전공을 기념하여 봉헌했다. 첫 전공은 에페소스 앞바다에서 알키비아데스 휘하의 지휘관 안티오코스와 아테네 군함들을 격파한 일이고, 두 번째는 뒤에 아이고스포타모이에서 아테네 함대를 궤멸시킨 일이다.

**[3.17.5]** 청동 집의 여주인 성소 왼편에는 무사이 여신들의 성소를 세웠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전투에 나갈 때 나팔 소리 대신 피리 소리와 리라와 키타라의 반주에 발맞추어 나갔기 때문이다. 청동 집의 여주인 성소 뒤에는 '전쟁의 아프로디테'라 불리는 아프로디테 아

레이아의 신전이 있다. 그곳의 목조 신상들은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된 신상들에 견줄 만큼 유서가 깊다.

**[3.17.6]** 청동 집의 여주인 성소 오른편에는 '가장 높은 이'라 불리는 제우스 히파토스의 상이 세워져 있다. 청동으로 만든 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한 덩어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몸의 각 부분을 따로 두드려 만든 다음 한데 맞추고 못을 박아 떨어지지 않게 했다. 만든 이는 레기온의 클레아르코스라고 한다. 어떤 이들은 그가 디포이노스와 스킬리스의 제자였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다이달로스의 바로 그 제자였다고 한다. 스케노마, 곧 '천막'이라 불리는 곳에는 여인의 상이 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그 여인이 에우리레오니스라고 한다. 그녀는 두 마리 말이 끄는 전차로 올림피아에서 우승했다.

**[3.17.7]** 청동 집의 여주인 제단 곁에는 플라타이아이에서 지휘관을 맡았던 파우사니아스의 상 두 개가 서 있다. 그의 행적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야기하지 않겠다. 앞서 저술한 이들의 정확한 기록으로 충분하니, 나는 비잔티온 사람에게서 들은 것만 덧붙이겠다. 파우사니아스는 반역이 발각되었다. 그는 청동 집의 여주인에게 보호를 청하고도 안전을 얻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것은 오로지 그가 살인으로 입은 부정을 씻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3.17.8]** 그는 라케다이몬과 동맹국들의 함대를 이끌고 헬레스폰토스 일대를 항해할 때 비잔티온의 한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날이 저물자마자 명령을 받은 자들이 그 처녀를 데려왔다. 처녀의 이름은 클레오니케였다. 마침 잠들어 있던 파우사니아스가 소리를 듣고 깨어났다. 처녀가 그에게 다가오다가 실수로 불 켜진 등잔을 떨어뜨린 것이다. 파우사니아스는 그리스를 배반한 일이 마음에 걸려 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처녀를 칼로 쳤다.

**[3.17.9]** 파우사니아스는 온갖 정결례를 치르고, 도망자들의 제우스 픽시오스에게 몸을 의탁하고, 끝내 아르카디아의 피갈리아에 있는 주술사들에게까지 갔으나 그 부정을 벗지 못했다. 그는 클레오니케와 신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렀다. 라케다이몬인들은 델포이의 명령에 따라 두 청동상을 만들게 했으며, '은혜를 베푸는 이'라는 뜻의 신령 에피도테스를 공경한다. 보호를 청하는 이들의 신 히케시오스가 파우사니아스 때문에 드러내는 노여움을 이 에피도테스가 돌려놓는다고 한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8장

**[3.18.1]** 파우사니아스의 상들 가까이에는 '노년을 늦추는 여신' 아프로디테 암볼로게라의 신상이 있다. 신탁에 따라 세운 것이다. 잠과 죽음의 신상도 있다. 사람들은 『일리아스』의 구절에 따라 두 신을 형제라고 여긴다.

**[3.18.2]** 알리테이온이라 불리는 곳으로 가다 보면 눈을 지키는 여신 아테나 옵탈미티스의 신전이 있다. 리쿠르고스가 만든 법을 못마땅하게 여긴 알칸드로스가 리쿠르고스의 눈 한 쪽을 쳐서 멀게 했을 때, 그가 봉헌한 신전이라고 한다. 이곳으로 달아난 리쿠르고스는 라케다이몬인들의 보호를 받아 남은 한쪽 눈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아테나 옵탈미티스의 이 신전을 지었다.

**[3.18.3]** 여기서 더 가면 암몬의 성소가 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처음부터 다른 어느 그리스인들보다 리비아의 신탁소를 자주 찾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산드로스가 팔레네의 아피티스를 포위했을 때, 암몬이 밤에 나타나 아피티스와의 싸움을 그만두는 편이 리산드로스 자신과 라케다이몬에 더 좋으리라고 말했다고도 한다. 리산드로스는 포위를 풀었고, 라케다이몬인들이 이 신을 더욱 공경하도록 했다. 아피티스 사람들도 암몬을 섬기는 리비아인들만큼 이 신을 공경한다.

**[3.18.4]** 아르테미스 크나기아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다. 크나게우스는 이 지방 사람으로, 디오스쿠로이의 아피드나 원정에 함께했다고 한다. 그는 전투에서 사로잡혀 크레타로 팔려갔다. 그곳에서 크레타인들이 아르테미스 성소를 두고 있던 곳에 노예로 살았다. 세월이 흐른 뒤 그는 그곳의 처녀 여사제와 함께 달아났는데, 여사제는 신상을 가지고 갔다. 아르테미스를 크나기아라고 부르는 까닭이 이것이다.

**[3.18.5]** 그러나 내 생각에 크나게우스는 라케다이몬인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경위로 크레타에 갔다. 아피드나에서는 아예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테세우스는 테스프로티아인들 사이에 억류되어 있었고, 아테네인들은 뜻이 하나로 모이지 않은 채 메네스테우스 쪽에 마음이 기울어 있었다. 설령 전투가 벌어졌다고 해도 승리한 쪽에서 포로가 잡혔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더구나 아피드나까지 점령할 만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는데 말이다.

**[3.18.6]** 이제 이런 논평은 그만두겠다. 스파르타에서 아미클라이로 내려가면 티아사라는 강에 이른다. 티아사는 에우로타스의 딸이었다고 한다. 강 곁에는 카리테스의 성소가 있다. 알크만은 시에서 그 여신들을 파엔나와 클레타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라케다이몬이 이곳에 카리테스의 성소를 세우고 그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믿는다.

**[3.18.7]** 아미클라이에서 볼 만한 것 가운데에는 오종 경기 우승자 아이네토스를 새긴 비석이 있다. 그는 올림피아에서 우승하였으나 사람들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워 주던 중 죽었다고 한다. 이 사람의 상과 함께 청동 세발솥들도 있다. 그중 오래된 것들은 메세니아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바친 것이라고 한다.

**[3.18.8]** 첫 번째 세발솥 아래에는 아프로디테상이, 두 번째 아래에는 아르테미스상이 서 있었다. 두 솥과 그 돋을새김은 기티아다스의 작품이다. 세 번째는 아이기나의 칼론이 만들었고, 그 아래에는 데메테르의 딸 코레의 신상이 서 있다. 파로스의 아리스탄드로스와 아르고스의 폴리클레이토스가 만든 상들도 있다. 앞사람은 리라를 든 여인을 만들었는데, 스파르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뒷사람은 '아미클라이의 신 곁에 있는 아프로디테'라 불리는 상을 만들었다. 이 세발솥들은 다른 것들보다 크며, 아이고스포타모이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으로 봉헌했다.

**[3.18.9]** 아미클라이의 아폴론을 위한 왕좌를 만든 마그네시아인 바티클레스는 왕좌를 완성하고 나서 카리테스의 형상들과 아르테미스 레우코프리에네의 신상을 봉헌했다. 이 바티클레스가 누구의 제자였는지, 그가 왕좌를 만들 때 라케다이몬을 다스린 왕이 누구였는지는 넘어가겠다. 나는 왕좌를 직접 보았으므로 그곳에 새겨진 것들을 이야기하겠다.

[3.18.10] 왕좌는 앞뒤에서 각각 카리테스 두 여신과 계절의 여신 호라이 두 여신이 받치고 있다. 왼편에는 에키드나와 티포스가, 오른편에는 트리톤들이 서 있다. 돋을새김 하나하나를 세세히 설명하면 독자들이 지루해할 뿐일 것이다. 그중 대부분은 이미 알려진 이야기이므로 간략히 말하겠다. 포세이돈과 제우스가 아틀라스의 딸 타위게테와 그 자매 알키오네를 데려가는 모습이 보인다. 아틀라스, 헤라클레스와 키크노스의 일대일 싸움, 폴로스의 동굴에서 벌어진 켄타우로스들과의 전투도 새겨져 있다.

[3.18.11] 바티클레스가 왜 이른바 미노스의 황소를 묶은 채 테세우스가 산 채로 끌고 가는 모습으로 새겼는지는 모르겠다. 왕좌에는 파이아케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춤추고 데모도코스가 노래하는 장면도 있다.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죽이는 모습도 새겨져 있다. 헤라클레스가 거인 투리오스와 싸우는 장면과 틴다레오스가 에우리토스와 싸우는 장면을 지나면 레우키포스의 딸들이 납치되는 장면이 나온다. 디오니소스와 헤라클레스도 있다. 헤르메스는 어린 디오니소스를 하늘로 데려가고, 아테나는 이제부터 신들과 함께 살도록 헤라클레스를 데려간다.

[3.18.12] 펠레우스가 아킬레우스를 케이론에게 맡겨 기르게 하는 모습도 있다. 케이론은 아킬레우스를 가르치기도 했다고 한다. 케팔로스는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낮의 여신에게 납치되고 있다. 신들은 하르모니아의 결혼식에 선물을 가져온다. 아킬레우스와 멤논이 일대일로 싸우는 장면과 헤라클레스가 트라케인 디오메데스와 에우에노스강의 네소스에게 복수하는 장면도 새겨져 있다. 헤르메스는 여신들을 알렉산드로스에게 데려가 판정을 받게 한다. 아드라스토스와 티데우스는 암피아라오스와 프로낙스의 아들 리쿠르고스 사이에 벌어진 싸움을 말리고 있다.

[3.18.13] 헤라는 이미 암소로 변한 이나코스의 딸 이오를 바라보고, 아테나는 쫓아오는 헤파이스토스를 피해 달아난다. 그 옆에는 헤라클레스의 업적 두 가지가 새겨져 있다. 히드라를 죽이는 일과 하데스의 개를 지상으로 데려오는 일이다. 아낙시아스와 므나시누스는 각기 말을 타고 있으나, 메넬라오스의 아들 메가펜테스와 니코스트라토스는 한 마리에 함께 타고 있다. 벨레로폰테스는 리키아의 괴물을 죽이고, 헤라클레스는 게리오네스의 소들을 몰고 간다.

[3.18.14] 왕좌의 윗가장자리에는 말을 탄 틴다레오스의 두 아들이 양쪽에 하나씩 새겨져 있다. 말 아래에는 스핑크스들이 있고, 위로 뛰어오르는 짐승들도 있다. 한쪽은 표범이고 폴리데우케스 곁에 있는 것은 암사자다. 왕좌 맨 위에는 무리를 지어 춤추는 사람들이 새겨져 있다. 바티클레스가 왕좌를 만드는 일을 도운 마그네시아 사람들이다.

[3.18.15] 왕좌 아래에서 트리톤들로부터 떨어진 안쪽에는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과 헤라클레스가 악토르의 아들들을 죽이는 장면이 있다. 칼라이스와 제테스는 피네우스에게서 하르피이아들을 쫓아낸다. 페이리토오스와 테세우스는 헬레네를 붙잡았고, 헤라클레스는 사자의 목을 조르고 있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티티오스에게 활을 쏜다.

[3.18.16] 헤라클레스와 켄타우로스 오레이오스가 싸우는 모습, 테세우스와 미노스의 황소가 싸우는 모습도 있다. 헤라클레스가 아켈로오스와 씨름하는 장면, 전설에 따라 헤파이스토스가 헤라를 결박하는 장면, 아카스토스가 아버지를 기리며 연 경기, 『오디세이아』에 나

오는 메넬라오스와 이집트의 프로테우스 이야기도 새겨져 있다. 맨 끝에는 아드메토스가 멧돼지와 사자를 자기 전차에 매는 모습과 트로이아인들이 헥토르에게 제주를 가져가는 모습이 있다. Pausanias ' Description of Greece

## 제19장

**[3.19.1]** 왕좌에서 신이 앉을 자리는 하나로 이어져 있지 않다. 좌석이 여러 개 있고, 각 좌석 옆에는 넓은 빈 공간이 있다. 신상이 서 있는 한가운데 빈 공간이 그중 가장 넓다.

**[3.19.2]** 이 신상의 높이를 실제로 잰 사람은 내가 아는 한 없다. 어림잡아 삼십 큐빗은 될 것이다. 바티클레스가 만든 것이 아니며, 오래되고 투박하다. 얼굴과 발과 손은 있지만 나머지는 청동 기둥을 닮았다. 머리에는 투구를 썼고, 손에는 창과 활을 들고 있다.

**[3.19.3]** 신상의 받침대는 제단 모양으로 만들었다. 히아킨토스가 그 안에 묻혀 있다고 한다. 히아킨티아 축제에서는 아폴론에게 제사하기에 앞서 히아킨토스에게 영웅으로서 제물을 바친다. 제단 왼편의 청동문을 통해 제물을 안으로 들인다. 제단에는 형상들이 돋을새김으로 새겨져 있다. 한쪽에는 비리스가, 다른 쪽에는 암피트리테와 포세이돈이 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가까이에는 디오니소스와 세멜레가 서 있으며 세멜레 곁에는 이노가 있다.

**[3.19.4]** 제단에는 데메테르와 코레와 플루톤도 새겨져 있다. 그 옆에는 운명의 여신 모이라이와 계절의 여신 호라이가 있으며, 아프로디테와 아테나와 아르테미스도 함께 있다. 이들은 히아킨토스와 폴리보이아를 하늘로 데려가고 있다. 폴리보이아는 히아킨토스의 누이로, 처녀인 채로 죽었다고 한다. 제단에 새긴 히아킨토스는 이미 수염이 나 있다. 그러나 니코메데스의 아들 니키아스는 한창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으로 그를 그려, 전설에서 말하는 아폴론의 히아킨토스에 대한 사랑을 넌지시 나타냈다.

**[3.19.5]** 제단에는 헤라클레스도 새겨져 있다. 그 역시 아테나와 다른 신들의 인도를 받아 하늘로 간다. 테스티오스의 딸들과 무사이와 호라이도 제단에 있다. 서풍에 관한 이야기와 아폴론이 뜻하지 않게 히아킨토스를 죽인 경위, 그리고 그 꽃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으나 전설로 전해 오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3.19.6]** 아미클라이는 도리아인들에게 황폐해진 때부터 마을로 남았다. 나는 이곳에서 볼 만한 알렉산드라의 성소와 신상을 보았다. 아미클라이인들은 알렉산드라가 프리아모스의 딸 카산드라라고 한다.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상도 있고, 아가멤논의 무덤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있다. 주민들은 아미클라이의 신과 디오니소스를 섬기는데, 디오니소스를 프실락스라고 부른다. 내 생각에 잘 붙인 이름이다. 도리아 말로 **프실라**는 '날개'다. 날개가 새를 들어 올리듯 술도 사람을 들뜨게 하고 마음을 가볍게 한다. 아미클라이에서 언급할 만한 것으로 내가 본 것은 이러하다.

**[3.19.7]** 도시에서 나오는 다른 길은 테라프네로 이어진다. 이 길에는 아테나 알레아의 목조 신상이 있다. 에우로타스강을 건너기 전, 강둑보다 조금 높은 곳에서 사람들은 '부유한 이'라는 별칭의 제우스 플루시오스의 성소를 보여 준다. 강 건너에는 아스클레피오스 코틸레우스의 신전이 있다. 헤라클레스가 지은 것이다. 그는 앞서 히포코온과 그 아들들과

싸우다 엉덩관절에 입은 상처를 고쳤으므로, 아스클레피오스를 '엉덩관절의 신'이라는 뜻의 코틸레우스라고 불렀다. 이 길을 따라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아레스 성소다. 길 왼쪽에 있으며, 신상은 디오스쿠로이가 콜키스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3.19.8]** 사람들은 아레스의 유모였다고 전해지는 테로의 이름을 따서 신을 테리타스라 부른다. 그리스인들은 테로라는 아레스의 유모를 알지 못하므로, 아마 콜키스 사람들에게서 테리타스라는 이름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내 생각에 아레스에게 테리타스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그 유모 때문이 아니다. 전투에서 적을 맞닥뜨리면 온화한 성정을 모두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호메로스도 아킬레우스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 그는 사자처럼 사납다.

**[3.19.9]** 테라프네의 이름은 렐렉스의 딸에게서 나왔다. 그곳에는 메넬라오스의 신전이 있으며, 사람들은 메넬라오스와 헬레네가 여기 묻혔다고 한다. 로도스인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메넬라오스가 죽고 오레스테스가 아직 떠돌고 있을 때, 헬레네는 니코스트라토스와 메가펜테스에게 쫓겨나 로도스로 왔다고 한다. 그곳에는 틀레폴레모스의 아내인 친구 폴릭소가 있었다.

**[3.19.10]** 폴릭소는 아르고스 혈통이었다고 한다. 이미 틀레폴레모스와 혼인한 뒤에 남편을 따라 로도스로 망명했다. 그때 그녀는 아버지를 잃은 어린 아들을 두고 섬을 다스리는 여왕이었다. 폴릭소는 헬레네가 자기 손에 들어오자 틀레폴레모스의 죽음을 복수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헬레네가 목욕하는 동안 시녀들을 복수의 여신들처럼 꾸며 보냈다. 시녀들은 헬레네를 붙잡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 때문에 로도스인들에게는 '나무의 헬레네'라 불리는 헬레네 덴드리티스의 성소가 있다.

**[3.19.11]** 헬레네에 관해 크로톤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도 내가 아는 대로 하겠다. 히메라 사람들도 이 이야기에 동의한다. 흑해의 이스트로스강 하구에 아킬레우스에게 바쳐진 섬이 있다. 레우케, 곧 '흰 섬'이라 불리며 둘레는 이십 스타디온이다. 섬 전체가 숲으로 뒤덮여 있고 들짐승과 길들인 짐승이 많다. 그곳에는 아킬레우스의 신전이 있으며 안에는 그의 상이 있다.

**[3.19.12]** 전설에 따르면 이 섬에 처음으로 배를 타고 간 사람은 크로톤의 레오니모스였다. 이탈리아의 크로톤인들과 로크리스인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로크리스인들은 오푸스 사람들과의 친족 관계에 기대어 오일레우스의 아들 아이아스에게 전투에서 자기들을 도와 달라고 청했다. 크로톤인들의 지휘관 레오니모스는 아이아스가 적의 맨 앞줄에 서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그 지점을 공격했다. 그는 가슴을 다쳤고 상처로 쇠약해져 델포이에 갔다. 피티아 여사제는 그를 흰 섬으로 보내며, 그곳에서 아이아스가 나타나 상처를 고쳐 주리라고 말했다.

**[3.19.13]** 레오니모스는 마침내 상처가 나아 흰 섬에서 돌아왔다. 그는 그곳에서 아킬레우스와 오일레우스의 아들 아이아스,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를 보았다고 말하곤 했다. 파트로클로스와 안틸로코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했다. 헬레네는 아킬레우스와 혼인했으며, 레오니모스에게 배를 타고 히메라의 스테시코로스에게 가서 그가 시력을 잃은 것은 자신의 노여움 때문이라고 전하라고 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0장

**[3.20.1]** 그리하여 스테시코로스는 앞서 한 말을 거두는 노래를 지었다. 나는 테라프네에서 메세이스라는 샘을 본 기억이 있다. 다만 라케다이몬인들 가운데에는 옛날에 메세이스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이 테라프네의 샘이 아니라 우리가 폴리데우케이아라고 부르는 샘이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폴리데우케이아 샘과 폴리데우케스의 성소는 테라프네로 가는 길 오른편에 있다.

**[3.20.2]** 테라프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포이바이온이라는 곳이 있고, 그 안에 디오스쿠로이의 신전이 있다. 여기서 젊은이들은 에니알리오스에게 제사를 드린다.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대지를 떠받드는 이'라는 별칭을 지닌 포세이돈의 성소가 서 있다. 여기서 타위게토스산 쪽으로 더 가면 알레시아이, 곧 '곡식을 가는 곳'이라 불리는 곳에 이른다. 렐렉스의 아들 뮐레스가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맷돌을 발명하여 바로 이 알레시아이에서 곡식을 갈았다고 한다. 이곳에는 타위게테의 아들 라케다이몬의 영웅 사당이 있다.

**[3.20.3]** 여기서 펠리아강을 건너 아미클라이를 지나 바다 쪽으로 곧장 뻗은 길을 가면, 한 때 라코니아의 도시였던 파리스의 터에 이른다. 펠리아강에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타위게토스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 평야에는 제우스 메사페우스의 성역이 있다. 이 신을 섬긴 제사장의 이름에서 별칭을 얻었다고 한다. 여기서 타위게토스산을 떠나면 브리세아이의 옛 도시 터에 닿는다. 디오니소스의 신전과 노천에 세워진 신상이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신전 안의 신상은 여자들만 볼 수 있다. 여자들끼리 비밀리에 제사를 치르기 때문이다.

**[3.20.4]** 브리세아이 위로는 타위게토스산의 봉우리인 탈레톤이 솟아 있다. 사람들은 그 봉우리가 태양신 헬리오스에게 바쳐졌다고 하며, 이곳에서 헬리오스에게 제사할 때 말도 제물로 바친다. 페르시아인들도 같은 제물을 바치는 관습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탈레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에우오라스라는 곳이 있다. 들짐승들, 특히 야생 염소가 많이 사는 곳이다. 사실 타위게토스산 전체가 야생 염소와 멧돼지를 사냥하는 곳이며, 사슴과 곰도 많이 산다.

**[3.20.5]** 탈레톤과 에우오라스 사이에 테라이이라 부르는 곳이 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레토가 타위게토스의 봉우리들에서 〔…〕 엘레우시스의 여신이라 불리는 데메테르의 성소가 있다. 라케다이몬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곳에서 아스클레피오스가 상처 입은 헤라클레스를 숨겨 주고 치료했다. 성소 안에는 오르페우스의 목조상이 있다. 펠라스고이인들의 작품이라고 한다.

**[3.20.6]** 이곳에서 행하는 의례 가운데 내가 아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닷가에 헬로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호메로스도 라케다이몬인들을 열거하면서 그곳을 언급했다.

> 이들은 아미클라이와 바닷가 도시 헬로스에 살던 이들이었다.

페르세우스의 막내아들 헬리오스가 세운 도시로, 뒤에 도리아인들이 포위하여 굴복시켰다. 그 주민들이 라케다이몬 국가의 첫 노예가 되었고, 실제로 헬로스 사람이었으므로 처음으로 헤일로타이라 불렸다. 뒤에 얻은 노예들은 메세니아의 도리아인들이었는데도 마찬가지

로 헤일로타이라 불렸다. 그리스 민족 전체를 옛날 헬라스라고 하던 테살리아의 한 지역에서 이름을 따 헬레네스라 부르게 된 것과 같다.

**[3.20.7]** 정해진 날이면 사람들은 이 헬로스에서 데메테르의 딸 코레의 목조 신상을 엘레우시스 여신의 성소로 모셔 올라온다. 성소에서 십오 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라피타이온이 있다. 이 지방 사람 라피토스의 이름을 딴 것이다. 라피타이온은 타위게토스산에 있으며 가까이 데레이온이 있다. 그곳에는 아르테미스 데레아티스의 신상이 노천에 있고, 그 곁에는 아노노스라 부르는 샘이 있다. 데레이온에서 약 이십 스타디온을 더 가면 하르플레이아에 이른다. 그곳은 평야까지 펼쳐져 있다.

**[3.20.8]** 스파르타에서 아르카디아로 가는 길에는 파레이아라는 별칭을 지닌 아테나상이 노천에 서 있다. 그곳을 지나면 아킬레우스의 성소가 있다. 이 성소는 문을 열지 않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플라타니스타스에서 겨룰 젊은이들은 모두 싸움 전에 아킬레우스에게 제사를 지낸다. 스파르타인들은 네옵톨레모스의 아들 페르가모스의 손자 프락스가 이 성소를 세워 주었다고 말한다.

**[3.20.9]** 더 가면 이른바 '말의 무덤'이 있다. 틴다레오스는 여기서 말을 제물로 바친 뒤 헬레네의 구혼자들을 그 말의 토막 위에 서게 하고 맹세하게 했다. 헬레네와 그녀의 남편으로 선택될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 두 사람을 지켜 주겠다는 맹세였다. 구혼자들에게 맹세를 받은 뒤 그는 말을 이곳에 묻었다. 이 무덤에서 멀지 않은 곳에 기둥 일곱 개가 있다. 〔…〕 내 생각에는 옛 방식으로 만든 것인데, 사람들은 행성들의 형상이라고 한다. 길에는 스템마티아스라는 별칭의 크라니오스에게 바쳐진 성역과 미시아의 아르테미스 성소가 있다.

**[3.20.10]** 도시에서 약 삼십 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아이도스, 곧 '수줍음'의 상이 있다. 이카리오스가 봉헌했다고 하며, 그 까닭은 이러하다. 이카리오스는 페넬로페를 오디세우스에게 시집보냈을 때 오디세우스도 라케다이몬에 정착하게 하려 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딸에게 남으라고 간청했다. 딸이 이타카로 떠날 때에도 그는 전차를 따라가며 남으라고 애원했다.

**[3.20.11]** 오디세우스는 한동안 참다가, 마침내 페넬로페에게 기꺼이 자신과 함께 가든지, 아버지를 더 따르고 싶다면 라케다이몬으로 돌아가든지 하라고 했다. 페넬로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 물음에 답하듯 베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한다. 이카리오스는 딸이 오디세우스와 함께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보내 주었으며, 아이도스의 상을 봉헌했다. 페넬로페가 베일로 얼굴을 가린 곳이 바로 이 길의 이 지점이었다고 한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1장

**[3.21.1]** 여기서 이십 스타디온을 가면 에우로타스강 물줄기가 길 가까이 바짝 다가온다. 이곳에 당대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였던 라다스의 무덤이 있다. 그는 올림피아에서 장거리 달리기에 우승하여 관을 받았다. 내 생각에는 우승 직후에 병이 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던 듯하다. 그는 이곳에서 죽었고 무덤은 큰길 위쪽에 있다. 그와 이름이 같은 라다

스도 올림피아에서 우승했다. 그는 장거리 경주가 아니라 단거리 경주에서 우승했는데, 엘리스의 올림피아 우승자 기록에 따르면 아카이아의 아이기온 태생이었다.

**[3.21.2]** 펠라나 쪽으로 더 가면 카라코마, 곧 '도랑'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고, 그다음이 펠라나다. 펠라나는 옛날에 도시였다. 틴다레오스가 히포코온과 그의 아들들을 피해 스파르타에서 달아났을 때 이곳에서 살았다고 한다. 이곳에서 본 것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은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소와 펠라니스 샘이다. 한 처녀가 물을 긷다가 이 샘에 빠졌다고 한다. 그녀가 사라진 뒤 머리에 쓰고 있던 베일이 랑키아라는 다른 샘에서 다시 떠올랐다.

**[3.21.3]** 펠라나에서 백 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벨레미나라는 곳이 있다. 본래 라코니아에서 물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다. 에우로타스강이 이곳을 지나가는 데다 이 지역에서 솟는 샘도 많기 때문이다.

**[3.21.4]** 기티온 쪽으로 바다를 향해 내려가면 크로케아이라는 마을과 채석장에 닿는다. 바위가 한 덩어리로 이어진 곳은 아니다. 캐낸 돌들은 강에서 주운 조약돌처럼 생겼다. 다듬기가 어렵지만 잘 다듬으면 신들의 성소를 장식할 수 있으며, 특히 목욕장과 샘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알맞다. 마을 앞에는 크로케아이의 제우스 크로케아타스의 석상이 서 있고, 채석장에는 디오스쿠로이의 청동상이 있다.

**[3.21.5]** 크로케아이를 지나 기티온으로 곧장 가는 길에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아이기아이라는 도시에 이른다. 호메로스가 시에서 아우게아이라고 부르는 도시가 바로 이곳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포세이돈의 호수라 불리는 호수가 있고, 그 옆에는 신전과 포세이돈의 신상이 있다. 사람들은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물에서 고기를 잡으면 그 사람이 '어부'라고 불리는 물고기로 변한다고 말한다.

**[3.21.6]** 기티온은 아이기아이에서 삼십 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자유 라코니아인들의 땅에 속하는 바닷가에 세워진 도시다. 이 사람들은 이전에 스파르타의 라케다이몬인들에게 예속되어 있었으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해방했다. 펠로폰네소스는 코린토스 지협을 제외하면 온통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 자주색 물감을 만드는 데 쓰는 조개 가운데 페니키아 바다의 것 다음으로 좋은 조개는 라코니아 해안에서 난다.

**[3.21.7]** 자유 라코니아인들에게는 도시가 열여덟 곳 있다. 아이기아이에서 바다로 내려갈 때 처음 닿는 곳은 기티온이다. 이어 테우트로네, 라스, 피리코스가 있다. 타이나론에는 카이네폴리스, 오이틸로스, 레욱트라, 탈라메가 있고, 그 밖에 알라고니아와 게레니아가 있다. 기티온 반대쪽의 바닷가에는 아소포스, 아크리아이, 보이아이, 자락스, 에피다우로스 리메라, 브라시아이, 게론트라이, 마리오스가 있다. 한때 자유 라코니아인들에게 속했던 스물네 도시 가운데 그들에게 남은 것이 이 도시들이다. 이제부터 다룰 나머지 도시들은 스파르타에 속해 있으므로, 앞에서 열거한 도시들처럼 자치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21.8]** 기티온 사람들은 자기 도시를 세운 인간은 없었다고 말한다. 헤라클레스와 아폴론이 세발솥을 차지하려고 다투다가 화해한 뒤, 함께 이 도시를 세웠다는 것이다. 아고라에는 아폴론과 헤라클레스의 상이 있고, 곁에 디오니소스상이 서 있다. 도시의 다른 구역에는 아폴론 카르네이오스, 암몬의 성소, 지붕 없는 신전에 모셔진 아스클레피오스의 청동상

과 그 신에게 바쳐진 샘, 데메테르의 신성한 성역, 그리고 대지를 떠받드는 포세이돈 가이아오코스의 상이 있다.

**[3.21.9]** 기티온 사람들이 바다에 산다면서 '노인'이라고 부르는 이는 알고 보니 네레우스였다. 이 이름은 본디 호메로스에게서 가져온 것이다. 『일리아스』에서 테티스는 이렇게 말한다.

> 넓게 펼쳐진 바다로, 그 품속으로 뛰어들어
> 바다의 노인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찾아라.

여기에는 카스토르의 문이라 불리는 성문도 있다. 아크로폴리스에는 아테나의 신전과 신상이 세워져 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2장

**[3.22.1]** 기티온에서 약 삼 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다듬지 않은 돌이 있다. 오레스테스가 그 위에 앉았더니 광기가 사라졌다고 전한다. 그래서 그 돌을 도리아 말로 '제우스 카포타스'라고 불렀다. 기티온 앞에는 크라나이섬이 있다. 호메로스에 따르면 알렉산드로스는 헬레네를 납치한 뒤 그 섬에서 그녀와 처음으로 잠자리를 함께했다. 섬 맞은편 육지에는 결합의 여신 아프로디테 미고니티스의 성소가 있고, 그 일대를 미고니온이라 부른다.

**[3.22.2]** 이 성소는 알렉산드로스가 지었다고 한다. 메넬라오스는 일리온을 점령한 뒤, 트로이아가 함락된 지 여덟 해 만에 무사히 귀향하여 미고니티스의 성소 가까이에 테티스와 정의를 집행하는 여신들 프락시디카이의 상을 세웠다. 미고니온 위에는 디오니소스에게 바쳐진 라리시온이라는 산이 있다. 사람들은 봄이 시작될 때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축제를 연다. 그 의례에 관해 들려주는 이야기 가운데에는 이곳에서 잘 익은 포도송이를 발견한다는 말도 있다.

**[3.22.3]** 기티온에서 약 삼십 스타디온을 더 가면 왼쪽 육지에 트리나소스, 곧 '세 섬'이라는 곳의 성벽이 있다. 내가 보기에는 도시가 아니라 요새였다. 이름은 이곳 해안 앞에 떠 있는 세 작은 섬에서 나온 듯하다. 트리나소스를 지나 약 팔십 스타디온 더 가서 나는 헬로스의 폐허에 이르렀다.

**[3.22.4]** 거기서 약 삼십 스타디온을 더 가면 해안 도시 아크리아이에 닿는다. 여기에는 신들의 어머니의 신전과 대리석 신상이 있는데 볼 만하다. 아크리아이 사람들은 이것이 펠로폰네소스에서 가장 오래된 이 여신의 성소라고 한다. 다만 신들의 어머니를 나타낸 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시필로스산 북쪽에 사는 마그네시아인들이 코디노스 바위에 두고 있는 상이다. 마그네시아인들은 탄탈로스의 아들 브로테아스가 만들었다고 한다.

**[3.22.5]** 아크리아이에서는 한때 올림피아 우승자 니코클레스가 나왔다. 그는 두 차례의 올림피아 축제에서 달리기 종목의 상을 다섯 번 받았다. 체육장과 항구 옆 성벽 사이에 그를 기리는 기념물이 세워졌다.

**[3.22.6]** 아크리아이에서 내륙으로 백이십 스타디온을 가면 게론트라이가 있다. 헤라클레스의 후손들이 펠로폰네소스에 오기 전부터 사람이 살던 곳이다. 라케다이몬의 도리아인들이

아카이아 주민들을 몰아내고 뒤에 자기네 이주민을 보냈다. 내가 살던 시대에는 자유 라코니아인들에게 속했다. 아크리아이에서 게론트라이로 가는 길에는 팔라이아, 곧 '옛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고, 게론트라이 자체에는 아레스의 신전과 숲이 있다.

**[3.22.7]** 해마다 이 신을 기리는 축제를 여는데, 그때에 여자들은 숲에 들어갈 수 없다. 아고라 둘레에는 식수를 얻는 샘들이 있다. 아크로폴리스에는 아폴론의 신전이 있으며 상아로 만든 신상의 머리가 있다. 신상의 몸체는 예전 신전과 함께 불에 타 없어졌다.

**[3.22.8]** 마리오스는 자유 라코니아인들의 또 다른 도시로, 게론트라이에서 백 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이곳에는 모든 신이 함께 쓰는 오래된 성소가 있고, 그 둘레에 샘들이 솟는 숲이 있다. 아르테미스의 성소에도 샘들이 있다. 마리오스는 물이 풍부하기로 비길 곳이 없다. 도시보다 높은 곳에 글리피아라는 마을이 있는데, 마리오스와 마찬가지로 내륙에 자리한다. 게론트라이에서 셀리누스라는 또 다른 마을까지는 이십 스타디온 거리다.

**[3.22.9]** 이곳들은 아크리아이에서 내륙 쪽에 있다. 바닷가에는 아크리아이에서 육십 스타디온 떨어진 아소포스라는 도시가 있다. 안에는 로마 황제들의 신전이 있고, 도시에서 내륙 쪽으로 약 십이 스타디온을 가면 아스클레피오스 성소가 있다. 사람들은 그 신을 필롤라오스라 부른다. 그들이 체육장에서 숭배하는 뼈는 사람의 것이지만, 보통 사람의 것을 훨씬 넘는 크기다. 아크로폴리스에는 키파리시아, 곧 '측백나무의 여신'이라 불리는 아테나의 성소도 있다. 아크로폴리스 기슭에는 파라키파리시아의 아카이아인들의 도시라 불리는 폐허가 있다.

**[3.22.10]** 이 지역에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소가 또 하나 있다. 아소포스에서 약 오십 스타디온 거리이며, 성소가 있는 곳을 히페르텔레아톤이라 부른다. 아소포스에서 이백 스타디온 떨어진 곳에는 바다로 튀어나온 곶이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오누그나토스, 곧 '나귀의 턱'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신상도 지붕도 없는 아테나의 성소가 있다. 아가멤논이 세웠다고 한다. 메넬라오스의 배에서 키잡이로 일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 키나도스의 무덤도 있다.

**[3.22.11]** 그 곶을 지나면 보이아이만이 육지로 깊숙이 들어오고, 만의 안쪽 끝에 보이아이시가 있다. 헤라클레스의 후손 가운데 하나인 보이오스가 세운 곳이다. 그는 에티스, 아프로디시아스, 시데의 세 도시에서 주민들을 모아들였다고 한다. 이 옛 도시들 가운데 두 곳은 아이네이아스가 이탈리아로 달아나다가 폭풍에 밀려 이 만에 들어왔을 때 세웠다고 한다. 에티아스는 아이네이아스의 딸이었다고 한다. 세 번째 도시는 다나오스의 딸 시데의 이름을 따서 이름 붙였다고 한다.

**[3.22.12]** 이 도시들의 주민들은 쫓겨난 뒤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할지 알고 싶어 했다. 아르테미스가 그들이 살 곳을 보여 주리라는 신탁이 내려졌다. 그들이 육지에 오르자 산토끼 한 마리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그 토끼를 길잡이로 삼았다. 토끼가 도금양 속으로 뛰어들자, 그들은 도금양이 있던 자리에 도시를 지었다. 오늘날까지도 그 도금양을 숭배하며 아르테미스를 '구원자'라고 부른다.

**[3.22.13]** 보이아이의 아고라에는 아폴론의 신전이 있다. 도시의 다른 구역에는 아스클레피오스와 세라피스와 이시스의 신전이 있다. 에티스의 폐허는 보이아이에서 칠 스타디온도

떨어져 있지 않다. 그곳으로 가는 길 왼쪽에 헤르메스의 석상이 서 있다. 폐허 가운데에는 아스클레피오스와 건강의 여신 히기에이아에게 바쳐진 제법 볼 만한 성소가 있다. Pausanias ′ Description of Greece

## 제23장

**[3.23.1]** 보이아이 맞은편에 키테라섬이 있다. 섬에서 본토와 가장 가까운 플라타니스토스 곶까지는, 본토의 오누그나토스 곶에서 배로 사십 스타디온이다. 키테라 해안에는 스칸데이아라는 항구가 있고, 키테라시는 스칸데이아에서 내륙으로 약 십 스타디온 들어간 곳에 있다. 천상의 아프로디테 우라니아의 성소는 지극히 신성하다. 그리스인들의 모든 아프로디테 성소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 여신은 무장한 목조 신상의 모습으로 모셔져 있다.

**[3.23.2]** 보이아이에서 말레아 곶을 향해 배로 가다 보면 님파이온이라는 항구가 있다. 포세이돈상이 서 있고, 바다 가까이에 동굴이 있으며, 그 안에는 마실 수 있는 물이 솟는 샘이 있다. 이 일대에는 사람이 많이 산다. 말레아 곶을 돌아 백 스타디온을 더 가면 보이아이인들의 경계 안에 드는 해안의 한 장소에 닿는다. 아폴론에게 바쳐진 곳으로, 에피델리온이라 불린다.

**[3.23.3]** 지금 이곳에 있는 목조 신상이 한때 델로스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델로스는 당시 그리스인들의 교역장이었다. 신이 있는 곳이므로 상인들은 안전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델로스에는 성곽이 없었고 주민들도 무장하지 않았다. 미트리다테스 휘하의 지휘관 메노파네스가 함대를 이끌고 공격해 왔다. 신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인 것이거나, 미트리다테스의 명을 따른 것이리라. 이익을 좇는 자에게는 신성한 것도 이익이 되는 것보다 하찮기 때문이다.

**[3.23.4]** 이 메노파네스는 그곳에 살던 외국인들과 델로스인들을 죽였다. 상인들의 많은 재산과 봉헌물 전부를 약탈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끌고 간 뒤, 델로스 자체를 완전히 파괴했다. 도시가 함락되어 약탈당할 때, 이민족 가운데 하나가 함부로 이 목조 신상을 바다에 던졌다. 그러나 파도가 신상을 실어 이곳 보이아이인들의 땅에 닿게 했다. 그래서 이곳을 에피델리온이라 부른다.

**[3.23.5]** 메노파네스도 미트리다테스 자신도 신의 노여움을 피하지 못했다. 델로스를 약탈한 뒤 메노파네스가 배를 띄우자, 살아남은 상인들이 즉시 그의 배를 가라앉혔다. 그들은 배를 타고 매복하고 있었다. 뒤에 미트리다테스의 나라가 무너지고 로마인들이 사방에서 그를 추격하자, 신은 그가 제 손으로 목숨을 끊게 했다. 그가 용병 하나의 손에 죽기를 청해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것이 그들이 불경한 짓을 한 대가였다.

**[3.23.6]** 보이아이인들의 땅에는 에피다우로스 리메라가 이어져 있다. 에피델리온에서 약 이백 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이곳 사람들은 자신들이 라케다이몬인의 후손이 아니라 아르골리스의 에피다우로스인들의 후손이라 말한다. 그들의 조상들이 공적으로 맡은 일을 수행하러 배를 타고 코스의 아스클레피오스에게 가다가 라코니아의 이곳에 들렀다는 것이다. 그들은 꿈에 나타난 계시를 받고 이곳에 남아 자리를 잡았다.

**[3.23.7]** 또 고향 에피다우로스에서 데려오던 뱀 한 마리가 배에서 달아나 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땅속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그들은 이 뱀이 보인 징조와 꿈에서 본 환영을 함께 생각하여 이곳에 남아 살기로 했다. 뱀이 사라진 자리에 아스클레피오스의 제단들이 있으며, 그 둘레에 올리브나무들이 자란다.

**[3.23.8]** 오른편으로 약 이 스타디온을 가면 이노의 물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넓이는 작은 호수와 같으나 땅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이노의 축제 때 사람들은 보릿가루로 만든 떡을 이 물에 던진다. 떡을 던진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라면 물이 떡을 물속에 가라앉은 채로 두고, 떡이 물 위로 떠오르면 나쁜 징조로 여긴다.

**[3.23.9]** 아이타나산의 분화구들에도 같은 일이 있다. 사람들은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과 온갖 제물을 분화구에 내려 보낸다. 불이 받아들여 태워 없애면 좋은 징조가 나타났다고 기뻐한다. 그러나 던진 것을 불이 도로 토해 내면, 그런 일을 당한 사람에게 불운이 닥치리라 생각한다.

**[3.23.10]** 보이아이에서 에피다우로스 리메라로 이어지는 길가에는 에피다우로스인들의 영토에 있는 아르테미스 림나티스의 성소가 있다. 도시는 바다에서 멀지 않은 높은 지대에 있다. 이곳에서는 아르테미스의 성소, 돌로 만든 입상이 있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소, 아크로폴리스의 아테나 신전, 항구 앞에 있는 구원자 제우스의 신전이 볼 만하다.

**[3.23.11]** 도시 가까이에는 미노아라는 곶이 바다로 뻗어 있다. 만 자체에는 라코니아의 다른 후미들과 구별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여기 해변의 조약돌은 모양이 더 아름답고 빛깔도 가지가지다. Pausanias ′ Description of Greece

## 제24장

**[3.24.1]** 에피다우로스에서 백 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자락스가 있다. 좋은 항구를 가진 곳이지만 자유 라코니아인들의 도시 가운데 가장 황폐하다. 아게시폴리스의 아들 클레오메네스에게서 태어난 클레오니모스가 이 도시만 골라 주민을 몰아냈기 때문이다. 클레오메네스의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했다. 자락스에는 항구 맨 안쪽에 리라를 든 신상이 있는 아폴론의 신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3.24.2]** 자락스에서 나오는 길은 해안을 따라 약 백 스타디온 이어지다가 내륙으로 꺾인다. 내륙으로 십 스타디온을 올라가면 키판타라고 불리는 곳의 폐허가 있다. 그 가운데에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바쳐진 동굴이 있으며, 신상은 돌로 만들어졌다. 바위에서 찬물이 솟는 샘도 있다. 아탈란테가 사냥하다 목이 말라 괴로워하던 중 창으로 그 바위를 치자 물이 솟아 나왔다고 한다.

**[3.24.3]** 이 방향으로 해안을 따라가면 자유 라코니아인들에게 속한 마지막 도시가 브라시아이다. 키판타에서 바닷길로 이백 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주민들은 그리스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전하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세멜레가 제우스의 아들을 낳자 카드모스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세멜레를 디오니소스와 함께 궤짝에 넣었다. 그 궤짝이 파도에 밀려 그들의 땅에 닿았다. 발견되었을 때 세멜레는 이미 죽어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고, 디오니소스는 거두어 길렀다.

**[3.24.4]** 그들의 도시는 본래 오레이아타이라 불렸다. 궤짝이 물결에 밀려 육지에 닿은 일에서 브라시아이로 이름이 바뀌었다. 오늘날에도 파도가 물건을 해안으로 밀어 올리는 일을 흔히 에크브라제인이라 한다. 브라시아이 사람들은 또 이노가 떠돌아다니다 이 땅에 와서 디오니소스의 유모가 되기로 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노가 디오니소스를 돌본 동굴을 보여주며, 그 평야를 디오니소스의 정원이라고 부른다.

**[3.24.5]** 이곳에는 아스클레피오스와 아킬레우스의 신전이 있다. 사람들은 아킬레우스를 기리며 해마다 축제를 연다. 브라시아이에는 바다로 조금 뻗은 작은 곶이 있다. 그 위에는 머리에 모자를 쓴 청동상들이 서 있는데, 높이가 한 자를 넘지 않는다. 주민들이 그 상들을 디오스쿠로이로 보는지 코리반테스로 보는지는 모르겠다. 이 상들은 셋이며 아테나상이 네 번째로 함께 서 있다.

**[3.24.6]** 기티온 오른쪽에는 라스가 있다. 바다에서 십 스타디온, 기티온에서 사십 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지금의 도시는 일리오스, 아시아, 크나카디온이라는 산들 사이에 자리하지만, 예전에는 아시아산 꼭대기에 있었다. 옛 도시의 폐허가 지금도 남아 있다. 성벽 밖에는 헤라클레스상과 마케도니아인들에게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비가 있다. 그 마케도니아인들은 필리포스가 라코니아를 침공했을 때 그의 군대에 속한 한 부대였다. 본대에서 떨어져 나와 해안 지역을 약탈하고 있었다.

**[3.24.7]** 폐허 가운데에는 아시아라 불리는 아테나의 신전이 있다. 폴리데우케스와 카스토르가 콜키스에서 귀향한 뒤 지었다고 한다. 콜키스인들에게 아테나 아시아의 성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틴다레오스의 아들들이 이아손의 원정에 함께했다는 것은 나도 안다. 콜키스인들이 아테나 아시아를 공경한다는 것은 라케다이몬인들에게서 들은 대로 전하는 것이다. 지금의 도시 가까이에는 물빛 때문에 갈라코, 곧 ‘젖빛 샘’이라 불리는 샘이 있다. 곁에는 오래된 헤르메스상이 있는 체육장이 있다.

**[3.24.8]** 일리오스산에는 디오니소스의 신전이 있고, 바로 꼭대기에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있다. 크나카디온산에는 카르네이오스라 불리는 아폴론이 있다. 그 아폴론 성소에서 약 삼십 스타디온 떨어져 스파르타의 경계 안에 힙소이라는 곳이 있다. 여기에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소와 월계수의 여신 아르테미스 다프나이아의 성소가 있다.

**[3.24.9]** 바닷가의 한 곳에는 아르테미스 딕틴나의 신전이 있다. 사람들은 여신을 기리며 해마다 축제를 연다. 곶 왼쪽에서는 스메노스강이 바다로 들어간다. 그 강물은 마시기에 아주 달다. 타위게토스산에서 발원하여 도시에서 오 스타디온도 떨어지지 않은 곳을 지나간다.

**[3.24.10]** 아라이논이라는 곳에 라스의 무덤이 있고, 그 위에 상이 하나 서 있다. 주민들은 라스가 자기 도시를 세웠으며 아킬레우스에게 죽었다고 한다. 아킬레우스가 틴다레오스의 딸 헬레네에게 청혼하러 가는 길에 이 나라에 배를 대었다는 것이다. 실은 라스를 죽인 사람은 파트로클로스였다. 헬레네의 구혼자는 그였기 때문이다. 『여인 목록』이 아킬레우스를 헬레네의 구혼자 가운데 넣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아킬레우스가 청혼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삼을 필요는 없다.

**[3.24.11]** 그러나 호메로스는 시의 첫머리에서 아킬레우스가 아트레우스의 아들들을 도우려고 트로이아에 왔다고 말한다. 틴다레오스가 받아 낸 맹세에 그가 매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또 경기 장면에서는 안틸로코스가 오디세우스를 자기보다 한 세대 위의 사람이라고 말한다. 한편 오디세우스는 알키노오스에게 저승에 내려간 일과 다른 모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보다 앞선 시대 사람들인 테세우스와 페이리토오스를 보고 싶었다고 한다. 헬레네를 납치한 사람이 테세우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 아킬레우스가 그녀의 구혼자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5장

**[3.25.1]** 그 무덤을 지나면 스키라스라는 강이 바다로 들어간다. 예전에는 이름이 없었다. 아킬레우스의 아들 피로스가 헤르미오네와 혼인하려고 스키로스에서 배를 타고 와서 이곳에 배를 댔으므로 그 이름을 얻었다. 강 건너에는 오래된 사당이 있다. 〔…〕 제우스의 제단에서 더 떨어진 곳에 있다. 강에서 내륙으로 사십 스타디온 떨어진 곳에는 피리코스가 있다. 아킬레우스의 아들 피로스에게서 도시의 이름이 나왔다고 한다.

**[3.25.2]**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피리코스는 쿠레테스라고 불리는 신들 가운데 하나였다. 또 실레노스가 말레아에서 와 이곳에 정착했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실레노스가 말레아에서 자랐다는 것은 핀다로스의 노래에 나오는 다음 구절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 말레아산이 길러 낸 힘센 춤꾼,
> 나이스의 남편 실레노스.

핀다로스가 그의 이름이 피리코스였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말레아 사람들의 말이다.

**[3.25.3]** 피리코스의 아고라에는 우물이 있다. 실레노스가 준 선물이라고 여긴다. 이 우물이 마르면 그들은 물이 부족해질 것이다. 이 지방에 있는 신들의 성소는 아르테미스 아스트라테이아와 아폴론 아마조니오스의 성소다. 아르테미스를 아스트라테이아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존 여인들이 이곳에서 진군(스트라테이아)을 멈추었기 때문이다. 두 신의 상은 모두 목조이며, 테르모돈에서 온 그 여자들이 봉헌했다고 한다.

**[3.25.4]** 피리코스에서 길을 따라 바다로 내려가면 테우트로네에 이른다. 주민들은 아테네인 테우트라스가 자기들의 도시를 세웠다고 말한다. 신들 가운데 아르테미스 이소리아를 가장 공경하며 나이아라는 샘이 있다. 테우트로네에서 백오십 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타이나론 곶이 바다로 뻗어 있고, 아킬레이오스와 프사마토스라는 두 항구가 있다. 곶에는 동굴처럼 생긴 신전이 있으며, 그 앞에 포세이돈상이 있다.

**[3.25.5]** 그리스 시인들 가운데에는 헤라클레스가 이곳에서 하데스의 개를 지상으로 데려왔다고 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 동굴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는 길은 없다. 신들에게 영혼들이 모이는 지하 거처가 있다고 믿기도 어렵다. 밀레토스의 헤카타이오스는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았다. 무서운 뱀 한 마리가 타이나론에 살았는데, 이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 독

때문에 즉시 죽을 수밖에 없어 '하데스의 개'라고 불렸다는 것이다. 헤라클레스가 에우리스트헤우스에게 데려간 것은 바로 그 뱀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3.25.6]** 헤라클레스가 데려온 짐승을 처음으로 하데스의 개라 부른 사람은 호메로스였다. 그러나 그는 그 짐승에 이름을 붙여 주거나, 키마이라를 묘사할 때처럼 여러 짐승의 형상이 뒤섞인 모습을 그려 주지는 않았다. 뒤의 시인들이 케르베로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다른 점에서는 개와 닮게 그리면서도 머리는 셋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호메로스의 말에서 이 짐승이 사람과 친한 개였다는 뜻을 읽어 낼 수는 없다. 실제 뱀을 하데스의 개라고 불렀더라도 그의 말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3.25.7]** 타이나론에 바친 봉헌물 가운데에는 돌고래를 탄 키타라 연주자 아리온의 청동상이 있다. 헤로도토스는 리디아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아리온과 돌고래 이야기를 들은 대로 전했다. 나는 포로셀레네에서 목숨을 구해 준 소년에게 은혜를 갚는 돌고래를 본 적이 있다. 어부들에게 상처를 입은 돌고래를 소년이 치료해 주었다. 나는 이 돌고래가 소년의 부름을 따르고, 소년이 타고 싶어 할 때마다 태워 주는 모습을 보았다.

**[3.25.8]** 타이나론에는 샘도 있다. 지금은 조금도 신기한 것이 없다. 예전에는 물을 들여다보는 사람에게 항구와 배들을 보여 주었다고 한다. 한 여자가 거기서 더러운 옷을 빤 뒤로는 물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일이 영영 그쳤다.

**[3.25.9]** 타이나론 곶 끝에서 카이네폴리스까지는 바닷길로 사십 스타디온이다. 이 도시의 옛 이름도 타이나론이었다. 이곳에는 데메테르의 제의 전각이 있고, 바닷가에는 돌로 만든 입상이 있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다. 삼십 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타이나론의 곶인 티리데스가 있고, 거기에 히폴라라는 도시의 폐허가 있다. 폐허 가운데에는 아테나 히폴라이티스의 성소가 있다. 조금 더 가면 메사의 마을과 항구가 있다.

**[3.25.10]** 이 항구에서 오이틸로스까지는 백오십 스타디온이다. 도시에 이름을 준 영웅은 아르고스 혈통이었다. 그는 암피아낙스의 아들이며 안티마코스의 손자였다. 오이틸로스에서 볼 만한 것은 세라피스의 성소와 아고라에 있는 아폴론 카르네이오스의 목조 신상이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6장

**[3.26.1]** 오이틸로스에서 탈라메까지는 약 팔십 스타디온 거리다. 길에 이노의 성소와 신탁소가 있다. 사람들은 거기서 잠을 자며 신탁을 구한다. 여신은 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꿈속에서 밝힌다. 성소에서 지붕이 없는 부분에는 파시파에와 헬리오스의 청동상이 서 있다. 신전 안의 신상은 화환에 가려 똑똑히 볼 수 없었으나, 이것도 청동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신성한 샘에서는 마시기에 달고 좋은 물이 흘러나온다. 파시파에는 달의 별칭이며, 탈라메 사람들만의 토착 여신은 아니다.

**[3.26.2]** 탈라메에서 이십 스타디온 떨어진 해안에 페프노스라는 곳이 있다. 그 앞에는 큰 바위 하나보다 크지 않은 작은 섬이 놓여 있는데, 이 섬도 페프노스라 불린다. 탈라메 사람들은 디오스쿠로이가 여기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알크만도 어떤 노래에서 그렇게 말한 것

을 나는 안다. 다만 그들은 두 신이 페프노스에 남아 자랐다고 하지 않는다. 헤르메스가 그들을 데리고 펠라나로 갔다고 한다.

**[3.26.3]** 이 작은 섬의 노천에는 한 자 높이의 디오스쿠로이 청동상들이 있다. 겨울이면 파도가 바위를 뒤덮는데도 바다가 청동상들을 움직이지 못하니 놀라운 일이다. 여기 사는 개미들도 보통 개미보다 빛깔이 희다. 메세니아인들은 이 일대가 본래 자기 땅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디오스쿠로이도 라케다이몬인들보다 자기들에게 속한다고 생각한다.

**[3.26.4]** 페프노스에서 이십 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레욱트라가 있다. 이 도시가 왜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지는 모른다. 메세니아인들의 말대로 페리에레스의 아들 레우키포스에게서 이름이 나온 것이라면, 주민들이 모든 신 가운데 아스클레피오스를 가장 공경하는 까닭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아스클레피오스를 레우키포스의 딸 아르시노에의 아들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석상이 있고, 다른 곳에는 이노의 석상이 있다.

**[3.26.5]** 프리아모스의 딸 카산드라에게 바친 신전과 신상도 세워져 있다. 이 지방 사람들은 그녀를 알렉산드라라고 부른다. 스파르타의 라케다이몬인들이 따르는 것과 같은 관습에 따라 아폴론 카르네이오스의 목조 신상들을 두었다. 아크로폴리스에는 아테나의 성소와 신상이 있으며, 레욱트라에는 에로스의 신전과 숲도 있다. 겨울이면 숲을 가로질러 물이 흐른다. 그러나 바람에 떨어진 나뭇잎은 물이 불어 넘쳐도 떠내려가지 않는다.

**[3.26.6]** 내가 살던 시대에 레욱트라 해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아는 일을 기록하겠다. 불이 바람을 타고 숲으로 번져 나무 대부분을 태웠다. 그곳이 훤히 드러나자 옛날에 봉헌한 제우스 이토마타스의 신상이 발견되었다. 메세니아인들은 이것이 레욱트라가 옛날 메세니아의 일부였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라케다이몬인들이 레욱트라에 살았다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서 제우스 이토마타스를 숭배했을 수 있다.

**[3.26.7]** 호메로스가 아가멤논이 약속한 선물을 열거하면서 언급한 카르다밀레는 스파르타의 라케다이몬인들에게 속한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메세니아에서 이 도시를 떼어 냈기 때문이다. 바다에서는 팔 스타디온, 레욱트라에서는 육십 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여기 해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네레우스의 딸들에게 바쳐진 성역이 있다. 아킬레우스의 아들 피로스가 헤르미오네와 혼인하러 스파르타에 갈 때, 그를 보려고 네레우스의 딸들이 바다에서 이곳으로 올라왔다고 한다. 도시 안에는 아테나의 성소가 있고, 이 지방 도리아인들의 관습에 따라 아폴론 카르네이오스도 모셔져 있다.

**[3.26.8]** 호메로스의 시에서 에노페라고 불리는 도시가 우리 시대에는 게레니아라 불린다. 주민은 메세니아인이지만 도시는 자유 라코니아인들의 연맹에 속한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네스토르가 이 도시에서 자랐다고 하고,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헤라클레스가 필로스를 점령했을 때 그가 이곳으로 피신했다고 한다.

**[3.26.9]** 이 게레니아에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들 마카온의 무덤과 신성한 성소가 있다. 사람들은 마카온의 도움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 이 거룩한 곳을 로도스라고 부른다. 마카온의 청동 입상이 있는데, 머리에는 메세니아인들이 자기 지방 말로 **키포스**라 부르는 관을 쓰

고 있다. 서사시 『소(小) 일리아스』를 지은 사람은 마카온이 텔레포스의 아들 에우리필로스에게 죽었다고 한다.

**[3.26.10]** 내가 아는 바로는 이것이 페르가몬의 아스클레피오스 성소에서 지키는 관습의 까닭이다. 그곳 사람들은 찬가를 부를 때 텔레포스부터 노래하지만 에우리필로스는 언급하지 않으며, 신전 안에서는 아예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려 하지 않는다. 그가 마카온을 죽인 사람임을 알기 때문이다. 마카온의 뼈는 네스토르가 고향으로 가져왔다고 한다. 한편 포달레이리오스는 트로이아 함락 뒤 귀향하던 중 항로에서 벗어나, 카리아 본토의 시르노스에 무사히 닿아 그곳에 정착했다.

**[3.26.11]** 게레니아 지방에는 칼라티온이라는 산이 있다. 산 위에는 클라에아의 성소가 있고, 바로 가까이에 동굴이 있다. 입구는 좁지만 안에는 볼 만한 것들이 있다. 게레니아에서 내륙으로 삼십 스타디온 떨어진 곳에는 알라고니아가 있다. 자유 라코니아인들의 도시들을 열거할 때 이미 언급한 곳이다. 이곳에서 볼 만한 것은 디오니소스의 성소와 아르테미스의 성소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4권 메세니아

## 제1장

**[4.1.1]** 메세니아와, 그 가운데 게레니아 쪽에서 황제가 라코니아에 편입한 지역 사이에는 오늘날 코이리오스라는 골짜기가 경계를 이룬다. 이 땅에는 본래 사람이 살지 않았으며, 처음으로 주민이 들어온 경위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오늘날의 라코니아가 아직 렐레기아라 불리던 때, 이 땅을 다스리고 자기 이름을 붙인 렐렉스가 죽자 두 아들 가운데 형인 뮐레스가 왕위를 이었다. 동생 폴리카온은 그 때문에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지냈다. 그러다가 아르고스에서 포르바스의 손녀이자 트리오파스의 딸인 메세네를 아내로 맞았다.

**[4.1.2]** 메세네는 자기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녀의 아버지는 당대 그리스인들 가운데 명성과 권세가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메세네는 남편이 왕위도 없이 지내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아르고스와 라케다이몬에서 병력을 모아 이 땅으로 왔다. 이 지역 전체는 폴리카온의 아내에게서 메세네라는 이름을 얻었다. 두 사람은 여러 도시를 세웠는데, 그중 안다니아에 왕궁을 지었다.

**[4.1.3]** 테바이인들이 레욱트라에서 라케다이몬인들과 싸우고, 이토메산 아래에 지금의 메세네시가 세워지기 전에는 메세네라는 이름의 도시가 없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주된 근거는 호메로스의 구절이다. 그는 트로이아에 온 이들을 열거하면서 필로스와 아레네를 비롯한 여러 도시를 들었지만, 메세네라는 도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디세이아』에서는 다음 구절로 메세니아인들이 도시의 주민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라 한 민족의 이름임을 보여 준다.

> 메세니아 사람들이 이타카에서 양들을 몰아갔기 때문이다.

**[4.1.4]** 이피토스의 활을 이야기할 때는 한층 더 분명하다.

> 두 사람은 메세네의 오르틸로코스 집에서 만났다.

오르틸로코스의 집이라 한 것은 메세네 지방의 페라이라는 도시를 가리킨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메넬라오스를 찾아가는 대목에서 호메로스 자신이 이를 밝힌다.

> 그들은 페라이에 이르러 오르틸로코스의 아들 디오클레스의 집으로 갔다.

**[4.1.5]** 그러므로 이 나라를 처음 다스린 이들은 렐렉스의 아들 폴리카온과 그의 아내 메세네였다. 엘레우시스에서 두 위대한 여신의 의례를 가져와 메세네에게 전한 사람은 카우콘이었다. 그는 켈라이노스의 아들이며 플리오스의 손자였다. 아테네인들은 이 플리오스가 대지의 아들이었다고 말한다. 무사이오스가 리코스 가문을 위해 지은 데메테르 찬가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4.1.6]** 카우콘이 온 뒤 여러 해가 지나, 판디온의 아들 리코스가 두 위대한 여신의 비의를 더 높이 받들게 했다. 그가 비의에 참여할 사람들을 정결하게 한 참나무 숲은 아직도 리코스의 숲이라 불린다. 이 땅에 그런 이름의 숲이 있다는 것은 크레타인 리아노스도 말한다.

> 리코스의 숲 위, 험한 엘라이온 곁에.

**[4.1.7]** 이 리코스가 판디온의 아들이었음은 메타포스의 상에 새긴 구절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메타포스는 비의에 몇 가지 손질을 가한 사람이다. 그는 아테네 태생으로 비의에 정통했고 여러 종류의 의례를 세웠다. 테바이에 카베이로이의 비의를 세운 사람도 그였다. 그는 리코스 가문의 제의 건물에 상을 봉헌했는데, 거기에 새긴 글은 다른 여러 사실과 더불어 내 이야기도 뒷받침한다.

**[4.1.8]**

> 나는 헤르메스의 거처와 거룩한 데메테르와
> 그 맏딸 코레의 길을 성스럽게 하였다.
> 이곳에서 메세네가 두 위대한 여신의 축제를 세웠다고 한다.
> 플리오스의 고귀한 아들에게서 난 카우콘이 그녀를 가르쳤다.
> 판디온의 아들 리코스가 아티카의 의례를 온전히
> 지혜로운 안다니아로 가져온 일을 나는 놀랍게 여겼다.

**[4.1.9]** 이 명문은 메세네에게 온 카우콘이 플리오스의 후손이었음을 보여 준다. 리코스에 관해 내가 한 말과 비의가 본래 안다니아에서 거행되었다는 사실도 입증한다. 메세네가 비의를 세운 곳은 폴리카온과 함께 살던 곳이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내게는 자연스럽다.

periegesis.abm.uu.se

## 제2장

**[4.2.1]** 폴리카온과 메세네 사이에 어떤 자녀들이 태어났는지 몹시 알고 싶어서, 나는 『에오이아이』라 불리는 시와 서사시 『나우팍토스 이야기』를 읽고, 키나이톤과 아시오스가 쓴 계보도 모두 읽었다. 그러나 어디에도 이 일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대 에오이아이』에는 부테스의 아들 폴리카온이 헤라클레스의 아들 힐로스에게서 태어난 에우아이크메와 혼인했다고 나온다. 그러나 메세네의 남편이나 메세네 자신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없다.

**[4.2.2]** 얼마 뒤 폴리카온의 후손이 아무도 남지 않자, 사람들은 아이올로스의 아들 페리에레스를 왕으로 불러들였다. 내 생각에 폴리카온의 가계는 다섯 세대까지만 이어졌다. 메세니아인들은 활을 잘 쏘아 아폴론의 아들이라고 여겨진 멜라네우스가 페리에레스를 찾아왔다고 한다. 페리에레스는 오늘날 카르나시온이라 불리는 지역을 그에게 거처로 내주었다. 당시 이곳은 멜라네우스의 아내에게서 이름을 따 오이칼리아라고 불렸다고 한다.

**[4.2.3]** 그리스의 옛일은 대부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테살리아인들은 오늘날 사람이 살지 않는 에우리티온이 옛날에는 도시였고 오이칼리아라 불렸다고 한다. 에우보이아인들의 이야기는 크레오필로스가 『헤라클레스 이야기』에서 한 말과 일치한다. 밀레토스의 헤카타이오스는 오이칼리아가 에레트리아 영토의 일부인 스키오스에 있다고 했다. 그래도 내게는 전반적으로 메세니아인들의 이야기가 더 그럴듯하다. 특히 에우리토스의 뼈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이야기하겠다.

**[4.2.4]** 페리에레스는 페르세우스의 딸 고르고포네에게서 아파레우스와 레우키포스를 얻었다. 그가 죽은 뒤 두 아들이 메세니아의 왕권을 물려받았는데, 권한은 아파레우스가 더 컸다. 그는 즉위하여 오이발로스의 딸 아레네의 이름을 딴 도시를 세웠다. 아레네는 그의 아내이자 어머니가 같은 누이였다. 고르고포네가 오이발로스와 혼인했기 때문이다. 고르고포네의 일은 아르골리스와 라코니아를 다룰 때 이미 두 번 이야기했다.

**[4.2.5]** 아파레우스는 이렇게 메세니아에 아레네시를 세웠다. 또 사촌 넬레우스가 펠리아스에게 이올코스에서 쫓겨났을 때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다. 넬레우스는 아이올로스의 아들 크레테우스에게서 태어났으며, 포세이돈의 아들이라고도 불렸다. 아파레우스는 그에게 나라의 해안 지방을 주었다. 그곳의 여러 도시 가운데 필로스가 있었는데, 넬레우스는 그곳에 정착하여 왕궁을 세웠다.

**[4.2.6]** 판디온의 아들 리코스도 형제 아이게우스에게 아테네에서 쫓겨나 아레네로 왔다. 그는 아파레우스와 그 자녀들과 그의 아내 아레네에게 두 위대한 여신의 의례를 알려 주었다. 다만 그가 의례를 가져가 전한 장소는 안다니아였다. 카우콘이 메세네를 비의에 입문시킨 곳이 바로 거기였기 때문이다.

**[4.2.7]** 아파레우스의 아들들 가운데 이다스는 형이며 더 용맹했고, 린케우스는 아우였다. 핀다로스의 말을 믿을 수 있다면 린케우스는 눈이 어찌나 밝았던지 참나무 줄기 너머까지 볼 수 있었다. 린케우스에게 자식이 있었다는 말은 전하지 않는다. 이다스는 마르페사에게서 클레오파트라라는 딸을 얻었으며, 그녀는 멜레아그로스와 혼인했다. 서사시 『키프리아』를 지은 이는 그리스인들이 트로이아에 이르렀을 때 맨 먼저 감히 상륙한 프로테실라오스의 아내가 폴리도라였다고 한다. 또 폴리도라를 오이네우스의 아들 멜레아그로스의 딸이라고 한다. 이 말이 옳다면 마르페사에서 시작하는 이 세 여인은 모두 남편이 죽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3장

**[4.3.1]** 아파레우스의 아들들은 소를 두고 사촌인 디오스쿠로이와 싸웠다. 린케우스는 폴리데우케스에게 죽었고 이다스는 벼락에 맞아 죽었다. 아파레우스의 집안에는 남자 후손이 한 명도 남지 않아 메세니아의 왕권은 넬레우스의 아들 네스토르에게 돌아갔다. 이전에 이다스가 다스리던 땅은 모두 넘어갔으나,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들들에게 딸린 땅은 넘어가지 않았다.

**[4.3.2]** 메세니아인들은 트로이아에 간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들들이 메세니아인이었다고 말한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코로니스의 아들이 아니라 레우키포스의 딸 아르시노에의 아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메세니아의 한 황량한 곳을 트리카라고 부르며, 마카온이 화살에 맞았을 때 네스토르가 친절히 돌보는 호메로스의 구절을 인용한다. 마카온이 이웃이자 혈연으로 이어진 민족의 왕이 아니었다면 네스토르가 그토록 선뜻 나서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스클레피오스 일가에 관한 그들의 말을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게레니아에 마카온의 무덤을, 파라이에 그의 아들들의 성소를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이다.

**[4.3.3]** 트로이아 전쟁이 끝나고 네스토르가 고향으로 돌아와 죽은 뒤, 두 세대가 지나 도리아인들의 원정과 헤라클레스 후손들의 귀환이 있었다. 이때 네스토르의 후손들은 메세니아에서 쫓겨났다. 이는 티사메노스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미 다루었다. 여기서는 한 가지만 덧붙이겠다. 도리아인들이 아르고스를 테메노스에게 배정했을 때, 크레스폰테스는 자신이 아리스토데모스보다 나이가 많으므로 메세니아 땅을 달라고 했다.

**[4.3.4]** 아리스토데모스는 이미 죽었으나 아우테시온의 아들 테라스가 크레스폰테스에게 강하게 맞섰다. 테라스는 테바이 혈통으로 오이디푸스의 아들 폴리네이케스에게서 네 세대 아래였다. 그는 당시 아리스토데모스의 아들들의 외삼촌이자 후견인이었다. 아리스토데모스가 아우테시온의 딸 아르게이아와 혼인했기 때문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메세니아를 자기 몫으로 얻고 싶었던 크레스폰테스는 테메노스에게 접근해 그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였다. 그러고는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데 맡기는 척했다.

**[4.3.5]** 테메노스는 아리스토데모스의 자식들 몫과 크레스폰테스 몫의 제비를 물이 든 항아리에 넣었다. 제비가 먼저 나온 쪽이 그 땅에서 자기 몫을 먼저 고르기로 했다. 테메노스는 두 제비를 모두 진흙으로 만들게 했으나, 아리스토데모스의 아들들 몫은 햇볕에 말리고 크레스폰테스 몫은 불에 구웠다. 그리하여 아리스토데모스의 아들들의 제비는 물에 풀어졌고, 크레스폰테스가 이겨 메세니아를 골랐다.

**[4.3.6]** 도리아인들은 옛 메세니아의 평민들을 땅에서 몰아내지 않았다. 평민들은 크레스폰테스의 통치를 받고 도리아인들과 땅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자기들을 다스리던 이들을 미심쩍게 여겼으므로 이 일에서 양보했다. 넬레우스의 후손들이 본래 이올코스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크레스폰테스는 당시 아르카디아의 왕 킵셀로스의 딸 메로페를 아내로 맞았다. 그들 사이에는 여러 자식이 태어났으며 막내가 아이피토스였다.

**[4.3.7]** 크레스폰테스는 자신과 자식들이 살 왕궁을 스테니클레로스에 짓게 했다. 본래 페리에레스와 다른 왕들은 안다니아에 살았으나, 아파레우스는 아레네를 세운 뒤 아들들과 함께 그곳에 자리 잡았다. 네스토르와 그 후손들 시대에 왕궁은 필로스에 있었는데, 크레스폰테스는 왕이 스테니클레로스에 살도록 정했다. 그는 정사를 대체로 평민들에게 유리하게 폈다. 그 때문에 부유한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 크레스폰테스와 아이피토스를 제외한 그의 아들들을 모두 죽였다.

**[4.3.8]** 아이피토스는 당시 아직 어린아이로 킵셀로스의 손에서 자라고 있었으며, 집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그가 성년이 되자 아르카디아인들이 그를 메세네로 데려왔다. 다른 도리아 왕들인 아리스토데모스의 아들들과 테메노스의 아들 이스트미오스도 그가 왕위를 되찾도록 도왔다. 왕이 된 아이피토스는 아버지를 죽인 자들과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모두 벌했다. 메세니아의 귀족들에게는 예를 갖춰 그들의 마음을 얻었고, 평민들에게는 선물을 베풀어 그들의 마음을 얻었다. 그가 이토록 큰 존경을 받았으므로 그의 후손들은 헤라클레스 가문 대신 아이피토스 가문이라 불렸다.

**[4.3.9]** 아이피토스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글라우코스는 공적인 일이나 개인을 대하는 일에서 두루 아버지를 본받았으나, 신을 공경하는 데서는 그를 능가했다. 이토메산 꼭대기의 제우스 성역은 폴리카온과 메세네가 봉헌했지만, 그때까지 도리아인들은 그곳에 아무런 예

도 올리지 않았다. 도리아인들 사이에 이 숭배를 확립한 사람이 글라우코스였다. 게레니아에서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들 마카온에게 처음 제사를 올린 이도 그였으며, 트리오파스의 딸 메세네에게 영웅에게 바치는 관례의 예를 올리도록 정한 이도 그였다.

**[4.3.10]** 글라우코스의 아들 이스트미오스는 고르가소스와 니코마코스의 성소도 세웠다. 이 성소는 파라이에 있다. 이스트미오스에게는 도타다스라는 아들이 있었다. 메세니아에는 다른 항구들도 있었으나, 그는 모토네에 항구를 만들었다. 도타다스의 아들 시보타스는 왕이 해마다 파미소스강에 제사를 올리도록 정했다. 또 여전히 안다니아에서 열리던 두 위대한 여신의 비의에 앞서, 오이칼리아에서 멜라네우스의 아들 에우리토스에게 영웅으로서 제물을 바치도록 정했다. periegesis.abm.uu.se

## 제4장

**[4.4.1]** 시보타스의 아들 핀타스가 다스리던 때, 메세니아인들은 처음으로 델로스의 아폴론에게 봉헌물과 남자 합창대를 보냈다. 행렬이 신에게 부른 찬가는 에우멜로스가 지었다. 그의 작품 가운데 진작으로 여겨지는 것은 이 시뿐이다. 라케다이몬인들과 처음으로 분쟁이 일어난 것도 핀타스의 치세였다. 분쟁의 발단 자체가 논란거리지만, 전하는 말은 다음과 같다.

**[4.4.2]** 메세니아 경계에 림나티스, 곧 '호수의 여신'이라 불리는 아르테미스의 성소가 있다. 도리아인들 가운데 이 성소를 함께 쓰는 이들은 메세니아인들과 라케다이몬인들뿐이었다. 라케다이몬인들의 말에 따르면, 축제에 온 자기네 처녀들이 메세니아 남자들에게 능욕당했으며 이를 막으려던 왕도 죽었다. 그 왕은 아르켈라오스의 아들 텔레클로스였다. 아르켈라오스의 아버지는 아게실라오스였고, 그 위로 도리소스, 라보타스, 에케스트라토스, 아기스가 차례로 이어진다. 라케다이몬인들은 능욕당한 처녀들이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도 한다.

**[4.4.3]** 메세니아인들은 텔레클로스가 성소에 온 메세네의 최고 유력자들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한다. 메세니아 땅이 비옥하여 탐이 났다는 것이다. 그는 수염이 나지 않은 스파르타의 젊은이들을 골라 처녀들의 옷과 장신구를 입히고 단검을 주었다. 그러고는 쉬고 있던 메세니아인들 사이로 들여보냈다. 메세니아인들은 자신들을 지키려 맞서 싸우다가 그 젊은이들과 텔레클로스 자신을 죽였다. 메세니아인들의 말로는, 라케다이몬인들은 자신들이 먼저 잘못했음을 알고 텔레클로스의 죽음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지 않았다. 왕이 이 계획을 세운 데에는 라케다이몬인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양측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어느 쪽에 마음이 기우는가에 따라 그쪽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4.4.4]** 한 세대 뒤 라케다이몬에서는 텔레클로스의 아들 알카메네스가 다스렸다. 다른 왕가의 왕은 니칸드로스의 아들 테오폼포스였다. 니칸드로스의 아버지는 카릴로스였고, 그 위로 폴리덱테스, 에우노모스, 프리타니스, 에우리폰이 차례로 이어진다. 메세니아에서는 핀타스의 두 아들 안티오코스와 안드로클레스가 다스렸다. 이때 라케다이몬인들과 메세니아인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증오가 일어났고, 라케다이몬인들은 빌미를 얻어 전쟁을 시작했다. 시비를 걸고 싶어 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쟁을 하려던 그들에게는 충분한 빌미

였고, 겉으로 보기에도 매우 그럴듯했다. 양쪽이 평화를 더 바랐다면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 사건은 다음과 같았다.

**[4.4.5]** 메세니아에 폴리카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 면에서 상당히 이름이 높았으며 올림피아 경기의 우승자였다. 그가 우승한 것은 엘리스인들이 제4회 올림피아 경기를 열었을 때로, 당시에는 단거리 달리기가 유일한 종목이었다. 폴리카레스는 소를 가지고 있었으나 충분히 먹일 만한 목초지가 자기에게 없었다. 그래서 스파르타인 에우아이프노스에게 소를 맡겨 그의 땅에서 기르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에우아이프노스가 갖기로 했다.

**[4.4.6]** 에우아이프노스는 신의보다 부당한 이득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으며, 남을 속이는 데도 능했다. 그는 라코니아에 배를 댄 상인들에게 폴리카레스의 소를 팔았다. 그러고는 직접 폴리카레스에게 소식을 전하러 와서, 해적들이 그 땅에 상륙해 자신을 제압하고 소와 소치기들을 데려갔다고 말했다. 그가 거짓말로 폴리카레스를 속이려 하는 동안, 소치기 하나가 상인들에게서 달아나 돌아왔다. 그는 에우아이프노스가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폴리카레스 앞에서 그의 거짓을 밝혔다.

**[4.4.7]** 이렇게 들켜 부인할 수 없게 되자 에우아이프노스는 폴리카레스와 그의 아들에게 몇 번이고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다. 사람을 그릇된 일로 이끄는 성향은 여러 가지지만 그중 가장 힘이 센 것은 이득을 탐하는 마음이다. 그는 소를 팔고 받은 액수를 밝히고, 폴리카레스의 아들이 자기와 함께 가서 돈을 받아 달라고 청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 라코니아에 이르자, 에우아이프노스는 처음보다 더 불경한 일을 감히 저질렀다. 폴리카레스의 아들을 죽인 것이다.

**[4.4.8]** 폴리카레스는 이 새로운 불행을 듣고 라케다이몬으로 갔다. 그는 왕들과 에포로이들에게 끈질기게 호소하며 아들의 죽음을 큰 소리로 슬퍼하고 에우아이프노스에게 당한 일을 하나하나 말했다. 자신이 친구로 삼아 라케다이몬 사람들 가운데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이 에우아이프노스였다. 여러 차례 당국을 찾아갔지만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하자 폴리카레스는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격분한 그는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라케다이몬인이면 누구든 죽였다. Pausanias ′ Description of Greece

## 제5장

**[4.5.1]** 라케다이몬인들은 폴리카레스가 자신들에게 인도되지 않은 일과 텔레클로스가 살해된 일 때문에 전쟁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보다 전부터 크레스폰테스가 제비뽑기에서 부정을 저지른 일로 의심을 품고 있었다고도 한다. 메세니아인들이 텔레클로스에 관해 내놓는 반박은 이미 전했다. 그들은 또 아리스토데모스의 아들들이 크레스폰테스의 아들 아이피토스가 왕위를 되찾는 데 힘을 보탠 사실을 든다. 그들이 크레스폰테스와 사이가 나빴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4.5.2]** 그들은 라케다이몬인들도 에우아이프노스를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자신들도 폴리카레스를 넘겨주어 처벌받게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다만 양측 모두와 혈연으로 이어진 아르고스인들 앞에서 동맹 회의의 재판을 받겠다고 제안했다.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스라 불리는

법정에 사건을 맡기겠다고도 했다. 이 법정은 예로부터 살인 사건을 관할한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4.5.3]** 메세니아인들은 라케다이몬인들이 그런 이유로 전쟁에 나선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행동에서 그랬듯 욕심을 부려 메세니아 땅을 차지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증거로 아르카디아인들과 아르고스인들을 대했던 일을 든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양쪽 땅을 끊임없이 잠식하면서도 만족할 줄 몰랐다는 것이다. 크로이소스가 소아시아의 다른 그리스인들과 카리아 본토의 도리아인들을 모두 굴복시킨 뒤 라케다이몬에 선물을 보내자,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그 이민족과 우호를 맺었다.

**[4.5.4]** 메세니아인들은 포키스의 지도자들이 델포이의 신전을 점거했을 때의 일도 지적한다. 왕들과 이름 있는 스파르타인들은 각자 사사로이, 에포로이와 원로회는 공적으로 신의 재산을 나누어 받았다는 것이다. 라케다이몬인들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는 카산드레이아의 참주가 된 아폴로도로스와 동맹을 맺은 일을 들어 그들을 비난한다.

**[4.5.5]** 메세니아인들이 이 일을 어째서 그토록 신랄한 비난의 근거로 삼는지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다. 메세니아인들이 보인 용맹과 그들이 싸움을 이어 간 기간을 아폴로도로스의 참주정 때 벌어진 일과 견주기는 어렵다. 하지만 카산드레이아인들이 겪은 재난은 그 참혹함에서 메세니아인들이 겪은 것에 크게 뒤지지 않았을 것이다.

**[4.5.6]** 양측이 내세우는 전쟁의 원인은 이러하다. 라케다이몬에서는 폴리카레스를 넘겨 달라고 사절단을 보냈다. 메세니아의 왕들은 백성과 의논한 뒤 결정한 바를 스파르타에 전하겠다고 답했다. 사절들이 떠나자 두 왕은 시민들을 회의에 소집했다. 회의에서 나온 의견은 크게 갈렸다. 안드로클레스는 폴리카레스가 불경하고 가증스러운 죄를 저질렀으므로 넘겨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티오코스는 여러 말로 반박하면서, 폴리카레스가 에우아이프노스의 눈앞에서 벌을 받는 것만큼 가엾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그가 당할 일을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했다.

**[4.5.7]** 마침내 안드로클레스와 안티오코스의 지지자들은 격해진 나머지 무기를 들었다.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수가 훨씬 많았던 안티오코스의 일파가 안드로클레스와 그 주요 지지자들을 죽였다. 단독으로 왕이 된 안티오코스는 내가 앞서 언급한 법정들에 사건을 맡길 용의가 있다고 스파르타에 전했다. 그러나 라케다이몬인들은 편지를 가져간 사람들에게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4.5.8]** 몇 달이 못 되어 안티오코스가 죽자 아들 에우파에스가 왕위를 이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메세니아에 전령을 보내 전쟁을 선포하거나 미리 우호 관계를 끊지도 않은 채, 할 수 있는 한 철저히 감추어 전쟁을 준비했다. 그들은 먼저 맹세했다. 전쟁이 쉽사리 결판나지 않아 오래 걸리거나 아무리 큰 재난을 당하더라도, 칼로 메세니아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맹세였다.

**[4.5.9]** 이렇게 맹세한 뒤 그들은 텔레클로스의 아들 알카메네스에게 군대를 맡겨 밤중에 암페이아를 공격했다. 암페이아는 메세니아에서 라코니아 경계에 가까운 소도시다. 규모는 크지 않으나 높은 언덕에 있고 샘물이 풍부하다. 전쟁 전체를 치르는 거점으로 두루 알맞

아 보였다. 성문은 열려 있었고 수비대도 없었으므로 그들은 도시를 점령하여 붙잡은 메세니아인들을 죽였다. 더러는 아직 침상에 있었고, 더러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신들의 성소와 제단으로 피한 사람들이었다. 달아난 사람은 거의 없었다.

**[4.5.10]** 이것은 라케다이몬인들이 메세니아인들에게 가한 첫 공격이었다. 메세니아의 크세노도코스가 단거리 달리기에서 이긴 제9회 올림피아 경기 주기의 두 번째 해였다. 당시 아테네에는 해마다 제비로 뽑는 아르콘이 아직 없었다. 민중은 처음에 메돈 가문이라 불리는 멜란토스의 후손들에게서 권한을 대부분 빼앗아 왕권을 법에 따르는 관직으로 바꾸었다. 뒤에는 그 임기를 십 년으로 제한했다. 암페이아가 점령되었을 때 아테네에서는 아이스킬로스의 아들 아이시미데스가 임기 다섯째 해를 보내고 있었다. periegesis.abm.uu.se

## 제6장

**[4.6.1]** 이 전쟁의 역사와 그 안에서 신이 양편에 겪게 하고 행하게 한 모든 일을 서술하기 전에, 메세니아인 한 사람이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싶었다. 이 전쟁은 라케다이몬인들과 그 동맹군이 메세니아인들과 그 지원군을 상대로 치렀다. 페르시아 전쟁이나 펠로폰네소스 전쟁처럼 침략자에게서 이름을 얻지 않고, 재난을 겪은 이들을 따라 메세니아 전쟁이라고 불렀다. 트로이아에서 벌어진 전쟁도 누구나 그리스 전쟁이라 하지 않고 트로이아 전쟁이라 부르는 것과 같다. 베네 출신의 리아노스가 서사시에서 이 메세니아 전쟁을 이야기했고, 프리에네의 미론도 이를 기록했다. 미론의 저술은 산문이다.

**[4.6.2]** 두 저술가 모두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를 이어서 다루지는 않았다. 각자 자기가 고른 부분을 썼다. 미론은 암페이아가 함락된 일부터 아리스토데모스가 죽기까지를 서술했다. 리아노스는 이 첫 전쟁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그는 메세니아인들이 라케다이몬인들에게 반기를 든 뒤에 겪은 일을 이야기했으나, 그마저도 전부가 아니라 이른바 '큰 도랑'에서 전투를 벌인 뒤에 일어난 일들만 다루었다.

**[4.6.3]** 내가 리아노스와 미론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메세니아인 아리스토메네스 때문이다. 메세네의 이름을 드높이는 데 누구보다 큰 공을 세운 사람이 그였다. 미론은 자기 역사에 그를 등장시켰고, 리아노스의 서사시에서 아리스토메네스가 차지하는 자리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 아킬레우스가 차지하는 자리만큼이나 크다. 두 사람의 말이 크게 달라 둘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아리스토메네스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는 리아노스의 이야기가 내게 더 그럴듯해 보였다.

**[4.6.4]** 미론은 자기가 하는 말이 사실답고 믿을 만하게 들리는지에 신경 쓰지 않는다. 다른 저술에서도 그 점을 알아볼 수 있지만, 특히 이 메세니아 전쟁의 역사에서 두드러진다. 그는 아리스토데모스가 죽기 조금 전에 아리스토메네스가 라케다이몬의 왕 테오폼포스를 죽인 것으로 서술했다. 그러나 테오폼포스는 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전사하지도, 다른 방식으로 죽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4.6.5]** 전쟁을 끝낸 왕이 바로 이 테오폼포스였다. 내 증거는 티르타이오스의 다음 구절이다.

> 신들의 사랑을 받는 우리 왕 테오폼포스에게.
> 그를 힘입어 우리는 너른 춤터가 있는 메세네를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아리스토메네스가 두 번째 전쟁의 시대 사람이라고 본다. 그에 관해서는 그 전쟁에 이르러 이야기하겠다.

**[4.6.6]** 메세니아인들은 함락된 도시에서 직접 살아나온 사람들에게 암페이아에서 벌어진 일을 듣고, 여러 도시에서 스테니클레로스로 모였다. 백성이 회의에 모이자 먼저 유력자들이, 마지막으로 왕이 나서서 격려했다. 암페이아가 함락되었다고 겁에 질리거나 전쟁 전체의 승패가 벌써 결정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라케다이몬의 힘이 자기들보다 우세하다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이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전쟁을 더 오래 익혔지만, 메세니아인들에게는 용맹을 보여야 할 더 절실한 이유가 있었다. 먼저 그릇된 일을 저지른 적 없이 조국을 지키는 이들에게 신들도 더 큰 호의를 베풀 것이라고 했다. periegesis.abm.uu.se

## 제7장

**[4.7.1]** 에우파에스는 이렇게 말하고 회의를 마쳤다. 그때부터 모든 메세니아인에게 무장을 갖추게 했다. 훈련받지 않은 이들에게는 전투를 익히도록 하고, 이미 훈련받은 이들에게는 전보다 더 엄격한 훈련을 받게 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메세니아를 습격했으나 그 땅을 이미 자기 것처럼 여겨 망가뜨리지 않았다. 나무를 베거나 건물을 허물지는 않았지만, 마주치는 가축은 몰아갔고 곡식과 다른 수확물을 가져갔다.

**[4.7.2]** 그들은 도시들을 공격했으나 하나도 점령하지 못했다. 도시마다 성벽을 갖추고 수비대를 두어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손실만 입고 아무 성과도 없이 물러났으며, 마침내 도시를 공격하는 일을 그만두었다. 메세니아인들도 라코니아 해안과 타위게토스산 둘레의 경작지 전역을 황폐하게 했다.

**[4.7.3]** 암페이아가 함락된 지 삼 년 뒤, 에우파에스는 라케다이몬인들에 대한 메세니아인들의 분노가 극에 이르자 그 기세를 쓰고 싶었다. 훈련도 충분히 받았다고 판단하여 진군을 명했다. 노예들에게도 따라오라고 명하여, 방어 시설을 갖춘 진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목재와 다른 모든 물자를 가져오게 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암페이아의 수비대로부터 메세니아인들이 출정한다는 말을 듣고 그들 역시 싸우러 나왔다.

**[4.7.4]** 메세니아에 다른 점에서는 싸우기에 적합하나 앞에 깊은 골짜기가 있는 곳이 있었다. 에우파에스는 여기에 메세니아군을 배치하고 클레온니스를 지휘관으로 삼았다. 기병과 경무장병을 합쳐 오백 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들은 피타라토스와 안탄드로스가 거느렸다.

**[4.7.5]** 두 군대가 맞붙으려 하자 그 사이의 골짜기 때문에 중무장병들은 가까이 다가가 싸울 수 없었다. 서로에 대한 증오로 무모해질 만큼 열렬히 상대에게 접근했는데도 그랬다. 기병과 경무장병은 골짜기 위쪽에서 맞붙었다. 그러나 수와 기량에서 대등했으므로 승패가 나지 않았다.

**[4.7.6]** 그들이 싸우는 동안 에우파에스는 노예들에게 먼저 군대의 뒤쪽을, 그다음에는 양옆을 목책으로 막으라고 했다. 날이 저물어 전투가 끊기자 그들은 골짜기에 면한 앞쪽도 목책으로 막았다. 날이 밝고서야 라케다이몬인들은 에우파에스가 미리 내다보고 한 일을 깨달았다. 메세니아인들이 목책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싸울 길이 없었다. 공성전은 모든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엄두도 내지 못했다.

**[4.7.7]** 그들은 그때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한 해 뒤, 나이 든 이들이 그들을 비난하며 겁이 많고 맹세도 저버렸다고 꾸짖자, 그들은 두 번째로 메세니아를 향해 공공연히 출정했다. 양쪽 왕이 모두 지휘했다. 니칸드로스의 아들 테오폼포스와 알카메네스의 아들 폴리도로스였다. 알카메네스는 이미 죽은 뒤였다. 메세니아군은 그 맞은편에 진을 쳤다. 스파르타인들이 싸움을 걸어오려 하자 그들도 나아가 맞섰다.

**[4.7.8]** 라케다이몬군의 왼쪽 날개는 폴리도로스가, 오른쪽 날개는 테오폼포스가 지휘했다. 중앙은 에우리레온이 맡았다. 그는 이제는 라케다이몬인이었지만 본래 테바이의 카드모스 가문 출신으로, 오이올리코스의 아들 아이게우스에게서 네 세대 아래였다. 오이올리코스는 테라스의 아들이고, 테라스는 아우테시온의 아들이었다. 메세니아 쪽에서는 안탄드로스와 에우파에스가 라케다이몬군의 오른쪽 날개와 마주 보는 곳에 섰다. 폴리도로스를 마주 보는 다른 쪽 날개는 피타라토스가, 중앙은 클레온니스가 맡았다.

**[4.7.9]** 싸움이 시작되려 하자 왕들은 앞으로 나와 자기 군대를 격려했다. 테오폼포스가 라케다이몬인들에게 한 말은 그 나라의 관습대로 짧았다. 그는 메세니아인들을 상대로 한 맹세를 상기시키고, 이웃 민족들을 굴복시킨 아버지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을 해냈음을 보여 주고 그보다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는 포부는 고귀하다고 했다. 에우파에스는 스파르타 왕보다 길게 말했으나, 형편상 허용된다고 본 만큼만 말했다.

**[4.7.10]** 싸움에는 땅과 재산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말했다. 패한다면 무슨 일이 닥칠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아내와 자식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장정들에게는 모욕을 당하지 않고 죽는 것이 가장 가벼운 운명일 것이다. 성소들은 약탈당하고 조상 대대로 살던 집들은 불탈 것이다. 그가 하는 말은 짐작이 아니었다. 암페이아에서 잡힌 이들이 당한 일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증거였다.

**[4.7.11]** 그런 재앙을 당하느니 명예롭게 죽는 편이 낫다. 아직 패하지 않았고 용기도 적에게 뒤지지 않는 지금, 싸우려는 기세에서 적을 능가하는 것이 한 번 낙담한 뒤 손실을 만회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8장

**[4.8.1]** 에우파에스의 말은 이러했다. 양쪽 지휘관이 신호를 내리자, 메세니아인들은 분노에 못 이겨 죽음이라도 기꺼이 맞으려는 사람들처럼 라케다이몬군을 향해 무작정 돌진했다. 저마다 맨 먼저 싸움에 뛰어들고 싶어 했다. 라케다이몬인들도 열렬히 맞서 나왔으나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했다.

**[4.8.2]** 서로 바싹 다가서자 그들은 무기를 휘두르고 사나운 눈길을 보내 위협하다가 서로 욕을 퍼부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메세니아인들이 이미 자기들의 노예이며 헤일로타이만

큼이나 자유가 없다고 했다. 메세니아인들은 이익을 위해 혈족을 공격하고 도리아인의 조상 전래 신들을 모두, 그중에서도 헤라클레스를 모욕하니 이 전쟁은 불경하다고 응수했다. 그러고는 서로 욕을 퍼붓다가 마침내 몸으로 맞붙었다. 특히 라케다이몬 쪽에서는 대열이 대열을 밀어붙였고, 사람마다 적 한 사람과 맞서 공격했다.

**[4.8.3]** 전술과 훈련에서 라케다이몬군이 훨씬 앞섰고, 수도 더 많았다. 이미 굴복시킨 이웃 민족들을 자기 대열에 넣어 함께 싸웠기 때문이다. 한 세대 전에 아르고스인들에게 고향에서 쫓겨나 라케다이몬에 보호를 청하러 온 아시네의 드리오페스인들도 강제로 군대에 들어갔다. 메세니아의 경무장병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크레타의 궁수들을 용병으로 썼다.

**[4.8.4]** 메세니아인들을 움직인 것은 절박함과 죽음을 맞을 각오였다. 그들은 조국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기보다 마땅히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들이 한 일과 그것이 라케다이몬인들에게 끼칠 손실도 실제보다 크게 여겼다. 어떤 이들은 대열에서 뛰쳐나가 눈부신 용맹을 보였다. 치명상을 입어 숨을 거의 쉬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절박함에서 비롯된 격렬한 기세를 아직 간직한 이들이 있었다.

**[4.8.5]** 그들은 서로 격려했다. 목숨을 건지고 다치지 않은 이들은 쓰러진 사람들에게 마지막이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한 값비싸게 목숨을 내주고 기꺼이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부상자들은 힘이 빠지고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끼면서, 다치지 않은 동료들에게 자기들만큼 용맹을 보이고 자신들의 죽음이 조국에 헛되지 않게 해 달라고 했다.

**[4.8.6]** 라케다이몬인들은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메세니아인들만큼 눈에 띄는 용맹을 보이려 나서지도 않았다. 어려서부터 전쟁에 익숙한 그들은 대열의 깊이를 더하고, 메세니아인들이 자기들만큼 오래 버티거나 전투의 피로와 부상을 견디지는 못하리라 기대했다.

**[4.8.7]** 두 편의 싸우는 방식과 마음가짐에는 이런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양쪽 모두, 싸움에서 밀린 사람들은 목숨을 빌거나 몸값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다. 서로 원한이 깊어 살려 주리라는 기대가 없기도 했겠지만, 무엇보다 앞서 세운 공을 욕되게 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기고 있는 사람들도 자랑하거나 상대를 조롱하지 않았다. 아직 어느 쪽도 승리를 확신할 수 없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쓰러진 이들의 무장을 벗기려다가 죽은 사람들의 일이었다.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드러내면 투창에 맞았다. 무장을 벗기는 데 정신이 팔려 쓰러지거나, 채 죽지 않은 상대에게 오히려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4.8.8]** 두 왕의 싸움도 이야기할 만하다. 테오폼포스는 에우파에스를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사납게 돌진했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에우파에스는 안탄드로스에게, 테오폼포스가 하는 짓은 그의 조상 폴리네이케스가 꾀한 일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폴리네이케스는 아르고스에서 군대를 이끌고 조국을 쳤으며, 자기 손으로 형제를 죽이는 동시에 그 형제에게 죽었다. 테오폼포스는 헤라클레스의 후손들을 라이오스와 오이디푸스의 집안에 내렸던 것과 같은 부정에 빠뜨리려 하지만, 몸 성히 전장을 떠나지는 못하리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에우파에스도 앞으로 나갔다.

**[4.8.9]** 그러자 병사들이 지쳐 있었는데도 모든 곳에서 전투가 다시 한창때처럼 벌어졌다. 양쪽 모두 힘을 되찾고 죽음을 더욱 개의치 않으니, 이제 막 처음 싸우기 시작했다고 여길

만했다. 에우파에스의 호위대는 전부 메세니아의 정예로 이루어져 있었다. 마침내 에우파에스와 그의 군사들은 거의 광기에 가까운 절박한 기세로 용맹을 떨쳐 적을 압도했다. 그들은 테오폼포스 자신을 밀어내고 맞은편 라케다이몬군을 패주시켰다.

**[4.8.10]** 그러나 메세니아군의 다른 날개는 곤경에 처했다. 지휘관 피타라토스가 전사해 병사들이 지휘를 받지 못했다. 사기를 잃지는 않았으나 질서 없이 어지럽게 싸웠다. 폴리도로스는 메세니아인들이 물러갈 때 쫓지 않았고, 에우파에스 쪽도 라케다이몬인들을 뒤쫓지 않았다. 에우파에스와 그의 군사들은 패한 쪽 날개를 돕는 편이 낫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미 전장에 어둠이 내렸으므로 폴리도로스의 군대와 맞붙지는 않았다.

**[4.8.11]** 라케다이몬인들이 퇴각하는 군대를 더 추격하지 못한 데에는 그 지형을 잘 모른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또 그들은 예로부터 추격을 너무 서두르지 않았다. 달아나는 자들을 죽이는 일보다 대열을 지키는 데 더 마음을 썼기 때문이다. 라케다이몬 쪽의 에우리레온과 메세니아 쪽의 클레온니스가 지휘한 중앙에서는 승패가 나지 않았다. 여기서도 밤이 내려 양군을 갈라놓았다.

**[4.8.12]** 이 전투는 주로, 어쩌면 전적으로 양쪽의 중무장병들이 치렀다. 말을 탄 사람들은 적었고 언급할 만한 일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펠로폰네소스인들은 말을 잘 타지 못했기 때문이다. 메세니아 쪽의 경무장병들과 라케다이몬 쪽의 크레타인들은 전혀 싸우지 않았다. 양쪽 모두 옛 관행에 따라 그들을 자기 보병의 예비대로 두었기 때문이다.

**[4.8.13]** 이튿날 어느 쪽도 싸움을 시작하거나 먼저 전승비를 세우려 하지 않았다. 날이 저물어 갈 무렵 양측은 전사자들의 시신을 거두자고 제의했다. 두 편이 이에 합의하고 시신을 묻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9장

**[4.9.1]** 전투가 끝난 뒤 메세니아인들의 형편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도시마다 수비대를 두는 데 재정을 써 지쳤고, 노예들은 라케다이몬 쪽으로 달아났다. 질병까지 닥쳤다. 모든 사람에게 옮은 것은 아니지만 역병과 비슷하여 두려움을 일으켰다. 이런 형편에서 그들은 내륙에 있던 여러 도시를 모두 버리고 이토메산에 모여 살기로 했다.

**[4.9.2]** 여기에 작은 도시가 있었는데, 호메로스가 목록에서 언급한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한다.

> 층층이 솟은 이토메.

메세니아인들은 이 도시로 물러나 모두를 지키기에 충분하도록 옛 성벽의 둘레를 넓혔다. 그곳은 다른 면에서도 방어에 유리했다. 이토메산은 지협 안쪽의 어느 산에도 높이에서 뒤지지 않았고, 바로 이 지점은 오르기가 몹시 어려웠기 때문이다.

**[4.9.3]** 그들은 또 델포이에 사절을 보내기로 하고 알키스의 아들 티시스를 파견했다. 그는 평판이 매우 높았으며 점술에도 정통하다고 여겨졌다. 그가 델포이에서 돌아오는 길에 암페이아의 라케다이몬 수비대 병사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덮쳤다. 함정에 빠졌으나 그

는 포로가 되려 하지 않았다. 상처를 입으면서도 자리를 지켜 맞서 싸웠다. 그때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들렸다. “신탁을 가져가는 사람을 놓아 주어라.”

**[4.9.4]** 티시스는 서둘러 이토메에 이르러 왕에게 신탁을 전하고, 얼마 뒤 상처로 죽었다. 에우파에스는 메세니아인들을 모아 신탁을 알렸다.

> 너희는 아이피토스 아들들의 혈통에 속하는
> 순결한 처녀를 제비로 뽑아 지하의 신들에게 바치고, 밤에 그 목숨을 끊어라.
> 그리 할 수 없다면 다른 집안의 처녀를 바쳐라.
> 다만 아버지가 제 뜻으로 딸을 제물로 내주어야 한다.

**[4.9.5]** 신이 이렇게 선언하자 아이피토스 가문의 처녀들은 곧바로 제비를 뽑았다. 제비는 리키스코스의 딸에게 떨어졌다. 그러나 점술가 에페볼로스는 그 처녀를 바치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리키스코스의 딸이 아니며,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리키스코스의 아내가 자기 딸인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에페볼로스가 이 사실을 밝히는 동안 리키스코스는 그 처녀를 데리고 스파르타로 달아났다.

**[4.9.6]** 메세니아인들은 리키스코스가 달아난 것을 알고 절망했다. 그러자 아이피토스 가문 출신으로 명성과 무공에서 리키스코스를 앞서던 아리스토데모스가 기꺼이 자신의 딸을 제물로 내놓았다. 그러나 강물이 진흙으로 조약돌을 가리듯 운명은 사람의 일을, 무엇보다 사람의 뜻을 가려 버린다. 아리스토데모스가 메세네를 구하려 온 힘을 기울일 때 운명은 그의 앞에 다음과 같은 장애를 놓았다.

**[4.9.7]** 이름이 전하지 않는 한 메세니아인이 아리스토데모스의 딸을 사랑하여 곧 아내로 맞으려 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아리스토데모스에게 딸을 넘겨줄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 아리스토데모스가 이미 자기에게 혼인을 약속했으므로 처녀에 대한 권리는 아버지보다 약혼한 사람에게 더 많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그 처녀가 자기 아이를 배었다는 뻔뻔한 주장을 꺼냈다.

**[4.9.8]** 마침내 그는 아리스토데모스의 분노를 극에 이르게 했다. 아리스토데모스는 딸을 죽이고 몸을 갈라 그녀가 아이를 배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그 자리에 있던 에페볼로스는 다른 사람이 나서서 딸을 내놓으라고 했다. 아리스토데모스의 딸은 그렇게 죽었으므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딸을 죽였을 뿐, 피티아 여사제가 지정한 신들에게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4.9.9]** 점술가가 이렇게 말하자 메세니아인들은 떼 지어 그 처녀의 연인에게 달려들어 죽이려 했다. 그가 아무 소용도 없이 아리스토데모스에게 살인의 죄를 지웠고, 자신들이 살 아남을 희망도 불확실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에우파에스와 가까운 친구였다. 에우파에스는 처녀의 죽음으로 신탁이 성취되었으며 아리스토데모스가 한 일로 충분하다고 메세니아인들을 설득했다.

**[4.9.10]** 왕이 이렇게 말하자 아이피토스 가문의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이 옳다고 했다. 저마다 자기 딸에게 닥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왕의 말을 받아들여 회의를 마치고,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잔치를 벌였다. periegesis.abm.uu.se

## 제10장

**[4.10.1]** 메세니아인들에게 내려진 신탁을 듣고 라케다이몬인들과 그 왕들은 모두 낙담했다. 그 뒤로는 싸움을 걸기를 꺼렸다. 그러나 리키스코스가 이토메에서 달아난 지 오 년 뒤, 제물에서 좋은 징조가 나타나자 라케다이몬인들은 이토메로 진군했다. 이번에는 크레타인들이 함께하지 않았다. 메세니아의 동맹군도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 당시 이미 다른 펠로폰네소스인들, 특히 아르카디아인들과 아르고스인들이 스파르타를 의심하고 있었다. 아르고스인들은 라케다이몬인들이 모르게, 국가가 공공연히 선언하는 대신 개인들이 나서는 방식으로 오려 했다. 아르카디아에서는 출정이 공표되었으나 그들도 이르지 못했다. 신탁을 믿은 메세니아인들이 동맹군을 기다리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4.10.2]** 이 전투는 대부분의 점에서 첫 전투와 다르지 않았다. 이번에도 날이 저물어 전투가 끝났다. 다만 어느 쪽에서도 한쪽 날개나 한 부대가 무너지지는 않았다고 전한다. 양쪽 모두 본래의 배치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가장 용맹한 자들이 중앙에서 만나 그곳에서 싸움 전체를 떠받쳤기 때문이다.

**[4.10.3]** 에우파에스는 왕에게 어울리는 신중함을 잃고 지나치게 열을 올려 테오폼포스의 호위대에 무모하게 달려들었다. 그는 여러 곳에 치명상을 입었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나 아직 숨을 쉬고 있었으므로, 라케다이몬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를 자기 대열 안으로 끌고 가려 했다. 메세니아인들은 왕을 향한 애정과 그를 버렸을 때 받을 비난을 생각하고 분발했다. 자신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 빠져나가는 동안 왕을 버려 두느니, 그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내놓는 편이 낫다고 여겼다.

**[4.10.4]** 에우파에스가 쓰러지는 바람에 싸움은 길어졌고 양편은 더 많은 대담한 일을 해냈다. 그는 뒤에 정신을 차리고 자기 군사들이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음을 보았다. 그러나 며칠 만에 죽었다. 그는 십삼 년간 메세니아인들을 다스렸고, 치세 내내 라케다이몬인들과 전쟁을 벌였다.

**[4.10.5]** 에우파에스는 자식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고르는 사람이 왕권을 잇도록 했다. 클레온니스와 다미스가 나서서 아리스토데모스와 왕위를 다투었다. 그 두 사람이 전쟁과 그 밖의 모든 면에서 아리스토데모스보다 뛰어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안탄드로스는 전투에서 에우파에스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적에게 죽었다. 두 점술가 에페볼로스와 오피오네우스의 의견은 같았다. 제 딸을 죽여 저주를 받고 부정해진 사람에게 아이피토스와 그 후손들의 영예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4.10.6]** 그럼에도 아리스토데모스가 뽑혀 왕이 되었다. 메세니아의 점술가 오피오네우스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점을 쳤다. 사적인 일이든 공적인 일이든 그때마다 관계된 사실을 알아낸 다음 앞일을 예언했다. 이것이 그가 점술을 행하는 방식이었다. 왕이 된 아리스토데모스는 백성에게 온당한 은혜라면 늘 베풀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든 귀족에게 예를 갖추었고 특히 클레온니스와 다미스를 존중했다. 아르카디아의 지도자들과 아르고스와 시키온에 선물을 보내 동맹국들과 우호를 지켰다.

**[4.10.7]** 그의 치세에는 작은 부대들이 끊임없이 습격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이어 갔다. 양쪽은 수확기에 서로의 나라로 쳐들어갔다. 메세니아인들이 라코니아를 습격할 때 아르카디아인들이 힘을 보탰다. 아르고스인들은 라케다이몬인들에 대한 증오를 미리 드러내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겼으나, 싸움이 벌어지면 가담할 준비를 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1장

**[4.11.1]** 아리스토데모스 치세의 다섯째 해에 양측은 전쟁이 오래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 지쳐 있었다. 전투를 벌이겠다고 미리 알린 뒤 두 편에 동맹군이 합류했다. 펠로폰네소스인들 가운데 라케다이몬을 도우러 온 것은 코린토스인들뿐이었다. 메세니아 쪽에는 아르카디아인들이 병력을 모두 모아 왔고, 아르고스와 시키온의 정예병들도 왔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중앙을 코린토스인들과 헤일로타이, 그리고 함께 참전한 모든 이웃 민족에게 맡겼다. 그들 자신은 왕들과 함께 양쪽 날개에 서서, 어느 때보다 깊고 촘촘하게 대열을 짰다.

**[4.11.2]** 아리스토데모스 쪽의 배치는 다음과 같았다. 아르카디아인과 메세니아인 가운데 몸이 튼튼하고 담력이 있으나 좋은 무기를 가지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 모두에게 가장 쓸 만한 무기를 골라 주었다. 사태가 급했으므로 그들을 아르고스군과 시키온군에 합류시켜, 적에게 포위되지 않도록 전열을 길게 폈다. 또 이토메산을 등지고 서도록 했다. 이 병력의 지휘는 클레온니스에게 맡겼다.

**[4.11.3]** 아리스토데모스 자신은 다미스와 함께 경무장병을 예비대로 거느리고 남았다. 이 가운데에는 투석병과 궁수도 조금 있었지만, 대부분은 빠르게 달려들고 물러서기에 알맞은 몸을 가진 이들로 무장을 가볍게 했다. 모두가 가슴받이나 방패를 갖춘 것은 아니었다. 그런 장비가 없는 사람들은 염소나 양의 가죽으로 몸을 가렸다. 일부, 특히 아르카디아의 산지 사람들은 늑대나 곰 같은 들짐승의 가죽을 썼다.

**[4.11.4]** 그들은 저마다 던지는 창을 몇 자루씩 들었고, 긴 창을 가진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적의 눈에 가장 띄기 어려운 이토메산의 한 곳에 숨었다. 그동안 메세니아와 동맹군의 중무장병들은 라케다이몬군의 첫 공격을 버텼고, 그 뒤에도 온갖 방식으로 용맹을 보였다. 수는 적보다 적었으나, 자기들처럼 뽑힌 정예병이 아닌 소집 병력을 상대로 싸우는 정예병들이었다. 그래서 용기와 훈련으로 오랫동안 저항할 수 있었다.

**[4.11.5]** 신호가 떨어지자 기동력이 좋은 메세니아 병력이 라케다이몬군을 향해 돌진했다. 그들을 에워싸 옆구리에 투창을 던졌고, 특히 용감한 이들은 달려들어 가까이서 무기로 쳤다. 라케다이몬인들은 동시에 예상치 못한 두 번째 위험을 맞았지만 사기를 잃지 않았다. 경무장병 쪽으로 돌아서서 공격을 막아 보려 했다. 그러나 적은 무장이 가벼워 어렵지 않게 물러났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그만큼 화가 났다.

**[4.11.6]** 사람은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상대에게 당할 때 가장 분해하는 법이다. 먼저 상처를 입은 스파르타인들과, 동료들이 쓰러지자 경무장병들의 공격을 맨 앞에서 받게 된 사람들은 경무장병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달려 나갔다. 경무장병들이 물러갈 때에는 열을 올려 멀리까지 쫓았다. 메세니아의 경무장병들은 처음 방식을 지켰다. 스파르타인들이 멈추

면 무기로 치고 멀리서 쏘았으며, 그들이 쫓아오면 더 빨리 달아났다. 스파르타인들이 돌아가려고 하면 다시 공격했다.

**[4.11.7]** 그들은 여러 무리로 나누어 적 전열의 여러 지점에서 이렇게 했다. 그동안 메세니아인들의 중무장병들과 동맹군도 맞은편 병력을 더 과감하게 밀어붙였다. 마침내 라케다이몬인들은 긴 전투와 상처로 지쳤고, 여느 때와 달리 경무장병들에게 기세마저 꺾여 대열이 무너졌다. 그들이 패주한 뒤에는 경무장병들이 더 큰 피해를 입혔다.

**[4.11.8]** 전투에서 라케다이몬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셀 수는 없었으나, 나는 그 손실이 컸다고 확신한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방해받지 않고 고향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코린토스인들이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르골리스를 거치든 시키온을 거치든 적의 땅을 지나야 했기 때문이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2장

**[4.12.1]** 라케다이몬인들은 이 패배로 괴로워했다. 전투에서 입은 손실이 컸고 유력한 사람들도 잃었다. 그들은 전쟁에서 아무런 희망도 품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래서 델포이에 사절을 보냈으며, 피티아 여사제에게서 다음과 같은 답을 받았다.

> 포이보스가 명하노니, 무기를 드는 것만으로 전쟁을 치르려 하지 마라.
> 한 백성이 속임수로 메세니아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 그 백성이 처음에 쓴 바로 그 계략에 그들 자신이 무너지리라.

**[4.12.2]** 이 말을 듣고 왕들과 에포로이들은 앞다투어 계략을 궁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에서 한 일을 본떴다. 백 명을 뽑아 이토메로 보내, 탈영병인 척하면서 적이 무엇을 계획하는지 알아보게 했다. 이들에게 추방형을 내렸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기까지 했다. 그들이 도착하자 아리스토데모스는 라케다이몬인들의 범행은 새롭지만 속임수는 오래된 것이라고 말하고 곧바로 그들을 돌려보냈다.

**[4.12.3]** 이 계획에 실패하자 라케다이몬인들은 메세니아의 동맹을 깨뜨리려고 했다. 그러나 사절들이 먼저 방문한 아르카디아에서 거부당하자 아르고스로 가는 일은 미루었다. 라케다이몬인들의 계략을 들은 아리스토데모스도 신에게 물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다. 피티아 여사제는 이렇게 답했다.

**[4.12.4]**

> 신은 너에게 전쟁의 영광을 준다. 그러나 경계하라.
> 증오스러운 스파르타 무리가 속임수로 튼튼한 성벽을 넘을까 두렵다.
> 그들의 아레스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 숨은 매복처에서 둘이 한 번의 우연으로 뛰쳐나오면,
> 둥근 춤터에 사는 사람들이 매서워지리라.
> 그러나 성스러운 날이 그 종말을 보는 것은,
> 본성을 바꾼 것들에 정해진 운명이 닥친 뒤이리라.

그때 아리스토데모스와 점술가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풀이할지 몰랐다. 몇 해 뒤 신이 그 뜻을 드러내고 이루게 될 터였다.

**[4.12.5]** 그 무렵 메세니아인들에게는 다른 일도 일어났다. 리키스코스가 스파르타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 그가 메세네에서 달아날 때 데려갔던 딸이 죽었다. 그가 딸의 무덤에 자주 가자 아르카디아 기병들이 매복하여 그를 붙잡았다. 이토메로 끌려와 회의에 넘겨진 그는 조국을 배반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처녀가 자기 친딸이 아니라는 점술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떠났다는 것이다.

**[4.12.6]** 당시 헤라의 여사제였던 여인이 극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의 변명을 믿지 않았다. 여인은 자기가 그 처녀의 어머니이며, 리키스코스의 아내가 친딸처럼 기르도록 그 아이를 주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비밀을 밝히고 이 직책을 내려놓으러 왔습니다.” 메세네에서는 신을 섬기는 남자나 여자의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그 직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여 다른 여인을 여신의 사제로 뽑았고, 리키스코스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있다고 했다.

**[4.12.7]** 그 뒤 전쟁이 스무 번째 해에 가까워지자, 그들은 다시 델포이에 사람을 보내 승리에 관해 묻기로 했다. 피티아 여사제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 이토메의 제우스 제단 둘레에 세발솥 열의 열 배를
> 먼저 세우는 이들에게 신은 전쟁의 영광과 메세니아 땅을 주리라.
> 제우스가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다.
> 속임수가 너를 일으켜 세웠으니 그 뒤에는 벌이 따른다.
> 너는 신을 속일 수 없으리라.
> 운명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 한 사람에게 다른 이보다 먼저 파멸이 온다.

**[4.12.8]**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신탁이 자기들 편이며 승리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토메의 제우스 성소가 자기들의 성벽 안에 있으므로 라케다이몬인들이 먼저 봉헌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청동으로 만들 돈이 부족하여 나무로 세발솥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델포이인 한 명이 신탁을 스파르타에 알렸다. 라케다이몬인들은 그 말을 듣고도 공적으로 내놓을 방책을 생각해 내지 못했다.

**[4.12.9]** 그런데 오이발로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평소에 이름난 사람은 아니었으나, 일 처리를 보면 기지가 있었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진흙으로 세발솥 백 개를 만들어 자루에 숨기고, 사냥꾼처럼 그물도 가지고 갔다. 라케다이몬인들 가운데서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드물었으므로 메세니아인들의 눈을 피하기는 더 쉬울 터였다. 그는 시골 사람 몇 명에게 합류해 함께 이토메로 들어갔다. 밤이 되자마자 진흙 세발솥을 신에게 봉헌하고, 스파르타로 돌아와 라케다이몬인들에게 알렸다.

**[4.12.10]** 메세니아인들은 그것을 보자 크게 동요했다. 라케다이몬인들이 가져온 물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러했다. 그래도 아리스토데모스는 형편에 맞는 말을 해 그들을 북돋았다. 이미 만든 나무 세발솥을 가져다 이토메 신의 제단 둘레에 세웠다. 그 무렵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점술가 오피오네우스가 몹시 기이한 방식으로 시력을 얻기도 했다. 그는 심한 두통에 시달리다가 그 직후 앞이 보이게 되었다. periegesis.abm.uu.se

## 제13장

**[4.13.1]** 운명이 이미 메세니아인들이 정복당하는 쪽으로 기울자, 신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들에게 드러냈다. 온통 청동으로 만들어 무장한 아르테미스상이 방패를 떨어뜨렸다. 아리스토데모스가 이토메의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치려는데, 숫양들이 저절로 제단 쪽으로 뛰어가 뿔을 세게 들이받고는 그 충격으로 죽었다. 세 번째 징조도 그들에게 닥쳤다. 개들이 밤마다 떼 지어 모여 울어대더니 마침내 모두 라케다이몬의 진영으로 달아났다.

**[4.13.2]** 아리스토데모스는 이런 일들에 놀랐고, 다음과 같은 꿈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무장하고 싸우러 막 나가려 하고 있었고, 앞의 탁자에는 제물의 내장이 놓여 있었다. 그때 검은 옷을 입은 딸이 나타나, 갈라진 가슴과 배를 보여 주었다. 딸은 탁자에 놓인 것들을 내던지고 그의 무장을 벗겼다. 그러고는 그 대신 머리에 금관을 씌우고 흰옷을 입혔다.

**[4.13.3]** 이미 절망하고 있던 아리스토데모스는 이 꿈이 자기 죽음을 예고한다고 생각했다. 메세니아인들은 지도자들을 장사 지내러 내갈 때 관을 씌우고 흰옷을 입혔기 때문이다. 그때 점술가 오피오네우스가 더는 앞을 볼 수 없으며, 처음과 같이 갑자기 눈이 멀었다는 소식이 왔다. 그제야 사람들은 신탁을 이해했다. 매복처에서 둘이 튀어나오고 다시 운명을 맞는다고 한 피티아의 말은 오피오네우스의 두 눈을 가리켰던 것이다.

**[4.13.4]** 아리스토데모스는 제 딸을 죽이고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신의 슬픔을 헤아렸다. 조국이 살아남을 희망도 더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딸의 무덤 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메세니아인들을 구하기 위해 사람이 헤아려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으나, 운명은 그가 이룬 일과 계획한 일을 모두 헛되게 만들었다. 그는 육 년 몇 달을 다스리고 죽었다.

**[4.13.5]** 메세니아인들은 아리스토데모스의 죽음으로 몹시 낙담했다. 라케다이몬에 사람을 보내 자비를 청하려고까지 했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대신 회의를 열어 왕을 세우지 않고 다미스를 전권 지휘관으로 뽑았다. 다미스는 클레온니스와 필레우스를 동료 지휘관으로 삼고, 당시 남은 자원만으로라도 싸울 준비를 했다. 봉쇄 때문에 달리 할 수 없었고, 특히 기근과 굶주림으로 전멸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재촉했다.

**[4.13.6]** 그때에도 메세니아인들은 용기나 용맹한 행동에서 적에게 뒤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휘관들과 가장 이름난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 뒤로도 그들은 다섯 달가량 버텼으나, 해가 끝나갈 때 이토메를 버렸다. 전쟁은 모두 이십 년 동안 이어졌다. 티르타이오스의 시에도 그렇게 나온다.

> 그러나 스무 번째 해에 그들은 비옥한 경작지를 버리고
> 높이 솟은 이토메의 산에서 달아났다.

**[4.13.7]** 이 전쟁이 끝난 것은 제14회 올림피아 경기 주기의 첫해로, 코린토스의 다스몬이 단거리 달리기에서 이겼을 때였다. 아테네에서는 메돈 가문이 여전히 십 년 임기로 아르콘직을 맡았고, 히포메네스가 임기 넷째 해를 마친 때였다. periegesis.abm.uu.se

## 제14장

**[4.14.1]** 메세니아인들 가운데 시키온과 아르고스 또는 아르카디아의 여러 곳에 연고가 있는 이들은 그곳으로 물러났다. 두 위대한 여신의 비의를 행하던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엘레우시스로 갔다. 평민들은 대부분 예전처럼 고향 도시들에 흩어져 살았다.

**[4.14.2]** 라케다이몬인들은 먼저 이토메를 완전히 허물고, 뒤이어 남은 도시들을 공격하여 점령했다. 전리품 중에서 청동 세발솥들을 아미클라이의 신에게 봉헌했다. 첫 번째 세발솥 아래에는 아프로디테상이, 두 번째 아래에는 아르테미스상이, 세 번째 아래에는 코레 또는 데메테르의 신상이 서 있다.

**[4.14.3]** 그들은 이 봉헌물들을 아미클라이에 바쳤다. 또 아르고스인들에게 쫓겨난 아시네 사람들에게 메세니아의 해안 일부를 주었는데, 아시네 사람들은 그 땅에 아직도 산다. 안드로클레스의 후손들에게는 히아미아라는 지역을 주었다. 안드로클레스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죽자 딸은 자기 자식들과 함께 달아나 스파르타에 왔었다.

**[4.14.4]** 메세니아인들 자신은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먼저 라케다이몬인들은 그들에게 결코 반란을 일으키거나 어떤 변혁도 꾀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했다. 이어 일정한 액수의 공물을 부과하지는 않았으나, 그들은 밭에서 거둔 모든 수확의 절반을 스파르타로 가져다 바쳐야 했다. 또 왕들과 다른 관리들의 장례가 있을 때에는 메세네의 남자들이 아내들과 함께 검은 옷을 입고 와야 한다고 정했다.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이 내려졌다.

**[4.14.5]** 그들이 메세니아인들에게 가한 가혹한 처우에 관하여 티르타이오스의 시에는 이렇게 나온다.

> 무거운 짐에 지친 나귀들처럼,
> 어쩔 수 없이 주인들에게 바치네.
> 곡식을 내는 땅이 맺는 모든 결실의 절반을.

메세니아인들이 억지로 그들의 애도에 참여해야 했음은 다음 구절에서 드러난다.

> 죽음의 사나운 운명이 주인들 중 누구에게든 닥치면,
> 그들은 아내들과 함께 그 주인을 위해 소리 높여 울었네.

**[4.14.6]** 이런 곤경 속에서 메세니아인들은 라케다이몬인들이 자신들에게 너그러워질 가망이 없다고 보았다. 당시의 처지로 사느니 싸우다 죽거나 펠로폰네소스에서 아예 이주하는 것이 낫다고 여겨, 무슨 일이 있어도 반란을 일으키기로 했다. 이 일을 가장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은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은 아직 전쟁을 겪어 보지 않았지만 기개가 높았다. 노예로 사는 동안 다른 모든 일에서 행복할 수 있다 해도, 자유로운 나라에서 죽는 쪽을 택했다.

**[4.14.7]** 메세니아에서 자란 젊은이들 가운데 뛰어난 이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던 곳은 안다니아 일대였다. 그중에 아리스토메네스가 있었다. 메세니아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를 영웅으로 받든다. 그들은 그의 탄생 경위부터 심상치 않았다고 여긴다. 어떤 신령이나 신이 뱀의 형상으로 그의 어머니 니코텔레이아와 몸을 합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마케도니아인

들이 올림피아스에 관해, 시키온인들이 아리스토다마에 관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

**[4.14.8]** 마케도니아인들은 알렉산드로스를 암몬과 연결하고, 시키온인들은 아라토스를 아스클레피오스와 연결한다. 메세니아인들은 아리스토메네스를 헤라클레스나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리스인들 대부분은 피로스가 아리스토메네스의 아버지였다고 한다. 그러나 메세니아인들이 제주를 바치면서 그를 니코메데스의 아들 아리스토메네스라고 부르는 것을 나 자신은 알고 있다. 그는 젊음과 용기가 한창일 때 다른 귀족들과 함께 사람들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키게 했다. 처음에는 공공연히 하지 않았다. 아르고스와 아르카디아에 몰래 사람을 보내, 지난 전쟁 때만큼이나 적극적으로 주저 없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었다. periegesis.abm.uu.se

## 제15장

**[4.15.1]** 전쟁 준비는 모두 끝났고, 동맹국들은 기대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아르고스인들과 아르카디아인들이 라케다이몬인들에게 품은 증오가 이제 공공연히 타올랐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메세니아인들은 이토메가 함락된 뒤 서른아홉째 해에 반란을 일으켰다. 제23회 올림피아 경기 주기의 네 번째 해로, 히페레시아의 이카로스가 단거리 달리기에서 우승한 때였다. 아테네에서는 아르콘의 임기가 이미 한 해로 바뀌어 있었으며 틀레시아스가 그 직을 맡았다.

**[4.15.2]** 티르타이오스는 당시 라케다이몬을 다스리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리아노스는 서사시에서 이 전쟁 때 레오티키데스가 왕이었다고 했다. 나는 이 점에서 그에게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 티르타이오스가 왕들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구절을 보면 사실상 그 말을 한 셈이다. 첫 전쟁을 가리키는 구절이다.

> 그곳을 두고 열아홉 해 동안 쉼 없이 싸웠다.
> 언제나 굳센 마음을 지킨 전사들,
> 우리 아버지들의 아버지들이 싸웠다.

**[4.15.3]** 그러므로 메세니아인들이 이번에 전쟁에 나선 것은 첫 전쟁에서 두 세대 뒤였음이 분명하다. 세대의 순서를 보면 당시 스파르타의 왕은 폴리도로스의 손자이자 에우리크라테스의 아들인 아낙산드로스와, 다른 왕가의 아낙시다모스였다. 아낙시다모스는 제욱시다모스의 아들, 아르키다모스의 손자, 테오폼포스의 증손이었다. 내가 테오폼포스에서 세 세대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은 그의 아들 아르키다모스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 테오폼포스의 왕권이 손자 제욱시다모스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레오티키데스가 왕위를 이은 것은 분명 아리스톤의 아들 데마라토스의 뒤였다. 아리스톤은 테오폼포스에게서 여섯 세대 아래였다.

**[4.15.4]** 반란을 일으킨 첫해, 메세니아인들은 메세니아의 데라이란 곳에서 라케다이몬인들과 맞붙었다. 양쪽 모두 동맹군 없이 싸웠다. 어느 편도 뚜렷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아리스토메네스는 한 사람이 해낼 수 있으리라 여겨지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해냈다고 한다. 그가 아이피토스 가문에 속했으므로 사람들은 전투 뒤 그를 왕으로 세우려 했다. 그가 사양하자 전권 지휘관으로 삼았다.

**[4.15.5]** 아리스토메네스는 누구나 기록에 남을 만한 일을 먼저 해낸 뒤라면 싸움에서 기꺼이 죽으려 할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자신이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전쟁의 첫머리부터 라케다이몬인들에게 공포를 안겼음을 증명하고, 앞으로 자신이 그들에게 더 무서운 존재가 되리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뜻에서 그는 밤에 라케다이몬으로 들어가 청동 집의 아테나 신전에 방패를 달았다. 방패에는 이렇게 새겼다.

> 아리스토메네스가 스파르타인들에게서 빼앗아 여신에게 바친다.

**[4.15.6]** 스파르타인들은 델포이에서 아테네인 한 명을 고문으로 얻으라는 신탁을 받았다. 그래서 아테네에 사절을 보내 신탁을 알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할 사람을 보내 달라고 청했다. 아테네인들은 라케다이몬인들이 큰 위험도 없이 펠로폰네소스의 가장 좋은 땅을 자기 영토에 더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렇다고 자신들이 신의 명을 어기는 것도 원치 않았다. 그들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하여 방책을 마련했다. 글을 가르치는 티르타이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혜가 부족하다고 여겨졌고 한쪽 발을 절었다. 아테네인들은 그를 스파르타로 보냈다. 그는 도착하자 귀족들을 따로 만나 자신이 엘레게이아와 아나파이토스 운율로 지은 시를 읊어 주었다.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도 시를 들려주었다.

**[4.15.7]** 데라이 전투에서 한 해가 지나 양쪽에 동맹군이 합류하자, 그들은 이른바 '멧돼지의 무덤'에서 싸울 준비를 했다. 메세니아인들에게는 엘리스인과 아르카디아인이 있었으며 아르고스와 시키온에서 온 원군도 있었다. 앞서 자진해서 망명했던 메세니아인들이 모두 합류했다. 대대로 두 위대한 여신의 의례를 행해 온 사람들도 엘레우시스에서 왔고, 안드로클레스의 후손들도 합류했다. 이들이야말로 가장 열성적인 지원군이었다.

**[4.15.8]** 코린토스인들은 라케다이몬 쪽에서 싸우러 왔으며, 엘리스인들을 미워한 레프레온 사람들 가운데 일부도 그쪽에 섰다. 아시네 사람들은 양쪽에 모두 맹세로 매여 있었다. '멧돼지의 무덤'은 메세니아의 스테니클레로스에 있다. 헤라클레스가 넬레우스의 아들들과 멧돼지의 토막을 앞에 놓고 서로 맹세한 곳이라고 한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6장

**[4.16.1]** 전투에 앞서 양편의 점술가들이 제물을 바쳤다. 라케다이몬 쪽에서는 헤카스가 제사를 지냈다. 그는 아리스토데모스의 아들들과 함께 스파르타에 온 헤카스의 후손으로, 이름도 조상과 같았다. 메세니아 쪽에서는 테오클로스가 제사를 지냈다. 그는 크레스폰테스가 메세네로 데려온 엘리스의 이아모스 가문 출신 에우만티스의 후손이었다. 점술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편 병사들은 한층 더 열을 올려 싸울 채비를 했다.

**[4.16.2]** 모두 저마다의 나이와 힘에 맞는 열의를 보였다. 라케다이몬의 왕 아낙산드로스와 그의 스파르타 호위대가 특히 그랬다. 메세니아 쪽에서는 안드로클레스의 후손인 핀타스와 안드로클레스가 그 부대원들과 함께 용맹한 사람답게 싸우려 했다. 티르타이오스와 두 위대한 여신의 수석 제사장들은 전투에 뛰어들지 않고, 각자 자기편의 맨 뒤에 선 사람들을 독려했다.

**[4.16.3]** 아리스토메네스 자신은 나이가 같은 메세니아의 정예병 팔십 명을 거느렸다. 그들은 누구나 아리스토메네스와 같은 부대에 들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겼다. 서로의 움직임을 금방 알아차렸으며, 특히 지휘관이 어떤 기동을 시작하거나 생각하고 있을 때 그의 뜻을 잘 헤아렸다. 그들과 아리스토메네스는 처음에는 아낙산드로스와 라케다이몬의 용사들에게 몹시 밀렸다. 그러나 상처를 입어도 흔들리지 않고, 절박한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온갖 용기를 발휘했다. 오랫동안 버티며 용맹하게 싸워 아낙산드로스와 그 군사들을 물리쳤다.

**[4.16.4]** 그들이 달아나자 아리스토메네스는 다른 메세니아 부대에 추격을 맡겼다. 자신은 적의 전열에서 가장 단단한 곳을 공격했고, 그곳을 무너뜨리자 다른 공격 지점을 찾았다. 이곳에서도 곧 성공하자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병력에 더 힘차게 달려들었다. 마침내 라케다이몬인들과 그 동맹군의 전열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이제 그들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서로를 기다려 주지도 않으며 달아났다. 아리스토메네스가 들이닥치는 기세는 한 사람의 격노만으로는 일으킬 수 없을 것 같은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4.16.5]** 평야에 야생 배나무가 한 그루 자라고 있었다. 점술가 테오클로스는 디오스쿠로이가 그 나무에 앉아 있다며 아리스토메네스에게 그 너머로 가지 말라고 했다. 격분한 아리스토메네스는 점술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나무에 이르렀을 때 그는 방패를 잃었다. 그의 불복종은 패주하던 라케다이몬인들 일부에게 달아날 틈을 주었다. 그가 방패를 되찾으려다 시간을 잃었기 때문이다.

**[4.16.6]** 이 타격을 입고 절망한 라케다이몬인들은 전쟁을 끝낼 작정이었다. 그러나 티르타이오스가 시를 읊어 그들을 만류하는 데 성공했고, 헤일로타이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 전사자들의 빈자리를 채웠다. 아리스토메네스가 안다니아로 돌아오자 여자들이 그 위로 리본과 꽃송이를 던졌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부르는 다음 노래를 불렀다.

> 스테니클레로스 평야 한가운데까지, 또 그 언덕 꼭대기까지,
> 아리스토메네스는 라케다이몬인들의 뒤를 쫓았다.

**[4.16.7]** 그는 그 방패도 되찾았다. 델포이에 갔다가 피티아 여사제의 지시를 따라 레바데이아에 있는 트로포니오스의 거룩한 성소로 내려간 것이다. 뒤에 그는 방패를 레바데이아로 가져가 봉헌했다. 나 자신도 그곳에서 봉헌물 가운데 놓인 이 방패를 보았다. 방패에는 독수리가 두 날개를 테두리까지 펼친 모습이 새겨져 있다. 아리스토메네스는 트로포니오스의 성소에서 방패의 행방을 알아내어 되찾았고, 보이오티아에서 돌아오자마자 더 큰 일에 나섰다.

**[4.16.8]** 그는 자기 정예부대에 다른 메세니아 병력을 더 모았다.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라코니아의 한 도시로 갔다. 호메로스의 목록에 나오는 옛 이름은 파리스이나, 스파르타인들과 이웃 주민들은 파라이라고 부르는 곳이다. 그는 도착하여 저항하는 자들을 죽이고, 가축들을 에워싸 메세네로 몰고 갔다. 도중에 아낙산드로스 왕이 이끄는 라케다이몬군이 공격해 왔다. 아리스토메네스는 그들을 패주시켜 아낙산드로스를 뒤쫓았으나, 날아온 창에 엉덩이를 다쳐 추격을 그만두었다. 그래도 몰고 가던 전리품은 빼앗기지 않았다.

**[4.16.9]** 그는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다가 밤중에 스파르타 자체를 공격하려 했다. 그러나 헬레네와 디오스쿠로이가 나타나 그를 가로막았다. 그는 대신 낮에 카리아이에서 아르테미스를 기리는 춤을 추던 처녀들을 노리고 숨어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부유하고 가문이 높은 처녀들을 붙잡아 메세니아의 한 마을로 데려갔다. 자신은 밤에 쉬면서 부대원 몇 명에게 그들을 지키게 했다.

**[4.16.10]** 내 생각에 그 젊은이들은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었던 듯하다. 그들은 처녀들을 능욕하려 했다. 아리스토메네스가 그리스인들의 관습에 어긋나는 짓이라며 말렸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결국 그는 가장 난폭하게 굴던 자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큰 몸값을 받고 포로들을 풀어 주었다. 그들은 붙잡힐 때와 마찬가지로 처녀인 채 돌아갔다.

periegesis.abm.uu.se

## 제17장

**[4.17.1]** 라코니아에 아이길라라는 곳이 있다. 그곳에는 데메테르에게 바쳐진 성소가 있다. 아리스토메네스와 그 부하들은 여자들이 거기서 축제를 지내고 있음을 알고 〔…〕. 여자들은 여신에게서 용기를 얻어 맞섰다. 그들이 제물을 잡는 데 쓰던 칼과 고기를 꿰어 굽던 꼬챙이 때문에 메세니아인들은 대부분 상처를 입었다. 아리스토메네스는 횃불에 얻어맞고 산 채로 붙잡혔다. 그런데도 그날 밤 메세니아로 달아났다. 데메테르의 여사제 아르키다메이아가 그를 풀어 주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뇌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예전부터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리스토메네스가 자기 결박을 불태워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4.17.2]** 전쟁 삼 년째에 이른바 ‘큰 도랑’에서 싸움이 벌어지려 했다. 메세니아인들에게는 모든 도시에서 온 아르카디아인들이 합류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당시 아르카디아인들의 왕이자 지휘관이었던 트라페주스 출신 히케타스의 아들 아리스토크라테스에게 뇌물을 주었다. 우리가 알기로 적에게 뇌물을 준 것도, 전쟁의 승리를 돈으로 산 것도 라케다이몬인들이 처음이었다.

**[4.17.3]** 라케다이몬인들이 메세니아 전쟁에서 아르카디아인 아리스토크라테스를 매수하여 이런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용맹과 신이 내리는 운이 전투의 승패를 가렸다. 훗날 아이고스포타모이에서 아테네 함대와 대치했을 때도, 라케다이몬인들이 아데이만토스와 그 밖의 아테네 장군들을 매수한 것은 분명하다.

**[4.17.4]**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라케다이몬인들 자신에게도 이른바 ‘네옵톨레모스의 벌’이 돌아왔다. 아킬레우스의 아들 네옵톨레모스는 뜰을 지키는 제우스 헤르케이오스의 제단에서 프리아모스를 죽였는데, 자신도 델포이의 아폴론 제단 곁에서 죽임을 당할 운명이었다. 그 뒤로 자기가 남에게 한 일을 그대로 당하는 것을 ‘네옵톨레모스의 벌’이라 부른다.

**[4.17.5]** 라케다이몬인들이 바로 그런 일을 당했다. 아테네 함대를 궤멸시킨 뒤 그들의 세력은 절정에 달했고, 아게실라오스는 이미 아시아의 대부분을 굴복시켰다. 그러나 그들은 페르시아의 왕국 전체를 차지하지 못했다. 이민족의 왕이 그들 자신이 고안한 수법으로 그들

을 이겼기 때문이다. 왕은 코린토스와 아르고스와 아테네와 테바이로 돈을 보냈다. 이 매수로 이른바 코린토스 전쟁이 일어났고, 아게실라오스는 아시아에서 정복한 땅을 버려야 했다.

**[4.17.6]** 이처럼 신의 뜻은 라케다이몬인들이 메세니아인들을 상대로 쓴 계략으로 그들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 아리스토크라테스는 라케다이몬에서 돈을 받은 뒤 한동안 아르카디아인들에게 속셈을 감추었다. 막 싸우려 할 때에야, 그들이 빠져나가기 힘든 곳에 있어 패하면 퇴로가 없고 제물에서도 좋은 징조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해 겁을 주었다. 그러니 자신이 신호를 보내면 모두 달아나라고 명했다.

**[4.17.7]** 라케다이몬군이 다가오고 메세니아인들이 제 앞의 적에게 정신을 쏟고 있을 때,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아리스토크라테스는 아르카디아군을 물렸다. 그 바람에 메세니아군의 왼쪽 날개와 중앙이 비었다. 엘리스인들과 아르고스인들, 시키온인들이 전투에 오지 않았으므로 아르카디아인들이 두 자리를 모두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크라테스는 일을 마무리하려고 자기 군대가 메세니아군의 대열을 가로질러 달아나게 했다.

**[4.17.8]** 메세니아인들은 뜻밖의 사태에 놀랐다. 아르카디아인들이 대열을 가로지르자 혼란까지 일어나, 눈앞의 적을 거의 잊었다. 그들은 진격하는 라케다이몬군 대신 물러나는 아르카디아군을 바라보았다. 어떤 이들은 남아서 함께 싸워 달라고 애원했고, 어떤 이들은 배신자이며 비열한 자들이라고 욕했다.

**[4.17.9]** 라케다이몬인들에게는 이렇게 고립된 메세니아인들을 에워싸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 그들은 힘들이지 않고 손쉬운 승리를 거두었다. 아리스토메네스와 그 부하들은 대열을 유지하며 라케다이몬군의 가장 거센 공격을 막으려 했으나, 수가 적어 큰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메세니아에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았다. 전에는 라케다이몬인들의 노예 신세를 벗어나 도리어 그들의 주인이 되기를 바랐으나, 이제는 살아남을 희망조차 잃었다. 지휘관들 가운데 안드로클레스와 핀타스가 죽었고, 파나스도 눈부시게 싸우다 전사했다. 파나스는 전에 올림피아에서 장거리 달리기에 우승한 사람이었다.

**[4.17.10]** 전투가 끝나자 아리스토메네스는 살아남은 메세니아인들을 모았다. 그는 안다니아와 내륙에 있는 다른 도시 대부분을 버리고 에이라산에 자리 잡도록 그들을 설득했다. 메세니아인들이 이곳으로 몰리자 라케다이몬인들은 곧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포위에 들어갔다. 그러나 메세니아인들은 큰 도랑에서 참패한 뒤로도 십일 년 동안 저항했다.

**[4.17.11]** 포위가 얼마나 오래갔는지는 시인 리아노스가 라케다이몬인들을 두고 지은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다.

> 흰 산의 골짜기에 그들은 진을 쳤다.
> 스물두 번의 겨울과 푸른 풀이 지나도록.

그는 겨울과 여름을 함께 센 것이다. ‘푸른 풀’은 아직 푸른 곡식, 곧 수확 직전의 때를 뜻한다. periegesis.abm.uu.se

## 제18장

**[4.18.1]** 에이라에 자리 잡은 메세니아인들은 메세니아의 나머지 지역과 단절되었다. 필로스와 모토네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지키던 해안 지방만이 예외였다. 그들은 라코니아와 자기네 영토를 모두 약탈했다. 이제 자기 땅도 적의 땅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습격에 참가할 사람은 각지에서 모았으며, 아리스토메네스는 자기 정예부대의 인원을 삼백 명으로 늘렸다.

**[4.18.2]** 그들은 손이 닿는 대로 라케다이몬인들의 재산을 털고 약탈했다. 곡식과 가축과 포도주는 빼앗아 먹고 마셨고, 옮길 수 있는 물건과 사로잡은 사람들은 팔았다. 라케다이몬인들은 농사를 지어 봐야 자기들보다 에이라 사람들에게 더 이로웠으므로, 전쟁 중에는 메세니아와 그에 접한 라코니아의 땅을 경작하지 않기로 했다.

**[4.18.3]** 그 결과 스파르타에는 물자가 부족해졌고 소요가 일어났다. 그곳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땅이 놀고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티르타이오스가 그들의 다툼을 가라앉히고 있을 무렵, 아리스토메네스와 그 부대는 늦은 저녁에 출발해 빠르게 움직여 해가 뜨기 전에 아미클라이에 닿았다. 그들은 도시를 점령해 약탈하고, 스파르타에서 원군이 오기 전에 물러났다.

**[4.18.4]** 아리스토메네스는 그 뒤에도 그 땅을 휩쓸었다. 그러다가 라케다이몬 보병의 절반이 넘는 병력과 두 왕을 상대로 싸우게 되었다. 그는 맞서 싸우는 동안 여러 곳에 상처를 입었고, 머리에 돌을 맞아 눈앞이 어지러워졌다. 쓰러지자 여러 라케다이몬인이 그를 에워싸 부하 오십 명가량과 함께 산 채로 붙잡았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이들을 모두 케아다스에 던지기로 했다. 가장 무거운 죄를 지어 처벌받는 사람들을 던지는 구렁이었다.

**[4.18.5]** 다른 메세니아인들은 떨어지면서 곧바로 죽었으나, 아리스토메네스는 전에도 그랬듯 이번에도 어느 신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 그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아리스토메네스가 케아다스에 던져졌을 때 독수리 한 마리가 그의 아래로 날아들어 날개로 받쳤다고 한다. 그래서 몸을 다치거나 상처 하나 입지 않은 채 바닥까지 내려갔다. 신은 이곳에서도 그에게 빠져나갈 길을 보여 줄 뜻이었던 모양이다.

**[4.18.6]** 구렁 바닥에 이른 그는 누워서 겉옷으로 몸을 덮고, 운명이 틀림없이 정해 놓았으리라 여긴 죽음을 기다렸다. 이틀 뒤 무슨 소리가 들려 겉옷을 걷었다. 이제는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여우 한 마리가 시신을 뜯어 먹고 있었다. 그 짐승이 들어온 구멍이 있으리라고 생각한 그는 여우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붙잡았다. 여우가 몸을 돌려 덤빌 때마다 한 손으로 겉옷을 내밀어 물게 했다. 여우가 달릴 때 대개는 나란히 따라갔지만 험한 곳에서는 여우에게 끌려갔다. 마침내 여우 한 마리가 통과할 만한 구멍과 그 너머로 비치는 햇빛이 보였다.

**[4.18.7]** 아리스토메네스가 놓아주자 여우는 아마 제 굴로 갔을 것이다. 구멍이 몸을 통과시키기에 작았으므로 그는 손으로 넓혔다. 그러고는 에이라의 집에 무사히 돌아왔다. 그의 용기와 무예가 워낙 뛰어나 아무도 그가 포로로 붙잡히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니, 붙잡힌 일 자체도 놀라운 우연이었다. 케아다스에서 빠져나온 일은 한층 더 놀라웠으며, 신의 도움을 받았음을 분명히 보여 주는 일이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9장

**[4.19.1]** 라케다이몬인들은 아리스토메네스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을 탈영병들에게서 곧 들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는 말만큼이나 믿기 어렵다고 여겼다. 그러나 아리스토메네스 자신이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그 말을 믿게 했다. 코린토스인들이 에이라를 함락하는 데 힘을 보태려고 라케다이몬인들에게 병력을 보내고 있었다.

**[4.19.2]** 코린토스군이 행군할 때 대열을 느슨하게 하고 진을 칠 때도 경계를 소홀히 한다는 말을 정찰병들에게서 들은 아리스토메네스는 밤중에 그들을 덮쳤다. 그는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때까지도 나머지는 잠들어 있었다. 지휘관 히페르메니데스와 아클라다이오스와 리시스트라토스와 시덱토스도 죽였다. 그는 지휘관들의 천막을 약탈하여 이 일을 저지른 이가 다른 메세니아인이 아니라 아리스토메네스임을 스파르타인들에게 분명히 알렸다.

**[4.19.3]** 그는 이토메의 제우스에게 이른바 '백 명을 죽인 제사'도 올렸다. 적 백 명을 죽인 메세니아인이라면 모두 이렇게 하는 것이 오래된 관습이었다. 아리스토메네스는 '멧돼지의 무덤'에서 싸운 뒤에 처음 이 제사를 올렸다. 두 번째는 밤에 코린토스인들을 죽인 뒤였다. 뒤이어 벌인 습격들로 세 번째 제사도 올렸다고 한다.

**[4.19.4]** 히아킨토스 축제가 다가오자 라케다이몬인들은 에이라 사람들과 사십 일간 휴전했다. 자신들은 축제를 지내러 귀국하고, 릭토스와 다른 도시들에서 용병으로 불러온 크레타 궁수 몇 명에게 메세니아를 순찰하게 했다. 아리스토메네스는 휴전을 믿고 에이라에서 멀리 떨어져 다소 방심한 채 가고 있었다. 그때 이 궁수들 가운데 일곱 명이 매복했다가 그를 붙잡았다. 저녁이 다가올 무렵이었는데, 그들은 화살통에 달린 가죽끈으로 그를 묶었다.

**[4.19.5]**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은 아리스토메네스를 붙잡았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스파르타로 갔다. 나머지는 메세니아의 한 농가로 갔다. 그 집에는 아버지를 여읜 처녀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전날 밤 처녀는 꿈을 꾸었다. 늑대들이 발톱이 없고 몸이 묶인 사자를 농가로 데려왔다. 처녀가 결박을 풀어 주고 발톱을 찾아 돌려주자, 사자가 늑대들을 갈기갈기 찢는 듯했다.

**[4.19.6]** 크레타인들이 아리스토메네스를 데리고 들어오자 처녀는 지난밤 꿈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어머니에게 그가 누군지 물었다. 대답을 듣고 용기를 얻은 그녀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자신에게 무엇을 하라는 뜻이었는지 알아차렸다. 그래서 크레타인들에게 술을 잔뜩 먹였다. 그들이 술에 취해 쓰러지자 가장 깊이 잠든 자에게서 단검을 몰래 빼냈다. 처녀는 아리스토메네스의 결박을 끊었고, 아리스토메네스는 칼을 받아 그들을 죽였다. 이 처녀는 아리스토메네스의 아들 고르고스의 아내가 되었다. 아리스토메네스는 자기 목숨을 구해 준 보답으로 아들을 그녀와 혼인시켰다. 고르고스는 그녀와 혼인할 때 아직 열여덟 살이 되지 않았다. periegesis.abm.uu.se

## 제20장

**[4.20.1]** 포위 십일 년째에 에이라는 함락되고 메세니아인들은 흩어질 운명이었다. 신은 아리스토메네스와 테오클로스에게 내린 신탁을 이제 그들에게 이루어 보였다. 두 사람은 큰 도랑에서 참패한 뒤 델포이에 가서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 물었다. 피티아 여사제는 이렇게 답했다.

> 숫염소가 굽이치는 네다의 물을 마시는 날,
> 나는 더는 메세네를 지켜 주지 않으리라. 파멸이 눈앞에 있다.

**[4.20.2]** 네다강의 샘들은 리카이온산에 있다. 강은 아르카디아인들의 땅을 흐르다가 다시 메세니아 쪽으로 돌아, 해안에서 메세니아와 엘리스의 경계를 이룬다. 당시 사람들은 숫염소가 네다의 물을 마실까 봐 두려워했다. 그러나 신이 예고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일이었다. 그리스인들 가운데 들무화과나무를 **올린테**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으나, 메세니아인들 자신은 숫염소라는 뜻으로 **트라고스**라 부른다. 때마침 네다강 둑에서 자라던 들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위로 곧게 자라지 않고 물줄기 쪽으로 굽어, 잎 끝이 물에 닿고 있었다.

**[4.20.3]** 점술가 테오클로스는 그 나무를 보고, 피티아가 예고한 네다의 물을 마시는 염소는 이 들무화과나무이며 메세니아인들에게 이미 운명의 때가 닥쳤다고 짐작했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는 숨겼지만 아리스토메네스를 그 무화과나무로 데려가, 그들이 무사히 지낼 수 있는 때가 지나갔음을 보여 주었다. 아리스토메네스는 그 말이 옳고 운명을 늦출 길이 없다고 믿어 형편에 맞는 조치를 취했다.

**[4.20.4]** 메세니아인들은 비밀스러운 물건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없어지면 메세네는 무너져 영원히 사라질 터였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면 얼마간 세월이 흐른 뒤 메세니아인들이 고국을 되찾는다고 판디온의 아들 리코스가 신탁에서 말했다. 신탁을 아는 아리스토메네스는 날이 저물 때 그 물건을 들고 이토메산에서 사람의 발길이 가장 드문 곳으로 가서 묻었다. 그는 이토메를 지키는 제우스와 그때까지 메세니아인들을 보호해 온 신들을 불렀다. 이 보물을 계속 지켜 주고, 고국에 돌아갈 유일한 희망이 라케다이몬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해 달라고 빌었다.

**[4.20.5]** 그 뒤 메세니아인들의 재앙은 예전 트로이아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통에서 시작되었다. 메세니아인들은 에이라산과 네다강까지 이어지는 산비탈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성문 밖에 집을 두고 있었다. 라코니아에서 그들에게 넘어온 사람은 엠페라모스의 노예인 소치기 하나뿐이었다. 그는 주인의 소 떼를 몰고 왔다. 엠페라모스는 스파르타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었다.

**[4.20.6]** 이 소치기는 네다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소를 돌보다가, 성벽 밖에 사는 메세니아인 한 사람의 아내가 물을 길으러 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 반해 감히 말을 걸었고, 선물로 그녀를 유혹했다. 그 뒤로 그는 남편이 경비를 서러 나가는 때를 살폈다. 메세니아인들은 돌아가며 아크로폴리스를 지켰는데, 적이 이곳을 통해 도시로 들어올 것을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남편이 나갈 때마다 소치기는 그 여인을 찾아갔다.

**[4.20.7]** 어느 날 밤 그 남자와 다른 몇 사람에게 경비 차례가 돌아왔을 때 폭우가 내렸다. 메세니아인들은 자리를 떠났다. 성벽을 급히 쌓느라 가슴벽이나 망루를 마련하지 못했으므로, 하늘에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견디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달도 없이 그토록 비바람이 심한 밤에 라케다이몬인들이 움직이기나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4.20.8]** 그 며칠 전, 아리스토메네스와 우호를 맺고 에이라에 필요한 물자를 모두 가져다주던 케팔레니아의 한 상인이 붙잡혔다. 그를 잡은 것은 스파르타인 에우리알로스가 지휘하는 라케다이몬 병사들과 압테라의 궁수들이었다. 아리스토메네스는 상인을 구하고 그가 가져오던 물건도 모두 되찾았다. 그러나 자신은 상처를 입어 여느 때처럼 경비 초소를 돌아볼 수 없었다. 아크로폴리스의 초소가 빈 가장 큰 까닭은 이것이었다. Scriptura

**[4.20.9]** 모두가 초소를 떠났고, 소치기에게 유혹당한 여자의 남편도 그들과 함께 떠났다. 여자는 마침 소치기를 집에 들이고 있었는데 남편이 오는 소리를 듣자 황급히 그를 숨겼다. 남편이 들어오니 여자는 어느 때보다 다정하게 대하며 왜 돌아왔느냐고 물었다. 남편은 아내가 정을 통했다는 사실도, 소치기가 집 안에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그래서 비가 너무 세차게 내려 자기와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초소를 떠났다고 사실대로 말했다. Scriptura

**[4.20.10]** 소치기는 그 말을 듣고 형편을 속속들이 파악한 뒤, 이번에는 메세니아인들을 떠나 라케다이몬인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때 두 왕은 라케다이몬 진영에 없었다. 그의 주인 엠페라모스가 지휘관을 맡아 에이라 포위를 이끌고 있었다. 소치기는 주인을 찾아가 도망친 죄를 먼저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 그러고는 지금이 에이라를 점령할 때라며 메세니아인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일러 주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1장

**[4.21.1]** 그의 말은 믿을 만해 보였다. 그는 엠페라모스와 스파르타인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어둡고 비가 그치지 않아 행군하기 어려웠으나 그들은 열의를 내어 끝내 해냈다. 에이라의 아크로폴리스 앞에 이르러 사다리를 세우거나 그 밖에 가능한 방법으로 성벽을 올랐다. 메세니아인들에게는 닥쳐온 재난을 알리는 여러 징조가 있었다. 특히 개들이 평소처럼 짖지 않고 더 크고 끊임없이 울부짖었다. 마침내 가장 절박한 고비가 닥쳤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무장을 다 갖출 겨를도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무기를 들었다. 메세니아 전체에서 그들에게 하나 남은 조국을 지키려는 것이었다.

**[4.21.2]** 적이 성안에 들어온 것을 먼저 깨닫고 맞서 나선 이들은 아리스토메네스의 아들 고르고스, 아리스토메네스 자신, 점술가 테오클로스와 그 아들 만티클로스였다. 에우에르게티다스도 그들과 함께했다. 그는 메세니아에서 평판이 높았고, 아리스토메네스의 누이 하그나고라와 혼인하여 더 큰 영예를 얻었다. 다른 사람들도 그물에 걸린 듯한 처지임을 알았으나,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얼마간 희망을 품었다.

**[4.21.3]** 그러나 아리스토메네스와 점술가는 메세니아인들의 파멸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피티아가 염소에 관해 내놓은 수수께끼 같은 신탁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두 사람은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숨겼다. 그들은 도시를 서둘러 돌며

곳곳을 찾아갔다. 만나는 사람이 메세니아인임을 알아보면 용감하게 싸우라고 격려했고, 아직 집에 있는 사람들은 불러냈다.

**[4.21.4]** 밤사이에는 양쪽에서 특별히 언급할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지형을 잘 모르는 데다 아리스토메네스가 얼마나 대담한지 알았으므로 주저했다. 메세니아인들은 미리 지휘관들에게서 암구호를 받지 못했고, 횃불이든 다른 불빛이든 켜기만 하면 비가 꺼뜨릴 형편이었다.

**[4.21.5]** 날이 밝아 서로의 모습이 보이자, 아리스토메네스와 테오클로스는 메세니아인들에게 절박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려 했다. 그들은 상황에 맞는 말을 모두 하고 스미르나 사람들의 용기를 상기시켰다. 스미르나 사람들은 이오니아인이었는데도 용기와 기개를 발휘하여, 자기 도시를 점령한 다스킬로스의 아들 기게스와 리디아인들을 몰아냈다는 이야기였다.

**[4.21.6]** 이 말을 들은 메세니아인들은 필사적으로 싸울 용기를 얻었다. 모인 자리에서 그대로 대열을 이루어 라케다이몬인들에게 돌진했다. 여자들도 적에게 지붕 기와와 그 밖에 던질 수 있는 것을 던지려 했다. 그러나 세찬 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지붕 위에 올라갈 수도 없었다. 그래도 여자들은 감히 무기를 들었다. 라케다이몬에 노예로 끌려가느니 조국과 함께 죽기를 택한 여자들을 보고 남자들의 기세는 더 올랐다. 그들의 힘으로 아직은 닥쳐온 운명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4.21.7]** 그러나 신은 더 세차게 비를 내리고 요란한 천둥을 울렸으며, 눈앞에서 번개를 번쩍이게 해 그들의 눈을 어지럽혔다. 이 모든 일이 라케다이몬인들에게는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하늘이 몸소 자신들을 돕는다고 말했다. 번개가 그들의 오른쪽에서 쳤으므로 점술가 헤카스는 좋은 징조라고 밝혔다.

**[4.21.8]** 다음 방책을 생각해 낸 것도 헤카스였다. 라케다이몬군의 수는 메세니아군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탁 트인 곳에 대열을 짜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곳곳에서 싸우고 있었으므로, 각 부대의 맨 뒤에 선 병사들은 쓸모가 없었다. 헤카스는 이들에게 진영으로 돌아가 먹고 자고 나서, 저녁 전에 돌아와 자리를 지키고 있던 동료들과 교대하라고 명했다.

**[4.21.9]** 라케다이몬인들은 번갈아 쉬고 싸워 더 오래 버텼다. 메세니아인들에게는 사방에 어려움이 닥쳤다. 교대할 사람도 없이 사흘째까지 밤낮으로 계속 싸웠다. 그다음 날이 밝았을 때 그들은 잠을 자지 못한 데다 하늘에서 내린 비와 추위에 지쳐 있었고, 배고픔과 목마름에도 시달렸다. 특히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여자들은 고통이 이어지자 기진맥진했다.

**[4.21.10]** 점술가 테오클로스가 아리스토메네스 곁에 와서 말했다. “어찌하여 헛되이 이 고생을 이어 가는가? 메세네가 무너지는 것은 운명이 굳게 정한 일일세. 지금 눈앞에 닥친 재앙을 피티아가 오래전에 우리에게 밝혔고, 얼마 전에는 무화과나무가 그 뜻을 드러냈지. 신들은 내게 조국과 함께 죽을 운명을 주었네. 하지만 자네는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메세니아인들과 자네 자신을 구하게.” 아리스토메네스에게 이렇게 말한 그는 적에게 돌진하며, 라케다이몬인들을 향해 참지 못하고 이렇게 외쳤다. “너희가 메세니아의 수확을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영원히 누리지는 못하리라.”

**[4.21.11]** 그는 맞은편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였고 자신도 상처를 입었다. 적을 죽이는 것으로 분을 풀고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아리스토메네스는 싸우던 메세니아인들을 불러들였다. 다만 용기를 내어 다른 이들을 엄호하던 사람들은 자리를 지키게 했다. 나머지에게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대열 안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통로를 가리키면 어디든 따라오라고 명했다.

**[4.21.12]** 그는 고르고스와 만티클로스에게 후위를 맡기고 자신은 무리의 맨 앞으로 달려갔다. 고갯짓과 창의 움직임으로, 길을 열어 달라는 뜻과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뜻을 밝혔다. 엠페라모스와 그 자리에 있던 스파르타인들은 이미 절망과 광기가 극에 달한 사람들을 더 자극하지 않고 기꺼이 지나가게 했다. 점술가 헤카스도 그렇게 하라고 명했다.

periegesis.abm.uu.se

## 제22장

**[4.22.1]** 아르카디아인들은 에이라가 함락되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아리스토크라테스에게 자기들을 이끌고 메세니아인들을 구하러 가거나 그들과 함께 죽자고 했다. 그러나 아리스토크라테스는 라케다이몬의 뇌물을 받고 있었으므로 지휘하기를 거부했다. 자신이 아는 한 그들이 도울 수 있는 메세니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4.22.2]** 살아남은 사람들이 에이라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더 확실한 소식을 듣자, 아르카디아인들은 옷과 먹을 것을 준비해 리카이온산에서 그들을 맞아들이기로 했다. 유력자 몇 사람을 보내 메세니아인들을 위로하고 길을 안내하게 했다. 메세니아인들이 리카이온산에 무사히 이르자 아르카디아인들은 그들을 접대하고 모든 면에서 친절히 대했다. 자기들의 여러 도시에 그들을 나누어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 땅도 새로 나누겠다고 제안했다.

**[4.22.3]** 그러나 에이라가 함락된 슬픔과 라케다이몬인들에 대한 증오에서 아리스토메네스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떠올렸다. 그는 메세니아인들 가운데 자신의 몸을 가장 아끼지 않는다고 아는 오백 명을 뽑았다. 그러고는 아리스토크라테스와 다른 아르카디아인들이 듣는 데서, 조국의 원수를 갚고 자신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었느냐고 물었다. 그는 아리스토크라테스가 배신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예전 전투에서 달아난 것도 계략 때문이 아니라 기개가 없고 겁이 났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의 앞에서 오백 명에게 물었던 것이다.

**[4.22.4]** 그들이 각오가 되었다고 하자, 아리스토메네스는 계획을 모두 밝혔다. 다음 날 저녁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이끌고 스파르타를 칠 작정이라고 했다. 마침 라케다이몬인들 대부분이 에이라에 가 있고 다른 이들은 전리품을 찾아 메세니아를 휩쓸고 있었다. 아리스토메네스가 말했다. “스파르타를 점령하여 지킬 수 있다면, 라케다이몬인들에게 그들의 것을 돌려주고 우리의 것을 되찾을 수 있네. 실패한다면 후세가 기억할 일을 해낸 뒤 함께 죽는 걸세.”

**[4.22.5]** 이 말을 듣고 아르카디아인 가운데 삼백 명이나 이 일에 함께 나서겠다고 했다. 제물의 징조가 좋지 않아 우선 출발을 미루었다. 이튿날 그들은 라케다이몬인들이 이미 비밀 계획을 알고 있으며 아리스토크라테스가 또다시 자신들을 배신했다는 것을 알았다. 아리스

토크라테스가 즉시 아리스토메네스의 계획을 편지에 적어, 가장 충성스럽다고 아는 노예에게 맡겨 스파르타의 아낙산드로스에게 보냈던 것이다.

**[4.22.6]** 그 노예가 돌아올 때, 전부터 아리스토크라테스와 사이가 나빴고 이제 그를 의심하고 있던 아르카디아인들이 노예를 가로막아 붙잡았다. 이들은 노예를 아르카디아인들 앞에 데려가 라케다이몬에서 온 회답을 백성에게 알렸다. 아낙산드로스는 예전에 큰 도랑에서 물러난 일에 대해 라케다이몬인들이 이미 보상했으며, 이번에 정보를 준 일에도 별도로 보상하겠다고 썼다.

**[4.22.7]** 이 사실이 모두에게 알려지자 아르카디아인들은 아리스토크라테스에게 돌을 던지면서 메세니아인들에게도 함께하라고 권했다. 메세니아인들은 아리스토메네스를 바라보았다. 그는 눈을 땅에 고정한 채 울고 있었다. 아르카디아인들은 아리스토크라테스를 돌로 쳐 죽이고 시신을 묻지 않은 채 국경 밖에 내던졌다. 그리고 제우스 리카이오스의 성역에 다음 글을 새긴 비석을 세웠다.

> 참으로 시간이 불의한 왕에게 정의의 판결을 내렸으며,
> 제우스의 도움으로 메세네의 배신자를 어렵지 않게 밝혀냈다.
> 맹세를 저버린 이가 신의 눈을 피하기란 어렵다.
> 왕이신 제우스여, 평안하시고 아르카디아를 지켜 주소서. periegesis.abm.uu.se

## 제23장

**[4.23.1]** 에이라 일대나 메세니아의 다른 곳에서 붙잡힌 메세니아인들은 모두 라케다이몬인들에게 예속되어 농노가 되었다. 필로스와 모토네 주민들, 그리고 해안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에이라가 함락되자 배를 타고 엘리스인들의 항구 킬레네로 물러났다. 거기서 아르카디아에 있는 메세니아인들에게 사람을 보내 한데 모여 새로 살 땅을 찾자고 했다. 아리스토메네스에게는 이주민들을 이끌어 달라고 청했다.

**[4.23.2]** 아리스토메네스는 살아 있는 동안 라케다이몬인들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했다. 자신이 있는 한 스파르타에는 계속 골칫거리가 생기리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들에게 고르고스와 만티클로스를 지도자로 보내 주었다. 에우에르게티다스도 다른 메세니아인들과 함께 리카이온산으로 물러나 있었다. 그는 아리스토메네스가 스파르타를 점령하려던 계획이 실패한 것을 보고, 메세니아인 약 오십 명을 설득하여 자기와 함께 에이라로 돌아가 라케다이몬인들을 공격하게 했다.

**[4.23.3]** 그는 라케다이몬인들이 아직 약탈 중일 때 들이닥쳐 그들이 승리를 기뻐하던 자리를 슬픔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자신도 그곳에서 운명을 맞았다. 아리스토메네스는 이주에 참가하고 싶은 메세니아인들은 모두 킬레네에서 지도자들과 합류하라고 명했다. 나이 때문에 갈 수 없거나 해외로 떠날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가했다. 그들은 아르카디아인들과 함께 그곳에 남았다.

**[4.23.4]** 에이라가 함락되고 라케다이몬인들과 메세니아인들 사이의 두 번째 전쟁이 끝난 것은, 아테네에서 아우토스테네스가 아르콘이던 때였다. 라코니아인 키오니스가 우승한 제

28회 올림피아 경기 주기의 첫해였다.

**[4.23.5]** 메세니아인들은 킬레네에 모이자 그해 겨울을 그곳에서 나기로 했다. 엘리스인들은 장터를 마련하고 비용을 대 주었다. 봄이 오자 그들은 어디로 갈지 의논하기 시작했다. 고르고스는 케팔레니아 앞의 자킨토스를 점령하자고 했다. 육지 사람이던 그들이 섬사람이 되어 배로 라코니아 해안을 습격하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만티클로스는 메세네와 라케다이몬인들에 대한 증오를 잊고, 사르디니아로 항해하여 크고 비옥하기로 으뜸가는 섬을 차지하자고 권했다.

**[4.23.6]** 그때 아낙실라스가 메세니아인들에게 사람을 보내 이탈리아로 불렀다. 그는 레기온의 참주로, 알키다미다스의 증손이었다. 알키다미다스는 아리스토데모스 왕이 죽고 이토메가 함락된 뒤 메세네를 떠나 레기온에 온 사람이었다. 메세니아인들이 오자 아낙실라스는 잔클레 사람들과 자신이 전쟁 중이라고 했다. 그들이 시켈리아에서 번영하는 땅과 입지 좋은 도시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신이 그것을 메세니아인들에게 주고 정복하는 데도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제안을 받아들이자 아낙실라스는 그들을 시켈리아로 건네주었다.

**[4.23.7]** 잔클레를 처음 차지한 것은 해적들이었다. 그 땅에 사람이 살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항구에 성벽을 두르고 습격과 항해의 거점으로 삼았다. 지도자는 사모스인 크라타이메네스와 칼키스의 페리에레스였다. 뒤에 페리에레스와 크라타이메네스는 다른 그리스인 이주민들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4.23.8]** 잔클레인들이 바다로 나와 맞서자 아낙실라스가 그들을 격파했고, 육지에서는 메세니아인들이 그들을 이겼다. 육지에서 메세니아인들에게, 바다에서 레기온 함대에 봉쇄된 잔클레인들은 성벽이 함락되자 신들의 제단과 신전으로 달아나 보호를 청했다. 아낙실라스는 보호를 청한 잔클레인들은 죽이고, 나머지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노예로 삼으라고 메세니아인들에게 권했다.

**[4.23.9]** 그러나 고르고스와 만티클로스는 자신들이 혈족에게 불경한 대우를 받았는데, 같은 그리스 혈통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강요하지 말아 달라고 아낙실라스에게 간청했다. 그 뒤 그들은 잔클레인들을 제단에서 일어나게 하고 서로 서약을 맺어 함께 살았다. 도시의 이름은 잔클레에서 메세네로 바꾸었다.

**[4.23.10]** 이 일은 라코니아인 키오니스가 두 번째로 우승한 제29회 올림피아 경기 주기에 일어났다. 아테네에서는 밀티아데스가 아르콘이었다. 만티클로스는 메세니아인들을 위해 헤라클레스의 신전도 세웠다. 신전은 성벽 밖에 있으며, 신은 헤라클레스 만티클로스라고 불린다. 리비아의 암몬과 바빌론의 벨로스가 이름을 얻은 것도 이와 같다. 벨로스는 리비아의 아들인 이집트인 벨로스에게서, 암몬은 성소를 세운 목자에게서 이름을 얻었다. 이로써 망명한 메세니아인들의 떠돌이 생활이 끝났다. periegesis.abm.uu.se

## 제24장

**[4.24.1]** 이주민들을 이끌기를 사양한 아리스토메네스는 누이 하그나고라를 피갈리아의 타릭스와 혼인시켰다. 맏딸과 둘째 딸은 각각 레프레온의 다모토이다스와 헤라이아의 테오폼포스에게 시집보냈다. 자신은 델포이로 가서 신에게 물었다. 아리스토메네스가 받은 답은 전하지 않는다.

**[4.24.2]** 한편 로도스의 이알리소스를 다스리던 다마게토스가 아폴론에게 가서 어디에서 아내를 얻을지 물었다. 피티아는 그리스인들 가운데 가장 용감한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으라고 했다. 아리스토메네스에게 셋째 딸이 있었으므로 다마게토스는 그녀와 혼인했다. 아리스토메네스가 그 시대 그리스인들 가운데 단연 가장 용감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딸과 함께 로도스에 온 아리스토메네스는 거기서 사르데이스로 올라가 기게스의 아들 아르디스를 만나고, 메디아의 엑바타나로 가서 프라오르테스 왕도 만나려 했다.

**[4.24.3]** 그러나 그 전에 병에 걸려 죽었다. 이제 라케다이몬인들이 아리스토메네스의 손으로 더 재앙을 겪을 운명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가 죽자 다마게토스와 로도스인들은 그에게 훌륭한 무덤을 지어 주고 그 뒤로도 영예를 바쳤다. 로도스의 이른바 디아고라스 가문에 전하는 이야기는 이 대목과 관계가 없어 보일 수 있으므로 넘어가겠다. 그 가계는 디아고라스에게서 나왔다. 디아고라스는 다마게토스의 아들, 도리에우스의 손자였고, 도리에우스는 다마게토스와 아리스토메네스의 딸에게서 태어났다.

**[4.24.4]** 메세니아를 차지한 라케다이몬인들은 아시네 사람들의 땅을 빼고 전부 자기들끼리 나누었다. 다만 아르고스인들에게 얼마 전에 도시에서 쫓겨난 나우플리아 사람들에게는 모토네를 주었다.

**[4.24.5]** 그 땅에서 붙잡혀 억지로 농노가 된 메세니아인들은 뒤에 라케다이몬인들에게 반기를 들었다. 코린토스의 크세노폰이 우승한 제79회 올림피아 경기 주기였으며, 아테네에서는 아르키메데스가 아르콘이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 계기를 얻은 것은 다음과 같았다. 어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라케다이몬인 몇 사람이 타이나론으로 달아나 보호를 청했다. 그러나 에포로이들은 그곳의 제단에서 그들을 끌어내 죽였다.

**[4.24.6]** 스파르타인들이 보호를 청하는 이들을 존중하지 않았으므로 포세이돈의 노여움이 그들에게 닥쳤고, 신은 그들의 도시를 온통 무너뜨렸다. 이 재난이 일어나자 메세니아 혈통의 농노들은 모두 이탈하여 이토메산으로 갔다. 라케다이몬인들은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 다른 동맹군뿐 아니라 아테네에서 라케다이몬의 이익을 돌보던 밀티아데스의 아들 키몬과 아테네군도 불러들였다. 그러나 아테네인들이 도착하자, 그들이 정변을 부추길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던 듯하다. 그런 의심 때문에 곧 이토메에서 그들을 돌려보냈다.

**[4.24.7]** 라케다이몬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깨달은 아테네인들은 아르고스인들과 우호를 맺었다. 이토메에서 포위된 메세니아인들이 협정을 맺고 떠날 수 있게 되었을 때, 아테네인들은 그들에게 나우팍토스를 주었다. 그 도시는 아이톨리아에 접해 사는 이른바 오졸라이 로크리스인들에게서 빼앗은 곳이었다. 메세니아인들이 이토메에서 물러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이 그만큼 견고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피티아는 라케다이몬인들이 이

토메의 제우스에게 몸을 의탁한 이를 해친다면 반드시 벌을 받으리라고 선언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협정에 따라 펠로폰네소스를 떠날 수 있었다. periegesis.abm.uu.se

## 제25장

**[4.25.1]** 나우팍토스에 자리 잡은 메세니아인들은 아테네인들에게서 도시와 땅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자기 손으로도 이름난 일을 해냈음을 보여 주고 싶어 했다. 오이니아다이의 아카르나니아인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아테네인들과 줄곧 전쟁한다는 것을 알고는 그들을 치러 갔다. 수에서 앞서지는 않았으나 뛰어난 용기로 이겨, 그들을 요새 안에 몰아넣고 포위했다.

**[4.25.2]** 그들은 공성에 쓸 수 있는 고안이라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사다리를 세워 도시를 점령하려 했고, 성벽 밑으로 땅을 팠으며, 짧은 시간에 마련할 수 있는 공성 장비를 끌고 와 방어 시설을 부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도시가 함락되면 자신들은 죽고 아내와 자식들은 노예가 되리라고 두려워하여, 협정을 맺고 물러나기로 했다.

**[4.25.3]** 메세니아인들은 약 한 해 동안 도시와 그 땅을 차지했다. 이듬해 아카르나니아인들은 모든 도시에서 병력을 모아 나우팍토스를 공격할지 의논했다. 그러나 행군하려면 늘 적이었던 아이톨리아인들의 땅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 계획을 버렸다. 또 나우팍토스 사람들이 함대를 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러했다. 그들이 바다를 장악하는 동안 육군만으로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4.25.4]** 그래서 계획을 바꾸어 곧바로 오이니아다이의 메세니아인들에게로 향해 포위할 준비를 했다. 그토록 적은 수가 필사적인 용기를 내어 아카르나니아에서 총동원한 병력을 맞아 싸우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메세니아인들은 오래 포위될 것으로 보고 식량과 다른 모든 물자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

**[4.25.5]** 그러나 그들은 포위가 완성되기 전에 탁 트인 곳에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메세니아인인 그들은 용기에서 라케다이몬인들에게조차 뒤지지 않았고 운에서만 뒤졌으므로, 아카르나니아에서 몰려온 대군에 겁먹지 않기로 했다. 그들은 마라톤에서 아테네인들이 해낸 일, 곧 만 명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페르시아인 삼십만 명을 무찔렀다는 일을 떠올렸다.

**[4.25.6]** 그리하여 아카르나니아인들과 맞붙었다. 전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적은 수가 훨씬 많아 메세니아인들을 어렵지 않게 에워쌌다. 메세니아군 등 뒤의 성문과 성벽에 배치된 부대의 힘찬 지원이 가로막는 쪽만은 에워쌀 수 없었다. 하지만 아카르나니아인들은 두 날개를 감싸고 사방에서 무기를 쏘아 댔다.

**[4.25.7]** 메세니아인들은 촘촘한 대열로 한꺼번에 돌진할 때마다 그 지점의 적을 혼란에 빠뜨려 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했다. 그러나 완전히 패주시킬 수는 없었다. 아카르나니아인들은 자기 전열의 일부가 메세니아인들에게 뚫리는 곳을 볼 때마다 곤경에 처한 부대를 도우러 가서, 수로 상대를 압도하여 막아냈다.

**[4.25.8]** 밀려난 메세니아인들은 아카르나니아군이 밀집한 다른 지점을 뚫으려 했으나, 그때도 결과는 같았다. 공격하는 곳마다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얼마간 밀어냈지만, 아카르나

니아인들이 다시 그리로 몰려들면 하는 수 없이 물러났다. 저녁까지는 전투가 팽팽했다. 그러나 날이 저물 때 아카르나니아인들이 여러 도시에서 원군을 받으면서 메세니아인들은 포위되었다.

**[4.25.9]** 메세니아인들은 성벽이 공격으로 함락될까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카르나니아인들이 성벽을 타고 오르거나, 자기들이 초소를 버릴 수밖에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덟째 달에는 준비한 물자가 모두 바닥났다.

**[4.25.10]** 그들은 성벽 위에서 아카르나니아인들을 향해, 포위가 열 해째 되기 전에는 식량이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비웃으며 외쳤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막 잠들 때 오이니아다이에서 빠져나갔다. 탈출이 아카르나니아인들에게 알려져 싸워야 했다. 메세니아인들은 약 삼백 명을 잃었으나 그보다 더 많은 적을 죽였다. 대다수는 아카르나니아인들의 대열을 뚫고 우호 관계에 있던 아이톨리아인들의 땅에 이르러, 나우팍토스로 무사히 돌아갔다.

periegesis.abm.uu.se

## 제26장

**[4.26.1]** 그 뒤에도 메세니아인들을 움직인 것은 여느 때처럼 라케다이몬인들에 대한 증오였다. 그 적개심이 가장 뚜렷이 드러난 것은 펠로폰네소스인들과 아테네인들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서였다. 그들은 나우팍토스를 펠로폰네소스를 치는 거점으로 내주었다. 또 나우팍토스에서 온 메세니아의 투석병들은 스팍테리아섬에 고립된 스파르타인들을 사로잡는 데 힘을 보탰다.

**[4.26.2]** 아이고스포타모이에서 아테네인들이 패한 뒤 바다를 장악한 라케다이몬인들은 나우팍토스에서 메세니아인들을 쫓아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시켈리아의 혈족이나 레기온으로 갔지만, 대다수는 리비아의 에우에스페리타이에게 갔다. 에우에스페리타이 사람들은 이웃 이민족과 싸워 큰 피해를 입어, 그리스인이라면 누구든 함께 살자고 부르고 있었다. 그리하여 대다수의 메세니아인들이 그곳으로 갔다. 지도자는 스팍테리아에서 그들을 지휘한 코몬이었다.

**[4.26.3]** 테바이인들이 레욱트라에서 승리하기 한 해 전에, 신은 메세니아인들이 펠로폰네소스로 돌아가리라는 것을 예고했다. 해협가의 메세네에서는 헤라클레스의 제사장이 꿈을 꾸었다. 제우스가 헤라클레스 만티클로스를 이토메에 손님으로 부른 듯했다고 한다. 에우에스페리타이 땅에 있던 코몬도 꿈을 꾸었다. 죽은 어머니와 잠자리를 함께했는데, 그 뒤에 어머니가 다시 살아났다. 코몬은 아테네인들이 바다의 주도권을 되찾았으므로 자신들도 나우팍토스로 돌아가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꿈이 가리킨 것은 실은 메세네의 회복이었다.

**[4.26.4]** 얼마 지나지 않아 라케다이몬인들은 레욱트라에서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닥칠 차례였던 재앙을 겪었다. 메세니아를 다스린 아리스토데모스에게 내린 신탁의 끝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 운명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 한 사람에게 다른 이보다 먼저 파멸이 온다.

그와 메세니아인들이 먼저 불행을 겪어야 하고, 뒤에는 라케다이몬에 파멸이 닥치리라는 뜻이었다.

**[4.26.5]** 레욱트라에서 승리한 테바이인들은 이탈리아와 시켈리아와 에우에스페리타이에게 사절을 보냈다. 그 밖에 어디에 있든 메세니아인들을 펠로폰네소스로 불러들였다. 그들은 고국을 그리워했고 라케다이몬인들을 향한 증오도 여전했으므로,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빨리 모였다.

**[4.26.6]** 에파미논다스는 라케다이몬인들에게 맞설 수 있는 도시를 세우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보았다. 그 땅의 어디에 지을지도 정하지 못했다. 메세니아인들은 안다니아와 오이칼리아에 다시 자리 잡기를 거부했다. 그곳에서 살던 때에 재앙이 닥쳤기 때문이다. 에파미논다스가 이렇게 곤란해하자 데메테르의 제사장을 몹시 닮은 노인이 밤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그대에게 줄 선물은 그대가 치러 가는 상대라면 누구든 이기게 되는 것이네. 테바이 사람이여, 그대가 인간들 사이를 떠난 뒤에도 그대의 이름이 잊히지 않게 하고 영광을 주겠네. 그러니 메세니아인들에게 조국과 도시들을 돌려주게. 이제 그들을 향한 디오스쿠로이의 노여움은 그쳤네."

**[4.26.7]** 노인은 에파미논다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또 아르고스인들에게 뽑혀 그들의 군대를 지휘하고 메세네를 다시 세우는 일을 맡은 아이스키네스의 아들 에피텔레스에게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밝혔다. 꿈은 이토메산에서 주목과 도금양이 함께 자라는 곳을 찾거든 그 사이를 파서 노파를 되찾으라고 했다. 노파가 청동 방 안에 갇혀 지친 나머지 거의 기절할 지경이라고 했다. 날이 밝자 에피텔레스는 지시받은 곳으로 가서 땅을 파다가 청동 항아리를 발견했다.

**[4.26.8]** 그는 곧 항아리를 에파미논다스에게 가져가 꿈을 이야기하고, 뚜껑을 벗겨 안을 보라고 했다. 에파미논다스는 꿈에 나타난 이에게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올린 뒤 항아리를 열었다. 안에는 책처럼 말아 놓은 아주 얇은 주석판이 들어 있었다. 거기에 두 위대한 여신의 비의가 기록되어 있었다. 아리스토메네스가 맡겨 둔 보물이 바로 이것이었다. 에피텔레스와 에파미논다스가 잠들었을 때 나타난 이는 카우콘이었다고 한다. 아테네에서 안다니아로 와 트리오파스의 딸 메세네를 찾아온 사람이다. periegesis.abm.uu.se

## 제27장

**[4.27.1]** 틴다레오스의 아들들이 메세니아인들에게 노여움을 품은 것은 스테니클레로스 전투 전부터였다. 내 생각에는 다음 일 때문에 노여움이 생겼다. 안다니아의 파노르모스와 고니포스는 한창때의 젊은이들로, 무슨 일이든 함께하는 가까운 친구였다. 싸움에 나가거나 라코니아를 습격할 때에도 함께했다.

**[4.27.2]** 라케다이몬인들은 진영에서 디오스쿠로이의 축제를 지내고 있었다. 점심을 먹고 술과 놀이를 즐기고 있을 때 고니포스와 파노르모스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두 사람은 훌륭한 말을 타고 흰 옷에 진홍빛 망토를 걸쳤으며, 머리에 모자를 쓰고 손에 창을 들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그들을 보고 디오스쿠로이가 몸소 제사에 왔다고 생각하여 엎드려 기도를 올렸다.

**[4.27.3]** 두 젊은이는 일단 그들 사이로 들어오자 말을 몰아 무리를 가로지르며 창으로 찔렀다. 많은 사람을 죽인 뒤 그들은 디오스쿠로이의 제사를 욕되게 한 채 안다니아로 돌아갔다. 내 생각에는 이 일이 디오스쿠로이에게 메세니아인들을 미워하게 했다. 그러나 이제 에파미논다스에게 꿈이 밝혀 준 대로, 디오스쿠로이는 더는 메세니아인들의 귀환을 막지 않았다.

**[4.27.4]** 에파미논다스가 도시를 세우는 데 가장 크게 마음이 끌린 것은 바키스의 신탁 때문이었다. 님프들에게 신들린 바키스는 다른 그리스인들의 일뿐 아니라 메세니아인들의 귀환에 관해서도 예언을 남겼다.

> 그때 참으로 스파르타의 찬란한 꽃이 시들고,
> 메세네에는 다시 사람들이 영원히 살리라.

바키스가 에이라가 어떻게 함락될지도 말했다는 것을 나는 알아냈다. 다음 구절 역시 그의 신탁이다.

> 메세네 사람들은 천둥의 울림과 쏟아지는 비에 굴복하리라.

**[4.27.5]** 비의를 되찾자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책에 옮겨 적었다. 에파미논다스는 오늘날 메세니아인들의 도시가 서 있는 곳이 건설에 가장 알맞다고 보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을 시작하면 신들이 호의를 베풀지 점술가들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그들이 제물의 징조가 좋다고 알리자, 그는 건설 준비에 착수했다. 돌을 가져오게 하고, 도로를 내고 집과 신전과 둘레 성벽을 쌓는 데 능숙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4.27.6]** 모든 준비가 끝나고 아르카디아인들이 제물을 마련하자, 에파미논다스 자신과 테바이인들은 관습에 따라 디오니소스와 아폴론 이스메니오스에게 제사를 올렸다. 아르고스인들은 아르고스의 헤라와 네메아의 제우스에게, 메세니아인들은 이토메의 제우스와 디오스쿠로이에게, 그들의 제사장들은 두 위대한 여신과 카우콘에게 제사를 올렸다. 그들은 함께 영웅들을 불러, 돌아와 자신들과 함께 살아 달라고 청했다. 먼저 트리오파스의 딸 메세네를, 뒤이어 에우리토스와 아파레우스와 그의 자녀들을 불렀다. 헤라클레스의 후손들 가운데에서는 크레스폰테스와 아이피토스를 불렀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가장 큰 소리로 부른 이는 아리스토메네스였다.

**[4.27.7]** 그날은 제사와 기도를 올리며 보냈다. 그 뒤 며칠 동안 둘레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집과 신전을 지었다. 일하는 동안 음악을 울렸는데, 보이오티아와 아르고스의 피리만을 썼다. 사카다스와 프로노모스의 곡들이 서로 치열하게 겨루었다. 도시는 메세네라 이름 지었고, 다른 도시들도 세웠다. 모토네에 살던 나우플리아 사람들에게는 손대지 않았다.

**[4.27.8]** 아시네 사람들도 자기 고향에 그대로 살게 했다. 라케다이몬인들이 메세니아를 상대로 전쟁할 때 그쪽에 가담하지 않았던 호의를 기억했기 때문이다. 메세니아인들이 펠로폰네소스로 돌아오자 나우플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련할 수 있는 선물을 가져왔다. 그들은 메세니아인들의 귀환을 위해 줄곧 신들에게 기도해 왔다며, 자기들도 보호해 달라고 청했다.

**[4.27.9]** 메세니아인들이 펠로폰네소스로 돌아와 자기 땅을 되찾은 것은 에이라가 함락된 지 이백팔십칠 년 뒤였다. 아테네에서는 디스키네토스가 아르콘이었고, 투리오이의 다몬이 두 번째로 우승한 제102회 올림피아 경기 주기의 세 번째 해였다. 플라타이아이 사람들도 고국을 떠나 망명한 기간이 짧지 않았다. 델로스 사람들 또한 아테네인들과 오르코메노스인들에게 자기 섬에서 쫓겨나 아드라미티온에서 지낸 기간이 짧지 않았다. Icarus Atlas

**[4.27.10]** 미니아이 사람들은 레욱트라 전투 뒤 테바이인들에게 오르코메노스에서 쫓겨났다. 아민타스의 아들 필리포스가 그들을 플라타이아이 사람들과 함께 보이오티아로 돌아오게 했다. 테바이인들 자신도 알렉산드로스에게 도시를 파괴당했는데, 몇 해 뒤 안티파트로스의 아들 카산드로스가 테바이를 다시 세웠다. 지금 열거한 이들 가운데 플라타이아이 사람들의 망명이 가장 오래간 듯하지만, 그들조차 두 세대를 넘기지는 않았다.

**[4.27.11]** 그러나 메세니아인들이 펠로폰네소스 밖에서 떠돈 기간은 거의 삼백 년이었다. 그동안 그들은 자기 고장의 관습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고 도리아 방언도 잃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펠로폰네소스에서 가장 순수한 도리아 방언을 간직하고 있다. periegesis.abm.uu.se

## 제28장

**[4.28.1]** 돌아온 뒤 처음에 메세니아인들은 라케다이몬인들을 두려워할 일이 없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테바이인들이 두려워 메세네가 세워지고 아르카디아인들이 한 도시에 모여 사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포키스 전쟁, 곧 이른바 신성 전쟁으로 테바이인들이 펠로폰네소스에서 철수하자, 라케다이몬인들은 용기를 되찾았고 더는 메세니아인들을 공격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다.

**[4.28.2]** 메세니아인들은 아르고스인들과 아르카디아인들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이어 갔으며, 아테네인들에게도 도움을 청했다. 아테네인들은 라코니아를 함께 치는 것은 거절했으나, 라케다이몬인들이 전쟁을 일으켜 메세니아에 쳐들어오면 직접 도우러 가겠다고 약속했다. 메세니아인들은 마침내 아민타스의 아들 필리포스 및 마케도니아인들과 동맹을 맺었다. 그들은 그리스인들이 카이로네이아에서 벌인 전투에 참가하지 못한 것이 이 동맹 때문이었다고 한다. 다만 그리스인들에게 무기를 드는 일도 거절했다.

**[4.28.3]**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뒤 그리스인들이 마케도니아인들을 상대로 다시 전쟁을 일으켰을 때, 메세니아인들도 참가했다. 아티카를 다루면서 이미 밝힌 일이다. 갈리아인들을 상대로는 그리스인들과 함께하지 못했다. 클레오니모스와 라케다이몬인들이 그들과 휴전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4.28.4]** 얼마 뒤 메세니아인들은 계략과 대담함으로 엘리스를 점령했다. 옛날에 엘리스인들은 펠로폰네소스인들 가운데 법을 가장 잘 지켰다. 그러나 아민타스의 아들 필리포스는 앞에서 이야기한 온갖 해악을 그리스에 끼치면서 엘리스의 지도자들도 매수했다. 이 때문에 엘리스인들이 처음으로 파벌로 갈라져 서로 싸웠다고 한다.

**[4.28.5]** 그때부터 라케다이몬인들을 두고 뜻이 갈린 사람들 사이에는 분쟁이 더 쉽게 일어날 만했다. 마침내 내전까지 벌어졌다. 이 사실을 안 라케다이몬인들은 엘리스의 자기 지

지자들을 도울 준비를 했다. 그들이 병력을 부대별로 모으고 중대를 나누는 사이, 선발된 메세니아 병사 천 명이 방패에 라코니아의 표지를 내걸고 서둘러 엘리스에 닿았다.

**[4.28.6]** 엘리스에서 라케다이몬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방패를 보고 자기들을 도우러 온 군대라고 생각해 요새 안으로 들여보냈다. 이렇게 들어간 메세니아인들은 라케다이몬 지지자들을 몰아내고 자기편 사람들에게 도시를 넘겨주었다.

**[4.28.7]** 이 계략은 호메로스에게서 나온 것이지만, 메세니아인들이 적절한 때에 본뜬 것은 분명하다.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에서 파트로클로스에게 아킬레우스의 무장을 입히고, 이민족들이 아킬레우스 자신이 공격해 온다고 굳게 믿어 앞줄이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다른 계략들도 호메로스의 고안이다. 그리스인 첩자 한 명이 아닌 두 명이 밤중에 트로이아인들 사이로 들어가는 이야기, 뒤에 한 사람이 탈영병인 척하면서 실은 그들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트로이아에 오는 이야기가 있다.

**[4.28.8]** 또 호메로스는 너무 어리거나 나이가 많아 싸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트로이아인들에게 성벽의 수비를 맡기고, 싸울 나이가 된 이들은 그리스군과 대치하게 했다. 그의 시에서 부상당한 그리스인들은 싸울 사람들의 무장을 도와, 자신들도 마냥 놀고 있지 않게 한다. 참으로 호메로스의 생각은 온갖 일에서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9장

**[4.29.1]** 엘리스의 일이 있은 지 오래지 않아, 마케도니아인들과 필리포스의 아들 데메트리오스가 메세네를 점령했다. 이 필리포스는 데메트리오스의 아들이었다. 페르세우스가 필리포스 자신과 그의 아들 데메트리오스에게 저지른 범행은 시키온을 다룰 때 이미 대부분 이야기했다. 메세네의 점령에 얽힌 일은 이러하다.

**[4.29.2]** 필리포스는 돈이 필요했다. 무슨 수를 써서든 돈을 마련해야 했으므로 데메트리오스를 함대와 함께 펠로폰네소스로 보냈다. 데메트리오스는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아르골리스의 한 항구에 배를 대고, 곧바로 최단 거리로 군대를 이끌고 메세네로 갔다. 그는 이토메로 가는 길을 아는 경무장병을 모두 선발대로 삼았다. 새벽이 되기 직전에 도시와 이토메산 꼭대기 사이의 성벽을 들키지 않고 넘어가는 데 성공했다.

**[4.29.3]** 날이 밝아 주민들이 자기들에게 닥친 위험을 깨달았을 때, 처음에는 라케다이몬인들이 도시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고 생각했다. 오래된 증오 때문에 그들은 더욱 거침없이 적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무장과 말씨를 보고 마케도니아인들과 필리포스의 아들 데메트리오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케도니아인들의 전투 훈련과 그들이 벌인 일마다 누려 온 행운을 떠올리자 몹시 두려웠다.

**[4.29.4]** 그래도 눈앞의 재앙이 너무 커서 그들은 자기 힘을 넘어서는 용기를 보였다. 그토록 오래 떠나 있다가 펠로폰네소스로 돌아온 일에도 신의 도움이 있었던 듯했으므로 일이 잘되리라는 희망도 솟았다. 도시 안의 메세니아인들은 용기를 내어 마케도니아인들에게 달려들었고, 아크로폴리스의 수비대는 위쪽의 높은 곳에서 공격했다.

**[4.29.5]** 마케도니아인들도 용감하고 싸움에 익숙하여 처음에는 굳게 버텼다. 그러나 행군에 지친 데다 남자들의 공격을 받고 여자들이 던지는 기와와 돌까지 맞자, 대열이 어지러워져 달아났다. 이 지점의 이토메산은 몹시 가파르므로, 대부분이 낭떠러지 아래로 떠밀려 죽었다. 무기를 버리고 달아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

**[4.29.6]** 내 생각에 메세니아인들이 처음에 아카이아 연맹에 들어가지 않은 까닭은 이러하다. 아이아키데스의 아들 피로스가 라케다이몬인들과 전쟁을 벌였을 때, 메세니아인들은 요청을 받지도 않고 그들을 도우러 갔다. 이 도움으로 스파르타에서는 메세니아인들을 전보다 평화롭게 대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그래서 그들은 라케다이몬인들의 가장 지독한 적이라고 공공연히 알려진 연맹에 가입해 옛 원한을 되살리고 싶지 않았다.

**[4.29.7]** 메세니아인들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아카이아인들의 정책이 라케다이몬인들에게 적대적이었다는 것은 나도 알고, 물론 메세니아인들도 알고 있었다. 아르고스인들과 아르카디아인들이 연맹에서 차지하는 몫은 결코 작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메세니아인들도 연맹에 가입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클레오니모스의 손자이자 레오니다스의 아들인 클레오메네스가 평화시에 아르카디아의 메갈로폴리스를 점령했다.

**[4.29.8]** 도시에 갇힌 메갈로폴리스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그곳이 점령될 때 죽었다. 그러나 크라우기스의 아들 필로포이멘과 그를 따라 빠져나간 사람들은 모두 메세니아인들이 받아주었다. 탈출한 사람이 시민의 삼분의 이를 넘었다고 한다. 메세니아인들은 아리스토메네스 시대와 메세네가 세워질 때 아르카디아인들이 베푼 은혜를 생각하여 이제 그와 같은 도움으로 갚았다.

**[4.29.9]** 사람의 일이 이처럼 뒤바뀌는 것인가 보다. 신의 뜻에 따라 이번에는 메세니아인들이 아르카디아인들을 구했고, 더 놀랍게도 스파르타까지 점령했다. 그들은 셀라시아에서 클레오메네스를 상대로 싸웠고, 아라토스 및 아카이아인들과 함께 스파르타를 점령했다.

**[4.29.10]** 라케다이몬인들이 클레오메네스에게서 벗어나자 마카니다스라는 참주가 실권을 잡았다. 그가 죽은 뒤에는 나비스가 두 번째 참주로 등장했다. 그는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신전도 털어, 짧은 시간에 막대한 재물을 모아 군대를 일으켰다. 이 나비스가 메세네를 점령했으나, 바로 그날 밤 필로포이멘과 메갈로폴리스 사람들이 도착했다.

**[4.29.11]** 그러자 스파르타의 참주는 협정을 맺고 물러났다. 그러나 그 뒤 아카이아인들은 메세니아인들과 분쟁이 생기자 병력을 모두 이끌고 쳐들어와 땅의 대부분을 황폐하게 했다. 그들은 또 한 번 곡식이 익었을 때 메세니아를 침공하려고 병력을 모았다. 그러나 당시 국정을 맡고 있었고 메세니아군의 지휘관으로 뽑힌 데이노크라테스가 리코르타스와 그 군대를 아무 성과도 없이 물러나게 했다. 도시의 메세니아인들과 사방에서 도우러 온 병력을 거느리고 아르카디아에서 메세니아로 들어오는 고갯길들을 미리 차지했기 때문이다.

**[4.29.12]** 필로포이멘은 얼마 안 되는 기병을 거느리고 리코르타스의 병력보다 늦게 도착했으며, 그 군대에 관해 아무 소식도 얻지 못했다. 높은 지대를 차지한 메세니아인들은 그를 이겨 산 채로 붙잡았다. 필로포이멘이 어떻게 붙잡혀 죽었는지는 뒤에 아르카디아를 다룰 때 이야기하겠다.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메세니아인들은 벌을 받았고, 메세네는 다시 아카이아 연맹에 들어갔다.

**[4.29.13]** 지금까지는 메세니아인들이 겪은 여러 고난과 운명이 그들을 펠로폰네소스에서 멀리 떨어진 땅끝까지 흩어 놓았다가 뒤에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한 일을 이야기했다. 이제 이 지방과 도시들을 살펴보자. periegesis.abm.uu.se

## 제30장

**[4.30.1]** 오늘날 메세니아 해안에는 아비아라는 도시가 있다. 코이리오스 골짜기에서 약 이십 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옛 이름은 이레였으며, 호메로스에 따르면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일곱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고 한다. 힐로스와 도리아인들이 아카이아인들에게 패했을 때, 헤라클레스의 아들 글레노스의 유모 아비아가 이레로 물러나 그곳에 정착하여 헤라클레스의 신전을 지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뒤에 크레스폰테스는 그녀에게 여러 영예를 주면서 도시의 이름도 아비아로 바꾸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이름난 헤라클레스 성소가 있었으며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소도 있었다.

**[4.30.2]** 파라이는 아비아에서 칠십 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길에는 짠물이 나는 샘이 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파라이의 메세니아인들을 라코니아에 편입했다. 도시를 세운 파리스는 헤르메스와 다나오스의 딸 필로다메이아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나 텔레고네라는 딸이 있었다.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에서 그녀의 후손들을 열거하면서, 디오클레스에게 쌍둥이 크레톤과 오르틸로코스가 태어났고, 디오클레스 자신은 알페이오스의 아들 오르틸로코스에게서 태어났다고 했다. 호메로스는 텔레고네를 말하지 않는다. 메세니아인들의 말로는 그녀가 알페이오스에게 오르틸로코스를 낳아 주었다.

**[4.30.3]** 파라이에서 나는 디오클레스에게 쌍둥이 말고 안티클레이아라는 딸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안티클레이아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들 마카온에게서 니코마코스와 고르가소스를 낳았다. 두 사람은 파라이에 남았으며 디오클레스가 죽자 왕위를 이었다. 병을 다스리고 몸을 다친 이들을 낫게 하는 힘이 오늘날까지도 그들에게 남아 있다. 사람들은 그 보답으로 그들의 성소에 제물과 봉헌물을 가져온다. 파라이 사람들에게는 행운의 여신 티케의 신전과 오래된 신상도 있다.

**[4.30.4]** 내가 아는 한, 시에서 티케를 처음 언급한 이는 호메로스다. 『데메테르 찬가』에서 그는 오케아노스의 딸들을 열거하며, 그들이 데메테르의 딸 코레와 함께 놀았다고 하고 티케를 그 가운데 넣었다. 구절은 이러하다.

> 우리 모두 아름다운 풀밭에 있었지요.
> 레우키페와 파이노와 엘렉트레와 이안테,
> 멜로보시스와 티케와 꽃 같은 얼굴의 오키로에가.

**[4.30.5]** 그는 이 여신이 인간의 일에서 신들 가운데 가장 강하고 가장 큰 힘을 보인다고 더 말하지는 않았다. 『일리아스』에서는 아테나와 에니오가 전쟁에서 으뜸이고, 아르테미스는 해산할 때 두려운 여신이며, 아프로디테는 혼인의 일을 보살핀다고 했다. 그러나 티케는 달리 언급하지 않았다.

**[4.30.6]** 신전을 짓고 신상을 새기는 데 능한 부팔로스가 스미르나의 티케상을 만들었다. 내가 알기로 그는 여신의 머리에 하늘의 구체를 얹고 한 손에는 그리스인들이 아말테이아의 뿔이라 부르는 것을 들려준 최초의 사람이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여신이 하는 일을 나타냈다. 뒤에는 핀다로스의 시에도 티케가 나왔다. 그녀를 페레폴리스, 곧 '도시를 떠받드는 여신'이라 부른 사람이 핀다로스다. periegesis.abm.uu.se

## 제31장

**[4.31.1]** 파라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폴론 카르네이오스의 숲이 있고, 그 안에 샘이 있다. 파라이는 바다에서 약 육 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거기서 메세니아 내륙으로 이어지는 길을 팔십 스타디온 가면 투리아 사람들의 도시에 닿는다. 호메로스의 시에 안테이아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곳이라고 한다. 아우구스투스는 투리아를 스파르타의 라케다이몬인들에게 주었다.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였을 때, 역시 로마인이었던 안토니우스가 그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메세니아인들과 다른 그리스인들은 라케다이몬인들이 아우구스투스 편에 섰기 때문에 안토니우스에게 가담했다.

**[4.31.2]** 이 때문에 아우구스투스는 메세니아인들과 다른 적대자들을 더러는 무겁게, 더러는 가볍게 벌했다. 투리아 사람들은 원래 높은 곳에 있던 도시를 떠나 평야로 내려와 살았다. 그러나 위쪽 도시가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다. 그곳에는 성벽의 흔적과 '시리아 여신의 신전'이라고 불리는 신전이 남아 있다. 평야의 도시 옆으로는 아리스라는 강이 흐른다.

**[4.31.3]** 내륙에는 칼라마이라는 마을과 림나이라는 곳이 있다. 림나이에는 아르테미스 림나티스의 성소가 있다. 스파르타의 왕 텔레클로스가 여기서 죽었다고 한다.

**[4.31.4]** 투리아에서 아르카디아 쪽으로 가는 길에는 파미소스강의 샘들이 있다. 어린아이들이 그곳에서 병을 고친다. 샘에서 왼쪽으로 갈라지는 길을 따라 약 사십 스타디온을 가면 이토메산 아래 메세니아인들의 도시에 닿는다. 이토메산이 도시를 둘러싸며, 파미소스강 쪽에서는 에우아산이 도시를 둘러싼다. 디오니소스와 그를 따르는 여자들이 바쿠스의 외침 '에우오이'를 처음 이곳에서 질렀으므로 산에 그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4.31.5]** 메세네를 에워싸는 성벽은 둘레 전체를 돌로 쌓았고 망루와 가슴벽을 갖추었다. 나는 바빌론의 성벽이나 페르시아 수사에 있는 멤논의 성벽을 보지 못했고, 직접 보았다는 사람의 말도 들어 보지 못했다. 그러나 포키스의 암브로소스와 비잔티온과 로도스는 모두 방비가 가장 강한 곳들인데, 그 성벽들도 메세니아의 성벽만큼 견고하지는 않다.

**[4.31.6]** 메세니아인들의 아고라에는 구원자 제우스의 신상과 아르시노에 샘이 있다. 샘의 이름은 레우키포스의 딸에게서 얻었으며, 클렙시드라라 불리는 수원에서 물을 받는다. 포세이돈과 아프로디테의 성소도 있다. 특히 언급할 만한 것은 파로스 대리석으로 만든 신들의 어머니상이다. 다모폰의 작품이다. 그는 올림피아의 제우스상에서 상아 부분이 벌어졌을 때 아주 정교하게 수리한 조각가로, 엘리스인들에게 영예를 받았다.

**[4.31.7]** 메세네의 이른바 라프리아상도 다모폰의 작품이다. 그들에게 이 숭배가 자리 잡은 경위는 이렇다. 칼리돈 사람들은 모든 신 가운데 아르테미스를 가장 높이 섬기며 그녀를 라프리아라고 불렀다. 아테네인들에게 나우팍토스를 받은 메세니아인들은 당시 아이톨리

아인들의 가까운 이웃이었으므로 칼리돈 사람들에게서 이 여신을 받아들였다. 신상의 모습은 다른 곳에서 서술하겠다. 라프리아라는 이름을 받아들인 곳은 메세니아인들과 파트라이의 아카이아인들뿐이다.

**[4.31.8]** 하지만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는 모든 도시가 섬기고, 개인들도 모든 신 가운데 가장 높이 받든다. 내 생각에 그 까닭은 신상을 봉헌했다고 전해지는 아마존 여인들의 명성과 성소가 대단히 오래되었다는 데 있다. 세 가지가 더 그 명성에 보탬이 되었다. 사람이 지은 건물을 모두 능가하는 신전의 크기, 에페소스시의 이름값, 그리고 그곳에 깃든 여신 자신의 명성이다.

**[4.31.9]** 메세니아인들은 에일레이티이아에게 신전을 세워 석상을 모셨다. 그 가까이에는 쿠레테스의 제의 전각이 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온갖 생물을 불태워 바친다. 소와 염소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새들까지 불길에 넣는다. 메세네에는 데메테르의 거룩한 성소와 레우키포스의 딸들을 데려가는 디오스쿠로이의 상도 있다. 메세니아인들이 틴다레오스의 아들들은 라케다이몬인들보다 자기들에게 속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앞에서 이미 설명했다.

**[4.31.10]** 가장 많은 상과 가장 볼 만한 상들은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소에 있다. 신 자신과 그 아들들의 상 외에도 아폴론과 무사이와 헤라클레스의 상이 있다. 테바이시를 나타낸 상, 클레옴미스의 아들 에파미논다스의 상, 행운의 여신 티케와 빛을 가져오는 아르테미스 포스포로스의 상도 있다. 석상들은 다모폰의 작품이다. 나는 다모폰 외에 뛰어난 메세니아 조각가를 알지 못한다. 에파미논다스의 상은 철로 만들었으며 다른 장인의 작품이다.

**[4.31.11]** 트리오파스의 딸 메세네의 신전도 있으며, 금과 파로스 대리석으로 만든 상이 있다. 신전 뒤쪽에는 메세네의 왕들을 그린 그림들이 있다. 도리아 군대가 펠로폰네소스로 오기 전의 왕들 가운데에는 아파레우스와 그 아들들이 있고, 헤라클레스 후손들의 귀환 이후 인물로는 도리아인들의 지도자 크레스폰테스가 있다. 필로스 사람들로는 네스토르와 트라시메데스와 안틸로코스가 있다. 네스토르의 아들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뽑힌 것은 나이와 트로이아 원정에 참가한 일 때문이다.

**[4.31.12]** 아파레우스의 형제 레우키포스, 힐라에이라와 포이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르시노에도 그려져 있다. 메세니아인들의 말로는 아르시노에의 아들인 아스클레피오스도 있으며, 마카온과 포달레이리오스도 그려져 있다. 이들 역시 트로이아에서 벌어진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림을 그린 이는 니코메데스의 아들 니키아스의 제자 옴팔리온이다. 어떤 이들은 옴팔리온이 니키아스 집안의 노예이자 그의 총애를 받는 애인이기도 했다고 한다.

periegesis.abm.uu.se

## 제32장

**[4.32.1]** 메세니아인들이 히에로테시온이라 부르는 곳에는 그리스인들이 섬기는 모든 신의 상과 에파미논다스의 청동상이 있다. 오래된 세발솥도 봉헌되어 있다. 호메로스의 표현대로 '불을 겪지 않은' 솥이다. 체육장의 상들은 이집트 장인들의 작품이다. 헤르메스와 헤라클레스와 테세우스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그리스인들이 체육장과 씨름터에서 이들을 공경하는 관습이 있으며, 이제는 많은 이민족도 그렇게 한다. 〔…〕

**[4.32.2]** 알아보니 아이티다스는 나보다 앞선 시대의 인물이었다. 재산 덕분에 세력을 얻었으며, 메세니아인들은 그에게 영웅의 예를 올린다. 아이티다스가 큰 부자였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비석에 새긴 인물은 그가 아니라 이름이 같은 조상이라고 말하는 메세니아인들도 있다. 그들은 필리포스의 아들 데메트리오스와 그의 병력이 밤중에 불시에 들이닥쳐 몰래 도시 안으로 들어왔을 때 메세니아인들을 이끈 이가 앞선 시대의 아이티다스였다고 한다. Icarus Atlas

**[4.32.3]** 이곳에는 아리스토메네스의 무덤도 있다. 사람들은 빈 무덤이 아니라고 한다.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아리스토메네스의 뼈를 되찾았는지 묻자, 델포이의 신이 명하여 로도스로 사람을 보내 가져왔다고 답했다. 무덤에서 치르는 의례도 설명해 주었다. 죽은 이에게 바칠 황소를 무덤으로 데려가 그 위에 서 있는 기둥에 묶는다. 황소는 사납고 묶이는 데 익숙하지 않아 가만히 서 있지 않는다. 날뛰는 통에 기둥이 움직이면 메세니아인들에게 좋은 징조이고,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불행이 닥칠 징조다.

**[4.32.4]** 그들은 아리스토메네스가 이미 인간 세상을 떠났는데도 레욱트라 전투에 있었다고 전한다. 그가 테바이인들을 도왔으며, 라케다이몬인들이 참패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한다. 인간의 영혼이 불멸한다고 처음 말한 이들은 칼다이아와 인도의 현자들이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몇몇 그리스인들도 그들을 따랐는데, 특히 아리스톤의 아들 플라톤이 그랬다. 누구든 이 말을 받아들인다면 아리스토메네스가 라케다이몬인들에게 품은 증오도 영원히 그에게 남았으리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4.32.5]** 나 자신이 테바이에서 들은 이야기는 메세니아인들의 말과 모든 점에서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말에 개연성을 더한다. 테바이인들은 레욱트라 전투가 임박했을 때 다른 신탁소들뿐 아니라 레바데이아의 신에게도 사람을 보내 물었다고 한다. 아폴론 이스메니오스와 프토이오스의 대답, 아바이와 델포이에서 내려진 답이 기록되어 있다. 트로포니오스는 육보격의 시로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 적과 맞붙기 전에 전승비를 세우고 내 방패로 장식하라.
> 기세 드높은 메세니아인 아리스토메네스가
> 내 신전에 바쳤던 그 방패다.
> 그러면 내가 방패를 든 적의 무리를 쳐부수리라.

**[4.32.6]** 신탁이 전해지자 에파미논다스는 크세노크라테스에게 행동에 나서라고 권했다고 한다. 크세노크라테스는 아리스토메네스의 방패를 가져오게 해, 라케다이몬인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세운 전승비를 그것으로 장식했다. 라케다이몬인들 가운데 평화로울 때 레바데이아에서 그 방패를 본 이들은 단번에 알아보았고, 다른 이들도 소문으로 모두 알고 있었다. 승리한 테바이인들은 봉헌물을 트로포니오스에게 돌려주었다. 메세니아의 달리기 터에는 아리스토메네스의 청동상도 있다. 극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세라피스와 이시스의 성소가 있다. periegesis.abm.uu.se

## 제33장

**[4.33.1]** 메세니아인들의 아크로폴리스인 이토메산 꼭대기로 오르는 길에 클렙시드라 샘이 있다. 제우스가 자기들 가운데서 태어나 자랐다고 주장하는 민족은 아무리 애를 써도 다 열거할 수 없다. 메세니아인들도 신이 자기들 사이에서 자랐다고 하여 이 이야기에 한몫한다. 그들은 제우스의 유모가 이토메와 네다였다고 한다. 네다는 강에, 이토메는 산에 이름을 주었다. 아버지에게서 닥칠 위험 때문에 쿠레테스가 제우스를 훔쳐 낸 뒤, 두 님프가 이곳에서 그를 씻겼다고 한다. 샘의 이름도 쿠레테스가 제우스를 훔친 일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날마다 이 샘에서 물을 길어 이토메의 제우스 성소로 가져간다.

**[4.33.2]** 제우스상은 아겔라다스의 작품이다. 본래 나우팍토스에 정착한 메세니아인들을 위해 만든 것이었다. 제사장은 해마다 뽑으며, 그가 자기 집에 신상을 모신다. 사람들은 해마다 이토마이아 축제를 지낸다. 본래는 음악 경연도 열었다. 에우멜로스의 서사시 구절과 다른 자료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에우멜로스는 델로스로 가는 행렬의 찬가에서 이렇게 말한다.

> 이토메의 신이 사랑하신 무사 여신,
> 그 〔리라〕는 맑고 신발 끈은 매이지 않았다.

내 생각에 에우멜로스가 이 구절을 쓴 것은 그곳에서 음악 경연을 여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4.33.3]** 메갈로폴리스 쪽으로 나가는 아르카디아 문에는 아티카 양식의 헤르메스 기둥이 있다. 네모난 형태의 헤르메스 기둥은 아테네인들의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받아들였다. 성문에서 삼십 스타디온을 내려가면 발리라 물줄기가 있다. 타미리스가 눈이 먼 뒤 여기에 리라를 던져 버렸으므로 강이 그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던지다’는 **발레인**이라고 한다. 타미리스는 필람몬과 님프 아르기오페의 아들이었다. 아르기오페는 한때 파르나소스에 살았으나, 아이를 배었을 때 필람몬이 집에 받아들이려 하지 않자 오드리사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이런 까닭으로 타미리스를 오드리사이인이자 트라케인이라고 한다. 레우카시아와 암피토스 두 물줄기는 합쳐져 한 줄기로 흐른다.

**[4.33.4]** 이 물줄기들을 건너면 스테니클레로스 평야라 불리는 평야가 있다. 스테니클레로스는 영웅이었다고 한다. 평야 맞은편에는 오래전에는 오이칼리아라 불렸고 오늘날에는 카르나시온 숲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키파리소스 나무들이 빽빽하다. 거기에는 아폴론 카르네이오스와 〔하그네〕의 신상이 있으며, 숫양을 안고 있는 헤르메스상도 있다. 하그네는 ‘거룩한 여신’이라는 뜻으로 데메테르의 딸 코레의 별칭이다. 그 신상 가까이에는 샘물이 솟는다.

**[4.33.5]** 두 위대한 여신의 의례는 밝힐 수 없다. 카르나시온 숲에서 거행하는 것이 바로 그 여신들의 비의이며, 나는 신성함에서 엘레우시스의 비의 다음이라 여긴다. 다만 아르고스의 장군이 발견한 청동 항아리와 멜라네우스의 아들 에우리토스의 뼈가 이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는 것은 꿈에서도 금하지 않았다. 카라드로스강이 숲 곁을 흐른다.

**[4.33.6]** 왼쪽 길로 약 팔 스타디온을 가면 안다니아의 폐허가 있다. 안내자들은 도시가 안다니아라는 여자에게서 이름을 얻었다는 데에는 의견이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부모나 남편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안다니아에서 키파리시아이로 가는 길에는 폴리크네라 불리는 곳과 엘렉트라와 코이오스라는 물줄기가 있다. 그 이름들은 아틀라스의 딸 엘렉트라와 레토의 아버지 코이오스에게서 나왔을 수도 있다. 엘렉트라와 코이오스라는 두 지방 영웅의 이름일 수도 있다.

**[4.33.7]** 엘렉트라를 건너면 아카이아라는 샘과 도리온시의 폐허가 있다. 호메로스는 타미리스의 불행이 이곳 도리온에서 일어났다고 말한다. 타미리스가 노래로 무사이 여신들 자신을 이기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니아스』라는 서사시가 정말 포카이아의 프로디코스의 작품이라면, 그는 타미리스가 무사이 여신들 앞에서 자랑한 죄로 하데스에서 벌을 받았다고 말한 셈이다. 내 생각에 타미리스는 나중에 호메로스에게 일어난 것처럼 병으로 눈이 멀었다. 그러나 호메로스는 불행에 굴하지 않고 평생 시를 지은 반면, 타미리스는 닥쳐온 불행을 견디지 못해 자신의 예술을 버렸다. periegesis.abm.uu.se

## 제34장

**[4.34.1]** 메세네에서 파미소스강 하구까지는 팔십 스타디온 거리다. 파미소스강은 경작지를 지나는 맑은 물줄기다. 바다에서부터 약 십 스타디온까지 배가 다닐 수 있다. 라인강과 마이안드로스강에서와 마찬가지로, 특히 봄에 바닷물고기들이 이 강을 거슬러 올라온다. 물고기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강은 에키나데스섬들 맞은편으로 흘러드는 아켈로오스강이다.

**[4.34.2]** 그러나 파미소스강으로 들어오는 물고기는 내가 언급한 강들의 물고기와 종류가 전혀 다르다. 이 강의 물은 맑고 그 강들처럼 흙탕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흙을 좋아하는 숭어는 물이 더 흐린 강에 많이 산다. 그리스의 강에는 인도스강과 이집트의 나일강, 또는 라인강과 이스트로스강, 에우프라테스강과 파시스강처럼 사람에게 위험한 짐승이 없다. 그런 강에서는 몹시 사나운 식인 짐승들이 난다. 모양은 헤르모스강과 마이안드로스강의 메기를 닮았으나 색이 더 어둡고 힘이 세다. 그 점들에서는 메기가 못하다.

**[4.34.3]** 인도스강과 나일강에는 모두 악어가 산다. 나일강에는 강의 말인 하마도 사는데, 악어만큼이나 사람에게 위험하다. 그리스의 강에서는 들짐승을 두려워할 일이 없다. 테스프로티아를 지나는 아우스강의 상어도 강에 사는 짐승이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이다.

**[4.34.4]** 파미소스강 오른쪽 바닷가 마티아산 아래에 코로네라는 도시가 있다. 이 길의 해안에는 이노에게 바쳐진 곳으로 여기는 자리가 있다. 이노가 신으로 받아들여져 이름이 레우코테아로 바뀐 뒤 바다에서 올라온 곳이라고 한다. 조금 더 가면 비아스강이 바다에 이른다. 이름은 아미타온의 아들 비아스에게서 나왔다고 한다. 길에서 이십 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플라타니스톤 샘이 있다. 물은 속이 빈 커다란 플라타너스에서 흘러나온다. 나무가 넓어 작은 동굴처럼 보인다. 여기서 코로네로 마실 물이 흘러간다.

**[4.34.5]** 코로네의 옛 이름은 아이페이아였다. 테바이인들이 메세니아인들을 펠로폰네소스로 돌아오게 했을 때, 도시를 세우라고 파견된 에피멜리데스가 보이오티아의 고향 이름을

따서 코로네이아라고 불렀다고 한다. 메세니아인들은 처음부터 그 이름을 잘못 불렀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잘못 부른 이름이 점차 굳어졌다. 다른 이야기에서는 도시 성벽의 기초를 파다가 청동 까마귀를 발견했다고 한다. 까마귀는 그리스 말로 **코로네**다.

**[4.34.6]** 이곳에 신전을 가진 신들은 ‘아이들을 기르는 여신’이라 불리는 아르테미스와 디오니소스와 아스클레피오스다. 아스클레피오스와 디오니소스의 상은 돌로 만들었고, 아고라의 구원자 제우스상은 청동이다. 아크로폴리스의 아테나상도 청동이며, 손에 까마귀를 들고 노천에 서 있다. 나는 에피멜리데스의 무덤도 보았다. 그들이 왜 항구를 ‘아카이아인들의 항구’라 부르는지는 모른다.

**[4.34.7]** 코로네를 지나 약 팔십 스타디온을 가면 해안에 아폴론의 성소가 있다. 메세니아의 전승에 따르면 매우 오래된 곳이라 공경받으며, 신은 질병도 고쳐 준다. 사람들은 그를 아폴론 코리토스라고 부른다. 이 신상은 목조상이다. 아르고호의 선원들이 봉헌했다고 전해지는 아폴론 아르게오타스상은 청동으로 만들었다.

**[4.34.8]** 코로네시에는 콜로니데스가 접해 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메세니아인이 아니라 콜라이노스가 데려온 아티카 출신 이주민이라고 한다. 콜라이노스는 신탁에 따라 뿔종다리라 불리는 새를 따라가 그곳에 정착지를 세웠다. 그러나 그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도리아인들의 방언과 관습을 받아들였다. 콜로니데스는 바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높은 지대에 자리한다.

**[4.34.9]** 아시네 사람들은 본래 파르나소스에서 리코레이아 사람들에 접해 살았다. 건국자의 이름을 따라 드리오페스라 불렸고, 펠로폰네소스에 들어온 뒤에도 그 이름을 지켰다. 드리옵스에서 두 세대가 지난 필라스의 치세에 드리오페스는 헤라클레스와 싸워 패하고, 델포이의 아폴론에게 봉헌물로 바쳐졌다. 신이 헤라클레스에게 내린 지시에 따라 펠로폰네소스로 옮겨졌을 때, 그들은 처음에 헤르미온 곁의 아시네에 자리 잡았다. 거기서 아르고스인들에게 쫓겨나 메세니아에 살게 되었다. 라케다이몬인들이 그 땅을 준 것이다. 세월이 지나 메세니아인들이 돌아왔을 때에도 그들을 도시에서 내쫓지 않았다.

**[4.34.10]** 그러나 아시네 사람들은 자기들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헤라클레스에게 패하고 파르나소스의 도시가 함락되었다는 것은 인정하나, 포로가 되어 아폴론에게 끌려갔다는 말은 부인한다. 그들의 말로는 헤라클레스가 성벽을 점령하자 도시를 버리고 파르나소스 고지로 달아났다. 그 뒤 바다를 건너 펠로폰네소스에 와서 에우리스트헤우스에게 호소했다. 에우리스트헤우스는 헤라클레스와 원한이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아르골리스의 아시네를 주었다.

**[4.34.11]** 오늘날까지 드리오페스라는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는 이들은 그 혈족 가운데 아시네 사람들뿐이다. 에우보이아의 스티라 사람들은 사정이 아주 다르다. 그들도 본래 드리오페스였으나 도시에서 멀리 살았으므로 헤라클레스와의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스티라 사람들은 드리오페스라는 이름을 업신여긴다. 델포이 사람들이 포키스인이라 불리기를 거부한 것과 같다. 아시네 사람들은 드리오페스라 불리는 것을 몹시 기뻐한다. 그들의 가장 신성한 성소들도 옛날 파르나소스에 세웠던 성소를 기려 지은 것이 분명하다. 그들에게

는 아폴론의 신전과 드리옵스의 성소와 오래된 신상이 있다. 해마다 드리옵스의 비의를 거행하며, 그가 아폴론의 아들이라고 한다.

**[4.34.12]** 도시는 아르고스 영토의 옛 아시네와 마찬가지로 해안에 있다. 콜로니데스에서 아시네까지는 사십 스타디온이고, 아시네에서 아크리타스라 불리는 곶까지도 같은 거리다. 아크리타스는 바다로 뻗어 있으며 그 앞에는 테가누사라는 무인도가 있다. 아크리타스를 지나면 포이니코스 항구가 있고, 맞은편에는 오이누사이섬들이 있다. periegesis.abm.uu.se

## 제35장

**[4.35.1]** 트로이아로 갈 군대가 모이기 전과 전쟁 중에 모토네는 페다소스라 불렸다. 뒤에는 주민들 자신의 말로 오이네우스의 딸에게서 새 이름을 얻었다. 트로이아가 함락된 뒤 포르타온의 아들 오이네우스가 펠로폰네소스의 디오메데스에게 몸을 의탁했을 때, 첩에게서 모토네를 얻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모톤이라는 바위에서 지명이 나왔다. 이 바위가 그곳 항구를 이루기 때문이다. 물속으로 뻗어 배가 들어가는 어귀를 좁히고, 높은 파도가 밀려올 때는 방파제 구실도 한다.

**[4.35.2]** 다모크라티다스가 아르고스를 다스릴 때, 나우플리아인들이 라코니아에 동조한다는 이유로 쫓겨나자 라케다이몬인들이 그들에게 모토네를 주었다는 것은 앞에서 밝혔다. 메세니아인들은 돌아온 뒤에도 그들의 처지를 바꾸지 않았다. 내 생각에 나우플리아인들은 본래 이집트인들이었다. 다나오스와 배를 타고 아르골리스에 왔으며, 두 세대 뒤에 아미모네의 아들 나우플리오스가 그들을 나우플리아에 정착시켰다.

**[4.35.3]** 트라야누스 황제는 모토네 사람들에게 도시의 자유와 자치권을 주었다. 그보다 앞서 그들은 메세니아의 해안 주민 가운데 유일하게 다음과 같은 재난을 겪었다. 테스프로티아의 에페이로스는 무질서로 무너졌다. 피로스의 딸 데이다메이아가 자식 없이 죽음을 앞두고 통치권을 민중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아버지 피로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의 손자, 피로스의 증손이었다.

**[4.35.4]** 아이아키데스의 아들 피로스에 관한 일들은 아테네인들을 다룰 때 이야기했다. 카르타고인 프로클레스는 행운과 눈부신 업적에서는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를 더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보병과 기병을 운용하는 전술과 전쟁에서 계략을 생각해 내는 데에는 피로스가 더 뛰어났다고 했다.

**[4.35.5]** 에페이로스 사람들이 왕의 지배에서 벗어나자, 민중은 모든 통제를 떨쳐 내고 관리들의 말을 듣기를 거부했다. 에페이로스 위쪽 이오니아해 연안에 사는 일리리아인들이 쳐들어와 그들을 굴복시켰다. 아테네인들을 제외한 다른 민족에게 민주정이 번영을 가져다주었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다. 아테네인들은 민주정 덕분에 강대해졌다. 그들은 타고난 재치에서 그리스 세계를 앞섰고, 정해진 법을 가장 충실히 지켰기 때문이다.

**[4.35.6]** 일리리아인들은 지배의 맛을 보고 더 많은 것을 탐내어 배를 지었다. 마주치는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다가 모토네 해안에 이르러 우호적인 항구에 들어오듯 닻을 내렸다. 도시로 전령을 보내 포도주를 자기들의 배로 가져와 달라고 했다. 몇 사람이 술을 가지고 오자 주민들이 요구한 값으로 사들이고 자기네 화물도 일부 팔았다.

**[4.35.7]** 이튿날 도시에서 더 많은 사람이 오자 일리리아인들은 그들도 이득을 보게 해 주었다. 마침내 여자와 남자들이 포도주를 팔고 이민족과 물건을 거래하려고 배로 내려왔다. 그러자 일리리아인들은 대담하게 덮쳐 남자 여럿과 그보다 더 많은 여자들을 잡아갔다. 그들을 배에 싣고 이오니아해로 떠나, 모토네 사람들의 도시를 황폐하게 했다.

**[4.35.8]** 모토네에는 바람의 여신 아테나 아네모티스의 신전이 있다. 디오메데스가 신상을 봉헌하고 여신에게 이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때아닌 거센 바람에 그 땅이 피해를 입자 디오메데스가 여신에게 기도했고, 그 뒤로 그들의 땅에는 바람으로 인한 재난이 닥치지 않았다. 이곳에는 아르테미스의 성소도 있고, 역청이 섞인 물이 나는 우물도 있다. 그 물은 보기에 키지코스의 붓꽃 기름과 매우 비슷하다. 물은 온갖 빛깔과 냄새를 띨 수 있다.

**[4.35.9]** 내가 직접 본 물 가운데 가장 푸른 것은 테르모필라이의 물이다. 그곳의 물 전부가 아니라, 그 지방에서 '여자들의 솥'이라 부르는 목욕장으로 흘러드는 물이다. 히브리인들의 땅에서는 요페시 가까이에 피처럼 붉은 물이 있다. 물은 바다 가까이에 있다. 주민들의 말로는 케페우스의 딸이 제물로 버려졌을 때 페르세우스가 바다 괴물을 죽이고 이 샘에서 피를 씻었다고 한다.

**[4.35.10]** 나는 아스티라의 샘들에서 검은 물이 솟는 것도 직접 보았다. 레스보스섬 맞은편의 아스티라는 아타르네우스 지방에 있는 온천의 이름이다. 바로 이 아타르네우스를 키오스인들이 페르시아인들에게서 보상으로 받았다. 자기들에게 몸을 의탁한 리디아인 팍티아스를 넘겨준 대가였다. 이곳의 물은 검지만 로마인들에게는 흰 물이 있다. 도시보다 높은 곳, 아니오라 불리는 강 건너에 있다. 사람이 그 물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추워서 몸이 떨리다가, 조금 지나면 아주 뜨거운 약을 쓴 것처럼 몸이 따뜻해진다.

**[4.35.11]** 나는 이렇게 신기한 샘들을 모두 직접 보았다. 그다지 신기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가 아는 것들은 넘어가겠다. 짜고 마시기 힘든 물을 찾는 것은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밖에 두 종류의 물이 있다. 카리아에서 '흰 평야'라 불리는 곳, 다스킬루 코메라는 마을 곁의 물은 따뜻하며 마시면 우유보다 달다. 또 히파니스강으로 쓴물이 나는 샘이 흘러든다고 헤로도토스가 말한 것을 나는 안다. 우리 시대에 티레니아인들의 땅 디카이아르키아에서, 물이 지나가는 납을 몇 년 만에 녹일 만큼 신 온천이 발견되었으니, 헤로도토스의 말도 참이라고 받아들일 만하다. periegesis.abm.uu.se

## 제36장

**[4.36.1]** 모토네에서 필로스가 자리한 코리파시온 곶까지는 약 백 스타디온 거리다. 필로스는 클레손의 아들 필로스가 세웠다. 그는 당시 메가라 지방에 살던 렐레게스인들을 데려왔다. 그러나 넬레우스와 이올코스의 펠라스고이인들이 그를 쫓아냈으므로 그 도시를 누리지 못했다. 그는 인접한 땅으로 떠나 엘리스의 필로스를 차지했다. 왕이 된 넬레우스는 필로스의 이름을 크게 드높였다. 호메로스가 서사시에서 이곳을 넬레우스의 도시라 부를 정도였다.

**[4.36.2]** 도시에는 코리파시아라는 별칭을 지닌 아테나의 성소와 네스토르의 집이라 불리는 집이 있다. 집 안에는 네스토르를 그린 그림이 있다. 그의 무덤은 도시 안에 있다. 필로스

에서 조금 떨어진 무덤은 트라시메데스의 무덤이라고 한다. 도시 안에는 동굴도 있는데, 네스토르가 소 떼를 그곳에 두었고 그 전에는 넬레우스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

**[4.36.3]** 이 소들은 테살리아 혈통이었음이 틀림없다. 한때 프로테실라오스의 아버지 이피클로스의 소였기 때문이다. 넬레우스는 딸의 구혼자들에게 혼인 예물로 이 소들을 요구했다. 멜람푸스가 형제 비아스의 뜻을 이루어 주려고 테살리아에 간 것도 이 소들 때문이었다. 그는 이피클로스의 소치기들에게 붙잡혀 묶였으나, 뒤에 이피클로스의 요청으로 예언을 해 주고 보답으로 소들을 받았다. 네스토르가 이피클로스의 소를 차지하기를 바랐고, 에우리스트헤우스가 이름난 이베리아의 소들을 생각해 헤라클레스에게 게리오네스의 소 떼를 몰아 오라고 명했다면, 그 시대 사람들은 말과 소 무리 같은 재산을 모으는 데 힘쓴 듯하다.

**[4.36.4]** 그때 시켈리아를 다스리던 에릭스도 에리테이아에서 온 소들을 몹시 탐낸 것이 분명하다. 그는 헤라클레스와 씨름하면서 소 떼를 얻으려고 자신의 왕국을 내걸었다.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에서 말하듯, 안테노르의 아들 이피다마스가 신부의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바친 혼인 예물은 소 백 마리였다. 이 일도 그 시대 사람들이 소를 가장 좋아했다는 내 말을 뒷받침한다.

**[4.36.5]** 그러나 넬레우스의 소들은 대개 국경 너머에서 풀을 뜯었다고 생각한다. 필로스 사람들의 땅은 대체로 모래가 많아 그토록 많은 소를 먹일 수 없기 때문이다. 호메로스는 네스토르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가 '모래 많은 필로스'의 왕이었다고 덧붙여 이를 증언한다.

**[4.36.6]** 스팍테리아섬은 항구 앞에 놓여 있는데, 델로스의 정박지 앞에 레네이아섬이 있는 것과 같다.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곳들이 사람들에게 닥친 일 때문에 이름을 얻은 듯하다. 에우보이아의 카페레우스는 트로이아에서 배를 타고 돌아오던 아가멤논과 그리스인들에게 폭풍이 닥친 뒤로 유명해졌다. 살라미스 곁의 프시탈레이아는 그곳에서 페르시아인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라케다이몬인들의 패배가 스팍테리아를 온 세상에 알렸다. 아테네인들은 스팍테리아에서 벌어진 일을 기념하여 아크로폴리스에 승리의 여신 청동상도 봉헌했다.

**[4.36.7]** 필로스에서 키파리시아이에 이르면 도시 아래 바다 가까이에 샘이 있다. 디오니소스가 티르소스 지팡이로 땅을 치자 그를 위해 물이 솟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 샘을 디오니시아스라고 부른다. 키파리시아이에는 아폴론의 성소와 키파리시아라는 별칭의 아테나 성소가 있다. 아울론이라 불리는 낮은 곳에는 아스클레피오스 아울로니오스의 신전과 신상이 있다. 이곳을 흐르는 네다강이 메세니아와 엘리스의 경계를 이룬다. periegesis.abm.uu.se

# 제5권 엘리스 I

## 제1장

**[5.1.1]** 펠로폰네소스가 꼭 다섯 지역으로 나뉜다고 말하는 그리스인들이라면, 아르카디아에는 아르카디아인과 엘리스인이 함께 살고, 두 번째 지역은 아카이아인에게, 나머지 세 지역은 도리아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펠로폰네소스에 사는 민족 가운데 아르카디아인과 아카이아인은 토박이다. 아카이아인들은 도리아인들에게 자기 땅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펠로폰네소스를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이오니아인들을 몰아내고, 옛날에는 아이기알로스라 불렸으나 지금은 이 아카이아인들의 이름을 따 아카이아라 부르는 땅을 차지했다. 아르카디아인들은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줄곧 자기 땅을 지켜 왔다.

**[5.1.2]** 펠로폰네소스의 나머지 지역은 이주해 온 사람들의 땅이다. 지금의 코린토스인들은 펠로폰네소스에 가장 늦게 들어온 주민이다. 로마 황제에게서 그 땅을 받은 때로부터 내가 사는 시대까지 이백십칠 년이 지났다. 드리오페스인들은 파르나소스에서, 도리아인들은 오이테에서 펠로폰네소스로 왔다.

**[5.1.3]** 엘리스인들은 칼리돈과 그 밖의 아이톨리아 지방에서 건너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더 오래된 역사는 내가 알아본 바로는 이러하다. 이 땅을 처음 다스린 이는 아이틀리오스였다고 한다. 그는 제우스와 데우칼리온의 딸 프로토게네이아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엔디미온의 아버지였다.

**[5.1.4]** 달의 여신이 이 엔디미온을 사랑하여 그에게 딸 쉰 명을 낳아 주었다고 한다. 한층 더 그럴듯한 이야기에 따르면 엔디미온은 아스테로디아를 아내로 맞았다. 혹자는 암픽티온의 아들 이토노스의 딸 크로미아를, 또 혹자는 아르카스의 딸 히페리페를 아내로 맞았다고 한다. 그러나 엔디미온에게 파이온, 에페이오스, 아이톨로스라는 아들과 에우리키다라는 딸이 있었다는 데에는 모두 의견이 같다. 엔디미온은 왕위를 걸고 아들들에게 올림피아에서 달리기 경주를 시켰다. 에페이오스가 이겨 왕위를 얻었으며, 그때 처음으로 그의 백성을 에페이오이 사람이라 불렀다.

**[5.1.5]** 형제 가운데 아이톨로스는 고향에 남았지만 파이온은 패배가 분하여 될 수 있는 한 멀리 떠났다고 한다. 악시오스강 너머의 지역이 그의 이름을 따 파이오니아라 불렸다는 것이다. 엔디미온의 죽음에 대해서는 밀레토스 가까이 있는 헤라클레이아 사람들이 엘리스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엘리스인들은 엔디미온의 무덤을 보여 주지만, 헤라클레이아 사람들은 그가 라트모스산으로 물러났다고 한다. 그들은 엔디미온을 공경하며, 라트모스산에 그의 사당이 있다.

**[5.1.6]** 에페이오스는 코로노스의 딸 아낙시로에와 혼인하여 히르미나라는 딸을 얻었으나 아들은 없었다. 그의 치세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오이노마오스는 알크시온의 아들이었다. 시인들은 그의 아버지가 아레스라고 노래했고 세간의 말도 그와 같다. 오이노마오스가 피사 지방을 다스리고 있을 때, 아시아에서 건너온 리디아인 펠롭스가 그의 지배를 무너뜨렸다.

**[5.1.7]** 오이노마오스가 죽자 펠롭스는 피사 땅과 그에 접한 올림피아를 에페이오스의 영토에서 떼어 차지했다. 엘리스인들은 펠로폰네소스에서 처음으로 헤르메스의 신전을 세우고 그 신에게 제사를 올린 이가 펠롭스였다고 말한다. 미르틸로스의 죽음으로 인한 신의 노여움을 돌리려 한 것이었다.

**[5.1.8]** 에페이오스에 이어 왕위에 오른 아이톨로스는 아피스의 자식들에게 고발당해 과실로 사람을 죽인 죄가 인정되어, 펠로폰네소스에서 달아나야 했다. 아르카디아의 팔란티온 사람이며 이아손의 아들인 아피스가 아잔을 기리는 경기에서 아이톨로스의 전차에 치여 죽었기 때문이다. 엔디미온의 아들 아이톨로스는 그쪽 본토로 달아난 뒤 아켈로오스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주었다. 에페이오이 사람들의 왕권은 엔디미온의 딸 에우리키다의 아들 엘레이오스에게 돌아갔다. 그 이야기를 믿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의 아버지가 포세이돈이었다고 믿어도 좋다. 에페이오이 사람들을 지금처럼 엘리스인이라 부르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레이오스였다.

**[5.1.9]** 엘레이오스에게는 아우게아스라는 아들이 있었다. 아우게아스의 영광을 부풀리는 사람들은 엘레이오스라는 이름을 슬쩍 바꾸어 태양신 헬리오스를 그의 아버지로 삼는다. 아우게아스에게는 소와 염소가 어찌나 많았는지, 짐승의 똥이 쌓여 그의 땅 대부분을 실제로 경작하지 못했다. 그는 엘리스의 일부를 주거나 아마 다른 보상을 주기로 하고, 헤라클레스에게 땅에서 똥을 치워 달라고 설득했다.

**[5.1.10]** 헤라클레스는 메니오스강의 물줄기를 돌려 똥이 쌓인 곳으로 흘려보내 이 일도 해냈다. 그러나 아우게아스는 헤라클레스가 힘을 들이지 않고 꾀를 써서 일을 마쳤다는 이유로 보상을 주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 형인 필레우스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부당한 짓을 한다고 항의하자 그를 추방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가 엘리스를 공격할 경우에 대비했다. 특히 악토르의 아들들과 아마린케우스를 자기편으로 삼았다. 아마린케우스는 뛰어난 전사였다.

**[5.1.11]** 그의 아버지 피티오스는 테살리아 혈통으로 테살리아에서 엘리스로 왔다. 아우게아스는 아마린케우스에게도 엘리스를 다스리는 권한의 일부를 주었다. 악토르와 그 아들들도 왕권을 나누어 가졌으며, 그들은 이 지방 토박이였다. 악토르의 아버지는 라피토스의 아들 포르바스였고, 어머니는 에페이오스의 딸 히르미나였다. 악토르는 엘리스에 세운 도시에 어머니의 이름을 따 히르미나라는 이름을 붙였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장

**[5.2.1]** 헤라클레스는 아우게아스와의 전쟁에서 뚜렷한 공을 세우지 못했다. 악토르의 아들들은 나이도 용기도 한창때여서, 헤라클레스가 이끄는 동맹군을 번번이 패주시켰다. 그러다가 코린토스인들이 이스트모스 경기의 휴전을 선포하고 악토르의 아들들이 공식 사절로 경기에 가게 되었다. 헤라클레스는 클레오나이에서 매복했다가 그들을 죽였다. 누가 그들을 죽였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몰리네는 자기 아들들을 직접 죽인 자를 찾아내는 데 누구보다 힘을 쏟았다.

**[5.2.2]** 몰리네가 범인을 알아내자 엘리스인들은 아르고스인들에게 살인의 책임을 물었다. 당시 헤라클레스가 티린스에 살았기 때문이다. 아르고스인들이 책임지기를 거부하자 엘리스인들은 이번에는 코린토스인들에게 아르고스 사람들을 모두 이스트모스 경기에서 내쫓아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마저 뜻대로 되지 않자 몰리네는, 자기 나라 사람들이 자진해서 이스트모스 축제에 가지 않기로 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다고 한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몰리네의 저주를 존중하며, 엘리스의 운동선수는 이스트모스 경기에 나가지 않는 것이 관례다.

**[5.2.3]** 내가 이야기한 것과 다른 전승이 두 가지 더 있다. 그중 하나에 따르면 코린토스의 참주 킵셀로스가 올림피아의 제우스에게 황금상을 봉헌했다. 킵셀로스가 봉헌물에 자기 이름을 새기기 전에 죽자 코린토스인들은 그 위에 코린토스의 이름을 새기게 해 달라고 엘리스인들에게 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화가 나서 엘리스인들에게 이스트모스 경기에 오지 말라고 선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린토스인들이 엘리스인들을 본인의 뜻에 반하여 이스트모스 경기에서 배제했다면, 어떻게 그들 자신은 올림피아 경기에 참가할 수 있었겠는가?

**[5.2.4]** 다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엘리스에서 이름난 프로라오스에게는 아내 리시페에게서 태어난 필란토스와 람포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두 사람은 이스트모스 경기에 와서 한 사람은 소년 판크라티온에, 다른 한 사람은 씨름에 나가려 했다. 그러나 경기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경쟁자들이 그들의 목을 졸랐거나 다른 방법으로 죽였다. 그래서 리시페는 엘리스인들이 자진해서 이스트모스 경기에 가지 않기로 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도 따져 보면 어리석다.

**[5.2.5]** 엘리스 사람 티몬은 그리스의 여러 경기에서 오종 경기에 우승했다. 올림피아에는 그의 상까지 있으며, 거기에 새긴 엘레게이아 시에는 그가 받은 우승관들과 이스트모스 경기에서 우승한 일이 없는 까닭이 적혀 있다. 그 까닭을 밝힌 구절은 이러하다.

> 시시포스의 땅으로 가는 그의 길을 막은 것은
> 몰리오네의 아들들이 맞은 참혹한 죽음을 둘러싼 다툼이었다. periegesis.abm.uu.se

## 제3장

**[5.3.1]** 이 문제는 이만큼 살펴보았으면 충분하다. 뒤에 헤라클레스는 아르고스와 테바이와 아르카디아에서 병력을 모아 엘리스를 점령하고 약탈했다. 피사 사람들과 엘리스 지방의 필로스 사람들이 엘리스인들을 도왔다. 헤라클레스는 필로스 사람들을 응징했으나, 다음과 같은 델포이 신탁 때문에 피사를 치러 가지는 못했다.

> 내 아버지는 피사를 돌보시고, 나는 피토의 골짜기를 돌본다.

이 신탁이 피사 사람들을 구했다. 헤라클레스는 필레우스에게 엘리스 땅과 나머지 모든 것을 넘겼다. 자기 마음에 내켜서라기보다 필레우스를 존중해서였다. 포로들도 필레우스가 데리고 있게 했고, 아우게아스가 벌을 받지 않도록 내버려 두었다.

**[5.3.2]** 엘리스의 여자들은 그 땅에 한창때의 남자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 남편과 처음 몸을 합할 때 곧바로 아이를 배게 해 달라고 아테나에게 기도했다고 한다. 기도가 이루어지자

그들은 ‘어머니’라는 별칭을 지닌 아테나의 성소를 세웠다. 아내와 남편들이 그 결합을 몹시 기뻐하여, 처음 함께한 곳을 ‘달콤한 곳’이라는 뜻으로 바디라 하고 그곳을 흐르는 강을 ‘바디의 물’이라 했다. 바디는 그 지방 말이다.

**[5.3.3]** 필레우스는 엘리스의 정사를 정돈하고 둘리키온으로 돌아갔다. 아우게아스는 나이 들어 죽었고, 엘리스의 왕권은 아우게아스의 아들 아가스테네스와 암피마코스와 탈피오스에게 돌아갔다. 악토르의 두 아들은 올레노스의 왕 덱사메노스의 쌍둥이 딸들과 혼인했다. 한 아들과 테로니케 사이에서 암피마코스가 태어났고, 에우리토스와 테로니케의 자매 테라이포네 사이에서 탈피오스가 태어났다.

**[5.3.4]** 아마린케우스 자신도 아들 디오레스도 평민으로 남지는 않았다. 호메로스가 엘리스 사람들을 열거한 대목에서도 이 사실이 드러난다. 그는 엘리스의 함대를 모두 마흔 척으로 잡고, 그 절반을 암피마코스와 탈피오스가 지휘했다고 했다. 나머지 스무 척 가운데 열 척은 아마린케우스의 아들 디오레스에게, 열 척은 아가스테네스의 아들 폴릭세노스에게 맡겼다. 폴릭세노스는 트로이아에서 무사히 돌아와 암피마코스라는 아들을 얻었다. 내 생각에 아들에게 이 이름을 붙인 것은 트로이아에서 죽은 크테아토스의 아들 암피마코스와 친했기 때문이다.

**[5.3.5]** 암피마코스는 엘레이오스를 낳았다. 엘레이오스가 엘리스를 다스릴 때 아리스토마코스의 아들들이 이끄는 도리아 군대가 펠로폰네소스로 돌아가기 위해 모였다. 그들의 왕들은 귀환을 이끌 사람으로 ‘눈이 세 개인 자’를 고르라는 신탁을 받았다. 그들이 신탁의 뜻을 몰라 곤란해할 때, 한쪽 눈이 먼 노새를 몰고 가는 사람과 마주쳤다.

**[5.3.6]** 크레스폰테스는 이 사람이 신탁에서 지목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도리아인들은 그를 자기편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육군을 이끌고 지협을 건너려 하지 말고 배로 펠로폰네소스에 들어가라고 권했다. 그러고는 나우팍토스에서 몰리크리온으로 건너가는 뱃길을 직접 안내했다. 도리아인들은 그 대가로 그의 요청에 따라 엘리스 땅을 주기로 했다. 그는 하이몬의 아들이자 토아스의 손자인 옥실로스였다. 이 토아스는 아트레우스의 아들들이 프리아모스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보탠 사람이다. 토아스에서 엔디미온의 아들 아이톨로스까지는 여섯 세대다.

**[5.3.7]** 헤라클레스의 후손들과 아이톨리아의 왕들은 친족 관계였다. 특히 안드라이몬의 아들 토아스의 어머니와 헤라클레스의 아들 힐로스의 어머니는 자매였다. 옥실로스는 아이톨리아에서 쫓겨난 처지였다. 전하는 말로는 원반을 던지다가 표적을 놓쳐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 원반에 맞아 죽은 사람이 옥실로스의 형제 테르미오스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스코피오스의 아들 알키도코스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4장

**[5.4.1]** 옥실로스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는 아리스토마코스의 아들들이 엘리스가 좋은 땅이고 온통 경작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땅을 주고 싶지 않아 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도리아인들을 엘리스가 아닌 아르카디아를 거쳐 이끌었다. 옥실로스는 전투 없이 엘리스의 왕권을 얻고 싶었으나 디오스가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디오스는

병력을 모두 동원해 싸우는 대신, 양쪽 군대에서 한 사람씩 뽑아 각 편을 대표하여 싸우게 하자고 제안했다.

**[5.4.2]** 제안은 마침 양쪽 마음에 들었다. 엘리스인들은 궁수 데그메노스를, 아이톨리아인들은 투석병 피라이크메스를 대표로 뽑았다. 피라이크메스가 이겼고 옥실로스는 왕권을 얻었다. 옛 주민인 에페이오이 사람들에게는 재산을 그대로 가지게 했다. 다만 아이톨리아 이주민을 그들 사이에 살게 하고 땅을 나누어 주었다. 디오스에게는 특권을 주었으며, 옛 방식대로 영웅들에게 올리는 예를 이어 갔다. 특히 아우게아스를 받드는 일을 계속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에게 영웅에게 바치는 제사를 올린다.

**[5.4.3]** 옥실로스는 성벽 가까운 마을에 살던 사람들을 설득해 도시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고 한다. 주민의 수가 늘어나 엘리스는 더 커졌고 전반적으로 더 번영했다. 델포이에서는 그에게 '펠롭스의 후손'을 데려다 공동 건국자로 삼으라는 신탁도 내렸다. 옥실로스는 열심히 찾은 끝에 아고리오스를 알아냈다. 그는 다마시오스의 아들이었고, 다마시오스는 펜틸로스의 아들, 펜틸로스는 오레스테스의 아들이었다. 옥실로스는 아카이아의 헬리케에서 아고리오스를 데려왔고, 소수의 아카이아인들도 그와 함께 왔다.

**[5.4.4]** 옥실로스의 아내는 피에리아라고 불렸다고 하나, 이름 외에 그에 관해 전하는 것은 없다. 옥실로스에게는 아이톨로스와 라이아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한다. 아이톨로스는 부모보다 먼저 죽었다. 부모는 올림피아와 제우스의 성소로 나가는 성문 바로 그 자리에 무덤을 만들어 그를 묻었다. 시신을 도시 밖에도 안에도 두지 말라는 신탁이 있어 그렇게 묻은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체육장 감독관은 해마다 아이톨로스에게 영웅으로서 제물을 바친다.

**[5.4.5]** 옥실로스에 이어 아들 라이아스가 왕권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내가 알아본 바로는 그의 후손들은 왕이 되지 못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만, 내 이야기가 평민들에게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으므로 넘어가겠다. 뒤에 옥실로스의 후손인 이피토스가 올림피아 경기를 마련하여, 얼마 동안 중단되었던 올림피아 축제와 휴전을 되살렸다. 그는 라케다이몬인들에게 법을 정해 준 리쿠르고스와 같은 시대 사람이었다. 경기가 얼마나 오래 중단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중단된 까닭은 올림피아를 이야기할 때 밝히겠다.

**[5.4.6]** 이 무렵 그리스는 내분과 역병으로 몹시 지쳐 있었다. 이피토스는 이 재앙들에서 벗어날 길을 델포이의 신에게 묻겠다는 생각을 했다. 피티아 여사제는 이피토스 자신과 엘리스인들이 올림피아 경기를 되살려야 한다고 명했다고 한다. 이피토스는 그때까지 헤라클레스를 적으로 여겼던 엘리스인들을 설득하여, 그에게 신으로서 제사를 지내게도 했다. 올림피아의 명문은 이피토스를 하이몬의 아들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그리스인들은 하이몬이 아니라 프락소니데스가 아버지였다고 하며, 엘리스의 옛 기록은 아버지의 이름도 이피토스였다고 한다.

**[5.4.7]** 엘리스인들은 트로이아 전쟁에 참전했으며,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했을 때에도 전투에 참가했다. 올림피아 경기의 주관권을 두고 피사인들과 아르카디아인들을 상대로 싸운 일은 넘어가겠다. 그들은 원치 않으면서도 라케다이몬인들의 아테네 영토 침공에 가담

했다. 얼마 뒤에는 만티네이아인들과 아르고스인들과 함께 라케다이몬인들에게 맞서 일어났으며, 아테네도 설득하여 동맹에 들게 했다.

**[5.4.8]** 아기스가 그들의 땅에 쳐들어오고 크세니아스가 배신했을 때, 엘리스인들은 올림피아 부근에서 전투에 이겼다. 라케다이몬인들을 패주시켜 성역 밖으로 몰아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라케다이몬인들을 다룰 때 이미 이야기한 협정으로 전쟁이 끝났다.

**[5.4.9]** 아민타스의 아들 필리포스가 그리스를 가만두지 않았을 때, 내분으로 약해진 엘리스인들은 마케도니아의 동맹에 가담했다. 그래도 카이로네이아에서 그리스인들을 상대로 싸우는 일만은 차마 하지 못했다. 그들은 라케다이몬인들에게 품은 오랜 증오 때문에 필리포스가 그들을 공격할 때에는 함께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뒤에는 그리스인들 편에 서서 안티파트로스와 마케도니아인들을 상대로 싸웠다. periegesis.abm.uu.se

## 제5장

**[5.5.1]** 뒤에 에티몬의 손자이자 다마레토스의 아들인 아리스토티모스가 엘리스의 참주가 되었다. 마케도니아를 다스리던 데메트리오스의 아들 안티고노스가 그가 권력을 잡는 데 힘을 보탰다. 아리스토티모스가 참주로 다스린 지 여섯 달 만에 킬론, 헬라니코스, 람피스, 킬론이 봉기하여 그를 몰아냈다. 구원자 제우스의 제단으로 달아나 보호를 청한 참주를 직접 죽인 이는 그중 킬론이었다. 엘리스인들이 겪은 전쟁과 분쟁은 이러하니, 여기서는 이 정도로 간추려 말하겠다. Sentences 5.5

**[5.5.2]** 엘리스 땅에는 놀라운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로 그리스에서 고운 아마가 자라는 곳은 오직 여기뿐이다. 둘째로 암말이 수나귀의 새끼를 배려면 경계 밖으로 나가야 한다. 경계 안에서는 그럴 수 없다. 저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엘리스의 아마는 히브리인들의 것만큼 고우나 그만큼 노랗지는 않다.

**[5.5.3]** 엘리스에서 길을 가다 보면 바다로 뻗은 지역이 있다. 사미콘이라고 부른다. 그 위쪽 오른편이 이른바 트리필리아로, 그곳에 레프레우스라는 도시가 있다. 이 도시의 시민들은 아르카디아인들에게 속하고 싶어 하나, 처음부터 엘리스인들의 지배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올림피아에서 우승한 사람이 있으면 전령은 레프레우스 출신 엘리스인이라고 발표했다. 아리스토파네스도 희극에서 레프레우스를 엘리스인들의 도시라 부른다. 아니그로스강을 왼쪽에 두고 가면 레프레우스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 사미콘을 거쳐 올림피아에서 오는 길도 있고, 엘리스에서 오는 세 번째 길도 있다. 그중 가장 긴 길이 하루 거리다.

**[5.5.4]** 도시 이름은 건국자인 피르게우스의 아들 레프레우스에게서 나왔다고 한다. 레프레우스가 헤라클레스와 누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지 겨루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두 사람은 동시에 황소를 한 마리씩 잡아 먹을 수 있게 차려 놓았다. 레프레우스가 장담한 대로 그는 헤라클레스 못지않게 많이 먹었다. 뒤에는 감히 일대일 싸움을 청했다. 레프레우스는 패하여 죽고 피갈리아 땅에 묻혔다고 한다. 그러나 피갈리아 사람들은 레프레우스의 무덤을 보여 주지 못했다.

**[5.5.5]** 피르게우스의 딸 레프레아가 레프레우스를 세웠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이야기도 들었다. 처음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레프라라는 피부병에 걸려 고생했고, 그 불행에서 도시

이름이 나왔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레프레우스 사람들은 자기 도시에 한때 흰포플러의 제우스 레우카이오스의 신전과 알레우스의 아들 리쿠르고스의 무덤과 카우콘의 무덤이 있었다고 했다. 카우콘의 무덤 위에는 리라를 든 남자의 형상이 있었다고 한다.

**[5.5.6]**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들에게는 눈에 띄는 무덤이 없었고, 데메테르의 성소 외에는 어느 신의 성소도 없었다. 그 성소조차 굽지 않은 벽돌로 지었고 신상은 없었다. 레프레우스 사람들의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레네라는 샘이 있다. 아파레우스의 아내에게서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5.5.7]** 다시 사미콘으로 돌아와 그 지방을 지나면 아니그로스강 하구에 닿는다. 이 강은 거센 바람으로 물살이 자주 막힌다. 바람이 바다 쪽에서 모래를 강으로 밀어 와 물이 앞으로 흐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깥쪽에서는 바닷물이, 안쪽에서는 강물이 모래를 적시면 짐승도, 그보다 더 쉽게는 걸어가는 여행자도 모래에 빠질 위험이 있다.

**[5.5.8]** 아니그로스강은 아르카디아의 라피토스산에서 내려온다. 발원지부터 물에서 좋은 냄새가 나기는커녕 지독한 악취가 난다. 아키다스강을 지류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물고기가 전혀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두 강이 합쳐진 뒤 물을 따라 아니그로스로 내려온 물고기는 먹을 수 없다. 그 전에 아키다스에서 잡은 물고기는 먹을 수 있다.

**[5.5.9]** 아키다스강이 옛날에는 이아르다노스라고 불렸다는 말을 에페소스 사람에게서 들었다. 어디에서도 그 말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으나 들은 대로 전한다. 나는 아니그로스의 특이한 냄새가 물이 솟는 땅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이오니아 너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체를 내뿜는 강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같은 까닭에서 그런 성질을 지닌다.

**[5.5.10]** 그리스인들 가운데는 케이론이, 또 다른 이들은 켄타우로스 필레노르가 헤라클레스의 화살을 맞고 이 강으로 달아나 상처를 씻었다고 한다. 히드라의 독 때문에 아니그로스강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들은 아미타온의 아들 멜람푸스가 프로이토스의 딸들을 정결하게 하는 데 쓴 물건을 이 강에 던져서 물이 그런 성질을 띠게 되었다고 한다.

**[5.5.11]** 사미콘에는 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니그로스 님프들의 동굴이라 불리는 동굴이 있다. 알포스나 레우케라는 피부병을 앓는 이가 그곳에 들어가면, 먼저 님프들에게 기도하고 어떤 제물이든 바치겠다고 약속한 다음 병든 몸의 부위를 닦는다. 그러고는 강을 헤엄쳐 건넌다. 이전의 부정을 물에 남겨 두고, 건강을 되찾아 피부가 한 빛깔이 된 채 물에서 나온다. Pausanias ′ Description of Greece

## 제6장

**[5.6.1]** 아니그로스강을 건너 곧장 올림피아로 가는 길을 따라가면, 길 오른편에서 멀지 않은 곳에 높은 지대가 있고 거기에 사미아라는 도시가 있다. 아이톨리아인 폴리스페르콘이 아르카디아인들을 상대할 때 이곳을 요새로 썼다고 한다.

**[5.6.2]** 메세니아인들 가운데서도 엘리스인들 가운데서도 아레네의 폐허를 확실히 가리켜 줄 사람은 없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게 가장 그

럴듯한 설명은 영웅 시대와 그 이전에는 사미콘을 아레네라 불렀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들은 『일리아스』의 구절도 인용한다.

> 아레네 가까이, 바다로 흘러드는 미니에이오스강이 있다.

**[5.6.3]** 이 폐허는 아니그로스강에 아주 가깝다. 사미콘이 아레네라 불렸는지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옛날에 아니그로스강이 미니에이오스라 불렸다는 데에는 아르카디아인들의 의견이 같다. 바다 가까이에서 네다강이 엘리스와 메세니아의 경계가 된 것은 헤라클레스의 후손들이 펠로폰네소스로 돌아온 때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5.6.4]** 아니그로스강을 지난 뒤 대체로 모래가 많고 야생 소나무가 자라는 지역을 한참 가면, 왼편 뒤쪽으로 스킬루스의 폐허가 보인다. 스킬루스는 트리필리아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피사와 엘리스의 전쟁에서 스킬루스 시민들은 공공연히 피사를 도와 엘리스에 맞섰다. 그 때문에 엘리스인들은 그 도시를 완전히 파괴했다.

**[5.6.5]** 라케다이몬인들은 뒤에 스킬루스를 엘리스에서 떼어 내, 아테네에서 추방당한 그릴로스의 아들 크세노폰에게 주었다. 그가 추방된 까닭은 아테네 민중의 가장 큰 적인 키로스가 그들의 친구인 페르시아 왕을 치려고 일으킨 원정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키로스는 사르데이스에 자리 잡고 아리스토크리토스의 아들 리산드로스와 라케다이몬인들에게 함대의 비용을 대 주고 있었다. 이렇게 추방된 크세노폰은 스킬루스에 정착했다. 그는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를 기려 신전과 성소를 세우고 둘레 땅을 성역으로 삼았다.

**[5.6.6]** 스킬루스에서는 멧돼지와 사슴을 사냥할 수도 있다. 셀리누스라는 강이 그 땅을 가로지른다. 엘리스의 안내자들은 엘리스인들이 스킬루스를 되찾았으며, 크세노폰이 라케다이몬인들에게서 그 땅을 받은 일로 올림피아의 평의회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엘리스인들의 용서를 얻어 스킬루스에서 안전하게 살았다. 성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무덤 하나를 보여 주었다. 무덤 위에는 펜텔리콘 채석장의 대리석으로 만든 상이 있다.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크세노폰의 무덤이라고 한다.

**[5.6.7]** 스킬루스에서 올림피아로 가는 길에 알페이오스강을 건너기 전, 높고 가파른 절벽이 있는 산이 있다. 티파이온산이라 부른다. 엘리스의 법에 따르면 여자가 올림피아 경기를 보다가 붙잡히거나, 여자에게 금지된 날에 알페이오스강 건너편에 있기만 해도 이 절벽에서 내던진다. 그러나 칼리파테이라 한 사람을 제외하면 붙잡힌 여자는 없었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칼리파테이라가 아니라 페레니케라고 불렸다고 한다.

**[5.6.8]** 과부였던 그녀는 체육 교사와 꼭 같은 모습으로 변장하고 아들을 올림피아 경기에 데려왔다. 페이시로도스라고 불리는 아들이 우승하자, 칼리파테이라는 교사들이 머무는 울타리를 뛰어넘다가 몸이 드러났다. 이로써 그녀가 여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들이 모두 올림피아에서 우승한 이들이었으므로, 그들을 존중하여 그녀에게 벌을 주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교사들은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옷을 벗어야 한다는 법이 생겼다. periegesis.abm.uu.se

## 제7장

**[5.7.1]** 올림피아에 이르면 알페이오스강은 크고 보기에도 매우 아름다운 강이 되어 있다. 여러 지류가 흘러드는데 그중 일곱이 특히 중요하다. 헬리손강은 메갈로폴리스를 지나 알페이오스강에 합류한다. 브렌테아테스강은 그 도시의 영토에서 흘러나온다. 고르티니오스강은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소가 있는 고르티나를 지나 흐른다. 부파고스강은 메갈로폴리스와 헤라이아의 영토 사이에 있는 멜라이나이에서, 라돈강은 클레이토르 사람들의 땅에서 흘러온다. 에리만토스산에서는 산과 이름이 같은 물줄기가 내려온다. 이 강들은 아르카디아에서 내려와 알페이오스강으로 들어가며, 클라데오스강은 엘리스에서 흘러와 합류한다. 알페이오스강 자체의 발원지도 엘리스가 아닌 아르카디아에 있다.

**[5.7.2]** 알페이오스강에는 또 다른 전설이 있다. 알페이오스라는 사냥꾼이 있었는데, 역시 사냥꾼이었던 아레투사를 사랑했다고 한다. 아레투사는 혼인하고 싶지 않아 시라쿠사이 맞은편의 오르티기아라는 섬으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여자의 몸이 샘으로 변했다. 알페이오스도 사랑 때문에 강으로 변했다.

**[5.7.3]** 알페이오스에 관한 이 이야기는 〔…〕 오르티기아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알페이오스강이 바다를 지나 이곳 샘과 물을 섞는다는 이야기는 믿지 않을 수 없다. 델포이의 신이 그것을 확인해 주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코린토스인 아르키아스를 보내 시라쿠사이를 세우게 할 때 다음과 같은 신탁을 내렸다.

> 안개 낀 바다에 오르티기아섬이 있느니라.
> 트리나크리아 맞은편, 알페이오스의 어귀가 솟구쳐
> 너른 아레투사의 샘물과 뒤섞이는 곳이니라.

그래서 나는 알페이오스의 물이 아레투사의 물과 섞이는 일 때문에 그 강의 사랑 이야기가 생겼다고 확신한다.

**[5.7.4]** 시에네 너머 아이티오피아로 올라가 그곳 도시 메로에까지 가 본 그리스인과 이집트인들은 모두 나일강이 어느 호수에 들어가 마른 땅을 지나듯 그 호수를 통과한다고 말한다. 그 뒤 낮은 쪽 아이티오피아를 지나 이집트로 들어가고, 파로스에서 바다에 이른다고 한다. 히브리인들의 땅에서 요르다네스강은 티베리아스라 불리는 호수를 지나, 사해라 불리는 또 다른 호수에 들어가 그 안에서 사라진다. 이 일은 나 자신도 증언할 수 있다.

**[5.7.5]** 사해는 다른 모든 물과 반대되는 성질을 지녔다. 살아 있는 것은 헤엄치지 않아도 저절로 뜨고, 죽어 가는 것은 바닥에 가라앉는다. 이 때문에 호수에는 물고기가 없다. 물고기는 눈앞에 닥칠 위험을 알아차리고 본래 살던 물로 도로 달아난다. 알페이오스강과 같은 특이한 성질을 지닌 강이 이오니아에도 있다. 발원지는 미칼레산에 있으며, 그 사이의 바다를 지난 뒤 브란키다이 맞은편 파노르모스라 불리는 항구에서 다시 솟아난다.

**[5.7.6]** 이 일들은 내가 이야기한 바와 같다. 올림피아 경기에 관해서는 엘리스의 옛일에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하늘의 첫 왕은 크로노스였으며, 황금 종족이라 불리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올림피아에 신전을 지었다. 제우스가 태어나자 레아는 아들을 돌보는 일을 이다의 닥틸로이에게 맡겼다. 이들은 쿠레테스라고 불리는 이들

과 같다. 크레타의 이다산에서 온 헤라클레스, 파이오나이오스, 에피메데스, 이아시오스, 이다스가 그들이다.

**[5.7.7]** 맏이인 헤라클레스는 놀이로 형제들에게 달리기를 겨루게 하고, 이긴 사람의 머리에 야생 올리브 가지로 관을 씌워 주었다. 그 나무가 워낙 많아 그들은 아직 푸른 잎을 무더기로 쌓아 놓고 그 위에서 잤다. 헤라클레스는 북풍이 사는 곳 너머의 사람들인 히페르보레오이의 땅에서 이 나무를 그리스로 들여왔다고 한다.

**[5.7.8]** 리키아인 올렌은 아카이아에게 바치는 찬가에서, 아카이아가 이 히페르보레오이의 땅에서 델로스로 왔다고 처음 말했다. 뒤에 키메의 멜라노포스는 오피스와 헤카에르게를 찬미하는 노래를 지었다. 이 두 사람도 아카이아보다 먼저 히페르보레오이의 땅에서 델로스로 왔다고 노래했다.

**[5.7.9]** 프로콘네소스의 아리스테아스도 히페르보레오이를 언급했다. 그는 아마 이세도네스인들에게서 그들에 관해 더 많이 알아냈을 것이다. 자기 시에서 이세도네스인들에게 갔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 그때 처음으로 경기를 마련하고 올림피아 경기라 이름 붙였다는 명성은 이다의 헤라클레스에게 돌아간다. 그 자신과 형제들을 합한 수가 다섯이었으므로, 처음 해를 포함하여 다섯째 해마다 경기가 열리도록 정했다.

**[5.7.10]** 어떤 이들은 제우스가 왕위를 두고 이곳에서 크로노스 자신과 씨름했다고 한다. 다른 이들은 크로노스에게 거둔 승리를 기려 제우스가 경기를 열었다고 한다. 우승자들의 기록에는 아폴론도 있다. 그는 달리기에서 헤르메스를 이겼고 권투에서는 아레스를 이겼다. 오종 경기 참가자들이 도약할 때 피티아의 피리곡을 연주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한다. 그 피리곡은 아폴론에게 바쳐진 것이고 아폴론이 올림피아에서 우승했기 때문이다.

periegesis.abm.uu.se

## 제8장

**[5.8.1]** 뒤에 카르디스의 아들 클리메노스가 크레타에서 왔다고 한다. 데우칼리온 시대에 홍수가 그리스인들에게 닥친 지 약 오십 년이 지났을 때였다. 그는 이다의 헤라클레스의 후손이었다. 올림피아에서 경기를 열고 자기 조상 헤라클레스와 다른 쿠레테스들을 기리는 제단을 세웠으며, 헤라클레스에게 '돕는 이'라는 뜻으로 파라스타테스라는 별칭을 붙였다. 아이틀리오스의 아들 엔디미온은 클리메노스를 몰아내고, 올림피아에서 왕위를 상으로 걸고 아들들에게 달리기 경주를 시켰다.

**[5.8.2]** 엔디미온보다 약 한 세대 뒤에 펠롭스는 올림피아의 제우스를 기려 앞선 누구보다 성대하게 경기를 열었다. 펠롭스의 아들들이 엘리스에서 펠로폰네소스의 나머지 지역으로 흩어졌을 때에는 크레테우스의 아들 아미타온이 올림피아 경기를 열었다. 그는 아버지 쪽으로 엔디미온의 사촌이었다. 제우스의 아들로 여겨진 아이틀리오스도 실은 아이올로스의 아들이었다고 하기 때문이다. 아미타온 뒤에는 펠리아스와 넬레우스가 함께 경기를 열었다.

**[5.8.3]** 아우게아스도 경기를 열었고, 암피트리온의 아들 헤라클레스도 엘리스를 정복한 뒤 경기를 열었다. 헤라클레스에게서 우승관을 받은 이들 가운데 이올라오스가 있었다. 그는

헤라클레스의 암말들로 우승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자기 소유가 아닌 암말을 가지고도 경기에 참가할 수 있었다. 호메로스도 파트로클로스를 기리는 경기에서 메넬라오스가 두 필을 몰았는데, 하나는 아가멤논의 암말 아이타였고 다른 하나는 자기 말이었다고 했다.

[5.8.4] 이올라오스는 평소 헤라클레스의 전차를 몰았다. 이올라오스는 전차 경주에서 우승했고, 아르카디아인 이아시오스는 말을 타는 경주에서 우승했다. 틴다레오스의 두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은 달리기에서, 폴리데우케스는 권투에서 이겼다. 헤라클레스 자신은 씨름과 판크라티온에서 우승했다고 한다.

[5.8.5] 경기를 열었던 옥실로스의 치세가 끝나고 나서 올림피아 축제는 이피토스의 치세까지 중단되었다. 이미 이야기했듯 이피토스가 경기를 되살렸을 때, 사람들은 오랜 전통을 잊어버린 뒤였다. 그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그에 따라 경기 종목도 하나씩 보태었다.

[5.8.6]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올림피아 경기의 기록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 시작했을 때에는 먼저 달리기 경주가 있었고, 엘리스인 코로이보스가 이겼다. 올림피아에는 코로이보스의 상이 없으나 엘리스 변경에 그의 무덤이 있다. 뒤에 제14회 경기에 두 스타디온을 달리는 경주가 추가되었다. 피사의 히페노스가 이 경주에서 야생 올리브관을 받았다. 그다음 경기에서는 라케다이몬의 아칸토스가 장거리 달리기에서 이겼다.

[5.8.7] 제18회 경기에서는 오종 경기와 씨름을 되살렸다. 람피스가 오종 경기에서, 에우리바토스가 씨름에서 이겼다. 두 사람도 라케다이몬인이었다. 제23회 경기에서는 다시 권투에 상을 걸었으며, 우승자는 당시 이미 이오니아에 속해 있던 스미르나의 오노마스토스였다. 제25회 경기에는 다 자란 말들이 끄는 전차 경주를 종목으로 인정했고, 테바이의 파곤다스가 전차 경주의 우승자로 선포되었다.

[5.8.8] 그로부터 여덟 번째 경기에서 성인 판크라티온과 말을 타는 경주를 받아들였다. 말 경주에서는 크란논의 크라우크시다스가 이겼고, 시라쿠사이의 리그다미스는 판크라티온에 나선 사람들을 모두 이겼다. 리그다미스의 무덤은 시라쿠사이의 채석장 가까이에 있다. 시라쿠사이 사람들은 그가 테바이의 헤라클레스만큼 거구였다고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보증할 수 없다.

[5.8.9] 소년 경기에는 근거로 삼을 만한 옛 전승이 없다. 엘리스인들 스스로 좋다고 여겨 마련한 것이다. 소년이 참가할 수 있는 달리기와 씨름에 상을 건 것은 제37회 경기였다. 라케다이몬의 히포스테네스가 씨름에서 상을 받았고, 엘리스의 폴리네이케스가 달리기에서 이겼다. 제41회 경기에는 소년 권투를 들여왔고, 참가자들 가운데 시바리스의 필리타스가 이겼다.

[5.8.10] 무장한 남자들의 달리기 경주는 제65회 경기에서 채택되었다. 내가 보기에는 군사 훈련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방패를 들고 달리는 경주의 첫 우승자는 헤라이아의 다마레토스였다. 다 자란 말 두 필이 끄는 전차 경주를 **시노리스**, 곧 '두 필 전차'라 하는데, 제93회 경기에 신설되었다. 엘리스의 에우아고라스가 우승했다. 제99회 경기에는 어린 말들이 끄는 전차 경주를 열기로 했다. 라케다이몬의 시바리아데스가 자기 전차와 어린 말들로 우승관을 받았다.

**[5.8.11]** 뒤에 어린 말 두 필이 끄는 전차 경주와 어린 말 한 필을 타고 달리는 경주를 더했다. 두 필 전차의 우승자로는 마케도니아 해안 출신의 여자 벨리스티케가, 말을 타는 경주의 우승자로는 리키아의 틀레폴레모스가 선포되었다고 한다. 틀레폴레모스는 제131회 경기에서, 벨리스티케는 그보다 세 차례 앞선 경기에서 이겼다고 한다. 제145회 경기에는 소년 판크라티온에 상을 걸었다. 트로아스시 출신의 아이올리스인 파이디모스가 우승했다.

periegesis.abm.uu.se

## 제9장

**[5.9.1]** 올림피아에서 없어진 종목들도 있다. 엘리스인들이 그만두기로 결정한 것들이다. 소년 오종 경기는 제38회 경기에 신설되었다. 그러나 라케다이몬의 에우텔리다스가 이 종목에서 야생 올리브관을 받은 뒤, 엘리스인들은 소년들이 이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노새 수레 경주와 암말을 타다가 내려 함께 달리는 경주는 각각 제70회와 제71회에 신설되었으며, 제84회에는 두 종목을 모두 폐지한다고 선포했다. 처음 신설되었을 때 노새 수레 경주에서는 테살리아의 테르시오스가, 암말 경주에서는 디메 출신의 아카이아인 파타이코스가 이겼다.

**[5.9.2]** 암말 경주에서는 코스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수들이 뛰어내려 고삐를 잡고 암말 옆에서 달렸다. 오늘날 이른바 '말에 오르는 이들'이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말에 오르는 이들은 표지가 다르고 암말 대신 수말을 탄다는 점에서 예전 기수들과 다르다. 수레 경주는 유서 깊은 종목도 아니었고, 보기에 우아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수레마다 말 대신 노새 두 마리가 끌었다. 엘리스에서는 노새가 태어나기만 해도 저주를 받는다는 오래된 말이 있다.

**[5.9.3]** 오늘날의 경기 순서는 제77회 경기에 정해졌다. 다른 종목들을 위해 신에게 먼저 제사를 올리고, 오종 경기와 전차 경기를 위한 제사는 뒤에 올린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경기와 말들의 경기를 같은 날에 열었다. 그러나 내가 말한 그 회에는 판크라티온 선수들을 제때 경기장에 부르지 않아, 그들의 경기가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다. 지체된 데에는 전차 경주의 탓도 있었지만 오종 경기의 탓이 더 컸다. 이때 판크라티온 우승자는 아테네의 칼리아스였다. 그 뒤로는 오종 경기나 전차 경주 때문에 판크라티온이 지장을 받는 일이 없게 했다.

**[5.9.4]** 경기 주관자에 관한 규정은 축제가 처음 열렸을 때와 지금이 다르다. 이피토스는 혼자 주관했고, 그 뒤 옥실로스의 후손들도 한 사람씩 맡았다. 그러나 제50회 경기에는 엘리스인 전체에서 제비로 뽑은 두 사람에게 경기 운영을 맡겼다. 그 뒤로도 오랫동안 주관자는 두 명이었다.

**[5.9.5]** 제95회 경기에는 심판을 아홉 명 임명했다. 세 명에게는 전차 경주를, 다른 세 명에게는 오종 경기를 맡겼으며, 나머지 세 명은 다른 종목을 감독했다. 두 차례 뒤의 경기에서 열 번째 심판을 더했다. 제103회 경기에는 엘리스인들에게 열두 부족이 있어 부족마다 심판 한 명을 뽑았다.

**[5.9.6]** 그러나 아르카디아인들과의 전쟁에서 곤경에 처해 영토 일부와 그 안의 모든 구역을 잃었다. 그리하여 제104회 경기에는 부족이 여덟으로 줄었다. 이에 심판을 부족 수만큼

뽑았다. 제108회 경기에서는 심판을 다시 열 명으로 늘렸다. 이 수는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0장

**[5.10.1]** 그리스에는 볼거리가 많고 들어 볼 만한 놀라운 이야기도 많다. 그러나 신이 엘레우시스의 의례와 올림피아 경기보다 더 마음을 쓰는 일은 없다. 제우스의 신성한 숲은 예부터 알티스라 불렸다. 숲을 뜻하는 **알소스**라는 말이 변한 것이다. 핀다로스도 올림피아 우승자를 위해 지은 노래에서 이곳을 알티스라 부른다.

**[5.10.2]** 엘리스인들이 전쟁에서 피사를 굴복시키고 피사와 모의한 속국들도 함께 굴복시켰을 때, 전리품으로 제우스의 신전과 신상을 만들었다. 신상은 페이디아스가 만들었다. 제우스의 발 아래에 새긴 글이 이를 증언한다.

> 아테네 사람, 카르미데스의 아들 페이디아스가 나를 만들었다.

신전은 도리아 양식이며 바깥쪽 둘레 전체에 기둥이 서 있다. 이 지방에서 나는 돌로 지었다.

**[5.10.3]** 박공까지 높이가 예순여덟 피트, 너비가 아흔다섯 피트, 길이가 이백삼십 피트다. 건축가는 이 지방 사람 리본이었다. 기와는 구운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펜텔리콘의 대리석을 깎아 기와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 방법을 처음 고안한 사람은 낙소스의 비제스라고 한다. 낙소스에 있는 상들도 그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

> 낙소스 사람 에우에르고스가 나를 레토의 자식들에게 바쳤다.
> 그는 돌로 처음 기와를 만든 비제스의 아들이다.

비제스는 리디아인 알리아테스 무렵에 살았다. 당시 메디아인들은 키악사레스의 아들 아스티아게스가 다스렸다.

**[5.10.4]** 올림피아의 신전 지붕 양 끝에는 금을 입힌 솥이 하나씩 서 있다. 박공의 가운데쯤에는 역시 금을 입힌 승리의 여신상이 놓여 있다. 승리의 여신상 아래에는 고르고인 메두사가 돋을새김으로 새겨진 황금 방패가 봉헌되어 있다. 방패의 명문은 누가 무슨 까닭으로 바쳤는지 밝힌다.

> 신전에는 타나그라에서 온 황금 방패가 있다.
> 라케다이몬인들과 그 동맹군이 바친 선물이다.
> 아르고스인과 아테네인과 이오니아인에게서 빼앗아,
>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의 십분의 일로 바쳤다.

나는 아티카를 다루면서 아테네에 있는 무덤들을 서술할 때 이 전투도 언급했다.

**[5.10.5]** 올림피아 신전의 기둥 위로 건물을 두르는 띠의 바깥 면에는 금을 입힌 방패 스물한 개가 있다. 로마의 지휘관 뭄미우스가 아카이아인들을 전쟁에서 이기고 코린토스를 점령하여 도리아계 주민들을 몰아냈을 때 바친 봉헌물이다.

[5.10.6] 앞쪽 박공에는 펠롭스와 오이노마오스의 전차 경주가 새겨져 있다. 경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두 사람이 실제 경주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박공의 한가운데쯤에는 제우스의 상이 새겨져 있다. 제우스 오른편에는 머리에 투구를 쓴 오이노마오스가 있고, 곁에는 아틀라스의 딸 가운데 하나인 그의 아내 스테로페가 있다. 오이노마오스의 전차를 모는 미르틸로스도 네 필의 말 앞에 앉아 있다. 그다음에는 남자 두 사람이 있다. 이름은 전하지 않으나, 이들도 오이노마오스의 명을 받아 말을 돌보는 이들일 것이다.

[5.10.7] 맨 끝에는 클라데오스강이 누워 있다. 엘리스인들이 다른 일에서도 알페이오스강 다음으로 공경하는 강이다. 제우스 왼편에는 펠롭스와 히포다메이아와 펠롭스의 전차를 모는 사람, 말들, 그리고 펠롭스의 말을 돌보는 듯한 남자 두 사람이 있다. 그다음에는 박공이 다시 좁아지는데, 이 부분에는 알페이오스강이 표현되어 있다. 트로이젠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는 펠롭스의 전차를 몬 사람의 이름이 스파이로스지만, 올림피아의 안내자는 그를 킬라스라고 했다.

[5.10.8] 앞쪽 박공의 조각은 트라케의 멘데에서 온 파이오니오스의 작품이다. 뒤쪽 박공의 조각은 페이디아스와 같은 시대 사람인 알카메네스의 작품이다. 조각 솜씨에서는 페이디아스 다음가는 사람이었다. 그가 박공에 새긴 것은 페이리토오스의 혼인 잔치에서 라피타이인들과 켄타우로스들이 싸우는 모습이다. 박공 가운데에는 페이리토오스가 있다. 한쪽에는 페이리토오스의 아내를 붙잡은 에우리티온과 그를 도우러 오는 카이네우스가 있다. 다른 쪽에는 도끼로 켄타우로스들을 막아 내는 테세우스가 있다. 켄타우로스 하나는 처녀를, 다른 하나는 한창때의 소년을 붙잡았다. 내 생각에 알카메네스가 이 장면을 새긴 것은 호메로스의 시에서 페이리토오스가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테세우스가 펠롭스의 증손이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이다.

[5.10.9] 올림피아에는 헤라클레스가 맡았던 과업 대부분이 표현되어 있다. 신전 문 위에는 아르카디아의 멧돼지 사냥, 트라케인 디오메데스를 상대로 해낸 일, 에리테이아의 게리오네스를 상대로 해낸 일이 새겨져 있다. 아틀라스의 짐을 넘겨받으려는 모습과 엘리스인들을 위해 땅에서 똥을 치우는 모습도 있다. 뒤쪽 방 문 위에는 아마존 여인의 허리띠를 가져가는 모습이 있다. 사슴과 크노소스의 황소, 스팀팔로스의 새들, 히드라, 아르고스의 사자에 얽힌 일도 새겨져 있다.

[5.10.10] 청동문을 지나 들어가면 오른편 기둥 앞에서 이피토스의 머리에 한 여자가 관을 씌워 주는 모습이 보인다. 상에 새겨진 두 줄의 시에 따르면 그 여자는 휴전을 뜻하는 에케케이리아다. 신전 안에는 기둥들이 서 있고, 그 안쪽 위에도 주랑들이 있어 그곳을 지나 신상에 다가갈 수 있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굽이진 길도 만들어 놓았다. periegesis.abm.uu.se

## 제11장

[5.11.1] 신은 왕좌에 앉아 있으며 금과 상아로 만들어졌다. 머리에는 올리브 가지를 본떠 만든 관을 쓰고 있다. 오른손에는 신상과 마찬가지로 상아와 금으로 만든 승리의 여신을 들고 있다. 승리의 여신은 띠를 두르고 머리에 관을 쓰고 있다. 신의 왼손에는 온갖 금속으로

장식한 홀이 있고, 홀 위에 앉은 새는 독수리다. 신의 샌들도 금이고 옷도 금이다. 옷에는 짐승들의 형상과 백합꽃이 수놓여 있다.

**[5.11.2]** 왕좌는 흑단과 상아는 물론 금과 보석으로 꾸몄다. 그림을 그린 형상들과 조각한 형상들이 있다. 춤추는 여자로 표현된 승리의 여신이 넷 있는데, 왕좌의 다리마다 하나씩 있다. 각 다리 아래에는 여신이 둘씩 더 있다. 앞쪽 두 다리에는 각각 스핑크스에게 납치되는 테바이의 아이들이 놓여 있다. 스핑크스 아래에서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니오베의 자식들을 활로 쏘고 있다.

**[5.11.3]** 왕좌의 다리 사이에는 가로대가 넷 있으며, 각각 한 다리에서 다른 다리까지 뻗어 있다. 입구를 곧장 마주 보는 가로대에는 상이 일곱 개 있다. 여덟 번째 상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상들은 옛 경기 종목들을 본뜬 것인 듯하다. 페이디아스의 시대에는 소년 종목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머리에 띠를 매는 인물은 판타르케스와 닮았다고 한다. 판타르케스는 엘리스의 젊은이로, 페이디아스가 사랑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는 제86회 올림피아 경기에서 소년 씨름에 우승하기도 했다.

**[5.11.4]** 다른 가로대들에는 헤라클레스와 함께 아마존 여인들과 싸우는 무리가 있다. 양쪽 인물을 합하면 스물아홉이다. 테세우스도 헤라클레스의 동맹군에 끼어 있다. 왕좌는 다리들뿐 아니라 그 사이에 서 있는 같은 수의 기둥들이 받친다. 아미클라이에서는 왕좌 안쪽에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서는 왕좌 아래로 들어갈 수 없다. 올림피아에서는 벽처럼 만든 가림막이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다.

**[5.11.5]** 이 가림막 가운데 문을 마주 보는 부분에는 짙은 파란색만 칠했다. 나머지 부분에는 파나이노스의 그림이 있다. 아틀라스가 하늘과 땅을 떠받치고 있고 곁에는 테세우스와 함께, 아틀라스의 짐을 넘겨받을 채비를 한 헤라클레스가 서 있다. 페이리토오스와 헬라스도 있으며, 살라미스는 뱃머리 꼭대기에 다는 장식을 손에 들고 있다. 이어 헤라클레스가 네메아의 사자를 상대로 해낸 일과 아이아스가 카산드라에게 저지른 폭행이 그려져 있다.

**[5.11.6]** 오이노마오스의 딸 히포다메이아는 어머니와 함께 있고, 프로메테우스는 여전히 사슬에 묶여 있으나 헤라클레스가 그에게까지 올라왔다. 헤라클레스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그가 카우카소스에서 프로메테우스를 괴롭힌 독수리를 죽이고 사슬에서 프로메테우스를 풀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의 마지막에는 숨을 거두는 펜테실레이아와 그녀를 받쳐 드는 아킬레우스가 있다. 헤스페리데스 가운데 두 여인은 전설에서 자기들이 지키도록 맡았다는 사과들을 들고 있다. 이 파나이노스는 페이디아스의 형제였다. 아테네의 그림 주랑에 마라톤 전투를 그린 사람도 그다.

**[5.11.7]** 페이디아스는 왕좌 맨 위, 신상의 머리 위로 한쪽에는 카리테스 세 여신을, 다른 쪽에는 호라이 세 여신을 만들었다. 서사시에서는 이 여신들을 제우스의 딸들에 넣는다. 호메로스도 『일리아스』에서 호라이가 왕궁의 문지기처럼 하늘을 맡아 지킨다고 말한다. 아테네인들이 **트라니온**이라 부르는 제우스의 발받침에는 황금 사자들과, 테세우스가 아마존인들을 상대로 싸운 모습을 새긴 돋을새김이 있다. 아테네인들이 이민족을 상대로 처음 세운 용맹한 공적이다.

**[5.11.8]** 왕좌와 온갖 장식을 한 제우스상을 받치는 받침대에는 금으로 만든 형상들이 있다. 전차에 오른 태양신, 제우스와 헤라, 헤파이스토스와 그 곁의 카리스가 있다. 그 여신 가까이에는 헤르메스가, 헤르메스 가까이에는 헤스티아가 있다. 헤스티아 다음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아프로디테를 맞아들이는 에로스가 있고, 설득의 여신이 아프로디테에게 관을 씌워 주고 있다. 아르테미스와 함께 있는 아폴론, 그리고 아테나와 헤라클레스도 돋을새김으로 만들었다. 받침대의 끝 가까이에는 암피트리테와 포세이돈이 있고, 달의 여신은 내가 보기에 말을 몰고 있다. 어떤 이들은 여신의 탈것이 말이 아니라 노새라고 하며 그 노새에 관한 어리석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5.11.9]** 올림피아의 제우스상의 높이와 너비를 재서 기록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치수를 잰 이들을 칭찬하지는 않겠다. 그들의 기록도 이 상을 직접 볼 때 받는 인상에는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신 자신이 페이디아스의 솜씨를 증언했다고 한다. 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자 페이디아스는 작품이 마음에 드는지 징조를 보여 달라고 신에게 기도했다. 그러자 즉시 바닥의 한 자리에 벼락이 떨어졌다고 한다. 오늘날까지도 청동 항아리를 그 위에 놓아 그 자리를 덮고 있다.

**[5.11.10]** 신상 앞 바닥 전체에는 흰 돌 대신 검은 돌을 깔았다. 검은 돌 둘레에는 파로스 대리석으로 가장자리를 조금 높여 원을 만들었다. 부어 놓은 올리브기름이 흘러나가지 않게 한 것이다. 올림피아의 신상에는 올리브기름이 이롭다. 알티스의 습기 때문에 상아가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는 것이 바로 이 기름이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서 파르테노스라 불리는 신상의 상아에는 올리브기름이 아닌 물이 이롭다. 아크로폴리스는 높이 솟아 있어 지나치게 건조하므로, 상아로 만든 그 신상에는 물이나 습기가 필요하다.

**[5.11.11]** 에피다우로스에서는 왜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상에 물도 올리브기름도 붓지 않는지 물었다. 성소에서 일하는 이들은 신상과 왕좌가 모두 물을 저장하는 시설 위에 만들어졌다고 알려 주었다. periegesis.abm.uu.se

## 제12장

**[5.12.1]** 코끼리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이 뿔이 아니라 이빨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켈트 땅의 짐승인 큰사슴과 아이티오피아의 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수컷 큰사슴은 이마에 뿔이 나지만 암컷에게는 전혀 나지 않는다. 아이티오피아의 소는 코에 뿔이 난다. 그렇다면 어느 짐승의 입에서 뿔이 난들 크게 놀랄 일이겠는가?

**[5.12.2]** 다음 사실들을 생각해 보아도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짐승의 뿔은 해마다 빠졌다가 다시 자란다. 사슴과 영양이 그러하며, 코끼리도 그렇다. 그러나 다 자란 짐승에게서는 이빨이 다시 나는 것을 볼 수 없다. 입 밖으로 뻗은 것이 뿔이 아니라 이빨이라면 어찌 다시 자라겠는가? 또 이빨은 불로 모양을 바꿀 수 없으나, 소와 코끼리의 뿔은 불에 대면 둥근 것을 납작하게 만들거나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 하마와 멧돼지는 아래턱에 엄니가 난다. 그러나 턱에서 뿔이 돋는 경우는 보지 못한다.

**[5.12.3]** 그러므로 코끼리의 뿔이 위에서 관자놀이를 지나 내려와 바깥쪽으로 굽는다는 것을 알아 두어라. 주워들은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캄파니아의 아르테미스 성소에서 코끼리의

머리뼈를 본 적이 있다. 그 성소는 캄파니아의 중심 도시 카푸아에서 약 삼십 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코끼리의 크기와 생김새가 다른 짐승과 다르듯 뿔이 자라는 방식도 다르다. 내 생각에 그리스인들은 신을 공경하는 데 비길 데 없는 열의와 후함을 보였다. 신상을 만들려고 인도와 아이티오피아에서 상아를 들여왔으니 말이다.

**[5.12.4]** 올림피아에는 아시리아식 직조 무늬와 페니키아의 자줏빛으로 꾸민 양모 휘장이 있다. 안티오코스가 봉헌한 것이다. 그는 아테네의 극장 위에 있는 고르고 장식의 황금 아이기스도 바쳤다.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에 있는 휘장은 지붕 쪽으로 끌어올리지만, 이 휘장은 줄로 바닥까지 내린다.

**[5.12.5]** 신전 안이나 앞방에 놓인 봉헌물 가운데에는 티레니아인의 왕 아림네스토스의 왕좌와 키니스카의 청동 말들이 있다. 아림네스토스는 올림피아의 제우스에게 처음 봉헌물을 바친 이민족이며, 청동 말들은 올림피아에서 거둔 승리를 나타낸다. 말들은 실제 말만큼 크지 않으며, 앞방으로 들어갈 때 오른편에 놓여 있다. 청동을 입힌 세발솥도 있다. 탁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승자들에게 줄 관을 그 위에 내놓았다.

**[5.12.6]** 황제들의 상도 있다. 하드리아누스의 상은 파로스 대리석으로 만들었으며 아카이아 연맹의 도시들이 봉헌했다. 트라야누스의 상은 그리스인 전체가 바쳤다. 트라야누스는 트라케 너머의 게타이인들을 굴복시키고, 아르사케스의 후손 오스로에스와 파르티아인들을 상대로 전쟁했다. 그가 지은 것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이름을 딴 목욕장, 큰 원형 극장, 길이가 실제로 두 스타디온이나 되는 말 경주장, 그리고 로마의 포룸이다. 포룸은 전체의 아름다움도 볼 만하지만, 특히 청동으로 만든 지붕이 볼 만하다.

**[5.12.7]** 둥근 건물들에 세워 놓은 상 가운데 호박으로 만든 것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나타낸다. 상아로 만든 것은 비티니아의 왕 니코메데스의 초상이라고 들었다. 비티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는 그의 이름을 따서 니코메데이아로 바뀌었다. 전에는 아스타코스라 불렸다. 처음 도시를 세운 사람은 지포이테스였는데, 이름으로 판단하면 트라케 태생이었다. 아우구스투스상을 만드는 데 쓴 이 호박은 에리다노스강의 모래에서 천연으로 발견되는 것으로, 매우 드물고 여러 이유에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다. ‘호박’이라 부르는 또 다른 물질은 금과 은을 섞은 것이다.

**[5.12.8]** 올림피아의 신전에는 네로가 바친 봉헌물 네 개가 있다. 셋은 야생 올리브 잎을 본떠 만든 관이고, 하나는 참나무 잎을 본뜬 관이다. 무장한 사람들이 달리기 경주에서 들고 뛰는 청동 방패 스물다섯 개도 놓여 있다. 비석들도 세워져 있다. 그중 하나에는 엘리스인들이 아테네인들과 아르고스인들과 만티네이아인들에게 백 년 동안 동맹이 되리라고 한 맹세가 적혀 있다. periegesis.abm.uu.se

## 제13장

**[5.13.1]** 알티스 안에는 펠롭스에게 바쳐진 성역도 있다. 엘리스인들은 다른 신들보다 제우스를 높이 받드는 것만큼이나 올림피아의 다른 영웅들보다 펠롭스를 높이 받든다. 제우스 신전 입구 오른편, 북쪽에 펠로피온이 있다. 신전과의 사이에 상들과 다른 봉헌물들을 세

울 만한 거리가 있다. 신전의 한가운데쯤에서 시작하여 뒤쪽 방까지 뻗어 있다.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에는 나무가 자라며 상들이 봉헌되어 있다.

**[5.13.2]** 입구는 서쪽에 있다. 암피트리온의 아들 헤라클레스가 이 성소를 펠롭스에게 따로 바쳤다고 한다. 헤라클레스도 펠롭스의 증손이었으며, 그에게 구덩이 안으로 제물을 바쳤다고도 한다. 오늘날까지도 그해의 관리들이 그에게 제사를 지낸다. 제물은 검은 숫양이다. 점술가에게 돌아가는 몫은 없으며, 숫양의 목만 이른바 '장작 담당자'에게 주는 것이 관례다.

**[5.13.3]** 장작 담당자는 제우스의 시종 가운데 하나다. 도시나 개인이 제사를 올릴 때 정해진 값으로 장작을 대 주는 것이 그의 일이다. 흰포플러의 장작만 허용되며 다른 어떤 나무도 쓸 수 없다. 엘리스인이든 외지인이든 펠롭스에게 바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제우스의 신전에 들어갈 수 없다. 카이코스강 위쪽에 있는 페르가몬에서 텔레포스에게 제사를 바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그들도 몸을 씻기 전에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소로 올라갈 수 없다.

**[5.13.4]** 이런 이야기도 전한다. 그리스인들이 트로이아를 상대로 벌인 전쟁이 오래가자, 점술가들은 헤라클레스의 활과 화살, 그리고 펠롭스의 뼈 하나를 가져오기 전에는 도시를 점령할 수 없다고 예언했다. 그래서 필록테테스를 진영으로 불러들였고, 피사에서는 펠롭스의 뼈를 하나 가져왔다고 한다. 어깨뼈였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펠롭스의 뼈를 실은 배는 에우보이아 앞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난파했다.

**[5.13.5]** 트로이아가 함락된 지 여러 해가 지나, 에레트리아의 어부 다마르메노스가 바다에 그물을 쳤다가 그 뼈를 건졌다. 그는 뼈의 크기가 놀라워 모래 속에 숨겨 두었다. 마침내 델포이로 가서 누구의 뼈이며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5.13.6]** 신의 섭리로 마침 그때 델포이에는 엘리스의 사절들이 와서 역병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빌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티아 여사제는 엘리스인들에게 펠롭스의 뼈를 되찾으라고 명했고, 다마르메노스에게는 발견한 것을 엘리스인들에게 돌려주라고 명했다. 그가 그대로 하자 엘리스인들은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뼈를 지키는 일을 맡겨 보답했다. 펠롭스의 어깨뼈는 내가 사는 시대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내 생각에 아주 오래도록 깊은 물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래되기도 했지만 바닷물에 심하게 삭았다.

**[5.13.7]** 펠롭스와 탄탈로스가 한때 내 고향에 살았다는 흔적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다. 탄탈로스의 이름을 딴 호수와 이름난 무덤이 있다. 시필로스산 한 봉우리에는 어머니 여신 플라스테네의 성소 너머에 펠롭스의 왕좌가 있다. 헤르모스강을 건너면 템노스에서 살아 있는 도금양을 깎아 만든 아프로디테상을 볼 수 있다. 우리 고장의 전승에 따르면 펠롭스가 여신의 마음을 얻고 히포다메이아를 신부로 맞게 해 달라고 빌 때 봉헌한 상이다.

**[5.13.8]** 올림피아의 제우스 제단은 펠로피온과 헤라 성소에서 거의 같은 거리에 있으며, 두 곳의 앞쪽에 있다. 이다의 헤라클레스가 세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헤라클레스보다 두 세대 뒤에 살았던 이 지방의 영웅들이 세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제우스에게 바친 제물의 넓적다리를 태우고 남은 재로 만들었다. 페르가몬의 제단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다.

사모스의 헤라에게도 재로 만든 제단이 있으나, 아티카에서 아테네인들이 '임시 화덕'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조금도 더 크거나 훌륭하지 않다.

**[5.13.9]** 올림피아 제단의 첫 단은 프로티시스라 부르며 둘레가 백이십오 피트다. 그 위에 놓인 단의 둘레는 서른두 피트다. 제단 전체의 높이는 스물두 피트에 이른다. 제물 자체를 잡는 곳은 아래 단인 프로티시스다. 넓적다리는 제단의 가장 높은 곳으로 가져가 거기서 태운다.

**[5.13.10]** 양쪽에서 프로티시스로 올라가는 계단은 돌로 만들었다. 그러나 프로티시스에서 제단 위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제단 자체와 마찬가지로 재로 만들었다. 처녀들도 프로티시스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기혼 여자들도 올림피아 출입이 금지되지 않는 때에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프로티시스에서 제단의 맨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남자뿐이다. 축제가 열리지 않을 때에도 개인들이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낸다. 엘리스인들은 날마다 제사를 올린다.

**[5.13.11]** 해마다 점술가들은 엘라피오스달 열아흐렛날을 어김없이 지켜, 프리타네이온에서 재를 가져온다. 그 재를 알페이오스강의 물에 개어 제단에 바른다. 재를 갤 때에는 어떤 다른 물도 쓸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강 가운데 알페이오스강을 올림피아의 제우스가 가장 사랑한다고 여긴다. 밀레토스인들의 디디마에도 제단이 있다. 밀레토스인들은 테바이의 헤라클레스가 제물의 피로 그 제단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뒤에 바친 제물의 피가 제단을 그리 크게 만들지는 못했다. periegesis.abm.uu.se

## 제14장

**[5.14.1]** 올림피아 제단에는 또 하나의 기이한 점이 있다. 맹금 가운데 가장 탐욕스러운 솔개가 올림피아에서 제사를 올리는 사람을 결코 해치지 않는다. 혹 솔개가 제물의 내장이나 고기 한 점을 낚아채면, 제사를 올린 사람에게 좋지 않은 징조라 여긴다. 알크메네의 아들 헤라클레스가 올림피아에서 제사를 올리다가 파리들에게 몹시 시달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 냈든 누군가의 권유를 받았든, 파리를 쫓는 제우스 아포미오스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리하여 파리들은 알페이오스강 건너편으로 물러났다. 엘리스인들도 같은 방법으로 제우스 아포미오스에게 제사를 올려 올림피아에서 파리를 쫓아낸다고 한다.

**[5.14.2]** 엘리스인들은 제우스에게 제사를 올릴 때 흰포플러 장작만 쓰고 다른 나무는 쓰지 않는다. 내 생각에 흰포플러를 택하는 이유는 오로지 헤라클레스가 테스프로티아에서 그리스로 들여온 나무이기 때문이다. 헤라클레스 자신도 올림피아에서 제우스에게 제사할 때 제물의 넓적다리뼈를 흰포플러 장작 위에서 태웠다고 나는 생각한다. 헤라클레스가 흰포플러를 발견한 곳은 테스프로티아의 아케론강 기슭이었다. 그래서 호메로스는 이 나무를 '아케론의 나무'라고 부른다.

**[5.14.3]**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강이 식물과 나무가 자라기에 똑같이 알맞았던 것은 아니다. 위성류는 마이안드로스강 가에서 가장 잘 자라며 수도 가장 많다. 보이오티아의 아소포스강은 가장 큰 갈대를 길러 낸다. 페르세아 나무는 나일강 물에서만 잘 자란다. 그러

니 흰포플러가 아케론강 가에서, 야생 올리브가 알페이오스강 가에서 처음 자랐다는 것, 검은포플러가 켈트인들의 땅과 그곳 에리다노스강에서 자란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5.14.4]** 가장 큰 제단의 이야기를 마쳤으니 이제 올림피아의 모든 제단을 서술하겠다. 엘리스인들이 제단마다 제사를 올리는 순서를 따라가겠다. 그들은 먼저 헤스티아에게, 두 번째로는 신전 안에 있는 제단으로 가서 올림피아의 제우스에게 제사를 올린다. 세 번째는 제우스 라오에타스와 포세이돈 라오에타스에게 올린다. 이 제사도 한 제단에서 바치는 것이 관례다.

**[5.14.5]**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아르테미스와 전리품의 여신 아테나 레이티스에게, 여섯 번째는 일하는 여신 에르가네에게 제사를 올린다. 파이드린타이, 곧 '닦는 사람들'이라 불리는 페이디아스의 후손들은, 제우스상에 내려앉은 때를 닦는 특권을 엘리스인들에게서 받았다. 그들은 신상을 닦기 전에 이 에르가네에게 제사를 올린다. 신전 가까이에는 아테나의 제단이 하나 더 있다. 그 곁에는 조금씩 높아지는 네모난 아르테미스의 제단이 있다.

**[5.14.6]** 내가 열거한 제단들 다음에는 알페이오스강과 아르테미스에게 함께 제사를 올리는 제단이 있다. 핀다로스가 어느 노래에서 그 까닭을 넌지시 말한 듯하다. 나는 레트리노이를 다룰 때 그 까닭을 이야기하겠다. 멀지 않은 곳에 알페이오스강의 제단이 하나 더 서 있고, 그 곁에는 헤파이스토스의 제단이 있다. 엘리스인들 가운데에서는 이 헤파이스토스의 제단을 전쟁의 제우스 아레이오스의 제단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또 오이노마오스가 히포다메이아의 구혼자와 전차 경주를 하려 할 때마다 이 제단에서 제우스 아레이오스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5.14.7]** 그다음에는 '돕는 이'라고 불리는 헤라클레스 파라스타테스의 제단이 서 있다. 헤라클레스의 형제인 에피메데스, 이다스, 파이오나이오스, 이아소스의 제단들도 있다. 다만 이다스의 제단을 아케시다스의 제단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안다. 오이노마오스의 집터에는 두 제단이 서 있다. 하나는 뜰을 지키는 제우스 헤르케이오스의 제단으로, 오이노마오스가 직접 세우게 한 듯하다. 다른 하나는 벼락의 제우스 케라우니오스의 제단이다. 이것은 오이노마오스의 집에 벼락이 떨어진 뒤 세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5.14.8]** 큰 제단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앞에서 했다. 그 제단은 올림피아의 제우스 제단이라 불린다. 곁에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의 제단이 있다. 그다음에는 정결하게 하는 제우스 카타르시오스의 제단, 승리의 여신 니케의 제단, 그리고 지하의 제우스 크토니오스의 제단이 있다. 모든 신의 제단들과 올림피아의 헤라 제단도 있다. 헤라의 제단 역시 재로 만들었으며 클리메노스가 봉헌했다고 한다. 이어 아폴론과 헤르메스가 함께 쓰는 제단이 있다. 그리스인들은 헤르메스가 리라를, 아폴론이 키타라를 발명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5.14.9]** 다음에는 화합의 여신 호모노이아의 제단, 또 하나의 아테나 제단, 신들의 어머니의 제단이 있다. 경기장 입구 바로 가까이에는 두 제단이 있다. 하나는 경기를 맡는 헤르메스 에나고니오스의 제단, 다른 하나는 기회를 뜻하는 카이로스의 제단이라고 부른다. 키오스의 이온이 지은 시 가운데 카이로스의 찬가가 있음을 나는 안다. 그는 그 찬가에서 카이로스를 제우스의 막내 자식이라 한다. 시키온인들의 보물고 가까이에는 헤라클레스의 제단

이 있다. 쿠레테스 가운데 한 사람의 제단이라고도 하고 알크메네의 아들의 제단이라고도 한다. 두 이야기가 모두 전해진다.

**[5.14.10]** 대지의 성역이라는 뜻으로 가이온이라 부르는 곳에는 대지의 제단이 있다. 이것 역시 재로 만들었다. 더 옛날에는 이곳에 대지의 신탁소도 있었다고 한다. 스토미온, 곧 '입'이라 부르는 곳에는 테미스의 제단을 세웠다. '내려오시는 제우스'의 제단 둘레에는 울타리가 있다. 이 제단은 재로 만든 큰 제단 가까이에 있다. 독자는 내가 제단들이 서 있는 순서대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엘리스인들이 제사를 올리는 순서를 따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펠롭스의 성역 곁에는 디오니소스와 카리테스의 공동 제단이 있다. 그 사이에는 무사이의 제단이 있고, 그 옆에는 님프들의 제단이 있다. periegesis.abm.uu.se

## 제15장

**[5.15.1]** 알티스 밖에는 페이디아스의 작업장이라 불리는 건물이 있다. 페이디아스는 거기서 제우스상을 부분마다 따로 만들었다. 건물 안에는 모든 신에게 공동으로 바쳐진 제단이 있다. 이제 다시 알티스로 돌아가 레오니다이온 맞은편으로 가 보자.

**[5.15.2]** 레오니다이온은 성역 밖에 있으나 알티스의 제의 행렬 입구에 붙어 있다. 행렬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은 그곳뿐이다. 이 지방 사람 레오니다스가 봉헌한 건물이지만, 내가 사는 시대에는 그리스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들이 숙소로 썼다. 행렬 입구와 레오니다이온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아테네인들이 골목이라고 부르는 것을 엘리스인들은 거리라고 부른다.

**[5.15.3]** 알티스 안에서 레오니다이온의 왼편을 지나가려는 곳에 아프로디테의 제단이 있고, 그 뒤에 호라이의 제단이 있다. 신전 뒤쪽 방과 거의 마주 보는 곳의 오른편에는 야생 올리브나무 한 그루가 자란다. '아름다운 관의 올리브나무'라 불린다. 올림피아 경기의 우승자들에게 관례대로 주는 관은 이 나무의 잎으로 만든다. 이 야생 올리브나무 가까이에는 님프들의 제단이 서 있다. 이 님프들 역시 '아름다운 관의 님프들'이라 불린다.

**[5.15.4]** 알티스 밖이면서 레오니다이온 오른편인 곳에는 아고라의 아르테미스의 제단이 있다. '여주인들'에게 바친 제단도 하나 세웠다. 데스포이나, 곧 '여주인'이라 부르는 여신에 관해서는 아르카디아를 다룰 때 이야기하겠다. 뒤이어 아고라의 제우스 제단이 있다. '앞자리'라 부르는 곳 앞에는 피티오스라는 별칭의 아폴론의 제단이 있고, 다음에는 디오니소스의 제단이 있다. 마지막 제단은 오래지 않았으며 개인들이 봉헌했다고 한다.

**[5.15.5]** 전차 경주의 출발점으로 가는 길에는 '모이라게테스에게'라고 새긴 제단이 있다. 모이라게테스, 곧 '운명을 이끄는 이'는 분명 제우스의 별칭이다. 그는 사람의 일을 알고, 모이라이 여신들이 사람에게 주는 모든 것과 사람에게 정해지지 않은 모든 것도 안다. 근처에는 길쭉한 모이라이의 제단이 있고, 그다음에는 헤르메스의 제단이 있으며, 이어지는 두 제단은 가장 높은 제우스에게 바쳐졌다. 전차 경주의 출발점 바로 한가운데쯤을 마주 보는 노천에는 말의 신 포세이돈 히피오스와 말의 여신 헤라 히피아의 제단이 있다. 기둥 가까이에는 디오스쿠로이의 제단이 있다.

**[5.15.6]** 이른바 ‘쐐기’의 입구 한쪽에는 말의 신 아레스 히피오스의 제단이, 다른 한쪽에는 말의 여신 아테나의 제단이 있다. 쐐기 안에 들어가면 좋은 행운을 뜻하는 아가테 티케와 판과 아프로디테의 제단이 보인다. 쐐기의 맨 안쪽에는 아크메나이, 곧 ‘한창 피어난 이들’이라 불리는 님프들의 제단이 있다. 엘리스인들이 건축가의 이름을 따 아그납토스의 주랑이라 부르는 곳에서 돌아오다 보면 오른편에 아르테미스의 제단이 서 있다.

**[5.15.7]** 제의 행렬이 지나는 문으로 다시 알티스에 들어오면, 헤라 신전 뒤에 클라데오스강의 제단과 아르테미스의 제단이 있다. 그다음은 아폴론의 제단이다. 네 번째는 코코카라는 별칭의 아르테미스, 다섯 번째는 아폴론 테르미오스의 제단이다. 테르미오스라는 엘리스 말은 아티카 방언으로 법의 신이라는 뜻인 **테스미오스**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아르테미스를 코코카라고 부르는 까닭은 알아내지 못했다.

**[5.15.8]** 테에콜레온이라 불리는 곳 앞에 건물 하나가 있고, 그 모퉁이에 판의 제단을 세워 놓았다. 엘리스인들의 프리타네이온은 알티스 안에서 체육장 너머 출구 곁에 지었다. 그 체육장에는 운동선수들을 위한 달리기 터와 씨름터가 있다. 프리타네이온 문 앞에는 들판의 아르테미스 아그로테라의 제단이 있다.

**[5.15.9]** 프리타네이온 안에서 화덕이 있는 방에 들어가면 오른편에 판의 제단이 있다. 이 화덕 역시 재로 만들었으며, 밤낮으로 불이 탄다. 이미 이야기한 대로, 사람들은 이 화덕에서 나온 재를 올림피아의 제우스 제단으로 가져간다. 화덕에서 나르는 재 때문에 제단이 크게 자란다.

**[5.15.10]** 엘리스인들은 내가 열거한 모든 제단에서 달마다 한 차례 제사를 올린다. 의식은 옛 방식대로 한다. 제단 위에서 향과 꿀에 이긴 밀을 태우고, 올리브 잔가지도 올려놓으며, 포도주를 부어 바친다. 다만 님프들과 여주인들에게는 포도주를 부어 바치지 않으며, 모든 신이 함께 쓰는 제단에도 붓지 않는다. 제사는 한 달 동안 직책을 맡는 제사장과 점술가들, 제주를 나르는 이들, 그리고 안내자와 피리 연주자와 장작 담당자가 돌본다.

**[5.15.11]** 프리타네이온에서 제주를 부을 때 관례에 따라 하는 말과 그들이 부르는 찬가를 내 이야기에 옮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들은 그리스의 신들뿐 아니라 리비아의 신과 헤라 암모니아와 파람몬에게도 제주를 붓는다. 파람몬은 헤르메스의 별칭이다. 그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리비아의 신탁소를 이용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암몬의 신전에는 엘리스인들이 봉헌한 제단들이 있다. 거기에는 엘리스인들이 한 질문, 신이 내린 답변, 엘리스에서 암몬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것들은 암몬의 신전에 있다.

**[5.15.12]** 엘리스인들은 엘리스나 아이톨리아에서 공경받는 모든 영웅과 그 아내들에게도 제주를 붓는다. 프리타네이온에서 부르는 노래들은 도리아 방언으로 되어 있으나, 누가 지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엘리스인들에게는 연회실도 있다. 이 역시 프리타네이온에 있으며, 화덕이 있는 방의 맞은편이다. 그들은 이 방에서 올림피아 경기의 우승자들을 대접한다.

## 제16장

**[5.16.1]** 이제 헤라의 신전과 그 안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을 서술할 차례다. 엘리스인들의 말에 따르면 트리필리아의 도시 가운데 하나인 스킬루스 사람들이 신전을 지었다. 옥실로스가 엘리스의 왕위에 오른 지 약 팔 년 뒤였다. 신전은 도리아 양식이며 둘레 전체에 기둥이 서 있다. 뒤쪽 방에 있는 기둥 두 개 가운데 하나는 참나무로 만들었다. 신전은 길이 백육십구 피트, 너비 예순세 피트이며, 높이는 오십 피트 이상이다. 건축가가 누구였는지는 전하지 않는다.

**[5.16.2]** 네 해마다 '열여섯 여인'이 헤라에게 바칠 옷을 짠다. 이들은 헤라이아라 불리는 경기도 연다. 경기는 처녀들의 달리기다. 처녀들의 나이는 모두 같지 않다. 가장 어린 이들이 먼저 달린다. 그보다 나이 든 이들이 이어 달리고, 맨 마지막에는 가장 나이 든 처녀들이 달린다. 달리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5.16.3]** 머리카락은 아래로 늘어뜨리고, 옷은 무릎 조금 위까지 내려오며, 오른쪽 어깨에서 가슴까지 드러낸다. 그들의 경기에도 올림피아 경기장이 배정되지만, 달리는 거리는 경기장 전체 길이의 약 육분의 일만큼 줄인다. 우승한 처녀들에게는 올리브관과 헤라에게 바친 암소 제물의 일부를 준다. 그들은 이름을 새긴 자기 상을 봉헌할 수도 있다. 열여섯 여인을 돕는 사람들도 경기를 주관하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혼인한 여자들이다.

**[5.16.4]** 처녀들의 경기 역시 기원이 오래되었다. 히포다메이아가 펠롭스와 혼인한 일에 대해 헤라에게 감사하여 열여섯 여인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헤라이아를 처음 열었다고 한다. 암피온 집안의 딸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클로리스가 경기에 우승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클로리스와 함께 오라비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았다고 한다. 니오베의 자식들에 관해 내가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아르고스를 다룰 때 밝혔다.

**[5.16.5]** 열여섯 여인에 관해서는 이미 이야기한 것 외에 이런 이야기도 전한다. 다모폰이 피사의 참주였을 때 엘리스인들에게 큰 해를 많이 입혔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죽자 피사 사람들은 참주의 죄를 자신들의 공동 책임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엘리스인들도 기꺼이 원한을 접으려 했다. 그리하여 당시 엘리스에서 아직 사람이 살던 열여섯 도시마다 여자 한 명씩을 뽑아 분쟁을 해결하게 했다. 뽑히는 사람은 그 도시의 여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고, 가문이 가장 고귀하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했다.

**[5.16.6]** 여인들을 뽑은 도시는 엘리스, 〔…〕였다. 이 도시들에서 온 여인들은 피사와 엘리스 사이에 평화를 이루었다. 뒤에는 헤라이아 경기의 운영과 헤라에게 바칠 옷을 짜는 일도 맡았다. 열여섯 여인은 두 종류의 합창춤도 마련한다. 하나는 피스코아의 춤, 다른 하나는 히포다메이아의 춤이라 부른다. 이 피스코아는 골짜기의 엘리스 출신으로, 그녀가 살던 구역의 이름은 오르티아였다고 한다.

**[5.16.7]** 피스코아는 디오니소스와 몸을 합하여 나르카이오스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나르카이오스는 자라서 이웃 사람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 큰 세력을 얻었다. 아테나 나르카이아의 성소도 세웠다. 나르카이오스와 피스코아는 디오니소스를 처음 숭배한 이들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피스코아에게 여러 가지 영예를 바친다. 그중에서도 그녀의 이름으로 부

르며 열여섯 여인이 주관하는 합창춤이 특별하다. 엘리스인들은 몇몇 도시가 파괴되었는데도 그 밖의 옛 관습을 계속 지킨다. 지금은 여덟 부족으로 나뉘어 있어, 부족마다 여자 두 명씩을 뽑는다.

**[5.16.8]** 열여섯 여인이든 엘리스의 경기 심판이든 맡은 의례를 행하기 전에 정결례에 맞는 돼지와 물로 몸을 깨끗이 한다. 정결례는 피에라 샘에서 치른다. 올림피아에서 엘리스까지 평탄한 길을 따라가면 이 샘에 이른다. periegesis.abm.uu.se

## 제17장

**[5.17.1]** 앞에서 말한 일들은 그러하다. 헤라 신전에는 제우스의 신상이 있다. 헤라의 신상은 왕좌에 앉아 있으며, 그 곁에는 수염을 기르고 머리에 투구를 쓴 제우스가 서 있다. 두 신상은 솜씨가 투박하다. 그 옆에 왕좌에 앉아 있는 계절의 여신들 호라이의 상은 아이기나인 스밀리스가 만들었다. 그 곁에는 호라이의 어머니인 테미스의 상이 서 있다. 라케다이몬 태생으로 디포이노스와 스킬리스의 제자였던 도리클레이다스의 작품이다.

**[5.17.2]** 다섯 헤스페리데스는 헤길로스의 아들 테오클레스가 만들었다. 그도 도리클레이다스와 마찬가지로 라케다이몬인이며, 스킬리스와 디포이노스 밑에서 배웠다고 한다. 투구를 쓰고 창과 방패를 든 아테나상은 라케다이몬인 메돈의 작품이라고 한다. 그는 도리클레이다스의 형제이며 같은 스승들에게서 배웠다.

**[5.17.3]** 그다음에 코레와 데메테르가 서로 마주 보고 앉아 있으며,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서로 마주 보고 서 있다. 레토와 행운의 여신 티케와 디오니소스와 날개 달린 승리의 여신도 이곳에 봉헌되어 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내 생각에 이 상들도 아주 오래되었다. 지금까지 열거한 상들은 상아와 금으로 만들었다. 뒤에는 헤라 신전에 다른 상들도 봉헌되었다. 어린 디오니소스를 안고 있는 대리석 헤르메스상은 프락시텔레스의 작품이고, 청동 아프로디테상은 시키온의 클레온이 만들었다.

**[5.17.4]** 이 클레온의 스승 안티파네스는 페리클리토스의 제자였고, 페리클리토스는 아르고스의 폴리클레이토스에게 배웠다. 아프로디테 앞에는 금을 입힌 벌거벗은 아이가 앉아 있다. 칼케돈의 보에토스가 만든 상이다. 또 필리페이온이라 불리는 건물에서 금과 상아로 만든 두 상을 이곳으로 옮겨 왔다. 아리다이오스의 아내 에우리디케와 필리포스의 아내 올림피아스의 상이다.

**[5.17.5]** 삼나무로 만든 궤짝도 있다. 궤짝에 붙은 형상 가운데 어떤 것은 상아로, 어떤 것은 금으로 만들었으며, 다른 것들은 삼나무 자체에 새겼다. 코린토스의 참주 킵셀로스가 갓 태어났을 때 바키아다이 가문 사람들이 그를 찾아내려 하자, 어머니가 그를 숨긴 곳이 바로 이 궤짝이었다. 킵셀로스가 목숨을 건진 데 감사하여, 이른바 킵셀로스 가문의 후손들이 이 궤짝을 올림피아에 봉헌했다. 당시 코린토스인들은 궤짝을 **킵셀라이**라고 불렀다. 아이가 킵셀로스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이 말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5.17.6]** 궤짝의 형상 대부분에는 옛 글자로 쓴 명문이 있다. 어떤 것은 같은 방향으로 이어서 읽지만, 어떤 것은 그리스인들이 **부스트로페돈**이라 부르는 방식으로 써 놓았다. 한 줄의 끝에서 다음 줄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는 방식이다. 두 스타디온을 달리는 경주에서 주자

들이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과 같다. 게다가 궤짝의 명문은 글자 모양도 구불구불하여 해독하기 어렵다. 아래부터 살펴보면 궤짝의 첫째 단에는 다음 장면들이 있다.

**[5.17.7]** 오이노마오스가 히포다메이아를 데리고 가는 펠롭스를 뒤쫓는다. 두 사람 모두 말 두 필을 몰지만 펠롭스의 말들에는 날개가 달렸다. 그다음에는 암피아라오스의 집이 새겨져 있고, 어느 늙은 여자가 어린 암필로코스를 안고 있다. 집 앞에는 에리필레가 목걸이를 들고 서 있다. 곁에는 딸 에우리디케와 데모나사, 벌거벗은 소년 알크마이온이 있다.

**[5.17.8]** 아시오스는 시에서 알크메네도 암피아라오스와 에리필레의 딸이라고 했다. 바톤은 한 손에 고삐를, 다른 손에 창을 쥐고 암피아라오스의 전차를 몬다. 암피아라오스는 이미 한쪽 발을 전차에 올리고 칼을 뽑았다. 그는 에리필레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는데, 분노가 치밀어 그녀를 치지 않으려고 간신히 참고 있는 모습이다.

**[5.17.9]** 암피아라오스의 집 다음에는 펠리아스의 장례 경기가 나온다. 관중들이 선수들을 보고 있다. 헤라클레스는 왕좌에 앉아 있고, 그의 뒤에는 여자가 한 명 있다. 여자가 누구인지는 명문에 적혀 있지 않으나, 그녀가 부는 것은 그리스식 피리가 아니라 프리기아식 피리다. 두 필이 끄는 전차를 모는 사람들은 페리에레스의 아들 피소스, 코메타스의 아들 아스테리온, 폴리데우케스, 아드메토스, 에우페모스다. 아스테리온은 아르고호의 선원 가운데 하나였다고 한다. 시인들은 마지막 사람인 에우페모스가 포세이돈의 아들로, 이아손과 함께 콜키스로 항해했다고 한다. 전차 경주에서 이기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5.17.10]** 권투에 나선 사람은 아드메토스와 암픽스의 아들 몹소스다. 두 사람 사이에는 피리를 부는 남자가 서 있다. 우리 시대에도 오종 경기 선수들이 도약할 때 피리를 부는 관습이 있다. 이아손과 펠레우스의 씨름은 팽팽하다. 에우리보타스는 원반을 던지고 있다. 원반 던지기로 이름난 사람이었을 것이다. 달리기에는 멜라니온, 네오테우스, 팔라레우스가 나섰고, 넷째 주자는 아르게이오스, 다섯째는 이피클로스다. 이피클로스가 이겼으며 아카스토스가 그에게 관을 내민다. 이 이피클로스는 트로이아 전쟁에 참가한 프로테실라오스의 아버지인 듯하다. Scriptura

**[5.17.11]** 세발솥도 놓여 있다. 물론 우승자들에게 줄 상품이다. 펠리아스의 딸들도 있는데, 이름이 새겨진 사람은 알케스티스뿐이다. 헤라클레스가 과업을 수행할 때 자진하여 도와준 이올라오스가 전차 경주의 우승자로 새겨져 있다. 여기서 펠리아스의 장례 경기는 끝난다. 그다음에는 아테나가 곁에 서 있고, 헤라클레스는 아미모네강의 괴물 히드라에게 활을 쏜다. 하는 일과 자세만 보아도 헤라클레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으므로 곁에 이름을 새기지 않았다. 트라케인 피네우스도 있다. 보레아스의 아들들이 그에게서 하르피이아들을 쫓아내고 있다. periegesis.abm.uu.se

## 제18장

**[5.18.1]** 이제 궤짝의 둘째 단으로 가겠다. 이 단을 둘러볼 때에는 왼쪽에서 시작하는 편이 좋겠다. 한 여자가 오른팔로 잠든 흰 아이를 안고, 왼팔로는 잠든 듯한 검은 아이를 안고 있다. 두 아이의 발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한다. 명문이 없어도 짐작할 수 있지만, 명문에는 이들이 죽음과 잠이며 여자는 두 아이의 유모인 밤이라고 적혀 있다.

**[5.18.2]** 아름다운 여자가 못생긴 여자를 벌하고 있다.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는 막대기를 휘둘러 때린다. 정의가 불의를 이렇게 다루는 것이다. 다른 여자 두 명은 절구에 공이를 넣고 찧고 있다. 명문은 없지만 약을 다루는 데 능한 여인들이라고 여겨진다. 한 여자가 뒤따라가는 남자가 누구인지는 다음 육보격 시가 밝혀 준다.

> 이다스는 에우에노스의 딸, 발목이 고운 마르페사를 데려온다.
> 아폴론이 데려갔던 그녀는 제 뜻으로 이다스와 함께 온다.

**[5.18.3]** 겉옷을 입은 남자가 오른손에 잔을, 왼손에 목걸이를 들고 있으며, 알크메네가 그것들을 받아 든다. 제우스가 암피트리온의 모습으로 알크메네와 몸을 합했다는 그리스 전승을 나타낸 장면이다. 메넬라오스는 가슴받이를 입고 칼을 든 채 헬레네를 죽이려고 다가간다. 따라서 트로이아가 함락된 뒤의 일임이 분명하다. 메데이아는 왕좌에 앉아 있고, 오른쪽에 이아손이, 왼쪽에 아프로디테가 서 있다. 여기에 이런 명문이 있다.

> 아프로디테의 뜻에 따라 이아손이 메데이아와 혼인한다.

**[5.18.4]** 무사이 여신들이 노래하고 아폴론이 노래를 이끄는 형상도 있다. 여기에 새긴 글은 이러하다.

> 이분은 레토의 아들, 멀리 쏘는 아폴론 왕이시다.
> 그 둘레에서 우아한 무리가 노래하니, 그가 이끄시는 무사이 여신들이다.

아틀라스도 이야기에 전해지는 대로 하늘과 땅을 어깨로 떠받치고 있다. 헤스페리데스의 사과들도 가지고 있다. 칼을 든 남자가 아틀라스를 향해 다가간다. 명문에 따로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도 그가 헤라클레스라는 것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다. 명문은 이렇다.

> 여기 하늘을 받친 아틀라스가 있다. 그는 사과를 내어 줄 것이다.

**[5.18.5]** 갑옷을 입은 아레스가 아프로디테를 이끄는 모습도 있다. 아레스 곁에는 '에니알리오스'라고 새겨져 있다. 테티스는 처녀의 모습으로 새겨져 있다. 펠레우스가 그녀를 붙잡고 있으며, 테티스의 손에서는 뱀 한 마리가 펠레우스를 향해 달려든다. 날개 달린 메두사의 자매들은 날아가는 페르세우스를 뒤쫓는다. 이들 가운데 이름이 새겨진 사람은 페르세우스뿐이다.

**[5.18.6]** 궤짝의 셋째 단에는 군대의 모습이 있다. 대부분은 걸어서 가고 있으나, 말 두 필이 끄는 전차를 탄 전사들도 있다. 병사들은 전투를 향해 나아가는 듯하지만, 서로를 알아보고 인사할 참이라고도 짐작할 수 있다. 안내자들은 이를 두 가지로 설명한다. 어떤 이들은 옥실로스가 이끄는 아이톨리아인들과 옛 엘리스인들이라고 했다. 자기들이 본래 같은 혈통임을 기억하고 서로 우호를 보이려고 만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이들은 이 병사들이 싸우러 만나는 중이며, 페이아시와 이아르다노스강 곁에서 막 맞붙으려는 필로스인들과 아르카디아인들이라고 한다. Icarus Atlas

**[5.18.7]** 그러나 코린토스인인 킵셀로스의 조상이 자기 물건으로 이 궤짝을 만들게 하면서, 코린토스의 이야기를 모두 제쳐 두고 그다지 이름나지도 않은 외지의 사건을 일부러 새기게 했으리라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내게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떠올랐다. 킵셀로

스와 그의 조상들은 본래 시키온 위쪽의 고누사 출신이다. 조상 가운데 안타소스의 아들 멜라스가 있었다.

**[5.18.8]** 코린토스를 다루면서 이미 이야기했듯, 알레테스는 델포이에서 받은 신탁이 마음에 걸려 멜라스와 그가 거느린 무리를 이주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멜라스는 온갖 방법으로 환심을 사려 했고, 쫓겨날 때마다 돌아와 간청했다. 마침내 알레테스는 마지못해 그들을 받아들였다. 궤짝에 새긴 형상들은 이 군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periegesis.abm.uu.se

## 제19장

**[5.19.1]** 궤짝의 넷째 단을 왼쪽에서부터 둘러보면 오레이티이아를 납치한 보레아스가 있다. 그의 발 대신 뱀 꼬리가 달려 있다. 이어 헤라클레스와 게리오네스의 싸움이 나온다. 게리오네스는 남자 셋이 한 몸에 붙은 모습이다. 테세우스는 리라를 들고 있으며, 그 곁의 아리아드네는 관을 쥐고 있다. 아킬레우스와 멤논은 싸우고 있고, 두 사람의 어머니가 각자의 곁에 서 있다.

**[5.19.2]** 멜라니온도 있으며, 그의 곁에는 어린 사슴을 든 아탈란테가 있다. 아이아스와 헥토르는 도전에 따라 일대일로 싸우고 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더없이 흉한 여자의 모습으로 불화의 여신이 서 있다.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성소에도 이 여신의 모습이 있다. 사모스의 칼리폰이 그리스군의 배들 곁에서 벌어진 전투를 그리면서 넣은 것이다. 궤짝에는 디오스쿠로이도 있다. 둘 중 하나는 아직 수염이 나지 않은 젊은이이며, 두 사람 사이에 헬레네가 있다.

**[5.19.3]** 피테우스의 딸 아이트라는 헬레네의 발밑에 내던져져 누워 있다. 검은 옷을 입었다. 이 무리에 붙은 명문은 육보격 한 줄에 낱말 하나를 덧붙인 것이다.

> 틴다레오스의 아들들이 헬레네를 데려가며,
> 아테네에서 아이트라를 끌고 간다.

**[5.19.4]** 이 구절은 그런 방식으로 지었다. 안테노르의 아들 이피다마스는 쓰러져 있고, 코온은 그를 위해 아가멤논과 싸운다. 아가멤논의 방패에는 머리가 사자인 공포의 형상이 있다. 이피다마스의 시신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 이피다마스다. 그를 위해 싸우는 이는 코온이다.

아가멤논의 방패에 새긴 글은 다음과 같다.

**[5.19.5]**

> 이것은 인간들의 공포다. 이를 든 이는 아가멤논이다.

헤르메스가 여신들의 아름다움을 판정할 프리아모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에게 여신들을 데려가는 장면도 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 여기 헤르메스가 헤라와 아테나와 아프로디테를
> 알렉산드로스에게 보인다. 그들의 아름다움을 판정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르테미스의 어깨에 날개가 달린 까닭은 모르겠다. 오른손에는 표범을, 왼손에는 사자를 움켜쥐었다. 아이아스가 카산드라를 아테나의 신상에서 끌어내는 모습도 있다. 곁에는 이런 명문이 있다.

> 로크리스의 아이아스가 카산드라를 아테나에게서 끌어낸다.

**[5.19.6]** 오이디푸스의 아들 폴리네이케스는 한쪽 무릎을 꿇고 쓰러졌으며, 오이디푸스의 또 다른 아들 에테오클레스가 그에게 달려들고 있다. 폴리네이케스 뒤에는 짐승처럼 사나운 이빨을 가진 여자가 서 있다. 손톱은 맹금의 발톱처럼 굽었다. 곁에 새긴 글은 그녀를 죽음의 운명인 케르라고 부른다. 폴리네이케스는 운명에 끌려갔고 에테오클레스는 마땅한 최후를 맞았다는 뜻이다. 디오니소스는 동굴에 기대어 누워 있다. 수염을 기른 그는 황금 잔을 들고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었다. 그 둘레에는 포도나무와 사과나무와 석류나무가 있다.

**[5.19.7]** 다섯 단 가운데 맨 위에는 명문이 없다. 그러므로 새긴 형상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추측할 수밖에 없다. 동굴 하나가 있고 그 안의 침상에는 여자가 남자와 함께 자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오디세우스와 키르케로 보았다. 동굴 앞에 있는 시녀들의 수와 그들이 하는 일을 근거로 삼았다. 여자들은 넷이며 호메로스가 시에서 말한 일들을 하고 있다. 또 켄타우로스가 하나 있는데, 두 다리만 말의 다리이며 앞다리는 사람의 다리다.

**[5.19.8]** 그다음에는 말 두 필이 끄는 전차들이 있으며, 그 안에 여자들이 서 있다. 말들에게는 금빛 날개가 달렸고, 한 남자가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무장을 건넨다. 내 추측에 이 장면은 파트로클로스의 죽음과 관계가 있다. 전차에 탄 여자들은 네레우스의 딸들이고, 테티스가 헤파이스토스에게서 무장을 받는 듯하다. 무장을 건네는 이의 다리는 튼튼하지 않으며, 뒤따르는 노예는 불집게를 들고 있다.

**[5.19.9]** 켄타우로스에 관한 설명도 전한다. 그는 이제 인간사에서 벗어나 신들과 함께 살 자격을 얻은 케이론이며, 아킬레우스의 슬픔을 달래러 왔다고 한다. 노새 수레에 탄 두 처녀 가운데 하나는 고삐를 쥐고, 다른 하나는 머리에 베일을 쓰고 있다. 알키노오스의 딸 나우시카아와 그 시녀가 빨래터로 가는 모습이라고들 생각한다. 켄타우로스들에게 활을 쏘아 그중 몇을 이미 죽인 남자는 분명 헤라클레스다. 그가 세운 공적 가운데 하나다.

**[5.19.10]** 누가 이 궤짝을 만들었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짐작도 할 수 없었다. 궤짝의 명문은 다른 시인이 지었을 수도 있으나, 나는 대체로 코린토스의 에우멜로스가 지었다고 보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가 델로스를 위해 지은 행렬 찬가를 가장 큰 근거로 삼았다.

periegesis.abm.uu.se

## 제20장

**[5.20.1]** 이곳에는 다른 봉헌물들도 있다. 그리 크지 않고 대부분을 상아로 꾸민 침상, 이피토스의 원반, 그리고 우승자들의 관을 차려 놓는 탁자다. 침상은 히포다메이아가 장난감으로 썼다고 한다. 이피토스의 원반에는 엘리스인들이 올림피아 축제 때 선포하는 휴전이 새겨져 있다. 명문은 곧은 줄로 쓰지 않고 원반 둘레를 따라 원을 그리며 새겼다.

**[5.20.2]** 탁자는 상아와 금으로 만들었으며 콜로테스의 작품이다. 콜로테스는 헤라클레이아 태생이었다고 하나, 조각의 역사에 정통한 이들은 파로스 출신으로 파시텔레스의 제자였다고 주장한다. 파시텔레스 자신은 〔…〕의 제자였다. 탁자에는 헤라와 제우스와 신들의 어머니와 헤르메스, 그리고 아르테미스와 함께 있는 아폴론의 형상이 있다. 뒤쪽에는 경기의 배치가 표현되어 있다.

**[5.20.3]** 한쪽에는 아스클레피오스와 그 딸 가운데 하나인 건강의 여신 히기에이아가 있으며, 아레스와 그 곁의 경쟁의 신도 있다. 다른 쪽에는 플루톤과 디오니소스와 페르세포네와 님프들이 있다. 님프 하나는 공을 들고 있다. 플루톤은 열쇠를 쥐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가 하데스라 불리는 곳을 잠가 놓아 아무도 거기서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한다.

**[5.20.4]** 올림피아의 볼거리를 안내하는 아리스타르코스에게 들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그의 시대에 헤라 신전의 지붕이 낡아 허물어졌다고 한다. 엘리스인들이 지붕을 수리하는 동안, 기와를 받치는 지붕과 장식한 천장 사이에서 상처 입은 보병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 병사는 알티스 안에서 엘리스인들과 라케다이몬인들이 벌인 전투에 참가한 사람이었다.

**[5.20.5]** 당시 엘리스인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높은 곳이라면 신들의 성소까지 가리지 않고 올라갔다. 아무튼 우리가 보기에는 이 병사가 상처로 기운이 빠져 그 밑으로 기어들었다가 거기서 죽은 듯하다. 완전히 가려진 곳에 누워 있었으므로 여름의 더위도 겨울의 서리도 시신을 해치지 못했을 것이다. 아리스타르코스는 사람들이 시신을 알티스 밖으로 옮겨 무장과 함께 땅에 묻었다고 덧붙였다.

**[5.20.6]** 큰 제단에서 제우스의 성소 쪽으로 가면 엘리스인들이 오이노마오스의 기둥이라 부르는 것이 있다. 왼편에 기둥 넷이 지붕을 받치고 있다. 모두 오래되어 삭은 나무 기둥 하나를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다. 나무 기둥은 거의 전부를 띠로 묶어 지탱하고 있다. 전하는 말로는 이 기둥이 오이노마오스의 집에 서 있었다고 한다. 벼락이 떨어져 집의 나머지 부분은 불에 탔으며, 건물 전체에서 이 기둥 하나만 남았다.

**[5.20.7]** 앞에 있는 청동판에는 다음과 같은 엘레게이아 시가 새겨져 있다.

> 나그네여, 나는 이름난 집의 남은 조각,
> 한때 오이노마오스의 집에 서 있던 기둥이다.
> 이제는 이 띠를 두르고 크로노스의 아들 곁에 놓인
> 귀한 물건이니, 사나운 불길도 나를 삼키지 못했다.

내가 사는 시대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났으니, 그것을 이야기하겠다.

**[5.20.8]** 로마의 원로원 의원이 올림피아 경기에서 우승했다. 그는 우승의 기념으로 명문을 새긴 청동상을 남기고 싶어 기초를 놓을 땅을 팠다. 파 내려간 곳이 오이노마오스의 기둥에 아주 가까워졌을 때, 일꾼들은 무장과 고삐와 재갈의 조각들을 발견했다.

**[5.20.9]** 나는 그것들을 땅에서 꺼내는 것을 직접 보았다. 그리 크지 않은 도리아 양식의 신전이 있는데, 사람들은 옛 이름을 지켜 오늘날까지 메트로온이라 부른다. 안에 신들의 어머니상은 없고 로마 황제들의 상이 서 있다. 메트로온은 알티스 안에 있으며, 필리페이온

이라 불리는 둥근 건물 역시 안에 있다. 필리페이온 지붕에는 들보들을 한데 묶는 청동 양귀비 장식이 있다.

[5.20.10] 이 건물은 프리타네이온 맞은편의 출구 왼쪽에 있다. 구운 벽돌로 지었으며 기둥들이 둘러서 있다. 카이로네이아에서 그리스가 패한 뒤 필리포스가 지었다. 안에는 필리포스와 알렉산드로스의 상이 있고, 필리포스의 아버지 아민타스도 함께 있다. 이것들도 레오카레스의 작품이다. 올림피아스와 에우리디케의 상과 마찬가지로 상아와 금으로 만들었다.

periegesis.abm.uu.se

## 제21장

[5.21.1] 이제 여러 상과 봉헌물들을 이야기하겠다. 둘을 한데 섞어 서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서는 상도 다른 물건처럼 봉헌물이지만, 알티스에서는 일부 물건만 신들을 기리기 위해 바치며, 우승자의 상은 그가 받는 상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우승자들의 상은 뒤에 언급하고, 먼저 봉헌물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들을 살펴보겠다.

[5.21.2] 메트로온에서 경기장으로 가는 길의 왼편, 크로니오스산 기슭에 산을 바로 등진 돌단이 있다. 단으로 오르는 계단도 있다. 단 곁에는 제우스의 청동상들이 세워져 있다. 고의로 경기 규정을 어긴 선수들에게 물린 벌금으로 만든 것들이다. 이 지방 사람들은 이 상들을 자네스, 곧 제우스상들이라고 부른다.

[5.21.3] 처음에는 여섯 상을 제98회 올림피아 경기에 세웠다. 테살리아인 에우폴로스가 권투에 나선 선수들을 매수했기 때문이다. 아르카디아인 아게토르와 키지코스의 프리타니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우승한 할리카르나소스의 포르미온이 그들이다. 선수가 경기 규정을 어긴 첫 사례였다고 한다. 엘리스인들에게 처음으로 벌금을 물게 된 사람들은 에우폴로스와 그에게서 뇌물을 받은 이들이었다. 이 상 가운데 두 개는 시키온의 클레온이 만들었으며, 나머지 네 개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른다.

[5.21.4] 셋째와 넷째를 빼고는 이 상들에 엘레게이아 시를 새겼다. 첫 명문은 올림피아의 승리를 돈이 아니라 빠른 발과 몸의 힘으로 얻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다. 둘째 상의 명문은 엘리스인들의 경건함으로 이 상을 세워 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규정을 어기는 선수들에게 두려움을 주려 한다고 말한다. 다섯째 명문의 뜻은 엘리스인들, 특히 권투 선수들에게 벌금을 물린 일을 칭찬하는 데 있다. 여섯째이자 마지막 명문은 이 상들이 그리스인 모두에게 올림피아의 승리를 얻으려고 뇌물을 주지 말라고 경고한다고 한다.

[5.21.5] 에우폴로스 다음에는 오종 경기에 참가한 아테네인 칼리포스가 경쟁자들을 뇌물로 매수했다고 한다. 제112회 올림피아 경기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엘리스인들이 칼리포스와 경쟁자들에게 벌금을 물리자 아테네인들은 히페레이데스에게 벌금을 면제해 달라고 설득하는 일을 맡겼다. 엘리스인들은 들어주지 않았다. 아테네인들은 분개하여 돈을 내지 않고 올림피아 경기에도 나가지 않았다. 마침내 델포이의 신이 엘리스인들에게 벌금을 내기 전에는 아테네인들이 무슨 일을 물어도 신탁을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5.21.6]** 그리하여 벌금을 내자 제우스를 기리는 상 여섯 개를 또 만들었다. 거기에 새긴 엘레게이아 시는 에우폴로스의 벌금을 이야기하는 시보다 조금도 더 세련되지 않았다. 첫 명문의 요지는 오종 경기 선수들에 대한 엘리스인들의 판결을 신이 신탁으로 승인하였으므로 이 상들을 봉헌했다는 것이다. 둘째와 셋째 상에는 오종 경기 참가자들에게 벌금을 물린 엘리스인들을 칭찬하는 글이 있다.

**[5.21.7]** 넷째 명문은 올림피아의 경기가 재산이 아닌 기량을 겨루는 자리라고 말한다. 다섯째에는 상들을 봉헌한 까닭이 적혔고, 여섯째에는 델포이가 아테네인들에게 내린 신탁을 기렸다.

**[5.21.8]** 지금 열거한 상들 다음에는 두 상이 있다. 씨름 선수들에게 물린 벌금으로 봉헌했다. 선수들의 이름은 나도 엘리스의 안내자들도 알지 못했다. 이 상들에도 명문이 있다. 하나는 씨름 선수의 잘못 때문에 로도스인들이 올림피아의 제우스에게 돈을 냈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몇몇이 뇌물을 주고받아 씨름을 했으므로 그들에게 물린 벌금으로 상을 만들었다고 한다.

**[5.21.9]** 이 선수들에 관한 나머지 이야기는 엘리스의 안내자들에게서 들었다. 제178회 올림피아 경기에 에우델로스가 필로스트라토스에게서 뇌물을 받았으며, 필로스트라토스는 로도스인이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엘리스의 올림피아 우승자 기록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아냈다. 그 기록에는 알렉산드레이아의 스트라톤이 제178회 경기의 같은 날에 판크라티온과 씨름에서 모두 이겼다고 적혀 있다. 나일강의 카노포스 하구에 있는 알렉산드레이아는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세웠다. 그 자리에는 전부터 라코티스라는 작은 이집트 도시가 있었다고 한다.

**[5.21.10]** 스트라톤 전에 세 사람, 뒤에 또 세 사람이 판크라티온과 씨름에서 모두 이겨 야생 올리브관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선 사람들은 엘리스의 카프로스, 그리고 에게해 건너편의 그리스인들 가운데 로도스의 아리스토메네스와 레타이오스강 가 마그네시아의 프로토파네스였다. 뒤에는 스트라톤과 같은 고향인 마리온, 스트라토니케이아의 아리스테아스가 있었다. 스트라토니케이아는 옛날에 나라와 도시가 모두 크리사오리스라 불렸다. 일곱째는 해안의 킬리키아 출신인 니코스트라토스였다. 다만 그는 이름으로만 킬리키아인이었다.

**[5.21.11]** 니코스트라토스는 명문 집안의 아이였는데 갓난아기 때 프리기아의 프림네소스에서 도적들에게 납치되었다. 아이가 아이가이로 끌려가자 어떤 사람이 그를 샀다. 얼마 뒤 그 사람은 꿈에서 니코스트라토스가 자는 간이 침상 아래에 새끼 사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니코스트라토스는 자라서 올림피아의 판크라티온과 씨름 외에도 다른 곳에서 여러 차례 우승했다.

**[5.21.12]** 그 뒤로도 엘리스인들이 벌금을 물린 이들이 있었다. 그중에는 제218회 올림피아 경기에 참가한 알렉산드레이아의 권투 선수가 있었다. 벌금을 문 사람은 란테스라는 별칭이 있는 아폴로니오스였다. 별칭을 쓰는 것은 알렉산드레이아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다. 그는 엘리스인들이 규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한 최초의 이집트인이었다.

**[5.21.13]** 뇌물을 주거나 받아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경기에서 다음과 같은 무례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는 정해진 시각까지 도착하지 않았다. 엘리스인들이 규정을 따르려면 그를 경기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키클라데스 제도에서 역풍에 발이 묶였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역시 알렉산드레이아 태생인 헤라클레이데스가 그 말이 거짓임을 밝혔다. 아폴로니오스는 이오니아의 경기에서 돈을 좀 벌어 오느라 늦었다는 것이다.

**[5.21.14]** 이런 사정으로 엘리스인들은 아폴로니오스와 정해진 시각 뒤에 온 다른 권투 선수들을 경기에서 제외하고, 헤라클레이데스에게 겨루지 않고도 관을 받게 했다. 그러자 아폴로니오스는 싸울 때 쓰는 가죽끈을 손에 감고 헤라클레이데스에게 달려들어 마구 때렸다. 헤라클레이데스가 이미 야생 올리브관을 쓰고 심판들에게 몸을 피했는데도 그랬다. 아폴로니오스는 이 경솔하고 어리석은 짓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5.21.15]** 근래에 만든 상이 두 개 더 있다. 제226회 올림피아 경기에서 권투 선수 두 명이 우승을 두고 겨루면서 돈을 받고 결과를 정해 놓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잘못에 벌금을 물렸고, 그 돈으로 만든 두 제우스상은 하나가 경기장 입구 왼편에, 다른 하나가 오른편에 서 있다. 뇌물을 받은 권투 선수는 디다스이고, 준 사람은 사라팜몬이었다. 두 사람은 이집트에서 가장 최근에 생긴 아르시노이테스라는 같은 지방 출신이었다.

**[5.21.16]** 올림피아의 신을 어찌나 가볍게 여겼으면 경기에서 뇌물을 주고받을까 싶다. 엘리스인 자신이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더욱 놀랍다. 그러나 제192회 올림피아 경기에서 엘리스인 다모니코스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한다. 다모니코스의 아들 폴릭토르와 아버지와 이름이 같은 스미르나의 소산드로스 사이에 승부를 미리 정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씨름의 야생 올리브관을 두고 경쟁하고 있었다. 다모니코스가 자기 아들을 몹시 우승시키고 싶어 소산드로스의 아버지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것이다.

**[5.21.17]** 거래가 드러나자 경기 심판인 헬라노디카이들은 벌금을 물렸다. 아들들에게 벌을 주는 대신 아버지들에게 노여움을 돌렸다. 실제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들이었기 때문이다. 벌금으로 상을 만들었다. 하나는 엘리스의 체육장에 세워져 있고, 다른 하나는 알티스의 '그림 주랑' 앞에 있다. 옛날 그 벽에 그림들이 있었으므로 그렇게 부른다. 누군가 소리치면 메아리가 일곱 번 또는 그보다 더 많이 되울리므로, 이곳을 '메아리 주랑'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다.

**[5.21.18]** 제201회 올림피아 경기에 알렉산드레이아의 판크라티온 선수 사라피온이 경쟁자들을 몹시 두려워하여, 경기에 불려 나갈 날을 하루 앞두고 달아났다고 한다. 이집트인은 물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비겁함 때문에 벌금을 문 것으로 기록된 일은 이것뿐이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2장

**[5.22.1]** 이 상들은 내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까닭으로 만들어졌다. 나라에서 봉헌하거나 개인이 바친 제우스상들도 있다. 알티스에서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가까이에는 제단이 하나 있다. 엘리스인들은 거기에서 어느 신에게도 제사를 올리지 않는다. 나팔수와 전령이 경연할 때 그 위에 서는 것이 관례다. 이 제단 옆에는 청동 받침대가 마련되어 있고, 그 위

에 높이 약 여섯 큐빗의 제우스상이 있다. 양손에 벼락을 하나씩 쥐고 있다. 키나이타 사람들이 바친 것이다. 목걸이를 한 소년 모습의 제우스상은 플리우스 사람 클레올라스의 봉헌물이다.

**[5.22.2]** 히포다메이온이라 불리는 곳 곁에는 반원형의 돌 받침대가 있다. 그 위에 제우스와 테티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 제우스에게 간청하는 낮의 여신이 있다. 이들은 받침대 가운데에 있다. 아킬레우스와 멤논은 받침대 양 끝에 하나씩 서서 맞붙으려는 두 전사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그리스인과 이민족이 마주 선 다른 짝들도 있다. 각 군대에서 가장 영리했다고 하는 오디세우스와 헬레노스, 오랜 원한으로 맞선 알렉산드로스와 메넬라오스, 아이네이아스와 디오메데스, 데이포보스와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다.

**[5.22.3]** 이 상들은 미론의 아들 리키오스가 만들었으며, 이오니아해에 있는 아폴로니아 사람들이 봉헌했다. 제우스의 발 아래에는 옛 글자로 엘레게이아 시도 적혀 있다.

> 우리는 아폴로니아의 기념물로 봉헌되었다.
> 머리칼을 자르지 않는 포이보스가 이오니아해에 세운 도시다.
> 아폴로니아 사람들은 아반티스 땅을 차지한 뒤, 신의 도움으로
> 트로니온 전리품의 십분의 일인 이 상들을 여기에 세웠다.

아반티스라 불리는 땅과 그 안의 트로니온시는 케라우니아산맥 맞은편의 테스프로티아 본토에 속해 있었다.

**[5.22.4]** 그리스 함대가 트로이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흩어졌을 때의 일이다. 보아그리오스강 가의 트로니온에서 온 로크리스인들과 에우보이아의 아반테스인들이 모두 여덟 척에 나누어 타고 가다가 케라우니아산맥 쪽으로 떠밀렸다. 그들은 그곳에 자리 잡고 트로니온시를 세운 뒤, 함께 뜻을 모아 자신들이 차지한 땅을 아반티스라고 불렀다. 뒤에는 이웃 아폴로니아 사람들과 싸워 패하고 쫓겨났다. 아폴로니아는 코르키라의 식민시이고 코르키라는 코린토스의 식민시였다고 한다. 코린토스인들도 전리품을 나누어 받았다.

**[5.22.5]** 조금 더 가면 해 뜨는 쪽을 향한 제우스상이 있다. 한 손에는 독수리를, 다른 손에는 벼락을 들고 있다. 상에는 봄꽃을 얹었으며 머리에도 봄꽃으로 만든 관을 씌웠다. 메타폰티온 사람들의 봉헌물이다. 조각가는 아이기나의 아리스토누스였으나, 그가 언제 살았는지, 스승이 누구였는지는 알지 못한다.

**[5.22.6]** 플리우스 사람들도 제우스와 아소포스의 딸들, 그리고 아소포스 자신의 상을 봉헌했다. 상들의 배열은 이러하다. 자매들 가운데 맨 앞은 네메아다. 뒤이어 아이기나를 붙잡는 제우스가 있고, 아이기나 곁에는 하르피나가 서 있다. 엘리스인들과 플리우스 사람들의 전승에 따르면 하르피나는 아레스와 몸을 합하여 피사 일대를 다스린 오이노마오스를 낳았다. 그녀 다음에는 코르키라, 그다음은 테베이며, 맨 끝에는 아소포스가 있다. 코르키라가 포세이돈과 몸을 합했다는 전설이 있다. 핀다로스는 테베와 제우스에 관해 같은 이야기를 한다.

**[5.22.7]** 레온티노이 사람 몇 명도 제우스상을 세웠는데, 나라의 비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 돈을 들였다. 상의 높이는 일곱 큐빗이며, 시인들의 이야기대로 두 손에 독수리와 제우스의 벼락을 들고 있다. 히파고라스, 프리논, 아이네시데모스가 봉헌했다. 내 생각에 이 아

이네시데모스는 레온티노이의 참주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3장

**[5.23.1]** 평의회당 입구를 지나면 아무런 명문 없이 서 있는 제우스상이 보인다. 북쪽으로 꺾으면 또 다른 제우스상이 있다. 해 뜨는 쪽을 바라보는 이 상은 플라타이아이에서 마르도니오스가 거느린 페르시아인들과 싸운 그리스인들이 봉헌했다. 받침대 오른쪽에는 전투에 참가한 도시들이 새겨져 있다. 맨 먼저 라케다이몬인들, 그다음 아테네인들, 셋째 코린토스인들, 넷째 시키온인들이다.

**[5.23.2]** 다섯째는 아이기나인들이다. 아이기나인들 다음에는 메가라인들과 에피다우로스인들, 그리고 아르카디아인들 가운데 테게아와 오르코메노스 사람들이 있다. 뒤이어 플리우스와 트로이젠과 헤르미온 주민들, 아르골리스의 티린스인들, 보이오티아인 가운데 유일하게 참가한 플라타이아이 사람들, 아르고스계의 미케나이 사람들, 케오스와 멜로스의 섬사람들이 있다. 테스프로티아 본토의 암브라키아인들과 테노스 사람들, 그리고 트리필리아에서 유일하게 참가한 레프레우스 사람들도 있다. 에게해와 키클라데스에서는 테노스 사람들뿐 아니라 낙소스인들과 키트노스인들도 왔다. 에우보이아에서는 스티라 사람들이 왔다. 그 뒤는 엘리스인들과 포티다이아인들, 아낙토리온 사람들이며, 맨 마지막은 에우리포스 해협 가의 칼키스인들이다.

**[5.23.3]** 이 도시들 가운데 오늘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다음과 같다. 미케나이와 티린스는 페르시아 전쟁 뒤 아르고스인들이 파괴했다. 코린토스의 이주민이었던 암브라키아인들과 아낙토리온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의해 옮겨져 악티온 가까이에 니코폴리스를 세우는 데 참여했다. 포티다이아인들은 두 번 도시에서 쫓겨났다. 한 번은 아민타스의 아들 필리포스에게, 그보다 앞선 한 번은 아테네인들에게 쫓겨났다. 뒤에 카산드로스가 포티다이아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으나, 도시의 이름은 포티다이아에서 창건자의 이름을 딴 카산드레이아로 바뀌었다. 그리스인들이 올림피아에 봉헌한 상은 아이기나의 아낙사고라스가 만들었다. 플라타이아이 전투를 기록한 역사가들은 이 조각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5.23.4]** 이 제우스상 앞에는 라케다이몬인들과 아테네인들이 맺은 삼십 년 평화 협정의 조항을 새긴 청동 비석이 있다. 아테네인들은 에우보이아를 두 번째로 굴복시킨 뒤 이 평화 협정을 맺었다. 히메라의 크리손이 달리기에서 이긴 제83회 올림피아 경기 주기의 셋째 해였다. 조항 가운데 하나에는 아르고스가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의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아테네인들과 아르고스인들이 원한다면 양측이 따로 평화를 맺어도 된다고 되어 있다. 협정의 내용은 이러하다.

**[5.23.5]** 클레오스테네스의 전차 옆에도 제우스상이 하나 더 봉헌되어 있다. 전차는 뒤에 서술하겠다. 제우스상은 메가라인들이 봉헌했으며, 프실라코스와 오나이토스 형제가 자기 아들들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다. 그들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누구에게 배웠는지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5.23.6]** 겔론의 전차 옆에는 홀을 든 오래된 제우스상이 서 있다. 히블라 사람들의 봉헌물이라고 한다. 시켈리아에는 히블라라는 도시가 두 곳 있었다. 하나는 게레아티스라 불렸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두 도시 가운데 더 커서 '큰 히블라'라 불렸다. 두 곳은 아직 옛 이름을 지키고 있으며 카타나 지방에 있다. 큰 히블라에는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다. 게레아티스는 카타나의 마을로, 시켈리아 사람들이 공경하는 히블라이아 여신의 성소가 있다. 내 생각에 올림피아에 이 상을 가져온 이들은 게레아티스 사람들이다. 아르코메니데스의 아들 필리스토스는 그들이 징조와 꿈을 풀이했으며, 시켈리아의 다른 어느 이민족보다 경건한 일에 힘썼다고 말한다.

**[5.23.7]** 히블라 사람들의 봉헌물 가까이에는 청동 받침대가 있고 그 위에 제우스상이 있다. 높이는 어림잡아 열여덟 피트쯤 된다. 봉헌한 이들과 조각가들은 엘레게이아 시에 밝혀져 있다.

> 클레이토르 사람들이 이 상을 신께 바쳤다.
> 힘으로 굴복시킨 여러 도시에서 얻은 전리품의 십분의 일이다.
> 만든 이는 아리스톤과 텔레스타스로,
> 두 사람은 친형제이며 라코니아인이다.

이 라코니아인들이 그리스 전역에 이름을 떨쳤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랬다면 엘리스인들도 그들에 관해 할 말이 있었을 것이며, 같은 나라 사람인 라케다이몬인들은 더 많은 말을 했을 것이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4장

**[5.24.1]** 제우스 라오에타스와 포세이돈 라오에타스의 제단 곁에는 청동 받침대 위에 제우스상이 있다. 코린토스인들이 바쳤고 무소스가 만들었다. 이 무소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평의회당에서 큰 신전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제우스상이 서 있다. 꽃으로 관을 쓴 듯하고, 오른손에는 벼락이 놓여 있다. 시키온의 카나코스에게 배운 테바이의 아스카로스가 만든 작품이다. 명문에는 포키스인들과 테살리아인들 사이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십분의 일이라고 적혀 있다.

**[5.24.2]** 테살리아인들이 포키스인들과 전쟁을 벌여 거기서 약탈한 것으로 봉헌했다면, 그 전쟁은 이른바 신성 전쟁일 수 없다. 페르시아인들이 왕을 따라 그리스에 쳐들어오기 전에 두 나라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일 것이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제우스상이 또 있다. 상에 새긴 시에 따르면 프소피스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봉헌한 것이다.

**[5.24.3]** 큰 신전의 오른쪽에는 해 뜨는 쪽을 향한 높이 열두 피트의 제우스상이 있다. 두 번째 반란 뒤 메세니아인들과 전쟁에 나선 라케다이몬인들이 바쳤다고 한다. 상에는 다음과 같은 두 줄의 시가 있다.

> 왕이시며 크로노스의 아들이신 올림피아의 제우스여, 아름다운 이 상을 받으시고
> 라케다이몬인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 주소서.

**[5.24.4]** 평민이든 원로원 의원이든, 뭄미우스보다 앞서 그리스의 성소에 봉헌물을 바친 로마인은 우리가 아는 한 없다. 그는 아카이아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올림피아에 청동 제우스상을 바쳤다. 라케다이몬인들의 봉헌물 왼쪽, 신전 그쪽의 첫 기둥 곁에 서 있다. 알티스에 있는 청동 제우스상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높이가 스물일곱 피트다. 엘리스인들 자신이 아르카디아인들과의 전쟁에서 약탈한 것으로 봉헌했다.

**[5.24.5]** 펠로피온 옆에는 그리 높지 않은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작은 제우스상이 있다. 한 손은 앞으로 뻗었다. 맞은편에는 다른 봉헌물들이 줄지어 있으며, 제우스와 가니메데스의 상도 있다. 호메로스의 시에는 신들이 가니메데스를 데려다가 제우스에게 술을 따르게 하였고, 그 대가로 트로스에게 말들을 주었다고 한다. 이 봉헌물은 테살리아인 그나티스가 바쳤다. 클레오이타스의 아들이자 제자인 아리스토클레스가 만들었다.

**[5.24.6]** 아직 수염이 나지 않은 젊은이로 나타낸 제우스상도 있다. 미키토스가 바친 봉헌물 가운데 하나다. 미키토스의 행적과 가문, 그리고 그가 올림피아에 그렇게 많은 봉헌물을 바친 까닭은 곧 이야기하겠다. 방금 말한 상에서 곧장 조금 더 가면 수염 없는 제우스상이 하나 더 있다. 카이코스 평야에서 바다로 내려갈 때 처음 닿는 아이올리스의 도시 엘라이아 사람들이 봉헌했다.

**[5.24.7]** 이어 또 다른 제우스상이 있다. 명문에는 크니도스의 케르소네소스 사람들이 적에게서 얻은 전리품으로 봉헌했다고 적혀 있다. 그들은 제우스상 양쪽에 펠롭스와 알페이오스강의 상을 하나씩 봉헌했다. 크니도스시의 대부분은 카리아 본토에 세워져 있으며, 그들에게 가장 주목할 만한 것들도 거기에 있다. 그러나 케르소네소스라 부르는 곳은 본토 가까이에 있는 섬이다. 다리로 본토에 이어져 있다.

**[5.24.8]** 올림피아에서 제우스에게 이 봉헌물들을 바친 사람들은 바로 그 구역의 주민들이다. 이를테면 코레소스라 부르는 구역에 사는 에페소스인들이 에페소스 전체와는 별도로 자기들이 봉헌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알티스의 담 곁에는 해 지는 쪽을 향한 제우스상도 있다. 명문은 없으나 뭄미우스가 아카이아 전쟁에서 약탈한 것으로 바친 또 하나의 봉헌물이라고 한다.

**[5.24.9]**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두려움을 가장 크게 불러일으킬 만한 제우스상은 평의회당에 있는 것이다. 맹세의 신이라는 뜻으로 호르키오스라 부르며 양손에 벼락을 하나씩 들고 있다. 이 상 곁에서 선수들과 그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체육 교사들은 멧돼지 고기 조각 위에서 올림피아 경기의 규정을 어떤 점에서도 어기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관례다. 선수들은 또한 열 달 동안 잇달아 훈련 규정을 엄격히 지켰다고 맹세한다.

**[5.24.10]** 소년 선수들이나 경주에 나갈 어린 말들을 심사하는 사람들도 맹세한다. 공정하게 판단하고 뇌물을 받지 않으며, 받아들인 후보든 떨어뜨린 후보든 심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맹세다. 선수들이 맹세한 뒤 그 멧돼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관례인지는 묻는 것을 잊었다. 다만 옛날의 제물 관습에 따르면, 맹세에 쓴 제물은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었다.

**[5.24.11]** 호메로스가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아가멤논은 멧돼지 고기 조각 위에서 브리세이스와 잠자리를 함께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맹세했다. 호메로스는 전령이 그 멧돼지를

바다에 던졌다고 말한다.

> 그는 말을 마치고 가차 없는 청동 칼로 멧돼지의 목을 그었다.
> 탈티비오스는 멧돼지를 휘둘러 잿빛 바다의 깊은 곳에 던졌다.
>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옛 관습은 이러했다. 맹세의 신의 발 앞에는 엘레게이아 시를 새긴 청동판이 있다.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글이다. Pausanias ' Description of Greece

## 제25장

**[5.25.1]** 알티스 안의 제우스상들은 될 수 있는 한 정확히 열거했다. 큰 신전 가까이의 봉헌물은 제우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실제로는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다. 코린토스인이 세웠는데, 옛 코린토스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황제가 그 도시에 정착시킨 이주민 가운데 하나였다. 제우스를 나타내지 않는 다른 종류의 봉헌물들도 언급하겠다. 신을 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상을 주려고 세운 상들은 운동선수들을 다룰 때 넣겠다.

**[5.25.2]** 해협가에 사는 메세니아인들은 오래된 관습에 따라 레기온의 지방 축제에 소년 서른다섯 명으로 이루어진 합창단을 보냈다. 합창단의 교사와 피리 연주자도 함께 보냈다. 한 번은 그들에게 재난이 닥쳤다. 보낸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살아서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다. 소년들을 태운 배가 가라앉았던 것이다.

**[5.25.3]** 사실 이 해협의 바다는 어느 바다보다 거칠다. 바람이 양쪽에서, 곧 아드리아해와 티레니아해라 부르는 다른 바다에서 파도를 몰고 오기 때문에 물결이 거칠어진다. 큰 바람이 불지 않을 때에도 해협 자체에서 파도가 몹시 높이 일고 물살이 세다. 물속에 괴물들이 어찌나 많이 떼 지어 다니는지 바다 위의 공기까지 그 악취에 물든다. 그러므로 배가 난파한 사람에게는 해협에서 살아나갈 희망조차 없다. 오디세우스의 배가 이곳에서 재난을 당했다면, 신들의 호의가 모든 일을 쉽게 해 준다는 사실이 없는 한 그가 이탈리아까지 헤엄쳐 살아 나왔으리라고는 아무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5.25.4]** 메세니아인들은 소년들을 잃고 애도했다. 그들에게 바친 영예 가운데 하나는 올림피아에 청동상들을 봉헌한 것이다. 그 무리에는 합창단 교사와 피리 연주자도 들어 있다. 옛 명문에는 해협가의 메세니아인들이 바친 봉헌물이라고 적혀 있었다. 뒤에 그리스인들이 '현자'라 부르는 히피아스가 이 상들에 붙인 엘레게이아 시를 지었다. 조각가는 엘리스의 칼론이었다.

**[5.25.5]** 시켈리아에서 리비아와 남쪽을 바라보는 파키논이라는 곳에는 모티에시가 있다. 리비아인들과 페니키아인들이 사는 곳이다. 아크라가스인들은 모티에의 이 이민족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 그들에게서 노획물과 전리품을 얻어 올림피아에 청동 소년상들을 봉헌했다. 소년들은 신에게 기도하는 자세로 오른손을 뻗고 있다. 상들은 알티스 담 위에 놓여 있다. 나는 조각가가 칼라미스였다고 추측했는데, 상들에 관한 전승과도 들어맞는다. 시켈리아에 사는 민족들은 다음과 같다.

**[5.25.6]** 시카노이인들, 시켈로이인들, 프리기아인들이 있다. 앞의 두 민족은 이탈리아에서 건너왔고, 프리기아인들은 스카만드로스강과 트로아스 땅에서 왔다. 페니키아인들과 리비아인들은 함께 원정하여 이 섬에 왔는데, 카르타고에서 보낸 이주민들이다. 시켈리아의 이 민족들은 이러하다. 거기에 정착한 그리스인들 가운데에는 도리아인들과 이오니아인들이 있고, 포키스와 아티카 사람들도 소수 있다.

**[5.25.7]** 아크라가스인들의 봉헌물이 놓인 바로 그 담 위에는 소년 헤라클레스의 나상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네메아에서 사자에게 활을 쏘는 모습이다. 이 헤라클레스와 그 곁의 사자는 타라스의 히포티온이 봉헌했으며, 마이나로스의 니코다모스가 만들었다. 다른 상은 멘데의 아낙시포스가 봉헌했고 엘리스인들이 이곳으로 옮겼다. 이전에는 엘리스에서 올림피아로 이어지는 '신성한 길' 끝에 서 있었다.

**[5.25.8]** 아카이아인 전체가 공동으로 봉헌한 상들도 있다. 헥토르가 그리스인이라면 누구든 나와 자신과 일대일로 싸워 보라고 도전했을 때, 대표자를 가리는 제비뽑기에 감히 나선 사람들을 나타낸다. 그들은 창과 방패를 들고 큰 신전 가까이 서 있다. 바로 맞은편 다른 받침대 위에는 네스토르의 상이 있다. 그는 각자의 제비를 투구에 넣었다. 헥토르를 상대하려고 제비를 뽑는 사람은 이제 여덟뿐이다. 아홉째인 오디세우스의 상은 네로가 로마로 가져갔다고 한다.

**[5.25.9]** 여덟 상 가운데 이름이 새겨진 것은 아가멤논의 상뿐이며, 글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방패에 수탉을 그려 넣은 인물은 미노스의 후손 이도메네우스다. 이도메네우스는 파시파에의 아버지인 태양신의 후손이라고 전한다. 수탉은 태양신에게 바쳐진 새로, 태양신이 곧 떠오르리라는 것을 알린다.

**[5.25.10]** 받침대에도 명문이 새겨져 있다.

> 아카이아인들이 이 상들을 제우스께 바쳤다.
> 그들은 탄탈로스의 신과 같은 아들 펠롭스의 후손이다.

받침대의 명문은 이러하다. 조각가의 이름은 이도메네우스의 방패에 적혀 있다.

> 이는 아이기나의 솜씨 좋은 오나타스가 만든 여러 작품 가운데 하나다.
> 그의 아버지는 미콘이다.

**[5.25.11]** 아카이아인들의 봉헌물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말을 탄 아마존 여인과 허리띠를 두고 싸우는 헤라클레스상도 있다. 잔클레 혈통의 에우아고라스가 봉헌했고, 키도니아의 아리스토클레스가 만들었다. 아리스토클레스는 가장 오래된 조각가들에 넣어야 한다. 그가 정확히 어느 시대 사람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잔클레가 지금처럼 메세네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태어났음은 분명하다.

**[5.25.12]** 타소스 사람들은 페니키아 혈통이다. 그들은 아게노르의 아들 타소스와 함께 에우로페를 찾으려고 티로스와 페니키아의 여러 곳에서 배를 타고 나왔다. 타소스 사람들은 올림피아에 헤라클레스상을 봉헌했는데, 상뿐 아니라 받침대도 청동이다. 상은 높이가 열 큐빗이며 오른손에 몽둥이를, 왼손에 활을 들고 있다. 타소스에서 들은 말로는, 그들은 처음

에 티로스 사람들과 같은 헤라클레스를 섬겼다. 뒤에 그리스인들에 편입되면서 암피트리온의 아들 헤라클레스를 섬기게 되었다.

**[5.25.13]** 타소스 사람들이 올림피아에 바친 봉헌물에는 다음 두 줄의 시가 새겨져 있다.

> 미콘의 아들 오나타스가 나를 만들었다.
> 그는 아이기나에 사는 사람이다.

이 오나타스는 아이기나의 조각 전통에 속하지만, 나는 그를 다이달로스의 계승자들이나 아티카 조각가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낮게 두지 않겠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6장

**[5.26.1]** 아테네인들에게서 나우팍토스를 받은 도리아계 메세니아인들은 올림피아의 기둥 위에 승리의 여신상을 봉헌했다. 멘데의 파이오니오스가 만든 작품으로, 적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으로 만들었다. 내 생각에는 아카르나니아인들과 오이니아다이 사람들을 상대로 치른 전쟁에서 얻은 것이다. 메세니아인들 자신은 아테네인들과 함께 스팍테리아섬에서 세운 공으로 바친 것이라고 한다. 라케다이몬인들이 두려워 적의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오이니아다이 사람들과 아카르나니아인들은 조금도 두렵지 않다.

**[5.26.2]** 내가 본 미키토스의 봉헌물들은 수가 많았으며 한곳에 모여 있지 않았다. 엘리스인 이피토스와 그에게 관을 씌우는 휴전의 여신 에케케이리아의 상 다음에 미키토스의 봉헌물들이 있다. 암피트리테와 포세이돈과 헤스티아이며, 조각가는 아르고스인 글라우코스였다. 큰 신전 왼쪽을 따라 미키토스가 바친 다른 상들이 있다. 데메테르의 딸 코레, 아프로디테, 가니메데스, 아르테미스, 시인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 그리고 다시 신들인 아스클레피오스와 히기에이아다.

**[5.26.3]** 미키토스의 봉헌물 가운데에는 도약용 추를 든 경쟁의 신 아곤이 있다. 추의 모양은 이러하다. 정확한 원이 아니라 타원에 가까운 것을 반으로 자른 모양이다. 방패 손잡이에 손가락을 넣듯 손가락을 통과시킬 수 있게 만들었다. 도약용 추는 이런 모양이다. 아곤의 상 옆에는 디오니소스, 트라케인 오르페우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한 제우스상이 있다. 아르고스의 디오니시오스의 작품이다. 미키토스가 이 밖에도 다른 봉헌물들을 세웠으며 네로가 가져간 보물들 가운데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5.26.4]** 조각가들은 아르고스 태생의 디오니시오스와 글라우코스였다고 하나, 그들의 스승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들이 살았던 때는 올림피아에 작품들을 봉헌한 미키토스의 시대로 알 수 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미키토스는 아낙실라스가 레기온의 참주였을 때 그의 노예이자 재산 관리인이 되었다. 뒤에 아낙실라스가 죽자 테게아로 떠났다.

**[5.26.5]** 봉헌물의 명문은 미키토스의 아버지가 코이로스이며, 그의 고향은 해협에 자리한 그리스 도시 레기온과 메세네라고 한다. 그가 테게아에 살았다고도 한다. 그의 아들이 몸을 쇠약하게 하는 병에 걸렸을 때, 아들이 나으면 봉헌하겠다고 맹세했다. 올림피아의 봉헌물들은 그 맹세를 이행하여 바친 것이다.

**[5.26.6]** 아르고스인 글라우코스가 만든 미키토스의 큰 봉헌물들 가까이에는 투구를 쓰고 아이기스를 두른 아테나상이 서 있다. 마이나로스의 니코다모스가 만들었으나 봉헌한 것은 엘리스인들이다. 아테나 곁에는 승리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다. 만티네이아인들이 바쳤는데, 명문에는 어느 전쟁으로 얻은 것인지 적지 않았다. 칼라미스가 아테네에서 '날개 없는 승리의 여신'이라 부르는 목조 신상을 본떠 날개 없이 만들었다고 한다.

**[5.26.7]** 디오니시오스가 만든 미키토스의 작은 봉헌물들 곁에는 헤라클레스의 공적 몇 가지가 표현되어 있다. 네메아의 사자와 히드라, 하데스의 개, 에리만토스강 가의 멧돼지에게 한 일들이다. 헤라클레이아 사람들이 이웃 이민족인 마리안디노이의 땅을 휩쓴 뒤 올림피아에 가져온 것들이다. 헤라클레이아는 흑해 연안에 세운 도시로 메가라의 식민시다. 다만 보이오티아의 타나그라 사람들도 이주에 참여했다. periegesis.abm.uu.se

## 제27장

**[5.27.1]** 지금 열거한 봉헌물들 맞은편에는 다른 봉헌물들이 줄지어 있다. 남쪽을 향하고 있으며 성역에서 펠롭스에게 바쳐진 부분에 아주 가깝다. 그중에는 마이나로스 사람 포르미스가 바친 것들이 있다. 그는 데이노메네스의 아들 겔론을 섬기려고 마이나로스에서 시켈리아로 건너갔다. 겔론의 원정에서, 뒤에는 그의 형제 히에론의 원정에서 두각을 나타내 크게 번성했다. 그래서 올림피아의 이 봉헌물들뿐 아니라 델포이의 아폴론에게도 다른 봉헌물들을 바쳤다.

**[5.27.2]** 올림피아에 바친 것은 말 두 필과 전차를 모는 두 사람으로, 말마다 곁에 한 사람씩 서 있다. 첫째 말과 인물은 아르고스의 디오니시오스가, 둘째 것은 아이기나의 시몬이 만들었다. 첫째 말 옆구리에는 명문이 있는데, 첫 부분에는 운율이 없다. 이렇게 적혀 있다.

> 포르미스가 나를 바쳤다. 그는 아르카디아의 마이나로스 사람이며, 지금은 시라쿠사이 사람이다.

**[5.27.3]** 엘리스인들은 이 말에 **히포마네스**, 곧 말을 미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 이 말의 그런 성질이 주술의 솜씨에서 비롯되었음은 누구에게나 분명하다. 크기와 아름다움은 알티스 안에 서 있는 다른 어떤 말보다도 훨씬 못하다. 게다가 꼬리를 잘라 놓아 형상이 한층 더 못생겼다. 그런데도 수말들은 봄뿐만 아니라 어느 날이든 이 말을 보면 발정한다.

**[5.27.4]** 실제로 수말들은 매인 끈을 끊거나 말을 돌보는 사람에게서 벗어나 알티스로 달려들어, 아무리 아름다운 살아 있는 암말보다도 이 말에 더 미친 듯이 올라탄다. 발굽이 미끄러지는데도 갈수록 더 크게 울며 더 거센 욕정으로 뛰어오른다. 채찍을 쓰고 억지로 몰아내야만 그 청동 말에서 떼어 놓을 수 있다.

**[5.27.5]** 내가 리디아에서 직접 본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다. 포르미스의 말과는 다르지만 주술이 관계된 점은 같다. '페르시아인'이라고 불리는 리디아인들은 히에로카이사레이아라는 도시와 히파이파에 성소를 두고 있다. 성소마다 방이 하나 있으며, 그 방의 제단 위에는 재가 있다. 그런데 그 재는 보통 재와 빛깔이 다르다.

**[5.27.6]** 주술사가 방에 들어가 마른 나무를 제단에 쌓는다. 먼저 머리에 티아라를 쓰고, 그리스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 말로 어느 신을 부르는 노래를 부른다. 책을 보고 부른다. 그러면 따로 불을 붙이지 않아도 나무에 불이 붙어, 밝은 불길이 거기서 솟아오른다.

**[5.27.7]** 이 이야기는 이만하면 되겠다. 이 봉헌물들 가운데에는 포르미스 자신이 적 한 사람과 맞선 모습이 있고, 이어 두 번째 적과 싸우는 모습, 다시 세 번째 적과 싸우는 모습이 있다. 그 위에는 싸우는 병사가 마이나로스의 포르미스이며 봉헌한 이는 시라쿠사이의 리코르타스라고 새겨져 있다. 리코르타스가 포르미스와의 우정 때문에 바친 것이 분명하다. 그리스인들은 리코르타스가 바친 이 상들도 포르미스의 봉헌물이라 부른다.

**[5.27.8]** 투구를 쓰고 옷과 망토를 걸친 채 겨드랑이에 숫양을 끼고 있는 헤르메스상은, 아르카디아의 페네오스 사람들이 신에게 바친 것이다. 포르미스의 봉헌물은 아니다. 명문에는 아이기나의 오나타스가 칼리텔레스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다고 한다. 내 생각에 칼리텔레스는 오나타스의 제자나 아들이었다. 페네오스 사람들의 봉헌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전령의 지팡이를 든 또 다른 헤르메스상이 있다. 명문에는 레기온 혈통의 글라우키아스가 봉헌하고 엘리스의 칼론이 만들었다고 새겨져 있다. Humanitext Reader

**[5.27.9]** 청동 소 두 마리 가운데 하나는 코르키라인들이 바쳤고 다른 하나는 에레트리아인들이 바쳤다. 조각가는 에레트리아의 필레시오스였다. 코르키라인들이 어째서 올림피아에 소 한 마리를, 델포이에 또 한 마리를 바쳤는지는 포키스를 다룰 때 설명하겠다. 올림피아의 봉헌물에 관해서는 다음 이야기를 들었다.

**[5.27.10]** 한 어린아이가 이 소 아래에서 고개를 땅으로 숙인 채 앉아 놀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드는 바람에 청동상에 머리를 부딪쳐 깨졌으며, 며칠 뒤 그 상처로 죽었다. 엘리스인들은 소에게 살인의 죄가 있다고 하여 알티스 밖으로 치우려 했다. 그러나 델포이의 신은 그리스인들이 뜻하지 않게 피를 흘린 경우에 치르는 정결례를 그 상에 행한 뒤, 봉헌물을 있던 자리에 두라고 신탁을 내렸다.

**[5.27.11]** 알티스에서 성역의 거의 한가운데에 있는 플라타너스 아래에는 청동 전승 기념물이 있다. 기념물의 방패에는 엘리스인들이 라케다이몬인들을 이겼다는 표지로 이것을 세웠다고 새겨져 있다. 내가 사는 시대에 헤라 신전의 지붕을 수리하다가 무장한 채 누워 있는 모습으로 발견된 전사는 바로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

**[5.27.12]** 트라케의 멘데 사람들이 바친 상을 보고 나는 하마터면 오종 경기 선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믿을 뻔했다. 이 상은 엘리스인 아나우키다스의 상 옆에 서 있으며, 옛 모양의 도약용 추를 들고 있다. 넓적다리에는 다음 두 줄의 시가 새겨져 있다.

> 신들의 왕 제우스에게 전리품의 첫 몫으로 내가 여기에 놓였다.
> 힘으로 십테를 굴복시킨 멘데 사람들이 나를 바쳤다.

십테는 트라케의 요새이자 도시인 듯하다. 멘데 사람들은 이오니아에서 온 그리스 혈통이며, 아이노스시 곁의 바다에서 얼마간 떨어진 내륙에 산다. periegesis.abm.uu.se

# 제6권 엘리스 II

## 제1장

**[6.1.1]** 봉헌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마쳤으니, 이제 경주마의 상과 사람들의 상을 언급해야겠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운동선수도 있고 그 밖의 사람도 있다. 올림피아 경기의 우승자가 모두 자기 상을 세운 것은 아니다. 경기에서나 다른 공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도 상이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

**[6.1.2]** 이런 사람들은 저술의 성격상 빼놓을 수밖에 없다. 이 글은 올림피아에서 우승한 선수들의 명단이 아니라 상들과 여러 봉헌물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상을 세운 사람들 가운데서도 모두를 기록하지는 않겠다. 힘보다 제비뽑기의 운으로 야생 올리브관을 얻은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이름을 떨친 사람들이나 다른 상들보다 특별히 잘 만든 상의 주인공들만 언급하겠다.

**[6.1.3]** 헤라 신전 오른쪽에는 아이스킬로스의 아들인 씨름 선수 심마코스의 상이 있다. 그는 엘리스 태생이었다. 곁에는 아르카디아의 페네오스 출신으로, 프로크세노스의 아들인 네올라이다스의 상이 있다. 그는 소년 권투에서 우승했다. 다음은 크세니오스의 아들 아르케다모스다. 그도 엘리스 태생으로, 심마코스와 마찬가지로 소년 씨름에서 경쟁자들을 이겼다. 지금 언급한 선수들의 상은 아르고스의 나우키데스에게서 배운 시키온의 알리포스가 만들었다.

**[6.1.4]** 실레노스의 아들 클레오게네스의 상에 새긴 명문에는 그가 이 지방 사람이며 자기 마구간에서 기른 승용마로 상을 받았다고 적혀 있다. 클레오게네스 바로 가까이에는 피로스의 아들 데이놀로코스와 알키노오스의 아들 트로일로스의 상이 세워져 있다. 두 사람 모두 엘리스 태생이지만 우승한 종목은 서로 다르다. 트로일로스는 올림피아 경기의 심판인 헬라노디케스를 맡고 있을 때 전차 경주에서 두 번 우승했다. 한 번은 다 자란 말 두 필이 끄는 전차로, 또 한 번은 어린 말들이 끄는 전차로 이겼다. 그의 우승은 제102회 올림피아 경기에서였다. Humanitext Reader

**[6.1.5]** 이 일이 있은 뒤 엘리스인들은 앞으로 헬라노디케스는 전차 경주에 참가할 수 없다는 법을 정했다. 트로일로스의 상은 리시포스가 만들었다. 데이놀로코스의 어머니는 꿈에 품에 안은 아들이 머리에 관을 쓴 것을 보았다. 이 때문에 데이놀로코스는 경기에 나가려고 훈련을 받았고 소년 달리기에서 다른 이들을 앞질렀다. 상을 만든 사람은 시키온의 클레온이다.

**[6.1.6]** 아르키다모스의 딸 키니스카의 가계와 올림피아에서 거둔 승리는 라케다이몬의 왕들을 다루면서 이미 이야기했다. 올림피아에서 트로일로스의 상 곁에는 돌 받침대가 놓여 있다. 그 위에는 전차와 말들, 전차를 모는 사람, 키니스카 자신의 상이 있다. 아펠라스의 작품이다. 키니스카에 관한 명문도 있다.

**[6.1.7]** 키니스카 곁에도 라케다이몬인들의 상이 세워져 있다. 그들은 전차 경주에서 우승했다. 아낙산드로스는 집안에서 처음 전차 경주의 우승자로 선포된 사람이다. 그에게 붙은 명문에는 그보다 앞서 친할아버지가 오종 경기에서 관을 받았다고 한다. 아낙산드로스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세로 표현되어 있다. 폴리칼코스라는 별칭을 얻은 폴리클레스도 말 네 필이 끄는 전차로 우승했다. 그의 상은 오른손에 띠를 들고 있다.

**[6.1.8]** 그의 곁에는 아이가 둘 있다. 한 아이는 바퀴를 들고, 다른 아이는 띠를 달라고 한다. 폴리클레스의 상에 새긴 글에 따르면 그는 피토와 이스트모스와 네메아에서도 전차 경주에 우승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장

**[6.2.1]** 판크라티온 선수의 상은 리시포스가 만들었다. 이 선수는 스트라토스에서뿐 아니라 아카르나니아 전체에서 처음으로 판크라티온에 우승했다. 필란드리데스의 아들 크세나르케스였다. 페르시아의 침입이 있은 뒤 라케다이몬인들은 다른 어느 그리스인보다 열심히 말을 길렀다. 앞서 언급한 사람들 외에, 아카르나니아의 선수 크세나르케스의 상 다음에는 스파르타의 말 사육자 리키노스, 아르케실라오스, 그리고 아르케실라오스의 아들 리카스의 상이 세워져 있다.

**[6.2.2]** 크세나르케스는 델포이와 아르고스와 코린토스에서도 우승했다. 리키노스는 어린 말들을 올림피아에 데려왔다. 그중 하나가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자 자기 어린 말들을 다 자란 말들의 경주에 내보내 우승했다. 그는 올림피아에 상 두 개도 봉헌했다. 아테네인 미론의 작품이다. 아르케실라오스와 아들 리카스 가운데 아버지는 올림피아에서 두 번 우승했다. 아들은 당시 라케다이몬인들이 경기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므로, 자기 전차를 테바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출전시켰다. 그리고 우승한 전차를 몬 사람에게 자기 손으로 띠를 매주었다. 이 일로 그는 헬라노디카이에게 매를 맞았다.

**[6.2.3]** 이 리카스의 일로 라케다이몬인들은 아기스 왕의 치세에 엘리스를 침공했다. 그때 알티스 안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전쟁이 끝나자 리카스는 이곳에 상을 세웠으나, 엘리스의 올림피아 우승자 기록에는 리카스가 아니라 테바이 사람들이 우승자로 올라 있다.

**[6.2.4]** 리카스 가까이에는 엘리스의 점술가 트라시불로스의 상이 서 있다. 그는 이아모스 가문에 속한 아이네이아스의 아들이었다. 에우다미다스의 아들 아기스 왕이 이끄는 라케다이몬인들을 상대로 만티네이아인들이 싸울 때, 만티네이아인들을 위해 점을 쳤다. 이 일에 관해서는 아르카디아를 다룰 때 더 이야기하겠다. 트라시불로스상에는 얼룩무늬 도마뱀이 그의 오른쪽 어깨를 향해 기어오르고 있다. 그 곁에는 개 한 마리가 배가 갈려 간이 드러난 채 누워 있다. 제물로 바친 것이 분명하다.

**[6.2.5]** 새끼 염소나 어린 양이나 송아지로 점을 치는 일은 예로부터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아 온 것으로 누구나 안다. 키프로스 사람들은 돼지로 점치는 법까지 알아냈다. 그러나 개를 점치는 데 쓰는 관습이 있는 민족은 없다. 그러므로 트라시불로스는 개의 내장으로 점치는 자기만의 방식을 마련한 듯하다. 이아미다이라고 불리는 점술가들은 이아모스의 후손

이다. 핀다로스는 어느 노래에서 이아모스가 아폴론의 아들이며 아폴론에게서 점술의 재능을 받았다고 말한다.

**[6.2.6]** 트라시불로스의 상 곁에는 소년 달리기의 우승자인 엘리스인 티모스테네스와, 소년 권투에서 이긴 밀레토스인 안티파트로스의 상이 있다. 안티파트로스는 클레이노파테르의 아들이었다. 디오니시오스가 바치는 제물을 올림피아로 가져온 시라쿠사이 사람들은 안티파트로스의 아버지를 매수하여 그의 아들이 시라쿠사이 사람으로 선포되게 하려 했다. 그러나 안티파트로스는 참주의 선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자신이 밀레토스 사람이라고 밝혔으며, 자기 상에 자신은 밀레토스 혈통으로 이오니아인 가운데 처음으로 올림피아에 자신의 상을 봉헌했다고 적었다.

**[6.2.7]** 이 상의 조각가는 폴리클레이토스였다. 티모스테네스상은 리시포스의 제자인 시키온의 에우티키데스가 만들었다. 이 에우티키데스는 오론테스강 가에 사는 시리아인들을 위해 행운의 여신 티케의 상도 만들었다. 그 지방 사람들은 그 상을 매우 귀하게 여긴다.

**[6.2.8]** 알티스에서 티모스테네스 곁에는 티몬과 그 아들 아이시포스의 상이 있다. 아들은 말을 타고 있는 어린아이로 나타냈다. 실제로 그 아이는 말을 타는 경주에서 이겼으며 티몬은 전차 경주의 우승자로 선포되었다. 티몬과 그의 아들의 상은 시키온의 다이달로스가 만들었다. 스파르타인들을 이긴 일을 기념하여 엘리스인들이 알티스 안에 세운 전승 기념물도 그가 만들었다.

**[6.2.9]** 사모스 출신 권투 선수의 상에 새긴 글에는, 그의 체육 교사 미콘이 그 상을 봉헌했으며 운동선수와 해전에서는 사모스 사람들이 이오니아인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적혀 있다. 명문이 말하는 것은 이뿐이다. 권투 선수 자신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는다.

**[6.2.10]** 그 곁에는 열두 살에 올림피아 경기에서 우승한 메세니아인 다미스코스의 상이 있다. 나는 메세니아인들이 펠로폰네소스에서 쫓겨나 있는 동안 올림피아 경기에서 운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몹시 놀랐다. 해협가의 메세네에서 온 레온티스코스와 심마코스를 제외하면, 시켈리아에서 왔든 나우팍토스에서 왔든 올림피아에서 이긴 메세니아인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시켈리아 사람들에 따르면 이 두 사람마저 메세니아 혈통이 아니라 옛 잔클레 혈통이었다.

**[6.2.11]** 그러나 메세니아인들이 펠로폰네소스로 돌아오자 올림피아 경기에서의 행운도 함께 돌아왔다. 메세네가 다시 세워진 이듬해에 엘리스인들이 연 축제에서 바로 이 다미스코스가 소년 달리기에서 우승했다. 그는 뒤에 네메아와 이스트모스 양쪽에서 오종 경기에도 우승했다. Pausanias ′ Description of Greece

## 제3장

**[6.3.1]** 다미스코스의 상 바로 곁에 또 다른 사람의 상이 서 있다. 누구인지는 알려 주지 않으나, 이 상을 봉헌한 이는 라고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의 왕이었지만 명문에서는 자신을 마케도니아인이라 부른다. 시키온의 소년 권투 선수 카이레아스의 상에는 그가 어린 나이에 우승했고 아버지는 카이레몬이었다고 적혀 있다. 상을 만든 이의 이름도 새겨져 있다. 아이스킬로스의 아들 아스테리온이다.

**[6.3.2]** 카이레아스 다음에는 메세니아의 소년 소피오스와 엘리스의 스토미오스의 상이 있다. 소피오스는 소년 달리기에서 다른 주자들을 앞질렀고, 스토미오스는 오종 경기에서 올림피아에서 한 번, 네메아에서 세 번 우승했다. 스토미오스상의 명문에는 그가 엘리스의 기병을 지휘할 때 전승 기념물들을 세웠고, 자신에게 결투를 청한 적장을 일대일로 싸워 죽였다고도 적혀 있다.

**[6.3.3]** 엘리스인들은 죽은 적장이 시키온 태생으로 시키온군을 지휘했다고 한다. 또 자기들이 테바이인들과의 우호 관계 때문에 보이오티아 병력과 함께 시키온을 공격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엘리스인들과 테바이인들이 시키온을 공격한 것은 라케다이몬인들이 레욱트라에서 참패한 뒤였던 듯하다.

**[6.3.4]** 그다음에는 엘리스 지방 레프레우스의 권투 선수인 에우프론의 아들 라박스의 상과, 엘리스시 출신의 권투 선수인 트라시스의 아들 아리스토데모스의 상이 서 있다. 아리스토데모스는 피토에서도 두 번 이겼다. 그의 상은 파트로클레스의 아들이자 제자인 시키온의 다이달로스가 만들었다.

**[6.3.5]** 소년 권투에 우승한 엘리스인 히포스의 상은 시키온의 다모크리토스가 만들었다. 그는 아티카의 크리티아스에게서 네 세대 아래로 이어지는 조각가다. 크리티아스가 코르키라의 프톨리코스를 가르쳤고, 프톨리코스의 제자 암피온은 칼라우레이아의 피손을 가르쳤다. 다모크리토스의 스승이 바로 이 피손이었다.

**[6.3.6]** 아카이아의 아이게이라 출신 크라티노스는 당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자 가장 솜씨 좋은 씨름 선수였다. 그가 소년 씨름에서 우승하자 엘리스인들은 그의 체육 교사의 상도 세우도록 허락했다. 상을 만든 이는 시키온의 칸타로스다. 아버지는 알렉시스였고, 스승은 에우티키데스였다.

**[6.3.7]** 엘리스인 에우폴레모스의 상은 시키온의 다이달로스가 만들었다. 명문에 따르면 에우폴레모스는 올림피아의 성인 달리기에서 이겼으며, 오종 경기로 피티아 경기에서 두 번, 네메아 경기에서 한 번 관을 받았다. 전하는 말로는 달리기 코스에 심판인 헬라노디카이 세 명이 서 있었다고 한다. 두 명은 에우폴레모스가 이겼다고 판정했고, 한 명은 암브라키아인 레온을 우승자로 선언했다. 레온은 올림피아 평의회에 호소하여 에우폴레모스에게 승리를 준 두 심판에게 각각 벌금을 물리게 했다고 한다.

**[6.3.8]** 아카이아인들은 델포이의 아폴론의 명에 따라 제80회 올림피아 경기 때 오이보타스의 상을 세웠다. 그러나 오이보타스가 달리기에서 우승한 것은 제6회 경기였다. 그렇다면 오이보타스가 어떻게 플라타이아이에서 그리스인들의 승리에 힘을 보탤 수 있었겠는가? 마르도니오스가 이끄는 페르시아인들이 플라타이아이에서 참패한 것은 제75회 올림피아 경기 주기였기 때문이다. 그리스인들이 하는 말을 전할 의무는 내게 있지만, 그 말을 모두 믿을 의무는 없다. 오이보타스의 나머지 행적은 아카이아를 다룰 때 덧붙이겠다.

**[6.3.9]** 안티오코스의 상은 니코다모스가 만들었다. 레프레우스 출신 안티오코스는 올림피아의 성인 판크라티온에서 한 번 이겼고, 이스트모스와 네메아의 오종 경기에서는 각각 두 번 이겼다. 레프레우스 사람들은 엘리스인들처럼 이스트모스 경기를 꺼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안티오코스의 상 가까이에 서 있는 엘리스인 히스몬은 올림피아와 네메아에

서 오종 경기에 우승했으나, 다른 엘리스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스트모스 경기에는 가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6.3.10]** 히스몬은 아직 소년이었을 때 근육에 병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힘든 운동으로 병에서 벗어나 건강한 몸을 얻으려고 오종 경기를 익혔다. 그 훈련 덕분에 경기에서 이름난 승리까지 거두었다. 그의 상은 클레온의 작품이며, 손에는 옛 모양의 도약용 추를 들고 있다.

**[6.3.11]** 히스몬 다음에는 아르카디아의 헤라이아 출신 소년 씨름 선수, 크세노클레이데스의 아들 니코스트라토스의 상이 있다. 판티아스가 이 상을 만들었다. 스승의 계보를 세어 보면 판티아스와 시키온의 아리스토클레스 사이에는 다섯 사람이 있다. 칼리브로토스의 아들 디콘은 달리기에서 피토에서 다섯 번, 이스트모스에서 세 번, 네메아에서 네 번 우승했다. 올림피아에서는 소년 달리기에서 한 번, 성인 달리기에서 두 번 우승했다. 올림피아에 세운 그의 상은 그곳에서 이긴 횟수와 같다. 소년 시절에는 실제 고향인 카울로니아 출신으로 선포되었으나, 뒤에는 돈을 받고 시라쿠사이 사람이라고 했다.

**[6.3.12]** 카울로니아는 아카이아인들이 이탈리아에 세운 식민시이며, 건국자는 아이기온의 티폰이었다. 아이아키데스의 아들 피로스와 타라스인들이 로마인들과 싸울 때, 이탈리아의 도시 여럿이 로마인들이나 에페이로스인들에게 파괴되었다. 카울로니아도 그중 하나였다. 로마 측 동맹군 가운데 가장 큰 병력을 낸 캄파니아인들이 그곳을 점령하여 완전히 황폐하게 했다.

**[6.3.13]** 디콘 가까이에는 아카이아의 아이기온 출신 판크라티온 선수, 메네필로스의 아들 크세노폰의 상이 있다. 장거리 달리기에 우승한 에페소스의 피릴람페스의 상도 있다. 크세노폰의 상은 올림포스가 만들었다. 피릴람페스의 상은 선수와 이름이 같은 조각가가 만들었는데, 그는 시키온 사람이 아니라 이토메산 아래 메세네 출신이다.

**[6.3.14]** 사모스인들은 스파르타인 아리스토크리토스의 아들 리산드로스의 상을 올림피아에 봉헌했다. 그들의 첫 명문은 이러하다.

> 높은 곳을 다스리시는 제우스의 이름난 성역에 내가 서 있다.
> 사모스인들이 나라의 비용으로 나를 봉헌했다.

이 명문은 누가 상을 봉헌했는지를 알려 준다. 그다음 명문은 리산드로스 자신을 찬양한다.

> 리산드로스여, 그대는 공을 세워 조국과 아리스토크리토스에게
> 불멸의 영광을 안겼고, 그 용맹으로 이름을 떨쳤다.

**[6.3.15]** 이처럼 ‘사모스인들과 나머지 이오니아인들’은, 이오니아인들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양쪽 벽에 다 칠한 셈이다. 알키비아데스가 이오니아 해안에서 아테네의 강력한 삼단노선 함대를 거느릴 때는 이오니아인 대부분이 그에게 환심을 사려 했다. 사모스인들이 헤라 성소에 봉헌한 알키비아데스의 청동상도 있다. 그러나 아이고스포타모이에서 아테네의 배들이 나포되자 사모스인들은 올림피아에 리산드로스의 상을 세웠다. 에페소스인들

은 아르테미스 성소에 리산드로스의 상뿐 아니라 에테오니코스와 파락스, 그리고 그리스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스파르타인들의 상까지 세웠다.

**[6.3.16]** 그러나 운이 다시 바뀌어 코논이 크니도스와 도리온이라 불리는 산 앞바다에서 벌인 해전에 이기자, 이오니아인들도 생각을 바꾸었다. 사모스의 헤라 성소와 에페소스의 여신 성소 두 곳에서 코논과 티모테오스의 청동상을 볼 수 있다. 늘 이러하다. 이오니아인들도 세상 누구나 하듯 힘센 이에게 환심을 살 뿐이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4장

**[6.4.1]** 리산드로스의 상 다음에는 소년 권투에서 경쟁자들을 이긴 에페소스인 아테나이오스의 상과 시키온의 판크라티온 선수 소스트라토스의 상이 있다. 소스트라토스의 별칭은 아크로케르시테스였다. 그는 상대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상대가 항복하는 것을 볼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6.4.2]** 그는 네메아와 이스트모스에서 합쳐 열두 번, 올림피아에서 세 번, 피토에서 두 번 우승했다. 소스트라토스가 처음 우승한 제104회 올림피아 경기는 엘리스인들이 정식 회차로 세지 않는다. 자기들이 아니라 피사인들과 아르카디아인들이 경기를 열었기 때문이다.

**[6.4.3]** 소스트라토스 곁에는 성인 씨름 선수 레온티스코스의 상이 있다. 시켈리아에서 해협가의 메세네 출신이다. 그는 암픽티온 동맹에게서 한 번, 엘리스인들에게서 두 번 우승관을 받았다고 한다. 그의 씨름 방식은 시키온의 소스트라토스가 판크라티온에서 쓰던 방식과 비슷했다. 레온티스코스는 상대를 넘어뜨리는 법을 몰랐고 손가락을 꺾어 이겼다고 한다.

**[6.4.4]** 이 상은 레기온의 피타고라스가 만들었다. 그야말로 뛰어난 조각가였다. 그 역시 레기온 태생인 클레아르코스에게서 배웠다고 한다. 클레아르코스는 에우케이로스의 제자였다. 에우케이로스는 코린토스인으로, 스파르타 사람인 시아드라스와 카르타스에게 배웠다고 한다.

**[6.4.5]** 머리에 띠를 매고 있는 소년상은 페이디아스와 그의 뛰어난 조각 솜씨 때문에 언급해야 한다. 다만 페이디아스가 누구의 모습을 새겼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아모스 가문의 엘리스인 사티로스는 리시아낙스의 아들로, 권투에서 네메아에서 다섯 번, 피토에서 두 번, 올림피아에서 두 번 이겼다. 그의 상은 아테네인 실라니온이 만들었다. 아티카의 또 다른 조각가 폴리클레스는 아테네인 스타디에우스의 제자였다. 그는 헬라니코스의 아들로 에페소스의 소년 판크라티온 선수인 아민타스의 상을 만들었다.

**[6.4.6]** 파트라이 출신의 아카이아인 킬론은 성인 씨름에서 올림피아에서 두 번, 델포이에서 한 번, 이스트모스에서 네 번, 네메아에서 세 번 우승했다. 그는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아카이아인들은 나라의 비용으로 그를 장사 지냈다. 올림피아에 새겨진 이 글이 내 말을 증언한다.

> 오직 씨름에서 나는 홀로 올림피아와 피토의 장정들을 두 번 이겼고,
> 네메아에서 세 번, 바닷가 이스트모스에서 네 번 이겼다.

> 나는 파트라이 사람, 킬론의 아들 킬론이다. 아카이아 사람들은
> 내가 전투에서 죽자 나의 용맹을 기려 나를 묻어 주었다.

**[6.4.7]** 명문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상을 만든 리시포스의 시대를 근거로 킬론이 어느 전쟁에서 죽었는지 추론할 수 있다. 그는 아카이아인 전체와 함께 카이로네이아로 진군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용기와 대담함 때문에 아카이아인 가운데 홀로 테살리아의 라미아 전투에서 안티파트로스가 이끄는 마케도니아인들과 싸웠을 것이다.

**[6.4.8]** 킬론 다음에는 상 두 개가 세워져 있다. 하나는 몰피온이라는 사람의 상으로, 명문에 따르면 엘리스인들에게서 관을 받았다. 다른 상에는 명문이 없으나, 트라케의 스타게이라 출신 아리스토텔레스를 나타낸 것이라고 전한다. 제자 가운데 하나가 세웠거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안티파트로스에게, 그보다 앞서 알렉산드로스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아는 어느 군인이 세웠다고 한다.

**[6.4.9]** 이다산 기슭의 도시인 트로아스의 아소스 출신 소다마스는 이 지방의 아이올리스인 가운데 처음으로 올림피아의 소년 달리기에 우승했다. 소다마스 곁에는 아게실라오스의 아들이자 라케다이몬의 왕인 아르키다모스가 서 있다. 내가 알아본 바로는 이 아르키다모스 이전에 라케다이몬인들이 적어도 나라 밖에 왕의 상을 세워 준 일은 없다. 그들이 아르키다모스의 상을 올림피아로 보낸 주된 이유는 그의 죽음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외국 땅에서 죽었고,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고 알려진 스파르타의 유일한 왕이다.

**[6.4.10]** 이 일은 스파르타를 다룰 때 더 자세히 이야기했다. 키지코스의 에우안테스는 올림피아의 성인 권투에서 상을 받았으며, 네메아와 이스트모스에서는 소년 권투에서 상을 받았다. 에우안테스 곁에는 말을 기르는 사람의 상과 그의 전차가 있으며, 전차에는 어린 처녀가 타고 있다. 남자의 이름은 람포스이며, 고향은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늦게 세워진 도시였다. 아민타스의 아들인 건국자 필리포스의 이름을 딴 도시다.

**[6.4.11]** 만티네이아의 소년 권투 선수 키니스코스의 상은 폴리클레이토스가 만들었다. 필라노르의 아들 에르고텔레스는 장거리 달리기에서 올림피아에서 두 번, 피토와 이스트모스와 네메아에서도 각각 두 번 우승했다. 상의 명문에는 그가 본래 히메라 출신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정확하지 않으며, 그가 크레타의 크노소스 사람이었다고 한다. 정파의 다툼으로 크노소스에서 쫓겨나 히메라로 왔고, 시민권을 받고 그 밖에도 여러 영예를 얻었다. 그러므로 경기에서 히메라 출신으로 선포된 것은 자연스럽다. periegesis.abm.uu.se

## 제5장

**[6.5.1]** 높은 받침대 위의 상은 리시포스의 작품이다. 이른바 영웅들과, 혹 그 영웅들보다 먼저 살았을 다른 인간 종족을 빼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힘센 이를 나타낸 것이다. 니키아스의 아들 폴리다마스가 바로 우리 시대의 인간들 가운데 가장 힘센 사람이다.

**[6.5.2]** 폴리다마스의 고향 스코투사에는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다. 페라이의 참주 알렉산드로스가 휴전 중에 그 도시를 점령했기 때문이다. 마침 시민들이 회의를 열고 있었다. 참주는 극장에 모인 사람들을 가벼운 방패를 든 병사들과 궁수들로 둘러싸 모두 쏘아 죽였다.

나머지 장정들도 모조리 죽였으며, 여자들과 아이들은 용병들에게 줄 돈을 마련하려고 노예로 팔았다.

**[6.5.3]** 이 재앙이 스코투사에 닥친 때는 아테네에서 프라시클레이데스가 아르콘이던 해였다. 투리오이의 다몬이 두 번째로 우승한 제102회 올림피아 경기 주기의 둘째 해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그러나 뒤에 마케도니아와의 전쟁에서 신이 두 번째 재앙을 내리자, 그들도 빈곤을 견디지 못해 도시를 떠나야 했다.

**[6.5.4]** 판크라티온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둔 사람은 또 있다. 그러나 폴리다마스는 판크라티온에서 받은 상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른 종류의 공적을 세웠다. 압데라의 땅을 지나는 네스토스강 이쪽의 트라케 산지에는 여러 들짐승과 함께 사자도 산다. 이 사자들은 한때 크세르크세스의 군대를 덮쳐 보급품을 나르던 낙타들을 물어뜯었다.

**[6.5.5]** 이 사자들은 자주 올림포스산 둘레의 땅까지 돌아다닌다. 산의 한쪽은 마케도니아를, 다른 쪽은 테살리아와 페네이오스강을 향한다. 바로 이 올림포스산에서 폴리다마스는 크고 힘센 사자 한 마리를 아무 무기도 쓰지 않고 죽였다. 전설에 따르면 헤라클레스도 네메아에서 사자를 쓰러뜨렸으므로, 그 과업에 견줄 일을 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6.5.6]** 폴리다마스에게는 이 밖에도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있다. 그는 소 떼 사이에 들어가 가장 크고 사나운 황소의 뒷발 하나를 붙잡았다. 황소가 뛰고 몸부림쳐도 발굽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마침내 황소는 온 힘을 다해 달아났으나 발굽은 폴리다마스의 손에 남았다. 또 그는 전차를 매우 빠르게 몰고 가던 사람을 멈춰 세웠다고 한다. 한 손으로 전차의 뒷부분을 붙잡아 말들과 전차를 모는 사람을 모두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6.5.7]**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서자 다레이오스는 페르시아 민중의 도움으로 적자인 소그디오스를 몰아내고 그 대신 왕위에 올랐다. 왕이 된 그는 폴리다마스의 공적을 듣고, 선물을 주겠다고 전령들을 보내 그를 설득하여 수사의 자기 앞에 오게 했다. 그곳에서 폴리다마스는 '불사대'라 불리는 페르시아인 가운데 세 사람을 상대로 홀로 싸워 그들을 죽였다. 지금 열거한 공적 가운데 어떤 것은 올림피아의 상 받침대에 표현되어 있고, 어떤 것은 명문에 적혀 있다. Icarus Atlas

**[6.5.8]** 그러나 힘을 자랑하는 이들을 두고 호메로스가 내다본 일은 폴리다마스에게도 이루어졌다. 그 역시 자신의 힘 때문에 죽을 운명이었다. 폴리다마스가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동굴에 들어갔을 때였다. 여름이었는데, 운 나쁘게도 동굴 천장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오래 버티지 못하고 곧 무너질 것이 분명했다.

**[6.5.9]** 다가오는 재앙을 알아차린 다른 사람들은 몸을 돌려 달아났다. 그러나 폴리다마스는 그 자리에 남기로 했다. 두 손을 치켜들면 동굴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산에 깔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폴리다마스는 여기서 최후를 맞았다. periegesis.abm.uu.se

## 제6장

**[6.6.1]** 올림피아의 폴리다마스상 곁에는 아르카디아 선수 두 명과 아티카 선수 한 명이 서 있다. 소년 권투에서 우승한 만티네이아인 디알케스의 아들 프로톨라오스의 상은 레기온의

피타고라스가 만들었다. 피갈리아의 씨름 선수인 다마레토스의 아들 나리키다스의 상은 시키온의 다이달로스가 만들었으며, 아테네의 판크라티온 선수 칼리아스의 상은 아테네의 화가 미콘의 작품이다. 마이나로스 출신 니코다모스는 같은 고향의 판크라티온 선수 안드로스테네스의 상을 만들었다. 그는 로카이오스의 아들로, 성인부에서 두 번 이겼다.

**[6.6.2]** 이들 곁에는 로도스 태생이며 디아고라스 가문에 속한 칼리아낙스의 아들 에우클레스의 상이 세워져 있다. 디아고라스의 딸에게서 태어난 그는 올림피아의 성인 권투에서 이겼다. 그의 상은 나우키데스의 작품이다. 아르고스의 폴리클레이토스는 테바이의 소년 씨름 선수 아게노르의 상을 만들었다. 이 폴리클레이토스는 헤라상을 만든 이가 아니라 나우키데스의 제자다. 이 상은 포키스 연맹이 봉헌했다. 아게노르의 아버지 테오폼포스가 포키스인들의 공적인 우호 인사였기 때문이다.

**[6.6.3]** 마이나로스의 조각가 니코다모스는 같은 고향의 권투 선수 다목세니다스의 상을 만들었다. 소년 씨름에서 관을 받은 엘리스인 라스트라티다스의 상도 서 있다. 그는 네메아에서도 소년부에서 한 번, 아직 수염이 나지 않은 청년부에서 또 한 번 이겼다. 라스트라티다스의 아버지 파라발론은 두 스타디온 달리기에서 일등을 했다. 그는 올림피아의 체육장에 올림피아 우승자들의 이름을 써 붙여 후대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 할 목표를 남겼다.

**[6.6.4]** 이들에 관한 이야기는 이만하면 되겠다. 그러나 권투 선수 에우티모스와 그의 승리, 그리고 그 밖의 영광을 지나치는 것은 옳지 않다. 에우티모스는 제피리온이라 불리는 곳 부근에 사는 이탈리아의 로크리스인으로, 아스티클레스의 아들이라 불렸다. 그러나 지방 전설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아스티클레스가 아니라 카이키노스강이라고 한다. 이 강은 로크리스와 레기온의 땅을 가르며 매미에 관한 신기한 일을 보여 준다. 로크리스에서 카이키노스강까지 사는 매미는 다른 매미들과 마찬가지로 운다. 그러나 강 건너 레기온 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6.6.5]** 전승에 따르면 이 강이 에우티모스의 아버지였다. 에우티모스는 제74회 올림피아 경기에서 권투로 상을 받았으나, 다음 경기에서도 그렇게 잘되지는 않았다. 타소스의 테아게네스가 한 올림피아 경기에서 권투와 판크라티온의 상을 모두 받고 싶어 하여 권투에서 에우티모스를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우티모스와 싸우느라 이미 지쳐, 판크라티온에서 야생 올리브관을 받을 힘이 없었다.

**[6.6.6]** 심판들은 테아게네스에게 벌금을 물려 한 탈란톤은 신에게 바치고, 또 한 탈란톤은 에우티모스에게 준 손해를 갚게 했다. 그가 단지 에우티모스를 괴롭힐 생각으로 권투에 참가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우티모스 개인에게도 따로 배상금을 내도록 판결했다. 제76회 경기에서 테아게네스는 신에게 빚진 돈을 모두 냈고, 〔…〕 에우티모스에게 보상하는 뜻으로 권투에 나가지 않았다. 이 경기와 바로 다음 경기에서 에우티모스는 권투의 관을 받았다. 그의 상은 피타고라스가 손수 만든 것으로, 아주 볼 만하다.

**[6.6.7]** 이탈리아로 돌아온 에우티모스는 '영웅'과 싸웠다. 그 영웅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아를 함락한 뒤 떠돌아다니다가 거센 바람에 떠밀려 이탈리아와 시켈리아의 여러 도시에 닿았다고 한다. 그 가운데 테메사에도 배를 타고 왔다. 여기서 그의 선원 하나가 술에 취해 처녀를 욕보였으므로, 주민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

[6.6.8] 오디세우스는 그 선원을 잃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떠났다고 한다. 그러나 돌에 맞아 죽은 자의 혼령은 늙은이와 젊은이를 가리지 않고 덮쳐, 테메사 사람들을 계속 죽였다. 주민들이 이탈리아에서 아예 달아나기로 하자 피티아 여사제는 테메사를 떠나지 말라고 했다. 그 대신 영웅에게 성역을 떼어 주고 신전을 지어 달래며, 해마다 테메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아내로 주라고 명했다.

[6.6.9] 사람들은 신의 명령을 따랐고 더는 혼령이 일으키는 공포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런데 에우티모스가 마침 관례대로 혼령을 달래는 때에 테메사에 왔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 그는 신전에 들어가 보고 싶었고, 그 처녀도 몹시 보고 싶었다. 그녀를 보고 처음에는 가엾게 여겼으며, 뒤에는 사랑하게 되었다. 처녀는 자기를 구해 주면 그와 혼인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래서 에우티모스는 무장을 하고 혼령이 덮쳐 오기를 기다렸다.

[6.6.10] 에우티모스가 싸움에서 이겼다. 영웅은 그 땅에서 쫓겨나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아 사라졌다. 에우티모스는 성대한 혼례를 치렀고, 주민들은 혼령에게서 영원히 벗어났다. 에우티모스에 관한 다른 이야기도 들었다. 그는 아주 늙을 때까지 살았으며, 다시 한번 죽음을 피해 다른 방식으로 인간들 사이를 떠났다고 한다. 장사하러 배를 타고 그곳에 갔던 사람에게 들으니, 테메사에는 지금도 사람이 산다.

[6.6.11]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우연히 이 일을 다룬 그림도 보았다. 옛 그림을 베낀 것이었다. 시바리스라는 젊은이와 칼라브로스라는 강, 리카라는 샘이 있었다. 영웅 사당과 테메사시도 있으며, 한가운데에는 에우티모스가 쫓아낸 혼령이 있었다. 빛깔은 섬뜩할 만큼 검고 모습은 온통 무시무시했다. 늑대 가죽을 옷처럼 몸에 둘렀다. 그림에 적힌 글자는 그의 이름이 리카스임을 알려 주었다. periegesis.abm.uu.se

## 제7장

[6.7.1] 에우티모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그의 상 다음에는 만티네이아의 달리기 선수 피타르코스와 엘리스의 권투 선수 카르미데스가 서 있다. 두 사람 모두 소년부 경기에서 상을 받았다. 이 상들도 보고 나면 디아고라스와 그 집안에 속한 로도스 선수들의 상에 이른다. 그 상들은 다음 순서로 하나씩 봉헌되었다. 먼저 성인 권투에서 관을 받은 아쿠실라오스, 다음은 막내 도리에우스인데, 그는 올림피아 판크라티온에서 세 차례 연달아 우승했다. 도리에우스보다 앞서 다마게토스도 판크라티온 참가자들을 모두 이겼다.

[6.7.2] 이들은 디아고라스의 아들들로 서로 형제였다. 곁에는 성인 권투에서 우승한 디아고라스 자신의 상도 세워져 있다. 이 상은 메가라 사람 칼리클레스가 만들었다. 그는 메가라의 제우스상을 만든 테오코스모스의 아들이다. 디아고라스의 딸들이 낳은 아들들도 권투를 익혀 올림피아에서 우승했다. 성인부의 에우클레스는 칼리아낙스와 디아고라스의 딸 칼리파테이라의 아들이었다. 소년부의 페이시로도스는 어머니가 남자 체육 교사로 변장하여 몸소 올림피아 경기에 데리고 온 아이였다.

[6.7.3] 이 페이시로도스의 상도 알티스에 있으며 외할아버지 곁에 서 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디아고라스는 두 아들 아쿠실라오스와 다마게토스와 함께 올림피아에 왔다. 두 아들은 우승하자 아버지를 들어 올려 군중 사이로 지났다. 그리스인들은 그에게 꽃을 던지고

그런 아들들을 두어 복이 많다고 축하했다. 디아고라스는 아리스토메네스의 딸에게서 이어진 후손이므로, 그 가문은 모계로 본래 메세니아 혈통이었다. Sentences 6.7

**[6.7.4]** 디아고라스의 아들 도리에우스는 올림피아에서 거둔 승리 외에 이스트모스에서 여덟 번, 네메아에서 일곱 번 이겼다. 피티아 경기에서는 겨루지 않고도 한 번 이겼다고 한다. 전령은 그와 페이시로도스를 투리오이 출신으로 선포했다. 두 사람이 정적들에게 로도스에서 쫓겨나 이탈리아의 투리오이로 갔기 때문이다. 도리에우스는 뒤에 로도스로 돌아왔다. 스파르타에 대한 우호를 그보다 뚜렷하게 보인 사람은 없었다. 그는 자기 함선들을 거느리고 실제로 아테네인들과 싸웠다. 그러다가 아테네 군함에 붙잡혀 산 채로 아테네로 끌려갔다.

**[6.7.5]** 아테네인들은 그가 끌려오기 전에는 도리에우스에게 화를 내며 위협했다. 그러나 민회에 모여 그토록 위대하고 이름난 사람이 포로가 된 모습을 보자 마음이 바뀌었다. 정당하게 중벌을 내릴 수도 있었으나 그를 조금도 해치지 않고 보내 주었다.

**[6.7.6]** 도리에우스의 죽음은 안드로티온이 『아티카사』에서 이야기한다. 당시 대왕의 함대는 카우노스에 있었고 코논이 지휘했다고 한다. 코논은 로도스인들을 설득해 라케다이몬과의 동맹에서 벗어나 대왕과 아테네인들의 편에 들게 했다. 그때 도리에우스는 고향을 떠나 펠로폰네소스 내륙에 있었다고 한다. 라케다이몬인 몇 사람이 그를 붙잡아 스파르타로 데려갔고, 라케다이몬인들은 배신의 죄가 있다고 판결하여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6.7.7]** 안드로티온이 사실을 말한다면, 내게는 그가 라케다이몬인들을 아테네인들과 같은 자리에 놓으려는 듯하다. 아테네인들도 아르기누사이 전투에 참가한 트라실로스와 그 동료 함대 지휘관들을 너무 성급히 처분했다는 비난을 받을 만하기 때문이다. 디아고라스와 그 집안이 얻은 명성은 이러하다.

**[6.7.8]** 레프레우스 출신인 테안토스의 아들 알카이네토스와 그의 아들들도 올림피아에서 우승했다. 알카이네토스는 먼저 소년 권투에서 이겼고 뒤에 성인 권투에서도 이겼다. 그의 아들 헬라니코스와 테안토스도 소년 권투의 우승자로 선포되었다. 헬라니코스는 제89회 경기에서, 테안토스는 그다음 경기에서 이겼다. 세 사람의 상이 모두 올림피아에 세워져 있다.

**[6.7.9]** 알카이네토스의 아들들 다음에는 마이나로스 지방 디파이아 출신 그나톤과 엘리스인 리키노스가 서 있다. 이들도 올림피아의 소년 권투에서 우승했다. 그나톤의 상에 새긴 글에 따르면 그는 우승했을 때 아주 어렸다. 상을 만든 이는 메가라의 칼리클레스다.

**[6.7.10]** 스팀팔로스 출신 드로메우스는 '달리는 이'라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장거리 경주에서 실력을 보였다. 올림피아와 피토에서 각각 두 번, 이스트모스에서 세 번, 네메아에서 다섯 번 이겼다. 고기를 먹는 식단을 생각해 낸 사람도 그라고 한다. 그때까지 선수들은 바구니에 담아 둔 치즈를 먹었다. 이 선수의 상은 피타고라스의 작품이다. 그 곁에 있는 엘리스의 오종 경기 선수 피토클레스의 상은 폴리클레이토스가 만들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8장

**[6.8.1]** 펠레네의 소크라테스는 소년 달리기에서 우승했고, 엘리스인 아메르테스는 올림피아의 소년 씨름에서 우승했다. 아메르테스는 피토의 성인 씨름에서도 참가자들을 모두 이겼다. 소크라테스의 상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전하지 않으나, 아메르테스의 상은 아르고스의 프라드몬이 만들었다. 엘리스인 에우아노리다스는 올림피아와 네메아 양쪽에서 소년 씨름에 우승했다. 그는 경기 심판이 된 뒤 올림피아에서 우승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6.8.2]** 아르카디아의 파라시아 출신 권투 선수 다마르코스에 관해서는, 그가 올림피아에서 우승한 일은 물론 믿지만, 이야기꾼들이 그에 관해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다. 그들은 리카이오스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가 늑대로 변했다가 아홉 해 뒤에 다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아르카디아인들 역시 그에 관해 이런 일을 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다면 올림피아의 명문에도 적었을 것이다. 명문은 다음과 같다.

> 아르카디아의 파라시아에서 태어난 디니타스의 아들 다마르코스가 이 상을 봉헌했다.
>
> Mt. Lykaion Excavation & Survey Project

**[6.8.3]** 명문은 여기서 끝난다. 키레네의 에우보타스는 올림피아 달리기에서 우승하리라는 리비아의 신탁을 받고 미리 자기 모습을 본뜬 상을 만들게 했다. 그래서 우승자로 선포된 바로 그날에 상도 봉헌했다. 그는 아르카디아인들이 주관했다는 이유로 엘리스인들이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올림피아 경기에서 전차 경주에도 우승했다고 한다.

**[6.8.4]** 성인 판크라티온에서 관을 받은 클레오나이의 티만테스상은 아테네의 미론이 만들었다. 성인 씨름에서 우승한 트로이젠의 바우키스상은 나우키데스가 만들었다. 티만테스는 다음과 같은 까닭으로 최후를 맞았다고 한다. 경기에 나가는 일을 그만둔 뒤에도 날마다 큰 활을 당겨 자기 힘을 시험했다. 한동안 집을 떠나 있느라 활 연습이 끊겼다. 돌아와서 활을 더는 굽힐 수 없게 된 것을 알고는 불을 피워 산 채로 몸을 던졌다. 내 생각에 이미 일어났거나 앞으로 일어날 이와 같은 일은 용기의 소행보다 광기의 소행으로 보아야 한다.

**[6.8.5]** 바우키스 다음에는 아르카디아 선수들의 상이 있다. 마이나로스 출신 에우티메네스는 성인 씨름에서 우승했고, 그보다 앞서 소년 씨름에서도 이겼다. 펠라나에서 온 아자니아인 필리포스는 소년 권투에서 이겼으며, 클레이토르의 크리토다모스도 필리포스와 마찬가지로 소년 권투의 우승자로 선포되었다. 에우티메네스가 소년 시절에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상은 알리포스가, 다모크리토스의 상은 클레온이, 아자니아인 필리포스의 상은 미론이 만들었다. 펠레네의 판크라티온 선수인 드리온의 아들 프로마코스의 이야기는 아카이아인들을 다룰 때 넣겠다.

**[6.8.6]** 프로마코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델포이 태생 티마시테우스의 상이 세워져 있다. 아르고스의 아겔라다스가 만든 작품이다. 이 선수는 판크라티온에서 올림피아에서 두 번, 피토에서 세 번 이겼다. 전쟁에서 한 일들도 그 대담함으로 이름났다. 그에게 죽음을 가져온 마지막 일을 제외하면, 하는 일마다 행운도 따랐다. 아테네인 이사고라스가 참주정을 세우려고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를 점거했을 때 티마시테우스는 그 일에 가담했다. 아크로

폴리스에서 사로잡혀, 아테네인들에게 저지른 죄로 그들 손에 처형되었다.

periegesis.abm.uu.se

## 제9장

[6.9.1] 아이기나의 테오그네토스는 소년 씨름에서 관을 받았고, 같은 아이기나 사람인 프톨리코스가 그의 상을 만들었다. 프톨리코스는 자기 아버지 신노온에게서 배웠고, 신노온은 시키온의 아리스토클레스에게서 배웠다. 아리스토클레스는 카나코스의 형제이며 거의 그에 못지않게 이름난 조각가였다. 테오그네토스가 재배하는 소나무의 솔방울과 석류를 들고 있는 까닭은 짐작할 수 없었다. 아마 아이기나 사람들 가운데 이에 관한 지방 전승을 아는 이가 있을 것이다.

[6.9.2] 엘리스인들의 말에 따르면 암말을 타다가 내려 함께 달리는 경주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른 우승자들과 함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상 다음에는 소년 씨름에서 이긴 마이나로스의 크세노클레스와, 소년 권투에 우승한 알키노오스의 아들 알케토스가 서 있다. 알케토스도 아르카디아인으로 클레이토르 출신이었다. 알케토스의 상은 클레온이, 크세노클레스의 상은 폴리클레이토스가 만들었다.

[6.9.3] 아르고스인 아리스테우스는 장거리 달리기에서 이겼으며, 그의 아버지 케이몬은 씨름에서 우승했다. 두 상은 나란히 서 있다. 아리스테우스의 상은 아버지 소스트라토스에게서 배운 키오스의 판티아스가 만들었다. 케이몬의 상은 올림피아의 것 외에 아르고스에서 로마의 평화 신전으로 옮겨 간 것이 하나 더 있다. 내 생각에 두 상 모두 나우키데스의 가장 빛나는 작품들에 속한다. 케이몬이 아이기나의 타우로스테네스를 씨름에서 이겼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음 올림피아 경기에서 타우로스테네스는 씨름에 나선 이들을 모두 이겼는데, 바로 그날 타우로스테네스와 닮은 환영이 아이기나에 나타나 그의 승리를 알렸다고 한다.

[6.9.4] 소년 씨름에 우승한 엘리스인 필레스의 상은 스파르타인 크라티노스가 만들었다. 겔론의 전차에 대해서는 나보다 앞서 글을 쓴 이들과 같은 결론에 이르지 않았다. 그들은 이 전차가 시켈리아의 참주가 된 겔론의 봉헌물이라고 한다. 전차에는 겔라 사람이며 데이노메네스의 아들인 겔론이 봉헌했다고 새겨져 있다. 이 겔론이 우승한 것은 제73회 올림피아 경기였다.

[6.9.5] 그러나 시켈리아의 참주 겔론이 시라쿠사이를 차지한 것은 아테네에서 히브릴리데스가 아르콘이던 때였다. 크로톤의 티시크라테스가 달리기에서 우승한 제72회 올림피아 경기 주기의 둘째 해였다. 그러므로 그였다면 자신을 겔라 사람이 아니라 시라쿠사이 사람이라고 밝혔을 것이 분명하다. 이 겔론은 참주와 이름이 같은 개인이었고, 그 아버지 역시 참주의 아버지와 이름이 같았던 것이 틀림없다. 전차와 겔론의 초상을 모두 만든 이는 아이기나의 글라우키아스다.

[6.9.6] 그보다 앞선 올림피아 경기에서 아스티팔라이아의 클레오메데스가 권투 시합 중 에피다우로스의 이코스를 죽였다고 한다. 심판들은 그가 반칙을 했다고 판정하여 상을 빼앗

았다. 그는 슬픔으로 정신을 잃고 아스티팔라이아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아이 예순 명가량이 있던 학교에 들이닥쳐 지붕을 받치는 기둥을 뽑아 넘어뜨렸다.

[6.9.7] 지붕이 아이들 위로 무너졌다. 시민들이 돌을 던지자 클레오메데스는 아테나의 성소로 피했다. 성소에 놓인 궤짝 속에 들어가 뚜껑을 닫았다. 아스티팔라이아 사람들은 애를 써도 궤짝을 열지 못했다. 마침내 판자를 부수어 열었지만, 그 안에는 산 클레오메데스도 시신도 없었다. 그래서 델포이에 사절을 보내 클레오메데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다.

[6.9.8] 피티아 여사제가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한다.

> 아스티팔라이아의 클레오메데스는 영웅들 가운데 마지막이다.
> 이제 죽을 몸이 아니니 그에게 제물을 바쳐 공경하라.

그때부터 아스티팔라이아 사람들은 클레오메데스에게 영웅의 예를 바친다.

[6.9.9] 겔론의 전차 곁에는 아이기나인 글라우키아스의 작품인 필론의 상이 봉헌되어 있다. 레오프레페스의 아들 시모니데스는 이 필론을 두고 아주 잘 다듬은 두 줄의 시를 지었다.

> 나의 고향은 코르키라이고 내 이름은 필론이다.
> 나는 글라우코스의 아들로 올림피아에서 권투로 두 번 이겼다.

소년 권투에서 이긴 만티네이아의 아가메토르의 상도 있다. periegesis.abm.uu.se

## 제10장

[6.10.1] 지금 열거한 상들 다음에는 카리스토스의 글라우코스가 서 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본래 보이오티아의 안테돈 출신이며, 바다의 신 글라우코스의 후손이었다. 이 카리스토스인은 데밀로스의 아들로, 처음에는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어느 날 쟁기에서 보습이 빠지자 그는 손을 망치처럼 써서 제자리에 박았다.

[6.10.2] 데밀로스는 마침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를 올림피아에 데려가 권투에 내보냈다. 글라우코스는 권투에 익숙하지 않아 상대들에게 상처를 입었다. 마지막 상대와 싸울 때에는 상처가 많아 기절할 듯이 보였다. 그때 아버지가 "애야, 쟁기 때처럼 쳐라"라고 외쳤다고 한다. 그는 상대에게 더 세찬 일격을 가했고, 곧바로 승리를 얻었다.

[6.10.3] 그는 그 밖에도 피토에서 두 번, 네메아와 이스트모스에서 각각 여덟 번 관을 받았다고 한다. 글라우코스의 상은 그의 아들이 세웠으며 아이기나의 글라우키아스가 만들었다. 상은 권투 연습을 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글라우코스가 같은 시대 사람들 가운데 그 기술에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다. 그가 죽자 카리스토스인들은 아직도 글라우코스섬이라 불리는 섬에 그를 묻었다고 한다.

[6.10.4] 헤라이아의 다마레토스와 그의 아들과 손자는 올림피아에서 각각 두 번 이겼다. 다마레토스는 무장 달리기가 신설된 제65회 경기와 그다음 경기에서 이겼다. 그의 상은 오늘날의 참가자들이 드는 방패뿐 아니라 머리에 투구를 쓰고 다리에 정강이받이도 착용하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엘리스인들과 그리스인들은 대체로 투구와 정강이받이를 선수들의 무장에서 뺐다. 다마레토스의 아들 테오폼포스는 오종 경기에서 두 번 이겼고, 아버지와 이름이 같은 그의 아들 테오폼포스는 씨름에서 두 번 이겼다.

**[6.10.5]** 씨름 선수 테오폼포스의 상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상은 명문에 따르면 아르고스인 에우텔리다스와 크리소테미스의 작품이다. 그들의 스승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명문은 이렇다.

> 아르고스인 에우텔리다스와 크리소테미스가 이 작품들을 만들었다.
> 그들은 앞서 살던 이들에게서 이 기술을 배웠다.

타라스 출신 니콜라이다스의 아들 이코스는 올림피아에서 오종 경기의 관을 받았다. 뒤에는 당대 가장 뛰어난 체육 교사가 되었다고 한다.

**[6.10.6]** 이코스 다음에는 소년 씨름에서 이긴 엘리스인 판타르케스가 서 있다. 페이디아스가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 곁에는 에피담노스 사람 클레오스테네스의 전차가 있다. 아겔라다스의 작품으로, 그리스인들이 플라타이아이 전투의 전리품으로 봉헌한 제우스상 뒤에 있다. 클레오스테네스는 제66회 올림피아 경기에서 우승했다. 그는 말들의 상뿐 아니라 자신의 상과 전차를 몬 사람의 상도 함께 봉헌했다.

**[6.10.7]** 포이닉스와 코락스라는 말 이름이 새겨져 있다. 멍에 양쪽에 서는 말들은 오른쪽이 크나키아스, 왼쪽이 사모스다. 전차에는 이런 엘레게이아 시를 새겼다.

> 에피담노스 사람, 폰티스의 아들 클레오스테네스가
> 제우스의 영광스러운 경기에서 말들로 이긴 뒤 나를 봉헌했다.

**[6.10.8]** 이 클레오스테네스는 그리스에서 말을 기른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올림피아에 자기 상을 봉헌했다. 라코니아인 에우아고라스의 봉헌물에는 전차만 있고 에우아고라스 자신의 모습은 없다. 아테네인 밀티아데스가 올림피아에 바친 봉헌물은 이 글의 다른 곳에서 서술하겠다. 에피담노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처음과 같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지금의 도시는 옛 도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지금의 도시 이름은 건국자의 이름을 딴 디라키온이다.

**[6.10.9]** 헤라이아의 리키노스, 만티네이아의 에피크라디오스, 오레스타시온의 텔론, 엘리스의 아기아다스는 소년부에서 우승했다. 리키노스는 달리기에서, 나머지는 권투에서 이겼다. 에피크라디오스의 상은 아이기나의 프톨리코스가 만들었고, 아기아다스의 상은 역시 아이기나 태생인 세람보스가 만들었다. 리키노스의 상은 클레온의 작품이다. 텔론의 상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전하지 않는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1장

**[6.11.1]** 그다음에는 엘리스인들이 봉헌한 상들이 있다. 아민타스의 아들 필리포스,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셀레우코스, 안티고노스를 나타낸다. 안티고노스는 걸어서 서 있고, 나머지는 말을 탔다.

**[6.11.2]** 지금 말한 왕들의 상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타소스인 티모스테네스의 아들 테아게네스의 상이 서 있다. 타소스 사람들은 티모스테네스가 테아게네스의 친아버지가 아니라 타소스의 헤라클레스를 섬기는 제사장이었다고 한다. 헤라클레스가 티모스테네스의 모습을 한 환영으로 나타나 테아게네스의 어머니와 몸을 합했다는 것이다. 테아게네스가 아홉 살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아고라에 있는 어느 신의 청동상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한다. 그래서 상을 들어 한쪽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져갔다.

**[6.11.3]** 시민들은 그가 한 짓에 격분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존경받는 노인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하며, 집으로 가져간 상을 다시 아고라로 메고 오라고 명했다. 아이는 그대로 했다. 이 일은 그리스 전역에 퍼졌고, 그는 곧 힘이 세기로 이름이 났다.

**[6.11.4]** 테아게네스가 올림피아에서 한 일들 가운데 가장 이름난 것은 이미 이야기했다. 권투에서 에우티모스를 이겼고 엘리스인들에게 벌금을 물었다는 일이다. 이때 기록상 처음으로 판크라티온에서 겨루지 않고도 우승한 사람이 나왔다고 한다. 만티네이아의 드로메우스였다. 다음 올림피아 경기에서는 테아게네스가 판크라티온에서 이겼다.

**[6.11.5]** 그는 피토에서도 세 차례 이겼다. 이 승리들은 모두 권투에서 거둔 것이다. 네메아에서 받은 상 아홉 개와 이스트모스에서 받은 상 열 개는 더러는 판크라티온으로, 더러는 권투로 받은 것이다. 그는 테살리아의 프티아에서는 권투와 판크라티온 훈련을 그만두었다. 달리기로도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이름을 얻으려고 힘써, 장거리 경주에 나온 이들을 이겼다. 내 생각에 그는 이른바 영웅들 가운데 발이 가장 빠른 아킬레우스의 고향에서 달리기 상을 받아 아킬레우스와 겨루어 보고 싶었던 듯하다. 그가 받은 우승관은 모두 천사백 개였다.

**[6.11.6]**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생전에 그의 적이었던 한 사람이 밤마다 테아게네스의 상에 와서 테아게네스 자신을 괴롭히듯 청동상을 채찍질했다. 상이 그 위로 쓰러지면서 이 모욕은 끝났다. 죽은 사람의 아들들은 상을 살인죄로 고발했다. 그러자 타소스 사람들은 그 상을 바다 밑에 빠뜨렸다. 드라콘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드라콘은 아테네인들을 위해 살인에 관한 법을 정할 때, 생명 없는 물건이라도 떨어져 사람을 죽이면 추방하도록 했다.

**[6.11.7]** 그러나 얼마 지나 땅이 타소스 사람들에게 아무런 수확도 내주지 않자 그들은 델포이로 사절을 보냈다. 신은 추방한 이들을 다시 받아들이라고 했다. 그들은 이 명령에 따라 추방자들을 돌아오게 했지만, 그래도 기근이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피티아 여사제에게 두 번째로 가서, 가르쳐 준 대로 했는데도 신들의 노여움이 여전히 자기들에게 남아 있다고 말했다.

**[6.11.8]** 피티아 여사제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했다.

>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위대한 테아게네스를 잊었다.

사람들이 테아게네스의 상을 되찾을 방도를 생각해 내지 못하고 있을 때,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배를 띄웠다가 그물로 상을 건져 육지로 가져왔다고 한다. 타소스 사람들은 그 상을 원래 자리에 다시 세웠으며, 그에게 신으로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관례다.

[6.11.9] 그리스인들과 이민족들 사이에서 테아게네스의 상을 세운 다른 곳들도 많이 알고 있다. 그는 병을 고쳐 주며 그 지방 사람들에게서 영예를 받는다. 알티스에 있는 테아게네스의 상은 아이기나의 글라우키아스가 만든 작품이다. periegesis.abm.uu.se

## 제12장

[6.12.1] 바로 가까이에 남자 하나가 탄 청동 전차가 있다. 전차 양편에 경주마가 한 필씩 서 있고, 말마다 소년이 타고 있다. 데이노메네스의 아들로, 형제 겔론에 이어 시라쿠사이의 참주가 된 히에론이 올림피아에서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봉헌물을 보낸 것은 히에론 자신이 아니었다. 히에론의 아들 데이노메네스가 신에게 바쳤다. 전차는 아이기나인 오나타스가 만들었으며, 양쪽의 말들과 그 위에 탄 소년들은 칼라미스가 만들었다.

[6.12.2] 히에론의 전차 곁에는 데이노메네스의 아들과 이름이 같은 사람의 상이 있다. 그도 시라쿠사이의 참주였으며, 히에로클레스의 아들 히에론이라 불렸다. 앞선 참주 아가토클레스가 죽은 뒤 이 히에론이 등장하면서 시라쿠사이에 참주정이 다시 일어났다. 그가 권력을 잡은 것은 키레네의 이다이오스가 달리기에서 이긴 제126회 올림피아 경기 주기의 둘째 해였다.

[6.12.3] 이 히에론은 아이아키데스의 아들 피로스와 동맹을 맺었다. 자기 아들 겔론과 피로스의 딸 네레이스의 혼인으로 동맹을 굳혔다. 로마인들이 시켈리아를 차지하려고 카르타고와 전쟁을 시작했을 때, 카르타고인들은 섬의 절반이 넘는 곳을 차지하고 있었다. 히에론은 전쟁이 시작될 때에는 그들의 편에 섰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로마인들이 더 강하고, 우호 관계에서도 더 굳건하여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 그쪽으로 옮겼다.

[6.12.4] 그는 시라쿠사이 태생으로 참주정을 몹시 싫어한 데이노메네스의 손에 최후를 맞았다. 데이노메네스는 뒤에 에피키데스의 형제 히포크라테스가 에르베소스에서 막 시라쿠사이로 와서 군중에게 연설하기 시작했을 때에도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히포크라테스가 맞섰고 호위병 몇 명이 데이노메네스를 제압하여 죽였다. 올림피아에 있는 히에론의 상은 하나는 말을 탄 모습이고 하나는 걸어서 서 있는 모습이다. 히에론의 아들들이 봉헌했으며 조각가는 시라쿠사이인 니케라토스의 아들 미콘이었다.

[6.12.5] 히에론의 상들 다음에는 아크로타토스의 아들이자 라케다이몬 왕인 아레우스와 클레이니아스의 아들 아라토스가 서 있다. 말을 탄 아레우스의 상이 하나 더 있다. 아라토스의 상은 코린토스인들이, 아레우스의 상은 엘리스인들이 봉헌했다.

[6.12.6] 아라토스와 아레우스에 관해서는 이미 얼마간 이야기했다. 아라토스는 올림피아에서 전차 경주의 우승자로도 선포되었다. 엘리스인 아이시포스의 아들 티몬은 올림피아의 경주에 말 네 필이 끄는 전차를 내보냈다. 〔…〕 이 전차는 청동이며, 그 위에 처녀가 타고 있다. 내 생각에 승리의 여신이다. 하르모디오스의 아들 칼론과 모스키온의 아들 히포마코스는 둘 다 엘리스 혈통으로 소년 권투에서 우승했다. 칼론의 상은 다이포스가 만들었다. 히포마코스의 상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른다. 다만 그는 한 대도 얻어맞거나 몸을 다치지 않고 상대 세 사람을 이겼다고 한다.

**[6.12.7]** 키레네의 테오크레스토스는 리비아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말을 길렀다. 그 자신과, 그보다 앞서 이름이 같은 친할아버지가 말 네 필이 끄는 전차로 올림피아에서 우승했다. 테오크레스토스의 아버지는 이스트모스에서 우승했다. 전차에 새긴 글은 이렇게 밝힌다.

**[6.12.8]** 엘레게이아 시는 트리테이아 출신 하이모스트라토스의 아들 아게사르코스가 올림피아와 네메아와 피토와 이스트모스의 성인 권투에서 이겼다고 증언한다. 트리테이아 사람들이 아르카디아인이라고도 하는데, 나는 그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름을 떨친 아르카디아 도시들은 건국자들의 내력이 잘 알려져 있다. 처음부터 세력이 약해 이름이 없던 도시들은 바로 그 까닭에 메갈로폴리스에 흡수되었을 것이다. 당시 아르카디아 연맹이 내린 결의에 그 도시들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6.12.9]** 그리스에서 트리테이아라는 다른 도시는 아카이아에 있는 곳을 빼고는 찾을 수 없다. 다만 명문을 새긴 때에는 트리테이아 사람들이 아르카디아인으로 여겨졌다고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오늘날에도 본래 아르카디아인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아르고스인으로 치는 것과 같다. 아게사르코스의 상은 폴리클레스의 아들들이 만들었으며, 그들에 관해서는 뒤에 얼마간 이야기하겠다. periegesis.abm.uu.se

## 제13장

**[6.13.1]** 크로톤의 아스틸로스의 상은 피타고라스의 작품이다. 이 선수는 올림피아에서 세 차례 연달아 단거리와 두 스타디온 달리기에서 이겼다. 그러나 뒤의 두 차례에는 데이노메네스의 아들 히에론의 마음에 들려고 자신을 시라쿠사이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크로톤인들은 그의 집을 감옥으로 쓰기로 판결하고, 라키니온의 헤라 신전 곁에 세웠던 그의 상을 끌어내렸다.

**[6.13.2]** 올림피아에는 라케다이몬인 키오니스의 승리들을 기록한 비석도 세워져 있다. 라케다이몬인들이 아니라 키오니스가 직접 비석을 봉헌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순진하다. 비석에 적힌 대로 그때 무장 달리기가 아직 없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엘리스인들이 훗날 이 경기를 종목에 추가하리라는 것을 키오니스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비석 곁에 서 있는 상이 키오니스의 초상이라고 하는 이들은 더 순진하다. 그 상은 아테네인 미론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6.13.3]** 리디아인 크산토스의 헤르모게네스는 키오니스에 견줄 만큼 이름이 높았다. 세 차례의 올림피아 경기에서 야생 올리브관을 여덟 번 받았고, 그리스인들에게 '말'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폴리테스도 크게 놀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카리아의 케라모스 출신인 이 폴리테스는 올림피아에서 달리기의 온갖 기량을 보여 주었다. 가장 큰 지구력이 필요한 최장거리 경주를 마치고, 아주 짧은 틈을 두고 가장 짧고 빠른 경주로 바꾸어 나섰다. 장거리에서 이기고 곧바로 단거리에서도 이긴 다음 같은 날 두 스타디온 달리기에서도 세 번째 승리를 보탰다.

**[6.13.4]** 그리하여 폴리테스는 두 번째에 〔…〕 제비로 네 명씩 한 조를 이루며, 주자 전원이 함께 출발하지는 않는다. 각 조에서 이긴 이들이 상을 두고 다시 달린다. 따라서 달리기에서 관을 받는 사람은 두 번 이기는 셈이다. 그러나 가장 이름난 달리기 선수는 로도스의 레

오니다스였다. 네 차례 올림피아 경기 동안 전성기의 속도를 유지하여 달리기에서 열두 번 이겼다.

**[6.13.5]** 올림피아에서 키오니스의 비석과 멀지 않은 곳에는 사모스인 두리스의 아들 스카이오스의 상이 서 있다. 그는 소년 권투에서 우승했다. 상을 만든 이는 〔…〕의 아들 히피아스다. 명문에는 사모스의 민중이 섬에서 쫓겨나 있던 때에 스카이오스가 이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경위는 〔…〕 민중을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했다.

**[6.13.6]** 참주의 상 곁에는 스미르나 혈통인 폴리스의 아들 디알로스의 상이 있다. 이 디알로스는 자신이 이오니아인 가운데 처음으로 올림피아의 소년 판크라티온에서 관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르키라의 테르실로코스와 에피다우로스 출신 테오필레스의 아들 아리스티온의 상도 있다. 두 상은 아르고스인 폴리클레이토스가 만들었다. 아리스티온은 성인 권투로, 테르실로코스는 소년 권투로 관을 받았다.

**[6.13.7]** 시키온인 가운데 처음으로 소년 권투에 우승한 비켈로스의 상은 아르고스인 폴리클레이토스의 제자인 시키온의 카나코스가 만들었다. 비켈로스 곁에는 '리비아인'이라는 별칭을 얻은 키레네의 므나세아스가 무장한 모습으로 서 있다. 레기온의 피타고라스가 이 상을 만들었다. 아시아 본토 쪽에 있는 키지코스의 아게마코스에게는 〔…〕 그 위의 명문은 그가 아르고스에서 태어났음을 보여 준다.

**[6.13.8]** 시켈리아의 낙소스는 에우리포스 해협 가의 칼키스인들이 세웠다. 이제는 도시의 폐허조차 볼 수 없다. 낙소스라는 이름이 후대까지 남은 것은 클레오크리토스의 아들 티산드로스 덕분이다. 그는 올림피아의 성인 권투에서 네 번 우승했다. 피토에서도 같은 횟수만큼 이겼다. 그러나 그때는 코린토스인들도 아르고스인들도 네메아와 이스트모스 우승자들의 기록을 온전히 남기지 않았다.

**[6.13.9]** 코린토스인들의 말로는 코린토스 사람 페이돌라스의 암말은 '산들바람'이라는 뜻의 아우라라고 불렸다. 경주가 시작될 때 우연히 기수를 떨어뜨렸지만, 그래도 경주로를 제대로 달려 반환점을 돌았다. 나팔 소리를 듣자 속도를 높여 심판들 앞에 맨 먼저 이르렀고, 자기가 이겼음을 알아차리고 달리기를 멈추었다. 엘리스인들은 페이돌라스를 우승자로 선포하고 암말의 상을 봉헌하도록 허락했다.

**[6.13.10]** 페이돌라스의 아들들도 말을 타는 경주에서 이겼다. 그 말은 비석에 새겨져 있으며 명문은 이러하다.

> 발 빠른 리코스는 이스트모스에서 한 번, 이곳에서 두 번 이겨
> 페이돌라스 아들들의 집에 우승관을 안겼다.

그러나 이 명문은 엘리스의 올림피아 우승자 기록과 맞지 않는다. 그 기록에는 페이돌라스의 아들들이 제68회 경기에서 이겼다고만 되어 있고 다른 회차의 우승은 없다. Lemmas 6.13

**[6.13.11]** 내가 말한 것은 정확하다고 보아도 좋다. 트라시불로스의 아들 아가티노스와 텔레마코스의 상도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엘리스인이다. 텔레마코스는 말 네 필이 끄는 전차 경주에서 이겼으며, 아가티노스의 상은 펠레네의 아카이아인들이 봉헌했다. 아테네 민중은

리시노스의 아들 아리스토폰의 상을 봉헌했다. 그는 올림피아의 성인 판크라티온에서 이겼다. periegesis.abm.uu.se

## 제14장

**[6.14.1]** 아테네인 아리스토폰 곁에 상이 서 있는 아이기나의 페리아스는 제78회 올림피아 경기 때 너무 어리다고 여겨졌다. 아직 씨름에 나갈 만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아 경기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다음 경기에서는 소년 씨름에 참가하여 이겼다. 페리아스가 겪은 일은 로도스의 니카실로스가 올림피아에서 겪은 일과 정반대였다.

**[6.14.2]** 니카실로스는 열여덟 살이었으므로 엘리스인들이 소년 씨름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그는 성인부에서 이겨 우승자로 선포되었다. 그 뒤 네메아와 이스트모스에서도 우승자로 선포되었다. 그러나 스무 살에 고향 로도스로 돌아가기 전에 죽었다. 내 생각에 이 로도스 씨름 선수가 올림피아에서 이룬 일은 트랄레이스의 아르테미도로스가 능가했다. 아르테미도로스는 올림피아의 소년 판크라티온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이다.

**[6.14.3]** 그러나 스미르나의 이오니아인들이 여는 경기가 돌아왔을 때에는 힘이 크게 늘었다. 그는 같은 날 판크라티온에서 올림피아 때 함께 겨루었던 소년들을 이겼고, 뒤이어 이른바 수염이 나지 않은 청년들을, 세 번째로는 성인 정예 선수들을 이겼다. 청년부에 나간 것은 체육 교사의 권유 때문이었고, 성인들과 겨룬 것은 성인 판크라티온 선수에게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르테미도로스는 제212회 올림피아 경기에서 성인부 우승을 거두었다.

**[6.14.4]** 니카실로스의 상 다음에는 작은 청동 말이 있다. 에레트리아의 크로콘이 경주마로 관을 받은 뒤 봉헌한 것이다. 말 가까이에는 소년 권투에서 우승한 메세네의 텔레스타스가 있다. 텔레스타스의 상을 만든 사람은 실라니온이다.

**[6.14.5]** 디오티모스의 아들 밀론의 상은 역시 크로톤 태생인 다메아스가 만들었다. 밀론은 올림피아에서 씨름으로 여섯 번 이겼으며, 그중 한 번은 소년부에서의 승리였다. 피토에서는 성인부에서 여섯 번, 소년부에서 한 번 이겼다. 그는 일곱 번째 승리를 얻으려고 올림피아에 와서 씨름에 나섰다. 그러나 같은 도시 출신인 젊은 티마시테우스를 제압하지는 못했다. 티마시테우스가 그와 바싹 맞붙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14.6]** 밀론이 자기 상을 직접 알티스 안으로 들어 날랐다고도 한다. 석류와 원반으로 보인 재주도 전해진다. 석류를 쥐면 누구도 힘으로 빼앗아 갈 수 없었지만, 그렇게 움켜쥐고도 석류를 상하게 하지 않았다. 기름을 바른 원반 위에 서서는, 그에게 달려들어 원반에서 밀어내려는 사람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재주도 보여 주곤 했다.

**[6.14.7]** 띠나 관을 쓰듯 이마에 끈을 둘러맸다. 숨을 참아 머리의 핏줄을 피로 가득 채우고는, 그 핏줄의 힘으로 끈을 끊었다. 또 오른팔을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몸 옆에 늘어뜨린 뒤 팔꿈치 아래를 똑바로 뻗고, 엄지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한 채 나머지 손가락을 가지런히 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새끼손가락이 가장 아래에 놓였지만, 누구도 그 손가락을 눌러 뒤로 꺾을 수 없었다.

**[6.14.8]** 그는 들짐승들에게 죽었다고 한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크로톤 땅에서 말라 가는 나무줄기를 만났다. 줄기를 벌려 놓으려고 쐐기들이 박혀 있었다. 힘을 과신한 밀론은 그 틈에 두 손을 밀어 넣었다. 쐐기가 빠지면서 손이 나무에 단단히 끼었다. 크로톤 땅을 큰 떼로 돌아다니는 늑대들이 그를 먹잇감으로 삼을 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했다.

**[6.14.9]** 밀론에게 닥친 운명은 이러했다. 테스프로티아 본토를 다스린 아이아키데스의 아들 피로스는, 내가 아테네인들을 다룰 때 말했듯, 주목할 만한 일을 많이 해냈다. 그의 상은 엘리스인 트라시불로스가 봉헌했다. 피로스 곁에는 피리를 든 작은 남자상이 비석에 돋을새김으로 새겨져 있다. 이 사람은 아르고스의 사카다스 바로 다음으로 피티아 경기에서 우승했다.

**[6.14.10]** 사카다스는 암픽티온 동맹이 처음 경기를 열었을 때 우승했다. 그때는 아직 우승자에게 관을 주지 않았다. 그는 그 뒤에 관을 주는 경기에서 두 번 더 이겼다. 그다음 여섯 차례의 피티아 경기에서는 시키온의 피토크리토스가 우승했다. 피리 연주자로서 그만큼 두각을 나타낸 이는 그뿐이다. 올림피아 경기에서도 오종 경기 때 여섯 번 피리를 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런 까닭에 올림피아에 피토크리토스를 기리는 비석을 세우고 이렇게 새겼다.

> 이것은 칼리니코스의 아들인 피리 연주자 피토크리토스의 기념물이다.

아이톨리아 연맹은 퀼론의 상을 봉헌했다.

**[6.14.11]** 그 퀼론은 엘리스인들을 아리스토티모스의 참주정에서 해방한 사람이다. 에우클레토스의 아들 고르고스는 메세니아인으로 오종 경기에서 이겼으며, 그의 상은 보이오티아인 테론이 만들었다. 소년 권투에서 우승한 또 다른 메세니아인 다마레토스의 상은 아테네인 실라니온이 만들었다. 필리스의 아들이자 엘리스인인 아나우키다스는 소년 씨름에서 관을 받았고, 뒤에 성인 씨름에서도 관을 받았다. 그의 상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단거리와 두 스타디온 달리기에서 우승한 타라스 사람 아다마타스의 아들 아노코스의 상은 아르고스의 아겔라다스가 만들었다.

**[6.14.12]** 말을 탄 소년과 그 말 곁에 서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는 명문이 알려 준다. 하나는 말을 타는 경주에서 우승한 메로피스의 코스 출신 크세놈브로토스이고, 하나는 소년 권투에 우승한 크세노디코스다. 크세노디코스는 판티아스가, 크세놈브로토스는 아이기나인 필로티모스가 만들었다. 압데라 태생이며 안드로마코스의 아들인 피테스의 상 두 개는 리시포스가 만들었고 그를 따르던 병사들이 봉헌했다. 피테스는 용병대의 지휘관이었거나, 달리 전쟁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던 듯하다.

**[6.14.13]** 소년 달리기 우승자들의 상도 있다. 이오니아해에 있는 아폴로니아의 메넵톨레모스와 코르키라의 필론이다. 안드로스의 히에로니모스의 상도 있다. 그는 올림피아 오종 경기에서 엘리스의 티사메노스를 이겼다. 티사메노스는 뒤에 플라타이아이에서 마르도니오스와 페르시아인들을 상대로 싸운 그리스군의 점술가였다. 이 히에로니모스의 곁에는 역시 안드로스 출신인 소년 씨름 선수, 리카스티다스의 아들 프로클레스의 상이 있다. 히에로니모스의 상은 스토미오스가, 프로클레스의 상은 소미스가 만들었다. 엘리스인 아이스키네스는 오종 경기에서 두 번 우승했으며 그의 상도 두 개다. periegesis.abm.uu.se

## 제15장

[6.15.1] 미틸레네의 아르키포스는 성인 권투에서 경쟁자들을 이겼다. 그의 고향 사람들은 그가 스무 살이 되기 전에 올림피아와 피토와 네메아와 이스트모스에서 관을 받아 명성을 더했다고 여긴다. 트리필리아의 레프레우스 출신 소년 달리기 선수, 칼리텔레스의 아들 크세논의 상은 메세니아인 피릴람페스가 만들었다. 엘리스인 클레이노마코스의 상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나, 그는 오종 경기에서 우승자로 선포되었다.

[6.15.2] 엘리스인 판타르케스의 상에 새긴 글에는 아카이아인들이 그것을 봉헌했다고 적혀 있다. 그가 아카이아인들과 엘리스인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전쟁 중 양쪽에서 잡힌 포로들을 풀려나게 했기 때문이다. 이 판타르케스는 경주마로도 한 번 이겼으며, 그 승리를 기리는 물건도 올림피아에 있다. 엘리스인 올리다스의 상은 아이톨리아인들이 함께 봉헌했다. 엘리스인 카리노스의 상은 두 스타디온 달리기와 무장 달리기에서 거둔 승리를 기려 봉헌한 것이다. 곁에는 소년 권투에서 우승한 키오스인 아겔레스가 서 있다. 조각가는 사르데이스의 테옴네스토스다.

[6.15.3] 테바이의 클레이토마코스의 상은 그의 아버지 헤르모크라테스가 봉헌했다. 그가 이름을 떨친 일은 이러하다. 이스트모스에서 성인 씨름에 우승했으며, 같은 날 권투와 판크라티온에서도 모든 경쟁자를 이겼다. 피토에서의 승리는 모두 판크라티온에서 거둔 것으로 세 차례였다. 이 클레이토마코스는 타소스의 테아게네스 이후 처음으로 올림피아에서 권투와 판크라티온 두 종목의 우승자로 선포되었다.

[6.15.4] 클레이토마코스는 제141회 올림피아 경기에서 판크라티온에 우승했다. 이듬 회에는 이 클레이토마코스가 판크라티온과 권투에 나섰고, 엘리스인 카프로스는 같은 날 씨름과 판크라티온에 모두 나설 생각이었다.

[6.15.5] 카프로스가 씨름에서 우승하자 클레이토마코스는 심판들에게, 자신이 권투에서 상처를 입기 전에 판크라티온을 먼저 열어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요구가 타당해 보여 판크라티온을 먼저 열었다. 클레이토마코스는 카프로스에게 졌지만, 굳센 정신과 지치지 않은 기운으로 권투 선수들과 맞붙었다.

[6.15.6] 에리트라이의 이오니아인들은 메트로도로스의 아들 에피테르세스의 상을 봉헌했다. 그는 올림피아에서 두 번, 피토에서 두 번 권투 상을 받았으며 네메아와 이스트모스에서도 이겼다. 시라쿠사이인들은 나라의 비용으로 히에론의 상 두 개를 봉헌했다. 세 번째 상은 히에론의 아들들이 바친 것이다. 이 히에론이 데이노메네스의 아들과 이름이 같고, 그와 마찬가지로 시라쿠사이의 참주였다는 것은 조금 앞에서 밝혔다.

[6.15.7] 케팔레니아를 이루는 네 집단 가운데 하나인 팔레 사람들은 엘리스인 람피스의 아들 티모프톨리스의 상을 봉헌했다. 이 팔레 사람들은 예전에 둘리키온인이라 불렸다. 아게실라오스의 아들 아르키다모스의 상도 있고, 사냥꾼의 모습을 한 어느 남자의 상도 세워져 있다. 셀레우코스를 상대로 원정에 나섰다가 전투에서 사로잡힌 데메트리오스의 상과 그의 아들 안티고노스의 상도 있다. 비잔티온 사람들의 봉헌물임이 틀림없다.

[6.15.8] 제38회 올림피아 경기에서 스파르타인 에우텔리다스는 소년부에서 씨름과 오종 경기에 각각 한 번씩 이겼다. 소년들이 오종 경기에 나가도록 허락된 처음이자 마지막 경기였다. 에우텔리다스의 상은 오래되었고, 받침대의 글자는 세월에 닳아 희미하다.

[6.15.9] 에우텔리다스 다음에는 라케다이몬 왕 아레우스의 상이 하나 더 있고, 그 곁에는 엘리스인 고르고스의 상이 있다. 고르고스는 내가 사는 시대까지 올림피아 오종 경기에서 네 번 우승한 유일한 사람이다. 그 밖에 두 스타디온 달리기와 무장 달리기에서도 한 번씩 우승했다.

[6.15.10] 소년들이 곁에 서 있는 남자는 라고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한다. 그 곁에는 엘리스인 피타고라스의 아들 카프로스의 상 두 개가 있다. 그는 같은 날 씨름과 판크라티온에서 관을 하나씩 받았다. 이 두 승리를 거둔 최초의 사람이 바로 카프로스였다. 그가 판크라티온에서 이긴 상대는 이미 말했다. 씨름에서 이긴 상대는 엘리스인 파이아니오스였는데, 그는 앞선 올림피아 경기에서 씨름에 우승한 사람이었다. 파이아니오스는 피티아 경기에서 소년 권투의 관을 받았고, 뒤에는 같은 날 성인 씨름과 성인 권투에서 모두 관을 받았다. periegesis.abm.uu.se

## 제16장

[6.16.1] 카프로스는 큰 고생과 힘겨운 노력 끝에 이 승리들을 거두었다. 올림피아에는 엘리스 혈통으로 소년 씨름에서 관을 받은 아나우키다스와 페레니코스의 상도 있다. 갈리아인들을 상대로 아이톨리아인들을 지휘한 에우리다모스의 아들 플레이스타이노스의 상은 테스피아이 사람들이 봉헌했다.

[6.16.2] 데메트리오스의 아버지 안티고노스의 상과 셀레우코스의 상은 엘리스인 티데우스가 바쳤다. 셀레우코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이름을 떨친 것은 특히 데메트리오스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티몬은 이스트모스 경기를 제외한 모든 그리스 경기에서 오종 경기에 우승했다. 다른 엘리스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스트모스 경기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그의 상에 새긴 글에는 그가 아이톨리아인들과 함께 테살리아인들을 상대로 원정했으며, 아이톨리아인들과 우호를 맺어 나우팍토스 수비대의 지휘관이 되었다고도 적혀 있다.

[6.16.3] 티몬의 상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리스를 나타내는 헬라스가 서 있고, 그 곁에는 엘리스가 서 있다. 헬라스는 한 손으로 데메트리오스의 아들 필리포스의 후견인인 안티고노스에게, 다른 손으로 필리포스 자신에게 관을 씌운다. 엘리스는 셀레우코스를 치러 갔던 데메트리오스와 라고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에게 관을 씌운다.

[6.16.4] 엘리스인 아리스테이데스는, 상의 명문에 따르면 올림피아에서 무장 달리기에, 피토에서 두 스타디온 달리기에, 네메아에서는 말 경주로를 달리는 소년 경주에 우승했다. 말 경주로의 길이는 두 스타디온 경주 거리의 두 배다. 이 종목은 네메아와 이스트모스 경기에서 빠졌으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아르고스인들이 겨울에 여는 네메아 경기에 다시 넣어 주었다.

[6.16.5] 아리스테이데스의 상 바로 가까이에는 올림피아 오종 경기에서 우승한 엘리스인 메날케스가 서 있다. 곁에는 조테스의 아들 필로니데스가 있다. 크레타의 케르소네소스 태생

으로,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의 전령이었다. 그다음에는 성인 권투에서 이긴 엘리스의 브리미아스, 에게해의 낙소스 출신 레오니다스, 프소피스의 아르카디아인들이 봉헌한 상, 성인 권투에서 이긴 아사몬의 상, 그리고 니칸드로스의 상이 있다. 니칸드로스는 올림피아의 두 스타디온 달리기에서 두 번, 네메아의 여러 달리기 종목에서 여섯 번 이겼다. 아사몬과 니칸드로스는 엘리스인이다. 니칸드로스의 상은 다이포스가, 아사몬의 상은 메세니아인 피릴람페스가 만들었다.

**[6.16.6]** 엘리스인 에우알키다스는 소년 권투에서, 라케다이몬인 셀레아다스는 성인 씨름에서 이겼다. 라코니아인 폴리페이테스의 작은 전차도 이곳에 봉헌되어 있다. 같은 석판에는 그의 아버지인 씨름 선수 칼리텔레스가 있다. 폴리페이테스는 말 네 필이 끄는 전차로 우승했고, 칼리텔레스는 씨름에서 이겼다.

**[6.16.7]** 관직을 맡지 않은 엘리스 사람들의 상도 있다. 아르니스코스의 아들 람포스와 아리스타르코스의 〔…〕이다. 프소피스 사람들이 이들의 상을 봉헌했다. 두 사람이 프소피스인들의 공적인 우호 인사였거나 그들에게 어느 모로든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사이에는 소년 씨름에서 경쟁자들을 이긴 엘리스의 리시포스가 서 있다. 그의 상은 아르고스의 안드레아스가 만들었다.

**[6.16.8]** 라케다이몬인 데이노스테네스는 올림피아의 성인 달리기에서 이겼고, 알티스의 자기 상 곁에 비석을 봉헌했다. 명문은 올림피아에서 라케다이몬에 있는 다른 비석까지의 거리가 육백육십 스타디온이라고 밝힌다. 테오도로스는 오종 경기에서, 람피스의 아들 피탈로스는 소년 권투에서 이겼고, 네올라이다스는 달리기와 무장 달리기에서 관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엘리스인이다. 피탈로스는 아르카디아인들과 엘리스인들 사이에 경계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판정했다고도 한다. 그의 상은 올린토스 출신 스텐니스의 작품이다.

**[6.16.9]** 그다음에는 말을 탄 프톨레마이오스가 있다. 그 곁에는 엘리스의 선수인 다마트리오스의 아들 파이아니오스가 있다. 그는 올림피아에서 씨름에 한 번 이겼으며, 피토에서도 두 번 이겼다. 오종 경기에서 관을 받은 엘리스인 클레아레토스도 있고, 아테네인 에테오클레스의 아들 글라우콘의 전차도 있다. 이 글라우콘은 다 자란 말들이 끄는 전차 경주의 우승자로 선포되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7장

**[6.17.1]** 내가 알려 준 길을 따라 알티스를 둘러보면 이와 같은 볼거리가 특히 눈에 띈다. 그러나 레오니다이온에서 오른편으로 큰 제단을 향해 가면 다음과 같이 주목할 만한 것들을 만난다. 성인 씨름에서 이긴 테네도스의 데모크라테스와 무장 달리기에서 우승한 엘리스의 크리안니오스가 있다. 데모크라테스의 상은 밀레토스의 디오니시클레스가, 크리안니오스의 상은 마케도니아의 리소스가 만들었다.

**[6.17.2]** 클라조메나이의 헤로도토스와 코스 출신 헤게폴리스의 아들 필리노스의 상은 각자의 도시가 봉헌했다. 클라조메나이 사람들은 헤로도토스가 자기 도시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올림피아 우승자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상을 바쳤다. 소년 달리기에서 거둔 승리였

다. 코스 사람들은 필리노스가 크게 이름을 떨쳤기 때문에 그 상을 바쳤다. 그는 달리기에서 올림피아에서 다섯 번, 피토와 네메아에서 각각 네 번, 이스트모스에서 열한 번 이겼다.

**[6.17.3]** 라고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에게서 태어난 프톨레마이오스의 상은 마케도니아인 아리스톨라오스가 봉헌했다. 소년 권투에서 이긴 밀레토스의 폴리네이케스의 아들 부타스의 상도 봉헌되어 있다. 레타이오스강 가 마그네시아 출신으로 무장 달리기에서 두 번 관을 받은 칼리크라테스의 상도 있다. 칼리크라테스의 상은 리시포스의 작품이다.

**[6.17.4]** 에나티온은 소년 달리기에서, 알렉시비오스는 오종 경기에서 우승했다. 알렉시비오스의 고향은 아르카디아의 헤라이아였으며, 아케스토르가 그의 상을 만들었다. 에나티온의 상에 새긴 글에는 그의 고향이 나오지 않으며 아르카디아 혈통이었다고만 한다. 콜로폰 사람 아고네우스의 아들 헤르메시아낙스와 에이카시오스는 둘 다 소년 씨름에서 이겼다. 에이카시오스는 리키노스와 헤르메시아낙스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헤르메시아낙스의 상은 콜로폰의 공동체가 봉헌했다.

**[6.17.5]** 이들 가까이에는 소년 권투에서 이긴 두 엘리스인이 있다. 코이릴로스의 상은 올린토스의 스텐니스가, 테오티모스의 상은 시키온의 다이톤다스가 만들었다. 테오티모스는 모스키온의 아들이었다. 모스키온은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다레이오스와 페르시아인들을 상대로 벌인 원정에 참가했다. 엘리스 출신 두 사람이 더 있다. 말 네 필이 끄는 전차로 이긴 아르키다모스와, 무장 달리기에서 이긴 테오고노스의 아들 에페라스토스다.

**[6.17.6]** 에페라스토스는 자기가 클리티오스 가문의 점술가였다고 명문의 끝에서 밝힌다.

> 나는 신성한 말을 전하는 클리티오스 가문의 사람임을 자랑한다.
> 그들의 점술가이며, 신과 같은 멜람푸스 가문의 후손이다.

만티오스는 아미타온의 아들 멜람푸스에게서 태어났고, 아들 오이클레스를 두었다. 클리티오스는 알크마이온의 아들이었으며, 알크마이온은 암피아라오스의 아들, 암피아라오스는 오이클레스의 아들이었다. 클리티오스는 알크마이온과 페게우스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외삼촌들이 알크마이온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그들과 함께 살기를 꺼려 엘리스로 이주했다.

**[6.17.7]** 그보다 이름이 덜 알려진 봉헌물들 사이에는 엘리스인 알렉시니코스와 레온티노이 사람 고르기아스의 상이 있다. 소년 씨름에서 이긴 알렉시니코스의 상은 시키온의 칸타로스가 만들었다. 고르기아스의 상은 에우몰포스가 자기 말대로 올림피아에 봉헌했다. 그는 고르기아스의 누이와 혼인한 데이크라테스의 손자였다.

**[6.17.8]** 이 고르기아스는 카르만티데스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수사술을 온전히 소홀히 하여 거의 잊어버렸을 때, 처음으로 그 연구를 되살린 이라고 한다. 고르기아스는 올림피아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말솜씨로 크게 이름을 떨쳤다. 티시아스와 함께 사절로 아테네에 갔을 때에도 그러했다. 티시아스 역시 수사술을 발전시켰다. 특히 어느 시라쿠사이 여인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 그 시대에 가장 설득력 있는 연설문을 써 주었다.

**[6.17.9]** 그러나 아테네인들 사이에서 고르기아스가 받은 존경은 티시아스가 받은 것보다 더 컸다. 또 테살리아의 참주 이아손은 아테네 학파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은 폴리크라테스보

다도 고르기아스를 높이 두었다. 고르기아스는 백다섯 살까지 살았다고 한다. 레온티노이는 한때 시라쿠사이인들에게 황폐해졌으나, 내가 사는 시대에는 다시 사람이 살고 있었다.
periegesis.abm.uu.se

## 제18장

**[6.18.1]** 키레네 사람 크라티스테네스의 청동상도 있다. 전차 위에는 승리의 여신과 크라티스테네스 자신이 올라 있다. 따라서 그가 이긴 종목은 전차 경주였음이 분명하다. 크라티스테네스는 그리스인들에게 '리비아인'이라는 별칭을 얻은 달리기 선수 므나세아스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그가 올림피아에 바친 것들은 레기온의 피타고라스가 만들었다.

**[6.18.2]** 여기서 아낙시메네스의 상을 발견한 기억도 난다. 그는 옛 그리스의 역사를 두루 기록했으며, 아민타스의 아들 필리포스의 업적과 그 뒤 알렉산드로스가 한 일도 기록했다. 그에게 올림피아에서 이런 영예를 준 것은 람프사코스 사람들이었다. 아낙시메네스는 자신에 관한 다음 일화들을 후세에 남겼다.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는 온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성정이 몹시 격한 군주였는데, 아낙시메네스는 다음과 같은 꾀로 그를 제압했다.

**[6.18.3]** 람프사코스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을 지지했거나 적어도 그런 의심을 샀으므로, 알렉산드로스는 그들에게 몹시 분노하여 가장 가혹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위협했다.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나라 자체가 큰 위험에 빠지자, 주민들은 아낙시메네스를 보내 자신들을 위해 간청하게 했다. 그는 알렉산드로스가 아는 사람이었으며 그보다 앞서 필리포스와도 아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아낙시메네스가 다가오자 알렉산드로스는 그가 무슨 일로 왔는지 알아차렸다. 그러고는 그리스의 신들을 하나하나 부르며, 아낙시메네스가 청하는 것과 반드시 반대로 하겠다고 맹세했다고 한다.

**[6.18.4]** 그러자 아낙시메네스가 말했다. "왕이시여,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람프사코스 사람들의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삼고, 도시를 온통 무너뜨려 평지로 만드시며, 그들 신의 성소들을 불태우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하니 알렉산드로스는 그 꾀를 되받을 길이 없었다. 자기 맹세에 매인 그는 마지못해 람프사코스 사람들을 용서했다.

**[6.18.5]** 아낙시메네스가 개인적인 원수에게 재치 있으나 심술궂은 방식으로 앙갚음한 일도 알려져 있다. 그는 타고난 말솜씨가 있었고 다른 연설가들의 문체도 잘 흉내 냈다. 다마시스트라토스의 아들 테오폼포스와 사이가 나빠지자, 아테네인들과 라케다이몬인들과 테바이인들을 똑같이 헐뜯는 글을 썼다. 그는 테오폼포스의 문체를 아주 정확히 흉내 내어 책에 그의 이름을 적고 여러 도시에 돌렸다. 글을 지은 이는 아낙시메네스였지만, 그리스 전역에서 미움을 산 사람은 테오폼포스였다.

**[6.18.6]** 즉석에서 연설을 지어 말한 최초의 사람도 아낙시메네스였다. 다만 알렉산드로스를 다룬 서사시까지 그가 지었다고는 믿을 수 없다. 소타데스는 제99회 올림피아 경기의 장거리 달리기에서 이겨 크레타 사람으로 선포되었다. 실제로도 크레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다음 경기에서 에페소스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자신을 에페소스 사람이라고 했다. 이 일로 크레타인들은 그를 추방했다.

[6.18.7] 올림피아에 처음으로 상을 봉헌한 선수들은 아이기나의 프락시다마스와 오푸스의 렉시비오스였다. 프락시다마스는 제59회 경기에서 권투에 이겼고, 렉시비오스는 제61회 경기에서 판크라티온에 이겼다. 두 상은 오이노마오스의 기둥 가까이에 서 있으며 나무로 만들었다. 렉시비오스상은 무화과나무로, 아이기나인의 상은 사이프러스나무로 만들었다. 아이기나인의 상이 다른 것보다 덜 삭았다. periegesis.abm.uu.se

## 제19장

[6.19.1] 알티스 안에서 헤라 신전 북쪽에는 역암으로 된 단이 있고, 그 뒤에는 크로니오스산이 뻗어 있다. 이 단 위에 보물고들이 있다. 델포이에서 몇몇 그리스인들이 아폴론을 위해 보물고를 지은 것과 같다. 올림피아에는 시키온인들의 보물고라 불리는 곳이 있다. 시키온의 참주였던 미론이 봉헌했다.

[6.19.2] 미론은 제33회 올림피아 경기에서 전차 경주에 이긴 일을 기념하여 그것을 지었다. 보물고 안에 방 두 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도리아 양식이고 다른 하나는 이오니아 양식이다. 내가 보니 두 방은 청동으로 만들었다. 다만 엘리스인들이 말하는 대로 타르테소스의 청동인지는 모른다.

[6.19.3] 타르테소스는 이베리아인들의 땅에 있는 강으로, 두 하구를 통해 바다로 들어간다고 한다. 그 두 하구 사이에는 강과 이름이 같은 도시가 놓여 있었다고 한다. 그 강은 이베리아에서 가장 크고 조수가 드나든다. 뒤 시대 사람들은 그 강을 바이티스라고 불렀다. 또 이베리아인들의 도시 카르피아의 옛 이름이 타르테소스였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다.

[6.19.4] 올림피아에 있는 두 방 가운데 작은 방에는 청동의 무게가 오백 탈란톤이며, 미론과 시키온인들이 봉헌했다고 새긴 글들이 있다. 이 방에는 오종 경기에 쓰는 원반 세 개가 보관되어 있다. 청동을 입힌 방패도 있고, 그 안쪽은 그림으로 꾸몄다. 방패와 함께 투구와 정강이받이도 있다. 무장에 새긴 글은 미아니아인들이 전리품의 첫 몫으로 제우스에게 바쳤다고 한다. 이 미아니아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다.

[6.19.5] 마침 투키디데스가 자기 역사에서 포키스 근처 로크리스인들의 여러 도시를 언급하면서 미오니아인들도 들었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방패에 적힌 미아니아인들은 로크리스 본토의 미오니아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방패의 글자들이 조금 일그러진 것은 봉헌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6.19.6] 여기에는 기록할 만한 다른 봉헌물들도 놓여 있다. 손잡이가 금으로 된 펠롭스의 칼과, 키몬의 아들 밀티아데스가 바친 상아로 만든 아말테이아의 뿔이다. 밀티아데스는 자기 가문에서 처음으로 트라케의 케르소네소스를 다스렸다. 뿔에는 옛 아티카 글자로 이렇게 새겨져 있다.

> 케르소네소스 사람들이 아라토스의 요새를 점령한 뒤
> 나를 올림피아의 제우스에게 바쳤다. 그들의 지휘관은 밀티아데스였다.

회양목으로 만들고 머리에 금을 입힌 아폴론상도 서 있다. 명문은 제피리온 곶 가까이 사는 로크리스인들이 봉헌했으며, 크로톤 사람 카틸로스의 아들 파트로클레스가 만들었다고

밝힌다. pausanias.symmachus.org

**[6.19.7]** 시키온인들의 보물고 옆에는 카르타고인들의 보물고가 있다. 포타이오스와 안티필로스와 메가클레스의 작품이다. 안에는 거대한 제우스상과 아마포로 만든 가슴받이 세 벌이 봉헌되어 있다. 겔론과 시라쿠사이인들이 바다에서였든 육지에서였든 페니키아인들을 이기고 바친 것들이다.

**[6.19.8]** 세 번째 보물고는 〔…〕이고, 네 번째는 에피담노스 사람들이 봉헌했다. 〔…〕 거기에는 아틀라스가 하늘을 떠받치는 모습이 있다. 헤라클레스와 헤스페리데스의 사과나무도 있고, 뱀이 그 사과나무를 감고 있다. 이것들 역시 삼나무로 만들었으며, 헤길로스의 아들 테오클레스의 작품이다. 하늘에 새긴 명문은 아들이 그 제작을 도왔다고 한다. 헤스페리데스의 상들은 엘리스인들이 옮겨 놓아서 내가 사는 시대에도 헤라 신전에 있었다. 에피담노스 사람들의 보물고는 피로스가 아들 라크라테스와 헤르몬과 함께 지었다.

**[6.19.9]** 시바리스 사람들도 비잔티온인들의 보물고에 붙여 보물고를 지었다. 이탈리아와 그곳의 도시들을 연구한 이들은 브룬두시온과 히드루스 사이에 있는 루피아이의 이름이 바뀐 것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시바리스였다는 것이다. 그곳의 항구는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만든 것이다.

**[6.19.10]** 시바리스 사람들의 보물고 가까이에는 리비아의 키레네 사람들의 보물고가 있다. 안에는 로마 황제들의 상이 서 있다. 시켈리아의 셀리누스는 카르타고인들과의 전쟁에서 파괴되었다. 그러나 재앙이 닥치기 전에 시민들은 보물고를 만들어 올림피아의 제우스에게 봉헌했다. 그 안에는 디오니소스상이 서 있는데, 얼굴과 발과 손은 상아로 만들었다.

**[6.19.11]** 셀리누스 사람들의 보물고에 접한 메타폰티온 사람들의 보물고에는 엔디미온상이 서 있다. 옷을 빼고는 이것 역시 상아로 만들었다. 메타폰티온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는 모른다. 오늘날의 메타폰티온에는 극장과 둘레 성벽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6.19.12]** 아티카에 이웃한 메가라 사람들도 보물고를 지어 그 안에 봉헌물들을 바쳤다. 삼나무로 만들고 금을 박아 넣은 작은 상들로, 헤라클레스와 아켈로오스의 싸움을 나타낸다. 제우스와 데이아네이라, 아켈로오스와 헤라클레스, 그리고 아켈로오스를 돕는 아레스가 있다. 한때는 헤라클레스의 편으로 아테나상도 이곳에 서 있었다. 지금은 헤라 신전에서 헤스페리데스의 상들 옆에 서 있다.

**[6.19.13]** 보물고의 박공에는 거인들과 신들의 전쟁이 새겨져 있다. 박공 위에 봉헌된 방패의 명문은 메가라인들이 코린토스인들에게서 얻은 전리품으로 이 보물고를 바쳤다고 밝힌다. 내 생각에 메가라인들이 이긴 것은 포르바스가 아테네에서 종신 아르콘직을 맡고 있을 때였다. 당시는 아테네의 관직에 아직 한 해 임기가 정해지기 전이었으며, 엘리스인들도 올림피아 경기의 회차를 기록하기 전이었다.

**[6.19.14]** 코린토스인들과 싸울 때 아르고스인들이 메가라인들을 도왔다고 한다. 메가라인들이 올림피아의 보물고를 지은 것은 전투가 끝난 지 여러 해 뒤였다. 그러나 그 안에 놓은 봉헌물들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디포이노스와 스킬리스의 제자인 라케다이몬인 돈타스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6.19.15]** 마지막 보물고는 경기장 바로 곁에 있다. 명문에 따르면 보물고와 그 안에 두었던 상들은 겔라 사람들이 봉헌한 것이다. 그러나 상들은 이제 그곳에 없다. periegesis.abm.uu.se

## 제20장

**[6.20.1]** 앞에서 이미 말한 대로 크로니오스산은 보물고가 있는 단과 나란히 뻗어 있다. 엘리스인들이 엘라피오스라 부르는 달의 춘분에는 이른바 바실라이가 산 정상에서 크로노스에게 제사를 올린다.

**[6.20.2]** 크로니오스산의 북쪽 기슭〔…〕 보물고들과 산 사이에는 에일레이티이아의 성소가 있다. 그곳에서는 엘리스 토박이 신령 소시폴리스도 숭배한다. 에일레이티이아를 '올림피아의 여신'이라 부르며, 해마다 여신의 여사제를 뽑는다. 소시폴리스를 돌보는 노파도 엘리스의 관습에 따라 정결을 지키며 산다. 신을 씻길 물을 가져오고, 꿀을 넣어 반죽한 보리떡을 신 앞에 차린다.

**[6.20.3]** 신전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앞쪽에는 에일레이티이아의 제단과 사람들이 드나드는 입구가 있다. 안쪽에서는 소시폴리스를 섬기며, 신을 돌보는 여자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그 여자도 흰 베일로 머리와 얼굴을 감싸야 한다. 처녀들과 기혼 여자들은 에일레이티이아의 성소에서 찬가를 부르며 기다린다. 신에게 온갖 향을 태워 바치지만, 포도주를 부어 바치는 관습은 없다. 가장 중대한 일에는 소시폴리스에게 걸고 맹세한다.

**[6.20.4]** 이야기는 이렇다. 아르카디아인들이 엘리스 땅에 쳐들어오고 엘리스인들이 그들에 맞서 대열을 갖추었을 때, 한 여자가 젖먹이를 품에 안고 엘리스 지휘관들에게 왔다. 자신이 이 아이의 어머니지만 꿈에서 계시를 받았으므로, 엘리스인들을 위해 싸우라고 아이를 내어 준다고 했다. 엘리스 지휘관들은 그 여자의 말을 믿을 만하다고 여겨 아이를 벌거벗긴 채 군대 앞에 놓았다.

**[6.20.5]** 아르카디아인들이 다가오자 아이는 곧바로 뱀으로 변했다. 아르카디아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대열이 어지러워져 등을 돌려 달아났다. 엘리스인들은 그들을 공격하여 매우 이름난 승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이 신을 '도시를 구하는 이'라는 뜻의 소시폴리스라 부른다. 전투가 끝난 뒤 뱀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여긴 자리에 성소를 세웠다. 엘리스인들은 에일레이티이아도 그와 함께 섬기기로 했다. 이 여신이 자신들을 돕기 위해 아들을 인간 세상에 낳아 주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6.20.6]** 전투에서 죽은 아르카디아인들의 무덤은 클라데오스강 건너 서쪽 언덕에 있다. 에일레이티이아의 성소 가까이에는 천상의 아프로디테 성소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곳의 제단들에서도 사람들은 제사를 올린다.

**[6.20.7]** 알티스 안의 제의 행렬 입구 곁에는 이른바 히포다메이온이 있다. 넓이가 약 한 플레트론인 땅을 담으로 둘러쌌다. 여자들은 해마다 한 번 그 안에 들어가 히포다메이아에게 제사를 지내고 다른 방식으로도 그녀를 공경할 수 있다. 이야기에 따르면 펠롭스가 크리시포스의 죽음 때문에 그녀에게 몹시 화를 내자, 히포다메이아는 아르골리스의 미데이아로 물러났다. 엘리스인들은 뒤에 신탁을 받고 히포다메이아의 뼈를 올림피아로 가져왔다고 한다.

**[6.20.8]** 선수들에게 물린 벌금으로 만든 상들이 끝나는 곳에 크립테, 곧 '숨은 입구'라 부르는 입구가 있다. 경기 심판과 참가자들이 이곳을 통해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관례다. 경기장에는 흙으로 쌓은 둑이 있고, 그 위에 경기 주관자들의 자리가 있다. 헬라노디카이의 맞은편에는 흰 대리석 제단이 있다.

**[6.20.9]** 한 여자가 이 제단에 앉아 올림피아 경기를 지켜본다. 데메테르 카미네의 여사제다. 엘리스인들은 때에 따라 다른 여자에게 이 직책을 맡긴다. 처녀들은 경기를 보아도 된다. 경기장 끝에서 주자들이 출발하는 곳에는 엔디미온의 무덤이 있다고 엘리스인들은 말한다.

**[6.20.10]** 심판들이 앉는 쪽으로 경기장을 지나면 말 경주를 위해 따로 마련한 곳과 말들의 출발 시설이 있다. 출발 시설은 배의 뱃머리 모양이며, 그 뾰족한 끝은 경주로를 향한다. 아그납토스의 주랑에 닿는 쪽에서는 뱃머리 모양의 시설이 넓어진다. 뱃머리의 충각에 해당하는 맨 끝에는 장대에 단 청동 돌고래가 있다.

**[6.20.11]** 출발 시설은 양쪽이 각각 사백 피트가 넘고 양쪽에 말이 서는 칸들이 마련되어 있다. 경주에 나서는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칸을 배정받는다. 전차나 경주마 앞에는 줄을 팽팽하게 쳐서 막아 놓는다. 올림피아 경기가 열릴 때마다 뱃머리 모양 시설의 한가운데에 될 수 있는 한 가깝게, 굽지 않은 벽돌로 제단을 쌓고 겉에 회를 바른다.

**[6.20.12]** 제단 위에는 두 날개를 한껏 펼친 청동 독수리가 서 있다. 경주의 출발을 맡은 사람이 제단 안의 장치를 움직이면, 독수리가 위로 솟아 관중들의 눈에 보이고 돌고래는 땅으로 내려간다.

**[6.20.13]** 먼저 아그납토스의 주랑 쪽 양편에서 줄이 걷힌다. 그곳에 서 있던 말들이 먼저 달려 나간다. 그 말들이 두 번째 자리를 배정받은 말들에 이르면 두 번째 자리의 줄이 걷힌다. 모든 말에게 차례로 같은 일이 일어나, 뱃머리 끝에서는 말들이 모두 나란히 선다. 그 뒤에는 전차를 모는 사람들의 솜씨와 말들의 빠르기에 달렸다.

**[6.20.14]** 이 출발 방식을 처음 고안한 사람은 클레오이타스였다. 아테네의 한 상에 다음과 같이 새긴 것을 보면, 그는 이 발명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듯하다.

> 올림피아에서 말들을 출발시키는 장치를 처음 고안한 이,
> 아리스토클레스의 아들 클레오이타스가 나를 만들었다.

클레오이타스 뒤에 아리스테이데스가 장치에 무언가를 더했다고 한다.

**[6.20.15]** 경주로는 한쪽이 다른 쪽보다 길다. 더 긴 쪽은 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둑을 가로지르는 통로에 말들이 두려워하는 타락시포스가 서 있다. 둥근 제단 모양이다. 달리던 말들은 이 지점에 닿자마자 눈에 보이는 까닭도 없이 큰 공포에 사로잡힌다. 말들이 겁을 먹어 혼란이 일어나면 대개 전차가 부서지고 모는 이들이 다친다. 그래서 전차를 모는 사람들은 제물을 바치고 타락시포스가 자기들에게 너그럽게 대해 주기를 빈다.

**[6.20.16]** 타락시포스에 관한 그리스인들의 견해는 서로 다르다. 어떤 이들은 말을 다루는 데 능했던 옛 토박이의 무덤이라 한다. 그를 올레니오스라 부르며, 엘리스 땅에 있는 올레니아 바위도 그의 이름을 따서 불렀다고 한다. 또 다른 이들은 플리우스의 아들 다메온이

헤라클레스와 함께 아우게아스와 엘리스인들을 치러 갔다가, 악토르의 아들 크테아토스에게 자기가 탄 말과 함께 죽었다고 한다. 사람과 말은 같은 무덤에 묻혔다고 한다.

**[6.20.17]** 펠롭스가 이곳에 미르틸로스를 기리는 빈 무덤을 만들고, 자기가 죽인 미르틸로스의 노여움을 달래려고 제물을 바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미르틸로스의 계략으로 오이노마오스의 암말들이 겁을 먹었으므로, 무덤을 '말들을 놀라게 하는 이'라는 뜻의 타락시포스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오이노마오스 자신이 경주로에서 참가자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포르타온의 아들 알카토스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도 들어 보았다. 알카토스는 히포다메이아에게 구혼했다가 오이노마오스에게 죽어 이곳에 묻혔다고 한다. 자기가 경주로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전차를 모는 이들에게 원한을 품고 해를 끼치는 신령이 되었다는 것이다.

**[6.20.18]** 어느 이집트인은 펠롭스가 테바이의 암피온에게서 물건 하나를 받아 이른바 타락시포스가 있는 곳에 묻었다고 했다. 오이노마오스의 암말들과 그 뒤에 전차를 모는 모든 사람의 말에 겁을 준 것은 그 매장물이라고 덧붙였다. 이 이집트인은 암피온과 트라케인 오르페우스가 뛰어난 주술사였다고 여겼다. 그들의 주술로 짐승들이 오르페우스에게 왔으며, 돌들이 암피온에게 와서 성벽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내 생각에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는 타락시포스가 말의 신 포세이돈 히피오스의 별칭이라는 것이다.

**[6.20.19]** 이스트모스에도 또 다른 타락시포스가 있다. 시시포스의 아들 글라우코스다. 그는 아카스토스가 자기 아버지를 기리는 경기를 열었을 때 자기 말들에게 죽었다고 한다. 아르고스인들의 네메아에는 말들에게 해를 끼치는 영웅은 없었다. 다만 전차가 도는 지점 위로 붉은 바위가 솟아 있었는데, 거기서 번쩍이는 빛 때문에 말들이 불을 본 것처럼 겁을 먹었다. 그래도 말들에게 공포를 주는 데에는 올림피아의 타락시포스가 훨씬 심하다. 반환점의 기둥 하나에는 띠를 들고 우승한 펠롭스에게 막 씌워 주려는 히포다메이아의 청동상이 있다. periegesis.abm.uu.se

## 제21장

**[6.21.1]** 경주로의 다른 쪽에는 흙으로 쌓은 둑 대신 낮은 언덕이 있다. 언덕 기슭에는 카미네라는 별칭을 가진 데메테르의 성소가 세워져 있다. 이 이름이 오래되었으며, 이곳에서 땅이 갈라져 하데스의 전차를 받아들인 뒤 다시 닫혔다는 뜻이라고 보는 이들이 있다. 다른 이들은 카미노스가 피사 사람이었다고 한다. 옴팔리온의 아들이자 피사의 참주인 판탈레온이 엘리스에 반기를 들려 할 때 그에게 맞섰다는 것이다. 판탈레온은 그를 죽였고, 카미노스의 재산으로 데메테르의 성소를 지었다고 한다.

**[6.21.2]** 아테네인 헤로데스는 코레와 데메테르의 옛 신상을 대신할 새 상을 펜텔리콘 대리석으로 만들어 봉헌했다. 올림피아의 체육장에서는 오종 경기 선수들과 달리기 선수들이 연습하는 것이 관례다. 노천에는 돌 받침대를 만들었다. 본래 그 위에는 아르카디아인들에게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 기념물이 서 있었다. 체육장 입구 왼편에는 이보다 작은 별도의 울타리 터가 있으며, 선수들의 씨름장이 그 안에 있다. 체육장의 동쪽 주랑 벽에 붙은 선수들의 숙소는 남서쪽을 향한다.

**[6.21.3]** 클라데오스강 건너편에는 오이노마오스의 무덤이 있다. 흙을 쌓아 올리고 돌담으로 둘러쌌다. 무덤 위쪽에는 건물의 폐허가 있다. 오이노마오스가 암말들을 거기에 두었다고 한다. 지금 아르카디아와 엘리스를 가르는 경계는 본래 아르카디아와 피사를 갈랐다. 그 위치는 이러하다. 사우로스의 능선이라 불리는 곳에서 에리만토스강을 건너면 사우로스의 무덤과 지금은 폐허가 된 헤라클레스의 성소가 있다. 사우로스는 여행자들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다가 헤라클레스의 손에 벌을 받았다고 한다.

**[6.21.4]** 그 강도의 이름을 딴 이 능선에는 남쪽에서 알페이오스강으로 들어가는 강이 있다. 에리만토스강과 바로 마주 보는 이 강이 피사 땅과 아르카디아의 경계이며, 이름은 디아곤이다. 사우로스의 능선을 지나 사십 스타디온을 가면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있다. 세운 사람의 이름에서 별칭을 얻어 데마이네토스라 부른다. 이 신전 역시 폐허가 되었다. 알페이오스강 곁의 높은 곳에 지은 것이다.

**[6.21.5]**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디오니소스 레우키아니테스의 성소가 있고, 그 곁으로 레우키아니아스강이 흐른다. 이 강도 알페이오스강의 지류다. 폴로에산에서 내려온다. 이 강을 지난 뒤 알페이오스강을 건너면 피사 땅에 들어선다.

**[6.21.6]** 이 지방에는 뾰족한 꼭대기가 솟은 언덕이 있다. 그 위에 프릭사시의 폐허와 키도니아라는 별칭의 아테나 신전이 있다. 신전은 온전히 남아 있지 않으나 제단은 아직 있다. 이다의 헤라클레스의 후손 클리메노스가 여신에게 이 성소를 세웠다고 한다. 그는 크레타의 키도니아, 이아르다노스강 가에서 왔다. 엘리스인들은 펠롭스도 오이노마오스와 겨루기 전에 키도니아의 아테나에게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Sentences 6.21

**[6.21.7]** 여기서 더 가면 파르테니아의 물줄기에 닿는다. 강 곁에는 마르막스의 암말들이 묻힌 무덤이 있다. 이야기에 따르면 마르막스는 히포다메이아에게 처음 구혼하러 온 사람이었고, 다른 누구보다 먼저 오이노마오스에게 죽었다. 그의 암말들은 파르테니아와 에리파라는 이름이었다. 오이노마오스는 마르막스를 죽인 뒤 암말들도 죽였지만, 그 말들까지 묻게 해 주었다. 강은 마르막스의 암말에게서 파르테니아라는 이름을 얻었다.

**[6.21.8]** 하르피나테스라 불리는 강도 있다. 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하르피나시의 여러 폐허와 제단들이 있다. 도시를 세운 이는 오이노마오스라고 한다. 자기 어머니 하르피나에게서 이름을 따왔다.

**[6.21.9]** 조금 더 가면 높이 쌓아 올린 흙무덤이 있다. 히포다메이아의 구혼자들의 무덤이다. 오이노마오스는 아무런 예도 갖추지 않고 그들을 서로 가까운 곳에 묻었다고 한다. 그러나 뒤에 펠롭스는 그들을 모두 기리고 히포다메이아를 기쁘게 하려고 높다란 기념물을 세웠다. 내 생각에 펠롭스는 자기가 오이노마오스를 이기기 전에 오이노마오스가 이겼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어떤 이들이었는지 후세에 전할 기념물도 남기고 싶었던 듯하다.

**[6.21.10]** 『대 에오이아이』라는 서사시에 따르면, 마르막스 다음으로 오이노마오스에게 죽은 이가 포르타온의 아들 알카토스였다. 알카토스 뒤에는 에우리알로스, 에우리마코스, 크로탈로스가 죽었다. 나는 이 사람들의 부모나 고향을 알아낼 수 없었다. 그다음에 죽은 아크리아스는 라케다이몬인이자 아크리아이의 건국자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아크리아스 뒤에 오이노마오스가 죽인 이들은 카페토스, 리쿠르고스, 라시오스, 칼코돈, 트리콜로

노스였다고 한다. 아르카디아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 트리콜로노스는 리카온의 아들 트리콜로노스와 이름이 같으며 그의 후손이었다.

[6.21.11] 트리콜로노스 뒤에는 아리스토마코스와 프리아스, 그리고 펠라곤과 아이올리오스와 크로니오스가 경주에서 죽었다. 어떤 이들은 여기까지 열거한 이들에 더하여, 아타마스의 아들 레우콘에게서 태어난 에리트라스와 아이올로스의 아들 마그네스에게서 태어난 에이오네우스도 들었다. 보이오티아의 에리트라이는 에리트라스의 이름을 딴 도시다. 이곳에 기념물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펠롭스는 피사를 다스리게 된 뒤 해마다 그들에게 영웅에게 바치는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periegesis.abm.uu.se

## 제22장

[6.22.1] 무덤에서 약 한 스타디온을 더 가면 코르닥스라는 별칭의 아르테미스 성소의 흔적이 보인다. 펠롭스를 따르던 이들이 이 여신 곁에서 승리를 축하하며 코르닥스 춤을 추었으므로 이런 이름을 얻었다. 이 춤은 시필로스산 둘레에 사는 사람들 특유의 춤이다. 성소에서 멀지 않은 작은 건물 안에는 청동 궤짝이 하나 있다. 펠롭스의 뼈를 그 안에 보관한다. 성벽과 그 밖의 건물은 남아 있지 않았고, 피사가 서 있던 땅에는 온통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다.

[6.22.2] 도시를 세운 사람은 아이올로스의 손자이자 페리에레스의 아들인 피소스였다고 한다. 피사 사람들은 엘리스인들을 적대하고 그들 대신 올림피아 경기를 주관하려는 열망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다. 제8회 올림피아 경기 때에는 그리스 참주들 가운데 가장 오만한 아르고스의 페이돈을 불러들여 그와 함께 경기를 열었다. 제34회 경기 때에는 피사 사람들이 옴팔리온의 아들인 왕 판탈레온과 함께 이웃에서 병력을 모아 엘리스인들 대신 올림피아 경기를 열었다.

[6.22.3] 엘리스인들은 이 두 경기와 아르카디아인들이 연 제104회 경기를 '올림피아 경기가 아닌 해'라고 부르며, 경기 목록에 넣지 않는다. 제48회 경기 때 판탈레온의 아들 다모폰은 엘리스인들이 자신을 두고 음모를 꾸민다고 의심할 만한 일을 했다. 그러나 엘리스인들이 군대를 이끌고 피사 땅에 들어오자, 다모폰은 간청과 맹세로 그들을 설득하여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

[6.22.4] 판탈레온의 아들 피로스가 형제 다모폰에 이어 왕이 되자, 피사 사람들은 스스로 엘리스와 전쟁을 벌였다. 트리필리아에 있는 마키스토스와 스킬루스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속국인 디스폰티온 사람들도 엘리스인들에 맞선 반란에 가담했다. 디스폰티온 사람들은 피사 사람들과 가까운 혈족이었다. 오이노마오스의 아들 디스폰테우스가 자기 도시를 세웠다는 전승도 있었다. 피사와 그 동맹국들은 모두 엘리스인들에게 파괴될 운명이었다.

[6.22.5] 엘리스 땅의 필로스 폐허는 올림피아에서 엘리스로 가는 산길에서 볼 수 있다. 엘리스와 필로스 사이는 팔십 스타디온이다. 앞서 말했듯 이 필로스는 메가라인 클레손의 아들 필론이 세웠다. 헤라클레스가 부수고 엘리스인들이 다시 세웠으나, 세월이 흐르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었다. 그 곁에서 라돈강이 페네이오스강으로 흘러든다.

[6.22.6] 엘리스인들은 다음 호메로스의 구절이 이 필로스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 그는 넓은 물줄기로 필로스 사람들의 땅을 지나는
> 알페이오스강의 후손이었다.

엘리스인들은 자기들의 말이 옳다고 나를 설득했다. 알페이오스강은 실제로 이 지방을 흐르므로, 그 구절이 다른 필로스를 가리킬 수는 없다. 스팍테리아섬 맞은편에 있는 필로스 사람들의 땅으로는 알페이오스강이 지리상 도저히 흐를 수 없다. 또 아르카디아에는 필로스라는 도시가 있다고 알려진 곳이 없다.

**[6.22.7]** 올림피아에서 약 오십 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엘리스인들의 마을 헤라클레이아가 있다. 그 곁에 키테로스강이 흐른다. 샘 하나가 그 강으로 흘러들며 그 가까이에 님프들의 성소가 있다. 님프들의 이름은 저마다 칼리파이아, 시날라시스, 페가이아, 이아시스이지만, 모두를 아울러 이오니데스라 부른다. 샘에서 몸을 씻는 사람들은 온갖 통증과 병고에서 벗어난다. 님프들의 이름은 아테네에서 이곳으로 이주한 가르게토스의 아들 이온에게서 나왔다고 한다.

**[6.22.8]** 평야를 지나 엘리스로 가려면 레트리노이까지 백이십 스타디온, 거기서 엘리스까지 다시 백팔십 스타디온을 간다. 레트리노이는 본래 도시였고, 펠롭스의 아들 레트레우스가 세웠다. 그러나 내가 사는 시대에는 건물 몇 채와 신전 안의 아르테미스 알페이아이아 신상만 남아 있었다.

**[6.22.9]** 전설에 따르면 여신이 이 별칭을 얻은 까닭은 이러하다. 알페이오스가 아르테미스를 사랑하게 되었다. 말로 간청해서는 여신을 신부로 얻지 못하리라고 깨닫자, 감히 그녀에게 힘을 쓰려는 계략을 꾸몄다. 아르테미스는 자신과 함께 노는 님프들과 레트리노이에서 밤새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알페이오스가 거기에 왔다. 그러나 아르테미스는 그의 계략을 의심하여 자기 얼굴과 함께 있던 님프들의 얼굴에 진흙을 발랐다. 알페이오스는 무리 사이에 끼었으나 아르테미스와 다른 이들을 구별할 수 없었다. 끝내 그녀를 찾아내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떠났다.

**[6.22.10]** 레트리노이 사람들은 알페이오스가 여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알페이아이아라고 불렀다. 그런데 처음부터 레트리노이와 우호 관계였던 엘리스인들은 자기들 사이에 자리 잡은 아르테미스 엘라피아이아 숭배를 그 도시에 옮겨 놓고, 자신들이 아르테미스 알페이아이아를 섬기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알페이아이아 여신이 엘라피아이아라 불리게 되었다.

**[6.22.11]** 내 생각에 엘리스인들이 아르테미스를 엘라피아이아라 부른 것은 사슴을 사냥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사슴을 **엘라포스**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스인들은 아르테미스를 길렀던 이 지방 여인의 이름이 엘라피오스였다고 한다. 레트리노이에서 약 육 스타디온 떨어진 곳에는 결코 마르지 않는 호수가 있다. 너비가 약 삼 스타디온이다. periegesis.abm.uu.se

## 제23장

**[6.23.1]** 엘리스에서 볼 만한 것으로는 오래된 체육장이 있다. 선수들은 올림피아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훈련을 이 체육장에서 받는 것이 관례다. 담 안의 달리기 터들 사이

에는 키 큰 플라타너스가 자란다. 이 울타리 안의 구역 전체를 크시스토스라 부른다. 암피트리온의 아들 헤라클레스가 날마다 이곳에서 자라는 엉겅퀴를 모조리 긁어 내는 일을 운동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긁어 내다’는 아낙시웨인이라 한다.

**[6.23.2]** 달리기 선수들이 실제로 겨루는 길은 지역 사람들이 ‘신성한 경주로’라 부른다. 달리기 선수와 오종 경기 선수들이 연습하는 길과는 따로 나 있다. 체육장 안에는 플레트리온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심판들은 여기서 나이와 기량에 따라 선수들의 상대를 정한다. 상대를 짝지어 주는 종목은 씨름이다.

**[6.23.3]** 체육장 안에는 여러 신의 제단도 있다. 곁에서 돕는 이라는 뜻의 파라스타테스라는 별칭을 가진 이다의 헤라클레스, 에로스, 엘리스인들과 아테네인들 모두가 ‘사랑에 화답하는 이’라는 뜻의 안테로스라고 부르는 신, 그리고 데메테르와 그 딸의 제단이다. 아킬레우스에게는 제단이 없고 신탁에 따라 세운 빈 무덤만 있다. 축제가 시작되는 무렵 정해진 날에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 엘리스의 여자들은 아킬레우스에게 예를 올린다. 특히 그를 위해 소리 높여 운다.

**[6.23.4]** 큰 체육장에 붙어 있지만 그보다 작고, 역시 담으로 둘러싸인 체육장이 하나 더 있다. 모양 때문에 ‘네모난 체육장’이라 부른다. 선수들은 그곳에서 씨름을 연습한다. 씨름을 마치고 나면 더 부드러운 권투용 가죽끈을 쓰고 서로 겨룬다. 스미르나의 소산드로스와 엘리스의 폴릭토르에게 물린 벌금으로 제우스를 기려 만든 상 가운데 하나도 이곳에 봉헌되어 있다.

**[6.23.5]** 담으로 둘러싸인 세 번째 체육장도 있다. 바닥이 부드러워 말토라 부르며 축제 기간 내내 젊은이들만 쓰게 한다. 말토의 한 모퉁이에는 어깨까지 새긴 헤라클레스의 흉상이 있다. 씨름장 하나에는 에로스와 이른바 안테로스가 돋을새김으로 표현되어 있다. 에로스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고 안테로스는 그것을 빼앗으려 한다.

**[6.23.6]** 말토의 입구 양쪽에는 소년 권투 선수의 상이 하나씩 서 있다. 엘리스의 법률 수호관이 내게 말하기를, 그 선수는 파로스섬 너머에 있는 알렉산드레이아 태생으로 사라피온이라 불렸다고 한다. 엘리스에 왔을 때 주민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먹을 것을 공급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에게 이런 영예를 주었다. 그가 올림피아에서 관을 받고 엘리스인들에게 은혜를 베푼 때는 제217회 올림피아 경기였다.

**[6.23.7]** 엘리스인들의 평의회당도 이 체육장 안에 있다. 즉흥 연설과 온갖 글의 낭독이 여기서 열린다. 봉헌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 랄리크미온이라 부른다. 그 둘레에는 방패들이 봉헌되어 있는데, 보여 주기 위한 것이며 전쟁에 쓰려고 만든 것은 아니다.

**[6.23.8]** 체육장에서 목욕장으로 가는 길은 ‘침묵의 거리’를 지나며 아르테미스 필로메이라크스의 성소 곁을 지난다. 여신에게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이’라는 별칭이 붙은 것은 체육장에 이웃하기 때문이다. 거리가 ‘침묵’이라는 이름을 얻은 까닭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옥실로스의 군대에서 몇 사람이 엘리스 안의 사정을 탐지하러 파견되었다. 그들은 가는 길에 서로 당부하기를 성벽 가까이에 이르면 자신들은 철저히 입을 다물고, 도시 사람들에게서 무엇이든 알아낼 수 있는지 귀 기울여 듣자고 했다. 그들은 이 거리를 따라 들

키지 않고 도시에 이르렀다. 알고 싶은 것을 모두 들은 뒤 아이톨리아인들에게 돌아갔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침묵한 일에서 거리의 이름이 나왔다. periegesis.abm.uu.se

## 제24장

**[6.24.1]** 체육장에서 나가는 두 길 중 하나는 아고라와 이른바 헬라노디카이온으로 이어진다. 이 길은 아킬레우스의 무덤 위쪽을 지나며, 경기 심판들이 체육장에 갈 때 다니는 길이다. 달리기 선수들의 조를 정할 때는 해가 뜨기 전에 들어가고, 오종 경기와 이른바 중경기 종목을 정할 때는 정오에 들어간다.

**[6.24.2]** 엘리스의 아고라는 이오니아 도시들이나 이오니아 가까이에 있는 그리스 도시들의 양식과는 다르다. 더 오래된 양식대로 지어 여러 주랑이 따로 떨어져 있고 그 사이로 길이 난다. 오늘날 아고라의 이름은 '말 경주로'라는 뜻의 히포드로모스다. 이곳 주민들은 여기서 말을 훈련시킨다. 주랑 가운데 남쪽 것은 도리아 양식이며, 기둥들에 의해 세 부분으로 나뉜다. 심판들은 대개 그곳에서 낮을 보낸다.

**[6.24.3]** 기둥 곁에는 제우스의 제단도 만들게 한다. 아고라의 열린 공간에도 제단들이 있으나 그 수는 많지 않다. 그때그때 임시로 만들었으므로 어렵지 않게 해체할 수 있다. 이 주랑 쪽에서 아고라에 들어가면 왼편에 헬라노디카이온이 있다. 주랑의 끝과 나란하며, 아고라와는 길 하나로 갈라져 있다. 심판으로 뽑힌 사람들은 이 헬라노디카이온에서 열 달을 연달아 지낸다. 법률 수호관들은 축제 때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가르친다.

**[6.24.4]** 헬라노디카이온 곁의 주랑 가까이에는 다른 주랑이 하나 있으며, 두 건물 사이에 길 하나가 있다. 엘리스인들은 그것을 코르키라 주랑이라고 부른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코르키라인들이 그들의 땅에 상륙하여 전리품을 얼마간 가져갔지만, 엘리스인들은 코르키라 땅에서 그보다 몇 배나 많은 것을 빼앗았다. 그 전리품의 십분의 일로 이 주랑을 지었다고 한다.

**[6.24.5]** 주랑은 도리아 양식의 이중 주랑이다. 아고라 쪽과 그 반대쪽에 모두 기둥이 있다. 가운데에서는 기둥 대신 벽이 지붕을 떠받치며 그 벽 양쪽으로 상들이 봉헌되어 있다. 주랑에서 아고라를 향한 쪽에는 피스토크라테스의 아들 피론의 상이 서 있다. 그는 어떤 일에도 단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던 소피스트였다. 피론의 무덤도 엘리스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그곳을 페트라라 부르는데, 옛날에는 페트라가 하나의 구역이었다고 한다.

**[6.24.6]** 아고라의 열린 공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치유하는 이라는 뜻의 아폴론 아케시오스의 신전과 신상이다. 이 이름의 뜻은 아테네인들이 쓰는 '재앙을 물리치는 이'라는 뜻의 알렉시카코스와 꼭 같은 듯하다. 다른 곳에는 태양신 헬리오스와 달의 여신 셀레네의 석상이 있다. 달의 여신 머리에서는 뿔이, 태양신의 머리에서는 햇살이 뻗어 나온다. 카리테스의 성소도 있다. 신상들은 나무로 만들었고 옷에는 금을 입혔으며 얼굴과 손과 발은 흰 대리석이다. 한 여신은 장미를, 가운데 여신은 주사위로 쓰는 복사뼈를, 세 번째 여신은 도금양 잔가지를 들고 있다.

**[6.24.7]** 여신들이 이런 물건을 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짐작할 수 있다. 장미와 도금양은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것이며 아도니스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 또 모든 신 가운데 아프로

디테와 가장 가까운 이들은 카리테스 여신들이다. 복사뼈는 젊은이들과 처녀들이 가지고 노는 물건이다. 그들에게는 늙음의 추한 모습이 조금도 없다. 카리테스 오른편의 같은 받침대에는 에로스의 상이 서 있다.

**[6.24.8]** 여기에는 실레노스의 신전도 있다. 디오니소스와 함께 섬기는 곳이 아니라 실레노스에게만 바쳐진 곳이다. 취기를 나타내는 메테가 그에게 잔에 든 포도주를 내민다. 실레노스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종족이라는 사실은 특히 그들의 무덤으로 알 수 있다. 히브리인들의 땅에 실레노스 하나의 무덤이 있고, 페르가몬에는 또 다른 실레노스의 무덤이 있다.

**[6.24.9]** 엘리스의 아고라에서 다른 것도 보았다. 신전 모습을 한 낮은 건물이다. 벽은 없고 참나무 기둥들이 지붕을 받친다. 그 지방 사람들은 무덤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같으나 누구의 무덤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물어본 노인이 사실대로 말했다면 옥실로스의 무덤일 것이다.

**[6.24.10]** 아고라에는 '열여섯 여인'이라 부르는 여자들을 위한 건물도 있다. 그들은 여기서 헤라에게 바칠 옷을 짠다. 아고라에 접한 오래된 신전은 기둥들이 둘러싸고 있다. 지붕은 무너졌고 나는 신전 안에서 아무런 상도 발견하지 못했다. 로마 황제들에게 바쳐진 신전이다. periegesis.abm.uu.se

## 제25장

**[6.25.1]** 코르키라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지은 주랑 뒤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다. 신전에서 멀지 않은 노천에는 성역도 있다. 신전 안의 여신을 사람들은 '천상의 여신'이라 부른다. 페이디아스가 상아와 금으로 만든 상으로, 한 발로 거북을 밟고 서 있다. 다른 아프로디테의 성역에는 담을 둘렀고, 안에 받침대를 마련했다. 그 위에는 청동 수염소에 걸터앉은 청동 아프로디테상이 있다. 스코파스의 작품으로, 이 아프로디테는 '모두의 여신'이라 불린다. 거북과 수염소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짐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맡기겠다.

**[6.25.2]** 엘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데스의 성역과 신전은 해마다 한 번 연다. 그때조차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알기로 하데스를 섬기는 사람은 엘리스인들뿐이며,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헤라클레스가 엘리스의 필로스를 치러 갈 때 아테나가 그를 도왔다고 한다. 하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원한이 있고 필로스에서 공경을 받았으므로, 필로스인들 편에서 싸우러 왔다.

**[6.25.3]**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말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인용한다.

> 그들 가운데 거대한 하데스도 빠른 화살에 상처를 입었다.
>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아들, 바로 그 사람이
> 필로스에서 죽은 이들 사이에 있던 그를 쏘아 고통에 빠뜨렸다.

호메로스에 따르면 아가멤논과 메넬라오스가 트로이아를 치러 갔을 때 포세이돈이 그리스인들을 도왔다. 그렇다면 같은 시인이 하데스가 필로스인들을 도왔다고 보는 것도 이상할

일이 아니다. 아무튼 엘리스인들은 하데스가 자기들의 친구이고 헤라클레스의 적이라고 믿어 그에게 성소를 지었다. 이를 해마다 한 차례만 여는 것은 사람도 하데스에게 단 한 번 내려가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6.25.4]** 엘리스인들에게는 행운의 여신 티케의 성소도 있다. 성소의 한 주랑에는 거대한 상이 봉헌되어 있다. 얼굴과 손과 발은 흰 대리석이고 나머지 부분은 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혔다. 티케의 성소 왼편에 있는 작은 사당에서는 소시폴리스도 섬긴다. 신은 꿈에 나타난 모습대로 그려져 있다. 나이는 소년이며 별이 가득한 옷에 몸을 감싸고 한 손에 아말테이아의 뿔을 들었다.

**[6.25.5]** 엘리스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구역에 큰 사람 한 명의 키를 넘지 않는 청동상이 있다. 수염이 나지 않은 젊은이가 다리를 포개고 두 손을 창에 기댄 모습이다. 사람들은 그 상에 양모 옷과 아마포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둘러 준다.

**[6.25.6]** 이 상은 포세이돈의 것이라고 했으며, 옛날에는 트리필리아의 사미콘에서 숭배했다고 한다. 엘리스로 옮겨진 뒤 한층 더 큰 영예를 받았다. 그러나 엘리스인들은 그를 포세이돈이 아니라 사트라프라고 부른다. 파트라이가 확장된 뒤 코리바스의 별칭인 사트라프라는 이름을 알게 된 것이다. periegesis.abm.uu.se

## 제26장

**[6.26.1]** 아고라와 메니오스강 사이에는 오래된 극장과 디오니소스의 성소가 있다. 신상은 프락시텔레스의 작품이다. 모든 신 가운데 엘리스인들이 가장 깊이 공경하는 신은 디오니소스다. 그들은 티이아 축제에 신이 친히 온다고 주장한다. 티이아라고 이름 붙인 축제 장소는 도시에서 약 팔 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제사장들은 항아리 세 개를 건물 안으로 가져가 시민들과 마침 그 지방에 와 있는 외지인들이 보는 앞에서 빈 채로 놓는다. 건물의 문은 제사장들 자신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봉인한다.

**[6.26.2]** 이튿날에는 봉인을 살펴볼 수 있다. 건물 안에 들어가면 항아리들이 포도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축제 때에 직접 가 보지 못했다. 그러나 엘리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시민들과 외지인들도 내가 말한 일이 사실이라고 맹세했다. 안드로스 사람들 역시 격년으로 디오니소스의 축제를 지낼 때 성소에서 포도주가 저절로 흘러나온다고 주장한다. 이 일에서 그리스인들의 말을 믿어야 한다면, 시에네 위쪽의 아이티오피아인들이 태양의 식탁을 두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6.26.3]** 엘리스의 아크로폴리스에는 아테나의 성소가 있다. 신상은 상아와 금으로 만들었다. 여신상은 페이디아스의 작품이라고 한다. 투구에는 수탉의 형상이 있다. 수탉은 싸우기를 몹시 좋아하는 새다. 또 이 새는 일하는 여신 아테나 에르가네에게 바쳐졌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6.26.4]** 킬레네는 엘리스에서 백이십 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시켈리아를 바라보는 곳으로 배가 닻을 내리기에 알맞다. 엘리스의 항구이며, 아르카디아 사람에게서 이름을 얻었다. 호메로스는 엘리스 사람들을 열거하는 대목에서는 킬레네를 말하지 않았으나, 시의 뒤쪽에서는 자기가 킬레네라는 도시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6.26.5]

> 폴리다마스는 킬레네 사람 오토스의 무장을 벗겼다.
> 오토스는 필레우스의 아들 메게스의 전우이며
> 기개 높은 에페이오이 사람들의 지휘관이었다.

킬레네에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소와 아프로디테의 성소가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가장 경건하게 섬기는 헤르메스상은 받침대 위에 똑바로 세운 남근이다.

[6.26.6] 엘리스 땅은 비옥하며 특히 고운 아마를 기르기에 알맞다. 삼이나 아마는 보통 종류든 고운 종류든 그 토양이 알맞은 사람들이 씨를 뿌려 기른다. 그러나 세레스 사람들이 옷을 짜는 실은 나무껍질에서 나오지 않고 다음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생긴다. 세레스의 땅에는 그리스인들이 **세르**라고 부르는 벌레가 있다. 세레스 사람들 자신은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6.26.7] 그 크기는 가장 큰 딱정벌레의 두 배다. 다른 점에서는 나무 아래에서 줄을 잣는 거미와 비슷하며, 거미처럼 발도 여덟이다. 세레스 사람들은 이 벌레들을 기르려고 겨울과 여름에 맞는 집을 지어 준다. 이 벌레들이 만들어 내는 것은 고운 실 한 타래인데, 발에 감겨 있는 것을 찾아낸다.

[6.26.8] 사람들은 이 벌레를 사 년 동안 기르면서 기장을 먹인다. 다섯째 해에는 벌레가 더는 살 수 없음을 알고 푸른 갈대를 먹인다. 모든 먹이 가운데 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서 갈대를 배불리 먹다가 지나치게 많이 먹어 몸이 터진다. 이렇게 죽고 나면 몸 안에서 실의 대부분을 얻는다. 세리아는 홍해 안쪽의 후미에 있는 섬으로 알려져 있다.

[6.26.9] 그러나 내가 들은 바로는 이 섬을 이루는 것은 홍해가 아니라 세르라는 강이다. 이집트의 삼각주를 둘러싸는 것도 바다가 아니라 나일강뿐이다. 세리아도 그와 같은 섬이라고 한다. 세레스 사람들 자신은 아이티오피아 혈통이며, 가까운 섬인 아바사와 사카이아의 주민들도 그렇다. 그러나 이들을 아이티오피아인이 아니라 스키타이인과 인도인이 섞인 민족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6.26.10] 전해지는 이야기는 이러하다. 엘리스에서 아카이아로 가면 백오십칠 스타디온을 지나 라리소스강에 닿는다. 오늘날에는 이 강이 엘리스와 아카이아의 경계지만, 옛날에는 해안의 아락소스 곶이 경계였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7권 아카이아

## 제1장

**[7.1.1]** 엘리스와 시키온 지방 사이에서 동쪽 바다까지 내려가는 땅을 오늘날에는 주민들의 이름을 따서 아카이아라고 한다. 옛날에는 아이기알로스라 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이기알로스인이라 불렀다. 시키온인들은 지금의 시키온 지방을 다스린 왕 아이기알레우스에게서 그 이름이 나왔다고 한다. 다른 이들은 그 땅 대부분이 해안이기 때문에 해안을 뜻하는 아이기알로스에서 이름이 나왔다고 한다.

**[7.1.2]** 뒤에 헬렌이 죽자 그의 다른 아들들은 크수토스가 조상의 재산 일부를 제 것으로 삼았다고 고발하여 테살리아에서 쫓아냈다. 크수토스는 아테네로 달아났다. 그곳에서 에레크테우스의 딸을 아내로 맞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그녀에게서 아카이오스와 이온이라는 아들을 얻었다. 에레크테우스가 죽자 그의 아들 가운데 누가 뒤를 이을지 판정할 사람으로 크수토스가 뽑혔다. 그가 맏아들 케크롭스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자, 에레크테우스의 나머지 아들들이 그를 그 땅에서 추방했다.

**[7.1.3]** 그는 아이기알로스에 이르러 거기에 정착했고 거기서 죽었다. 그의 두 아들 가운데 아카이오스는 아이기알로스와 아테네의 지원군을 얻어 테살리아로 돌아가 조상들의 왕위를 되찾았다. 이온은 아이기알로스인들과 그들의 왕 셀리누스를 치려고 군대를 모으고 있었다. 그때 셀리누스가 사람을 보내 외동딸 헬리케와 혼인시키고, 이온을 아들이자 후계자로 삼겠다고 제안했다.

**[7.1.4]** 이온은 마침 그 제안을 마음에 들어 했고, 셀리누스가 죽자 아이기알로스인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아이기알로스에 세운 도시에 아내의 이름을 따 헬리케라 하고, 주민들에게는 자기 이름을 따 이오니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다만 옛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새 이름을 덧붙인 것이다. 주민들을 아이기알로스의 이오니아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땅의 옛 이름은 주민의 이름보다 더 오래 남았다. 적어도 호메로스는 아가멤논의 동맹군을 열거하면서 그 땅의 옛 이름을 그대로 들었다.

> 아이기알로스 전역과 너른 헬리케 둘레에.

**[7.1.5]** 이온이 다스릴 때 엘레우시스 사람들이 아테네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 아테네인들이 이온을 불러 전쟁을 이끌게 했는데, 그는 아티카에서 죽었다. 그의 무덤은 포타모스 구역에 있다. 이온의 후손들은 그들 자신과 백성이 아카이아인들에게 쫓겨날 때까지 이오니아인들을 다스렸다. 아카이아인들도 당시 도리아인들에게 라케다이몬과 아르고스에서 쫓겨난 참이었다.

**[7.1.6]** 아카이아인들과 이오니아인들 사이의 일은, 도리아인들이 돌아오기 전에 펠로폰네소스에서 라케다이몬과 아르고스의 주민들만 아카이아인이라 불린 까닭을 밝힌 뒤에 이야기하겠다. 아카이오스의 아들 아르칸드로스와 아르키텔레스는 프티오티스에서 아르고스로 왔다. 그곳에 이른 뒤 다나오스의 사위들이 되었다. 아르키텔레스는 아우토마테와, 아르칸

드로스는 스카이아와 혼인했다. 그들이 아르고스에 정착했다는 것은 아르칸드로스가 자기 아들에게 '이주해 온 사람'이라는 뜻의 메타나스테스라는 이름을 붙인 데서도 아주 분명히 드러난다.

**[7.1.7]** 아카이오스의 아들들이 아르고스와 라케다이몬에서 권력을 얻자 두 도시의 주민들을 아카이아인이라 부르게 되었다. 아카이아인이라는 이름은 양쪽에 공통되었으며, 아르고스인들에게는 다나오이인이라는 별도의 이름이 있었다. 앞서 말한 때에 아카이아인들은 도리아인들에게 아르고스와 라케다이몬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그들과 왕인 오레스테스의 아들 티사메노스는 이오니아인들에게 전령을 보내, 전쟁을 벌이지 않고 그들 사이에 정착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오니아인들의 왕들은 아카이아인들과 한데 합치면 티사메노스가 기개와 고귀한 혈통으로 두 민족의 왕으로 뽑힐까 두려워했다.

**[7.1.8]** 이오니아인들은 아카이아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나와서 맞서 싸웠다. 전투에서 티사메노스가 죽었다. 아카이아인들에게 패한 이오니아인들은 헬리케로 달아나 그곳에서 포위되었다가, 뒤에 협정을 맺고 떠날 수 있었다. 아카이아인들은 티사메노스의 시신을 헬리케에 묻었다. 그러나 뒤에 라케다이몬인들이 델포이 신탁의 명에 따라 그의 뼈를 스파르타로 가져갔다. 내가 사는 시대에도 라케다이몬인들이 페이디티아라 부르는 공동 식사를 하는 곳에 그의 무덤이 남아 있다.

**[7.1.9]** 이오니아인들은 아티카로 갔다. 아테네인들과 왕인 안드로폼포스의 아들 멜란토스는 그곳에 정착하도록 허락했다. 내 생각에는 이온 자신과, 그가 아테네군의 총지휘관으로서 세운 공적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아테네인들은 도리아인들이 자기들도 가만두지 않으리라고 의심했다. 이오니아인들에게 특별히 호의가 있어서라기보다 자기들의 힘을 키우려고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장

**[7.2.1]** 몇 해 뒤 코드로스의 아들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메돈과 네일레우스가 통치권을 두고 다투었다. 네일레우스는 메돈이 한쪽 발을 절었으므로 그의 지배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 문제를 델포이의 신탁에 맡기기로 했고, 피티아 여사제는 아테네의 왕권을 메돈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네일레우스와 코드로스의 다른 아들들은 식민시를 세우기 위해 떠났다. 함께 가고 싶은 아테네인은 누구든 데려갔으나, 그 일행의 대부분은 이오니아인이었다.

**[7.2.2]** 이는 일반 이주민과 혈통이 다른 왕들의 지휘 아래 그리스에서 떠난 세 번째 원정이었다. 가장 이른 것은 헤라클레스의 조카인 테바이의 이올라오스가 아테네인들과 테스피아이 사람들을 사르디니아로 이끈 원정이다. 이오니아인들이 아테네에서 배를 띄우기 한 세대 전에는, 아우테시온의 아들인 테바이 사람 테라스가 라케다이몬인들과 펠라스고이인들에게 렘노스에서 쫓겨난 미니아이 사람들을 이끌고 섬으로 갔다. 그 섬은 옛날에는 칼리스테라고 했으나 지금은 테라스의 이름을 따라 부른다.

**[7.2.3]** 세 번째가 내가 말한 원정이다. 그때 코드로스의 아들들이 이오니아인들의 지도자로 뽑혔다. 이들은 이온의 혈통이 아니었다. 코드로스와 멜란토스를 통해서는 필로스 출신의 메세니아인이었고, 어머니 쪽으로는 아테네인이었다. 이오니아인들의 원정에 함께한 그리스인들 가운데에는 페넬레오스의 후손 필로타스가 이끄는 테바이인들도 있었다. 오르코메노스의 미니아이 사람들도 코드로스의 아들들과 친족이었으므로 참가했다.

**[7.2.4]** 델포이 사람들을 제외한 포키스인 전부와 에우보이아의 아반테스인들도 참가했다. 아테네인 에욱테몬의 아들들인 필로게네스와 다몬은 포키스인들에게 항해할 배들을 주었으며, 자신들이 직접 이주민들을 이끌었다. 이들은 아시아에 상륙한 뒤 여러 무리로 갈라져 해안의 여러 도시를 각각 공격했다. 네일레우스와 그의 일행은 밀레토스로 향했다.

**[7.2.5]** 밀레토스인들 자신이 전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는 이러하다. 토박이 아낙스와 그의 아들 아스테리오스가 다스린 두 세대 동안 그들의 땅은 아낙토리아라 불렸다. 그러다가 밀레토스가 크레타 군대를 이끌고 상륙하자 땅과 도시의 이름이 모두 밀레토스로 바뀌었다. 밀레토스와 그의 일행은 에우로페의 아들 미노스에게서 달아나 크레타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이 땅의 옛 주민 카리아인들은 크레타인들과 한데 합쳤다. 이제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겠다.

**[7.2.6]** 이오니아인들은 옛 밀레토스인들을 이긴 뒤 도시가 함락될 때 달아난 자들을 제외하고 남자를 모두 죽였다. 밀레토스인들의 아내와 딸들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다. 네일레우스의 무덤은 디디마로 가는 길 왼편에서 성문과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디디마의 아폴론 성소와 신탁소는 이오니아인들이 이주해 오기 전부터 있었다.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숭배는 그들이 오기 훨씬 전부터 있었다.

**[7.2.7]** 그러나 내 생각에 핀다로스는 이 여신에 관한 일을 모두 알아본 것은 아니다. 그는 아마존 여인들이 아테네와 테세우스를 상대로 원정할 때 이 성소를 세웠다고 했다. 테르모돈에서 온 여자들이 예전부터 성소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 원정 때와 헤라클레스에게서 달아났을 때 에페소스의 여신에게 제사를 지낸 것은 사실이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더 일찍 디오니소스에게서 달아나 성소로 피신하여 보호를 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소를 세운 것은 아마존 여인들이 아니라 토박이 코레소스와 카이스트로스강의 아들로 여겨지는 에페소스였다. 도시는 이 에페소스에게서 이름을 얻었다.

**[7.2.8]** 그 땅의 주민 가운데 일부는 카리아인의 한 갈래인 렐레게스인이었고, 더 많은 수는 리디아인이었다. 그 밖에도 보호받기 위해 성소 둘레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중에는 아마존 혈통의 여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에페소스를 치러 항해한 이오니아인들의 왕으로 뽑힌 코드로스의 아들 안드로클로스는, 위쪽 도시에 살던 렐레게스인들과 리디아인들을 땅에서 몰아냈다. 성소 둘레에 살던 사람들은 두려워할 일이 없었다. 그들은 이오니아인들과 우호를 맹세하여 전쟁을 피했다. 안드로클로스는 사모스인들에게서 사모스도 빼앗았다. 한동안 에페소스인들이 사모스와 그에 접한 섬들을 차지했다.

**[7.2.9]** 사모스인들이 제 땅으로 돌아온 뒤, 안드로클로스는 카리아인들을 상대로 프리에네 사람들을 도왔다. 그리스군은 이겼으나 안드로클로스는 전투에서 죽었다. 에페소스인들은 그의 시신을 거두어 자기들 땅에 묻었다. 오늘날에도 그 무덤을 보여 준다. 성소에서 올림

피에이온을 지나 마그네시아 문으로 가는 길에 있다. 무덤 위에는 무장한 남자의 상이 서 있다.

**[7.2.10]** 미우스와 프리에네에 정착한 이오니아인들도 카리아인들에게서 그 도시들을 빼앗았다. 미우스를 세운 사람은 코드로스의 아들 키아레토스였다. 테바이인과 이오니아인이 절반씩 섞인 프리에네 사람들의 도시를 세운 이들은 페넬레오스의 후손 필로타스와 네일레우스의 아들 아이피토스였다. 프리에네 사람들은 페르시아인 타부테스에게 많은 고통을 겪었고, 뒤에는 자기 고장 사람 히에론에게서도 고통을 겪었으나, 오늘날까지 이오니아인으로 여겨진다. 미우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일 때문에 도시를 떠났다. cts.perseids.org

**[7.2.11]** 작은 바다 후미가 그들의 땅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마이안드로스강이 진흙으로 어귀를 막아 그 후미를 호수로 바꾸었다. 바닷물이 민물이 되자 호수에 날벌레가 떼 지어 번식하여 주민들은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신상들과 옮길 수 있는 다른 재산을 가지고 밀레토스로 갔다. 내가 찾아갔을 때 미우스에는 흰 대리석으로 지은 디오니소스 신전밖에 없었다. 페르가몬산 아래에 있는 아타르네우스 사람들에게도 미우스와 비슷한 운명이 닥쳤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3장

**[7.3.1]** 콜로폰 사람들은 클라로스의 성소와 신탁소가 아득한 옛날에 세워졌다고 여긴다. 카리아인들이 아직 그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 맨 먼저 온 그리스인들은 라키오스가 이끄는 크레타인들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를 따라 많은 무리가 왔다. 이들은 해안을 차지하고 바다에서 강한 세력을 이루었으나, 나라의 대부분은 계속 카리아인들의 수중에 있었다. 폴리네이케스의 아들 테르산드로스와 아르고스인들이 테바이를 점령했을 때, 델포이의 아폴론에게 바치려고 끌고 간 포로 가운데 만토가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테이레시아스는 도중에 할리아르토스 지방에서 죽었다.

**[7.3.2]** 신이 그들을 보내 식민시를 세우게 하자, 그들은 배를 타고 아시아로 건너갔다. 그러나 클라로스에 닿았을 때 크레타인들이 무장하고 맞서 나와 그들을 라키오스에게 데려갔다. 라키오스는 만토에게서 그들이 누구이며 왜 왔는지 듣고 그녀를 아내로 맞았으며, 그녀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 그 땅에 살도록 허락했다. 라키오스와 만토의 아들 몹소스는 카리아인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몰아냈다.

**[7.3.3]** 이오니아인들은 콜로폰의 그리스인들과 맹세를 맺고 한 도시에서 대등하게 살았다. 다만 왕권은 이오니아인들의 지도자인 코드로스의 두 아들 다마시크톤과 프로메토스가 차지했다. 뒤에 프로메토스는 형제 다마시크톤을 죽이고 낙소스로 달아나 그곳에서 죽었다. 그러나 그의 시신은 고향으로 옮겨졌고 다마시크톤의 아들들이 받아들였다. 다마시크톤이 묻힌 곳의 이름은 폴리테이키데스라고 한다.

**[7.3.4]** 콜로폰이 어떻게 황폐해졌는지는 리시마코스를 다룰 때 이미 이야기했다. 에페소스로 옮겨진 사람들 가운데 콜로폰 사람들만이 리시마코스와 마케도니아인들을 상대로 싸웠다. 전투에서 죽은 콜로폰 사람들과 스미르나 사람들의 무덤은 클라로스로 가는 길 왼편에 있다.

**[7.3.5]** 레베도스시는 리시마코스가 완전히 헐어 버렸다. 오로지 에페소스의 인구를 늘리려 한 일이었다. 레베도스 주변은 살기 좋은 땅이며, 특히 온천은 해안의 어느 곳보다 많고 쾌적하다. 레베도스에도 본래 카리아인들이 살았다. 코드로스의 아들 안드라이몬과 이오니아인들이 그들을 몰아냈다. 안드라이몬의 무덤은 콜로폰에서 오는 길에 칼라온강을 건넌 뒤 왼편에 있다.

**[7.3.6]** 테오스에는 아타마스와 함께 온 오르코메노스의 미니아이 사람들이 살았다. 이 아타마스는 아이올로스의 아들 아타마스의 후손이었다고 한다. 이곳에서도 카리아인들이 그리스인들과 섞여 살았다. 이오니아인들을 테오스로 데려온 것은 멜란토스의 증손자 아포이코스였다. 그는 오르코메노스 사람들에게도 테오스 사람들에게도 적의를 보이지 않았다. 몇 해 뒤 아테네와 보이오티아에서 사람들이 왔다. 아티카 사람들은 코드로스의 아들 다마소스와 나오클로스가, 보이오티아 사람들은 보이오티아인 게레스가 이끌었다. 아포이코스와 테오스 사람들은 두 무리를 모두 함께 정착할 사람들로 받아들였다.

**[7.3.7]** 에리트라이 사람들은 본래 라다만티스의 아들 에리트로스와 함께 크레타에서 왔으며, 이 에리트로스가 자기 도시를 세웠다고 한다. 크레타인들과 함께 도시에 산 사람들로는 리키아인, 카리아인, 팜필리아인이 있었다. 리키아인들은 크레타인들과 혈족이어서 함께 살았다. 옛날 사르페돈과 함께 달아나 크레타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카리아인들은 미노스와 오래전부터 우호를 맺은 사이였고, 팜필리아인들은 그들 역시 그리스 혈통이어서 함께 살았다. 트로이아가 함락된 뒤 칼카스와 함께 떠돌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 내가 열거한 민족들이 에리트라이에 살고 있을 때, 코드로스의 아들 클레오포스는 이오니아의 모든 도시에서 얼마씩 사람을 모아 에리트라이 사람들 사이에 정착시켰다.

**[7.3.8]** 클라조메나이와 포카이아의 도시 터에는 이오니아인들이 아시아에 오기 전까지 사람이 살지 않았다. 이오니아인들이 도착한 뒤, 떠돌던 한 무리가 콜로폰 사람들 가운데 파르포로스를 지도자로 불러들여 이다산 기슭에 도시를 세웠다. 얼마 뒤 그 도시를 버리고 이오니아로 돌아와 콜로폰 영토에 스키피온을 세웠다.

**[7.3.9]** 그들은 자기 뜻으로 콜로폰의 영토에서도 떠났다. 그리하여 지금도 차지하고 있는 땅에 들어가 본토에 클라조메나이시를 세웠다. 뒤에는 페르시아인들이 두려워 섬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본토에서 섬으로 둑길을 내어 클라조메나이를 반도로 만들게 되었다. 이 클라조메나이 사람들 대부분은 이오니아인이 아니라 클레오나이와 플리우스 사람들이었다. 도리아인들이 펠로폰네소스로 돌아왔을 때 자기 도시들을 떠난 이들이었다.

**[7.3.10]** 포카이아인들의 본래 고향은 지금도 포키스라 불리는 파르나소스산 아래의 땅이다. 그들은 아테네인 필로게네스와 다몬과 함께 아시아로 건너갔다. 그곳의 땅은 키메 사람들에게서 전쟁이 아니라 합의로 얻었다. 이오니아인들은 그들이 코드로스 가문의 왕들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오니아 연맹에 들이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그들은 에리트라이와 테오스에서 데오이테스와 페리클로스와 아바르토스를 맞아들였다. periegesis.abm.uu.se

## 제4장

**[7.4.1]** 섬에 있는 이오니아인들의 도시는 미칼레산 맞은편의 사모스와 미마스산 맞은편의 키오스다. 사모스인 암피프톨레모스의 아들 아시오스는 서사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포이닉스에게서 아스티팔라이아와 에우로페가 태어났으며, 어머니는 오이네우스의 딸 페리메데였다. 아스티팔라이아는 포세이돈에게서 앙카이오스라는 아들을 낳았다. 그는 렐레게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다스렸다. 앙카이오스는 마이안드로스강의 딸 사미아와 혼인하여 페릴라오스, 에누도스, 사모스, 알리테르세스라는 아들들과 파르테노페라는 딸을 얻었다. 파르테노페에게는 아폴론에게서 난 리코메데스라는 아들이 있었다.

**[7.4.2]** 여기까지가 아시오스가 시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는 그때 섬의 주민들은 호의보다는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이오니아인들을 이주민으로 받아들였다. 이오니아인들의 지도자는 피티레우스의 아들 프로클레스였다. 그 자신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에피다우로스인이었다. 데이폰테스와 아르고스인들이 그들을 에피다우로스의 땅에서 몰아냈다. 이 프로클레스는 크수토스의 아들 이온의 후손이었다. 그러나 안드로클로스가 이끄는 에페소스인들은 아버지 프로클레스의 뒤를 이어 사모스를 다스린 레오고로스와 전쟁을 벌였다. 그들은 전투에서 사모스인들을 이기고 섬에서 쫓아냈다. 사모스인들이 카리아인들과 함께 이오니아인들에게 맞설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7.4.3]** 사모스인들은 달아났다. 그중 일부는 트라케 가까이의 섬에 정착했다. 그들이 자리 잡은 결과 섬 이름이 다르다니아에서 사모트라케로 바뀌었다. 다른 이들은 레오고로스와 함께 사모스 맞은편 본토의 아나이아에 성벽을 둘렀다. 십 년 뒤 바다를 건너 에페소스인들을 몰아내고 섬을 되찾았다.

**[7.4.4]** 사모스의 헤라 성소를 세운 이는 아르고호를 타고 항해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아르고스에서 신상을 가져왔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사모스인들 자신은 여신이 섬의 임브라소스강 가에서 태어났다고 믿는다. 내가 사는 시대에도 헤라 성소 안에서 자라던 바로 그 버드나무 아래였다고 한다. 이 성소가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은 특히 신상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아이기나인 에우클레이데스의 아들 스밀리스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 스밀리스는 다이달로스와 같은 시대 사람이었으나 그보다 이름이 덜 알려졌다.

**[7.4.5]** 다이달로스는 이른바 메티온 가문이라는 아테네의 왕족에 속했다. 그는 솜씨뿐 아니라 떠돌아다닌 일과 겪은 불행 때문에도 널리 이름이 났다. 그는 자기 누이의 아들을 죽였는데, 자기 도시의 관습을 알고 있었으므로 스스로 망명을 택하여 크레타의 미노스에게 갔다. 그곳에서 미노스와 미노스의 딸들을 위해 상들을 만들었다.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에서 이야기한 대로다.

**[7.4.6]** 그러나 미노스가 어떤 혐의로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그는 아들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 그는 크레타를 탈출하여 시켈리아의 이니코스시에서 코칼로스를 찾아갔다. 이 일로 시켈리아 사람들과 크레타인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미노스가 다이달로스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코칼로스가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칼로스의 딸들은 다이달로스의 솜씨

에 그토록 감탄하여,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려고 실제로 미노스를 죽일 음모까지 꾸몄다.

**[7.4.7]** 다이달로스의 명성이 시켈리아 전역에, 심지어 이탈리아의 대부분에까지 퍼졌던 것은 분명하다. 스밀리스가 사모스와 엘리스 말고도 다른 곳을 다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 두 곳에는 실제로 갔고, 사모스의 헤라 신상을 만든 이도 바로 그다.

**[7.4.8]** 〔…〕 비극 시인 이온은 자기 역사에서, 섬에 사람이 살지 않을 때 포세이돈이 그곳에 왔다고 한다. 그곳에서 님프와 몸을 합했는데, 그녀가 해산의 진통을 겪을 때 눈이 내렸다. 눈을 **키온**이라 하므로 포세이돈은 아들의 이름을 키오스라 지었다는 것이다. 이온은 또 포세이돈이 다른 님프와 몸을 합하여 아겔로스와 멜라스를 얻었다고 한다. 뒤에는 오이노피온도 함대를 이끌고 크레타에서 키오스로 왔다. 아들 탈로스, 에우안테스, 멜라스, 살라고스, 아타마스가 함께 왔다.

**[7.4.9]** 오이노피온이 다스릴 때 카리아인들도 섬에 왔고, 에우보이아에서 아반테스인들도 왔다. 오이노피온과 그의 아들들 뒤를 이은 암피클로스는 델포이 신탁을 받아 에우보이아의 히스티아이아에서 왔다. 암피클로스에서 세 세대가 지난 뒤 왕이 된 헥토르는 섬에 사는 아반테스인들과 카리아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다. 일부는 전투에서 죽였고 나머지는 항복하여 떠나게 했다.

**[7.4.10]** 키오스인들이 전쟁에서 벗어나자, 헥토르는 그들도 이오니아인들과 함께 파니오니온에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오니아 연맹은 그에게 용맹의 상으로 세발솥 하나를 주었다고 한다. 키오스인들에 관해 이온이 전하는 것으로 내가 알아낸 것은 이러하다. 그러나 그는 키오스인들이 왜 이오니아인으로 분류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Pausanias ′ Description of Greece

## 제5장

**[7.5.1]** 스미르나는 아이올리스의 열두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오늘날에도 ‘옛 도시’라 부르는 곳에 세워져 있었는데, 콜로폰에서 나온 이오니아인들이 아이올리스인들을 몰아내고 차지했다. 그러나 뒤에 이오니아인들은 스미르나 사람들이 파니오니온의 공동 집회에 참여하도록 허락했다. 지금의 도시는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꿈에서 본 환영에 따라 세웠다.

**[7.5.2]** 알렉산드로스는 파고스산에서 사냥했다고 한다. 사냥을 마친 뒤 네메시스 여신들의 성소에 이르러, 그곳에서 샘을 발견했다. 성소 앞에는 샘물 위로 가지를 뻗은 플라타너스가 있었다. 그가 그 나무 아래에서 잠들자 네메시스 여신들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곳에 도시를 세우고 옛 도시에서 스미르나 사람들을 데려다 살게 하라고 했다.

**[7.5.3]** 그리하여 스미르나 사람들은 이 일을 물으려고 클라로스에 사절들을 보냈다. 신은 이렇게 답했다.

> 신성한 멜레스강 너머, 파고스에 살게 될 이들은
> 세 번, 아니 네 번 복되리라.

스미르나 사람들은 자기 뜻으로 이주했다. 지금 그들은 네메시스 여신을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으로 믿으며 그 어머니는 밤이라고 말한다. 한편 아테네인들은 람누스에 있는 네메시스 여신의 아버지가 오케아노스라고 한다.

**[7.5.4]** 이오니아인들의 땅은 기후가 더없이 좋고,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성소들이 있다. 크기와 부로 으뜸은 에페소스 여신의 성소다. 그다음으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폴론의 성소 두 곳이 있다. 하나는 밀레토스 땅의 브란키다이에 있고, 하나는 콜로폰 땅의 클라로스에 있다. 그 밖에 이오니아에서는 신전 두 곳이 페르시아인들에게 불탔다. 사모스의 헤라 신전과 포카이아의 아테나 신전이다. 불에 상했는데도 내게는 놀라운 볼거리였다.

**[7.5.5]** 에리트라이의 헤라클레스 성소와 프리에네의 아테나 신전도 보면 기쁠 것이다. 프리에네의 신전은 그 신상 때문에, 에리트라이의 헤라클레스 성소는 그 오랜 역사 때문에 볼만하다. 그 신상은 이른바 아이기나 양식의 신상들과도, 가장 오래된 아티카의 신상들과도 닮지 않았다. 이집트식이라 할 만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나무 뗏목이 하나 있었는데, 신은 그 위에 타고 페니키아의 티로스에서 바다로 나왔다. 무슨 까닭으로 그랬는지는 에리트라이 사람들 자신도 말해 주지 않는다. Sentences 7.5

**[7.5.6]** 뗏목이 이오니아 바다에 이르렀을 때 '한가운데'라는 뜻의 메사테라고 불리는 곳에 멈추었다고 한다. 이 곳은 본토에 있으며 에리트라이 사람들의 항구와 키오스섬 사이의 바로 한가운데에 있다. 뗏목이 곶 앞에 멈추자 에리트라이 사람들도, 키오스 사람들도 온 힘을 다했다. 양쪽이 모두 자기 해안으로 신상을 끌어올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7.5.7]** 마침내 에리트라이의 한 사람이 꿈에서 환영을 보았다. 이름은 포르미온이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살았으나 병으로 앞을 못 보게 된 사람이었다. 꿈은 에리트라이의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남자들이 그 머리카락으로 꼰 밧줄을 써서 뗏목을 자기 해안으로 끌어올 수 있으리라고 했다. 그러나 시민 집안의 여자들은 꿈의 지시를 따르기를 단호히 거부했다.

**[7.5.8]** 그곳에 살던 트라케의 여자들은 노예와 자유인을 가리지 않고 자기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내어 주었다. 그래서 에리트라이의 남자들은 뗏목을 해안으로 끌어올렸다. 이 때문에 트라케의 여자들 외에는 여자가 헤라클레스의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고, 머리카락으로 만든 밧줄은 지금도 주민들이 보관하고 있다. 그 주민들은 그 어부가 시력을 되찾아 남은 생애 동안 앞을 볼 수 있었다고도 한다.

**[7.5.9]** 에리트라이에는 도시의 수호자인 아테나 폴리아스의 신전도 있다. 여신의 거대한 목조 신상은 왕좌에 앉아 있다. 양손에 실을 잣는 막대를 하나씩 들고 있으며, 머리에는 하늘을 나타낸 장식을 쓰고 있다. 우리는 다른 여러 징표와 조각 솜씨를 보고 엔도이오스의 작품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입구 앞 노천에 서 있는 카리테스와 호라이의 흰 대리석상들이 근거가 되었다. 내가 사는 시대에 스미르나 사람들도 코리페산과 다른 물이 흘러들지 않는 바다 사이에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소를 지었다.

**[7.5.10]** 이오니아에는 성소와 기후 외에도 기록할 만한 것들이 있다. 이를테면 에페소스 땅에는 켄크리오스강과 기이한 피온산과 할리타이아 샘이 있다. 밀레토스 땅에는 비블리스

샘이 있다. 시인들은 비블리스의 사랑을 노래했다. 콜로폰 땅에는 물푸레나무가 자라는 아폴론의 숲이 있고, 숲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이오니아에서 가장 차가운 강인 알레스강이 흐른다.

**[7.5.11]** 레베도스 땅에는 신기하면서도 쓸모 있는 목욕 시설이 있다. 테오스에도 마크리아 곶에 목욕 시설이 있다. 그중에는 바위틈에 있어 밀물이 들어오면 물이 차는 것도 있고, 부를 과시하려고 지은 것도 있다. 클라조메나이 사람들에게도 목욕 시설이 있다. 그들은 아가멤논을 섬기기도 한다. 또한 피로스의 어머니의 동굴이라 부르는 곳이 있으며, 목자 피로스에 관한 전설을 들려준다.

**[7.5.12]** 에리트라이 사람들에게는 칼키스라는 지방이 있고, 세 번째 부족은 그 지방에서 이름을 얻었다. 칼키스에는 바다로 뻗은 곶이 있으며, 거기에 이오니아에서 가장 쓸모 있는 해수 목욕 시설이 있다. 스미르나 사람들에게는 물이 아름다운 멜레스강이 있다. 그 발원지에는 동굴이 하나 있는데, 호메로스가 그곳에서 시를 지었다고 한다.

**[7.5.13]** 키오스에서 볼 만한 것으로 오이노피온의 무덤이 있다. 사람들은 그가 한 일에 관해 몇 가지 전설을 들려준다. 사모스 사람들에게는 헤라 성소로 가는 길에 라디네와 레온티코스의 무덤이 있다. 사랑이 뜻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무덤에 찾아가 기도하는 것이 관례다. 이처럼 이오니아에는 그리스의 것에 그다지 뒤지지 않는 놀라운 것들이 있다.

periegesis.abm.uu.se

## 제6장

**[7.6.1]** 이오니아인들이 떠나자 아카이아인들은 그 땅을 서로 나누고 그들의 도시에 들어가 살았다. 그리스 전역에 이름이 알려진 도시만 해도 열둘이었다. 엘리스에 가장 가까운 디메를 시작으로 올레노스, 파라이, 트리테이아, 리페스, 아이기온, 케리네이아, 부라, 헬리케, 아이가이, 아이게이라가 있었고, 시키온 땅에 닿는 맨 끝에 펠레네가 있었다. 전에 이오니아인들이 살던 이 도시들에 아카이아인들과 그들의 통치자들이 자리 잡았다.

**[7.6.2]** 아카이아인들 가운데 가장 세력이 큰 사람들은 티사메노스의 아들들인 다이메네스, 스파르톤, 텔리스, 레온토메네스였다. 맏아들 코메테스는 이미 배들을 이끌고 아시아로 건너간 뒤였다. 이들과 함께 아카이아를 다스린 사람은 오레스테스의 손자이자 펜틸로스의 아들인 다마시아스였다. 그는 아버지 쪽으로 티사메노스의 아들들과 사촌이었다. 라케다이몬에서 온 아카이아인 프레우게네스와 그의 아들 파트레우스도 앞서 말한 통치자들과 맞먹는 세력을 지녔다. 아카이아인들은 두 사람이 자기네 땅에 도시를 세우도록 허락했고, 그 도시는 파트레우스의 이름을 따서 파트라이라고 불렸다.

**[7.6.3]** 아카이아인들이 참전한 전쟁은 다음과 같다. 아가멤논이 트로이로 원정할 때 그들은 아직 라케다이몬과 아르고스에 살고 있었으며, 그리스 군대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 그러나 크세르크세스가 페르시아군을 거느리고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 아카이아인들이 레오니다스의 테르모필라이 출전에 가담하지 않았고, 에우보이아 앞바다와 살라미스에서 아테나이인들이 테미스토클레스와 함께 치른 해전에도 참가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라코니아와 아티카 어느 쪽의 동맹군 명단에도 그들의 이름이 없다.

[7.6.4] 그들은 플라타이아이 전투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참가했다면 올림피아에 있는 그리스인들의 봉헌물에 아카이아인들의 이름도 새겨졌을 것이 분명하다. 내 생각에 그들은 각자 자기 고향에 남아 그곳을 지켰으며, 트로이 전쟁의 일 때문에 라케다이몬의 도리아인들이 자기들을 지휘하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세월이 지나 그들의 태도는 다시 드러났다. 훗날 라케다이몬인들이 아테나이인들과 전쟁을 시작하자 아카이아인들은 파트라이인들과 동맹을 맺는 데 적극적이었고, 아테나이인들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호의를 보였다.

[7.6.5] 그 뒤 그리스인들이 연합해 치른 전쟁 가운데 아카이아인들은 필리포스와 마케도니아군에 맞선 카이로네이아 전투에 참가했다. 그러나 이른바 라미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테살리아로 출전하지 않았다고 한다. 보이오티아에서 당한 패배를 아직 수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파트라이의 현지 안내인은 라미아 전투에 참가한 아카이아인은 레슬링 선수 킬론 한 사람뿐이었다고 이야기했다.

[7.6.6] 리디아인 아드라스토스가 개인 자격으로 그리스인들을 도왔다는 사실은 나도 알고 있다. 리디아 공동체는 그 전쟁에 관여하지 않았다. 리디아인들은 페르시아 아르테미스의 성소 앞에 이 아드라스토스의 청동상을 봉헌하고, 그가 그리스인들을 위해 레온나토스에 맞서 싸우다가 죽었다는 비문을 새겼다.

[7.6.7] 갈라티아군에 맞서 테르모필라이로 진군하는 일에는 펠로폰네소스인들이 하나같이 참여하지 않았다. 이방인들에게 배가 없었으므로, 코린토스 지협에 레카이온 쪽 바다에서 켄크레아이 쪽 바다까지 성벽을 쌓으면 갈라티아인들에게 위협을 받을 일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7.6.8] 당시 펠로폰네소스인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갈라티아인들이 어떻게든 배를 타고 아시아로 건너간 뒤 그리스의 형편은 이러했다. 그리스에는 힘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도시가 하나도 없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레욱트라에서 패한 데다 아르카디아인들이 메갈로폴리스에 결집하고 국경에 메세니아인들이 정착했으므로 예전의 번영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7.6.9] 테바이는 알렉산드로스에게 철저히 짓밟혔다. 몇 해 뒤 카산드로스가 테바이인들을 돌아오게 했을 때 그들은 자기 앞가림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힘이 약해져 있었다. 아테나이인들은 그리스인들의 호의를 얻고 있었고, 특히 후일에 세운 공로로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와의 전쟁에서 입은 타격은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periegesis.abm.uu.se

## 제7장

[7.7.1] 그리스인들이 함께 행동하기를 그만두고 도시마다 제 뜻대로 움직이던 시기에 아카이아인들의 세력이 가장 강성했다. 아카이아의 도시 가운데 참주의 지배를 겪은 곳은 펠레네뿐이었고, 전쟁과 역병의 재난도 그리스의 어느 곳보다 아카이아에 덜 미쳤다. 이리하여 이른바 아카이아 연맹이 생겼고, 아카이아인들은 함께 의논하고 함께 행동했다.

[7.7.2] 그들은 아이기온을 회합 장소로 정했다. 헬리케가 바다에 잠긴 이래 아이기온은 일찍부터 다른 아카이아 도시들보다 명성이 높았고, 당시에는 세력도 강했기 때문이다. 다른

그리스인들 가운데 가장 먼저 아카이아 연맹에 들어온 사람들은 시키온인들이었다. 그 뒤를 따라 다른 펠로폰네소스인들도 들어왔는데, 곧바로 가입한 이들도 있었고 시간이 지난 뒤에 가입한 이들도 있었다. 연맹의 세력이 꾸준히 커지자 지협 밖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입을 결심한 이들이 있었다.

**[7.7.3]** 그리스인 가운데 라케다이몬인만은 아카이아인들을 몹시 적대하여 공공연히 전쟁을 벌였다. 스파르타 왕 에우다미다스의 아들 아기스가 아카이아의 도시 펠레네를 점령했으나, 곧 아라토스가 이끄는 시키온군에게 쫓겨났다. 다른 왕가의 왕 클레오메네스는 클레오니모스의 손자이자 레오니다스의 아들이었다. 그는 디메에서 자신을 공격한 아라토스 휘하의 시키온인들을 크게 무찌르고, 뒤에 아카이아인들 및 안티고노스와 평화를 맺었다.

**[7.7.4]** 이 안티고노스는 당시 아직 어린 데메트리오스의 아들 필리포스의 후견인으로서 마케도니아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필리포스의 사촌이었으며 필리포스의 어머니를 아내로 맞았다. 클레오메네스는 이 안티고노스 및 아카이아인들과 평화를 맺고는 곧 자기가 맹세한 바를 저버려 아르카디아의 메갈로폴리스를 함락하고 주민들을 노예로 삼았다. 라케다이몬인들이 셀라시아에서 안티고노스가 이끄는 아카이아군에 패한 것은 클레오메네스가 이처럼 맹세를 어겼기 때문이다. 아르카디아를 다룰 때 클레오메네스에 관해 다시 이야기하겠다.

**[7.7.5]** 데메트리오스의 아들 필리포스가 성년이 되자 안티고노스는 기꺼이 마케도니아의 왕권을 넘겨주었다. 필리포스는 온 그리스인에게 두려움을 안겼다. 그가 본받은 사람은 아민타스의 아들 필리포스였다. 혈통으로는 조상이 아니었으나 그가 따르는 진정한 스승이었으며, 특히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조국을 팔아넘길 용의가 있는 자들의 환심을 사는 데서 그를 본받았다. 그는 연회에서 우정을 표시하며 사람들에게 잔을 권했는데, 잔에 담긴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독이었다. 내 생각에 아민타스의 아들 필리포스는 이런 일은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겠지만, 데메트리오스의 아들 필리포스에게 독살은 대수롭지도 않은 일이었다.

**[7.7.6]** 그는 세 도시에 수비대를 두어 그리스를 공격할 거점으로 삼았다. 그리스인들을 깔보는 오만함에서 그는 이 도시들을 ‘그리스의 열쇠’라고 불렀다. 펠로폰네소스를 감시하기 위해 코린토스와 그 아크로폴리스를 요새화했고, 에우보이아와 보이오티아인들 및 포키스인들을 감시하기 위해 에우리포스 해협의 칼키스를 차지했다. 테살리아인들과 아이톨리아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펠리온산 기슭의 마그네시아를 점거했다. 그가 끊임없는 공격과 약탈대의 습격으로 가장 심하게 괴롭힌 이들은 아테나이인들과 아이톨리아인들이었다.

**[7.7.7]** 필리포스에 맞서 그리스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아테나이와 동맹을 맺었는지, 또 동맹국들의 힘이 약해 아테나이인들이 어떻게 로마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는지는 이미 아티카를 다룰 때 이야기했다. 그보다 조금 앞서 로마인들은 필리포스에 맞선 아이톨리아인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보낸 적이 있었다. 그들의 실제 목적은 주로 마케도니아의 형편을 정탐하는 데 있었다.

**[7.7.8]** 아테나이의 요청을 받은 로마인들은 오틸리우스가 지휘하는 군대를 보냈다. 나는 그가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으로 그를 부르고 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과 달리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 부르지 않으며, 사람마다 적어도 세 가지 이름을 지니고, 그보다 많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오틸리우스가 로마인들에게서 받은 명령은 아테나이인들과 아이톨리아인들을 필리포스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라는 것이었다.

**[7.7.9]** 오틸리우스는 어느 정도까지는 명령을 그대로 따랐으나, 그가 한 일 가운데 로마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었다. 그는 필리포스에게 강제로 복종하게 된 에우보이아의 헤스티아이아와 포키스의 안티키라를 완전히 파괴했다. 내 생각에는 바로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원로원이 플라미니누스를 보내 오틸리우스의 지휘권을 넘겨받게 한 것이다.

periegesis.abm.uu.se

## 제8장

**[7.8.1]** 플라미니누스는 도착하자 에레트리아를 지키고 있던 마케도니아군을 격파하고 도시를 약탈했다. 이어 필리포스가 수비대를 두고 있던 코린토스로 진군해 포위했다. 동시에 아카이아인들에게 사람을 보내, 로마의 동맹이라고 불리고 또 그리스에 대한 호의를 보이고 싶다면 군대를 거느리고 코린토스로 오라고 요구했다.

**[7.8.2]** 아카이아인들은 플라미니누스와 그에 앞선 오틸리우스가 오래된 그리스 도시들을 잔혹하게 다룬 일을 크게 비난했다. 그 도시들은 로마인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마케도니아의 지배에도 마지못해 복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로마인들이 필리포스와 마케도니아인들의 자리를 차지하여 아카이아인들과 나머지 그리스인들 위에 군림하러 오는 것임을 내다보았다. 연맹 회의에서 여러 의견이 맞섰지만 끝내 로마 편을 드는 이들이 이겼고, 아카이아인들은 플라미니누스와 함께 코린토스를 포위했다.

**[7.8.3]** 마케도니아의 지배에서 벗어난 코린토스인들은 곧바로 아카이아 연맹에 가입했다. 그들은 전에 한 번 연맹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 아라토스가 지휘한 시키온인들이 아크로코린토스의 수비대를 모두 몰아내고, 안티고노스가 수비대장으로 임명한 페르사이오스를 죽였을 때였다. 이후 아카이아인들은 로마의 동맹으로 불렸으며, 모든 일에서 참으로 열성적인 동맹임을 보여 주었다. 필리포스에 맞서 로마인들을 따라 마케도니아로 갔고, 아이톨리아 원정에도 가담했으며, 세 번째로는 안티오코스 휘하의 시리아군에 맞서 로마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다.

**[7.8.4]** 아카이아인들이 마케도니아인들과 시리아군에 맞서 한 일은 모두 로마인들과 맺은 우호 때문이었다. 아이톨리아인들과는 자기들끼리 오래 묵은 원한이 있었다. 스파르타에서 나비스의 지극히 잔혹한 참주정이 무너지자 아카이아인들은 곧 라케다이몬의 일에 눈을 돌렸다.

**[7.8.5]** 이때 아카이아인들은 라케다이몬인들을 아카이아 연맹에 편입하고, 그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었으며, 스파르타의 성벽을 허물어 버렸다. 그 성벽은 데메트리오스가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나중에 피로스가 에페이로스군을 이끌고 침입했을 때 되는대로 쌓아 올린 것이었다. 그러다가 나비스의 참주정 아래에서 더할 나위 없이 튼튼하게 보강되었다. 아카이아인들은 스파르타의 성벽을 허물고, 청소년의 교육에 관한 리쿠르고스의 법도 폐지했으며, 이제부터는 아카이아의 방식으로 청소년을 교육하라고 명령했다.

[7.8.6] 이 일은 아르카디아를 다룰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아카이아인들의 조치로 크게 분개한 라케다이몬인들은 로마에서 온 메텔루스와 다른 사절들에게 호소했다. 이들이 온 것은 필리포스와 마케도니아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미 필리포스와 로마인들 사이에 평화가 성립되어 있었고, 그들은 테살리아인들과 에페이로스인 일부가 필리포스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을 심리하러 온 것이었다.

[7.8.7] 실제로 필리포스 자신과 마케도니아의 패권은 이미 로마인들에게 꺾였다. 필리포스는 '개의 머리들'이라 불리는 곳에서 플라미니누스 휘하의 로마군과 싸웠다. 온 힘을 다해 분전했지만 그 전투에서 크게 패하여 군대의 대부분을 잃었다. 그는 로마인들과 합의하여 그리스에서 무력으로 점령하거나 굴복시킨 모든 도시로부터 수비대를 철수했다.

[7.8.8] 그는 온갖 간청을 하고 막대한 돈을 써서 로마인들로부터 명목상의 평화를 얻어 냈다. 마케도니아인들이 아민타스의 아들 필리포스 때에 얻은 세력과 그 뒤의 필리포스 때에 겪은 몰락을 시빌라는 신의 영감을 받아 미리 말했다. 그 신탁은 다음과 같다.

[7.8.9]

> 아르게아스 왕가를 자랑하는 마케도니아인들이여,
> 필리포스가 너희를 다스리는 일이 복이자 화가 되리라.
> 앞선 이는 너희를 여러 도시와 민족의 지배자로 세우리라.
> 뒤의 이는 모든 영예를 잃으리라.
> 서쪽 사람들과 동쪽 사람들에게 굴복하리라.

마케도니아의 지배권을 무너뜨린 로마인들은 유럽의 서쪽에 산다. 그들의 동맹군 가운데는 페르가몬에서 모은 군대와 미시아에서 온 군대를 지휘한 아탈로스도 있었다. 미시아는 해가 떠오르는 쪽에 더 가까이 놓인 땅이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9장

[7.9.1] 그때 메텔루스와 다른 사절들은 라케다이몬인들과 아카이아인들 사이의 일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연맹의 관리들에게 아카이아인들을 회의에 소집하여,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라케다이몬을 좀 더 관대하게 대하라는 뜻을 전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관리들은 방문 목적에 관해 로마 원로원의 결의문을 가져오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는 그들이든 다른 누구든 회의를 소집할 수 없다고 답했다. 메텔루스 일행은 아카이아인들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로마에 도착하자 그들은 원로원에서 아카이아인들을 여러 가지 일로 비난했는데, 그 말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었다.

[7.9.2] 아레우스와 알키비아다스는 그보다 더 많은 일로 아카이아인들을 고발했다. 두 사람은 라케다이몬인으로 스파르타에서 대단히 이름이 높았으나 아카이아인들의 은혜를 저버렸다. 나비스에게 추방되었을 때 그들을 받아준 이들이 아카이아인들이었고, 참주가 죽자 라케다이몬 민중의 뜻을 거슬러 그들을 스파르타에 돌아오게 한 것도 아카이아인들이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로마로 가서 원로원 앞에서 아카이아인들을 맹렬히 비난했다. 이에 아카이아인들은 연맹 회의에서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7.9.3] 로마 원로원은 라케다이몬인들과 아카이아인들 사이를 중재하도록 아피우스와 다른 사절들을 보냈다. 아카이아인들은 아피우스 일행을 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아카이아인들이 누구보다도 미워하던 아레우스와 알키비아다스를 데리고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절들은 연맹 회의에 나와 사람들을 설득하기는커녕 성난 말만 늘어놓아 아카이아인들을 더욱 언짢게 했다.

[7.9.4] 메갈로폴리스의 리코르타스는 아르카디아인 가운데 누구에게도 명망에서 뒤지지 않았고, 필로포이멘과 사귀면서 그의 기개도 어느 정도 이어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연설에서 아카이아인들의 주장이 정당함을 밝히고, 그 가운데 로마인들에게도 얼마간 책임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피우스 일행은 리코르타스의 말을 비웃고, 아레우스와 알키비아다스가 아카이아인들에게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며, 라케다이몬인들이 로마에 사절을 보내도록 허락했다. 이 허락은 로마인들과 아카이아인들 사이의 협정에 어긋났다. 협정에 따르면 아카이아인들은 연맹의 이름으로 로마 원로원에 사절을 보낼 수 있었으나, 연맹에 속한 도시가 개별적으로 사절을 보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7.9.5] 아카이아인들은 라케다이몬인들의 주장에 맞서기 위해 사절을 보냈다. 양편이 원로원에서 발언한 뒤 로마인들은 라케다이몬인들과 아카이아인들 사이를 중재하도록 아피우스와 지난번에 그와 함께 그리스에 갔던 사람들을 다시 파견했다. 이 사절단은 아카이아인들이 추방한 이들을 스파르타로 돌려보냈고, 재판 전에 달아났다가 궐석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형벌을 면제했다. 라케다이몬은 아카이아 연맹에 그대로 속했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외부의 법정에서 심리하고 나머지 사건은 모두 아카이아 연맹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스파르타인들은 도시를 두른 성벽을 기초부터 다시 쌓았다.

[7.9.6] 귀환한 라케다이몬 망명자들은 아카이아인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여러 계책을 꾸몄다. 그들이 아카이아인들을 가장 괴롭힐 수 있으리라 여긴 계책은 다음과 같았다. 그들은 아카이아 출신 망명자들과, 필로포이멘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아카이아인들에게 추방된 메세니아인들을 설득해 로마로 가게 했다. 그들 자신도 함께 로마에 가서 망명자들의 귀환을 성사시키려고 힘썼다. 아피우스가 라케다이몬인들을 열성적으로 후원하고 모든 일에서 아카이아인들에게 맞섰으므로, 메세니아와 아카이아의 망명자들은 어렵지 않게 뜻을 이루었다. 원로원은 곧 아테나이와 아이톨리아에 서한을 보내 그 메세니아인들과 아카이아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다.

[7.9.7] 아카이아인들은 이 일에 몹시 분개했다. 그들은 로마인들에게서 당한 부당한 대우와 자기들이 바친 모든 공로가 헛되이 돌아간 일을 떠올렸다. 로마인들의 뜻에 맞추어 필리포스와 싸우고 아이톨리아인들과 싸웠으며, 뒤에는 안티오코스와도 싸웠는데, 결국 로마인들이 자기들보다 더 중히 여긴 것은 손에 피를 묻힌 망명자 무리였다. 그래도 아카이아인들은 양보하기로 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0장

[7.10.1] 이때 일어난 일은 이와 같았다. 모든 범죄 가운데 가장 불경한 짓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조국과 동포를 팔아넘기는 일이다. 예로부터 그리스에서는 그런 일이 끊이지 않았

으며, 다른 이들에게 그랬듯 아카이아인들에게도 그것이 재앙의 시작이 될 운명이었다. 히스타스페스의 아들 다레이오스가 페르시아 왕이었을 때, 사모스 함대의 지휘관들이 열한 사람을 빼고 모두 이오니아 함대를 배반한 탓에 이오니아인들의 대의가 무너졌다.

**[7.10.2]** 이오니아를 평정한 페르시아인들은 에레트리아도 굴복시켜 주민들을 노예로 삼았다. 에레트리아에서 가장 이름난 시민들이 배신했기 때문이다. 키네아스의 아들 필라그로스와 알키마코스의 아들 에우포르보스가 그들이었다.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에 쳐들어왔을 때 테살리아는 알레우아스 가문이 팔아넘겼고, 테바이는 그 도시에서 가장 유력한 시민이었던 앗타기노스와 티메게니다스가 팔아넘겼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엘리스의 크세니아스가 아기스 휘하의 라케다이몬인들에게 엘리스를 넘기려 했다.

**[7.10.3]** 리산드로스의 이른바 '친구들'은 각자의 조국을 그에게 넘기려는 노력을 한시도 늦추지 않았다. 아민타스의 아들 필리포스가 다스릴 때 그리스 도시 가운데 배신으로 넘어가지 않은 곳은 라케다이몬뿐이었다고 해도 좋다. 그리스의 다른 도시들은 앞서 겪은 역병보다 배신으로 더 큰 파멸을 맞았다.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는 운이 무척 좋았으므로 배신자들의 도움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았다.

**[7.10.4]** 그리스인들이 라미아에서 패했을 때 안티파트로스는 아시아의 전쟁에 참가하러 건너가고 싶은 마음이 급해 서둘러 평화를 맺으려 했다. 아테나이와 온 그리스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어도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데마데스와 아테나이의 다른 배신자들은 안티파트로스를 부추겨 그리스인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게 했다. 또 아테나이 민중을 겁에 질리게 하여 아테나이와 다른 도시들 대부분에 마케도니아 수비대가 들어오게 했다.

**[7.10.5]** 이 일은 다음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아테나이인들은 보이오티아에서 패해 그 전투에서 2천 명이 포로가 되고 1천 명이 전사했어도 필리포스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 반면 라미아에서는 전사자가 많아야 2백 명 남짓이었는데도 마케도니아인들에게 예속되었다. 이처럼 배신의 병에 걸린 자들은 그리스에서 끊인 적이 없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시기에 아카이아인들을 로마에 완전히 복속시킨 사람도 아카이아인 칼리크라테스였다. 그러나 그들이 겪을 재앙의 시작은 페르세우스와 로마인들에 의한 마케도니아 왕권의 몰락이었다.

**[7.10.6]** 필리포스의 아들 페르세우스는 아버지가 맺은 조약에 따라 로마와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맹세를 깨기로 마음먹고, 로마의 동맹인 사파이오이족과 그들의 왕 아브루폴리스에게 군대를 이끌고 가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아르킬로코스도 이 사파이오이족을 이암보스 시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7.10.7]** 페르세우스와 마케도니아인들이 정복된 것은 사파이오이족에게 저지른 이 부당한 일 때문이었다. 그 뒤 로마는 자국의 이익에 가장 알맞게 마케도니아의 일을 정리하도록 원로원 의원 열 명을 보냈다. 그들이 그리스에 오자 칼리크라테스는 그들의 환심을 사려 들었다. 말이든 행동이든 아무리 낯뜨거운 아첨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사절 가운데 가장 염치없는 자 하나를 완전히 제 편으로 만들어, 아카이아 연맹의 회의에 나오도록 설득하기까지 했다.

[7.10.8] 회의에 나온 그 로마인은 페르세우스가 로마와 전쟁하는 동안 아카이아의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여러모로 그를 도왔을 뿐 아니라 돈까지 대 주었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아카이아인들에게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범인들의 이름은 자신이 밝히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그의 말이 지극히 부당하다고 여겼다. 페르세우스 편을 든 아카이아인이 있다면 먼저 한 사람씩 이름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름도 모르는 채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7.10.9] 논쟁에서 밀리자 그 로마인은 뻔뻔스럽게도 아카이아 연맹의 장군직을 맡았던 사람은 모두 고발 대상이라고 우겼다. 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케도니아인과 페르세우스 편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칼리크라테스가 시켜서 한 것이었다. 그러자 아카이아인들 사이에서 명망이 높은 크세논이 일어나 말했다. “이 고발에 관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나도 아카이아인들의 장군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로마를 배반한 일도, 페르세우스와 친교를 맺은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카이아 연맹의 회의에서든 로마인들 앞에서든 재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었기에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다.

[7.10.10] 그러나 그 로마인은 즉시 그 말을 구실로 삼아, 칼리크라테스가 페르세우스를 지지했다고 고발한 이들을 모두 로마 법정에서 재판받게 했다. 그리스인들이 이런 대우를 받은 일은 전에는 없었다.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강력했던 아민타스의 아들 필리포스와 알렉산드로스조차 자기들에게 반대한 그리스인들을 억지로 마케도니아에 보내지 않고, 암픽티온 회의에서 변론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이다.

[7.10.11] 그러나 이때는 아무리 결백한 사람이라도 칼리크라테스가 고발하기로 마음먹은 아카이아인은 모두 로마로 보내기로 했다. 그 수가 1천 명이 넘었다. 로마인들은 이들이 이미 아카이아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여겨 에트루리아의 여러 도시에 흩어 두었다. 아카이아인들은 그들을 위해 거듭 사절을 보내 탄원했지만, 로마인들은 그 탄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7.10.12] 16년이 지나 이탈리아에 있던 아카이아인들이 많아야 3백 명으로 줄어들자, 로마인들은 그들이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보고 풀어 주었다. 그러나 처음 로마로 끌려가는 길에 달아났거나 나중에 로마인들이 보낸 도시에서 달아난 자들은, 붙잡히면 어떤 변론으로도 처벌을 면할 수 없었다. periegesis.abm.uu.se

## 제11장

[7.11.1] 로마인들은 다시 원로원 의원 한 사람을 그리스로 보냈다. 그의 이름은 갈루스였다. 그는 라케다이몬인들과 아르고스인들 사이에 영유권을 두고 다툼이 일어난 땅을 판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갈루스는 여러 차례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인들에게 몹시 오만하게 굴었으며, 라케다이몬인들과 아르고스인들을 철저히 우롱했다.

[7.11.2] 두 도시는 더할 나위 없이 높은 명성에 이르렀던 곳이다. 옛날에는 경계 문제로 유명한 전쟁을 치르며 피를 물처럼 흘렸고, 뒤에는 아민타스의 아들 필리포스가 중재자로 나

서 두 도시의 분쟁을 해결했다. 그런데 이제 갈루스는 직접 중재하는 일을 하찮게 여겨 그리스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자인 칼리크라테스에게 판정을 맡겼다.

**[7.11.3]** 플레우론에 사는 아이톨리아인들도 아카이아 연맹에서 벗어나고자 갈루스를 찾아왔다. 갈루스는 그들이 독자적으로 로마에 사절을 보내도록 허락했고, 로마인들은 그들의 아카이아 연맹 탈퇴를 승인했다. 원로원은 갈루스에게 되도록 많은 도시를 아카이아 연맹에서 떼어 내라고 지시했다.

**[7.11.4]** 그가 이 명령을 수행하고 있을 때 아테나이 민중은 자기들의 지배 아래 있던 도시 오로포스를 약탈했다. 아테나이인들은 다른 어느 그리스인보다 마케도니아 전쟁에 심한 타격을 받아 당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저지른 데에는 자의보다 궁핍에 몰린 탓이 컸다. 오로포스인들은 로마 원로원에 호소했다. 원로원은 부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판정하고, 아무런 도발도 하지 않은 오로포스가 입은 피해에 걸맞은 벌금을 아테나이인들에게 부과하라고 시키온인들에게 지시했다.

**[7.11.5]** 아테나이인들이 재판에 제때 출석하지 않자 시키온인들은 그들에게 5백 탈란톤의 벌금을 부과했다. 아테나이인들이 호소하자 로마 원로원은 그중 1백 탈란톤만 남기고 나머지는 면제했다. 아테나이인들은 줄어든 벌금마저 내지 않았다. 그들은 이런저런 약속과 뇌물로 오로포스인들을 구슬려, 아테나이 수비대가 오로포스에 주둔하며 아테나이가 오로포스인들 가운데서 인질을 데려간다는 협정을 맺었다. 나중에 오로포스인들이 아테나이인들을 상대로 고충을 제기할 일이 생기면 아테나이는 오로포스에서 수비대를 철수시키고 인질을 돌려주기로 했다.

**[7.11.6]** 얼마 지나지 않아 오로포스인들은 수비대원 몇 사람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다. 이에 아테나이에 사절을 보내 협정대로 인질을 돌려주고 수비대를 철수시키라고 요구했다. 아테나이인들은 두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잘못을 저지른 것은 수비대원들이며 아테나이 민중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이유였다. 다만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7.11.7]** 오로포스인들은 이번에는 아카이아인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카이아인들은 아테나이인들과의 우호를 존중하여 거절했다. 그러자 오로포스인들은 당시 아카이아 연맹의 장군이던 라케다이몬인 메날키다스에게, 아카이아인들을 설득해 자기들을 돕게 하면 10탈란톤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메날키다스는 로마인들과 친분이 있어 아카이아인들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칼리크라테스에게 그 돈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7.11.8]** 칼리크라테스는 메날키다스의 계획에 동의했고, 아카이아인들은 아테나이인들에 맞서 오로포스인들을 돕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테나이인들은 저마다 최대한 서둘러 오로포스로 갔다. 그들은 앞서 약탈할 때 놓친 물건이란 물건은 다시 모조리 가져가고 수비대도 철수시켰다. 아카이아군이 도우러 오기에는 이미 늦었으므로, 메날키다스와 칼리크라테스는 아티카를 침공하자고 부추겼다. 그러나 반대에 부딪혔고, 특히 라케다이몬인들이 강하게 반대하여 군대는 물러났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2장

**[7.12.1]** 오로포스인들은 아카이아인들에게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는데도 메날키다스는 그들에게서 돈을 받아 냈다. 그러나 뇌물이 손에 들어오자 그는 그 이득을 칼리크라테스와 나누기가 몹시 아까워졌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며 지급을 미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배짱이 생기자 아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

**[7.12.2]** 불 가운데 더 사납게 타는 불이 있고, 늑대 가운데 더 사나운 늑대가 있으며, 매 가운데 더 빠른 매가 있다는 속담은 이 일에도 들어맞는다. 칼리크라테스는 당대 최악의 악당으로, 뇌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았지만, 메날키다스는 그런 그보다도 더 교활했다. 칼리크라테스는 아무 이득도 없이 아테나이인들의 원한만 샀다. 그러다가 메날키다스가 장군직에서 물러나자 아카이아인들 앞에서 그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고발했다. 메날키다스가 사절로 로마에 갔을 때 아카이아인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꾸몄고, 스파르타를 아카이아 연맹에서 떼어 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것이었다.

**[7.12.3]** 큰 위험에 처한 메날키다스는 오로포스에서 받은 돈 가운데 3탈란톤을 메갈로폴리스의 디아이오스에게 주었다. 그는 메날키다스의 뒤를 이어 아카이아 연맹의 장군이 된 사람이었다. 뇌물을 받은 디아이오스는 이 일에 어찌나 열심이었던지 아카이아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메날키다스를 구해 냈다. 아카이아인들은 개인으로도 연맹 전체로도 메날키다스가 풀려난 책임을 디아이오스에게 물었다. 그러자 디아이오스는 더 큰 기대를 부추겨 자신에 대한 비난에서 그들의 관심을 돌렸다. 그가 사람들을 속이는 데 이용한 구실은 다음과 같았다.

**[7.12.4]** 라케다이몬인들은 영유권 분쟁이 있는 땅을 두고 로마 원로원에 호소했다. 원로원은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은 아카이아 연맹이 재판하도록 결정했다. 이것이 원로원의 답변이었다. 그런데 디아이오스는 아카이아인들에게 사실을 전하지 않고, 로마 원로원이 스파르타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권한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속였다.

**[7.12.5]** 이에 아카이아인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는 라케다이몬인을 재판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디아이오스의 말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 문제를 로마 원로원에 다시 문의하고자 했다. 그러자 아카이아인들은 또 다른 구실을 내세웠다. 아카이아 연맹의 어느 도시도 로마 원로원에 단독으로 사절을 보낼 권리가 없으며, 다른 회원 도시들과 공동으로만 사절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7.12.6]** 이 다툼에서 라케다이몬인들과 아카이아인들 사이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아카이아인들과 힘으로 맞설 수 없음을 깨달은 라케다이몬인들은 연맹의 각 도시에 사절을 보내고, 별도로 디아이오스와 교섭했다. 디아이오스는 아카이아 연맹의 장군으로서 스파르타 자체가 아니라 그 도시를 어지럽히는 자들과 싸우러 가겠다고 선언했다. 도시들은 장군이 출전을 명령하면 이를 거역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고 똑같이 답했다.

**[7.12.7]** 스파르타 원로회가 그가 죄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고 묻자, 디아이오스는 스파르타에서 가장 유력한 시민 스물네 명의 이름을 댔다. 이에 아가시스테네스의 제안이 채택되었다. 그는 이미 명망이 높았으며 이때의 조언으로 더욱 명성을 얻었다. 그는

스물네 사람에게 남아서 스파르타에 전쟁을 불러들이기 전에 스스로 라케다이몬을 떠나라고 권했다. 망명지로 로마를 택하면 머지않아 로마인들이 그들을 조국으로 돌려보내 줄 것이라고 말했다.

**[7.12.8]** 그들은 떠났고, 스파르타에서는 형식적인 재판이 열려 그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아카이아인들은 원로원 앞에서 스파르타 망명자들의 주장에 맞서도록 칼리크라테스와 디아이오스를 로마로 보냈다. 칼리크라테스는 가는 길에 병들어 죽었다. 로마에 이르렀더라도 그가 아카이아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다. 더 큰 재앙을 불러왔을지도 모른다. 원로원 앞에서 디아이오스와 메날키다스는 양쪽 다 말은 유창했으나 품위는 없었다.

**[7.12.9]** 원로원은 두 사람에게 라케다이몬인들과 아카이아인들의 분쟁을 해결할 사절을 보내겠다고 답했다. 로마에서 출발한 사절들이 더디게 오는 바람에 디아이오스와 메날키다스는 제각기 아카이아인들과 라케다이몬인들을 또 속일 기회를 얻었다. 디아이오스는 로마 원로원이 라케다이몬인들을 아카이아인들에게 완전히 복종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했고, 메날키다스는 로마인들이 라케다이몬을 아카이아 연맹에서 완전히 해방했다고 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3장

**[7.13.1]**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이 오가면서 아카이아인들은 다시 라케다이몬인들과 전쟁을 벌이려 했다. 당시 장군으로 선출된 다모크리토스는 스파르타를 칠 군대를 모았다. 거의 같은 때에 메텔루스가 지휘하는 로마군이 마케도니아에 도착했다. 필리포스의 손자이자 페르세우스의 아들인 안드리스코스가 로마에 반기를 들었으므로 그를 치러 온 것이었다. 마케도니아 전쟁은 로마인들에게 유리하게 순조로이 결판이 났다.

**[7.13.2]** 메텔루스는 아시아의 일을 정리하도록 로마 원로원이 보낸 사절들에게, 바다를 건너기 전에 아카이아의 지도자들과 만나라고 권했다. 그들이 전할 말은 스파르타를 공격하지 말고, 라케다이몬인들과 아카이아인들 사이를 중재하도록 로마에서 보낸 사절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7.13.3]** 사절들이 다모크리토스와 아카이아인들에게 이 말을 전했을 때는 이미 라케다이몬으로 원정을 시작한 뒤였다. 아카이아인들이 권고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음을 안 사절들은 아시아로 떠났다. 라케다이몬인들은 병력보다 기세를 앞세워 무기를 들고 자기 땅을 지키러 나갔다. 그러나 이내 크게 밀려 가장 혈기 왕성하고 용감한 젊은이 1천 명쯤이 전투에서 쓰러졌다. 나머지 병사들은 저마다 있는 힘을 다해 도시로 달아났다.

**[7.13.4]** 다모크리토스가 이때 힘껏 밀어붙였다면 아카이아인들은 전장에서 달아나는 적병과 뒤섞여 스파르타 성벽 안으로 들이닥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추격하던 아카이아인들을 불러들였다. 이후에도 포위전을 적극적으로 벌이지 않고 기습과 약탈에만 그쳤다.

**[7.13.5]** 다모크리토스가 군대를 물리자 아카이아인들은 그에게 배신의 책임을 물어 벌금 50탈란톤을 선고했다. 그는 그 돈을 낼 수 없어 펠로폰네소스를 떠나 망명했다. 다모크리

토스의 뒤를 이어 장군으로 뽑힌 디아이오스는 메텔루스가 다시 사절을 보내자, 라케다이몬인들과 전쟁을 벌이지 않고 로마의 중재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다.

**[7.13.6]** 그러나 그는 라케다이몬인들을 곤경에 빠뜨릴 또 다른 계책을 생각해 냈다. 스파르타 주변 도시들을 설득해 아카이아인들 편에 서게 하고, 심지어 그곳에 수비대까지 들여보내 스파르타를 공격할 아카이아군의 거점으로 삼았다.

**[7.13.7]** 라케다이몬인들은 디아이오스에 맞설 장군으로 메날키다스를 뽑았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돈이 부족했고 농토에는 씨를 뿌리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메날키다스는 감히 휴전을 깨고, 라코니아 경계에 있으면서 당시 아카이아인들의 지배를 받던 이아소스를 공격해 점령하고 약탈했다.

**[7.13.8]** 이렇게 라케다이몬인들과 아카이아인들 사이에 다시 전쟁을 일으킨 메날키다스는 동포들의 비난을 받았다. 그는 라케다이몬인들에게 닥친 위험을 피할 방도를 찾지 못하자 독을 마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것이 메날키다스의 최후였다. 이때 그는 라케다이몬인들을 지휘하고 있었고, 앞서 아카이아인들을 지휘한 적이 있었다. 라케다이몬의 장군으로서는 더없이 어리석었으며, 아카이아의 장군으로서는 견줄 자 없이 사악했다.

periegesis.abm.uu.se

## 제14장

**[7.14.1]** 라케다이몬인들과 아카이아인들 사이를 중재하도록 로마에서 보낸 사절들도 그리스에 도착했다. 그중 한 사람이 오레스테스였다. 그는 그리스 각 도시의 관리들과 디아이오스에게 자기 숙소로 와 달라고 했다. 그들이 도착하자 그는 원로원의 결정을 모두 밝혔다. 라케다이몬인들도 코린토스인들 자신도 아카이아 연맹에 속해서는 안 되며, 아르고스와 오이테산 곁의 헤라클레이아와 아르카디아의 오르코메노스도 연맹에서 떼어 내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아카이아인들과 혈연관계가 없고 비교적 최근에야 연맹에 들어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7.14.2]** 아카이아의 관리들은 오레스테스가 말을 마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집 밖으로 뛰어나가 아카이아인들을 회의에 소집했다. 로마인들의 결정을 들은 아카이아인들은 곧바로 그때 코린토스에 머물던 스파르타인들을 덮쳤다. 라케다이몬인임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뿐 아니라 머리 모양이나 신발, 옷차림, 심지어 이름 때문에 라케다이몬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까지 모두 붙잡았다. 몇몇은 가까스로 오레스테스의 숙소로 피신했지만, 아카이아인들은 그곳에서까지 그들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다.

**[7.14.3]** 오레스테스와 동료 사절들은 아카이아인들이 아무 도발도 하지 않은 로마인들에게 무도한 모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폭력을 말리려 했다. 며칠 뒤 아카이아인들은 붙잡아 두었던 라케다이몬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라케다이몬 출신이 아닌 이들은 가려내어 풀어 주었다. 그들은 또 테아리다스와 다른 몇몇 아카이아 관리들을 로마로 보냈다. 그러나 일행은 도중에 라케다이몬인들과 아카이아인들 사이의 분쟁을 처리하러 오레스테스의 뒤를 이어 파견된 로마 사절들을 만나 함께 돌아왔다.

**[7.14.4]** 디아이오스가 임기를 마치자 아카이아인들은 크리톨라오스를 장군으로 뽑았다. 크리톨라오스는 앞뒤도 헤아리지 못한 채 로마인들과 싸우겠다는 열망에 사로잡혔다. 라케다이몬인들과 아카이아인들 사이의 분쟁을 판정하러 온 로마 사절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크리톨라오스는 그들을 아르카디아의 테게아에서 만났으며, 그들을 맞이할 아카이아인들의 총회를 소집하는 일은 몹시 꺼렸다. 그래도 로마인들이 듣는 앞에서는 전령들을 보내 각 도시의 대표들을 회의에 부르라고 했다. 그러고는 각 도시의 대표들에게 몰래 회의에 나오지 말라고 지시했다.

**[7.14.5]** 대표들이 나타나지 않자 크리톨라오스가 로마인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뚜렷이 드러났다. 그는 아카이아인들의 총회를 거치지 않고는 교섭할 수 없다고 말하며, 다섯 달 뒤에 열릴 다음 회의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 속고 있음을 알아차린 사절들은 로마로 떠났다. 크리톨라오스는 코린토스에 아카이아인들의 회의를 소집하여, 스파르타에 맞서 무기를 들고 로마에도 공개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도록 설득했다.

**[7.14.6]** 왕이나 도시가 전쟁을 시작했다가 불운을 겪는 것은 싸우는 이들의 잘못보다 어느 신의 시샘 탓일 수 있다. 그러나 힘도 없으면서 무모하게 나서는 일은 불운이라기보다 광기라 해야 한다. 크리톨라오스와 아카이아인들을 쓰러뜨린 것은 바로 그런 일이었다. 당시 테바이에서 보이오티아 연맹의 지도직인 보이오타르케스를 맡고 있던 피테아스도 아카이아인들을 부추겼다. 테바이인들은 온 힘을 다해 전쟁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7.14.7]** 테바이인들은 앞서 메텔루스의 재판에서 세 차례 배상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다. 첫 번째는 무기를 들고 포키스 땅을 침략했으므로 포키스인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었다. 두 번째는 에우보이아 땅을 황폐하게 했으므로 에우보이아인들에게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곡식이 한창 여물 무렵 암피사의 땅을 황폐하게 했으므로 암피사인들에게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5장

**[7.15.1]** 로마인들은 그리스에 보냈던 사절들의 보고와 메텔루스의 서한을 통해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아카이아인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해 집정관으로 선출된 뭄미우스에게 함대와 육군을 이끌고 아카이아인들을 치라고 명령했다. 뭄미우스가 군대를 거느리고 아카이아인들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 메텔루스는 그가 그리스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 힘으로 전쟁을 끝내고자 서둘렀다.

**[7.15.2]** 메텔루스는 아카이아인들에게 사절을 보내 라케다이몬인들과 로마의 명령에 거론된 다른 도시들을 연맹에서 풀어 주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하면 지난번에 명령을 어긴 일도 로마인들이 모두 용서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런 평화 제안을 하면서 마케도니아를 떠나 테살리아를 지나 라미아만을 따라 진군했다. 크리톨라오스와 아카이아인들은 어떤 화해 제안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아카이아 연맹에 들어오기를 거부한 헤라클레이아를 포위했다.

**[7.15.3]** 정찰병들이 메텔루스 휘하의 로마군이 스페르케이오스강을 건넜다고 알리자, 크리톨라오스는 로크리스의 스카르페이아로 달아났다. 그는 헤라클레이아와 테르모필라이 사

이의 좁은 길에 아카이아군을 배치하고 메텔루스를 기다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가 어찌나 겁에 질렸던지, 그곳이 라케다이몬인들이 그리스를 지키려 했던 곳이며 아테나이인들이 갈라티아인들을 상대로 그에 못지않은 공적을 세운 곳이라는 사실도 그에게 아무런 용기를 주지 못했다.

**[7.15.4]** 크리톨라오스와 아카이아인들은 달아났으나 스카르페이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메텔루스의 군대에 따라잡혔다. 많은 이가 죽고 약 1천 명이 포로가 되었다. 크리톨라오스는 전투 뒤에 살아 있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며, 전사자들 가운데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만일 그가 오이테산 기슭의 바닷가 늪으로 뛰어들었다면 흔적도 없이 깊이 가라앉았을 것이다.

**[7.15.5]** 그러므로 크리톨라오스의 최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아르카디아의 정예병 1천 명은 크리톨라오스의 원정에 가담하여 포키스의 엘라테이아까지 진군했다. 주민들은 두 집단 사이에 옛 인연이 있다고 여겨 그들을 도시에 받아들였다. 그러나 크리톨라오스와 아카이아인들이 당한 재난을 전해 듣자 포키스인들은 아르카디아인들에게 엘라테이아에서 떠나라고 명령했다.

**[7.15.6]** 아르카디아인들이 펠로폰네소스로 물러가던 중 메텔루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카이로네이아 근처에서 그들을 덮쳤다. 그때 그리스 신들의 응보가 아르카디아인들에게 닥쳤다. 카이로네이아에서 그리스인들이 필리포스 휘하의 마케도니아군과 싸울 때 그들이 동료 그리스인들을 버리고 달아났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로마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다.

**[7.15.7]** 디아이오스가 다시 아카이아군의 지휘를 맡았다. 그는 마라톤 전투를 앞둔 밀티아데스와 아테나이인들의 선례를 따라 노예들을 해방하고, 아카이아와 아르카디아의 도시들에서 군역을 감당할 나이의 사람들을 징집했다. 해방된 노예들을 포함하여 모인 병력은 대략 기병 6백 명과 보병 1만 4천 명이었다.

**[7.15.8]** 이때 디아이오스는 지극히 어리석은 짓을 했다. 크리톨라오스와 아카이아의 전 병력이 메텔루스에게 제대로 맞서 보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사 약 4천 명을 떼어 알카메네스의 지휘 아래 메가라로 보냈다. 그 도시를 지키고 메텔루스와 로마군이 그쪽으로 진군해 오면 그들을 막으라는 것이었다.

**[7.15.9]** 카이로네이아 근처에서 아르카디아의 정예병들을 무찌른 메텔루스는 군대를 움직여 테바이로 향했다. 테바이인들이 아카이아인들과 함께 헤라클레이아를 포위했고, 스카르페이아 전투에도 참가했기 때문이다. 테바이 주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도시를 버리고 보이오티아 곳곳을 떠돌거나 산꼭대기로 피신했다.

**[7.15.10]** 메텔루스는 신들의 성소를 불태우거나 건물을 부수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다. 또 테바이인을 죽이거나 피신한 사람을 포로로 잡는 일을 병사들에게 금했다. 다만 피테아스를 발견하면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했다. 피테아스는 곧 발견되어 메텔루스에게 끌려왔고 처벌을 받았다. 로마군이 메가라에 접근하자 알카메네스와 그 병사들은 맞서 싸우지 않고 곧장 코린토스의 아카이아군 진영으로 달아났다.

**[7.15.11]** 메가라인들은 싸움 한 번 없이 로마인들에게 도시를 넘겼다. 메텔루스는 지협에 도착하자 아카이아인들에게 다시 협정을 맺어 평화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마케도니아와 아카

이아의 일을 모두 자기 손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아이오스의 어리석음으로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6장

**[7.16.1]** 뭄미우스는 앞서 라케다이몬인들과 아카이아인들의 분쟁을 처리하도록 파견된 오레스테스를 데리고 이른 새벽에 로마군에 도착했다. 그는 메텔루스와 그 휘하의 군대를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신은 전 병력이 모일 때까지 지협에서 기다렸다. 모인 기병은 3천5백 명이었고 보병은 2만3천 명이었다. 크레타 궁수 부대도 합류했고, 카이코스강 곁 페르가몬의 아탈로스가 보낸 군대를 이끌고 필로포이멘도 왔다.

**[7.16.2]** 뭄미우스는 이탈리아 병사들과 보조군 일부를 진영에서 12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 전군의 전초로 삼았다. 로마인들은 적을 얕보아 경계를 소홀히 했다. 아카이아인들은 초경에 그들을 습격하여 일부를 죽이고 더 많은 병사를 진영으로 몰아붙였으며, 방패 약 5백 개를 빼앗았다. 이 성공에 기세가 오른 아카이아인들은 로마군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싸우러 나갔다.

**[7.16.3]** 뭄미우스가 그들을 맞아 전진하자 아카이아 기병은 로마 기병의 첫 돌격을 기다리지도 않고 곧바로 달아났다. 아카이아 보병은 기병이 패주하는 것을 보고 사기가 꺾였으나, 그래도 로마 중장보병의 공격을 맞아 싸웠다. 그들은 병력에서 밀리고 부상으로 기진했어도 용감하게 저항했다. 마침내 로마의 정예병 1천 명이 옆구리를 덮치자 그들은 완전히 패주했다.

**[7.16.4]** 전투가 끝난 뒤 디아이오스가 용기를 내어 코린토스로 들어가 달아나는 병사들을 성벽 안에 받아들였다면, 아카이아인들은 뭄미우스에게 오랜 포위전의 수고를 지우고 유리한 조건을 얻어 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디아이오스는 아카이아인들이 막 밀리기 시작했을 때 곧장 메갈로폴리스로 달아났다. 그가 아카이아인들에게 한 일은 엠페도스의 아들 칼리스트라토스가 아테나이인들에게 한 일과 사뭇 달랐다.

**[7.16.5]** 칼리스트라토스는 시칠리아에서 기병대를 지휘했다. 아시나로스강에서 아테나이인들과 원정에 함께한 동맹군이 학살당할 때, 그는 기병대의 선두에 서서 용감하게 적진을 뚫었다. 그는 휘하 병사들 대부분을 카타나로 무사히 데려간 다음, 왔던 길을 따라 시라쿠사로 돌아갔다. 적군이 여전히 아테나이군 진영을 약탈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중 다섯 명쯤을 베어 쓰러뜨렸다. 그러고는 그와 그의 말이 모두 치명상을 입고 죽었다.

**[7.16.6]** 그는 휘하 병사들을 구하고 자기 목숨은 죽음에 내맡김으로써 아테나이인들과 자신에게 명예를 안겼다. 디아이오스는 아카이아인들을 파멸시킨 뒤 메갈로폴리스에 가서 그 재앙의 소식을 전했다. 그는 아내가 포로가 되지 않게 하겠다며 제 손으로 아내를 죽이고, 자신은 독을 마셔 목숨을 끊었다. 탐욕으로는 메날키다스와 견줄 만했고, 죽음에 이르러 보인 비겁함도 그와 같았다.

**[7.16.7]** 밤이 되자 전투에서 살아남아 코린토스로 들어왔던 아카이아인들은 도시에서 달아났다. 코린토스 주민 대부분도 그들과 함께 달아났다. 처음에 뭄미우스는 성문이 활짝 열

려 있는데도 코린토스에 들어가기를 망설였다. 성벽 안에 매복이 있을까 의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투가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 그는 코린토스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불태웠다.

[7.16.8] 로마인들은 도시에 남아 있던 사람 대부분을 칼로 죽였다. 뭄미우스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팔았다. 또 자유를 얻어 아카이아인들 편에서 싸웠으나 전쟁터에서 곧바로 죽지는 않은 노예들도 모두 팔았다. 뭄미우스는 봉헌물과 예술품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들을 가져갔고, 그보다 값어치가 덜한 것들은 아탈로스가 보낸 장군 필로포이멘에게 주었다. 내가 살던 때에도 페르가몬에는 코린토스에서 가져온 전리품이 남아 있었다.

[7.16.9] 뭄미우스는 로마에서 그를 보좌할 사절들이 오기도 전에 로마에 맞서 싸운 모든 도시의 성벽을 헐고 주민들의 무기를 빼앗았다. 사절들이 도착하자 그는 민주정을 폐지하고 재산에 따라 관직을 맡기는 정체를 세웠다. 그리스에는 공납이 부과되었고,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나라 밖에서 재산을 새로 얻지 못하게 되었다. 아카이아인들의 연맹이든 포키스인들이나 보이오티아인들의 연맹이든, 그리스의 어느 종족 연맹이든 하나같이 해산되었다.

[7.16.10] 몇 해 지나지 않아 로마인들은 그리스를 가엾게 여겨 각 종족에 오래된 연맹을 돌려주고, 자기 나라 밖에서 재산을 얻을 권리도 되돌려 주었다. 뭄미우스가 부과한 배상금도 면제했다. 뭄미우스는 보이오티아인들에게 헤라클레이아인들과 에우보이아인들에게 1백 탈란톤을, 아카이아인들에게는 라케다이몬인들에게 2백 탈란톤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었다. 그리스인들은 로마인들로부터 이 돈을 면제받았으나, 내가 살던 때까지도 로마인들은 그곳에 총독을 보냈다. 로마인들은 그를 그리스 총독이라 부르지 않고 아카이아 총독이라고 부른다. 그들이 그리스를 굴복시킨 것은 당시 그리스인들의 선두에 있던 아카이아인들을 굴복시킴으로써였기 때문이다. 이 전쟁은 안티테오스가 아테나이의 아르콘이던 때, 시키온의 디오도로스가 우승한 제160회 올림피아 경기 때 끝났다. periegesis.abm.uu.se

## 제17장

[7.17.1] 이때 그리스는 온 나라가 완전히 쓰러지다시피 했다. 그전에도 그리스의 여러 지역은 일찍부터 신의 손에 파멸과 황폐를 겪고 있었다. 이른바 영웅들의 시대에 세력의 정점에 올랐던 도시 아르고스는 도리아인들에 의해 질서가 뒤바뀌었을 때 행운을 잃었다.

[7.17.2] 아티카 사람들은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역병을 겪고 다시 일어섰으나, 몇 해 만에 마케도니아의 패권에 눌려 다시 쓰러졌다.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난 알렉산드로스의 분노는 벼락처럼 보이오티아의 테바이를 덮쳤다. 라케다이몬인들은 테바이의 에파메이논다스에게 타격을 입었고, 아카이아인들과 벌인 전쟁에서 또 한 번 타격을 입었다. 아카이아의 세력이 잘리고 거의 말라 버린 나무 밑동에서 돋는 새순처럼 어렵사리 자라났으나, 한창 자라는 도중에 장군들의 비겁함으로 꺾이고 말았다.

[7.17.3] 후일 로마 황제의 권력이 네로에게 돌아갔을 때, 그는 그리스를 넘겨받는 대가로 번영하던 사르디니아섬을 로마 민중에게 주었고, 그리스에는 완전한 자유를 주었다. 네로의 이 일을 생각하다 보니 아리스톤의 아들 플라톤의 말이 얼마나 옳은지 깨달았다. 가장

크고 대담한 범죄는 평범한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육으로 그릇된 길에 든 고귀한 영혼이 저지른다는 말이다.

**[7.17.4]**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그 선물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네로 다음에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의 재위 중 그들은 서로 내전에 휘말렸다. 베스파시아누스는 그리스인들이 자유롭게 사는 법을 잊었다며, 다시 공납을 내고 총독의 지배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7.17.5]** 아카이아의 역사를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여행 이야기로 돌아가겠다. 아카이아와 엘리스의 경계는 라리소스강이다. 강가에는 라리사이아 아테나의 신전이 있다. 라리소스강에서 약 30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아카이아의 도시 디메가 있다. 아카이아의 도시 가운데 데메트리오스의 아들 필리포스가 전쟁 중에 자기 지배 아래 둔 곳은 이 도시뿐이었다. 이 때문에 로마의 또 다른 지휘관 술피키우스는 병사들에게 디메를 약탈하게 했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는 디메를 파트라이에 병합했다.

**[7.17.6]** 디메의 더 오래된 이름은 팔레이아였다. 이오니아인들이 아직 그 도시에 살고 있을 때 오늘날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그 이름을 그곳 출신 여자 디메에게서 따왔는지, 아이기미오스의 아들 디마스에게서 따왔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그렇다고 올림피아에 있는 오이보타스 상의 비문 때문에 혼동할 까닭은 없다. 디메 출신인 오이보타스는 제6회 올림피아 경기에서 달리기 우승을 했다. 델포이 신탁에 따라 제80회 올림피아 경기 때 그의 상을 세워 그에게 영예를 돌렸다. 상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7.17.7]**

> 오이니아스의 아들, 아카이아인 오이보타스는
> 달리기에서 이겨 조국 팔레이아의 명성을 드높였다.

이 비문은 도시를 디메 대신 팔레이아라고 부르지만, 그것 때문에 누구도 잘못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리스 시인들은 통상 최근 이름 대신 옛 이름을 쓴다. 암피아라오스와 아드라스토스를 포로네우스의 후손들이라 하고, 테세우스를 에레크테우스의 후손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7.17.8]** 디메에 들어가기 조금 전, 길 오른쪽에 소스트라토스의 무덤이 있다. 그는 이곳 출신의 젊은이로, 헤라클레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소스트라토스가 먼저 죽자 헤라클레스가 그에게 무덤을 만들어 주고, 첫 봉헌물로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 바쳤다. 지금도 봉분 위에는 헤라클레스의 모습을 돋을새김한 석판이 있다. 그곳 주민들이 소스트라토스에게 영웅으로서 제사를 지낸다는 말도 들었다.

**[7.17.9]** 디메인들에게는 대단히 오래된 신상이 있는 아테나 신전이 있다. 딘디메네의 어머니 여신과 앗티스를 위해 세운 성소도 있다. 앗티스에 관해서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알아낼 수 없었다. 그러나 엘레게이아 시인 헤르메시아낙스는 시에서 그가 프리기아인 갈라오스의 아들이며 태어날 때부터 거세된 몸이었다고 한다. 헤르메시아낙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앗티스는 자라서 리디아로 옮겨 가 리디아인들을 위해 어머니 여신의 비의(秘儀)를 거행했다. 여신에게 그토록 큰 총애를 받자 제우스가 노하여 리디아인들의 경작지를 망쳐 놓으라고 멧돼지를 보냈다.

**[7.17.10]** 이 멧돼지에게 몇몇 리디아인들과 앗티스 자신이 죽었다. 페시누스에 사는 갈라티아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이 이야기와 들어맞는다. 하지만 앗티스에 관해 널리 퍼진 이야기는 다르다. 현지의 전승은 이러하다. 제우스가 잠결에 씨를 땅에 흘렸는데, 때가 되자 그 땅에서 남자와 여자의 성기를 모두 지닌 신령이 솟아났다. 사람들은 그 신령을 아그디스티스라 부른다. 신들은 아그디스티스를 두려워하여 남자의 성기를 잘라 냈다.

**[7.17.11]** 거기서 아몬드나무가 자라나 열매가 여물었다. 상가리오스강의 딸 하나가 그 열매를 따서 품에 넣자 열매는 즉시 사라졌고, 그녀는 아이를 배었다고 한다. 태어난 사내아이는 버려졌으나 숫염소가 돌보아 주었다. 그가 자라면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뛰어넘을 만큼 빼어나지자 아그디스티스가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앗티스가 장성하자 친족들은 그를 페시누스로 보내 왕의 딸과 결혼하게 했다.

**[7.17.12]** 혼인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을 때 아그디스티스가 나타났다. 앗티스는 미쳐서 자기 성기를 잘라 냈고, 그에게 딸을 주려 했던 왕도 똑같이 했다. 그러나 아그디스티스는 자신이 앗티스에게 한 일을 뉘우치고, 제우스를 설득하여 앗티스의 몸이 썩지도 쇠하지도 않게 해 달라는 허락을 얻었다.

**[7.17.13]** 이것이 앗티스에 관해 가장 널리 전해지는 이야기들이다. 디메의 영토에는 달리기 선수 오이보타스의 무덤도 있다. 이 오이보타스는 올림피아 경기에서 우승한 첫 아카이아인이었는데도 동포들에게서 아무런 특별한 포상을 받지 못했다. 그 때문에 오이보타스는 앞으로 아카이아인은 누구도 올림피아 경기에서 우승하지 못하리라고 저주했다. 어떤 신이 오이보타스의 저주가 이루어지도록 돌보았던 모양이다. 아카이아인들은 델포이에 사람을 보내 문의한 끝에 자신들이 올림피아의 우승 화관을 얻지 못하는 까닭을 마침내 알게 되었다.

**[7.17.14]** 그리하여 그들은 올림피아에 오이보타스의 상을 봉헌하고 다른 여러 방식으로도 그를 기렸다. 그 뒤 펠레네 출신 소스트라토스가 소년부 달리기에서 우승했다. 지금도 올림피아 경기에 나갈 아카이아인들은 오이보타스에게 영웅으로서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우승하면 올림피아에 있는 오이보타스의 상에 화관을 씌우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다.

periegesis.abm.uu.se

## 제18장

**[7.18.1]** 디메에서 약 40스타디온 떨어진 곳에서 페이로스강이 바다로 흘러든다. 이 강가에는 한때 아카이아의 도시 올레노스가 있었다. 헤라클레스와 그의 위업을 노래한 시인들이 즐겨 다룬 이야기는 올레노스의 왕 덱사메노스와 그가 헤라클레스를 손님으로 맞이한 일이다. 올레노스가 처음부터 작은 도시였다는 것은 헤르메시아낙스가 켄타우로스 에우리티온을 두고 지은 엘레게이아 시에서도 확인된다. 세월이 흐르자 도시를 지탱할 힘이 부족해진 주민들은 올레노스를 떠나 페이라이와 에우리테이아이로 옮겨 갔다고 한다.

**[7.18.2]** 페이로스강에서 약 80스타디온 거리에 파트라이가 있다. 파트라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는 글라우코스강이 바다로 흘러든다. 옛 파트라이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에 따르면, 이 땅에 처음 정착한 사람은 토박이 에우멜로스였고, 그가 왕으로서 다스린 백성은 얼

마 되지 않았다. 트립톨레모스가 아티카에서 오자 에우멜로스는 그에게 재배 곡식의 씨앗을 얻었다. 또 도시를 세우는 법을 배워 도시를 세우고는 땅을 간다는 뜻에서 아로에라고 이름 붙였다.

**[7.18.3]** 트립톨레모스가 한 번은 잠이 들었다고 한다. 그사이에 에우멜로스의 아들 안테이아스가 트립톨레모스의 수레에 뱀들을 매고 자기가 직접 씨를 뿌리려 했다. 그러나 안테이아스는 수레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트립톨레모스와 에우멜로스는 함께 도시를 세우고 에우멜로스의 아들 이름을 따서 안테이아라고 불렀다.

**[7.18.4]** 안테이아와 아로에 사이에는 메사티스라는 세 번째 도시가 세워졌다. 파트라이인들은 디오니소스가 메사티스에서 자랐으며 티탄들의 음모로 그곳에서 온갖 위험을 겪었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그 이야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메사티스라는 이름의 유래는 파트라이인들이 좋을 대로 설명하도록 두겠다.

**[7.18.5]** 후일 아카이아인들이 이오니아인들을 몰아낸 뒤, 아게노르의 손자이자 프레우게네스의 아들인 파트레우스는 아카이아인들이 안테이아와 메사티스에 정착하지 못하게 했다. 그는 아로에를 안쪽에 포함하도록 더 넓게 성벽을 둘러 쌓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파트라이라고 불렀다. 프레우게네스의 아버지 아게노르는 암픽스의 손자이자 아레우스의 아들이었다. 암픽스는 펠리아스의 아들, 펠리아스는 아이기네테스의 아들, 아이기네테스는 데레이테스의 아들, 데레이테스는 하르팔로스의 아들, 하르팔로스는 아미클라스의 아들, 아미클라스는 라케다이몬의 아들이었다.

**[7.18.6]** 파트레우스의 계보는 이와 같다. 세월이 지나 파트라이인들은 아이톨리아인들과의 우호 때문에 갈라티아인들과 싸우고 있던 그들을 도우러 아이톨리아로 건너갔다. 다른 아카이아인들은 이 일에 함께하지 않았다. 그런데 파트라이인들은 전투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재난을 겪었고, 그들 대부분이 가난에 짓눌렸다. 소수만 남고 나머지는 파트라이를 떠났다. 그들은 농사짓기를 좋아하여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았다. 파트라이 외에 그들이 살던 곳은 메사티스, 안테이아, 볼리나, 아르기라, 아르바였다.

**[7.18.7]** 아우구스투스는 모종의 이유로, 아마도 파트라이가 배가 들르기에 편리한 항구라고 보았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을 다시 파트라이로 돌아오게 했다. 또 리페스를 완전히 허물고 그곳 아카이아인들도 이들과 합쳐 살게 했다.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아카이아인 가운데 파트라이인들에게만 자유를 주었고, 그 밖에 로마인들이 자기들의 식민시 주민들에게 관례로 베푸는 특권도 모두 주었다.

**[7.18.8]** 파트라이의 아크로폴리스에는 라프리아 아르테미스의 성소가 있다. 여신의 이 이름은 외지에서 온 것이며 신상도 다른 곳에서 가져왔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아이톨리아인들을 악티온 위쪽의 니코폴리스에 모여 살게 하려고 칼리돈과 아이톨리아의 다른 지역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때 파트라이인들이 라프리아의 신상을 얻었다.

**[7.18.9]** 아이톨리아와 아카르나니아에서 가져온 신상 대부분은 아우구스투스의 명에 따라 니코폴리스로 옮겨졌다. 그러나 그는 칼리돈에서 얻은 다른 전리품과 함께 라프리아의 신상을 파트라이에 주었다. 내가 살던 때에도 그 신상은 파트라이의 아크로폴리스에서 숭배받았다. 여신의 이름 라프리아는 포키스 출신의 한 사람에게서 따왔다고 한다. 델포스의

손자이자 카스탈리오스의 아들인 라프리오스가 아르테미스의 오래된 신상을 칼리돈에 세웠기 때문이다.

**[7.18.10]** 다른 이들은 오이네우스에게 품은 아르테미스의 분노가 세월이 흐르면서 칼리돈인들에게 한결 가볍게 느껴졌고, 이 '더 가볍게'라는 말, 곧 **엘라프로테론**에서 여신의 이름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신상은 사냥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여신을 나타낸다. 상아와 금으로 만들었으며, 제작자는 나우팍토스의 메나이크모스와 소이다스였다. 추정하건대 이들은 시키온의 카나코스와 아이기나의 칼론보다 그리 늦지 않은 시대에 살았다.

**[7.18.11]** 파트라이인들은 해마다 자기들의 아르테미스를 기려 라프리아 축제를 열며, 그때 이곳 특유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낸다. 제단 둘레에는 길이가 각각 16큐빗인, 아직 마르지 않은 통나무들을 원을 이루도록 세운다. 그 원 안의 제단 위에는 가장 잘 마른 나무를 놓는다. 또 축제가 열리기 직전에 제단의 계단에 흙을 쌓아 완만한 오르막길을 만든다.

**[7.18.12]** 축제는 아르테미스를 기리는 매우 성대한 행렬로 시작한다. 여사제 직무를 맡은 처녀가 사슴을 맨 수레를 타고 행렬 맨 뒤를 따른다. 제사는 이튿날에야 지낸다. 이 축제는 도시가 주관하는 행사인 동시에 온 주민이 함께 즐기는 명절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새들과 온갖 제물을 살아 있는 채로 제단 위에 던진다. 멧돼지, 사슴, 노루도 바치고, 어떤 이들은 새끼 늑대나 새끼 곰을, 또 어떤 이들은 다 자란 짐승을 바친다. 그리고 재배하는 나무의 열매도 제단에 올린다.

**[7.18.13]** 그런 다음 나무에 불을 붙인다. 나는 처음 불길이 치솟을 때 곰을 비롯한 몇몇 짐승들이 밖으로 헤치고 나오고, 그중에는 힘이 세어 실제로 빠져나오는 것들도 보았다. 그러면 그들을 던져 넣었던 사람들이 다시 불더미로 끌고 간다. 그 짐승들에게 다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는다. periegesis.abm.uu.se

## 제19장

**[7.19.1]** 라프리아의 신전과 제단 사이에는 에우리필로스의 무덤이 있다. 그가 누구이며 무슨 까닭으로 이 땅에 왔는지는 곧 이야기하겠다. 먼저 그가 도착했을 때 이곳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말해야겠다. 아로에와 안테이아와 메사티스에 살던 이오니아인들은 트리클라리아라는 이름의 아르테미스에게 바친 성역과 신전을 공동으로 두었다. 그들은 해마다 여신을 기리는 축제를 열고 밤을 새웠다. 처녀 한 사람이 여신의 사제직을 맡아 혼인하러 갈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했다.

**[7.19.2]** 한때 코마이토라는 더없이 아름다운 처녀가 여신의 사제였다고 한다. 그녀에게는 멜라니포스라는 연인이 있었는데, 그는 또래보다 훨씬 훌륭하고 잘생겼다. 처녀의 사랑을 얻은 멜라니포스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혼인을 청했다. 노인들은 대개 젊은이들이 하는 일에 반대하며, 특히 사랑하는 이들의 소망에는 좀처럼 마음을 써 주지 않는다. 멜라니포스가 겪은 일도 그러했다. 그와 코마이토는 간절히 혼인하고 싶었으나, 자기 부모에게서도 연인의 부모에게서도 매정한 대답만 들었다.

**[7.19.3]** 다른 많은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멜라니포스의 이야기도 사랑이 인간의 법을 어기고 신을 섬기는 의례까지 더럽힐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두 사람은 아르테미스의 성소에서 사

랑의 욕망을 마음껏 채웠고, 그 뒤로도 성소를 신방으로 삼았다. 곧 아르테미스의 분노가 주민들을 덮쳤다. 땅에서는 거둘 것이 없었고, 전에 없던 병들이 생겨 유난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

**[7.19.4]** 주민들이 델포이 신탁에 물으니 피티아 여사제는 멜라니포스와 코마이토에게 죄가 있다고 했다. 신탁은 두 사람을 아르테미스에게 제물로 바치고, 해마다 가장 아름다운 총각과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여신에게 바치라고 명했다. 이 제사 때문에 트리클라리아의 성소 곁을 흐르는 강은 '가차 없다'는 뜻으로 아메일리코스라 불렸다. 그전에는 이름이 없는 강이었다.

**[7.19.5]** 멜라니포스와 코마이토 때문에 죄 없이 죽은 총각과 처녀는 가엾었고, 그들의 친족도 가엾었다. 하지만 내 생각에 두 연인은 가엾게 여길 까닭이 없다. 사랑을 이루는 일이야말로 사람의 목숨을 내놓을 만한 유일한 일이기 때문이다.

**[7.19.6]** 아르테미스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그친 경위는 이러하다고 한다. 파트라이인들은 그전부터 델포이에서 신탁을 받은 바 있었다. 낯선 왕이 낯선 신령을 데리고 이 땅에 올 것이며, 그 왕이 트리클라리아에게 바치는 제사를 끝내리라는 것이었다. 트로이가 함락되고 그리스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에우아이몬의 아들 에우리필로스는 상자 하나를 얻었다. 그 안에는 디오니소스의 신상이 들어 있었다. 전하는 말로는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것으로, 제우스가 다르다노스에게 선물로 준 것이었다.

**[7.19.7]** 이 상자에 관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두 가지 더 있다. 하나는 아이네이아스가 달아날 때 상자를 두고 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카산드라가 그 상자를 발견하는 그리스인에게 재앙이 닥치도록 내던졌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에우리필로스는 상자를 열어 신상을 보았고, 보는 즉시 미쳐 버렸다. 정신이 맑아지는 때는 드물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제정신이 아닌 채로 지냈다. 그런 형편이어서 그는 테살리아로 항해를 계속하지 않고 키라만과 그곳의 도시로 향했다. 거기서 델포이로 올라가 자기 병에 관해 신탁을 물었다.

**[7.19.8]** 신탁은 그가 낯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그곳에 상자를 내려놓고 정착하라고 했다고 한다. 에우리필로스의 배들은 바람에 밀려 아로에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는 뭍에 오르자 트리클라리아의 제단으로 끌려온 총각과 처녀를 보았다. 에우리필로스는 그 제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쉽게 알아차렸다. 그곳 사람들도 처음 보는 왕을 보자 자기들이 받은 신탁을 떠올렸고, 상자 속에 어떤 신이 들어 있으리라 짐작했다.

**[7.19.9]** 이리하여 에우리필로스의 병도, 이 사람들이 지내던 제사도 끝났으며, 강은 오늘날의 이름인 메일리코스를 얻었다. 어떤 저술가들은 내가 이야기한 일이 테살리아의 에우리필로스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올레노스의 왕 덱사메노스의 아들 에우리필로스에게 일어났다고 한다. 그들에 따르면 이 사람은 헤라클레스와 함께 트로이 원정에 나섰으며, 헤라클레스에게서 상자를 받았다. 나머지 이야기는 내가 전한 것과 같다.

**[7.19.10]** 그러나 상자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헤라클레스가 그 내막을 몰랐으리라고는 믿기 어렵다. 내막을 알았다면 함께 싸운 사람에게 그런 것을 선물로 주었을 리도 없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파트라이인들에게 전해지는 에우리필로스는 에우아이몬의 아들뿐이다.

그들은 해마다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축제를 열 때 에우리필로스에게 영웅으로서 제사를 지낸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0장

**[7.20.1]** 상자 속 신의 별칭은 아이심네테스, 곧 ‘통치자’이다. 신을 섬기는 으뜸 봉사자들로는 민회가 전체 시민 가운데 평판을 보고 뽑은 남자 아홉 명과 그와 같은 수의 여자가 있다. 축제 기간 중 어느 하룻밤에 사제가 상자를 밖으로 들고 나온다. 그 밤에만 허락된 일이다. 그 고장 아이들 가운데 정해진 수가 곡식 이삭으로 엮은 관을 머리에 쓰고 메일리코스강으로 내려간다. 옛날 아르테미스에게 제물로 바칠 사람들을 데려갈 때도 이렇게 꾸몄다.

**[7.20.2]** 오늘날에는 곡식 이삭으로 엮은 관을 여신 곁에 벗어 둔다. 그러고는 강에서 몸을 씻고 이번에는 담쟁이덩굴로 만든 새 관을 써서 아이심네테스의 성소로 간다. 그들이 전해 오는 의례는 이와 같다. 라프리아의 성역 안에는 ‘온 아카이아의 아테나’라는 뜻의 파나카이아 아테나 신전이 있다. 신상은 상아와 금으로 만들었다.

**[7.20.3]** 아랫도시로 내려가는 길에는 딘디메네의 어머니 여신을 모신 성소가 있다. 그곳에서는 앗티스도 숭배한다. 앗티스의 신상은 볼 수 없고, 어머니 여신의 신상은 돌로 만들었다. 아고라에는 올림피오스 제우스의 신전이 있다. 제우스 자신은 왕좌에 앉아 있고 아테나가 그 곁에 서 있다. 올림피오스의 신전을 지나면 헤라의 상과 아폴론의 성소가 있다. 아폴론은 청동으로 만든 나체상이다. 발에는 샌들을 신었고 한쪽 발로 소의 두개골을 밟고 있다.

**[7.20.4]** 아폴론이 소를 몹시 좋아한다는 것은 알카이오스가 헤르메스에게 바친 찬가에서도 알 수 있다. 그 찬가에는 헤르메스가 아폴론의 소들을 훔친 이야기가 나온다. 알카이오스가 태어나기 전에도 호메로스는 아폴론이 품삯을 받고 라오메돈의 소를 쳤다고 했다. 그는『일리아스』에서 포세이돈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한다.

**[7.20.5]**

> 나는 트로이인들을 위해 도성 둘레에 성벽을 쌓았지.
> 넓고도 아름답게 쌓아 그 도시가 함락되지 않도록 했지.
> 포이보스여, 그대는 굽은 뿔에 걸음 느린 소들을 돌보았지.

소의 두개골을 둔 까닭은 아마 이것일 것이다. 아고라의 탁 트인 곳에는 아테나의 상이 있고, 그 앞에 파트레우스의 무덤이 있다.

**[7.20.6]** 아고라 옆에는 오데이온이 있으며, 그곳에 볼 만한 아폴론상이 봉헌되어 있다. 아카이아인들 가운데 파트라이인들만이 갈라티아군에 맞서 아이톨리아인들을 도왔는데, 그때 얻은 전리품으로 만든 상이다. 이 오데이온은 아테나이의 것을 제하면 그리스에서 모든 면에 걸쳐 가장 훌륭하다. 아테나이의 오데이온은 크기와 화려함에서 견줄 데가 없다. 아테나이인 헤로데스가 죽은 아내를 기리려고 지었다. 내가 아티카에 관한 글에서 그 오데이

온을 언급하지 않은 까닭은 헤로데스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테나이인들에 관한 글을 이미 마쳤기 때문이다.

**[7.20.7]** 파트라이의 아고라에서 아폴론의 성소가 있는 쪽으로 나가면 그 출구에 문이 있다. 문 위에는 금을 입힌 파트레우스와 프레우게네스와 아테리온의 상이 서 있다. 파트레우스가 소년의 나이로 표현되어 있어 나머지 두 사람도 소년의 모습이다. 그 출구에서 아고라의 맞은편에는 아르테미스의 성역과 림나티스의 신전이 있다.

**[7.20.8]** 도리아인들이 이미 라케다이몬과 아르고스를 차지했을 때, 프레우게네스가 꿈에서 본 지시에 따라 스파르타에서 림나티스의 신상을 훔쳤다고 한다. 그의 노예 가운데 그에게 가장 충실한 사람이 이 일을 도왔다고 한다. 라케다이몬에서 가져온 신상은 평소에는 메소아에 보관한다. 프레우게네스가 처음 신상을 가져온 곳이 거기였기 때문이다. 림나티스 축제를 열 때에는 여신에게 속한 노예 한 사람이 메소아에서 그 오래된 목상을 들고 도시의 성역으로 온다.

**[7.20.9]** 이 성역 가까이에는 파트라이인들의 다른 성소들도 있다. 밖에 드러나 있지 않고 주랑을 지나 들어가게 되어 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은 옷을 제외하면 돌로 만들었고, 아테나의 상은 상아와 금으로 만들었다. 아테나의 성소 앞에는 프레우게네스의 무덤이 있다. 파트라이인들은 해마다 림나티스 축제를 열 때 프레우게네스에게 영웅으로서 제사를 지내며, 파트레우스에게도 그렇게 한다. 극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네메시스의 신전과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다. 두 신상은 흰 대리석으로 만든 거상이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1장

**[7.21.1]** 이 일대에는 칼리도니오스라는 별칭의 디오니소스 성소도 있다. 디오니소스의 신상 역시 칼리돈에서 가져왔기 때문이다. 칼리돈에 아직 주민들이 살던 때, 그곳 사람들 가운데 코레소스라는 이가 디오니소스의 사제가 되었다. 그는 사랑 때문에 누구보다도 모진 일을 겪었다. 그는 칼리로에라는 처녀를 사랑했는데, 그가 그녀를 사랑한 만큼이나 처녀는 그를 미워했다.

**[7.21.2]** 코레소스가 거듭 간청하고 여러 가지를 약속해도 처녀가 마음을 바꾸지 않자, 그는 디오니소스의 신상 앞으로 가서 애원했다. 신은 사제의 기도를 들었다. 칼리돈인들은 곧 술에 취한 것처럼 미쳐 날뛰었고, 정신을 되찾지 못한 채 죽어 갔다. 그래서 그들은 도도나의 신탁에 물었다. 본토의 이 지방에 사는 아이톨리아인들과 이웃 아카르나니아인들 및 에페이로스인들은 도도나의 비둘기들과 참나무에서 오는 응답을 가장 진실한 신탁으로 여겼다.

**[7.21.3]** 이때 도도나의 신탁은 디오니소스의 분노가 역병을 일으켰으며, 코레소스가 칼리로에 자신이나 그녀를 대신해 죽을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디오니소스에게 바칠 때까지 역병이 그치지 않으리라고 했다.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한 처녀는 자기를 길러 준 사람들에게 애원했다. 그들마저 도와주지 않자, 그녀에게는 칼에 죽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

**[7.21.4]** 도도나의 신탁대로 제사 준비가 모두 끝나자 처녀는 제물로 제단에 끌려왔다. 코레소스는 제사를 올리려고 서 있었으나, 마침내 사랑이 원망을 이겨 칼리로에 대신 자신을 죽였다. 이로써 우리가 아는 다른 누구의 사랑보다도 자기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 주었다.

**[7.21.5]** 칼리로에는 코레소스가 죽어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뉘우쳤다. 그녀는 코레소스가 가엾고 그를 대했던 일이 부끄러워, 칼리돈의 항구에서 멀지 않은 샘가에서 제 목을 그었다. 후세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따서 그 샘을 칼리로에라 부른다.

**[7.21.6]** 극장 근처에는 파트라이인들이 그 고장 여자 한 사람을 위해 마련한 성역이 있다. 그곳에는 옛 도시들의 수와 같은 수의 디오니소스 상이 있으며, 각 상은 그 도시에서 이름을 얻었다. 그 이름은 메사테우스, 안테우스, 아로에우스이다. 디오니소스 축제 때에는 이 상들을 아이심네테스의 성소로 옮긴다. 이 성소는 아고라에서 도시의 바닷가 쪽으로 가는 길 오른편에 있다.

**[7.21.7]** 아이심네테스의 성소에서 더 내려가면 돌로 만든 신상이 있는 또 다른 성소가 있다. 구원을 뜻하는 소테리아의 성소라 부른다. 에우리필로스가 광기에서 벗어난 뒤 처음 세웠다고 한다. 항구 곁에는 포세이돈의 신전이 있고, 돌로 만든 포세이돈의 입상이 있다. 시인들이 시구를 꾸미려고 포세이돈에게 지어 준 이름과 고장마다 따로 붙인 이름을 제하면, 어디에서나 그에게 붙이는 별칭은 펠라가이오스, 곧 ‘바다의 신’, 아스팔리오스, 곧 ‘안전을 주는 신’, 힙피오스, 곧 ‘말의 신’이다.

**[7.21.8]** 포세이돈에게 마지막 이름을 붙인 까닭은 여러 가지로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말을 다루는 기술을 처음 알아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얻었다. 호메로스가 전차 경주를 묘사할 때에도 메넬라오스는 이 신을 두고 맹세하라고 요구한다.

> 말들에게 손을 대고 땅을 붙드는 이, 땅을 흔드는 이를 두고 맹세하라.
> 그대가 일부러 속임수를 써서 내 전차를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고.

**[7.21.9]** 아테나이인들을 위해 그들의 가장 오래된 찬가를 지은 팜포스도 포세이돈을 이렇게 부른다.

> 말과 돛을 단 배를 주는 이.

그러므로 포세이돈이 그 이름을 얻은 까닭은 말을 다루는 기술에 있다.

**[7.21.10]** 파트라이에는 포세이돈의 성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프로디테의 성소들이 있다. 두 신상 가운데 하나는 내가 살던 때보다 한 세대 앞서 어부들이 그물로 건져 올렸다. 항구 바로 가까이에는 청동상 둘이 있는데, 하나는 아레스이고 다른 하나는 포세이돈이다. 항구 곁에 성역이 있는 아프로디테의 신상은 얼굴과 손과 발을 돌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나무로 만들었다.

**[7.21.11]** 파트라이인들에게는 바닷가에 숲도 있다. 여름이면 산책하기에 아주 좋고, 그 밖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기에도 쾌적하다. 이 숲에는 두 신전이 있는데, 하나는 아폴론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프로디테의 것이다. 그 신상들도 돌로 만들었다. 숲에 이어 데메테르의 성소가 있다. 데메테르와 딸의 상은 서 있고, 대지의 여신상은 앉아 있다.

**[7.21.12]** 데메테르의 성소 앞에는 샘이 있다. 샘의 신전 쪽에는 돌담을 세웠으며, 바깥쪽에는 샘으로 내려가는 길을 냈다. 이곳에는 틀리는 법이 없는 신탁이 있다. 온갖 일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며, 병든 사람에 대해서만 응답한다. 사람들은 가느다란 줄에 거울을 매어 내리는데, 샘 속 깊이 잠기지 않고 테두리만 물에 닿도록 거리를 잰다. 그러고는 여신에게 기도하고 향을 피운 뒤 거울을 들여다본다. 거울에는 병자가 살아 있거나 죽은 모습이 나타난다.

**[7.21.13]** 이 샘물은 그 정도까지 진실을 보여 준다. 뤼키아의 키아네아이 가까이에는 티르크세우스 아폴론의 신탁소가 있는데, 그곳 샘물은 들여다보는 사람에게 그가 보고 싶은 것을 모두 보여 준다. 파트라이의 숲 곁에는 세라피스의 성소도 두 곳이 있다. 한 곳에는 벨로스의 아들 아이깁토스의 무덤이 있다. 파트라이인들에 따르면 그는 자식들이 겪은 불행 때문에 아로에로 달아났다. 아르고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쳤고, 무엇보다 다나오스를 두려워했다고 한다.

**[7.21.14]** 파트라이에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소도 있다. 이 성소는 아크로폴리스를 넘어 메사티스로 가는 문 가까이에 있다. 파트라이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두 배나 된다. 다른 어느 곳 여자들에게 못지않게 아프로디테의 매력을 지닌 이들이다. 그들 대부분은 엘리스에서 자라는 고운 아마로 생계를 이어 간다. 그것으로 머리 그물과 여러 가지 옷을 짠다.

periegesis.abm.uu.se

## 제22장

**[7.22.1]** 아카이아의 도시 파라이는 아우구스투스가 파트라이에 주었으므로 파트라이에 속한다. 파트라이 시내에서 파라이까지는 길을 따라 150스타디온이며, 파라이는 해안에서 내륙으로 약 70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파라이 근처에는 피에로스강이 흐른다. 내 생각에 이 강은 올레노스의 폐허 옆으로 흘러가는 강과 같다. 해안 사람들은 그 강을 페이로스라 부른다. 강 가까이에는 플라타너스 숲이 있다. 나무들은 대부분 오래되어 속이 비었고, 하도 커서 사람들이 그 빈 곳에서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마음이 내키면 거기서 잠을 자기도 한다.

**[7.22.2]** 파라이의 아고라는 옛 방식대로 널찍하며, 그 한가운데에 수염 난 헤르메스의 석상이 있다. 네모난 모양이고 그리 크지 않으며 땅 위에 바로 서 있다. 메세니아인 시밀로스가 봉헌했다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 이 신상은 '아고라의 헤르메스'라는 뜻에서 헤르메스 아고라이오스라 불리며, 그 곁에 신탁소가 있다. 신상 앞에는 역시 돌로 만든 화덕이 놓여 있고, 거기에는 청동 등잔들을 납으로 고정해 두었다.

**[7.22.3]** 신에게 물으려는 사람은 저녁때 와서 화덕에 향을 피우고 등잔에 기름을 부어 불을 켠다. 그리고 신상 오른쪽 제단 위에 '구리'라고 부르는 현지 동전 한 닢을 놓고, 신의 귀에 자기가 묻고 싶은 것을 말한다. 그 뒤 귀를 막고 아고라에서 나간다. 바깥에 이르러 귀에서 손을 뗀 다음, 처음으로 들리는 말을 신탁의 응답으로 받아들인다.

**[7.22.4]** 이집트의 아피스 성소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점을 친다. 파라이에는 헤르메스에게 바쳐진 샘도 있다. 이름은 '헤르메스의 물'이며, 그 안의 물고기는 신에게 속한

다고 여겨 잡지 않는다. 신상 바로 곁에는 네모난 돌 약 서른 개가 서 있다. 파라이인들은 돌마다 어느 신의 이름을 붙여 숭배한다. 훨씬 옛날에는 모든 그리스인이 신상 대신 다듬지 않은 돌을 숭배했다.

**[7.22.5]** 파라이에서 약 15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디오스쿠로이의 숲이 있다. 나무는 대부분 월계수다. 나는 거기서 신전도 신상도 보지 못했다. 주민들 말로는 신상들을 로마로 가져갔다고 한다. 파라이의 그 숲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이 있다. 파라이를 세운 이가 다나오스의 딸 필로다메이아의 아들 파레스인지,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인지는 알아낼 수 없었다.

**[7.22.6]** 아카이아의 또 다른 도시 트리테이아도 내륙에 있으며, 파라이처럼 황제가 병합했으므로 파트라이에 속한다. 파라이에서 트리테이아까지는 120스타디온이다.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흰 대리석으로 만든 볼 만한 무덤이 있다. 특히 무덤의 그림은 볼 만한데, 니키아스의 작품이다. 상아 의자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고, 그 곁에는 양산을 든 시녀가 있다. 서 있는 젊은 남자도 그려져 있다.

**[7.22.7]** 그는 아직 수염이 날 나이가 되지 않았고, 키톤 위에 자주색 망토를 걸쳤다. 그 곁에는 투창을 들고 사냥개들을 이끄는 하인이 있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알아낼 수 없었으나, 부부가 이 무덤에 함께 묻혔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7.22.8]** 어떤 사람들은 트리테이아를 세운 이가 오피코이족의 땅에 있는 키메에서 온 켈비다스라고 한다. 다른 이들은 아레스가 트리톤의 딸 트리테이아와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이 처녀는 아테나의 여사제였고, 아레스와 트리테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멜라니포스가 장성하여 도시를 세우고 어머니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다.

**[7.22.9]** 트리테이아에는 '가장 위대한 신들'이라는 뜻의 메기스토이 신들을 모신 성소가 있다. 그 신상들은 진흙으로 만들었다. 해마다 그 신들을 기려 축제를 여는데, 그리스인들이 디오니소스를 기려 여는 축제와 방식이 똑같다. 아테나의 신전도 있다. 지금의 신상은 돌로 만들었고, 트리테이아인들에 따르면 옛 신상은 로마로 가져갔다. 이곳 사람들은 아레스와 트리테이아 두 사람 모두에게 제사를 바친다.

**[7.22.10]** 이 두 도시는 바다에서 떨어져 모두 내륙에 있다. 파트라이에서 배를 타고 아이기온으로 가면 먼저 리온이라는 곳에 닿는다. 파트라이에서 50스타디온이며, 그 곳에서 파노르모스항까지는 다시 15스타디온이다. 파노르모스에서 '아테나의 성벽'이라 부르는 곳까지는 15스타디온을 더 가야 한다. 아테나의 성벽에서 에리네우스항까지 해안을 따라 배로 가면 90스타디온이고, 에리네우스에서 아이기온까지는 60스타디온이다. 육로로 가면 여기 적은 거리보다 약 40스타디온이 짧다.

**[7.22.11]** 파트라이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에 메일리코스강과 트리클라리아의 성소가 있다. 성소는 길 오른쪽에 있으며 이제 신상은 없다. 메일리코스강을 지나 더 가면 카라드로스라는 다른 강이 있다. 봄에 이 강물을 마시는 가축은 새끼 대부분을 수컷으로 낳는다고 한다. 그래서 목자들은 암소를 제외한 가축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 암소는 강가에 남겨 둔다. 제사를 지내거나 농사일을 할 때에는 수소가 암소보다 쓸모가 크지만, 다른 가축은 암컷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periegesis.abm.uu.se

## 제23장

**[7.23.1]** 카라드로스강을 지나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아르기라 시의 폐허가 있고, 큰길 오른쪽에 아르기라라는 샘이 있으며, 셀렘노스강이 바다로 흘러간다. 셀렘노스에 관해 이 고장에서는 그가 이곳에서 양 떼를 치던 잘생긴 소년이라고 이야기한다. 아르기라는 바다의 님프였는데 셀렘노스를 사랑하여 바다에서 올라와 그를 찾아가고 그의 곁에서 잠들곤 했다고 한다.

**[7.23.2]** 얼마 지나지 않아 셀렘노스는 아르기라의 눈에 예전만큼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고, 님프는 더 이상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아르기라에게 버림받은 셀렘노스는 사랑 때문에 죽었다. 아프로디테가 그를 강으로 바꾸었다는 것이 파트라이인들의 이야기다. 전설 속의 알페이오스가 계속 아레투사를 사랑했듯, 셀렘노스도 물이 된 뒤 여전히 아르기라를 사랑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그에게 한 가지 선물을 더 주어 아르기라에 대한 기억을 지워 주었다.

**[7.23.3]** 나는 그 물에 관해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 사랑에 빠진 남자나 여자에게 그 물이 좋은 약이 된다고 한다. 강에서 몸을 씻으면 사랑을 잊는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진실이 있다면 셀렘노스의 물은 사람들에게 큰 재산보다 값진 셈이다.

**[7.23.4]** 아르기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볼리나이오스라는 강이 있고, 그 강가에는 한때 볼리나라는 도시가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아폴론이 볼리나라는 처녀를 사랑했다. 그녀는 바다로 달아나다가 이곳에서 몸을 던졌고, 아폴론의 은혜로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 그 곁에는 바다로 튀어나온 곶이 있다.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의 몸을 자른 낫을 여기에서 바다에 던졌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래서 이 곶을 '낫'이라는 뜻의 드레파논이라 부른다. 큰길 너머에는 리페스의 폐허가 있다. 아이기온은 리페스에서 약 30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7.23.5]** 아이기온 땅에는 포이닉스강과 메이가니타스강이 흐른다. 두 강 모두 바다로 들어간다. 도시 가까이에는 스트라톤을 위해 지은 주랑이 있다. 그는 올림피아 경기에서 같은 날 판크라티온과 레슬링 두 종목을 모두 우승한 선수다. 그가 그 안에서 몸을 단련하도록 주랑을 지었다. 아이기온에는 에일레이티이아의 오래된 성소가 있다. 여신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곱게 짠 옷으로 덮여 있다. 얼굴과 손과 발을 빼면 나무로 만들었다.

**[7.23.6]** 얼굴과 손과 발은 펜텔리콘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한 손은 앞으로 곧게 뻗었고 다른 손은 횃불을 들어 올렸다.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고통이 불과 같아서 횃불이 에일레이티이아의 표지가 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아이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이가 에일레이티이아라는 점에서도 횃불을 설명할 수 있다. 신상은 메세니아인 다모폰이 만들었다.

**[7.23.7]** 에일레이티이아의 성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역이 있다. 아스클레피오스와 건강의 여신 히기에이아의 상이 있는데, 받침대에 새긴 이암보스 한 행은 메세니아인 다모폰이 만들었다고 전한다.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소에서 시돈 사람 하나가 나와 논쟁을 벌였다. 그는 페니키아인들이 그리스인들보다 신에 대해 더 나은 관념을 지녔

다고 주장했다. 예로 든 것이 아스클레피오스였다. 페니키아인들은 아폴론을 그의 아버지로 보지만, 죽을 운명의 여자를 그의 어머니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7.23.8]** 그가 말을 이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공기이며, 사람과 다른 모든 동물에게 똑같이 건강을 가져다준다. 아폴론은 태양이다. 태양은 계절에 맞추어 운행하며 공기에 건강을 북돋우는 힘을 나누어 주므로, 아폴론을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지극히 옳다.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도 이 설명이 페니키아인들만큼 그리스인들에게도 해당한다고 답했다. 시키온 땅 티타네에서도 같은 신상을 히기에이아라고도 하고 〔…〕라고도 부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태양이 땅 위를 운행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건강을 가져다준다는 것이 분명하다.

**[7.23.9]** 아이기온에는 아테나의 신전과 헤라의 숲이 있다. 아테나의 상은 흰 대리석으로 만든 두 점이다. 헤라의 신상은 그때 여사제직을 맡은 여자만 볼 수 있다. 극장 가까이에는 디오니소스의 성소가 있고, 그 신상은 아직 수염이 나지 않은 청년의 모습이다. 아고라에는 '구원자'라는 별칭의 제우스 성역도 있다. 들어가면 왼쪽에 청동상 두 점이 서 있는데, 아직 수염이 나지 않은 쪽이 내 눈에는 더 오래되어 보였다.

**[7.23.10]** 입구 바로 앞 건물에는 앞의 신상들과 마찬가지로 청동으로 만든 포세이돈, 헤라클레스, 제우스, 아테나의 상이 있다. 이 상들을 '아르고스에서 온 신들'이라 부른다. 아르고스인들은 아르고스에서 만든 상들이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아이기온인들은 아르고스인들이 자기들을 믿고 상들을 맡겨 두었다고 한다.

**[7.23.11]** 아이기온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날마다 신상들에 제물을 바치라는 당부도 받았다. 그래서 꾀를 내어 짐승을 아주 많이 제물로 바치되, 공동 잔치에서 그 고기를 먹어 버려 따로 비용이 들지 않게 했다. 마침내 아르고스인들이 신상들을 돌려 달라고 하자 아이기온인들은 제사에 든 비용을 달라고 요구했다. 아르고스인들은 그 돈을 낼 수 없어 아이기온에 신상들을 두고 갔다. periegesis.abm.uu.se

## 제24장

**[7.24.1]** 아이기온의 아고라 곁에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함께 쓰는 신전이 있다. 아고라 안에는 아르테미스의 성소가 있는데, 여신은 활을 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전령 탈티비오스의 무덤도 있다. 스파르타에도 탈티비오스의 무덤으로 봉분을 쌓아 놓았다. 두 도시 모두 그에게 영웅으로서 제사를 지낸다.

**[7.24.2]** 아이기온의 바닷가에는 아프로디테의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포세이돈의 성소가 있다. 데메테르의 딸 코레, 곧 '처녀'의 성소와 호마기리오스 제우스의 성소도 있다. 그곳에는 제우스와 아프로디테와 아테나의 상이 있다. 제우스에게 '한데 모으는 이'라는 뜻의 호마기리오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곳에서 아가멤논이 그리스의 가장 이름난 사람들을 모아 프리아모스의 나라를 어떻게 칠 것인지 함께 의논했기 때문이다. 아가멤논이 명성을 얻은 일 가운데 하나는 처음부터 그를 따라온 군대만으로 후속 지원군 없이 트로이와 그 주변 도시들을 멸망시켰다는 것이다.

**[7.24.3]** 호마기리오스 제우스의 성소에 이어 '온 아카이아의 데메테르'인 파나카이아 데메테르의 성소가 있다. 아이기온인들의 이 성소들이 있는 바닷가에는 샘물이 풍부하게 솟는데, 보기에도 좋고 마시기에도 좋다. 소테리아의 성소도 있다. 여신상은 사제들만 볼 수 있으며, 이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례를 거행한다. 여신 앞에서 이 고장의 제사용 과자를 거두어 바다에 던지며, 시라쿠사의 아레투사에게 보낸다고 말한다.

**[7.24.4]** 아이기온에는 청동으로 만든 다른 신상들도 있다. 소년 제우스와 수염이 아직 나지 않은 청년 헤라클레스인데, 아르고스의 아겔라다스가 만들었다. 해마다 각 신의 사제를 뽑으며, 두 신상은 각각 그 사제의 집에 둔다. 훨씬 이전에는 소년들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으뜸을 차지한 아이를 제우스의 사제로 뽑았다. 그 아이에게 수염이 나기 시작하면 아름다움에 주는 영예는 다른 소년에게 돌아갔다. 그들의 관습은 이러했다. 내가 살던 때에도 아카이아인들의 회의는 여전히 아이기온에서 열렸다. 암픽티온들이 테르모필라이와 델포이에서 회의를 여는 것과 같다.

**[7.24.5]** 더 가면 셀리누스강이 나온다. 아이기온에서 40스타디온 떨어진 바닷가에 헬리케라는 곳이 있다. 옛날에는 이곳에 헬리케라는 도시가 있었고, 이오니아인들에게는 더없이 신성한 헬리코니오스 포세이돈의 성소가 있었다. 아카이아인들에게 쫓겨 아테나이로 갔다가 다시 아시아 해안으로 옮겨 간 뒤에도 그들의 헬리코니오스 포세이돈 숭배는 이어졌다. 밀레토스에서도 비블리스 샘으로 가는 길의 도시 앞쪽에 헬리코니오스 포세이돈의 제단이 있다. 테오스에도 헬리코니오스의 성역과 제단이 있는데, 볼 만하다.

**[7.24.6]** 호메로스의 시에도 헬리케와 헬리코니오스 포세이돈을 언급한 대목이 있다. 그런데 나중에 그곳의 아카이아인들은 성소에 보호를 청하러 온 사람 몇을 끌어내 죽였다. 포세이돈의 분노는 지체 없이 그들에게 닥쳤다. 곧 지진이 그들의 땅을 덮쳐 건물은 물론 도시가 서 있던 터까지 삼켜 버렸다. 후세 사람이 볼 만한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7.24.7]** 격렬하고 광범위한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신은 대개 어디서나 같은 징조를 보내곤 한다. 계속해서 폭우가 내리거나 가뭄이 닥쳐 평소와 달리 오랫동안 이어지며, 날씨가 계절에 맞지 않는다. 겨울에는 지나치게 더워진다. 여름에는 하늘이 흐릿해지고 해의 둥근 모습에 평소와 다른 빛깔이 돌아, 조금 붉어지거나 검어지기도 한다.

**[7.24.8]** 샘물은 흔히 말라붙고, 돌풍이 땅을 덮쳐 나무를 쓰러뜨리기도 한다. 때로는 커다란 불길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별들이 아무도 본 적 없는 모양으로 나타나 보는 이들을 놀라게 한다. 땅속의 바람이 거세게 울리기도 한다. 격렬한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신은 이런 징조들과 그 밖의 여러 징조를 보내곤 한다.

**[7.24.9]** 지진의 충격이 언제나 같은 종류는 아니다. 이 문제를 처음 연구한 사람들과 그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지진의 유형을 밝혀냈다. 그런 재앙에 조금이라도 가벼운 것이 있다면, 가장 가벼운 유형은 건물을 땅바닥에 쓰러뜨리는 첫 충격과 동시에 반대 방향의 충격이 일어나는 것이다. 뒤의 충격이 앞의 충격을 상쇄해 이미 쓰러진 건물을 다시 일으킨다.

**[7.24.10]** 이런 지진에서는 거의 뿌리째 뽑힌 기둥이 바로 서고, 갈라진 벽이 본래대로 맞물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흔들려 어긋난 들보도 제자리로 돌아간다. 수로나 물을 흐르게 하는 그와 같은 시설들도 갈라진 곳이 사람이 손써 고친 것보다 더 잘 맞붙는다. 두 번째 유형의

지진은 충격을 받는 것마다 무너뜨리며, 그 힘을 정면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든 공성망치로 치듯 한꺼번에 넘어뜨린다.

**[7.24.11]** 이 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가장 파괴적인 지진을 열이 끊이지 않는 환자의 증상에 빗대곤 한다. 그런 환자는 숨이 빠르고 가쁘다. 이 증상은 몸의 여러 곳에서, 특히 양쪽 손목에서 알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진은 건물 바로 밑으로 파고들어 기초부터 흔들어 올린다고 한다. 두더지가 땅속 깊은 데서 흙을 위로 밀어 올려 두둑을 만드는 것과 같다. 사람이 그곳에 살았다는 흔적을 땅 위에 조금도 남기지 않는 것은 이 유형의 지진뿐이다.

**[7.24.12]** 그때 헬리케를 지면과 한 높이로 무너뜨린 것은 이런 유형의 지진이었다고 한다. 때는 겨울이었고 또 다른 재앙이 겹쳤다. 바다가 땅의 많은 부분을 덮쳐 헬리케를 사방으로 잠기게 했다. 포세이돈의 숲에도 물이 크게 차올라 나무 꼭대기만 보일 정도였다. 갑자기 일어난 지진에 바닷물의 침입까지 겹쳐, 큰 물결이 헬리케와 그 안의 모든 사람을 삼켰다.

**[7.24.13]** 시필로스산에 있던 한 도시에도 그와 비슷하되 양상은 다른 재앙이 닥쳤다. 도시는 땅이 갈라진 틈으로 사라졌다. 산이 갈라지고 그 틈에서 물이 솟아올라, 갈라진 자리는 살로에라는 호수가 되었다. 호수 속에서 도시의 폐허를 볼 수 있었으나, 급류가 흘러들어 그것을 가려 버렸다. 헬리케의 폐허도 볼 수는 있다. 다만 바닷물에 깎여 지금은 전처럼 또렷하지 않다. periegesis.abm.uu.se

## 제25장

**[7.25.1]** 헬리케에 닥친 재앙은 탄원자를 지키는 히케시오스 제우스의 분노를 달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숱한 증거 가운데 하나다. 도도나의 신도 탄원자를 존중하라고 분명히 권한다. 아페이다스 시대 무렵에 아테나이인들이 도도나의 제우스에게서 받은 시구가 그러하다.

> 아레오파고스와 에우메니데스의 연기 나는 제단들을 생각하라.
> 전쟁에 몰린 라케다이몬인들이 그곳에서 너에게 보호를 청하리라.
> 그들을 칼로 죽이지 말며 탄원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 탄원자는 신성하고 거룩하니라.

**[7.25.2]** 멜란토스의 아들 코드로스가 아테나이의 왕이었을 때 펠로폰네소스인들이 아테나이로 쳐들어오자 그리스인들은 이 말을 떠올렸다. 펠로폰네소스군의 다른 병사들은 코드로스가 죽은 사실과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 아티카에서 물러났다. 델포이 신탁에 비추어 더는 승리를 바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라케다이몬인은 밤중에 들키지 않고 성벽 안으로 들어갔다. 날이 밝아 동료들이 떠난 것을 알았고, 아테나이인들이 자신들을 치러 모여들자 아레오파고스에 있는 '존엄한 여신들'이라는 뜻의 셈나이 여신들의 제단에 피신했다.

**[7.25.3]** 이때 아테나이인들은 탄원자들을 해치지 않고 보내 주었다. 하지만 후일 킬론과 그 일당이 아크로폴리스를 점거했을 때는 관리들이 나서서 아테나에게 보호를 청한 사람들을

죽였다. 이 때문에 살해자들과 그 후손은 여신에게 저주받은 사람들로 여겨졌다. 라케다이몬인들도 타이나론의 포세이돈 성소에 피신한 사람들을 죽인 적이 있다. 이내 그들의 도시는 지진으로 흔들렸다. 지진이 어찌나 오래 지속되고 거셌던지 라케다이몬에서는 어느 집도 버티지 못했다.

**[7.25.4]** 헬리케가 파괴된 것은 아스테이오스가 아직 아테나이의 아르콘으로 있던 때였다. 투리오이의 다몬이 처음 우승한 제101회 올림피아기의 넷째 해였다. 헬리케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이가 하나도 없었으므로 그 땅은 아이기온인들이 차지했다.

**[7.25.5]** 헬리케를 지나 바다를 등지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케리네이아 마을에 이른다. 큰길 위쪽 산에 세워진 마을이다. 그 이름은 그 고장을 다스린 사람의 이름에서 왔거나 케리니테스강에서 왔다. 케리니테스강은 아르카디아의 케리네이아산에서 내려와 아카이아의 이 지역을 지난다. 아르골리스의 미케나이인들은 재난을 당하여 이곳에 정착하러 왔다. 아르고스인들은 미케나이의 성벽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없었다.

**[7.25.6]** 그 성벽은 티린스의 성벽처럼 이른바 키클롭스들이 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케나이인들은 식량이 떨어져 도시를 떠나야만 했다. 일부는 클레오나이로 갔으나, 주민의 절반이 넘는 이들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에게 피신했다. 그는 고브리아스의 아들 마르도니오스가 아테나이인들에게 전할 말을 맡겼던 그 알렉산드로스였다. 나머지 주민들은 케리네이아로 왔다. 미케나이인들이 합류하면서 인구가 늘어난 케리네이아는 더 강해졌고, 그 뒤로 명성도 높아졌다.

**[7.25.7]** 케리네이아에는 에우메니데스의 성소가 있다. 오레스테스가 세웠다고 한다. 사람을 죽인 죄가 있거나 다른 부정을 탔거나 신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구경할 마음으로 들어가면, 곧바로 공포에 질려 미쳐 버린다고 한다. 이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신상들은 나무로 만들었으며 그리 크지 않다. 성소 입구에는 돌로 만든 여인상들이 있는데 솜씨가 뛰어나다. 이 여인들은 예전에 에우메니데스의 여사제로 일한 사람들의 모습을 본뜬 것이라고 주민들은 말했다.

**[7.25.8]** 케리네이아에서 큰길로 돌아와 조금 가면 다시 부라로 접어들 수 있다. 부라 역시 바다를 오른쪽으로 돌아 산 위에 자리 잡은 도시다. 크수토스의 아들 이온과 헬리케 사이에서 태어난 딸 부라의 이름을 따서 도시에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신이 헬리케를 사람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했을 때 부라도 심한 지진을 겪었고, 성소의 오래된 신상들조차 하나도 남지 않았다.

**[7.25.9]** 부라인들 가운데 살아남은 이들은 군 복무나 다른 사정으로 마침 그곳을 떠나 있던 사람들뿐이었다. 그들이 두 번째로 부라를 세웠다. 여기에는 데메테르의 신전과 아프로디테와 디오니소스를 함께 모신 신전과 에일레이티이아의 신전이 있다. 신상들은 펜텔리콘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아테나이인 에우클레이데스의 작품이다. 데메테르의 상에는 옷을 입혀 놓았다. 이시스의 성소도 있다.

**[7.25.10]** 부라에서 바다 쪽으로 내려가면 부라이코스라는 강이 나오고, 동굴에는 작은 헤라클레스 상이 있다. 그 헤라클레스 역시 부라이코스라 불린다. 여기서는 판과 주사위로 점을 칠 수 있다. 신에게 묻는 사람은 신상 앞에서 기도한 다음 헤라클레스 곁에 많이 놓인

주사위 가운데 네 개를 집어 탁자 위에 던진다. 주사위가 이루는 모양마다 그 뜻이 판에 따로 적혀 있다.

**[7.25.11]** 헬리케에서 헤라클레스 상까지 곧장 가는 길은 약 30스타디온이다. 헤라클레스 상을 지나 더 가면 아르카디아의 산에서 흘러내리는 강의 하구에 이른다. 이 강은 마르는 일이 없다. 강의 이름은 크라티스이며, 강이 발원하는 산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탈리아의 크로톤 곁을 흐르는 강도 이 크라티스에서 이름을 얻었다.

**[7.25.12]** 아카이아의 크라티스강 곁에는 한때 아카이아의 도시 아이가이가 있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주민들의 힘이 약해지자 도시를 버렸다고 한다. 호메로스는 헤라의 말에서 이 아이가이를 언급한다.

> 사람들은 헬리케와 아이가이로 그대에게 선물을 가져갑니다.

이 말에서 포세이돈이 헬리케와 아이가이에서 똑같이 숭배받았음을 알 수 있다.

**[7.25.13]** 크라티스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길 오른쪽에 무덤이 하나 있다. 묘석에는 말 옆에 서 있는 남자가 그려져 있는데, 그림의 빛깔은 바랬다. 무덤에서 약 30스타디온 가면 가이온이라 부르는 곳이 나온다. '가슴이 넓은 이'라는 뜻의 에우리스트레르논이라는 이름으로 대지의 여신을 모신 성소다. 그곳의 목상은 가장 오래된 것들 가운데 하나다. 여사제로 뽑힌 여인은 그때부터 정절을 지켜야 하고, 뽑히기 전에도 남자 한 사람을 넘겨 관계한 적이 없어야 한다. 수소의 피를 마시는 것이 이를 가리는 시험이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여인은 이 시험으로 즉시 벌을 받는다고 한다. 여러 여인이 여사제직을 놓고 겨루면 제비를 뽑아 정한다. periegesis.abm.uu.se

## 제26장

**[7.26.1]** 부라로 가는 길에 있는 헤라클레스 상에서 아이게이라 항구까지는 72스타디온이다. 항구의 이름은 도시와 같다. 아이게이라의 해안 마을에는 기록할 만한 것이 없다. 항구에서 윗도시까지는 12스타디온이다.

**[7.26.2]** 호메로스는 시에서 이 도시를 히페레시아라고 부른다. 지금의 이름을 얻은 것은 이오니아인들이 아직 그곳에 살 때였다. 이름을 바꾼 까닭은 이러하다. 시키온의 적군이 그들의 땅으로 쳐들어오려 했다. 시키온군과 맞서 싸울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한 그들은 온 지방의 염소들을 모아 뿔에 횃불을 매어 놓고, 밤이 깊었을 때 불을 붙였다.

**[7.26.3]** 시키온인들은 히페레시아인들을 돕는 동맹군이 와서 불을 피우는 것으로 여겨 돌아갔다. 히페레시아인들은 염소들을 뜻하는 아이게스에서 따와 도시에 지금의 이름인 아이게이라를 붙였다. 염소 떼를 이끈 가장 아름다운 염소가 웅크려 앉은 자리에 사냥의 여신 아그로테라 아르테미스의 성소를 세웠다. 시키온인들을 속인 꾀를 아르테미스가 일러 주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7.26.4]** 그러나 아이게이라라는 이름이 곧바로 히페레시아를 대신한 것은 아니었다. 내가 살던 때에도 에우보이아의 오레우스를 옛 이름인 헤스티아이아로 부르는 사람이 있었던 것과 같다. 아이게이라에서 기록할 만한 구경거리로는 제우스의 성소가 있다. 그곳에는 펜텔

리콘 대리석으로 만든 제우스 좌상이 있는데, 아테나이인 에우클레이데스의 작품이다. 이 성소에는 아테나의 입상도 있다. 얼굴과 손과 발은 상아이고 나머지는 나무이며, 금박을 입히고 채색하여 꾸몄다.

**[7.26.5]** 아르테미스의 신전도 있으며, 신상은 근래의 양식으로 만들었다. 여사제는 처녀가 맡으며 혼인할 나이가 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그곳에는 오래된 신상도 하나 서 있다. 아이게이라인들은 그 상이 아가멤논의 딸 이피게네이아라고 한다. 그 말이 맞는다면 신전은 처음에 이피게네이아를 위해 세운 것이 분명하다.

**[7.26.6]** 아폴론의 성소도 있다. 성소 자체와 박공의 조각은 매우 오래되었다. 신의 목상 역시 오래되었는데, 나체의 거상이다. 주민 가운데 누가 만들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시키온의 헤라클레스 상을 본 사람이라면 아이게이라의 아폴론 상도 같은 장인인 플리우스 사람 라파에스의 작품이라고 짐작할 만하다.

**[7.26.7]** 한 신전에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입상들이 있고, 다른 곳에는 세라피스와 이시스의 상이 있다. 이 상들도 펜텔리콘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하늘의 여신을 지극히 정성스럽게 숭배하지만, 그 성소에는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시리아의 여신’이라 부르는 여신의 성소에는 정해진 날에 들어간다. 그 전에 관습에 따른 정결 의례를 거쳐야 하며, 특히 먹는 음식에서 규정을 지켜야 한다.

**[7.26.8]** 아이게이라에서 본 건물 하나가 기억난다. 그 안에는 아말테이아의 뿔을 든 행운의 여신 티케의 상이 있었다. 곁에는 날개 달린 에로스가 있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일에서도 사람에게는 아름다움보다 행운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뜻이다. 나는 핀다로스의 노래에 대체로 동의하며, 특히 그가 티케를 운명의 여신 모이라이 가운데 하나로, 또 자매들보다 강한 여신으로 삼은 데 동의한다.

**[7.26.9]** 아이게이라의 이 건물에는 슬퍼하는 자세의 노인, 팔찌를 벗는 여자 셋, 소년 셋, 그리고 가슴받이를 입은 남자의 상도 있다. 마지막 남자는 아카이아인들이 치른 전쟁에서 아이게이라의 어느 병사보다도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었다고 한다. 살아남은 형제들이 그의 죽음을 집에 알렸다. 그래서 그의 자매들은 그를 애도하여 장신구를 벗고 있다. 주민들은 아버지를 심파테스라 부른다. 상으로 보아도 슬픔에 잠긴 모습이 가엾기 때문이다.

**[7.26.10]** 아이게이라의 제우스 성소에서 산을 가로질러 곧장 가는 가파른 길이 있다. 길이는 40스타디온이며, 펠로에라는 이름 없는 마을에 이른다. 이오니아인들이 아직 그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도 그곳에는 사람이 살다가 떠나곤 했다. 펠로에 일대는 포도나무를 키우기에 좋다. 바위가 많은 곳에는 참나무가 덮여 있으며 사슴과 멧돼지가 산다.

**[7.26.11]** 펠로에는 그리스에서 흐르는 물이 가장 넉넉한 마을 가운데 하나로 꼽을 만하다. 디오니소스와 아르테미스의 성소가 있다. 여신상은 청동으로 만들었고 화살통에서 화살을 꺼내는 모습이다. 디오니소스의 상은 주홍으로 칠했다. 아이게이라에서 항구로 내려가 길을 더 걸으면 오른쪽에 아그로테라의 성소가 보인다. 사람들이 염소가 웅크려 앉았다고 하는 자리다.

**[7.26.12]** 아이게이라 땅은 펠레네 땅과 맞닿는다. 펠레네는 시키온과 아르골리스 쪽에서 아카이아의 맨 끝 도시다. 펠레네인들은 도시 이름이 팔라스에게서 왔다고 한다. 그들의 말

로는 그가 티탄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아르고스인들은 그 이름이 아르고스 사람 펠렌에게서 왔다고 생각한다. 펠렌은 트리오파스의 손자이자 포르바스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7.26.13]** 아이게이라와 펠레네 사이에는 한때 도누사라는 마을이 있었다. 시키온인들의 지배 아래 있다가 그들에게 파괴되었다. 아가멤논을 따라간 사람들을 열거하는 호메로스의 시구에 이곳이 나온다고 한다.

> 히페레시아 사람들과 가파른 도노에사의 사람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구전되던 호메로스의 시들을 모았을 때, 그나 그를 도운 사람 가운데 하나가 그 지명을 잘 몰라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 그들의 말이다.

**[7.26.14]** 펠레네의 항구는 아리스토나우타이다. 바닷가의 아이게이라에서 그곳까지는 120스타디온이고, 그 항구에서 펠레네까지는 그 절반이다. 아르고호의 선원들이 배를 들인 항구 가운데 하나였으므로 아리스토나우타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periegesis.abm.uu.se

## 제27장

**[7.27.1]** 펠레네는 꼭대기가 뾰족하게 솟은 언덕에 자리 잡았다. 꼭대기는 가파르므로 사람이 살지 않고, 아래쪽 비탈에 도시를 세웠다. 도시는 한 덩어리로 이어져 있지 않고 사이로 솟은 봉우리에 가로막혀 둘로 나뉜다. 펠레네로 가는 길가에는 헤르메스의 상이 있다. 그는 '꾀 많은 이'라는 뜻의 돌리오스라는 별칭을 지녔으면서도 사람들의 기도를 선뜻 들어준다. 신상은 네모난 모양에 수염이 있고, 머리에는 모자를 조각해 놓았다.

**[7.27.2]** 도시로 가는 길에서 도시에 바싹 다가가면 아테나의 신전이 있다. 신전은 그 고장의 돌로 지었으나, 신상은 상아와 금으로 만들었다. 페이디아스가 아테나이 아크로폴리스와 플라타이아이의 아테나상들을 만들기 전에 이 상을 만들었다고 한다. 펠레네인들은 아테나의 작은 성소가 땅속 깊이 들어가 있으며, 신상의 받침대 밑에 그 성소가 있다고도 말한다. 그 성소에서 올라오는 공기는 습하므로 상아를 보존하는 데 좋다고 한다.

**[7.27.3]** 아테나의 신전 위쪽에는 담으로 둘러싼 아르테미스의 숲이 있다. 여신의 별칭은 '구원자'이며, 이곳 사람들은 가장 엄숙한 맹세를 할 때 이 여신을 증인으로 삼는다. 사제들만 이 숲에 들어갈 수 있다. 사제들은 현지인 가운데 주로 가문의 고귀함을 보아 뽑는다. 구원자 여신의 숲 맞은편에는 '횃불'이라는 뜻의 람프테르라는 별칭을 지닌 디오니소스의 성소가 있다. 그를 기려 횃불 축제를 열 때에는 밤에 불붙인 횃불을 성소로 들이고, 온 도시에 포도주를 담은 큰 그릇들을 차려 놓는다.

**[7.27.4]** 펠레네에는 나그네를 맞는 테옥세니오스 아폴론의 성소도 있다. 그 신상은 청동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아폴론을 기려 테옥세니아라는 경기를 연다. 우승 상품은 돈이고, 경기에 나서는 이들은 그 고장 사람들이다. 아폴론의 성소 가까운 곳에는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있다. 여신은 활을 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아고라에는 저수조를 만들어 두었다. 목욕에는 빗물을 쓰며, 마시는 물은 도시 아래쪽의 몇 안 되는 샘에서 얻는다. 샘들이 있는 곳을 '물이 단 샘'이라는 뜻에서 글리케이아이라 부른다.

**[7.27.5]** 오래된 김나시온이 하나 있는데, 주로 청소년들이 몸을 단련하는 곳이다. 누구든 청소년 명부에 오른 적이 있어야 시민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이곳에는 펠레네인 드리온의 아들 프로마코스의 상이 서 있다. 그는 판크라티온에서 올림피아 한 번, 이스트모스 세 번, 네메아 두 번 우승했다. 펠레네인들은 그의 상을 두 점 만들어 하나는 올림피아에, 다른 하나는 김나시온에 봉헌했다. 김나시온의 것은 청동이 아닌 돌로 만들었다.

**[7.27.6]** 코린토스와 펠레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프로마코스가 수많은 적을 죽였다고 한다. 또 올림피아에서 스코투사의 폴리다마스를 이겼다고 한다. 폴리다마스가 페르시아 왕에게 갔다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와 두 번째로 올림피아 경기에 나섰을 때의 일이다. 그러나 테살리아인들은 폴리다마스가 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이 내놓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폴리다마스에 관한 다음 시구다.

> 스코토에사여, 패배를 모르는 폴리다마스를 길러 낸 땅이여.

**[7.27.7]** 어느 쪽이든 펠레네인들은 프로마코스를 매우 높이 기린다. 그러나 이스트모스 경기에서 레슬링으로 두 번, 올림피아 경기에서 네 번 우승한 카이론은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는다. 내 생각에 그는 펠레네의 정체를 무너뜨리고,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에게서 온갖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원한을 사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바로 자기 조국의 참주가 되는 것이었다.

**[7.27.8]** 펠레네에는 에일레이티이아의 성소도 있다. 도시의 두 구역 가운데 작은 쪽에 있다. 포세이디온이라 불리는 곳은 옛날에는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 이 포세이디온은 김나시온 아래에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포세이돈에게 속한 성역으로 여겨진다.

**[7.27.9]** 펠레네에서 약 60스타디온 떨어진 곳에는 미시아의 데메테르를 모신 성소 미사이온이 있다. 아르고스 사람 미시오스가 이를 세웠다고 한다. 아르고스의 전승에서 그는 데메테르를 집에 맞아들인 사람이다. 미사이온에는 온갖 나무가 자라는 숲이 있고, 그 안에서는 여러 샘이 풍부하게 솟아난다. 이곳에서도 데메테르를 기려 이레 동안 축제를 연다.

**[7.27.10]** 축제 사흘째에는 남자들이 성소에서 물러난다. 여자들은 그날 밤 남아서 관습이 정한 의례를 거행한다. 남자들은 물론 수컷 개도 들어오지 못한다. 다음 날에는 남자들이 성소로 오며, 남녀가 서로 번갈아 웃고 놀려 댄다.

**[7.27.11]** 미사이온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키로스라고 부르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소가 있다. 이곳에서는 신이 병자들을 고쳐 준다. 여기에도 물이 풍부하며, 가장 큰 샘가에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이 서 있다. 펠레네 위쪽 산들에서는 여러 강이 흘러내린다. 아이게이라에 가장 가까운 쪽을 흐르는 강은 크리오스라 부르는데, 같은 이름의 티탄에게서 따왔다고 한다.

**[7.27.12]** 크리오스라 불리는 다른 강도 있다. 시필로스산에서 발원하여 헤르모스강으로 흘러든다. 펠레네 땅이 시키온 땅과 맞닿는 곳에는 펠레네의 시타스강이 있다. 이 강은 아카이아의 마지막 강이며, 시키온 앞바다로 들어간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8권 아르카디아

## 제1장

**[8.1.1]** 아르카디아 가운데 아르고스 땅에 인접한 지역에는 테게아인들과 만티네이아인들이 산다. 그들은 다른 아르카디아인들과 함께 펠로폰네소스의 내륙을 차지하고 있다. 반도에 들어서면 맨 먼저 지협에 사는 코린토스인들을 만나며, 바다 쪽으로 그들의 이웃은 에피다우로스인들이다. 에피다우로스와 트로이젠과 헤르미온을 따라가면 아르골리스만과 아르골리스의 해안이 이어진다. 아르골리스 다음에는 라케다이몬에 예속된 사람들이 살며, 그들의 땅은 메세니아와 맞닿는다. 메세니아는 모토네와 필로스와 키파리시아이에 이르러 바다에 닿는다.

**[8.1.2]** 레카이온 쪽으로 코린토스인들과 접한 사람들은 시키온인들이다. 그들은 이쪽 아르골리스의 맨 끝에 산다. 시키온 다음에는 해안을 따라 아카이아인들이 산다. 펠로폰네소스의 다른 끝, 에키나데스 제도 맞은편에는 엘리스인들이 산다. 엘리스 땅은 올림피아와 알페이오스강 하구 쪽으로는 메세니아와 접하고, 아카이아 쪽으로는 디메 땅에 닿는다.

**[8.1.3]** 지금까지 말한 땅들은 바다까지 뻗어 있다. 아르카디아인들은 사방이 바다와 막힌 내륙에 산다. 이 때문에 호메로스에 따르면 아르카디아인들은 트로이로 갈 때 자기 배가 아니라 아가멤논이 빌려 준 배를 타고 갔다.

**[8.1.4]** 아르카디아인들은 이 땅에 처음 산 사람이 펠라스고스라고 한다. 펠라스고스가 혼자였기보다는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다스릴 백성이 없는 왕이었을 것이다. 펠라스고스는 키와 용맹에서, 또 아름다움과 지혜에서 동료들보다 뛰어났다. 내 생각에 그 때문에 동료들이 그를 왕으로 뽑았다. 시인 아시오스는 그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 숲으로 덮인 산에서 검은 대지가 신과 같은 펠라스고스를 내보냈네.
> 죽을 운명의 인간 종족이 생겨나도록.

**[8.1.5]** 펠라스고스는 왕이 된 뒤 오두막을 고안하여 사람들이 추위에 떨거나 비에 젖거나 더위에 시달리지 않게 했다. 또 양가죽 옷을 처음 생각해 낸 것도 그였다. 에우보이아와 포키스의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도 입는 그런 옷이다. 사람들이 푸른 잎과 풀을 먹거나, 먹을 수 없고 더러는 독이 있는 뿌리를 먹는 버릇을 그만두게 한 사람도 그였다.

**[8.1.6]** 그는 사람들이 나무 열매를 먹도록 가르쳤다. 온갖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참나무의 도토리만을 먹게 했다. 펠라스고스 때부터 이 음식을 줄곧 먹어 온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피티아 여사제는 라케다이몬인들에게 아르카디아인들의 땅을 건드리지 말라며 이렇게 말했다.

> 아르카디아에는 도토리를 먹는 사람이 많아
> 너희를 막으리라. 내가 그 땅을 아까워하는 것은 아니니라.

펠라스고스가 다스릴 때 이 땅을 펠라스기아라고 불렀다고 한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장

**[8.2.1]** 펠라스고스의 아들 리카온은 아버지의 고안보다 더 영리한 일들을 생각해 냈다. 리카이온산에 리코수라를 세웠고, 제우스에게 리카이오스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리카이아 경기를 창설했다. 내 생각에는 판아테나이아 축제가 리카이아보다 먼저 생기지 않았다. 이 축제의 옛 이름은 아테나이아였다. 테세우스 시대에 아테나이인 전체가 한 도시에 모인 뒤 함께 열게 되었으므로 이름이 판아테나이아로 바뀌었다.

**[8.2.2]** 올림피아 경기는 여기서는 빼 두겠다. 인간 종족이 생기기 전까지 그 유래를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기 때문이다. 크로노스와 제우스가 거기서 레슬링을 했고, 쿠레테스가 올림피아에서 처음으로 달리기 경주를 했다고 전한다. 내 생각에 리카온은 아테나이의 왕 케크롭스와 같은 시대 사람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신을 섬기는 문제에서 같은 지혜를 보이지 않았다.

**[8.2.3]** 케크롭스는 처음으로 제우스를 '가장 높은 이'라는 뜻의 히파토스라 불렀다. 그는 생명 있는 것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삼가고, 대신 아테나이인들이 지금도 펠라노이라고 부르는 그 고장의 제사용 과자를 제단 위에서 태웠다. 리카온은 어린아기를 리카이오스 제우스의 제단에 데려와 제물로 바치고, 아이의 피를 제단에 쏟았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제사를 지낸 직후 사람에서 늑대, 곧 **리코스**로 변했다.

**[8.2.4]** 나는 이 이야기를 믿는다. 오래전부터 아르카디아인들 사이에 전해졌으며, 그럴 법하다는 이유도 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올바르고 경건했으므로 신들의 손님으로서 한 상에서 음식을 나누었다. 선한 사람은 신들에게서 공공연히 영예를 받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공공연히 신들의 분노를 샀다. 그때는 사람이 신으로 바뀌기도 했으며, 그렇게 된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영예를 누린다. 아리스타이오스, 크레타의 브리토마르티스, 알크메네의 아들 헤라클레스, 오이클레스의 아들 암피아라오스, 그리고 폴리데우케스와 카스토르가 그런 이들이다.

**[8.2.5]** 그런 까닭에 리카온이 짐승이 되고 탄탈로스의 딸 니오베가 돌이 되었다고 믿을 만하다. 그러나 지금은 악행이 극에 이르러 모든 땅과 도시에 퍼졌다. 사람이 신이 되는 일은 권력자에게 바치는 아첨의 말에서나 일어난다. 죄인들에 대한 신들의 분노도 그들이 저승으로 간 뒤에야 드러난다.

**[8.2.6]** 예부터 실제로 일어난 일 위에 거짓을 보탠 탓에, 옛일 가운데 많은 것이 믿음을 잃었고 오늘날 일어나는 일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다. 이를테면 리카온 때부터 리카이오스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낼 때 한 사람이 늑대로 변한다고 한다. 다만 평생 그렇게 지내는 것은 아니어서, 늑대인 동안 사람의 살을 먹지 않으면 아홉 해 뒤에 다시 사람이 되지만, 사람의 살을 맛보면 영원히 짐승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8.2.7]** 그와 같이 시필로스산의 니오베가 여름이면 눈물을 흘린다고도 한다. 그리핀은 표범처럼 반점이 있으며 트리톤들은 사람의 목소리로 말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다른 이들은

트리톤이 구멍 뚫린 조개껍데기를 분다고 한다. 기이한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기이한 것을 덧붙이기 일쑤다. 그렇게 참된 것에 거짓을 섞어 진실을 망친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3장

**[8.3.1]** 펠라스고스 뒤 세 번째 세대에 그 땅은 도시도 많아지고 주민도 늘었다. 리카온의 맏아들 닉티모스는 왕권을 모두 이어받았고, 나머지 아들들은 각자가 가장 좋다고 여기는 자리에 도시를 세웠다. 팔라스가 팔란티온을, 오레스테우스가 오레스타시온을, 피갈로스가 피갈리아를 세웠다.

**[8.3.2]** 히메라의 스테시코로스는 『게리온 이야기』에서 팔란티온을 언급했다. 피갈리아와 오레스타시온은 시간이 지나 이름이 바뀌었다. 오레스타시온은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에게서 이름을 따 오레스테이온이 되었고, 피갈리아는 부콜리온의 아들 피알로스에게서 이름을 따 피알리아가 되었다. 트라페제우스, 다세아타스, 마카레우스, 헬리손, 아카코스, 토크노스도 도시를 세웠다. 토크노스는 토크니아를, 아카코스는 아카케시온을 세웠다. 아르카디아인들은 호메로스가 이 아카코스에게서 헤르메스의 별칭을 지었다고 한다.

**[8.3.3]** 헬리손이라는 도시와 강은 모두 헬리손에게서 이름을 얻었다. 마카리아, 다세아, 트라페주스도 리카온의 아들들에게서 이름을 따온 도시들이다. 오르코메노스는 메티드리온이라 부르는 도시와 호메로스가 '양 떼가 많은 곳'이라 한 오르코메노스를 세웠다. 힙수스와 〔…〕는 멜라이네아이와 힙수스, 그리고 티라이온과 하이모니아이를 세웠다. 아르카디아인들은 아르골리스의 티레아와 이른바 티레아테스만도 이 티라이오스의 이름을 땄다고 여긴다.

**[8.3.4]** 마이날로스는 옛날 아르카디아의 도시들 가운데 가장 이름난 마이날로스를 세웠다. 테게아테스는 테게아를, 만티네우스는 만티네이아를 세웠다. 크로모이의 이름은 크로모스에게서, 카리시아는 창건자 카리시오스에게서, 트리콜로노이는 트리콜로노스에게서, 페라이테이스는 페라이토스에게서, 아세아는 아세아타스에게서, 리코아는 리케우스에게서, 수마티아는 수마테우스에게서 따왔다. 알리페로스와 헤라이오스도 각각 도시에 자기 이름을 남겼다.

**[8.3.5]** 그런데 리카온의 막내아들 오이노트로스는 형 닉티모스에게 돈과 사람을 요청하여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건너갔다. 오이노트리아 땅은 그곳의 왕이 된 오이노트로스에게서 이름을 얻었다. 이것이 그리스에서 식민지를 세우기 위해 보낸 첫 원정이었다. 가능한 한 세밀하게 따져 보면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도 오이노트로스보다 먼저 다른 땅으로 옮겨 가 정착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8.3.6]** 리카온에게는 이 많은 아들 외에 칼리스토라는 딸도 있었다. 그리스인들 사이에 널리 전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면, 제우스가 이 칼리스토를 사랑하여 관계를 맺었다. 헤라가 그 일을 알아내어 칼리스토를 곰으로 바꾸었고, 아르테미스는 헤라의 마음에 들려고 그 곰을 활로 쏘았다. 제우스는 칼리스토가 배고 있던 아이를 구하도록 헤르메스를 보냈다.

**[8.3.7]** 제우스는 칼리스토 자신을 큰곰자리라 부르는 별자리로 바꾸었다. 호메로스는 오디세우스가 칼립소를 떠나 돌아가는 항해에서 그 별자리를 언급한다.

> 플레이아데스와 늦게 지는 목동자리를 바라보고,
> 사람들이 수레라고도 부르는 곰자리를 바라보며.

다만 별자리는 칼리스토를 기리기 위해 그 이름을 얻었을 뿐일 수도 있다. 아르카디아인들이 그녀의 무덤을 가리켜 보이기 때문이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4장

**[8.4.1]** 닉티모스가 죽자 칼리스토의 아들 아르카스가 왕위를 이었다. 그는 트립톨레모스에게서 배운 재배 곡식을 들여왔고, 빵을 만드는 법과 옷감을 짜는 법 등을 가르쳤다. 실을 잣는 기술은 드리스타스에게 배웠다. 이 왕의 이름을 따서 땅은 펠라스기아에서 아르카디아로, 주민들은 펠라스고이에서 아르카디아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8.4.2]** 전설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죽을 운명의 여자가 아니라 드리아스 님프였다. 사람들은 님프를 드리아데스라 부르기도 하고, 에피멜리아데스 또는 나이아데스라 부르기도 했다. 호메로스는 시에서 주로 나이아데스 님프를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이 님프를 에라토라 부른다. 아르카스는 그녀에게서 아잔과 아페이다스와 엘라토스를 얻었다고 한다. 그전에는 혼인 밖에서 얻은 아들 아우톨라오스가 있었다.

**[8.4.3]** 아들들이 자라자 아르카스는 땅을 세 몫으로 나누어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중 한 지역은 아잔의 이름을 따서 아자니아라 불렸다. 프리기아에서 스테우노스라는 동굴과 펜칼라스강 일대에 사는 이들은 아자니아에서 건너가 정착한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한다. 아페이다스에게는 테게아와 그 주변 땅이 돌아갔다. 이 때문에 시인들은 테게아를 ‘아페이다스에게 돌아간 몫’이라고도 부른다.

**[8.4.4]** 엘라토스에게는 킬레네산이 돌아갔다. 그때까지 그 산에는 이름이 없었다. 그 뒤 엘라토스는 오늘날 포키스라 하는 땅으로 옮겨 갔다. 플레기아스인들과 싸우느라 곤경에 빠진 포키스인들을 도왔으며, 엘라테이아를 세웠다. 아잔에게는 클레이토르라는 아들이, 아페이다스에게는 알레우스라는 아들이 있었다고 한다. 엘라토스에게는 아이피토스, 페레우스, 킬렌, 이스키스, 스팀팔로스 다섯 아들이 있었다고 한다.

**[8.4.5]** 아르카스의 아들 아잔이 죽었을 때 처음으로 경기가 열렸다. 말 경주가 열렸음은 분명하나 다른 경기도 열렸는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 아잔의 아들 클레이토르는 리코수라에 살았으며 왕들 가운데 가장 세력이 컸다. 그는 클레이토르를 세워 자기 이름을 붙였다. 알레우스는 아버지에게 돌아갔던 몫을 다스렸다.

**[8.4.6]** 엘라토스의 아들 가운데 킬렌은 킬레네산에 자기 이름을 남겼고, 스팀팔로스는 샘과 그 샘 가까이에 있는 도시 스팀팔로스에 자기 이름을 남겼다. 엘라토스의 아들 이스키스의 죽음에 관해서는 아르골리스를 다루면서 이미 이야기했다. 페레우스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네아이라라는 딸만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파르나소스산에 사는 아우톨리코스와 결혼

했다. 아우톨리코스는 헤르메스의 아들로 알려졌으나 그의 실제 아버지는 다이달리온이었다.

**[8.4.7]** 아잔의 아들 클레이토르에게 자식이 없었으므로 아르카디아의 왕권은 엘라토스의 아들 아이피토스에게 돌아갔다. 아이피토스는 사냥을 나갔다가 죽었다. 큰 짐승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미처 보지 못한 셉스라는 뱀에 물린 것이었다. 나는 이 뱀을 직접 본 적이 있다. 가장 작은 종류의 살무사와 비슷하며, 잿빛 바탕에 반점이 여기저기 나 있다. 머리는 넓고 목은 가늘며, 배는 크고 꼬리는 짧다. 케라스테스, 곧 '뿔 달린 뱀'이라 부르는 다른 뱀과 마찬가지로 이 뱀은 게처럼 옆으로 움직인다.

**[8.4.8]** 아이피토스 뒤에는 알레우스가 왕위에 올랐다. 스팀팔로스의 아들 아가메데스와 고르티스는 아르카스에서 세 세대 아래였고, 아페이다스의 아들 알레우스는 두 세대 아래였기 때문이다. 알레우스는 테게아에 알레아 아테나의 옛 성소를 지었으며, 테게아를 왕국의 수도로 삼았다. 스팀팔로스의 아들 고르티스는 자기 이름을 붙인 강가에 도시 고르티스를 세웠다. 알레우스의 아들들은 리쿠르고스와 암피다마스와 케페우스였으며, 아우게라는 딸도 있었다.

**[8.4.9]** 헤카타이오스에 따르면 헤라클레스가 테게아에 올 때면 이 아우게와 관계를 맺었다. 마침내 아우게가 헤라클레스의 아이를 낳은 사실이 드러났다. 알레우스는 그녀를 갓난 아들과 함께 상자에 넣어 바다로 떠나보냈다. 그녀는 카이코스 평원의 지배자 테우트라스에게 이르렀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어 아내로 맞았다. 아우게의 무덤은 지금도 카이코스강 위쪽 페르가몬에 있다. 돌로 기단을 둘러 놓은 흙무덤이며, 꼭대기에는 나체 여인의 청동상이 있다.

**[8.4.10]** 알레우스가 죽자 맏아들인 리쿠르고스가 왕위를 얻었다. 그는 아레이토오스라는 무사를 정정당당하게 싸워 죽이지 않고 속임수로 죽인 일로 악명이 높다. 그의 두 아들은 안카이오스와 에포코스였다. 에포코스는 병들어 죽었고, 안카이오스는 이아손을 따라 콜키스로 원정을 갔다. 그는 나중에 멜레아그로스와 함께 칼리돈의 멧돼지를 사냥하다가 그 멧돼지에게 죽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5장

**[8.5.1]** 이리하여 리쿠르고스는 두 아들보다 오래 살았고, 아주 늙어서 죽었다. 그가 죽자 아르카디아의 왕위는 에케모스에게 돌아갔다. 에케모스의 아버지는 아에로포스, 할아버지는 케페우스, 증조부는 알레우스였다. 에케모스가 다스릴 때 도리아인들은 헤라클레스의 아들 힐로스를 앞세워 펠로폰네소스로 돌아오려 했으나, 코린토스 지협에서 아카이아인들에게 패했다. 힐로스가 에케모스에게 일대일로 싸우자고 도전했고, 에케모스는 그를 죽였다. 이 이야기가 내가 앞서 쓴 이야기보다 더 그럴듯하다고 생각한다. 앞에서는 그때 아카이아인들의 왕이 오레스테스였으며, 힐로스가 오레스테스의 재위 중에 펠로폰네소스로 돌아오려 했다고 썼다. 지금 이야기한 쪽을 따르면, 틴다레오스의 딸 티만드라는 힐로스를 죽인 에케모스와 혼인한 셈이다. periegesis.abm.uu.se

**[8.5.2]** 에케모스 뒤에 왕이 된 아가페노르는 리쿠르고스의 손자이자 안카이오스의 아들이었다. 그는 아르카디아인들을 이끌고 트로이로 갔다. 트로이가 함락된 뒤 그리스인들이 귀향하는 길에 폭풍이 닥쳐 아가페노르와 아르카디아 함대는 키프로스로 밀려갔다. 그리하여 아가페노르는 파포스를 세우고, 옛 파포스인 팔라이파포스에 아프로디테의 성소를 마련했다. 그때까지 키프로스인들은 골고이라는 곳에서 여신을 숭배했다.

**[8.5.3]** 후일 아가페노르의 후손 라오디케는 테게아의 알레아 아테나에게 페플로스 한 벌을 보냈다. 봉헌물에 적힌 글에는 라오디케의 혈통도 드러나 있다.

> 이 페플로스는 라오디케의 것. 그는 자기의 아테나에게 바치려고
> 신성한 키프로스에서 드넓은 조국으로 이것을 보냈다.

**[8.5.4]** 아가페노르가 트로이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자 왕위는 힙포토오스에게 돌아갔다. 그의 아버지는 케르키온, 할아버지는 아가메데스, 증조부는 스팀팔로스였다. 그의 생애에 관해 특별히 전해지는 일은 테게아에서 트라페주스로 왕국의 수도를 옮긴 것뿐이다. 힙포토오스의 아들 아이피토스가 아버지의 왕위를 이었다.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는 델포이 아폴론의 신탁에 따라 미케나이에서 아르카디아로 거처를 옮겼다.

**[8.5.5]** 힙포토오스의 아들 아이피토스는 만티네이아의 포세이돈 성소에 감히 들어갔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인간은 아무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는 들어가자 눈이 멀었고, 이 재앙을 당한 지 얼마 안 되어 죽었다.

**[8.5.6]** 아이피토스의 뒤를 이어 아들 킵셀로스가 왕이 되었다. 그가 다스릴 때 도리아인들의 원정군이 펠로폰네소스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세 세대 전처럼 코린토스 지협을 건너지 않고 바다를 건너 리온이라는 곳에 닿았다. 원정 소식을 들은 킵셀로스는 아리스토마코스의 아들 크레스폰테스에게 아직 아내가 없음을 알고 자기 딸을 그에게 시집보냈다. 이렇게 크레스폰테스를 자기편으로 만들었으므로 킵셀로스와 아르카디아인들은 걱정할 일이 없었다.

**[8.5.7]** 킵셀로스의 아들은 홀라이아스였다. 그는 라케다이몬과 아르고스의 헤라클레스 후손들의 도움을 받아, 누이의 아들 아이피토스를 메세네로 돌아가게 했다. 홀라이아스에게는 부콜리온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부콜리온의 아들은 피알로스였다. 피알로스는 피갈리아를 창건한 리카온의 아들 피갈로스에게서 도시 이름을 남긴 영예를 빼앗았다. 그는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피알리아로 바꾸었으나, 누구나 그 이름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8.5.8]** 피알로스의 아들 시모스가 다스릴 때 피갈리아인들의 검은 데메테르의 오래된 목상이 불에 타 없어졌다. 이는 시모스 자신도 머지않아 생을 마치리라는 징조였다. 시모스의 아들 폼포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가 다스릴 때 아이기나인들은 교역을 위해 배를 타고 킬레네까지 와서, 그곳부터는 짐승 등에 화물을 실어 내륙의 아르카디아인들에게 가져갔다. 폼포스는 그 보답으로 아이기나인들을 크게 예우했고, 그들과의 우호를 기려 자기 아들에게 아이기네테스라는 이름까지 지어 주었다.

**[8.5.9]** 아이기네테스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폴리메스토르가 아르카디아의 왕이 되었다. 카릴로스와 라케다이몬인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처음으로 테게아 땅에 쳐들어온 것은 그때였다. 테게아에서는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무기를 들고 나서 그들을 전투에서 무찔렀다.

카릴로스 자신을 포함한 군대 전체가 포로가 되었다. 카릴로스와 그의 군대에 관해서는 테게아를 다룰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8.5.10]** 폴리메스토르에게 자식이 없었으므로 아이크미스가 왕위를 이었다. 아이크미스는 폴리메스토르의 조카이자 브리아카스의 아들이었다. 브리아카스도 아이기네테스의 아들로, 폴리메스토르보다 어렸다. 아이크미스가 왕이 된 뒤 라케다이몬인들과 메세니아인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아르카디아인들은 처음부터 메세니아인들에게 호의를 품고 있었다. 이때는 메세니아 왕 아리스토데모스의 편에서 공공연히 라케다이몬인들과 싸웠다.

**[8.5.11]** 아이크미스의 아들 아리스토크라테스는 아르카디아인들에게도 횡포를 부렸을지 모른다. 그가 신들에게 저지른 지극히 불경한 일은 내가 확실히 알므로 이야기하겠다. 오르코메노스의 경계, 만티네이아 땅 가까이에 힘니아라는 별칭의 아르테미스 성소가 있다. 모든 아르카디아인은 아주 먼 옛날부터 힘니아 아르테미스를 숭배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신의 사제직은 언제나 처녀가 맡았다.

**[8.5.12]** 그 처녀는 아리스토크라테스의 요구를 줄곧 물리쳤다. 마침내 성소에 몸을 피했으나, 그는 아르테미스의 신상 곁에서 그녀를 강간했다. 이 범죄가 널리 알려지자 아르카디아인들은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리고 이후의 규정도 바꾸었다. 이제 아르테미스의 사제로는 처녀 대신 남자와 충분히 관계를 맺어 본 여인을 세운다.

**[8.5.13]** 이 사람에게는 히케타스라는 아들이 있었다. 히케타스의 아들인 두 번째 아리스토크라테스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았고, 죽음도 할아버지와 같았다. 그 역시 아르카디아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 그가 라케다이몬에서 뇌물을 받았으며, 메세니아인들이 큰 도랑에서 당한 재앙이 그의 배신 때문이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죄로 킵셀로스의 가문 전체가 왕권을 잃었다. periegesis.abm.uu.se

## 제6장

**[8.6.1]** 나는 아르카디아 왕들의 역사를 알아보는 데 많은 정성을 들였다. 앞에서 적은 계보는 아르카디아인들 자신에게서 들었다. 그들이 이룬 기억할 만한 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트로이 전쟁이다. 다음은 라케다이몬과 싸우는 메세니아인들을 도운 일이다. 그들은 페르시아인들에 맞선 플라타이아이 전투에도 참가했다.

**[8.6.2]** 아르카디아인들은 라케다이몬인들이 아테나이와 전쟁할 때 함께 싸웠고, 아게실라오스를 따라 아시아로 건너갔다. 두 경우 모두 마음이 내켜서라기보다 강요에 따른 것이었다. 그들은 라케다이몬인들을 따라 보이오티아의 레욱트라에도 갔다. 라케다이몬인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번 드러났다. 특히 라케다이몬인들이 레욱트라에서 패하자 곧 그들에게서 이탈해 테바이 편에 섰다. 카이로네이아에서 필리포스와 마케도니아인들에 맞서 싸울 때도, 뒤에 테살리아에서 안티파트로스에 맞서 싸울 때도, 아르카디아인들은 그리스 편에 참가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리스인들에게 맞서 싸우지도 않았다.

**[8.6.3]** 갈라티아인들의 위협을 테르모필라이에서 막는 일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라케다이몬인들 때문이었다고 한다. 군역을 감당할 나이의 사람들이 떠나면 그들의 땅이 황폐해질까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아카이아 연맹의 일원으로서는 다른 어느 그리스인보다 열성적이

었다. 아르카디아인 전체의 일과 별개로 각 도시가 겪은 일은 이야기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다루겠다.

**[8.6.4]** 아르고스 쪽에서는 히시아이 방면에서 파르테니오스산을 넘어 테게아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만티네이아 쪽으로는 길이 두 개 더 있다. 하나는 프리노스라 불리는 곳으로 나 있고, 하나는 '계단'이라는 뜻의 클리막스로 나 있다. 뒤의 길이 더 넓으며, 내려가는 곳에는 옛날에 계단을 깎아 놓았다. 클리막스를 넘어가면 멜랑게이아라는 곳에 이른다. 만티네이아인들이 마시는 물은 여기서 도시로 흘러내린다.

**[8.6.5]** 멜랑게이아에서 더 가면 만티네이아에서 약 7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멜리아스타이의 샘'이 있다. 멜리아스타이는 디오니소스의 비의를 거행하는 사람들이다. 샘 곁에는 디오니소스의 의례를 위한 전각과 검은 아프로디테의 성소가 있다. 여신이 그런 이름을 얻은 까닭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언제나 낮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밤에 관계하기 때문이다.

**[8.6.6]** 다른 길은 앞의 길보다 좁고 아르테미시오스산을 넘는다. 나는 이미 이 산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아르테미스의 신전과 신상이 있고 이나코스강의 발원지도 있다고 적었다. 이나코스강은 산을 넘는 길 곁을 흐르는 동안 아르고스 땅과 만티네이아 땅의 경계를 이룬다. 그러다가 길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아르골리스 안을 흐른다. 이 때문에 아이스킬로스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이나코스를 아르고스의 강이라 부른다. periegesis.abm.uu.se

## 제7장

**[8.7.1]** 아르테미시오스산을 넘어 만티네이아 땅으로 들어서면 '갈지 못하는 들판'이라는 뜻의 아르곤 페디온에 닿는다. 이름이 그곳을 잘 나타낸다. 산에서 빗물이 흘러들어 들판을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물이 땅속의 갈라진 틈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곳이 호수가 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8.7.2]** 그곳에서 사라진 물은 '소용돌이'라는 뜻의 디네에서 다시 솟는다. 디네는 아르골리스의 게네틀리온이라 불리는 곳 곁에서 바다 밑으로부터 솟아나는 민물이다. 옛날 아르고스인들은 포세이돈에게 바치려고 굴레로 꾸민 말들을 디네에 던져 넣었다. 아르골리스의 이곳 말고도 테스프로티스의 케이메리온 곁에서 분명히 민물이 바다 위로 솟는다.

**[8.7.3]** 마이안드로스강에서 끓어오르는 물은 더욱 놀랍다. 일부는 강물에 둘러싸인 바위에서 나오고, 일부는 강바닥의 진흙에서 솟는다. 에트루리아인들의 땅 디카이아르키아 앞바다에서도 물이 끓어오른다. 그곳에 인공으로 섬을 만들어 놓았으므로, 이 물은 '갈지 못하는' 들판처럼 쓰임새 없이 버려지지 않고 온탕에 쓰인다.

**[8.7.4]** 만티네이아 땅에서 아르곤이라 부르는 들판의 왼쪽에는 산이 있다. 그 위에 아민타스의 아들 필리포스가 진을 쳤던 터와 네스타네라는 마을의 폐허가 있다. 필리포스는 이 네스타네 곁에 진을 쳤다고 하며, 이곳의 샘은 지금도 왕의 이름을 따서 필리피온이라 부른다. 필리포스가 아르카디아에 온 것은 아르카디아인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다른 그리스인들에게서 떼어 놓기 위해서였다.

**[8.7.5]** 필리포스는 이전과 이후의 어느 마케도니아 왕보다 더 큰 일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그를 훌륭한 장군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신들 앞에서 한 맹세를 끊임없이 짓밟고, 걸핏하면 조약을 깨고 자기 약속을 저버리는 죄를 그만큼 많이 저지른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8.7.6]** 신의 분노가 그에게 닥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우리가 아는 한 그보다 빨리 닥친 적도 없었다. 필리포스는 마흔여섯 살에, 페르시아인들에 관해 델포이에 물었을 때 받았다는 신탁을 이루었다.

> 수소는 화관을 썼다. 끝이 다가왔다.
> 제물을 잡을 자는 준비되어 있다.

이 신탁이 가리킨 이는 페르시아인들이 아니라 필리포스 자신이었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났다.

**[8.7.7]** 필리포스가 죽자 올림피아스는 그가 아탈로스의 조카딸 클레오파트라에게서 얻은 어린 아들을 어머니와 함께 청동 솥 위로 끌고 가 불태워 죽였다. 뒤에 올림피아스는 아리다이오스도 죽였다. 신은 카산드로스의 가문까지 베어 없애려 했음이 드러났다. 카산드로스의 아들들은 필리포스의 딸 테살로니케에게서 태어났다. 테살로니케와 아리다이오스의 어머니는 모두 테살리아 여자였다. 알렉산드로스의 최후는 누구나 알고 있다.

**[8.7.8]** 필리포스가 스파르타인 글라우코스의 운명을 가슴에 새기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음 시구를 떠올렸더라면 어땠을까.

> 맹세를 지키는 사람은 후일 그 가문이 번성하리라.

그랬다면 어느 신도 알렉산드로스의 생명과 마케도니아의 패권을 그토록 가차 없이 함께 꺼뜨리지는 않았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periegesis.abm.uu.se

## 제8장

**[8.8.1]** 잠시 옆길로 샌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네스타네의 폐허를 지나면 데메테르의 신성한 성소가 있다. 만티네이아인들은 해마다 여신을 기려 축제를 연다. 네스타네 바로 아래 낮은 곳에는 아르곤 들판에 속한 지대가 있는데, ‘마이라의 춤터’라 부른다. 아르곤 들판을 가로지르는 길은 약 10스타디온이다. 들판을 건너 조금 더 가면 다른 들판으로 내려간다. 거기 큰길 곁에 ‘어린 양’이라는 뜻의 아르네 샘이 있다.

**[8.8.2]** 아르카디아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전한다. 레아는 포세이돈을 낳자 어린 양들과 함께 살도록 양 떼 가운데 그를 내려놓았다. 어린 양들이 그 샘 둘레에서 풀을 뜯었으므로 샘에도 그 이름이 붙었다. 레아는 크로노스에게 말을 낳았다고 말하고, 아이 대신 망아지를 주어 삼키게 했다고 한다. 뒤에 제우스 대신 포대기에 싼 돌을 준 것과 같다.

**[8.8.3]** 이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어리석다고 여겼다. 그러나 아르카디아에 이르러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옛날 지혜롭다고 여겨진 그리스인들은 뜻을 곧바로 말하지 않고 수수께끼에 담아 말했다. 그러므로 크로노스에 관한 이야기들도 그리스인의

지혜를 전하는 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신들에 관한 일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따르겠다.

**[8.8.4]** 이 샘에서 약 12스타디온을 더 가면 만티네이아에 이른다. 리카온의 아들 만티네우스가 처음 도시를 세운 곳은 지금과 다른 자리였음이 분명하다. 아르카디아인들은 오늘날에도 그곳을 '도시'라는 뜻의 프톨리스라 부른다. 알레우스의 손녀이자 케페우스의 딸인 안티노에는 신탁에 따라 주민들을 그곳에서 오늘날의 도시 터로 옮겼다. 그 길을 인도한 것은 뱀이었는데, 어떤 종류인지는 전하지 않는다. 오늘날 도시 곁을 흐르는 강이 '뱀'이라는 뜻의 오피스라 불리는 까닭이 이것이다.

**[8.8.5]** 호메로스의 시구를 근거로 짐작해도 좋다면, 이 뱀은 드라콘이었을 것이다. 호메로스는 함선 목록에서 그리스인들이 부상당한 필록테테스를 렘노스에 버리고 간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문 물뱀을 오피스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독수리가 트로이인들 한가운데 떨어뜨린 드라콘은 오피스라 부른다. 그러므로 안티노에를 인도한 뱀 역시 드라콘이었을 법하다.

**[8.8.6]** 만티네이아인들은 디파이아에서 다른 아르카디아인들과 함께 라케다이몬인들에게 맞서 싸우지 않았다. 그러나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에는 엘리스인들과 함께 라케다이몬인들을 상대로 일어섰고, 아테나이의 지원군이 도착하자 전투를 벌였다. 아테나이인들과의 우호 때문에 시칠리아 원정에도 참가했다.

**[8.8.7]** 후일 파우사니아스의 아들 아게시폴리스가 라케다이몬군을 이끌고 그들의 땅을 침공했다. 아게시폴리스는 전투에서 이겨 만티네이아인들을 성벽 안에 가두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를 차지했다. 그는 성벽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 오피스강의 물길을 돌려 굽지 않은 벽돌로 쌓은 성벽에 흐르게 했다.

**[8.8.8]** 공성 장비의 타격을 받는 경우에는 벽돌이 돌로 쌓은 성벽보다 더 잘 버틴다. 돌은 깨지고 맞물린 자리에서 밀려나지만, 벽돌은 공성 장비에 그만큼 손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물이 닿으면 햇볕에 밀랍이 녹듯 벽돌이 부스러진다.

**[8.8.9]** 만티네이아의 성벽을 무너뜨린 이 방법을 아게시폴리스가 처음 알아낸 것은 아니다. 밀티아데스의 아들 키몬이 스트리몬강가의 에이온을 차지하고 있던 보게스와 페르시아인들을 포위했을 때 이미 써 본 계책이다. 아게시폴리스는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방법을 따랐다. 만티네이아를 차지한 뒤 도시의 작은 부분에만 사람이 살게 하고, 훨씬 더 넓은 나머지는 허물어 주민들을 여러 마을에 나누어 살게 했다.

**[8.8.10]** 레욱트라 전투 뒤 만티네이아인들을 여러 마을에서 본래의 도시로 돌아오게 한 것은 테바이인들이었다. 그러나 도시를 되찾은 만티네이아인들은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다른 아르카디아인들을 제쳐 놓고 라케다이몬인들과 교섭하여 몰래 평화를 맺으려다 들켰다. 테바이인들이 두려워지자 그들은 공공연히 편을 바꾸어 라케다이몬 동맹에 들어갔다. 만티네이아에서 라케다이몬인들과 에파메이논다스 휘하의 테바이인들이 싸웠을 때에는 라케다이몬 쪽 대열에 섰다.

**[8.8.11]** 그 뒤 만티네이아인들은 라케다이몬인들과 다투어 그들을 떠나 아카이아 연맹에 들어갔다. 에우다미다스의 아들인 스파르타 왕 아기스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아라토스가

이끄는 아카이아군의 도움을 받아 자기 땅을 지키고 아기스를 무찔렀다. 클레오메네스와 싸울 때에도 아카이아인들과 함께하여 라케다이몬의 세력을 무너뜨렸다. 마케도니아의 안티고노스는 페르세우스의 아버지 필리포스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후견인이었으며, 아카이아인들을 열성적으로 도왔다. 그래서 만티네이아인들은 그에게 여러 영예를 바치고 자기 도시의 이름도 안티고네이아로 바꾸었다.

**[8.8.12]** 후일 아우구스투스가 악티온의 아폴론 곶 앞에서 해전을 벌이려 할 때, 만티네이아인들은 로마인들 편에서 싸웠고 나머지 아르카디아인들은 안토니우스의 편에 섰다. 내 생각에 만티네이아인들이 그렇게 한 까닭은 라케다이몬인들이 아우구스투스를 지지했기 때문일 뿐이다. 그로부터 열 세대 뒤 하드리아누스가 황제가 되었다. 그는 마케도니아에서 들여온 이름을 거두고 도시에 옛 이름 만티네이아를 돌려주었다. periegesis.abm.uu.se

## 제9장

**[8.9.1]** 만티네이아인들의 신전 하나는 거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벽으로 양쪽이 나뉘어 있다. 한쪽에는 알카메네스가 만든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이 있다. 다른 쪽은 레토와 그 자녀들의 성소로, 그 신상들은 알카메네스보다 두 세대 뒤의 프락시텔레스가 만들었다. 받침대에는 무사 여신들과 피리를 부는 마르시아스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여기에는 또 리코르타스의 아들 폴리비오스를 석판에 돋을새김한 상이 있다. 폴리비오스에 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8.9.2]** 만티네이아인들에게는 다른 성소들도 있다. 하나는 '구원자' 제우스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물을 주는 이'인 에피도테스 제우스의 것이다. 제우스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내려 주기 때문이다. 디오스쿠로이의 성소도 있고, 다른 곳에는 데메테르와 코레의 성소가 있다. 이곳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본다. 나는 극장 가까이에서 헤라의 신전을 보았다.

**[8.9.3]** 신상들은 프락시텔레스가 만들었다. 헤라는 앉아 있고, 그 곁에는 아테나와 헤라의 딸 헤베가 서 있다. 헤라의 제단 가까이에는 칼리스토의 아들 아르카스의 무덤이 있다. 만티네이아인들은 델포이에서 받은 다음 신탁에 따라 아르카스의 유골을 마이날로스에서 가져왔다.

**[8.9.4]**

> 마이날리아에는 거센 바람이 분다. 그곳에 아르카스가 누워 있나니,
> 모든 아르카디아인이 그에게서 이름을 얻었다.
> 세 갈래, 네 갈래, 아니 다섯 갈래 길이 만나는 곳이다.
> 그곳으로 가서 정성껏 아르카스를 거두고 너희의 아름다운 도시로 데려오라.
> 거기에 아르카스의 성역을 마련하고 제사를 지내라.

아르카스의 무덤이 있는 이곳을 그들은 '헬리오스의 제단들'이라 부른다.

**[8.9.5]** 극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름난 무덤들이 있다. 그중 '공동의 화덕'이라 불리는 것은 둥근 모양이다. 그 안에는 케페우스의 딸 안티노에가 묻혔다고 들었다. 무덤 위에는

석판이 서 있고, 그 위에 말을 탄 크세노폰의 아들 그릴로스가 돋을새김되어 있다.

[8.9.6] 극장 뒤에서는 '동맹자'라는 뜻의 심마키아 아프로디테 신전의 폐허를 보았다. 신상은 사라지고 없었다. 받침대의 비문에는 파세아스의 딸 니키페가 그 상을 봉헌했다고 적혀 있었다. 만티네이아인들은 악티온 전투에서 로마인들 편에 서서 싸운 일을 후세에 기억시키려고 이 성소를 세웠다. 그들은 알레아 아테나도 숭배하며, 여신의 성소와 신상을 두었다.

[8.9.7] 그들은 안티노오스도 신으로 섬긴다. 그의 신전은 만티네이아에서 가장 새로 지은 것이다. 안티노오스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다. 나는 살아 있는 그를 본 적은 없지만 조각상과 그림은 보았다. 다른 곳에서도 그에게 영예를 바치며, 나일강가에는 그의 이름을 붙인 이집트의 도시가 있다. 그가 만티네이아에서 숭배받게 된 까닭은 이러하다. 안티노오스는 상가리오스강 너머 비티니온에서 태어났으며, 비티니온 사람들은 혈통으로 만티네이아의 아르카디아인들이다.

[8.9.8] 이 때문에 황제는 만티네이아에도 안티노오스를 섬기는 의례를 세웠다. 해마다 그를 기리는 비의를 거행하고, 4년마다 경기를 연다. 만티네이아의 김나시온에는 안티노오스의 상들을 둔 방이 있다. 방을 꾸민 석재가 눈에 띄고, 특히 그림들이 볼 만하다. 그림 대부분은 안티노오스의 초상인데, 그를 디오니소스와 꼭 닮게 그렸다. 케라메이코스에 있는 그림의 모사본도 여기 있다. 아테나이인들이 만티네이아에서 싸우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8.9.9] 아고라에는 여인의 청동 초상과 포다레스의 영웅 성소가 있다. 만티네이아인들은 여인의 상이 아르카스의 딸 디오메네이아이며, 포다레스는 에파메이논다스가 이끄는 테바이인들과 싸우다가 전사했다고 한다. 세 세대 전에 그들은 무덤의 비문을 고쳐 같은 이름을 지닌 포다레스의 후손에게 돌렸다. 그 후손은 훨씬 뒤에 태어나 로마 시민권을 누린 사람이었다.

[8.9.10] 내가 살던 때 만티네이아인들이 기린 사람은 옛 포다레스였다. 그들의 말로는 전투에서 만티네이아인들과 동맹군을 통틀어 가장 용감한 이가 크세노폰의 아들 그릴로스였다. 다음은 당시 아테나이 기병을 지휘한 마라톤의 케피소도로스였고, 용맹에서 셋째는 포다레스였다. periegesis.abm.uu.se

## 제10장

[8.10.1] 만티네이아에서 아르카디아의 다른 곳으로 가는 길들이 있다. 이제 각 길에서 가장 볼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겠다. 테게아로 가는 큰길 왼쪽, 만티네이아의 성벽 곁에는 말이 경주하는 곳이 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안티노오스를 기리는 경기가 열리는 경주로가 있다. 경주로 위에는 알레시온산이 있다. 레아가 떠돌았다는 데서 얻은 이름이며, 산에는 데메테르의 숲이 있다.

[8.10.2] 산기슭에는 말의 신인 힙피오스 포세이돈의 성소가 있다. 만티네이아에서 1스타디온 남짓 떨어진 곳이다. 이 성소에 관해서는 나도 앞서 이곳을 언급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들은 대로 적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성소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지었다. 황제는 일꾼

들 위에 감독을 두어 아무도 옛 성소 안을 들여다보거나 폐허의 어느 부분도 옮기지 못하게 했다. 그는 옛 성소를 둘러싸도록 새 신전을 지으라고 명했다. 처음 포세이돈을 위해 이 성소를 지은 사람들은 아가메데스와 트로포니오스였다고 한다. 그들은 참나무 목재를 다듬어 서로 맞추었다.

[8.10.3] 그들은 사람들의 출입을 막을 장벽을 입구에 세우지 않고 양털실 한 가닥만 가로질러 팽팽하게 쳐 놓았다. 그 정도만으로도 당시 신들을 공경하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리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실 자체에 어떤 힘이 있었을 수도 있다. 힙포토오스의 아들 아이피토스도 실을 뛰어넘거나 밑으로 기어들어 간 것이 아니라, 실을 끊고 성소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 불경한 짓의 벌로 물결이 눈을 덮쳐 눈이 멀었고, 이윽고 목숨을 잃었다.

[8.10.4] 성소 안에서 바닷물의 물결이 솟는다는 오랜 전설이 있다. 아테나이인들도 아크로폴리스의 물결에 관해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밀라사에 사는 카리아인들도 자기네 말로 오소고아라 부르는 신의 성소를 두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팔레론의 바다는 아테나이에서 약 20스타디온, 밀라사의 항구는 도시에서 80스타디온 거리다. 만티네이아에는 바닷물이 훨씬 먼 거리를 지나 솟으므로, 신의 뜻으로 일어나는 일임이 분명하다.

[8.10.5] 포세이돈의 성소를 지나면 아기스가 거느린 라케다이몬인들에게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돌 전승비가 있다. 전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고 한다. 오른쪽 날개에는 만티네이아인들이 섰다. 군역을 감당할 나이의 사람들이 모두 출전했으며, 테바이인들과 싸웠던 포다레스의 손자인 포다레스가 이들을 지휘했다. 이아미다이 가문에 속한 엘리스의 예언자 트라시불로스도 그들과 함께했다. 그는 아이네이아스의 아들로, 만티네이아인들이 이기리라고 예언하고 직접 전투에도 참가했다.

[8.10.6] 왼쪽 날개에는 나머지 아르카디아 병력이 모두 배치되었다. 도시마다 자기 지휘관이 있었고, 메갈로폴리스군은 리디아데스와 레오키데스가 이끌었다. 중앙은 시키온인들과 아카이아인들을 거느린 아라토스에게 맡겼다. 라케다이몬군은 적의 대열과 길이가 같아지도록 대열을 펼쳤다. 그 중앙에는 왕의 참모들과 함께 아기스가 자리했다.

[8.10.7] 아라토스는 아르카디아인들과 미리 약속한 대로 라케다이몬인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듯 휘하 병력을 물렸다. 그들이 물러나면서 진형은 차츰 초승달 모양이 되었다. 아기스와 라케다이몬인들은 승리를 거두었다고 보고 밀집한 대열로 아라토스의 부대를 더욱 세게 몰아붙였다. 양 날개에 있던 병사들도 뒤따랐다. 아라토스와 그의 군대를 패주시킨다면 큰 공을 세우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8.10.8] 그러나 아르카디아인들이 들키지 않고 그들의 뒤로 돌아갔다. 포위된 라케다이몬인들은 군대의 대부분을 잃었고, 에우다미다스의 아들 아기스 왕도 전사했다. 만티네이아인들은 포세이돈 자신이 나타나 그들을 지켜 주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전승비를 세워 포세이돈에게 봉헌했다.

[8.10.9] 신들이 인간의 전쟁과 살육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은 트로이에서 영웅들이 겪은 고난을 노래한 시인들도 이야기했다. 아테나이인들은 마라톤과 살라미스 전투에서 신들이 자기들 편에 섰다고 노래한다. 델포이에서는 신과 신령들이 갈라티아군을 몰살시켰음이 아

주 분명하다. 그러므로 포세이돈의 도움으로 이겼다는 만티네이아인들의 이야기에도 앞선 예가 있다.

**[8.10.10]** 아르카디아인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리디아데스와 함께 메갈로폴리스군을 지휘한 레오키데스에게는 아르케실라오스라는 아홉 대 위의 조상이 있었다. 그는 리코수라에 살 때 데스포이나라 부르는 여신의 신성한 사슴이 늙어 쇠약해진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그 사슴의 목에는 목걸이가 둘려 있었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 아가페노르가 트로이로 갔을 때, 나는 새끼 사슴으로 잡혔다.

이 이야기를 보면 사슴은 코끼리보다도 훨씬 오래 사는 짐승이다. periegesis.abm.uu.se

## 제11장

**[8.11.1]** 포세이돈의 성소를 지나면 '바다'라는 뜻의 펠라고스라 부르는 곳이 나오는데, 참나무가 가득하다. 만티네이아에서 테게아로 가는 길은 이 참나무들 사이로 지난다. 두 도시의 경계는 큰길에 있는 둥근 제단이다. 포세이돈의 성소에서 왼쪽으로 접어들어 약 5스타디온 가면 펠리아스의 딸들의 무덤에 이른다. 만티네이아인들은 아버지가 죽은 일로 받는 비난을 피하여 그 딸들이 자기들에게 와 살았다고 말한다.

**[8.11.2]** 메데이아는 이올코스에 도착하자마자 펠리아스를 해칠 계책을 꾸몄다. 겉으로는 이아손과 사이가 나쁜 체했으나 실제로는 그와 공모했다. 메데이아는 펠리아스의 딸들에게 그들이 원한다면 아주 늙은 아버지를 다시 젊어지게 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숫양 한 마리를 잡아 그 고기를 약과 함께 솥에 끓인 다음, 그 약의 힘으로 살아 있는 어린 양을 솥에서 꺼냈다.

**[8.11.3]** 메데이아는 펠리아스를 데려다가 끓이려고 토막 냈다. 딸들에게 돌아온 것은 장사를 치르기에도 모자랐다. 이 일로 그 여자들은 아르카디아로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죽은 뒤에는 그곳에 흙을 쌓아 무덤을 만들었다. 내가 읽은 시 가운데 그들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없었다. 다만 화가 미콘은 그들의 초상에 아스테로페이아와 안티노에라는 이름을 적었다.

**[8.11.4]** 이 무덤들에서 약 20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포이존이라 부르는 곳이 있다. 포이존은 돌로 만든 무덤으로, 둘레에 지면보다 조금 높은 기단을 둘렀다. 여기서 길이 아주 좁아진다. 이곳이 무기 때문에 '곤봉을 든 이'라는 뜻의 코리네테스라는 별칭을 얻은 아레이토오스의 무덤이라고 한다.

**[8.11.5]** 만티네이아에서 팔란티온으로 가는 길로 약 30스타디온을 가면 큰길이 펠라고스라는 참나무 숲을 끼고 지난다. 여기서 아테나이와 만티네이아의 기병이 보이오티아 기병과 싸웠다. 만티네이아인들은 자기 도시 사람 마카이리온이 에파메이논다스를 죽였다고 한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에파메이논다스를 죽인 사람이 스파르타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도 그의 이름을 마카이리온이라고 한다.

**[8.11.6]** 아테나이인들의 이야기는 테바이인들의 이야기와 일치한다. 그릴로스가 에파메이논다스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만티네이아 전투를 그린 그림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

다. 만티네이아인들이 그릴로스의 장례를 공적으로 치렀고, 동맹군 가운데 가장 용감했던 그를 기려 그가 쓰러진 곳에 초상을 새긴 석판을 바쳤다는 사실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마카이리온이 에파메이논다스를 죽였다고도 하지만, 스파르타에도 만티네이아에도 마카이리온이라는 이름으로 용맹을 인정받아 영예를 얻은 사람은 없다.

**[8.11.7]** 에파메이논다스가 부상했을 때 사람들은 아직 살아 있던 그를 전열에서 옮겼다. 그는 한동안 고통 속에서 손으로 상처를 누른 채 싸우는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가 바라보던 곳을 후세 사람들이 '망보는 곳'이라는 뜻의 스코페라 불렀다. 전투가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끝나자, 그는 상처에서 손을 떼고 죽었다. 두 군대가 맞붙은 곳에 그를 묻었다.

**[8.11.8]** 무덤 위에는 기둥이 서 있고 그 위에 드라콘을 돋을새김한 방패가 있다. 드라콘은 에파메이논다스가 이른바 스파르토이의 혈통임을 뜻한다. 무덤에는 석판들도 있다. 하나는 오래된 것으로 보이오티아 글이 새겨져 있고, 다른 하나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바친 것으로 황제 자신이 비문을 지었다.

**[8.11.9]** 누구나 에파메이논다스를 그리스에서 가장 이름난 장군으로 칭송하거나, 적어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고 여길 것이다. 라케다이몬과 아테나이의 지휘관들은 자기 도시가 예로부터 누린 명성을 등에 업고 있었으며, 그 병사들도 기개가 높았다. 그러나 에파메이논다스가 가장 높은 지위까지 끌어올린 테바이인들은 기가 꺾인 데다 남의 명령을 따르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8.11.10]** 에파메이논다스는 앞서 델포이 신탁으로부터 **펠라고스**를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전함에 오르거나 상선을 타는 일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신이 펠라고스라고 한 것은 바다가 아니라 펠라고스의 숲을 가리킨 것이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장소들 때문에 카르타고의 한니발도, 그보다 앞서 아테나이인들도 잘못 판단한 일이 있다.

**[8.11.11]** 한니발은 암몬의 신탁에서 자기가 죽으면 리비아 땅에 묻히리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권을 무너뜨리고 고향 리비아로 돌아가 그곳에서 늙어 죽으리라 기대했다. 그런데 로마인 플라미니누스가 그를 산 채로 붙잡으려 하자 한니발은 프루시아스에게 가서 보호를 청했다. 프루시아스가 거절하자 그는 말에 뛰어올랐는데, 뽑아 든 칼에 손가락을 다쳤다. 불과 몇 스타디온을 가자 상처 때문에 열이 났고, 사흘째에 죽었다. 그가 죽은 곳을 니코메데이아인들은 리비사라고 부른다.

**[8.11.12]** 아테나이인들은 도도나에서 시켈리아에 식민지를 세우라는 신탁을 받았다. 시켈리아는 아테나이에서 멀지 않은 작은 언덕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테나이인들은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여 바다 너머로 원정하자는 주장에 넘어갔고, 그중에서도 시라쿠사와 전쟁을 벌였다. 내가 든 것과 비슷한 예는 더 찾아볼 수 있다. periegesis.abm.uu.se

## 제12장

**[8.12.1]** 에파메이논다스의 무덤에서 약 1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카르몬이라는 별칭의 제우스 성소가 있다. 아르카디아의 숲에는 여러 종류의 참나무가 자란다. 어떤 것은 '잎이 넓은 참나무'라 하고, 다른 것은 '열매를 먹는 참나무'라 부른다. 세 번째 종류의 껍질은 속이 비고 매우 가벼워서 닻과 그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부표도 만든다. 이오니아인들은 이

나무의 껍질을 **펠론**, 곧 코르크라 부른다. 엘레게이아 시인 헤르메시아낙스도 이 말을 쓴다.

**[8.12.2]** 만티네이아에서 메티드리온으로 가는 길도 있다. 메티드리온은 오늘날 도시가 아니라 메갈로폴리스에 속한 마을이다. 이 길로 30스타디온을 가면 알키메돈이라는 들판에 이르며, 그 너머는 오스트라키나산이다. 그 산의 동굴에는 이른바 영웅들 가운데 하나인 알키메돈이 살았다.

**[8.12.3]** 피갈리아인들에 따르면 알키메돈의 딸 피알로는 헤라클레스와 관계를 맺었다. 알키메돈은 딸이 아이를 낳은 것을 알고, 딸과 갓난 사내아이를 산에 내다 버려 죽게 했다. 아르카디아인들은 그 아이를 아이크마고라스라 부른다. 버려진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어치 한 마리가 울음소리를 듣고 흉내 냈다.

**[8.12.4]** 마침 그 길을 지나던 헤라클레스는 어치의 소리를 듣고 새가 아니라 아기가 우는 줄 알아 곧장 소리 나는 쪽으로 갔다. 그는 피알로를 알아보고 결박을 풀어 주었으며 아기도 구했다. 그래서 가까운 샘은 그 새의 이름을 따 '어치'라는 뜻의 키사라 불린다. 샘에서 40스타디온 떨어진 페트로사카는 메갈로폴리스와 만티네이아의 경계다.

**[8.12.5]** 앞서 말한 길들 외에도 오르코메노스로 가는 길이 두 개 있다. 한쪽 길에는 라다스가 달리기를 연습했던 '라다스의 경기장'이 있다. 그 곁에 아르테미스의 성소가 있고, 길 오른쪽에는 높이 쌓은 흙무덤이 있다. 페넬로페의 무덤이라고 하지만, 『테스프로티스』라는 시에서 전하는 이야기는 이 말과 맞지 않는다.

**[8.12.6]** 그 시의 시인은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에서 돌아온 뒤 페넬로페에게서 프톨리포르테스라는 아들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만티네이아에서 전하는 이야기는 이러하다. 오디세우스는 페넬로페가 자기 집에 애인들을 들인 사실을 밝혀내고 그녀를 내쫓았다. 그녀는 처음 라케다이몬으로 갔다가, 뒤에 스파르타에서 만티네이아로 옮겨 가 그곳에서 죽었다.

**[8.12.7]** 이 무덤 옆에는 그리 크지 않은 들판이 있고, 들판의 산 위에는 옛 만티네이아의 폐허가 아직 남아 있다. 오늘날 그곳을 프톨리스라 부른다. 거기서 북쪽으로 조금 가면 알랄코메네이아의 샘에 닿는다. 프톨리스에서 30스타디온 떨어진 곳에는 마이라라는 마을의 폐허가 있고, 마이라의 무덤도 있다. 참으로 마이라가 테게아 땅이 아니라 여기 묻혔다면 말이다. 아틀라스의 딸 마이라가 자기 땅에 묻혔다는 테게아인들의 주장이 만티네이아인들의 말보다 옳을 것이다. 다만 만티네이아 땅에 온 사람은 아틀라스의 딸 마이라의 후손으로, 이름이 같은 다른 마이라였을 수도 있다.

**[8.12.8]** 오르코메노스로 가는 나머지 길에는 안키시아산이 있고, 산기슭에 안키세스의 무덤이 있다. 아이네이아스는 시칠리아로 항해하다가 배를 라코니아에 대고 아프로디시아스와 에티스 두 도시를 세웠다. 그의 아버지 안키세스는 무슨 까닭인지 이곳에 와서 죽었고, 아이네이아스가 그를 여기 묻었다. 사람들은 안키세스에서 이름을 따 이 산을 안키시아라 부른다.

**[8.12.9]** 오늘날 트로이에 사는 아이올리스인들이 자기 땅 어디에서도 안키세스의 무덤을 보여 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 전승을 한층 그럴듯하게 한다. 안키세스의 무덤 가까이에는

아프로디테 성소의 폐허가 있다. 안키시아이에서 만티네이아와 오르코메노스의 경계가 만난다. periegesis.abm.uu.se

## 제13장

**[8.13.1]** 오르코메노스 땅에서 안키시아이로부터 오는 길 왼쪽, 산비탈에 힘니아 아르테미스의 성소가 있다. 만티네이아인들도 이 성소를 함께 쓴다. 〔…〕 여사제와 남자 사제가 있다. 그들은 성관계에서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평생 정결을 지켜야 한다. 목욕이나 그 밖의 생활 방식도 보통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개인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내가 알기로 에페소스 아르테미스의 제전에서 잔치를 맡는 이들도 비슷하게 생활하지만, 그 기간은 1년뿐이다. 에페소스인들은 그들을 에세네스라 부른다. 힘니아 아르테미스를 기려 해마다 축제도 연다.

**[8.13.2]** 옛 오르코메노스는 산꼭대기에 있었다. 그곳에는 아고라와 성벽의 폐허가 아직 남아 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는 도시는 옛 성벽이 둘러친 곳 아래에 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물을 긷는 샘이 볼 만하다. 포세이돈과 아프로디테의 성소들도 있는데, 신상은 돌로 만들었다. 도시 가까이에는 아르테미스의 목상이 있다. 큰 삼나무 안에 세워 두었으므로 나무의 이름을 따 여신을 케드레아티스라 부른다.

**[8.13.3]** 도시 아래에는 돌무더기가 얼마씩 떨어져 있다. 전쟁에서 쓰러진 사람들 위에 쌓아 놓은 것이다. 그들이 펠로폰네소스의 어느 사람들과 싸웠는지, 동료 아르카디아인들을 상대로 싸웠는지 아니면 다른 이들을 상대로 싸웠는지는 무덤의 비문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오르코메노스인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도 없었다.

**[8.13.4]** 도시 맞은편에는 ‘험한 산’이라는 뜻의 트라키산이 있다. 빗물은 도시와 트라키산 사이의 깊은 협곡을 지나 오르코메노스의 다른 들판으로 내려간다. 들판은 아주 넓으나 대부분이 호수다. 오르코메노스에서 나와 약 3스타디온 가면 곧은 길이 카피아이로 이어진다. 협곡을 끼고 가다가 호수의 물을 왼쪽에 두고 가는 길이다. 다른 길은 협곡으로 흐르는 물을 건너 트라키산 아래로 이어진다.

**[8.13.5]** 이 길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것은 아리스토크라테스의 무덤이다. 그는 일찍이 힘니아 여신의 처녀 사제를 범한 사람이다. 아리스토크라테스의 무덤을 지나면 테네이아이라는 샘들이 있다. 샘들에서 약 7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아밀로스라는 곳이 있는데, 한때는 도시였다고 한다. 여기서 길이 다시 갈라져 하나는 스팀팔로스로, 하나는 페네오스로 이어진다.

**[8.13.6]** 페네오스로 가는 길에는 산이 하나 있다. 오르코메노스와 페네오스와 카피아이의 경계가 그 산에서 만난다. 경계 위로 높이 솟은 바위를 ‘카피아이의 바위’라 부른다. 내가 말한 도시들의 경계를 지나면 골짜기가 나오는데, 페네오스로 가는 길은 그 사이로 지난다. 골짜기의 거의 한가운데에서 샘물이 솟고, 골짜기 끝에는 카리아이라는 곳이 있다.

periegesis.abm.uu.se

## 제14장

**[8.14.1]** 카리아이 아래에는 페네오스의 들판이 있다. 한때 이 들판에 물이 차올라 옛 페네오스가 잠겼다고 한다. 지금도 산에는 물이 거기까지 올랐다고 하는 흔적이 남아 있다. 카리아이에서 5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오릭시스라는 산이 있고, 스키아티스라는 산도 있다. 두 산 아래에는 각각 갈라진 틈이 있어 들판의 물이 들어간다.

**[8.14.2]** 페네오스인들은 이 틈들이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한다. 헤라클레스가 암피트리온의 어머니 라오노메와 함께 페네오스에 살던 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암피트리온은 알카이오스와 페네오스 여자 라오노메 사이에서 태어났다. 라오노메는 구네우스의 딸이다. 암피트리온의 어머니가 펠롭스의 딸 리시디케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헤라클레스가 정말로 페네오스에 옮겨 와 살았다면, 에우리스테우스에게 티린스에서 쫓겨났을 때 곧바로 테바이로 가지 않고 먼저 페네오스로 왔다고 믿을 만하다.

**[8.14.3]** 헤라클레스는 올비오스강이 흐를 길을 내기 위해 페네오스 들판 한가운데에 수로를 팠다. 아르카디아인들 가운데는 이 강을 올비오스가 아니라 아로아니오스라 부르는 이들도 있다. 파 놓은 수로의 길이는 50스타디온이고, 무너지지 않은 곳의 깊이는 30푸스에 이른다. 그러나 지금 강물은 거기로 흐르지 않고, 헤라클레스가 만든 수로를 버리고 옛 물길로 돌아갔다.

**[8.14.4]** 앞서 말한 산들에 낸 틈에서 약 50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도시가 있다. 페네오스인들은 자기들의 도시를 세운 사람이 토박이 페네오스였다고 한다. 아크로폴리스는 사방이 가파르다. 대부분은 자연 그대로이고, 몇 곳에는 안전을 위해 인공으로 방비를 더했다. 이 아크로폴리스에는 트리토니아라는 별칭의 아테나 신전이 있다. 내가 찾아갔을 때는 폐허만 남아 있었다.

**[8.14.5]** 말의 신인 힙피오스 포세이돈의 청동상도 서 있다. 오디세우스가 그 상을 봉헌했다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오디세우스는 암말들을 잃고 그것들을 찾아 그리스 전역을 돌아다녔다. 그는 페네오스 땅에서 암말들을 찾은 자리에 아르테미스의 성소를 세워 여신을 '말을 찾아 주는 이'라는 뜻의 헤우립파라 불렀고, 힙피오스 포세이돈의 상도 봉헌했다.

**[8.14.6]** 오디세우스는 암말들을 찾고 나서 페네오스 땅에서 말을 기르기로 했다고 한다. 그가 이타카 맞은편 본토에서 소를 길렀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페네오스인들은 신상의 받침대에 적힌 글을 내게 보여 주었다. 오디세우스가 암말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내린 지시라고 했다.

**[8.14.7]** 페네오스인들의 이야기에서 나머지는 받아들일 만하다. 그러나 오디세우스가 그 청동상을 바쳤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 그때 사람들은 옷을 한 폭으로 짜듯 청동상을 한 덩어리로 만드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사람들이 청동상을 만들던 방식은 라케다이몬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높은 이'인 히파토스 제우스의 상을 다룰 때 이미 설명했다.

**[8.14.8]** 청동을 녹여 신상을 주조한 첫 사람들은 사모스인 필라이오스의 아들 로이코스와 텔레클레스의 아들 테오도로스였다. 사모스의 참주 폴리크라테스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며

유난히 자랑한 에메랄드 인장도 테오도로스가 만들었다.

**[8.14.9]** 페네오스의 아크로폴리스에서 내려가면 경기장이 있다. 언덕 위에는 헤라클레스의 형제이자 이올라오스의 아버지인 이피클레스의 무덤이 있다. 그리스인들에 따르면 이올라오스는 헤라클레스가 이룬 위업 대부분에 함께했다. 그의 아버지 이피클레스는 헤라클레스가 엘리스인들과 아우게아스를 상대로 치른 첫 전투에서 악토르의 아들들에게 부상당했다. 그들은 어머니 몰리네의 이름을 따 몰리오네스라 불렸다. 이피클레스가 기력을 잃자 친족들이 그를 페네오스로 데려갔다. 페네오스인 부파고스와 아내 프롬네가 정성껏 그를 돌보았고, 그가 상처로 죽자 두 사람이 그를 묻었다.

**[8.14.10]** 페네오스인들은 지금도 이피클레스에게 영웅으로서 제사를 지낸다. 신들 가운데는 헤르메스를 가장 높이 섬겨, 그를 기리는 헤르마이아 경기를 연다. 헤르메스의 신전과 석상도 있다. 석상은 아테나이인 에우불리데스의 아들 에우케이르가 만들었다. 신전 뒤에는 미르틸로스의 무덤이 있다. 그리스인들은 미르틸로스가 헤르메스의 아들이며 오이노마오스의 전차를 몰았다고 한다. 누군가 오이노마오스의 딸에게 구혼하러 올 때마다 미르틸로스는 능숙하게 암말들을 몰았고, 오이노마오스는 경주 도중 구혼자가 가까이 오면 활로 쏘아 죽였다.

**[8.14.11]** 미르틸로스 자신도 힙포다메이아를 사랑했다. 하지만 용기가 모자라 경주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오이노마오스의 전차를 몰았다. 마침내 펠롭스가 힙포다메이아와 하룻밤을 보내게 해 주겠다고 맹세하여 그를 꾀자, 미르틸로스는 오이노마오스를 배반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맹세를 상기시키자 펠롭스는 그를 배 밖으로 던졌다. 페네오스인들은 물결이 미르틸로스의 시신을 해안으로 밀어 올려, 자기들이 그를 거두어 묻었다고 한다. 해마다 밤에 그에게 영웅으로서 제사를 지낸다.

**[8.14.12]** 펠롭스가 해안을 따라 먼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 알페이오스강 하구에서 엘리스의 항구까지만 배로 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미르토온해는 헤르메스의 아들 미르틸로스에게서 이름을 얻은 것이 아니다. 이 바다는 에우보이아에서 시작해 사람이 살지 않는 헬레네섬을 지나 아이가이온해에 이르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는 에우보이아의 옛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그럴듯한 이야기를 전한다. 미르토라는 여자의 이름에서 바다의 이름을 따왔다는 것이다. periegesis.abm.uu.se

## 제15장

**[8.15.1]** 페네오스인들에게는 엘레우시스의 데메테르를 모신 성소도 있다. 그들은 여신에게 의례를 지내며, 엘레우시스의 의례가 자기들 사이에 세워진 것과 같다고 말한다. 에우몰포스의 손자 나우스가 델포이 신탁에 따라 자기들에게 왔다는 것이다. 엘레우시스 여신의 성소 곁에는 큰 돌 두 개를 맞붙여 놓은 페트로마가 있다.

**[8.15.2]** 그들은 한 해 걸러 한 번씩 '대의례'라 부르는 의식을 지낼 때 이 돌들을 연다. 안에서 의식에 관한 글을 꺼내 입문자들이 듣는 가운데 읽고, 그날 밤 다시 돌 안에 넣는다. 내가 아는 한 페네오스인들은 대부분 가장 중요한 일에 관해 맹세할 때 페트로마를 증인으로 삼는다.

**[8.15.3]** 그 위에는 둥근 물건이 하나 있고, 그 안에 키다리아 데메테르의 가면이 들어 있다. 이른바 대의례 때 사제가 이 가면을 쓰고, 무슨 까닭인지 '땅 밑에 사는 이들'에게 막대기로 매질을 한다. 페네오스인들은 나우스가 오기 전에도 데메테르가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자기 도시에 왔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여신은 자기를 집에 맞아들여 대접한 페네오스인들에게 온갖 콩과 식물을 주었으나 잠두는 주지 않았다.

**[8.15.4]** 그들이 잠두를 부정한 콩으로 여기는 까닭을 설명하는 신성한 이야기가 있다. 페네오스인들에 따르면 여신을 맞아들인 트리사울레스와 다미탈레스는 킬레네산 아래에 '법을 세우는 이'인 테스미아 데메테르의 신전을 지었다. 또 여신을 위한 의례를 세웠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거행된다. 테스미아 여신의 신전은 도시에서 약 15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8.15.5]** 페네오스에서 펠레네와 아카이아의 도시 아이게이라로 가는 길로 약 15스타디온을 가면 피티오스 아폴론의 신전이 나온다. 나는 그곳에서 폐허만 보았는데, 그중에 흰 대리석으로 만든 큰 제단이 있었다. 페네오스인들은 지금도 여기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들은 헤라클레스가 엘리스를 점령한 뒤 이 성소를 세웠다고 한다. 엘리스 원정에 헤라클레스와 함께 갔다가 싸움에서 죽은 영웅들의 무덤도 이곳에 있다.

**[8.15.6]** 그중 텔라몬은 아폴론의 성소보다 조금 더 멀리, 아로아니오스강 바로 곁에 묻혀 있고, 칼코돈은 오이노에라는 샘에서 멀지 않은 곳에 묻혀 있다. 이 전투에서 죽은 칼코돈이 에우보이아인들을 트로이로 이끈 엘레페노르의 아버지이며, 텔라몬이 아이아스와 테우크로스의 아버지라고는 누구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믿을 만한 전승에 따르면 칼코돈은 그보다 앞서 테바이에서 암피트리온에게 죽었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헤라클레스의 원정을 도왔겠는가?

**[8.15.7]** 또 테우크로스가 트로이에서 돌아온 뒤 아무도 그를 고향에서 쫓아내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키프로스에 살라미스를 세웠겠는가? 그를 쫓아낼 사람이 텔라몬 말고 또 누가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엘리스 원정에서 헤라클레스를 도운 사람들은 에우보이아의 칼코돈과 아이기나의 텔라몬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이름 없는 이가 이름난 영웅과 같은 이름을 지니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드물지 않다.

**[8.15.8]** 페네오스와 아카이아는 여러 곳에서 경계가 맞닿는다. 펠레네 쪽 경계는 포리나스라 부르는 강이며, 아이게이라 땅 쪽은 '아르테미스로 가는 길'이다. 페네오스인들의 땅 안에서 피티오스 아폴론의 성소를 지나 조금만 가면 크라티스산으로 가는 길에 접어든다.

**[8.15.9]** 이 산에서 크라티스강이 발원한다. 그 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 곁에는 한때 아카이아의 도시였으나 지금은 버려진 아이가이가 있다. 이탈리아의 브루티움에 있는 강도 이 크라티스에서 이름을 얻었다. 크라티스산에는 불의 여신인 피로니아 아르테미스의 성소가 있다. 옛날 아르고스인들은 레르나에서 지내는 의례에 쓸 불을 이 여신에게서 가져왔다.

## 제16장

**[8.16.1]** 페네오스에서 동쪽으로 가면 게론테이온이라는 산봉우리와 그 곁을 지나는 길에 이른다. 이 산은 페네오스와 스팀팔로스의 경계다. 페네오스 땅을 지나다 보면 왼쪽에 '세 샘'이라는 뜻의 트리크레나산들이 있는데, 그곳에는 샘이 세 개 있다. 전설에 따르면 산의 님프들이 갓 태어난 헤르메스를 이 샘에서 씻겼으므로, 헤르메스에게 속한 신성한 샘으로 여긴다.

**[8.16.2]** 트리크레나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세피아라는 산이 있다. 엘라토스의 아들 아이피토스는 이곳에서 뱀에게 물려 죽었다고 한다. 시신을 옮길 수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무덤을 만들었다. 아르카디아인들의 말로는 지금도 산에 그 뱀이 살지만, 아주 드물어 수가 많지 않다. 한 해의 대부분 동안 산에 눈이 내리므로, 눈에 막혀 굴로 가지 못하는 뱀들은 죽는다. 가까스로 굴에 들어가더라도 냉기가 굴속 깊이까지 파고들기 때문에 일부는 눈이 내리는 동안 죽는다.

**[8.16.3]** 나는 아이피토스의 무덤을 특히 보고 싶었다. 호메로스가 아르카디아인들을 노래하면서 아이피토스의 무덤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무덤은 그리 크지 않은 흙무더기이며 돌로 된 둥근 기단이 그 둘레를 감싸고 있다. 호메로스는 그보다 더 볼 만한 무덤을 본 적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감탄했을 것이다. 헤파이스토스가 아킬레우스의 방패에 새긴 춤을 다이달로스가 만든 춤에 견준 것도, 그보다 더 뛰어난 솜씨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8.16.4]** 나는 놀라운 무덤들을 여럿 알고 있지만 그중 두 곳을 말하겠다. 하나는 할리카르나소스에, 다른 하나는 히브리인들의 땅에 있다. 할리카르나소스의 무덤은 그 도시의 왕 마우솔로스를 위해 세웠다. 크기가 엄청나고 온갖 장식이 뛰어나서 로마인들은 이 무덤에 크게 감탄하여 자기 땅의 훌륭한 무덤들도 '마우솔레움'이라 부른다.

**[8.16.5]** 히브리인들에게는 그곳 출신의 여인 헬레나의 무덤이 있다. 로마 황제가 완전히 허물어 버린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이다. 무덤에는 장치가 있어, 무덤 전체와 마찬가지로 돌로 만든 문이 해가 돌아와 같은 날 같은 시각이 되기 전에는 열리지 않는다. 그때가 되면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장치가 문을 열며, 잠깐 뒤에는 문이 저절로 닫힌다. 그 시각에는 그렇게 되지만 다른 때에 문을 열려고 하면 열 수 없다. 힘으로는 부술 수 있을 뿐 문을 열 수는 없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7장

**[8.17.1]** 아이피토스의 무덤을 지나면 아르카디아에서 가장 높은 산인 킬레네에 이른다. 그 꼭대기에는 킬레네의 헤르메스에게 바친 낡은 신전이 있다. 엘라토스의 아들 킬렌에게서 산의 이름도, 신의 별칭도 나왔음이 분명하다.

**[8.17.2]** 내가 알아본 바로는 옛사람들이 목상을 만들 때 쓴 나무는 흑단, 사이프러스, 삼나무, 참나무, 주목, 로토스였다. 그러나 킬레네 헤르메스의 상은 이 가운데 어느 나무로도 만들지 않았다. 향나무로 만들었으며, 내가 짐작하기에 높이는 약 8푸스다.

**[8.17.3]** 킬레네에서는 또 이런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다. 산에 사는 지빠귀들은 온통 흰색이다. 보이오티아인들이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새는 이와 종류가 조금 다르며 지저귀지 않는다. '백조독수리'라 불리는 독수리들도 알고 있다. 빛깔이 백조처럼 희다. 나는 시필로스산에서 탄탈로스의 호수라는 곳 둘레에 사는 그 새들을 보았다. 흰 멧돼지와 트라키아의 흰 곰을 개인이 손에 넣은 일도 알려져 있다.

**[8.17.4]** 리비아에서는 흰 산토끼가 나며, 나는 로마에서 흰 사슴을 보고 크게 놀랐다. 다만 어느 대륙이나 섬에서 가져왔는지 물어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 킬레네의 지빠귀 빛깔에 관한 말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이런 몇 가지 일을 덧붙였다.

**[8.17.5]** 킬레네에 이어 켈리도레아라는 산이 있다. 헤르메스가 그곳에서 거북을 발견하고 등딱지를 벗겨 리라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곳은 페네오스와 펠레네의 경계이며, 켈리도레아산의 대부분에는 아카이아인들이 산다.

**[8.17.6]** 페네오스에서 서쪽으로 가면 왼쪽 길은 클레이토르로, 오른쪽 길은 노나크리스와 스틱스의 물로 이어진다. 노나크리스는 옛날 아르카디아인들의 도시로, 리카온의 아내에게서 이름을 얻었다. 내가 찾아갔을 때는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마저도 대부분이 묻혀 있었다. 폐허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높은 벼랑이 있다. 내가 아는 한 그보다 높이 솟은 벼랑은 없다. 그리스인들이 '스틱스의 물'이라 부르는 물이 그 벼랑을 타고 흘러내린다.

periegesis.abm.uu.se

## 제18장

**[8.18.1]** 헤시오도스는 『신통기』에서 스틱스가 오케아노스의 딸이며 팔라스의 아내라고 말한다. 이 육각운 시를 헤시오도스의 작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리노스도 시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내가 읽어 보니 그 시는 전혀 그의 것이 아닌 듯했다.

**[8.18.2]** 크레타의 에피메니데스 역시 스틱스를 오케아노스의 딸이라고 했다. 다만 팔라스의 아내가 아니라 페이라스에게 에키드나를 낳아 준 여인으로 그렸는데, 페이라스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시에 스틱스라는 이름을 가장 자주 넣은 이는 호메로스다. 그는 헤라가 맹세하는 대목에서 이렇게 말했다.

> 이제 대지와 그 위의 드넓은 하늘이 증인이 되기를,
> 아래로 흘러내리는 스틱스의 물도 증인이 되기를.

이 시구를 보면 시인은 스틱스의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직접 본 듯하다. 또 구네우스를 따라온 사람들을 열거하는 곳에서는 티타레시오스강의 물이 스틱스에서 온다고 했다.

**[8.18.3]** 호메로스는 스틱스를 하데스에 있는 강으로도 그린다. 아테나는 에우리스테우스가 부과한 노역을 헤라클레스가 치르는 동안 자신 덕분에 제우스가 그를 무사히 지킬 수 있었음을 제우스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 문지기 하데스에게 그를 보내
> 에레보스에서 가증스러운 하데스의 개를 끌어내게 했을 때,

> 내가 영리한 마음으로 이 일을 미리 알았더라면,
> 그는 스틱스강의 가파른 물줄기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으리라.

**[8.18.4]** 노나크리스 곁의 벼랑을 타고 흐르는 물은 먼저 높은 바위 위에 떨어지고, 바위를 뚫고 지나 크라티스강으로 내려간다. 이 물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죽게 한다. 맨 처음 이 물을 마신 염소들까지 죽었다고 한다. 뒤에야 사람들은 이 물의 온갖 기이한 성질을 알게 되었다.

**[8.18.5]** 유리와 수정, 무리네 그릇, 사람이 돌로 만든 다른 물건, 그리고 토기는 모두 스틱스의 물에 깨진다. 뿔과 뼈로 만든 물건은 물론 철, 청동, 납, 주석, 은, 엘렉트룸도 이 물에 부식된다. 금도 다른 금속과 마찬가지로 상한다. 금에 녹이 슬지 않는다는 것은 레스보스의 여류 시인도 증언했고 금 자체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 말이다.

**[8.18.6]** 이처럼 신은 가장 보잘것없는 것들에 훨씬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제압할 힘을 주었다. 진주는 식초에 녹고, 돌 가운데 가장 단단한 아다마스는 숫염소의 피에 녹는다. 스틱스의 물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말발굽뿐이다. 발굽에 물을 부으면 그 안에 담기며 발굽도 깨지지 않는다.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이 독 때문에 죽었는지는 나도 확실히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안다.

**[8.18.7]** 노나크리스 위쪽에는 아로아니아산맥이 있고 그 안에 동굴이 하나 있다. 전설에 따르면 프로이토스의 딸들은 광기에 사로잡혔을 때 이 동굴로 달아났다. 멜람푸스는 비밀스러운 제사와 정결 의식을 거쳐 그들을 루소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내려왔다. 아로아니아산맥의 대부분은 페네오스에 속하지만 루소이는 클레이토르의 경계 안에 있다.

**[8.18.8]** 루소이는 한때 도시였다고 한다. 암픽티온들이 연 제11회 피티아 경기에서 아게시라스가 말 경주에 우승했을 때, 그를 루소이 사람이라고 공표했다. 그러나 내가 갔을 때에는 루소이의 폐허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멜람푸스가 루소이로 데리고 내려온 프로이토스의 딸들은 아르테미스의 성소에서 광기가 나았다. 그래서 클레이토르인들은 이 아르테미스를 '진정시키는 이'라는 뜻의 헤메라시아라고 부른다. periegesis.abm.uu.se

## 제19장

**[8.19.1]** 아르카디아인들 가운데에는 키나이타이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올림피아에 두 손에 각각 벼락을 든 제우스상을 봉헌한 이들이다. 이 키나이타이인들은 루소이에서 40스타디온 넘게 떨어진 곳에 산다. 그들의 아고라에는 여러 신의 제단과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상이 세워져 있다.

**[8.19.2]** 이곳에서 가장 기록할 만한 것은 디오니소스의 성소다. 그들은 겨울에 그를 기리는 축제를 연다. 그때 몸에 기름을 바른 남자들이 소 떼 가운데서 신이 마음으로 일러 준 수소 한 마리를 들어 올려 성소로 나른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지낸다. 도시에서 약 2스타디온 떨어진 곳에는 찬물이 솟는 샘이 있고, 그 위에는 플라타너스가 자란다.

**[8.19.3]** 광견에게 물려 상처를 입거나 그 밖의 위험에 처한 사람은 이 물을 마시면 낫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샘을 '광기를 고치는 물'이라는 뜻의 알리소스라 부른다. 이렇게 보

면 아르카디아인들에게 페네오스 가까이의 스틱스 물은 사람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고, 키나이타이인들의 샘은 그 재앙에 맞서는 이로운 물인 셈이다.

[8.19.4] 페네오스에서 서쪽으로 나가는 길들 가운데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은 왼쪽 길이다. 이 길은 클레이토르로 이어지며, 아로아니오스강의 물길을 내려 헤라클레스가 만든 수로 옆을 지난다. 길은 수로를 따라 리쿠리아라 하는 곳으로 내려간다. 그곳이 페네오스와 클레이토르의 경계다. periegesis.abm.uu.se

## 제20장

[8.20.1] 리쿠리아에서 약 50스타디온을 더 가면 라돈강의 발원지에 이른다. 페네오스 땅에 호수를 이루는 물이 산속의 틈으로 내려갔다가 여기서 솟아 라돈강의 근원이 된다고 들었다. 그 말이 사실인지는 확언할 수 없다. 라돈강은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이며, 시인들이 노래하는 다프네의 이야기로도 이름이 높다.

[8.20.2] 오론테스강가에 사는 시리아인들의 이야기는 접어 두고, 아르카디아인들과 엘리스인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하겠다. 피사의 왕 오이노마오스에게는 레우키포스라는 아들이 있었다. 레우키포스는 다프네를 사랑했으나, 다프네가 남자라면 누구든 피했으므로 드러내 놓고 구혼해서는 아내로 맞을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에게 다가갈 꾀를 생각해 냈다. 당시 레우키포스는 알페이오스강에 바치려고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고 있었다.

[8.20.3] 그는 처녀처럼 머리를 땋고 여자의 옷을 입은 채 다프네를 찾아갔다. 자기는 오이노마오스의 딸로, 그녀와 함께 사냥하고 싶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를 처녀로 여겼다. 그는 가문의 고귀함과 사냥 솜씨에서 다른 처녀들보다 뛰어났고, 다프네에게도 지극히 정성을 들였다. 그리하여 다프네와 깊은 우정을 맺었다.

[8.20.4] 아폴론이 다프네를 사랑한 일을 노래하는 시인들은 이야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 아폴론은 레우키포스가 다프네의 마음을 얻은 것을 시샘했다는 것이다. 마침 다프네와 다른 처녀들은 라돈강에서 헤엄치고 싶어졌다. 레우키포스가 꺼렸으나 그들은 억지로 그의 옷을 벗겼다. 그가 처녀가 아님을 알아차리자 투창과 단검으로 그를 죽였다.

periegesis.abm.uu.se

## 제21장

[8.21.1] 이야기는 이와 같다. 라돈강의 발원지에서 클레이토르까지는 60스타디온이다. 발원지에서부터 아로아니오스강을 따라 좁은 골짜기로 길이 나 있다. 도시 가까이에 이르면 클레이토르라는 강을 건넌다. 이 강은 도시에서 7스타디온이 채 안 되는 곳에서 아로아니오스강으로 흘러든다.

[8.21.2] 아로아니오스강에 사는 여러 물고기 가운데 '얼룩 물고기'라 불리는 것이 있다. 이 물고기는 지빠귀와 비슷한 소리로 운다고 한다. 나는 잡아 놓은 물고기를 보았으나 그 울음소리를 듣지는 못했다. 물고기가 가장 많이 운다고 하는 해 질 무렵까지 강가에서 기다렸는데도 그랬다.

**[8.21.3]** 클레이토르는 아잔의 아들에게서 이름을 얻었다. 도시는 평탄한 곳에 자리 잡고 높지 않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다. 클레이토르인들의 가장 이름난 성소는 데메테르와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소이며, 셋째는 에일레이티이아의 성소다. 〔…〕 그 여신들이 몇인지 수를 정하지 않았다. 그보다 앞선 시대의 뤼키아 시인 올렌은 델로스인들을 위해 여러 찬가를 지었는데, 그 가운데 에일레이티이아에게 바친 것도 있다. 그는 여신을 '실을 잘 잣는 이'라는 뜻의 에울리노스라 부른다. 여신을 운명의 여신과 같은 존재로 본 것이 분명하다. 그는 또 에일레이티이아가 크로노스보다 나이가 많다고 한다.

**[8.21.4]** 클레이토르에는 도시에서 약 4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디오스쿠로이의 성소도 있다. 이곳에서는 그들을 '위대한 신들'이라 부르며, 청동으로 만든 두 신의 상도 있다. 도시에서 30스타디온 떨어진 산꼭대기에는 코리아 아테나의 신전과 여신상이 세워져 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2장

**[8.22.1]** 이제 스팀팔로스와 그곳의 경계로 이야기의 길을 돌리겠다. 페네오스와 스팀팔로스 사이의 경계를 게론테이온이라 부른다. 스팀팔로스인들은 이제 아르카디아인들에 속하지 않고 아르고스 연맹에 속한다. 그들이 자진하여 옮겨 간 것이다. 그러나 혈통으로 아르카디아인이라는 것은 호메로스의 시가 증언한다. 그들의 도시를 세운 스팀팔로스도 칼리스토의 아들 아르카스의 손자였다. 처음 도시는 오늘날의 도시와 다른 자리에 세워졌다고 한다.

**[8.22.2]** 전설에 따르면 옛 스팀팔로스에는 펠라스고스의 아들 테메노스가 살았다. 헤라를 기른 이가 테메노스였으며, 그는 여신의 성소를 세 곳에 마련하고 여신에게 세 가지 이름을 붙였다. 아직 처녀였을 때에는 '처녀'라 했고, 제우스와 혼인한 뒤에는 '성숙한 여인'이라는 뜻의 텔레이아라 했다. 무슨 까닭인지 제우스와 다투고 스팀팔로스로 돌아왔을 때에는 '과부'라 불렀다. 내가 알기로 스팀팔로스인들은 여신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8.22.3]** 오늘날의 도시에는 이 성소들이 하나도 없다. 내가 본 것 가운데 기록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스팀팔로스 땅에는 샘이 있는데,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 샘의 물을 코린토스로 끌어갔다. 겨울이면 샘물이 스팀팔로스에서 작은 호수를 이루고, 그 호수에서 스팀팔로스강이 흘러나온다. 여름에는 호수가 없고 강물이 곧바로 샘에서 나온다. 이 강은 땅속의 틈으로 들어갔다가 아르골리스에서 다시 나타난다. 거기서는 이름이 바뀌어 스팀팔로스가 아니라 에라시노스라 불린다.

**[8.22.4]** 스팀팔로스의 물에는 한때 사람을 잡아먹는 새들이 번식했으며, 헤라클레스가 그 새들을 활로 쏘아 죽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러나 카미로스의 페이산드로스는 헤라클레스가 새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딸랑이 소리로 쫓아 버렸다고 한다. 아라비아의 사막에는 다른 들짐승들과 함께 스팀팔로스 새라 불리는 새들이 산다. 사람을 대하는 사나움이 사자나 표범에 뒤지지 않는다.

**[8.22.5]** 이 새들은 자기를 사냥하러 오는 사람에게 날아들어 부리로 상처를 입히고 죽인다. 사람이 청동이나 철로 된 갑옷을 입어도 새가 뚫어 버린다. 하지만 두꺼운 코르크로 옷을 짜 입으면 새의 부리가 그 옷에 걸린다. 작은 새들의 날개가 새잡이 끈끈이에 달라붙는 것과 같다. 이 새들의 크기는 두루미만 하며 생김새는 따오기와 비슷하다. 다만 부리는 따오기보다 강하고 따오기처럼 굽어 있지 않다.

**[8.22.6]** 오늘날 아라비아에 사는 새들은 옛날 아르카디아의 새들과 이름이 같지만, 같은 종류인지는 나도 모른다. 다만 매와 독수리가 예부터 있었듯 스팀팔로스 새도 예부터 있었다면, 나는 이 새가 아라비아에서 처음 생겼다고 보겠다. 그중 한 무리가 어느 때에 아르카디아로 날아와 스팀팔로스에 이르렀을 수 있다. 아라비아인들은 본래 이 새들을 스팀팔로스 새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렀을 것이다. 그러나 헤라클레스의 명성과 이방인들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우세 때문에, 오늘날에도 아라비아 사막의 새가 스팀팔로스 새라 불린다.

**[8.22.7]** 스팀팔로스에는 스팀팔로스의 아르테미스를 모신 오래된 성소도 있다. 그 신상은 목상이며 대부분에 금을 입혔다. 신전 지붕 가까이에는 다른 조각들과 더불어 스팀팔로스 새들을 새겨 놓았다. 나무에 새겼는지 석고에 새겼는지 똑똑히 알아보기 어려웠으나, 내가 살펴본 바로는 석고보다는 나무인 듯했다. 신전 뒤에는 흰 대리석으로 만든 처녀상들이 서 있는데, 그 다리는 새의 다리다.

**[8.22.8]** 우리 시대에도 다음과 같은 이적이 일어났다고 한다. 스팀팔로스에서 스팀팔로스 아르테미스의 축제를 소홀히 치르면서 전해 내려오는 의례를 여러모로 어겼다. 그러자 강물이 빠져드는 틈의 입구에 통나무가 떨어져 물이 빠져나가지 못했다. 사람들 말에 따르면 들판은 400스타디온에 걸쳐 호수가 되었다.

**[8.22.9]** 또 사냥꾼 하나가 사슴을 뒤쫓았는데, 사슴이 달아나다 늪으로 뛰어들었다고 한다. 사냥에 열중한 사냥꾼은 사슴을 따라 헤엄쳤다. 땅속의 틈은 사슴과 그 뒤를 쫓던 사람을 함께 삼켰다. 강물도 그들을 따라 빠져나갔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스팀팔로스의 들판을 덮었던 물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 뒤 사람들은 아르테미스의 축제를 한층 정성껏 지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3장

**[8.23.1]** 스팀팔로스 다음은 알레아다. 이곳도 아르고스 연맹에 속하며, 시민들은 아페이다스의 아들 알레우스를 도시의 창건자로 꼽는다. 이곳에는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와 알레아 아테나의 성소가 있고, 신상을 둔 디오니소스의 신전도 있다. 그들은 한 해 걸러 한 번씩 디오니소스를 기려 스키에레이아라는 축제를 연다. 이 축제에서는 델포이의 응답에 따라 여자들을 채찍질한다. 스파르타의 소년들을 오르티아 여신의 신상 곁에서 채찍질하는 것과 같다.

**[8.23.2]** 오르코메노스를 다룰 때 곧은 길이 처음에는 협곡을 끼고 나 있다가, 그 뒤에는 고여 있는 물의 왼편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카피아이의 평야에는 흙으로 둑을 쌓아 오르코메노스에서 오는 물이 카피아이의 경작지에 피해를 주지 못하게 했다. 둑 안쪽으로는 강이라 부를 만한 크기의 다른 물줄기가 흐른다. 이 물은 땅의 갈라진 틈으로 내려갔다가 나

시라는 곳에서 다시 솟는다. 물이 다시 나오는 자리는 레우누스라 부르며, 이곳부터는 트라고스라는 마르지 않는 강을 이룬다.

**[8.23.3]** 도시 이름은 알레우스의 아들 케페우스에게서 나왔음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남은 형태는 아르카디아 방언인 카피아이다. 주민들은 자기들이 본래 아티카에서 왔다고 한다. 아이게우스에게 아테나이에서 쫓겨나 아르카디아로 달아났고, 케페우스에게 보호를 청해 그 땅에 정착했다는 것이다. 도시는 높지 않은 산들의 기슭, 평야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 카피아이인들에게는 포세이돈의 성소와 크나칼레시아라는 별칭의 아르테미스 성소가 있다.

**[8.23.4]** 그들에게는 크나칼로스라 부르는 산도 있다. 해마다 그 산에서 자기들의 아르테미스를 기리는 비의를 거행한다. 도시를 조금 지나면 샘이 하나 있고, 그 곁에 크고 아름다운 플라타너스가 자란다. 그들은 이 나무를 메넬라이스라 부른다. 메넬라오스가 트로이를 칠 군대를 모으다가 이곳에 와서 샘가에 심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나무와 샘을 모두 메넬라이스라고 부른다.

**[8.23.5]** 지금도 살아서 자라는 이런 나무들의 나이를 그리스인들의 전승에 따라 따져 보면, 가장 오래된 것은 사모스의 헤라 성소에 자라는 순결나무다. 그 다음은 도도나의 참나무와 아크로폴리스의 올리브나무와 델로스의 올리브나무다. 시리아인들은 자기 나라에 있는 월계수가 나이로 셋째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 밖의 나무 중에서는 이 플라타너스가 가장 오래되었다.

**[8.23.6]** 카피아이에서 약 1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콘딜레아라는 곳이 있다. 아르테미스의 숲과 신전이 있으며, 여신은 옛날에 콘딜레아티스라 불렸다. 여신의 이름은 다음과 같은 까닭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몇 명인지는 전하지 않으나, 아이들이 성소 근처에서 놀다가 밧줄을 하나 발견했다. 아이들은 밧줄을 신상의 목에 감고 아르테미스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말했다.

**[8.23.7]** 카피아이인들은 아이들이 한 일을 알아차리고 아이들을 돌로 쳐 죽였다. 그러자 여자들에게 재앙이 닥쳐 아이들을 사산했다. 마침내 피티아 여사제가 아이들을 묻고 해마다 영웅에게 제사 지내듯 그들에게 제사 지내라고 명했다. 부당하게 죽은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카피아이인들은 오늘날에도 이 신탁을 따른다. 콘딜레아의 여신을 그날부터 지금까지 ‘목 졸린 여신’이라 부르는데, 그것도 신탁이 시킨 일이라고 한다.

**[8.23.8]** 카피아이에서 약 7스타디온을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나시라 부르는 곳에 이른다. 거기서 50스타디온을 더 가면 라돈강이다. 강을 건너고 아르게아타이, 리쿤테스라 부르는 곳, 스코타네를 지나면 소론이라는 참나무 숲에 닿는다. 프소피스로 가는 길은 소론을 지나간다.

**[8.23.9]** 아르카디아의 다른 참나무 숲처럼 이곳에도 멧돼지와 곰과 아주 큰 거북이 산다. 이 거북으로는 인도 거북으로 만든 것에 뒤지지 않는 리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소론의 끝에는 파오스 마을의 폐허가 있으며, 조금 더 가면 세이라이라 부르는 곳이 있다. 이 세이라이가 클레이토르와 프소피스의 경계다. periegesis.abm.uu.se

## 제24장

**[8.24.1]** 어떤 이들에 따르면 프소피스의 창건자는 프소피스라는 남자였다. 그는 아론의 아들이었다. 아론의 아버지는 에리만토스, 그 위로 아리스타스, 파르타온, 페리페테스, 닉티모스가 차례로 이어진다. 다른 이들은 프소피스가 크산토스의 딸이었다고 한다. 크산토스는 에리만토스의 아들로 아르카스의 손자였다. 이것이 아르카디아인들이 자기들의 왕가에 관해 전하는 이야기다.

**[8.24.2]** 그러나 가장 정확한 이야기는 이러하다. 시카니아의 지배자 에릭스에게 프소피스라는 딸이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그녀와 관계를 맺었으나 자기 집에 데려가지는 않았다. 아이를 밴 그녀를 페기아에 사는 친구 리코르타스에게 맡겼다. 페기아는 페게우스가 다스리기 전에는 에리만토스라 불리던 도시다. 헤라클레스와 그 시카니아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에케프론과 프로마코스는 이곳에서 자랐다. 그들은 페기아를 어머니의 이름을 따 프소피스라 바꾸어 불렀다.

**[8.24.3]** 자킨토스섬의 아크로폴리스도 프소피스라 부른다. 그 섬에 처음 배를 타고 건너가 도시를 세운 이가 프소피스 사람인 다르다노스의 아들 자킨토스였기 때문이다. 세이라이에서 프소피스까지는 30스타디온이다. 프소피스 곁으로 아로아니오스강이 흐르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에리만토스강이 흐른다.

**[8.24.4]** 에리만토스강은 람페이아산에서 발원한다. 이 산은 판에게 바쳐진 산이라고 한다. 람페이아를 에리만토스산의 일부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호메로스는 타이게토스와 에리만토스에서 〔…〕 사냥한다고 노래했다. 〔…〕 에리만토스강은 람페이아에서 나와 아르카디아를 지나고, 오른쪽에 폴로에산을, 왼쪽에 텔푸사 땅을 두고 흐르다가 알페이오스강으로 들어간다.

**[8.24.5]** 헤라클레스가 에우리스테우스의 명령으로 에리만토스강가에서 다른 모든 멧돼지를 크기와 힘에서 능가하는 멧돼지를 사냥했다는 전설도 있다. 오피코이족 가운데 사는 키메인들은 자기들의 아폴론 성소에 봉헌된 멧돼지 엄니가 바로 에리만토스의 멧돼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말은 조금도 그럴듯하지 않다.

**[8.24.6]** 프소피스에는 에리키네라는 별칭의 아프로디테 성소가 있다. 내가 보았을 때는 폐허만 남아 있었다. 주민들은 프소피스의 아들들이 그 성소를 세웠다고 말했다. 그럴듯한 이야기다. 시칠리아의 에릭스 땅에도 에리키네의 성소가 있는데, 아주 먼 옛날부터 지극히 신성한 곳이었고 재물에서도 파포스의 성소에 뒤지지 않는다.

**[8.24.7]** 프소피스의 아들 프로마코스와 에케프론의 영웅 성소는 내가 보았을 때 이미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다. 암피아라오스의 아들 알크마이온도 프소피스에 묻혀 있다. 그의 무덤은 크기나 장식 어느 쪽으로도 두드러지는 건축물이 아니다. 그 둘레에는 사이프러스들이 자라는데, 어찌나 높이 자랐던지 프소피스 곁의 산에도 그늘이 졌다. 주민들은 그 나무들이 알크마이온에게 바쳐진 것이라 여겨 베지 않는다.

**[8.24.8]** 주민들은 그 나무들을 ‘처녀들’이라 부른다. 알크마이온은 어머니를 죽인 뒤 아르고스에서 달아나 프소피스로 왔다. 그곳은 아직 페게우스의 이름을 따 페기아라 불렸다.

그는 페게우스의 딸 알페시보이아와 혼인했으며, 그녀에게 준 선물 가운데는 그 목걸이도 있었다. 아르카디아인들 사이에 사는 동안 병이 조금도 낫지 않자 그는 델포이에서 신탁을 구했다. 피티아 여사제는 에리필레의 복수의 영이 그를 따라오지 못하는 땅은 가장 새로 생긴 땅뿐이라고 알려 주었다. 그가 어머니를 죽여 부정을 탄 뒤에야 바다에서 드러난 땅이어야 했다.

**[8.24.9]** 알크마이온은 아켈로오스강의 퇴적물이 이룬 땅을 찾아 그곳에 정착했다. 그는 칼리로에를 아내로 맞았다. 아카르나니아인들은 그녀가 아켈로오스의 딸이라고 한다. 그에게는 아카르난과 암포테로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전하는 말로는 본토의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의 이름을 이 아카르난에게서 얻었다. 그전에는 쿠레테스라 불렸다. 분별없는 욕망은 많은 남자를 파멸시키며, 여자는 그보다 더 많이 파멸시킨다.

**[8.24.10]** 칼리로에는 에리필레의 목걸이를 갖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내키지 않아 하는 알크마이온을 페기아로 보냈다. 페게우스의 아들 테메노스와 악시온은 속임수를 써서 그를 죽였다. 페게우스의 아들들은 그 목걸이를 델포이의 신에게 봉헌했다고 한다. 그리스인들이 트로이로 원정을 떠났을 때 두 사람은 아직 페기아라 불리던 이 도시의 왕이었다고 한다. 프소피스인들은 자기들이 그 원정에 참가하지 않은 까닭을 이렇게 설명한다. 아르고스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알크마이온의 친족으로 그와 함께 테바이를 원정한 사람들이었으므로, 프소피스의 왕들을 적대했다는 것이다.

**[8.24.11]** 아켈로오스강이 아직 에키나데스 제도를 육지로 바꾸지 못한 것은 아이톨리아인들의 사정 때문이다. 그들은 고향에서 쫓겨났고 온 땅이 황폐해졌다. 아이톨리아의 땅을 갈지 않으므로 아켈로오스강은 경작할 때만큼 많은 진흙을 에키나데스 제도로 실어 나르지 않는다. 마이안드로스강의 경우가 내 생각을 뒷받침한다. 이 강은 해마다 밭을 가는 프리기아인들과 카리아인들의 땅을 흘러, 한때 프리에네와 밀레토스 사이에 있던 바다를 짧은 기간에 육지로 바꾸었다.

**[8.24.12]** 프소피스인들은 에리만토스강가에 에리만토스의 신전과 신상도 두었다. 이집트의 나일강을 제외하면 모든 강의 신상은 흰 대리석으로 만든다. 나일강은 아이티오피아를 지나 바다로 내려오므로 그 신상을 검은 돌로 만드는 것이 관례다.

**[8.24.13]** 나는 프소피스에서 리디아의 크로이소스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프소피스 사람 아글라오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는 말이었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8.24.14]** 어떤 사람이 같은 시대 사람들보다 불행을 적게 겪을 수는 있다. 어떤 배가 다른 배보다 폭풍에 덜 시달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불행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이나 역풍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배는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호메로스도 제우스 곁에 좋은 것들이 든 항아리 하나와 나쁜 것들이 든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다고 노래한다. 델포이의 신에게서 배운 것이다. 신은 일찍이 호메로스 자신을 두고, 태어날 때부터 두 운명을 다 타고났으므로 불행한 이이자 복 받은 이라고 선언한 적이 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5장

**[8.25.1]** 프소피스에서 텔푸사로 가면 먼저 라돈강 왼쪽에 있는 트로파이아라는 곳에 이르고, 그 곁에는 아프로디시온이라 부르는 숲이 있다. 세 번째로는 석판에 새긴 옛 글이 나온다. '프소피스와 텔푸사의 경계.' 텔푸사 땅에는 '수컷'이라는 뜻의 아르센이라는 강이 있다. 이 강을 건너 약 25스타디온을 더 가면 카우스 마을의 폐허에 이른다. 길가에 카우스의 아스클레피오스를 모신 성소가 세워져 있다.

**[8.25.2]** 이 성소에서 텔푸사까지는 약 40스타디온이다. 텔푸사는 라돈의 딸인 님프 텔푸사에게서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라돈강은 앞서 이야기했듯 클레이토르 땅 안의 샘들에서 발원한다. 처음에는 레우카시온이라는 곳과 메소보아 곁을 흐른다. 이어 나시를 지나 할루스라고도 부르는 오릭스에 이르고, 할루스에서 탈리아데스와 엘레우시스의 데메테르 성소로 내려간다.

**[8.25.3]** 이 성소는 텔푸사의 경계에 있다. 안에는 데메테르와 그 딸과 디오니소스의 신상이 있다. 셋 다 돌로 만들었으며 높이가 각각 7푸스 이상이다. 엘레우시스 여신의 성소를 지나면 라돈강은 왼쪽에 텔푸사 시를 두고 흐른다. 도시는 높은 언덕에 있다. 오늘날에는 하도 황폐하여, 처음에는 도성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아고라가 이제는 도시 끝에 놓이게 되었다. 텔푸사에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과 열두 신의 성소가 있다. 내가 찾아갔을 때 성소의 대부분은 무너져 지면과 같은 높이가 되어 있었다.

**[8.25.4]** 텔푸사를 지나 라돈강은 온케이온의 데메테르 성소로 내려간다. 텔푸사인들은 이 여신을 '분노하는 여신'이라는 뜻의 에리니스라 부른다. 아르고스인들의 테바이 원정을 시로 쓴 안티마코스도 그들과 같은 이름을 쓴다.

> 그곳에 에리니스 데메테르의 거처가 있다고 한다.

전승에 따르면 온키오스는 아폴론의 아들로, 텔푸사 땅에서 온케이온이라 부르는 곳 일대를 다스렸다. 여신이 에리니스라는 별칭을 얻은 까닭은 다음과 같다.

**[8.25.5]** 데메테르가 딸을 찾아 떠돌 때 포세이돈이 그녀를 욕망하여 뒤따랐다고 한다. 그래서 데메테르는 암말로 변해 온키오스의 암말들과 함께 풀을 뜯었다고 한다. 포세이돈은 속았다는 것을 알아채자 자신도 수말로 변해 데메테르와 관계를 맺었다.

**[8.25.6]** 데메테르는 처음에는 이 일에 분노했으나, 나중에는 노여움을 거두고 라돈강에서 몸을 씻고자 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신은 두 가지 별칭을 얻었다. 하나는 복수하려는 분노에서 나온 에리니스다. 아르카디아인들은 화를 내는 것을 '분노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의 말로 부른다. 다른 하나는 라돈강에서 몸을 씻었다 해서 붙은 '목욕하는 이'라는 뜻의 루시아다. 신전의 두 신상은 나무로 만들었고 얼굴과 손과 발은 파로스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8.25.7]** 에리니스의 상은 이른바 신성한 상자를 들고, 오른손에는 횃불을 쥐고 있다. 높이는 내가 짐작하기에 9푸스다. 루시아 상은 높이가 6푸스쯤 되어 보였다. 이 상이 루시아 데메테르가 아니라 테미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의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혀 둔다. 전하는 말로는 데메테르가 포세이돈에게서 딸 하나와 아레이온이라는 말을 낳

았다. 그 딸의 이름을 입문하지 않은 이들에게 밝히는 것은 그들의 관습에 어긋난다. 이 때문에 텔푸사인들은 아르카디아인 가운데 자기들이 맨 먼저 포세이돈을 '말의 신'이라 불렀다고 한다.

**[8.25.8]** 그들은 자기들 이야기의 증거로 『일리아스』와 『테바이 이야기』의 시구를 인용한다. 『일리아스』에는 아레이온을 두고 이렇게 노래한 구절이 있다.

> 뒤에서 신과 같은 아레이온을 몰고 온다 해도,
> 아드라스토스의 빠른 말, 신들의 혈통을 타고난 그 말을 몬다 해도.

『테바이 이야기』에서는 아드라스토스가 테바이에서 이렇게 달아났다고 한다.

> 남루한 옷을 걸치고, 검은 갈기의 아레이온과 함께.

텔푸사인들은 이 시구들이 아레이온의 아버지가 포세이돈임을 넌지시 말해 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티마코스는 대지가 그 말의 어머니라고 한다.

**[8.25.9]**

> 크레테우스의 후손 탈라오스의 아들 아드라스토스는
> 다나오스의 백성 가운데 으뜸으로 이름난 두 말을 몰았다.
> 날쌘 카이로스와 텔푸사의 아레이온을.
> 온카이오스 아폴론의 숲 가까이에서 대지 자신이 아레이온을 솟아나게 했으니,
> 죽을 운명의 사람들이 보고 놀랄 만한 것이었다.

**[8.25.10]** 말이 대지에서 태어났다 해도 신의 혈통일 수 있으며, 털빛 역시 검을 수 있다. 또 전설에 따르면 헤라클레스는 엘리스와 전쟁할 때 온코스에게 그 말을 청했다. 엘리스를 차지할 때 헤라클레스가 타고 싸운 말이 아레이온이었다. 뒤에 헤라클레스는 그 말을 아드라스토스에게 주었다. 그래서 안티마코스는 아레이온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 아드라스토스는 그를 길들인 세 번째 주인이었다.

**[8.25.11]** 라돈강은 에리니스의 성소를 왼쪽으로 지나고, 온카이아테스 아폴론의 신전도 왼쪽에 두고 흐른다. 오른쪽에는 '아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소가 있다. 거기에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유모였다는 트리곤의 무덤이 있다. 그들의 이야기로는 어린 아스클레피오스가 텔푸사에 버려졌을 때 아르카스가 혼인 밖에서 얻은 아들 아우톨라오스가 우연히 아기를 발견해 거두었다. 그 때문에 '아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 한다는 것이다. 내게는 에피다우로스를 다룰 때 이미 밝혀 둔 이야기가 더 그럴듯하다.

**[8.25.12]** 투토아라는 강도 있다. 이 강은 텔푸사와 헤라이아의 경계에서 라돈강으로 들어간다. 아르카디아인들은 이곳을 '들판'이라 부른다. 라돈강 자체가 알페이오스강으로 들어가는 곳에는 '까마귀들의 섬'이라 부르는 섬이 있다. 호메로스가 열거한 에니스페, 스트라티에, 리페가 한때 사람들이 살던 라돈강의 섬들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다. 나는 그들이 잘못 믿고 있다고 말하겠다.

**[8.25.13]** 라돈강은 나룻배만 한 크기의 섬조차 만들어 낼 수 없다. 아름다움으로는 그리스의 강이든 이방의 강이든 어느 강에도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스트로스강과 에리다노스

강처럼 물 가운데 섬을 품을 만큼 큰 강은 아니다. periegesis.abm.uu.se

## 제26장

**[8.26.1]** 헤라이아의 창건자는 리카온의 아들 헤라이오스였다. 도시는 알페이오스강 오른쪽에 자리 잡았다. 대부분 완만한 비탈에 놓여 있고, 일부는 알페이오스강 바로 옆까지 내려간다. 강을 따라 산책로를 냈고 도금양과 그 밖의 재배 나무로 길들을 구분했다. 그곳에는 목욕장과 디오니소스의 신전 두 곳도 있다. 한 신전은 '시민'이라는 뜻의 폴리테스 디오니소스에게, 다른 하나는 '번성하게 하는 이'라는 뜻의 아욱시테스 디오니소스에게 바쳤다. 그들은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비의를 거행할 건물도 두었다.

**[8.26.2]** 판은 아르카디아의 토착 신이므로 헤라이아에 그의 신전도 있다. 헤라의 신전에서는 기둥들을 포함하여 여러 폐허가 남아 있는 것을 보았다. 아르카디아의 선수들 가운데 가장 이름난 이는 헤라이아의 다마레토스였다. 그는 올림피아에서 무장을 하고 달리는 경주에 처음으로 우승했다.

**[8.26.3]** 헤라이아에서 엘리스 땅으로 내려가는 길로 약 15스타디온 가면 라돈강을 건넌다. 거기서 에리만토스강까지는 약 20스타디온이다. 아르카디아인들에 따르면 헤라이아와 엘리스 땅의 경계는 에리만토스강이다. 엘리스인들은 코로이보스의 무덤이 자기 땅의 경계라고 한다.

**[8.26.4]** 오랫동안 열리지 않던 올림피아 경기를 이피토스가 되살려 올림피아 축제가 다시 열렸을 때, 상이 걸린 종목은 달리기뿐이었다. 그 경기에서 코로이보스가 이겼다. 그의 무덤에는 코로이보스가 올림피아에서 우승한 첫 사람이며, 무덤은 엘리스 땅의 맨 끝에 마련했다는 비문이 있다.

**[8.26.5]** 알리페라라는 크지 않은 마을이 있다. 아르카디아인들이 메갈로폴리스에 모여 살게 되었을 때 주민 여럿이 이곳을 떠났기 때문이다. 헤라이아에서 이 마을로 가려면 알페이오스강을 건너고, 약 10스타디온에 걸친 평야를 지나 산에 이른다. 그 산을 가로질러 약 30스타디온을 더 올라가면 마을에 닿는다.

**[8.26.6]** 알리페라라는 도시 이름은 리카온의 아들 알리페로스에게서 왔다. 이곳에는 아스클레피오스와 아테나의 성소가 있다. 그들은 아테나가 자기들 가운데서 태어나 자랐다고 하며 어느 신보다도 높이 섬긴다. 아테나를 낳은 곳이 여기라 하여 '해산하는 이'라는 뜻의 레케아테스 제우스에게 제단도 세웠다. 또 트리톤강에 관한 전승을 자기들 고장의 일로 보아 샘 하나를 트리토니스라 부른다.

**[8.26.7]** 아테나의 신상은 청동으로 만들었고, 히파토도로스의 작품이다. 크기와 솜씨가 모두 볼 만하다. 사람들은 어느 신을 기려 공동 축제를 여는데, 내 생각에는 아테나를 위한 축제다. 이 축제에서 그들은 먼저 '파리를 잡는 이'라는 뜻의 미아그로스에게 제사를 지낸다. 제물 위에서 그 영웅에게 기도하며 미아그로스를 부른다. 그렇게 하면 파리가 더는 그들을 괴롭히지 않는다.

**[8.26.8]** 헤라이아에서 메갈로폴리스로 가는 길에는 멜라이네아이가 있다. 리카온의 아들 멜라이네우스가 세운 곳이다. 내가 살던 때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으나 물이 풍부하게 흘렀다. 멜라이네아이에서 40스타디온 위로 가면 부파기온이 있다. 이곳에서 부파고스강이 발원하여 알페이오스강으로 흘러내린다. 부파고스강의 발원지 가까이가 메갈로폴리스와 헤라이아의 경계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7장

**[8.27.1]** 로마의 지배 아래 주민들이 옮겨 살게 된 도시들을 빼면, 메갈로폴리스는 아르카디아뿐 아니라 그리스 전체에서 가장 새로 생긴 도시다. 아르카디아인들은 힘을 키우기 위해 이곳에 모여 한 도시를 이루었다. 그들은 아르고스인들의 경우를 눈여겨보았다. 옛날 아르고스인들은 거의 날마다 라케다이몬인들이 전쟁으로 굴복시킬까 염려했다. 그러나 티린스, 히시아이, 오르네아이, 미케나이, 미데이아와 아르골리스의 다른 작은 마을들을 굴복시켜 아르고스의 인구를 늘린 뒤에는 라케다이몬인들을 덜 두려워하게 되었고, 예속된 이웃들을 다스리는 힘도 커졌다.

**[8.27.2]** 아르카디아인들이 한데 모인 것도 이 방책을 따르려는 것이었다. 이 도시의 창건자는 테바이 사람 에파메이논다스라고 해도 좋다. 아르카디아인들을 불러 모아 한 도시에 살도록 한 사람이 그였기 때문이다. 그는 라케다이몬인들이 통합을 막으려 할 경우 아르카디아인들을 지키도록 팜메네스에게 테바이의 정예병 1천 명을 주어 보냈다. 아르카디아인들이 창건자로 뽑은 이들은 만티네이아의 리코메데스와 호폴레아스, 테게아의 티몬과 프록세노스, 클레이토르의 클레올라오스와 아크리피오스, 마이날로스의 에우캄피다스와 히에로니모스, 파라시아인들의 포시크라테스와 테옥세노스였다.

**[8.27.3]** 아르카디아인들은 이 일에 열성적이었고 라케다이몬인들을 미워했으므로, 고향인 다음 도시들을 떠나기로 했다. 마이날로스 쪽 도시로는 알레아, 팔란티온, 에우타이아, 수메테이온, 아세아, 페라이테이스, 헬리손, 오레스타시온, 디파이아, 리카이아가 있었다. 에우트레시아인들의 도시로는 트리콜로노이, 조에티온, 카리시아, 프톨레데르마, 크나우손, 파로레이아가 있었다.

**[8.27.4]** 아이기타이인들의 도시로는 아이기스, 스키르토니온, 말레아, 크로모이, 블레니나, 레욱트론이 있었다. 파라시아인들의 도시로는 리코수라, 토크니아, 트라페주스, 프로세이스, 아카케시온, 아콘티온, 마카리아, 다세아가 있었다. 아르카디아의 키누리아인들에게서는 고르티스, 리카이온산 곁의 테이소아, 리카이아, 알리페라가, 오르코메노스에 속한 곳들 가운데서는 티소아, 메티드리온, 테우티스가 들어왔다. 이른바 트리폴리스를 이루는 칼리아, 디포이나, 노나크리스도 합류했다.

**[8.27.5]** 아르카디아인들은 대부분 공동으로 내린 결정을 따랐고, 지체하지 않고 메갈로폴리스에 모였다. 그러나 리카이아, 트리콜로노이, 리코수라, 트라페주스의 주민들만은 뒤늦게 후회하여 옛 도시를 버리려 하지 않았다. 마지막에 든 트라페주스를 제외한 주민들은 자기 뜻을 거슬러 강제로 메갈로폴리스에 끌려갔다.

[8.27.6] 트라페주스인들은 격분한 아르카디아인들에게 그 자리에서 학살당한 이들을 제외하고는 펠로폰네소스를 아예 떠났다. 살아남은 이들은 배를 타고 폰토스로 갔다. 에욱세이노스해에 있는 트라페주스의 시민들은 그들이 자기들과 같은 이름을 지녔으며 모도시에서 왔다고 하여 친족으로 맞아들였다. 리코수라 사람들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나, 아르카디아인들은 데메테르와 데스포이나를 생각하여 그들을 살려 주었다. 그들이 두 여신의 성소에 피신했기 때문이다.

[8.27.7] 내가 말한 다른 도시들 가운데 일부는 우리 시대에 완전히 버려졌고, 일부는 메갈로폴리스인들에게 속한 마을로 남아 있다. 고르티스, 디포이나이, 오르코메노스 근처의 테이소아, 메티드리온, 테우티스, 칼리아이, 헬리손이 그 마을들이다. 그중 팔란티온만은 그때에도 더 나은 운명을 맞을 터였다. 알리페라는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도시로 여겨졌다.

[8.27.8] 메갈로폴리스가 하나의 도시로 합쳐진 것은 라케다이몬인들이 레욱트라에서 패한 해와 같은 해로, 그 전투에서 몇 달 뒤였다. 아테나이에서는 프라시클레이데스가 아르콘이었고, 투리오이의 다몬이 달리기에서 우승한 제102회 올림피아기의 둘째 해였다.

[8.27.9] 메갈로폴리스 시민들은 테바이 동맹에 들어간 뒤로 라케다이몬인들을 두려워할 일이 없었다. 그런데 테바이인들이 이른바 신성 전쟁에 휘말렸다. 보이오티아의 이웃 포키스인들이 델포이 성소를 점거해 많은 재물을 손에 넣고 테바이인들을 심하게 몰아붙였다.

[8.27.10] 이때 라케다이몬인들은 뜻대로만 되었다면 메갈로폴리스인들과 나머지 아르카디아인들까지 모조리 쫓아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아르카디아인들이 힘껏 방어했고 그들에게 예속된 이웃들도 온 힘을 다해 도왔으므로, 어느 쪽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아르카디아인들이 라케다이몬인들에게 품은 증오는 아민타스의 아들 필리포스와 마케도니아의 패권이 일어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아르카디아인들은 카이로네이아에서도 그리스인들을 돕지 않았고, 뒤에 테살리아에서 벌어진 싸움에서도 돕지 않았다.

[8.27.11] 얼마 지나지 않아 메갈로폴리스에 아리스토데모스라는 참주가 나타났다. 그는 피갈리아에서 태어난 아르틸라스의 아들로, 메갈로폴리스의 유력한 시민 트리타이오스가 양자로 삼았다. 이 아리스토데모스는 참주였으나 ‘선량한 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가 참주로 있을 때 라케다이몬인들은 클레오메네스 왕의 맏아들 아크로타토스의 지휘 아래 메갈로폴리스 땅에 쳐들어왔다. 클레오메네스의 계보는 다른 모든 스파르타 왕의 계보와 함께 이미 적었다. 격렬한 전투가 일어나 양쪽에서 많은 사람이 쓰러졌고, 메갈로폴리스군이 우세를 거두었다. 스파르타 시민 전사자 중에는 아크로타토스도 있었다. 그는 조상들의 왕위를 이어 보지 못했다.

[8.27.12] 아리스토데모스가 죽고 약 두 세대 뒤에 리디아데스가 참주가 되었다. 이름난 가문 출신으로 본래 큰 뜻을 품은 사람이었고, 뒤에 드러났듯 조국을 진심으로 아꼈다. 아직 젊을 때 권력을 잡았으나, 분별이 드는 나이가 되자 이미 권력을 단단히 굳혔는데도 자진해서 참주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당시 메갈로폴리스는 이미 아카이아 연맹의 일원이었다. 리디아데스는 메갈로폴리스인들뿐 아니라 모든 아카이아인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높아져, 아라토스와 명성을 겨룰 정도였다.

**[8.27.13]** 다른 왕가에 속한 에우다미다스의 아들 아기스 왕이 라케다이몬의 전군을 이끌고 메갈로폴리스를 공격했다. 그 병력은 아크로타토스가 모은 군대보다 더 크고 강했다. 그들은 맞서 나온 메갈로폴리스인들을 전투에서 꺾었다. 이어 강력한 공성 장비를 성벽에 가져다 대고 그곳의 망루를 흔들어 놓았다. 그들은 이튿날 그 장비로 망루를 무너뜨리리라 기대했다.

**[8.27.14]** 그러나 북풍은 페르시아 함대의 대부분을 세피아스의 바위에 내던져 그리스인 전체를 도왔을 뿐 아니라, 메갈로폴리스도 함락에서 구해 주었다. 북풍이 그치지 않고 거세게 불어 아기스의 공성 장비를 부수고 산산이 흩어 버린 것이다. 북풍 때문에 메갈로폴리스를 차지하지 못한 이 아기스는 아라토스가 이끈 시키온인들에게 아카이아의 펠레네를 빼앗겼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뒤에 만티네이아에서 최후를 맞았다.

**[8.27.15]** 얼마 뒤 레오니다스의 아들 클레오메네스가 휴전 중에 메갈로폴리스를 점령했다. 메갈로폴리스인들 가운데 일부는 도시가 함락된 그날 밤 조국을 지키다 곧바로 쓰러졌다. 리디아데스도 그때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했다. 군역을 감당할 나이의 사람 가운데 약 3분의 2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크라우기스의 아들 필로포이멘과 함께 메세니아로 피신했다.

**[8.27.16]** 클레오메네스는 도시 안에서 붙잡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도시를 허물어 불태웠다. 메갈로폴리스인들이 어떻게 도시를 되살렸으며 돌아온 뒤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필로포이멘의 이야기에서 말하겠다. 메갈로폴리스가 겪은 재앙에 라케다이몬 민중은 아무런 책임이 없었다. 클레오메네스가 그들의 정체를 왕정에서 참주정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8.27.17]** 이미 이야기했듯 메갈로폴리스와 헤라이아의 경계는 부파고스강의 발원지에 있다. 강은 이아페토스와 토르낙스의 아들인 영웅 부파고스에게서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라코니아에서도 그 여자를 토르낙스라고 부른다. 부파고스가 아르테미스에게 불경한 짓을 하려 했으므로 여신이 폴로에산에서 그를 활로 쏘았다고도 한다. periegesis.abm.uu.se

## 제28장

**[8.28.1]** 강의 발원지에서 가면 먼저 마라타라는 곳이 나오고, 그다음에 고르티스가 나온다. 고르티스는 오늘날 마을이지만 옛날에는 도시였다. 이곳에는 펜텔리콘 대리석으로 만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으며, 수염이 나지 않은 청년 모습의 아스클레피오스와 건강의 여신 히기에이아의 상이 있다. 스코파스의 작품이다. 주민들은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가슴받이와 창을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봉헌했다고도 한다. 가슴받이와 창날은 지금도 그곳에 있다.

**[8.28.2]** 고르티스를 가로지르는 강이 있다. 발원지 둘레에 사는 이들은 제우스가 태어난 뒤 그 강에서 몸을 씻었다 하여 '씻는 강'이라는 뜻의 루시오스라 부른다. 발원지에서 더 멀리 사는 사람들은 마을 이름을 따 고르티니오스라 부른다. 이 고르티니오스의 물은 어느 강물보다도 차갑다. 이스트로스, 레노스, 히파니스, 보리스테네스처럼 겨울에 물줄기가 얼어붙는 강들은 한 해의 대부분 눈이 쌓이는 땅을 지나고 주변 공기도 서리로 차 있다. 내 생각에는 그런 강을 두고 '겨울 같은 강'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8.28.3]** 내가 물이 차갑다고 하는 강들은 기후 좋은 땅을 흐르며, 여름에는 마시거나 목욕하면 시원하고 겨울에도 물 때문에 괴롭지 않은 강들이다. 타르소스를 가로지르는 키드노스강과 팜필리아의 시데 곁을 흐르는 멜라스강은 그런 뜻에서 물이 차갑다. 콜로폰의 알레스강이 차갑다는 것은 엘레게이아 시인들도 노래했다. 그러나 고르티니오스강은 그 모두보다 물이 차며, 특히 여름에 그러하다. 발원지는 메티드리온과 경계를 맞댄 테이소아다. 이 강이 알페이오스강과 만나는 곳을 라이테아이라 부른다.

**[8.28.4]** 테이소아 땅에 이어 테우티스라는 마을이 있다. 옛날에는 도시였다. 트로이 전쟁 때 이곳 주민들은 독자적으로 지휘관 한 사람을 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이름이 테우티스였다고 하고, 다른 이들은 오르니토스였다고 한다. 그리스인들이 아울리스에서 떠나기에 좋은 바람을 얻지 못하고 거센 바람에 오랫동안 갇혀 있자, 테우티스는 아가멤논과 다투었다. 그는 자신이 지휘하던 아르카디아인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다.

**[8.28.5]** 그때 아테나가 옵스의 아들 멜라스의 모습으로 나타나 테우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말렸다고 한다. 그러나 화가 치민 테우티스는 창으로 여신의 넓적다리를 찔렀고, 결국 아울리스에서 병력을 이끌고 돌아갔다. 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여신은 넓적다리에 상처가 난 모습으로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 뒤 테우티스에게 몸이 쇠약해지는 병이 닥쳤고, 아르카디아인들 가운데 이곳 사람들만은 땅에서 아무런 소출도 얻지 못했다.

**[8.28.6]** 후일 그들은 도도나에서 여신을 달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신탁을 받았다. 특히 아테나의 넓적다리에 상처가 난 모습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나는 그 상을 직접 보았다. 넓적다리를 자주색 천으로 감아 놓았다. 테우티스에는 아프로디테와 아르테미스의 성소도 있다.

**[8.28.7]** 이것이 테우티스에서 기록할 만한 것들이다. 고르티스에서 메갈로폴리스로 가는 길에는 클레오메네스와 싸우다가 죽은 이들의 무덤이 있다. 메갈로폴리스인들은 클레오메네스가 그들과 맺은 휴전을 어겼으므로 이 무덤을 '위반'이라는 뜻의 파라이바시스라 부른다. 파라이바시스에 이어 너비가 약 60스타디온인 들판이 있다. 길 오른쪽에는 브렌테라는 도시의 폐허가 있으며, 그곳에서 브렌테아테스강이 솟아 약 5스타디온 더 흘러 알페이오스강으로 들어간다. Pausanias ' Description of Greece

## 제29장

**[8.29.1]** 알페이오스강을 건너면 이른바 트라페주스 땅과 트라페주스 시의 폐허에 이른다. 트라페주스에서 다시 알페이오스강으로 내려가는 길 왼쪽, 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깊은 곳'이라는 뜻의 바토스가 있다. 이곳에서 한 해 걸러 한 번씩 위대한 여신들의 비의를 지낸다. 올림피아스라 불리는 샘도 있는데, 한 해씩 걸러 물이 흐르지 않는다. 샘 곁에서는 불이 솟는다. 아르카디아인들은 신들과 거인들이 싸웠다는 전설 속의 전투가 트라키아의 팔레네가 아니라 여기서 벌어졌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번개와 돌풍과 천둥에게 제사를 바친다.

**[8.29.2]**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에서는 거인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오디세이아』에서는 라이스트리고네스인들이 오디세우스의 배들을 습격할 때 사람보다는 거인들의 모

습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또 파이아케스인들의 왕은 자기 백성이 키클롭스나 거인 종족처럼 신들에게 가까운 존재라고 말한다. 이런 대목에서 호메로스는 거인들을 신족이 아닌 죽을 운명의 존재로 나타낸다. 다음 구절에서는 그의 말이 더욱 분명하다.

> 그는 한때 오만한 거인들의 왕이었으나,
> 어리석은 백성을 멸망시키고 자신도 멸망했다.

호메로스의 시에서 '백성'은 일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8.29.3]** 거인들의 발이 뱀으로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는 터무니없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으나 특히 다음 일이 그러하다. 시리아의 오론테스강은 바다까지 줄곧 평탄한 곳을 흐르지 않는다. 가파른 산등성이에 이르고, 그 너머로 지면이 다시 기울어진다. 로마 황제는 배들이 바다에서 안티오케이아까지 그 강을 거슬러 오를 수 있기를 바랐다. 그래서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배가 오를 수 있는 수로를 파고 강물을 그쪽으로 돌렸다.

**[8.29.4]** 옛 물길이 마르자 그곳에서 길이가 11큐빗이 넘는 토기 관을 발견했다. 시신도 관에 걸맞게 컸으나 몸의 모든 부분이 사람의 것이었다. 시리아인들이 클라로스의 신탁소에 가서 묻자, 그곳의 신은 시신이 인도인 오론테스라고 알려 주었다. 옛날 땅이 아직 물기에 젖어 있을 때 해가 땅을 데워 최초의 사람들을 만들었다면, 인도보다 먼저 사람을 길러 내거나 더 큰 사람을 길러 낼 만한 땅이 어디 있겠는가? 인도에서는 오늘날에도 생김새가 기괴하고 크기가 엄청난 짐승이 나지 않는가?

**[8.29.5]** 바토스에서 약 10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바실리스라 부르는 곳이 있다. 그곳의 창건자는 킵셀로스다. 그는 자기 딸을 아리스토마코스의 아들 크레스폰테스에게 시집보낸 사람이다. 오늘날 바실리스는 폐허가 되었으나 그 안에 엘레우시스의 데메테르 성소는 남아 있다. 여기서 더 가서 알페이오스강을 다시 건너면 토크니아에 이른다. 리카온의 아들 토크노스에게서 이름을 얻었으며 지금은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다. 토크노스가 언덕 위에 도시를 지었다고 한다. 그 언덕 곁을 흐르는 아미니오스강은 헬리손강으로 들어가고, 헬리손강은 멀지 않은 곳에서 알페이오스강으로 들어간다. periegesis.abm.uu.se

## 제30장

**[8.30.1]** 헬리손강은 같은 이름의 마을에서 시작한다. 마을의 이름도 헬리손이다. 강은 디파이아와 리카이아의 땅을 지나고 메갈로폴리스 시내를 가로지른 뒤, 도시에서 20스타디온 떨어진 곳에서 알페이오스강으로 흘러내린다. 도시 가까이에는 '살피는 이'라는 뜻의 에폽테스 포세이돈의 신전이 있다. 내가 보았을 때 신상의 머리가 아직 남아 있었다.

**[8.30.2]** 헬리손강은 크니도스와 미틸레네가 각기 해협으로 둘로 갈라진 것처럼 메갈로폴리스를 둘로 가른다. 주민들은 강의 하류를 바라볼 때 오른쪽이 되는 북쪽 구역에 아고라를 마련했다. 그 안에는 돌로 둘러싼 구역과 리카이오스 제우스의 성소가 있다. 그곳에는 들어갈 수 없으나 안에 있는 것들은 볼 수 있다. 신의 제단들과 탁자 두 개, 독수리 두 마리, 돌로 만든 판의 상이다.

**[8.30.3]** 판의 별칭은 시노에이스다. 시노에라는 님프의 이름에서 이 별칭이 나왔다고 한다. 여러 님프가 판을 돌볼 때 시노에도 스스로 그를 길렀다는 것이다. 이 구역 앞에는 볼 만한 아폴론의 청동상이 있다. 높이는 12푸스이며, 메갈로폴리스의 장식에 보태려고 피갈리아에서 가져왔다.

**[8.30.4]** 피갈리아인들이 처음 그 신상을 세운 곳은 바사이라 부른다. 신의 별칭도 피갈리아에서 상과 함께 왔다. 그가 '도와주는 이'라는 뜻의 에피쿠리오스라는 이름을 얻은 까닭은 피갈리아를 다룰 때 이야기하겠다. 아폴론상 오른쪽에는 신들의 어머니의 작은 상이 있다. 신전에는 기둥들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8.30.5]** 어머니 여신의 신전 앞에 조각상은 없지만, 한때 상이 섰던 받침대들은 아직 볼 수 있었다. 받침대 하나에 새긴 엘레게이아 시구에 따르면, 그 상은 디아이오스의 아들 디오파네스의 것이었다. 그는 펠로폰네소스 전역을 이른바 아카이아 연맹으로 처음 통합한 사람이다.

**[8.30.6]** 아고라의 주랑 가운데 필리페이온이라 부르는 것은 아민타스의 아들 필리포스가 지은 것이 아니다. 메갈로폴리스인들이 그를 예우하여 건물에 그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 가까이에서 아카케시오스 헤르메스의 신전이 폐허가 된 것을 보았다. 돌로 만든 거북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이 필리페이온에 이어 규모가 더 작은 주랑이 있다. 그곳에는 메갈로폴리스의 관청들이 여섯 방을 차지하고 있다. 한 방에는 에페소스 아르테미스의 상이 있고, 다른 방에는 높이가 1큐빗인 스콜레이타스 판의 청동상이 있다.

**[8.30.7]** 판의 상은 성벽 안에 있는 스콜레이타스 언덕에서 가져왔다. 그 언덕의 샘에서 시작하는 시내는 헬리손강으로 내려간다. 관청 뒤에는 티케의 신전이 있는데, 그 안에는 높이가 5푸스 이상인 석상이 있다. 아고라에는 미로폴리스라 부르는 주랑도 있다. 메갈로폴리스의 참주 아리스토데모스가 클레오메네스의 아들 아크로타토스 휘하의 라케다이몬군을 무찔렀을 때 얻은 전리품으로 지었다.

**[8.30.8]** 이 도시의 아고라에서 리카이오스 제우스에게 바친 구역 뒤에는 사람의 모습을 돋을새김한 석판이 있다. 리코르타스의 아들 폴리비오스다. 석판의 엘레게이아 시구에는 그가 온 땅과 바다를 두루 다녔으며, 로마인들의 동맹이 되어 그리스인들을 향한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혔다고 새겨져 있다. 이 폴리비오스는 로마인들의 다른 업적들에 대해서도 썼다. 그들이 어떻게 카르타고인들과 전쟁에 들어갔는지,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마침내 그들이 큰 위험을 겪은 뒤 어떻게 스키피오를 통해 〔…〕 했는지를 썼다. 스키피오는 전쟁을 끝내고 카르타고를 땅바닥까지 허물었으므로 '카르타고를 정복한 이'라 불린다.

**[8.30.9]** 그 로마인은 폴리비오스의 권고를 따르는 일에서는 일이 잘 풀렸다. 그러나 가르치는 말을 귀담아듣지 않을 때에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 아카이아 연맹에 속한 그리스 도시들은 모두 폴리비오스가 자기들의 정부를 조직하고 법을 제정하도록 로마인들의 허락을 받았다. 폴리비오스의 초상 왼쪽에는 평의회 건물이 있다.

**[8.30.10]** 평의회 건물은 거기에 있다. 아고라의 '아리스탄드로스 주랑'은 시민 가운데 한 사람인 아리스탄드로스가 지었다고 한다. 이 주랑 바로 가까이 동쪽에는 '구원자'라는 별칭의 제우스 성소가 있다. 둘레를 기둥으로 꾸몄다. 제우스는 왕좌에 앉아 있으며, 오

른쪽에 메갈로폴리스를 나타낸 상이 서 있고 왼쪽에는 구원자 아르테미스의 상이 서 있다. 이 상들은 펜텔리콘 대리석으로 만들었으며, 아테나이인 케피소도토스와 크세노폰의 작품이다. periegesis.abm.uu.se

## 제31장

**[8.31.1]** 주랑의 다른 끝인 서쪽에는 위대한 여신들의 성역이 있다. 메세니아를 다룰 때 이미 설명했듯, 위대한 여신들이란 데메테르와 코레다. 아르카디아인들은 코레를 '구원자'라고 부른다. 입구 앞에는 한편에 아르테미스, 다른 편에 아스클레피오스와 히기에이아를 돋을새김해 놓았다.

**[8.31.2]** 위대한 여신들의 상 가운데 데메테르는 온몸을 돌로 만들었고, 구원자 여신은 옷이 닿는 부분을 나무로 만들었다. 두 상의 높이는 각각 약 15푸스다. 다모폰은 이 신상들과, 그 앞에 놓인 그리 크지 않은 소녀상들을 만들었다. 소녀들은 발목까지 오는 키톤을 입고, 꽃을 가득 담은 바구니를 저마다 머리에 이고 있다. 그들이 다모폰의 딸들이라고 한다. 여기에 신성한 뜻이 더 깊이 담겼다고 보는 이들은 페르세포네와 함께 꽃을 따는 아테나와 아르테미스라고 생각한다.

**[8.31.3]** 데메테르 곁에는 높이가 약 1큐빗인 헤라클레스 상도 있다. 오노마크리토스는 자신의 시에서 이 헤라클레스가 이른바 이다산의 닥틸로이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상 앞에는 탁자가 놓여 있다. 그 위에는 계절의 여신 호라이 둘과 피리를 든 판, 키타라를 타는 아폴론이 돋을새김되어 있다. 이들이 가장 오래된 신들에 속한다는 글도 새겨져 있다.

**[8.31.4]** 탁자에는 님프들도 새겨져 있다. 네다는 갓난 제우스를 안고 있으며, 또 다른 아르카디아의 님프 안트라키아는 횃불을 들고 있다. 하그노는 한 손에 물동이, 다른 손에 잔을 들고 있다. 안키로에와 미르토에사는 물동이를 들었는데, 물동이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이다. 성역 안에는 '우애로운 이'라는 뜻의 필리오스 제우스의 신전이 있다. 신상은 아르고스의 폴리클레이토스가 만들었다. 높은 신을 신고 한 손에 술잔을, 다른 손에 티르소스 지팡이를 든 것은 디오니소스와 닮았다. 그러나 지팡이 위에 독수리가 앉아 있는 것은 디오니소스에 관해 전하는 이야기와 맞지 않는다.

**[8.31.5]** 이 신전 뒤에는 벽으로 둘러친 작은 숲이 있다. 아무도 안에 들어갈 수 없으며, 그 앞에는 높이가 약 3푸스인 데메테르와 코레의 상이 있다. 위대한 여신들의 성역 안에는 아프로디테의 성소도 있다. 입구 앞에는 헤라와 아폴론과 무사 여신들의 오래된 목상들이 있다. 트라페주스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8.31.6]** 신전 안의 신상들은 다모폰의 작품이다. 헤르메스는 목상이며, 아프로디테 역시 목상이지만 손과 얼굴과 발은 돌로 만들었다. 내 생각에는 여신에게 붙인 '꾀를 내는 이'라는 뜻의 마카니티스라는 별칭이 아주 알맞다. 아프로디테와 그 여신이 일으키는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해 낸 꾀가 아주 많고, 지어낸 말의 방식도 가지가지이기 때문이다.

**[8.31.7]** 한 건물에는 칼리그노토스, 멘타스, 소시게네스, 폴로스의 상도 서 있다. 이들이 메갈로폴리스에서 위대한 여신들의 비의를 처음 세웠다고 한다. 그 의례는 엘레우시스의 것을 본떴다. 여신들의 성역 안에는 다음과 같은 신상들이 있고, 모두 네모난 모양이다. 아게

토르라는 별칭의 헤르메스, 아폴론, 아테나, 포세이돈, ‘구원자’라는 별칭의 헬리오스, 그리고 헤라클레스다. 그곳에는 아주 큰 성소도 지어 놓았으며, 여기서 여신들을 기리는 비의를 거행한다.

**[8.31.8]** 위대한 여신들의 신전 오른쪽에는 코레의 성소도 있다. 신상은 돌로 만들었고 높이는 약 8푸스다. 받침대는 사방이 띠로 덮여 있다. 여자들은 언제든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나 남자들은 해마다 한 번만 들어간다. 아고라에 이어 서쪽에는 김나시온이 세워져 있다.

**[8.31.9]**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이름을 붙인 주랑 뒤에는 그리 높지 않은 두 언덕이 있다. 하나에는 도시를 지키는 폴리아스 아테나 성소의 폐허가 있고, 다른 하나에는 텔레이아 헤라의 신전이 있는데 이 역시 폐허다. 이 언덕 아래에는 바틸로스라 부르는 샘이 있다. 그 물은 헬리손강으로 흘러들어 강물을 불린다. periegesis.abm.uu.se

## 제32장

**[8.32.1]** 이 일대에서 기록할 만한 것은 이와 같다. 강 건너 남쪽 구역에는 그리스에서 가장 큰 극장이 있으며, 극장 안에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 극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르카디아인 1만 명의 회의를 위해 지은 회의당의 기초가 남아 있다. 이 건물을 봉헌한 사람의 이름을 따 테르실리온이라 부른다. 바로 곁에는 지금은 개인이 소유한 집이 있다. 처음에는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를 위해 지었다. 집 곁에는 네모난 헤르메스 기둥상과 비슷한 암몬의 상이 있는데, 머리에 숫양의 뿔이 달렸다.

**[8.32.2]** 무사 여신들과 아폴론과 헤르메스를 함께 모시려고 지은 성소에는 내가 기록할 만한 것으로 얼마 안 되는 기초만 남았다. 다만 무사 여신의 상 한 점과, 네모난 헤르메스 기둥상과 같은 양식으로 만든 아폴론상이 아직 있었다. 아프로디테의 성소도 폐허였으나 신전 앞방과 세 신상은 남아 있었다. 한 상에는 ‘하늘의 여신’이라는 뜻의 우라니아라는 별칭이, 둘째 상에는 ‘온 민중의 여신’이라는 뜻의 판데모스라는 별칭이 있다. 셋째 상에는 별칭이 없다.

**[8.32.3]**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아레스의 제단이 있다. 처음에는 이 신을 위해 성소도 지었다고 한다. 아프로디테의 성소 너머에는 경주로도 놓여 있다. 한쪽으로는 극장까지 이어지며, 그 끝에 디오니소스에게 바쳐졌다고 여기는 샘이 있다. 경주로의 다른 끝에는 디오니소스의 신전이 있었는데, 내가 살던 때보다 두 세대 앞서 벼락을 맞았다고 한다. 내가 보았을 때는 폐허가 조금 남아 있었다. 경주로 곁에서 헤라클레스와 헤르메스가 함께 쓰던 신전은 사라졌고 두 신의 제단만 남았다.

**[8.32.4]** 이 일대 동쪽에는 언덕이 하나 있고, 거기에는 사냥의 여신 아그로테라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있다. 이것도 아리스토데모스가 봉헌했다. 아그로테라의 신전 오른쪽에는 성역이 있다. 그 안에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소와 그 신 및 히기에이아의 상들이 있다. 조금 더 낮은 곳에는 ‘일하는 신들’이라는 뜻의 에르가타이라는 별칭의 신상들이 있다. 아테나 에르가네와 아폴론 아기에우스는 네모난 모습이다. 헤르메스와 헤라클레스와 에일레이티이아에 대해서는 호메로스의 시에서 전하는 이야기가 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일을 맡

아 죽은 이들의 혼을 하데스로 이끌고, 헤라클레스는 어려운 위업을 많이 이루었다. 에일레이티이아는 해산하는 여인들의 고통을 돌본다고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에서 말한다.

**[8.32.5]** 이 언덕 아래에는 '아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소가 또 있다. 그 신상은 서 있는 모습이며 키는 약 1큐빗이다. 아폴론상은 왕좌에 앉아 있고 높이는 6푸스 이상이다. 이곳에는 사람의 뼈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뼈도 보관하고 있다.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호플라다모스가 레아를 도우려고 모은 거인들 가운데 하나의 뼈라고 한다. 이 성소 근처에는 샘이 있다. 그 물은 흘러내려 헬리손강으로 들어간다. periegesis.abm.uu.se

## 제33장

**[8.33.1]** 아르카디아인들이 더없이 열성적으로, 그리스인들이 큰 기대를 품은 가운데 세운 메갈로폴리스는 아름다움과 옛 번영을 모두 잃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이 폐허다. 나는 조금도 놀랍지 않다. 신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뜻하며, 강한 것이든 약한 것이든, 자라고 있는 것이든 쇠하는 것이든 모두 티케가 바꿔 놓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티케는 자기 뜻에 따라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그것들을 몰고 간다.

**[8.33.2]**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인들을 이끈 미케나이와 아시리아 왕궁이 있던 니네베는 완전히 무너져 황량하다. 한때 그리스인의 우두머리가 될 만하다고 여긴 보이오티아의 테바이는 이제 아크로폴리스와 거기에 사는 몇 사람에게만 이름이 남았다. 옛 세상에서 부유한 곳으로 꼽히던 이집트의 테바이와 미니아스족의 오르코메노스는 지금 웬만한 재산을 가진 개인만도 못하다. 한때 그리스의 공동 시장이던 델로스에는 델로스 주민이 한 명도 없고, 아테나이인들이 성소를 지키도록 보낸 사람들만 있다.

**[8.33.3]** 바빌론에는 벨로스의 성소가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한때 해 아래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바빌론은 성벽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 아르골리스의 티린스도 마찬가지다. 신은 이곳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 반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로스의 도시와 오론테스강가에 있는 셀레우코스의 도시는 어제나 다름없는 때에 세워졌는데도, 행운이 따랐으므로 오늘날의 크기와 번영에 이르렀다.

**[8.33.4]** 다음 일은 도시들의 재앙과 번영에서 드러나는 것보다도 운명의 힘이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보여 준다. 렘노스에서 배로 멀지 않은 곳에 한때 크리세라는 섬이 있었다. 필록테테스가 물뱀에게 화를 입은 곳이 여기라고 한다. 그런데 큰 물결이 섬 전체를 덮쳤고, 크리세는 깊이 잠겨 사라졌다. '신성한 섬'이라는 뜻의 히에라라 불리는 다른 섬은 그때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처럼 인간의 일은 잠깐뿐이고 조금도 굳건하지 않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34장

**[8.34.1]** 메갈로폴리스에서 메세네로 가는 길을 약 7스타디온 가면 큰길 왼쪽에 여신들의 성소가 서 있다. 그들은 여신들 자신도, 성소 둘레의 지역도 '광기들'이라는 뜻의 마니

아이라 부른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에우메니데스 여신들의 별칭이다. 실제로 오레스테스가 어머니의 피를 흘린 벌로 바로 이곳에서 광기에 사로잡혔다고 한다.

**[8.34.2]** 성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그리 높지 않은 흙무더기가 있다. 그 위에 돌로 만든 손가락을 세워 놓았다. 무더기의 이름도 '손가락의 무덤'이다. 오레스테스가 정신을 잃었을 때 이곳에서 한 손의 손가락 하나를 물어 끊었다고 한다. 여기에 이어 아케, 곧 '치유'라 부르는 곳이 있다. 이곳에서 오레스테스가 병을 고쳤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에우메니데스의 성소가 있다.

**[8.34.3]** 이야기에는 여신들이 오레스테스의 정신을 빼앗으려 할 때 검은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손가락을 물어 끊자 이번에는 하얗게 보였고, 그는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을 되찾았다. 그리하여 검은 여신들에게는 그들의 진노를 돌리기 위해 속죄의 제물을 바쳤고, 흰 여신들에게는 감사의 제사를 지냈다. 에우메니데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카리테스에게도 함께 제사를 바치는 것이 관습이다. 아케라 부르는 곳 가까이에는 쿠레이온이라는 또 다른 성소가 있다. 오레스테스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뒤 이곳에서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8.34.4]** 펠로폰네소스의 옛일을 전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클리타임네스트라의 복수의 여신들이 아르카디아에서 오레스테스에게 한 일은 그가 아레오파고스에서 재판받기 전에 일어났다. 오레스테스를 고발한 사람은 틴다레오스가 아니었다. 그때 그는 이미 죽고 없었다. 고발한 사람은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사촌 페릴라오스로, 어머니를 죽인 피의 대가를 요구했다. 전하는 말로는 페릴라오스는 이카리오스의 아들이었다. 이카리오스에게는 나중에 딸들도 태어났다.

**[8.34.5]** 마니아이에서 알페이오스강까지는 길을 따라 약 15스타디온이다. 이곳에서 가테아타스강이 알페이오스강으로 들어간다. 카르니온강은 그 전에 가테아타스강으로 흘러든다. 카르니온강은 아이기스 지방의 케레아타스 아폴론 성소 아래에서 발원하고, 가테아타스강은 크로모이 지방의 가테아이에서 발원한다.

**[8.34.6]** 크로모이 지방은 알페이오스강에서 약 40스타디온 위쪽에 있다. 그곳에는 크로모이 시의 폐허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크로모이에서 약 20스타디온 가면 물이 풍부하고 나무로 덮인 님파스에 이른다. 님파스에서 헤르마이온까지는 20스타디온이다. 거기가 메세니아와 메갈로폴리스의 경계다. 이곳에도 헤르메스를 석판에 새겨 놓았다.

periegesis.abm.uu.se

## 제35장

**[8.35.1]** 이 길은 메세네로 이어진다. 메갈로폴리스에서 메세니아의 카르나시온으로 가는 다른 길도 있다. 이 길에서는 먼저 말로스강과 스키로스강이 물을 합쳐 알페이오스강으로 들어가는 곳에 닿는다. 여기서 말로스강을 오른쪽에 두고 약 30스타디온 가다가 강을 건넌다. 그리고 다소 가파른 길을 올라가면 파이드리아스라는 곳에 이른다.

**[8.35.2]** 파이드리아스에서 약 15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데스포이나 곁의 헤르마이온'이라 부르는 곳이 있다. 이곳 역시 메세니아와 메갈로폴리스의 경계다. 데스포이나와 데메테

르의 작은 상들이 있으며, 헤르메스와 헤라클레스의 작은 상들도 있다. 다이달로스가 만든 헤라클레스의 목상도 메세니아와 아르카디아의 경계인 이곳에 서 있었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8.35.3]** 메갈로폴리스에서 라케다이몬으로 가는 길로 알페이오스강까지는 30스타디온이다. 그런 다음 알페이오스강으로 흘러드는 테이오스강 곁을 지나간다. 알페이오스강에서 약 40스타디온 가서 테이오스강을 왼쪽으로 두고 가면 팔라이시아이에 이른다. 이곳에서 벨레미나의 헤르마이온까지는 20스타디온이다.

**[8.35.4]** 아르카디아인들은 벨레미나가 옛날에는 아르카디아에 속했으나 라케다이몬인들이 떼어 갔다고 한다. 여러 가지로 그럴듯하지 않은 이야기다. 무엇보다도 그 땅을 정당하게 돌려받도록 할 수 있었다면 테바이인들이 아르카디아인들에게 이 땅까지 잃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8.35.5]** 메갈로폴리스에서 아르카디아의 내륙으로 가는 길들도 있다. 메티드리온까지는 170스타디온이다. 메갈로폴리스에서 13스타디온 떨어진 곳에는 스키아스라 부르는 곳이 있다. 그곳에 스키아티스 아르테미스의 성소 폐허가 있는데, 참주 아리스토데모스가 지었다고 한다. 여기서 약 10스타디온 떨어진 곳에는 카리시아이 시의 흔적이 조금 남아 있다. 카리시아이에서 트리콜로노이까지는 다시 10스타디온이다.

**[8.35.6]** 트리콜로노이 역시 한때 도시였다. 오늘날에도 언덕 위에는 네모난 신상이 있는 포세이돈의 성소가 남아 있고, 성소를 나무숲이 둘러싸고 있다. 이 도시들을 세운 사람들은 리카온의 아들들이었다. 그러나 조이티아는 트리콜로노스의 아들 조이테우스가 세웠다고 한다. 트리콜로노이에서 약 15스타디온 떨어져 있으며, 곧은 길 위가 아니라 트리콜로노이의 왼쪽에 있다. 트리콜로노스의 아들 가운데 동생인 파로레우스도 도시를 세웠다. 그 도시 파로리아는 조이티아에서 10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8.35.7]** 내가 살던 때에는 두 도시 모두 사람이 살지 않았다. 그러나 조이티아에는 데메테르의 신전과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아직 남아 있었다. 다른 도시의 폐허도 있다. 티라이온은 파로리아에서 15스타디온 떨어져 있고, 힙수스는 평야 위쪽의 산에 자리 잡고 있는데 산도 또한 힙수스라 부른다. 티라이온과 힙수스 사이에는 산이 가득하고 들짐승이 많다. 티라이오스와 힙수스가 리카온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밝혔다.

**[8.35.8]** 트리콜로노이 오른쪽으로는 먼저 가파른 오르막길이 크루노이라 부르는 샘으로 이어진다. 크루노이에서 약 30스타디온을 내려가면 칼리스토의 무덤에 이른다. 높이 쌓은 흙무덤으로, 사람이 기르는 나무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많이 자란다. 봉분 꼭대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이’라는 뜻의 칼리스테 아르테미스 성소가 있다. 팜포스가 시에서 아르테미스를 처음 칼리스테라 부른 것은 그 이름을 아르카디아인들에게 배웠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8.35.9]** 여기서 25스타디온, 트리콜로노이에서부터 모두 100스타디온을 가면 헬리손강가에 아네모사라는 곳과 팔란토스산이 있다. 트리콜로노이에서 곧장 메티드리온으로 가는 길이며, 이제 그 길에서는 메티드리온만을 남겨 두고 있다. 팔란토스산에는 팔란토스라는 도시의 폐허가 있다. 팔란토스는 스팀팔로스의 손자이자 아겔라오스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8.35.10]** 그 너머에는 ‘폴로스의 들판’이라 부르는 평야가 있고, 그 다음에는 스코이누스가 있다. 보이오티아 사람 스코이네우스에게서 이름을 얻은 곳이다. 이 스코이네우스가 아르카디아로 이주했다면, 스코이누스 가까이의 ‘아탈란테의 경주로’도 그의 딸에게서 이름을 얻었을 것이다. 그 곁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라 부르는 곳이 있고, 이곳의 땅을 사람들은 아르카디아라고 한다. periegesis.abm.uu.se

## 제36장

**[8.36.1]** 여기서부터는 메티드리온 자체 말고는 기록할 것이 없다. 트리콜로노이에서 메티드리온까지는 137스타디온이다. 말로이타스강과 밀라온강 사이에 높은 언덕이 하나 있고, 오르코메노스가 그 위에 도시를 세웠으므로 ‘물 사이’라는 뜻의 메티드리온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메갈로폴리스에 속하게 되기 전에는 메티드리온인들 가운데도 올림피아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있었다.

**[8.36.2]** 메티드리온에는 힙피오스 포세이돈의 신전이 밀라온강가에 서 있다. ‘놀라운 산’이라는 뜻의 타우마시온은 말로이타스강 너머에 있다. 메티드리온인들은 레아가 제우스를 배었을 때 이 산에 왔다고 믿는다. 레아는 크로노스가 자기를 공격할 경우에 대비하여 호플라다모스와 그를 따르던 거인들을 원군으로 마련했다는 것이다.

**[8.36.3]** 메티드리온인들도 레아가 리카이온산의 어느 곳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크로노스가 속은 곳은 여기이며, 그리스 전설에서 말하는 대로 아이 대신 돌을 준 곳도 여기라고 주장한다. 산꼭대기에는 레아의 동굴이 있다. 여신을 섬기는 여자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8.36.4]** 메티드리온에서 약 30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님파시아라는 샘이 있다. 님파시아에서 메갈로폴리스와 오르코메노스와 카피아이의 경계가 만나는 곳까지도 30스타디온이다.

**[8.36.5]** 메갈로폴리스에서 ‘늪으로 가는 문’이라 불리는 문을 지나 헬리손강을 따라 마이날로스 쪽으로 가면 길 왼편에 ‘좋은 신’의 신전이 있다. 신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제우스가 신들 가운데 으뜸이라면, 이 별칭은 제우스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이치에 맞다. 조금 더 가면 아리스토데모스의 무덤인 흙무더기가 있다. 그가 참주였으면서도 사람들은 그를 ‘선량한 이’라 부를 수밖에 없었다. 또 ‘꾀를 내는 이’라는 뜻의 마카니티스 아테나의 성소가 있다. 여신이 온갖 계획과 계책을 처음 고안한 이이기 때문이다.

**[8.36.6]** 길 오른쪽에는 북풍의 성역을 마련해 놓았다. 메갈로폴리스인들은 해마다 북풍에게 제사를 바치며, 다른 어느 신보다도 낮게 여기지 않는다. 아기스가 지휘한 라케다이몬인들에게서 자신을 구해 준 것이 북풍이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는 암피아라오스의 아버지 오이클레스의 무덤이 있다. 오이클레스가 헤라클레스의 라오메돈 원정에 참가했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르카디아에서 생을 마쳤다면 말이다. 그 뒤에는 ‘늪에 계신 이’라는 별칭의 데메테르 신전과 그 숲이 있다. 도시에서 5스타디온 떨어져 있으며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8.36.7]** 30스타디온을 가면 팔리스키오스라는 곳이 있다. 팔리스키오스에서 나아가며 때때로 마르는 엘라포스 시내를 왼쪽에 두고 약 20스타디온 가면 페라이테이스의 폐허가 나온

다. 그 안에는 판의 성소가 있다. 시내를 건너 곧장 15스타디온 가면 들판에 이른다. 이 들판을 건너면 들판과 마찬가지로 마이날로스라 부르는 산이 있다. 산기슭에는 리코아 시의 흔적과 리코아티스 아르테미스의 성소, 그리고 여신의 청동상이 있다.

**[8.36.8]** 산의 남쪽 비탈에는 한때 수메티아가 있었다. 이 산에는 '세 길이 만나는 곳'이라는 뜻의 트리오디온이 있다. 만티네이아인들은 델포이 신탁의 명령에 따라 바로 이곳에서 칼리스토의 아들 아르카스의 유골을 거두어 갔다. 마이날로스 시 자체의 폐허도 아직 남아 있다. 아테나 신전의 흔적과 선수들의 경주로 하나, 말들의 경주로 하나다. 마이날로스산은 특히 판에게 신성한 산으로 여겨진다. 산 둘레에 사는 사람들은 판이 피리를 부는 소리를 실제로 들을 수 있다고 말한다.

**[8.36.9]** 데스포이나의 성소에서 메갈로폴리스까지는 40스타디온이다. 메갈로폴리스에서 알페이오스강 물줄기까지는 그 절반이다. 강을 건넌 뒤 알페이오스에서 마카레아이의 폐허까지는 2스타디온, 거기서 다세아이의 폐허까지는 7스타디온, 다세아이에서 아카케시온 언덕이라 불리는 곳까지는 다시 7스타디온이다.

**[8.36.10]** 이 언덕 기슭에는 한때 아카케시온이라는 도시가 있었다. 오늘날에도 언덕에는 아카케시오스 헤르메스의 석상이 있다. 아르카디아인들은 어린 헤르메스가 이곳에서 자랐으며 리카온의 아들 아카코스가 그를 길렀다고 한다. 테바이에서 전하는 이야기는 다르며, 타나그라 사람들의 이야기도 테바이의 전승과 일치하지 않는다. Pausanias ′ Description of Greece

## 제37장

**[8.37.1]** 아카케시온에서 '여주인'이라는 뜻의 데스포이나의 성소까지는 네 스타디온이다. 이곳에서 먼저 길을 이끄는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나온다. 횃불을 든 청동 신상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높이는 여섯 푸스쯤 된다. 여기서 데스포이나의 성역으로 들어간다. 신전으로 갈 때 오른쪽에 주랑이 있고, 벽에는 흰 돌로 만든 돋을새김들이 있다. 첫 번째에는 운명의 여신들과 '운명을 이끄는 이'라 불리는 제우스가, 두 번째에는 아폴론에게서 세 발솥을 빼앗는 헤라클레스가 새겨져 있다. 이 두 신에 관해 들은 이야기는 포키스 편에서 델포이에 이르면 밝히겠다.

**[8.37.2]** 데스포이나의 주랑에는 내가 말한 돋을새김들 사이에 비의를 설명하는 판이 놓여 있다. 세 번째 돋을새김에는 님프들과 판들이, 네 번째에는 리코르타스의 아들 폴리비오스가 새겨져 있다. 네 번째에 새긴 글은 그리스가 모든 일에서 폴리비오스의 말을 따랐다면 애초에 몰락하지 않았을 것이며, 재앙을 겪고 나서는 오직 그에게서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신전 앞에는 데메테르의 제단과 데스포이나의 제단이 있고, 그다음에는 위대한 어머니 여신의 제단이 있다.

**[8.37.3]** 데스포이나와 데메테르 두 여신의 상과 그들이 앉은 왕좌, 발밑의 발판은 모두 한 덩이의 돌로 만들었다. 옷자락이나 왕좌 둘레의 조각 어디에도 쇠붙이나 접착재로 다른 돌을 이어 붙인 부분이 없고, 전부 한 덩이에서 깎아 냈다. 이 돌을 밖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다. 꿈에서 받은 지시대로 성역 안의 땅을 파서 찾았다고 한다. 두 신상의 크기는 아테나이의 어머니 여신상과 거의 같다.

**[8.37.4]** 이 상들도 다모폰의 작품이다. 데메테르는 오른손에 횃불을 들고 다른 손은 데스포이나에게 얹었다. 데스포이나의 무릎에는 홀이 놓여 있고, 이른바 '궤'도 무릎에 올려 오른손으로 잡고 있다. 왕좌 양쪽에도 상이 있다. 데메테르 곁에 서 있는 아르테미스는 사슴 가죽을 두르고 어깨에 화살통을 멨으며, 한 손에 횃불을, 다른 손에 뱀 두 마리를 들고 있다. 그 곁에는 사냥에 알맞은 품종의 암캐 한 마리가 누워 있다.

**[8.37.5]** 데스포이나상 곁에는 무장한 남자의 모습으로 아니토스가 서 있다. 성소 사람들은 이른바 티탄들 중 하나인 아니토스가 데스포이나를 길렀다고 한다. 시에 티탄을 처음 등장시킨 이는 호메로스다. 그는 헤라의 맹세를 다룬 구절에서 티탄들을 타르타로스라 불리는 지하에 있는 신들로 그렸다. 오노마크리토스는 호메로스에게서 티탄이라는 이름을 가져와, 자신이 마련한 디오니소스의 비의에서 티탄들이 그 신에게 고난을 안겼다고 했다.

**[8.37.6]** 아르카디아인들이 전하는 아니토스 이야기는 그러하다. 아르테미스가 레토의 딸이 아니라 데메테르의 딸이라는 것은 이집트인들의 이야기인데, 그리스인들은 에우포리온의 아들 아이스킬로스에게서 이를 배웠다. 신상 아래에 그려진 쿠레테스와 받침에 돋을새김한 코리반테스의 이야기는 나도 알지만 여기서는 지나가겠다. 코리반테스는 쿠레테스와 다른 무리다.

**[8.37.7]** 아르카디아인들은 석류를 빼고 재배하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성소로 가져온다. 신전에서 나올 때 오른쪽 벽에는 거울이 끼워져 있다. 누구든 거울을 보면 자기 모습은 아주 희미하게 비치거나 아예 보이지 않지만, 신들의 상과 왕좌는 똑똑히 보인다.

**[8.37.8]** 데스포이나 신전 곁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오른쪽에 이른바 메가론이 있다. 아르카디아인들은 이곳에서 비의를 거행하고 데스포이나에게 많은 제물을 아낌없이 바친다. 저마다 자기가 가진 짐승을 제물로 바친다. 다른 제사에서처럼 제물의 목을 긋는 대신, 저마다 그때 손에 잡히는 지체 하나를 잘라 낸다.

**[8.37.9]** 아르카디아인들은 이 데스포이나를 어느 신보다도 높이 받든다. 포세이돈과 데메테르의 딸이라고 한다. 데스포이나는 사람들이 널리 쓰는 별칭이다. 데메테르가 제우스에게서 얻은 딸을 '소녀'라는 뜻의 코레라 부르는 것과 같다. 코레의 참이름은 호메로스와 그보다 앞선 팜포스가 시에서 말했듯 페르세포네다. 그러나 데스포이나의 참이름을 비의에 입문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적는 일은 두렵다.

**[8.37.10]** 이른바 메가론 너머에는 돌담으로 둘러싼 데스포이나의 신성한 숲이 있다. 그 안에는 여러 나무가 있고, 그중에는 한 뿌리에서 자라는 올리브나무와 상록 참나무도 있다. 정원사가 솜씨를 부려 그렇게 자라게 한 것은 아니다. 숲 너머에는 데스포이나의 아버지인 '말의 포세이돈'과 여러 신의 제단이 있다. 맨 끝 제단에는 모든 신이 함께 쓰는 제단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8.37.11]** 거기서 계단을 올라가면 판의 성소가 있다. 성소 안에는 주랑과 작은 신상이 있다. 이 판도 가장 힘센 신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고 악한 자에게 마땅한 벌을 내릴 수 있다. 이 판의 곁에는 절대로 꺼뜨리지 않는 불이 타고 있다. 옛날에는 이 신도 신탁을 내렸으며, 칼리스토의 아들 아르카스와 혼인한 님프 에라토가 그의 예언 여사제였다고 한다.

**[8.37.12]** 사람들은 에라토의 시구도 기억하고 있다. 나 역시 읽어 보았다. 이곳에는 아레스의 제단이 있으며, 어느 신전 안에는 아프로디테의 상이 두 점 있다. 하나는 흰 대리석으로, 더 오래된 다른 하나는 나무로 만들었다. 아폴론과 아테나의 목상도 있다. 아테나에게는 성소도 마련되어 있다.

영어 대조본 · 그리스어 원문

## 제38장

**[8.38.1]** 조금 더 올라가면 리코수라의 성벽 둘레가 나오는데, 성 안에는 주민이 조금 남아 있다. 땅 위에 모습을 드러낸 모든 도시 가운데, 본토에 있든 섬에 있든, 리코수라가 가장 오래되었고 태양이 맨 먼저 본 도시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곳을 보고 도시 세우는 법을 배웠다.

**[8.38.2]** 데스포이나의 성소 왼쪽에는 리카이온산이 있다. 아르카디아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올림포스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신성한 봉우리’라고 한다. 제우스가 그 위에서 자랐다고 한다. 리카이온산에는 파라시아의 아폴론 숲 왼쪽에 크레테아라는 곳이 있다. 아르카디아인들은 크레타인들의 이야기에서 제우스가 자랐다는 크레타가 그 섬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라고 주장한다.

**[8.38.3]** 제우스를 길렀다는 님프들을 그들은 테이소아, 네다, 하그노라 부른다. 파라시아의 한 도시가 테이소아의 이름을 땄다. 오늘날 테이소아는 메갈로폴리스 지방의 마을이다. 네다강은 네다에게서, 리카이온산의 한 샘은 하그노에게서 이름을 얻었다. 그 샘은 이스트로스강과 마찬가지로 겨울에도 여름과 같은 양의 물이 흐른다.

**[8.38.4]** 가뭄이 오래 이어져 땅속의 씨앗과 나무가 시들면, 리카이온의 제우스 사제는 물을 향해 기도하고 관례에 따라 제물을 바친 다음 참나무 가지를 샘물 표면에 댄다. 가지를 깊이 잠기게 하지는 않는다. 물을 휘저으면 안개 같은 김이 오른다. 얼마 뒤 안개는 구름이 되어 다른 구름들을 모으고 아르카디아 땅에 비를 내리게 한다.

**[8.38.5]** 리카이온산에는 판의 성소가 있고 그 둘레에 숲이 있다. 경마장이 있으며 그 앞에는 달리기 경기장이 있다. 옛날에는 이곳에서 리카이아 경기를 열었다. 조각상 받침들도 있지만 지금은 그 위에 상이 없다. 그중 한 받침에 새긴 엘레게이아 시는 아스티아낙스의 상이 그 위에 있었으며 그가 아르카스의 후손이라고 밝힌다.

**[8.38.6]** 리카이온산의 놀라운 일 중에서도 다음 일이 가장 놀랍다. 산에는 리카이온의 제우스에게 바친 성역이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규율을 어기고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일 년 이상 살지 못한다. 또 그 성역 안에서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래서 짐승이 성역으로 피하면 사냥꾼은 따라 들어가지 않고 밖에 머문다. 짐승 자체는 보이는데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아이티오피아에 못 미치는 시에네에서도 태양이 게자리에 있을 때는 나무나 생물에 그림자가 지지 않는다. 그러나 리카이온산의 성역에서는 어느 계절에나 늘 그러하다.

**[8.38.7]** 산의 가장 높은 곳에는 흙더미로 이루어진 리카이온 제우스의 제단이 있다. 이곳에서는 펠로폰네소스의 대부분이 보인다. 제단 앞 동쪽에 기둥 둘이 서 있는데, 옛날에는 그 위에 금을 입힌 독수리가 있었다. 이 제단에서 그들은 리카이온의 제우스에게 남몰래 제사를 올린다. 나는 그 제사의 세부를 캐묻고 싶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러했듯 그대로 둘 일이다.

**[8.38.8]** 산 동쪽에는 파라시아라는 별칭을 지닌 아폴론의 성소가 있다. 그들은 이 신을 피티오스라고도 부른다. 해마다 신을 기리는 축제를 열어 아고라에서 '도움을 주는 아폴론'에게 멧돼지 한 마리를 바친다. 제사를 마치자마자 아울로스 소리에 맞추어 행렬을 이루어 제물을 파라시아의 아폴론 성소로 옮긴다. 넓적다리뼈를 잘라 내어 불태우고 제물의 고기는 그 자리에서 먹는다.

**[8.38.9]** 그들의 관습은 이와 같다. 리카이온산 북쪽에는 테이소아인들의 땅이 있다. 주민들이 가장 높이 받드는 이는 님프 테이소아다. 알페이오스강의 지류들인 밀라온, 누스, 아켈로오스, 켈라도스, 날리포스가 테이소아 땅을 흐른다. 아르카디아의 아켈로오스와 같은 이름을 지녔으면서 그보다 더 이름난 강이 두 개 더 있다.

**[8.38.10]** 아켈로오스강 하나는 아카르나니아와 아이톨리아를 지나 에키나데스 제도 곁에서 바다에 든다.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에서 이 강을 모든 강의 으뜸이라 부른다. 시필로스산에서 흘러나오는 또 다른 아켈로오스는 호메로스가 니오베를 이야기할 때 그 산과 함께 언급한다. 아켈로오스라 부르는 세 번째 강은 리카이온산 곁의 강이다.

**[8.38.11]** 리코수라 오른쪽에는 노미아산맥이 있고 그 위에 노미아의 판 성소가 있다. 주민들은 그곳을 멜페이아라 부르며, 판이 이곳에서 피리 가락을 처음 알아냈다고 한다. 노미아산맥이라는 이름이 판의 목초지, 곧 '노마이'에서 나왔으리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아르카디아인들 자신은 님프에게서 이름을 땄다고 한다.

영어 대조본 · 그리스어 원문

## 제39장

**[8.39.1]** 리코수라 서쪽으로 플라타니스톤강이 흐른다. 피갈리아로 가는 사람은 누구나 이 강을 건너야 한다. 강을 건너고 나면 오르막이 서른 스타디온쯤 이어진다.

**[8.39.2]** 리카온의 아들 피갈로스가 처음 도시를 세운 일, 세월이 흘러 도시가 부콜리온의 아들 피알로스의 이름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옛 이름을 되찾은 일은 앞서 밝혔다. 피갈로스가 리카온의 아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태어난 토착민이었다는, 믿을 만하지 않은 이야기도 전한다. 피갈리아가 드리아스라 불리는 나무의 님프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한 이들도 있다.

**[8.39.3]** 라케다이몬인들은 아르카디아인들을 공격하여 피갈리아에 침입했고, 주민들을 전투에서 이기고 도시를 포위했다. 성벽이 함락될 지경에 이르자 피갈리아인들은 달아났거나, 라케다이몬인들이 휴전을 맺어 그들을 나가게 해 주었을 것이다. 피갈리아가 함락되고

주민들이 달아난 것은 아테나이에서 밀티아데스가 아르콘이던 때였다. 라코니아의 키오니스가 세 번째로 이긴 제30회 올림피아드의 둘째 해였다.

**[8.39.4]** 달아난 피갈리아인들은 델포이로 가서 귀향에 관해 신에게 묻기로 했다. 피티아는 그들이 자기 힘만으로 귀환하려 하면 돌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오레스테시온에서 정예병 백 명을 데리고 가면 그들은 전투에서 죽겠지만 그들 덕분에 피갈리아인들이 도시로 돌아가게 되리라고 했다. 오레스테시온 사람들은 피갈리아인들이 받은 신탁을 듣자 누구나 그 정예 백 명에 뽑혀 피갈리아 원정에 참가하고자 서로 다투어 나섰다.

**[8.39.5]** 그들은 라케다이몬 수비대를 치러 나아가 신탁을 빠짐없이 이루었다. 싸우다 영광스럽게 죽었으며, 스파르타인들을 몰아내 피갈리아인들이 고향을 되찾게 했다. 피갈리아는 대부분이 가파른 고지에 있다. 성벽은 벼랑 위에 쌓았으나 언덕 꼭대기는 평탄하다. 이곳에는 ‘구원하는 아르테미스’의 성소와 돌로 만든 입상이 있다. 주민들은 관례에 따라 이 성소에서 행렬을 시작한다.

**[8.39.6]** 체육장의 헤르메스상은 망토를 두른 사람처럼 보인다. 상의 아래는 발로 끝나는 대신 네모난 기둥 모양이다. 디오니소스 신전도 있다. 주민들은 이 신을 ‘섞지 않은 포도주를 가져오는 이’라는 뜻의 아크라토포로스라 부른다. 신상의 아랫부분은 월계수 잎과 담쟁이덩굴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부분은 〔…〕 진사로 칠하여 빛이 나게 했다. 진사는 이베리아인들이 금과 함께 찾아낸다고 한다.

영어 대조본 · 그리스어 원문

## 제40장

**[8.40.1]** 피갈리아의 아고라에는 판크라티온 선수 아라키온의 석상이 있다. 특히 자세에서 옛 양식이 드러난다. 두 발을 가지런히 붙였고 팔은 몸 옆으로 엉덩이까지 늘어뜨렸다. 이 상에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하나 세월이 지나면서 사라졌다. 아라키온은 제54회 올림피아드보다 앞서 올림피아에서 두 번 이겼다. 이 대회에서 한 번 더 이긴 것은 경기 심판관들의 공정함과 그 자신의 용기 덕분이었다.

**[8.40.2]** 그가 야생 올리브관을 두고 마지막으로 남은 상대와 겨룰 때였다. 이름이 전하지 않는 그 상대가 먼저 아라키온을 붙잡아 다리로 그의 몸을 조이고 두 손으로 목을 졸랐다. 아라키온은 상대의 발가락을 탈구시켰으나 숨이 막혀 죽었고, 아라키온의 목을 조른 상대도 발가락의 고통 때문에 그때 마침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엘리스인들은 아라키온의 시신에 우승관을 씌우고 그를 승자로 선포했다.

**[8.40.3]** 아르고스인들도 에피담노스의 권투 선수 크레우가스에게 그와 비슷하게 했음을 나는 안다. 상대인 시라쿠사의 다목세노스가 두 사람의 합의를 어겼으므로, 아르고스인들은 크레우가스가 죽은 뒤 네메아 경기의 우승관을 그에게 주었다. 두 사람이 싸우는 동안 저녁이 다가오자, 증인들이 듣는 앞에서 한 번씩 번갈아 상대에게 한 방을 치도록 내주기로 합의했다. 당시 권투 선수들은 양쪽 손목에 단단한 끈을 감는 방식이 아직 없었다. 손가락을 드러내 놓고 손바닥 안쪽에 부드러운 끈을 감고 싸웠다. 이 끈은 무두질하지 않은 소가죽을 가늘게 잘라 옛 방식대로 엮은 것이었다.

**[8.40.4]** 그때 크레우가스는 다목세노스의 머리를 쳤다. 다목세노스는 크레우가스에게 팔을 들어 올리라고 했다. 그가 그대로 하자 다목세노스는 손가락을 곧게 펴 상대의 갈비뼈 아래를 쳤다. 손톱이 날카롭고 일격에 힘이 실려 손이 상대의 배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창자를 움켜쥐고 잡아당겨 뜯어 냈다.

**[8.40.5]** 크레우가스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아르고스인들은 다목세노스가 합의를 어겨 상대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친 것으로 보아 그를 추방했다. 그들은 죽은 크레우가스에게 승리를 주고 아르고스에 그의 상을 만들어 세웠다. 내 시대에도 리키오스 아폴론의 성소에 그 상이 서 있었다.

영어 대조본 · 그리스어 원문

## 제41장

**[8.41.1]** 피갈리아의 아고라에는 오레스테시온 정예병들의 공동묘도 있다. 주민들은 해마다 그들에게 영웅에게 올리는 제사를 지낸다.

**[8.41.2]** 리막스라는 강이 피갈리아 바로 곁을 지나 네다강에 흘러든다. 강 이름은 레아의 정결례에서 왔다고 한다. 레아가 제우스를 낳은 뒤 몸을 씻겨 준 님프들이 그때 나온 오물을 이 강에 버렸기 때문이다. 옛사람들은 오물을 ‘리마타’라 불렀다. 호메로스도 이를테면 역병이 그친 뒤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을 정화하고 리마타를 바다에 던졌다고 했다.

**[8.41.3]** 네다강의 수원은 리카이온산의 일부인 케라우시오스산에 있다. 네다강이 피갈리아에 가장 가까이 오는 곳에서는 피갈리아의 소년들이 강을 기려 머리카락을 자른다. 바다 가까운 곳에서는 작은 배를 띄울 수 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강 가운데 가장 굽이굽이 흐르는 강은 마이안드로스다. 여러 번 왔던 쪽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방향을 튼다. 굽이가 많기로는 그다음이 네다강이다.

**[8.41.4]** 피갈리아에서 위쪽으로 열두 스타디온쯤 되는 곳에는 온천이 있다.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리막스강이 네다강으로 흘러든다. 두 강이 만나는 곳에는 예부터 신성한 에우리노메의 성소가 있다. 땅이 험하여 가까이 가기가 어렵다. 둘레에는 키파리소스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란다.

**[8.41.5]** 피갈리아 사람들은 에우리노메가 아르테미스의 별칭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옛 전승을 물려받은 이들은 에우리노메가 오케아노스의 딸이라고 한다.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에서 에우리노메가 테티스와 함께 헤파이스토스를 맞아들였다고 했다. 해마다 같은 날에만 에우리노메의 성소를 열며, 다른 때에 여는 것은 금기를 어기는 일이다.

**[8.41.6]** 이날에는 공동체도 개인들도 제물을 바친다. 나는 축제 때에 이르지 못하여 에우리노메상을 보지는 못했다. 피갈리아인들의 말로는 목상을 금사슬로 감았고, 엉덩이까지는 여자의 모습이나 그 아래는 물고기라고 한다. 그녀가 오케아노스의 딸이며 깊은 바다에서 테티스와 함께 산다면 물고기 모습은 그녀를 나타내는 표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르테미스와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8.41.7]** 피갈리아는 산들에 둘러싸여 있다. 왼쪽에는 코틸리오스라는 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도시를 방패처럼 가려 주는 엘라이오스산이 있다. 도시에서 코틸리오스산까지는 마흔 스타디온쯤 된다. 그 산에는 바사이라는 곳과 '도움을 주는 이'라는 뜻의 아폴론 에피쿠리오스 신전이 있다. 신전은 지붕까지 돌로 만들었다.

**[8.41.8]** 펠로폰네소스의 신전들 가운데 돌의 아름다움과 균형 잡힌 모습으로 이 신전을 테게아의 신전 다음에 놓을 만하다. 아폴론이 그 이름을 얻은 것은 역병이 돌 때 도왔기 때문이다. 아테나이인들이 역병을 물리쳐 준 그를 '재앙을 막는 이'라는 뜻의 알렉시카코스라고 부른 것과 같다.

**[8.41.9]** 아폴론이 피갈리아인들을 구한 것도 펠로폰네소스인들이 아테나이인들과 전쟁하던 바로 그때였다. 그 증거는 아폴론의 두 별칭이 거의 같은 뜻이라는 점과, 피갈리아 신전의 건축가 익티노스가 페리클레스와 동시대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익티노스는 아테나이인들을 위해 이른바 파르테논을 지었다. 아폴론상이 메갈로폴리스의 아고라에 있다는 것은 앞서 말한 바 있다.

**[8.41.10]** 코틸리오스산에는 샘물이 있다. 이 샘이 리막스강의 수원이라고 기록한 사람은 직접 보지도 않았고, 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다. 나는 둘 다 했다. 우리는 강물이 실제로 흐르는 것을 보았고, 코틸리오스산의 샘물은 조금밖에 흐르지 않고 멀지 않은 곳에서 온전히 자취를 감추는 것도 보았다. 다만 아르카디아의 어디가 리막스강의 수원인지 애써 알아볼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다. 아폴론 에피쿠리오스의 성소 너머에는 코틸론이라는 곳이 있다. 코틸론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과 신상이 있다. 신전은 이제 지붕이 없다.

영어 대조본 · 그리스어 원문

## 제42장

**[8.42.1]** 또 다른 산인 엘라이오스산은 피갈리아에서 서른 스타디온쯤 떨어져 있다. 거기에는 '검은 여신'이라는 뜻의 멜라이나라는 별칭을 지닌 데메테르의 신성한 동굴이 있다. 피갈리아인들은 포세이돈과 데메테르가 맺어졌다는 텔푸사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데메테르가 낳은 것은 말이 아니라 아르카디아인들이 데스포이나라 부르는 딸이었다고 주장한다.

**[8.42.2]** 그 뒤 여신은 포세이돈에게 화가 나고 페르세포네를 빼앗긴 일이 슬퍼 검은 옷을 입고 이 동굴에 오래 틀어박혀 있었다고 한다. 땅의 모든 열매가 말라 죽고 사람들도 굶주림으로 더 많이 죽어 갔지만, 신들 가운데 누구도 데메테르의 은신처를 모르는 듯했다.

**[8.42.3]** 그러다가 판이 아르카디아에 왔다고 한다. 사냥을 하며 이 산 저 산을 떠돌다가 마침내 엘라이오스산에 이르러 데메테르가 어떤 모습으로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보았다. 제우스는 판에게서 이를 듣고 운명의 여신들을 데메테르에게 보냈다. 데메테르는 그들의 말을 듣고 노여움을 풀고 슬픔도 누그러뜨렸다. 피갈리아인들은 이런 사연 때문에 동굴이 데메테르에게 신성하다고 여겨 그 안에 목상을 세웠다고 한다.

**[8.42.4]** 목상은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고 한다. 바위에 앉아 있는데, 머리를 빼면 모든 점에서 여자의 모습이었다. 머리와 갈기는 말의 것이었고, 머리에서는 뱀들과 다른 짐승들의 형상이 돋아났다. 옷은 발에 닿을 만큼 길었다. 한 손에는 돌고래가, 다른 손에는 비둘기가 있었다. 그들이 왜 목상을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전승에 밝고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다. 여신이 검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검은 여신'이라 불렀다고 한다.

**[8.42.5]** 목상을 만든 이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불이 붙었는지 그들은 말하지 못한다. 옛 신상이 사라진 뒤 피갈리아 사람들은 새 상을 바치지 않았으며, 여신의 축제와 제사를 대부분 소홀히 했다. 그러다가 땅이 열매를 맺지 않자 피티아에게 탄원하러 가 다음과 같은 응답을 받았다.

**[8.42.6]**

> 도토리를 먹는 아잔의 아르카디아인들이여,
> 암말을 낳은 데오를 숨겨 준 동굴이 있는 피갈리아에 사는 이들이여,
> 그대들은 모진 굶주림을 고칠 방도를 물으러 왔구나.
> 홀로 두 번 목축민이 되었고, 홀로 두 번 들열매로 살아온 이들이여.
> 그대들을 목축에서 벗어나게 한 이도 데오요,
> 곡식 단을 묶고 떡을 먹던 그대들을 다시 목축으로 돌려보낸 이도 데오였다.
> 옛사람들이 바치던 권리와 오래된 공경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 온 백성이 술을 바쳐 그 노여움을 달래고
> 동굴 구석을 신에게 마땅한 예로 꾸미지 않으면,
> 여신은 곧 그대들이 서로 잡아먹고 자기 자식까지 먹게 하리라.

**[8.42.7]** 피갈리아인들은 돌아온 사절에게서 이 신탁을 듣고 데메테르를 전보다 더 크게 공경했다. 특히 아이기나의 미콘의 아들 오나타스에게 값을 치르고 데메테르상을 만들어 달라고 설득했다. 페르가몬 사람들에게는 이 오나타스가 만든 청동 아폴론상이 있다. 크기와 솜씨 모두에 경탄하게 되는 작품이다. 오나타스는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한 때로부터 약 두 세대 뒤에 피갈리아인들을 위해 청동상을 만들었다. 그가 찾아낸 옛 목상의 그림이나 모형도 어느 정도 따랐으나, 전하는 말로는 꿈에서 본 모습에 가장 많이 의지했다. 연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다.

**[8.42.8]** 크세르크세스가 유럽으로 건너왔을 때 데이노메네스의 아들 겔론이 시라쿠사와 시켈리아의 나머지 지역까지 참주로서 다스렸다. 겔론이 죽자 그의 형제 히에론이 왕권을 이었다. 히에론은 전차 경주에서 이긴 대가로 올림피아의 제우스에게 바치기로 서원한 것을 봉헌하기 전에 죽었다. 그래서 아들 데이노메네스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빚을 갚았다.

**[8.42.9]** 그것들도 오나타스의 작품이고, 올림피아에는 비문 두 개가 있다. 봉헌물 위의 비문은 이러하다.

> 올림피아의 제우스여, 그대의 큰 경기에서
> 네 필 전차로 한 번, 경주마로 두 번 승리한 히에론이
> 이 선물을 그대에게 드렸으니, 아들 데이노메네스가
> 시라쿠사 사람인 아버지를 기리며 봉헌하였다.

**[8.42.10]** 다른 비문은 다음과 같다.

> 아이기나섬에 집을 둔
> 미콘의 아들 오나타스가 나를 만들었다.

오나타스는 아테나이의 헤기아스와 아르고스의 아겔라다스와 동시대 사람이었다.

**[8.42.11]** 내가 피갈리아에 온 것은 주로 이 데메테르상을 보려는 것이었다. 여신에게 제물을 불살라 바치지는 않았다. 그것은 이 고장 사람들의 관습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바치는 제사든 피갈리아 공동체가 해마다 올리는 제사든, 포도와 그 밖의 재배한 과일, 벌집, 기름기가 그대로 남은 손질하지 않은 양털을 바치게 되어 있다. 이를 동굴 앞에 세운 제단에 얹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

**[8.42.12]** 제사를 집전하는 여사제가 있고, 곁에는 이른바 '제사를 맡은 이들' 가운데 가장 젊은 사람이 있다. 이들은 시민 세 명으로 이루어진다. 동굴 둘레에는 참나무 숲이 있고 땅에서 차가운 샘물이 솟는다. 오나타스가 만든 상은 내 시대에는 이미 없었고, 피갈리아인들의 대부분은 그런 상이 있었던 것조차 몰랐다.

**[8.42.13]** 그러나 내가 만난 주민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자기 시대보다 세 세대 전에 천장에서 돌들이 신상 위로 떨어졌다고 했다. 돌들은 신상을 짓눌러 완전히 부서뜨렸다. 과연 천장에는 돌이 떨어져 나간 자리가 지금도 뚜렷이 보였다.

영어 대조본 · 그리스어 원문

## 제43장

**[8.43.1]** 이제 팔란티온에서 볼 만한 것들과, 첫 번째 안토니누스 황제가 어째서 그곳을 마을에서 도시로 승격시키고 주민들에게 자치와 면세의 특권을 주었는지 말해야겠다.

**[8.43.2]** 아르카디아인들 가운데 판단력이 가장 뛰어나고 전쟁에도 가장 능한 사람이 에우안드로스였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는 라돈의 딸인 님프였고 아버지는 헤르메스였다. 그는 식민시를 세우러 파견되어 팔란티온의 아르카디아인들을 이끌고 티베리스강 기슭에 도시를 세웠다. 오늘날 로마의 일부인 그곳은 한때 에우안드로스와 그를 따라온 아르카디아인들이 살던 곳으로, 아르카디아의 도시를 기려 팔란티온이라 불렸다. 뒤에 글자 람다와 뉘를 하나씩 빼면서 이름이 바뀌었다. 황제가 팔란티온에 특혜를 베푼 까닭이 이것이다.

**[8.43.3]** 팔란티온에 은혜를 베푼 안토니누스는 자기 뜻으로 로마인들을 전쟁에 끌어들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마우로이족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자, 그들을 온 땅에서 몰아내 리비아의 맨 끝 아틀라스산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로 달아나게 했다. 마우로이족은 독립 리비아인 가운데 가장 큰 집단이며 유목민이다. 스키타이인들보다도 상대하기 어려운데, 남자와 여자 모두 수레가 아니라 말을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8.43.4]** 그는 브리타니아의 브리간테스족에게서도 영토의 대부분을 빼앗았다. 그들 역시 로마에 속한 게누니아 지방을 먼저 공격했기 때문이다. 리키아와 카리아의 도시들, 그리고 코스와 로도스가 강한 지진으로 무너졌을 때에도 안토니누스 황제가 그것들을 다시 일으켰다. 그는 재건에 몹시 힘을 쏟았고 막대한 돈을 들였다. 그가 그리스인들과 도움을 필요로

한 다른 민족들에게 베푼 금전과 그리스, 이오니아, 카르타고, 시리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다른 이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했다.

**[8.43.5]** 이 황제가 자신을 기리게 한 일이 또 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속주민이라도 자녀가 그리스인 신분이면, 재산을 남에게 물려주거나 황제의 재산에 보태게 하는 법이 있었다. 안토니누스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도록 허락했다. 자기 재산을 불려 주는 법을 유지하기보다 너그러움을 보이는 길을 택한 것이다. 로마인들은 그가 신을 매우 공경하는 사람이었으므로 그를 '피우스'라 불렀다.

**[8.43.6]** 내 생각에는 그를 '사람들의 아버지'라 불린 키로스 대왕과 같은 칭호로 불러도 마땅하다. 그는 같은 이름을 가진 아들을 후계자로 남겼다. 두 번째 안토니누스는 유럽의 이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많고 전쟁에 능한 게르만인들과 사르마티아인들에게 보복했다. 두 민족 모두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영어 대조본 · 그리스어 원문

## 제44장

**[8.44.1]** 아르카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면 이제 메갈로폴리스에서 팔란티온과 테게아로 가는 길을 설명하면 된다. 이 길은 이른바 둑까지 이어진다. 길에는 에케모스의 아들 라도코스의 이름을 딴 라도케이아라는 교외 마을이 있고, 그다음에는 옛날 하이모니아이 도시가 있던 자리가 나온다. 리카온의 아들 하이몬이 세운 이곳에는 오늘날까지 하이모니아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다.

**[8.44.2]** 하이모니아이를 지나 길 오른쪽에는 오레스테시온의 볼 만한 유적이 남아 있다. 특히 아르테미스 성소의 기둥들이 아직 서 있다. 여신의 별칭은 '여사제'다. 하이모니아이에서 곧장 가면 아프로디시온이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는 아테나이온이 있다. 아테나이온 왼쪽에는 아테나 신전이 있고 안에는 돌로 만든 신상이 있다.

**[8.44.3]** 아테나이온에서 스무 스타디온쯤 떨어진 곳에 아세아의 폐허가 있다. 옛 아크로폴리스가 있던 언덕에는 오늘날에도 성벽의 자취가 남아 있다. 아세아에서 다섯 스타디온쯤 가면 알페이오스강과 에우로타스강의 수원이 있다. 알페이오스의 수원은 길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에우로타스의 수원은 길 바로 곁에 있다. 알페이오스의 수원 근처에는 지붕이 없는 신들의 어머니 여신의 신전과 돌로 만든 사자 두 마리가 있다.

**[8.44.4]** 에우로타스의 물은 알페이오스와 합쳐져 스무 스타디온쯤 흐른다. 그러고는 땅의 갈라진 틈으로 떨어지는데, 에우로타스는 라케다이몬 땅에서, 알페이오스는 메갈로폴리스 땅의 '샘들'이라는 뜻의 페가이에서 다시 지상으로 솟는다. 아세아에서 보레이온산으로 오르는 길이 있고, 꼭대기에는 성소의 흔적이 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에서 돌아온 뒤 구원하는 아테나와 포세이돈을 기려 세운 성소라고 한다.

**[8.44.5]** 이른바 둑은 메갈로폴리스와 테게아 및 팔란티온의 경계다. 둑에서 왼쪽으로 돌면 팔란티온 평야에 이른다. 팔란티온의 한 신전에는 팔라스와 에우안드로스의 석상이 있다. 데메테르의 딸 코레의 성소도 있고, 멀지 않은 곳에는 폴리비오스의 상이 있다. 도시 위의

언덕은 예전에 아크로폴리스로 쓰였다. 언덕 꼭대기에는 어떤 신들의 성소가 아직 남아 있다.

**[8.44.6]** 그 신들의 별칭은 ‘정결한 신들’이며, 여기서 가장 엄숙한 맹세를 하는 것이 관례다. 주민들은 신들의 이름을 모르거나, 알고도 밝히지 않는다. 다만 팔라스가 아버지가 리카이온의 제우스에게 바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았으므로 정결한 신들이라 불린 듯하다.

**[8.44.7]** 이른바 둑의 오른쪽에는 만티리아 평야가 있다. 테게아의 경계에 있는 평야로, 도시까지 약 오십 스타디온에 걸쳐 펼쳐져 있다. 길 오른쪽에는 크레시오스라는 작은 산이 있는데, 그 위에 아프네이오스의 성소가 있다. 테게아인들의 말로는 아레스가 알레우스의 아들 케페우스의 딸 아에로페와 맺어졌다고 한다.

**[8.44.8]** 아에로페는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 아이는 어머니가 죽은 뒤에도 어머니에게 달라붙어 젖을 아주 많이 빨았다. 아레스의 뜻으로 그렇게 되었기에 주민들은 신을 ‘풍성한 이’라는 뜻의 아프네이오스라 부르고, 아이에게는 아에로포스라는 이름을 주었다고 한다. 테게아로 가는 길에는 레우코네의 샘이라 불리는 샘이 있다. 아페이다스가 레우코네의 아버지였다고 하며, 테게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녀의 무덤이 있다.

영어 대조본 · 그리스어 원문

## 제45장

**[8.45.1]** 테게아인들에 따르면 리카온의 아들 테게아테스 시대에는 그 지방만 그의 이름을 땄고, 주민들은 여러 데모스에 흩어져 살았다. 가레아타이, 필라케이스, 카리아타이, 코리테이스, 포타키다이, 오이아타이, 만티레이스, 에케우에테이스가 그곳이다. 아페이다스가 다스릴 때 그들에게 아페이단테스라는 아홉 번째 데모스가 더해졌다. 오늘날 도시를 세운 이는 알레우스였다.

**[8.45.2]** 테게아인들은 아르카디아인들과 함께 트로이아 전쟁, 페르시아 전쟁, 디파이아에서 라케다이몬인들과 벌인 전투에 참가했다. 앞서 밝힌 일들 외에 그들만이 자랑할 만한 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리쿠르고스의 아들 안카이오스는 상처를 입고도 칼리돈의 멧돼지에 맞섰다. 아탈란테는 그 멧돼지에게 화살을 쏘아 가장 먼저 맞혔다. 그 공으로 용기의 상인 멧돼지 머리와 가죽을 받았다.

**[8.45.3]** 헤라클레스의 자손들이 펠로폰네소스로 돌아왔을 때 테게아인 아에로포스의 아들 에케모스가 힐로스와 일대일로 싸워 이겼다. 또 테게아인들은 아르카디아인 가운데 처음으로 라케다이몬인들을 물리쳤다. 침공해 온 적과 싸워 이기고 그 대부분을 포로로 잡았다.

**[8.45.4]** 알레우스는 테게아인들을 위해 아테나 알레아의 옛 성소를 마련했다. 뒤에 테게아인들은 여신에게 크고 볼 만한 신전을 세웠다. 아테나이에서 디오판토스가 아르콘이던 때에 갑자기 불이 나 성소가 완전히 타 버렸다. 엘리스의 에우폴레모스가 달리기에서 이긴 제96회 올림피아드의 둘째 해였다.

**[8.45.5]** 지금의 신전은 건축의 여러 면과 특히 크기에서 펠로폰네소스의 다른 모든 신전을 크게 앞선다. 첫 줄의 기둥은 도리스 양식이고 그다음은 코린토스 양식이다. 신전 안에는 이오니아 양식의 기둥들도 서 있다. 그 건축가는 파로스의 스코파스였음을 알아냈다. 그는 예로부터 그리스에 속한 곳곳에 신상을 만들었고 이오니아와 카리아 일대에도 몇 점 만들었다.

**[8.45.6]** 앞쪽 박공에는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이 그려져 있다. 멧돼지는 한가운데 있다. 한쪽에는 아탈란테, 멜레아그로스, 테세우스, 텔라몬, 펠레우스, 폴리데우케스, 헤라클레스의 과업 대부분을 함께한 이올라오스가 있다. 테스티오스의 아들들이며 알타이아의 형제인 프로토스와 코메테스도 있다.

**[8.45.7]** 멧돼지 반대쪽에는 에포코스가 이제 상처를 입고 도끼를 떨어뜨린 안카이오스를 받치고 있다. 그 곁에는 카스토르와 오이클레스의 아들 암피아라오스가 있다. 다음에는 히포토오스가 있다. 그는 케르키온의 아들, 아가메데스의 손자, 스팀팔로스의 증손자다. 마지막 인물은 페이리토오스다. 뒤쪽 박공에는 카이코스 평야에서 아킬레우스와 싸우는 텔레포스가 새겨져 있다.

영어 대조본 · 그리스어 원문

## 제46장

**[8.46.1]**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안토니우스와 그 동맹군을 물리친 뒤 아테나 알레아의 옛 신상과 칼리돈 멧돼지의 엄니들을 가져갔다. 아르카디아인들은 만티네이아인들을 빼고 모두 안토니우스 편이었다.

**[8.46.2]** 패한 이들에게서 봉헌물과 신상을 가져간 사람이 아우구스투스가 처음은 아니었다. 그는 오래된 선례를 따랐을 뿐이다. 트로이아가 함락되어 그리스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카파네우스의 아들 스테넬로스는 제우스 헤르케이오스의 목상을 받았다. 여러 해 뒤 도리스인들이 시켈리아로 옮겨 갈 무렵, 겔라의 창건자 안티페모스가 시카노이족의 도시 옴파케를 약탈하고 다이달로스가 만든 신상을 겔라로 옮겼다.

**[8.46.3]** 페르시아왕 다레이오스의 아들 크세르크세스도 아테나이에서 노획물을 가져갔을 뿐 아니라 브라우론에서 브라우론의 아르테미스상을 가져갔다. 더 나아가 밀레토스인들이 그리스 바다에서 아테나이인들과 해전을 벌일 때 겁을 먹었다고 탓하며, 브란키다이의 청동 아폴론상도 가져갔다. 나중에 이 상을 밀레토스인들에게 돌려준 사람은 셀레우코스였다. 그러나 아르고스인들은 티린스에서 가져간 상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그중 목상 하나는 헤라상 곁에 있고, 다른 하나는 리키오스 아폴론의 성소에 보관되어 있다.

**[8.46.4]** 또 키지코스인들은 전쟁으로 프로콘네소스인들을 굴복시켜 키지코스에 살게 하면서 프로콘네소스에서 어머니 여신 딘디메네의 상을 가져왔다. 신상은 금으로 되어 있고 얼굴은 상아 대신 하마의 이빨로 만들었다. 이처럼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그리스인과 이민족 사이에 오래전부터 통용된 관습을 따랐다. 로마에 있는 아테나 알레아상은 아우구스투스가 마련한 포룸에 들어서는 곳에 있다.

**[8.46.5]** 그곳에 세운 이 상은 온전히 상아로 만들었고, 엔도이오스의 작품이다. 진귀한 물건들을 관리하는 이들은 멧돼지의 엄니 가운데 하나는 부러졌다고 한다. 남은 것은 황제의 정원에 있는 디오니소스 성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길이는 반 오르기아쯤 된다.

영어 대조본 · 그리스어 원문

## 제47장

**[8.47.1]** 지금 테게아에 있는 신상은 만티레이스 데모스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곳 사람들은 이 여신을 ‘말의 여신’이라는 뜻의 히피아라 불렀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신들과 거인들이 싸웠을 때 여신이 전차의 말을 몰아 엔켈라도스에게 달려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 그리스인들과 펠로폰네소스인들은 이 여신도 알레아라 부르게 되었다. 아테나상 한쪽에는 아스클레피오스, 다른 쪽에는 히기에이아가 서 있다. 파로스의 스코파스가 펜텔리콘 대리석으로 만든 작품이다.

**[8.47.2]** 신전의 봉헌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음과 같다. 칼리돈 멧돼지의 가죽은 세월이 지나 썩었고, 이제 뻣뻣한 털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라케다이몬 포로들이 테게아 평야에서 땅을 팔 때 찼던 족쇄들도 녹에 삭은 것들을 제외하면 걸려 있다. 아테나의 성스러운 침상과 아우게의 초상 그림, ‘코이라’라는 별칭을 가진 테게아 여인 마르페사의 방패도 봉헌되어 있다.

**[8.47.3]** 마르페사는 뒤에 다시 언급하겠다. 아테나의 사제는 소년이다. 임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사춘기 전에만 사제직을 맡으며 그 뒤에는 맡지 않는다. 여신의 제단은 아미타온의 아들 멜람푸스가 만들었다고 한다. 제단에는 레아와 아기 제우스를 안은 님프 오이노에가 있다. 양쪽에 네 인물씩 있다. 한쪽에는 글라우케, 네다, 테이소아, 안트라키아가, 다른 쪽에는 이데, 하그노, 알키노에, 프릭사가 있다. 무사이와 기억의 여신의 상도 있다.

**[8.47.4]** 신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흙을 쌓아 만든 경기장이 있다. 이곳에서 여는 두 경기 중 하나는 아테나의 이름을 따서 알레아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전투에서 라케다이몬인들의 대다수를 산 채로 잡았기에 ‘포획 축제’라는 뜻으로 할로티아라 한다. 신전 북쪽에는 샘이 있다. 주민들은 아우게가 이 샘에서 헤라클레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며, 아우게에 관한 헤카타이오스의 기록과는 다르게 이야기한다. 샘에서 세 스타디온쯤 떨어진 곳에는 아이피토스의 헤르메스 신전이 있다.

**[8.47.5]** 테게아에는 도시를 지키는 아테나 폴리아티스의 성소도 있다. 사제가 해마다 한 번 그 안에 들어간다. 주민들은 이 성소를 ‘방벽’이라는 뜻의 에리마라 부른다. 알레우스의 아들 케페우스가 아테나에게서 테게아가 영원히 함락되지 않으리라는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 여신은 메두사의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 도시를 지켜 주는 물건으로 그에게 주었다고 한다.

**[8.47.6]** 이른바 ‘길을 이끄는 아르테미스’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다. 아르카디아의 오르코메노스 참주 아리스토멜리다스가 테게아의 한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든 그녀를 자기 수중에 넣고 크로니오스에게 맡겨 두었다. 처녀는 참주에게 넘겨지기 전에 두

려움과 수치심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르테미스가 환시로 나타나 크로니오스의 마음을 움직여 아리스토멜리다스에게 맞서게 했다. 크로니오스는 참주를 죽이고 테게아로 달아나 아르테미스의 성소를 마련했다.

영어 대조본 · 그리스어 원문

## 제48장

**[8.48.1]** 아고라는 생김새가 벽돌과 아주 비슷하다. 그 안에는 ‘벽돌 안에 계신 아프로디테’라 불리는 여신의 신전과 석상이 있다. 비석이 두 개 있는데, 하나에는 안티파네스, 크리소스, 티로니다스, 피리아스가 돋을새김으로 새겨져 있다. 테게아인들에게 법을 마련해 준 이들은 오늘날까지 그 공으로 공경을 받는다. 다른 비석에는 말을 붙들고 오른손에 종려 가지를 든 이아시오스가 새겨져 있다. 테바이의 헤라클레스가 올림피아 경기를 열었을 때 이아시오스는 그곳의 경마에서 우승했다고 한다.

**[8.48.2]** 올림피아에서 우승자에게 야생 올리브관을 주는 까닭은 엘리스 편에서 이미 밝혔다. 델포이에서 월계관을 주는 까닭은 뒤에 설명하겠다. 이스트모스 경기에서 소나무, 네메아 경기에서 셀러리가 우승상이 된 것은 팔라이몬과 아르케모로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기에서는 종려관을 주며, 모든 경기에서 우승자의 오른손에 종려 가지를 쥐여 준다.

**[8.48.3]** 이 관습은 테세우스가 크레타에서 돌아오다가 델로스에서 아폴론을 기리는 경기를 열고 우승자에게 종려관을 씌운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그 관습의 유래라고 전한다. 델로스의 종려나무는 호메로스가 오디세우스가 알키노오스의 딸에게 탄원하는 대목에서 언급한다.

**[8.48.4]** 테게아의 아고라에는 아레스상도 있다. 석판에 돋을새김으로 새긴 이 상의 이름은 ‘여인들을 대접하는 이’라는 뜻의 기나이코토이나스다. 라코니아와의 전쟁 때 라케다이몬의 왕 카릴로스가 처음 쳐들어오자 여자들이 무장하여 오늘날 필락트리스, 곧 ‘보초 언덕’이라 불리는 언덕 아래에 매복했다. 두 군대가 맞부딪쳐 양쪽 남자들이 여러 눈부신 전공을 세우고 있을 때,

**[8.48.5]** 여자들이 나타나 라케다이몬인들을 패주시켰다고 한다. 여자들 가운데 ‘코이라’라는 별칭을 지닌 마르페사가 누구보다 대담했고, 카릴로스 자신도 스파르타 포로 가운데 끼어 있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그는 몸값 없이 풀려나면서 라케다이몬인들이 다시는 테게아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도 그 맹세를 어겼다. 한편 여자들은 남자들을 빼고 자기들끼리 아레스에게 승리의 제사를 바쳤으며 제물의 고기도 남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 아레스의 별칭은 이 일에서 나왔다.

**[8.48.6]** ‘성숙한 이’라는 뜻의 제우스 텔레이오스의 제단과 네모난 신상도 있다. 내가 보기에 아르카디아인들은 이런 모양을 아주 좋아한다. 리카온의 아들 테게아테스와 그의 아내 마이라의 무덤도 여기 있다. 마이라는 아틀라스의 딸이라고 한다. 호메로스는 오디세우스가 알키노오스에게 하데스에 다녀온 일과 그곳에서 본 혼령들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마이라를 언급한다.

**[8.48.7]** 테게아인들은 아고라에 에일레이티이아의 신전과 신상을 모시고, 여신을 '무릎 꿇은 아우게'라고도 부른다. 알레우스가 자기 딸을 나우플리오스에게 넘겨 바다에 데려가 빠뜨리라고 명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아우게는 끌려가다가 에일레이티이아의 성소가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다른 이야기에서는 아우게가 아버지 모르게 해산했으며, 파르테니온산에 내버려진 텔레포스에게 사슴이 젖을 먹였다고 한다. 테게아인들 사이에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전한다.

**[8.48.8]** 에일레이티이아 성소 바로 가까이에는 대지의 제단이 있고, 옆에 흰 대리석 비석이 있다. 거기에는 리코르타스의 아들 폴리비오스가, 다른 비석에는 아르카스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엘라토스가 새겨져 있다.

영어 대조본 · 그리스어 원문

## 제49장

**[8.49.1]** 아고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극장이 있다. 그 곁에 청동상들의 받침이 있으나 상은 이제 남아 있지 않다. 받침 하나에는 거기에 있던 상이 필로포이멘의 상이라는 엘레게이아 시가 새겨져 있다. 그리스인들은 그가 보여 준 지혜와 숱한 용맹한 업적 때문에 필로포이멘을 각별히 기억한다.

**[8.49.2]** 아버지 크라우기스는 메갈로폴리스의 아르카디아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명문 출신이었다. 그러나 필로포이멘이 갓난아이일 때 죽었고, 만티네이아의 클레안드로스가 후견인이 되었다. 클레안드로스는 고향에서 불운을 겪어 쫓겨난 뒤 메갈로폴리스에 살고 있었다. 그의 집안과 크라우기스의 집안은 서로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오랜 인연이 있었다. 필로포이멘을 가르친 이들 가운데 메갈로파네스와 에크델로스가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피타네의 아르케실라오스의 제자였다고 전한다.

**[8.49.3]** 몸집과 힘으로 그보다 뛰어난 펠로폰네소스인은 없었으나 얼굴은 못생겼다. 그는 경기에서 상을 받으려고 훈련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자기 땅을 직접 경작했고, 그곳에서 들짐승을 몰아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스에서 이름난 학자들의 책과 전쟁 이야기, 군대를 지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읽었다고 한다. 그는 에파메이논다스의 지혜와 업적을 본받아 평생을 살고자 했지만 모든 면에서 그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다. 에파메이논다스는 성품이 차분하고 특히 좀처럼 화를 내지 않았으나, 이 아르카디아인은 다소 성급했다.

**[8.49.4]** 클레오메네스가 메갈로폴리스를 함락했을 때, 필로포이멘은 뜻밖의 재앙에도 당황하지 않고 군역을 맡을 나이의 남자 약 삼분의 이와 여자들과 아이들을 메세네로 무사히 이끌었다. 당시 메세니아인들은 우호적인 동맹이었다. 클레오메네스는 무사히 빠져나간 사람 일부에게 조건을 제시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기 시작했으며 메갈로폴리스 사람들이 돌아오면 협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필로포이멘은 시민 집회에서 협상이나 휴전은 거절하고 무력으로 귀향을 이루자고 설득했다.

**[8.49.5]** 셀라시아에서 클레오메네스가 이끄는 라케다이몬인들과 싸웠을 때, 아카이아인들과 모든 아르카디아 도시에서 온 병력, 안티고노스가 이끄는 마케도니아군이 함께 참전했

다. 필로포이멘은 기병대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승부가 보병에 달렸음을 보고, 자진하여 말에서 내려 싸우다가 눈에 띄게 용맹한 모습을 보였으며, 적이 내지른 창에 양쪽 넓적다리가 한꺼번에 꿰뚫렸다.

**[8.49.6]** 그는 그렇게 심하게 다치고도 무릎을 굽힌 채 몸을 앞으로 내밀어 두 다리의 움직임으로 창대를 부러뜨렸다. 클레오메네스 휘하의 라케다이몬인들이 패한 뒤 필로포이멘은 진영으로 돌아갔다. 의사들은 한쪽 넓적다리에서 창 뒤끝의 쇠촉을, 다른 쪽에서 창날을 빼냈다. 필로포이멘이 용감하게 싸운 것을 보고 또 전해 들은 안티고노스는 그를 마케도니아로 데려가고 싶어 했다.

**[8.49.7]** 그러나 필로포이멘은 안티고노스에게 별로 마음을 두지 않았다. 내전 중인 크레타로 배를 타고 건너가 용병 한 부대를 이끌었다. 메갈로폴리스로 돌아오자 아카이아인들이 곧 그를 기병대 지휘관으로 뽑았고, 그는 그 부대를 그리스에서 가장 뛰어난 기병대로 만들었다. 라리소스강에서 아카이아인 및 그 동맹군과 엘리스인 및 아이톨리아인들이 싸웠다. 아이톨리아인들은 혈연을 이유로 엘리스인들을 도왔다. 필로포이멘은 먼저 적 기병의 지휘관 데모판토스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 그다음 아이톨리아와 엘리스의 기병을 모두 패주시켰다.

영어 대조본 · 그리스어 원문

## 제50장

**[8.50.1]** 이제 아카이아인들이 필로포이멘을 바라보며 모든 희망을 그에게 걸자, 그는 보병의 무장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전에는 짧은 투창과 길쭉한 방패를 들었다. 방패는 켈트인들의 ‘문짝’ 방패나 페르시아인들의 ‘가지 엮은 방패’와 같은 모양이었다. 필로포이멘은 그들에게 가슴갑옷과 정강이받이를 착용하고 아르고스식 방패와 긴 창을 쓰도록 설득했다.

**[8.50.2]** 새로 권력을 잡은 마카니다스가 라케다이몬의 참주가 되자, 마카니다스 휘하의 라케다이몬과 아카이아인들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필로포이멘이 아카이아군을 지휘했다. 만티네이아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라케다이몬의 경장병은 아카이아 경장병을 물리쳤고, 마카니다스는 달아나는 병사들을 바싹 뒤쫓았다. 한편 필로포이멘은 밀집 보병대를 이끌고 라케다이몬의 중장병을 패주시킨 뒤 추격에서 돌아오는 마카니다스와 마주쳐 그를 죽였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전투에서 불운했으나, 참주에게서 벗어났다는 행운은 패배를 겪고도 남을 만큼 컸다.

**[8.50.3]** 얼마 뒤 아르고스인들이 네메아 경기를 열었고, 필로포이멘은 마침 현악 반주 노래 경연을 보러 와 있었다. 당시 가장 이름난 현악 가수이자 피티아 경기 우승자인 메갈로폴리스의 필라데스가 밀레토스인 티모테오스의 노래 『페르시아인들』을 부르고 있었다. 그가 “그리스에 크고 영광스러운 자유의 장식을 주신 이”라는 가사로 노래를 시작하자, 그리스인 관객들은 필로포이멘을 바라보고 손뼉을 쳐 이 노래가 그에게 어울린다는 뜻을 나타냈다. 올림피아에서 테미스토클레스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 그곳 관객들은 일어나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

**[8.50.4]** 시키온의 아라토스를 독살한 마케도니아의 왕 데메트리오스의 아들 필리포스는 메갈로폴리스에 사람들을 보내 필로포이멘을 죽이라고 했다. 그 시도는 실패했고 필리포스는 온 그리스의 미움을 샀다. 또 테바이인들이 메가라인들을 전투에서 이기고 메가라의 성벽에 벌써 올라타고 있을 때, 메가라인들은 필로포이멘이 메가라에 도착했다고 속였다. 테바이인들은 경계한 나머지 공격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8.50.5]** 라케다이몬에서 또 다른 참주 나비스가 일어났다. 그가 펠로폰네소스에서 가장 먼저 공격한 것은 메세니아인들이었다. 그는 메세니아인들이 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밤에 들이닥쳐 아크로폴리스를 빼고 도시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튿날 필로포이멘이 군대를 이끌고 오자 휴전을 맺고 메세네에서 철수했다.

**[8.50.6]** 필로포이멘이 맡았던 장군의 임기가 끝나고 다른 이들이 아카이아의 장군으로 뽑히자, 그는 다시 크레타로 건너가 전쟁에서 궁지에 몰린 고르틴 사람들 편에 섰다. 아르카디아인들은 그가 자리를 비운 데 화를 냈다. 그는 크레타에서 돌아와 로마인들이 나비스와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8.50.7]** 로마인들은 나비스에 맞서 함대를 갖추었다. 필로포이멘은 열의가 커서 이 싸움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배를 다루는 일을 전혀 몰라 물이 새는 삼단노선에 그 사실도 모르고 올라탔다. 로마인들과 그 동맹군은 호메로스가 병력 목록에서 아르카디아인들이 뱃일을 모른다고 한 구절을 떠올렸다.

**[8.50.8]** 해전 며칠 뒤 필로포이멘과 그의 부대는 달이 뜨지 않는 밤을 기다렸다가 기티온에 있는 라케다이몬군 진영을 불태웠다. 그러자 나비스는 필로포이멘과 그가 거느린 아르카디아인들을 불리한 위치에서 붙잡았다. 아르카디아인들은 수가 적었지만 훌륭한 병사들이었다.

**[8.50.9]** 필로포이멘은 물러나는 대열의 순서를 바꾸어 지형에서 가장 유리한 곳을 적이 아닌 자기편이 쓰도록 했다. 그는 전투에서 나비스를 이기고 밤 동안 라케다이몬인들을 많이 죽였다. 이로써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그의 명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8.50.10]** 그 뒤 나비스는 로마인들과 일정한 기간 동안 휴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칼리돈 사람이 그를 암살했다. 그는 동맹을 맺으러 온 체했지만, 실상은 아이톨리아인들이 바로 그를 죽이려고 보낸 적이었다.

영어 대조본 · 그리스어 원문

## 제51장

**[8.51.1]** 이때 필로포이멘은 스파르타에 들이닥쳐 그곳을 아카이아 동맹에 강제로 가입시켰다. 얼마 뒤 그리스의 로마군 지휘관 티투스와, 아카이아인들의 장군으로 뽑힌 메갈로폴리스 사람 디아이오스의 아들 디오파네스가 라케다이몬인들이 로마에 반기를 들었다고 하여 라케다이몬을 공격했다. 당시 아무 관직도 없던 필로포이멘은 그들을 막으려고 성문을 닫았다.

**[8.51.2]** 이 일과 두 참주에게 맞서 보인 용기 때문에 라케다이몬인들은 백 탈란톤이 넘는 값어치가 있는 나비스의 저택을 그에게 주겠다고 했다. 그는 그 재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에게 선물할 것이 아니라 아카이아인들의 집회에서 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환심을 사라고 했다. 티몰라오스를 겨냥한 말이었다고 한다. 그는 다시 아카이아인들의 장군으로 임명되었다.

**[8.51.3]** 이때 라케다이몬인들은 내전에 휘말렸다. 필로포이멘은 내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삼백 명을 펠로폰네소스에서 쫓아냈고, 헤일로타이 약 삼천 명을 팔아넘겼다. 또 스파르타의 성벽을 허물고, 젊은이들이 리쿠르고스의 법이 정한 방식으로 훈련하지 못하게 하였다. 대신 아카이아의 젊은이들이 받는 훈련을 따르라고 명했다. 세월이 지나 로마인들이 라케다이몬인들에게 그 고장 고유의 훈련 제도를 돌려주게 된다.

**[8.51.4]** 마니우스가 이끄는 로마인들이 테르모필라이에서 니카토르라 불린 셀레우코스의 후손 안티오코스와 그가 데려온 시리아군을 이겼을 때, 메갈로폴리스의 아리스타이노스는 아카이아인들에게 모든 일에서 로마인의 뜻을 따르고 어떤 일에도 맞서지 말라고 조언했다. 필로포이멘은 아리스타이노스를 성난 눈으로 쳐다보며 그가 그리스의 파멸을 앞당기고 있다고 했다. 마니우스는 라케다이몬의 망명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싶어 했으나 필로포이멘이 반대했다. 그가 망명자들의 귀향을 허락한 것은 마니우스가 떠난 뒤였다.

**[8.51.5]** 그러나 필로포이멘도 교만 때문에 벌을 받을 운명이었다. 여덟 번째로 아카이아인들의 지휘관이 된 그는 적에게 산 채로 붙잡혔다는 이유로 상당히 이름난 사람을 꾸짖었다. 당시 아카이아인들은 메세니아인들에게 불만이 있었다. 필로포이멘은 리코르타스에게 군대를 주어 메세니아 땅을 유린하게 했다. 이삼 일이 지나 그는 일흔 살인 데다 심한 열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리코르타스의 원정에 가담하고 싶어 했다. 기병과 작은 방패를 든 병사들을 합쳐 육십 명가량을 이끌고 갔다.

**[8.51.6]** 그러나 리코르타스와 그 군대는 이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메세니아군에게 큰 피해를 입지도, 그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도 않았다. 필로포이멘은 전투 중 머리에 부상을 입고 말에서 떨어져 산 채로 메세네에 끌려갔다. 곧바로 민회가 열렸고 거기서는 아주 상반된 의견들이 나왔다.

**[8.51.7]** 데이노크라테스와 재산으로 영향력을 지닌 메세니아인들은 필로포이멘을 사형에 처하자고 했다. 평민들은 그를 모든 그리스인의 아버지이자 아버지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하며 살려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메세니아인들의 반대에도 결국 데이노크라테스가 필로포이멘을 죽게 했다. 그가 갇힌 곳에 독약을 보냈기 때문이다.

**[8.51.8]** 얼마 지나지 않아 리코르타스는 아르카디아와 아카이아에서 병력을 모아 메세네로 진군했다. 메세니아의 평민들은 곧 아르카디아인 편에 섰고, 필로포이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모두 사로잡혀 벌을 받았다. 데이노크라테스만은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었다. 아르카디아인들은 필로포이멘의 유골도 메갈로폴리스로 가져왔다.

영어 대조본 · 그리스어 원문

## 제52장

**[8.52.1]** 이 일을 끝으로 그리스는 훌륭한 인물을 더 낳지 못했다. 키몬의 아들 밀티아데스는 마라톤에 상륙한 이민족 침략자들을 물리쳐 페르시아군의 진군을 막았다. 그렇게 온 그리스에 은혜를 베푼 첫 사람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런 은혜를 베푼 사람은 크라우기스의 아들 필로포이멘이었다. 밀티아데스 전에 빛나는 일을 해낸 이들로는 멜란토스의 아들 코드로스, 스파르타인 폴리도로스, 메세니아인 아리스토메네스와 그 밖의 여러 사람이 있다. 그러나 살펴보면 저마다 자기 나라를 도왔을 뿐 온 그리스를 도운 것은 아니다.

**[8.52.2]** 밀티아데스 뒤에는 아낙산드리데스의 아들 레오니다스와 네오클레스의 아들 테미스토클레스가 크세르크세스를 그리스에서 물리쳤다. 테미스토클레스는 두 차례 해전으로, 레오니다스는 테르모필라이에서 싸워 그 일을 해냈다. 플라타이아이의 지휘관인 리시마코스의 아들 아리스테이데스와 클레옴브로토스의 아들 파우사니아스는 그리스의 은인이라 불릴 수 없었다. 파우사니아스는 뒤에 죄를 저질렀고 아리스테이데스는 섬에 사는 그리스인들에게 공물을 물렸다. 아리스테이데스 전에는 어느 그리스인도 공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8.52.3]** 아리프론의 아들 크산티포스는 스파르타의 왕 레오티키다스와 함께 미칼레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무찔렀고, 키몬은 그리스인들을 위해 본받을 만한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나이와 싸운 사람들, 특히 그들 가운데 가장 명성을 떨친 이들은 스스로 그리스를 죽이고 거의 침몰시킨 사람들이라 할 만하다.

**[8.52.4]** 그리스 민족이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을 때, 티모테오스의 아들 코논과 폴림니스의 아들 에파메이논다스가 다시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은 라케다이몬의 수비대와 총독들을 몰아내고 열 명이 다스리는 정권들을 없앴다. 코논은 섬과 해안에서, 에파메이논다스는 내륙 도시들에서 그렇게 했다. 에파메이논다스는 또한 메세네와 아르카디아의 메갈로폴리스라는 이름난 도시들을 세워 그리스의 명성을 더했다.

**[8.52.5]** 나는 레오스테네스와 아라토스도 모든 그리스인에게 은혜를 베푼 이들로 꼽는다. 레오스테네스는 알렉산드로스가 반대하는데도 페르시아에서 해안으로 내려온 그리스 용병 오만 명쯤을 배에 태워 그리스로 무사히 데려왔다. 아라토스의 업적은 시키온 편에서 이야기했다.

**[8.52.6]** 테게아의 필로포이멘상에 새긴 글은 이렇다.

> 이 사람의 용기와 영광은 온 그리스에 이름 높다.
> 힘으로도 많은 일을 했고 지략으로도 많은 일을 했으니,
> 아르카디아의 창병 필로포이멘이 전쟁에서
> 창 든 군대를 지휘할 때 큰 명성이 그를 따랐다.
> 스파르타의 참주들을 꺾어 세운 전승 기념물 둘이 증언하네.
> 그는 불어나는 예속의 물결을 막았으니,
> 테게아가 크라우기스의 도량 큰 아들,
> 흠 없는 자유를 이룬 이의 상을 이곳에 세웠다.

영어 대조본 · 그리스어 원문

## 제53장

**[8.53.1]** 조각상 받침에 새긴 글은 이와 같다. 테게아인들은 ‘길의 주인’이라는 뜻의 아폴론 아기이에우스 상들을 다음과 같은 까닭에서 세웠다고 한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곳곳을 다니며, 자신들을 밴 레토가 떠돌다가 그 땅에 왔을 때 그녀를 돌보지 않았던 당시 사람들을 모두 벌했다고 한다.

**[8.53.2]** 두 신이 테게아 땅에 왔을 때 테게아테스의 아들 스케프로스가 아폴론에게 다가가 단둘이 이야기했다고 한다. 테게아테스의 또 다른 아들 레이몬은 스케프로스가 자기를 고발하는 말을 했으리라고 의심하여 형제에게 달려들어 죽였다.

**[8.53.3]** 살인에 대한 벌은 곧바로 레이몬에게 닥쳤다. 아르테미스가 그를 활로 쏘았다. 그때 테게아테스와 마이라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에게 제사를 바쳤다. 뒤에 모진 기근이 들자 델포이의 신탁은 스케프로스를 애도하라고 명했다. ‘길의 주인’을 기리는 축제에서는 스케프로스를 위한 의식을 치른다. 그중에 아르테미스의 여사제가 아르테미스 자신이 되어 레이몬을 뒤쫓는 시늉으로 남자 하나를 추격하는 의식이 있다.

**[8.53.4]** 테게아테스의 아들 가운데 살아남은 키돈, 아르케디오스, 고르티스는 모두 스스로 원하여 크레타로 옮겨 갔다고 한다. 키도니아와 고르티나와 카트레아라는 도시 이름이 이들에게서 나왔다고 한다. 크레타인들은 테게아인들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키돈이 헤르메스와 미노스의 딸 아카칼리스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카트레우스는 미노스의 아들, 고르티스는 라다만티스의 아들이라고 한다.

**[8.53.5]** 라다만티스에 관해서는 호메로스가 프로테우스와 메넬라오스의 대화에서 말한다. 메넬라오스는 엘리시온 평야로 갈 것이며, 라다만티스는 거기에 이미 가 있다는 것이다. 키나이톤도 자기 시에서 라다만티스를 헤파이스토스의 아들로, 헤파이스토스를 탈로스의 아들로, 탈로스를 크레스의 아들로 그렸다. 그리스의 전설은 대체로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하며, 혈통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특히 그렇다.

**[8.53.6]** 테게아에는 아기이에우스의 상이 넷 있는데, 각 부족이 하나씩 세웠다. 부족들의 이름은 클라레오티스, 히포토이티스, 아폴로니아티스, 아타네아티스다. 아르카스가 아들들에게 땅을 나눠 주려고 뽑은 제비와 케르키온의 아들 히포토오스에게서 부족 이름이 나왔다.

**[8.53.7]** 테게아에는 데메테르와 코레의 신전도 있다. 주민들은 두 여신을 ‘열매를 가져오는 이들’이라 부른다. 바로 곁에는 ‘파포스의 아프로디테’라 불리는 여신의 신전이 있다. 이 신전은 라오디케가 지었다. 내가 이미 말했듯 그녀는 아르카디아인들을 이끌고 트로이아에 간 아가페노르의 후손이며 파포스에 살았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디오니소스 성소 두 곳, 코레의 제단, 금을 입힌 신상이 있는 아폴론 신전이 있다.

**[8.53.8]** 그 신상을 만든 이는 케이리소포스다. 그는 크레타 사람이었으나 언제 살았고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는 모른다. 다이달로스가 크노소스에서 미노스와 함께 지낸 덕분에 크레타

인들은 목상을 만드는 솜씨로도 이름을 얻었고, 그 명성은 오래 이어졌다. 아폴론상 곁에는 케이리소포스의 석상이 서 있다.

**[8.53.9]** 테게아인들에게는 ‘아르카디아인의 공동 화덕’이라 부르는 곳도 있다. 여기에는 헤라클레스상이 있는데, 넓적다리에 히포코온의 아들들과 첫 싸움에서 입은 상처가 새겨져 있다. 테게아인들의 제단이 대부분 모여 있는 높은 곳은 ‘제비의 제우스’ 클라리오스의 자리라 불린다. 신의 별칭이 아르카스의 아들들을 위해 뽑은 제비에서 나왔음은 분명하다. 이곳에서 테게아인들은 해마다 축제를 연다.

**[8.53.10]** 한 번은 축제 때 라케다이몬인들이 쳐들어왔다고 한다. 눈이 내리는 터라 침략군은 추위에 얼어붙었고, 갑옷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웠다. 테게아인들은 적이 모르게 불을 피웠다. 그래서 추위에 시달리지 않은 그들이 갑옷을 챙겨 입고 라케다이몬인들을 맞아 싸워 이겼다고 한다. 테게아에서는 알레우스의 집과 에케모스의 무덤, 그리고 석판에 돋을새김한 에케모스와 힐로스의 싸움도 보았다.

**[8.53.11]** 테게아에서 라코니아로 가는 길의 왼쪽에는 판의 제단과 리카이온의 제우스 제단이 있다. 성소의 기초도 아직 남아 있다. 이 제단들은 성벽에서 두 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거기서 약 일곱 스타디온 더 가면 ‘늪의 여신’이라는 뜻의 림나티스 아르테미스 성소가 있고, 흑단으로 만든 신상이 있다. 조각 양식은 그리스인들이 아이기나 양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약 열 스타디온 더 가면 크나케아티스라는 별칭을 지닌 아르테미스의 신전 폐허가 있다.

영어 대조본 · 그리스어 원문

## 제54장

**[8.54.1]** 라케다이몬과 테게아의 영토 사이 경계는 알페이오스강이다. 그 물은 필라케에서 시작한다. 수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크지는 않으나 수가 많은 샘들에서 또 다른 물이 흘러와 합쳐진다. 그래서 그곳은 ‘합류하는 곳들’이라는 뜻의 심볼라라는 이름을 얻었다.

**[8.54.2]** 알페이오스강에는 다른 강과 다른 타고난 특징이 있음이 알려져 있다. 여러 번 땅 밑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필라케와 심볼라라는 곳에서 흘러나와 테게아의 평야에서 지하로 들어간다. 아세아에서 솟아나 에우로타스의 물과 섞인 뒤 다시 땅속으로 들어간다.

**[8.54.3]** 아르카디아인들이 ‘샘들’이라는 뜻의 페가이라 부르는 곳에서 솟아 피사의 땅과 올림피아를 지나고, 엘리스의 항구 킬레네 위쪽에서 바다로 흘러든다. 아드리아해조차 강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 넓고 파도가 거센 바다를 지나 시라쿠사 앞의 오르티기아에서 자신이 알페이오스임을 드러내고 아레투사의 물과 하나가 된다.

**[8.54.4]** 테게아에서 티레아와 그 영토에 속한 마을들로 곧장 가는 길에서 볼 만한 것은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의 무덤이다. 테게아인들은 스파르타 사람 하나가 이곳에서 그의 뼈를 훔쳤다고 한다. 우리 시대에 무덤은 더는 성문 안에 있지 않다. 길을 따라 가라테스강

도 흐른다. 가라테스를 건너 열 스타디온을 더 가면 판의 성소가 있다. 그 곁에는 성소와 마찬가지로 판에게 신성한 참나무가 서 있다.

**[8.54.5]** 테게아에서 아르고스로 가는 길은 수레가 다니기에 아주 좋은 훌륭한 큰길이다. 길에서 먼저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과 신상이 나온다. 다음에 왼쪽으로 한 스타디온가량 비켜 가면 피티오스라는 별칭을 지닌 아폴론의 성소가 완전히 무너진 채 있다. 곧은 길을 따라 참나무가 많고, 그 숲에는 '코리테이스에 계신 데메테르'라 불리는 여신의 신전이 있다. 바로 근처에는 비의의 디오니소스 성소도 있다.

**[8.54.6]** 이 지점에서 파르테니온산이 시작된다. 산에서는 텔레포스의 성역을 가리켜 보여준다. 그가 어린아이였을 때 여기에 버려졌고 사슴이 젖을 먹였다고 한다. 조금 더 가면 판의 성소가 있다. 아테나이인들과 테게아인들은 판이 바로 이곳에서 필리피데스에게 나타나 그와 말을 나누었다는 데 의견이 같다.

**[8.54.7]** 파르테니온산에는 리라를 만들기에 아주 알맞은 거북들도 산다. 그러나 산에 사는 사람들은 거북이 판에게 신성하다고 여겨 잡기를 늘 두려워하고, 외지인이 잡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산마루를 넘으면 경작하는 땅으로 들어서고 테게아와 아르고스의 경계에 닿는다. 그곳은 아르고스 땅의 히시아이 가까이에 있다. 펠로폰네소스의 여러 지방과 그 지방들의 도시, 그리고 각 도시에서 특히 볼 만한 것은 이와 같다.

영어 대조본 · 그리스어 원문

# 제9권 보이오티아

## 제1장

**[9.1.1]** 보이오티아는 여러 곳에서 아티카와 경계를 맞댄다. 플라타이아이와 엘레우테라이가 맞닿는 곳도 그중 하나다. 보이오티아인들은 보이오토스에게서 민족의 이름을 얻었다. 전설에 따르면 보이오토스는 이토노스와 님프 멜라니페의 아들이고, 이토노스는 암픽티온의 아들이었다. 도시들 가운데는 남자의 이름을 딴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자의 이름을 땄다. 내 생각에 플라타이아이인들은 본래 그 땅에서 태어난 토박이였다. 그들의 이름은 플라타이아에게서 왔으며, 그들은 그녀를 아소포스강의 딸이라 여긴다.

**[9.1.2]** 플라타이아이인들도 옛날에는 왕의 통치를 받았음이 분명하다. 옛 그리스에서는 어디서나 왕정이 정체의 일반적인 형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라타이아이인들이 아는 왕은 아소포스와 그보다 앞선 키타이론뿐이다. 키타이론은 산에, 아소포스는 강에 이름을 남겼다고 한다. 내 생각에 도시의 이름이 된 플라타이아도 강의 딸이 아니라 아소포스 왕의 딸이었다.

**[9.1.3]** 아테나이인들이 마라톤에서 전투를 치르기 전까지는 플라타이아이인들에게 내세울 만한 공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마라톤 전투에 참가했다. 뒤에 크세르크세스가 바다 쪽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아테나이인들과 함께 용감하게 함대에 올랐으며, 자기들의 땅에서는 크세르크세스의 장군인 고브리아스의 아들 마르도니오스를 막아 싸웠다. 그들에게는 고향에서 쫓겨났다가 보이오티아로 돌아오는 일이 두 번이나 닥쳤다.

**[9.1.4]** 펠로폰네소스인들과 아테나이인들의 전쟁에서 라케다이몬인들은 플라타이아이를 포위해 함락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 안탈키다스가 페르시아인들과 그리스인들 사이에 맺어 준 평화가 유지되는 동안 도시가 복구되었고, 플라타이아이인들은 아테나이에서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두 번째 재앙이 닥칠 운명이었다. 플라타이아이와 테바이 사이에는 드러난 전쟁이 없었다. 라케다이몬인들이 카드메이아를 점거할 때 계획에도 실행에도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테바이와 맺은 평화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플라타이아이인들은 주장했다.

**[9.1.5]** 그러나 테바이인들은 라케다이몬인들이 스스로 맺은 평화를 스스로 깼으므로 이제 누구도 그 조약에 매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플라타이아이인들은 테바이인들의 태도를 의심하여 도시를 엄중히 경계했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밭에는 날마다 나가지 않았다. 테바이인들이 투표권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회를 열고, 일단 모이면 오랫동안 논의하는 관습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테바이의 민회가 소집되기를 기다렸다가, 그날에는 가장 멀리 밭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마음 놓고 자기 땅을 돌보았다.

**[9.1.6]** 당시 테바이의 보이오타르케스였던 네오클레스는 플라타이아이인들의 이 계책을 알고 있었다. 그는 테바이인 모두에게 무기를 들고 민회에 오라고 공고한 뒤 곧바로 그들을 이끌고 나갔다. 그가 택한 길은 테바이에서 평야를 가로지르는 곧은 길이 아니라 엘레우테라이와 아티카 쪽으로 돌아 히시아이에 이르는 길이었다. 그쪽에는 플라타이아이인들이 망보는 사람 하나도 두지 않았다. 그들이 성벽에 이르는 때는 거의 한낮이었다.

[9.1.7] 테바이인들이 민회를 열고 있다고 생각한 플라타이아이인들은 들에 나가 있다가 성문으로 돌아갈 길이 막혔다. 테바이인들은 성안에서 붙잡힌 사람들과 합의하여 해가 지기 전에 떠나도록 허락했다. 남자는 옷 한 벌씩, 여자는 두 벌씩 가지고 나갈 수 있었다. 이때 플라타이아이인들이 겪은 일은 예전에 아르키다모스 휘하의 라케다이몬인들에게 함락되었을 때와 정반대였다. 라케다이몬인들은 포위벽을 두 겹으로 쌓고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 도시를 굴복시켰다. 이번에 테바이인들은 성벽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도시를 차지했다.

[9.1.8] 플라타이아이가 두 번째로 함락된 것은 레욱트라 전투 2년 전, 아테나이에서 아스테이오스가 아르콘이던 해였다. 테바이인들은 성소들을 제외한 온 도시를 부수었다. 그러나 도시가 그런 방식으로 함락된 덕분에 플라타이아이인들은 모두 목숨을 건졌으며, 추방된 뒤 아테나이인들의 환대를 다시 받았다. 필리포스는 카이로네이아에서 승리한 뒤 테바이에 수비대를 들여보냈다. 그가 테바이의 힘을 꺾으려고 취한 조치 중 하나는 플라타이아이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다. periegesis.abm.uu.se

## 제2장

[9.2.1] 플라타이아이 땅에 속한 키타이론산에서 곧은 길을 벗어나 오른쪽으로 조금 가면 히시아이와 에리트라이의 폐허에 이른다. 두 곳은 한때 보이오티아의 도시였다. 오늘날에도 히시아이의 폐허에는 짓다 만 아폴론 신전과 신성한 우물이 있다. 보이오티아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에는 이 우물의 물을 마시고 신탁을 받았다.

[9.2.2] 큰길로 돌아오면 다시 오른편에 마르도니오스의 것이라 전하는 무덤이 있다. 전투 직후 마르도니오스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누가 그를 묻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서로 다르다. 마르도니오스의 아들 아르톤테스가 에페소스 사람 디오니소파네스에게 많은 선물을 준 것은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이오니아인들에게도 선물을 주었는데, 그들 역시 마르도니오스의 장례에 수고를 들였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9.2.3] 이 길은 엘레우테라이에서 플라타이아이로 이어진다. 메가라에서 오는 길에는 오른쪽에 샘이 있고, 조금 더 가면 바위가 있다. 그 바위를 '악타이온의 잠자리'라 부른다. 그는 사냥에 지치면 바위 위에서 잠을 잤고, 아르테미스가 목욕하는 동안 이 샘을 들여다보았다고 한다. 히메라의 스테시코로스에 따르면 여신은 악타이온이 세멜레를 아내로 맞지 못하게 하려고 그에게 사슴 가죽을 덮어씌워, 그의 사냥개들이 그를 죽이도록 했다.

[9.2.4] 내 생각에는 신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 악타이온의 사냥개들이 광견병에 걸린 것이다. 미쳐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마주치는 사람은 누구든 가리지 않고 갈기갈기 찢었을 것이다. 키타이론산 어디에서 에키온의 아들 펜테우스에게 재앙이 닥쳤는지, 갓 태어난 오이디푸스를 어디에 버렸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모른다. 반면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인 곳인 포키스의 '갈라진 길'은 우리가 알고 있다. 키타이론산은 키타이론의 제우스에게 신성한 산이다. 이 이야기들은 글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더 자세히 다루겠다.

[9.2.5] 플라타이아이로 들어가는 어귀쯤에는 페르시아인들과 싸우다 죽은 이들의 무덤이 있다. 다른 그리스인들은 공동 무덤에 묻혔으나 라케다이몬과 아테나이의 전사자들에게는

따로 무덤이 있으며, 그 위에는 시모니데스가 지은 엘레게이아 시구가 새겨져 있다. 그리스인들의 공동 무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유의 신' 엘레우테리오스 제우스의 제단이 있다. 〔…〕 그것은 청동으로 만들었으며, 제우스의 제단과 신상은 흰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9.2.6]** 오늘날에도 4년마다 자유를 기리는 엘레우테리아 경기를 연다. 달리기에는 큰 상이 걸려 있으며, 선수들은 무장한 채 제단 앞을 달린다. 플라타이아이 전투를 기념해 그리스인들이 세운 전승비는 도시에서 약 15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서 있다.

**[9.2.7]** 시내에서 엘레우테리오스 제우스의 제단과 신상을 지나 더 가면 플라타이아의 영웅 성소에 이른다. 그녀에 관해 전해지는 이야기와 내 추측은 이미 말했다. 플라타이아이에는 크기와 신상들의 아름다움으로 볼 만한 헤라 신전이 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레아가 포대기에 싼 돌을 마치 자기가 낳은 아기인 양 크로노스에게 가져가는 모습이 보인다. 헤라의 상은 그들이 '성숙한 여신'이라는 뜻으로 텔레이아라 부르는 것으로, 아주 큰 입상이다. 두 상 모두 펜텔리콘 대리석으로 만들었으며 프락시텔레스의 작품이다. 이곳에는 칼리마코스가 만든 헤라 좌상도 있다. 사람들이 이 여신을 '신부'라 부르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다. periegesis.abm.uu.se

## 제3장

**[9.3.1]** 헤라가 무슨 까닭인지 제우스에게 화가 나 에우보이아로 물러갔다고 한다. 제우스는 그녀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자 당시 플라타이아이의 지배자였던 키타이론을 찾아갔다. 그는 누구보다도 꾀가 많은 사람이었다. 키타이론은 제우스에게 나무로 상을 하나 만들어 옷으로 감싸고 소가 끄는 수레에 태운 다음, 아소포스의 딸 플라타이아와 혼례를 치른다고 말하라 했다.

**[9.3.2]** 제우스는 키타이론의 조언을 따랐다. 헤라는 곧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나타났다. 그러나 수레 가까이 다가가 상에서 옷을 찢어 벗기고 보니, 신부가 아니라 목상이었다. 헤라는 그 속임수를 기뻐하여 제우스와 화해했다. 이 화해를 기념하여 사람들은 다이달라라는 축제를 연다. 옛사람들은 목상을 다이달라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는 팔라마온의 아들 다이달로스가 아테나이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목상에 이 이름을 썼다. 다이달로스는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이달라에서 따온 이름으로 불렸을 것이다.

**[9.3.3]** 현지 안내인의 말로는 플라타이아이인들이 6년마다 다이달라 축제를 연다고 한다. 실제로는 그보다 간격이 짧다. 나는 다이달라에서 다음 다이달라까지의 간격을 정확히 헤아리고 싶었으나 알아낼 수 없었다. 축제를 지내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9.3.4]** 알랄코메나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참나무 숲이 있다. 여기 참나무들의 줄기는 보이오티아에서 가장 굵다. 플라타이아이인들은 숲에 와서 삶은 고기를 여러 조각 놓아 둔다. 그곳에 몰려드는 까마귀는 유심히 지켜보지만 다른 새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까마귀가 고기 한 조각을 채 가면 그 까마귀가 어느 나무에 내려앉는지 잘 보아 둔다. 그 나무의 줄기를 베어 다이달론을 만든다. 그들은 그렇게 만든 목상도 다이달론이라 부른다.

[9.3.5] 이 축제는 플라타이아이인들만 지내며 '작은 다이달라'라 부른다. '큰 다이달라'는 보이오티아인들도 함께 지내는 축제로, 59년 간격으로 열린다. 플라타이아이인들이 망명 중이어서 축제가 중단된 기간이 그만큼이었다고 한다. 작은 다이달라 때마다 마련한 목상 열네 점이 준비되어 있다.

[9.3.6] 플라타이아이, 코로네이아, 테스피아이, 타나그라, 카이로네이아, 오르코메노스, 레바데이아, 테바이 사람들이 이 목상들을 놓고 제비를 뽑는다. 안티파트로스의 아들 카산드로스가 테바이를 재건했을 때, 테바이인들이 플라타이아이인들과 화해하고 공동 모임에 참여하며 다이달라에 제물을 보내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보다 작은 도시들은 비용을 함께 내어 목상들을 마련한다.

[9.3.7] 그들은 목상을 아소포스강으로 가져가 수레에 싣고, 신부의 들러리도 수레에 태운다. 행렬에서 차지할 자리도 다시 제비로 정한다. 그 뒤 수레들을 강가에서 키타이론산 정상까지 몰고 간다. 산꼭대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단을 마련한다. 네모난 나무토막들을 석조 건물을 짓듯 서로 맞춰 높이 쌓고, 그 위에 잔가지를 올려놓는다.

[9.3.8] 각 도시의 관리들은 저마다 헤라에게 암소 한 마리, 제우스에게 수소 한 마리를 바친다. 제물에 포도주와 향을 듬뿍 더하여 목상들과 함께 제단에서 태운다. 부유한 개인은 자기가 원하는 제물을 바치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은 작은 가축을 바친다. 제물은 모두 태운다. 불은 제단과 제물을 함께 삼켜 모두 태워 버린다. 내가 아는 한 그보다 높이 치솟거나 더 먼 곳에서 보이는 불길은 없다.

[9.3.9] 제단을 마련하는 꼭대기에서 약 15스타디온 아래에는 키타이론산 님프들의 동굴이 있다. 이름은 스프라기디온이다. 옛날에는 님프들이 이곳에서 신탁을 주었다고 한다.

periegesis.abm.uu.se

## 제4장

[9.4.1] 플라타이아이인들에게는 '전쟁의 여신'이라는 뜻의 아레이아 아테나 성소도 있다. 아테나이인들이 마라톤 전투의 전리품 가운데 그들에게 나누어 준 몫으로 지었다. 신상은 금을 입힌 목상이며, 얼굴과 손과 발은 펜텔리콘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크기는 아테나이의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청동 아테나상보다 조금 작을 뿐이다. 아테나이인들도 마라톤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의 첫 몫으로 그 청동상을 세웠다. 플라타이아이인들의 아테나상 역시 페이디아스가 만들었다.

[9.4.2] 신전에는 그림들이 있다. 폴리그노토스가 그린 것은 오디세우스가 구혼자들을 죽이고 난 뒤의 모습이다. 오나시아스가 그린 것은 아드라스토스 휘하 아르고스인들의 첫 번째 테바이 원정이다. 이 그림들은 신전의 앞방 벽에 있다. 신상의 발치에는 아림네스토스의 초상이 있다. 그는 마르도니오스와 싸울 때 플라타이아이인들을 지휘했으며, 그보다 앞선 마라톤 전투에서도 그들을 이끌었다.

[9.4.3] 플라타이아이에는 엘레우시스의 데메테르 성소와 레이토스의 무덤도 있다. 보이오티아인들을 트로이로 이끈 지휘관들 중 고향에 돌아온 사람은 레이토스뿐이었다. 마르도니

오스와 페르시아 기병은 가르가피아의 샘을 메워 버렸다. 그들과 마주 보고 진을 친 그리스군이 이 샘에서 마실 물을 얻었기 때문이다. 뒤에 플라타이아이인들은 샘물을 되살렸다.

**[9.4.4]** 플라타이아이에서 테바이로 가는 길에는 오에로에강이 있다. 오에로에는 아소포스의 딸이었다고 한다. 아소포스강을 건너기 전에 물줄기를 따라 낮은 곳으로 방향을 바꾸어 약 40스타디온을 가면 스콜로스의 폐허에 이른다. 그 폐허에 있는 데메테르와 코레의 신전은 완성되지 않았으며, 두 여신의 상도 절반만 만들어 놓았다. 오늘날에도 아소포스강이 테바이와 플라타이아이의 경계다. periegesis.abm.uu.se

## 제5장

**[9.5.1]** 테바이 땅에 처음 살았던 사람들은 엑테네스족이었다고 한다. 그들의 왕은 이 땅에서 태어난 오기고스였다. 많은 시인이 테바이를 '오기고스의 도시'라 부르는 것은 그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엑테네스족은 역병으로 사라졌다고 하며, 뒤이어 히안테스족과 아오네스족이 이 땅에 정착했다. 내 생각에 그들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오티아의 종족들이었다.

**[9.5.2]** 카드모스가 페니키아군을 이끌고 침입하자 이 종족들은 패했다. 히안테스족은 밤이 되자 그 땅에서 달아났다. 아오네스족은 자비를 청했고, 카드모스는 그들이 남아 페니키아인들과 합쳐 살도록 허락했다. 아오네스족은 여전히 여러 마을에 나뉘어 살았으나, 카드모스는 오늘날에도 카드메이아라 부르는 도시를 세웠다. 뒤에 도시가 커지면서 카드메이아는 아랫도시 테바이의 아크로폴리스가 되었다. 그리스인들의 전설처럼 카드모스가 참으로 아프로디테와 아레스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면, 그는 훌륭한 혼인을 한 셈이다. 그의 딸들도 아버지에게 명성을 더했다. 세멜레는 제우스의 아이를 낳은 것으로, 이노는 바다의 신이 된 것으로 이름났다.

**[9.5.3]** 카드모스 시대에 그다음으로 큰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뿌려진 자들'이라는 뜻의 스파르토이였다. 크토니오스, 히페레노르, 펠로로스, 우다이오스가 그들이었다. 그러나 카드모스가 뛰어난 용맹을 높이 사 사위로 고른 이는 에키온이었다. 이 사람들에 관해 새로 알아낸 것이 없으므로, 나는 그들이 태어난 방식에서 이름을 얻었다는 전승을 따른다. 카드모스가 일리리아의 엔켈레이스족에게로 옮겨 가자 아들 폴리도로스가 왕위를 얻었다.

**[9.5.4]** 에키온의 아들 펜테우스도 고귀한 가문과 왕과의 친분 덕분에 세력이 있었다. 그는 성품이 오만하여 디오니소스를 불경하게 대했고, 그 신에게 벌을 받았다. 폴리도로스에게는 랍다코스라는 아들이 있었다. 폴리도로스가 죽을 무렵 랍다코스는 아직 어린아이였으므로, 폴리도로스는 나라의 통치와 함께 아이의 보살핌을 닉테우스에게 맡겼다.

**[9.5.5]** 그 뒤 닉테우스가 어떻게 죽었고, 아이를 돌보는 일과 테바이의 통치가 어떻게 닉테우스의 형제 리코스에게 돌아갔는지는 시키온을 다룰 때 이미 이야기했다. 랍다코스가 장성하자 리코스는 통치권을 그에게 넘겼다. 그러나 랍다코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고, 리코스는 이번에는 랍다코스의 아들 라이오스의 후견인이 되었다.

**[9.5.6]** 리코스가 두 번째로 섭정하는 동안 암피온과 제토스는 병력을 모아 테바이로 돌아왔다. 카드모스의 혈통이 후세에 끊기지 않기를 바란 사람들이 라이오스를 몰래 데리고 나왔

다. 리코스는 안티오페의 두 아들에게 전투에서 패했다. 왕권을 얻은 두 사람은 카드메이아에 아랫도시를 덧붙였다. 그리고 테베와 혈연이 있었으므로 그곳을 테바이라고 불렀다.

**[9.5.7]** 호메로스도 『오디세이아』에서 이렇게 말해 내 이야기를 뒷받침한다.

> 그들이 처음 일곱 문을 가진 테바이의 터를 닦고
> 둘레에 망루를 세웠네. 아무리 힘센 두 사람이라도
> 망루 없이 드넓은 테바이에서 살 수는 없었으므로.

그러나 호메로스는 암피온이 노래했다거나 리라 소리에 맞추어 성벽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시에 넣지 않았다. 암피온은 음악으로 명성을 얻었다. 탄탈로스와 인척 관계였기에 리디아인들에게 직접 리디아 선법을 배웠으며, 리라의 본래 네 줄에 세 줄을 더했다.

**[9.5.8]** 에우로페에 관한 시를 지은 사람은 암피온이 처음으로 리라를 연주했고 헤르메스가 그의 스승이었다고 한다. 암피온의 노래가 돌과 짐승까지 끌어당겨 그를 따르게 했다고도 한다. 서사시와 엘레게이아 시를 지은 비잔티온의 여류 시인 미로는 암피온이 처음으로 헤르메스에게 제단을 세웠으며, 이 때문에 신에게서 리라를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 암피온이 하데스에서 벌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가 레토와 그 자녀들을 조롱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9.5.9]** 서사시 『미니아스』는 암피온과 트라키아의 타미리스 두 사람을 다루면서 암피온이 받은 벌도 이야기한다. 암피온과 제토스 두 집안 모두 자식을 잃었다. 암피온의 집안은 역병으로 텅 비었고, 제토스의 아들은 어머니가 무슨 실수를 저질러 죽었다. 제토스 자신도 슬픔에 못 이겨 죽었다. 그러자 테바이인들은 라이오스를 돌아오게 하여 왕위를 돌려주었다.

**[9.5.10]** 라이오스가 왕이 되어 이오카스테와 혼인하자, 델포이에서 신탁이 왔다. 이오카스테가 아이를 낳으면 라이오스가 그 아들의 손에 죽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오이디푸스는 버려졌다. 그는 장성한 뒤 아버지를 죽일 운명이었으며, 자기 어머니와 혼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오이디푸스는 어머니에게서 자식을 얻지 않았다. 그 증인은 『오디세이아』에서 이렇게 말한 호메로스다.

**[9.5.11]**

> 나는 또 오이디포데스의 어머니, 아름다운 에피카스테를 보았네.
> 알지 못한 채 끔찍한 일을 저질러 자기 아들과 혼인한 여인이었네.
>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그녀를 아내로 맞았지.
> 그러나 신들은 곧바로 그 일을 사람들에게 알렸네.

에피카스테가 오이디푸스에게 네 자녀를 낳아 주었다면, 어떻게 신들이 그 일을 '곧바로' 알렸겠는가? 이 자녀들의 어머니는 히페르파스의 딸 에우리게네이아였다. 이른바 『오이디포디아』의 작가가 한 말도 그 증거 가운데 하나다. 또 오나시아스는 플라타이아이에서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비탄에 잠긴 에우리게네이아의 모습을 그렸다.

**[9.5.12]** 폴리네이케스는 오이디푸스가 아직 살아서 다스릴 때 테바이를 떠났다. 아버지의 저주가 아들들에게 이루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아르고스로 가서 아드라스토스의

딸과 혼인했다. 오이디푸스가 죽은 뒤 에테오클레스가 불러 테바이로 돌아왔으나, 귀환하자 에테오클레스와 다투어 두 번째로 망명했다. 그는 아드라스토스에게 자기를 귀환시킬 군대를 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군대를 잃었고, 도전을 받아 에테오클레스와 일대일로 싸웠다.

**[9.5.13]** 두 사람은 결투에서 모두 쓰러졌고, 왕위는 에테오클레스의 아들 라오다마스에게 돌아갔다. 메노이케우스의 아들 크레온이 섭정으로 권력을 맡아 라오다마스를 돌보았다. 라오다마스가 장성하여 왕권을 쥐었을 때 아르고스인들이 두 번째로 테바이를 향해 군대를 이끌고 왔다. 테바이인들은 글리사스에서 그들과 마주 보고 진을 쳤다. 두 군대가 맞붙었을 때 아드라스토스의 아들 아이기알레우스는 라오다마스에게 죽었지만, 싸움에서는 아르고스인들이 이겼다. 라오다마스는 밤이 되자 자기를 따라가려 하는 테바이인들을 데리고 일리리아로 물러났다.

**[9.5.14]** 아르고스인들은 테바이를 차지하여 폴리네이케스의 아들 테르산드로스에게 넘겨주었다. 아가멤논 휘하의 트로이 원정군이 길을 잘못 들어 미시아에서 패했을 때, 테르산드로스도 텔레포스의 손에 죽었다. 그 전투에서 그는 그리스인 가운데 가장 용감한 모습을 보였다. 카이코스 평야로 가는 길에 있는 엘라이아 시의 아고라에는 탁 트인 곳에 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그의 무덤이다. 주민들은 그에게 영웅으로서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9.5.15]** 테르산드로스가 죽은 뒤 트로이의 알렉산드로스와 싸우기 위한 두 번째 원정군을 모았다. 테르산드로스의 아들 티사메노스는 아직 나이가 어렸으므로 페넬레오스가 지휘관으로 뽑혔다. 페넬레오스가 텔레포스의 아들 에우리필로스에게 죽자 티사메노스가 왕이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테르산드로스, 어머니는 암피아라오스의 딸 데모나사였다. 라이오스와 오이디푸스의 복수의 여신들은 티사메노스에게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으나 그의 아들 아우테시온에게는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아우테시온은 신탁의 지시에 따라 도리아인들에게로 옮겨 갔다.

**[9.5.16]** 아우테시온이 떠나자 페넬레오스의 손자이자 오펠테스의 아들인 다마시키톤이 왕으로 뽑혔다. 다마시키톤에게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아들이 있었고, 프톨레마이오스의 아들은 크산토스였다. 크산토스는 안드로폼포스와 결투했으나, 안드로폼포스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고 속임수로 그를 죽였다. 그 뒤 테바이인들은 모든 일을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 여러 사람에게 통치를 맡기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periegesis.abm.uu.se

## 제6장

**[9.6.1]** 내가 알아본 테바이인들의 전쟁에서 가장 이름난 승리와 패배는 다음과 같다. 플라타이아이인들과 영토의 경계를 두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플라타이아이인들을 도우러 온 아테나이인들에게 패했다. 플라타이아이에서 아테나이인들에 맞서 싸울 때 두 번째 패배를 겪었다. 테바이인들이 그리스보다 크세르크세스 왕의 편을 택했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때다.

**[9.6.2]** 그러나 테바이의 민중에게는 그 선택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당시 테바이는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정체 대신 과두정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페이시스트라토스나

그 아들들이 아직 아테나이에서 참주로 지배하던 때에 이방인이 그리스를 침략했다면, 아테나이인들도 틀림없이 페르시아 편을 들었다는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9.6.3] 그러나 뒤에는 테바이인들이 타나그라 땅의 델리온에서 아테나이인들을 이겼다. 그곳에서 아테나이 장군 아리프론의 아들 힙포크라테스가 군대의 대부분과 함께 전사했다. 페르시아인들이 물러난 때부터 아테나이와 펠로폰네소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테바이와 라케다이몬의 관계는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 아테나이 함대가 파괴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테바이는 코린토스와 함께 라케다이몬과의 전쟁에 휘말렸다.

[9.6.4] 그들은 코린토스와 코로네이아에서는 전투에 패했으나, 레욱트라에서는 우리가 아는 한 그리스인이 그리스인을 상대로 거둔 가장 이름난 승리를 얻었다. 그들은 라케다이몬인들이 여러 도시에 설치한 열 명의 통치 기구를 없애고 스파르타의 총독들을 쫓아냈다. 그 뒤에는 그리스인들이 신성 전쟁이라 부르는 포키스와의 전쟁을 잇달아 10년 동안 치렀다.

[9.6.5] 카이로네이아의 패배가 모든 그리스인에게 재앙이었다는 것은 아티카를 다루면서 이미 말했다. 테바이인들에게는 수비대가 도시에 들어왔으므로 더 큰 재앙이었다. 필리포스가 죽어 알렉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의 왕위를 이었을 때, 테바이인들은 그 수비대를 없애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자마자 신은 닥쳐올 파멸을 경고했다. 법을 주는 데메테르의 성소에서 일어난 징조는 레욱트라 전투 전에 나타난 것과 반대였다.

[9.6.6] 그때는 거미들이 성소의 문에 흰 거미줄을 쳤으나, 알렉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군을 거느리고 다가왔을 때 거미줄은 검었다. 술라가 아테나이인들에게 큰 고통을 안긴 전쟁을 벌이기 한 해 전에도 아테나이에 재가 비처럼 내렸다고 한다. periegesis.abm.uu.se

## 제7장

[9.7.1] 이때 테바이인들은 알렉산드로스에게 고향에서 쫓겨나 흩어져 아테나이로 갔다. 나중에 그들을 돌아오게 한 이는 안티파트로스의 아들 카산드로스였다. 테바이의 재건에 가장 열성적으로 나선 이들은 아테나이인들이었다. 메세니아인들과 메갈로폴리스의 아르카디아인들도 그들을 도왔다.

[9.7.2] 내 생각에 카산드로스가 테바이를 재건한 가장 큰 까닭은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증오였다. 그는 알렉산드로스의 집안을 끝까지 몰아붙여 멸망시켰다. 올림피아스를 그녀에게 격분한 마케도니아인들에게 내주어 돌로 쳐 죽이게 했다. 알렉산드로스가 바르시네에게서 얻은 아들 헤라클레스와 록사네에게서 얻은 아들 알렉산드로스는 독으로 죽였다. 그러나 그 자신도 좋은 최후를 맞지는 못했다. 수종으로 몸이 부었고, 그 병 때문에 산 채로 몸에 구더기가 생겼다.

[9.7.3] 그의 아들 가운데 맏이 필리포스는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쇠약해지는 병에 걸려 죽었다. 그다음 아들 안티파트로스는 어머니 테살로니케를 죽였다. 테살로니케는 아민타스의 아들 필리포스와 니카시폴리스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다. 안티파트로스는 어머니가 카산드로스의 막내아들 알렉산드로스를 지나치게 편들었다는 이유로 그녀를 죽였다. 알렉산드로스는 안티고노스의 아들 데메트리오스를 끌어들여, 그의 도움으로 형

안티파트로스를 몰아내고 벌했다. 그러나 그가 데메트리오스에게서 얻은 것은 동맹이 아니라 자신을 죽일 자였다.

**[9.7.4]** 어느 신이 이처럼 카산드로스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카산드로스 시대에 테바이의 옛 성벽은 둘레 전체가 다시 세워졌다. 그러나 운명은 뒤에 테바이인들이 다시 큰 불행을 맛보게 했다. 미트리다테스가 로마인들과 전쟁을 시작하자 테바이인들은 그의 편에 들었다. 내 생각에 아테나이 민중과의 우호 때문이었다. 그러나 술라가 보이오티아에 침입하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은 곧바로 편을 바꾸고 로마인들과 우호를 맺으려 했다.

**[9.7.5]** 그래도 술라는 그들에게 화가 났다. 그들을 굴복시키려는 조치 가운데 하나로 영토의 절반을 떼어 냈다. 그가 내세운 구실은 다음과 같았다. 미트리다테스와 전쟁을 시작할 때 그는 자금이 부족했다. 그래서 올림피아와 에피다우로스의 봉헌물, 그리고 포키스인들이 델포이에 남겨 둔 봉헌물을 모두 거두었다.

**[9.7.6]** 술라는 그것을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고 테바이 땅의 절반을 신들에게 주어 갚았다. 테바이인들은 뒤에 로마인들의 호의로 빼앗긴 땅을 되찾았지만, 이때부터 더할 수 없이 쇠약해졌다. 오늘날 테바이의 아랫도시는 성소들만 빼고는 모두 버려졌다. 사람들은 아크로폴리스에 살며, 그곳을 카드메이아가 아니라 테바이라고 부른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8장

**[9.8.1]** 아소포스강을 건너 도시에서 약 10스타디온 떨어진 곳에는 포트니아이의 폐허가 있다. 그 안에는 데메테르와 코레의 숲이 있다. 포트니아이 곁을 흐르는 강에 있는 상들을 〔…〕 그들은 ‘여신들’이라 부른다. 정해진 때가 되면 전해 내려오는 의례를 지낸다. 그 중 하나는 갓 태어난 새끼 돼지들을 이른바 ‘전각들’에 풀어놓는 일이다. 이 돼지들이 이듬해 같은 철에 도도나에 나타난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믿고 싶은 사람이 믿으면 될 것이다.

**[9.8.2]** 이곳에는 ‘염소를 쏘는 이’라는 뜻의 아이고볼로스 디오니소스 신전도 있다. 한 때 사람들이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다가 술에 취해 몹시 난폭해져 디오니소스의 사제까지 죽였다. 살인 직후 역병이 닥쳤다. 델포이 신탁은 이를 물리치려면 한창때의 소년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했다. 사람들 말로는 몇 해 뒤 신이 소년 대신 염소를 제물로 받았다. 포트니아이에서는 우물도 하나 보여 준다. 그 고장의 암말들이 이 물을 마시면 미쳐 버린다고 한다.

**[9.8.3]** 포트니아이에서 테바이로 가는 길 오른편에는 기둥을 세운 작은 구역이 있다. 그들은 이곳에서 땅이 갈라져 암피아라오스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새도 이 기둥들 위에 앉지 않으며, 길들인 짐승도 들짐승도 이곳에서 자라는 풀을 뜯지 않는다고 한다.

**[9.8.4]** 테바이의 옛 성벽에는 문이 일곱 있었고, 오늘날에도 남아 있다. 한 문은 카드모스의 누이 엘렉트라에게서 이름을 얻었다고 들었다. 다른 하나인 프로이티스문은 테바이 토박이 프로이토스의 이름을 땄다. 그가 언제 살았고 어떤 가문 출신인지는 알아내기 어려웠다. 네이스문이 이름을 얻은 까닭은 이러하다고 한다. 리라의 마지막 줄을 네테라 부르는

데, 암피온이 바로 이 문에서 그 줄을 발명했다는 것이다. 또 암피온의 형제 제토스의 아들이 네이스라 불렸으며, 문은 그의 이름을 땄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9.8.5]** 크레나이아문과 힙시스타문은 다음과 같은 까닭으로 그렇게 부른다. 〔…〕 힙시스타문 곁에는 '가장 높은 이'라는 뜻의 힙시스토스 제우스 성소가 있다. 이 문들 다음에는 오기기아문이라 부르는 문이 있고, 맨 끝에는 호몰로이스문이 있다. 내 눈에도 마지막 문이 이름을 얻은 때가 가장 늦었고, 오기기아문이 가장 오래된 듯했다.

**[9.8.6]** 호몰로이스문이 그 이름을 얻은 까닭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테바이인들이 글리사스 가까이에서 아르고스인들에게 패했을 때, 대부분은 에테오클레스의 아들 라오다마스와 함께 물러났다. 그중 일부는 일리리아까지 가기를 꺼려 테살리아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리고 테살리아의 산 가운데 가장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호몰레산을 차지했다.

**[9.8.7]** 폴리네이케스의 아들 테르산드로스가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그들을 부르자, 그들은 귀환할 때 지나온 문을 호몰레산의 이름을 따 호몰로이스문이라 불렀다. 플라타이아이에서 테바이로 들어오려면 엘렉트라문을 지난다. 힙포노오스의 아들 카파네우스가 유난히 거세게 성벽을 공격하다 벼락을 맞은 곳이 이 문이라고 한다. periegesis.abm.uu.se

## 제9장

**[9.9.1]** 아르고스인들이 테바이인들과 벌인 이 전쟁은 이른바 영웅 시대에 그리스인들이 서로 치른 전쟁 가운데 가장 이야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엘레우시스인들과 나머지 아테나이인들 사이의 전쟁, 테바이인들과 미니아스족 사이의 전쟁에서는, 공격하는 쪽이 전투에 이르기까지 나아간 거리가 짧았다. 한 번의 전투로 승패가 결정되었고 곧바로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맺었다.

**[9.9.2]** 그러나 아르고스군은 펠로폰네소스 한가운데에서 보이오티아 한가운데까지 진군했다. 아드라스토스는 아르카디아와 메세니아인들에게서 동맹군을 모았다. 테바이인들을 돕기 위해서는 포키스에서 용병들이, 미니아스족의 땅에서 플레기아스인들이 왔다. 이스메니오스의 성소 곁에서 전투가 벌어지자 테바이인들은 맞붙어 싸우다 밀렸고, 패주한 뒤 성벽 안으로 피신했다.

**[9.9.3]** 펠로폰네소스인들은 성벽을 공격하는 법을 몰랐다. 솜씨보다 기세에 의지해 공격하다가 성벽 위에서 테바이인들이 던진 무기에 많은 이가 죽었다. 뒤이어 테바이인들이 성 밖으로 나가 혼란에 빠진 나머지 병사들을 무찔렀다. 그리하여 아드라스토스를 제외한 군대 전체가 멸망했다. 그러나 테바이인들 자신도 이 전투에서 큰 손실을 입었다. 그때부터 승리한 쪽까지 파멸시키는 승리를 '카드모스의 승리'라 부른다.

**[9.9.4]** 몇 해 뒤 테르산드로스와 그리스인들이 '뒤에 태어난 자들'이라는 뜻으로 에피고노이라 부르는 이들이 테바이를 공격했다. 아르고스인과 메세니아인과 아르카디아인들뿐 아니라, 도움을 청해 불러온 코린토스와 메가라의 동맹군도 그들과 함께했음이 분명하다. 테바이도 이웃들의 지원을 받아 방어했으며, 글리사스에서 양쪽이 치열하게 싸웠다.

[9.9.5] 테바이인들 중 일부는 패하자마자 라오다마스와 함께 달아났다. 남은 사람들은 포위 끝에 붙잡혔다. 이 전쟁을 다룬 서사시가 있는데, 제목은 『테바이 이야기』다. 칼리노스는 이 시를 언급하면서 작가가 호메로스라고 했고, 믿을 만한 많은 이들이 그 판단에 동의한다. 나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빼면 이 시를 다른 어느 시보다 높이 평가한다. 오이디푸스의 아들들 때문에 아르고스인들이 테바이인들과 치른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periegesis.abm.uu.se

## 제10장

[9.10.1] 성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공동 무덤이 있다. 알렉산드로스와 마케도니아인들을 상대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이 모두 그곳에 묻혔다. 바로 곁에는 카드모스가 샘에서 죽인 드라콘의 이빨을 뿌렸다고 하는 곳을 보여 준다. 그 이빨에서 사람들이 땅을 뚫고 솟아났다는 이야기다. 믿고 싶은 사람이 믿으면 될 것이다.

[9.10.2] 성문 오른편에는 아폴론에게 바친 언덕이 있다. 이스메노스강이 그곳을 지나므로 언덕과 신을 모두 이스메니오스라 부른다. 입구에서 맨 먼저 만나는 것은 아테나와 헤르메스의 석상이다. 두 상은 '신전 앞에 있는 이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헤르메스는 페이디아스가, 아테나는 스코파스가 만들었다고 한다. 그 뒤에 신전이 지어져 있다. 안에 있는 신상은 브란키다이의 신상과 크기가 같고 모양도 전혀 다르지 않다. 두 상 가운데 하나를 보고 제작자가 누구인지 안 사람이라면 막상 다른 상을 볼 때 그것도 카나코스의 작품임을 알아보는 데 큰 솜씨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브란키다이의 상은 청동으로 만들었고 이스메니오스의 상은 삼나무로 만들었다는 점만 다르다.

[9.10.3] 이곳에는 테이레시아스의 딸 만토가 앉곤 했다는 돌이 있다. 입구 앞에 놓인 이 돌을 오늘날에도 '만토의 의자'라 부른다. 신전 오른쪽에는 돌로 만든 여인상들이 있다. 에테오클레스의 아들 라오다마스의 후견인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크레온의 두 딸, 헤니오케와 피라를 본뜬 것이라고 한다.

[9.10.4] 내가 아는 한 테바이에서는 오늘날에도 다음 관습이 행해진다. 고귀한 가문의 소년 가운데 용모가 아름답고 몸이 튼튼한 이가 1년 동안 이스메니오스 아폴론의 사제로 뽑힌다. 소년들이 월계수 잎으로 엮은 관을 쓰므로, 이 사제를 '월계수를 드는 이'라 부른다. 월계관을 썼던 이들이 관례에 따라 모두 청동 세발솥을 신에게 바치는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 그곳에서 제물로 바친 세발솥을 많이 보지 못했으므로 모든 소년이 따르는 규칙은 아닌 듯하다. 하지만 부유한 소년들은 분명히 바친다. 오래되었다는 점에서도, 바친 사람의 명성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헤라클레스가 월계관을 쓴 뒤 암피트리온이 그를 위해 봉헌한 세발솥이다.

[9.10.5] 이스메니오스의 성소 위쪽에는 아레스에게 신성하다고 하는 샘이 보인다. 아레스가 드라콘 한 마리를 세워 샘을 지키게 했다고도 한다. 이 샘 곁에는 카안토스의 무덤이 있다. 그는 오케아노스의 아들이자 멜리아의 형제로, 납치된 누이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명을 받았다고 한다. 아폴론이 멜리아를 데리고 있음을 알아냈으나 그녀를 되찾을 수 없자, 그

는 감히 오늘날 이스메니오스의 성소라 부르는 아폴론의 성역에 불을 질렀다. 테바이인들의 말로는 신이 그를 활로 쏘았다.

**[9.10.6]** 카안토스의 무덤은 이곳에 있다. 아폴론은 멜리아에게서 테네로스와 이스메노스라는 아들들을 얻었다고 한다. 테네로스에게는 아폴론이 예언의 기술을 주었고, 이스메노스에게서는 강이 이름을 얻었다. 다만 그전에도 강에 이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폴론의 아들 이스메노스가 태어나기 전에는 라돈이라 불렸다고 한다. periegesis.abm.uu.se

## 제11장

**[9.11.1]** 엘렉트라문 왼쪽에는 집의 폐허가 있다. 암피트리온이 엘렉트리온의 죽음 때문에 티린스에서 추방되어 이곳에 와 살았다고 한다. 폐허 가운데 알크메네의 방은 아직도 또렷이 알아볼 수 있다. 트로포니오스와 아가메데스가 암피트리온을 위해 이 방을 지었으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 암피트리온이 신부 알크메네를 이리로 데려오려 할 때
> 자기 방으로 이곳을 골랐다.
> 안카시아의 트로포니오스와 아가메데스가 이 방을 만들었다.

**[9.11.2]** 테바이인들은 이곳에 그런 비문이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헤라클레스가 메가라에게서 얻은 아이들의 무덤도 보여 준다. 아이들이 죽은 경위에 관한 그들의 이야기는 파니아시스와 히메라의 스테시코로스가 시에서 전한 것과 다르지 않다. 다만 테바이인들은 미친 헤라클레스가 암피트리온까지 죽이려 했으나, 그러기 전에 돌에 맞아 정신을 잃었다고 덧붙인다. 아테나가 그에게 던졌다는 이 돌을 그들은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소프로니스테르라 부른다.

**[9.11.3]** 이곳에는 여자들의 모습을 돋을새김한 상이 있는데, 지금은 형체가 다소 흐릿하다. 테바이인들은 그들을 '약을 쓰는 여자들'이라는 뜻의 파르마키데스라 부른다. 헤라가 알크메네의 해산을 방해하려고 그들을 보냈고, 그들이 알크메네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테이레시아스의 딸 히스토리스가 파르마키데스를 속일 꾀를 냈다. 그들이 듣는 데서 알크메네가 아이를 낳았다며 기뻐하는 소리를 크게 질렀다. 이야기에 따르면 파르마키데스가 그 말에 속아 떠났고, 알크메네는 아이를 낳았다.

**[9.11.4]** 여기에 헤라클레스의 성소가 있다. 흰 대리석으로 만든 신상은 '앞장서 싸우는 이'라는 뜻의 프로마코스라 불린다. 테바이 사람 크세노크리토스와 에우비오스가 만들었다. 그러나 오래된 목상은 다이달로스의 작품이라 테바이인들은 생각하며, 나도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은혜에 감사하여 다이달로스 자신이 봉헌한 것이라고 한다. 다이달로스는 자신과 아들 이카로스를 위해 만든 작은 배로 크레타에서 달아날 때, 그 시대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했던 돛을 배에 달았다. 순풍을 타고 노를 젓는 미노스의 함대보다 빨리 가기 위해서였다. 다이달로스 자신은 살아남았다.

**[9.11.5]** 그러나 이카로스는 키를 다루는 데 서툴러 배가 뒤집혔다고 한다. 물에 빠져 죽은 그의 몸은 물결에 떠밀려 사모스 너머의 섬에 닿았다. 그때만 해도 이름이 없는 섬이었다.

헤라클레스는 시신을 발견하고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아 묻어 주었다. 오늘날에도 아이가이온해로 튀어나온 곶에 이카로스를 위한 작은 봉분이 서 있다. 섬과 그 둘레의 바다는 모두 이 이카로스의 이름을 얻었다.

**[9.11.6]** 테바이의 이 신전 박공에 있는 조각은 프락시텔레스의 작품으로, 이른바 열두 위업의 대부분을 담고 있다. 헤라클레스가 스팀팔로스의 새들을 죽인 일과 엘리스의 땅을 깨끗이 한 일은 빠져 있다. 대신 안타이오스와 씨름하는 모습을 새겨 놓았다. 리코스의 아들 트라시불로스와 그와 함께 삼십인 참주정을 무너뜨린 아테나이인들은 테바이에서 출발하여 아테나이로 돌아갔다. 그래서 헤라클레스의 성소에 아테나와 헤라클레스의 거대한 상을 바쳤다. 알카메네스가 펜텔리콘 대리석에 돋을새김한 작품이다.

**[9.11.7]** 헤라클레스의 성소에 이어 김나시온과 경주로가 있는데, 둘 다 신의 이름을 땄다. 소프로니스테르라 부르는 돌 너머에는 '재의 신'이라는 뜻의 스포디오스 아폴론의 제단이 있다. 제물을 태우고 남은 재로 만든 제단이다. 이곳에서는 우연히 들은 말로 점치는 것이 관습이다. 내가 아는 한 그리스인 가운데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는 이들은 스미르나인들이다. 그들은 성벽 밖, 도시보다 높은 곳에 우연히 들은 말을 신탁으로 받는 성소를 두었다. periegesis.abm.uu.se

## 제12장

**[9.12.1]** 옛날 테바이인들은 스포디오스 아폴론에게 수소를 제물로 바쳤다. 한 번은 축제 때 제사 시간이 다가왔는데도 수소를 데리러 간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마침 곁에 수레가 있었으므로, 그들은 수레를 끌던 소 가운데 한 마리를 신에게 바쳤다. 그때부터 일하는 소를 바치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테바이인들 사이에는 다음 이야기 또한 전한다. 카드모스가 델포이를 떠나 포키스로 가는 길에 들어섰을 때 암소 한 마리가 그를 인도했다고 한다. 펠라곤의 목자들에게서 산 소였는데, 양쪽 옆구리에 각각 보름달처럼 둥근 흰 무늬가 있었다.

**[9.12.2]** 신탁은 그 암소가 지쳐 주저앉는 곳에 카드모스와 그 일행이 자리를 잡으라고 했다. 그들이 암소가 주저앉았다고 가리키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다. 탁 트인 곳에 아테나의 제단과 신상이 있고, 카드모스가 봉헌했다고 한다. 테바이 땅에 온 카드모스가 페니키아인이 아니라 이집트인이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주장은 이 아테나의 이름과 맞지 않는다. 그녀를 이집트식 이름인 사이스가 아니라 페니키아식 이름인 옹가로 부르기 때문이다.

**[9.12.3]** 테바이인들은 오늘날 아고라가 들어선 아크로폴리스의 일부에 옛날 카드모스의 집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하르모니아의 신방과 세멜레의 것이라 하는 방의 폐허를 보여 준다. 세멜레의 방에는 지금도 아무도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한다. 하르모니아의 혼례에서 무사 여신들이 노래했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그리스인들은, 여신들이 노래했다고 전하는 아고라의 그 자리를 가리켜 보일 수 있다.

**[9.12.4]** 세멜레의 신방에 벼락이 떨어질 때 하늘에서 통나무 하나도 함께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폴리도로스가 그 통나무를 청동으로 꾸미고 '카드모스의 디오니소스'라 불렀

다고 한다. 그 가까이에는 디오니소스의 상이 있다. 오나시메데스가 속까지 청동으로 만들었다. 제단은 프락시텔레스의 아들들이 지었다.

**[9.12.5]** 피리 연주로 민중의 큰 사랑을 받은 프로노모스의 상도 있다. 한동안 피리 연주자들은 세 가지 형태의 피리를 썼다. 한 종류로는 도리아 음악을 연주했고, 프리기아 선율을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피리를 만들었으며, 이른바 리디아 선법은 세 번째 종류의 피리로 연주했다. 모든 선율에 똑같이 알맞은 피리를 처음 고안하고, 그토록 다른 양식의 음악을 같은 악기로 처음 연주한 사람이 프로노모스였다.

**[9.12.6]** 그는 얼굴 표정과 온몸의 움직임으로도 청중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즐거움을 주었다고 한다. 또 에우리포스 해협의 칼키스 사람들을 위해 델로스에서 쓸 행렬곡을 지었다. 그래서 테바이인들은 여기에 그의 상을 세웠으며, 폴림니스의 아들 에파메이논다스의 상도 세웠다. periegesis.abm.uu.se

## 제13장

**[9.13.1]** 에파메이논다스의 조상들은 이름이 높았으나 그의 아버지는 보통 테바이 사람보다도 재산이 적었다. 그는 그 고장의 교육에서 가르치는 모든 과목을 철저히 배웠다. 젊은 시절에는 사모스의 피타고라스 철학에 정통한 타라스 출신 리시스를 찾아가 배웠다. 라케다이몬이 만티네이아와 전쟁할 때 에파메이논다스는 다른 몇 사람과 함께 라케다이몬인들을 돕도록 테바이에서 파견되었다고 한다. 전투에서 펠로피다스가 부상하자 에파메이논다스는 자기 목숨을 큰 위험에 빠뜨리면서 그를 구했다.

**[9.13.2]** 뒤에 라케다이몬인들이 그리스인들과 이른바 안탈키다스의 평화를 맺겠다고 했을 때 에파메이논다스는 사절로 스파르타에 왔다. 아게실라오스는 보이오티아의 도시마다 따로 평화조약의 맹세를 하도록 허락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스파르타인들이여, 그대들의 페리오이코이도 도시마다 따로 맹세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소.”

**[9.13.3]** 라케다이몬과 테바이 사이에 이미 전쟁이 일어나, 라케다이몬인들이 자기 병력과 동맹군을 이끌고 테바이인들을 공격하러 오고 있었다. 에파메이논다스는 전체 병력 가운데 일부를 거느리고 케피시스 호수 위쪽에 자리를 잡았다. 펠로폰네소스인들이 이쪽으로 침입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케다이몬 왕 클레옴브로토스는 포키스의 암브로소스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는 산길을 지키라는 명을 받은 카이레아스의 테바이군을 몰살하고, 높은 지대를 넘어 보이오티아의 레욱트라에 이르렀다.

**[9.13.4]** 여기서 신은 라케다이몬인들과 클레옴브로토스 개인에게 징조를 보냈다. 라케다이몬의 왕들은 원정할 때 양을 데리고 다녔다.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전투 전에 좋은 징조를 얻기 위해서였다. 행군할 때에는 목자들이 카토이아데스라 부르는 암염소들이 양 떼를 이끌었다. 이때 늑대들이 가축 떼에 달려들었는데, 양들에게는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고 카토이아데스라 불리는 염소들만 죽였다.

**[9.13.5]** 스케다소스의 딸들의 원한이 라케다이몬인들에게 닥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레욱트라 가까이 살던 스케다소스에게는 몰피아와 힙포라는 두 딸이 있었다. 두 처녀가 한창 젊

었을 때 라케다이몬인 프루라르키다스와 파르테니오스가 그들을 강간했다. 두 처녀는 당한 일을 견디지 못해 곧바로 목을 매었다. 스케다소스는 라케다이몬으로 갔으나 정당한 판결을 받지 못했다. 그는 레욱트라로 돌아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9.13.6]** 이때 에파메이논다스는 스케다소스와 그 딸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기도했다. 이 전투가 테바이를 구하기 위한 것인 만큼 그들의 원한을 갚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뜻이었다. 보이오타르케스들의 의견은 크게 갈렸다. 에파메이논다스와 말기스와 크세노크라테스는 당장 라케다이몬인들과 싸우자고 했다. 그러나 다모클레이다스와 다모필로스와 시망겔로스는 전투에 반대했다. 그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아티카로 피신시키고 자기들은 포위전에 대비하자고 했다.

**[9.13.7]** 여섯 사람의 견해는 이처럼 갈렸다. 일곱 번째 보이오타르케스 브라킬리데스는 키타이론산 곁의 산길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군대로 돌아와 에파메이논다스 편에 표를 보탰다. 그러자 모두 전투로 승부를 가려 보기로 했다.

**[9.13.8]** 그러나 에파메이논다스는 보이오티아인들 가운데 일부를, 특히 테스피아이인들을 의심했다. 그들이 전투 중에 이탈할까 염려하여, 떠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진영을 나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다. 테스피아이인들은 병력을 모두 이끌고 떠났고, 테바이인들에게 불만을 품은 다른 보이오티아인들도 떠났다.

**[9.13.9]** 전투가 시작되자 전부터 라케다이몬인들과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던 동맹군은 그들을 적대하는 마음을 뚜렷이 드러냈다. 자기 자리를 지키려 하지 않았으며, 적이 치는 곳마다 물러났다. 라케다이몬인들 자신과 테바이인들은 대등하게 맞설 만했다. 전자에게는 앞서 겪은 전투의 경험과 스파르타의 명성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수치심이 있었다. 테바이인들은 자기들의 나라와 아내와 자식들이 이 싸움에 달려 있음을 알았다.

**[9.13.10]** 클레옴브로토스 왕이 라케다이몬의 관리 몇 사람과 함께 전사하자, 스파르타인들은 곤경에 빠졌는데도 물러설 수 없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왕의 시신을 적의 손에 넘기는 것을 가장 큰 치욕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9.13.11]** 테바이의 승리는 그리스인이 그리스인을 상대로 거둔 승리 가운데 가장 이름이 높았다. 이튿날 라케다이몬인들은 전사자들을 묻고자 테바이인들에게 전령을 보냈다. 에파메이논다스는 라케다이몬인들이 패배의 실상을 언제나 감추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동맹군이 먼저 자기 전사자들을 거두도록 허락하고, 그 일이 끝난 뒤에야 라케다이몬인들이 자기 전사자들을 묻어도 좋다고 했다.

**[9.13.12]** 동맹군 중에는 전사자가 한 명도 없어 시신을 전혀 거두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거둔 이들 역시 전사자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라케다이몬인들이 자기 전사자들을 묻으러 나왔을 때, 쓰러진 이들이 스파르타인이라는 사실이 단번에 드러났다. 테바이인들과 끝까지 그 편에 남은 보이오티아인들의 전사자는 47명이었다. 라케다이몬인들 자신은 1천 명 넘게 쓰러졌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4장

**[9.14.1]** 전투 뒤 에파메이논다스는 다른 펠로폰네소스인들에게 고향으로 떠나라고 공고하고, 한동안 라케다이몬인들을 레욱트라에 가두어 두었다. 그러나 스파르타 시내에 있던 사람 모두가 레욱트라의 동포들을 도우러 진군한다는 소식이 왔다. 그러자 에파메이논다스는 휴전을 맺고 적군이 떠나도록 허락했다. 보이오티아인들에게는 전쟁터를 보이오티아에서 라케다이몬으로 옮기는 편이 낫다고 했다.

**[9.14.2]** 테스피아이인들은 테바이와의 오랜 원한에다 테바이가 지금 행운을 얻은 것이 걱정되어, 도시를 떠나 케레소스로 피신하기로 했다. 케레소스는 테스피아이 땅의 요새다. 옛날에 테살리아인들이 침입했을 때에도 그들은 여기에 자리 잡고 맞섰다. 그때 테살리아인들은 케레소스를 점령하려 했으나 성공할 가망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델포이의 신에게 물었다.

**[9.14.3]** 그들이 받은 신탁은 이러하다.

> 그늘진 레욱트라가 내 마음에 걸리고, 알레시온의 땅도 그러하다.
> 슬픔에 잠긴 스케다소스의 두 딸도 내 마음에 걸린다.
> 그곳에 눈물 많은 싸움이 다가오나 아무도 이를 내다보지 못하리라.
> 운명의 날이 와 도리아인들이 빛나는 젊은이들을 잃기 전까지는.
> 그때라야 케레소스가 함락될 수 있으리라. 그 밖의 때에는 어림없다.

**[9.14.4]** 이번에는 에파메이논다스가 케레소스로 피신한 테스피아이인들을 사로잡았다. 그러고는 곧바로 펠로폰네소스의 일에 힘을 기울였다. 아르카디아인들도 간절히 그를 부르고 있었다. 도착한 에파메이논다스는 아르고스인들이 자진해서 동맹이 되게 했고, 아게시폴리스에게 여러 마을로 흩어졌던 만티네이아인들을 옛 도시로 다시 모았다. 그는 아르카디아인들을 설득해 힘이 약한 마을들을 모두 없애고,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고향을 지었다. 오늘날에도 ‘큰 도시’라는 뜻으로 메갈로폴리스라 부르는 곳이다.

**[9.14.5]** 이때 그의 보이오타르케스 임기는 이미 끝났다. 임기를 넘긴 자에게는 사형이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에파메이논다스는 그 법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여겨 계속 직무를 맡았고, 군대를 거느리고 스파르타로 진군했다. 아게실라오스가 맞서 나오지 않자 메세네를 세우는 일로 방향을 돌렸다. 오늘날의 메세네를 창건한 이가 에파메이논다스였으며, 창건 경위는 메세니아인들을 다룰 때 이미 넣었다.

**[9.14.6]** 그동안 테바이의 동맹군은 흩어져 라코니아 땅 곳곳을 휩쓸며 그곳의 물건을 약탈했다. 이 일로 에파메이논다스는 테바이인들을 보이오티아로 데리고 돌아가기로 했다. 군대를 이끌고 레카이온 맞은편에 이르러 길이 좁고 험한 곳을 지나려 할 때, 티모테오스의 아들 이피크라테스가 작은 방패를 든 병사들과 다른 아테나이군을 거느리고 테바이인들을 공격했다.

**[9.14.7]** 에파메이논다스는 공격군을 패주시키고 아테나이 시 바로 앞까지 갔다. 그러나 이피크라테스가 아테나이인들이 성 밖으로 나가 싸우지 못하게 하자 테바이로 돌아갔다. 에파메이논다스는 이미 임기가 끝났는데도 보이오타르케스 직을 맡았다는 이유로 사형에 해

당하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섰다. 그를 심리하도록 뽑힌 배심원들은 그 혐의에 표를 던지지도 않았다고 한다. periegesis.abm.uu.se

## 제15장

**[9.15.1]** 이 일들 뒤에 페라이의 알렉산드로스가 테살리아에서 세력을 쥐고 있을 때 펠로피다스가 그를 찾아갔다. 그가 테바이 공동체의 벗일 뿐 아니라 자기 개인에게도 호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펠로피다스가 도착하자 알렉산드로스는 배신하고 오만하게 굴어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테바이인들은 곧바로 알렉산드로스를 치러 떠났다. 당시 보이오타르케스였던 클레오메네스와 히파토스가 원정군을 지휘했고, 에파메이논다스는 일반 병사로 대열에 있었다.

**[9.15.2]** 군대가 테르모필라이 너머에 이르렀을 때 알렉산드로스가 험한 지형에서 갑자기 그들을 공격했다. 안전하게 벗어날 길이 없어 보이자 나머지 병사들은 에파메이논다스를 지휘관으로 뽑았다. 보이오타르케스들도 제 뜻으로 지휘권을 내려놓았다. 알렉산드로스는 에파메이논다스가 적군의 지휘를 맡은 것을 보자 전쟁에서 이길 자신을 잃고, 자진하여 펠로피다스를 풀어 주었다.

**[9.15.3]** 에파메이논다스가 자리를 비운 동안 테바이인들은 오르코메노스인들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냈다. 에파메이논다스는 그 추방을 재앙으로 여겼다.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테바이인들이 결코 그와 같은 횡포를 부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9.15.4]** 그는 다시 보이오타르케스로 뽑혀 보이오티아군을 거느리고 펠로폰네소스에 또 들어갔다. 레카이온에서 벌인 전투에서 라케다이몬인들과, 그들과 함께한 펠레네의 아카이아인들 및 카브리아스가 아테나이에서 이끌고 온 아테나이인들을 무찔렀다. 테바이에는 보이오티아 출신 도망자만 빼고 포로는 모두 몸값을 받고 풀어 주는 규칙이 있었다. 도망자들은 죽였다. 에파메이논다스는 보이오티아의 도망자들 대부분이 모인 시키온의 마을 포이비아를 점령하자, 거기서 사로잡은 이들에게 저마다 그때그때 생각난 곳을 새 고향으로 정해 주고 풀어 주었다.

**[9.15.5]** 그는 군대를 이끌고 만티네이아에 이르렀고, 승리를 거두던 순간에 아테나이 사람의 손에 죽었다. 아테나이에 있는 기병 전투 그림에서 에파메이논다스를 죽이는 이는 크세노폰의 아들 그릴로스다. 그 크세노폰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을 상대로 한 키로스의 원정에 참가했고, 그리스인들을 이끌어 바다까지 돌아온 사람이다.

**[9.15.6]** 에파메이논다스의 상에는 엘레게이아 시구로 지은 비문이 있다. 그가 메세네를 세웠고 그를 통해 그리스인들이 자유를 얻었다는 등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시구는 다음과 같다.

> 내 계책으로 스파르타는 영광을 잃었고,
> 신성한 메세네는 마침내 자식들을 맞아들였다.
> 테바이의 무력으로 메갈로폴리스는 성벽을 둘렀으며,
> 온 그리스는 자치와 자유를 얻었다. periegesis.abm.uu.se

## 제16장

[9.16.1] 에파메이논다스가 명성을 얻은 일들은 이러하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암몬의 신전이 있다. 신상은 칼라미스의 작품으로 핀다로스가 봉헌했다. 핀다로스는 암몬에게 바친 찬가를 리비아의 암몬에게도 보냈다. 라고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가 암몬에게 바친 제단 곁에 삼각형 석판이 있는데, 내가 살던 때에도 그 찬가가 새겨져 있었다. 테바이의 암몬 성소를 지나면 '테이레시아스가 새의 징조를 살피던 곳'이라 부르는 자리가 나온다. 가까이에는 아이 플루토스, 곧 부를 안고 있는 티케의 성소가 있다.

[9.16.2] 테바이인들의 말로는 아테나이 사람 크세노폰이 신상의 손과 얼굴을 만들고, 그 고장 사람 칼리스토니코스가 나머지를 만들었다고 한다. 플루토스를 티케의 품에 안겨 티케가 그의 어머니나 유모라는 뜻을 나타낸 것은 장인들의 영리한 생각이었다. 아테나이인들을 위해 평화의 여신상을 만들면서 그녀의 품에 플루토스를 안긴 케피소도토스의 생각도 그에 못지않게 영리했다.

[9.16.3] 테바이에는 아프로디테의 목상이 셋 있다. 너무나 오래되어 하르모니아가 봉헌한 것이라고까지 한다. 카드모스의 배들에 달려 있던 뱃머리 장식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들은 첫 번째 상을 '하늘의 여신'인 우라니아, 두 번째를 '온 민중의 여신'인 판데모스, 세 번째를 '물리치는 여신'인 아포스트로피아라 부른다.

[9.16.4] 하르모니아가 아프로디테에게 우라니아라는 별칭을 붙인 것은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난 깨끗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판데모스는 성관계를 뜻한다. 세 번째인 아포스트로피아는 사람들이 부당한 욕망과 죄 되는 행위를 물리치기를 바라 붙인 이름이다. 하르모니아는 훗날 전설이 아도니스의 어머니와 미노스의 딸 파이드라와 트라키아인 테레우스에게 돌린 것과 같은 범죄가, 이방인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그리스인들 사이에서도 이미 많이 일어났음을 알았다.

[9.16.5] '법을 세우는 이'라는 뜻의 테스모포로스 데메테르의 성소는 한때 카드모스와 그의 후손들이 살던 집이었다고 한다. 데메테르의 신상은 가슴까지 보인다. 이곳에는 청동 방패들이 봉헌되어 있는데, 레욱트라에서 쓰러진 라케다이몬 지휘관들의 것이라고 한다.

[9.16.6] 프로이티스문 가까이에는 극장이 있고, 극장 바로 곁에는 '풀어 주는 이'라는 뜻의 리시오스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다. 트라키아인들에게 포로가 된 테바이인들이 끌려가다가 할리아르토스 땅에 이르렀을 때, 신이 그들을 풀어 주었기 때문이다. 신은 트라키아인들을 잠들게 해 죽임을 당하도록 내주었다. 이곳의 두 신상 가운데 하나는 세멜레라고 테바이인들은 말한다. 해마다 한 번, 정해진 날에만 성소를 연다고 한다.

[9.16.7] 리코스가 살던 집의 폐허와 세멜레의 무덤도 있다. 알크메네에게는 무덤이 없다. 그녀는 죽을 때 사람의 모습에서 돌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러나 테바이의 이야기는 메가라의 이야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스의 전설은 대부분 여러 가지로 전한다. 여기 테바이에는 암피온의 자녀들의 무덤도 있다. 아들들은 따로 누워 있고, 딸들도 그들과 떨어져 함께 묻혀 있다. periegesis.abm.uu.se

## 제17장

**[9.17.1]** 가까이에는 ‘좋은 명성을 주는 이’라는 뜻의 에우클레이아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다. 신상은 스코파스가 만들었다. 성소 안에는 안티포이노스의 두 딸 안드로클레이아와 알키스가 묻혔다고 한다. 헤라클레스와 테바이인들이 오르코메노스인들과 막 싸우려 할 때, 가장 고귀한 혈통의 시민이 제 손으로 죽기를 받아들이면 전쟁에서 이기리라는 신탁이 왔다. 가장 이름난 조상을 둔 안티포이노스는 시민들을 위해 죽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딸들은 기꺼이 그러고자 했다.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일로 영예를 받는다.

**[9.17.2]** 에우클레이아 아르테미스의 신전 앞에는 돌로 만든 사자가 있다. 헤라클레스가 오르코메노스인들과 그들의 왕인 클리메노스의 아들 에르기노스를 전투에서 이긴 뒤 봉헌했다고 한다. 가까이에는 ‘부름을 듣고 달려오는 이’라는 뜻의 보에드로미오스 아폴론과 ‘아고라의 신’인 아고라이오스 헤르메스가 있다. 헤르메스상 역시 핀다로스가 바친 것이다. 암피온의 자녀들을 화장한 곳은 그들의 무덤에서 반 스타디온쯤 떨어져 있다. 화장터의 재는 아직 그곳에 남아 있다.

**[9.17.3]** 그 가까이에 ‘띠를 두르는 이’라는 뜻의 조스테리아 아테나의 석상이 두 점 있다. 암피트리온이 봉헌했다고 한다. 그가 칼코돈과 에우보이아인들을 상대로 싸우려 할 때 이곳에서 무장을 했다는 것이다. 옛사람들은 ‘띠를 두르다’를 ‘무장하다’라는 뜻으로 썼던 듯하다. 그래서 호메로스가 띠에 관해 아가멤논을 아레스에 견주었을 때, 실제로는 두 존재가 무장한 모양이 서로 닮았다는 말이라고 한다.

**[9.17.4]** 제토스와 암피온이 함께 묻힌 무덤은 작은 흙무더기다. 포키스의 티토레아인들은 태양이 황소자리를 지날 때 이 무덤의 흙을 훔치려 한다. 그때 봉분의 흙을 가져가 안티오페의 무덤 위에 올려놓으면 티토레아 땅에서는 소출을 거두지만 테바이 땅은 덜 비옥해진다고 한다. 이 때문에 테바이인들은 그때가 되면 무덤을 지킨다.

**[9.17.5]** 두 도시는 모두 이 일을 믿는데, 바키스의 신탁에 다음 시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 티토레아 사람이 암피온과 제토스를 위해
> 땅에 제주를 부어 달래며 기도하는 때,
> 빛나는 태양의 힘이 황소자리를 데우는 때,
> 도시에 닥칠 재앙이 작지 않으니 경계하라.
> 그들이 흙을 가져다 포코스의 무덤에 올려놓으면
> 이 도시의 수확이 말라 버리리라.

**[9.17.6]** 바키스가 그곳을 포코스의 무덤이라고 부른 까닭은 이러하다. 리코스의 아내는 어느 신보다 디오니소스를 높이 섬겼다. 그녀가 전설에서 말하는 고통을 겪고 나자 디오니소스는 안티오페에게 화를 냈다. 무슨 까닭인지 지나친 처벌은 언제나 신들의 노여움을 산다. 안티오페는 미쳐서 제정신을 잃고 그리스 전역을 떠돌았다고 한다. 그러다 시시포스의 손자이자 오르니티온의 아들인 포코스가 우연히 그녀를 만나 광기를 고쳐 주고 아내로 맞았다.

**[9.17.7]** 그래서 안티오페와 포코스는 한 무덤에 묻혀 있다. 암피온의 무덤 기슭을 따라 놓인 거칠게 떠낸 돌들은 암피온의 노래를 따라 움직였던 바로 그 바위들이라고 한다. 오르페우스에 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한다. 그가 리라를 연주하면 들짐승들이 뒤를 따랐다고 한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8장

**[9.18.1]** 테바이에서 칼키스로 가는 길은 이 프로이티스문을 지난다. 큰길에서는 테바이 병사들 가운데 아주 뛰어났던 멜라니포스의 무덤을 보여 준다. 아르고스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티데우스와 아드라스토스의 형제 메키스테우스를 죽였다. 그 자신은 암피아라오스의 손에 죽었다고 한다.

**[9.18.2]** 바로 가까이에는 다듬지 않은 돌이 세 개 있다. 테바이의 옛일을 연구하는 이들은 여기에 누운 사람이 티데우스이며, 마이온이 그를 묻었다고 주장한다. 그 증거로 『일리아스』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 테바이에서 흙무더기에 덮인 티데우스의.

**[9.18.3]** 그 곁에는 오이디푸스의 자녀들의 무덤이 있다. 그곳에서 지내는 의례를 나는 본 적이 없지만, 이야기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테바이인들은 자기들이 영웅으로 일컬으며 제사를 바치는 이들 가운데 오이디푸스의 자녀들도 있다고 한다. 제물을 바칠 때 불길도 거기서 나오는 연기도 둘로 갈라진다는 것이다. 내가 이 말을 믿게 된 것은 그와 비슷한 기이한 일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그 일은 이러했다.

**[9.18.4]** 미시아의 카이코스강 너머에는 피오니아이라는 마을이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그곳을 세운 피오니스는 헤라클레스의 후손 가운데 하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영웅으로서 제사를 지내려 할 때 무덤에서 저절로 연기가 솟는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테바이인들은 오이디푸스의 자녀들의 무덤에서 약 15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테이레시아스의 무덤도 보여 준다. 테바이인들 자신도 테이레시아스가 할리아르토스 땅에서 죽었다는 데 동의하며, 테바이의 기념물은 시신이 없는 무덤이라고 인정한다.

**[9.18.5]** 테바이에는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의 무덤도 있다. ‘오이디푸스의 샘’이라 부르는 샘 가까이에 있다. 테바이인들은 다음과 같은 신탁 때문에 트로이에서 헥토르의 유골을 가져왔다고 한다.

> 카드모스의 도시에 사는 테바이인들이여,
> 너희가 사는 땅에 허물없는 번영을 원한다면,
>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의 유골을 아시아에서 고향으로 가져오라.
> 제우스가 명하는 대로 그를 영웅으로 공경하라.

**[9.18.6]** 오이디푸스의 샘이 그런 이름을 얻은 것은 오이디푸스가 자기가 죽인 아버지의 피를 이 샘에서 씻었기 때문이다. 샘 바로 곁에는 아스포디코스의 무덤이 있다. 아르고스인들과 싸울 때 탈라오스의 아들 파르테노파이오스를 죽인 이가 바로 그였다. 이것이 테바이

인들의 말이다. 그러나 『테바이 이야기』에서 파르테노파이오스의 죽음을 다루는 대목에 따르면, 그를 죽인 이는 페리클리메노스였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9장

**[9.19.1]** 이 큰길에는 테우메소스라 부르는 곳이 있다. 제우스가 에우로페를 이곳에 숨겼다고 한다. 테우메소스의 여우라고 하는 여우에 관한 또 다른 전설도 있다. 디오니소스의 분노 때문에 테바이인들을 파멸시키도록 그 짐승이 길러졌다고 한다. 아르테미스가 에레크테우스의 딸 프로크리스에게 준 사냥개가 막 여우를 잡으려 할 때, 여우도 개도 돌로 변했다. 테우메소스에는 텔키니스 아테나의 성소도 있는데, 신상은 없다. 여신의 이름으로 미루어, 한때 키프로스에 살았던 텔키네스족 일부가 보이오티아에 와서 텔키니스 아테나의 성소를 세웠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9.19.2]** 테우메소스에서 7스타디온 가면 왼쪽에 글리사스의 폐허가 있다. 그곳에 이르기 전 길 오른쪽에는 작은 봉분이 있는데, 사람이 심은 나무들과 저절로 자란 나무들의 숲이 그늘을 드리운다. 여기에는 파르테노파이오스의 아들 프로마코스와 다른 아르고스 지휘관들이 묻혔다. 이들은 아드라스토스의 아들 아이기알레우스와 함께 테바이 원정에 참가했다. 아이기알레우스의 무덤이 페가이에 있다는 것은 메가라를 다룬 앞부분에서 이미 밝혔다.

**[9.19.3]** 테바이에서 글리사스로 곧장 가는 길에 다듬지 않은 돌로 둘러친 곳이 있다. 테바이인들은 이곳을 ‘뱀의 머리’라 부른다. 어떤 뱀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곳에서 굴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마침 지나가던 테이레시아스가 칼로 그 머리를 잘랐다고 한다. 이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었다. 글리사스 위쪽에는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의 히파토스라는 산이 있고, 산 위에는 히파토스 제우스의 신전과 신상이 있다. 이곳의 급류는 테르모돈이라 부른다. 테우메소스와 칼키스로 가는 길로 돌아오면 칼코돈의 무덤에 닿는다. 칼코돈은 테바이인들과 에우보이아인들의 싸움에서 암피트리온에게 죽었다.

**[9.19.4]** 그 곁에는 ‘전차’라는 뜻의 하르마와 미칼레소스 두 도시의 폐허가 있다. 타나그라 사람들은 암피아라오스의 전차가 테바이인들이 가리키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 사라졌기에 하르마라 부른다고 한다. 미칼레소스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양쪽의 말이 같다. 카드모스와 그 일행을 테바이로 이끌던 암소가 여기서 울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겼다는 것이다. 미칼레소스가 어떻게 황폐해졌는지는 아테나이인들을 다루는 부분에서 이야기했다.

**[9.19.5]** 미칼레소스의 해안으로 가는 길에는 미칼레소스의 데메테르 성소가 있다. 밤마다 헤라클레스가 그 성소를 닫았다가 다시 연다고 한다. 이 헤라클레스는 이른바 이다산의 닥틸로이 가운데 하나다. 이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이한 일을 보여 준다. 여신상의 발 앞에 가을에 나는 온갖 열매를 놓아 두면, 한 해 내내 신선한 채로 남아 있다.

**[9.19.6]** 이곳에서는 에우리포스 해협이 에우보이아와 보이오티아를 가른다. 오른쪽에는 미칼레소스의 데메테르 성소가 있고, 조금 더 가면 아울리스에 이른다. 오기고스의 딸 이름을 땄다고 한다. 그곳에는 아르테미스의 신전과 흰 대리석으로 만든 두 여신상이 있다. 하나는 횃불을 들고 있고, 다른 하나는 활을 쏘는 모습이다. 그리스인들이 예언자 칼카스의

말에 따라 제단에서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여신이 그녀 대신 사슴을 제물로 내놓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들은 신전에 다음 나무의 남은 부분을 보관하고 있다.

**[9.19.7]**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에서 언급한 바로 그 플라타너스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리스인들은 역풍 때문에 아울리스에 발이 묶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순풍이 불자 저마다 손에 닿는 제물을 아르테미스에게 바쳤다. 암컷과 수컷을 가리지 않았다. 그때부터 아울리스에서는 어떤 제물이든 바칠 수 있다는 규칙이 이어져 왔다. 플라타너스가 자라던 샘도 보여주며, 가까운 언덕에는 아가멤논의 막사에 달았던 청동 문지방도 있다.

**[9.19.8]** 성소 앞에는 대추야자나무들이 자란다. 그 열매는 팔레스티나의 대추야자처럼 온전히 먹을 만하지는 않지만, 이오니아의 것보다는 더 잘 익는다. 아울리스에 사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으며, 그들은 도공들이다. 이 땅과 미칼레소스와 하르마 일대는 타나그라 사람들이 경작한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0장

**[9.20.1]** 타나그라 땅의 바닷가에는 델리온이라 부르는 곳이 있다. 그곳에 아르테미스와 레토의 신상이 있다. 타나그라 사람들은 도시를 세운 이가 포이만드로스였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는 카이레실라오스, 할아버지는 이아시오스, 증조부는 엘레우테르였다. 엘레우테르는 아폴론과 포세이돈의 딸 아이투사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포이만드로스는 아이올로스의 딸 타나그라와 혼인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코린나의 시에서는 타나그라를 아소포스의 딸이라고 한다.

**[9.20.2]** 타나그라가 아주 늙자 이웃들이 더 이상 그녀를 본래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녀를, 얼마 뒤에는 도시까지 '노파'라는 뜻의 그라이아라 불렀다. 그 이름이 하도 오래 남아서 호메로스도 함선 목록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 테스페이아와 그라이아와 드넓은 미칼레소스.

그러나 도시는 나중에 옛 이름을 되찾았다.

**[9.20.3]** 타나그라에는 오리온의 무덤과 헤르메스가 태어났다고 하는 케리키온산이 있고, 폴로스라고 부르는 곳도 있다. 아틀라스가 이곳에 앉아 땅속과 하늘의 일을 깊이 살폈다고 한다. 호메로스도 그에 관해 이렇게 노래한다.

> 무서운 꾀를 지닌 아틀라스의 딸. 아틀라스는
> 모든 바다의 깊은 곳을 알고, 스스로 높은 기둥들을 붙들고 있으니
> 그 기둥들이 땅과 하늘을 갈라 놓는다.

**[9.20.4]** 디오니소스 신전의 신상도 볼 만하다. 파로스 대리석으로 만든 칼라미스의 작품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트리톤이다. 트리톤에 관한 두 이야기 가운데 더 장엄한 쪽은 다음과 같다. 타나그라의 여인들이 디오니소스의 비의를 치르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려고 바다로 내려갔다. 그들이 헤엄치는 동안 트리톤이 덮쳐 오자, 여인들은 디오니소스가 도우러 오기를 기도했다. 신은 그들의 부름을 듣고 싸워서 트리톤을 이겼다고 한다.

**[9.20.5]** 다른 이야기는 그보다 장엄하지는 않으나 더 믿을 만하다. 트리톤은 바닷가로 몰고 나온 가축을 숨어 기다렸다가 모조리 낚아챘으며, 작은 배들까지 공격했다고 한다. 그러자 타나그라 사람들은 그를 위해 포도주를 담은 큰 그릇을 내놓았다. 트리톤은 냄새에 이끌려 곧장 와서 포도주를 마시고, 해안에 몸을 던져 잠들었다고 한다. 타나그라 사람 하나가 도끼로 그 목을 쳐서 머리를 잘라 냈다. 이 때문에 그 형상에는 머리가 없다. 술에 취한 그를 잡았으므로, 사람들은 디오니소스가 그를 죽였다고 여긴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1장

**[9.21.1]** 로마에서도 진귀한 구경거리 가운데 또 다른 트리톤을 보았다. 타나그라의 것보다는 작았다. 트리톤의 생김새는 이러하다. 머리털은 빛깔이 연못에 자라는 바트라키온과 같고, 한 올을 다른 올들과 떼어 낼 수 없다는 점도 비슷하다. 몸의 나머지 부분은 상어처럼 잔비늘이 돋아 거칠다. 귀 아래에는 아가미가 있고 코는 사람의 코와 같다. 입은 사람보다 넓고 이빨은 짐승의 이빨이다. 내 눈에 눈동자는 청회색이었다. 손과 손가락이 있고, 손톱은 고둥 껍데기를 닫는 뚜껑과 비슷하다. 가슴과 배 아래에는 발 대신 돌고래 같은 꼬리가 있다.

**[9.21.2]** 나는 아이티오피아의 황소들도 보았다. 저마다 코끝에 뿔 하나가 있고 그 위에 더 작은 뿔 하나가 있으며, 머리에는 뿔의 흔적조차 없다. 그래서 '코에 뿔이 난 것'이라는 뜻으로 리노케로스라 부른다. 파이오니아의 황소들도 보았다. 온몸에 털이 빽빽했는데, 특히 가슴과 아래턱에 털이 많았다. 표범과 같은 빛깔을 띤 인도의 낙타도 보았다.

**[9.21.3]** 켈트인의 땅에는 사슴과 낙타의 중간쯤으로 생긴 알케라는 짐승도 산다. 우리가 아는 짐승 가운데 사람이 발자국을 따라가거나 멀리서 먼저 알아볼 수 없는 것은 이 짐승뿐이다. 때로 다른 짐승을 사냥하러 나갔다가 운 좋게 마주치기도 한다. 사람들 말로는 알케가 아주 멀리서도 사람의 냄새를 맡고 골짜기나 가장 깊은 동굴로 달아난다고 한다. 그래서 사냥꾼들은 들판이나 산을 적어도 1천 스타디온 둘레로 에워싸고, 포위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차츰 좁혀 간다. 그러면 알케를 포함해 안에 있는 짐승을 모두 잡는다. 그러나 에워싼 곳 안에 알케의 굴이 없다면 달리 이 짐승을 잡을 길이 없다.

**[9.21.4]** 크테시아스는 인도에 관한 책에서 인도인들이 마르티코라스라 부르고 그리스인들이 '사람을 먹는 짐승'이라 부르는 짐승을 묘사했다. 나는 그것이 호랑이라고 생각한다. 그 짐승은 위아래 턱에 이빨이 각각 세 줄씩 있고, 꼬리 끝에는 가시가 있어서 가까이에서는 그것으로 몸을 지키고 멀리 있는 적에게는 궁수가 화살을 쏘듯 가시를 날린다고 한다. 내 생각에 이 모두는 인도인들이 그 짐승을 몹시 두려워한 나머지 서로 전하는 거짓 이야기다.

**[9.21.5]** 그들은 빛깔에 대해서도 잘못 보았다. 햇빛 속에서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낼 때면 온몸이 한결같이 붉은 것처럼 보였다. 달릴 때에는 워낙 빠르기 때문이고, 달리지 않더라도 몸을 끊임없이 뒤틀고 돌리기 때문이다. 가까이서 보지 않을 때에는 특히 그렇다. 리비아와 인도와 아라비아의 가장 먼 곳을 두루 다니며 그리스에 사는 것과 같은 짐승을 찾아보면, 아예 찾을 수 없는 것도 있고 생김새가 다른 것도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9.21.6]** 기후와 땅이 달라지면 생김새가 달라지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다. 다른 생물도 같은 이치를 따른다. 이를테면 리비아의 아스피스 뱀은 이집트의 것과 빛깔이 다르고, 아이티오피아에는 그곳 사람들만큼 검은 아스피스가 난다. 그러므로 보기 드문 일을 두고 성급히 판단해서도, 무턱대고 믿지 않아서도 안 된다. 나는 날개 달린 뱀을 본 적이 없지만, 그런 뱀이 있다고 믿는다. 프리기아인 하나가 메뚜기와 똑같은 날개를 가진 전갈을 이오니아로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믿는 것과 같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2장

**[9.22.1]** 타나그라의 디오니소스 성소 곁에는 신전이 셋 있다. 하나는 테미스, 하나는 아프로디테, 셋째는 아폴론의 것이다. 아폴론의 신전에는 아르테미스와 레토도 함께 모신다. ‘숫양을 나르는 이’라는 뜻의 크리오포로스 헤르메스와 ‘앞장서 싸우는 이’라는 뜻의 프로마코스 헤르메스의 성소도 있다. 첫 번째 별칭에 대해서는 헤르메스가 숫양을 메고 성벽을 한 바퀴 돌아 도시의 역병을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칼라미스는 이 일을 기념해 어깨에 숫양을 멘 헤르메스상을 만들었다. 헤르메스의 축제 때에는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고 뽑힌 이가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성벽을 한 바퀴 돈다.

**[9.22.2]** 에우보이아에서 온 에레트리아 함대가 타나그라에 배를 댔을 때, 프로마코스 헤르메스는 젊은이들을 이끌고 싸우러 나갔다고 한다. 신 자신도 젊은이처럼 몸을 긁는 도구인 스트리길을 무기로 들었으며, 에우보이아인들을 패주시키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 프로마코스의 성소에는 헤르메스가 그 아래서 자랐다고 믿는 야생 딸기나무의 남은 부분을 보관한다. 가까이에는 극장이 있고 그 곁에 주랑이 있다. 내 생각에 타나그라 사람들은 어느 그리스인보다 신을 섬길 장소를 잘 마련했다. 집들은 한곳에 모아 두고, 성소들은 집들 너머 사람이 살지 않는 탁 트인 곳에 따로 두었기 때문이다.

**[9.22.3]** 타나그라에서 서정시를 지은 유일한 여류 시인 코린나의 무덤은 도시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다. 김나시온에는 코린나가 머리에 띠를 두르는 그림이 있다. 테바이에서 서정시로 핀다로스를 이겼을 때의 모습이다. 내 생각에 그녀가 이긴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핀다로스처럼 도리아 방언으로 짓지 않고 아이올리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지었다는 점이 하나다. 또 초상을 보고 판단해도 좋다면, 그녀는 그 시대의 여자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다.

**[9.22.4]** 이곳에는 수탉의 품종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싸움닭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검은 새’라 부르는 것이다. 검은 새는 크기가 리디아의 닭과 같으나 빛깔은 까마귀와 비슷하다. 턱밑의 살과 볏은 아네모네를 닮았다. 부리 끝과 꼬리 끝에는 작은 흰 무늬가 있다.

**[9.22.5]** 검은 새들의 생김새는 이러하다. 에우리포스 해협 왼편, 보이오티아 땅에 메사피온 산이 있다. 산기슭 바닷가에 보이오티아의 도시 안테돈이 있다. 어떤 이들은 안테돈이라는 님프의 이름을 도시가 얻었다고 한다. 다른 이들은 아틀라스의 딸 알키오네가 포세이돈에게서 낳은 안타스라는 사람이 이곳을 다스렸다고 한다. 안테돈의 거의 한가운데에 카베이

로이의 성소가 있고, 그 주위에는 숲이 있다. 가까이에는 데메테르와 그 딸의 신전이 있으며, 두 여신의 상은 흰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9.22.6]** 도시 앞 내륙 쪽에는 디오니소스의 성소와 신상이 있다. 이곳에는 이피메데이아와 알로에우스의 자녀들의 무덤도 있다. 호메로스와 핀다로스는 모두 그들이 아폴론의 손에 죽었다고 하며, 핀다로스는 파로스 앞의 낙소스섬에서 죽었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그들의 무덤은 이곳 안테돈에 있다. 바닷가에는 이른바 '글라우코스가 뛰어든 곳'이 있다.

**[9.22.7]** 글라우코스가 어부였다가 풀을 먹고 바다의 신이 되었으며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앞일을 알려 준다는 이야기는 널리 받아들여진다. 특히 바다를 다니는 사람들은 글라우코스의 예언에 관해 해마다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핀다로스와 아이스킬로스는 안테돈 사람들에게서 글라우코스 이야기를 들었다. 핀다로스는 자기 노래에서 그를 길게 다루지는 않았으나, 아이스킬로스는 이 이야기로 희곡 한 편을 지었다. periegesis.abm.uu.se

## 제23장

**[9.23.1]** 테바이의 프로이티스문 앞에는 이올라오스의 이름을 붙인 김나시온과 경주로가 있다. 경주로는 올림피아나 에피다우로스의 경기장처럼 흙을 쌓아 만들었다. 이곳에서는 이올라오스의 영웅 성소도 보여 준다. 이올라오스 자신이 그와 함께 바다를 건너간 아테나이인들 및 테스피아이인들과 더불어 사르디니아에서 죽었다는 것은 테바이인들도 인정한다.

**[9.23.2]** 경주로 오른쪽을 가로질러 가면 말 경주로가 나오는데, 그 안에 핀다로스의 무덤이 있다. 핀다로스는 젊었을 때 한 번은 더운 철에 테스피아이로 가고 있었다. 한낮이 다가오자 피곤하고 졸려, 길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 그 자리에서 몸을 눕혔다. 그가 잠든 동안 벌들이 내려앉아 밀랍으로 그의 입술을 덮었다.

**[9.23.3]** 핀다로스가 서정시인이 된 시작은 이러했다. 그의 명성이 이미 그리스 전역에 퍼진 뒤, 피티아 여사제의 명령으로 그 명성은 한층 높아졌다. 여사제는 델포이인들에게 아폴론에게 바치는 첫 소출의 절반을 핀다로스에게 주라고 했다. 그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꿈에서 환영을 보았다고도 한다. 잠든 그 곁에 페르세포네가 나타나, 신들 가운데 자기만 핀다로스의 찬가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자기에게 오면 자신을 위해서도 노래를 지으리라고 했다.

**[9.23.4]** 핀다로스는 꿈을 꾸고 열흘이 지나기도 전에 죽었다. 테바이에는 핀다로스와 혈연이 있는 노파가 살았는데, 그의 노래 대부분을 익혀 부르던 사람이었다. 핀다로스가 그 여인의 꿈에 나타나 페르세포네에게 바치는 찬가를 불렀다. 여인은 깨어나자마자 꿈에서 들은 노래를 모두 적었다. 그 노래에서 핀다로스는 하데스를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중에는 '황금 고삐를 쥔 이'가 있다. 페르세포네를 납치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9.23.5]** 이곳에서 아크라이프니온까지는 대체로 평탄하다. 본래 이 도시는 테바이 땅의 일부였다고 한다. 뒤에 알렉산드로스가 테바이를 파괴했을 때 테바이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이곳으로 피했다는 말을 들었다. 늙고 기력이 없어 아티카까지 안전하게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여기 정착했다는 것이다. 도시는 프토온산에 놓여 있으며, 볼 만한 디오니소스 신전과 신상이 있다.

**[9.23.6]** 도시에서 약 15스타디온 떨어진 오른편에는 프토온의 아폴론 성소가 있다. 아시오스는 서사시에서 아폴론의 별칭과 산의 이름을 남긴 프토오스가 아타마스와 테미스토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알렉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군을 이끌고 원정하여 테바이를 파괴하기 전까지, 이곳에는 틀리는 법이 없는 신탁소가 있었다. 한 번은 마르도니오스가 에우로포스 사람 미스를 보냈다. 미스가 자기 말로 신에게 묻자, 신도 그리스어가 아니라 카리아 말로 대답했다.

**[9.23.7]** 프토온산을 넘으면 보이오티아의 해안 도시 라림나가 나온다. 키노스의 딸 라림나에게서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그보다 윗대의 조상들은 로크리스를 다룰 때 이야기하겠다. 옛날 라림나는 오푸스에 속했으나, 테바이의 세력이 크게 일어나자 시민들이 스스로 보이오티아인들에게 합류했다. 이곳에는 디오니소스 신전과 신의 입상이 있다. 항구는 해안에 가까운 곳까지 물이 깊고, 도시를 내려다보는 산들에서는 멧돼지를 사냥할 수 있다.

periegesis.abm.uu.se

## 제24장

**[9.24.1]** 아크라이프니온에서 케피시스 호수, 달리 코파이스 호수라 부르는 곳으로 곧장 가는 길에는 '아타마스의 평야'라 불리는 곳이 있다. 아타마스가 그곳에 자리 잡고 살았다고 한다. 포키스의 릴라이아에서 발원하는 케피소스강이 이 호수로 흘러든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면 호숫가에 있는 코파이에 닿는다. 호메로스도 함선 목록에서 이 마을을 언급했다. 이곳에는 데메테르와 디오니소스와 세라피스의 성소가 각각 있다.

**[9.24.2]** 보이오티아인들의 말로는 호수 근처에 한때 아테나이와 엘레우시스라는 다른 마을들도 있었으나, 어느 겨울에 홍수가 나서 그곳들을 파괴했다고 한다. 케피시스 호수의 물고기는 대체로 다른 호수의 것과 다르지 않다. 다만 이곳의 뱀장어는 크고 맛이 아주 좋다.

**[9.24.3]** 코파이 왼쪽으로 약 12스타디온 가면 올모네스가 있고, 올모네스에서 약 7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히에토스가 있다. 두 곳 모두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마을이었다. 내 생각에 히에토스와 아타마스의 평야는 오르코메노스 지방에 속한다. 아르고스 사람 히에토스와 시시포스의 아들 올모스에 관해 들은 이야기는 모두 오르코메노스를 다룰 때 넣겠다. 올모네스에서는 조금이라도 볼 만한 것을 보여 주지 않았다. 그러나 히에토스에는 병자들을 고쳐 주는 헤라클레스의 신전이 있다. 신상은 공들여 깎은 것이 아니라 옛 방식대로 다듬지 않은 돌이다.

**[9.24.4]** 히에토스에서 약 20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키르토네스가 있다. 옛 이름은 키르토네였다고 한다. 높은 산 위에 세운 마을로, 아폴론의 신전과 숲이 있고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입상도 있다. 바위에서 솟는 찬 물줄기도 있다. 샘 곁에는 님프들의 성소와 작은 숲이 있으며, 그 안의 나무는 모두 사람이 심어 기른 것이다.

**[9.24.5]** 키르토네스에서 나와 산을 넘으면 코르세이아가 나온다. 그 아래에는 저절로 자란 나무들의 숲이 있는데, 대부분 상록 참나무다. 숲의 트인 곳에는 작은 헤르메스상이 서 있다. 코르세이아에서 약 반 스타디온 떨어진 곳이다. 평지로 내려가면 플라타니오스라는 강에 이르는데, 바다로 흘러든다. 강 오른편에는 이 방면 보이오티아인들의 마지막 마을인

바닷가의 할라이가 있다. 이곳에서 로크리스 본토와 에우보이아가 갈린다.

periegesis.abm.uu.se

## 제25장

**[9.25.1]** 테바이의 네이스문 바로 가까이에는 크레온의 아들 메노이케우스의 무덤이 있다. 폴리네이케스와 그를 따르는 군대가 아르고스에서 왔을 때, 메노이케우스는 델포이의 신탁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무덤에는 석류나무가 자란다. 익은 열매의 껍질을 깨면 안이 피와 같다. 이 석류나무는 지금도 잘 자란다. 테바이인들은 포도나무가 자기들 사이에서 처음 자랐다고 주장하지만, 오늘날 그 증거로 보여 줄 만한 것은 없다.

**[9.25.2]** 메노이케우스의 무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이 결투에서 서로를 죽였다고 하는 자리가 있다. 싸움이 벌어진 곳에는 기둥을 세웠고 그 위에 돌방패를 얹었다. 테바이인들의 말로 제우스가 헤라를 속여 갓난 헤라클레스에게 젖을 먹이게 했다는 자리도 보여 준다. 이 일대 전체를 '안티고네가 끌고 간 곳'이라 부른다. 안티고네는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들어 올리려고 애썼으나 힘이 모자랐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어, 시신을 에테오클레스의 화장 불길까지 끌고 가 그 위에 던졌다.

**[9.25.3]** 리코스의 아내 이름을 따 디르케라 부르는 강이 있다. 이 디르케가 안티오페를 학대했으므로 안티오페의 자식들이 디르케를 죽였다고 한다. 강을 건너면 핀다로스의 집터와 딘디메네의 어머니 여신 성소에 이른다. 신상은 핀다로스가 봉헌했고, 테바이의 조각가 아리스토메데스와 소크라테스가 만들었다. 관습에 따라 성소는 해마다 단 하루만 연다. 나는 운 좋게도 그날 도착하여 신상을 보았다. 신상과 왕좌는 모두 펜텔리콘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9.25.4]** 네이스문에서 나오는 길을 따라 성소가 셋 있다. 테미스의 성소에는 흰 대리석 신상이 있다. 그 곁에는 운명의 여신들의 성소가 있고, 셋째는 아고라이오스 제우스의 성소다. 제우스는 돌로 만들었으며, 운명의 여신들에게는 신상이 없다. 조금 더 떨어진 탁 트인 곳에는 '코를 잘라 내는 이'라는 별칭의 헤라클레스가 서 있다. 오르코메노스에서 공납을 요구하러 온 전령들을 모욕하고자 헤라클레스가 그들의 코를 잘랐기에 붙은 이름이라고 테바이인들은 말한다.

**[9.25.5]** 여기서 25스타디온을 더 가면 카베이로이의 데메테르와 코레에게 바친 숲에 이른다. 비의에 입문한 사람들은 숲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숲에서 카베이로이의 성소까지는 약 7스타디온이다. 카베이로이가 누구이며 그들과 어머니 여신을 기려 어떤 의례를 거행하는지 궁금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침묵하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청해야겠다.

**[9.25.6]** 그러나 의례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테바이인들이 말하는지는 누구에게나 밝혀도 무방하다. 한때 이곳에 도시가 있었고, 그 주민들은 카베이로이라 불렸다고 한다. 데메테르는 카베이로이 가운데 한 사람인 프로메테우스와 그의 아들 아이타이오스를 알게 되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맡겼다. 무엇을 맡겼으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글로 쓰는 일은 불경하다고 여겨졌다. 아무튼 이 의례가 데메테르가 카베이로이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9.25.7] 에피고노이의 침입으로 테바이가 함락되었을 때, 카베이로이 사람들은 아르고스인들에게 고향에서 쫓겨났다. 한동안 의례도 행해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말로는 그 뒤 포트니에우스의 딸 펠라르게와 그의 남편 이스트미아데스가 처음에 이곳에서 비의를 다시 세웠다가, 알렉시아로스라 부르는 곳으로 옮겼다.

[9.25.8] 펠라르게가 옛 경계 밖에서 입문 의식을 치렀으므로 텔론데스와 살아남은 카베이로이 일족은 다시 카베이라이아로 돌아왔다. 도도나의 신탁에 따라 텔론데스는 펠라르게를 기리는 여러 예를 세우게 되었다. 그중 하나는 새끼를 밴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다. 카베이로이의 분노는 사람이 달랠 수 없다. 여러 일에서 그것이 드러났다.

[9.25.9] 나우팍토스에서는 개인 몇 사람이 감히 테바이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의례를 치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을 받았다. 크세르크세스의 군대에서 마르도니오스와 함께 보이오티아에 남은 이들 가운데 일부도 카베이로이의 성소에 들어갔다. 어쩌면 큰 재물을 기대했겠지만, 내 생각에는 신을 업신여긴 마음이 더 컸다. 그들은 모두 그 즉시 정신이 돌아, 바다나 벼랑 끝에서 몸을 던져 죽었다.

[9.25.10] 또 알렉산드로스가 승리한 뒤 테바이를 비롯한 그 일대를 불로 황폐하게 했을 때, 마케도니아에서 온 사람 몇이 적의 땅에 있다고 하여 카베이로이의 성소에 들어갔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린 천둥과 벼락으로 죽었다. periegesis.abm.uu.se

## 제26장

[9.26.1] 이 성소는 처음부터 이토록 신성했다. 성소 오른쪽에는 예언자 테네로스의 이름을 딴 평야가 있다. 사람들은 그가 아폴론과 멜리아의 아들이라고 여긴다. ‘말을 묶는 이’라는 뜻의 힙포데테스 헤라클레스에게 바친 큰 성소도 있다. 오르코메노스인들이 이곳에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헤라클레스가 밤중에 그들의 전차에 매인 말들을 붙잡아 한데 묶었다고 한다.

[9.26.2] 더 가면 사람들이 스핑크스가 나왔다고 하는 산이 있다. 스핑크스는 그 산에서 나와 수수께끼를 노래하고 붙잡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한다. 다른 이들은 스핑크스가 배들을 이끌고 해적질을 하며 돌아다니다가 안테돈에 배를 댔다고 한다. 앞서 말한 산을 차지하고 그곳을 거점으로 약탈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코린토스에서 온 오이디푸스가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녀를 무찔렀다.

[9.26.3]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스핑크스는 라이오스가 혼인 밖에서 얻은 딸이었다. 라이오스는 그녀를 아껴 델포이에서 카드모스에게 내린 신탁을 알려 주었다. 그 신탁은 왕들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라이오스에게는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도 있었으나, 델포이에서 내린 신탁은 에피카스테와 그녀의 아들들에게만 해당했다.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누가 스핑크스에게서 왕위를 받아 내려고 찾아오면, 그녀는 그들이 참으로 라이오스의 아들이라면 카드모스가 받은 신탁을 알아야 한다는 말로 그들을 속였다.

[9.26.4]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면 스핑크스는 왕위에 대한 권리도 라이오스와의 혈연도 인정할 수 없다며 죽였다. 그러나 오이디푸스는 그 신탁을 꿈에서 들었던 듯하며, 그래서 그녀를 찾아왔다.

[9.26.5] 이 산에서 15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온케스토스 시의 폐허가 있다. 포세이돈의 아들 온케스토스가 여기서 살았다고 한다. 내가 살던 때에는 온케스토스의 포세이돈 신전과 신상, 그리고 호메로스도 칭송한 숲이 남아 있었다.

[9.26.6] 카베이로이의 성소에서 왼쪽으로 꺾어 약 50스타디온 가면 헬리콘산 기슭에 세워진 테스피아이에 이른다. 어떤 이들은 아소포스의 딸 테스피아가 도시에 이름을 주었다고 한다. 다른 이들은 에레크테우스의 후손 테스피오스가 아테나이에서 왔으며, 도시가 그의 이름을 땄다고 한다.

[9.26.7] 테스피아이에는 '구원자'라는 뜻의 사오테스 제우스 청동상이 있다. 여기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한때 드라콘이 도시를 황폐하게 하자 신은 해마다 젊은이들 가운데 제비에 뽑힌 한 사람을 그 짐승에게 바치라고 명했다. 죽은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클레오스트라토스가 제비에 뽑혔을 때 그의 연인 메네스트라토스가 한 가지 꾀를 냈다고 한다.

[9.26.8] 그는 청동 가슴받이를 만들되, 비늘 모양의 쇠판마다 끝이 바깥으로 향한 낚싯바늘을 달았다. 그는 그 가슴받이를 입고 제 뜻으로 드라콘에게 몸을 내주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은 죽더라도 그 짐승을 죽일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이 때문에 제우스에게 사오테스라는 별칭이 붙었다. 디오니소스의 신상과 티케의 신상, 또 다른 곳에 있는 히기에이아의 신상은 〔…〕. '일을 돕는 여신' 에르가네 아테나와 그 곁에 서 있는 플루토스는 〔…〕가 만들었다. periegesis.abm.uu.se

## 제27장

[9.27.1] 테스피아이인들은 처음부터 신들 가운데 에로스를 가장 높이 섬겼다. 아주 오래된 그의 신상이 있는데, 다듬지 않은 돌이다. 누가 테스피아이인들 사이에 어느 신보다 에로스를 높이 섬기는 관습을 세웠는지는 모른다. 헬레스폰토스 해협의 파리온 사람들도 에로스를 그만큼 높이 섬긴다. 그들은 본래 이오니아의 에리트라이에서 건너온 식민자들이었으나 지금은 로마인들에게 예속되어 있다.

[9.27.2] 대다수 사람은 에로스를 신들 가운데 가장 어린 신이자 아프로디테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그리스 찬가를 지은 뤼키아의 올렌은 에일레이티이아에게 바친 찬가에서 그녀가 에로스의 어머니라고 한다. 올렌 뒤에는 팜포스와 오르페우스가 육각운으로 에로스에 관한 시를 지었다. 리코미다이 일족이 의례를 거행할 때 부르는 노래에 넣기 위해서였다. 나는 횃불을 드는 사람과 이야기한 뒤 그 시들을 읽었다. 이 일은 더 말하지 않겠다. 헤시오도스, 또는 헤시오도스의 이름으로 전하는 『신통기』를 지은 이는 처음에 카오스가 태어나고 그 뒤에 대지와 타르타로스와 에로스가 태어났다고 썼다.

[9.27.3] 레스보스의 사포는 에로스에 관한 시를 많이 지었으나, 그 시들의 이야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뒤에 리시포스는 테스피아이인들을 위해 에로스의 청동상을 만들었고, 그보다 앞서 프락시텔레스는 펜텔리콘 대리석으로 에로스를 만들었다. 프리네가 프락시텔레스에게 쓴 꾀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이야기했다. 에로스상을 처음 가져간 사람은 로마

황제 가이우스였다고 한다. 클라우디우스가 테스피아이로 상을 돌려보냈으나 네로가 다시 가져갔다.

**[9.27.4]** 그 신상은 로마에서 불타 없어졌다. 신에게 죄를 지은 두 사람 가운데 가이우스는 암구호를 알려 주다가 병사 하나에게 죽었다. 그는 언제나 같은 암구호를 주면서 은근히 비웃어 그 병사를 심하게 화나게 했다. 다른 한 사람인 네로는 어머니에게 폭력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정식으로 맞은 아내들에게도 저주받을 가증스러운 짓들을 했다. 지금 테스피아이에 있는 에로스상은 아테나이 사람 메노도로스가 프락시텔레스의 작품을 본떠 만들었다.

**[9.27.5]** 여기에 프락시텔레스가 직접 만든 상들도 있다. 하나는 아프로디테의 상이고 다른 하나는 프리네의 상인데, 프리네도 여신도 돌로 만들었다. 다른 곳에는 '검은 여신'이라는 뜻의 멜라이니스 아프로디테 성소가 있으며, 볼 만한 극장과 아고라도 있다. 이곳에는 헤시오도스의 청동상이 세워져 있다. 아고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청동으로 만든 니케상과 무사 여신들의 작은 신전이 있다. 신전 안에는 돌로 만든 작은 신상들이 있다.

**[9.27.6]** 테스피아이에는 헤라클레스의 성소도 있다. 그곳의 여사제는 처녀이며 죽을 때까지 사제직을 맡는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헤라클레스는 하룻밤에 테스티오스의 딸 쉰 명 가운데 한 사람을 빼고 모두와 관계를 맺었다. 그 한 사람만은 그와 관계 맺기를 거절했다. 헤라클레스는 자신이 모욕당했다고 생각하여, 그 여자가 평생 처녀로 남아 자기의 사제로 일하도록 정했다.

**[9.27.7]** 나는 또 다른 이야기도 들었다. 헤라클레스가 같은 하룻밤에 테스티오스의 처녀 딸들 모두와 관계를 맺었으며, 그들이 모두 아들을 낳았고 맏딸과 막내딸은 쌍둥이를 낳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헤라클레스가 벗의 딸에게 그토록 화를 냈으리라는 말은 믿기 어렵다. 게다가 그가 아직 인간들과 함께 살며 오만한 자들, 특히 신들에게 불경한 자들을 벌하고 있었을 때,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을 위해 신전을 세우고 여사제를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9.27.8]** 실제로 이 성소는 내가 보기에 암피트리온의 아들 헤라클레스 시대보다도 오래되었다. 이다산의 닥틸로이 가운데 하나라 불리는 헤라클레스의 성소인 듯했다. 이오니아의 에리트라이 사람들과 티로스 사람들도 이 헤라클레스에게 바친 성소를 두고 있음을 나는 확인했다. 보이오티아인들도 그 이름의 헤라클레스를 알고 있었다. 그들 자신이 미칼레소스의 데메테르 성소를 이다산의 헤라클레스에게 맡겼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periegesis.abm.uu.se

## 제28장

**[9.28.1]** 헬리콘은 그리스의 산들 가운데 땅이 가장 비옥하고 사람이 가꾸는 나무가 가장 많은 산에 든다. 야생 딸기나무가 염소들에게 내주는 열매는 다른 어느 곳에서 자라는 것보다 달다. 헬리콘 둘레에 사는 이들은 이 산에서 자라는 풀과 뿌리도 모두 사람에게 조금도 독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 뱀이 먹는 것이 뱀독의 치명성을 줄여 준다고 한다. 그래서

물린 이들도 리비아의 프실로이족 사람을 만나거나 알맞은 약을 구하면 대부분 목숨을 건진다는 것이다.

**[9.28.2]** 독이 가장 강한 뱀의 독은 그 자체로 사람과 온갖 짐승을 죽일 수 있지만, 뱀이 먹는 것이 독의 세기에 큰 영향을 준다. 이를테면 페니키아 사람에게 들으니, 페니키아 고지의 독사들은 뿌리를 먹어 독이 더 강해진다고 했다. 그는 한 사람이 독사의 돌진을 피해 달아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했다. 그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뒤늦게 다다른 독사가 나무를 향해 독을 뿜자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이다.

**[9.28.3]**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이러했다. 아라비아에서 발삼나무 둘레에 깃드는 독사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나는 안다. 발삼나무는 도금양 덤불만 한 크기이고 잎은 마조람의 잎과 비슷하다. 아라비아의 독사들은 나무마다 많거나 적은 수로 그 아래 깃든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발삼의 즙이며, 덤불 그늘도 좋아하기 때문이다.

**[9.28.4]** 아라비아인들이 발삼의 즙을 거둘 때가 되면, 저마다 막대기 두 개를 들고 독사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막대기를 서로 쳐 뱀을 쫓는다. 독사들은 발삼나무에 속한 신성한 짐승이라 생각하여 죽이지 않는다. 독사에게 물리는 불운을 겪더라도, 상처는 칼로 벤 듯하지만 독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한다. 독사들이 향기 그윽한 즙을 먹기 때문에 그 독이 누그러져 덜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periegesis.abm.uu.se

## 제29장

**[9.29.1]** 이 일들의 실상은 이러하다. 헬리콘에서 무사 여신들에게 처음 제사를 바치고 이 산이 그들에게 신성하다고 부른 사람들은 에피알테스와 오토스였다고 한다. 아스크라를 세운 이들도 그들이었다. 헤게시누스도 시 『아티스』에서 이 일을 언급한다.

> 땅을 흔드는 포세이돈은 아스크라와 잠자리를 함께했고,
> 해가 돌아오자 아스크라는 그에게 아들 오이오클로스를 낳았다.
> 그는 알로에우스의 아들들과 함께 처음 아스크라를 세웠으니,
> 샘이 풍부한 헬리콘의 기슭에 놓인 마을이다.

**[9.29.2]** 나는 헤게시누스의 이 시를 읽지 못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에는 이미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린토스의 칼리포스가 오르코메노스에 관한 역사에서 자기 견해의 증거로 헤게시누스의 시구를 인용했다. 나도 칼리포스가 인용한 구절을 가져와 같은 방식으로 썼다. 내가 살던 때 아스크라에는 망루 하나 말고는 기억할 만한 것이 남아 있지 않았다. 알로에우스의 아들들은 무사 여신이 셋이라고 보아, '연습' 메레테, '기억' 므네메, '노래' 아오이데라는 이름을 붙였다.

**[9.29.3]** 뒤에 마케도니아 사람 피에로스가 테스피아이에 와서 무사 여신을 아홉으로 정하고 오늘날의 이름들로 바꾸었다고 한다. 마케도니아의 산 하나는 그 피에로스의 이름을 땄다. 그가 그렇게 정한 것은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 여겼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신탁이 명했거나 트라키아인에게 배웠기 때문일 수도 있다. 트라키아인들은 예부터 마케도니아인들보다

영리하다는 평판이 있었으며, 특히 신들을 섬기는 일을 그들만큼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여겨졌다.

**[9.29.4]** 피에로스 자신에게 딸이 아홉 있었고, 그들의 이름이 여신들의 이름과 같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리스인들이 무사 여신들의 자식이라 부르는 이들은 피에로스의 딸들이 낳은 아들들이라는 것이다. 스미르나인들과 기게스 휘하의 리디아인들이 싸운 전투를 엘레게이아 시로 쓴 밈네르모스는, 서두에서 더 나이 많은 무사 여신들은 우라노스의 딸들이며 그보다 젊은 다른 무사 여신들은 제우스의 자녀들이라고 한다.

**[9.29.5]** 헬리콘에서 무사 여신들의 숲으로 가는 길 왼쪽에는 아가니페라는 샘이 있다. 아가니페는 헬리콘 둘레를 흐르는 테르메소스강의 딸이었다고 한다. 숲으로 곧장 가는 길에는 돌에 돋을새김한 에우페메의 초상이 있다. 그녀는 무사 여신들의 유모였다고 한다.

**[9.29.6]** 그녀의 초상은 이곳에 있고, 그 뒤에는 동굴처럼 파 놓은 작은 바위에 리노스의 모습이 있다. 사람들은 해마다 무사 여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전에 리노스에게 먼저 영웅으로서 제사를 지낸다. 이 리노스는 우라니아와 포세이돈의 아들 암피마로스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그는 음악에서 같은 시대 사람들은 물론 그보다 앞선 사람들보다 더 큰 명성을 얻었으나, 노래에서 아폴론의 적수가 되었기 때문에 아폴론에게 죽었다고 한다.

**[9.29.7]** 리노스가 죽자 그를 애도하는 일이 온 이방 세계로 퍼진 듯하다. 이집트인들에게도 리노스를 애도하는 노래가 생겼는데, 이집트 말로 마네로스라 부른다. 그리스 시인 가운데 호메로스는 리노스의 고난이 그리스 노래의 주제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헤파이스토스가 아킬레우스의 방패를 만들면서 다른 장면들과 함께 리노스의 노래를 부르는 소년을 새겼다고 한다.

> 그들 한가운데서 소년 하나가 맑은 소리 나는 리라를
> 아름답게 타며, 그 소리에 맞추어 아름다운 리노스를 노래했다.

**[9.29.8]** 가장 오래된 아테나이 찬가를 지은 팜포스는 리노스에 대한 애도가 한창일 때 그를 '죽을 운명의 리노스'라는 뜻의 오이톨리노스라 불렀다. 레스보스의 사포는 팜포스의 서사시에서 오이톨리노스라는 이름을 배워 아도니스와 오이톨리노스를 함께 노래했다. 테바이인들은 리노스가 자기들 땅에 묻혔다고 주장한다. 카이로네이아에서 그리스인들이 패한 뒤, 아민타스의 아들 필리포스는 꿈에 나타난 환영의 지시에 따라 리노스의 뼈를 거두어 마케도니아로 가져갔다고 한다.

**[9.29.9]** 뒤에 다른 환영들을 보고 필리포스는 리노스의 뼈를 테바이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무덤 위에 있던 것과 그 위에 남아 있던 표지는 세월이 지나 모두 사라졌다고 한다. 테바이인들은 또 이 리노스보다 뒤에 이스메니오스의 아들이라 불리는 다른 리노스가 태어났으며, 그가 음악을 가르치다가 아직 어린 헤라클레스에게 죽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암피마로스의 아들 리노스도, 나중의 리노스도 육각운 시를 짓지 않았다. 지었다 해도 후세까지 전해지지는 않았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30장

**[9.30.1]** 맨 먼저 만나는 무사 여신상들은 여신들 모두를 나타낸 것으로, 케피소도토스의 작품이다. 조금 더 가면 역시 케피소도토스가 만든 세 여신상이 있고, 소와 말을 잘 만들었던 스트롱길리온이 만든 상이 세 점 더 있다. 나머지 세 점은 올림피오스테네스가 만들었다. 헬리콘에는 리라를 두고 헤르메스와 다투는 아폴론의 청동상도 있다. 리시포스가 만든 디오니소스상도 있다. 그러나 술라가 봉헌한 디오니소스 입상은 아테나이의 에레크테우스상 다음으로 미론의 작품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 술라가 봉헌한 것은 자기 것이 아니었다. 그가 오르코메노스의 미니아스인들에게서 가져온 것이다. ‘남의 향으로 신을 섬긴다’는 그리스 속담에 들어맞는 일이다.

**[9.30.2]** 이곳에는 다음과 같은 시인들과 이름난 음악가들의 초상도 세워 놓았다. 타미리스는 이미 눈이 먼 모습으로 손에 부서진 리라를 들고 있으며, 메팀나의 아리온은 돌고래를 타고 있다. 아르고스의 사카다스상을 만든 조각가는 그에 관한 핀다로스의 노래 서두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피리 연주자의 몸을 피리보다 크지 않게 만들었다.

**[9.30.3]** 헤시오도스도 앉아서 무릎에 리라를 올려놓고 있다. 리라는 헤시오도스에게 어울리는 물건이 아니다. 그가 월계수 지팡이를 들고 노래했음은 그의 시가 분명히 보여 주기 때문이다. 헤시오도스와 호메로스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는 아주 세심하게 조사했다. 그러나 특히 요즘 서사시를 평하는 사람들의 성미가 얼마나 논쟁을 좋아하는지 알기에, 그 문제를 글로 쓰고 싶지는 않다.

**[9.30.4]** 트라키아의 오르페우스 곁에는 비의를 나타내는 텔레테의 상이 서 있다. 그 둘레에는 돌과 청동으로 만든 짐승들이 그의 노래를 듣고 있다. 그리스인들이 믿는 거짓 이야기 가운데는 오르페우스에 관한 것도 있다. 그가 피에로스의 딸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무사 여신 칼리오페의 아들이고, 짐승들이 노래에 홀려 그를 따랐으며, 산 채로 하데스에 내려가 지하의 신들에게 아내를 돌려 달라고 청했다는 이야기다. 내 생각에 그는 시의 아름다움에서 선배들을 능가했다. 또 그가 비의와 죄를 씻는 의식과 병을 고치는 법, 그리고 신의 진노를 물리치는 방법을 처음 알아냈다고 여겨졌으므로 큰 영향력을 얻었다.

**[9.30.5]** 트라키아 여자들은 오르페우스가 자기 남편들을 설득해 함께 떠돌게 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남편들이 두려워 계획을 실행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포도주에 취하자 감히 그 일을 저질렀으며, 그 뒤로 그들의 남자들은 술에 취해 전투에 나가는 버릇이 생겼다. 또 오르페우스가 비의에서 하는 말을 전에 들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밝혔기 때문에, 신이 벼락을 내려 그가 죽었다는 말도 있다.

**[9.30.6]** 다른 이들은 아내가 그보다 먼저 죽었다고 한다. 그는 아내 때문에 테스프로티스의 아오르논으로 갔다. 옛날 그곳에는 죽은 이에게 묻는 신탁소가 있었다. 그는 에우리디케의 혼이 자기 뒤를 따른다고 생각했으나 뒤돌아보는 바람에 그녀를 잃었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트라키아인들은 오르페우스의 무덤에 둥지를 트는 나이팅게일이 다른 것들보다 더 아름답고 큰 소리로 노래한다고 한다.

[9.30.7] 피에리아산과 디온 시 아래쪽 지방에 사는 마케도니아인들은 오르페우스가 이곳에서 여자들의 손에 죽었다고 말한다. 디온에서 산으로 가는 길로 20스타디온 가면 오른쪽에 기둥이 있고 그 위에 돌로 만든 유골함이 놓여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그 안에 오르페우스의 뼈가 들어 있다.

[9.30.8] 헬리콘이라는 강도 있다. 75스타디온을 흐른 뒤 물줄기가 땅속으로 사라진다. 약 22스타디온 떨어진 곳에서 물이 다시 솟으며, 거기서부터는 헬리콘이 아니라 바피라라 불린다. 배가 다닐 수 있는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든다. 디온 사람들은 이 강이 처음에는 전 구간에서 땅 위를 흘렀다고 한다. 그러나 오르페우스를 죽인 여자들이 이 물에 피를 씻으려 하자, 강은 살인의 피를 씻는 데 물을 내주지 않으려고 땅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9.30.9] 라리사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 올림포스산의 마케도니아 쪽 비탈에 리베트라라는 도시가 있고 그리 멀지 않은 데에 오르페우스의 무덤이 있다는 것이다. 리베트라인들은 트라키아의 디오니소스에게서, 태양이 오르페우스의 뼈를 보게 되는 때에 수퇘지가 리베트라 시를 파괴하리라는 신탁을 받았다고 한다. 시민들은 그 신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느 짐승도 도시를 차지할 만큼 크거나 강하지 않고, 수퇘지는 대담할 뿐 힘이 그만큼 센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9.30.10] 그러나 신이 뜻한 때가 되자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한낮에 목자 하나가 오르페우스의 무덤에 기대어 잠들었다. 그는 자면서도 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오르페우스의 시를 부르기 시작했다. 가까운 곳에서 가축을 치거나 밭을 갈던 이들은 저마다 하던 일을 놓고, 잠든 목자의 노래를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서로 밀치며 목자에게 더 가까이 가려다가 기둥을 넘어뜨렸다. 유골함은 기둥에서 떨어져 깨졌고, 태양은 남아 있던 오르페우스의 뼈를 보았다.

[9.30.11] 밤이 되자 신은 곧바로 큰비를 내렸다. 그때 올림포스산 일대의 급류 가운데 '수퇘지'라는 뜻의 시스강이 리베트라의 성벽을 무너뜨렸다. 신들의 성소와 사람들의 집을 뒤엎고, 주민들과 도시 안의 모든 짐승을 물에 빠뜨렸다. 리베트라가 폐허가 되자 디온의 마케도니아인들이 오르페우스의 뼈를 자기들 땅으로 옮겼다고 라리사 사람은 나에게 말했다.

[9.30.12] 시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오르페우스의 찬가가 모두 아주 짧고, 편수도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 리코미다이 일족은 그 찬가를 알고 있으며 비의의 의식을 치를 때 부른다. 시의 아름다움에서는 호메로스의 찬가 다음이라 할 만하지만, 신들에게서는 그보다 더 큰 영예를 받았다. periegesis.abm.uu.se

## 제31장

[9.31.1] 헬리콘에는 자기 오라비 프톨레마이오스와 혼인한 아르시노에의 상도 있다. 그녀는 청동 타조에 타고 있다. 타조도 다른 새처럼 날개가 자라지만 몸이 너무 무겁고 커서 날개로 공중에 몸을 띄울 수 없다.

[9.31.2] 여기에는 헤라클레스의 아들 텔레포스도 있다. 어린아이가 암사슴의 젖을 먹고 있는 모습이다. 그 곁에는 소 한 마리와 볼 만한 프리아포스상이 있다. 이 신은 염소와 양을

치거나 벌 떼가 있는 곳에서 숭배받는다. 그러나 람프사코스 사람들은 어느 신보다도 그를 높이 섬기며, 디오니소스와 아프로디테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9.31.3]** 헬리콘에는 세발솥들이 봉헌되어 있다. 가장 오래된 것은 헤시오도스가 에우리포스 해협의 칼키스에서 노래로 우승하여 받았다는 것이다. 숲 둘레에는 사람들이 살며, 테스피아이인들은 여기서 축제를 열고 무세이아라는 경기도 치른다. 에로스를 기리는 다른 경기도 연다. 음악뿐 아니라 운동 경기에도 상을 건다. 이 숲에서 약 20스타디온을 올라가면 '말의 샘'이라는 뜻의 힙포크레네가 나온다. 벨레로폰의 말이 발굽으로 땅을 쳐서 만든 샘이라고 한다.

**[9.31.4]** 헬리콘 주위에 사는 보이오티아인들은 헤시오도스가 『일과 날』 밖에는 쓰지 않았다는 전승을 지킨다. 그 작품에서도 무사 여신들에게 바친 머리말은 빼고, 다툼의 여신들에 관한 이야기에서 시가 시작된다고 한다. 그들은 샘이 있는 곳에서 납판도 보여 주었다. 세월에 닳아 대부분 알아보기 어려웠으나, 그 위에는 『일과 날』이 새겨져 있었다.

**[9.31.5]** 첫 번째와 아주 다른 전승도 있다. 이에 따르면 헤시오도스는 아주 많은 시를 썼다. 여자들에 관한 시, 이른바 『큰 에오이아이』, 『신통기』, 예언자 멜람푸스에 관한 시, 테세우스와 페이리토오스가 하데스로 내려간 일을 다룬 시, 아킬레우스를 가르치기 위해 썼다는 『케이론의 가르침』, 그리고 『일과 날』 외에도 다른 시들이 있다. 같은 보이오티아인들은 헤시오도스가 아카르나니아인들에게 예언술을 배웠다고 한다. 『예언술』이라 부르는 시가 남아 있어 나도 직접 읽었고, 여러 징조에 대한 해석도 남아 있다.

**[9.31.6]** 헤시오도스의 죽음에 관해서도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전한다. 가닉토르의 아들 크티메노스와 안티포스가 헤시오도스의 살해 때문에 나우팍토스에서 몰리크리아로 달아났고, 거기서 포세이돈에게 죄를 지었으며, 몰리크리아에서 벌을 받았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한다. 그 젊은이들의 누이가 강간당했는데, 어떤 이들은 헤시오도스가 저지른 일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남이 저지른 죄를 그가 뒤집어썼다고 한다. 헤시오도스 자신과 그의 시에 관한 전승은 이토록 다르다.

**[9.31.7]** 헬리콘 꼭대기에는 라모스라 부르는 작은 강이 있다. 테스피아이 땅에는 '갈대밭'이라는 뜻의 도나콘이라는 곳이 있으며, 여기에 나르키소스의 샘이 있다. 나르키소스는 이 물을 들여다보다가 비친 것이 자기 모습임을 모르고 저도 모르게 자신을 사랑하여, 그 샘가에서 사랑 때문에 죽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랑에 빠질 나이의 사람이 실제 사람과 물에 비친 모습을 구별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9.31.8]** 나르키소스에 관해 그보다 덜 널리 전하지만 어느 정도 그럴듯한 다른 이야기도 있다. 나르키소스에게는 쌍둥이 누이가 있었다고 한다. 둘은 생김새가 꼭 같고 머리 모양도 같았으며, 비슷한 옷을 입고 함께 사냥을 다녔다. 이야기에 따르면 나르키소스가 누이를 사랑했는데, 누이가 죽은 뒤에는 샘을 찾아가곤 했다. 물에 비친 것이 자기 모습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보이는 것이 자기 모습이 아니라 누이의 모습이라고 상상하여 사랑의 아픔을 얼마간 달랬다.

**[9.31.9]** 내 생각에 나르키소스라는 꽃, 곧 수선화는 그보다 먼저 자라고 있었다. 팜포스의 시를 근거로 판단한다면 그렇다. 이 시인은 테스피아이 사람 나르키소스보다 여러 해 앞서

태어났다. 그는 데메테르의 딸 코레가 놀며 꽃을 따다가 납치되었다고 한다. 그때 코레를 꾀어 납치당하게 한 꽃은 제비꽃이 아니라 수선화였다고 한다. periegesis.abm.uu.se

## 제32장

[9.32.1] 테스피아이의 항구 크레우시스에는 공적으로 내보일 만한 것이 없으나, 개인의 집에서 석고로 만들어 채색한 디오니소스상을 보았다. 펠로폰네소스에서 크레우시스로 가는 뱃길은 굽이굽이 돌아가며 바다도 잔잔하지 않다. 곶들이 튀어나와 곧장 건너갈 수 없고, 산에서 거센 돌풍이 불어 내려오기 때문이다.

[9.32.2] 크레우시스에서 먼바다로 나가지 않고 보이오티아 해안을 끼고 항해하면 오른쪽에 티스베라는 도시가 나온다. 먼저 바닷가에 산이 하나 있다. 그 산을 넘으면 평야가 나오고, 그 뒤로 또 다른 산이 있다. 도시는 그 산기슭에 있다. 이곳에는 석상이 서 있는 헤라클레스의 성소가 있고, 사람들은 헤라클레이아라 부르는 축제를 연다.

[9.32.3] 두 산 사이의 평야 한가운데에 튼튼한 둑을 쌓지 않았다면, 물이 많아 평야가 호수가 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을 것이다. 주민들은 해마다 번갈아 물을 둑 너머 한쪽으로 돌리고 다른 쪽에서 농사를 짓는다. 티스베는 이 지방의 님프였으며, 도시가 그녀의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9.32.4] 이곳에서 배를 타고 가면 바닷가의 작은 마을 티파에 닿는다. 주민들은 헤라클레스의 성소를 두고 해마다 축제를 연다. 그들은 옛날부터 보이오티아에서 가장 뛰어난 뱃사람이었다고 주장하며, 아르고호의 키를 잡도록 뽑힌 티피스가 자기 마을 사람임을 일러 준다. 또 아르고호가 콜키스에서 돌아올 때 닻을 내렸다고 하는 마을 앞의 자리도 가리켜 보인다.

[9.32.5] 테스피아이에서 내륙으로 가면 할리아르토스에 이른다. 할리아르토스와 코로네이아를 누가 세웠는지는 오르코메노스 이야기와 떼어 놓을 수 없다. 페르시아 침략 때 할리아르토스 사람들은 그리스의 편에 섰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 군대의 한 부대가 그들의 땅과 도시를 휩쓸고 불태웠다. 할리아르토스에는 라케다이몬 사람 리산드로스의 무덤이 있다. 그는 테바이와 아테나이 병력들이 들어 있던 할리아르토스의 성벽을 공격하다가, 적이 성 밖으로 뛰어나와 벌인 싸움에서 전사했다.

[9.32.6] 리산드로스에게는 크게 칭찬할 점도 있고 몹시 비난할 점도 있다. 다음 일들에서는 분명히 뛰어난 솜씨를 보였다. 펠로폰네소스의 삼단노선들을 지휘할 때, 알키비아데스가 함대를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그의 조타수 안티오코스에게 바다에서 라케다이몬인들과 맞설 만하다고 믿게 했다. 안티오코스는 허영심에 들떠 무모하게 바다로 나갔고, 리산드로스는 콜로폰 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그를 이겼다.

[9.32.7] 두 번째로 스파르타에서 와 삼단노선들을 지휘했을 때에는 키로스를 어찌나 잘 다루었는지, 함대의 급료로 쓸 돈을 청할 때마다 충분한 액수를 제때 받았다. 아테나이 함대 100척이 아이고스포타모이에 닻을 내렸을 때는, 선원들이 물과 식량을 구하러 흩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배들을 사로잡았다. 다음 일에서는 그가 공정한 판단을 보여 주었다.

[9.32.8] 아테나이인들의 프리타네이온에서 내가 상을 본 판크라티온 선수 아우톨리코스가 스파르타 사람 에테오니코스와 재산 문제로 다투었다. 에테오니코스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는 아테나이에서 삼십인 정권이 권력을 쥐고 있었고 리산드로스도 아직 떠나지 않았으므로, 에테오니코스는 기세를 믿고 먼저 아우톨리코스에게 폭력을 썼다. 아우톨리코스가 저항하자 그는 판결이 자기에게 유리하리라 확신하며 그를 리산드로스 앞으로 불러냈다. 하지만 리산드로스는 에테오니코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그를 꾸짖어 보냈다.

[9.32.9] 이런 일들은 리산드로스에게 명예가 되지만 다음 일들은 그에게 치욕이다. 리산드로스는 아이고스포타모이에서 아테나이군의 총지휘관이었던 필로클레스와 다른 아테나이 포로 4천 명을 죽였다. 그는 그들의 장례도 허락하지 않았다. 마라톤에 상륙한 페르시아인들조차 아테나이인들에게서 장례를 허락받았고, 테르모필라이에서 쓰러진 라케다이몬인들도 크세르크세스 왕에게서 그 허락을 받았다. 리산드로스는 여러 도시에 열 명의 통치위원과 라코니아 출신 총독을 두어 라케다이몬인들에게 더 큰 치욕을 안겼다.

[9.32.10] 또 신탁은 라케다이몬인들에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스파르타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재물을 모으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런데 리산드로스는 스파르타인들에게 재물에 대한 강한 욕망을 일으켰다. 나는 페르시아인들의 예를 따라 그들의 법으로 이 일을 판단한다. 리산드로스가 라케다이몬인들에게 안긴 해가 그가 준 이익보다 컸다고 판정한다. periegesis.abm.uu.se

## 제33장

[9.33.1] 할리아르토스에는 리산드로스의 무덤과 판디온의 아들 케크롭스의 영웅 성소가 있다. 틸푸시오스산과 틸푸사라 부르는 샘은 할리아르토스에서 약 50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그리스인들의 말로는 아르고스인들이 폴리네이케스의 아들들과 함께 테바이를 차지한 뒤, 테이레시아스와 그 밖의 전리품 일부를 델포이의 신에게 데려가고 있었다. 길에서 목이 마른 테이레시아스는 틸푸사의 물을 마시고 곧바로 숨을 거두었다. 그의 무덤은 그 샘 곁에 있다.

[9.33.2] 테이레시아스의 딸은 아르고스인들이 아폴론에게 바쳤다고 한다. 그녀는 신의 명령에 따라 배를 타고 지금 이오니아라 부르는 곳의 콜로폰 땅으로 건너갔다. 만토는 그곳에서 크레타 사람 라키오스와 혼인했다. 테이레시아스에 관한 나머지 이야기는 누구나 전승으로 안다. 그가 몇 해를 살았다고 하는지, 어떻게 여자에서 남자로 바뀌었는지, 또 호메로스가 『오디세이아』에서 하데스의 망자 가운데 그만이 지성을 간직했다고 그렸다는 이야기들이다.

[9.33.3] 할리아르토스에는 사람들이 '벌을 집행하는 여신들'이라는 뜻으로 프락시디카이라 부르는 여신들의 성소가 탁 트인 곳에 있다. 이곳에서 맹세를 하지만, 경솔하게 맹세하지는 않는다. 여신들의 성소는 틸푸시오스산 가까이에 있다. 할리아르토스에는 신상도 없고 지붕도 없는 신전들이 있다. 누구에게 바친 신전들인지도 알아낼 수 없었다.

**[9.33.4]** 할리아르토스 땅에는 로피스라는 강이 있다. 본래 땅이 메마르고 물이 없어서, 지배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델포이에 와서 이 땅에서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피티아 여사제는 할리아르토스로 돌아가 처음 마주치는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가 도착했을 때 아들 로피스가 그를 맞으러 나왔다. 그는 곧바로 칼로 아들을 쳤다. 소년은 아직 살아서 이리저리 달렸고, 피가 떨어진 곳마다 땅에서 물이 솟았다. 이 때문에 강을 로피스라 부른다.

**[9.33.5]** 알랄코메나이는 높지 않은 산 바로 아래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다. 어떤 이들은 아테나를 길렀다는 토박이 알랄코메네우스에게서 그 이름이 나왔다고 한다. 다른 이들은 알랄코메니아가 오기고스의 딸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한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평지에는 아테나 신전이 세워져 있고, 오래된 상아 신상이 있었다.

**[9.33.6]** 술라가 아테나이인들을 대했던 방식은 잔혹하여 로마인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았으나, 그가 테바이와 오르코메노스를 대했던 방식과는 잘 들어맞았다. 알랄코메나이에서는 아테나의 신상 자체를 훔쳐 자신의 죄에 또 하나를 보탰다. 그가 그리스 도시와 그리스인들의 신들에게 이처럼 미친 짓을 저지른 뒤, 온갖 병 가운데 가장 고약한 병이 그를 덮쳤다. 그의 몸에 이가 들끓었다. 전에 행운으로 보였던 것이 그런 최후로 돌아왔다. 여신을 빼앗긴 알랄코메나이의 성소는 그 뒤로 돌보는 이가 없었다.

**[9.33.7]** 내가 살던 때에는 또 한 가지 일이 신전의 파괴에 더해졌다. 크고 억센 담쟁이덩굴이 신전에 달라붙어 자라면서, 맞물려 있던 돌들을 느슨하게 하고 서로 떼어 놓았다. 이곳에는 크지 않은 급류가 흐른다. 사람들은 그 강을 트리톤이라 부른다. 아테나가 트리톤강 가에서 자랐다는 전승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강이 바로 이곳 트리톤강이라고 여긴다. 트리토니스 호수에서 리비아 앞바다로 흘러드는 리비아의 강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periegesis.abm.uu.se

## 제34장

**[9.34.1]** 알랄코메나이에서 코로네이아로 가다 보면 도시에 닿기 전에 이토니아 아테나의 성소가 나온다. 암픽티온의 아들 이토니오스에게서 이름을 얻었으며, 보이오티아인들은 이곳에 모여 공동 회의를 연다. 신전 안에는 이토니아 아테나와 제우스의 청동상이 있다. 페이디아스의 제자이자 그의 사랑을 받은 아고라크리토스의 작품이다. 내가 살던 때에는 카리테스 여신들의 상도 봉헌했다.

**[9.34.2]**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전한다. 여신의 사제를 맡은 이오다마가 밤중에 성역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테나가 나타났다. 아테나의 옷에는 고르곤 메두사의 머리가 새겨져 있었다. 이오다마는 그것을 보고 돌로 변했다. 이 때문에 한 여인이 날마다 이오다마의 제단에 불을 피운다. 불을 피우면서 보이오티아 말로 이오다마가 살아 있으며 불을 달라고 한다는 말을 세 번 외친다.

**[9.34.3]** 코로네이아의 아고라에서는 눈에 띄는 것을 두 가지 보았다. 하나는 '가축 떼를 지키는 이'인 에피멜리오스 헤르메스의 제단이고, 하나는 바람들의 제단이다. 조금 아래쪽에는 헤라의 성소가 있다. 오래된 신상은 테바이의 피토도로스가 만들었으며, 여신은 손

에 세이렌들을 들고 있다. 이야기에 따르면 아켈로오스의 딸들은 헤라의 권유를 받아 무사 여신들과 노래를 겨루었다. 무사 여신들이 이겼고, 세이렌의 깃털을 뽑아 자신들의 화관을 만들었다고 한다.

**[9.34.4]** 코로네이아에서 약 40스타디온 떨어진 곳에는 리베트리온산이 있다. 산에는 무사 여신들의 상과 리베트리온의 님프들이라 불리는 이들의 상이 있다. 샘도 두 개 있다. 하나는 리베트리아스, 하나는 '바위'라는 뜻의 페트라라 부른다. 두 샘은 여인의 젖가슴처럼 생겼으며, 거기서 젖 같은 물이 솟는다.

**[9.34.5]** 코로네이아에서 라피스티온산과 그곳의 라피스티오스 제우스 성역까지는 약 20스타디온이다. 신상은 돌로 만들었다. 아타마스가 여기서 프릭소스와 헬레를 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 제우스가 아이들에게 황금 양털을 가진 숫양을 보냈다고 한다. 아이들은 그 숫양을 타고 달아났다. 더 높은 곳에는 '빛나는 눈을 가진 이'라는 뜻의 카롭스 헤라클레스가 있다. 보이오티아인들은 헤라클레스가 하데스의 개를 끌고 지상으로 올라온 자리가 여기라고 한다. 라피스티온산에서 이토니아 아테나의 성소로 내려가는 길에는 팔라로스강이 있다. 케피시스 호수로 흐르는 강이다.

**[9.34.6]** 라피스티온산 너머에는 오르코메노스가 있다. 그리스의 어느 도시에 못지않게 이름난 곳이다. 한때는 더할 나위 없이 번영했으나, 이곳도 미케나이와 델로스에 거의 맞먹을 만큼 쇠락할 운명이었다. 그 옛 역사에 관해 전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페네이오스강의 아들 안드레우스가 처음 이곳에 정착했고, 땅은 그의 이름을 따 안드레이스라고 불렸다고 한다.

**[9.34.7]** 아타마스가 그에게 오자, 안드레우스는 자기 땅 가운데 라피스티온산 일대와 지금의 코로네이아 및 할리아르토스 땅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타마스는 아들 가운데 살아남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여 할리아르토스와 코로노스를 양자로 삼았다. 두 사람은 그의 형제 시시포스의 아들 테르산드로스에게서 태어났다. 아타마스는 레아르코스와 멜리케르테스에게 직접 죽음을 안겼고, 레우콘은 병들어 죽었다. 프릭소스가 살아 있는지, 그에게 남은 자손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9.34.8]** 후일 어떤 이들의 말로는 프릭소스 자신이, 다른 이들의 말로는 프레스본이 콜키스에서 돌아왔다. 프레스본은 프릭소스가 아이에테스의 딸에게서 얻은 아들이었다. 그러자 테르산드로스의 아들들은 아타마스의 집이 아타마스와 그 후손들에게 속한다고 인정했다. 대신 아타마스에게서 땅 일부를 얻어 저마다 할리아르토스와 코로네이아를 세웠다.

**[9.34.9]** 그보다 앞서 안드레우스는 아타마스에게서 레우콘의 딸 에우이페를 아내로 맞았으며 아들 에테오클레스를 얻었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 전하는 말로는 에테오클레스는 케피소스강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어떤 시인들은 시에서 그를 케피소스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케피시아데스라 불렀다.

**[9.34.10]** 에테오클레스는 왕이 된 뒤에도 나라가 안드레우스의 이름을 따라 불리도록 두었다. 다만 부족을 둘로 나누어 하나는 케피시아스라 하고 다른 하나에는 자기 이름을 붙였다. 시시포스의 아들 알모스가 그에게 왔을 때, 에테오클레스는 땅을 조금 내주어 살게 했

다. 그래서 그 마을을 알모스의 이름을 따 알모네스라고 불렀다. 뒤에는 올모네스가 널리 쓰이는 이름이 되었다. periegesis.abm.uu.se

## 제35장

**[9.35.1]** 보이오티아인들은 카리테스 여신들에게 처음 제사를 지낸 사람이 에테오클레스였다고 한다. 또 그가 카리테스가 셋이라고 정한 것은 알지만, 그가 붙인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라케다이몬인들은 카리테스가 둘이라고 한다. 타이게테의 아들 라케다이몬이 그 두 여신을 정하고 클레타와 파엔나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다.

**[9.35.2]** 이 두 이름은 카리테스에게 어울린다. 아테나이인들이 붙인 이름도 마찬가지다. 아테나이인들은 예부터 카리테스 둘을 섬겼는데, 아욱소와 헤게모네다. 카르포는 카리테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계절의 여신인 호라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다. 아테나이인들은 다른 호라를 판드로소스와 함께 숭배하며, 그 여신을 탈로라 부른다.

**[9.35.3]** 우리가 세 카리테스에게 기도하는 관습을 배운 것은 오르코메노스의 에테오클레스에게서다. 델로스인들을 위해 아폴론상을 만든 앙겔리온과 텍타이오스 〔…〕는 신의 손 위에 세 카리테스를 만들어 놓았다. 아테나이에서도 아크로폴리스 입구 앞의 카리테스는 셋이다. 그 곁에서 비의를 거행하는데, 그 내용은 일반 사람들에게 밝힐 수 없다.

**[9.35.4]** 우리가 아는 한 카리테스를 처음 노래한 사람은 팜포스다. 그러나 그의 시에는 카리테스가 몇이며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이 없다. 호메로스도 카리테스를 언급했다. 그 중 하나를 헤파이스토스의 아내라 했으며 이름을 카리스라고 했다. 또 잠의 신이 파시테아를 사랑했다고 하며, 잠의 신이 하는 말에는 다음 시구가 있다.

> 그분이 내게 젊은 카리테스 가운데 한 여신을 주시리니.

이 구절 때문에 호메로스가 나이 많은 다른 카리테스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9.35.5]** 헤시오도스는 『신통기』에서 카리테스가 제우스와 에우리노메의 딸들이라 하며 에우프로시네, 아글라이아, 탈리아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시가 과연 헤시오도스의 작품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증거로 삼을 만하다. 오노마크리토스의 시도 그 이야기와 일치한다. 안티마코스는 카리테스의 수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그들이 아이글레와 태양의 딸들이라고 했다. 엘레게이아 시인 헤르메시아낙스는 설득의 여신 페이토도 카리테스 가운데 하나로 넣는다는 점에서 앞선 시인들과 견해가 다르다.

**[9.35.6]** 조각이든 그림이든 누가 처음 카리테스를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냈는지는 알아낼 수 없었다. 앞선 시대에는 조각가와 화가 모두 그들에게 옷을 입혔다. 이를테면 스미르나의 네메시스 여신들 성소에는 두 신상 위에 황금 카리테스가 봉헌되어 있는데, 부팔로스의 작품이다. 같은 도시의 오데이온에는 아펠레스가 그린 카리스의 초상도 있다. 페르가몬의 아탈로스 방에도 부팔로스가 만든 다른 카리테스 상들이 있다.

**[9.35.7]** 이른바 피티온 가까이에는 파로스의 피타고라스가 그린 카리테스 그림이 있다. 소프로니스코스의 아들 소크라테스도 아테나이인들을 위해 카리테스 상을 만들었는데, 아크

로폴리스 입구 앞에 있다. 이 모든 상에는 옷이 입혀져 있다. 뒤의 장인들은 그리는 방식을 바꾸었는데, 까닭은 모르겠다. 오늘날 조각가와 화가들은 카리테스를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낸다. periegesis.abm.uu.se

## 제36장

**[9.36.1]** 에테오클레스가 죽자 왕권은 알모스의 가문에 돌아갔다. 알모스에게는 크리소게네이아와 크리세라는 딸들이 있었다. 전승에 따르면 알모스의 딸 크리세는 아레스에게서 플레기아스라는 아들을 낳았다. 에테오클레스가 자식 없이 죽었으므로 플레기아스가 왕위를 얻었다. 사람들은 온 나라를 안드레이스 대신 플레기안티스라고 불렀다.

**[9.36.2]** 플레기아스는 처음 세워진 안드레이스 시 외에 또 다른 도시를 세워 자기 이름을 붙였다. 그는 그곳에 그리스에서 가장 뛰어난 병사들을 모았다. 세월이 지나 무모하고 경솔한 플레기아스인들은 오르코메노스에서 떨어져 나가 이웃을 약탈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델포이 성소까지 약탈하러 진군했다. 필람몬이 아르고스의 정예병을 데리고 맞서 나갔으나, 그와 정예병들은 전투에서 죽었다.

**[9.36.3]** 플레기아스인들이 어느 그리스인보다 전쟁을 즐겼다는 사실은 『일리아스』에서 아레스와 그의 아들 포보스를 다룬 구절에도 드러난다.

> 둘은 에피라 사람들에게로,
> 또는 기개 높은 플레기아스인들에게로 전쟁하러 갈 채비를 했다.

이 구절에서 호메로스가 말하는 에피라 사람들은 테스프로티스에 사는 이들인 듯하다. 신은 잇따라 벼락을 내리고 격렬한 지진을 일으켜 플레기아스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살아남은 이들은 역병으로 쇠하였으나, 그중 소수는 포키스로 달아났다.

**[9.36.4]** 플레기아스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크리세스가 왕위를 이었다. 크리세스는 포세이돈과 알모스의 딸 크리소게네이아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 크리세스에게는 미니아스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가 다스린 사람들은 그에게서 이름을 얻어 아직도 미니아스인이라 불린다. 미니아스는 수입이 워낙 많아 재산으로 선대 왕들을 능가했다. 우리가 알기로 자기 재물을 들여놓을 보고를 처음으로 지은 사람도 그였다.

**[9.36.5]** 그리스인들은 자기 나라의 구경거리보다 외국의 구경거리에 더 놀라는 듯하다. 이름난 역사가들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아주 세세하게 묘사했으면서, 그에 못지않게 놀라운 미니아스의 보고와 티린스의 성벽은 짧게라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9.36.6]** 미니아스에게는 오르코메노스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가 다스릴 때 도시는 오르코메노스라 불렸고 주민들도 오르코메노스인이라고 불렸다. 다만 아르카디아의 오르코메노스인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미니아스인이라는 이름도 계속 썼다. 오르코메노스가 왕이던 때 아르고스에서 히에토스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자기 아내와 함께 있는 아리스바스의 아들 몰루로스를 붙잡아 죽였기 때문에 망명한 사람이었다. 오르코메노스는 지금 히에토스 마을을 둘러싼 땅과 거기에 맞닿은 땅을 그에게 주었다.

**[9.36.7]** 그리스인들이 『큰 에오이아이』라 부르는 시를 지은 사람도 히에토스를 언급했다.

> 히에토스는 아내의 잠자리 때문에
> 집 안에서 아리스바스의 사랑하는 아들 몰루로스를 죽였다.
> 그는 집을 버리고 말을 기르는 아르고스에서 달아나
> 미니아스인들의 오르코메노스에 이르렀다.
> 영웅은 그를 맞아 마땅한 예를 갖추어 재산의 일부를 주었다.

**[9.36.8]** 우리가 아는 한 간통한 남자에게 처음 벌을 가한 사람은 이 히에토스였다. 훗날 드라콘이 아테나이인들을 위해 법을 정할 때, 간통한 남자에게 벌을 가하는 일은 국가가 용인하는 행위 가운데 하나로 규정되었다. 미니아스인들의 명성이 어찌나 높았던지, 필로스의 왕인 크레테우스의 아들 넬레우스도 오르코메노스에서 아내를 맞았다. 이아시오스의 손녀이자 암피온의 딸인 클로리스였다. periegesis.abm.uu.se

## 제37장

**[9.37.1]** 그러나 알모스의 혈통도 끊길 운명이었다. 오르코메노스가 자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왕권은 프릭소스의 손자이자 프레스본의 아들인 클리메노스에게 돌아갔다. 클리메노스에게는 아들들이 태어났다. 맏이는 에르기노스였고, 그 뒤로 스트라티오스, 아론, 필레우스가 있었으며 막내는 아제우스였다. 온케스토스의 포세이돈을 기리는 축제에서 테바이 사람 몇이 하찮은 일로 격분하여 클리메노스를 죽였다. 그리하여 클리메노스의 맏아들 에르기노스가 왕위를 얻었다.

**[9.37.2]** 에르기노스와 그의 형제들은 곧 병력을 모아 테바이를 쳤다. 전투에서 이긴 뒤 그들은 테바이인들이 클리메노스를 죽인 대가로 해마다 공납을 바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가 테바이에서 장성하자 테바이인들은 그 공납에서 벗어났으며, 미니아스인들은 전쟁에서 크게 패했다.

**[9.37.3]** 자기 도시의 사람들이 크게 패하자 에르기노스는 헤라클레스와 평화를 맺었다. 그는 예전의 재산과 번영을 되찾으려 애쓰느라 다른 일은 모두 소홀히 했다. 그렇게 어느새 아내도 자식도 없이 늙었다. 그러나 재산을 모으고 나자 자식을 얻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9.37.4]** 그래서 델포이로 가서 자식을 얻는 일에 대해 물었다. 피티아 여사제는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 프레스본의 후손, 클리메노스의 아들 에르기노스여,
> 자식을 구하러 온 때가 늦었으나, 지금이라도
> 오래된 쟁기에 새 보습을 달아라.

그는 신탁에 따라 젊은 아내를 맞았으며, 트로포니오스와 아가메데스라는 자식들을 얻었다.

**[9.37.5]** 트로포니오스는 에르기노스의 아들이 아니라 아폴론의 아들이라고 한다. 트로포니오스의 신탁을 받으러 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하듯, 나도 그 이야기를 믿는 편이다. 두

사람은 자라서 신들의 성소와 사람들의 궁전을 짓는 데 솜씨가 뛰어났다고 한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과 히리에우스의 보고를 지은 이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보고를 지을 때 돌 하나를 바깥에서 빼낼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고는 창고에서 물건을 조금씩 꺼내 갔다. 열쇠와 봉인은 그대로인데 보물이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보고 히리에우스는 어찌 된 일인지 알 수 없었다.

**[9.37.6]** 그래서 히리에우스는 금과 은을 담아 둔 그릇들 위에 덫인지 다른 장치인지를 놓아, 들어와 보물에 손을 대는 사람을 붙잡으려 했다. 아가메데스가 들어갔다가 덫에 단단히 걸렸다. 트로포니오스는 날이 밝으면 형제가 고문을 받고 자신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도 드러날까 두려워 그의 머리를 잘랐다.

**[9.37.7]** 레바데이아의 숲에서 오늘날 '아가메데스의 구덩이'라 부르는 곳의 땅이 갈라져 트로포니오스를 삼켰다. 구덩이 곁에는 석판이 있다. 오르코메노스의 왕권은 아스칼라포스와 이알메노스에게 돌아갔다. 그들은 아레스의 아들들이라고 하며, 어머니는 아스티오케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악토르, 할아버지는 아제우스, 증조부는 클리메노스였다. 미니아스인들은 이들의 지휘를 받아 트로이로 갔다.

**[9.37.8]** 오르코메노스인들은 코드로스의 아들들이 이오니아로 원정할 때에도 함께했다. 테바이인들에게 도시에서 쫓겨났다가 아민타스의 아들 필리포스에 의해 오르코메노스로 돌아왔다. 그러나 신의 뜻에 따라 그들의 형편은 갈수록 더 쇠약해질 터였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38장

**[9.38.1]** 오르코메노스에는 디오니소스의 성소가 있으나, 가장 오래된 것은 카리테스 여신들의 성소다. 그곳 사람들은 돌들을 가장 높이 섬긴다. 그 돌들이 에테오클레스에게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사람이 다듬어 만든 신상들은 내가 살던 때에 봉헌되었으며, 그것들 역시 돌로 만들었다.

**[9.38.2]** 볼 만한 샘도 있다. 사람들은 이 샘으로 내려가 물을 긷는다. 미니아스의 보고는 그리스 안에서도 그 밖에서도 견줄 데가 없는 놀라운 건물이다. 다음과 같이 지었다. 돌로 지었고, 둥근 모양으로 올라가 다소 뭉툭한 꼭대기에 이른다. 가장 위에 놓인 돌이 건물 전체를 맞물려 지탱한다고 한다.

**[9.38.3]** 미니아스와 헤시오도스의 무덤이 있다. 오르코메노스인들은 헤시오도스의 뼈를 다음과 같이 얻었다고 한다. 사람과 짐승에게 역병이 닥쳐 그들이 신에게 사절들을 보냈다. 피티아 여사제는 나우팍토스 땅에서 헤시오도스의 뼈를 가져와 오르코메노스 땅에 두는 것만이 역병을 물리칠 방법이라고 답했다. 사절들은 나우팍토스 땅의 어디에서 뼈를 찾을 수 있는지 다시 물었다. 피티아 여사제는 까마귀가 그 자리를 가리켜 줄 것이라고 대답했다.

**[9.38.4]** 사절들이 뭍에 오르자 길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바위가 보였으며, 그 위에 까마귀가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바위의 틈에서 헤시오도스의 뼈를 찾았다. 무덤에는 엘레게이아 시구가 새겨져 있다.

> 곡식 풍성한 아스크라가 그의 고향이었으나, 헤시오도스가 죽은 뒤
> 말을 모는 미니아스인들의 땅이 그의 뼈를 간직한다.
> 지혜라는 시금석으로 사람들을 가릴 때,
> 온 그리스에서 그의 명성이 가장 높이 솟으리라.

**[9.38.5]** 악타이온에 관해 오르코메노스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했다. 바위를 든 망령이 땅을 황폐하게 했다고 한다. 그들이 델포이에 묻자 신은 악타이온의 유해를 찾아 땅에 묻으라고 했다. 또 망령의 모습을 청동으로 만들어 쇠로 바위에 고정하라고도 했다. 나는 그 상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 사람들은 해마다 악타이온에게 영웅으로서 제사도 지낸다.

**[9.38.6]** 오르코메노스에서 7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헤라클레스의 신전과 작은 신상이 있다. 이곳에는 '검다'는 뜻의 멜라스강의 발원지가 있다. 멜라스는 케피시스 호수로 들어가는 강들 가운데 하나다. 평소에도 호수는 오르코메노스 땅의 대부분을 덮는다. 겨울철에 남풍이 오래 불고 나면 물은 그 땅의 더 넓은 곳으로 퍼진다.

**[9.38.7]** 테바이인들은 헤라클레스가 케피소스강의 물길을 오르코메노스 평야로 돌렸다고 주장한다. 그전에는 강이 산 밑을 지나 바다로 들어갔는데, 헤라클레스가 산을 관통하는 틈을 막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메로스 역시 케피시스 호수가 헤라클레스가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 호수였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 케피시스 호수 쪽으로 비탈진 곳에.

**[9.38.8]** 또 오르코메노스인들이 그 틈을 찾아내지 못했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랬다면 그들은 헤라클레스가 막은 것을 헐어 케피소스강을 옛 물길로 돌려놓았을 것이다. 트로이 전쟁 때까지도 그들이 부유했기 때문이다. 호메로스가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의 사절들에게 답하는 대목에 내 생각을 뒷받침하는 말이 있다.

> 오르코메노스로 들어오는 온갖 재물을 준다 해도.

이 구절은 그때에도 오르코메노스로 들어오는 수입이 많았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9.38.9]** 아스플레돈은 물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떠났다고 한다. 그 도시는 님프 미데이아와 포세이돈 사이에서 태어난 아스플레돈에게서 이름을 얻었다고도 한다. 오르코메노스 사람 케르시아스가 지은 다음 시구가 그 말을 뒷받침한다.

> 포세이돈과 이름 높은 미데이아에게서
> 드넓은 도시의 아스플레돈이 태어났다.

**[9.38.10]** 케르시아스의 시는 내가 살던 때 이미 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칼리포스가 앞서 말한 오르코메노스의 역사에서 이 시구들을 인용했다. 오르코메노스인들 사이에는 헤시오도스의 무덤에 새긴 비문도 이 케르시아스가 지었다는 전승이 있다. periegesis.abm.uu.se

## 제39장

[9.39.1] 오르코메노스는 산 쪽으로는 포키스와 경계를 이루고, 평야 쪽으로는 레바데이아와 경계를 이룬다. 레바데이아는 본래 높은 곳에 있었으며, 아스플레돈의 어머니 이름을 따서 미데이아라고 불렸다. 아테나이에서 레바도스가 오자 주민들은 낮은 곳으로 내려갔고, 도시는 그의 이름을 따서 레바데이아라 불렸다. 레바도스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그가 무슨 일로 왔는지는 주민들도 모른다. 그들이 아는 것은 그의 아내가 라오니케였다는 것뿐이다.

[9.39.2] 이 도시는 그리스에서 가장 번영하는 도시들에 못지않게 잘 꾸며져 있다. 헤르키나강이 도시와 트로포니오스의 숲을 가른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헤르키나는 이곳에서 데메테르의 딸 코레와 놀다가 손에 쥐고 있던 거위를 그만 놓쳤다. 거위는 속이 빈 동굴로 날아들어 돌 밑에 숨었다. 코레가 동굴로 들어가 돌 밑에 웅크리고 있던 거위를 잡았다. 코레가 돌을 들어 올린 자리에서 물이 솟아났다고 한다. 그래서 강에 헤르키나라는 이름이 붙었다.

[9.39.3] 강가에는 헤르키나의 신전이 있고, 그 안에는 거위를 품에 안은 소녀상이 있다. 동굴 안에는 강의 수원과 서 있는 신상들이 있는데, 신상들의 홀에는 뱀이 감겨 있다. 아스클레피오스와 건강의 여신 히기에이아라고 짐작할 수도 있으나, 트로포니오스와 헤르키나일 수도 있다. 이곳 사람들은 뱀이 아스클레피오스에게만큼이나 트로포니오스에게도 신성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강가에는 아르케실라오스의 무덤이 있다. 그의 유골은 레이토스가 트로이아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9.39.4] 숲에서 가장 이름난 것은 트로포니오스의 신전과 신상이다. 프락시텔레스가 만든 이 신상은 아스클레피오스의 모습을 닮았다. 에우로파라는 별칭을 지닌 데메테르의 성소도 있고, 비를 내리는 제우스 히에티오스의 상은 노천에 있다. 신탁소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산을 더 오르면 '코레의 사냥터'라 불리는 곳과 왕이신 제우스의 신전이 나온다. 건물이 너무 컸던 탓인지, 전쟁이 잇따랐던 탓인지, 신전은 짓다 만 채로 남아 있다. 또 다른 신전에는 크로노스와 헤라와 제우스의 상이 있다. 아폴론의 성소도 있다.

[9.39.5] 신탁소의 절차는 이렇다. 트로포니오스의 신탁을 받으러 내려가기로 한 사람은 먼저 정해진 날수만큼 어느 건물에서 묵는다. 이 건물은 아가토스 다이몬, 곧 선한 신령과 아가테 티케, 곧 좋은 운에 바쳐져 있다. 머무는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는 여러 규율을 지키는데,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일을 삼가고 헤르키나강에서만 몸을 씻는다. 제사에서 나오는 고기는 넉넉하다. 내려갈 사람은 트로포니오스와 그의 자녀들, 아폴론과 크로노스, 왕이신 제우스와 전차를 모는 헤라 헤니오케에게 제물을 바친다. 주민들이 에우로파라 부르며 트로포니오스의 유모였다고 하는 데메테르에게도 바친다.

[9.39.6] 제사 때마다 점술가가 곁에 있다. 그는 제물의 내장을 살펴보고, 트로포니오스가 내려갈 사람을 너그럽고 호의적으로 맞아 줄지 말해 준다. 트로포니오스의 뜻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제물은 숫양이다. 신탁을 청하는 사람은 내려가는 날 밤, 구덩이 위에서 아가메데스의 이름을 부르며 이 양을 바친다. 앞선 제사에서 길한 징조가 나왔더라도 숫양의 내장이 같은 결과를 보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징조가 일치하면 그는 좋은 기대를 품고 내려간다. 내려가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9.39.7] 우선 밤이 되면 시민의 자제 가운데 열세 살쯤 된 소년 둘이 그를 헤르키나강으로 데려간다. 헤르마이라 불리는 이 소년들은 강에 이르러 그의 몸에 기름을 바르고 씻겨 준다. 내려갈 사람의 몸을 씻기는 일과 그 밖에 필요한 시중을 모두 이 소년들이 맡는다. 그 다음 사제들은 그를 서로 바싹 붙어 있는 두 샘으로 데려간다.

[9.39.8] 여기서 그는 먼저 망각의 물이라 불리는 레테의 물을 마셔, 지금까지 마음에 품었던 생각을 모두 잊어야 한다. 그다음에는 기억의 물이라 불리는 므네모시네의 물을 마신다. 그 물을 마셔야 내려가서 본 것을 기억할 수 있다. 이어 다이달로스가 만들었다는 신상을 본다. 사제들은 트로포니오스에게 갈 사람에게만 이 신상을 보여 준다. 그는 신상을 보고 경배하며 기도를 올린 다음, 띠를 두른 아마포 옷을 입고 이 지방에서 신는 장화를 신고 신탁소로 간다.

[9.39.9] 신탁소는 숲 너머 산 위에 있다. 둘레에는 흰 대리석으로 둥글게 쌓은 기단이 있다. 그 둘레는 아주 작은 타작마당의 둘레만 하고, 높이는 두 큐빗에 조금 못 미친다. 기단 위에는 청동 살이 서 있고, 살들을 잇는 가로대도 청동이다. 그 사이로 두 짝짜리 문이 나 있다. 울타리 안에는 땅이 갈라진 듯한 구멍이 있는데, 석재를 정교하게 맞추어 만든 것이다.

[9.39.10] 그 구조는 빵을 굽는 화덕처럼 생겼다. 가운데 너비는 네 큐빗쯤으로 짐작되며, 깊이도 여덟 큐빗을 넘지 않아 보인다. 바닥까지 내려가는 통로는 따로 없으며, 사람이 트로포니오스를 찾아오면 가볍고 좁은 사다리를 가져다준다. 내려가 보면 바닥과 구조물 사이에 구멍이 하나 있다. 너비는 두 뼘, 높이는 한 뼘쯤 되어 보였다.

[9.39.11] 내려갈 사람은 꿀로 반죽한 보리떡을 손에 든 채 등을 대고 누워, 두 발을 구멍에 밀어 넣는다. 이어 몸을 밀어 무릎까지 집어넣으려고 애쓴다. 무릎이 들어가면 나머지 몸도 곧장 빨려 들어간다. 크고 빠른 강의 소용돌이가 사람을 붙들어 물속으로 휩쓸어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깊숙한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앞일을 알게 된다. 더러는 눈으로 보고, 더러는 귀로 듣는다. 위로 돌아올 때는 들어갔던 바로 그 구멍으로 발이 먼저 튀어나온다.

[9.39.12] 내려갔다가 죽은 사람은 데메트리오스의 호위병 한 명뿐이었다고 한다. 그는 성소에서 관례에 따른 의식을 하나도 치르지 않았으며, 신탁을 청할 뜻 없이 성소에서 금은을 훔칠 작정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그의 시신은 신성한 입구로 나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도 전하지만, 나는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을 적었다.

[9.39.13] 신탁을 청한 사람이 트로포니오스에게서 올라오면 사제들이 다시 그를 맡는다. 사제들은 깊숙한 성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놓인 '기억의 왕좌'에 그를 앉히고,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모두 묻는다. 이야기를 다 들으면 그를 친족에게 맡긴다. 그는 공포에 질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자신이나 주변도 알아보지 못한다. 친족들은 그를 들어, 앞서 좋은 운과 선한 신령 곁에서 묵었던 건물로 데려간다. 그러고 나면 차츰 정신을 되찾고 다시 웃을 수도 있게 된다.

[9.39.14] 여기 적은 일은 내가 직접 트로포니오스에게 신탁을 청하고 다른 사람들이 신탁을 받는 모습도 보아 아는 것이다. 트로포니오스의 성소에 내려갔다 온 사람은 저마다 듣거나

본 것을 모두 판에 적어 봉헌해야 한다. 아리스토메네스의 방패도 아직 이곳에 보관되어 있다. 그에 얽힌 이야기는 앞에서 이미 했다. periegesis.abm.uu.se

## 제40장

[9.40.1] 보이오티아 사람들은 한때 이 신탁소의 존재를 몰랐다. 그들이 알게 된 경위는 이렇다. 한 해가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자 각 도시에서 델포이로 사절을 보냈다. 사절들이 가뭄을 그치게 할 방도를 묻자 피티아는 레바데이아의 트로포니오스를 찾아가 그에게서 방도를 알아내라고 했다.

[9.40.2] 사절들은 레바데이아에 이르렀으나 신탁소를 찾지 못했다. 그때 아크라이프니온에서 온 사온이 벌 떼를 보았다. 그는 사절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았다. 사온은 벌 떼가 어디로 가든 따라가 보기로 했다. 곧 벌들이 이곳에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 신탁소에 들어갔다. 트로포니오스는 이 사온에게 신탁소에서 지켜야 할 의례와 모든 규율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9.40.3] 보이오티아에 있는 다이달로스의 작품은 테바이의 헤라클레스상과 레바데이아의 트로포니오스상 두 점이다. 크레타에도 목상이 두 점 있다. 올루스에는 브리토마르티스상이, 크노소스에는 아테나상이 있다. 크노소스에는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에서 언급한 '아리아드네의 춤터'도 흰 대리석에 돋을새김으로 조각되어 있다. 델로스에는 작은 아프로디테 목상이 있다. 오른손은 세월에 닳아 형태가 무너졌고, 두 발이 있을 자리에 네모난 받침이 있다.

[9.40.4] 내 생각에는 아리아드네가 이 신상을 다이달로스에게 받았으며 테세우스를 따라 나섰을 때 집에서 가져왔다. 델로스 사람들의 말로는, 아리아드네를 잃은 테세우스가 이 여신의 목상을 델로스의 아폴론에게 바쳤다고 한다. 집으로 가져가면 상을 볼 때마다 아리아드네가 떠올라 사랑을 잃은 슬픔이 되살아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아직 남아 있는 다이달로스의 작품은 내가 아는 한 없다. 아르고스 사람들이 헤라의 성소에 바친 상들과 옴파케에서 시켈리아의 겔라로 가져간 상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사라졌다.

[9.40.5] 레바데이아 다음에는 카이로네이아가 나온다. 옛 이름은 아르네였다. 아르네는 아이올로스의 딸이었다고 하며, 테살리아의 한 도시도 그녀의 이름을 땄다. 지금의 카이로네이아라는 이름은 카이론에게서 왔다고 한다. 카이론은 아폴론과 필라스의 딸 테로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진다. 서사시 『대 에오이아이』를 지은 이도 이를 뒷받침한다.

[9.40.6]

> 필라스는 이름난 이올라오스의 딸,
> 모습이 올림포스의 여신들을 닮은 레이페필레네를 아내로 맞았다.
> 그녀는 궁전에서 아들 히포테스와
> 달빛을 닮은 어여쁜 테로를 낳았다.
> 테로는 아폴론의 품에 안겨
> 말을 길들이는 힘센 카이론을 낳았다.

호메로스는 카이로네이아와 레바데이아가 이미 그렇게 불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옛 이름을 썼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일강을 아이깁토스강이라 부른 것과 마찬가지다.

[9.40.7] 카이로네이아 땅에는 전승 기념물 두 개가 있다. 술라 휘하의 로마인들이 탁실로스가 이끈 미트리다테스의 군대를 물리친 것을 기념하여 세운 것이다. 그러나 아민타스의 아들 필리포스는 이곳에서도, 그리스인을 상대로든 다른 민족을 상대로든 승리를 거둔 어느 곳에서도 전승 기념물을 세우지 않았다. 마케도니아인들에게는 그런 관습이 없었기 때문이다.

[9.40.8] 마케도니아인들은 그들의 왕 카라노스가 이웃 땅의 지배자 키세우스를 전투에서 이겼다고 한다. 카라노스는 아르고스의 관례에 따라 전승 기념물을 세웠으나, 올림포스산에서 내려온 사자가 그것을 쓰러뜨리고 사라졌다고 한다.

[9.40.9] 그들의 말에 따르면, 카라노스는 주변의 다른 민족들에게서 오래도록 미움을 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웃의 호의를 얻으려면 카라노스 자신은 물론 어느 후계자도 전승 기념물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규범이 생겼다고 한다. 알렉산드로스가 다레이오스를 이겼을 때도, 인도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도 전승 기념물을 세우지 않은 사실이 이 이야기를 뒷받침한다.

[9.40.10] 도시에 다가가면 필리포스와 싸우다가 죽은 테바이인들의 공동묘가 보인다. 비문은 없으나 위에 사자상이 있다. 아마도 그들의 기개를 나타낸 듯하다. 비문을 새기지 않은 까닭은, 내 생각에 그들의 용기에 걸맞은 행운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9.40.11] 카이로네이아 사람들이 신성한 것 가운데 가장 높이 받드는 것은 홀이다. 호메로스에 따르면, 헤파이스토스가 제우스를 위해 만든 이 홀을 헤르메스가 제우스에게 받아 펠롭스에게 주었다. 펠롭스는 아트레우스에게, 아트레우스는 티에스테스에게 물려주었으며, 아가멤논은 티에스테스에게서 받았다. 카이로네이아 사람들은 이 홀을 '도루', 곧 '창'이라 부르며 숭배한다. 이 홀에 유달리 신성한 힘이 깃들었다는 것은 홀이 카이로네이아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명성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9.40.12] 그들의 말에 따르면, 홀은 자기네 땅과 포키스의 파노페우스가 맞닿는 경계에서 발견되었다. 그때 포키스 사람들은 홀과 함께 금도 발견했는데, 카이로네이아 사람들은 금 대신 홀을 차지하게 된 것을 기뻐했다고 한다. 내 생각에는 아가멤논의 딸 엘렉트라가 홀을 포키스로 가져왔다. 홀을 위해 공동으로 지은 신전은 없으며, 사제가 일 년 동안 집에 보관한다. 날마다 홀에 제물을 바치고, 그 곁에는 갖가지 고기와 과자를 가득 차린 상을 놓는다. periegesis.abm.uu.se

## 제41장

[9.41.1] 시인들은 헤파이스토스가 많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노래했고 사람들은 그 말을 따라 전해 왔다. 그 가운데 참으로 그의 작품이라 할 만한 것은 아가멤논의 홀뿐이다. 그러나 파타라에 사는 리키아인들은 아폴론 신전에서 청동 사발을 보여 주며, 텔레포스가 봉헌했고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었다고 한다. 청동을 처음 녹여 부은 이들이 사모스의 테오도로스와 로이코스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하다.

**[9.41.2]** 파트라이에 사는 아카이아인들은 에우리필로스가 트로이아에서 가져온 궤를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궤를 직접 보여 주지는 않는다. 키프로스의 아마투스라는 도시에는 아도니스와 아프로디테의 옛 성소가 있다. 본래 하르모니아에게 주어졌다는 목걸이가 그곳에 봉헌되어 있다고 한다. 에리필레가 남편을 저버리는 대가로 받았기 때문에 에리필레의 목걸이라 불린다. 페게우스의 아들들이 그것을 델포이에 봉헌했다. 그들이 목걸이를 얻은 경위는 아르카디아 이야기에서 이미 밝혔다. 그 뒤 포키스의 참주들이 목걸이를 가져갔다.

**[9.41.3]** 그러나 나는 그 목걸이가 아마투스의 아도니스 성소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투스에 있는 목걸이는 푸른 돌들을 금으로 이어 만든 것이다. 호메로스에 따르면 에리필레가 받은 목걸이는 온전히 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는 『오디세이아』에서 이렇게 말한다.

> 제 남편의 몸값으로 귀한 황금을 받은 여인.

호메로스도 여러 재료를 섞어 만든 목걸이를 알고 있었다.

**[9.41.4]** 가령 텔레마코스가 필로스에서 궁전으로 돌아오기 전에 에우마이오스가 오디세우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 꾀 많은 사내 하나가 아버지 집에 왔소.
> 황금 사이사이에 호박을 꿰어 만든 목걸이를 가지고.

**[9.41.5]** ‘페넬로페의 선물’이라 불리는 대목에서도 에우리마코스를 비롯한 구혼자들이 페넬로페에게 선물을 바친다고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 에우리마코스도 곧 갖가지 재료로 만든 목걸이를 가져왔다.
> 황금 사이에 햇빛 같은 호박을 꿰어 넣은 것이었다.

그러나 에리필레가 받은 목걸이를 두고는 호메로스가 금에 돌을 섞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헤파이스토스의 작품은 아마 홀 하나뿐일 것이다.

**[9.41.6]** 도시 너머에는 페트라코스라는 바위산이 있다. 주민들은 크로노스가 속아서 레아에게 제우스 대신 돌을 받은 곳이 이곳이라고 여긴다. 산꼭대기에는 작은 제우스상이 있다.

**[9.41.7]** 이곳 카이로네이아에서는 백합, 장미, 수선화, 붓꽃을 끓여 향유를 만든다. 이 향유들은 사람의 통증을 다스리는 약이 된다. 장미로 만든 향유는 나무로 만든 신상에 바르면 썩지 않게 해 준다. 붓꽃은 늪에서 자란다. 크기는 백합만 하지만 흰색이 아니고 향도 백합에 못 미친다. periegesis.abm.uu.se

# 제10권 포키스

## 제1장

**[10.1.1]** 포키스 가운데 티토레아와 델포이 주변이 아주 오래전에 코린토스인 오르니티온의 아들 포코스에게서 그 이름을 얻은 것은 분명하다. 그로부터 그리 오래지 않아 아이기나 사람들이 아이아코스의 아들 포코스와 함께 이 땅에 상륙하면서, 오늘날 포키스라 부르는 지역 전체에 그 이름이 자리 잡았다.

**[10.1.2]** 포키스는 펠로폰네소스 맞은편에서 보이오티아 쪽으로 바다까지 뻗어 있다. 한쪽에서는 델포이의 항구 키라에서, 다른 쪽에서는 안티키라에서 바다에 닿는다. 라미아만 쪽에서 포키스와 바다 사이에 사는 사람들은 크네미스산 기슭의 로크리스인들뿐이다. 그 방면에서는 그들이 포키스와 경계를 이루고, 엘라테이아 너머에서는 스카르페이아가, 히암폴리스와 아바이 너머에서는 오푸스와 그 항구 키노스가 경계를 이룬다.

**[10.1.3]** 포키스인들의 가장 이름난 업적은 온 백성이 함께 이룬 것이다. 그들은 트로이아 전쟁에 참가했고,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하기 전에는 테살리아인과 싸워 주목할 만한 일을 해냈다. 테살리아군이 히암폴리스를 통해 쳐들어오리라고 내다보고, 그곳에 질그릇으로 된 물항아리들을 묻고 흙을 덮은 다음 테살리아 기병대를 기다렸다. 계략을 모르는 테살리아인들은 그 위로 말을 몰았다. 말들이 항아리에 발이 빠져 다리를 다치면서, 기수들은 땅에 떨어지거나 목숨을 잃었다.

**[10.1.4]** 테살리아인들은 포키스인들에게 전보다 더 격분하여 모든 도시에서 병력을 모아 진격했다. 포키스인들은 테살리아군을 몹시 두려워했다. 특히 기병이 많은 데다 말과 기수가 모두 훈련이 잘되어 있었다. 그들은 델포이에 사절을 보내 눈앞에 닥친 위험을 벗어나게 해 달라고 신에게 빌었다. 돌아온 신탁은 이러했다.

> 죽을 자와 죽지 않는 자를 맞붙게 하리라.
> 둘 모두에게 승리를 주되, 죽을 자에게 더 큰 승리를 주리라.

**[10.1.5]** 이 신탁을 받은 포키스인들은 선발한 용사 삼백 명을 겔론에게 맡겨 적진 쪽으로 보냈다. 막 밤이 되기 시작한 참이었다. 그들은 되도록 눈에 띄지 않게 테살리아군을 정탐하고, 사람들이 가장 모르는 길을 택해 본대에 돌아오며, 먼저 싸움을 걸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 선발대는 지휘관 겔론과 함께 테살리아군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병사들의 손에 죽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10.1.6]** 이 참사로 진영에 있던 포키스인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옮길 수 있는 재산, 옷과 금은, 신상들을 한곳에 모았다. 그리고 거대한 장작더미를 쌓고 서른 명을 남겨 그곳을 지키게 했다.

**[10.1.7]** 포키스군이 전투에서 패하면, 그 서른 명은 먼저 여자들과 아이들을 죽이고, 제물처럼 재물과 함께 장작더미 위에 올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 뒤 불을 지르고, 서로의 손에 죽든 테살리아 기병대에 달려들어 죽든 자신들도 목숨을 버리라는 것이었다. 이 일로

그리스인들은 궁지에서 목숨을 건 결단을 모두 '포키스인의 절망'이라 부른다. 그때 포키스군은 곧장 테살리아군을 공격했다.

[10.1.8] 기병은 히암폴리스의 다이판테스가, 보병은 암브로소스의 로이오스가 지휘했다. 총지휘는 엘리스 출신의 점술가 텔리아스가 맡았다. 포키스인들은 살아남을 희망을 모두 그에게 걸었다.

[10.1.9] 싸움이 벌어지자 포키스인들은 패할 경우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눈앞에 그렸다. 자신들의 목숨도 위태로움을 아는 그들은 필사적으로 싸웠고, 신들의 도움을 받아 그 시대에 가장 이름난 승리를 거두었다.

[10.1.10] 그제야 온 그리스가 아폴론이 포키스인들에게 내린 신탁을 이해했다. 테살리아의 장군들은 싸울 때마다 '이토니아의 아테나'를 군호로 삼았고, 포키스의 장군들은 포키스인들이 그 이름을 딴 '포코스'를 군호로 삼았다. 포키스인들은 이 전투를 기념하여 아폴론상과 점술가 텔리아스의 상, 그 전투에 나선 다른 장군들과 고장의 영웅들의 상을 델포이에 바쳤다. 조각상들은 아르고스인 아리스토메돈의 작품이다.

[10.1.11] 훗날 포키스인들은 앞선 것에 못지않게 영리한 계책을 꾸몄다. 포키스로 들어가는 고개에서 두 군대가 대치하고 있을 때, 포키스의 정예병 오백 명이 보름달이 뜨기를 기다렸다가 그날 밤 테살리아군을 습격했다. 그들은 먼저 몸에 흰 가루를 바르고 흰 무구까지 갖추었다. 테살리아인들은 한밤중에 나타난 형상이 너무도 기이하여 적군이 쳐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때 수없이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포키스인들을 위해 이 계책을 꾸민 이도 엘리스의 텔리아스였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장

[10.2.1] 페르시아군이 유럽으로 건너왔을 때, 포키스인들은 어쩔 수 없이 대왕 편에 가담했다고 한다. 그러나 플라타이아이 전투에서는 페르시아 편을 떠나 그리스인들과 함께 싸웠다. 그 후 암픽티온 동맹은 포키스인들에게 벌금을 물렸다. 포키스인들이 잘못을 저질러 벌금을 물었는지, 테살리아인들이 오랜 원한 때문에 그들에게 벌금을 물게 했는지, 나는 진상을 알아낼 수 없었다.

[10.2.2] 벌금이 너무 커서 모두 낙담하고 있을 때, 테오티모스의 아들 필로멜로스가 나섰다. 포키스의 도시 레돈 출신인 그는 포키스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지위에 있었다. 그는 벌금을 감당할 재력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델포이 성소를 점거하자고 설득했다. 그는 아테나이와 스파르타가 줄곧 포키스인들에게 호의적이었으며, 테바이나 다른 나라가 전쟁을 걸어오더라도 포키스인들에게 용기와 재력이 있어 이길 수 있다는 등 그럴듯한 주장을 폈다.

[10.2.3] 필로멜로스가 이 말을 꺼내자 포키스인들은 선뜻 따랐다. 신이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거나, 본디 신에 대한 공경보다 이익을 앞세기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포키스인들이 델포이를 점거한 것은 델포이에서 헤라클레이데스가 수장이고 아테나이에서 아가토클레스가 아르콘이던 때였다. 키레네의 프로로스가 달리기에서 이긴 제105회 올림피아드의 넷째 해였다.

[10.2.4] 그들이 성소를 점거하자 그리스에서 가장 뛰어난 용병들이 곧 그들에게 모여들었다. 이미 포키스인들과 사이가 나빴던 테바이인들은 공공연히 전쟁을 선포했다. 전쟁은 꼬박 십 년 동안 이어졌다. 그동안 포키스인들과 그 용병들이 이기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고, 테바이인들이 우세한 때도 여러 차례 있었다. 네온에서 맞붙었을 때 포키스군이 패했다. 패주하는 가운데 필로멜로스는 높은 벼랑에서 몸을 던져 죽었다. 암픽티온 동맹이 성소를 약탈한 자들에게 정해 둔 바로 그 형벌이었다.

[10.2.5] 필로멜로스가 죽자 포키스인들은 오노마르코스에게 지휘를 맡겼다. 한편 아민타스의 아들 필리포스는 테바이와 동맹을 맺었다. 전투에서 필리포스가 이겼다. 바닷가로 달아난 오노마르코스는 그곳에서 자기 병사들이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 병사들은 그가 결단력이 부족하고 지휘에 경험이 없어 자신들이 패했다고 생각했다.

[10.2.6] 신령이 오노마르코스에게 내린 최후는 그러했다. 그의 형제 파윌로스가 장군으로 뽑혔다. 파윌로스는 포키스인들을 다스리게 되자마자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한다. 아폴론에게 바친 봉헌물 중에 사람의 몸이 심하게 썩어 살이 다 떨어지고 뼈만 남은 모습을 청동으로 만든 것이 있었다. 델포이 사람들은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바친 것이라고 했다. 파윌로스는 꿈에서 자신의 모습이 이 봉헌물과 같다고 여겼다. 곧 몸이 야위는 병에 걸리니 꿈의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10.2.7] 파윌로스가 죽은 뒤 포키스인들을 다스릴 권한은 그의 아들 팔라이코스에게 넘어갔다. 팔라이코스는 성소의 재물을 사사로이 썼다는 혐의로 쫓겨났다. 그는 자기편에 선 포키스인들과 용병 일부를 거느리고 배를 타고 크레타로 건너갔다. 키도니아가 돈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그 도시를 포위했다가, 군대의 대부분과 함께 죽었다.

periegesis.abm.uu.se

## 제3장

[10.3.1] 성소를 점거한 지 십 년째 되는 해에 필리포스는 포키스 전쟁이자 신성 전쟁이라 불린 이 전쟁을 끝냈다. 아테나이에서 테오필로스가 아르콘이던 해로, 키레네의 폴리클레스가 달리기에서 이긴 제108회 올림피아드의 첫해였다. 포키스의 도시들은 함락되어 평지로 깎였다. 릴라이아, 히암폴리스, 안티키라, 파라포타미오이, 파노페우스, 다울리스가 그 도시들이었다. 이 도시들은 옛날부터 이름이 높았는데, 특히 호메로스의 시 덕분이었다.

[10.3.2] 크세르크세스의 군대가 불태워 그리스에서 더 이름난 도시들도 있었다. 에로코스, 카라드라, 암피클레이아, 네온, 티트로니온, 드리마이아가 그곳이다. 나머지 포키스 도시들 가운데 엘라테이아를 제외하면 옛날에 이름난 곳은 없었다. 포키스의 트라키스, 포키스의 메데온, 에케다메이아, 암브로소스, 레돈, 플리고니온, 스티리스가 그 도시들이다. 앞서 말한 때에 내가 열거한 도시들은 모두 허물어졌고, 주민들은 여러 마을로 흩어졌다. 아바이만은 이런 처분을 면했다. 아바이 시민들은 신을 모독한 일도 없고, 성소 점거와 전쟁에 가담한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10.3.3] 포키스인들은 델포이 성소와 그리스인 공동 회의에 참여할 권리를 빼앗겼다. 암픽티온 동맹은 그들의 표결권을 마케도니아인들에게 주었다. 뒤에 포키스의 도시들은 재건되

었고, 여러 마을로 흩어졌던 주민들은 고향 도시로 돌아갔다. 다만 처음부터 세력이 약했고 재건할 때도 자금이 모자랐던 도시들은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그리스인들에게 카이로네이아의 참사가 닥치기 전에 주민들을 돌아오게 한 것은 아테나이인들과 테바이인들이었다.

**[10.3.4]** 포키스인들은 카이로네이아 전투에 참가했고, 뒤에는 라미아와 크란논에서 안티파트로스가 이끄는 마케도니아군과 싸웠다. 갈라티아인 곧 켈트 침략군에 맞섰을 때 포키스인들보다 열성적인 그리스인은 없었다. 그들은 델포이의 신을 돕는다고 여겼고, 내 생각에는 지난날 그들이 저지른 죄를 갚는다고도 여겼다. Pausanias ′ Description of Greece

## 제4장

**[10.4.1]** 지금까지 말한 것이 포키스인들의 기억할 만한 업적이다. 카이로네이아에서 스무 스타디온을 가면 포키스인들의 도시 파노페우스에 이른다. 관청도, 체육장도, 극장도, 아고라도, 물을 끌어 댄 샘터도 없고, 골짜기 바로 곁에서 산속 오두막 같은 초라한 거처에 사는 사람들의 고장을 도시라 부를 수 있다면 그렇다. 그래도 그들은 이웃과 정해진 경계를 두고 있고 포키스 공동 회의에 사절도 보낸다. 도시 이름은 에페이오스의 아버지에게서 왔다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래 오르코메노스 땅에서 포키스로 피신해 온 플레기아스인이라고 주장한다.

**[10.4.2]** 파노페우스의 옛 성곽 자리를 둘러보니 둘레가 일곱 스타디온쯤 되어 보였다. 나는 호메로스가 티티오스를 노래하면서 아름다운 춤터가 있는 도시 파노페우스를 언급한 구절을 떠올렸다. 그는 또 파트로클로스의 주검을 두고 싸우는 대목에서, 헥토르에게 죽은 이피토스의 아들 스케디오스가 포키스인들의 왕으로 파노페우스에 살았다고 했다. 내 생각에 왕이 여기에 산 까닭은 보이오티아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보이오티아에서 포키스로 들어오기 가장 쉬운 고개가 이곳에 있으므로, 왕은 파노페우스를 요새로 삼았던 것이다.

**[10.4.3]** 호메로스가 파노페우스에 아름다운 춤터가 있다고 한 앞의 구절은 아테나이인들이 티아스들이라 부르는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듣고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티아스들은 아티카의 여자들이다. 이들은 델포이의 여자들과 함께 한 해 걸러 파르나소스산에 가서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비의를 거행한다. 티아스들은 아테나이에서 출발하여 가는 길의 여러 곳에서 춤을 추는 관습이 있다. 파노페우스에서도 춤을 춘다. 호메로스가 파노페우스에 붙인 수식어는 티아스들의 춤을 가리킨다고 여겨진다.

**[10.4.4]** 파노페우스의 길가에는 굽지 않은 벽돌로 지은 작은 건물이 있다. 그 안에 펜텔리콘 대리석으로 만든 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프로메테우스라고 한다. 프로메테우스라 하는 이들은 그 증거를 댄다. 골짜기에는 돌 두 개가 놓여 있는데, 하나하나가 수레 한 대를 가득 채울 만큼 크다. 빛깔은 골짜기나 모래가 쓸려 내려오는 물길에서 볼 법한 진흙과 같고, 냄새는 사람 살갗의 냄새와 아주 비슷하다. 그들은 이 돌들이 프로메테우스가 온 인류를 빚고 남은 진흙이라고 한다.

**[10.4.5]** 티티오스의 무덤도 이 골짜기에 있다. 봉분의 둘레는 대략 스타디온의 삼분의 일이다. 이곳 사람들은 『오디세이아』의 다음 구절에 나오는 '아홉 플레트론'이 티티오스의

몸집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그가 누워 있던 곳의 이름이라고 한다.

> 땅에 누워, 아홉 플레트론에 걸쳐 누워 있었다.

**[10.4.6]** 헤르모스강가 마그네시아 출신의 클레온은, 기이한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살면서 그보다 더 기이한 일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는 티티오스와 그 밖의 괴물들이 전해 오는 이야기와 꼭 같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우연히 가데이라에 있을 때, 헤라클레스의 명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섬에서 나갔다고 한다. 가데이라에 돌아와 보니 파도가 밀어 올린 바다 사람이 물가에 누워 있었다. 몸집은 다섯 플레트론쯤 되었으며, 신이 내리친 벼락에 맞아 몸이 타고 있었다고 한다.

**[10.4.7]** 클레온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파노페우스에서 약 스물일곱 스타디온을 가면 다울리스에 이른다. 주민은 적지만, 몸집과 힘으로는 지금도 포키스에서 가장 이름이 높다. 도시 이름은 케피소스강의 딸인 님프 다울리스에게서 왔다고 한다. 한편 도시가 세워진 터에 나무가 울창했으며, 옛사람들이 그런 곳을 '다울라'라 불렀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아이스킬로스가 안테돈의 글라우코스의 수염을 두고 '숱이 무성한 턱수염'이라 했다는 것이다.

**[10.4.8]** 이곳 다울리스에서 여자들이 테레우스에게 그의 아들을 요리해 내놓았다고 한다. 인간의 식탁이 더럽혀진 첫 일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테레우스는 후투티로 변했다. 후투티는 메추라기보다 조금 크고, 머리의 깃털이 솟아 볏을 이룬다.

**[10.4.9]** 포키스에서는 제비가 알을 낳거나 새끼를 까는 일이 없으며, 집의 지붕에 둥지를 트는 제비조차 없다는 것이 기이하다. 포키스인들은 필로멜라가 새로 변한 뒤에도 테레우스를 무서워하여 그의 땅을 피해 다녔다고 한다. 다울리스에는 아테나의 성소와 오래된 신상이 있다. 다울리스 사람들은 그보다 더 오래된 목상을 프로크네가 아테나이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10.4.10]** 다울리스 땅에 트로니스라는 곳이 있다. 이곳에는 '창건자'라 불리는 영웅의 사당이 세워져 있다. 어떤 이들은 그 창건자가 뛰어난 무인 크산티포스였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시시포스의 손자이자 오르니티온의 아들인 포코스였다고 한다. 어느 쪽이든 그는 날마다 숭배를 받는다. 포키스인들은 제물을 가져와 구멍을 통해 피를 무덤 안에 붓고, 고기는 그 자리에서 먹는다. periegesis.abm.uu.se

## 제5장

**[10.5.1]** 다울리스를 거쳐 파르나소스 정상으로 오르는 길도 있다. 델포이에서 오르는 길보다 멀지만 그만큼 험하지는 않다. 다울리스에서 델포이로 곧장 이어지는 길로 돌아가 계속 걸으면, 길 왼편에 포키콘이라는 건물이 보인다. 포키스의 각 도시에서 온 대표들이 이곳에 모인다.

**[10.5.2]** 포키콘은 크고, 건물 안에는 길이 방향으로 줄곧 기둥들이 서 있다. 기둥에서 양쪽 벽을 향해 계단이 올라가는데, 포키스의 대표들이 그 계단에 앉는다. 건물 끝에는 기둥이

나 계단 대신 제우스, 아테나, 헤라의 신상이 있다. 제우스는 왕좌에 앉아 있고, 오른쪽에는 헤라가, 왼쪽에는 아테나가 서 있다.

**[10.5.3]** 이곳에서 더 가면 '갈라진 길'이라는 곳이 나온다.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인 바로 그 길이다. 운명은 오이디푸스가 겪은 고난의 흔적이 그리스 곳곳에 남도록 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뾰족한 꼬챙이로 그의 발목을 뚫어 플라타이아이 땅의 키타이론 산에 내다 버렸다. 그는 코린토스와 지협 일대에서 자랐다. 포키스의 갈라진 길은 그가 흘린 아버지의 피로 더럽혀졌다. 테바이는 오이디푸스의 혼인과 에테오클레스의 죄로 더욱 악명이 높다.

**[10.5.4]** 갈라진 길에서 오이디푸스가 저지른 경솔한 행동은 그의 고난의 시작이었다. 라이오스와 그를 따르던 하인의 무덤은 지금도 세 길이 만나는 한복판에 그대로 있고, 위에는 다듬지 않은 돌을 쌓아 놓았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쓰러진 시신들을 발견해 묻어 준 사람은 플라타이아이의 왕 다마시스트라토스였다.

**[10.5.5]** 이곳부터 델포이로 가는 큰길은 더욱 가팔라져 걷기가 어려워진다. 델포이에 대해서는 갖가지 이야기가 전하며, 아폴론의 신탁소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아주 오래전에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신탁소를 차지했고, 산의 님프들 가운데 하나인 다프니스를 예언의 여사제로 임명했다고 한다.

**[10.5.6]** 그리스인들 사이에 전하는 육각운 시 가운데 『에우몰피아』라 하는 작품이 있는데, 안티오페모스의 아들 무사이오스가 지었다고 한다. 시인은 이 작품에서 가이아와 포세이돈이 신탁소를 함께 차지했다고 말한다. 가이아는 몸소 신탁을 내렸으나 포세이돈은 피르콘의 입을 빌려 응답했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다.

> 이윽고 땅 아래 여신의 목소리가 지혜로운 말을 내놓았고
> 이름난 대지의 진동자를 섬기는 피르콘도 함께 말하였다.

뒤에 가이아는 자기 몫을 테미스에게 주었고, 테미스는 아폴론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한다. 아폴론은 포세이돈의 몫을 넘겨받는 대가로 트로이젠 앞바다에 있는 칼라우레이아섬을 그에게 주었다고 한다.

**[10.5.7]** 양 떼를 먹이던 목자들이 우연히 신탁소를 발견했고, 거기서 올라오는 기운에 사로잡혀 아폴론의 말을 대신 전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러나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는 페모노에가 이 신의 첫 여사제였으며 처음으로 육각운으로 신탁을 노래했다는 것이다. 델포이 사람들을 위해 찬가를 지은 그 고장의 여인 보이오는 히페르보레오이족에게서 온 올렌과 그 일행이 신을 위해 신탁소를 세웠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올렌이 처음 예언했고, 처음으로 신탁을 육각운으로 읊었다.

**[10.5.8]** 보이오가 지은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 참으로 이곳에 뜻을 헤아리는 신탁소를 세운 이는
> 히페르보레오이족의 아들들, 파가소스와 신성한 아기이에우스였네.

그녀는 히페르보레오이족의 다른 사람들도 열거하고 찬가의 끝에서 올렌의 이름을 댄다.

> 그리고 포이보스의 첫 예언자가 된 올렌,
> 옛 운율로 맨 먼저 노래를 지은 이.

그러나 전승에서 그 밖의 남자 예언자는 들을 수 없고, 여사제들만 언급된다.

[10.5.9] 가장 오래된 아폴론 신전은 월계수로 지었다고 한다. 템페의 월계수에서 가지를 가져왔으니 그 신전은 오두막 모양이었을 것이다. 델포이 사람들은 두 번째 신전을 벌들이 밀랍과 깃털로 만들었으며, 아폴론이 그것을 히페르보레오이족에게 보냈다고 한다.

[10.5.10] 또 다른 이야기로는, 델포이 사람 프테라스가 신전을 세워 신전에 건축자의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크레타의 도시 압테라도 이 프테라스의 이름에 글자 하나를 더하여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산에서 자라는 고사리를 '프테리스'라 하는데, 그 싱싱한 줄기를 엮어 신전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

[10.5.11] 세 번째 신전을 청동으로 지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아크리시오스는 딸을 위해 청동으로 침실을 만들었고, 라케다이몬인들에게는 지금도 '청동 집의 아테나'의 성소가 있다. 규모와 양식이 경탄할 만한 로마의 포룸에도 청동 지붕이 있다. 그러니 아폴론을 위해 청동 신전을 지었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10.5.12] 나머지 이야기는 믿기 어렵다. 그 신전이 헤파이스토스의 작품이었다는 말도, 황금으로 된 노래꾼들이 있었다는 전설도 그렇다. 핀다로스는 이 청동 신전을 노래하며 이렇게 말했다.

> 박공 위에서 황금의 켈레도네스가 노래했네.

내게는 이 구절이 호메로스의 세이렌 이야기를 본뜬 것으로 보인다. 신전이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들은 말이 서로 달랐다. 더러는 땅이 갈라지면서 그 속으로 떨어졌다고 하고, 더러는 불에 녹았다고 한다.

[10.5.13] 네 번째 신전은 트로포니오스와 아가메데스가 지었으며, 돌로 만들었다고 전한다. 아테나이에서 에르크시클레이데스가 아르콘이던 때에 불타 버렸다. 크로톤의 디오그네토스가 이긴 제58회 올림피아드 첫해였다. 지금의 신전은 암픽티온 동맹이 성소의 재물을 써서 신을 위해 지었다. 건축가는 코린토스 사람 스핀타로스였다. periegesis.abm.uu.se

## 제6장

[10.6.1]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는 님프 클레오도라의 아들 파르나소스가 세웠다고 한다. 이른바 영웅이라 불리는 다른 이들처럼 그에게도 두 아버지가 있었다. 신인 아버지는 포세이돈이었고, 인간인 아버지는 클레오폼포스였다고 한다. 산과 파르나소스 골짜기는 모두 이 파르나소스에게서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날아가는 새를 보고 점치는 법도 파르나소스가 처음 알아냈다고 전한다.

[10.6.2] 데우칼리온 시대에 내린 비가 이 도시를 물에 잠기게 했다고 한다. 폭우를 피해 달아난 주민들은 늑대 울음소리를 따라 파르나소스 정상에 이르러 목숨을 건졌다. 늑대의 인도로 그곳에 닿았으므로 새로 세운 도시에 리코레이아라는 이름을 붙였다.

[10.6.3] 다른 전설에 따르면, 아폴론이 님프 코리키아와의 사이에서 리코로스라는 아들을 얻었다. 도시 리코레이아는 리코로스에게서, 코리키아 동굴은 그 님프에게서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또 리코로스의 아들 히아모스에게 켈라이노라는 딸이 있었으며, 아폴론과 켈라이노 사이에서 태어난 델포스에게서 오늘날의 도시 이름이 나왔다고 한다.

[10.6.4] 다른 이들은 이 땅에서 태어난 카스탈리오스에게 티이아라는 딸이 있었으며, 그녀가 처음으로 디오니소스의 여사제가 되어 그 신을 기리는 비의를 거행했다고 주장한다. 뒤에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따서 디오니소스를 기리며 열광하는 여자들을 모두 티아스들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은 델포스가 아폴론과 티이아의 아들이라고 본다. 또 다른 이들은 케피소스의 딸 멜라이나가 그의 어머니라고 한다.

[10.6.5] 뒤에 주변 주민들은 이 도시를 델포이와 함께 피토라고도 불렀다. 호메로스도 포키스인의 목록에서 이 도시를 그렇게 부른다. 무엇에나 혈통을 붙이려는 이들은 델포스에게 피테스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도시가 피토라 불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널리 퍼진 전승에 따르면 아폴론의 화살에 맞아 죽은 자가 이곳에서 썩었기 때문에 피토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썩다'를 '피테스타이'라고 했다. 호메로스가 세이렌들의 섬에 뼈가 가득하다고 노래한 것도, 세이렌의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썩었다', 곧 '에피톤토'라고 했기 때문이다.

[10.6.6] 시인들은 아폴론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가이아가 신탁소를 지키라고 세워 둔 큰 뱀이었다고 한다. 한편 에우보이아 일대에서 세력을 떨치던 크리오스의 난폭한 아들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는 신의 성소를 약탈했고 부자들의 집도 털었다. 그가 두 번째로 쳐들어오려 하자 델포이 사람들은 눈앞에 닥친 위험을 막아 달라고 아폴론에게 빌었다.

[10.6.7] 당시의 여사제 페모노에는 육각운으로 이런 신탁을 주었다.

> 아폴론은 가까이서 치명적인 화살을 쏘리라,
> 파르나소스의 약탈자를 향해. 크레타 사람들이
> 피로 물든 그의 손을 씻으리니, 그 명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7장

[10.7.1] 델포이 성소는 시초부터 많은 사람의 탐욕과 공격에 시달린 듯하다. 이 에우보이아 해적이 공격했고, 훨씬 뒤에는 플레기아스인들이 공격했다. 아킬레우스의 아들 피로스, 크세르크세스 군대의 일부, 포키스의 지휘관들, 갈라티아의 침략군도 덤벼들었다. 그중에서도 신의 재물에 가장 오래, 가장 사납게 손을 댄 것은 포키스의 지휘관들이었다. 델포이는 어느 신도 공경하지 않는 네로 때문에도 화를 입을 운명이었다. 네로는 아폴론에게서 신과 사람을 본뜬 청동상 오백 점을 빼앗아 갔다.

[10.7.2] 전승에 따르면 가장 오래된 종목이자 처음 상을 내건 경연은 신에게 바치는 찬가를 노래하는 일이었다. 노래를 불러 상을 받은 사람은 크레타의 크리소테미스였다. 그의 아버지 카르마노르가 아폴론을 정화했다고 한다. 크리소테미스 뒤에는 필람몬이 노래로 이겼

고, 그다음에는 그의 아들 타미리스가 이겼다고 한다. 오르페우스는 자부심이 강하고 자기 비의를 내세웠고, 무사이오스는 매사에 그를 본받았다. 두 사람은 음악 솜씨를 겨루는 경연에 나서기를 거부했다고 한다.

**[10.7.3]** 엘레우테르는 우렁차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피티아 경기에서 승리했다고 한다. 그가 부른 노래는 남이 지은 곡이었다. 헤시오도스는 노래에 맞추어 리라를 켜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출전하지 못했다고 한다. 호메로스도 자기 일로 신탁을 물으러 델포이에 왔다. 그가 리라를 배웠더라도 시력을 잃은 터라 그 재주를 써먹지 못했을 것이다.

**[10.7.4]** 크로톤의 글라우키아스가 이긴 제48회 올림피아드의 셋째 해에 암픽티온 동맹은 예부터 해 오던 현악 반주 노래 경연을 열고, 아울로스 연주와 아울로스에 맞추어 노래하는 경연을 덧붙였다. 현악 반주 노래에서는 케팔레니아의 멜람푸스, 아울로스 반주 노래에서는 아르카디아의 에켐브로토스, 아울로스 연주에서는 아르고스의 사카다스가 우승자로 선포되었다. 이 사카다스는 그다음 두 차례의 피티아 경기에서도 우승했다.

**[10.7.5]** 그때 운동 경기에 처음으로 상품을 내걸었다. 네 필이 끄는 전차 경주를 제외하면 종목은 올림피아와 같았다. 델포이 사람들은 여기에 소년들의 돌리코스 장거리 달리기와 디아울로스 왕복 달리기를 덧붙였다. 두 번째 피티아 경기부터는 상품을 없애고 우승자에게 관을 주었다. 이때부터 아울로스 반주 노래도 종목에서 뺐다. 듣기에 불길한 음악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아울로스의 곡조가 몹시 구슬펐고, 그 곡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랫말도 애가였다.

**[10.7.6]** 내 말은 에켐브로토스가 테바이의 헤라클레스에게 바친 청동 세발솥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솥의 비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 아르카디아인 에켐브로토스는 암픽티온 동맹의 경기에서
> 그리스인들에게 곡조와 애가를 불러 승리하고
> 헤라클레스에게 이 기쁜 선물을 바쳤다.

이렇게 아울로스 반주 노래 경연은 폐지되었다. 한편 전차 경주를 새로 두었고, 시키온의 참주 클레이스테네스가 전차 경주의 우승자로 선포되었다.

**[10.7.7]** 여덟 번째 피티아 경기에서는 노래 없이 현악기만 연주하는 경연을 추가했다. 테게아의 아겔라오스가 우승관을 받았다. 스물세 번째 피티아 경기에는 무장 달리기가 추가되었다. 헤라이아의 다마레토스가 우승하고 올림피아드가 다섯 번 지난 때로, 플리우스의 티마이네토스가 월계관을 얻었다. 마흔여덟 번째 피티아 경기에서는 두 필이 끄는 전차 경주를 마련했다. 포키스인 엑세케스티데스의 전차가 이겼다. 그로부터 다섯 번째 경기에서는 어린 말들을 전차에 매었고, 테바이의 오르폰다스의 전차가 가장 먼저 들어왔다.

**[10.7.8]** 소년들의 판크라티온, 어린 말 두 필이 끄는 전차 경주, 어린 말을 타고 달리는 경주는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엘리스에서 들여왔다. 그중 소년 판크라티온은 예순한 번째 피티아 경기에서 처음 열렸으며 테바이의 이올라이다스가 이겼다. 두 대회 뒤에는 어린 말 타기 경주가, 예순아홉 번째 경기에서는 어린 말 두 필이 끄는 전차 경주가 열렸다. 앞의 경주에서는 라리사의 리코르마스가, 뒤의 경주에서는 마케도니아인 프톨레마이오스가 우승자로 선포되었다. 이집트의 왕들은 자신들이 마케도니아인이라 불리기를 좋아했고, 실제

로도 마케도니아인이었다. 피티아 경기의 우승 상이 월계관인 까닭은, 내 생각에는 오로지 아폴론이 라돈의 딸을 사랑했다는 전승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8장

[10.8.1] 어떤 이들은 델포이에서 열리는 그리스인들의 공동 회의를 데우칼리온의 아들 암픽티온이 세웠고, 거기에 참석한 대표들이 그의 이름을 따서 암픽티온들이라 불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드로티온은 『아티스』에서 처음에 델포이로 모인 회의 대표들이 이웃 나라들에서 왔기에 '이웃'이라는 뜻으로 '암픽티온'이라 불렸고,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의 발음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고 말한다.

[10.8.2] 암픽티온이 공동 회의에 직접 불러 모았다는 그리스 종족은 이오니아인, 돌롭스인, 테살리아인, 아이니아인, 마그네시아인, 말리스인, 프티아인, 도리스인, 포키스인, 그리고 크네미스산 기슭에 살며 포키스와 이웃한 로크리스인이다. 그러나 포키스인들이 성소를 점거하고 구 년 뒤에 전쟁이 끝나자 암픽티온 동맹에 변화가 생겼다. 마케도니아인들이 가입한 반면, 포키스인들과 도리스인 중 라케다이몬인들은 자격을 잃었다. 포키스인들은 경솔하게 저지른 범죄 때문에, 라케다이몬인들은 그들과 동맹을 맺은 벌로 그렇게 되었다.

[10.8.3] 브렌노스가 갈라티아군을 이끌고 델포이를 공격했을 때 포키스인들은 어느 그리스인보다 열성적으로 싸웠다. 그 공로로 동맹의 자격과 옛 명성을 되찾았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악티온 가까이에 사는 니코폴리스인들을 암픽티온 동맹에 받아들이라고 했다. 또한 마그네시아인과 말리스인, 아이니아인과 프티아인은 테살리아인에 포함시키고, 그들의 표결권을 이미 독립된 종족으로서 사라진 돌롭스인들의 표결권과 함께 니코폴리스에 주도록 했다.

[10.8.4] 오늘날 암픽티온 동맹의 대표는 서른 명이다. 니코폴리스와 마케도니아와 테살리아에서 각각 여섯 명을 보낸다. 옛날 테살리아에 살았고 당시에는 아이올리스인이라 불렸던 보이오티아인들과, 포키스인들, 델포이인들은 각각 두 명씩 보낸다. 옛 도리스에서는 한 명을 보낸다.

[10.8.5] 오졸리스의 로크리스인들과 에우보이아 맞은편의 로크리스인들은 한 명씩 보낸다. 에우보이아에서도 한 명을 보낸다. 펠로폰네소스의 아르고스인, 시키온인, 코린토스인은 메가라인들과 함께 한 명을 보내며, 아테나이도 한 명을 보낸다. 아테나이, 델포이, 니코폴리스는 회의가 열릴 때마다 대표를 보낸다. 앞서 말한 종족들의 각 도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차례로 대표를 보낼 권리가 있다.

[10.8.6] 도시에 들어서면 신전들이 줄지어 있다. 첫 번째는 폐허였고, 그다음 신전에는 신상도 사람의 상도 없었다. 세 번째에는 로마 황제 몇 명의 상이 있었다. 네 번째는 아테나 프로노이아, 곧 앞일을 헤아리는 아테나의 신전이라 불린다. 이 신전의 신상 두 점 가운데 앞칸에 있는 것은 마실리아인들이 바친 것으로, 신전 안에 있는 상보다 크다. 마실리아는 이오니아의 포카이아가 세운 식민시이다. 페르시아인 하르파고스가 포카이아를 공격했을

때 달아난 이들 가운데 일부가 그 도시를 세웠다. 그들은 해전에서 카르타고인들을 이겨 지금의 영토를 얻었으며 크게 번영했다.

[10.8.7] 마실리아인들의 봉헌물은 청동으로 되어 있다. 리디아의 크로이소스가 아테나 프로노이아에게 바친 황금 방패는 필로멜로스가 훔쳐 갔다고 델포이 사람들은 말한다. 프로노이아의 성소 가까이에는 영웅 필라코스의 성역이 있다. 델포이인들에 따르면 이 필라코스가 페르시아의 침입 때 그들을 지켜 주었다고 한다.

[10.8.8] 체육장의 노천 구역에는 옛날에 숲이 우거져 있었다고 한다. 오디세우스가 아우톨리코스의 손님으로 와 그의 아들들과 사냥하다가, 이곳에서 멧돼지에게 무릎 위를 다쳤다고 한다. 체육장에서 왼쪽으로 돌면 내리막길이다. 내 생각에 세 스타디온도 채 지나기 전에 플레이스토스라는 강에 이른다. 이 강은 델포이의 항구 키라로 내려가 그곳에서 바다에 들어간다.

[10.8.9] 체육장에서 성소로 가는 길을 따라 올라가면 오른쪽에 카스탈리아의 물이 있다. 마시면 물맛이 좋고, 몸을 담가도 쾌적하다. 어떤 이들은 그 고장의 여자에게서 샘 이름이 나왔다고 하고, 다른 이들은 카스탈리오스라는 남자에게서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헤라클레스를 주제로 서사시를 지은 폴리아르코스의 아들 파니아시스는 카스탈리아가 아켈로오스의 딸이었다고 한다. 그는 헤라클레스에 관해 이렇게 노래했다.

> 재빠른 발로 눈 덮인 파르나소스를 넘어
> 아켈로오스의 딸 카스탈리아의 마르지 않는 물에 이르렀다.

[10.8.10] 이 물은 케피소스강이 카스탈리아에게 준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알카이오스는 아폴론에게 바치는 서곡에서 그렇게 말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잘 뒷받침하는 것은 릴라이아 사람들의 관습이다. 그들은 정해진 날에 그 지방의 떡과 예부터 바치게 되어 있는 다른 것들을 케피소스의 샘에 던진다. 이것들이 카스탈리아에서 다시 나타난다고 한다.

periegesis.abm.uu.se

## 제9장

[10.9.1] 델포이 도시는 아폴론의 성역을 비롯하여 도시 전체가 비탈에 자리 잡고 있다. 성역은 매우 넓으며 도시에서 가장 높은 구역에 있다. 여러 길이 서로 가까이 나 있다. 나는 봉헌물 가운데 특히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말하겠다.

[10.9.2] 대다수 사람의 기억에서 잊힌 운동선수와 음악 경연자들에게는 자세히 살펴볼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명성을 남긴 운동선수들은 엘리스 이야기에서 다루었다. 델포이에는 크로톤의 파윌로스상이 있다. 그는 올림피아에서 우승한 적은 없으나, 피토에서는 오종 경기에서 두 번, 달리기에서 한 번 우승했다. 또 자기 배를 손수 갖추고 그리스에 머물고 있던 크로톤 시민들을 태워, 페르시아군을 상대로 해전에도 참가했다.

[10.9.3] 크로톤의 운동선수에 관한 이야기는 이러하다. 성역에 들어서면 케르키라 사람들이 바친 청동 황소상이 나온다. 아이기나의 테오프로포스가 만든 것이다. 케르키라에서 황

소 한 마리가 암소들을 두고 풀밭에서 해안으로 내려가 울부짖었다고 한다. 날마다 같은 일이 일어나자 소 치는 사람이 바닷가로 내려갔고, 셀 수 없이 많은 다랑어 떼를 보았다.

[10.9.4] 그는 이 일을 케르키라 사람들에게 알렸다. 다랑어를 잡으려다가 번번이 헛수고만 한 그들은 델포이에 사절을 보냈다. 그리하여 황소를 포세이돈에게 제물로 바쳤다. 제사를 마치자마자 다랑어를 잡았고, 잡은 것의 십분의 일로 올림피아와 델포이에 봉헌물을 바쳤다.

[10.9.5] 그 옆에는 테게아인들이 라케다이몬인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으로 바친 상들이 있다. 아폴론과 승리의 여신 니케, 그리고 그 지방의 영웅들이다. 리카온의 딸 칼리스토, 아르카디아에 이름을 준 아르카스, 아르카스의 아들 엘라토스와 아페이다스와 아잔, 그리고 트리필로스가 있다. 이 트리필로스를 낳은 이는 에라토가 아니라 라케다이몬의 왕 아미클라스의 딸 라오다메이아였다. 트리필로스의 아들 에라소스의 상도 봉헌되어 있다.

[10.9.6] 이 상들을 만든 이들은 다음과 같다. 아폴론과 칼리스토는 아폴로니아의 파우사니아스가, 니케와 아르카스는 시키온의 다이달로스가, 트리필로스와 아잔은 아르카디아의 사몰라스가, 엘라토스와 아페이다스와 에라소스는 아르고스의 안티파네스가 만들었다. 테게아인들은 자기 도시를 공격해 온 라케다이몬인들을 포로로 잡은 뒤 이 봉헌물들을 델포이로 보냈다.

[10.9.7] 그 맞은편에는 라케다이몬인들이 아테나이인들에게서 노획한 전리품으로 바친 상들이 있다. 디오스쿠로이, 제우스, 아폴론, 아르테미스가 있고, 그 곁에는 포세이돈과 아리스토크리토스의 아들 리산드로스가 있다. 포세이돈은 리산드로스에게 관을 씌워 주는 모습이다. 리산드로스가 승리할 때 그의 점술가였던 아기아스와, 그의 지휘함을 조종한 헤르몬도 있다.

[10.9.8] 헤르몬상을 메가라의 테오코스모스가 만든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헤르몬이 메가라의 시민 명부에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디오스쿠로이는 아르고스의 안티파네스가, 점술가의 상은 트로이젠 땅 칼라우레이아의 피손이 만들었다. 아르테미스, 포세이돈, 리산드로스는 다메아스가, 아폴론과 제우스는 아테노도로스가 만들었다.

[10.9.9] 마지막 두 조각가는 클레이토르 출신의 아르카디아인이다. 앞서 열거한 봉헌물 뒤에는 아이고스포타모이에서 리산드로스를 도운 스파르타인들과 그 동맹군의 상이 있다. 라케다이몬의 아라코스와 보이오티아인 에리안테스가 있다. 〔…〕 미마스산 너머에서는 아스티크라테스가 왔고, 키오스 출신은 케피소클레스, 헤르모판토스, 히케시오스다. 티마르코스와 디아고라스는 로도스 출신이고, 테오다모스는 크니도스, 킴메리오스는 에페소스, 아이안티데스는 밀레토스 출신이다.

[10.9.10] 이 상들은 티산드로스가 만들었다. 그다음 상들은 시키온의 알리포스가 만들었는데, 민도스의 테오폼포스, 사모스의 클레오메데스, 에우보이아 출신 두 사람으로 카리스토스의 아리스토클레스와 에레트리아의 아우토노모스, 코린토스의 아리스토판토스, 트로이젠의 아폴로도로스, 아르골리스의 에피다우로스 출신 디온이다. 그 옆으로는 아카이아의 펠레네 출신 악시오니코스, 헤르미온의 테아레스, 포키스인 피리아스, 메가라의 코몬, 시키온의 아가시메네스, 레우카스인 텔리크라테스, 코린토스의 피토도토스, 암브라키아인 에

우안티다스가 서 있고, 맨 끝에는 라케다이몬인 에피키디다스와 에테오니코스가 있다. 이 상들은 파트로클레스와 카나코스의 작품이라고 한다.

**[10.9.11]** 아테나이인들은 아이고스포타모이에서 정당한 승부로 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장군 티데우스와 아데이만토스가 리산드로스에게 돈을 받고 자기편을 배신했다. 그들은 이 주장의 증거로 시빌라의 신탁을 인용한다.

> 그때 가장 큰 힘을 지닌 이, 높은 곳에서 천둥 치는 제우스가
> 아테나이인들에게 무거운 재난을 내리리라.
> 전함들 위에는 싸움과 전투가 일고,
> 장수들의 비열함과 배신의 계략으로 배들이 무너지리라.

그들이 드는 또 하나의 증거는 무사이오스의 신탁이다.

> 장수들의 비열함으로 사나운 비가 아테나이인들에게 몰아치리라.
> 그러나 패배에도 얼마의 위안은 있으리니,
> 그들은 도시의 눈을 피하지 못하고 죗값을 치르리라.

**[10.9.12]** 그들이 믿는 바는 그러하다. 라케다이몬인들과 아르고스인들이 티레아라는 땅을 두고 싸운 일도 시빌라가 미리 말했다. 시빌라는 어느 쪽도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다. 그러나 아르고스인들은 자기들이 더 잘 싸웠다고 주장하며 델포이에 청동 말을 보냈다. 트로이아의 목마를 본뜬 것이라 한다. 아르고스의 안티파네스가 만들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0장

**[10.10.1]** 트로이아의 목마 아래쪽에 있는 받침의 비문은, 그곳의 조각상들이 마라톤 전투에서 거둔 전리품의 십분의 일로 봉헌되었다고 밝힌다. 아테나, 아폴론, 그리고 장군 가운데 하나인 밀티아데스의 상이 있다. 영웅이라 불리는 이들 가운데 에레크테우스, 케크롭스, 판디온, 레오스, 헤라클레스가 필라스의 딸 메다에게서 얻은 아들 안티오코스, 아이게우스, 테세우스의 여러 아들 중 하나인 아카마스의 상이 있다. 아테나이인들은 델포이의 신탁에 따라 이 영웅들의 이름을 부족 이름으로 삼았다. 멜란토스의 아들 코드로스와 테세우스와 넬레우스의 상도 있지만, 이들의 이름을 딴 부족은 없다.

**[10.10.2]** 열거한 상들은 페이디아스가 만든 것으로, 참으로 그 전투의 전리품에서 떼어 낸 십분의 일에 해당한다. 그러나 안티고노스와 그의 아들 데메트리오스, 그리고 이집트 왕 프톨레마이오스의 상은 아테나이인들이 뒤에 델포이로 보냈다. 이집트 왕의 상은 그에게 호의를 품었기 때문에 보냈으며, 마케도니아 왕들의 상은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보냈다.

**[10.10.3]** 말 가까이에는 아르고스인들이 바친 다른 봉헌물도 있다. 폴리네이케스와 함께 테바이를 공격한 군대의 지휘자들 모습을 본뜬 상이다. 탈라오스의 아들 아드라스토스, 오이네우스의 아들 티데우스, 프로이토스의 후손인 히포노오스의 아들 카파네우스와 이피스의 아들 에테오클로스, 폴리네이케스, 아드라스토스의 누이의 아들 히포메돈이다. 그 곁에는

암피아라오스의 전차가 있고, 전차 안에는 그의 친족이자 마부인 바톤이 서 있다. 마지막은 알리테르세스다.

[10.10.4] 이 상들은 히파토도로스와 아리스토게이톤의 작품이다. 아르고스인들 자신은 아테나이 동맹군과 함께 아르고스 땅 오이노에에서 라케다이몬인들을 물리쳐 얻은 전리품으로 이 상들을 만들었다고 한다. 내 생각에는 그리스인들이 에피고노이라 부르는 이들의 상도 아르고스인들이 같은 전투의 전리품으로 세웠다. 그들의 상도 서 있기 때문이다. 스테넬로스와 알크마이온이 있고, 내 생각에는 알크마이온이 암필로코스보다 나이가 많아서 먼저 명예를 얻은 듯하다. 프로마코스, 테르산드로스, 아이기알레우스, 디오메데스도 있다. 디오메데스와 아이기알레우스 사이에는 에우리알로스가 있다.

[10.10.5] 그 맞은편에는 에파메이논다스 휘하의 테바이인들을 도와 메세네를 세운 아르고스인들이 바친 다른 상들이 있다. 모두 영웅들의 상이다. 아르고스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다나오스와, 자매들 가운데 홀로 손을 피로 더럽히지 않은 히페름네스트라가 있다. 그 곁에는 린케우스가 있고, 헤라클레스까지 이르는 그 집안 사람들과 그보다 더 앞선 페르세우스까지의 선조들도 있다.

[10.10.6] 타라스 사람들이 바친 청동 말과 포로가 된 여자들의 상은 그들의 영토에 이웃한 비그리스계 메사피아인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으로 만든 것이다. 아르고스의 아겔라다스가 만들었다. 타라스는 라케다이몬인들의 식민시이며, 스파르타인 팔란토스가 세웠다. 팔란토스가 식민시를 세우러 떠날 때 델포이에서 신탁을 받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곧 ‘아이트라’ 아래에서 비를 느낄 때 땅과 도시를 얻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10.10.7] 처음에 그는 신탁의 뜻을 스스로 헤아려 보지도, 해석하는 사람에게 알려 주지도 않고 함대를 이끌고 이탈리아에 왔다. 그곳 사람들과 싸워 이기고도 도시를 점령하지 못하고 땅도 차지하지 못하자, 신탁을 떠올리고 신이 불가능한 일을 예언했다고 생각했다. 맑고 구름 없는 하늘에서는 비가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절망에 빠졌을 때, 고향에서부터 그를 따라온 아내가 그를 위로하며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이를 잡아 주었다. 남편을 아끼던 아내는 그가 하려던 일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만 눈물을 흘렸다.

[10.10.8] 눈물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팔란토스의 머리를 적셨다. 그때 그는 신탁의 뜻을 깨달았다. 아내의 이름이 아이트라였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는 그 해안에서 가장 크고 번영한 도시인 타라스를 그곳 사람들에게서 빼앗았다. 영웅 타라스는 포세이돈과 그 고장의 님프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도시와 강은 모두 이 영웅의 이름을 땄다고 한다. 도시와 마찬가지로 강도 타라스라 불린다. periegesis.abm.uu.se

## 제11장

[10.11.1] 타라스 사람들의 봉헌물 가까이에는 시키온인들의 보물고가 있다. 그 안에도, 다른 어느 보물고에도 눈에 보이는 보물은 없다. 크니도스인들은 델포이에 다음과 같은 상을 가져왔다. 말 곁에 서 있는 크니도스의 창건자 트리오파스, 레토, 그리고 이미 몸에 상처를 입은 티티오스에게 화살을 쏘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다.

[10.11.2] 이 상들은 시키온인들의 보물고 옆에 서 있다. 시프노스인들도 보물고를 지었는데, 사연은 이렇다. 그들의 섬에는 금광이 있었고, 신은 수입의 십분의 일을 델포이에 바치라고 명했다. 그들은 보물고를 짓고 한동안 십일조를 바쳤다. 그러나 욕심이 생겨 바치기를 그만두자 바닷물이 광산에 밀려들어 금광을 자취도 보이지 않게 덮어 버렸다.

[10.11.3] 리파라 사람들도 티레니아인들을 상대로 해전에서 이긴 것을 기념해 조각상을 바쳤다. 이들은 크니도스에서 온 이주민이었다. 시라쿠사 사람 크세노파네스의 아들 안티오코스가 쓴 『시켈리아사』에 따르면, 이주민의 지도자도 크니도스인이었으며 이름은 펜타틀로스였다고 한다. 안티오코스는 그들이 시켈리아의 파키논곶에 도시를 세웠다가 엘리모이인 및 페니키아인과 전쟁을 벌여 밀려났다고 한다. 그러고는 호메로스도 '아이올로스의 섬들'이라 불렀고 지금도 그렇게 불리는 섬들을 차지했다. 그 섬들에 이미 주민이 있었다면 이주민들이 그들을 쫓아냈을 것이다.

[10.11.4] 이 섬들 중에서 그들은 리파라에 도시를 세우고 산다. 히에라, 스트롱길레, 디디마이에는 배로 건너가 농사를 짓는다. 스트롱길레에서는 땅에서 불이 솟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히에라에서는 섬 꼭대기에서 저절로 불이 터져 나오고 바닷가에는 목욕터가 있다. 물이 순하여 들어갈 만할 때는 제법 쾌적하나, 그렇지 않으면 너무 뜨거워 몸을 담그기가 고통스럽다.

[10.11.5] 테바이인들과 아테나이인들에게는 전리품으로 지은 보물고가 있다. 크니도스인들이 승리를 기념하여 보물고를 지었는지, 자신들의 번영을 드러내려고 지었는지 나는 모른다. 테바이인들의 것은 레욱트라 전투에서 거둔 전리품으로 지었고, 아테나이인들의 것은 다티스와 함께 마라톤에 상륙한 군대에게서 노획한 전리품으로 지었다. 클레오나이 주민들도 아테나이인들처럼 역병에 시달렸다. 그들은 델포이의 신탁에 따라 해가 떠오를 때 태양에 숫염소를 바쳤다. 그러자 재앙이 끝났으므로 아폴론에게 청동 숫염소를 보냈다. 시라쿠사인들은 아테나이군이 크게 패했을 때 얻은 전리품으로 보물고를 지었다. 트라케의 포티다이아인들은 신에 대한 공경을 나타내려고 보물고를 지었다.

[10.11.6] 아테나이인들은 펠로폰네소스인들과 그리스 동맹군을 상대로 싸워 얻은 전리품으로 주랑도 지었다. 배의 이물 장식들과 청동 방패들도 봉헌되어 있다. 봉헌물의 비문에는 아테나이인들이 어느 도시들에서 노획한 것으로 봉헌물을 마련했는지 적혀 있다. 그곳은 엘리스, 라케다이몬, 시키온, 메가라, 아카이아의 펠레네, 암브라키아, 레우카스, 그리고 코린토스다. 또 리온이라 불리는 곳에서 이 해전들의 전리품으로 테세우스와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내 생각에 이 비문은 아소피코스의 아들 포르미온과 그의 업적을 가리킨다. periegesis.abm.uu.se

## 제12장

[10.12.1] 땅 위로 높이 솟은 바위가 있다. 델포이 사람들에 따르면, 이름은 헤로필레이고 별칭은 시빌라인 여인이 이 바위 위에 서서 신탁을 읊었다. 그보다 앞선 시빌라는 내가 알아본 바로는 누구 못지않게 오래전 사람이다. 그리스인들은 그녀가 제우스와 포세이돈의 딸

라미아 사이에서 태어났고, 여자 가운데 처음 신탁을 노래했으며, 리비아인들이 그녀에게 시빌라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10.12.2]** 헤로필레는 그 여자보다 뒤에 살았으나, 그녀 역시 트로이아 전쟁 전에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 헤로필레는 신탁에서 아시아와 유럽에 파멸을 가져올 헬레네가 스파르타에서 자라고, 그리스인들이 그녀 때문에 트로이아를 함락하리라고 예언했다. 델로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아폴론에게 바친 찬가도 기억한다. 그녀는 그 노래에서 자신을 헤로필레라고도, 아르테미스라고도, 아폴론의 아내라고도 부르며, 때로는 아폴론의 누이라고, 때로는 그의 딸이라고 한다.

**[10.12.3]** 그녀는 신에게 사로잡혀 황홀경에 빠졌을 때 그런 말을 시로 읊었다. 다른 신탁에서는 어머니가 죽지 않는 이다산의 님프들 가운데 하나였고 아버지는 인간이었다고 한다. 그 구절은 이러하다.

> 나는 태어날 때부터 반은 죽을 몸, 반은 신의 몸이었다.
> 어머니는 불멸의 님프, 아버지는 곡식을 먹는 인간.
> 어머니 쪽으로는 이다산에서 나왔고, 나의 고향은
> 어머니 여신께 바쳐진 붉은 마르페소스와 아이도네우스강이었다.

**[10.12.4]** 트로이아의 이다산에는 지금도 마르페소스의 옛 도시 터가 남아 있고, 주민 예순 명가량이 산다. 마르페소스 주변의 땅은 온통 붉고 몹시 메말라 있다. 내 생각에 이곳 이다산의 흙은 가볍고 물이 잘 스미기 때문에, 아이도네우스강이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솟고 또 들어갔다가, 마침내 땅 아래로 자취를 감추는 것이다. 마르페소스는 트로아스의 알렉산드레이아에서 이백사십 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10.12.5]** 그 알렉산드레이아의 주민들은 헤로필레가 아폴론 스민테우스 신전에서 일했으며, 헤카베가 꿈을 꾸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아는 그 예언을 했다고 한다. 이 시빌라는 삶의 대부분을 사모스에서 보냈으나, 콜로폰 땅의 클라로스와 델로스와 델포이에도 갔다. 델포이를 찾아올 때마다 이 바위에 서서 신탁을 노래하곤 했다.

**[10.12.6]** 그녀는 트로아스에서 세상을 떠났다. 무덤은 아폴론 스민테우스의 숲에 있다. 묘석에는 이 엘레게이아 시가 새겨져 있다.

> 여기 내가 누워 있다, 숨김없이 말하던 포이보스의 시빌라,
> 이 돌무덤 아래 몸을 감춘 채.
> 한때 목소리를 받은 처녀였으나 이제 영영 목소리를 잃고,
> 가혹한 운명에 매여 이곳에 묶였다.
> 그래도 님프들과 이 헤르메스 곁에 묻혔으니,
> 저 아래에서도 옛 왕국의 한 자락을 누린다.

무덤 곁의 헤르메스상은 돌로 만든 네모난 상이다. 왼쪽에는 우물로 흘러드는 물과 님프들의 상이 있다.

**[10.12.7]** 그리스인들 가운데 헤로필레가 자기 고장 사람이라고 가장 열심히 주장하는 이들은 에리트라이인들이다. 그들은 증거로 코리코스산과 그곳의 동굴을 댄다. 헤로필레가 그

동굴에서 태어났으며, 그 고장의 목자 테오도로스와 님프 사이에서 난 딸이었다는 것이다. 그 님프에게 '이다의 님프'라는 별칭이 붙은 것은 옛사람들이 숲이 울창한 곳을 '이다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라고 한다. 에리트라이인들은 마르페소스와 아이도네우스강을 언급한 구절을 신탁에서 빼 버린다.

**[10.12.8]** 키메의 역사가 히페로코스에 따르면, 같은 방식으로 신탁을 내린 다음 여자는 데모였으며 오피코이족의 땅에 있는 키메 출신이었다. 키메 사람들은 이 여자가 내린 신탁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다. 다만 아폴론의 성소에 있는 작은 돌 항아리를 보여 주며, 그 안에 시빌라의 유골이 들어 있다고 한다.

**[10.12.9]** 데모보다 뒤에는 팔라이스티네 너머의 히브리인들 가운데 사베라는 여자 예언자가 자랐다. 사베의 아버지는 베로소스, 어머니는 에리만테였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바빌론의 시빌라라 하고, 다른 이들은 이집트의 시빌라라 한다.

**[10.12.10]** 카오니아인들의 왕의 딸 파엔니스와 도도네에서 '비둘기들'이라 불린 펠레이아이도 신의 감응을 받아 신탁을 내렸다. 사람들은 이들을 시빌라라 부르지는 않았다. 파엔니스가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알아내고 그 신탁들을 읽는 일은 〔…〕. 파엔니스가 태어난 것은 데메트리오스가 사로잡힌 직후 안티오코스가 왕권을 확립하던 무렵이었다. 펠레이아이 여인들은 페모노에보다도 먼저 태어났으며, 여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다음 구절을 불렀다고 한다.

> 제우스는 계셨고, 제우스는 계시며, 제우스는 계시리라. 오, 위대한 제우스여.
> 대지가 열매를 내어 주니, 대지를 어머니라 부르며 찬양하라.

**[10.12.11]** 신탁을 내린 남자들로는 키프로스의 에우클로스, 아테나이 사람인 안티오페모스의 아들 무사이오스와 판디온의 아들 리코스, 그리고 님프들에게 사로잡혔던 보이오티아인 바키스가 있었다고 한다. 나는 리코스의 것을 빼고 이들 모두의 신탁을 읽었다. 지금까지 신이 그 입을 빌려 앞일을 전했다고 알려진 여자와 남자는 이러하다. 그러나 앞으로도 세월은 길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 periegesis.abm.uu.se

## 제13장

**[10.13.1]** 파이오니아의 왕 레온의 아들 드로피온은 파이오니아에서 비손이라 부르는 들소의 머리를 청동으로 만들어 델포이에 보냈다. 이 들소는 살아 있는 채로 잡기가 가장 어려운 짐승이다. 아무리 튼튼하게 그물을 짜도 들소가 돌진하는 힘을 견딜 수 없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사냥한다. 움푹 꺼진 곳을 찾아 먼저 둘레에 튼튼한 울타리를 두른다. 그리고 비탈과 그 밑의 평평한 곳에 갓 벗긴 가죽을 깐다. 그런 가죽이 없으면 마른 가죽에 올리브유를 발라 미끄럽게 만든다.

**[10.13.2]** 그러고 나서 말을 가장 잘 타는 이들이 들소 떼를 내가 말한 곳으로 몰아넣는다. 들소는 가죽을 밟자마자 미끄러져 비탈 아래 평평한 곳까지 굴러떨어진다. 처음에는 들소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둔다. 나흘이나 닷새쯤 지나 굶주림과 고통으로 기세가 거의 꺾이면,

**[10.13.3]** 사냥꾼 가운데 짐승 길들이는 일을 업으로 삼는 이들이 쓰러져 있는 들소에게 재배한 소나무의 열매를 속껍질까지 벗겨 가져다준다. 그때 들소는 다른 먹이에는 손도 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몸에 밧줄을 매어 끌고 간다.

**[10.13.4]** 들소는 이렇게 잡는다. 청동 들소 머리 맞은편에는 가슴갑옷을 입고 그 위에 망토를 두른 남자의 상이 있다. 델포이인들은 안드로스 사람들이 바친 것으로, 그들의 도시를 세운 안드레우스의 모습이라고 한다. 아폴론과 아테나와 아르테미스의 상은 포키스인들이 테살리아인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으로 바친 것이다. 크네미스산 기슭의 로크리스인들이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을 빼면 테살리아인들은 포키스의 이웃이었으며, 언제나 그들의 적이었다.

**[10.13.5]** 파르살로스의 테살리아인들은 말에 탄 아킬레우스와 그 말 곁에서 달리는 파트로클로스를 봉헌했다. 피에리아산 기슭의 디온에 사는 마케도니아인들은 사슴을 붙드는 아폴론을, 리비아의 그리스 도시 키레네 사람들은 암몬상이 올라탄 전차를 바쳤다. 코린토스의 도리스인들도 보물고를 지었다. 옛날에는 리디아에서 온 금을 그곳에 보관했다.

**[10.13.6]** 헤라클레스상은 테바이인들이 포키스인들과 이른바 신성 전쟁을 치른 뒤 보낸 봉헌물이다. 포키스인들이 두 번째 전투에서 테살리아 기병을 패주시킨 뒤 바친 청동상들도 있다. 플리우스 사람들은 청동 제우스상과 함께 아이기나의 상을 델포이에 가져왔다. 아르카디아의 만티네이아인들은 청동 아폴론상을 바쳤다. 그 상은 코린토스인들의 보물고 가까이에 서 있다.

**[10.13.7]** 헤라클레스와 아폴론이 세발솥을 붙들고 서로 싸우려 하는 모습도 있다. 레토와 아르테미스는 아폴론을 달래고, 아테나는 헤라클레스를 달랜다. 이 역시 포키스인들의 봉헌물이다. 엘리스 출신 텔리아스의 지휘 아래 테살리아인들과 싸웠을 때 바친 것이다. 아테나와 아르테미스는 키오니스가 만들었고, 나머지 상들은 디일로스와 아미클라이오스가 함께 만들었다. 이들은 코린토스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10.13.8]** 델포이인들은 암피트리온의 아들 헤라클레스가 신탁을 받으러 왔을 때, 여사제 크세노클레이아가 이피토스를 죽인 죄가 있다며 대답하기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자 헤라클레스는 세발솥을 집어 들고 신전 밖으로 가져갔다. 그때 여사제가 말했다.

> 이번에는 다른 헤라클레스가 왔구나. 카노포스 사람이 아니라 티린스 사람이다.

이보다 앞서 이집트의 헤라클레스가 델포이에 온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암피트리온의 아들은 세발솥을 아폴론에게 돌려주었고, 크세노클레이아는 그가 알고 싶어 한 것을 모두 말해 주었다. 시인들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 헤라클레스와 아폴론이 세발솥을 두고 싸웠다고 노래한다.

**[10.13.9]** 그리스인들은 플라타이아이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황금 세발솥을 마련하고 청동 뱀 위에 올려 함께 봉헌했다. 봉헌물의 청동 부분은 지금도 남아 있다. 포키스의 지휘관들이 청동은 그대로 두었으나 금은 가져갔다.

**[10.13.10]** 타라스 사람들은 그리스인이 아닌 페우케티오이족에게서 거둔 전리품의 십분의 일도 델포이에 보냈다. 봉헌물은 아이기나의 오나타스와 아르고스의 아겔라다스가 만든 보

병과 기병의 상들이다. 그 가운데 이아피기아인의 왕 오피스는 페우케티오이족을 도우러 왔다가 전투에서 죽은 모습이다. 쓰러진 그의 몸 위에 영웅 타라스와 라케다이몬의 팔란토스가 서 있고, 팔란토스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돌고래가 있다. 팔란토스는 이탈리아에 닿기 전에 크리사 앞바다에서 난파했는데, 돌고래가 그를 뭍으로 데려다주었다고 한다.

periegesis.abm.uu.se

## 제14장

**[10.14.1]** 도끼들은 테네도스 사람 에우티마코스의 아들 페리클리토스가 바쳤다. 옛 이야기를 가리키는 봉헌물이다. 키크노스는 포세이돈의 아들이라고 하며, 레우코프리스섬 맞은편 트로아스의 도시 콜로나이를 왕으로서 다스렸다.

**[10.14.2]** 키크노스는 클리티오스의 딸이자 칼레토르의 누이인 프로클레이아에게서 헤미테아라는 딸과 텐네스라는 아들을 얻었다.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에서 이 칼레토르가 프로테실라오스의 배 밑에 불을 놓으려다 아이아스에게 죽었다고 한다. 프로클레이아는 키크노스보다 먼저 죽었다. 그의 두 번째 아내인 크라가소스의 딸 필로노메는 텐네스를 사랑하게 되었다. 텐네스가 자기를 물리치자 필로노메는 남편 앞에서 도리어 그가 자기를 유혹했으며 자신이 그를 물리쳤다고 거짓으로 고발했다. 속아 넘어간 키크노스는 텐네스와 그의 누이를 궤에 넣어 바다에 띄웠다.

**[10.14.3]** 두 젊은이는 무사히 레우코프리스섬에 닿았고, 섬은 텐네스에게서 오늘날의 이름을 얻었다. 그러나 키크노스가 언제까지고 속은 채로 있지는 않았다. 그는 속사정을 몰랐음을 털어놓고 잘못을 용서받으려고 배를 타고 아들에게 갔다. 섬에 닿아 배의 밧줄을 바위인지 나무인지에 매었는데, 텐네스는 화가 나서 도끼로 밧줄을 끊어 버렸다.

**[10.14.4]** 이 일에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을 두고 쓰는 말이 생겼다. “아무개가 그것을 테네도스의 도끼로 잘라 버렸다”는 말이다. 그리스인들은 텐네스가 자기 나라를 지키다가 아킬레우스에게 죽었다고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테네도스인들은 세력이 약해져 트로아스 본토의 알렉산드레이아인들에게 합쳐졌다.

**[10.14.5]** 대왕과 싸운 그리스인들은 올림피아에 청동 제우스상을 바쳤고, 아르테미시온과 살라미스 해전의 전리품으로 델포이에도 아폴론상을 바쳤다. 테미스토클레스가 페르시아군에게서 얻은 전리품 일부를 아폴론에게 바치려고 델포이에 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가 그것을 신전 안에 바쳐도 되는지 묻자 피티아는 아예 성역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고 했다. 신탁에서 그 일에 해당하는 대목은 이러하다.

> 페르시아에서 얻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전리품을
> 내 신전에 두지 말라. 어서 그 본고장으로 돌려보내라.

**[10.14.6]** 여사제가 유독 테미스토클레스에게서만 페르시아 전리품을 받지 않은 일이 나는 몹시 놀라웠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도 테미스토클레스처럼 봉헌하기 전에 아폴론에게 물었다면 신이 페르시아군에게서 얻은 전리품을 모두 거절했으리라고 생각했다. 다른 이들은 신이 테미스토클레스가 훗날 페르시아왕에게 몸을 의탁하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전리품을 바친 일 때문에 대왕의 원한을 풀 길이 없어지지 않도록 선물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페르시아인의 그리스 원정은 바키스의 신탁에도 예언되어 있고, 에우클로스는 그보다도 앞서 그 일을 시로 썼다.

**[10.14.7]** 큰 제단 가까이에는 델포이인들이 직접 바친 청동 늑대가 있다. 어떤 자가 신의 보물을 훔쳐 금을 가지고 파르나소스산에서 숲이 가장 깊은 곳에 숨었다고 한다. 그가 잠들자 늑대가 달려들어 죽였다. 그 뒤 늑대는 날마다 도시로 와 울었다. 주민들은 이 일에 신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짐승을 따라가 성스러운 금을 찾았다. 그래서 신에게 청동 늑대를 바쳤다. periegesis.abm.uu.se

## 제15장

**[10.15.1]** 프리네의 도금상은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인 프락시텔레스가 만들었다. 상을 바친 사람은 프리네 자신이었다. 프리네상 곁에 있는 봉헌물 가운데 아폴론상이 두 점 있다. 하나는 아르고스 지방의 에피다우로스인들이 페르시아 전리품으로 바쳤고, 다른 하나는 메가라인들이 니사이아에서 아테나이인들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여 바쳤다. 플라타이아이인들은 자기 땅에서 다른 그리스인들과 함께 고브리아스의 아들 마르도니오스를 막아 낸 때에 소 한 마리의 상을 바쳤다. 그다음에도 아폴론상이 두 점 있다. 하나는 흑해 연안 헤라클레이아의 시민들이 바쳤고, 다른 하나는 포키스인들이 신의 땅을 경작하여 암픽티온 동맹이 벌금을 물렸을 때 바친 것이다.

**[10.15.2]** 이 두 번째 아폴론을 델포이인들은 시탈카스라고 부른다. 높이는 서른다섯 큐빗이다. 아이톨리아인들은 갈라티아인들과의 전쟁을 마치고 자신들의 장군 대부분의 상과 아르테미스상, 아테나상, 아폴론상 두 점을 봉헌했다. 켈트 군대가 유럽에서 아시아로 건너가 그곳 도시들을 파괴하리라는 것은 침공 한 세대 전에 파엔니스가 신탁으로 예언했다.

**[10.15.3]**

> 그때 헬레스폰토스의 좁은 해협을 건너
> 갈라티아의 파괴하는 군대가 피리를 불리라.
> 그들은 법도 없이 아시아를 유린하고, 신은 한동안
>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재앙을 내리리라.
> 그러나 머지않아 크로노스의 아들이 그들을 도울 자를 일으키리니,
> 제우스가 기른 황소의 사랑하는 아들이
> 온 갈라티아인에게 파멸의 날을 가져오리라.

그녀가 황소의 아들이라 한 것은 페르가몬의 왕 아탈로스였다. 신탁에서는 그를 '황소 뿔이 난 자'라고도 불렀다.

**[10.15.4]** 페라이인들은 아티카 기병을 패주시킨 뒤 말에 탄 기병 지휘관들의 상을 아폴론의 성소에 바쳤다. 청동 종려나무와 그 위에 있는 도금한 아테나상은 아테나이인들이 바쳤다. 그들이 에우리메돈에서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한 번은 육지에서, 한 번은 배를 타고 강

에서 이기고 얻은 전리품으로 마련한 것이다. 내가 보니 그 상의 금은 군데군데 훼손되어 있었다.

[10.15.5] 나는 불량배나 도둑들이 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테나이인들의 관습을 기록한 가장 오래된 저술가 클레이토데모스는 『아티스』에서 다르게 말한다. 아테나이인들이 시켈리아 원정을 준비하던 때 큰 까마귀 떼가 델포이에 내려앉아 그 상을 온통 쪼아대고 부리로 금을 뜯어 갔다는 것이다. 그는 까마귀들이 창과 올빼미들과 종려나무에 달린 열매 모형까지 부러뜨렸다고 한다.

[10.15.6] 클레이토데모스는 아테나이인들에게 시켈리아 원정을 삼가라고 알린 다른 징조들도 적었다. 키레네인들은 전차에 탄 바토스상을 델포이에 바쳤다. 바토스는 그들을 배에 태워 테라에서 리비아로 데려온 사람이다. 키레네가 고삐를 쥐고 있고, 전차에 탄 바토스에게 리비아가 관을 씌워 주고 있다. 크노소스 사람 아케스토르의 아들 암피온이 만든 작품이다.

[10.15.7] 바토스는 키레네를 세운 뒤 다음과 같이 말더듬을 고쳤다고 한다. 키레네인들의 땅을 지나 아직 아무도 살지 않는 가장 외진 곳에 이르렀을 때 사자를 보았다. 그 모습에 어찌나 놀랐던지 맑고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바토스상 가까이에는 암픽티온 동맹이 세운 또 하나의 아폴론상이 있다. 포키스인들이 신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물린 벌금으로 만든 것이다. periegesis.abm.uu.se

## 제16장

[10.16.1] 리디아 왕들이 보낸 봉헌물 가운데 내가 보았을 때 남아 있는 것은 알리아테스의 사발을 받치던 철제 받침뿐이었다. 철을 접합하는 법을 알아낸 키오스의 글라우코스가 만든 작품이다. 받침의 철판은 서로 볼트나 못으로 고정하지 않았다. 판들을 이어 주고 붙들어 주는 것은 용접뿐이다.

[10.16.2] 받침의 모양은 탑과 아주 비슷하다. 바닥은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진다. 각 면을 판으로 막지 않고 사다리의 가로대처럼 쇠띠를 가로질러 놓았다. 세로로 세운 철판은 윗부분에서 바깥을 향해 꺾여 사발을 얹을 자리를 이룬다.

[10.16.3] 델포이인들이 ‘옴팔로스’, 곧 ‘배꼽’이라 부르는 것은 흰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델포이인들은 이곳이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한다. 핀다로스도 어느 노래에서 그들의 말을 뒷받침한다.

[10.16.4] 여기에는 라케다이몬인들이 바치고 칼라미스가 만든 헤르미오네상이 있다. 헤르미오네는 메넬라오스의 딸로, 처음에는 아킬레우스의 아들 네옵톨레모스와 혼인했고 뒤에는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와 혼인했다. 아이톨리아인들은 장군 에우리다모스의 상을 바쳤다. 갈라티아 군대와 싸울 때 아이톨리아인들을 이끈 사람이다.

[10.16.5] 크레타의 산지에는 내가 사는 시대에도 엘리로스라는 도시가 있다. 그 시민들이 청동 염소를 델포이에 보냈다. 염소는 갓난아이 필라키데스와 필란드로스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이다. 엘리로스 사람들은 두 아이가 아폴론과 님프 아카칼리스의 자녀였다고 한다. 아폴론은 타라라는 도시의 카르마노르 집에서 아카칼리스와 맺어졌다고 한다.

[10.16.6] 에우보이아의 카리스토스 사람들도 페르시아 전쟁의 전리품으로 아폴론 성소에 청동 소를 세웠다. 카리스토스인과 플라타이아이인이 소를 바친 까닭은, 내 생각에 침입자들을 물리쳐 안심하고 번영을 누리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땅을 마음 놓고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이톨리아인들은 이웃 아카르나니아인들을 굴복시키고 장군들의 상과 아폴론상과 아르테미스상을 보냈다.

[10.16.7] 리파라 사람들이 에트루리아인들과 싸울 때 일어난 아주 기이한 이야기를 들었다. 피티아는 리파라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적은 수의 배로 에트루리아인들과 싸우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삼단노선 다섯 척으로 에트루리아인들을 맞으러 나갔다. 적은 자신들의 배 다루는 솜씨가 리파라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같은 수의 배를 내보냈다. 리파라 사람들은 그 배들을 모두 나포했다. 뒤이어 나온 또 다섯 척도 붙들었으며,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나온 다섯 척씩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델포이에 자신들이 나포한 배의 수만큼 아폴론상을 바쳤다.

[10.16.8] 작은 아폴론상은 라리사의 에케크라티데스가 바쳤다. 델포이인들의 말로는 그곳에 세워진 맨 첫 봉헌물이었다. periegesis.abm.uu.se

## 제17장

[10.17.1] 서쪽에 사는 비그리스인들 가운데 사르디니아 사람들은 자기 민족에게 이름을 준 이의 청동상을 보냈다. 크기와 번영에서 사르디니아는 가장 이름난 섬들에 견줄 만하다. 토착민들이 옛날에 섬을 무엇이라 불렀는지는 나도 모른다. 그곳에 장사하러 간 그리스인들은 섬의 모양이 사람의 발자국, 곧 '이크노스'와 아주 비슷하다고 하여 이크누사라 불렀다. 섬의 길이는 천백이십 스타디온이고 너비는 사백이십 스타디온에 이른다.

[10.17.2] 처음으로 배를 타고 그 섬에 건너간 사람들은 리비아인들이었다고 한다. 그들을 이끈 이는 마케리스의 아들 사르도스였다. 이집트인과 리비아인은 이 마케리스를 헤라클레스라고도 불렀다. 마케리스 자신은 특히 델포이로 여행한 일로 이름이 높았다. 리비아인들을 이크누사로 이끈 이는 사르도스였고, 섬은 그의 이름을 따서 새 이름을 얻었다. 리비아에서 온 무리는 토착민을 쫓아내지 않았다. 토착민은 기꺼이 받아들였다기보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정착을 허용했다. 리비아인도 토착민도 도시를 세울 줄 몰랐다. 그들은 저마다 자리를 잡은 곳의 오두막이나 동굴에서 흩어져 살았다.

[10.17.3] 리비아인들이 오고 여러 해가 지나 그리스에서 아리스타이오스와 그 일행이 섬에 이르렀다. 아리스타이오스는 아폴론과 키레네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그는 악타이온의 운명에 깊이 슬퍼하고 보이오티아와 온 그리스에 마음이 상해 사르디니아로 옮겨 갔다고 한다.

[10.17.4] 어떤 이들은 이때 다이달로스도 크레타인들의 침공을 피해 카미코스에서 달아났으며, 아리스타이오스가 이끈 사르디니아 이주에 가담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테바이의 왕 오이디푸스와 같은 시대 사람인 다이달로스가 카드모스의 딸 아우토노에와 혼인한 아리스타이오스와 함께 이주를 했거나 그 밖의 어떤 일을 했다고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어쨌든 이 이주민들도 도시를 세우지는 않았다. 내 생각에는 사람 수도, 힘도 도시를 세우기에 부족했다.

**[10.17.5]** 아리스타이오스 뒤에는 노락스가 이끈 이베리아인들이 사르디니아로 건너가 노라를 세웠다. 전승에 따르면 노라는 섬의 첫 도시였으며, 노락스는 헤르메스와 게리오네스의 딸 에리테이아의 아들이었다. 주민을 이루는 네 번째 무리는 이올라오스가 거느린 테스피아이인들과 아티카인들이었다. 그들은 사르디니아에 배를 대고 올비아를 세웠다. 아테나이인들은 따로 오그릴레를 세웠다. 고향의 한 데모스를 기려 그렇게 불렀거나, 오그릴로스라는 사람이 원정에 참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사르디니아에는 지금도 이올라이아라 불리는 곳들이 있으며, 주민들은 이올라오스를 숭배한다.

**[10.17.6]** 트로이아가 함락되었을 때 달아난 트로이아인들 가운데 아이네이아스와 함께 빠져나간 이들이 있었다. 그중 일부는 바람에 항로를 벗어나 사르디니아에 닿았고, 앞서 정착한 그리스인들과 혼인했다. 섬의 다른 민족들은 그리스인이나 트로이아인과 싸우지 못했다. 양편의 무장이 서로 대등했고, 두 지역 사이를 흐르는 토르소스강을 양쪽 모두 건너기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10.17.7]**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 리비아인들이 더 강한 군대를 이끌고 다시 섬으로 건너와 그리스인들과 전쟁을 벌였다. 그리스인들은 전멸했거나 극소수만 살아남았다. 트로이아인들은 섬의 높은 곳으로 피하여 가파르고 말뚝 울타리로 막혀 오르기 어려운 산들을 차지했다. 오늘날에도 그들은 일리온인이라 불리지만, 생김새와 무기의 형태, 전반적인 생활 방식은 리비아인들과 닮았다.

**[10.17.8]** 사르디니아에서 멀지 않은 섬을 그리스인들은 키르노스라 부르고 그곳에 사는 리비아인들은 코르시카라 부른다. 그 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내분에 시달리다 섬을 떠나 사르디니아에 와서 산지에만 자리 잡고 살았다. 사르디니아 사람들은 그들이 고향에서 가져온 이름을 따라 그들을 코르시카인이라 부른다.

**[10.17.9]** 카르타고인들은 해상 세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일리온인들과 코르시카인들을 제외한 사르디니아의 모든 주민을 굴복시켰다. 그 두 집단은 험한 산 덕분에 예속을 면했다. 카르타고인들도 앞서 온 사람들처럼 섬에 도시를 세웠다. 카랄리스와 술키가 그 도시들이다. 카르타고의 용병들 가운데 리비아인 혹은 이베리아인 일부는 전리품을 두고 다투다가 격분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산지에 사는 이들에게 합류했다. 키르노스 말로 그들은 ‘발라로이’라 하는데, 그 말은 ‘도망자들’이라는 뜻이다.

**[10.17.10]** 사르디니아에는 이와 같은 민족들이 이런 경위로 정착하여 살고 있다. 섬의 북쪽과 이탈리아 본토를 향한 쪽에는 지나가기 어려운 산들이 끝에서 끝까지 이어져 있다. 해안을 따라 배를 타고 가 보면 이쪽에는 배를 댈 곳이 없고, 산꼭대기에서 거세고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돌풍이 바다로 몰아친다.

**[10.17.11]** 섬 한가운데에도 산맥이 가로놓여 있으나 높이는 낮다. 이곳의 공기는 대체로 탁하고 몸에 해롭다. 한 가지 원인은 이곳에 맺히는 소금이고, 또 한 가지는 거세고 숨 막히는 남풍이다. 이탈리아 쪽 산들이 높아 여름에 북풍이 불어도 이곳의 공기와 땅을 식혀 주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 다른 이들은 사르디니아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겨우 여덟 스

타디온 떨어진 키르노스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섬 전체가 높고 산이 많아 제피로스와 보레아스, 곧 서풍과 북풍이 사르디니아까지 닿지 못한다는 것이다.

**[10.17.12]** 사르디니아에서는 독 있는 뱀도 독 없는 뱀도 살지 못하며 늑대도 살지 못한다. 숫염소는 다른 곳의 것보다 크지 않다. 생김새는 아이기나 양식으로 조각가가 빚을 법한 야생 숫양과 같다. 다만 가슴의 털이 너무 무성해 그 부분은 아이기나 작품과 닮았다고 하기 어렵다. 뿔은 머리에서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고 귀 바로 옆에서 굽는다. 달리기는 모든 짐승 가운데 가장 빠르다.

**[10.17.13]** 한 가지 풀을 빼면 섬에는 독이 있는 것이 없다. 그 치명적인 풀은 셀러리를 닮았는데, 이를 먹는 사람은 웃으면서 죽는다고 한다. 그래서 호메로스와 후대 사람들은 좋지 못한 웃음을 '사르도니아의 웃음'이라 부른다. 이 풀은 주로 샘 주변에서 자라지만 물에 독이 스며들게 하지는 않는다. 그리스인들이 이 섬에 관해 아는 것이 매우 적기에, 포키스 이야기를 하는 중에 사르디니아에 관한 이 대목을 넣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8장

**[10.18.1]** 사르도스상 곁의 말에는 아테나이인 리시마코스의 아들 칼리아스 자신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그 상을 바쳤다는 비문이 있다. 아카이아인들은 아이톨리아의 도시 하나를 포위하여 함락한 뒤 아테나상을 바쳤다. 그 도시의 이름은 파나였다. 포위가 오랫동안 이어졌는데도 도시를 차지하지 못하자 그들이 델포이에 사절을 보냈고, 사절들은 다음과 같은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

**[10.18.2]**

> 펠롭스의 땅과 아카이아에 살며
> 도시를 어찌 빼앗을지 물으러 피토에 온 이들이여,
> 백성이 날마다 얼마씩 나누어 마시기에
> 그 물을 마시는 도시가 버티는지 헤아려 보라.
> 그러면 망루를 갖춘 파나 마을을 차지하리라.

**[10.18.3]** 그들은 신탁의 뜻을 알아듣지 못해 포위를 풀고 배를 타고 돌아갈 생각이었다. 성을 지키는 이들은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한 여자가 물을 길으러 성벽 밖으로 나와 성벽 바로 아래 샘으로 갔다. 포위군 몇 사람이 달려가 여자를 사로잡았다. 여자는 성안에 물이라곤 그 샘뿐이어서, 밤마다 거기서 조금씩 길어 오는 물을 포위된 사람들이 나누어 마신다고 알려 주었다. 아카이아인들은 그 샘을 메워 도시를 함락했다.

**[10.18.4]** 이 아테나상 곁에 로도스의 린도스인들이 아폴론상을 세웠다. 암브라키아인들은 밤 전투에서 몰로소스인들을 물리치고 청동 당나귀를 바쳤다. 몰로소스인들은 밤에 그들을 기습하려고 매복해 있었다. 마침 들에서 돌아오던 수나귀가 요란하게 울고 껑충거리며 암나귀를 쫓았다. 나귀를 몰던 사람은 말인지도 모를 끔찍한 고함을 질러 소란을 더했다. 매복한 몰로소스인들이 놀라 뛰쳐나오자 암브라키아인들은 자신들을 기다리던 함정을 알아채고 그날 밤 공격해 몰로소스인들을 물리쳤다.

**[10.18.5]** 아르고스 지방의 오르네아이인들은 전쟁에서 시키온인들에게 크게 밀리자 아폴론에게 서원했다. 시키온 군대를 고향 땅에서 몰아내면 델포이에서 날마다 그를 기리는 행렬을 열고 정해진 종류와 수의 제물을 바치겠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시키온인들을 전투에서 이겼다. 그러나 날마다 서원을 지키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수고는 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자, 제사와 행렬을 본뜬 청동상들을 만들어 신에게 바칠 꾀를 냈다.

**[10.18.6]** 이곳에는 헤라클레스가 치른 과업 가운데 하나인 히드라와의 싸움도 있다. 티사고라스는 이 봉헌물을 바쳤을 뿐 아니라 직접 만들었다. 히드라와 헤라클레스 모두 철로 되어 있다. 철로 상을 만드는 일은 몹시 어렵고 큰 수고가 든다. 그러므로 티사고라스가 누구였든 그의 작품은 놀랍다. 페르가몬에서 디오니소스에게 봉헌한 사자와 멧돼지의 머리도 철로 만들었는데, 그 작품들도 참으로 놀랍다.

**[10.18.7]** 엘라테이아에 사는 포키스인들은 카산드로스가 도시를 포위했을 때 아테나이의 올림피오도로스에게 도움을 받아 도시를 지켜 냈다. 그들은 델포이의 아폴론에게 청동 사자를 보냈다. 사자 바로 곁의 아폴론은 마실리아인들이 카르타고군과의 해전에서 거둔 승리의 첫 몫으로 바친 것이다. 아이톨리아인들은 전승 기념물과 무장한 여자의 상을 세웠다. 그 여자는 아이톨리아를 나타낸다고 한다. 갈라티아인들이 칼리온 사람들에게 잔혹한 짓을 한 죄를 응징한 뒤 바친 것이다. 레온티노이의 고르기아스가 바친 도금상은 고르기아스 자신의 모습이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19장

**[10.19.1]** 고르기아스상 곁에는 암픽티온 동맹의 봉헌물이 있다. 스키오네의 스킬리스 모습을 본뜬 것이다. 그는 어느 바다에서든 가장 깊은 곳까지 잠수했다고 전한다. 딸 히드나에게도 잠수하는 법을 가르쳤다.

**[10.19.2]** 크세르크세스의 함대가 펠리온산 앞바다에서 거센 폭풍을 만났을 때, 아버지와 딸은 물속에서 닻과 그 밖에 삼단노선을 붙들어 매어 둔 것들을 끌어내 배들의 파멸을 재촉했다. 이 공으로 암픽티온 동맹은 스킬리스와 그의 딸의 상을 바쳤다. 네로가 델포이에서 가져간 조각상들 가운데 히드나의 상도 끼어 있었다. 여자들 가운데 바다에 잠수하는 이는 아직 순결한 처녀들뿐이다.

**[10.19.3]** 이제 레스보스의 이야기를 하겠다. 메팀나의 어부 몇 사람이 그물을 끌어 올리다가 올리브나무로 만든 얼굴이 수면 위로 따라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생김새에는 어딘가 신다운 데가 있었으나 낯설고 그리스 신들의 보통 모습과 달랐다. 메팀나 사람들은 그 형상이 어느 신이나 영웅의 모습인지 피티아에게 물었다. 피티아는 디오니소스 팔렌을 숭배하라고 했다. 메팀나 사람들은 바다에서 건진 목상을 자기네가 간직하며 제사와 기도로 숭배하고, 청동으로 본뜬 것을 델포이에 보냈다.

**[10.19.4]** 신전의 박공들에 새겨진 것은 아르테미스, 레토, 아폴론, 무사이, 저무는 태양, 디오니소스와 티아스 여인들이다. 처음 부분은 칼라미스의 제자이자 아테나이인인 프락시아스의 작품이다. 신전을 짓는 데 오래 걸렸고 그동안 프락시아스가 죽었으므로 박공의 나머지 장식은 안드로스테네스가 조각했다. 그도 프락시아스와 마찬가지로 아테나이 태생이었

으나 에우카드모스의 제자였다. 기둥 위 가로보에는 황금 무구가 있다. 방패는 아테나이인들이 마라톤 전투의 전리품으로 바쳤고, 뒤와 왼편의 무구는 갈라티아인의 것으로 전하는데 아이톨리아인들이 바쳤다. 그 모양은 페르시아의 버들가지 방패와 아주 비슷하다.

**[10.19.5]** 아티카 이야기에서 평의회 건물을 묘사할 때 갈라티아인들의 그리스 침공에 관해 조금 언급했다. 그리스인들이 침략자들을 상대로 가장 큰 공을 세운 곳이 델포이였으므로 이곳을 묘사하면서 갈라티아인들에 관해 더 자세히 밝히기로 했다. 켈트인들이 처음 외국에 원정했을 때 그들을 이끈 것은 캄바울레스였다. 그들은 트라케까지 진군했으나 자신들의 수가 그리스인들과 겨루기에 너무 적음을 깨닫고 낙담하여 행군을 그만두었다.

**[10.19.6]** 그들이 두 번째로 외국을 침공하기로 했을 때, 약탈의 즐거움을 맛보고 강탈과 노략질에 맛을 들인 캄바울레스의 옛 병사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많은 보병과 적지 않은 기병이 집결했다. 지휘관들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었고, 저마다 침공할 땅을 따로 맡았다.

**[10.19.7]** 케레트리오스는 트라케인들과 트리발로이족을 상대로 군대를 이끌기로 했다. 파이오니아로 쳐들어간 군대를 지휘한 것은 브렌노스와 아키코리오스였다. 볼기오스는 마케도니아인과 일리리아인을 공격했고, 당시 마케도니아의 왕이던 프톨레마이오스와 싸웠다.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안티오코스의 아들 셀레우코스에게 보호를 청해 의탁해 놓고도 그를 배신하여 죽인 사람이다. 무모한 행동 때문에 '벼락'이라는 뜻의 케라우노스라 불렸다. 프톨레마이오스 자신도 전투에서 죽었고 마케도니아군도 큰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켈트인들은 이번에도 그리스로 진군할 용기를 내지 못했고, 두 번째 원정군도 고향으로 돌아갔다.

**[10.19.8]** 그때 브렌노스는 공개 집회에서도, 갈라티아인 지휘관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도 그리스를 공격하자고 강력히 권했다. 당시 그리스가 얼마나 약한지, 그리스 도시들에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성소에는 봉헌물이며 은화와 금화며 그보다도 더 많은 재물이 쌓여 있는지를 길게 설명했다. 그렇게 그는 갈라티아인들을 설득해 그리스로 진군하게 했다. 함께 지휘할 장수로 뽑은 사람들 중에는 아키코리오스가 있었다.

**[10.19.9]** 집결한 보병은 십오만 이천 명이고 기병은 이만 사백 명이었다. 이 기병 수는 한 번에 전투에 나서는 인원이며, 실제 기병 인원은 육만 천이백 명이었다. 기병 한 사람마다 시종 두 사람이 배속되었는데, 시종들도 승마에 능했고 주인과 마찬가지로 각자 말이 한 필씩 있었다.

**[10.19.10]** 갈라티아 기병들이 싸우는 동안 시종들은 전열 뒤에 머무르다가 다음과 같이 도왔다. 기병이나 그의 말이 쓰러지면 시종이 그에게 탈 말을 가져다주었다. 기병이 죽으면 시종이 주인 대신 그 말에 탔다. 기수와 말이 함께 죽으면 말을 탄 사람이 곧바로 나설 수 있었다. 기수가 다치면 시종 하나가 부상자를 진영으로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전열에서 그 빈자리를 채웠다.

**[10.19.11]** 내가 보기에 갈라티아인들은 '불사대'라 불린 페르시아의 만인대를 본떠 이 방식을 채택했다.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페르시아인들은 전투가 끝난 뒤 전사자의 자리를 채웠고, 갈라티아인들은 싸움이 한창일 때도 기병을 보충하여 정원을 유지했다. 그들

말로 이런 편제를 ‘트리마르키시아’라 한다. 켈트인들은 말을 ‘마르카’라 부른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한다.

**[10.19.12]** 브렌노스는 이만한 군대를 거느리고 그런 뜻으로 그리스를 공격했다. 그리스인들은 기세가 완전히 꺾였으나 두려움이 극에 달하니 도리어 그리스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 이번 싸움은 페르시아와 싸울 때처럼 자유를 지킬 수 있느냐에 그치는 싸움이 아니며, 땅과 물을 바친다고 해서 목숨을 건질 수도 없음을 알았다. 앞선 침공 때 마케도니아와 트라케와 파이오니아가 겪은 일을 아직 기억했고, 바로 그때 테살리아인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잔학 행위도 전해졌다. 사람마다, 도시마다 이기든가 죽든가 둘 중 하나라고 확신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0장

**[10.20.1]** 원한다면 테르모필라이에 모여 크세르크세스왕을 맞았던 사람들의 수와 이번에 갈라티아인들을 맞아 모인 사람들의 수를 견주어 볼 수 있다. 페르시아군을 맞아 온 그리스 부대들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레오니다스와 함께 온 라케다이몬인이 삼백 명을 넘지 않았다. 테게아에서 오백 명, 만티네이아에서 오백 명, 아르카디아의 오르코메노스에서 백이십 명, 아르카디아의 나머지 도시에서 천 명이 왔다. 미케나이에서는 팔십 명, 플리우스에서는 이백 명, 코린토스에서는 그 두 배가 왔다. 보이오티아에서는 테스피아이에서 칠백 명, 테바이에서 사백 명이 모였다. 오이테산의 오솔길을 지킨 포키스인 천 명도 그리스군의 총수에 넣어야 한다.

**[10.20.2]** 헤로도토스는 크네미스산 기슭 로크리스인들의 수를 적지 않았으나, 그들의 도시마다 병력을 보냈다고는 한다. 이들의 수도 실제에 아주 가깝게 헤아려 볼 수 있다. 마라톤으로 진군한 아테나이인들은 병역을 감당하기에는 나이가 많은 이들과 노예를 포함해도 구천 명을 넘지 않았다. 그러니 테르모필라이로 온 로크리스 전투 병력은 육천 명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군대 전체는 만 천이백 명이 된다. 이들 모두가 줄곧 고개를 지킨 것은 아니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라케다이몬인, 테스피아이인, 미케나이인을 빼면 나머지는 전투가 끝나기 전에 전장을 떠났다.

**[10.20.3]** 대양 쪽에서 온 이민족을 막으러 테르모필라이에 온 그리스 병력은 다음과 같다. 보이오티아에서는 중장보병 만 명과 기병 오백 명이 왔다. 보이오티아의 지휘관은 케피소도토스, 테아리다스, 디오게네스, 리산드로스였다. 포키스에서는 기병 오백 명과 보병 삼천 명이 왔고, 장군은 크리토불로스와 안티오코스였다.

**[10.20.4]** 아탈란테섬 맞은편의 로크리스인들은 메이디아스의 지휘 아래 왔다. 그들은 칠백 명이었고 기병은 없었다. 메가라에서는 메가라 사람 히포니코스가 지휘하는 중장보병 사백 명이 왔다. 아이톨리아인들은 여러 종류의 병사로 이루어진 큰 부대를 보냈다. 기병 수는 전해지지 않고, 경장병은 칠백구십 명, 중장보병은 칠천 명이 넘었다. 그들의 지휘관은 폴리아르코스, 폴리프론, 라크라테스였다.

**[10.20.5]** 앞에서 말했듯 아테나이의 장군은 모이로클레스의 아들 칼리포스였다. 아테나이는 항해할 수 있는 삼단노선 전부와 기병 오백 명, 보병 천 명을 보냈다. 아테나이인들은

옛 명성 덕분에 총지휘를 맡았다. 마케도니아왕은 용병 오백 명을, 아시아의 왕도 같은 수를 보냈다. 안티고노스가 보낸 부대는 마케도니아인 아리스토데모스가 지휘했고, 안티오코스가 아시아에서 보낸 군대는 오론테스강가의 시리아인 텔레사르코스가 지휘했다.

**[10.20.6]** 테르모필라이에 집결한 그리스인들은 갈라티아군이 이미 마그네시아와 프티오티스 근방에 왔음을 알았다. 그들은 기병과 경장병 천 명을 따로 떼어 스페르케이오스강으로 보내기로 했다. 침략군이 강 하나를 건널 때도 싸움과 위험을 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스군은 도착하자 다리들을 부수고 강둑을 따라 따로 진을 쳤다. 그러나 브렌노스 자신도 이민족이라고 해서 아주 어리석거나 전쟁의 계책에 서투른 사람은 아니었다.

**[10.20.7]** 그는 바로 그날 밤 병력 일부를 스페르케이오스강으로 보냈다. 옛 다리가 있던 자리에서는 더 하류로 간 곳이라 그리스인들이 도하를 알아차리지 못할 만했다. 그곳에서는 강이 좁고 세차게 흐르는 대신 평야에 퍼져 늪과 호수를 이루었다. 브렌노스는 갈라티아인 가운데 헤엄을 잘 치고 키가 큰 사람들을 뽑아 만 명쯤 보냈다. 켈트인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키가 훨씬 크다.

**[10.20.8]** 이들은 밤에 강이 호수처럼 넓어진 곳을 헤엄쳐 건넜다. 저마다 자기네 민족의 방패를 뗏목처럼 썼는데, 그중 키가 가장 큰 이들은 물을 걸어서 건널 수 있었다. 스페르케이오스강의 그리스인들은 적의 부대가 늪을 건넜다는 것을 알자 곧 본대로 물러났다. 브렌노스는 말리스만 주변 주민들에게 스페르케이오스강에 다리를 놓으라고 명했다. 주민들은 브렌노스가 두려웠고 침략군이 남아서 땅을 더 노략질하기 전에 떠나기를 바랐으므로 부지런히 다리를 놓았다.

**[10.20.9]** 브렌노스는 그 다리들로 군대를 건너게 하여 헤라클레이아로 나아갔다. 갈라티아인들은 그 지방을 약탈하고 들에서 붙잡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도시는 차지하지 못했다. 아이톨리아인들은 일 년 전에 헤라클레이아를 강제로 아이톨리아 동맹에 가입시켰다. 그래서 이제 그곳이 헤라클레이아인들의 도시인 만큼 자기들의 도시이기도 하다고 여기며 지켰다. 브렌노스는 헤라클레이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힘을 쏟은 일은 고개에서 길을 막는 이들을 내쫓고 테르모필라이 이남의 그리스를 침공하는 것이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1장

**[10.21.1]** 탈영병들이 테르모필라이에 모인 각 도시의 병력을 브렌노스에게 알려 주었다. 그는 그리스군을 얕보고 헤라클레이아를 떠나 진군하여 이튿날 해가 뜰 때 전투를 시작했다. 그에게는 그리스인 점술가가 없었고, 자기 나라의 제사도 지내지 않았다. 켈트인들에게 점치는 기술이 있기는 하다면 말이다. 그리스인들은 소리를 내지 않고 대열을 갖추어 공격했다. 맞붙어 싸우게 되었을 때 보병은 진형이 흐트러질 만큼 전열에서 뛰쳐나가지 않았다. 경장병도 제자리에 머물러 투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무릿매로 탄환을 날렸다.

**[10.21.2]** 양쪽 기병은 쓸모가 없었다. 고개의 지형이 좁고 바위가 드러나 표면이 매끄러웠으며, 대부분 물이 흘러 미끄러웠기 때문이다. 갈라티아인들은 자기네 방패 외에 몸을 가릴 무구가 없어 그리스인들보다 무장이 부실했고, 전투 경험은 그보다도 더 뒤졌다.

**[10.21.3]** 그들은 짐승 같은 맹목적인 분노와 격정에 이끌려 적에게 덤벼들었다. 도끼나 칼에 베이고도 숨이 붙은 동안에는 사납게 싸웠다. 화살이나 투창에 꿰뚫려도 목숨이 남아 있는 한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상처를 낸 창을 몸에서 뽑아 그리스인들에게 도로 던지거나 가까이서 싸울 때 썼다.

**[10.21.4]** 그동안 삼단노선을 탄 아테나이인들은 바다로 멀리 뻗은 진흙탕을 헤치며 위험을 무릅쓰고 해안을 따라갔다. 적에게 가능한 한 가까이 배를 댄 다음 화살과 온갖 투사물을 퍼부었다. 켈트인들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좁은 곳에서 적에게 입힌 손실은 적은데 자신들이 입은 손실은 두 배나 네 배에 달했으므로, 지휘관들은 진영으로 돌아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아무 질서 없이 뒤엉켜 퇴각하던 중 많은 이가 아군의 발에 밟혀 죽었고, 또 많은 이가 늪에 빠져 진흙 속에 자취를 감추었다. 물러나면서 입은 손실은 전투가 치열할 때 입은 손실에 못지않았다.

**[10.21.5]** 그날 아티카군은 용기에서 다른 그리스인들을 앞섰다. 아테나이인 가운데 가장 용감한 이는 전투에 나와 본 적이 없던 젊은이 키디아스였다. 그는 갈라티아인들에게 죽었지만, 친족들이 그의 방패를 자유의 제우스에게 바쳤다. 비문은 이러했다.

> 아직 젊음이 한창이던 키디아스를 그리며 여기 걸려 있다.
> 이름난 이의 방패인 내가 제우스에게 봉헌되었다.
> 사나운 아레스가 갈라티아인과 한창 맞섰던 이 싸움에서,
> 그가 왼팔을 처음 꿰어 든 방패가 바로 나였다.

**[10.21.6]** 이 비문은 술라와 그 군대가 자유의 제우스 주랑에 있던 방패들을 아테나이의 다른 보물과 함께 가져갈 때까지 남아 있었다. 테르모필라이 전투 뒤 그리스인들은 자기편 전사자들을 묻고 적의 무구를 벗겼다. 갈라티아인들은 시신을 거두게 해 달라고 전령을 보내지 않았다. 죽은 이들이 땅에 묻히든 짐승이나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에게 먹히든 개의치 않았다.

**[10.21.7]** 내 생각에 그들이 전사자들의 장례에 무심했던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적에게 공포를 심어 주려 한 것이 하나이고, 죽은 사람에게 애틋한 정을 품지 않는 데 익숙한 것이 다른 하나다. 전투에서 죽은 그리스인은 마흔 명이었다. 적의 손실은 정확히 알아낼 수 없었다. 진흙 밑으로 사라진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Pausanias ′ Description of Greece

## 제22장

**[10.22.1]** 전투가 있은 지 이레째 되는 날, 갈라티아군 한 부대가 헤라클레이아를 거쳐 오이테산으로 올라가려 했다. 이쪽에도 트라키스의 폐허를 지나 올라가는 좁은 오솔길이 있다. 당시 트라키스 위쪽에는 아테나 성소가 있었고 안에는 봉헌물들이 있었다. 그들은 오솔길을 따라 오이테산에 올라가는 김에 성소의 봉헌물도 빼앗기를 바랐다. 〔텔레사르코스가 이끄는 수비대가 그 길을 지켰다.〕 수비대는 적을 물리쳤지만 텔레사르코스는 전사했다. 그처럼 열성으로 그리스의 대의를 섬긴 사람도 드물었다.

**[10.22.2]** 브렌노스를 빼고는 적의 지휘관들이 모두 그리스인들을 몹시 두려워했다. 당장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앞날도 암담하게 보았다. 그러나 브렌노스는 아이톨리아인들을 강제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이후 그리스를 상대로 싸우기가 쉬워지리라고 판단했다. 그는 군대에서 보병 사만 명과 기병 팔백 명가량을 떼어 오레스토리오스와 콤부티스에게 맡겼다. 이들은 스페르케이오스강의 다리들로 되돌아가

**[10.22.3]** 테살리아를 다시 지나 아이톨리아를 침공했다. 콤부티스와 오레스토리오스의 손에 칼리온 사람들이 겪은 일은 이제껏 들은 가운데 가장 잔혹하여,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에도 견줄 데가 없다. 그들은 남자라면 모두 칼로 죽였다. 노인도, 어머니의 젖을 물고 있던 아이도 죽였다. 갈라티아인들은 젖먹이 중 살이 오른 아이들을 죽여 피를 마시고 살을 먹었다.

**[10.22.4]** 여자들과 다 자란 처녀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기개가 있는 이들은 도시가 함락될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살아남은 이들은 연민도 애정도 모르는 자들에게 강제로 온갖 능욕을 당했다. 우연히 갈라티아인의 칼을 손에 넣은 여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머지는 굶주림과 잠을 자지 못한 탓에 곧 죽게 되었다. 침략자들은 번갈아 그들을 범했고, 숨이 넘어가는 사람과 죽은 사람에게까지 욕정을 풀었다.

**[10.22.5]** 아이톨리아인들은 전령들에게서 무슨 참사가 벌어졌는지 듣고 곧바로 테르모필라이에서 군대를 빼내 서둘러 아이톨리아로 갔다. 칼리온 사람들이 당한 일에 격분했고, 아직 함락되지 않은 도시들을 지키겠다는 결심은 더욱 굳었다. 고향의 모든 도시에서 병역을 감당할 나이의 남자들이 모여들었다. 군역을 맡기에는 나이가 지난 이들까지 위급한 때를 맞아 전의를 되살려 대열에 섰다. 여자들도 기꺼이 그들과 함께 싸웠다. 갈라티아인들에게 품은 분노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했다.

**[10.22.6]** 침략군은 집과 성소를 약탈하고 칼리온에 불을 지른 뒤 왔던 길로 돌아갔다. 아카이아인 가운데 유일하게 아이톨리아인을 돕고 있던 파트라이인들이 그들과 마주쳤다. 중장보병으로 훈련받은 파트라이인들은 정면에서 공격했으나, 갈라티아인들이 수가 많고 필사적으로 싸워 큰 손실을 입었다. 한편 아이톨리아의 남녀는 길을 따라 곳곳에 포진하여 그들에게 계속 투사물을 날렸다. 적은 자기네 방패 외에는 몸을 막아 줄 것이 없었으므로 빗나가는 것이 드물었다. 갈라티아인들이 뒤쫓아 오면 쉽게 몸을 피했고, 적이 추격을 그치고 돌아가면 힘껏 다시 공격했다.

**[10.22.7]** 칼리온 사람들이 당한 일이 너무도 참혹하여 호메로스가 전한 라이스트리고네스와 키클롭스의 이야기조차 터무니없게 여겨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들이 당한 일은 충분히 복수되었다. 적 사만 팔백 명 가운데 테르모필라이 진영으로 살아 돌아간 이는 절반도 되지 않았다.

**[10.22.8]** 그동안 테르모필라이에 있던 그리스인들의 형편은 이러했다. 오이테산을 넘는 길은 두 갈래다. 트라키스 위쪽의 길은 몹시 가파르고 대부분 벼랑을 이룬다. 아이니아인들의 땅을 지나는 다른 길은 군대가 넘기 쉽다. 앞서 페르시아의 히다르네스가 레오니다스 휘하 그리스군의 뒤를 치려고 넘어간 길이 바로 이 길이었다.

**[10.22.9]** 헤라클레이아인들과 아이니아인들은 이 길로 브렌노스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스의 대의에 악의를 품은 것이 아니라 켈트인들이 자기네 땅을 파괴하며 눌러앉지 않고 떠나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불행에는 짓눌려도 남의 불행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핀다로스가 한 말도 옳다고 생각한다.

**[10.22.10]** 아이니아인들과 헤라클레이아인들의 약속에 힘을 얻은 브렌노스는 본대를 아키코리오스에게 맡겨 남겨 두었다. 적을 에워싼 다음에야 공격하라고 명한 뒤, 자신은 사만 명을 따로 이끌고 고갯길에 들어섰다.

**[10.22.11]** 마침 그날 짙은 안개가 산에서 밀려 내려와 햇빛을 가렸다. 오솔길을 지키던 포키스인들은 적이 코앞에 이를 때까지 접근하는 것을 몰랐다. 갈라티아인들이 공격해 왔다. 포키스인들은 용감하게 맞섰으나 끝내 오솔길에서 밀려났다. 그래도 그리스군이 사방에서 완전히 포위되기 전에 아군에게 달려 내려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렸다.

**[10.22.12]** 이에 아테나이인들은 함대로 그리스군을 테르모필라이에서 제때 빼낼 수 있었다. 그리스군은 흩어져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다. 브렌노스는 더 머뭇거리지 않고 아키코리오스가 이끄는 군대가 합류하기를 기다리지도 않은 채 델포이로 진군했다. 공포에 질린 델포이인들은 신탁소에 의지했다. 신은 두려워하지 말라며 자신의 것은 몸소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10.22.13]** 신을 지키러 온 그리스인들은 이러했다. 포키스에서는 모든 도시가 병력을 보내왔고, 암피사에서는 중장보병 사백 명이 왔다. 아이톨리아인들 가운데 일부는 적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왔으며, 뒤이어 필로멜로스가 천이백 명을 이끌고 왔다. 아이톨리아의 정예병들은 아키코리오스의 군대 쪽으로 향했다. 그들은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행군 대열의 뒤를 잇달아 공격하여 짐을 빼앗고 나르는 사람들을 죽였다. 그 군대의 행군이 더뎠던 까닭은 주로 여기에 있었다. 게다가 아키코리오스는 진영의 짐을 지키도록 병력 일부를 헤라클레이아에 남겨 두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3장

**[10.23.1]** 이제 브렌노스와 그의 군대는 델포이에 집결한 그리스인들과 맞섰다. 곧 신은 침략군에게 불길한 징조를 보냈다. 기록에 남은 것 가운데 가장 뚜렷한 징조들이었다. 갈라티아군이 차지한 땅 전체가 거의 온종일 심하게 흔들렸고, 천둥과 번개가 그치지 않았다.

**[10.23.2]** 천둥은 갈라티아인들을 겁에 질리게 했고 명령도 듣지 못하게 했다.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은 맞은 이들과 그 곁의 사람들까지, 몸과 무구를 가리지 않고 불태웠다. 그때 그들은 영웅 히페로코스와 라오도코스와 피로스의 혼령을 보았다. 어떤 이들에 따르면 넷째로 델포이의 영웅 필라코스도 나타났다.

**[10.23.3]** 그 전투에서 죽은 포키스인들 가운데 알렉시마코스가 있었다. 그는 젊음과 몸의 힘과 굳센 마음을 다해 침략군을 무찌른 점에서 다른 모든 그리스인보다 뛰어났다. 포키스인들은 알렉시마코스의 상을 만들어 아폴론에게 바치려고 델포이로 보냈다.

**[10.23.4]** 온종일 침략군은 이런 재앙과 공포에 시달렸다. 밤에는 훨씬 더 괴로운 일이 닥쳤다. 매서운 추위와 함께 눈이 내렸다. 파르나소스산에서 큰 바윗덩이가 미끄러져 내려오고 벼랑의 바위들이 떨어져 나가 적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무리를 지어 보초를 서거나 쉬고 있던 사람들에게 바위가 떨어지면, 한두 명이 아니라 서른 명이나 그보다 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죽었다.

**[10.23.5]** 해가 뜨자 그리스군은 델포이에서 나와 정면으로 공격했다. 포키스인들은 이 지방을 더 잘 알았으므로 눈을 헤치며 파르나소스의 가파른 곳으로 내려가 켈트인들의 뒤를 기습했다. 그들은 적의 공격을 걱정할 일 없이 화살을 쏘고 투창을 던졌다.

**[10.23.6]** 처음에 갈라티아인들은 기세 좋게 맞섰다. 키가 가장 크고 용감한 이들로 이루어진 브렌노스의 부대가 특히 그랬다. 사방에서 투사물이 날아들었고 추위 역시 그에 못지않게 괴로웠다. 부상자들은 더욱 고통스러웠다. 그러다가 브렌노스 자신이 부상을 입어 정신을 잃고 전장에서 실려 나가자, 사방에서 그리스군의 공격을 받은 침략군은 마지못해 물러났다. 부상이나 병으로 함께 갈 수 없는 이들은 칼로 죽였다.

**[10.23.7]** 후퇴하다가 밤이 닥친 곳에 그들은 진을 쳤다. 그날 밤 '판의 공포'가 그들에게 덮쳤다. 까닭 없이 밀려오는 공포는 판 신에게서 온다고 하기 때문이다. 저녁이 밤으로 바뀔 무렵 군대가 혼란에 빠졌다. 처음에는 몇 사람만 정신이 흐려져 말들이 내달리는 발굽 소리와 적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착각은 모두에게 퍼졌다.

**[10.23.8]** 그들은 무기를 집어 들고 두 편으로 갈라져 서로 죽이고 죽었다. 자기네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서로의 모습이나 방패 모양도 알아보지 못했다. 양쪽 모두 그 착각에 사로잡혀 맞은편 사람도 그 무구도 그리스 것이라 여기고, 그들이 쓰는 말도 그리스어라고 생각했다. 신이 보낸 광기로 갈라티아인들 사이에 큰 살육이 벌어졌다.

**[10.23.9]** 가축을 지키려고 들에 남아 있던 포키스인들이 밤중에 적을 덮친 공포를 맨 먼저 알아차리고 그리스군에 알렸다. 기세가 오른 포키스인들은 켈트인들을 더욱 맹렬히 공격했고 적의 진영을 더 철저히 감시했다. 적이 필요한 물자를 그 지방에서 가져갈 때마다 싸워 막았으므로 갈라티아군 전체가 곡식과 다른 식량의 심한 부족에 한꺼번에 시달렸다.

**[10.23.10]** 그들이 포키스에서 입은 손실은 이러했다. 전투에서 죽은 이가 육천 명 가까이 되었다. 밤의 눈보라와 그 뒤에 덮친 공포로 죽은 이들은 만 명이 넘었고, 굶어 죽은 이들도 만 명이 넘었다.

**[10.23.11]** 아테나이의 정찰병들이 상황을 알아보러 델포이에 왔다. 그들은 돌아가 침략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이 그들에게 어떤 재앙을 내렸는지 보고했다. 아테나이인들은 곧 출병했고, 보이오티아를 지날 때 보이오티아인들이 합류했다. 두 군대는 함께 침략군을 뒤쫓고 곳곳에 매복하여 뒤처진 이들을 죽였다.

**[10.23.12]** 브렌노스와 달아난 사람들에게 아키코리오스의 군대가 합류한 것은 그 전날 밤에야 가능했다. 아이톨리아인들이 투창을 비롯해 손에 잡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차 없이 퍼부어 그들의 행군을 늦췄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 중 소수만이 헤라클레이아의 진영으로 빠져나갔다. 상처만으로 보자면 브렌노스에게는 아직 살아날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동족을 두려워한 데다 그리스에서 벌어진 재앙을 자신이 일으켰다는 수치가 더 컸으므로, 물을 타지 않은 포도주를 마시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10.23.13]** 그 뒤 침략군은 아이톨리아군의 거센 추격을 받으며 어렵사리 스페르케이오스강에 닿았다. 그 강에 이른 뒤로는 테살리아인과 말리스인들이 남은 퇴로 곳곳에 매복해 있다가 마음껏 살육했다. 그리하여 갈라티아인 가운데 무사히 고향에 돌아간 이는 한 사람도 없었다.

**[10.23.14]** 켈트인들이 그리스를 원정하고 파멸한 것은 아테나이에서 아낙시크라테스가 아르콘이던 때였다. 아이기온의 라다스가 달리기에서 이긴 제125회 올림피아드의 둘째 해였다. 이듬해 아테나이에서 데모클레스가 아르콘일 때 켈트인들은 다시 아시아로 건너갔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4장

**[10.24.1]** 전쟁은 이와 같이 흘러갔다. 델포이 신전의 앞칸에는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격언들이 새겨져 있다. 그리스인들이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긴 것이다. 이오니아에서는 밀레토스의 탈레스와 프리에네의 비아스, 레스보스의 아이올리스인 중에서는 미틸레네의 피타코스, 아시아의 도리스인 중에서는 린도스의 클레오불로스가 있었다. 또 아테나이의 솔론과 스파르타의 킬론이 있었다. 아리스톤의 아들 플라톤이 든 일곱째 현자는 킵셀로스의 아들 페리안드로스 대신 오이테산의 마을 케나이 출신 미손이다. 이 현자들이 델포이에 와서 "너 자신을 알라"와 "무엇이든 지나치지 않게"라는 유명한 격언을 아폴론에게 바쳤다.

**[10.24.2]** 이 사람들이 내가 말한 격언을 적었다. 비석에는 청동으로 만든 호메로스의 모습이 있고, 호메로스가 받았다는 다음 신탁을 읽을 수 있다.

> 복되면서도 불행한 이여, 그대는 두 가지를 모두 겪도록 태어났다.
> 그대는 아버지의 고향을 찾지만, 그대에게는 어머니의 고향만 있다.
> 이오스섬이 어머니의 고향이니 그대가 죽으면 그곳이 받아 주리라.
> 어린아이들의 수수께끼를 조심하라.

이오스 주민들은 섬에 있는 호메로스의 무덤을 가리켜 보인다. 다른 곳에는 호메로스의 어머니였다는 클리메네의 무덤도 보여 준다.

**[10.24.3]** 한편 키프로스인들도 호메로스가 자기네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 고장 여인 테미스토가 호메로스의 어머니였고, 에우클로스가 다음 구절로 호메로스의 탄생을 예언했다고 한다.

> 그때 바다에 둘러싸인 키프로스에 위대한 가객이 있으리라.
> 아름다운 여인 테미스토가 부유한 살라미스에서 멀리 떨어진
> 들판에서 이름 높을 그를 낳으리라.
> 그는 키프로스를 떠나 파도에 흔들리고 물결에 젖으며,

> 드넓은 그리스의 고난을 맨 먼저 홀로 노래하리라.
> 그는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 않으리라.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신탁도 읽었으나, 호메로스의 나이나 그가 살았던 시대에 관해 내 의견을 내놓지는 않겠다.

**[10.24.4]** 신전에는 포세이돈의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가장 오래된 신탁소를 포세이돈도 일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운명의 여신 두 분의 상도 있다. 셋째 운명의 여신이 있을 자리에는 '운명을 이끄는 이'라는 뜻의 모이라게테스 제우스와 모이라게테스 아폴론이 그 곁에 서 있다. 이곳에서는 아폴론의 사제가 아킬레우스의 아들 네옵톨레모스를 죽인 화덕을 볼 수 있다. 네옵톨레모스의 최후는 다른 곳에서 이미 이야기했다.

**[10.24.5]** 화덕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핀다로스의 의자가 봉헌되어 있다. 철로 만든 의자다. 핀다로스가 델포이에 올 때마다 이 의자에 앉아 아폴론에게 바칠 노래를 지었다고 한다. 신전 가장 깊은 곳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드물다. 그 안에 또 하나의 아폴론상이 봉헌되어 있는데 금으로 만든 것이다.

**[10.24.6]** 신전을 나와 왼쪽으로 돌면 담을 두른 곳이 나온다. 그 안에 아킬레우스의 아들 네옵톨레모스의 무덤이 있다. 델포이인들은 해마다 그에게 영웅에게 올리는 제사를 지낸다. 무덤에서 더 올라가면 그리 크지 않은 돌에 이른다. 그들은 날마다 그 돌 위에 올리브유를 붓고 축제 때마다 손질하지 않은 양털을 올려놓는다. 그 돌은 크로노스가 자기 아이 대신 받았다가 도로 토해 낸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10.24.7]** 돌을 보고 신전 쪽으로 돌아오면 카소티스라는 샘에 이른다. 그 곁에 그리 크지 않은 벽이 있다. 벽을 통과해 샘으로 올라간다. 이 카소티스의 물은 땅속으로 들어가 신의 성소에 있는 여인들에게 예언의 영감을 준다고 한다. 샘에 이름을 준 이는 파르나소스의 님프였다고 한다. Pausanias ' Description of Greece

## 제25장

**[10.25.1]** 카소티스 너머에는 폴리그노토스의 그림들이 있는 건물이 서 있다. 크니도스인들이 봉헌한 것이다. 델포이인들은 그것을 '이야기를 나누는 방'이라는 뜻의 레스케라 부른다. 옛날 이곳에 모여 진지한 일들과 옛이야기를 두고 담소했기 때문이다. 그 예전에는 그리스 곳곳에 이런 장소가 많았음을 호메로스가 멜란토의 입을 빌려 오디세우스를 꾸짖는 구절에서도 알 수 있다.

> 대장간에 가서 자지도 않고,
> 레스케에 가지도 않고, 여기서 말을 길게 늘어놓는군요.

**[10.25.2]** 이 건물 안 오른편의 그림 전체는 함락된 트로이아와 배를 타고 떠나려는 그리스인들을 그렸다. 메넬라오스의 배에서는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 배에는 다 자란 선원들 사이에 아이들도 그려져 있다. 배 한가운데에는 키잡이 프론티스가 갈고리 달린 장대 두 개를 들고 있다. 호메로스는 네스토르가 텔레마코스와 나누는 대화에서 프론티스를 이야기하게 한다. 그는 오네토르의 아들로 메넬라오스의 키잡이였으며, 배를 모는 솜씨로 명성이

아주 높았다. 그러나 아티카의 수니온곶을 돌아 나갈 즈음 세상을 떠났다. 그때까지 메넬라오스는 네스토르와 함께 항해하고 있었으나, 프론티스에게 무덤을 마련해 주고 마땅한 장례를 치르려고 뒤에 남았다.

**[10.25.3]** 폴리그노토스의 그림에는 그렇게 프론티스가 그려져 있다. 그 아래에는 이타이메네스라는 사람이 옷을 들고 있고, 에코이악스는 청동 항아리를 들고 배의 발판을 내려온다. 폴리테스와 스트로피오스와 알피오스는 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메넬라오스의 막사를 허물고 있다. 다른 막사는 암피알로스가 허무는데, 그의 발치에는 소년 하나가 앉아 있다. 소년에게는 이름을 적어 두지 않았으며, 수염이 있는 이는 프론티스뿐이다. 폴리그노토스가 『오디세이아』에서 가져온 이름도 프론티스뿐이다. 나머지 이름은 화가가 스스로 지어 낸 듯하다.

**[10.25.4]** 브리세이스가 서 있고, 그 위쪽에는 디오메다, 두 사람 앞에는 이피스가 있다. 이들은 헬레네의 모습을 살펴보는 듯하다. 헬레네는 앉아 있고 그 곁의 에우리바테스도 앉아 있다. 수염이 채 나지 않았으나 우리는 그를 오디세우스의 전령이라고 판단했다. 시녀 판탈리스는 헬레네 곁에 서 있고, 다른 시녀 엘렉트라는 여주인의 신발 끈을 매고 있다.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에서 헬레네가 여종들을 데리고 성벽에 가는 장면에 붙인 이름과는 이 이름들도 다르다.

**[10.25.5]** 헬레네 너머에는 자줏빛 망토를 두른 남자가 더없이 낙담한 자세로 앉아 있다. 적힌 이름을 읽기 전에도 그가 프리아모스의 아들 헬레노스라고 짐작할 수 있다. 헬레노스 곁에는 팔을 다친 메게스가 있다. 피라 사람 아이스킬리노스의 아들 레스케오스가 『일리온 함락』에서 이야기한 모습이다. 그에 따르면 메게스는 트로이아인들이 밤에 벌인 싸움에서 아우게이아스의 아들 아드메토스에게 상처를 입었다.

**[10.25.6]** 메게스 곁에는 크레온의 아들 리코메데스도 그려져 있다. 손목에 상처를 입었는데, 레스케오스에 따르면 아게노르가 그 상처를 입혔다. 그러므로 폴리그노토스가 레스케오스의 시를 읽지 않았다면 이들이 그런 상처를 입은 모습으로 그리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다만 폴리그노토스는 리코메데스가 발목과 머리에도 상처를 입은 것으로 그렸다. 메키스테우스의 아들 에우리알로스도 머리와 손목에 상처를 입었다.

**[10.25.7]** 이들은 그림에서 헬레네보다 위에 그려져 있다. 헬레네 바로 곁에는 머리를 깎은 테세우스의 어머니가 있다. 테세우스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데모폰은 자세로 보아 아이트라를 구해 낼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다. 아르고스인들의 말로는, 테세우스가 시니스의 딸과의 사이에서 멜라니포스라는 아들도 얻었다. 이른바 에피고노이가 두 번째 네메아 경기를 열었을 때 멜라니포스는 달리기에서 우승했다. 첫 번째 경기를 연 이는 아드라스토스였다.

**[10.25.8]** 레스케오스에 따르면 트로이아가 함락되었을 때 아이트라는 몰래 그리스 진영으로 들어왔다. 테세우스의 아들들이 그녀를 알아보았고, 데모폰은 아가멤논에게 그녀를 내달라고 청했다. 아가멤논은 데모폰의 청을 들어줄 뜻이 있었으나 먼저 헬레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그가 전령을 보내자 헬레네는 청을 들어주었다. 그러므로 그림에서 에

우리바테스는 아이트라 일을 묻기 위해 헬레네를 찾아와 아가멤논이 전하라고 한 말을 하는 듯하다.

**[10.25.9]** 트로이아 여인들은 이미 포로가 되어 슬피 우는 모습이다. 안드로마케도 그려져 있고, 그 곁에는 그녀의 젖가슴을 붙든 아들이 서 있다. 레스케오스는 이 아이가 망루에서 내던져져 죽었다고 한다. 그리스인들이 함께 결정한 일이 아니라 네옵톨레모스가 스스로 아이를 죽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프리아모스가 정실 아닌 여자에게서 얻은 딸 메데시카스테도 그림에 있다. 호메로스에 따르면 그녀는 집을 떠나 페다이온으로 가서 멘토르의 아들 임브리오스의 아내가 되었다.

**[10.25.10]** 안드로마케와 메데시카스테는 머리에 쓰개를 둘렀으나, 폴릭세나는 처녀들의 관습대로 머리를 땋았다. 시인들은 그녀가 아킬레우스의 무덤에서 죽었다고 노래한다. 나도 아테나이에서, 그리고 카이코스강가의 페르가몬에서 폴릭세나의 비극을 그린 그림을 보았다.

**[10.25.11]** 화가는 네스토르가 머리에 모자를 쓰고 손에 창을 든 모습으로 그렸다. 먼지 속에 드러누워 몸을 구르려는 자세의 말도 있다. 그 말이 있는 자리까지는 자갈 같은 것이 깔린 해변이고, 말 너머로는 바닷가 풍경이 끊긴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6장

**[10.26.1]** 아이트라와 네스토르 사이에 있는 여인들 위쪽에는 또 다른 여인 포로들이 있다. 클리메네, 크레우사, 아리스토마케, 크세노디케다. 스테시코로스는 『일리온 함락』에서 클리메네를 포로들 가운데 넣었고, 『귀향』에서는 아리스토마케를 프리아모스의 딸이자 히케타온의 아들 크리톨라오스의 아내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크세노디케를 언급하는 시인도 산문 작가도 없다. 크레우사는 아이네이아스의 아내였으므로 신들의 어머니와 아프로디테가 그녀를 그리스인들의 노예가 되는 데서 구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러나 레스케오스와 서사시 『키프리아』를 쓴 이는 에우리디케를 아이네이아스의 아내라고 한다.

**[10.26.2]** 이들 너머에는 긴 의자에 있는 데이노메, 메티오케, 페이시스, 클레오디케가 그려져 있다. 이 가운데 이른바 『소 일리아스』에 나오는 이름은 데이노메뿐이다. 다른 이름들은 폴리그노토스가 지어 낸 듯하다. 에페이오스는 벌거벗은 채 트로이아의 성벽을 허물고 있다. 성벽 위로는 목마의 머리만 솟아 있다. 페이리토오스의 아들 폴리포이테스는 머리에 띠를 둘렀다. 그 곁에 있는 테세우스의 아들 아카마스는 볏이 달린 투구를 쓰고 있다.

**[10.26.3]** 오디세우스도 있는데, 가슴갑옷을 입었다. 오일레우스의 아들 아이아스는 방패를 든 채 제단 곁에 서서 카산드라에게 저지른 폭행에 관해 맹세하고 있다. 카산드라는 땅에 앉아 아테나의 신상을 붙들고 있다. 신에게 몸을 의탁한 그녀를 아이아스가 끌어낼 때 그녀가 목상을 받침에서 쓰러뜨렸기 때문이다. 아트레우스의 아들들도 그림에 있으며, 다른 이들처럼 투구를 쓰고 있다. 메넬라오스가 든 방패에는 뱀이 새겨져 있다. 아울리스에서 제물을 바칠 때 나타난 징조를 기리는 것이다.

**[10.26.4]** 아이아스에게 맹세시키는 이들 아래, 네스토르 곁의 말과 나란한 곳에 네옵톨레모스가 있다. 그는 엘라소스라는 자를 죽였다. 엘라소스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림에서는 아직 겨우 숨이 붙어 있는 모습이다. 레스케오스도 언급한 아스티노오스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고, 네옵톨레모스가 칼로 그를 내리치고 있다. 폴리그노토스가 그린 그리스 군대에서 아직도 트로이아인들을 죽이고 있는 이는 네옵톨레모스뿐이다. 화가가 그림 전체를 네옵톨레모스의 무덤보다 위쪽에 놓으려 했기 때문이다. 호메로스는 어느 시에서나 아킬레우스의 아들을 네옵톨레모스라 부른다. 그러나 『키프리아』라는 서사시에서는 리코메데스가 그에게 피로스라는 이름을 붙였고, 포이닉스가 네옵톨레모스, 곧 '젊은 전사'라는 이름을 주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 아킬레우스가 처음 전쟁에 나간 것도 어린 나이였기 때문이다.

**[10.26.5]** 그림에는 어린 소년이 무서워 매달리고 있는 제단도 있다. 제단 위에는 청동 가슴갑옷이 놓여 있다. 오늘날에는 이런 모양의 갑옷이 드물지만 옛날에는 입고 다녔다. 두 장의 청동판으로 만드는데, 하나는 가슴과 배에 맞고 다른 하나는 등을 보호한다. 이 판들을 '기알라'라 불렀다. 한 장은 앞에, 다른 한 장은 뒤에 대고 버클로 서로 채웠다.

**[10.26.6]** 방패가 없어도 이 갑옷만으로 몸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호메로스는 프리기아인 포르키스가 두 장으로 된 가슴갑옷을 입었으므로 방패를 들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이 갑옷을 폴리그노토스의 그림에서도 보았고,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에서도 보았다. 그 신전에는 사모스의 칼리폰이 여자들이 파트로클로스의 가슴갑옷 두 판을 맞추는 모습을 그려 놓았다.

**[10.26.7]** 화가는 제단 너머에 서 있는 라오디케도 그렸다. 어느 시인이 열거한 트로이아 여자 포로들 중에도 그녀는 없으므로, 그리스인들이 그녀를 자유롭게 놓아주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그럴듯하다.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에서 안테노르가 메넬라오스와 오디세우스를 손님으로 맞았으며, 라오디케가 안테노르의 아들 헬리카온의 아내였다고 말한다.

**[10.26.8]** 레스케오스에 따르면, 밤 전투에서 헬리카온이 상처를 입자 오디세우스는 그를 알아보고 싸움터에서 산 채로 데리고 나왔다. 메넬라오스와 오디세우스가 안테노르의 집안과 맺은 이 인연을 생각하면, 아가멤논과 메넬라오스가 헬리카온의 아내에게 해를 입혔을 가능성은 낮다. 칼키스의 시인 에우포리온이 전한 라오디케 이야기는 도무지 그럴듯하지 않다.

**[10.26.9]** 라오디케 곁의 돌 받침 위에는 청동 대야가 놓여 있다. 메두사는 땅에 앉아 두 손으로 받침을 붙들고 있다. 히메라 시인의 노래를 믿는다면 메두사도 프리아모스의 딸 가운데 넣어야 한다. 메두사 곁에는 머리를 깎은 노파인지 환관인지 모를 사람이 맨몸의 아이를 무릎에 안고 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7장

**[10.27.1]** 시신들도 있다. 펠리스라는 남자는 벌거벗은 채 등을 대고 쓰러져 있다. 펠리스의 아래쪽에는 에이오네우스와 아드메토스가 아직 가슴갑옷을 입은 채 누워 있다. 레스케오스에 따르면 에이오네우스는 네옵톨레모스에게, 아드메토스는 필록테테스에게 죽었다. 그 위에도 다른 시신들이 있다. 대야 아래에는 오디세우스에게 죽은 폴리다마스의 아들 레오크리토스가 있다. 에이오네우스와 아드메토스 너머에는 미그돈의 아들 코로이보스가 있다. 미그돈의 이름난 무덤은 스텍토리온에 사는 프리기아인들의 땅 경계에 있다. 시인들은 미그돈의 이름을 따서 프리기아인들을 미그도네스라 부르곤 한다. 코로이보스는 카산드라와 혼인하러 왔다가 죽었다. 널리 퍼진 이야기에서는 네옵톨레모스에게 죽었고 시인 레스케오스에 따르면 디오메데스에게 죽었다.

**[10.27.2]** 코로이보스보다 위쪽에는 프리아모스, 악시온, 아게노르가 있다. 레스케오스에 따르면 프리아모스는 집안의 울타리를 지키는 제우스 헤르케이오스의 제단에서 죽지 않았다. 제단에서 끌려 나와 자기 궁전의 문 앞에서 네옵톨레모스에게 손쉽게 죽임을 당했다. 헤카베의 경우 스테시코로스는 『일리온 함락』에서 아폴론이 그녀를 리키아로 데려갔다고 한다. 레스케오스는 악시온이 프리아모스의 아들로, 에우아이몬의 아들 에우리필로스에게 죽었다고 한다. 같은 시인에 따르면 아게노르를 죽인 사람은 네옵톨레모스였다. 그러므로 아게노르의 아들 에케클로스는 아킬레우스에게 죽고, 아게노르 자신은 네옵톨레모스에게 죽은 셈이다.

**[10.27.3]** 오디세우스의 동료 시논과 안키알로스가 라오메돈의 시신을 옮기고 있다. 그림에는 에레소스의 시신도 있다. 우리가 아는 한 에레소스와 라오메돈의 일을 노래한 시인은 없다. 안테노르의 집도 있다. 출입구 위에는 그리스인들에게 안테노르의 집에 손대지 말라는 표시로 표범 가죽이 걸려 있다. 테아노와 그 아들들도 그려져 있다. 글라우코스는 두 판을 맞댄 가슴갑옷 위에 앉아 있고, 에우리마코스는 바위 위에 앉아 있다.

**[10.27.4]** 에우리마코스 곁에는 안테노르가 서 있고, 그 옆에는 안테노르의 딸 크리노가 있다. 크리노는 갓난아이를 안고 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재앙을 겪은 사람의 표정이 드러나 있다. 하인들은 궤와 다른 세간을 당나귀 등에 싣고 있다. 당나귀 위에는 어린아이도 앉아 있다. 그림의 이 부분에는 시모니데스가 지은 엘레게이아 두 행도 적혀 있다.

> 타소스 태생, 아글라오폰의 아들 폴리그노토스가
> 트로이아의 아크로폴리스가 함락되는 모습을 그렸다.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 제28장

**[10.28.1]** 그림의 다른 쪽, 곧 왼편에는 오디세우스가 그려져 있다. 그는 하데스라 불리는 저승으로 내려가, 어떻게 하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테이레시아스의 혼령에게 묻고 있다. 그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보인다. 강처럼 보이는 물이 있는데, 분명 아케론 강을 그린 것이다. 물에는 갈대가 자란다. 물고기들의 모습은 하도 희미하여 물고기 자체보다 그 그림자처럼 보인다. 강에는 배 한 척이 떠 있고 뱃사공이 노를 젓고 있다.

**[10.28.2]** 내 생각에 폴리그노토스는 『미니아스』라 불리는 시를 따랐다. 그 시에는 테세우스와 페이리토오스를 두고 이런 구절이 나온다.

> 그때 그들은 죽은 자들이 오르는 배를
> 배를 매어 두는 곳에서 찾지 못했다.
> 늙은 뱃사공 카론이 몰던 배였다.

그래서 폴리그노토스도 카론을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으로 그렸다.

**[10.28.3]**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이름난 것은 아니다. 텔리스는 젊은이로, 클레오보이아는 아직 처녀로 그려져 있다. 클레오보이아는 사람들이 데메테르를 위해 흔히 만드는 것과 같은 궤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텔리스에 관해 내가 들은 것은 시인 아르킬로코스가 그의 손자였다는 것뿐이다. 클레오보이아는 데메테르의 비의를 파로스에서 타소스로 처음 가져왔다고 한다.

**[10.28.4]** 아케론강 기슭에는 카론의 배 아래에 눈에 띄는 장면이 있다. 아버지를 함부로 대했던 자가 이제 아버지에게 목이 졸리고 있다. 옛사람들이 부모를 지극히 공경했음은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카타네에서 '효성스러운 이들'이라 불리는 젊은이들도 그 예다. 아이트나산에서 불길이 카타네로 흘러내렸을 때, 그들은 금은은 아랑곳하지 않고 달아나면서 한 사람은 어머니를, 다른 한 사람은 아버지를 업었다. 힘겹게 가는 사이 불길이 따라잡아 그들을 에워쌌다. 그러고도 부모를 내려놓으려 하지 않자 용암이 두 갈래로 갈라졌고, 불길은 두 젊은이와 그 부모를 하나도 해치지 않고 지나갔다고 한다.

**[10.28.5]** 이 카타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동향 사람들의 공경을 받는다. 폴리그노토스의 그림에서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여 하데스에서 고통을 받는 자 곁에는, 신성한 것을 모독하여 벌을 받는 자가 있다. 벌을 주는 여자는 독을 비롯한 여러 약물을 다루는 데 능하다.

**[10.28.6]**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신들을 공경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 듯하다. 아테나이인들이 시라쿠사의 올림피아 제우스 성소를 점령했을 때 그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은 봉헌물을 하나도 옮기지 않았고, 시라쿠사의 사제에게 계속 그것들을 지키게 했다. 페르시아인 다티스도 델로스 사람들에게 한 말에서 신에 대한 공경을 드러냈다. 페니키아 배에서 아폴론상을 발견하고 델리온에서 타나그라 사람들에게 돌려준 일도 그러하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신을 경외했다. 그래서 폴리그노토스가 신성한 것을 모독한 자가 벌을 받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10.28.7]** 내가 열거한 인물들보다 위에는 에우리노모스가 있다. 델포이의 안내인들에 따르면, 그는 하데스에 사는 신령 중 하나로 시신의 살을 모조리 먹어 뼈만 남긴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와 『미니아스』라 불리는 시, 그리고 『귀향』은 하데스와 그 끔찍한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에우리노모스라는 신령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림에 그려진 그의 모습과 자세를 설명하겠다. 빛깔은 고기에 꼬이는 파리처럼 푸른색과 검은색의 중간이다. 그는 이를 드러내고 앉아 있으며, 아래에는 독수리 가죽이 깔려 있다.

**[10.28.8]** 에우리노모스 다음에는 아르카디아의 아우게와 이피메데이아가 있다. 아우게는 미시아의 테우트라스 집에 갔다. 헤라클레스와 맺어졌다고 전해지는 여자는 많지만, 아우

게가 낳은 아들만큼 아버지를 닮은 아들을 낳은 이는 없다. 밀라사의 카리아인들은 이피메데이아를 지극히 공경한다. periegesis.abm.uu.se

## 제29장

**[10.29.1]** 내가 이미 열거한 인물들보다 위에는 오디세우스의 동료 페리메데스와 에우리로코스가 제물을 들고 있다. 검은 숫양들이다. 그 뒤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는데, 적힌 이름은 오크노스, 곧 '망설임'이다. 그는 밧줄을 꼬고 있고, 곁에 서 있는 암나귀는 그가 꼬는 족족 밧줄을 먹어 치운다. 이 오크노스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으나 아내가 낭비벽이 심했다고 한다. 그가 일해서 번 것은 무엇이든 아내가 금세 써 버렸다.

**[10.29.2]** 그래서 사람들은 폴리그노토스가 오크노스의 아내를 빗대어 그렸다고 한다. 이오니아인들도 어떤 사람이 아무 소득 없는 일에 애쓰는 것을 보면 '오크노스의 밧줄을 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나는 안다. 새를 보고 길흉을 점치는 이들이 오크노스라고 부르는 새도 있다. 이 오크노스는 왜가리 가운데 가장 크고 아름다우며, 좀처럼 볼 수 없는 새다.

**[10.29.3]** 티티오스도 그림에 있다. 그는 이제 벌을 받는 모습은 아니며, 줄곧 고통을 겪어 몸이 다 닳아 버리고 희미하고 일그러진 그림자만 남았다. 그림의 다음 부분으로 가면 밧줄을 꼬는 남자와 아주 가까운 곳에 아리아드네가 그려져 있다. 그녀는 바위에 앉아 자매인 파이드라를 보고 있다. 파이드라는 그네를 타고 양쪽 줄을 한 손에 하나씩 쥐고 있다. 자세는 아주 우아하게 그려졌지만, 그 모습에서 파이드라가 어떻게 죽었는지 짐작하게 된다.

**[10.29.4]** 디오니소스는 테세우스보다 강한 병력을 이끌고 배를 타고 와 아리아드네를 그에게서 데려갔다. 우연히 아리아드네를 만났을 수도 있고, 그녀를 붙잡으려고 매복했을 수도 있다. 내 생각에 이 디오니소스는 인도를 처음 침공하고 에우프라테스강에 처음 다리를 놓은 바로 그 사람이다. 에우프라테스강에 다리를 놓은 곳은 '이어 매는 곳'이라는 뜻으로 제우그마라 불렸다. 그가 강을 가로질러 맸던 밧줄은 오늘날에도 보관되어 있다. 포도나무와 담쟁이덩굴의 가지를 엮어 만든 것이다.

**[10.29.5]** 디오니소스에 대해서는 그리스인과 이집트인 모두에게 수많은 전설이 있다. 파이드라 아래에는 티이아의 무릎에 기대고 있는 클로리스가 있다. 두 여자가 평생 친구로 지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클로리스는 보이오티아의 오르코메노스 출신이고, 티이아는 파르나소스에 사는 카스탈리오스의 딸이었다. 티이아가 포세이돈과 맺어지고 클로리스가 포세이돈의 아들 넬레우스와 혼인한 일은 다른 이들이 이야기했다.

**[10.29.6]** 티이아 곁에는 에레크테우스의 딸 프로크리스가 서 있다. 그다음에는 클로리스에게 등을 돌린 클리메네가 있다. 시 『귀향』에 따르면, 클리메네는 미니아스의 딸로 데이온의 아들 케팔로스와 혼인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 이피클로스가 태어났다. 프로크리스가 클리메네보다 먼저 케팔로스와 혼인한 일과 어떻게 남편의 손에 죽었는지는 누구나 이야기한다.

**[10.29.7]** 클리메네에서 더 안쪽으로 가면 테바이의 메가라가 보인다. 이 메가라는 헤라클레스와 혼인했으나, 헤라클레스가 그녀와의 사이에서 얻은 자녀들을 잃고 그 혼인을 불길하

게 여겨 얼마 뒤 그녀를 떠나보냈다. 내가 열거한 여인들의 머리 위에는 살모네우스의 딸이 바위에 앉아 있다. 그 곁에 서 있는 에리필레는 옷자락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 끝을 목께로 올리고 있다. 한 손으로 그 유명한 목걸이를 옷 주름 속에 쥐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10.29.8]** 에리필레 너머에는 엘페노르와 오디세우스가 그려져 있다. 오디세우스는 쪼그리고 앉아 도랑 위로 칼을 들고 있고, 점술가 테이레시아스가 도랑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테이레시아스 다음에는 오디세우스의 어머니 안티클레이아가 바위 위에 있다. 엘페노르는 옷 대신 뱃사람들이 흔히 두르는 거적을 걸쳤다.

**[10.29.9]** 오디세우스보다 아래에는 테세우스와 페이리토오스가 의자에 앉아 있다. 테세우스는 페이리토오스의 칼과 자기 칼을 손에 들고 있다. 페이리토오스는 칼들을 바라보고 있다. 두 사람이 감행한 모험에 이 칼들이 아무 소용도, 도움도 되지 않아 화를 내는 듯하다. 시인 파니아시스는 테세우스와 페이리토오스가 의자에 쇠사슬로 묶여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위가 살에 들러붙어 쇠사슬 구실을 했다고 한다.

**[10.29.10]** 속담에도 오르는 테세우스와 페이리토오스의 우정을 호메로스는 두 서사시에서 모두 언급했다.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는 파이아케스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 그때 나는 예전에 살았던 이들을 더 보았을 것이오.
>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 신들의 이름난 자식 테세우스와 페이리토오스를.

『일리아스』에서는 네스토르가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에게 충고하며 여러 말을 하는데, 그중에는 다음 구절이 있다.

> 나는 그런 사람들을 아직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보지 못하리라.
> 페이리토오스, 백성의 목자 드리아스,
> 카이네우스, 엑사디오스, 신을 닮은 폴리페모스,
> 그리고 불멸의 신들을 닮은 아이게우스의 아들 테세우스 같은 이들을. periegesis.abm.uu.se

## 제30장

**[10.30.1]** 다음으로 폴리그노토스는 판다레오스의 딸들을 그렸다. 호메로스는 페넬로페의 말을 빌려, 신들의 노여움으로 처녀들의 부모가 죽었고 고아가 된 처녀들을 아프로디테가 길렀다고 한다. 다른 여신들도 이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헤라는 지혜와 아름다운 몸매를, 아르테미스는 큰 키를 주었으며, 아테나는 여자들이 하는 일에 능숙하도록 가르쳤다.

**[10.30.2]** 호메로스는 또 아프로디테가 소녀들에게 좋은 혼처를 마련해 주려고 하늘로 올라갔으며, 그사이 하르피이아이들이 소녀들을 낚아채 복수의 여신들에게 넘겼다고 한다. 이것이 호메로스의 이야기다. 폴리그노토스는 꽃관을 쓰고 주사위 놀이를 하는 소녀들로 그렸고, 이름은 카메이로와 클리티에라고 적었다. 판다레오스는 크레타의 밀레토스 출신으로, 탄탈로스의 도둑질과 맹세로 남을 속인 일에 연루되었다는 점도 말해 두어야겠다.

**[10.30.3]** 판다레오스의 딸들 다음에는 안틸로코스가 있다. 한쪽 발을 바위에 올리고 얼굴과 머리를 두 손에 기댔다. 안틸로코스 다음에는 아가멤논이 있다. 왼쪽 겨드랑이에 왕홀을 끼워 몸을 기댄 채 두 손으로 지팡이를 들고 있다. 프로테실라오스는 앉아서 아킬레우스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프로테실라오스의 자세는 그러하고, 아킬레우스 너머에는 파트로클로스가 서 있다. 아가멤논을 빼고는 이들 모두에게 수염이 없다.

**[10.30.4]** 그들 너머에는 아직 소년인 포코스가 그려져 있다. 수염이 무성한 이아세우스가 포코스의 왼손에서 반지를 빼고 있다. 그 사연은 이렇다. 아이아코스의 아들 포코스는 아이기나에서 지금 포키스라 불리는 곳으로 건너갔다. 본토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자신도 거기에 정착하고 싶어 했다. 이아세우스는 그와 깊은 우정을 맺었다. 친구 사이에 으레 그렇듯 이아세우스는 포코스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중에는 돌을 금에 물려 만든 인장 반지가 있었다. 얼마 뒤 포코스가 아이기나로 돌아오자 펠레우스는 곧바로 그를 죽일 계략을 꾸몄다. 그래서 그림에서 두 사람의 깊은 우정을 떠올리게 하려고 이아세우스는 반지를 보고 싶어 하고 포코스는 그가 반지를 빼도록 내버려 둔 것이다.

**[10.30.5]** 그들 너머에는 마이라가 바위 위에 앉아 있다. 시 『귀향』은 마이라가 아직 처녀일 때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녀는 프로이토스의 딸이고, 프로이토스는 테르산드로스의 아들, 테르산드로스는 시시포스의 아들이다. 마이라 곁에는 아리스타이오스의 아들 악타이온과 그의 어머니가 있다. 두 사람은 새끼 사슴을 손에 들고 사슴 가죽 위에 앉아 있다. 옆으로 사냥개가 몸을 길게 뻗고 누워 있는데, 악타이온이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죽었는지를 나타낸다.

**[10.30.6]** 다시 그림 아래쪽으로 시선을 돌려 보면 파트로클로스 다음에 오르페우스가 작은 언덕처럼 보이는 곳에 앉아 있다. 왼손으로 리라를 쥐고 오른손으로 버드나무를 만진다. 손을 댄 곳은 나뭇가지며, 몸은 나무에 기대고 있다. 이 숲은 페르세포네의 숲인 듯하다. 호메로스가 생각하기에 그 숲에는 검은포플러와 버드나무가 자란다. 오르페우스는 그리스 사람처럼 생겼고, 옷도 머리에 쓴 것도 트라케의 것이 아니다.

**[10.30.7]** 버드나무 건너편에는 프로메돈이 나무에 기대어 있다. 어떤 이들은 프로메돈이 폴리그노토스가 시인처럼 지어 낸 이름이라 생각한다. 다른 이들은 그가 온갖 음악, 특히 오르페우스의 노래를 즐겨 듣던 그리스인이었다고 한다.

**[10.30.8]** 그림의 이 부분에는 포키스인들을 이끌고 트로이아로 간 스케디오스가 있다. 다음은 머리와 수염이 희끗한 펠리아스다. 그는 의자에 앉아 오르페우스를 바라본다. 스케디오스는 단검을 쥐고 풀로 만든 관을 썼다. 펠리아스 가까이에는 타미리스가 앉아 있다. 그는 두 눈의 시력을 잃었고, 자세에는 깊은 낙담이 드러난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길고, 발치에는 뿔로 된 팔과 줄이 부러진 리라가 내던져져 있다.

**[10.30.9]** 그 위에는 마르시아스가 바위에 앉아 있다. 곁의 올림포스는 한창 어린 소년이 아울로스를 배우는 모습이다. 켈라이나이에 사는 프리기아인들은 도시를 지나는 강이 한때 이 위대한 아울로스 연주자였다고 여긴다. 또 '어머니의 노래'라는 아울로스 곡을 마르시아스가 지었다고 한다. 그들이 갈라티아군을 물리친 것도 마르시아스의 도움 덕분이었다

고 한다. 그가 강물과 아울로스 소리로 침략군에게서 그들을 지켜 주었다는 것이다.

periegesis.abm.uu.se

## 제31장

**[10.31.1]** 다시 그림의 위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악타이온 곁에 살라미스의 아이아스가 있다. 팔라메데스와 테르시테스는 팔라메데스가 발명한 주사위로 놀이를 하고 있으며, 또 다른 아이아스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 이 아이아스의 피부는 난파당한 뱃사람의 피부처럼, 겉에 아직 소금기가 남아 거칠어 보인다.

**[10.31.2]** 폴리그노토스는 오디세우스의 적들을 일부러 한 무리로 모았다. 오일레우스의 아들 아이아스는 오디세우스를 미워하게 되었다. 카산드라에게 저지른 폭행을 두고 오디세우스가 그리스인들에게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권했기 때문이다. 내가 서사시 『키프리아』를 읽어서 아는 바로는, 팔라메데스는 고기를 잡으러 배를 띄웠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그를 죽인 사람은 디오메데스와 오디세우스였다.

**[10.31.3]** 오이네우스의 아들 멜레아그로스는 오일레우스의 아들 아이아스보다 그림의 위쪽에 있고, 아이아스를 바라보는 듯하다. 팔라메데스에게는 수염이 없으나 다른 이들에게는 수염이 있다. 멜레아그로스의 죽음에 관해 호메로스는 복수의 여신이 알타이아의 저주를 들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한다. 그러나 『에오이아이』라 불리는 시와 『미니아스』에는 이와 다른 이야기가 공통으로 나온다. 두 시는 아폴론이 아이톨리아인들과 싸우는 쿠레테스인들을 도왔으며, 멜레아그로스가 아폴론에게 죽었다고 한다.

**[10.31.4]** 운명의 여신들이 알타이아에게 장작개비를 주었고, 그 장작개비가 불에 타 없어지기 전에는 멜레아그로스가 죽지 않으며, 알타이아가 격분하여 그것을 태워 버렸다는 이야기를 처음 연극으로 다룬 사람은 폴리프라드몬의 아들 프리니코스다. 그의 『플레우론의 여인들』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 그는 싸늘한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사나운 불길이 그를 삼켰다.
> 해를 꾸미는 무서운 어머니가 그 장작개비를 불살랐을 때.

그러나 프리니코스가 이 이야기를 자기 창작처럼 자세히 꾸민 것 같지는 않다. 이미 그리스에서 누구나 입에 올리던 이야기라 간단히 언급한 듯하다.

**[10.31.5]** 그림의 아래쪽에서는 트라케인 타미리스 다음에 헥토르가 보인다. 그는 두 손으로 왼쪽 무릎을 감싸 쥐고 몹시 슬픈 자세로 앉아 있다. 다음에는 멤논이 바위에 앉아 있고, 멤논 곁에 사르페돈이 있다. 사르페돈은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있다. 멤논은 사르페돈의 어깨에 한 손을 얹었다.

**[10.31.6]** 이들 모두 수염이 있으며 멤논의 망토에는 새들이 수놓아져 있다. 그 새들은 멤노니데스라 불린다. 헬레스폰토스 사람들은 이 새들이 해마다 정해진 날에 멤논의 무덤으로 온다고 한다. 무덤에서 나무나 풀이 없는 부분을 모두 쓸고, 아이세포스강에서 적셔 온 날개로 물을 뿌린다는 것이다.

[10.31.7] 멤논 곁에 벌거벗은 아이티오피아 소년을 그려 놓은 것은 멤논이 아이티오피아인의 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트로이아에 올 때 출발한 곳은 아이티오피아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수사와 코아스페스강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트로이아까지 사이에 사는 모든 민족을 복속시켰다. 프리기아인들은 그가 가장 짧은 길들을 골라 군대를 이끌고 지나갔다는 길을 지금도 가리켜 보인다. 그 길은 군대가 쉬어 간 곳을 따라 몇 구간으로 나뉜다.

[10.31.8] 사르페돈과 멤논 너머에는 아직 수염이 나지 않은 파리스가 있다. 그는 촌스럽게 손뼉을 치고 있다. 그 소리로 펜테실레이아를 자기에게 부르는 것처럼 보인다. 펜테실레이아도 거기서 파리스를 바라보고 있으나, 고개를 젖힌 모습에는 멸시와 경멸이 드러나는 듯하다. 펜테실레이아는 처녀의 모습이다. 스키타이의 것과 비슷한 활을 들고 어깨에는 표범 가죽을 걸쳤다.

[10.31.9] 펜테실레이아 너머의 여인들은 깨진 물항아리에 물을 담아 나르고 있다. 한 사람은 한창 젊은 모습이고 다른 사람은 이미 나이가 들었다. 두 여인에게 따로 이름을 적지는 않았으나, 함께 붙인 글에는 이들이 비의에 입문하지 않은 사람들에 속한다고 적혀 있다.

[10.31.10] 이들보다 위에는 리카온의 딸 칼리스토와 노미아, 넬레우스의 딸 페로가 있다. 넬레우스는 딸을 아내로 맞으려면 이피클로스의 소 떼를 혼인 예물로 바치라고 했다. 칼리스토는 자리에 요 대신 곰 가죽을 깔았고, 노미아의 무릎 위에 발을 얹고 있다. 아르카디아인들이 노미아를 자기 고장의 님프라고 한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했다. 시인들에 따르면 님프들은 아주 오래 살지만, 마침내 죽음을 피하지는 못한다. 칼리스토와 그 곁의 여인들 다음에는 가파른 바위가 그려져 있다. 아이올로스의 아들 시시포스가 그 비탈 위로 바윗덩이를 밀어 올리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다.

[10.31.11] 그림에는 큰 독도 있고, 노인 한 사람과 소년 하나, 여자 두 사람도 있다. 여자 가운데 젊은 이는 바위 아래에 있고, 다른 이는 노인 옆에 있는데 그와 비슷한 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물을 나르고 있지만, 늙은 여자의 물항아리는 깨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녀는 깨진 조각에 남은 물을 모조리 독에 붓고 있다. 우리는 이들도 엘레우시스의 의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에 속한다고 보았다. 옛 그리스인들은 신들이 영웅들보다 높은 만큼이나 엘레우시스의 비의가 다른 모든 종교 의례보다 높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10.31.12] 그 독 아래에는 탄탈로스가 있다. 그는 호메로스가 말한 모든 고통에 더하여 머리 위에 매달린 바위의 공포까지 겪고 있다. 폴리그노토스가 아르킬로코스의 이야기를 따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르킬로코스가 바위 이야기를 남에게서 들었는지, 스스로 지어 자기 시에 넣었는지는 나도 모른다. 이 타소스 출신 화가의 그림에는 이렇듯 많은 인물이 그려져 있고, 아름다운 점도 그만큼 많다. periegesis.abm.uu.se

## 제32장

[10.32.1] 성역의 담에 잇닿은 곳에는 볼 만한 극장이 있다. 성역에서 올라가면 〔…〕 이곳에는 크니도스인들이 바친 디오니소스상이 있다. 경기장은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 본래 파르나소스 주변에서 가장 흔히 나는 돌로 지었으나, 아테나이인 헤로데스가 펜텔리

콘 대리석으로 다시 꾸몄다. 내 시대에 델포이에 남아 있는 것 가운데 기록할 만한 것은 이와 같다.

**[10.32.2]** 델포이에서 파르나소스 꼭대기로 가는 길에, 델포이에서 약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청동상이 있다. 코리키아 동굴까지는 노새나 말을 타고 오르기보다 발걸음이 가벼운 사람이 걸어서 오르기가 쉽다. 이 동굴이 코리키아라는 님프에게서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다. 내가 지금까지 본 동굴 가운데 이곳이 가장 볼 만했다.

**[10.32.3]** 해변이나 곧바로 깊어지는 바다를 향해 입구가 난 동굴은 그 수조차 알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스와 다른 나라에서 가장 이름난 동굴들은 다음과 같다. 펭켈라스강가에 사는 프리기아인들은 먼 옛날 아르카디아의 아잔인들 가운데서 이 지방으로 이주해 온 이들이다. 이들이 방문객에게 보여 주는 스테우노스라는 동굴은 둥글고, 높이 솟은 모양이 아름답다. 어머니 여신께 바쳐진 곳이며 그 여신의 신상도 있다.

**[10.32.4]** 라오디케이아 위쪽의 테미소니온에도 프리기아인들이 산다. 갈라티아군이 이오니아와 그 주변을 유린했을 때, 테미소니온 사람들은 헤라클레스와 아폴론과 헤르메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신들은 관리들의 꿈에 동굴 하나를 보여 주고, 테미소니온 사람들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 숨으라고 명했다.

**[10.32.5]** 그래서 그들은 동굴 앞에 헤라클레스와 헤르메스와 아폴론의 작은 신상들을 세우고 이 신들을 ‘동굴의 신들’이라는 뜻의 스펠라이타이라 부른다. 동굴은 도시에서 약 서른 스타디온 떨어져 있다. 그 안에는 샘물이 솟는다. 안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따로 없고, 햇빛도 그리 깊숙이 닿지 않으며, 천장은 대부분 바닥에 아주 가까이 내려와 있다.

**[10.32.6]** 레타이오스강가 마그네시아에도 ‘아울라이’, 곧 ‘전당들’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여기에는 아폴론에게 바쳐진 동굴이 있다. 동굴의 크기는 그다지 놀랍지 않으나, 아폴론상은 아주 오래되었고 어떤 일이든 해낼 만한 힘을 준다. 이 신에게 몸을 바친 사람들은 깎아지른 벼랑과 높은 바위에서 뛰어내리고, 아주 큰 나무를 뿌리째 뽑아 그 짐을 진 채 더없이 좁은 오솔길을 걸어간다.

**[10.32.7]** 코리키아 동굴은 내가 말한 동굴들보다 크다. 등불 없이도 그 안의 대부분을 지나갈 수 있다. 천장이 바닥에서 충분히 높고, 물은 일부 샘에서 솟지만 그보다 더 많은 양이 천장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동굴 곳곳의 바닥에 물방울 자국이 뚜렷하다. 파르나소스 주변에 사는 이들은 이 동굴이 코리키아의 님프들에게, 특히 판에게 신성하다고 믿는다. 코리키아 동굴에서 파르나소스의 높은 곳까지는 발걸음이 가벼운 사람도 오르기가 어렵다. 산꼭대기는 구름 위에 있으며, 티아스 여인들은 그곳에서 디오니소스와 아폴론을 기리며 열광한다.

**[10.32.8]** 파르나소스를 가로지르는 길로 가면 델포이에서 티토레아까지는 내가 짐작하기에 백팔십 스타디온쯤 된다. 줄곧 산길을 타지 않고 수레도 다닐 만한 길은 몇 스타디온 더 길다고 한다. 헤로도토스가 페르시아의 침공을 기록하면서 부른 도시 이름과 바키스가 신탁에서 부른 이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10.32.9]** 바키스는 그곳 주민들을 티토레아인이라 불렀다. 한편 헤로도토스의 기록에는 침략군이 진군해 오자 그곳 사람들이 산꼭대기로 피했고, 도시의 이름은 네온이며 티토레아

는 파르나소스의 봉우리 이름이었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 처음에는 티토레아가 그 일대에 붙은 이름이었으나, 세월이 지나 주민들이 여러 마을에서 옮겨 오면서 도시에도 티토레아라는 이름이 붙고 네온이라는 이름은 사라진 듯하다. 주민들은 티토레아가 같은 이름의 님프에게서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시인들의 말에 따르면, 옛날 나무에서, 특히 참나무에서 태어나던 님프들 가운데 하나였다.

**[10.32.10]** 내가 태어나기 한 세대 전에 신의 뜻으로 티토레아의 형편이 쇠했다. 극장 건물과 제법 오래된 아고라의 둘레가 남아 있다. 도시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아테나의 숲과 신전과 신상이다. 안티오페와 포코스의 무덤도 있다. 안티오페가 디오니소스의 노여움으로 미쳐 버린 일과 어떤 일로 신의 노여움을 샀는지는 테바이를 다룬 곳에서 이미 이야기했다.

**[10.32.11]** 또 오르니티온의 아들 포코스가 그녀에게 사랑을 품은 일, 그녀가 그와 혼인해 그와 함께 묻힌 일, 점술가 바키스가 이 무덤과 테바이의 제토스와 암피온의 무덤을 두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이야기했다. 도시에서 내가 이미 말한 것 밖에는 달리 볼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 티토레아 곁에는 주민들에게 식수를 주는 강이 흐른다. 그들은 강둑으로 내려가 물을 긷는다. 강의 이름은 카칼레스다.

**[10.32.12]** 티토레아에서 일흔 스타디온 떨어진 곳에는 창건자라는 뜻의 아르카게타스라 불리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있다. 티토레아인들은 그를 신으로 공경하며, 다른 포키스인들도 그에 못지않게 공경한다. 성역 안에는 신에게 탄원하러 온 이들과 그를 섬기는 이들의 거처가 있다. 가운데에는 신전과 돌로 만든 신상이 있다. 수염의 길이가 두 푸스를 넘는다. 신상 오른쪽에는 침상이 놓여 있다. 염소만 빼고 다른 어떤 짐승이든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 관례다.

**[10.32.13]**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 약 마흔 스타디온 떨어진 곳에는 이시스의 성역과 내실이 있다. 그리스인들이 이 이집트 여신을 위해 마련한 성소 가운데 가장 신성한 곳이다. 티토레아인들은 그 둘레에 사는 것을 옳지 않게 여기고, 이시스가 친히 꿈에 나타나 부르는 영예를 베푼 사람만 내실에 들어갈 수 있다. 마이안드로스강 위쪽의 도시들에서도 지하의 신들에 대해 같은 규칙을 지킨다. 신들은 내실에 들이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꿈으로 모습을 보여 준다.

**[10.32.14]** 티토레아인의 땅에서는 해마다 봄과 가을에 한 번씩 이시스의 축제가 열린다. 두 축제 모두 본날을 사흘째로 하여 첫날에, 들어갈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내실을 정화한다. 지난 축제 때 안으로 던져 넣은 것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 있으면 거두어 언제나 같은 자리에 묻는다. 우리가 헤아려 보니 내실에서 묻는 곳까지 두 스타디온이었다.

**[10.32.15]** 첫날에는 성소에서 이 일을 하고, 이튿날에는 장사꾼들이 갈대나 손에 잡히는 다른 재료로 자기들의 가판을 만든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장이 선다. 노예와 온갖 가축, 옷과 은과 금을 판다.

**[10.32.16]** 정오가 지나면 제사를 지낸다. 부유한 사람들은 소와 사슴을 바치고, 재산이 적은 사람들은 거위와 뿔닭을 바친다. 양과 돼지와 염소는 제물로 쓰지 않는 것이 관례다. 제

물을 불살라 내실로 들여보내는 사람들은 〔…〕 의식을 시작한 뒤 제물을 거친 아마포나 고운 아마포로 된 띠에 감아야 한다. 제물을 마련하는 방식은 이집트식이다.

**[10.32.17]** 바치기로 한 제물은 모두 행렬에 넣어 이끈다. 어떤 사람들은 제물을 내실로 들여보내고, 다른 이들은 내실 앞에서 가판을 불태우고는 서둘러 물러난다. 한 번은 내실로 내려갈 자격이 없는 불경한 사람이 화톳불이 타기 시작하자 무모한 호기심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에게는 온통 허깨비들이 보였고, 티토레아로 돌아와 자신이 본 일을 이야기하고는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10.32.18]** 나는 페니키아 사람에게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집트인들은 이시스가 오시리스를 애도한다고 하는 때에 이시스의 축제를 연다. 그 무렵 나일강의 물이 불어나기 시작한다. 이시스의 눈물 때문에 강이 불어 밭에 물을 댄다고 이야기하는 주민이 많다. 그 페니키아인에 따르면, 바로 그런 때에 이집트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어 콥토스의 이시스 내실로 내려가게 했다. 안으로 들어간 그 사람은 밖으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한 뒤 그 역시 곧 죽었다고 한다. 그러니 사람이 신을 눈앞에서 보는 일에는 좋은 결과가 없다는 호메로스의 구절이 옳은 듯하다.

**[10.32.19]** 티토레아의 올리브유는 아티카나 시키온의 것보다 적게 난다. 그러나 빛깔과 향미에서는 이베리아의 것이나 이스트리아섬의 것보다 낫다. 주민들은 그 기름으로 온갖 향유를 만들며 황제에게도 기름을 보낸다. periegesis.abm.uu.se

## 제33장

**[10.33.1]** 티토레아에서 나가는 또 다른 길은 레돈으로 이어진다. 레돈도 한때 도시로 여겨졌으나, 내 시대에는 레돈 사람들이 세력이 약해 도시를 버렸다. 케피소스강가에 사는 주민은 일흔 명쯤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거처에는 여전히 레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며, 주민들은 파노페우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포키스 공동 회의에 대표를 보낼 권리가 있다. 옛 레돈의 폐허는 케피소스강가에 자리 잡은 이들의 거처에서 위쪽으로 마흔 스타디온 더 가면 나온다. 도시 이름은 그 땅에서 태어난 어느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한다.

**[10.33.2]** 자기 시민이 지은 죄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은 도시들이 또 있다. 트로이아는 알렉산드로스가 메넬라오스에게 저지른 모욕 때문에 완전히 망했다. 밀레토스는 히스티아이오스가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해 망했다. 그는 한때 에도노이족 땅의 도시를 차지하고 싶어 했고, 또 한때는 다레이오스의 의논에 들고 싶어 했으며, 또 다른 때에는 이오니아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레돈에서는 필로멜로스가 저지른 불경한 행위의 벌을 그 도시 전체가 받았다.

**[10.33.3]** 릴라이아는 델포이에서 겨울날 하루 걸리는 거리에 있다. 파르나소스를 가로질러 내려가는 길로, 우리가 헤아리기에 백팔십 스타디온이었다. 도시가 재건된 뒤에도 주민들은 마케도니아인들의 손에 또 한 번 재앙을 겪을 운명이었다. 데메트리오스의 아들 필리포스에게 포위되자 그들은 조건을 맺고 항복했고, 도시에 수비대가 들어왔다. 그러다가 그 도시에서 태어난 파트론이라는 사람이 복무할 나이의 시민들을 모아 수비대에 맞섰다. 그

는 전투에서 마케도니아인들을 물리치고, 휴전 조건에 따라 그들을 철수하게 했다. 릴라이아인들은 이 공로에 보답하여 그의 상을 델포이에 봉헌했다.

**[10.33.4]** 릴라이아에는 극장과 아고라와 목욕탕도 있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성소가 하나씩 있다. 두 신의 상은 서 있는 모습이며, 아티카의 솜씨로 펜텔리콘에서 캐낸 대리석을 조각한 것이다. 릴라이아는 이른바 나이아스들 가운데 하나로, 케피소스강의 딸이었다고 한다. 도시는 이 님프의 이름을 땄다. 강의 수원도 이곳에 있다.

**[10.33.5]** 강물은 땅에서 항상 솟아나는 것은 아니다. 대개 한낮이 되면 솟구치면서 소리를 내는데, 그 물소리는 황소의 울음소리에 비길 만하다. 릴라이아는 가을과 여름과 봄에는 기후가 온화하다. 겨울도 그만큼 온화할 수 있었겠으나 파르나소스산이 그것을 가로막는다.

**[10.33.6]** 카라드라는 스무 스타디온 거리에 있으며 높은 바위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다. 주민들은 물이 부족하다. 마실 물은 카라드로스강에서 얻는데, 강에 닿으려면 세 스타디온쯤 내려가야 한다. 이 강은 케피소스강의 지류다. 내 생각에 도시는 카라드로스강의 이름을 땄다. 카라드라의 아고라에는 이른바 영웅들의 제단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디오스쿠로이의 것이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고장 영웅들의 것이라 한다.

**[10.33.7]** 케피소스강가의 땅은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고 가축을 먹이기에 포키스에서 단연 가장 좋다. 이 지역의 땅이 가장 많이 경작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그리고 신성한 케피소스강가에 사는 이들”이라는 구절이 ‘강가’라는 뜻의 도시 파라포타미오이가 아니라 케피소스강가의 농민을 가리킨다는 말이 있다.

**[10.33.8]** 그러나 그 말은 헤로도토스의 역사서와도, 피티아 경기의 우승 기록과도 어긋난다. 암픽티온 동맹이 피티아 경기를 처음 열었을 때, 파라포타미오이 사람 아이크메아스가 소년 권투에서 상을 받았다. 헤로도토스도 크세르크세스왕이 포키스에서 불태운 도시들을 열거하면서 파라포타미오이를 넣었다. 그러나 아테나이인들과 보이오티아인들은 파라포타미오이를 재건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가난하고 수도 적었으므로 다른 도시들에 나뉘어 들어갔다. 내가 보니 파라포타미오이의 폐허는 남아 있지 않았으며, 도시가 있었던 자리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10.33.9]** 릴라이아에서 암피클레이아까지는 예순 스타디온이다. 이 암피클레이아의 이름은 그곳 주민들이 바꾸어 놓았다. 헤로도토스는 가장 오래된 전승을 따라 암피카이아라 불렀으나, 암픽티온 동맹은 포키스 도시들의 철거를 명한 결의문에서 암피클레이아라고 썼다.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어느 지배자가 원수들이 자기 어린 아들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하여, 아이를 그릇에 넣고 자기 땅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아는 곳에 숨겼다. 늑대가 아이를 덮치려 했으나 뱀이 그릇을 몸으로 감고 철저히 지켰다.

**[10.33.10]**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뱀이 아이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창을 던지자 뱀과 그의 아들이 함께 죽었다. 목자들에게서 자기가 아이의 은인이자 보호자를 죽였다는 말을 듣고는, 뱀과 아들을 위해 한 장작더미를 쌓아 함께 화장했다. 주민들은 오늘날에도 그 자리가 타오르는 장작더미처럼 생겼다고 하며, 이 뱀 때문에 도시를 오피테이아라고 불렀다고 주장한다.

**[10.33.11]** 그들은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볼 만한 비의를 거행한다. 그러나 성소의 내실에는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있는 신상도 없다. 암피클레이아 사람들은 이 신이 자신들에게 앞일을 알려 주고 병이 나면 도와준다고 한다. 암피클레이아 사람들과 이웃 주민들의 병은 꿈을 통해 낫는다. 신의 신탁은 사제가 전하는데, 신에게 사로잡혔을 때 말한다.

**[10.33.12]** 암피클레이아에서 열다섯 스타디온 떨어진 평야에는 티트로니온이 있다. 기억해 둘 만한 것은 없다. 티트로니온에서 드리마이아까지는 스무 스타디온이다. 이 길과 암피클레이아에서 드리마이아로 곧장 가는 길이 케피소스강가에서 만나는 곳에, 티트로니온 사람들은 아폴론의 숲과 제단들을 마련해 두었다. 신전도 지었으나 신상은 없다. 암피클레이아에서 왼쪽으로 돌아 드리마이아까지는 팔십 스타디온이다. 〔…〕 헤로도토스의 기록에서는 그렇게 불리나, 더 옛날에는 나우볼레이스라 불렸다. 주민들은 아이아코스의 손자이자 포코스의 아들인 나우볼로스가 도시를 세웠다고 한다. 드리마이아에는 '법을 가져오는 이'라는 뜻의 데메테르 테스모포로스의 오래된 성소가 있다. 돌로 만든 입상이 있으며 해마다 여신을 기리는 테스모포리아 축제를 연다. periegesis.abm.uu.se

## 제34장

**[10.34.1]** 엘라테이아는 델포이를 빼면 포키스에서 가장 큰 도시다. 암피클레이아 맞은편에 있다. 암피클레이아에서 엘라테이아까지는 백팔십 스타디온으로, 대부분 평탄하지만 엘라테이아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잠시 오르막이 있다. 평야에는 케피소스강이 흐른다. 강둑을 따라 가장 흔히 사는 새는 느시다.

**[10.34.2]** 엘라테이아인들은 카산드로스 휘하의 마케도니아군을 물리쳤고, 미트리다테스의 장군 탁실로스가 쳐들어왔을 때도 화를 면했다. 그 공을 기려 로마인들은 그들에게 자기 땅에서 자유롭게 살며 세금을 면제받는 특권을 주었다. 엘라테이아 사람들은 자기네가 본래 외지 출신이라 하며, 옛날 아르카디아에서 왔다고 한다. 플레기아스인들이 델포이 성소를 향해 진군했을 때 아르카스의 아들 엘라토스가 신을 도우러 왔고, 군대와 함께 포키스에 남아 엘라테이아를 세웠다는 것이다.

**[10.34.3]** 엘라테이아도 페르시아인들이 불태운 포키스 도시들에 넣어야 한다. 다른 포키스인들과 함께 겪은 재앙도 있었으나, 운명이 마케도니아인들의 손을 빌려 엘라테이아에만 내린 재앙도 있었다. 카산드로스가 일으킨 전쟁에서는 마케도니아인들이 포위를 풀 수밖에 없게 한 공을 무엇보다 올림피오도로스에게 돌려야 한다. 데메트리오스의 아들 필리포스는 엘라테이아 주민들을 극도의 공포에 몰아넣는 한편, 유력 시민들을 돈으로 매수했다.

**[10.34.4]** 모든 그리스인에게 자유를 주라는 위임을 로마에서 받은 로마의 관직자 티투스는 엘라테이아에 옛 정체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전령을 보내 시민들에게 마케도니아에서 이탈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시민들이든 그들의 통치자들이든 어리석게도 필리포스에게 충성을 지켰고, 결국 로마인들은 도시를 포위하여 함락했다. 뒤에 엘라테이아인들은 미트리다테스의 장군 탁실로스가 이끄는 폰토스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버텨 냈다. 로마인들은 이 공로에 보답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10.34.5]** 내 시대에 그리스를 휩쓴 코스토보코이족의 약탈군은 여러 도시 가운데 엘라테이아에도 왔다. 므네시불로스라는 사람이 병력을 모아 침략자들을 여럿 죽였으나 그 자신도 전사했다. 이 므네시불로스는 달리기에서 여러 차례 상을 받았다. 제235회 올림피아 경기에서는 일반 달리기와 방패를 든 왕복 달리기에서 상을 받았다. 엘라테이아의 '달리기 선수들의 거리'에는 므네시불로스의 청동상이 서 있다.

**[10.34.6]** 아고라 자체도 볼 만하고 비석에 돋을새김으로 새긴 엘라토스의 모습도 볼 만하다. 이 돌을 창건자를 기리려고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의 무덤을 표시하는 묘석으로도 쓰려 했는지는 확실히 모른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세워져 있고 그 신은 수염이 있는 모습이다. 신상을 만든 이들은 아티카 태생의 조각가 티모클레스와 티마르키데스다. 도시 끝 오른쪽에는 극장과 오래된 청동 아테나상이 있다. 탁실로스 휘하의 침략자들과 싸울 때 이 여신이 그들을 도왔다고 한다.

**[10.34.7]** 엘라테이아에서 약 스무 스타디온 떨어진 곳에는 크라나이아라는 별칭을 지닌 아테나의 성소가 있다. 그리로 가는 길은 오르막이지만, 비탈이 아주 완만하여 걷기에 힘들지 않고 오르는 줄도 거의 모른다. 길 끝에는 언덕이 있다. 대부분이 가파른 벼랑이지만 아주 크거나 높지는 않다. 언덕에 성소가 세워져 있으며 주랑과 그 사이에 거처들이 있다. 여신을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그 우두머리는 사제다.

**[10.34.8]** 그들은 아직 사춘기에 이르지 않은 소년 가운데 사제를 뽑는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춘기를 맞지 않도록 미리 살핀다. 임기는 연속해서 다섯 해다. 그동안 사제는 여신 곁에서 지내며 옛 방식대로 통에서 목욕한다. 이 신상도 폴리클레스의 아들들이 만들었다. 여신은 싸움에 나설 듯 무장했고, 그 방패에는 아테나이인들이 '파르테노스', 곧 '처녀'라 부르는 여신상의 방패에 새긴 것과 같은 무늬가 돋을새김으로 새겨져 있다.

## 제35장

**[10.35.1]** 엘라테이아에서 아바이와 히암폴리스로 가려면 엘라테이아 오른쪽의 산길로 갈 수 있다. 오르코메노스에서 오푸스로 가는 큰길을 따라가도 두 도시에 닿는다. 그 큰길을 따라가다가 조금 왼쪽으로 돌면 아바이로 가는 길이 나온다. 아바이 사람들은 아르고스에서 포키스로 왔다고 한다. 도시는 창건자 아바스의 이름을 땄는데, 그는 린케우스와 다나오스의 딸 히페름네스트라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바이는 예부터 아폴론에게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으며, 여기에 이 신의 신탁소도 있었다.

**[10.35.2]** 아바이의 신이 페르시아인들에게 받은 대우는 로마인들이 그에게 표한 공경과 크게 달랐다. 로마인들은 아폴론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아바이에 자치의 자유를 주었다. 크세르크세스의 군대는 다른 성소들을 불태웠듯 아바이의 성소도 불태웠다. 침략군에 맞섰던 그리스인들은 그들이 불태운 성소를 다시 짓지 말고 그들에 대한 증오의 표지로 영원히 남겨 두기로 했다. 할리아르토스 땅의 신전들과, 팔레론으로 가는 길에 있는 아테나이의 헤라 신전과 팔레론의 데메테르 신전이 오늘날까지 반쯤 탄 채 남아 있는 까닭도 그 때문이다.

**[10.35.3]** 페르시아의 침공 뒤 아바이의 성소도 그런 모습이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다가 포키스 전쟁 때 전투에서 패한 포키스인 몇이 아바이로 피신했다. 테바이인들은 피신한 사람들에게 불을 질렀고 성소도 함께 태웠다. 그렇게 성소는 두 번째로 불탔다. 그런데도 내 시대까지 서 있었다. 불에 상한 건물 중에서도 가장 위태로운 모습이었다. 페르시아의 방화자들이 시작한 파괴를 보이오티아의 방화자들이 마저 끝냈기 때문이다.

**[10.35.4]** 큰 신전 옆에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아폴론을 위해 지은, 그보다 작은 신전이 있다. 신상들은 더 옛날에 아바이인들이 직접 봉헌한 것들이다. 아폴론과 레토와 아르테미스 모두 청동으로 만든 입상이다. 아바이에는 옛날에 지은 극장과 아고라도 있다.

**[10.35.5]** 오푸스로 곧장 가는 길로 돌아오면 다음에는 히암폴리스에 이른다. 이름만 들어도 주민들이 본래 누구였으며 어디에서 쫓겨나 여기로 왔는지 알 수 있다. 카드모스와 그의 군대를 피해 달아난 테바이의 히안테스인들이 이곳으로 왔기 때문이다. 예전에 이웃 사람들은 ‘히안테스인들의 도시’라 불렀으나, 세월이 지나 히암폴리스라는 이름이 더 널리 쓰이게 되었다.

**[10.35.6]** 크세르크세스가 도시를 불태우고, 뒤에 필리포스가 평지로 깎아 버렸으나, 옛 아고라의 구조와 그리 크지 않은 평의회 건물, 그리고 성문에서 멀지 않은 극장은 남아 있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주랑을 지었다. 주랑은 그것을 바친 황제의 이름으로 불린다. 시민들에게는 우물이 하나뿐이다. 겨울에 빗물을 받는 것 외에는 마시는 물도 씻는 물도 모두 이 우물에서 얻는다.

**[10.35.7]** 그들은 어떤 신보다 아르테미스를 높이 섬기며, 그 여신의 신전도 가지고 있다. 그곳의 규율에 따르면 성소는 해마다 두 번만 열기 때문에 신상의 모습을 나는 설명할 수 없다. 그들은 아르테미스에게 바친 소는 병에 걸리지 않고 다른 소보다 살이 더 오른다고 한다.

**[10.35.8]** 카이로네이아에서 포키스로 넘어가는 길에는 파노페우스를 거쳐 다울리스와 갈라진 길을 지나 델포이로 곧장 가는 길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 그 길은 거칠고 대부분 산을 지나며, 카이로네이아에서 포키스의 도시 스티리스로 이어진다. 그 길의 길이는 백이십 스타디온이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혈통으로는 아테나이인이라고 주장한다. 오르네우스의 아들 페테우스가 아이게우스에게 아테나이에서 쫓겨날 때 그를 따라 아티카에서 왔다는 것이다. 페테우스를 따른 이들의 대부분이 스티리아 데모스 출신이어서 도시에 스티리스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10.35.9]** 스티리스 사람들은 높고 바위가 많은 곳에 집을 두고 산다. 그 때문에 여름에 물 부족을 겪는다. 우물은 적고 그 물도 좋지 않다. 이 우물들은 사람들이 씻을 물과 짐승에게 먹일 물을 댄다. 주민들이 마실 물은 네 스타디온쯤 내려가 샘에서 긷는다. 샘은 바위에 파놓은 구덩이 안에 있고, 그들은 물을 길으러 그 안으로 내려간다.

**[10.35.10]** 스티리스에는 스티리아라는 별칭을 지닌 데메테르의 성소가 있다. 성소는 굽지 않은 벽돌로 지었다. 펜텔리콘 대리석으로 만든 신상은 여신이 횃불을 든 모습이다. 그 곁에는 띠를 둘러맨 데메테르상이 있는데, 현존하는 어느 데메테르상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오래되었다.

## 제36장

[10.36.1] 스티리스에서 암브로소스까지는 여섯 스타디온쯤 된다. 길은 평탄하며 양쪽에 산이 있다. 평야 대부분은 포도밭이다. 암브로소스 지방에는 관목도 자라는데, 포도나무처럼 촘촘히 서 있지는 않다. 이오니아인들과 다른 그리스인들은 이 관목을 '코코스'라 부르고, 프리기아 위쪽의 갈라티아인들은 자기 말로 '휘스'라 부른다. 코코스는 이른바 람노스라는 나무만큼 자란다. 잎은 유향나무의 잎보다 빛깔이 짙고 부드러우며, 그 밖의 점에서는 두 나무가 비슷하다.

[10.36.2] 그 열매는 까마중의 열매를 닮았고 크기는 쓴살갈퀴의 씨만 하다. 코코스의 열매 속에는 작은 벌레가 생긴다. 열매가 익었을 때 벌레가 밖으로 나오면 날벌레 같은 모습이 되어 곧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벌레가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에 코코스 열매를 거둔다. 벌레의 피는 양털을 물들이는 데 쓰인다.

[10.36.3] 암브로소스는 파르나소스산 기슭에서 델포이의 반대편에 있다. 암브로소스라는 영웅에게서 도시 이름이 나왔다고 한다. 테바이인들은 필리포스와 그의 마케도니아군을 상대로 전쟁에 나서면서 암브로소스에 이중 성벽을 둘렀다. 그 고장의 검고 매우 단단한 돌로 만들었다. 성벽은 한 겹마다 너비가 한 오르기아에 조금 못 미치고, 허물어진 곳을 빼면 높이는 두 오르기아 반이다.

[10.36.4] 안팎 성벽 사이의 거리는 한 오르기아다. 망루나 성가퀴를 세우거나 무슨 장식을 하는 일에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다. 시민들이 성벽을 쌓으면서 바란 것은 당장의 방어뿐이었기 때문이다. 암브로소스에는 작은 아고라가 있다. 그곳에 세운 석상은 대부분 부서져 있다.

[10.36.5] 안티키라로 가는 길은 처음에는 오르막이다. 비탈을 두 스타디온쯤 오르면 평평한 곳이 나오는데, 길 오른쪽에는 딕틴나라는 별칭을 지닌 아르테미스의 성소가 있다. 암브로소스 사람들은 이 여신을 지극히 공경한다. 신상은 아이기나의 솜씨로 검은 돌을 깎아 만들었다. 딕틴나 여신의 성소부터 안티키라까지는 줄곧 내리막이다. 옛날 도시 이름은 키파리소스였다고 한다. 호메로스는 포키스인들을 열거할 때 굳이 옛 이름으로 불렀다고 한다. 안티키레우스가 헤라클레스와 같은 시대 사람이었으므로 호메로스가 살 때는 이미 안티키라라 불렸을 터인데도 그렇게 했다.

[10.36.6] 도시는 메데온의 폐허 맞은편에 있다. 안티키라 사람들이 델포이 성소를 모독한 죄가 있었다는 것은 포키스 이야기의 첫머리에서 언급했다. 그들은 아민타스의 아들 필리포스에게 고향에서 쫓겨났고, 뒤에는 로마인 오틸리우스에게 또 한 번 쫓겨났다. 그들이 마케도니아의 왕 데메트리오스의 아들 필리포스에게 복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는 아테나이인들이 필리포스와 싸우는 것을 도우려고 오틸리우스를 보냈다.

[10.36.7] 안티키라 너머의 산에는 바위가 많고 헬레보로스가 아주 풍성하게 자란다. 검은 헬레보로스를 먹으면 대변이 나와 장을 비운다. 흰 종류는 토하게 하여 몸속을 비우는 성질이 있다. 이처럼 몸속을 비우는 약으로 쓰는 것은 헬레보로스의 뿌리다.

[10.36.8] 안티키라의 아고라에는 청동상들이 있고, 항구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지은 포세이돈의 작은 성소가 있다. 안쪽 벽에는 회반죽을 발랐다. 청동으로 만든 신상은 서서 한쪽 발을 돌고래 위에 얹었다. 그쪽 손은 넓적다리에 얹고, 다른 손에는 삼지창을 쥐고 있다.

[10.36.9] 목욕 시설을 갖춘 체육장 맞은편에는 오래된 체육장이 하나 더 있고, 그 안에 청동상이 서 있다. 비문에 따르면 안티키라의 크세노다모스가 올림피아의 성인 판크라티온 경기에서 이겼다. 비문이 사실이라면 그는 제211회 올림피아 경기에서 야생 올리브관을 받은 듯하다. 그런데 엘리스의 기록에는 유독 이 대회만 빠져 있다.

[10.36.10] 아고라 너머에는 물이 솟는 우물이 있다. 우물 위에는 햇볕을 가리는 지붕을 얹고 기둥들로 받쳤다. 우물에서 조금 더 위에는 닥치는 대로 주워 온 돌로 쌓은 무덤이 있다. 이피토스의 아들들이 여기에 묻혔다고 한다. 한 사람은 트로이아에서 무사히 돌아와 고향에서 죽었다. 다른 사람인 스케디오스는 트로아스에서 죽었으나 유골은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 제37장

[10.37.1] 도시에서 두 스타디온쯤 가면 오른편에 산의 일부를 이루는 높은 바위가 있다. 그 위에 아르테미스의 성소가 세워져 있다. 아르테미스상은 프락시텔레스의 작품 가운데 하나다. 여신은 오른손에 횃불을 들고 어깨에 화살통을 멨으며, 왼쪽에는 개 한 마리가 있다. 신상은 키가 가장 큰 여자보다도 더 크다.

[10.37.2] 포키스 땅에 이웃한 곳으로 이주민들을 이끈 불론의 이름을 딴 땅이 있다. 옛 도리스의 여러 도시에서 온 이주민들이 함께 세운 곳이다. 불리스 사람들에 관해서는 필로멜로스와 포키스인들의 〔…〕 공동 회의에 관한 이야기가 전한다. 보이오티아의 티스베에서 불리스까지는 팔십 스타디온이다. 그러나 포키스의 안티키라에서 불리스로 육로가 통하기나 하는지는 모르겠다. 안티키라와 불리스 사이의 산이 그토록 거칠고 넘기 어렵다. 안티키라에서 불리스의 항구까지 바닷길로 백 스타디온이며, 항구에서 불리스까지 육로는 우리가 짐작하기에 일곱 스타디온쯤 된다.

[10.37.3] 이곳에서는 주민들이 헤라클레이오스라 부르는 급류가 바다로 흘러든다. 불리스는 높은 곳에 있으며, 안티키라에서 코린토스 땅의 레카이온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난다. 주민의 절반 이상은 자줏빛 물감을 내는 조개를 잡는다. 불리스의 건물들은 그리 놀랍지 않다. 아르테미스의 성소와 디오니소스의 성소가 하나씩 있다. 신상은 나무로 만들었으나 누가 만든 것인지는 알아볼 수 없었다. 불리스 사람들이 가장 높이 섬기는 신을 그들은 ‘가장 위대한 이’라 부른다. 내 생각에는 제우스의 별칭이다. 불리스에는 사우니온이라는 샘이 있다.

[10.37.4] 델포이에서 그 항구인 키라까지는 육십 스타디온이다. 평야로 내려가면 경마장이 있다. 피티아 경기 때 말들이 겨루는 곳이다. 올림피아에서 말들을 놀라게 하는 타락시포스 이야기는 엘리스에 관해 쓸 때 이미 했다. 아폴론의 경마장에서도 이따금 전차를 모는 사람이 해를 입을 수는 있을 것이다. 신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더 좋은 운이나 더 나쁜

운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마장 자체에는 영웅 때문이든 다른 까닭에서든 말을 놀라게 할 만한 것이 없다.

**[10.37.5]** 키라에서 시작되는 평야에는 나무가 전혀 없고 주민들도 나무를 심으려 하지 않는다. 그 땅에 저주가 내려서인지, 나무가 자라기에 땅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인지 모르겠다. 키라에 관해서는 〔…〕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곳이 오늘날의 이름을 키라에게서 얻었다고 한다.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와 아폴론에게 바친 찬가에서 모두 이 도시를 옛 이름인 크리사라 부른다. 훗날 키라 사람들은 아폴론에게 여러 불경한 짓을 저질렀으며, 특히 신의 영토 얼마를 자기네 땅으로 떼어 갔다.

**[10.37.6]** 그래서 암픽티온 동맹은 키라 사람들과 전쟁하기로 하고 시키온의 참주 클레이스테네스에게 군대를 맡겼으며, 아테나이에서 솔론을 데려와 조언을 구했다. 이길 수 있을지 신탁소에 물었을 때 피티아가 이렇게 대답했다.

> 푸른 눈의 암피트리테가 포도주빛 바다 위에서
> 으르렁대며 보낸 파도가 내 성역에 부딪힐 때까지는,
> 너희가 이 도시의 망루를 빼앗아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솔론은 키라의 영토를 신에게 바치도록 사람들을 설득했다. 그렇게 하면 바다가 아폴론의 성역에 바로 닿게 되기 때문이었다.

**[10.37.7]** 솔론은 키라 사람들을 이기려고 또 다른 계책을 냈다. 플레이스토스강 물은 수로를 따라 도시로 들어갔는데, 솔론은 물길을 다른 쪽으로 돌렸다. 키라 사람들이 우물물과 빗물을 마시며 여전히 포위군을 버텨 내자, 솔론은 플레이스토스강에 헬레보로스 뿌리를 던져 넣었다. 물에 약 기운이 충분히 배었다고 보자 다시 수로로 물을 돌렸다. 키라 사람들은 그 물을 실컷 마셨다. 성벽을 지키던 이들은 설사가 멎지 않아 자리를 버렸고,

**[10.37.8]** 암픽티온 동맹은 도시를 함락했다. 그들은 신을 대신하여 키라 사람들에게 벌을 주었다. 키라는 델포이의 항구다. 볼 만한 것 가운데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와 레토의 신전이 있다. 아주 큰 신상들은 아티카의 솜씨다. 키라 사람들은 같은 곳에 아드라스테이아상도 세웠지만 다른 신상들만큼 크지는 않다. Icarus Atlas

## 제38장

**[10.38.1]** 키라 맞은편에서 포키스와 맞닿은 곳은 오졸리스라 불리는 로크리스인들의 땅이다. 이 로크리스인들의 별칭에 관해 여러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독자들에게 모두 들려주겠다. 그 땅의 왕인 데우칼리온의 아들 오레스테우스에게 암캐 한 마리가 있었다. 그 암캐는 강아지 대신 나뭇가지 하나를 낳았다. 오레스테우스가 땅에 묻었더니 봄에 거기서 포도나무가 자랐다고 한다. 주민들은 그 나뭇가지에 돋은 가지들, 곧 ‘오조이’에서 이름을 얻었다는 것이다.

**[10.38.2]** 다른 이들은 에우에노스강에서 나룻배를 몰던 네소스가 헤라클레스에게 상처를 입고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아 이 땅으로 달아났다고 본다. 죽은 뒤 시신이 묻히지 않은 채 썩어 그곳 공기에 고약한 냄새를 풍겼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어느 강에서 올라오

는 수증기와 강물 자체에서 묘한 냄새가 난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는 아스포델로스가 아주 많이 자라 꽃이 필 때 〔…〕 그 냄새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10.38.3]**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맨 처음 이곳에 산 사람들은 토착민이었다. 그들은 아직 옷감을 짤 줄 몰라 추위를 막으려고 무두질하지 않은 짐승 가죽을 입었다. 보기에 좋으라고 털이 난 쪽을 바깥으로 향하게 했다. 그러니 그들의 몸에도 짐승 가죽만큼이나 고약한 냄새가 배었을 것이다.

**[10.38.4]** 델포이에서 백이십 스타디온 떨어진 암피사는 로크리스에서 가장 크고 이름난 도시다. 주민들은 오졸리스인이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여겨 자기들이 아이톨리아인이라고 주장한다. 로마 황제가 새 도시 니코폴리스를 세우려고 아이톨리아인들을 고향에서 내보냈을 때,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암피사로 갔다는 사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암피사 주민들의 본래 혈통은 로크리스인이다. 도시 이름은 아이올로스의 손녀이자 마카르의 딸인 암피사에게서 나왔다고 한다. 아폴론은 그녀를 사랑했다고 한다.

**[10.38.5]** 도시는 아름답게 지어졌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암피사의 무덤과 안드라이몬의 무덤이다. 안드라이몬의 아내인 오이네우스의 딸 고르게도 그와 함께 묻혔다고 한다. 암피사의 아크로폴리스에는 아테나 신전과 청동 입상이 있다. 토아스가 트로이아를 함락하고 얻은 전리품 가운데 하나로 그곳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

**[10.38.6]**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모스의 두 사람, 필라이오스의 아들 로이코스와 텔레클레스의 아들 테오도로스가 청동을 가장 훌륭하게 주조하는 법을 알아냈으며, 그들이 처음으로 청동을 주조했다. 나는 테오도로스의 작품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적어도 청동 작품은 보지 못했다. 그러나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성소에서 그림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면, ‘첫 자리에 앉은 이’라는 뜻의 프로토트로니아 아르테미스의 제단 위쪽에 돌담이 있다. 담 위에 세워 놓은 상들 가운데 맨 끝에 여자상이 하나 있다. 로이코스가 만든 작품이며 에페소스인들은 그것을 ‘밤’이라 부른다.

**[10.38.7]** 한눈에 보아도 이 상은 암피사의 아테나상보다 더 오래되었고 솜씨도 더 거칠다. 암피사인들은 이른바 ‘소년 왕들’인 아낙테스를 기리는 비의도 거행한다. 이 소년 왕들이 어떤 신들인지에 대해서는 그들의 이야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디오스쿠로이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쿠레테스라 한다. 더 잘 안다고 자처하는 이들은 카베이로이라고 여긴다.

**[10.38.8]** 이 로크리스인들에게는 다음 도시들도 있다. 암피사에서 내륙으로 더 들어간 높은 곳에 미오니아가 있으며, 암피사에서 서른 스타디온 거리다. 올림피아의 제우스에게 방패를 바친 미아네스인들이 바로 이들이다. 도시는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자애로운 신들이라는 뜻의 테오이 메일리키오이의 숲과 제단이 있다. 메일리키오이에게는 밤에 제사를 올리고, 해가 뜨기 전에 그 자리에서 제물의 고기를 다 먹는 것이 규율이다. 도시 너머에는 포세이도니온이라 불리는 포세이돈의 성역이 있고 그 안에 포세이돈 신전이 있다. 신상은 내 시대 이전에 이미 사라졌다.

**[10.38.9]** 이들은 이렇게 암피사 위쪽에 산다. 해안에는 오이안테이아가 있고 나우팍토스가 그 이웃이다. 암피사를 제외한 이 도시들은 파트라이의 아카이아인들이 다스린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파트라이인들에게 그 권리를 준 것이다. 오이안테이아에는 아프로디테의 성소가 있다. 도시에서 조금 더 가면 소나무가 섞여 자라는 키파리소스 숲이 있다. 그 숲에는 아르테미스 신전과 신상이 있다. 벽의 그림들은 세월에 빛이 바래어 내가 갔을 때는 볼 만한 것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10.38.10]** 오이안테이아의 이름은 어느 여자나 님프에게서 나온 듯하다. 나우팍토스의 경우, 아리스토마코스의 아들들이 이끈 도리스인들이 펠로폰네소스로 건널 때 탄 배를 이곳에서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이름을 얻었다고 들었다. 아테나이인들이 로크리스인들에게서 나우팍토스를 빼앗아 라케다이몬에 지진이 났을 때 이토메로 물러났던 이들의 정착지로 준 일, 그리고 아테나이인들이 아이고스포타모이에서 참패한 뒤 라케다이몬인들이 나우팍토스에서 메세니아인들을 쫓아낸 일은 메세니아를 다룬 곳에서 이미 자세히 이야기했다. 메세니아인들이 쫓겨난 뒤 로크리스인들은 다시 나우팍토스에 모였다.

**[10.38.11]** 그리스인들이 『나우팍토스의 노래』라 부르는 서사시는 대부분 밀레토스의 어느 시인이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피테스의 아들 카론은 나우팍토스의 카르키노스가 지은 작품이라고 말한다. 나도 람프사코스 사람인 카론의 말에 동의한다. 밀레토스 작가가 여자들을 주제로 지은 시에 무슨 까닭으로 『나우팍토스의 노래』라는 이름을 붙였겠는가?

**[10.38.12]** 이곳 해안에는 포세이돈 신전과 청동 입상이 있다. 아르테미스 성소에는 흰 대리석으로 만든 신상이 있다. 여신은 투창을 던지는 자세이며 '아이톨리아의 여신'이라는 뜻의 아이톨레라는 별칭이 있다. 한 동굴에서는 아프로디테를 숭배한다. 사람들은 갖가지 까닭으로 그 여신에게 기도한다. 특히 남편을 잃은 여자들이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빈다.

**[10.38.13]** 아스클레피오스 성소는 내가 갔을 때 폐허였으나, 본래 팔리시오스라는 개인이 세웠다. 그는 눈병을 앓아 거의 앞을 보지 못했다. 그때 에피다우로스의 신이 여류 시인 아니테를 그에게 보냈고, 아니테는 봉인된 서판을 가지고 갔다. 아니테는 처음에 신이 나타난 일이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깨어 있는 동안 본 환시였음을 알게 되었다. 자기 손에 봉인된 서판이 들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배를 타고 나우팍토스로 와서 팔리시오스에게 봉인을 떼고 적힌 것을 읽으라고 했다. 팔리시오스는 그 상태의 눈으로 글씨를 읽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도 아스클레피오스에게서 어떤 도움을 받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봉인을 뗐다. 밀랍판을 보자 그는 시력을 되찾았고, 서판에 적힌 대로 아니테에게 금 이천 스타테르를 주었다. Icarus Atlas

**『그리스 여행기』 끝.**

# 판본과 번역 주

W. H. S. 존스와 H. A. 오머로드의 로브 영어 번역(1918–1935)을 기본 대조본으로 삼았으며, 일부 대목은 프리드리히 슈피로의 그리스어 판본(1903)과 대조했다. Digital Periegesis · Perseus Digital Library 그리스어 판본

제8권 37–54장은 합본을 만들면서 보충하여 번역했다. 본문과 인용시, 비문을 절 번호에 따라 수록했다.

- 6.8.5의 인명은 전하는 본문의 차이를 그대로 옮겼다. 앞에서는 크리토다모스, 조각가를 밝히는 문장에서는 다모크리토스라고 되어 있다.
- 7.8.9의 아탈로스 대목과 7.10.5의 ‘마케도니아인들’은 대조한 그리스어 본문을 따랐다. 7.16.10의 제160회 올림피아 경기는 파우사니아스가 기록한 연대 표기를 그대로 옮겼다. Icarus Atlas
- 8.3.5–7은 Perseus의 슈피로 그리스어 판본에 맞추어 절을 나누었다. 영어 대조본에서 8.3.5 끝에 붙은 칼리스토 이야기의 첫 부분이 8.3.6이고, 영어 대조본의 8.3.6은 8.3.7이다.
- 〔…〕는 7.23.8과 8.3.3에서 확정하기 어려운 대목을 표시한다. 8.3.4의 ‘리케우스’는 대조한 그리스어 판본의 독법을 따랐다. Icarus Atlas
- 8.13.1의 〔…〕는 문장 연결이 불확실한 곳이다. 8.10.2의 ‘1스타디온 남짓’과 8.19.1의 지명 ‘루소이’는 대조한 그리스어 본문을 따랐다. Icarus Atlas
- 〔…〕는 전해지는 문장이 끊기거나 뜻을 확정하기 어려운 곳이다. 8.26.6의 ‘트리톤 강’, 8.28.5의 ‘옵스의 아들 멜라스’, 8.31.2의 제작자 ‘다모폰’, 8.34.3의 성소 이름 ‘쿠레이온’은 대조한 그리스어 본문에 따라 옮겼다. Icarus Atlas
- 〔…〕는 9.2.5, 9.8.1, 9.8.5에서 문장이 끊기거나 뜻을 확정하기 어려운 곳이다. 9.7.3에서 데메트리오스의 도움으로 안티파트로스를 몰아낸 인물은 그리스어 본문에 따라 막내아들 알렉산드로스로 옮겼다. academia.edu
- 〔…〕는 9.26.8과 9.35.3에서 전해지는 문장이 끊기거나 뜻을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9.21.1의 **바트라키온**은 작은 개구리와 미나리아재비류 식물을 모두 가리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서로 엉킨 머리털에 빗댄 문맥에 따라 수초로 해석했다. Icarus Atlas
- 10.17.4의 ‘카미코스’는 전승 본문이 불확실한 지명의 복원 독법을 따랐다. 10.22.1의 대괄호는 문맥상 보충한 부분이다.